韓國戰爭史

第 4 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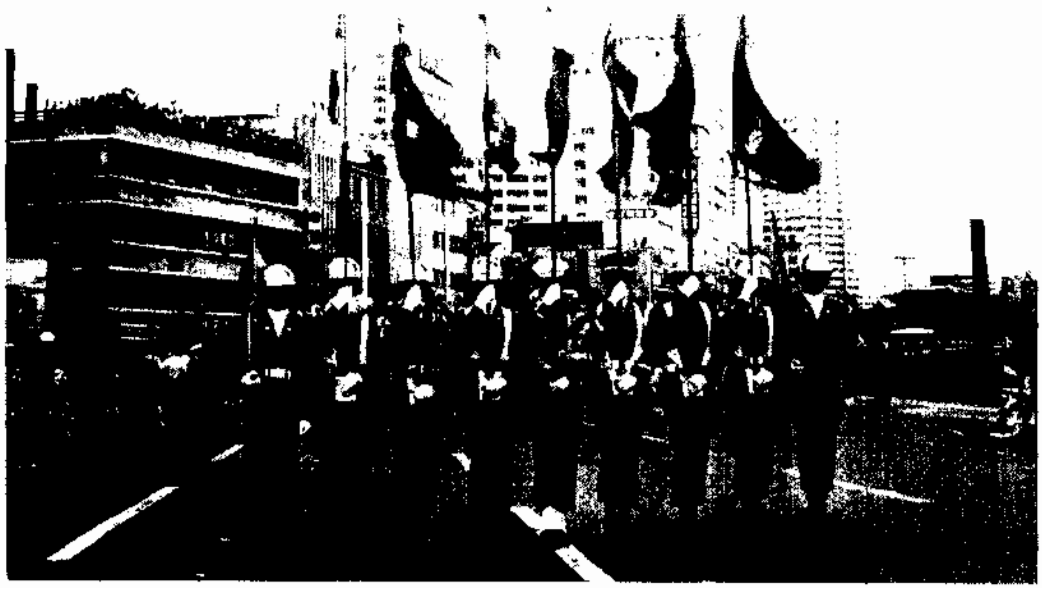
總反擊作戰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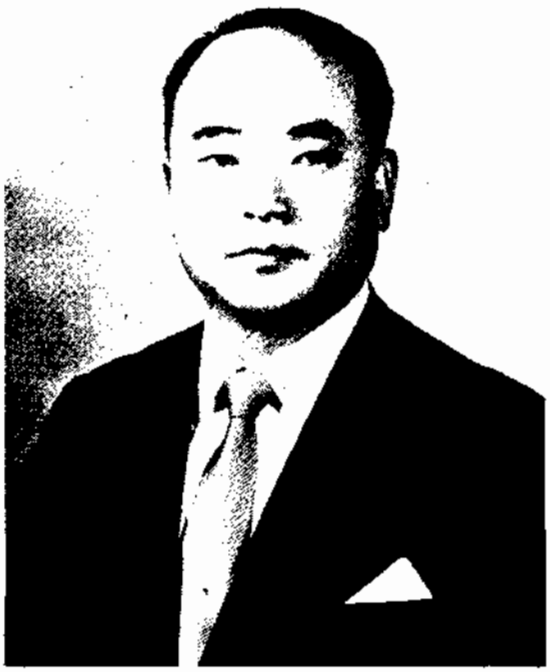
(1950. 9. 15~11. 30)

國　防　部

大統領 朴 正 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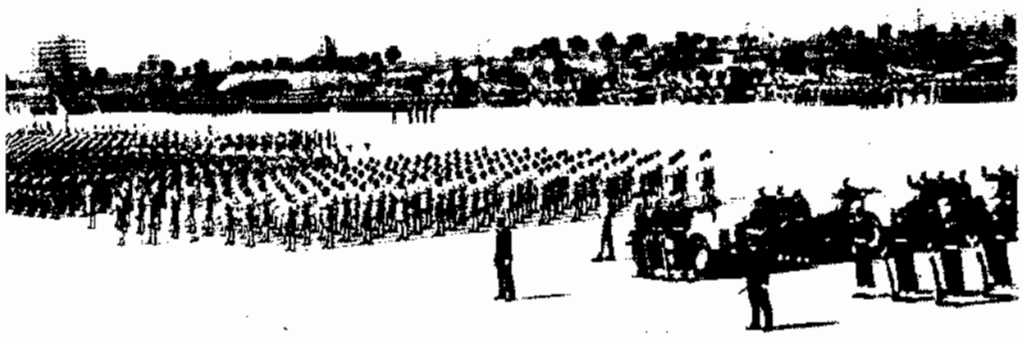
國防部　長官　劉　載　興





國防部　次官　柳　根　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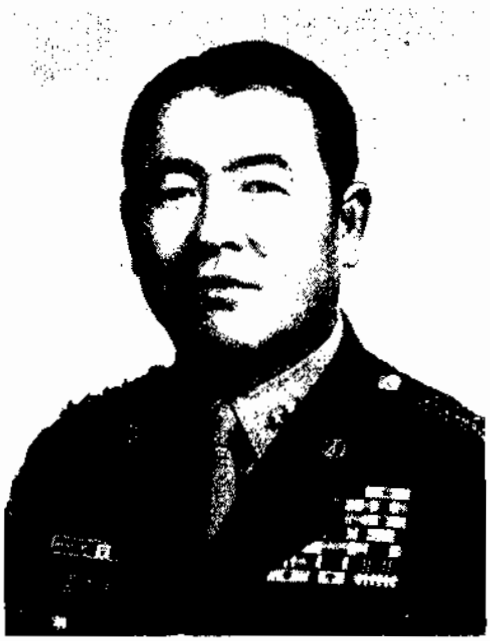
合同參謀本部　議長　陸軍大將　沈　興　善



陸軍參謀總長　陸軍大將　徐　鍾　喆

海軍參謀總長　海軍大將　張　志　洙

空軍參謀總長　空軍大將　玉　滿　鎬



海兵隊司令官　海兵大將　李　丙　文

序　　文

韓國戰爭은 이 나라의 同族相殘을 빚게 한 民族의 悲劇이었으며, 世界의 自由陣營과 共産陣營이 最初로 武力衝突한 戰亂으로써 世界史의 潮流에 하나의 分岐點을 이루었읍니다.

이와같은 韓國戰爭을 實證的이고도 客觀的으로 硏究하고 評價함으로써 韓國現代史의 性格과 現實世界를 올바르게 理解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座標를 提示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찌가 國內外에서는 韓國戰爭에 關한 斷片的인 硏究를 한 바 있으나, 韓國戰爭에 對한 具體的이고도 綜合的인 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硏究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實相을 提示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國內外를 莫論하고 韓國戰爭에 關한 體系的인 硏究가 切實하게 要請되어 왔으나, 이에 副應하고자 그 동안 常部 戰史編纂委員會에서는 많은 險路를 克服하면서 1967年에 第一卷(解放과 建軍)을 刊行한데 이어, 1968年에 第二卷(北韓 傀儡軍의 南侵), 1970年에 第三卷(洛東江防禦作戰期)을 發刊하였으며, 今年에는 本 第四卷(總反擊作戰期)을 出刊하게 되었읍니다.

本 第四卷은 仁川上陸作戰과 洛東江戰線에서 鴨綠江과 豆滿江畔에 이르는 總反擊期를 體系化한 것으로써 韓國戰爭에 對한 綜合的이고도 具體的인 實相을 提示한 것입니다.

本 第四卷 編纂에 있어서 多數의 參戰者들로 부터 生生한 資料를 蒐集할 수 있었으나, 여러가지 制約된 與件으로 因하여 不充實한 點이 없지 않을 것으로 思料되는 바, 各界 諸賢과 參戰將兵들의 忌憚없는 叱正과 協調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史 編纂을 爲해 수고하신 戰史編纂委員長과 關係官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하며 本史發刊의 意義가 具顯되도록 이를 活用하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1971年　12月　15日

國防部長官　劉　載　興

發　刊　辭

이제 韓國戰爭史 第4卷을 펴내게 되었읍니다.

本 第4卷에서는 我軍의 總反擊戰을 다루었으니, 洛東江防禦線으로부터의 총반격에서 시작하여 38°線以南地域의 收復, 38°線의 突破와 北進, 그리고 元山 및 平壤奪還戰과 韓·滿國境—惠山鎭·楚山까지의 進擊 등입니다. 즉, 敵侵 3個月에 드디어 이를 격퇴하고, 待望의 國土統一을 눈 앞에 두었던, 全韓國戰爭 기간을 통하여 가장 光彩있는 作戰期의 壯快한 進擊狀況을 수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8°線 突破에 대한 우리의 決意와 국제적 論議가 整理, 收錄되어, 戰鬪 自體만이 아니라 이를 圍繞한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하여도 일단의 考究를 試圖한 셈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本 第4卷에서 다룬 기간의 史實은 전쟁의 勝敗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교훈은 물론, 韓國戰爭의 歷史的 意義, 나아가서는 世界史的 潮流 속에서 韓國現代史의 위치를 究明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里程標가 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저희 編纂 담당자들은 임무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여, 보다 정확한 事實을 객관적인 태도로써 기술하여 올바른 史實을 後世에 전해 주어야 겠다는 使命感 아래 本 戰史의 편찬에 노력하였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休戰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한편 많은 자료가 湮滅되어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성공하였는지 一抹의 두려움을 금할 길 없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注力함으로써 本戰史를 보다 特色있게 꾸미려고 힘 썼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즉 本 戰史는 첫째로, 이미 第3卷부터 別冊으로 만들고 있읍니다만, 第4卷에서도 전투경과를 要圖上에 되도록 구체적으로 옮겨 놓았읍니다. 要圖 만으로도 전투경과는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많은 參戰장병들이 생존해 있는 만큼, 參戰者의 證言을 통하여 보다 生生한

史實을 발견코자 힘 썼읍니다. 관계 기록의 부족을 이로써 보충한다는 面이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다 많은 參戰者들로부터 證言을 청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째, 당시의 관계 지휘관을 밝히도록 留意하였읍니다. 이는 책임과 명예를 함께 밝히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째, 本文을 서술함에 있어서 되도록 平易한 文章을 쓰도록 하였읍니다.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째, UN軍의 活動狀況을 빠짐없이 收錄코자 노력하였읍니다. 그것은 赤都 平壤의 奪還이라던가 東部戰線의 快速進擊과 美 제10군단의 上陸戰을 必要치 않도록 한 元山奪還 등 我軍의 勇戰奮鬪相이 本卷의 가장 主要한 내용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美軍을 위시한 UN軍의 役割이 過少評價되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警察은 後方警備는 물론, 敵의 유격대 및 殘敵 掃滅에서 一線 전투까지 참가한 바 있으므로 경찰활동을 各期 전투마다 취급하였읍니다.

以上의 여섯 가지 특색에 대하여는 앞으로 刊行될 各卷에서도 계속 注力할 뿐 아니라, 아직 우리의 眼目이 미치지 못한 面도 개발하여 조금이라도 더 나은 戰史를 꾸미기에 힘쓰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이 겪은 전쟁이니만큼 우리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本 戰史 編纂에 대한 高見의 提示와 부족한 점에 대한 깨우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戰史에 관하여서는 아직 荒蕪地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현상에서 이만한 戰史를 發刊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넓으신 上司의 理解와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삼가 祖國 守護를 위하여 散華하신 장병들의 冥福을 비는 바입니다.

1971年 12月 25日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委員長 李 炯 錫

凡　　例

1. 이 제4권은 제3권에 이어 종래의 체재를 바꾼 것이 더러 있다. 이는 제1, 제2권의 미흡한 點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펴 내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권의 이 欄에서 이미 지적한 바도 있지만, 편찬상의 기본이 되는 몇가지 방침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가. 卷은 分量本位로 구분하고, 篇은 內容本位로 作戰期를 일괄하되 일련번호를 넣지 않는다.

   나. 章은 作戰本位로 구성하되 旣刊된 제3권에 이어 全篇을 통한 일련번호를 넣는다.

   다. 節 以下는 戰鬪本位로 서술하되, 「공문서 분항표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구별하여 표기한다.

      節----1. 2. 3. 4. 5.

      項----가. 나. 다. 라. 마.

      目----(1) (2) (3) (4) (5)

      款 --(가) (나) (다) (라) (마)

2. 같은 卷 속에 두개 이상의 篇이 있을 때에는 卷頭에 「總說」을 넣되, 다만 한 篇만일 때는 이를 생략하며 篇과 첫 章 사이에는 「槪說」을, 章과 첫 節 사이에는 「要旨」를 넣는다.

3. 槪說에서 취급할 사항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期間 中 敵側의 政治, 經濟, 社會, 軍事動向에 관한 大要.

   나. UN軍側의 軍事動向의 大要.

   다. 國內外 軍事動向의 大要.

   라. 敵軍側의 作戰構想.

   마. UN軍側의 作戰構想.

   바. 我軍(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作戰構想.

   사. 彼我政府 및 軍部의 주요한 人事移動과 그 動靜.

   아. 第3國의 動向에 관한 大要.

   자. 彼我兩軍의 編成, 裝備등의 변천에 관한 事項.

   차. 戒嚴에 관한 事項 및 기타.

4. 要旨에서 취급할 事項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敵軍側 兵團(독립된 연대와 사단급 이상)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나. UN軍側 兵團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다. 我軍의 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주요한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라. 주요한 指揮將領의 人事移動에 관한 事項.

   마. 作戰上의 特異性(天候, 氣象 및 地形 포함)

   바. 主要兵團의 編成 과 隷屬, 配屬 및 支援관계와 그 이동에 관한 事項.

사. 彼我兩軍의 교육, 훈련 및 軍紀와 士氣에 관한 事項.

아. 情報활동에 관한 事項.

자. 民事, 救恤에 관한 事項.

5. 장차 發刊될 「UN戰史」 안에서 취급한 것 중에서 필요한 事項은 重複되드라도 피하지 않고, 이를 취급하기로 한다.

6. 순수하게 後方戰史에 屬하는 事項은 가급적으로 本文 안에서 취급하지 않고, 「後方戰史」에 신기로 한다.

7. 軍隊符號는 國軍의 現用符號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따르지 않은 것도 있으니, 그 一例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進擊과 後退를 구분하여 앞의 것은 實線으로 뒤의 것은 點線으로 표시한다.

나. 我軍과 UN軍, 그리고 北傀軍과 中共軍의 표시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行軍路와 攻擊 및 突擊 方向을 一見하여 명백하게 구분키로 하였다.

라. 같은 時期와 場所가 아닌 것은 되도록 구분키로 하였으며, 필요한 事項은 要圖에 註記토록 하였다.

8. 要圖는 色圖化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되도록 別冊으로 수록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靑色, 敵軍은 赤色으로 구분한다.

9. 狀況圖는 黑白을 원칙으로하여 本文 안에 삽입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實線, 敵은 白線으로 구분한다.

例 : 我軍은 →, 敵軍은⇨ 我軍 敵軍

10. 되도록 한글을 많이 쓰기로 하였으나, 人名, 地名, 方向(東西南北, 左右) 등은 漢字로 쓰고, 한글로 써서 그 뜻이 混同될 우려가 있는 것은 漢字를 쓰기로 하였다.

11. 되도록 慣用 兵術語를 쓰되, 各軍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 所屬軍의 記事에 있어서는 이를 존중키로 한다.

12. 戰鬪마다 獨立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전투경과의 개요」 앞뒤에 각각 「전투 전의 개황」과 「전투 후의 개황」을 넣기로 한다.

13. 작전명령, 작전지시, 각서등의 문서와 附表등은 本文에서 필요한 것만을 채택하고, 그 나머지는 부득이 이를 割愛키로 하였으니, 이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한 까닭이다.

14. 여러 章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전명령등은 附錄에서 일괄, 취급하되 本文 안에서 필요한 一部를 직접 그 要旨만을 택하기로 한다.

15. 戰鬪地名은 종래 慣用된 것을 존중하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바꾸기로 하였으며, 같은 地區에서 몇차례에 걸쳐 일어난 싸움은 이를 제1, 제2차 등으로 그 前後를 구분키로 한다.

16. 團隊號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구분키로 한다.

가. 隷屬부대——本來의 編成부대.

나. 配屬부대——임시로 指揮를 받는 부대.

다. 支援부대 —砲兵, 工兵, 戰車부대와 通信, 輸送 等 他兵科와 後方부대가 직접지원할 때.

라. 協同부대 ——隣接부대와 UN軍 參戰部隊.

17. 外來語는 人名, 地名등을 原名 그대로 表記하였으나, 字母가 없는 外來語는 英語式으로 表記하였다. 우리말로 土着이 된 外來語는 한글표기법에 따라 表記하였다.

例: Thailand 語—→英語字母로 Radio——→라디오로

18. 我軍에 대하여서는 「退却」, 「撤收」등의 術語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退却은 고급 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撤收도 또한 各者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 기타 細部에 관한 事項

가. 略語와 俗語는 되도록 피한다.

나. 將軍 등의 敬稱은 쓰지 않기로 한다.

다. 要圖, 狀況圖, 附表등에는 卷別로 일련번호를 넣는다.

라. 年, 月, 日, 時 등 日記의 表記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例 : 1950년 9월 15일 오후 5시 45분

50. 9. 15. 17. 45

마. 필요한 때에 부대 記號에 北傀軍을 NC, 中共軍을 CC로 표시하고 그밖의 UN軍은 일반 慣用語를 따른다.

바. 여기에서 특히 언급하지 않은 부호는 대체로 文敎部案과 육군대학 규정부호 및 군특명검열단 발행의 문서작성법에 따른다.

사. 참고문헌을 일괄하여 卷末에 첨부하였다.

韓國戰爭史 第4卷 目次

序 文 國防部長官 劉載興
發刊辭 戰史編纂委員長 李烱錫
凡 例

總反擊 作戰期

概 說 ……(9)

第27章 韓國軍의 38°線 總反擊作戰

要 旨 ……(45)
1. 洲項—38°線 進擊戰 ……(47)
2. 安康—38°線 進擊戰 ……(71)
3. 慶州—서울 進擊戰 ……(94)
4. 九山洞—義城 進擊戰 ……(100)
5. 安東—榮州—丹陽 進擊戰 ……(105)
6. 楊平—漣川 進擊戰 ……(112)
7. 新寧—鳥林山 反擊戰 ……(122)
8. 原州—橫城—春川 進擊戰 ……(132)
9. 架山·八公山—38°線 進擊戰 ……(146)
10. 韓國 海軍의 南韓基地 奪還戰 ……(168)
11. 韓國 空軍의 活動 ……(173)
12. 韓國 海兵隊의 木浦地區 戰鬪 ……(184)

第28章 UN軍의 38°線 總反擊作戰

要 旨 ……(197)
1. 多宮洞—開城進擊戰 ……(199)
2. 倭館 奪還戰 ……(~~126~~ 216)

3. 倭館—大田 進擊戰 ……(222)
4. 昌寧—論山 進擊戰 ……(233)
5. 馬山西側方—群山 進擊戰 ……(243)
6. UN 海軍의 活動 ……(254)
7. UN 空軍의 活動 ……(258)

第 29 章 38°線 突破에 대한, 政治 軍事的 決定의 經緯

要 旨 ……(267)
1. 38°線의 設定背景과 南北韓의 分斷經緯……(269)
2. 38°線突破에 對한 各國의 是非……(273)
3. UN에서의 論爭과 決議 ……(279)
4. 38°線 突破의 軍事的 決定……(284)

第 30 章 元山 進擊作戰

要 旨 ……(291)
1. 襄陽—高城—庫底 進擊戰 ……(293)
2. 楊口—新高山—安邊 進擊戰 ……(306)
3. 元山 奪還戰鬪 ……(324)
4. 韓國 海軍의 北韓海域 進擊……(351)
5. UN 海軍의 永興灣 掃海作戰……(358)
6. UN 空軍의 活動 ……(367)
7. 韓國 海兵隊의 杆城—高城附近戰鬪……(376)

第 31 章 平壤 進擊作戰

要 旨 ……(397)
1. 九化里—市邊里—栗里 進擊戰 ……(399)
2. 金川—沙里院—黃州 進擊戰 ……(413)
3. 鐵原—球場洞 進擊戰 ……(428)
4. 新高山—元山—陽德 進擊戰 ……(435)

5. 平壤 奪還戰鬪 ……(445)
6. 韓國 空軍의 活動……(469)
7. UN 空軍의 活動 ……(478)

第 32 章　豆滿江 進擊作戰

要　旨 ……(489)
1. 永興—咸興—城津 進擊戰 ……(491)
2. 元山—咸興地區 平定戰 ……(512)
3. 吉州—合水—惠山鎭 進擊戰 ……(531)
4. 吉州—清津—富寧 進擊戰 ……(549)
5. 美 제 1 해병사단의 元山上陸 및 長津湖 進擊戰 ……(578)
6. 美 제 7 사단의 利原上陸 및 惠山鎭 進擊戰 ……(597)
7. 韓國 海軍의 掃海作戰……(611)
8. UN 空軍의 活動 ……(618)
9. 韓國 海兵隊의 馬轉里 및 東陽里戰鬪……(623)

第 33 章　鴨綠江 進擊作戰

要　旨 ……(643)
1. 肅川·順川 空輸作戰 ……(645)
2. 成川—价川—熙川 進擊戰 ……(659)
3. 楚山 進擊戰 ……(670)
4. 平壤—寧邊—雲山 進擊戰 ……(678)
5. 龜城·停車洞 進擊戰 ……(685)
6. 韓國 海軍의 輸送活動……(691)
7. UN 海軍의 鎭南浦港 掃海作戰……(696)
8. 韓國 空軍의 活動……(700)
9. UN 空軍의 活動 ……(707)

第 34 章　UN 軍의 增派와 國立 警察의 活動

要　旨 ……(719)
1. UN 軍의 增派와 그 作戰參加 ……(720)
2. 國立警察의 活動狀況 ……(729)

狀 況 圖 目 次

상황도 제 1 호 總反擊作戰 進擊線 상황 ……(34)
상황도 제 2 호 戰鬪前 彼我 병력 배치상황도……(49)
상황도 제 3 호 사단작명(제38호) 진출예정선……(52)
상황도 제 4 호 浦項—38°線 진격전 ……(59)
상황도 제 5 호 安康—杷溪 부근약도……(76)
상황도 제 6 호 安康—38°線 진격전 ……(81)
상황도 제 7 호 韓國軍 제 7 사단의 慶州—서울 진격전……(97)
상황도 제 8 호 杨平—漣川 반격전 ……(117)
상황도 제 9 호 鐵原 전투 ……(119)
상황도 제10호 原州—横城—春川 진격전 ……(134)
상황도 제11호 原州—横城—春川 진격전 ……(136)
상황도 제12호 原州—横城—春川 진격전 ……(138)
상황도 제13호 架山·八公山—38°線 진격전……(151)
상황도 제14호 韓國 空軍의 西北韓地域 對地攻擊 ……(177)
상황도 제15호 木浦 附近 작전도……(189)
상황도 제16호 多富洞 一開城 진격전……(204)
상황도 제17호 美 제 5 연대 전투단의 倭館 탈환전……(218)
상황도 제18호 美 제24사단 倭館—大田 진격전 ……(226)
상황도 제19호 美 第 2 사단의 昌寧—論山 진격전 ……(239)
상황도 제20호 美 제25사단 晋州—江景 진격전 ……(250)
상황도 제21호 襄陽—麻底 진격전 ……(298)
상황도 제22호 襄陽—新高山 진격로 ……(313)
상황도 제23호 元山 附近略圖 ……(331)
상황도 제24호 東海岸(元山—城津)진격 항로 ……(353)
상황도 제25호 西海岸(鎭南浦)진격항로……(356)
상황도 제26호 永興灣의 기뢰부설 ……(363)
상황도 제27호 九化里—市邊里—栗里 진격전 ……(404)
상황도 제28호 金川—沙里院—黃州 진격전 ……(418)
상황도 제29호 伊川·谷山 전투 ……(430)
상황도 제30호 陽德 전투 ……(438)
상황도 제31호 陽德 전투 ……(440)

상황도 제32호 韓國 공군정찰비행전대의 이동……(474)
상황도 제33호 UN 空軍 北爆線 변경……(480)
상황도 제34호 永興—咸興—城津 진격전 ……(495)
상황도 제35호 吉州—合水—惠山鎭 진격전 ……(532)
상황도 제36호 吉州—淸津—富寧 進擊圖 ……(553)
상황도 제37호 美 제 1 해병사단 장진호 진격전 ……(591)
상황도 제38호 美 제 7 사단 利原—惠山鎭 진격전 ……(600)
상황도 제39호 我軍 總反擊當時 敵 機構 부설……(612)
상황도 제40호 제 3 대대 東陽里 陣地……(628)
상황도 제41호 美 제187空輸聯隊 順川·嘉川 空輸……(653)
상황도 제42호 成川, 价川 戰鬪 ……(662)
상황도 제43호 寧邊, 雲山부근 진투 ……(679)
상황도 제44호 美 제24사단 龜城, 停車洞 進擊圖 ……(687)
상황도 제45호 韓國海軍 艦艇 배치도……(692)

附　　錄

1. 作戰命令……(764)
2. 訓　　令……(806)
3. 戰歿者 名單 ……(816)
4. 參考文獻……(826)
5. 年　　表……(828)
6. 索　　引……(852)

總反擊作戰期

總 反 擊 作 戰 期

槪 說

本卷에서는 9월 15일의 仁川上陸작전에 이어 16일부터 韓, 美를 비롯한 UN軍부대가 攻勢移轉으로 總反擊을 단행하여 38°線을 돌파하고 元山과 平壤을 수복한 다음, 韓·滿국경선으로 殺到하는 11월 말까지의 作戰期를 망라한 것으로서 이 戰爭의 전 기간을 통하여 가장 壯快한 局面을 다루게 된 것이다.

敵에 관한 상황 : 9월 초에 敵이 마지막으로 제5차작전을 감행하였으나, 1주일 후에는 失敗의 징조가 나타나 勝利의 전망이 극히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傀首 金日成은 狂信的인 침략의 執念을 버리지 못하고 「부러진 칼로써 싸우는 格」으로 최후의 발악적 공격을 또 試圖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제5차공격작전에서 敵의 攻擊集團이 我軍의 防禦線을 돌파한 다음, 浦項—安康—永川—多富洞—倭館—玄風—昌寧—靈山등지를 점령하고, 이어서 慶州—大邱 및 密陽을 향하여 攻勢를 계속 확대코자 하였던 것인데, 이미 공격의 衝力은 我軍의 반격에 의하여 擊碎되거나, 또는 沮止되어 이미 繼戰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頹勢에 直面하게 된 金日成은 그래도 「勝敗는 최후의 五分間」이라는 格言을 狂信한 탓인지 彼我의 상황을 歪曲 판단한 결과, 目前에 있는 慶州—大邱를 점령하고 마지막 目標인 釜山에 이르자면 새로운 增援부대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본다. 그런 까닭으로 이에 대한 조치로서 9월 13일에 京仁지구 방어부대인 제18사단과 제87연대, 그리고 독립 제849반전차포연대를 급거 洛東江戰線으로 轉進하라고 명령하여 大邱北方에 **重點投入**을 감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敵의 作戰指導는 그들대로의 大局的인 견지에서 얻어진 결론이겠지만, 그 基底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慶州와 大邱北方의 유리한 상황에만 마음이 끌려 모험적인 兩面작전을 단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5일 未明에 UN軍이 仁川 月尾島에 奇襲上陸을 감행하자, 金日成은 南쪽의 主突破戰線으로 轉進하고 있던 先頭부대가 이미 金泉에 이르고 있었으나, 數日前의 결심을 변경하여, 이들 부대에 대

하여 즉시 反轉命令을 내리는등 作戰指導面에서 一貫性없는 混亂相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敵의 최고사령부에서는 UN軍이 仁川에서 서울로 쾌속적인 진격을 감행하자, 우선 서울지구의 固守力을 강화하면서 我軍이 原州와 水原方面으로 진출할 것을 예측하고 이를 沮止코자 하는 한편, 洛東江戰線의 각 군단에 대하여는 유리한 陣地를 확보, 부대상호간에 兩翼을 確保하면서 완강한 抵抗을 계속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부의 병력을 後方으로 抽出하여 錦江以北의 天然 장애선에서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漢江과 洛東江의 兩戰線에서 서로 提携하면서 我軍의 공격을 좌절시키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작전방침에 따라 이미 反轉시킨 京仁지구방어부대 외에 또 다시 鐵原에서 새로 편성을 끝낸 제78연대를 급거 京仁지구에 增援을 시켰고, 그래도 不安해서인지 洛東江戰線의 제105전차사단을 서울지구로 北上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敵은 가능한 戰力을 京仁지구에 모두 집결시켜 서울을 死守코자 하였으나, UN軍의 怒濤와 같은 진격 앞에 크게 戰意을 상실하고, 서울방어의 책임자인 崔庸健도 9월 26일에는 그의 主力부대에 대하여 議政府로 후퇴할 것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敵의 前線사령부에서는 洛東江戰線의 全부대에 대하여 UN軍이 仁川에 上陸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 現 戰線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6일부터 全戰線에서 韓, 美兩軍의 反擊에 부닥치게 되어 2일간에 걸쳐 力戰을 거듭하였으나, 反擊初頭의 物心兩面에 걸친 格差 앞에는 그들의 叱咤와 督戰도 별반 그 効力을 보지 못하고, 18일에는 드디어 戰線에 龜裂이 생겨 붕괴의 증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金日成의 속셈은 그의 京仁지구 방어부대로 하여금 UN軍의 上陸부대를 京仁間에서 격파하고 洛東江戰線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釜山을 끝내 점령하리라는 執念을 버리지 못하였으나, 18일에는 金浦비행장이 점령 당하고, 洛東江戰線에서는 UN軍의 일부가 渡江에 성공하여 攻勢移轉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또 이에 呼應하여 韓國軍은 多富洞北方에서 그들의 제1, 제13사단이 버티고 있던 陣地를 돌파하는 즉시로 退路를 차단하는등 戰況은 시시각각으로 돌변하므로 그의 결심을 뒤흔들어 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空虛한 自負心에 가득찬 金日成도 마침내 洛東江의 主攻戰線을 錦江線과 小白山脈線으로 후퇴시켜 新戰線을 구성하라고 前線사령부에 호통을 치게 되었다. 이와같은 退步戰略을 달성하기 위하여 前線사령관 金 策은 우선 제2군단장 金武亭에게

現戰線의 확보를 命하고 특히 제 1 군단으로 하여금 먼저 錦江線을 점령토록 하고자 扇形으로 機動하는데 있어 그 軸心이 되는 倭館지구를 死守할 것을 엄명하였다. 그리고 제 1 군단장 金 雄에게는 南쪽에 있는 사단부터 먼저 후퇴시킨 다음, 축차적으로 北쪽의 사단들도 反轉시켜 지정한 錦江線을 점령하라고 指示하였다.

이리하여 9월 18일 前半夜에는 제 6 사단이 후퇴를 시작하여 晋州로 향하였으나, 19일 제 1 군단의 機動軸인 倭館지역의 제 3 사단 戰線이 붕괴되었고, 20일에는 多富洞과 舖項등이 韓國軍의 手中으로 들어감으로써 제 2 군단의 戰線에 혼란이 일어나고 말았다. 더구나 21일 金戰線에는 仁川上陸의 소식이 傳播됨으로써 그들의 戰意는 急轉直下가 되어 督戰隊나 上典들의 총부리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22일에는 敵의 各戰線이 連鎖反應을 일으켜 韓, 美兩軍의 鋭鋒 앞에 敗走의 발길을 급히 北으로 돌리게 되었다. 이날에는 漢江戰線에서도 永登浦와 水原에 UN 旗가 휘날리게 되므로써 서울에 殘存하고 있던 敵의 運命도 數三日을 支撑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들의 戰勢가 風前燈火格이 되자 奸魁 金日成도 錦江—小白山脈線의 새로운 戰線구성을 斷念치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23일에 이르러 前線사령관 金 策에게 北으로의 총퇴각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敵의 각 사단이 후퇴한 經路를 위주로 하여 살피 보면 다음과 같다.

前線사령부—金泉에 있던 이 사령부는 대장 金 策의 지휘 밑에 38°線을 넘었으나, 平康, 鐵原, 伊川, 華川등지에서 北上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제 6, 제 7, 제 9, 제10 사단의 패잔병을 糾合하여 제 2 군단으로 재편성케 하였는데, 그 병력이 대략 10,000명에 이르렀다. 그 뒤 제 2 군단은 위의 여러 郡邑에 出沒하면서 遊擊戰을 직업으로 하는 武裝집단으로 전락하였다.

제 1 군단사령부—金泉에 위치하였던 이 군단은 중장 金 雄이 京釜街道를 따라 각 사단을 一路 퇴각케 하면서 9월 23일 鳥致院에 이르렀으나, 美 제 5 기병연대가 이 전날인 26일에 이미 鳥致院을 통과하여 天安北方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위험함을 느끼게 되어 곧 사령부를 解散토록 한 다음, 각개행동으로 活路를 찾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金 雄은 수명의 참모들과 같이 山中으로 찾아 들어 간신히 越北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그 뒤에 金日成에 의하여 敗戰책임을 추궁 당한 끝에 숙청되었다.

제 3 사단—倭館지역에서 겨우 1,800명을 끌어 모아 尙州, 忠州, 原州, 春川, 華川, 金化를 거쳐 平康에 이르렀고, 그 뒤에 北上을 계속하여 11월 末, 그들의 陪都인 江界까지 半乞人 집단이 되어 물러 갔다.

제 10 사단—玄風지구에서 물러 선 다음, 重火器등을 모두 포기하면서 퇴각 중, 沃川에서 분산되었으며, 그 일부는 太白山脈을 이용하여 金化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제 2 군단으로 재편되어 10월 末부터 楊口, 金城, 金化 일대를 據點으로 遊擊戰을 벌이다가 11월에는 加平, 華川으로 潛入하여 준동을 계속하였다.

제 2 사단—居昌지구에서 사단이 潰亂되었으나, 사단장인 소장崔賢이 겨우 2,500명을 수습하여 小白山脈을 타고 퇴각하여, 9월末 報恩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그 手下병력이 200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들을 이끌면서 10월 중순에 江界로 찾아 들었다.

제 4 사단—陜川지구에서 사단은 UN軍의 추격을 받고 역시 潰亂되었는데 사단장 소장李健武는 일부 병력을 수습하여 小白 및 太白山脈을 타고 11월 초순에 간신히 寧越에 이르렀으나 金日成으로부터 敗戰책임을 추궁 당한 나머지 숙청되었다.

제 9 사단—UN軍에 의하여 퇴로가 차단 당하였으나, 그 간격을 뚫고 陜川, 永同을 거쳐 沃川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서 분산 상태에 빠지고 그 일부병력은 서울方面으로 北上하고, 그 나머지 2개 대대규모의 主力은 小白 및 太白山脈을 이용하여 北上한 다음, 春川 北쪽에서 3일동안에 걸쳐 我軍의 반격을 阻止하였으며, 그 뒤에 계속 퇴각하여 11월 5일 伊川郡 石平面에 이르러 제 2 군단으로 재편되어 金化, 金城 일대에 徘徊하면서 遊擊隊로써 발악하였다

제 7 사단—南江線에서 후퇴한 사단은 智異山에 1,000명, 白雲山에 500명이 潛入하여 遊擊隊로 變貌하게 되었고, 그 나머지 主力을 이끌고 北上하던 사단장은 金泉에서 戰死하였다는 것이다. 그 뒤에 主力은 北上을 계속하여 10月중순 楊口에 다다랐다가 鐵原으로 潛進한 다음, 제 2 군단에 흡수되어 遊擊隊로 탈바꿈하였다.

제 6 사단—成安西側方에서 후퇴를 시작한 사단은 晋州, 山淸을 거쳐 9월 28일에 咸陽에 다다랐으나, 여기에서 UN軍의 추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분산된 다음, 2,000명은 遊擊隊로서 智異山으로 潛入하고 나머지 主力은 金州를 거쳐 京釜街道를 따라 퇴각하면서 2,000~3,000명의 패잔병집단을 구성하여 小白山脈과 太白山脈을 거쳐, 10월 3일에 楊口에 다다랐다. 그 뒤에 다른 사단에서 수습한 병력은 제 2 군단에 흡수되고 이 사단의 母體는 계속 北上 퇴각하여 11월말에 熙川 北쪽 6km 지점에서 사단을 재편성, 强化하였다.

제 2 군단사령부—安東에 위치하고 있던 사령부는 金武亭의 지휘 밑에 堤川, 原州를 거쳐 金化에 도달하였으며, 여기에서 퇴로를 차단 당하게 된 제 9, 제10, 제15 사단의 패잔병을 수습하여 前線사령관 金 策의 指揮 아래 제 2 군단을 재편성하여 伊川, 鐵原, 平康, 華川 등지를 據點삼아 遊擊부대로 전환하게 되었다. 군단장이던 金武亭은 12월 4일에 別年里에서 열린 朝鮮勞動黨 中央第三次定期大會에서 金日成에 의하여 敗戰의 책임을 추궁 당한 끝에 숙청 당하고 말았다.

제 5 사단—浦項에서 후퇴를 시작하여 盈德부근에서 山中으로 잠입한 다음, 太白山 五臺山 등지에 일부 遊擊隊를 남기고 北上하여 10월 1일 38°線에서 잠시 저항을 하다가 6일에 元山에 도달한 뒤를, 韓國軍의 추적을 받았으나 간신히 섬멸을 면하였다. 그 뒤에 元山 長津을 거쳐 江界로 西北進하여 그곳에서 재편성되었다. 그런데 9월 24일에 사단장이 포로가 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고, 10월 6일에 부사단장이 襄陽에서 귀순하였다.

제 12 사단—安康에서 후퇴를 시작한 사단은 패잔병 2,000명으로 安東, 原州, 春川을 거쳐 麟蹄로 퇴각하여 집결하였는데, 北上 도중에 다른 사단의 패잔병을 수습하였기 때문에 그 병력이 3,000~3,500명에 이르렀다. 그 뒤에 다시 北上 퇴각하여 11월 26일에 江界에 도달하여 재편성되었다.

제 15 사단—永川에서 敗戰한 사단은 立岩, 靑松, 寧越을 거쳐 春川에서 38° 線을 넘은 다음, 谷山에 집결하였으며, 이곳에서 그 主力은 江界로 퇴각하고 그 일부는 11월 9일 伊川에서 재편성됨으로써 제 2 군단에 흡수되어 伊川, 谷山, 鐵原일대에서 遊擊戰을 전개하였다.

제 8 사단—義城 南쪽에서 패잔병 1,500명을 수습하여 安東, 醴泉, 豊基, 丹陽을 거쳐 38° 線을 넘은 다음, 10월 10일 楚山에 도달하였다.

제 1 사단—軍威에서 퇴각을 시작한 다음, 原州, 麟蹄를 거쳐 10월 18일 江界에 도달하였으며, 이곳에서 新兵을 보충받아 재편성한 후에 11월 8일에 다시 여기를 출발하여 長津 咸興, 元山, 淮陽, 平康 등지를 거쳐 鐵原으로 南下하였다.

제 13 사단—多富洞지역에서 慘敗를 맛 본 사단으로서 퇴각을 전후하여 참모장, 포병연대장, 自走砲대대장, 軍醫부장, 2개 연대장등이 我軍에 모두 귀순하였으며, 따라서 38° 線을 넘어간 병력은 極小數에 지나지 않았다.

제 105 전차사단——9월 13일의 명령으로 서울지구로 反轉하였으나, 사단保有의 전차 40

여대 가운데서 그 半數가 永原, 永興浦지구에서, 그리고 나머지 半數는 德源, 文川, 天安 등지에서 모두 UN 공군에 포착되어 격파를 당하였으며, 따라서 38°線을 넘은 전차는 한 대도 없었다. 겨우 살아 남은 기갑 병력들은 文川, 서울線과 太白山脈을 타고 퇴각하여 清川江 以北에서 10월 26일에 이르러 제 94 및 제 67 연대를 편입받아 步兵사단으로 재편성되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洛東江戰線에서 퇴각을 시작한 敵의 2개 군단과 14개 사단을 비롯한 그 나머지 부대들은 小白과 太白山脈의 산길을 헤치면서 北上 退走하였는데, 그들의 예정집결지는 襄陽, 麟蹄, 華川을 비롯하여 뒤에 「敵의 三角地帶」로 불리워진 金化, 鐵原 平康등지이다. 대체적으로 38°線 以北에 퇴각한 병력은 25,000명~30,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이들 패잔병들은 金 策의 지도 밑에 三段階로 구분되어 수습되었다. 즉 먼저 도달한 패잔병들은 재편성을 위하여 江界方面으로 계속 퇴각토록 허용하였고, 그 다음에 수용된 패잔병들은 제 2 군단에 새로이 재편성되어 遊擊부대로 전환되었으며, 元山方面으로 敗走한 부대들은 그곳에서 新編된 사단에 흡수되기에 이르렀다.

敵의 최고사령부는 10월 1일에 38°線의 방어임무를 西部와 東部로 兩分하고 西部는 이미 편성된 西海岸防禦司令部가 담당하였는데, 사령관은 崔慶健이 그대로 맡았고, 東部는 前線사령부를 그대로 살려 金 策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최고사령부는 새로 편성한 작전예비대를 38°線 방어를 위하여 주로 開城 正面에 展開시켰는데, 이들 방어부대의 임무는 UN軍의 北進공격을 견제하면서 南部戰線의 그들 敗戰부대의 主力을 後方지구로 철수하는 것을 보장토록 하는 것이 그 眼目이었다.

西部方面인 高浪浦, 開城, 白川등을 연하는 38°線에는 새로 편성된 제 19, 제 27, 제 43 사단 및 제 17 사단의 일부가, 그리고 東部인 華川 正面에는 제 26 여단이, 또 襄陽에는 江陵鎭備旅團이 각각 배치되어 最終最强의 저항을 斷行키로 하였다.

그러나 10월 1일 東海岸에는 韓國軍 제 1 군단이 38°線을 일거에 돌파하여 襄陽을 점령하고, 계속 추격을 감행하므로써 이 方面의 戰線이 가장 먼저 破綻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4일에는 春川 北쪽에 있는 38°線의 主抵抗陣地가 맥없이 무너졌으며, 6일에는 華川을 포기하고 金化로 후퇴하기에 이르러 中部와 東海岸의 兩戰線이 한꺼번에 突破, 分斷되므로써 東部전선사령부의 38°線 방어임무는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開城을 中心으로 하는 西部의 방어선은 전술한 바, 4개사단으로 그들의 衝 38°線

방어진지를 이용하여 이른바 積極的 방어를 企圖하였으나, 美 제1기병사단이 10월 9일 공격을 시작하여 開城을 탈취하는 즉시로 金川으로 진격하므로써 이 방어선도 역시 土崩瓦解가 되고 말았다.

이 당시 金日成은 必死的으로 韓國軍 및 UN軍의 진격을 저연시키고자 각 戰線에서의 頑强的인 저항을 期待하고 督戰하는 바 있었으나, 새로 편성된 부대들의 兵力이나 裝備로써는, 그리고 더구나 戰術과 士氣面에서는 도저히 韓國軍이나 UN軍의 反擊銳鋒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고, 互角的으로 저항할 形勢가 못되어 다만 재빠르게 北으로의 퇴각을 경쟁하였을 뿐이었다.

敵은 元山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하여 제 5, 제 12, 제 15사단의 패잔병을 비롯하여 東海岸方面의 모든 경비대와 新編된 兵力들을 모조리 방어 제일선에 내세웠으나, 10월 10일에이르러 韓國軍 제1군단의 공격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었다.

한편 西部方面의 敵은 美 제1군단의 機動打擊에 압도되어 戰意를 상실한 끝에 제19, 제27사단이 金川지구에서 包圍, 遮斷된 끝에 潰滅되고 말았다. 事勢가 이렇게 되고 보니, 魁首 金日成으로서는 平壤방어의 骨幹사단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되어 다시 한번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0월 14일에 이르러 金川을 탈환한 UN軍이 沙里院을 목표로 진격하자 敵은 다시 패잔병을 수습하여 數次 저항을 企圖하였으나, 陣地다운 陣地를 마련하지 못하므로써 다만 散發的인 저항에만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敵은 「山中으로의 分散潛入이냐, 또는 投降이냐?」하는 두 갈래길 밖에는 살길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밑에서 敵의 퇴각速度는 갈수록 빨라져서 16일에는 遂安, 그리고 17일에는 沙里院, 海州, 載寧, 黃州가 단번에 탈환되었고, 18일에는 平壤外廓인 黑橋里와 三登에 UN軍이 육박하므로써 平壤공방전도 멀지 않아 막이지게 되었다.

敵은 平壤을 끝까지 방어코자 소장崔 仁을 그 사령관에 임명하고 西部에서 퇴각하여 온 병력과, 그리고 新兵등을 보충하여 약 20,000명의 병력으로 앞뒤로 三線에 뻗친 防禦線을 점령토록 하였다. 그러나 18일에 UN軍이 黑橋里로 진격하자 崔 仁은 1개 연대의 병력만을 平壤에 남긴 채 鐵原, 平康方面 沙里院에서 후퇴한 병력과 合流한 다음, 淸川江以北으로 제빠르게도 먼저 퇴각하고 말았다. 이로써 平壤은 19일에 치열한 攻防戰 없이 韓國軍 제1사단과 제7사단 제8연대에 의하여 함락되고 말았다.

이에 앞서 平壤에서 탈출한 金日成 一黨은 熙川으로 사령부를 옮기고, 다음과 같이 방어선을 설정하였다.

제 1 차방어선 安州, 价川, 德川線

제 2 차방어선 熙川線

제 3 차방어선 江界線

이 당시 平壤에서 安州, 价川線으로 후퇴한 敵의 병력은 40,000명, 그리고 東海岸方面에서 潰退한 병력은 17,000명으로 각각 추산되었으며, 이른바 「鐵의 三角地帶(鐵原—平康金化)」에 第2戰線을 형성한 遊擊병력은 도합 20,000명에 이르렀다. 第2戰線의 형성목적에 대하여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변명하고 있다.

"곤란한 후퇴의 時期에 있어서 이미 反擊에의 移行을 예견하고 敵의 배후에 강력한 第2戰線을 형성할 방침을 세웠다. 이는 敵 점령 하에 있는 人民大衆을 확득하여 敵의 機動性을 파괴하고, 敵의 後方을 교란하고 분산시켜 敵에게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다시 進擊하는 마당에 있어서 敵의 퇴로를 차단하고, 敵을 혼란에 함입토록 함으로써 前線의 공격에 호응하여 敵의 배후에서도 타격을 가하는데 있다."

이리하여 第2戰線을 형성한 敵의 유격부대의 준동은 我軍의 後方지역에서 敵 제2군단의 20,000명과 智異山지구를 中心으로 한 湖南地方에 20,000명, 도합 40,000명에 달하였는데, 그들의 주요활동을 훑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0월 1일 : 2,000명의 유격부대가 原州를 습격하고 일반市民 1,000여명과 美軍장교 5명을 학살하였다.

10월 13일 : 6,000명으로 추산되는 패잔 유격부대가 三陟—蔚珍—盤松일대에 분산, 침공하여, 良民을 학살하는등 만행을 저지르고 퇴각하였다. 이들은 18일 江陵을 점령, 유린하고 注文津으로 北上하였다.

10월 21일 : 3,000명이 金化에 내습하였고, 22일에는 華川發電所를 습격하고 댐의 水門을 개방하였다. 이어서 23일에는 避難民을 가장한 유격대가 鏞底에서 美 해병대 1개 대대를 기습하여 손실을 주었고, 29일에야 격퇴되었다.

10월 28일 : 2,000명이 伊川의 我軍 野戰病院을 습격하여 환자 全員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11월 2일 : 1,000명이 平康北方 16km 지점에서 我軍 補給列車를 습격하였다.

11월 7일 : 500명의 유격대가 永興을 습격한 다음, 主力 2,000명과 함께 北西方으로 퇴각하였다.

이와 같이 敵의 遊擊부대가 각처에서 韓·美兩軍의 輸送부대, 列車, 補給所, 交通網, 通信施設을 파괴하는등 11월만 하여도 200건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韓國軍 제3군단과 美 제9군단이 이들의 討伐作戰에 나서게 되어 실상 完全殲滅될 운명에 있었으나, 中共軍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겨우 연명하게 되었다.

平壤을 포기한 敵의 主力부대는 1차방어선인 安州—价川—德川線에서 지연전을 企圖하였는데, 우선 薩川 南쪽에 있는 永柔와 漁波里에서 逐次抵抗陣地를 점령케 하여 平壤에서 마지막으로 철수한 제239연대를 充當케 하고, UN軍의 北上을 遲延키로 하였다. 그러나 10월 20일 薩川과 順川지구에 美 제187空輸연대가 敵의 後方을 차단하고자 空中投入으로 垂直包圍를 단행하므로써 敵은 後方이 차단되었고, 南쪽에서는 英 제27여단에 소속된 濠洲軍 대대의 挾攻을 받아 섬멸되고 말았다. 이 작전에서 敵의 포로만도 3,818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敵은 21일 安州—价川線에서의 저항을 포기하고 淸川江北方과 熙川方面으로 퇴각을 시작하므로써 淸川江線을 쉽게 내 놓고 말았다. 이는 我軍의 急進的인 追擊으로 말미암아 미처 방어진을 형성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郡邑을 포기하면서 계속 敗走하였다. 즉 价川(10.21)→球揚→熙川에 併行하여 德川→寧邊(10.23)→溫井里(10.25)→楚山(10.26)의 퇴각선에 이어, 定州(10.30)→宣川→停車洞(10.31)의 퇴각선을 形成하였던 것으로 본다. 한편, 東海岸方面의 敵은 10월 17일 咸興을 포기하고 나서 長津과 甲山, 그리고 城津의 3개 方面으로 퇴각하면서 재편을 企圖하는 한편, 一面 지연전을 폈으나, 그 규모는 大隊에서 聯隊에 이르는 兵力으로써 그 저항은 微弱한 편이었다. 다만 漁郎川(鏡城南쪽30KM)에서 6~7개 大隊규모의 병력이 완강한 방어로써 8일간에 걸쳐 首都사단의 진격을 지연시킨 다음, 淸津으로 후퇴하였는데, 각 郡邑을 다음과 같이 포기하였다.

長津方面—水洞(10.28)→長津湖(11.14)→赴戰湖(11.15)

惠山鎭方面—端川(10.25)→豊山(10.29)→甲山(10.20)→惠山鎭(11.21)

淸津方面—北靑(10.22)→城津(10.29)→吉州(11.5)→淸津(11.25)

이상으로써 敵의 11월 末까지의 敗走상황을 일별하여 보았는데, 金日成은 敗戰의 原因을 다음과 같이 변명하면서 그 책임을 部下들에게 轉嫁시키고 있었다.

"제 1 군단장 金 雄은 反革命, 反黨分派者로서 최고사령부의 병력, 즉 仁川—서울지구 방어를 위하여 洛東江線에 있는 일부병력을 이동시키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 뒤에 錦江線을 점령하라는 명령마저 實行치 않았다. 따라서 敵의 反擊에 의하여 我軍은 戰線이 兩斷되어 主力부대가 敵의 包圍에 빠져 離散하게 되었다. 우리는 만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지 않는 부대를 준비하였으나, 짧은 시일 내에 敵의 대규모 총공격을 저지, 격파할만한 충분한 예비가 없었다.

제 2 군단장 金武亭 및 기타 지휘관들은 최고사령부의 작전훈령인 『山間小路를 이용하여 敵의 後方과 側面에 대한 우회작전을 하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많은 時間과 戰力을 낭비하였고, 결과적으로 敵을 包圍, 殲滅하지 못하고, 正面에서 밀고만 들어 가, 敵에게 時間과 再編成의 기회를 주었다.

李承燁(京畿道防禦地域軍事委員長)一味는 仁川—서울지구 방어에 관한 최고사령부의 방침을 故意로 실행치 않고, 또 실행을 극력 방해하였다. 따라서 敵의 側面공격을 가능케 하였다.

朴憲永, 李承燁등 스파이 分派分子 一味의 파괴활동과 파벌싸움에 의하여 南朝鮮의 黨 조직과 빨치산이 전면적으로 해체되어 있었고, 따라서 인민군의 진격에 호응하는 敵 後方에 있어서 黨 조직과 빨치산의 투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 帝國主義者의 雇用스파이인 朴憲永一味는 南朝鮮에 200,000명의 黨員이 있다고 조작, 보고하여 그로 因하여 黨의 戰略的 계획수행상에 차질을 가져 오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인 때문에 敵의 대규모적인 공격에 조우하여 一時的 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金日成은 10월 11일에 방송하였고, 자기의 罪過를 뉘우치는 바 없이 實祿있는 그의 一部徒黨들을 숙청하였다.

10월 26일 敗走一路에 있던 敵의 黨 기구인 정치위원회는 「人民軍 내에 있어 당조직과 정치기구제도의 실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각 부대의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黨軍으로서 基底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軍內에서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부대의 전투기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다음은 敵이 남기고 간 蠻行에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赤狗들의 흙발에 유린되었던 90일간에 있어서 무고한 동포들이 겪은 바 고난과 피해는

실로 筆舌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南侵 후 戰勢가 그들에게 不利하게 되자 차츰 노골적인 本性을 드러내게 되어 애국동포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迫害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선량한 애국동포들을 反動分子로 몰아 住居地를 약탈함으로써 생활을 곤궁에 빠트렸고,

둘째, 허위 기만선전정책으로 精神的으로 그들의 奴隸化를 꾀하고,

세째, 壯丁年의 강제동원, 애국인사의 납치 및 감금, 그리고 虐殺 등이다. 특히 虐殺은 9월 20일 前線사령관 金策의 지령에 의하여 총퇴각에 앞서 都市를 비롯한 邑·面·里·部落 등지에서 人民委員會의 책임자에 의하여 대상자를 日別割當로 점검시킨 다음, 集團的으로 대량 同時학살을 進行하였고, 또한 刑務所와 內務署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도 후퇴에 앞서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걸리자 監房에 放火하여 燒死시키는가 하면, 손발을 묶어서 우물 안에 집어 넣고, 큰 돌로 내려치는 등 天人共怒할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虐殺行爲는 洛東江戰線에서 점차적으로 北으로 향하여 連鎖反應을 일으키며 北韓의 全域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虐殺과 때를 같이하여 著名人士들과 韓·美兩軍의 포로들을 北으로 緋送함에 있어 역시 落伍者들을 그 자리에서 銃殺시켰고, 美軍 포로들을 터널 속에서 집단적으로 몰살하는 등 야수적인 행동을 예사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와 같은 非人道的 行爲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全世界의 自由民들에게까지 공산주의의 정체를 똑바로 인식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金日成 一味의 殘黨들은 패난 보따리를 싸들고 황급히 平壤을 떠나, 처음에는 新義州로 가서 鴨綠江을 넘어 遼東으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江界로 이동하게 되었으니, 이는 오로지 中共軍의 不法侵略에 힘 입어 겨우 그 命脈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참으로 悲運에 빠한 族屬들이라 할 수 있으리라.

我軍側에 관한 상황 : 仁川上陸作戰의 작전명령이 8월 30일 하달되자, 韓國軍과 美第8군의 反擊준비도 본격적으로 연구와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첫째는 兵力의 不足인데 攻勢에 있어서는 새로운 兵力을 증원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美第1해병여단과 韓國軍 제17연대, 및 해병대가 洛東江戰線에서 抽出되어 더욱 兵力不足의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로는 裝備의 不足인데 敵의 戰線을 돌파하고 퇴각하는 敵을 포착, 섬멸하기 위하여서는 機動力을 비롯하여 渡河資材등이 필요하지만, 美 제 8 군은 渡河用 浮橋資材를 2 組 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 수송차량에 있어 美軍도 차량이 부족하여 문제였는데, 특히 韓國軍은 聯隊의 보유차량이 20여대 미만으로써 이는 겨우 보급품과 탄약수송용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韓國軍이 開戰초기에 보유하고 있던 27 대의 裝甲車輛은 남아 있는 것이 1 대이고, 전차는 한대도 없었다. 따라서 수송력의 결핍은 결과적으로 追擊作戰을 단행하는데 있어 중대한 弱點으로 지적되었다.

세째로는 彈藥의 不足인데, 8 월 중에 砲彈은 거의 무제한으로 使用하다시피 하였으나, 9 월에 들어서 在日本 貯藏量을 모두 사용하므로써 反擊에 있어서는 主攻부대에 50 발, 助攻부대에 25 발로 제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돌파작전에 있어 全面的인 동시 공격은 곤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야만 하는 苦境이 있기도 하였다.

네째는 美 軍團의 再編인데 反攻作戰에 있어서 美 제 8 군이 韓國軍 만이 아니라 그들의 4 개 사단을 동시에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에, 8 월 초에 이를 예견하고 2 개 사단을 단위로 제 1 군단과 제 9 군단으로 편성하여 놓았으나, 지휘관, 참모, 통신등의 준비관계로 발족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관계로 반격전이 시작될 무렵에는 제 1 군단만이 그 機能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제 9 군단은 빨라서 9 월 末, 또는 10 월 초로 전망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Walker중장은 우선 제 1 군단을 主攻의 공격군단으로 삼고, 9 월 10 일 제 1 군단장에는 이미 제 9 군단장으로 임명된 바 있는 Frauk W. Milburn소장을, 그리고 제 9 군단장에는 제 1 군단장으로 임명되어 겸 제 8 군 부사령관을 겸하고 있던 Iohn B. Coulter소장으로 교대시켜 임명하였다. 이와 같이 군단장을 교체한 이유로서 제 1 군단장 Milburn소장은 性格이 공격적이며, 과감하고 용감할 뿐 아니라 그의 戰歷으로 보아 攻勢작전에는 Coulter 소장보다는 더욱 積極性이 있다고 평가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攻勢를 앞둔 9 월 中旬에 있어서 彼我의 병력장비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병 력	포	전 차	항 공 기
韓·美·英 軍	157,000	400	600	1,200
北 傀 軍	70,000	100	60	
비 율	2 : 1	4 : 1	10 : 1	1,200 : 1

특히 敵의 병력 70,000 명을 분석하여 볼 때 1 개 사단이 평균 5,000 명 정도인데, 각 사단

병력의 70%는 침략지에서 강제로 동원한 義勇軍들로서 1~2주간의 徒手訓練을 받은 新兵들인데, 이들의 士氣는 극도로 沮喪되어 있었다. 그 원인은 첫째가 食糧의 부족이다. 1일간에 잡곡으로 된 주먹밥 한 덩어리가 보급되면 그 이상은 바랄 수가 없었다. 더구나 美 공군의 폭격(폭탄, 네이팜탄)과 機銃掃射로 말미암아 戰場恐怖症이 신경을 자극시키고 있는데다가 밤낮로 휴식없이 督戰隊의 총부리 밑에서 죽엄을 강요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틈만 생기면 탈출하려고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美 제8군의 정보판단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즉 敵이 釜山까지 점령하고야 말겠다는 야심적인 공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 이상, 我軍이 敵의 戰線을 손쉽게 突破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戰力으로 미루어 보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美 제8군은 敵의 병력을 과대평가하여 100,000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敵의 士氣도 현재 接敵 중인 상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에 戰意가 오히려 왕성하다고 誤斷한 나머지 일부병력이 抽出된 가운데 我 戰線을 지탱한다는 것은 더욱 苦戰을 면치 못한다고 우려하였다. 더구나 我軍이 동시에 반격으로 전환하여, 敵이 死力을 다하여 버티고 있는 戰線을 돌파한 다음, 北上하여 美 제10군단과 연결을 하여야 하고, 또한 敵의 主力을 포착, 격멸한다는 임무는 豪宕한 Walker 중장에게도 자신있는 勝算을 안겨 주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敵은 9월 초의 全面攻勢를 통하여 浦項—安康—永川—槐山—遊鶴山—倭館—玄風—昌寧—慶山등지를 연하는 線까지 침공하였는데, 我軍은 겨우 昌寧과 慶山만을 회복하였을 뿐이며, 더구나 大邱正面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강한 바 있었고, 東海岸方面에서도 敵이 慶州를 점령코자 하는 공격이 계속되므로써 美軍으로서는 위기가 尙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물론 美 제10군단이 仁川 上陸작전으로 第2戰線을 형성하면 敵은 우선 洛東江戰線에서 일부병력을 抽出하여 京仁지방으로 轉用할 가능성이 많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敵은 洛東江戰線을 유지하면서 釜山으로 공격을 계속할 餘力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 밑에서 당시 美 제8군이 9월초에 수립한 攻勢移轉 계획에 의하면

攻勢移轉日時——9. 16, 09. 00

攻勢始動線——현재의 接敵線

攻勢方向

第1案——大邱→大田→水原線

第2案——馬山→晋州→全州→大田→水原線

第3案——大邱→聞慶→忠州→水原線

第4案——第1案~第3案 중의 數個 經路를 동시에 돌파하는 案.

위의 4개 案 가운데서 Walker 중장은 제1案을 택하였다. 그 이유로써는 美 제8군이 攻勢移轉을 단행하는 前提는 현재의 방어선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더우기 大邱의 확보는 필수적인 先行조건이므로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곳을 확보한 연후에 비로소 攻勢로 이전한다면 機動力의 集中발휘와 兵站지원의 容易性으로 보아 美 제10군단의 연결過程에 있어서 다른 案 보다도 有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美 제8군의 反擊計劃은 9월 7일 東京司令部의 인가를 받아 15일, 제8군 作命으로 하달되었으니, 그 要旨에 의하면

『제8군은 現 接敵線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9월 16일 09.00 主攻을 大邱—金泉—大田—水原을 연하는 軸線을 따라 공세로 轉移한 다음, 軸線上의 敵을 격멸하는 동시에 빨리 제10군단과 提携한다.』라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각 군단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美 제1군단은 軍의 主攻이 되어 다음과 같이 突破를 담당한다.

제1기병사단 및 제5연대전투단은 當面하고 있는 敵을 격파하여 倭館對岸에 橋頭堡를 확보한다. 이 공격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제24사단으로 하여금 倭館의 下流에서, 그리고 韓國軍 제1사단으로 하여금 그 上流에서 각각 助渡河를 감행토록 한다. 橋頭堡를 확보하면 제24사단은 金泉을 거쳐 大田으로 공격한다. 이때 제1기병사단은 제24사단의 後方을 엄호하면서 補給路의 경비를 담당토록 한다.

제2사단과 제25사단, 그리고 韓國軍 제1군단과 제2군단은 각기 當面의 敵을 공격하여 敵을 戰線에 膠着시키고, 상황에 따라 局部的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면 이를 擴大하여 主攻正面의 攻勢를 容易토록 한다. 특히 제2사단은 美 제1군단의 主渡河를 容易케 하도록 助渡河를 실시하라. 돌파가 완성되면 軍은 신속하게 제10군단과 提携하는 동시에 38°線으로 추격을 계속하여 南韓에 침공한 敵을 격멸한다. 이를 위하여 추격방향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예정한다.

美 제1군단은 金泉—大田—水原街道를 따라 추격하여 신속하게 제10군단과 연결하는 동시에, 敵 제1군단의 퇴로를 차단한다.

美 제 2, 제25사단은 智異山부근을 거쳐, 錦江下流의 線을 향하여 추격한다. 韓國軍 제 2 군단(제6, 제7, 제8사단)은 原州를 거쳐 春川을 향하여 추격하고 제 1 군단(수도, 제 3 사단)은 東海岸線을 따라 38°線을 향하여 추격한다.」

9월 15일 현재의 彼我의 대치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地區戰線	敵 사 단	我軍사단
浦項지구	제 5 사단	제 3 사단
安康지구	제12사단	首都사단
永川지구	제15사단	제 8 사단
新寧지구	제 8 사단	제 6 사단
八公山지구	제 1 사단	제 1 사단
倭館, 多富洞지구	제13, 제 3 사단	美 제 1 기병사단
玄風지구	제10사단	英 제27여단
昌寧, 靈山지구	제9, 제2, 제4사단	美 제 2 사단
南江, 馬山西方지구	제7, 제6사단	美 제25사단

美 제 8 군과 韓國軍은 16일 09.00에 총 반격을 시작하였으나, 敵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陣地를 固守하였으므로 彼我間에는 치열한 火力戰이 전개되었다. 또한 敵은 도리어 攻勢를 취하였기 때문에 我軍은 공격보다도 오히려 방어에 專念하여야 하는 局面도 있었다. 이러하여 攻擊 제 1 일의 성과는 韓國軍 제 1 사단이 槐山山城을 점령한 것과 美 제 2 사단 제23연대가 敵 제 2 사단을 洛東江 西岸 對岸으로 격퇴시킴으로써 渡河點을 무난하게 확보한 것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수도사단은 安康에서 敵 제12사단을 紀溪로 압박 중이었고, 14일 제 5 사단의 後方인 長沙洞에 上陸한 密陽遊擊大隊(장, 李明欽대위)는 敵地 後方을 교란하여 敵 사단의 대대병력을 誘引하는 등 병력분산을 강요하였으나, 韓國軍 제 3 사단과의 협조 및 後續지원이 없으므로 별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9월 17일 : 반격 제 2 일째도 별로 진전이 없었으나, 특징이 있었다면 敵이 攻勢에서 守勢로 전환하였다는 事實이다.

9월 18일 : 반격 제 3 일째를 맞이하자 主攻方向인 倭館西側方에 대하여 B-29 폭격기 42대가 絨緞폭격을 가하였으나, 敵 제 3 사단의 敵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고, 또한 美 제 1 기병사단은 203高地를 탈취하여 倭館으로의 地步를 擴張하였다.

韓國軍 제1사단은 이날 敵 제1사단과 제8사단과의 간격을 뚫고 공격하여, 敵 제13사단의 퇴로를 차단하므로써 敵의 大邱正面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게 되었고, 따라서 大邱北方의 敵 戰線에 虛隙이 일어나게 되어 倭館正面의 敵 제3사단도 그 後方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이 主攻正面의 戰況이 부진하고 있는데 反하여 美 제24사단은 琴湖江을 渡河하기 시작하였고, 美 제2사단의 제38연대는 全戰線에서 처음으로 洛東江을 渡河하여 草溪에 이르는, 道路入口에 있는 高地를 탈취함으로써 교두보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東海側의 韓國軍 제3사단도 이날 兄山江을 强行渡河하여 敵의 防禦陣地를 탈취한 다음, 浦項으로 진격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날의 성과는 敵의 戰線一角에 쐐기를 박고 뒤흔들어 놓은 결과가 되었으며, 反擊初動의 先制權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9월 19일 : 반격 제4일째인 이날 韓國軍 제1사단은 755高地를 탈취하였고, 美 제1기병사단은 253高地와 300高地를 각각 탈취하였다. 그리고 美 제5연대전투단은 격전 끝에 268高地인 錦舞峰을 탈취하고 이어서 倭館을 탈환하였다. 倭館下流에서는 美 제24사단과 美 제2사단이 계속 洛東江을 渡河하여 橋頭堡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戰線의 最南端인 美 제25사단 正面의 敵 제6사단은 戰鬪力과 建制에서 퇴각을 시작하였으나, 全戰線에 걸쳐 敵의 戰意는 조금도 衰退한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MacArthur元帥는 반격개시 4일이 되어도 洛東江戰線이 돌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仁川上陸作戰을 지휘하고 있던 그는 東京에 있는 참모장을 통하여 제8군사령관에게 群山上陸의 준비를 명령하였는데, 즉 上陸부대는 美軍 2개 사단 및 韓國軍 1개 사단, 제3개 사단으로써 D일을 10월 15일로 예정하여 준비를 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MacArthur元帥의 명령은 설사 서울을 탈환한다 하여도 洛東江戰線의 敵을 격파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어떠한 戰局의 급변이 惹起될련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부 병력을 抽出하여 群山에 上陸시킴으로써 敵의 背後로부터 强打를 가하지 않으면 敵의 重圍를 뚫지 못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群山上陸의 준비명령을 접수한 Walker중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回電하였다.

『멀지 않아서 突破는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제8군에서 단 一名이라도 抽

出할 수 없다. 조금 더 戰況을 觀望하여 주기를 바람. 제8군이 '큰 쇠망치'가 되어 突進할 날은 눈앞에 닥치고 있다.」

이와 같은 回電에 대하여 UN軍 총사령부에서는 더 이상 群山上陸에 관하여 강요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준비명령에 대한 取消조치도 없었다.

9월 20일 : 반격 제5일만에야 美 제5연대전투단이 倭館東北方의 303高地를 탈취하였는데, 이곳은 主攻方向에 대한 공격前進基地로서 戰術的 要地였다. 敵 제3사단은 倭館과 303高地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의 死守에 가까운 방어를 하였는데, 敵의 退却 당시의 사단병력은 1,000내지 1,800명에 不過하였고, 그 부근에서 파괴된 전차 만도 28대에 達하였다.

美 제1군단의 主攻正面에서 敵 제3사단이 北으로 후퇴를 시작함으로써 突破의 衝擊力이 그 威力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날 美 제24사단은 主力부대가 倭館南쪽에서 洛東江을 渡河한 다음, 金泉과 星州로 前進할 준비를 갖추었고, 그 南쪽에서 併進하는 美 제2사단主力도 渡河를 완료하였다.

馬山 西側方의 敵 제6사단 主力도 이미 퇴각하고 일부 엄호부대가 경미한 지항을 보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東海岸에서는 韓國軍 제3사단이 浦項을 탈취하고, 이날 北進태세를 갖추었다.

9월 21일 : 반격 제6일째를 맞이하여 美 제1군단 배속의 韓國軍 제1사단은 永川 等에서 南進하고 美 제1기병사단은 多富洞으로 前進하여 敵 제3사단을 兩面包圍한 끝에 이를 격파, 분산케 하므로써 主攻軍團의 第一次 打擊으로 敵陣을 크게 흔들어 놓게 되었다.

美 제24사단은 아직도 重裝備의 渡河가 완료되지 않아서 橋頭堡를 확대하고 있었고, 美 제2사단은 新反里를 거쳐 草溪를 향하여 서서히 그 地步를 擴大하였다.

南쪽 戰線의 美 제25사단의 右一線인 제35연대는 이날 일거에 晋州고개 第一峰에 서게 되었으나, 西北山쪽에서는 敵의 엄호부대가 强力히 지항하므로써 戰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韓國軍 제6사단은 正面의 敵 제8사단의 戰線을 돌파하고 敵을 追擊하여 義興에 육박하였고, 東海岸의 제3사단도 興海를 目睫間에 두면서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敵이 全面的으로 퇴각할 徵候는 보이지 않았지만 敵의 각 戰線이 斷切되어 서로 연결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50일간에 걸친 敵의 包圍網에는 큰 구멍이 뚫어지게 되어 全戰線에 걸친 一大 反擊의 先鞭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9월 22일 : 육군본부는 陸本作命 제 191호(作命附錄 제2호)로 韓國軍에 無制限 공격명령을 하달하므로써 제1군단은 盈德—平海線을 따라, 제2군단은 咸昌—忠州線과 義城—安東—榮州線을 따라 각각 38° 線을 목표로 敵에 대한 무제한 反擊을 敢行하게 되었다.

한편 美 제8군단도 8軍 作命제101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軍은 총반격에 전환하여 신속하게 제10군단과 연결하여 38°線 以南의 敵을 포착, 격멸코자 한다.』라고 하였으며, 진격목표를 부여하기를 『美 제1군단은 主攻軍團으로서 金泉—大田—永原線을, 美 제2사단은 陜川—居昌—金州—江景線을, 그리고 美 제25사단은 晋州를 탈환한 다음, 西側 및 西北方을 향하여 각각 추격을 준비하라.』라고 하였다.

洛東江戰線에서 韓·美兩軍은 52일간에 걸쳐 줄곧 守勢 속에서 惡戰苦鬪하였는데, Walker중장은 그의 心境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우리가 前面의 包圍를 뚫고 전진한다면 敵은 즉시 敗北할 것이다. 제8군으로써는 오늘까지 실로 煩悶과 고난의 數週日이었다. 이제 우리는 곧 攻勢를 取할 것이다.』

이 역사적이며 고대하던 無制限攻擊命令이 내려지자 全將兵의 士氣는 沖天하여 北天을 바라보면서 進軍을 재촉하게 되니, 그 모습은 바로 靑龍이 구름을 吐하고 白虎가 바람을 일으키는듯 하여 38°線을 목표로 퇴각하는 敵을 뒤따라 치게 되었는데, 그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韓國軍 제3사단은 興海北方에서 반격을 시작한 다음, 東海岸沿道를 따라 퇴각하는 敵 제5사단을 추격하여 9월 25일에는 盈德을, 이어서 28일에는 蔚珍, 29일에는 三陟을 각각 점령하고, 30일에는 江陵에 진출하였는데, 여기는 본래 제8사단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날 제23연대의 先鋒大隊는 全軍 중에서 가장 먼저 38°線까지 진출하였는데 명령에 따라 여기를 돌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수도사단은 杞溪線을 돌파한 다음, 24일에는 道坪洞을 탈취하고 패주하는 敵 제12사단을 추격하였는데, 敵은 대부분 太白山脈을 타고 潛跡하면서 퇴각하였으므로 별로 저항은 없이 26일에는 眞寶와 春陽을, 그리고 27일에는 寧越을 탈환하고, 28일 平昌을 거쳐 30일에는 38°線 근방에 있는 西林에 진출하였다.

제8사단은 普賢山線에서 反擊命令과 더불어 24일 일거에 義城을 탈환하고 26일에는 安東을 점령하였는데, 특히 敵 제15사단은 永川지구에서 섬멸적인 타격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그 퇴각속도는 유난히 빨랐다. 이리하여 사단은 豊基—丹陽을 거쳐, 28일에 忠州를 탈

환하고, 10월 3일에는 서울 東大門 안으로 步武도 堂堂하게 入城하게 되었으니, 실로 99일만의 收復이었다.

제 6 사단은 烏林山線을 돌파하자 一面 退却, 一面 抵抗하는 敵을 곧 뒤따라 치면서 22일에는 加威를 탈취한 다음, 25일에 咸昌, 27일에 聞慶을 거쳐 30일에는 原州까지 진출하였다. 이어서 10월 2일에는 春川市에 감격적인 凱旋을 하였으나, 여기에서 쉴 사이도 없이 38°敵을 향하여 계속 진격을 시작하였다.

또 제 1 사단은 美 제 1 군단의 예비사단이었으나, 戰線을 돌파하는데 主導的인 역할을 하였으며, 尙州를 거쳐 報恩지구에서 퇴각하는 敵을 포위, 섬멸하면서 北進을 감행하였고, 이어서 鳥致院—淸州—曾坪—安城—水原—서울을 경유, 10월 11일에는 西部 高陽市에 진출함으로써 옛 38° 線의 방어진지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38° 線 돌파명령을 대기하게 되었는데, 이는 美 제 1 군단에 배속되었기 때문에 다른 韓國軍과 같이 北進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美 제 1 군단은 제10군단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主攻사단인 美 제 1 기병사단으로 하여금 「777」이라고 命名하는 機動부대를 편성(2개 보병대대, 1개 야포대대, 1개 전차대대 基幹)토록 하여 22일 08.00에 北으로의 進擊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이 機動부대는 23일 尙州, 24일 報恩을 거쳐, 25일에는 淸州—天安을 突破하였으며, 26일 22.26에는 드디어 美 제 10 군단의 南進부대인 美 제 7 사단 제31연대와 烏山北方에서 감격적인 再會로 드디어 南北兩軍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主攻의 後續부대인 美 제24사단은 2일간에 걸친 격전 끝에 25일 金泉을 탈취하였고, 美 제 1 기병사단은 尙州에 진출하고 있었다. 26일 美 제24사단은 永同을 탈환하고, 계속적으로 진격하여 27일 沃川을 거쳐, 28일 07.00에 제19연대가 大田에 突入함으로써 68일 전 大田에서 마지막으로 철수한 부대로써의 名譽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로써 美 제 1 군단은 부여된 작전임무를 완수하고 10월 7일 서울北方에 집결을 완료하게 되었다.

美 제 9 군단은 제 2 사단과 제25사단을 基幹으로 편성되어, 그 指揮權의 발동을 본 것은 9월 23일 이후의 일이었다.

美 제 2 사단은 23일에 新反里—草溪를 거쳐 陜川으로 진격하여 다음날 여기를 탈취하고 이곳에서 재편하고 있던 敵의 패잔병력을 混亂시켰으며, 이어서 25일에는 居昌, 28일에는 金州를 각각 탈환한 다음, 30일 論山—江景線에 진출함으로써 사단의 작전임무를 일단 끝

마치게 되었다.

美 제25사단도 25일 晋州를 탈환한 다음, 河東—南原—裡里를 잇달아 점령하면서 北上하여 30일에는 群山을 탈취하므로써 최종진출목표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로써 韓·美國軍은 38°線 以南의 작전목적을 모두 達成하게 되었다. 이것을 契機로 하여 擡頭하게 된 것이 38°線을 突破하느냐의 與否의 問題로서 國內外的으로 論爭의 焦點이 되었는데, 그 경과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8월 30일 Acheson 美 국무장관은 38°線 突破문제와 中共軍參戰에 관하여 극히 주목할 만한 견해를 공포하였으니, 즉 「다른 국가의 軍隊가 전쟁에 介入하지 않는 한 全面戰爭은 없을 것이며, 38°線에 대한 突破여부는 UN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美國은 中共에 대하여 介入을 경고한 결과가 되었고, 戰爭이 끝나면 美國은 臺灣海峽에서 제7함대를 철수시키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聲明은 韓國戰爭의 終結을 눈앞에 두고 국제적인 위기에 대한 外交的 布石임이 分明하였는데, 이 問題가 自由世界의 耳目을 끌게 되자 美國에서는 이에 대한 贊反論에 있었는데 贊成派의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당시의 쌍방주장을 살펴본다면 反對派의 論旨로써는 「38°線을 突破하여 北進을 하게 되면 中共과 蘇聯의 戰爭介入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제3차 世界大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贊成派의 주장으로서는 6월 27일자 安保理事會의 결의에 의하여 UN軍 총사령관인 MacAtrhur元帥에게 38°線 以北으로 進擊 UN할 수 있는 法的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해석하면서

「① 侵略者를 추격하는 軍隊, 특히 韓國軍은 38°線에 停止시킬 수 있는 法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UN軍이라고 하여 對敵한 敵을 38°線 以北으로 계속 추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는 追擊權의 理論에 背馳된다.

② 38°線을 突破하지 않으면 自由陣營은 永久히 여기를 합법적인 國境線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元來 UN의 목적은 南北韓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있고, 韓國政府가 이미 38°線 突破를 성명한 이상, 이 線은 公法的으로 존재할 수 없다.

③ 韓國軍과 UN軍이 38°線에서 전격을 정지한다면 北傀軍은 재차 침략할 수 있게 될 것인즉, 그렇게 된다면 韓國에서의 戰爭상태는 계속될 뿐 아니라 UN軍은 무제한으로 韓國에 駐屯하게 된다.

④ 이미 UN 해, 공군은 北韓지역에 대하여 地空의 砲, 爆擊을 감행하여 交戰狀態를 北

韓地域에 이르기까지 現實化하였고, 단지 地上軍만이 北進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제 38°線突破云云은 事理에 맞지 않는다.』 대체로 위의 네가지가 主要한 論旨였던 것이다.

한편 西歐陣營에서는 韓國戰爭의 확대를 두려워 하고 있었기 때문에 38°線의 突破에는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 反하여 西歐諸國을 대표하는 英國이 9월 26일에 성명하되 『38°線을 이 기회에 突破하지 않으면 UN管理下의 全韓國의 선거나 統一韓國의 실현도 불가능하다.』라는 大局的인 판단 아래 38°線突破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기초하여 8개국(Great Britain, Australia, Philippines, Netherland, Norway, Brazil, Cuba, Pakistan)이 29일 UN총회에 제안하였는데, 이 당시 北進案에 反對한 非共産國은 印度 뿐이었다.

印度首相 Jawalarlal Nehru는 9월 30일 記者會見에서 이미 UN총회에 제안된 8개국 결의안이 압압리에 MacArthur元帥에게 突破의 권한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하여 言及하기를

"38°線을 突破하여서는 안된다. 北韓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고 하여 韓國의 통일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라고 怪辭을 피하기도 하였다.

한편 美合同參謀本部에서는 서울의 탈환이 다가 오고 있을 9월 27일 MacArthur元帥에게 訓令하기를 『귀하의 軍事目標는 北傀軍을 궤멸시키는데 있으므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8°線 以北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한다. 다만 귀하의 육·해·공군부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滿洲 및 蘇聯과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附言하면서 北韓 진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MacArthur元帥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제출하였다. 즉

『① 제8군은 현재의 편성대로 38°線을 突破하여 平壤으로 진격시킨다. 平壤공격에 있어서는 제10군단을 元山에 上陸시켜 제8군과 서로 挾擊토록 한다.

② 제3사단은 최초단계에 있어서 총사령부의 예비사단으로서 日本에서 대기토록 한다.

③ 定州—寧遠—興南을 연하는 線 以北에 대한 작전은 韓國軍에 限하도록 한다.

④ 제8군의 38°線 突破는 10월 15일부터 30일 사이의 적당한 날에 결정한다.』

9월 30일 合同參謀本部에서는 이 계획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이어서 Truman 대통령도 이를 追認하였다.

이리하여 MacArthur 元帥는 38°線 突破명령을 美 제8군사령관 Walkar중장에게 하달

하므로써 이날 38°線에 도달한 韓國軍 제 I 군단이 東海岸에서 10월 1일 UN軍부대에 앞서 가장 먼저 38°線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UN총회에 제안된 8개국 공동제안과 蘇聯이 제안한 韓國에서의 전투중지와 UN軍의 철퇴 및 UN감시下의 南北韓總選擧를 하자는 2個案은 10월 4일 政治委員會에서 표결에 부쳤던 바, 8개국 공동결의안은 可決되고 蘇聯案은 否決되고 말았다. 이어서 10월 7일의 UN총회에서도 8개국안이 47대 5로 압도적인 可決을 보게 되었다.

비록 UN총회의 가결 1주일 전에 앞서 UN軍 총사령관 MacArthur 元帥에 의하여 韓國軍이 38° 線을 突破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6월 27일부의 UN安保理事會의 결의에 비추어 본다면 하등의 違法이 될 수 없고, 다만 UN총회의 可決이 절차상 늦었을 뿐이다.

MacArthur 元帥의 北韓進擊計劃에 있어서 당초 仁川上陸에서 독립적으로 작전하던 美제10군단을 서울을 탈환하는 즉시로 제8군의 지휘 밑에서 北進토록 하려고 구상하였던 것이지만 막상 北韓의 地形을 살펴 본다면, 太白山脈의 峻嶺이 脊椎가 되어 北韓땅의 進擊路는 元山—平壤間의 橫斷과, 서울—平壤間의 縱斷이 있을 뿐이므로 東西間에서 작전하는 제8군과 제10군단은 물가불 독립된 작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제8군사령관의 지휘 밑에서 北進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補給문제만 하여도 美軍 全兵力의 1일 補給所要가 10,000 S/T인데 仁川港의 1日 揚陸量은 겨우 5,000 S/T에 불과하여 보급이 큰문제가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元山과 興南港을 점령하여야만 되는데 이에는 새로운 上陸작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元山地區에 대한 上陸作戰을 새로이 계획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北進작전은 다음과 같이 계획되었다.

「① 제8군은 D일 京仁지구를 통과하여 38° 線 南方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D+5일에서 D+9일경에 38° 線을 돌파하여 平壤으로 진격한다.

② 제10군단은 신속하게 仁川과 釜山에서 乘船하여 D+12일을 목표로 元山에 上陸한다. 그 후 제1해병사단은 韓·滿국경으로 진격하고 제7사단은 平壤北方을 향하여 西進한다.

③ 제8군과 제10군단은 서로 協同하여 平壤을 공격한다.」

이와 같은 준비명령을 9월 29일 받게 된 제8군사령부에서는 東京사령부의 계획에 대하여 異見이 있었으니, 즉 Walker 중장이 全地上軍부대를 지휘하기를 원하였고, 또한 제10군단이 서울 점령 후 계속 平壤으로 진격시키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된 까닭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라도 제8군사령부에서만 論議되었을 뿐으로 MaActhur 元

帥에게 建議되지는 아니 하였다.

결국 北進작전은 MacArthur 元帥의 구상대로 제 8 군과 제10군단이 分離된 가운데 元山上陸작전을 새로 展開하게 되었고, 9월 30일 MacArthur 元帥는 敵의 領首 金日成에게 降伏을 권고하는 통첩을 보냈는데, 要旨는 다음과 같다.

『UN결의가 최소한의 人名손실과 재산파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本官은 UN軍 총사령관으로서 그대와 그대의 指揮 아래 있는 군대가 本官의 지시와 감독 하에 武裝을 버리고 敵對行爲를 中止할 것과 그리고 UN軍의 포로와 비전투원, 억류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등의 반응이 없자 10월 1일 MacArthur 元帥는 韓國軍에게 38°線 돌파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고, 각 사단의 北進경과는 다음과 같다.

韓國軍 제 1 군단의 예하인 제 3 사단과 首都사단은 10월 1일 군단장명에 의하여 일제히 38° 線을 突破하고 元山을 제 1 목표로 하여 進擊을 시작하였다.

제 3 사단은 東海岸의 道路를 따라 敵 제 5 사단의 江陵경비여단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襄陽(10. 2)—高城(10. 4) 通川(10. 6)을 거쳐, 10월 10일 元山에 突入하였으며, 首都사단은 襄陽(10. 2)—麟蹄(10. 5)—淮陽(10. 8)—新高山(10. 9)을 거쳐, 역시 같은 날 元山에 突入하므로써 東海岸의 要港을 탈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 1 군단이 쾌속적으로 元山을 점령하게 되자 MacArthur 元帥가 계획한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작전은 無爲로 돌아가게 되었고, 10월 26일에야 行政的인 上陸을 하게 되므로써 北進작전계획과 실시에 차질을 招來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韓國軍 제 1 군단이 東海岸에서 急進擊을 감행하자 美 제 8 군에서는 10월 3일에 이르러 北進준비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美 제 1 군단은 현재의 경비임무를 美 제 9 군단에 인계하고 臨津江線에 진출하여 공격준비를 끝낸 다음, D일을 기하여 제 1 기병사단을 主攻으로 하여 平壤을 공격하고 美 제24사단과 韓國軍 제 1 사단은 軍團의 兩翼을 엄호하면서 진격하라.

美 제 9 군단은 제 1 군단의 경비임무를 인수하여 서울—釜山間의 補給路를 경비하면서 韓國警察隊와 더불어 殘敵을 소멸한다. 10월 5일에 韓國軍 제11사단을 배속한다.

韓國軍 제 2 군단은 春川과 議政府지역에서 主力으로써 北進한다.』라고 하였다.

이 때에 美 제 9 군단이 北進을 하지 않고 後方경비를 담당하게 된 이유로 첫째는 殘敵의

소멸이고, 둘째는 보급의 추진문제였다. 만일 제8군의 작전구상대로 제10군단이 서울에서 直路로 北進공격을 단행하였다면 韓國軍 제1군단과 더불어 平壤과 元山을 거의 同時에 탈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제10군단이 仁川과 釜山에서 다시 乘船한 다음, 元山上陸을 감행하려는 계획으로 말미암아 西部戰線에서는 10월 9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美 제1군단의 제1기병사단이 禮成江線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날 MacArthur 元帥는 再次 金日成에게 降伏을 권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난 것과 大同小異하였는데, 즉시 敵對行爲를 중지하고 통일독립된 민주주의 韓國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어 UN에 全的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UN의 명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행동을 곧 開始할 것이라고 최후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金日成은 11일 UN軍 총사령관의 항복권고를 거부하고, 그의 도당들에게 최후 抗戰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다.

한편 韓國軍 제1사단도 11일 高浪浦에서 행동을 시작하여 平壤으로 北進을 감행하여 美 제1기병사단과 누가 먼저 平壤에 돌입하느냐의 경쟁이 벌어져 注目을 끌게 되었는데, 韓國軍은 1일 평균 25 km 라는 진격속도를 발휘하였다.

뒤이어 美 제24사단도 10월 15일 開城에서 행동을 시작하여 白川—海州—載寧—沙里院方面으로 迂廻, 進出하였다. 이 때에 사단은 美 제1기병사단과 沙里院을 누가 먼저 突入하느냐에 따라서 平壤進擊路의 우선 使用權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10월 17일 美 제1기병사단이 먼저 突入하므로써 平壤공격의 경쟁은 美 제1기병사단과 韓國軍 제1사단 사이에 先陣을 다투게 되었다.

美 제1군단 예하사단의 平壤先陣의 경쟁은 결국 機動力과 火力장비가 우세한 美 제1기병사단보다도 오히려 車輛장비가 부족하여 晝夜로 強行軍을 계속한 韓國軍 제1사단이 10월 19일에 側扼高地인 牡丹峰一角에 돌입하였고, 또한 제1사단의 右側을 前進한 韓國軍 제2군단의 제7사단 제8연대가 金日成大學을 점령한 다음, 市內에 突入하므로써 古都平壤은 먼저 韓國軍에 의하여 收復되어 韓國軍의 명예를 높이고 빛나는 전통을 남기게 되었다.

한편 元山과 陽德으로 北進한 韓國軍 제2군단도 平壤을 공격하라는 명령에 따라 元山에서 西進하는 제6사단과 谷山을 거쳐 陽德으로 北進하는 제8사단과 서로 치열한 先鋒다툼이 벌어져, 결국 陽德에서 양개 부대의 先頭가 충돌하여 서로 간에 進擊路를 양보치 않고 合流하여 平壤으로 향함으로써 시간적으로 차질을 보게 되었고, 이들에 예비로 있던 제7사단

제 8 연대가 遂安—江東에서 平壤으로 진격하여 漁夫之利로서 제 2 군단의 面目을 유지하는 一場面도 있었다.

MacArthur 元帥는 平壤공격과 併行하여 空輸挺進작전을 구상하고 있던 중, 10월 20일에 嘉川과 順川에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投下시켜 平壤에서 퇴각하는 敵의 수뇌부와 그 主力부대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美軍 포로들을 구출하려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敵의 수뇌부와 主力부대는 이미 淸川江線을 넘었기 때문에 그 本來의 작전목적을 달성하지는 못 하였고, 그곳을 방어하던 敵兵 3,818명을 포로로 하는 戰果를 거두게 되었다.

平壤을 탈환한 美 제 1 군단과 韓國軍 제 2 군단은 鴨綠江을 향하여 진격을 계속하였는데, 이 때에 韓國軍 제 1 사단은 水豊發電所를 목표로 제24사단(宣川탈환 후 韓國軍 제 7 사단과 交代)은 新義州를 향하여 각각 진격하였으며, 美 제 1 기병사단은 平壤의 직접 경비로 남게 되었다. 또 韓國軍 제 2 군단의 예하 제 6 사단은 楚山—碧潼線에, 제 8 사단은 敵의 임시 首都인 江界를 탈환하는 즉시로 滿浦鎭으로 돌진키로 하였다.

이 당시에 我軍이 淸川江을 突破하자 敵은 최후 遲延作戰을 展開하기 시작하였으니, 즉 定州 溫井里를 연하는 線上에서는 敵 제17사단을 비롯한 제32, 제45사단이 東北方으로 뻗친 방어선을 구축하여 抵抗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進擊速度를 늦추게 되었다. 그러나 韓國軍 제 1 사단은 10월 22일에 价川을 거쳐 25일에는 寧邊을 점령한 다음, 雲山北方에 진출하였고, 美 제24사단은 25일에 博川을 탈환하고, 泰川(10. 28)→龜城(10. 31)→宣川(11. 1)을 거쳐, 그 先鋒大隊는 停車洞에 진출하여 新義州까지 40Km를 남기게 되었다.

韓國軍 제 6 사단은 먼저 平壤을 收復코자 하였으나, 이미 점령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그 진격방향을 바꾸어 成川(10. 19)→順川(10. 20)→价川(10. 21)→熙川(10. 22)→古場(10. 25)을 거쳐 제 7 연대제 1 대대가 10월 26일 楚山을 탈환하고 鴨綠江畔에 도달하여 全軍的으로 국경선 도달의 제 1 착을 차지하였고, 太極旗를 휘날리며 戰勝의 칼을 씻게 되었다.

韓國軍 제 8 사단도 제 6 사단에 뒤이어 10월 19일 成川에서 東北方으로 方向을 바꾸어 德川(10. 24)→球場洞(10. 25)을 거쳐, 26일 熙川에 진출하였다.

한편 韓國軍 제 1 군단의 예하인 수도사단은 東海岸沿岸 道路線을 따라 급히 敵을 추격하여 10월 13일에는 文川을 점령하고 계속하여 永興(10. 14)→定平(10. 17)→咸興(10. 17)→北靑(10. 22)→端川(10. 25)→城津(10. 29)을 거쳐 11월 5일에는 吉州를 탈환하였다. 그러나 敵은 6~7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수습하여 漁浪川에 방어진을 구축한 다음, 我軍의 진격을

극력 저지하였으므로 10월 12일부터 8일동안에 걸쳐 彼我間에 激戰이 전개되었다. 我軍은 제18연대가 공격의 主攻部隊가 되어 空中支援을 받아가면서 20일에 이르러 드디어 敵을 격파하고, 漁浪川을 渡河하여 突破分斷과 追擊打擊을 계속한 끝에, 11월 25일에 드디어 清津을 점령하고 先鋒隊는 11월 30일에 富寧부근에 진출하였다.

韓國軍 제3사단도 首都사단에 뒤이어 北上하여 11월 17일에는 吉州를 탈환하고 21일에는 合水를 거쳐 제22연대의 일부병력이 美 제7사단 제17연대와 더불어 惠山鎭에 突入하므로써 咸鏡道方面으로 追擊한 부대 중에서 가장 먼저 國境線에 進出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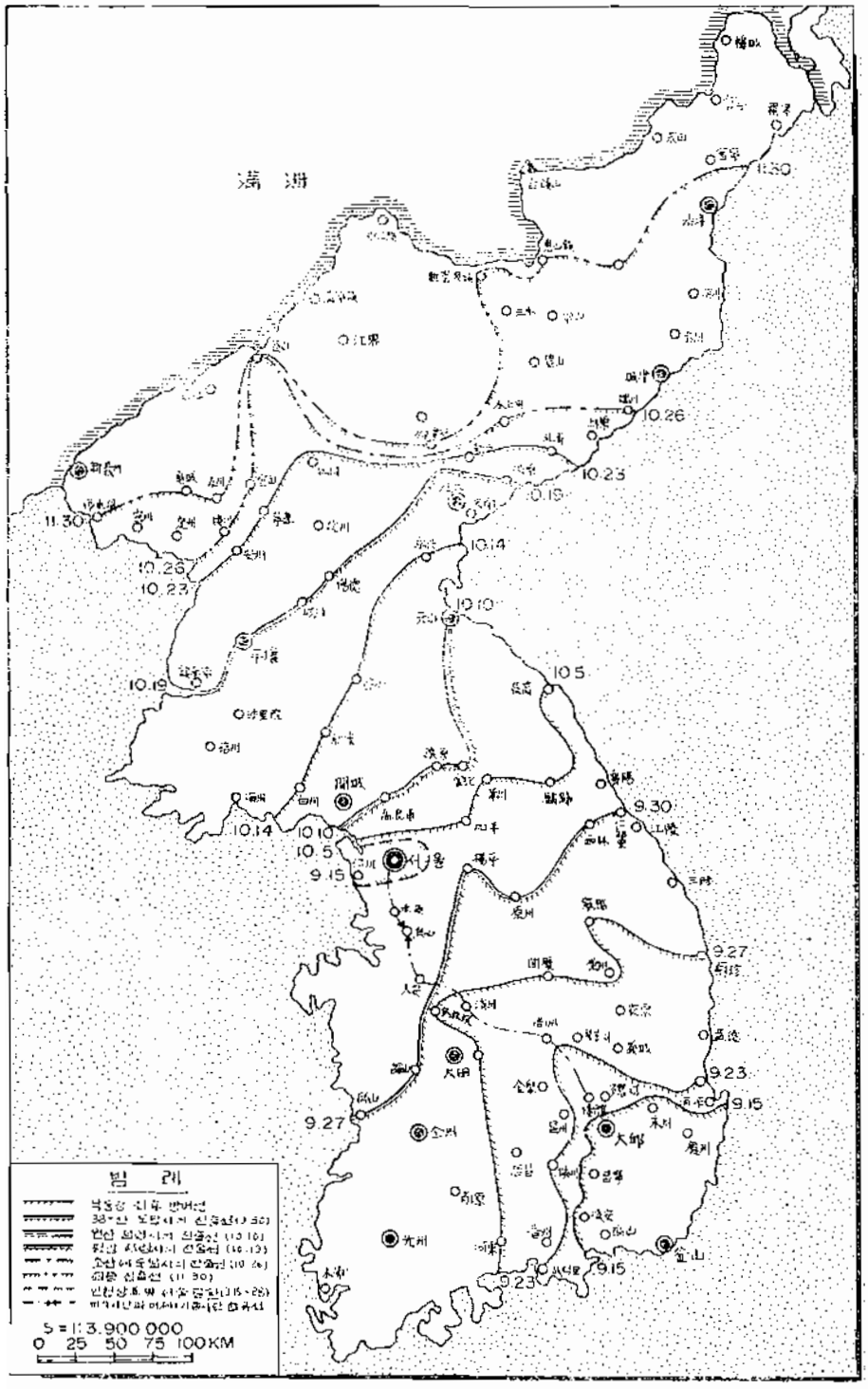
美 제10군단의 제7사단은 10월 29일 利原에 上陸한 다음, 11월 1일 敵과 교전하여 豊山을 점령하는 즉시로 發電所를 整備하고, 11월 15일, 일부병력은 赴戰湖畔에 진출하였다. 18일에 이르러 美 제7사단의 主力은 中山後方으로 移動을 시작하였는데, 예하 제17연대는 21일에 惠山鎭에 突入하여 이를 탈취하였고, 28일에는 제32연대가 그 西側에 진출, 所期의 목표를 모두 制壓하게 되었다.

한편 10월 26일에 元山에 上陸한 美 제1해병사단은 제10군단 後方의 補給線을 비롯한 地域경계를 위하여 제1연대는 咸興와 馬轉里길을, 그리고 제5연대는 興南의 南쪽에 있는 連浦비행장을 경비하였고, 제7연대는 11월 2일에 長津湖畔에 急進한 다음, 發電所경비에 임하게 되었다.

10월 24일 平安道方面의 美 제1군단과 韓國軍 제2군단이 清川江線을 돌파하자 Mac-Arthur元帥는 9월 27일 그가 결정한 바 있는 UN軍의 北進制限線(定州—寧遠—咸興)을 철폐하고, UN軍도 全力을 다하여 韓滿國境線까지 진격하라고 명령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결정은 我軍이 平壤을 탈환한 이래 敵의 저항이 보잘것 없었으나, 清川江을 돌파하자 敵의 최후 抵抗이 극심하게 되었으므로 韓國軍獨力만으로서는 국경선 진출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동시에 中共軍의 參戰徵候도 보이지 않는 까닭으로 취하여진 措置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10월 25일 韓國軍 제1사단이 雲山東北方에서 처음으로 中共軍과 접촉하여 교전 끝에 1명의 포로를 얻게 되었는데, 이 포로의 증언에 의하면 熙川北方에 中共軍 20,000명이 展開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韓國軍 제3사단의 제26연대도 長津湖畔으로 향하다가 水洞부근에서 敵 2명을 포로로 잡게 되어 심문한 결과, 이도 또한 中共軍임이 확인 되었고, 그의 陳述에 따르면 長津湖 北쪽에 5,000여명의 中共軍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황도 제 1 호 總反擊作戰進擊線 상황(1950. 9. 16~11. 3)



이리하여 戰局은 急變하게 되었고, MacArthur元帥는 情勢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混迷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는 10월 15일에 Truman 大統領과의 Wake島 會談에서 "中共軍이 介入할 公算은 극히 적다고 생각한다."라고 證言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견해는 中共이 介入한다면 美國은 보복조치로서 滿洲와 中國本土의 戰略基地를 폭격하게 될 것인즉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韓國戰에 介入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었으며, 비록 中共軍 300,000명이 滿洲에 집결하였다는 것과 또한 鴨綠江對岸에 있는 中共軍이 不法介入한다 하여도 5~60,000명에 不過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그 판단을 뒤엎고 대규모의 병력으로 侵略을 企圖하게 되므로써 戰局은 새로운 樣相을 띠게 된 것이다.

美軍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韓國에 증원된 美 제3사단은 11월 5~17일 사이에 元山에 上陸하여 美 제1해병사단의 元山지구경비임무를 인수하는 동시에 咸興, 興南지역의 外廓방어와 美 제10군단의 後方지역 補給線 경비와 敵유격부대의 掃滅작전에 임하였다.

11월 30일 首都사단의 선봉대가 定州附近에 도달할 때까지 我軍이 확득한 포로는 무려 135,000명에 달하고 있었는데, 그 중의 60,000명은 釜山에, 33,000명은 仁川에 11,000명은 平壤에 각각 押送하여 收容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收時臨容所에서 갈아 있었다.

其他상황 : 기간 중에 증파된 UN軍의 參戰 상황은 다음과 같다.

9월 19일에 Philippines軍의 제10대대전투단 1,367명이 釜山에 도착, 美 제25사단에 배속되어 大邱—金泉間의 補給路를 경비하다가 11월 1일 平壤方向으로 이동하였다.

9월 27일에 濠洲軍聯隊 제3대대가 釜山에 도착하여 10월 1일에 英 제27여단에 배속되었으며, 그 뒤에 淸川江線에서 停戰洞으로 北進하는 旅團의 一翼을 담당하였다.

10월 7일에 泰國軍大隊의 主力이 釜山에 上陸한 다음, 11월 28일에 平壤에 진출하여 美 제187공수연대에 배속되었다.

10월 17일에 土耳其旅團 主力이 釜山에 上陸하여 美 제9군단에 배속된 다음, 大邱—大田間의 主補給路를 경비하다가 11월 26일 軍隅里로 진출하였다

10월 23일에 和蘭軍大隊가 釜山에 上陸하여 大邱로 이동한 다음, 정비훈련을 하면서 戰線投入을 대기하게 되었다.

11월 18일에 英 제29旅團이 釜山에 上陸하여 開城으로 진출한 다음, 美 제187공수연대에 배속되어 11월 30일 현재 市邊里일대에서 殘敵격멸에 임하게 되었다.

이상으로써 UN參戰軍의 11월말 현재 地上부대는 美, 英, 佛, 加, 土, 泰, 濠, 比, 和의

9個國이고, 해군부대는 美, 英, 加, 濠, 泰, 佛, 和, 新西蘭등의 8個國이며, 공군부대는 美, 英, 加, 濠, 泰, 佛, 南阿등의 7個國에 이르고 있었다.

한편 戰局의 추세에 따라 韓國軍 제3군단이 10월 16일에 창설되어 제5사단과 제11사단이 예속되었는데, 이 군단의 초기임무는 後方지역에 대한 경비와 各地에서 준동하고 있던 敵 유격부대에 대한 掃滅이었다. 그런데 제5사단은 7월 17일부로 해체되었다가 10월 8일에 재 창설되었으며, 서울—春川—麟蹄—襄陽間의 補給路를 경비하는 것이 그 主任務였다. 또 제11사단은 8월 27일부로 새로 창설되어 10월 초순부터 洪南地方으로 前進하여 殘敵掃滅에 임하게 되었다. 또 제9사단은 10월 25일에 창설되어 江陵方面으로 前進한 다음, 太白山脈일대에서 준동하는 殘敵의 掃滅에 임하고 있었다. 제2사단은 7월 24일에 일단 해체되었다가 11월 7일에 재 창설된 다음, 平康으로 이동하여 鐵原—華川일대의 殘敵掃滅에 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韓國軍도 도합 10개 사단으로 확충되어 開戰 당시의 8개 사단을 凌駕하게 되었고, 그外 5개 遊擊大隊를 창설하여 華川을 중심으로한 敵의 유격부대에 대한 掃滅戰을 전개하였다.

이상으로써 彼我의 軍事情勢에 관한 一瞥을 게관하였는 바, 그 밖에 國內情勢를 살펴 본다면 9.28 收復이후 점차 南韓 全地域이 收復되고 정상적인 행정이 부활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의 하나는 이른바 附逆者處斷의 문제였다. 부역자란 敵 侵略 下에 있어서 혹은 자진하여, 혹은 위협과 강제에 못 이겨 共産逆徒들에게 협력한 者를 말하는데, 政府로서는 被侵地域을 수복함과 동시에 이들 부역자에 대한 방침을 확립하여 일면 民族正氣를 앙양함과 동시에 他面 民心의 不安을 鎭靜하도록 하는 것이 緊急한 課題였다.

國會에서는 미리 이와같은 사태를 예상하고 還都 後인 9월 17일 「附逆行爲特別審査法案」과 함께 「私刑禁止法案」을 상정하여 12월 1일 이의 통과를 보았다.

前者는 부역자의 처벌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中央과 地方에 「附逆行爲特別審査委員會」를 설치하고 부역혐의자의 처단은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기로 한 것이고, 後者는 부역행위의 懲治를 명자하여 個人이나 권력기관이 지나친 행동에 나가서 人權을 유린하는 폐단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서울을 위시한 기타의 被侵地域에 남아 있던 國民들의 기분은 어떠하였는가 하면, 포악무비한 傀儡도당의 학정에 시달린 나머지, 그들의 共産逆徒에 대한 증오감은 비

등하고 따라서 大韓民國의 主權회복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南쪽으로 後退할 때 조직적인 철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막대한 數의 國民을 敵의 虎口 앞에 버려둔채 無秩序한 遷都를 하여 그처럼 큰 苦楚와 犧牲을 당하게 하였음에 대하여 은연 중 원망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누구가 조작한 用語인지는 알 수 없으나 渡江派니, 非渡江派니 하여 渡江派는 愛國者視하고 非渡江派는 무조건 叛逆者視하는 風潮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本意 아니게도 政府를 불신임하는 소리가 떠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값싼 勝利感에서 無理와 非行을 지지르는 事態도 생기게 되니,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民族的 結束을 阻害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政府로서는 遷都를 할 때에는 응당히 失策에 대하여 殘留한 市民과 國民들에게 謝過의 釋明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기회에 政府全般에 걸쳐 心機一轉한 새 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政府로서는 이와같은 民衆心理의 미묘한 동향을 충분히 관찰하지 못하고 사태수습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서지 아니하였다. 그 結果로 10월 8일 國會의 正副議長과 各分科委員長이 引責사표를 제출한 외에는 별반 國政의 쇄신됨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말단 機關등에 있어서 主客을 분간 못하는 過誤도 초래하여 騷然歸一한 民心을 動搖시킨 바 적지 아니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공기가 반영되어 정부와 국회와의 사이에는 점차 대립이 심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1월 3일의 國會는 政府에서 지명한 新國務總理 白樂濬를 100대 21로 否決하였을 뿐 아니라, 議員 85명의 連名으로 내각의 총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는 형편이었다. 그 후 정부에서는 白樂濬의 國務總理認准의 再考慮를 요청하였으나, 國會는 再次 이를 否決하고 內閣總辭職要求 決議案은 11월 7일의 國會本會議에서 일단 보류되었다.

그 후에도 政府刷新에 대한 요망은 끊임 없으니, 결국 11월 22일에 이르러 駐美大使 張勉을 國務總理에 指名, 다음날 國會에서 이를 承認하고, 同時에 三長官을 更迭하여 法務에 金俊淵, 農林에 孔鎭恒, 社會에 許政을 각각 任命하였다. 또 附逆者에 관하여서는 11월 28일 趙炳玉內務長官이 合理的인 처리방침을 명시하였고, 收監 중의 附逆者에 대하여서도 12월 25일을 기하여 減刑, 혹은 特赦를 행하였다.

11월 7일에는 警備戒嚴에 관한 宣布가 있었는데, 對象地域은 濟州島를 비롯한 5市 (釜山, 馬山, 大邱, 金泉, 浦項)와 21郡 (東萊, 咸安, 昌寧, 密陽, 梁山, 蔚山, 東萊, 金海, 昌原, 統營, 固城, 巨濟, 延日, 慶州, 永川, 慶山, 清道, 漆谷, 金陵, 善山, 醴泉을 除外한 南韓 38°北緯線

以南) 全域으로서 施行日字는 11월 10일로 되었으니, 이 때에 除外된 市郡은 모두 피로써 물들어지고 빠로써 세워진 江山들이었다. 이로써 7월 8일 佈告 제1호로서 宣布된 非常戒嚴令은 警備戒嚴施行과 동시에 해제가 되었다.

11월 3일에는 朝鮮銀行券의 流通 및 交換에 관한 件이 告示되어 종래 사용하여 오던 紙幣는 11월부터 18일까지 새로운 紙幣와 交換키로 하였으니, 그 까닭은 北傀가 침략한 以來 10億圓이나 紙幣를 남발하였기 때문이다.

11월 25일에는 大統領令으로 捕虜審査委員會規程이 公布되었는데, 이는 140,000名에 이르는 北傀軍의 捕虜釋放與否를 심사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法令이 公布되었다.

國軍臨時階級에 관한 件(대통령령 제384호 9.10), 非常國土防衛令中改正法律法律(法律 제158호, 9.16), 避難民收容에 관한 臨時措置法中 改正法律(法律 제146호, 9.25), 戰災地域의 國庫金特別措置에 관한件(9.27), 補償査定委員會 職制 中 改正의 件(10.11), 公務員臨時登錄法(法律 제148호 10.15), 武功勳章令(대통령령 제385호 10.18), 傷痍記章令(대통령령 제389호 10.24), 六·二五事變從軍記章令(대통령령 제390호 10.18), 軍事援護法施行細則(準則), 送付의 件(10.29), 租稅臨時增徵法(法律 제154호 11.30)등이다.

9월 17일에 趙炳玉내무장관은 『共匪地域의 同胞에 佈告』를 내렸는데, 各道, 市, 郡의 行政復舊를 앞에 두고 第1段階로서 治安維持를 강조하고, 다음 5項을 요망하였다.

1. 國軍과 國際聯合軍의 작전방침에 순응할 것.
2. 官에 협력, 복종할 것.
3. 냉정침착, 법과 질서의 생활을 할 것.
4. 법을 超脫하는 복수행위는 엄중처단함.
5. 강압에 의하여 敵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관대히 임함. 협력자에 대한 일체의 私的 제재를 엄금함.

이어서 26일에는 역시 趙 내무장관이 治安回復에 관한 佈告를 하고, 국민들에게 재차 협력을 요망하였는데, 특히 糧穀을 위시한 生活必需品을 買占賣惜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李大統領은 國軍이 9월 30일 38°線에 到達하자 談話하기를,

『MacArthur 元帥의 高名한 지휘 하에 UN軍과 우리 國軍이 共産軍 後方 700里나 되는

仁川에 上陸하여 共産軍은 드디어 陷沒의 地境에 빠져 赤色帝國主義의 전복될 날이 당도하였다(中略).

政府와 國軍은 國軍의 榮光스러운 功績과 커다란 力量과 빛나는 正義를 믿으므로써 오직 이와같이 成功한 것이니, 이는 우리나라가 存在하는 날까지 永久히 民族의 肝에 새겨야 할 것이다.(以下省略)」

이어서 10월 2일에 李大統領은 다음과 같은 要旨를 公布하였다.

「戰災民 중 家屋파손으로 嚴冬을 앞두고 다 같이 살아야 하므로 빈 방들이 있으면 모두 들게 하고, 그 전에 公務員들이 官舍로 쓰던 것은 다시 쓰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公務員에게 民間에서 뇌물을 주고 받는 者는 엄벌할 것이며, 援助物資나 政府財産이 暗市場에 나가는 것을 즉시 警察에 알려서 범죄자를 다스리라.」고 하였다.

10월 21일 李大統領은 平壤이 收復된 뒤이어 「南北同胞는 協助하여 國土統一에 매진하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共産徒輩들이 蘇聯의 후원을 의지하고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蘇聯의 屬國으로 만들려고 殺人, 放火를 일삼아 一時 危機에 이르렀던 바, UN軍이 와서 우리를 도와싸운 결과, 38°線을 削除시켰을 뿐 아니라, 國軍이 乘勝長驅 며칠 안에 鴨綠江, 豆滿江까지 가서 國土를 完全 回復할 것이니, 이로써 統一國家로서 友邦의 원조를 얻어 國家를 再建하여 子孫萬代에 이를 유전할 것이다.

南北統一을 완수하는 마루에, 내가 以南 以北同胞들에게 한 말로 忠告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부터 과거의 모든 폐단을 一掃하고 三千萬이 다 한 身體요, 한 가족으로서 서로 믿고 돕기로만 作定하고 私私利害나 感情로 인해서 다음 子孫들에게 죄명을 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極烈分子들은 國法대로 처리될 것이며, 收復道에 知事를 임명하였으니, 우선 道內의 民心이 정돈되는 대로 各該道民들은 自由雰圍氣속에서 UN監視下에 知事選擧를 할 것이며, 그 후에는 國會議員을 人口比例 100,000名에 한사람씩 선거해서 國會의 자리를 채울 것이다.

西北青年團은 統一促進과 反共鬪爭에 공적을 가진 團體인 바, 이 團體가 戰線으로 들어가서 治安과 啓蒙과 組織등에 軍警을 도와 努力할 것이니 以北에 남아 있는 모든 青年들은 合同해서 不忠不義한 分子를 적발하여 法的으로 처리할 것이다.

今年에 秋收되는 食糧은 以南에서 실시하는 法案에 따라 2~3割은 地稅로 政府에 수납하고 기타는 農民이 차지할 것이며, 秋收後에는 農地改革法을 실시하여 農地는 以前農主에게 돌리되, 農主는 적당한 가격으로 政府에 팔고 政府는 農民들에게 分配한 後 공정가격으로 값을 갚은 뒤에 自己의 所有가 될 것이다.

이 밖에 金融·商工 및 歸屬財産은 以南에서 行하여 온 政策과 同一할 것이다. 우리가 合하면 살고, 나누면 쓰러진다는 것이니 南北同胞가 서로 협조하는 정신과 성심껏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1월 27일 李大統領은 平壤市民大會에 參席하고 다음과 같은 要旨의 말을 하였다.

"萬古風雪을 겪고 39年 만에 大同江을 건너 平壤城에 들어와서 同胞 여러분을 만나니 눈물이 가득하다. 38°線이라는 條理도 없고 理由도 없는 鐵幕 때문에 以北同胞들은 共産黨 압제 하에 살 수 없어 數百萬의 男女老少가 越南하여 고생을 하였다. 그러던 차에 6.25 南侵을 받았으나, 世界 53個國이 우리를 도와서 統一을 目睫에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新世界 新國家를 만들어 잘 살겠다는 결심을 男女同胞가 가져야 겠다.

여러분의 말을 들으니 貨幣問題로 고생이 많다는데 調査해서 이를 조치할 것이며, 以北에 總選擧가 실시될 때까지는 당분간 軍政이 될 것이니, 違反함이 없도록 당부한다. 共産黨이 어디서 들어 오든지 그것이 蘇聯이건, 中共이건 들어오면 우리는 죽기로 싸워서 물리치며 이 땅에서는 발 붙이고 살지 못할 것을 世界에 宣言한다. 過去에 共産黨의 꾀임에 빠져 들어 간 者들은 다 悔改하고 돌아오면 包容할 것이며, 殺人放火한 者들은 摘發해서 法으로 懲治할 것이다. 以南이나 以北이나 다 똑 같이 하자는 것이 政府의 意圖이니, 離間하는 말이나 꾀임에 빠지지 말고 한 血族으로 나가자."

10월 30일 李大統領은 統一問題에 관하여 談話를 發表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되,

『韓國政府는 10월 7일 採擇된 國際聯合總會決議에 좇아서 行動할 것이며, 國際韓國統一 및 復興委員團과 적극 협력할 작정이다. 北韓에서 시행할 選擧에 대해서 自己네들 良心에 따라 아무 위협없이 投票할 수 있는 自由雰圍氣가 생길 때 실시되기를 바란다. 戰爭이 끝난 후 몇 週日이 지나면 事態가 安定될 줄 아는데, 그때 南北을 통하여 各道에 總選擧를 시행하되, 道知事를 政府나 大統領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國民들이 直接선택하도록 할 작정이다. 政府는 새로 도착한 新國聯委員團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

다."라고 하였다.

한편 國會에서는 11월 14일에 『後方殘敵掃蕩을 위한 國軍增設 및 武器强化에 관한 國會建議案』을 政府에 제출하였는데, 그 主文은 「政府 및 UN軍總司令官에게 智異山을 主로 한 湖南지구 殘敵討伐을 위한 國軍 3개 사단 증설과 강력한 무장을 강화할 것을 建議함.」이라고 하였다. 그 理由로써는 「智異山을 主로 한 湖南地方을 시찰한 결과 現 상황은 마침내 종래 바늘 지나간 格이 되어서 大路通過에 불과하므로 3~40,000名의 匪徒軍은 全南, 全北, 慶南의 三道에 걸쳐 智異山을 근거로 湖南일대에 終戰상태라기 보다 지금부터 開戰이 展開된感이 有하다. 國軍駐屯 後 湖南각지의 警察支署, 面事務所의 燒却을 대부분 終了하고 이제는 部落 右翼陣營 家屋燒却에 들어가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제11사단 1개 연대로서는 全南北, 慶南, 忠南北의 五道의 討伐작전은 물론 治安만도 不可하니 3개 사단을 증설하는 동시에 鄕土防衛隊와 義勇警察, 그리고 大韓青年團등에 武裝을 주어 조속히 殘敵掃滅을 위한 方策을 政府와 UN軍 총사령관에게 건의한 것이다.

11월 27일 李대통령은 거듭 南北統一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 要旨는 『하루 속히 以北五道에 總選擧를 실시하여 國會議員을 선출함으로써 현재 國會 안에 百餘席이 빈 것을 채우라는 것이니, 이를 速히 進行케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였다.

한편 美國 內에 있어서 9월 21일에 Louis A, Johnson 美 國防長官이 更迭되어 후임에 George C. Marshall이 就任하였다.

11월 30일 美 Truman 대통령은 聲明을 통하여 "如何한 事態下에서도 韓國을 抛棄치 않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는 中共에 原子彈사용도 고려하겠다."고 爆彈宣言을 함으로써 侵略者들에게 斷呼한 決意를 보여준 바 있었다.

第 27 章

韓國軍의 38° 線 總反擊作戰

第 27 章 韓國軍의 38° 線 總反擊作戰

要 旨

9월 2일 18.00를 기하여 敵 제2군단(제5, 제12, 제15, 제8, 제1, 제13, 제3사단)의 예하 7개사단은 최종적으로 決戰攻勢를 시작하였는데, 그들의 목표는 我軍의 최후 橋頭堡인 釜山을 점령하는데 있었다.

敵의 攻勢계획에 의하면 東海岸의 제5, 제12사단은 제5공격집단으로서 浦項과 安康線을 突破한 다음, 慶州를 合擊, 점령하는 즉시로 釜山으로, 제4공격집단인 제15, 제8사단은 普賢山—新寧線을 突破하여 永川을 점령한 다음, 역시 慶州를거쳐 釜山으로, 그리고 제3공격집단인 제1, 제13, 제3사단은 全軍의 主攻으로서 多富洞과 倭館線을 돌파하여 大邱를 攻略하는 동시에 南進하여 최종목표인 釜山을 점령함으로써 이른바 南韓解放의 꿈을 실현코자 企圖하였다.

이리하여 실시된 敵의 攻擊機動은 그 氣勢가 자못 괄목하여, 東海岸의 敵 제5사단은 9월 5일 浦項을 점령하고 兄山江對岸에 진출하였으며, 제12사단도 安康을 突破하여 慶州北方으로 我 제1군단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제2군단의 중앙공격집단인 제15사단도 역시 같은 날에 永川을 점령하고 慶州로 진출코자 先頭는 阿火에 진격하였고, 제8사단은 의외로 공격이 부진하여 新寧北方에서 我 제6사단에 의하여 阻止됨으로써 제15사단과의 협동공격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편 敵 제1사단은 架山과 大栗洞線에, 그리고 제13사단과 제3사단은 美 제1기병사단의 多富洞—倭館線을 돌파하고 大邱北方 12km 線까지 각각 진출하므로써 我軍은 開戰以來 최대의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我 제1 및 제2군단의 예하 각 사단은 死力을 다한 방어와 果敢한 逆襲의 斷行으로 敵의 打擊威力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敵의 攻勢는 하는 수 없이 守勢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要因을 만들게 하였다.

이와같이 敵 제2군단의 공격이 勢窮力盡하였을 때인 9월 15일 我軍이 오래 전부터 계획한 바 있는 仁川上陸作戰을 단행하고 이어서 서울로 進擊하자 때를 맞추어 洛東江戰線의 韓·美兩軍도 16일 09.00를 기하여 일제히 總反擊으로 전환하게 되니, 敵의 연장된 戰線은 腰折이 되면서 孤城落日의 형세가 되었고, 洛東江戰線의 敵은 進退兩難 속에서 오직 전진만이 강요되었다.

我 제1 및 제2군단 正面의 敵 제2군단은 我軍의 反擊에 무릭처 악착같은 저항을 企圖하였으나, 18일 安康이, 그리고 20일에 浦項이 제1군단에 의하여 각각 탈환됨으로써 敵의 戰線에 崩壞作用을 일으키게 되어 戰勢에 敗色이 짙게 되자, 憫服하기 짝이 없는 金日成도 별 수 없이 23일에 이르러 휘하 全軍에게 後退命令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敵 제2군단은 각 지구에서 총퇴각을 하게 되자, 我 제1, 제2군단도 38°線을 향하여 無制限攻擊을 감행하게 되었는데, 그 狀況은 다음

과 같다.

제 3 사단 : 이 사단은 퇴각하는 敵 제 5 사단을 추적하면서 22 일에 興海, 25 일에 盈德, 그리고 27 일에 蔚珍을 거쳐 29 일에 三陟을 탈환하고, 30 일에는 江陵을 점령한 다음, 38°線에 도달하여 北進命令을 기다리게 되었다.

首都사단 : 이 사단은 敵 제 12 사단의 지연행동을 격파하면서 21 일에 杷溪, 23 일에 道坪洞, 그리고 25 일에 靑松을 거쳐, 26 일에 英陽에 뒤이어 쉴새없이 27 일에 春陽, 28 일에는 寧越과 平昌을 점령한 다음, 29 일에는 大和에 진격하고 30 일에는 38°線 南方의 西林에 도달하여 제 3 사단과 더불어 先頭로 38°線에 도달한 부대가 되었다.

제 8 사단 : 이 사단은 이미 패전한 敵 제 15 사단의 殘敵을 추격하여 21 일 普賢山線에서 반격으로 나아가 22 일 九山洞에 이어 24 일에 義城을, 26 일에는 安東을 점령한 다음, 28 일에는 榮州를 거쳐 豊基 및 忠州를 탈환하고, 이어서 26 일 丹陽, 30 일 楊平에 진출하고 10 월 3 일 서울에 入城하였다.

제 6 사단 : 이 사단은 敵 제 8 사단을 추격하여 21 일 發興, 22 일 軍威, 그리고 25 일에 咸昌에 이어 27 일은 聞慶을 거쳐, 28 일은 忠州를 탈환하고, 30 일에는 前 사단주둔지인 原州를 收復하게 되었고, 이어서 10 월 2 일에는 春川에 진출함으로써 38°線을 指呼之間에 바라보게 되었다.

제 1 사단 : 이 사단은 敵 제 1 및 제 13 사단과 접전하여 敵의 戰線을 돌파함에 있어 苦戰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19 일에는 大邱—軍威間의 道路를 차단함으로써 敵으로 하여금 퇴각을 강요하게 되었고, 이리하여 22 일 多富洞을 탈환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反擊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이로써 사단은 23 일에는 洛東江邊에 진출하여 추격태세를 갖추고, 25 일 洛東江을 强行渡河하여, 27 일 鳥致院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 사단은 美 제 1 군단의 에비로서 後方지구의 殘敵을 擊滅시키고자 水原—報恩, 및 化寧場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10 월 9 일까지 北上하는 敵의 패잔부대를 격멸하였다. 이어서 사단은 安城—水原을 거쳐, 10 일에 서울을 悠悠히 통과하여, 11 일 高浪浦에 진출한 다음, 北進태세를 갖추었다.

제 7 사단 : 육군본부 예비인 이 사단은 慶州일대에서 진진하여 安東—原州—楊平을 거쳐, 10 일 6 일 서울에 入城하였다. 이로써 我 제 1 및 제 2 군단의 38°線에 이르는 反擊作戰이 일단락을 보게 되었다.

한편 해군은 기간 중에 三千浦와 麗水를 탈환하였고, 해병대는 木浦를 수복하였으며, 공군도 汝矣島로 복귀하였으니, 全戰線에 걸쳐 戰必勝과 攻必取의 氣氣가 堂堂하여 無敵의 威勢가 날로 드높았던 것이다.

1, 浦項－38°線進擊戰 (50년 9월 17일부터 / 50년 9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 4 호
상 황 도 제 2, 3, 4 호
작명부록 제 1, 2, 28, 33, 34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 장 군장 金 白 一
제 3 사단 장 대령 李 鍾 贊
제22연대 장 중령 金 應 神
제 1 대대 장 대위 崔 廷 植
제 1 대대 장 대위 金 相 均 (9. 24교대)
제 2 대대 장 대위 金 世 洛
제 3 대대 장 소령 [illegible] 淳 珉
제23연대 장 대령 金 淙 舜
제 1 대대 장 소령 金 尤 榮
제 2 대대 장 소령 崔 尙 俊
제 3 대대 장 대위 朴 鍾 來
제26연대 장 대령 李 致 業
제 1 대대
제 2 대대
제 3 대대 장 소령 殷 碩 約

배속부대

楊部隊 장

지원부대

제11포병대대 장
제 3 야전공병대대 장

병력 : 약 11,000명

장비 : 60mm박격포 52문
81mm박격포 34문
3.5inch로켓트포 23문
57mm대전차포 11문
105mm곡사포 12문
기타 50mm기관총 水冷式중, 경기관총 등

敵 軍

제 2 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 5 사단 장 소장 馬 相 喆
제10연대 장 대좌 朴 炳 秀
제11연대 장 대좌 金 奉 文
제12연대 장 未 詳

병력 : 약 7,000명

장비 : 120mm박격포 21문
82mm박격포 70문
122mm곡사포 5 문
장갑차 11대
전 차 5 대 외 중, 경기관총 등

나. 전투 전의 개황

東海岸戰線의 제3사단과 敵 제5사단과의 공방전은 8월 18일 이래 興海 南쪽 4㎞지점인 鶴川洞線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金錫源준장의 후임으로 9월 1일 사단장에 취임한 李鍾贊대령은 3일과 4일 사단 左翼의 수도사단 방어선이 돌파되자 다음 날 14.30을 기하여 전 병력을 決戰防禦에 유리한 兄山江 南岸으로 기동시켰다.

사단장은 사령부를 迎日飛行場(烏川飛行場) 西南쪽 3km지점인 中興洞에 설치하고 江의 南岸에 沿하여 제25연대를 右一線으로, 제10연대를 左一線으로 각각 배치한 다음, 마지막으로 철수한 제22연대를 제23연대의 後方에 예비로 장악하므로써 결전을 위한 방어작전의 대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그러나 9월 6일 제10연대(장, 高根弘중령)가 군단으로 부터 제8사단으로의 복귀명령을 받자 사단장 李鍾贊대령의 지시를 어기고 제22연대와의 陣地 교대직전에 이동함으로써 커다란 間隙을 만들게 된 결과, 이 虛點을 틈타 敵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兄山高地부근에서 洪溪洞에 이르는 山岳地帶로 침투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사령부를 죽비리에 都邱洞에 이설하고, 수도사단 제18연대 및 特殊任務部隊와 협동하여(9월 9일에는 제26연대도 사단에복귀) 9월 12일에 이르기까지 一週日 나머지 사이에 걸쳐 洪溪洞에서 大覺洞 西쪽의 107高地와 雲梯山을 점령한 敵의 主力부대를 격파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상과 같이 하여 사단의 위기가 가시게 되었던 이날 21.00에 이르러 군단사령부는 要旨 다음과 같은 1군단 작명 제93호(作命附錄제29호)를 하달하였다.

『제3사단은 雲梯山부근에 침투한 敵을 신속히 소탕하고 주저항선에 도달, 次期 공세를 준비하라.』

이에 따라 사단장은 次期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곧 사단의 戰列을 가다듬기 시작하였다.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는 9월 14일 射亭里부근의 殘敵을 섬멸하고 15일 龍德洞으로 이동하였으며,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는 이날 본부를 南城洞에 두고 主力을 生旨洞으로 진출시켜 敵의 패잔병을 격퇴한 다음, 兄山高地에서 迎日에 이르는 兄山江南岸의 左一線 陣地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龍德洞에서 3개 대대의 재편성을 마친 다음, 15일 靑林洞으로 본부를 옮기는 한편, 연대主力을 槐東洞으로 진출시켜 그곳의 殘敵을 섬멸한 뒤 兄山橋를 중심으로한 右一線 陣地를 점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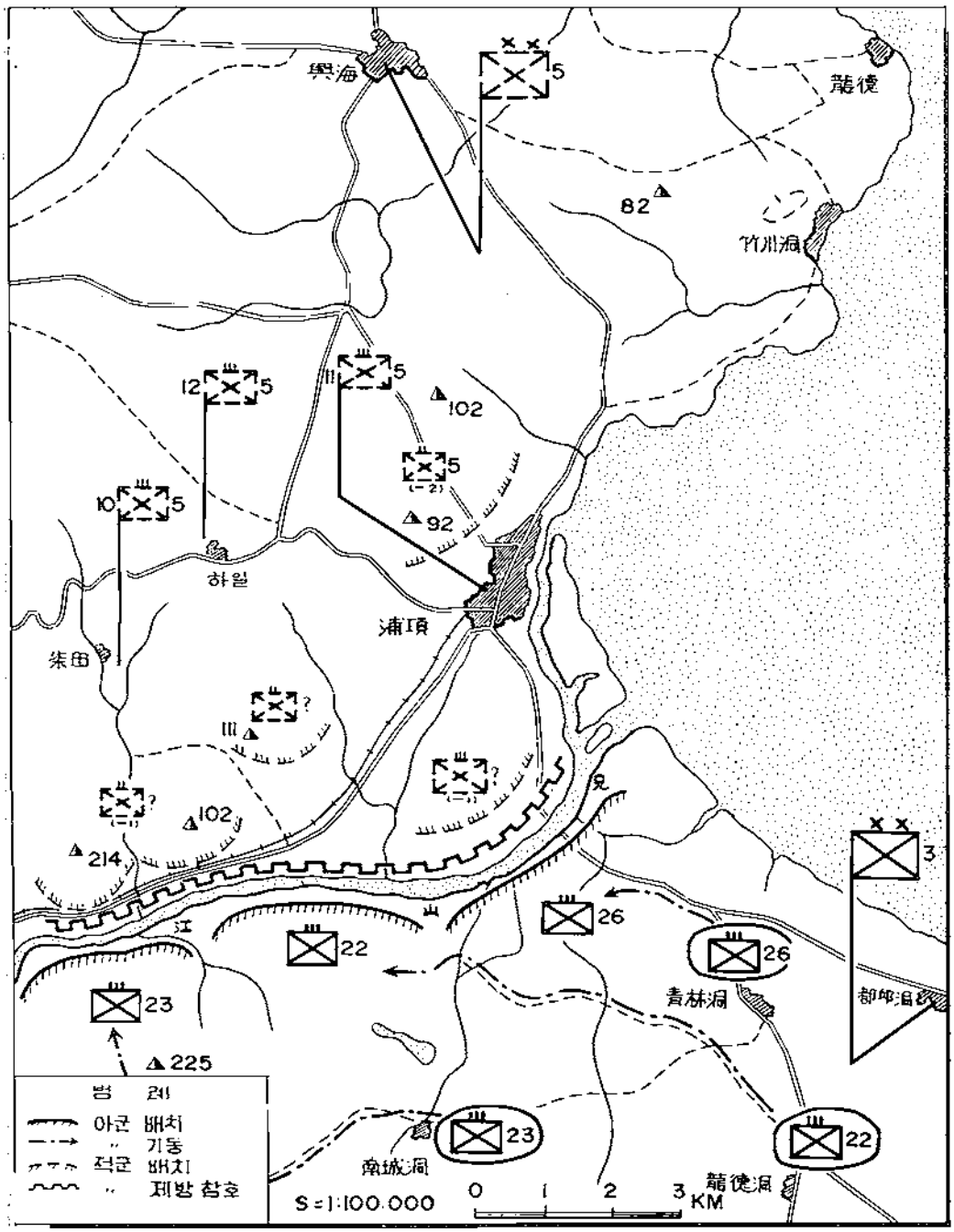
한편 제3야전공병대대는 日月洞에 진출한 다음, 제23연대 正面에 철조망을 가설하였으며, 제11포병대대는 각 연대에 1개 포대씩 分割배속하여 직접 지원하였다. 이렇게 되자 사단은 비로소 방어로부터 攻勢로의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9월 16일 제23연대와 제26연대는 1개 소대규모의 병력으로 각각 特攻隊를 조직하여 兄山江을 넘어 500m前方까지 진출케 하였으나, 堤防一帶에 배치된 敵의 완강한 저항을 받고 물러나는 수 밖에 없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浦項近海에는 戰艦 Missouri號를 포함한 Charles C. Hartman 제독이 지휘하는 美 해군의 機動艦隊가 출동하여 渡河작전에 대한 화력지원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특히 Missouri 號는 16inch 艦砲로써 900kg의 포탄을 兄山江 北岸의 敵 陣地에 계속 집중강타하였다.

한편 이 무렵 敵은 我軍의 육, 해, 공 三面으로부터의 砲火力의 同時大量집중으로 强行渡河의 企圖가 좌절되자 浦項과 興海를 거점으로 兄山江일대의 제방에 橫斷交通壕와 掩壕등으로 연결된 野戰陣地

상황도 제 2 호 戰鬪前 彼我兵力 배치 상황도(1950. 9. 16 현재)



를 구축하고 제5사단과 제12사단의 各 일부 병력으로 제12연대와 제45연대를 편성, 배치하여 我軍의 渡河를 극력 저지하려는 방어태세로 轉移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攻守가 逆轉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 이날 현재 UN軍의 仁川上陸作戰은 성공적인 전전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더우기 이날 제23연대의 左翼을 담당한 首都사단 제1연대가 兄山江을 渡河하여 有琴里일대의 敵 제12사단의 일부 병력과 敵 제5사단 제10연대의 主力을 공격 중이었으므로 戰勢는 점차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戰況 속에서 사단장은 이날 밤 24.00에 총반격을 개시하기 위한 사단 作命 제38호를 하달하였다.

이 뒤에 전개된 전투를 浦項-興海부근과 清河-蔚珍, 그리고 蔚珍-38°線와 三段階로 區分하여 그 경과의 개요를 다음 項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浦項-興海부근 전투(9. 17~9. 22)

(가) 작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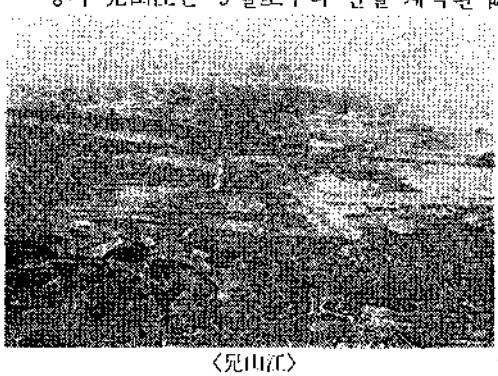
이 浦項-興海부근 전투의 작전계획은 9월 13일 12.00 육군본부에서 하달된 아래와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 제180호(作命附錄 제1호)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 곧 제3사단은

「1. 담당 전투지경내, 제1차진출예정선인 A-1線상의 목표 제1清河, 제2 西井里, 제3 上玉里 및 道路교차점을 공격, 확보하라.

2. A-1線 확보 후에는 즉시 제2진출예정선인 A線上의 목표 「A」盈德, 「B」道路교차점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3. 左翼 인접부대인 수도사단과 협조하여 D일 H시(陸本作命 제180호의 훈령 제4호(50. 9. 15 15.00)에 의거 9. 16 08.35로 변시)담당 正面을 北方으로 공격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작전명령상에 선정된 진출예정선을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는 우선 兄山江渡河작전 단행의 난제를 해결하여야만 하였다.

당시 兄山江은 9월초부터 연일 계속된 降雨로 말미암아 병력의 徒涉이 매우 困難하였기 때문에 공격부대로써는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었다. 대개 이 江의 幅은 河口에서 400m였고, 兩岸을 연결하는 兄山橋부근에서는 200m였으며, 左側 兄山高地부근은 100m로서 여기가 사단 前面 중 가장 河幅이 좁은 곳이었다.


〈兄山江〉

이리하여 사단장은 우선 兄山부근과 兄山橋를 이용한 渡河計劃에 力點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江北의 堤防에는 敵의 견고한 참호 및 교통호가 구축되어 있고, 後方高地에는 敵 主力이 배치되어 堤防부근의 敵 陣地를 직접 지원하고 있었으므로 사단장은 사단의 全面同時渡河에 앞서 우선 一部로써 强行渡河케 하여 對岸에 橋頭堡를 確保케 한 다음, 主力을 건너도록 할 方針이었다.

그런데 이 兄山橋는 제3사단이 9월 5일 兄山江 南岸으로 이동한 뒤에 제1군단장 金白一준장의 지시로 폭파하였기 때문에 一徑間이 파괴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행하도 파괴된 徑間의 일부가 연결되어 있어 一列縱隊形의 前進은 가능하였지만 橋梁 北端에 구축한 敵 토치카로부터 치열한 火力을 뚫고 前進할 경우 손실을 받을 위험성이 많았다.

이곳보다는 兄山橋부근은 좁은 河幅의 나루터로써 만약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强行渡河할 경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 이에 사단장은 左側 제23연대를 攻擊梯隊로 하여 兄山高地 東쪽의 下扶助 前面을 渡河, 院洞일대의 高地를 공격하게 하고, 제22연대는 이를 지원케 하는 한편, 제26연대는 兄山橋부근에서 橋梁, 또는 船渡으로 가능한 한 돌파구의 형성에 노력하는 일방, 敵의 공격력을 견제하도록 계획한 뒤 9월 16일 24.00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 제38호(作命附錄 제33호)를 하달하였다.

「1. 제23연대는 明 9월 17일 10.00를 기하여 공격 개시 별지 작전투명도(상황도제 3호참조)에 의거 獨立線(C線)에 진출하고, 제22연대는 明 9월 17일 09.00까지 長興洞에 집결 제23연대가 작전투명도 A(A목표)에 도착한 후, 제23연대 後方으로부터 渡河하여 제23연대 左翼(浦項—龍興洞線)에 전개 當面의 敵을 공격, 별지 투명도선(C線)에 진출할 것이며, 제26연대는 제22연대가 浦項—龍興洞線에 진출 후 兄山江을 渡河, 浦項 경유, 별지 작전투명도선(C線)에 진출하여 當面의 敵을 공격하라. 단 제26연대장은 浦項 경유시 1개 대대를 사단에비대로 殘置시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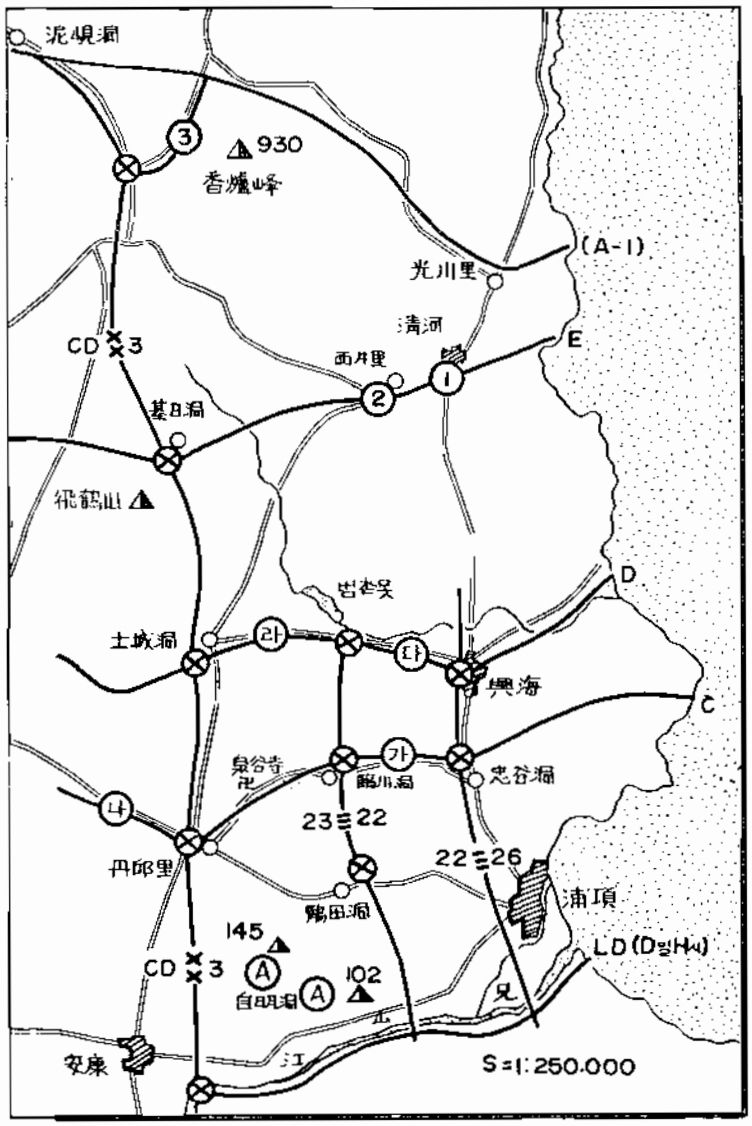
2. 포병대대장은 1개 중대는 제23연대를, 1개 중대는 제22연대를 각각 지원케 하고, 나머지 1개 중대로써는 사단 前面일대를 지원케 할 것이며, 대전차포중대는 제26연대의 1개 중대가 兄山江 左岸에 진출한 뒤는 제22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그리고 공병대대장은 兄山橋와 生旨橋의 수리를 끝낸 뒤는 제22연대와 제23연대에 배속 직접 지원케 하라.」

(나) 작전실시

9월 17일 : 제23연대(장, 金錄舜대령)는 사단작명 제38호(作命附錄 제33호)에 의거하여 正面의 A 목표를 향하여 이날 10.00 雨中을 뚫고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연대 正面의 敵은 兄山

상황도 제 3 호 사단작명(제38호) 진출예정선



江 對岸의 堤防 일대의 陣地에 약 2개 중대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堤防 後面의 高地 일대에는 2,500명으로 추산되는 敵이 主陣地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대 공격제대인 제 1 대대(장, 金尤榮소령)의 1개 중대병력은 포병의 긴밀한 지원 아래 A목표탈환의 先鋒隊로 挺進하여 이날 17.00에 이르러 그중 일부 병력은 渡河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堤防의 敵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는 한편, 敵 後方高地(이 高地는 浦項—安康街道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岩壁의 突出部로서 여기에는 敵의 기관총陣地인 토치카가 구축되어

었었다.)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병력의 손실을 고려한 나머지 철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23연대의 지원부대였던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는 이날 연대본부를 龍德洞에 두고 主力은 長興洞으로 이동시켜 次期명령을 대기하였다.

한편 兄山橋를 사이에 두고 敵과 대치한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이날 兄山橋 右側의 無名高地에 대하여 步砲火力을 집중하는 한편, 소대규모의 特攻隊를 조직하여 1次로는 兄山橋를 이용한 渡河를, 그리고 제2, 제3次로는 舟艇을 이용한 渡河를 감행시켜 이 高地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9.00 夜陰을 틈 탄 敵의 강한 반격을 받고 本隊로 轉進하였다.

이날 사단 예비대인 楊部隊는 2개 중대의 병력을 抽出하여 사단 後方 恒沙洞에 있는 雲梯山일대에 배치한 다음, 後方경계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공병대대는 日月洞에서 生旨橋를 수리하고 있었고, 포병대대는 火力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사단은 이날 사단보충대와 전차공격대대 및 수색중대를 편성하여 병력 運用上 彈力性 있는 체제를 補强하였다.

9월 18일 : 제3사단은 전날에 이어 UN 해, 공군의 직접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渡河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이날따라 아침부터 흐린 날씨는 종일토록 계속되었다.

제23연대(장, 金錄舜대령)는 이날도 일부 先遣부대로 하여금 A목표를 공격, 점령토록 하기 위하여 01.00를 기해 은밀히 敵前渡河하기 시작하였는데, 渡河 도중 갑자기 敵의 집중사격을 받고 일시 당황함을 면치 못하였으나, 이를 제압하기 위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결과, 12.00에 이르러 제1중대와 제3중대, 그리고 제9중대는 對岸의 좁은 正面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무렵 사단장 李鍾贊대령은 銃, 砲彈이 雨下하는 작전장에서 작전 陣頭 지휘하므로써 渡河부대의 士氣를 높이는 바 있었다.

그러나 이 渡河부대에 대한 실탄과 수류탄등 탄약보급의 難路는 渡河時의 苦戰에 못지 않게 커다란 難問題를 던져 주게 되었으니 당시, 작전장교 겸 제2대대장의 대리근무를 맡고 있었던 姜成熙중위는 말하되 "我軍의 渡河를 감제하고 있던 敵의 後方高地로부터 집중火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士兵들이 실탄과 수류탄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건너다가는 敵彈에 맞아 떠내려 가곤 하기를 무려 수차를 거듭하였는데, 그때마다 용감한 병사들의 自願渡河者가 속출한 것은 지금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라고 술회하였다. 이리하여 江北의 橋頭堡를 확보한 다음, 16.00부터 友軍의 空中爆擊과 支援砲火를 받으면서 강행공격을 계

속한 결과, 끝까지 완강하게 저항하는 敵을 격퇴하는 즉시로 孝子洞 西쪽 102高地 南端에 방어陣地를 점령하였으며, 제11중대는 18.00에 敵의 側方을 위협할 수 있는 丘陵地帶를 점령함으로써 102高地의 敵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이날 18.00 현재로 제1, 제3대대는 15명의 敵을 사살하였고, 蘇式소총 6정과 박격포탄 65발, 그리고 다발총 크립 1개를 노획하였다.

제22연대(장, 金應祥중령)는 제23연대의 渡河를 지원한 뒤 16.00에 행동을 개시하여 19.00 제1중대 제1소대를 先頭로 兄山江을 건너는데 성공하였다. 그뒤 21.30에는 제5중대가 이 江을 건넜고, 이어 제3, 제6중대가 모두 이 江을 건너 23.00에는 敵陣에 육박하였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이날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치열한 敵의 집중사격으로 인한 人的 손실에도 不拘하고 死鬪를 거듭한 끝에 18.00에 제2대대는 渡河에 성공하였고, 제3대대도 이에 따라 계속 渡河 중이었다. 이때 渡河부대의 先頭에서 활약한 제5중대의 제3소대장 金翔山소위는 당시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8일 새벽에 다시 우리 중대가 先頭에 섰는데 제1소대가 攻擊소대로 돌진하다가 실패하면 제2소대가, 그리고 제2소대가 실패하면 제3소대가 초월, 공격하는 등 그야말로 死鬪를 거듭한 끝에 渡河작전을 성공시켰다.

兄山橋 北端의 堡壘에는 2명의 北傀軍이 水冷式기관총에 발이 묶인채 있었는데, 그중 1명은 머리에 관통상을 받은 채로 숨져 있었고, 1명은 重傷으로 意識不明이었다. 이날 밤 江의 北岸에서 野營 중 갑자기 敵의 기습을 받았다. 중대원의 대부분은 慶南, 全南지방에서 자진하여 종군하게 된 學徒兵출신의 新兵들로서 M1사격도 제대로 못하였고, 사격 중 藥室, 개스통등의 고장이 나거나 또는 彈皮가 걸리든지 하면 소대장 있는 곳까지 달려오곤 하였고, 敵兵이 없는데도 무서운 나머지 총을 쏘기도 하여 지휘하기에 많은 고충을 겪어야만 하였다. 당시 1개 중대에는 自動소총이 1정 밖에 없었고, 사실상 이것만 믿고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제대로 조작할 수 있는 士兵이 적어서 심지어는 소대장이 직접 사격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날 사단 공병대대는 生屯橋와 아울러 兄山橋의 수리작업에 착수하였으며, 陽部隊 및 포병대대는 전날과 같은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9월 19일 : 사단은 전날에 이어 渡河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渡河 한부대는 부대正面의 敵主陣地를 공격하였으나, 敵 陣地는 대부분이 견고한 토치카가 "ㄱ"字로 구축되어 있었고, 敵과는 20~30m로 접근해 있어 迫擊砲나 로켓트砲는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수류탄으로만

싸워야 하였기 때문에 이날도 彼我間에는 치열한 공방전을 반복하게 되었다.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이날 06.00에 未明의 호린 날씨를 이용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제 1 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제 1 목표인 102高地를 향하여 兩面으로 포위, 공격태세로 돌격하였다. 敵은 완강히 저항하여 종일 여러 차례에 걸친 육박전을 거듭하였으나, 我軍은 역시 地理的으로 불리한 조건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끝내 이 高地를 탈환하지 못하고, 18.00에는 高地 南쪽 500m지점에서, 공격 陣地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제 3 대대(장, 朴鍾秉대위)는 공격, 목표인 111.6高地의 敵에 대하여 白兵戰을 거듭 전개한 끝에 20.00에 이르러 이 高地를 완전히 점령하였으며, 예비대로서 生屯洞에 위치하였던 제 2 대대(장, 崔尙俊소령)는 14.00부터 兄山江을 渡河한 다음, 제 1, 제 3 대대의 공격을 지원키 위해 孝子洞 부근에 진출하였다.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는 06.00까지 渡河를 완료한 다음, 08.00부터는 正面의 敵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先頭부대인 제 1 대대(장, 崔廷植대위)는 鶴岸洞까지 진출하였으나, 左側方의 敵으로부터 계속적인 집중사격을 받고 격전을 거듭하다가 18.00에 梨洞의 東쪽 능선을 점령한 다음, 次期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 2 대대와 제 1 대대는 梨洞과 龍興二洞에서 각각 陣地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제 1 대대를 松內洞에, 제 3 대대를 右側에 각각 展開시키는 동시에 제 3대대(장, 殷碩約소령)로 하여금 浦項을 직접 공격케 하였다. 11.00에 제 3 대대는 松湖洞까지 진출하였으나, 浦項 北쪽에 있는 17高地로부터 敵의 집중사격을 받고 공격이 頓挫되어 일단 海島洞 부근으로 그 陣地를 옮기게 되었다.

사단 포병대대와 공병대대는 계속 그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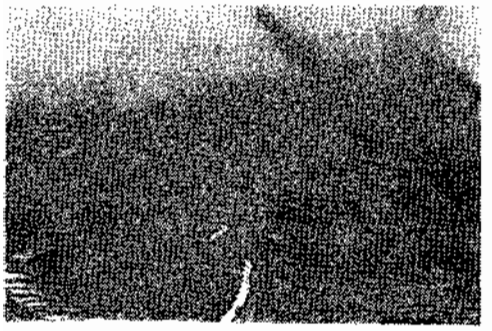
9월 20일 : 전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제 1 대대가 탈환하지 못하였던 제 1 목표인 102高地를 이날은 연대 예비대인 제 2 대대(장, 崔尙俊대위)가 제1, 제 3 대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야간공격을 감행하여 20.00에 이 高地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의 제 1 대대(장, 崔廷植대위)는 牛峴洞(浦項 北쪽 2km)으로 진출하고, 제 2 대대(장, 金世洛대위)는 浦項 西北 高地일대를 수색한 뒤 11.30에 100高地를 확보하면서 正面의 敵과 대치하였다.

이 제22연대가 9 월 18일부터 반격전을 전개한 3 일만인 이날까지 거둔 戰果는 다음과 같다.

사살	175명	노획 : 다발총	27정
爆殺	200명	수류탄	65개
포로	28명	騎兵銃	1정

小銃	68정	책로武경기관총	3정
MI소총	30정	트럭	1대
적사포	2문	적사포탄	3트럭분
대전차포	2문	각종실탄	5트럭분
BAR	1정		


〈浦項北方 高地〉

등이었고, 我軍의 손실로는 장교 2명과 사병 12명이 전사하고, 장교 3명과 사병 4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이날 浦項을 탈환하였다. 이로부터 敵은 全面的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고, 일부 병력만이 主力부대의 후퇴를 엄호하기 위하여 執拗한 저항을 계속하였다.

9월 21일 : 敵 제 5 사단은 德順山 일대에 遲延 陣地를 점령하고 발악적으로 끈질긴 저항을 계속하였으며, 사단은 이 敵을 陣地 밖에서 迂廻 공격하기 위하여 사단을 鶴田洞부근으로 機動시켰으니, 이는 陣外決戰을 強要하려는 사단장의 指導方針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05.30에 출동하여 제 1 대대(장. 金光榮소령)로 하여금 鶴田洞 東쪽 高地를 점령케 하고, 제 2 대대(장, 崔尙俊소령)로 하여금 못골(池谷)에 진출토록 하였으며, 제 3 대대(장, 朴鍾秉대위)로 하여금 白明洞에서 144高地의 敵을 공격키로 하였다.

그리고 제22연대의 제 1 대대(장, 崔廷植대위)는 正面의 敵 陣地를 돌파한 다음, 忠谷里일대로 진출하여 계속 공격陣地를 확보하고 있었고, 제 2 대대(장, 金世洛대위)는 石柱谷의 능선 일대에서 敵의 방어선을 돌파하였으며, 연대의 예비대로서 龍興二洞에 위치하였던 제 3 대대(장, 鄭淳琅소령)는 里仁洞의 敵을 격파하고 鶴川洞에 진출하였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의 제 1 대대는 海岸線을 따라 前進하고, 제 2 대대는 인접 제22연대와 서로 連繫를 유지하도록 展開하여 16.00에 행동을 개시, 18.00 현재로 長城洞에 진격 중이며, 제 3 대대(장, 殷碩均소령)는 興海 東南쪽 天馬山부근까지 진출하였다.

9월 22일 :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이날 06.00에 白明洞과 鶴田洞일대의 敵 제10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主力을 격퇴한 다음, 아직도 계속 연대 正面의 泉谷寺 일대에서 저항하는 敵을 공격하기 위하여 연대 관측소를 341高地 東南 1km지점에 설치하고 연대병력을 道陰山 南쪽 능선상의 295高地일대에 진출토록 하였다.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는 이날 02.00에 출동하여 興海 南쪽 丘陵地帶에서 완강히 저

항하는 敵에 대하여 치열한 火力戰을 전개하는 한편, 소수의 부대로 하여금 迂廻공격케 한 결과, 興海일대에서 저항하는 敵의 殘置부대를 끝내 격멸하여 버리는 즉시로 06.00까지 興海를 탈환하고, 11.00에는 연대 전투지휘소를 여기로 약진토록 하는 동시에 부대는 계속 진격하여 淸河沿道의 古縣里線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이날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전투지휘소를 浦項의 鶴山洞으로 이동하는 한편, 主力부대는 敵의 殘置부대를 격멸하면서 계속 北上하여 蘇東里(淸河 東南 4km)부근에 진출하였다.

(2) 淸河—蔚珍 進擊戰 (9. 23~9 27)

(가) 작전계획

사단은 主力으로써 9월 22일 오전에 興海를 탈환하고 A-1線인 淸河線에 진출하였을 무렵, 左翼 首都사단의 主力도 이에 呼應하여 柏溪를 점령하고 계속 北進 중이었다.

敵 제5사단은 지난 5~6일동안에 걸쳐 거의 再起하기 어려우리만치 타격을 입고 主力은 蔚珍街路를 따라 후퇴 중이었으며, 그 일부는 飛鶴山(興海 西北쪽 13km)으로 通入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육군본부는 이날 14.00에 아래와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 제191호(作命附錄 제2호)를 하달하였다.

「1. 軍 當面 敵의 저항력은 극도로 저하되고 있으므로 現陣地로부터 총 공격을 취할 수 있음. 군은 만반 노력을 다하여 깊이 敵線에 침투하고 돌파구를 완전히 확대하는 동시에 敵의 퇴로로 진출하여 후퇴를 企圖하는 敵을 차단 섬멸하려함.

2. 군은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라 함.

3. 제1군단은 主攻을 淸河—盈德—平海 軸線을 따라 助攻을 仁旨洞—泉旨洞—春陽 軸線을 따라 담당지구 내에 무제한 공격을 계속 실시하라.

4. 제3사단을 제7사단과 淸河線에서 교대시켜 즉시 집결, 육군본부 예비대가 되게 하라. (제7사단은 50. 8. 20. 大邱에서 재편한 부대로서 대부분 新兵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사단과 교대하지 못하였고, 이날 다시 제1군단 작전명령 제101호〈9. 22부〉에 의거 慶州에서 安康으로 이동하였음.)

5. 平海와 春陽을 확보한 후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北方, 혹은 西北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이에 대하여 사단장은 우선 사단의 右一線을 담당하여 達田洞—泉谷寺—立石線을 따라 진격하는 제23연대로 하여금 土城洞일대에 집결한 敵 제5사단사령부 및 제10연대의 主力을

격파토록 한 뒤 興海로 이동시켜 예비대로 확보하는 동시에 제26연대를 先頭부대로, 그리고 제22연대를 지원부대로하여 淸河—蔚珍街道를 급속히 北上시켜 敵으로 하여금 재편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나) 작전실시

9월 23일 : 사단의 先頭부대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이날 05.30을 기하여 또다시 공격전을 전개하여 海岸線일대에 출몰하는 敵의 便衣隊를 격파하면서 계속 北進하여 淸河를 탈환한 뒤 15.00에는 淸河 北쪽 2km지점에까지 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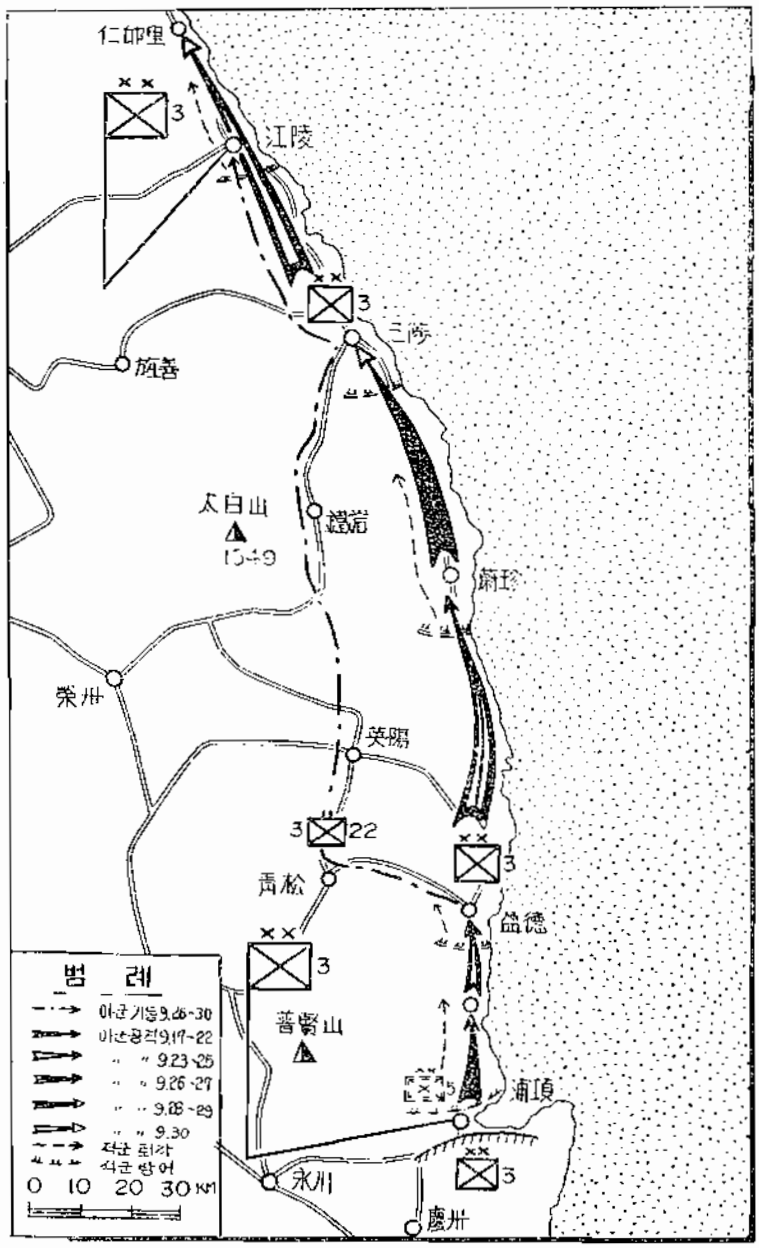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는 제26연대의 後續부대로써 06.00에 출동하여 淸河 西쪽 高地일대의 殘敵을 격파하고 18.00 淸河에 進入하였는데, 이때에 제7중대를 지휘한 李昌龍소위(당시)는 「제7중대는 古參兵들이 많은 중대여서 언제나 先頭부대로 활약해 왔다. 이 淸河 西쪽 高地 전투에서도 우리 중대는 아침부터 高地를 탈환하기 위하여 先頭에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敵이 완강히 저항하여 12.00에야 겨우 高地에 접근, 16.00에 이르러 이 高地를 점령하는데 비로소 성공하였다. 이 무렵, 인접중대인 제5중대를 지휘한 나의 한 同期生이 苦戰 끝에 無電으로 側方지원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1개 소대를 급히 보내어 그 高地를 탈환하는데 協力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敵의 기습을 받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敵은 물러 갔으나, 나는 여기에서 부상을 당하고 慶州에 있던 제15육군병원으로 後送되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06.00에 공격하기 시작하여 泉谷寺 일대의 敵을 격파한 다음, 계속 前進하여 09.00에는 立石 東쪽 286高地를 점령하였다.

9월 24일 :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이날 06.00에 출동하여 東海岸線을 따라 敵 便衣隊를 격퇴하면서 계속 北上한 다음, 17.00에는 江口 南쪽 4km지점인 南湖洞에 진출하였으며,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도 06.00에 淸河에서 출동하여 제26연대의 後續부대로 北進하여 17.00에 長沙洞에 집결하였다. 한편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286高地와 立石일대의 敵 제5사단의 收容부대로 보여지는 완강한 부대를 격파한 다음, 興海로 機動하여 興海國民學校에서 부대를 재편하였다.

9월 25일 : 계속 퇴각하는 敵을 추격하기 위하여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06.00 南湖洞을 출발하여 江口를 경유, 盈德을 탈환하였는데, 이 당시 盈德은 모두 불바다가 되었고, 검은 연기는 가을 하늘을 뒤덮었다. 我軍이 그곳에 진입하였을 때, 北傀軍 제5사단의 트럭 數臺는 發動이 걸린 채 있었고, 野砲는 탄약을 버려둔 채로 陣地를 이동하였으며; 北

상황도 제 4 호 浦項~38°線 진격전((50. 9. 17—39)



傀軍의 補給馬車에는 발을 저는 蒙古馬들이 나무에 메어 있었다. 盈德 正面 北傀軍 제 5 사단의 잔여병력은 1 개 연대를 넘지 않았는데, 그나마 모두 山 속으로 도망쳤다. 그때 한 北傀軍 연대장은 트럭 3 대 분의 탄약과 식량을 부하들에게 分配하고 유격작전을 준비시켰다. 이

날 제3사단 고문관인 Cortis J. Iver 소령은 韓國軍 제1군단 고문관인 Mcphail 대령이 주선한 2 1/2ton 차량 25대를 수령하여 사단의 기동력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날 Walker 중장은 「용맹한 韓國軍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한 뒤부터의 탁월한 작전수행은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극구찬양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연대는 盈德을 탈환한 다음, 이곳에 제3대대(장, 殷碩杓소령)를 殘置하고 제1대대는 계속 北進하여 寧海를 제압한 다음, 蔚珍街路를 따라 北上 중이었다.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는 이날 06.00에 鳳凰山의 270.7高地(長沙洞 西北方4km)를 공격키 위하여 일부 병력을 출동시킨 다음, 主力은 트럭 편으로 출발하여 10.30 盈德을 지쳐 계속 北進하여 13.40에 寧海線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장, 金錄舜대령)도 興海를 출발하여 트럭 편으로 江口—盈德을 경유, 寧海線에 진출하였다.

한편 사단 공병대대는 각 연대에 1개 중대씩 배속되어 지뢰탐지와 道路 보수작업에 임하였고, 포병대대는 盈德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날 군단사령부는 비로소 慶州에서 杞溪로 약진하여 작전 全般을 統轄하였다.

9월 26일 : 사단의 怒濤와도 같은 진격전에 패퇴를 거듭하던 敵은 車輛과 砲馬를 遺棄한 채 그 主力은 蔚珍으로, 일부는 日月山으로 分散敗走하고 있었다. 사단의 先頭부대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전날에 이어 이날 06.00에 제1대대와 제2대대로 하여금 平海를 목표로 北進토록 하였고, 盈德에 남아 있던 제3대대(장, 殷碩杓소령)도 역시 海岸線을 따라 敗敵을 추격하면서 北上토록 하였다.

그런데 제26연대가 9월 9일 제3사단에 복귀한 이래 이날까지 사단의 右一線을 담당하여 兄山江 방어전을 비롯하여 浦項—興海—清河—平海線을 진격하던 중에 쟁취한 戰果는 部隊歷史資料綴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사 살	671명	로켓트포	8문
포 로	41명	日製99式소총	24정
노획 : 경기관총	8정	대전차포	8문
중기관총	1정	말(馬)	6필
다 발 총	29정	차 량	3대
자동소총	8정	경기관단총	3정
M1소총	8정	기 관 포	1문
칵코式경기관총	3정	야 포	10문

AK式소총	1정	각종포탄 24상자	122발
반전차포	5문	각종탄창	26개
日製38式소총	30정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의 제 1 대대(장, 金相均대위)와 제 2 대대(장, 金世洛대위)는 寧海에서, 제 3 대대(장, 鄭淳珉소령)는 盈德에서 각각 05.00에 출동한 다음, 제 1, 제 2 대대는 제26연대를 초월하여 平海線을 통과한 然後에 계속 北進하고 있었으며, 제 3 대대는 군단 작전명령에 의거, 靑松부근에서 공병 1개 소대의 작업을 엄호하기 위하여 급히 西進하였다.

한편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이날 04.00에 寧海에 진출한 다음, 제26연대를 초월하여 平海를 점령하는 즉시로 13.00에 平海뒷산 高地에서 기습을 감행하는 敵을 3시간 여에 걸친 격전 끝에 드디어 격퇴하고야 말았는데, 이 싸움에서 얻은 戰果는 다음과 같다.

사 살	80명	체코式경기관총	2정
포 로	82명	다 발 총	10정
노획: 트 럭	1대	蘇式小銃	20정
기 관 포	2문	各種 실탄 다수 노획	

한편 이날 사단 포병대대는 蔚珍 南쪽 8km지점으로 이동하였으며, 군단사령부는 杞溪에서 靑松으로 이동한 다음, 부근에서 출몰하는 殘敵 30명을 섬멸하면서, 다시 眞寶로 약진하여 여기에 그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9월 27일 : 전날 제26연대를 초월공격한 제 22 연대(장, 金應祚중령)는 이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와 합동하여 蔚珍에서 발악적으로 저항하는 敵 제27대대와 제28대대, 그리고 新兵부대를 격파하기 위하여 平海線을 계속 北進, 18.00에 守山里를 거쳐 蔚珍에 진출하는 즉시로 當面의 敵을 공격코자 하였다. 그런데 이곳은 이날 낮 F-51전투기에 의한 燒夷彈 폭격으로 말미암아 市街地의 일부가 불타고 있었고, 敵의 主力부대는 이미 후퇴한 뒤였기 때문에 微弱한 敵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여기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날 제23연대는 연대본부를 厚浦港에서 海路로 守山里 海邊에 이동시켜 船上에서 假眠하였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의 主力부대는 이날 04.00에 平海를 거쳐 蔚珍 외곽선에 진출하였다. 이날 공병대대는 연대에 배속되어 지뢰탐지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포병대대는 사단의 전투지휘소와 같이 守山里에 이동하였다.

특히 眞寶로부터 春陽으로 약진한 제 1 군단사령부는 이날 본부요원 1개 분대로서 敵 10

명을 포로하였으며, 다발총 2정과 소총 2정 및 騎兵銃 1정을 노획하였다.

(3) 蔚珍—38° 線進擊戰(9. 28~9. 30)

(가) 작전계획

사단은 美 공군과 해군의 계속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一路 진격작전을 감행하였으므로 敵은 盈德—平海線으로부터 潰退하면서도 蔚珍부근에서 頑强한 저항을 보였으나, 9월 27일 제22연대의 공격을 받은 결과, 계속 三陟方面으로 分散 퇴각 중이었으며, 左側 인접부대인 首都사단도 이 聲勢를 이용하여 이날 04.00에는 이미 春陽에 진출하였다.

이러한 戰況 아래 제3사단장은 蔚珍—三陟—江陵을 沿하는 線을 北進하면서 퇴각하는 敵을 急追함과 동시에 江陵지구에서 敵의 퇴로를 차단한 다음, 敵 主力을 포착, 섬멸코자 결심한 결과, 27일 22.00를 기하여 아래와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 제42호(作命附錄 제33호)를 하달하였다.

『1. 제22연대장은 蔚珍에 집결 중인 2개대대의 병력을 지휘, 明 28일 03.00에 출발, 蔚珍—三陟—江陵街道를 北進 當面의 敵을 격파, 江陵에 진출하여 敵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이 方面의 敵을 포착, 섬멸하는 한편 군단 作命에 의하여 靑里로부터 廣回里로 前進 중인 1개대대(제3대대와 공병 1개소대포함)를 28일 17.00까지 蔚珍에 진출케 하라. 蔚珍집결 후, 사단 수송력으로 江陵에 추진 예정임.

2. 제23연대는 사단 예비대가 되어 1개 대대는 別命이 있을 때까지 蔚珍부근과 竹邊부근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경계에 임하고 잔여병력은 28일 08.00 三陟—江陵을 향하여 진출케 하라.

3. 제26연대장은 28일 17.00까지 全 병력을 蔚珍에 집결, 別命을 대기하라.

4. 포병대대장은 포병 제2중대로 하여금 제22연대를 직접 지원케 하고, 제3중대로 하여금 제23연대와 행동을 같이하게 하라. 그리고 사단 대전차포중대는 제22연대를 직접 지원, 동 연대와 행동을 같이하라. 또한 공병대대장도 지뢰 탐지소대를 제22연대에 배속시키라.』

사단장은 또 附言하기를 『특히 추격부대는 小數의 敵에 구애되지 말고 要旨만을 수색, 경계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일로 北進토록 하라.』고 강조하였다.

(나) 작전실시

9월 28일 : 蔚珍線을 돌파한 사단은 이날 作命에 의거, 제22연대의 제1, 제2대대로 하여금 三陟을 공격케 하고 제23연대의 제2, 제3대대로 하여금 우선 蔚珍으로부터 제22연

대를 초월, 공격케 하는 한편, 제26연대를 사단 예비대로 掩置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의 제 1, 제 2 대대는 蔚珍—竹邊里線을 돌파한 뒤 계속 三陟街路를 진격하여 이날 19.00에는 三陟 南쪽 10km지점에 진출하였으며, 제 3 대대(장, 鄭淳珉소령)는 靑松方面에 출동 중이었다.

제23연대(장, 金漢雲대령)의 主力부대인 제 2, 제 3 대대는 蔚珍으로부터 臨院津에 진출 중이며 제 1 대대(장, 金尤榮소령)는 竹邊에서 직접 경계에 임하면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다.

이날 연대본부는 守山港을 출발하여 海上機動으로 竹邊에 上陸하였다가 또 다시 海路를 따라 三陟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한편 제25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사단 예비대로서 그 主力은 蔚珍에서 臨院津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사단 포병대대는 제22연대에 제 1 중대를 배속시키는 동시에 臨院津에 제 2, 제 3 중대를 陣地進入케 하여 각 연대의 진출을 직접 지원토록 하였으며, 공병대대는 전날에 계속하여 그 本然의 任務를 遂行하였다.

이날 인접 首都사단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寧越을 탈환하였고, 14.00 제 2 군단의 豊基—乃城—榮州 間優진출로 榮州—春陽間의 道路가 비로소 개통되어 제 1, 제 2 군단의 橫的인 연결을 유지하게 되었다.

9월 29일 : 이날 10.30 육군본부는 작전명령 제199호(作命附錄 제 3 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제 3 사단은 三陟—江陵 軸線으로 注文津까지 계속 前進하여 注文津부근에서 재편한 다음,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次期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라고 하였다.

사단은 전날에 이어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의 主力부대인 제 1, 제 2 대대를 先頭로 이날 새벽 三陟을 탈환하였다. 당시 最先頭에 서서 진격한 제 5 중대장 金應烈소위는 三陟점령에 대한 情況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三陟入口의 橋梁을 통과할 무렵, 敵의 기습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敵의 병력은 약 2개 중대규모로 추산되었다. 부득이 병력을 뒤로 빼내어 연대장과 대대장의 상황판단에 의해 迂廻공격하여 三陟을 점령하였다.

앞서 기습을 받았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차에서 뛰어 내려 그곳 農協倉庫로 달려가 등을 기대고 사태를 주시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敵이 총부리를 드리대는 통에 손을 들고 살펴보니 그곳은 그들의 지휘소였다. 마침 그때 다행하게 우리 連絡兵이 이를

목격하고 칼빈총으로 그놈을 반대로 손들게 하여 생포하였는데, 그는 당시 그곳의 엄호부대를 지휘하던 指揮官이었다.」

그리고 동 연대는 계속 北進하여 靈湖를 점령한 뒤 이날 18.00 현재 江陵 南쪽 12km지점에 진출하였다. 이어서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는 三陟을 돌파하고 靈湖에 집결 중이었으며, 竹邊里에 駐留하고 있던 제 1 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예하 2개 중대를 春陽方面으로 출동시켜 그 근방에 出沒하는 殘敵을 보는대로 격멸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날 연대본부는 三陟을 출발하여 海路로 靈湖에 上陸, 주둔하였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제 1 대대와 제 2 대대를 臨院里에, 그리고 제 3 대대를 竹邊里에 각각 駐留시켰다.

이리하여 敵은 三陟線에서의 저항을 포기하고 江陵으로 퇴각하였는데, 그 병력은 연대규모에 달하였다.

9월 30일 : 蔚珍에서부터 先鋒으로 乘勝長驅 진격해 온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의 제 1 대대(장, 金相均대위)와 제 2 대대(장, 金世洛소령)는 전날까지 安仁津에서 敵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고 이날 08.00에 江陵 南쪽 6km지점인 鳳山里로 前進하였다. 이곳에서 연대는 安仁津에 陣地를 점령한 포병대대의 火力지원을 받으면서 증원된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제 2, 제 3 대대와 협동하여 15.30에 江陵탈환에 성공하였다. 이때 左側 수도사단의 제 1 연대도 大關嶺을 넘어 直路 江陵으로 진격하였다.

이리하여 제22연대는 江陵을 점령한 뒤 여기에 집결하여 次期작전을 위한 부대정비에 임하는 한편, 제 1 대대(장, 金相均대위)는 大關嶺일대에 出沒하는 敵을 격멸하기 위하여 隨時로 출동하였으며, 靑松方面으로 출동하였던 제 3 대대(장, 鄭淳珉소령)는 5일간에 걸쳐, 靑松—鐵岩—三陟—江陵線을 따라 이날 江陵에 집결하였다.

이 제 3 대대를 지휘한 鄭淳珉소령은 그간에 겪었던 情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盈德탈환 후 우리 대대는 특수한 進路를 택하여 퇴각하는 敵兵을 격멸하기 위하여 靑松方面으로 進擊하였다. 이곳에서 다시 靑松—眞寶—靑里—英陽線을 진격하여 三陟街路上의 鐵岩에 이르렀다.

그간 補給은 斷絶되었고, 또 軍團에서는 우리 대대와의 通信連絡도 杜絶되어 우리를 찾기 위한 무전 애를 썼었다.

그러던 중 이 鐵岩에서 최초로 한대의 비행기가 우리를 발견하고 通信筒을 투하하였다. 곧 내용인즉 『지휘관 귀하. 귀하가 韓國軍 지휘관이라면 士兵으로 하여금 O, X를

그리시요.」라는 것이다. 당시 우리로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北進한 것인지 또는 이 작전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지의 頂점를 전연 모르다가 그것을 알고 배우 기뻤다.

곧 「O, X」를 그렸더니, 다시 通信筒을 투하하였는데, 거기에는 「그럼 알았다. 귀하가 韓國軍의 지휘관이면 그 병력을 이끌고 三陟으로 이동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부대를 三陟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그간 靑松에서 鐵岩—三陟街路를 따라 北進하던 중 우리는 3,000명 내지 4,000명으로 추산되는 敵兵이 거듭되는 패전으로 戰意를 잃고 퇴각하는 뒤를 추적하였는데, 그들 중 主力은 接戰을 피해 山岳地帶로 퇴각하였고, 그 나머지 敵들은 우리에게 포로되어 嶺越로 이송, 일시 포로수용소를 설치하고 1개 중대를 파견하여 이를 감시케 하였다.

道路沿邊에는 敵의 부상자와 시체가 즐비하였고, 굴(窟)속에는 그들이 民家에서 탈취한 소들이 10마리 혹은 20마리씩 갇혀 있어 우리는 이를 노획하여 장병의 主食으로 대용키도 하였다. 그런데 특히 노획품 중에서 北進할 때 계속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은 말(馬)이었다.

그들이 말을 이용한 것은 처음 浦項전투시 迫擊砲를 말등에 싣고 이동하면서 擾亂射擊을 가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山岳지대에는 車輛의 대용물로 이용된 것 같고, 그외에도 乘馬用의 좋은 胡馬를 가진 것으로 보아 搜索用 連絡用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것 같다. 어떻든 이 무렵 우리는 胡馬 50匹을 노획하여 搜索隊를 편성하고 元山탈환시까지 사용하였는데, 나는 항시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말탄 大隊長」으로 지금까지도 별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當時의 韓國軍 追擊相의 一班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主力부대는 江陵—注文津街道를 계속 北進하여 이날 20,00에 注文津 北쪽 4km지점의 無名高地에서 敵 약 300명과 부닥치게 되자 23.00까지 敵陣地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 敵 22명을 사살하고 20명을 포로로 잡았고, 蘇式소총 20정과 동설탄 53,000발, 체코式경기관총 3정과 수류탄 90개, 그리고 직사포탄 86발과 白米 100가마를 노획하였다. 이 전투에서 我軍은 2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 당하였다.

연대는 계속 진진하여 38°線 南쪽 2km에 있는 仁邱里에 진출하였는데, 이곳에서 제3대대(장, 許亨淳소령)의 前哨중대는 38°線을 넘어 襄陽橋부근까지 진출하였다.

38°線 突破문제는 다음 章에서 詳論되겠거니와, 越境命令이 여기 제3사단에 하달된 경위

는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었다.

제3사단의 先頭부대가 注文津에 도달하였을 무렵, 군단장 金白一준장은 육군본부 작전국장 姜文奉준장에게 "38°線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출수는 없지 않은가? 빨리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姜文奉준장은 美 제8군사령부에 요청한 결과 8군사령관은 『38°線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회답해 왔다. 姜文奉준장은 다시 申性模국방장관 丁一權총참모장과 합석하여 『이는 韓國軍이 작전상의 主導權을 쥐고 결정할 문제이며, 또한 追擊戰에 있어서 政治問題를 고려한 나머지 추격에 제한을 가함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뒤 『韓國軍 지휘계통에 따라 38°線을 넘어야 겠다.』라는 결심을 굳히고 大統領의 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군단장 金白一준장은 군단작전참모를 통하여 제3사단장에게 口頭命令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書面下達을 요청한 결과 비로소 9월 30일 10.00 군단장은 無電명령 제103호를 正式으로 하달하였으니, 그 要旨에 이르기를 『제3사단은 현재 추격을 계속하여 襄陽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首都사단의 38°線 以北 진출을 용이케 하라.』라고 하였다.

한편 이날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제3대대가 竹邊에서 제1, 제2대대는 臨院里에서 LST로 각각 三陟에 上陸, 연대가 모두 合同하여 다시 LST로 注文津으로 이동 중이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總延長 260km에 달하는 浦項—38°線間의 진격작전은 반격이 개시된 9월 17일이래 일일 평균 18.6km의 진격속도로 감행되었다.

사단 正面의 敵 제5사단은 戰力이 충실한 中共軍 출신으로 편성된 부대로서 全北傀軍 중에서 가장 강한 부대로 알려져 있었다. 戰勢의 不利로 말미암아 비록 후퇴를 거듭하였지만 縱隔窒로 형성된 浦項—興海부근 山岳지대와 盈德—蔚珍—三陟—江陵線에 연한 太白山脈을 이용하여 계속 완강한 저항을 企圖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그간에 사단이 쟁취한 성과는 결코 간단히 평가될 수 없는 것으로 사단 全 장병의 勇戰奮鬪와 아울러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주시하여야 될 것이다.

첫째는 사단장의 결심이 적절하였다는 점이다. 사단장은 仁川上陸을 계기로 동요되기 시작한 敵情을 早期에 看破하고 敵으로 하여금 퇴세를 만회할 시간적 여유나 재편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하여 一路 추격전을 진개할 결심을 굳게 하였다.

둘째는 작전의 연결성을 항시 고려한 점이다. 사단은 인접 首都사단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敵에게

物心兩面의 압력을 가하였고, 공격제대는 항시 예비대를 보유하면서 步砲間의 원활한 협동을 유지하였다.

세째는 美 해, 공군에 적절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사단은 진격 중 중점지역에 한하여는 공중폭격을 요청하였고, 東海岸에서 작전 중인 美 海軍으로 하여금 敵의 보급 수송과 기동 및 집결을 극도로 제한시키도록 措置하였다.

이상과 같은 美 해·공군의 지원하에 전개된 제3사단의 진격작전에 의하여 敵은 無制限 후퇴를 강요 당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9월말 현재 敵 제5사단의 主力과 지난 15일 江陵—三陟—蔚珍등지에서 모병한 義勇軍 약 3,500명은 38°線을 넘어 襄陽에 집결하였고, 그 나머지 병력은 日月山 飛鶴山 등 太白山脈에 連한 山岳地帶로 分散하여 들어가 各個別的으로 계속 北上 중이었다.

이에 사단은 江陵—注文津線에서 次期 작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색과 작전계획 수립에 노력하는 일방, 軍裝檢査와 部隊整備에 힘쓰게 되었으니, 마치 驟雨將來에 風滿樓라는 格으로 我軍의 士氣는 날이 갈수록 드높아지기만 하였다.

戰 果		박격포	151문
사 살	1,351명	다발총크림	29개
포 로	230명	銃 砲	2드럼
노획 : 로 켓 트	7문	다발총	129정
로켓트탄	430상자	M1실탄	49상자
대전차포	19문	트 럭	14대
철조式경기관총	27정	기관단총	3정
수류탄	212상자	자동소총	16정
전화기	13대	장총탄	124,452발
경기관총	20정	日製99式소총	23정
蘇式기관총	9정	각종실탄	19,758발
경기탄	38상자	M1소총	17정
대인지뢰	2상자	박격포탄	1,196발
중 기	4정	騎兵銃	22정
전 차	2대	損 失	
중기탄	18상자	전 사	71명
트레일러	2대	전 상	477명
장 총	441정	실 종	2명

§ 參戰者의 證言

◇ 제3사단장 李鍾贊대령

(1970. 6. 17 코리아엔지니어링社, 예, 종장)

兄山江渡河작전 : 兄山江은 江이라고 하지만 河川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河幅은 대개 100m정도이며, 河口만은 200m정도가 된다. 兄山橋는 폭파장치만 해 놓고 폭파 하지 않았는데, 9월에 철수로 지나갔을 때 중간부분이 약간 파손되어 있었다. 우리가 兄山江을 사이에 두고 敵과 대치하고 있을 무렵인 9월 15일 仁川上陸이 시작

되었고, 이어 총반격명령이 하달되었다. 이 때 나는 이미 仁川상륙을 뉴우스를 통해 알고 있었다. 敵은 반드시 후퇴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곧 추격명령을 하달하였다. 격전을 거듭한 끝에 浦項을 재탈환하였고, 이어 東海線까지는 쉽게 밀고 올라갔다.

蔚珍탈환전 : 蔚珍은 전투기의 銳爽彈투하로 市街는 불타고 있었고, 敵 主力은 후퇴해 버린 뒤였기 때문에 我軍은 거의 무시항상태 하에 돌입하였다. 或者의 말에 의하면 군단장이 이보다 앞서 사단을 직접 방문하고 市街를 먼지 소각하고 돌입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8°線突破問題 : 제23대가 注文津을 점령한 뒤 사단은 이곳에서 一面 휴식을 취하면서 一面 군장검사와 부대재편을 마쳤고, 38°線돌파의 先頭부대는 이미 38°線에 도달해 있던 제23연대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또 제23연대가 당시 강한 부대로써 어려운 작전을 맡아 왔고 비교적 쉬운 작전에는 제26연대를 투입한 前例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38°線돌파명령은 군단장의 口頭명령을 군단작전참모가 전하였다. 이에 나는 書面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직접 書面으로 받고 난 뒤 10월 1일에 돌파하였다. UN軍戰史에는 10월 1일 38°線돌파명령을 連絡機가 通信筒에 넣어 떨어뜨렸다고 하나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38°線에 제일 먼저 도달한 부대가 어느 부대냐하는 문제는 제23연대장인 金涼舜대령이 잘 알고 있다.

◇ 제3사단 제22연대장 金應祚증령

(1965. 2. 15 統一前線長室에서, 에, 준장)

兄山江渡河작전 : 우리는 兄山江을 사이에 두고 敵과 대치하고 있다가 반격전이 시작되었는데, 兄山江을 渡河할 때 포를 散兵線에까지 끌고 가 쏘기도 하였다. 이어 우리 연대는 先頭부대로 진격하여 浦項을 탈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사단장 및 제23연대장과 합의가 되었었다.

江陵탈환 : 先頭부대로 계속 진격하여 江陵을 탈환하였을 때 나는 말을 타고 市街로 들어 갔다. 그 무렵 丁一權 참모총장이 그곳에 왔는데 꽃다발 증정시 丁一權장군이 받겠다고 하여 나는 못 받았지만 옆에서 사단장 李鍾贊대령이 "輝煌한 연대장이 여기 있는데 왜 참모총장이 받느냐?"고 하여 나한테는 코스모스를 꺾어 가슴에 꽂아 준 일화가 있다.

38°線突破問題 : 당시 襄陽橋邊에는 敵의 견고한 기관총陣地가 구축되어 있었다. 우리 연대의 偵察中隊가 이때 38°線을 넘어 北쪽으로 8km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제23연대로 하여금 우리 연대를 초월, 공격하라는 사단의 작전명령이 하달되어 사실과는 달리 사단명령을 근거로 제23연대가 먼저 38°線을 넘은 것으로 戰史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우리 연대가 먼저 넘었다.

그리고 丁一權장군이 38°線에 와서 제23연대장 金涼舜대령을 보고 "당신의 연대가 全軍에서 제일 먼저 38°線을 돌파한 부대로 인정한다."고 하고 악수를 하였다지만 사실과 다른 것은 다음과 같은 反證을 들어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곤 美 顧問官과 제23연대 부연대장인 徐廷哲중령등이 38°線突破記念寫眞을 찍은 것이 點報에 나 있었는데 왜 제23연대가 먼저 돌파하였다면 연대장인 金涼舜대령이 그 記念寫眞에 들어 있지 않은가? 당연히 나와서 찍어야 했을 것이다. 그때 徐廷哲중령이 사진을 찍은 것은 그는 자주 우리 부대에 들리곤 하였는데 그날도 마침 왔다가 美軍하고 찍은 것이다.

◇ 제3사단 제23연대장 金涼舜대령

(1965. 12. 7 國防大學院에서, 소장)

兄山江渡河작전 : 우리는 兄山江 南쪽에 방어진

을 치고 있던 중 敵이 兄山江 뚝을 넘어 왔으므로 우리는 뚝에다 57mm대전차포 1문을 설치, 이를 사격하여 격퇴하기도 하였다. 我軍의 勇猛한 반격으로 敵이 正面에서 후퇴하기 시작하자 新兵들의 士氣는 충천하여 一路 진격해 나아갔다. 그때 차량5~6대에 分乘하여 진격하다가 敵을 발견하면 차에서 내려 무찌르곤 다시 진격해 갔다.

38°線突破問題 : 江陵은 제22연대가 점령하였고, 우리 연대는 계속 전진, 38°線 南쪽 2km에 도달했을 무렵 38°線에서 停止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38°線에 도달하여 보니 敵의 토치카가 보였고, 그곳에는 敵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 수색대를 돌려 보냈드니, 敵의 사격을 받고 귀대하였다. 당시 나는 敵이 저렇게 있는데 왜 진격을 중단한 것인가 생각하고 분개한 나머지 제3대대장 許亨淳소령을 불러 부대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고 제3대대의 2개 중대를 山脈을 타고 襄陽川 근처까지 들어가 매복케 하였다.

얼마 후 이들로부터 "襄陽郡廳에 쌓아 둔 쌀가마니에 불이 타고 있다."는 전화가 걸려 와 내가 제3대대 본부로 가는데 도중에서 丁一權총참모장과 姜文奉작전국장을 만났다. 경례를 하고 소속을 밝혔더니 부대가 어디에 위치하였느냐기에 38°線에 이를러 있다니까 "왜 안넘어 가고 있느냐?"고 했다. 이에 나는 넘지 말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더니 "지금 首都사단이 먼저 가느냐, 3사단이 먼저 가느냐하는 판인데 무얼하고 있느냐?"고 그러더군. 아래서 "그럼 가만히 계십시요."하고 襄陽川 부근에 잠복한 許亨淳대대장을 전화로 불러 현위치와 부대상황을 말하라고하고 전화를 바꾸어 드렸더니 "잘 했다."고 하면서 "넘어 가 놓고서 무슨 거짓말이냐?"고 한 일이 있다.

그로부터 부대가 38°線을 넘어서 전진케 되었는데 그때 Emmerich 중령이 와서 38°線을 넘으려 한다고 쓴 큰 간판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

◇ 제3사단 제23연대 제3대대장 許亨淳소령

(1964. 12. 4 서울商工會議所運營部長室에서, 예, 대담)

兄山江渡河작전 : 渡河작전시 가장 어려웠던 일은 浦項—安康街道의 중간, 곧 우리 대대의 正面에 위치한 突出部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이 突出部는 岩盤으로 구성된 조그마한 高地였고, 여기에 敵은 기관총陣地를 구축하였다. 그것은 아주 단단한 토치카로 파괴하기가 어려웠으며, 渡河點을 감제하고 渡河 중 我軍의 많은 손실은 이 토치카로부터의 집중사격 때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浦項에서 38°線까지 진격할 때는 이따금 敵을 격멸하곤 하였을뿐 큰 전투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하루 평균 27km를 徒步로 행군하였다.

38°線突破問題 : 北進時 나의 자랑스러웠던 일은 全聯合軍 중 제일 먼저 38°線上에 도달했던 사실이다. 38°線은 仁邱里 北方 2km지점에 위치하였고, 그곳에는 戰爭 以前에 我軍이 구축한 방어陣地가 있었다. 9월 30일 13.00 내지 14.00경 이곳에 도착한 뒤 보고를 끝낸지 2시간 뒤에 許可없이는 38°線을 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연대장 몰래 제10중대를 襄陽부근으로 투입시켰다. 얼마 후 연대장이 대대본부를 찾아와 丁一權소장과 美 고문관이 방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도중에 1개 중대가 넘어 갔읍니다."고 자백을 하였더니 연대장은 당황함을 금치 못해 하였다. 이때 丁一權참모총장이 고문관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運 나쁘게 前方에서는 전투를 하고 있었다. 참모총장은 "고문관도 있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해서 "수색대가 넘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다."고 변명했

다. 참모총장은 돌아가면서 "절대로 命令없이는 38°線을 넘지 말라."고 하고 나에게 忠武勳章을 달아 주었다.

◇ 제3사단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

(1968. 9. 14 中央廳에서, 에, 준장)

兄山江渡河작전 : 제26제연대는 慶州부근에서 작전하다가 9월 9일 제3사단의 지휘 하에 들어갔다. 연대는 龍德洞부근에서 대대편성을 마치고 兄山橋 南쪽에 陣地를 구축한 다음, 총공격 명령이 내리기 전에 이미 兄山橋 北쪽의 敵을 공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우리는 낮에 배를 끌어 모아 渡河하는 것처럼 하다가 밤이면 다른데로 병력을 이동시켜 공격하곤 하였다. 그러나 兄山江 對岸의 敵은 우리를 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我軍에는 전사자가 많이 났었다. 이 무렵 美 海軍이 함포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함포소리는 마치 지진이 난 것만 같았다 兄山橋 건너 敵의 토치카에는 北傀軍이 기관총에 발이 묶인채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兄山江 北쪽에는 함포사격으로 직경 5m 이상의 웅덩이가 수백군데나 파져 있었다.

우리는 浦項의 敵을 격파하고 이를 재탈환하였는데, 이 무렵 仁川上陸작전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士氣가 충천하였다.

◇ 제3사단 제26연대 제5중대장 崔宗泰소위

(1966. 3. 18 육군본부 G-3에서, 중령)

兄山江渡河작전 : 우리는 兄山橋를 중심으로 江의 南岸에 배치되어 있었다. 兄山橋는 一經間이 2/3나 파괴되어 차량통과는 곤란하였고, 한 사람씩 겨우 건너갈 수 있을 정도였다.

9월 16일 낮 제7중대(장, 姜 某소위)로 하여금 兄山橋를 건너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러나 대낮에 敵의 사격이 집중되는 가운데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고 항의하여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그리하여 나의 제5중대가 공격케 되었는데, 橋梁을 이용치 않고 헤질 무렵 1개 소대를 木船에 乘船시킨 다음, 民間人을 불러 노를 젓게 하여 1/3쯤 건너 갔을 무렵 갑자기 敵의 집중사격을 받았다. 이에 全員이 물 속으로 뛰어들고 배는 뒤집히지 않은 채 반배만 떠 내려 갔으며, 30여명 중 헤엄칠 줄 아는 2명만이 살아서 돌아 왔다. 이리하여 우리 중대의 渡河作戰이 실패하게 되자 다음에는 제6중대가 역시 같은 방법으로 渡河 하다가 실패하였다.

이런 식의 渡河작전이 3일여를 끈 뒤 9월19일에야 비로소 數隻의 배를 모아 총 공격을 감행, 渡河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仁川上陸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무렵으로 敵의 士氣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敵 主力 부대는 거의 철수상태에 들어하였던 것이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것은 그 뒤의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또한 이 兄山江전투에서 아깝게도 연락병 2명을 잃었고, 나도 또한 얼굴에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사병들의 士氣문제를 고려하여 붕대를 감지는 않았고, 반창고를 붙이고 지냈다. 그런 뒤 얼마 안지나서 팔에 중상을 입게 되어 제36육군병원으로 後送되었다.

2. 安康- 38°線 進擊戰 (50년 9월 16일부터 / 50년 9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5,6,7호
상 황 도 제5, 6호
작명부록 제1,2,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 장 준장 金 白 一
수 도 사단 장 대령 宋 堯 讚
(9월 21일부 준장)
제 1 연대 장 중령 韓 信
제 1 대대 장 소령 金 煌 穆
제 2 대대 장 소령 申 彦 國
제 3 대대 장 대위 李 聖 鳳
제 18 연대 장 대령 任 忠 楨
제 1 대대 장 중령 張 春 權
제 2 대대 장 소령 金 鳳 翔
제 3 대대 장 소령 鄭 昇 和
소령 安 岐 一
(9월 27일부터)
제 1 기갑연대장 대령 白 南 權

제 1 대대 장 소령 丁 世 鎭
제 2 대대 장 소령 朴 道 璟
제 3 대대 장 소령 林 觀 默

배속부대

제10야포대대
수도야전 공병대대

병력 : 약 5,000명

장비

81mm	박격포	24문
60mm	박격포	32문
57mm	대전차포	7문
3.5 inch	로켓트포	40문
105mm	곡사포	10문

敵 軍

제 2 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12사단 장 소장 崔 仁
제30연대 장 대좌 崔 赫
제31연대 장 대좌 金 鐵
제32연대 장 대좌 金 學
제 5 사단 장 소장 馬 相 哲
제10연대 장 대좌 朴 炳 秀

병력 : 약 7,000명

장비

45mm	대전차포	44문
82mm	박격포	89문
120mm	박격포	22문
76mm	적사포	2문
76mm	곡사포	20문

122mm	곡사포	20문		장갑차	10대
전 차		10대			

나. 전투 전의 개황

首都사단(장, 宋堯讚대령)은 9월 초부터 9월 15일까지 慶州 점령을 企圖한 敵 제12사단 및 제5사단과 安康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작전이 계속되었던 이 慶州 부근은, 첫째 大邱—永川—浦項을 횡단하는 幹線道路 後方에 위치하고, 釜山에 이르는 양호한 2개 道路의 始發地로써, 만약 이 지역이 敵의 手中에 들어 간다면 마치 東支那海의 防波堤가 일시에 무너진 것과 같아 釜山이 직접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과, 둘째 左側의 洛東江 전선과는 상호 互角地勢의 據點으로서, 만약 이 지역이 돌파 당한다면 洛東江 방어선(多富洞 戰線, 五峰里戰線)이 그 背後를 찔려 마치 四面楚歌 격으로 大兵團이 포위되는 형세가 되어 全戰線이 와해, 내지는 중대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慶州부근의 전술상 위치와 그 중요성은 再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형세가 이러하기 때문에 敵 제2군단장(중장金武亭)은 예하 제12, 제5, 제15사단 및 제776부대등 약 4개 사단에 달하는 병력을 이 지역에 집결시키고, 최후 斷末魔的인 決戰을 企圖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敵 제2군단 主力과 對峙하여 4대 1의 劣勢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지역 방어에 성공하였는데(既刊 第 3 篇 p416~450 참조) 이것은 敵에게 寸土도 허락치 않은 勇戰奮鬪에 기인한 것이지만 전술적으로 敵의 집중 공격력을 安康에서 慶州로 통하는 兄山江 左右능선으로 분산시켰기 때문이었다.

특히 攻勢의 初動에 있어서 敵의 鋭鋒을 꺾고 반격의 기반을 공고히 조성하고 있던 사단은 戰勢의 擴充을 위해 그간 실시해 온 2개월에걸친 지연작전의 終止符를 찍고 사실상 反攻에 전환하고 있었다

敵軍의 상황 : 9월에 접어 들면서 全戰線의 敵은 我軍에 의해 戰力消耗만 강요 당하고, 차츰 戰意志마저 잃어진듯 하였다. 大邱 東部戰線의 敵 제2군단은 慶州를 지나, 東海岸 道路를 타고 釜山에 이르려는 그들의 작전企圖가 安康, 浦項부근에서 제1군단(장, 金白一준장)에 의해 大打擊을 받아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戰勢를 挽回코자 要域의 확보만이라도 서두르게 되었다.

특히 敵軍 중에서도 가장 정예부대로 일컬어지는 제12사단(장, 소장崔 仁)主力은 武陵山(△459)을 중심으로 그 左右에 있었던 大同里와 斗流里 일대에서 약 5,000명의 병력과 각종 砲 23문, 전차 10대로써 공격력의 頓挫를 회복코자 하고 있었으며, 敵 제5사단 및 1개포병연대등은 右翼戰線(要梯山 △471)이 붕괴 당한, 다음 弱體戰力을 만회시키고 반격의 지탱점을 확보하기 위해 安康, 浦項부근에서 완강한 방어 태세를 취하려 하고 있었다.

또한 安康後方高地(△445, △563) 일대에 陣地를 구축하고 있던 敵 제12, 敵 제5사단 일부 병력은 사단의 主力 부대와 正面접촉을 피하면서 유격戰法을 이용하여 永川—安康사이의 幹線 보급로를 차단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얻어 主陣地의 선정과 잔여병력의 재편성을 企圖하고 있었으며, 임호부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사단의 전진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못할 경우 敵은 飛鶴山(△762)으로 후퇴, 집결하여 병력수습을 단행하

고, 我軍의 後方을 기습공격하여, 때를 보아 역습하려는 태세로 보았다.

이때 사단(장, 宋堯讚대령) 각 연대 正面의 敵 배치 상황으로는, 제1연대(장, 韓 信중령) 正面인 陽洞後方高地 일대에 敵 제5사단 제10연대가, 그리고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 正面인 甲山里後方高地 일대에는 敵 제12사단 1개 연대가, 또한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 正面인 344高地 및 武陵山(△459) 일대에는 敵 제12사단 2개 연대가 각각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 主力은 지난 杞溪, 安康전투 후 그 基幹병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지 와 현지에서 강제모병한 소위 義勇軍이 다수 합류되어 있으므로 戰勢와 士氣面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이와 아울러 연합군의 공세전환(仁川上陸)은 敵으로 볼 때, 後方 차단의 重壓感에 사로 잡히게 되었고, 左右 인접사단의 공세전환이 또한 혼란을 야기케 하므로써 敵은 四散潰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는 조직적 지항을 약화시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安康일대의 敵 방어선은 완전히 붕괴되지 않은 채 오히려 기점방어에 主眼을 두어 사단의 반격을 최대한 지지해 보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를 판단한 金日成은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공격을 실시하고 雨天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성공을 보장하라는 攻戰명령을 초조히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我軍의 상황 : 제1군단장 金白一준장은 東部전선의 戰線 지휘권을 단독으로 부여 받고 (作命甲第 제1호 참조) 道只里(慶州南쪽 4km)에 설치한 지휘소에서 우선 戰線을 정리하고 現陣地를 안정하는 한편, 국부적 공격을 계속시켜 防備의 강화와 확충에 全力을 경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장 宋堯讚대령은 慶州지휘소에서 攻勢移轉의 모든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즉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虎鳴里 방어전에서 敵을 격퇴한 다음, 兄山江 北쪽 良洞까지 진격하여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右側 제3사단 경계인 雲門山에 거점을 감행한 敵을 격퇴시키고 洪溪洞 부근전투를 끝낸(9월 6일~13일) 다음, 迂廻진출하여 毛皮里 北쪽 능선을 점령하고 있었으며, 한편 제17연대(장, 金熙濬대령)는 9월 6일부터 13일까지 昆秀峰진투에서 敵 제12사단의 慶州점령企圖를 완전히 擊碎시키고 있었다.

특히 지난 安康부근 전투 중에서도 慶州 北쪽 돌출부인 이 昆秀峰(△293) 쟁탈전에서 敗戰 처절한 반복공격이 계속된 끝에 마침내 이를 死守한 바 있었다. 만약 이곳이 점령 당한다면 慶州가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安康回廊에서 浦項 쪽을 방어하고 있던 제1연대가 孤立無援 상태에 빠질 우려 마저 다분히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제17연대는 韓國軍 일부병력의 이동계획(陸本作命 제181호)에 따라 서울 탈환작전에 戰力을 結集시키기 위해 9월 15일 金山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동일부로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에 예속되어 있던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가 上記연대와 교대하기 위하여 慶州에 轉進한 다음, 首都사단에 편입되는 즉시로 그 임무를 교대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단은 제10야포대대와 수도 야전공병대대를 배속받고 국부적 공격을 계속하면서 총반격작전을 위한 준비태세를 거의 완료하게 되었다.

즉 반격작전인 9월 15일에 제1연대는 지휘소를 虎鳴里에 설치하고 공격재대인 제1, 제2대대는 良洞과 有琴里 일대에서 敵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제18연대는 지휘소를 普門洞에 설치하고 全隊가 毛西面—虎鳴里間의 道路 東側능선에 陣을 치면서, 甲山里 부근의 敵과 대치하고 있었다. 또 제1기갑연

대는 지휘소를 路東里에 설치한 다음, 慶州 北쪽 안태峰(△335)일대에 陣地를 점령하면서 그 前方 344高地 일대의 敵과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安康 점령을 위한 각 연대의 配備 상황이 時針 1시~9시 방향의 馬蹄型으로 되어 있어, 제18, 제1기갑연대가 武陵山을 압박하고 제1연대에 의해 安康의 右側背가 노출 당하는 布陣이었다.

이 무렵 右 인접 제3사단은 浦項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고, 左 인접 제8사단은 永川을 탈환한 다음, 九山洞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었으며, UN 공군은 근접 항공지원을, 그리고 東海의 戰艦 Missouri 號는 艦砲사격을 각각 계속하고 있었는데, 9월 15일 15.00를 기하여 대망의 공격시간 「X時」가 翌日인 16일 08.30으로 하달되니, 민족의 염원이 서린 白頭山과 豆滿江을 향한 壯快無比한 大攻勢는 太白山脈이 뻗어 멈춘 安康 벌에서부터 그 緖戰을 펴 나가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1군단장 金白一준장은 예하 각 부대에 『완전한 陣地를 확보하고 敵 主力부대와 적극적인 接敵을 유지하면서 我軍의 主陣地를 기만하여 국부적 목표를 계속 공격하라.』는 작전지시를 하달하였는데, 이에 따라 首都사단은 각 담당지구에서 국부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무렵 9월 13일 12.00를 기해 다음과 같은 총 반격명령이 하달되었다.

『제1군단은 美 제8군사령관에 의하여 Jackson 전투부대 지휘로부터 해제되는 즉시로 각 부대를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배당된 전투 지경 내 정위치에 각 사단을 이동케 하라.』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군단장은 戰線정리를 단행하였으며, 이어 동 명령에서 사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으니, 『수도사단은 담당전투지경 내의 제1차 진출예정선인 A—1線上의 목표 제4 大前洞, 제5 印支洞 및 道路 교차점을 공격, 확보하고, A—1線상의 공격 후는 A線상의 목표 C인 德川洞, D인 泉旨洞을 각각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이 명령을 받게 된 사단장은 A—1 線(東으로부터 東海—上玉里—大前洞—安東을 連하는 Phase Line 임)上의 제4목표 大前洞이 安康에서 60餘km 나 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장거리 추격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는 한편, 그에 앞서 우선 安康 杞溪 부근의 敵 최후 堡壘를 격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 安康 부근은 浦項 永川을 東西로 幹線 補給路가 횡단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또 南으로 慶州에 이르는 평균 幅 2km의 水田지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兄山江 本流와 道路 鐵路(東海南部線)가 左右側에 뻗어 있는 곳이다.

또한 敵 제12사단의 反攻 據點으로 예상되는 武陵山은 北으로 安康, 東으로 兄山江, 南으로 慶州를 각각 瞰制하고 있는 주요 지형지물이고, 약 36km²의 安康 평야는 盆地형태로서 주위의 山에 瞰制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地勢가 防者에는 천연 장애물로 유리하다 하겠으나, 攻者에는 매우 不利한 곳이기 때문에 이의 突破에는 徹底한 兵力의 重點使用을 斷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단장은 이 安康—杞溪 부근을 攻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作戰計劃을 수립하게 되었다.

즉 3개의 주요전술집단(제1, 제18, 제1기갑연대)을 예비대 없이 공격梯隊로 동시에 投入하여 중앙부분에서 1개 연대가 敵을 突破하고, 左右兩翼에서 2개 연대가 동시에 分斷하는 戰法을 취하여 一擧에 이 부근의 敵을 격멸하려고 試圖하였다.

이리하여 사단 右側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安康 東쪽인 長峴 뒷산의 능선을 추격하게 하였고, 사단 左側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安康 左側으로 迂廻 진출하여 공격하게 하는 동시에,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慶州와 가장 접근하여 있는 안네峰에서 武陵山과 安康을 連하는 軸線을 따라 中央부분에서 직접 압박, 공격하여 正面을 突破, 分斷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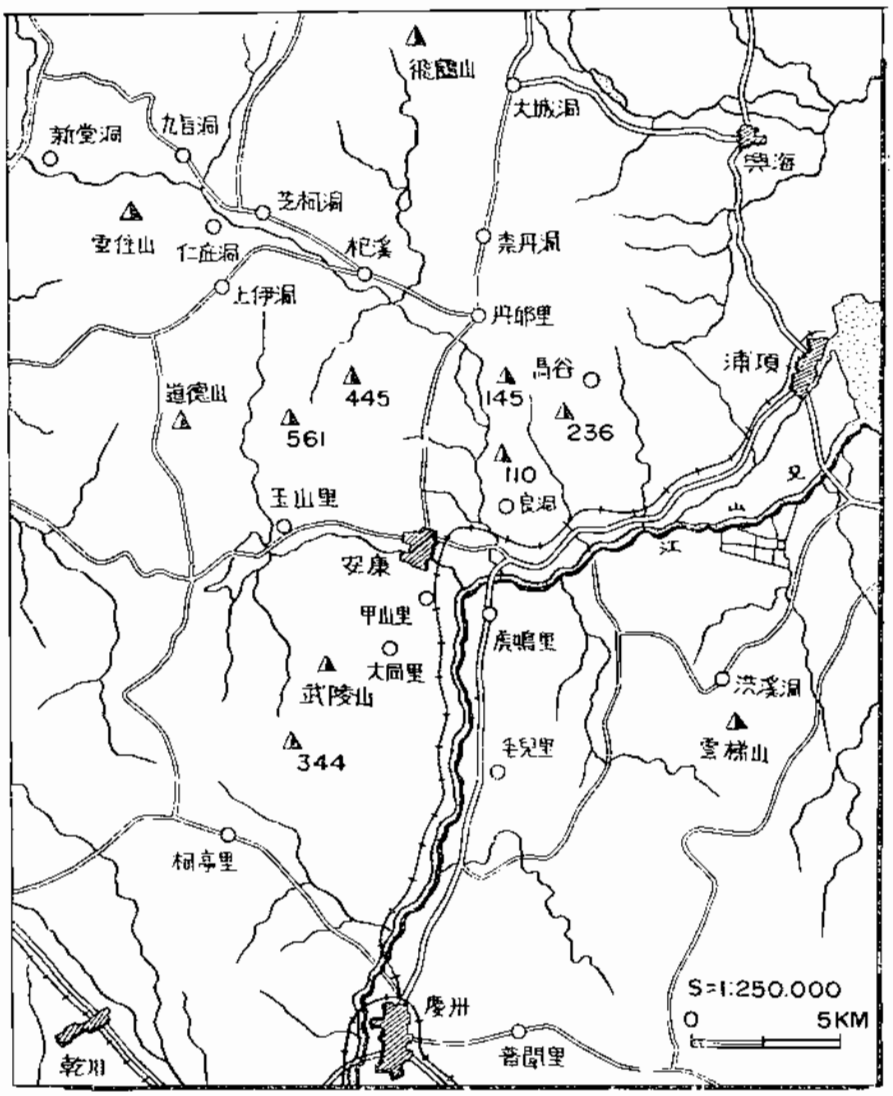
이 계획에서 본다면 武陵山 東側 下麓에서 2개 연대가 같은 시간은 아닐지라도 交叉되게 되었는데, 이는 그 일대가 지형적으로 긴요하고 敵의 主力 집결지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제1연대를 인접부대보다 逆襲의 最先攻으로 진격케 한 것은 敵 제12, 제5사단의 정계선상의 약점을 突破하고, 그 間隙을 分斷, 擴大시켜 敵의 연합전선 형성에 鐵槌를 가하고 敵의 安康 방어에 있어 그 東翼을 절단케 하려는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이 계획이 가능하다고 본 이유는, 右側은 제3사단(장, 李鍾贊대령)의 補塡 및 환을 위한 兄山江 渡河작전에 敵이 吸着되어 있고, 左側은 安康 뒷高地群에서 소총 유효사거리를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작전실시

9월 16일 : 대망의 총반격이 시작되는 이날 사단 右側의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虎鳴

상황도 제5호 安康—杞溪부근 약도



里에 설치되어 있는 前方지휘소에서 제1대대(장, 金煌穆소령)를 左一線,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를 右一線 공격梯隊로하여 良洞과 有琴里 後方高地를 향하여 一路진출케 하고, 제3대대(장, 李鳳凰대위)를 예비대로 措置하였다. 前方대대를 증원토록 하여 진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대 正面의 敵 제5사단 제10연대의 저항이 예상 외로 완강하였는데, 그들은 이미 점령하고 있던 良洞里—有琴里—德南里 일대에서 四周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最後發惡을 하고 있었다. 연대에서는 그들의 背後에 대하여 杞溪—安康—虎鳴등의 敵 증원부대를 특공대

(장, 李夏榮중위)로써 견제하여 그들의 早期退却을 독촉하는 바 있었다.

이 무렵 敵은 이미 突破 당한 지역을 挽回하기 위하여 기습전법을 이용하여 역습하려는 듯 하였으므로 이의 대응책으로 제1대대(장, 金煌穆소령)는 挺進수색대를 편성하여 敵의 이러한 企圖를 未然에 포착, 분쇄키로 하였다.

즉 金基壽하사가 8명의 組員을 지휘하여 敵 陣地에 은밀히 접근하는데 성공한 다음, 기습계획 중으로 여겨진 敵의 침병대를 발견하자 마자 곧 이를 潰散시키고, 그 중 1명을 포로로 하는 戰果를 세웠다.

한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연대지휘소인 薔薇里에서 제1, 제3대대를 공격梯隊로, 그리고 제2대대를 예비대로 하는 태세로써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와 제3대대(장, 鄭昇和소령)는 전날(15일) 밤에 이미 甲山里 左右側 無名高地 일대까지 진출한 다음, 陣地를 점령한 바 있었으며, 이날 05.03에는 根溪洞으로 통하는 道路(LD線)上에 진출하여 연대 목표인 安康 西南쪽 2km지점의 高地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일대는 武陵山에 거점을 둔 敵 제12사단의 일부병력이 완강한 저항을 하고 있는 곳으로 제1, 제3대대의 목표점령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공격梯隊의 火力포위와 決戰卽應의 태세는 능히 敵의 鋭鋒을 꺾을 수 있었으며, 계속적인 側射와 斜射로써 敵의 최후 저항 陣地를 無力化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치열한 공격을 감행한 결과 이날 13.50에는 그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는데, 이는 첫째 安康을 제압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확보했다는 利點과, 둘째 武陵山 前斜面에서 제1기갑연대와 交戰하고 있는 敵의 右側背를 깊숙히 찔러 그側背를 威脅할 수 있는 利點으로서 전술상 매우 큰 의의를 갖게 되었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전날(15일)부로 사단에 편입된 다음, 연대지휘소를 慶州 路東里에 설치하고 부대정비를 끝마치는 즉시로 武陵山일대의 敵 제12사단 本據地를 擊破할 목적으로 羅原里 左側 安泰峰일대를 급습, 점령하고, 그 前方 344高地에서 反擊을 企圖한 敵과 血戰을 벌이고 있었다.

즉 전날 23.00부터 敵은 야간을 이용하여 慶州 침공을 위한 기습전법으로써 공격하였던 것이나, 이 당시 사단에 배속된 제10야포대대의 직접지원화력으로 그 主力이 일시 打擊을 받게 되었을 때에, 제1대대(장, 丁世鎭소령)와 제2대대(장, 朴道璟소령) 및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가 모조리 戰列에 나서게 되어 과감한 돌격을 반복한 끝에 이날 05.30까지 6시간에 걸쳐 敵을 擊滅시키고야 말았다.

이때 敵은 박격포를 비롯하여 重기관총과 輕기관총등으로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火網의 밀도와 비례한 치명적 타격을 받은 나머지, 344高地일대에서 일시에 退却하기 시작하고, 武陵山—安康方向으로 分散潰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은 종일 비가 내려 항공지원이 곤란할 뿐 아니라 空地협동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탓으로 더 이상의 戰果확대를 기대하지는 못하였다.

이날 육군본부에서는 訓令 제63호를 하달하였는데, 『雨天과 야간에 敵의 기습작전이 빈번해 질 것을 예기하고 이에 명심하여 대처할 것.』과 『敵은 전투 중에도 一地點에 정지하면 사격용 개인 엄체호를 완성한다.』는 事例를 들어 공격시에도 築城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지난 安康 부근 전투에서 敵은 擬音火器를 사용하여 山中에 이를 장치하고 기관총성을 내어 我軍을 기만하고 있었으니, 이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要旨의 내용을 지시하였다.

9월 17일 : 제1연대 前面의 敵 제10연대의 일부 병력은 그 동안의 시간적 여유를 틈타 129高地 일대에서 工事를 충분히 하고 자동화기로 강화된 陣地에서 연대의 진출을 완강히 저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연대장은 제1대대와 제2대대가 併進하여 이 高地를 동시에 점령하도록 명령하고, 여기를 奪取한 다음에는 계속하여 153高地의 敵을 격파, 압축하도록 하는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제1대대(장, 金煌穆소령)는 129高地의 左側背를, 그리고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는 그 前斜面을 각각 공격하는 동시에 일부 병력을 抽出하여 迂廻, 전진토록함으로써 敵의 背後에서 火力과 수류탄을 병용하여 과감한 돌격을 감행한 끝에 드디어 同高地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昆季峰과 그 뒤의 武陵山>

이때 그 前面의 153高地에는 제10야포대의 1개중대가 射程을 延伸하여 집중포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유기적인 步砲협동작전 아래 공격을 續開하였으며, 제2대대의 主力으로써 계속하여 153高地도 또한 점령하고 말았다.

한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武陵山과

北下麓인 根溪里 일대를 전날(16일)에 이어 점령, 확보하고 있다가 玉山里方向으로 退却하는 敵을 추격하면서 계속 壓縮, 威勢를 强化하였다. 이때 敵은 安康-永川의 道路 北쪽 高地群(△561, △445)에서 나머지 병력을 수습하면서 安康 반격을 위한 최후 據點을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전날 344高地를 점령하자 敵에게 一刻의 여유도 주지 않고 추적을 계속하여 武陵山을 거쳐 安康邑 점령을 목표로 진출하고 있었다.

武陵山 일대에 준동하고 있던 敵은 인접 제18연대의 後方차단으로 말미암아 더욱 支離滅裂된듯하여 그 西北側 山麓을 이용하면서 후퇴일로를 거듭하고 있었으며, 敵의 집결지 및 前方지휘소로 예상되었던 安康邑內 마저 내어 놓은 채로 4km 後方인 老堂峙 부근으로 퇴각하고 있었다.

敵의 反攻 또는 遊擊據點으로 이용하려는듯이 判斷되었던 武陵山線이 제18, 제1기갑연대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安康 右側背가 제1연대에 의해 노출하게 되므로써 敵의 士氣는 급속히 꺾였을 것이리라.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단 정훈부장 白道欽대위는 비행기로 귀순권고의 傳單을 살포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투항해 오면 따뜻하게 보살펴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날 인접부대 상황으로서는 제7사단(장, 申尙澈대령)의 제8연대(장, 金龍周중령)가 사단 左側인 道德山方面으로 진격하므로써 2주 동안이나 공백상태로 있던 군단경계(제2, 제1군단)를 연결하게 되었고, 사단 右側 제3사단(장, 李鍾賛대령)의 공격梯隊는 浦項을 탈환하기 위한 兄山江 渡河준비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었다.

9월 18일 : 사단은 攻勢 3일째 되는 이날, 분산하는 敵을 더욱 潰滅 상태로 빠뜨리고자 사단前面에서 여전히 과감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미 초토화된 安康平野는 그래도 버 이삭이 누렇게 물들어 가고 있었고, 天地를 뒤흔드는 砲爆威力에 재편성의 意思마저 스스로 喪失하게 된듯한 敵은 차츰, 그 士氣 또한 低下一路에 놓였을 것으로 보였다.

제1연대장 韓 信중령은 전날 점령하였던 129高地 및 153高地에서 敵과의 접촉을 强化하고 있다가 左前面의 104高地와 110高地를 공격하기 위하여 곧 제1대대를 진출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장, 金煌穆소령)는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의 側方 지원을 받으면서 목표에 접근한 다음,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때 敵은 각 高地에서 1개 분대씩

결사대의 임무를 띄고 대대의 진격을 극력, 저지하고 있었는데, 대대는 계속적인 사격과 돌격의 反復으로 부여된 前記 목표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대대가 사단의 가장 先頭에 나서게 된 공격中樞가 되었기 때문에 敵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인접연대의 미진출로 말미암아 공격 前線에 平衡을 유지 못하게 된 탓으로 敵의 집중 저항을 正面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니 사격의 집중발휘에 따른 銃砲彈의 수요량이 급증하게 되어 일시 곤란을 겪게 되었는데, 탄약의 급속보급을 위하여 사단 공병대는 연대 後方에 있는 安康橋의 보수작업을 전날에 이어 계속 박차를 가한 결과 이의 완공을 보게 되었다.

사단 左一線을 담당하여 진격하고 있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武陵山 側背를 점령한 다음, 계속해서 安康 西地 쪽 高地群을 목표로 제1, 제3대대로써 공격梯隊를 삼고 진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는 이날 09.00에 117高地(安康 西北쪽 3km)를 공격하여 10.30에 점령한 다음, 계속해서 그 北쪽 300高地를 공격하였으나, 日沒시까지 큰 진전은 보지 못하였다.

또 제3대대(장, 鄭昇和소령)는 이날 05.60에 根溪里를 출발하여 09.00에 445高地 밑까지 진출한 다음, 이 陣地를 점령하려고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양개 대대의 목표高地는 해발 4~500m의 連峰을 이루어서 매우 가파른 地勢이므로 攻者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敵 제12사단 主力의 退却 집결지로 견고한 방어진지까지 마련되고 있었기 때문에 一朝에 이 목표를 점령하기에는 퍽 힘드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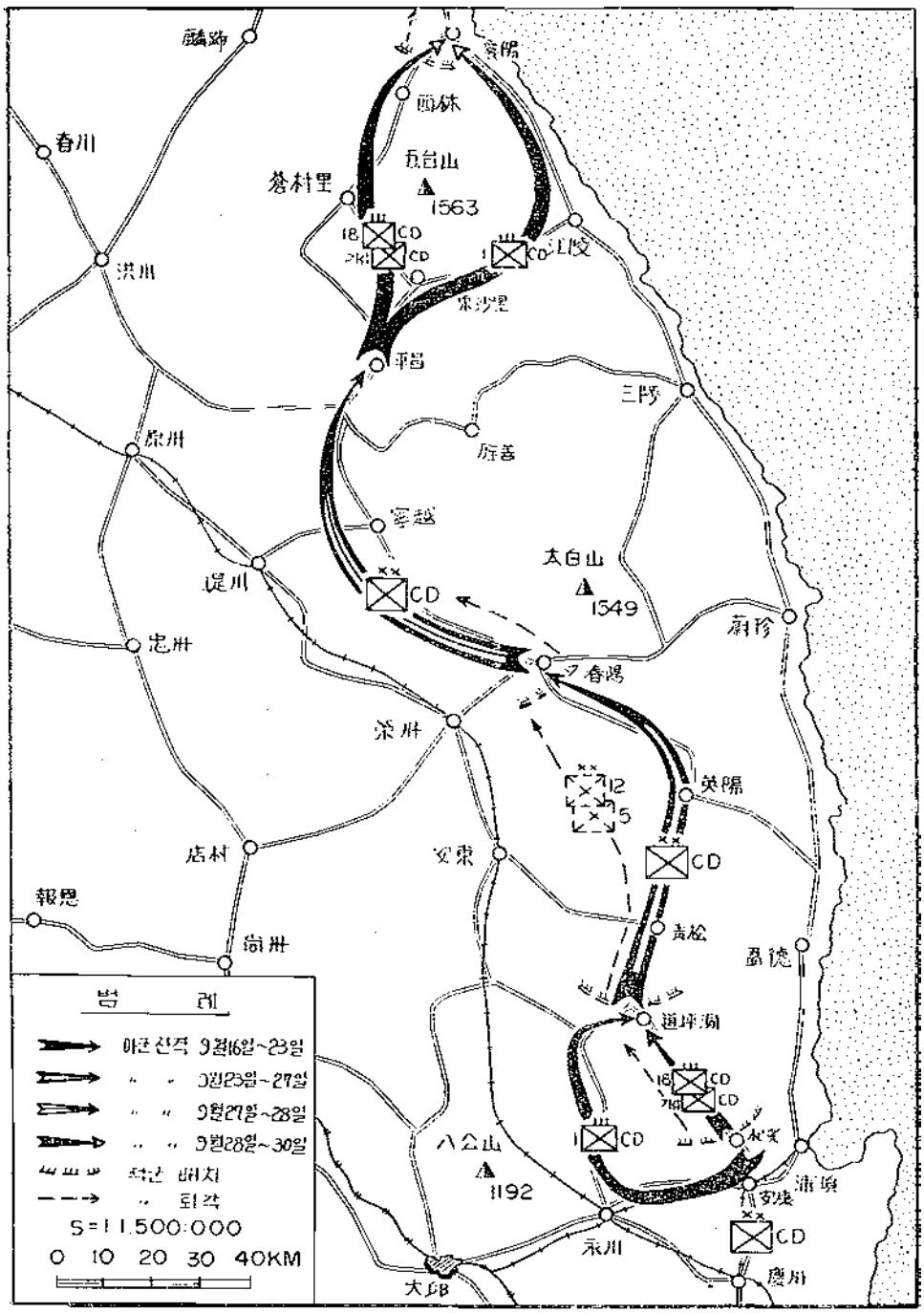
한편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이날 安康 前方 285高地와 山山里, 그리고 中山里 일대의 無名高地를 확보하고 있다가 개활지를 통과하여 堤防에 진출한 다음, 安康邑에 突入하므로써 12.60까지에는 완전히 이곳을 탈환하고 계속 花溪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다.

이 安康 전투에서 122mm 곡사포 1문을 비롯해 76mm 곡사포 2문과 동포탄 500발, 120mm 박격포탄 58발, 그리고 GMC 트럭 2대등을 노획하는 戰果를 올렸다.

9월 19일 : 사단 最先攻부대로 진출한 제1연대는 전날 점령한 陣地(△110, △200)에서 前面의 145高地와 馬谷마을에서 敵의 병력과 화력이 급증하는 까닭으로 일단 急編 방어태세로 들어가 陣地를 강화하면서 次期공격 준비의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때 敵 제5사단 제10연대는 潰走하던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병력을 재수습하여 직사포 3문과 자동화기로 화력을 증강하고 약 600명으로 주로 야간 기습을 노리면서 그 일대를 막

상황도 제 6 호 安康—38°線 進擊戰



아 내고자 하였는데. 이는 여기가 杞溪와 飛鶴山을 固守하기 위한 要地이기 때문이었다.

상황이 이와같이 전개되자 연대는 後續하고 있던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를 前線으로 推進, 집결시키므로써 공격력을 강화하는 方途를 취하게 되었다.

한편 제18연대의 제1대대는 561高地(安東 西北쪽 5km)南쪽 山麓의 遮蔽地와, 虎洞 北쪽 右側 능선을 각각 점령하고 증원된 제7사단 제8연대(장, 金龍周중령)와 협동하여 이날 17.00부터 561高地 左側면에서 공격하기 시작하여 20.40에는 그 高地 일부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동 연대 제3대대는 이날 03.00부터 445高地(老堂里 西北쪽 5km)및 無名高地 일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08.00에 그 高地 中腹까지 진출하였으나, 지형상 급경사의 불리한 점과 敵火力의 급증으로 인해 彼我 서로 대치상태로 들어가 混戰 중 하루를 지냈다.

동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제1, 제3대대의 공격을 지원하다가 玉山里 방향으로 迂廻, 전진하여, 道德山과 561高地 左側에 병력을 배치하고 高龍洞方面에서 침입한 敵을 격퇴하며, 主力 제1대대의 561高地 공격을 직접지원하고 있었다.

이 무렵 사단 中央을 돌파해 온 제1기갑연대는 전날(18일) 安康을 점령한 후 계속 진격하여 六通里(安康 北쪽 2.5km)를 接敵없이 확보하고 杞溪에 이르는 主要高地인 老堂里 北쪽 高地群을 목표로 계속해서 추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이때 연대는 사단 작전지시 제2호에 의해 전투지경선이 변경되자 左 인접 제18연대가 담당하였던 445高地일대의 목표를 인계받고, 이의 점령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날 申性模국방장관은 군단장을 대동하고 일선 시찰차 사단 지휘소(慶州)에 그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장병들을 격려하는 要旨 다음과 같은 훈시를 하는 바 있었다.

「6.25이래 금일까지 不備한 장비로서 지연전을 계속하여 오늘날 이 총공격의 태세를 갖추게 됨을 전장병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자기의 직분을 성실하게 완수함으로써 남이 도와준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이며, 我軍이 서울근교에 돌입하였다고 해서 우리 군인은 낙관을 금하여야 할 것이다. 共產徒奴를 완전히 격멸할 때까지 용감하게 싸워 이기고 민족통일은 물론 세계 인류평화에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9월 20일 : 사단 右側 丹邱里 앞산 145高地와 馬谷 앞산 236高地에는 각각 300명으로 추산되는 敵이 각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특히 236高地앞 200高地에는 堡壘 같은 二線 三線의 陣地를 구축한 다음, 火力을 배치하여 我軍의 공격을 끝까지 지연시키려는듯 하였다.

敵情이 이렇게 되자, 제1대단장 韓 信중령은 3개 대대를 전부 공격梯隊로 편성하여 敵의 이 堅固한 거점을 돌파코자 決心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는 200高地 탈환을 위해 先鋒 공격대로 전투준비에 만전을 다하게 되었으며, 때를 맞춰 UN공군의 공중포격과 사단포병대의 지원포격이 이 지역을 동시에 강타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 左側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전날(19일)완전히 점령치 못했던 561高地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다.

즉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는 이날 09.00에 561高地 左側에서 右側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일대에는 敵 제12사단이 左右兵團의 패잔병들을 合流케 한 곳으로 최후 저항점으로 삼아 치열한 사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彈雨를 무릅쓴 가운데 彼我의 사격전이 계속되다가 전날의 점령지인 左側 高地일부가 敵에게 기습 당하게 되자 전투는 더욱 加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시간 후부터는 敵勢가 꺾이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대대는 돌격으로 移行하여 12.30에는 그 高地일대를 완전히 점령, 확보한 다음, 急編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四周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같은 연대의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전날 제3대대 지역(△445 下麓)에서 玉山里로 迂廻하여 571高地에 새로운 陣地를 점령하고, 일부는 571高地의 지원사격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대대(장, 鄭昇和소령)는 기갑연대에 인계한 전날의 陣地에서 玉山里 玉山書院(李朝 中宗 때 名儒인 晦齋 李彦迪의 祠堂)으로 이동하고, 다음 공격을 위해 부대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老堂里 北쪽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安康에서 격퇴 당한 敵 약 1개 연대는 六通里 北쪽 300高地 및 그 左側 無名高地에 집결하여 연대의 진격을 극력 저지하고 있었으나, 士氣 왕성한 연대 장병들은 불충분한 火器를 갖고 계속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9월 21일 : 사단은 총반격작전이 시작된지 6일째 되는 이날, 安康을 瞰制하고 있는 북군일대 高地群을 완전히 점령,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하 각 연대는 Phase Line(진출에 정선)에 平衡으로 진출한 다음, 담당正面에서 敵을 계속 추격하였다.

즉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사단 右側 공격제대로서 전날에 계속하여 점령 목표인 145高地와 200高地, 그리고 236高地의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제1대대가 145高地를 점령하고

제 2, 제 3 대대가 200高地 돌격에 이어 236高地를 점령하고 丹邱里 馬谷부근의 敵을 擊破하였다.

이 부근에서 살아 남은 敵 제 5 사단 패잔병들은 丹邱里 右側 山麓을 타고 飛鶴山으로 潰走한 것으로 보였으며, 연대는 四周경계와 아울러 부대전열을 가다듬으면서 次期작전을 위한 卽應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사단 左側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移來峴—新堂洞을 목표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 1 대대(장, 張春權소령)는 연대 右側 공격梯隊로써 전날 점령한 561高地에서 鳳溪洞—上伊洞을 향하여 진출 중이었고, 제 2 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연대 左側 공격梯隊로써 571高地—移來峴을 목표로 공격하여 그 右端 無名高地를 17.40까지 점령, 확보하였다.

예비대로 있던 제 3 대대(장, 鄭昇和소령)는 561高地 左側 능선에 陣地를 점령한 다음, 제2대대의 右側背를 경계하면서 계속 陣地를 强化하였고, 제11중대를 561高地로부터 492高地 사이에 진출시켜 수색활동을 전개토록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단 中央部에서 杞溪 점령임무를 맡은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전날(20일) 점령하였던 老堂峙 北쪽 鶴野洞에서 士氣 충천한 가운데 杞溪를 향해 突進하였다. 이에 앞서 我 공군의 지원폭격과 사단 포병대의 집중砲擊으로 말미암아 敵은 四散하게 되고, 연대가 杞溪로 육박할 때는 逃者들 마저 남겨둔 채로 敵의 主力은 황급히 퇴각하고 있었다.

9월 하순으로 접어든 이날의 날씨는 매우 청명하여 我軍의 空地合同작전에 유리하였으며, 상쾌한 초가을 바람은 我軍의 士氣를 더욱 북돋았을 뿐만 아니라, 山野에 砲哮하는 空地砲爆聲은 38°線을 넘어서 鴨綠과 豆滿을 指向하려는 大望의 序曲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특히 이날은 사단장 宋堯讚대령이 國本特命(陸) 제69호에 의거 준장으로 승진되었고, 慶州에 위치한 사단사령부에서는 前方 각 부대의 連戰連勝보고와 함께 더욱 士氣를 높였다.

9월 22일 : 군은 이날「無制限攻擊」을 실시하기 위해 要旨 다음과 같은 陸本作命제119호(作命第錄 제 2 호)하달하였다.

『국군 正面의 敵 저항은 극도로 저하되고 있었으므로 現陣地로부터 총공세를 취할 수 있음. 군은 만반의 노력을 다하여 깊이 敵線에 침투하고 敵의 약점에서 돌파구를 완전히 확대하는 동시에 敵의 퇴로로 진출하여 후퇴를 企圖하는 敵을 徹底殲滅하려 함(中略)

군은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공격을 실시하려 함.

제 1 군단의 主攻은 清河—盈德—平海軸線을 따라, 助攻은 仁旨洞—泉旨洞—春陽軸線을 따라 담당지역 내에서 무제한공격을 계속하여 敵을 擊破하라.』

이에 따라 左 인접 제 3 사단은 清河—平海를 連하는 東海岸道路를 따라 추격을 계속하였고, 수도사단은 道坪洞—春陽을 連하는 太白山脈 左側 道路를 따라 추격을 續行하게 되었다.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이와같은 戰勢遷移에 따라 작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였는데, 제 1 연대를 공격梯隊로부터 抽出하여 道坪洞부근(現陣地에서 北쪽으로 약40km)에서 敵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九山洞에 迂廻轉進토록 하였으며, 제18, 제 1 기갑연대는 現陣地에서 敵을 압박하면서 正面 추격을 계속토록 指導하였다.

즉, 제18연대 제 1 대대는 전날의 陣地에서 南溪洞으로 진출하였고, 제 2 대대는 移來峙에서 仁旺洞을 목표로 계속 공격 중이었으며, 제 3 대대는 예비대로 있다가 561高地와 702高地 사이의 V字型 계곡을 경유, 移來峙에 이르는 鞍部를 넘어서 移來峴 계곡에서 제 2 대대와 交叉하여 144高地 및 上伊洞에 진출하였다. 이 上伊洞과 仁旺洞일대는 立岩—杷溪 道路의 左側을 掩護하고 있는 능선下馬으로서 연대 右側 제 1 기갑연대의 진출에 매우 중요한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제 1 기갑연대는 右側 제18연대와 거의 평행으로 진출한 다음, 이날 10.00까지 芝柯洞(杷溪北쪽 4km)을 점령하고 계속 立岩을 목표로 진격 중이었다.

연대는 杷溪점령 다음, 敵 主力의 퇴각에 뒤따라 주로 道路를 이용하면서 追擊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배속되었던 공병대가 進擊路上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면서 주로 徒步로써 接敵,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 1 연대는 전날(21일)점령하였던 丹邱里 앞산 145高地 下麓에서 우선 집결한 다음, 부대정비를 완료하고 차량편을 이용하여 安康—永川을 경유, 九山洞으로 機動진출하였다. 이리하여 진출 즉시로 연대지휘소를 개설하고 敵 後退路 깊숙히 차단하고 돌아가기 위하여 道坪洞과 靑松부근에서 추격준비의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9월 23일 : 사단은 이날부터 제18연대와 제 1 기갑연대만을 杷溪 北쪽의 現陣地에서 道坪洞—靑松을 향해 계속 추격토록하고, 그 전날 이동완료한 제 1 연대는 九山洞에서 道坪洞을 향해 공격케 함으로써 正面 압박과 동시에 敵 後方 깊숙히 뚫고 돌아가 그 퇴로를 차단하고 一擧에 敵을 격멸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단작전계획에 따라, 제18연대 제1대대는 未明을 기해 南溪洞 경유, 新堂洞(立岩과 4km거리)에 09.00까지 진출한 다음, 河川과 연하는 雲住山 기슭에 陣地를 점령하고 前方의 敵情을 수색하게 되었다.

같은 연대의 제2대대는 연대 右側 공격梯隊로서 이날 08.00에 南溪洞에서 출발하여 13.00까지에는 405高地와 602高地를 점령하고 右 인접 제1기갑연대의 진출을 엄호하였다.

이 무렵 연대 前方지휘소는 安康에서 龍山洞(永川郡 紫陽面)으로 推進, 개설되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는 芝柯里 北쪽에서 立岩을 향해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敵은 安康—北溪 전투 이래 그 主力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극도로 무력화되기에 이르른듯 하였는데, 얼마나 다급하였던지 적사포 2문과 탄약적재차량 2대 및 트럭 2대 등을 芝柯—立岩 道路上에 내버린 채로 황망히 敗走一路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때 연대 前方지휘소는 본대의 北上에 따라 安康에서 北溪로 前進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는 九山洞에 轉進하여 사단의 最先頭 부대가 된 다음, 道峴洞을 향해 공격 도중, 安德里(青松郡 安德面)北쪽 475高地에서 엄호부대인듯한 敵 약 1개 대대를 발견하는 즉시로 이를 격퇴하고, 계속 東北 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戰線이 급진적으로 北上하게 되자 이에 따라 사단도 前方지휘소를 內山里(安康 北쪽 4km)로 추진, 설치하여 前方각 연대와 유기적인 작전지도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날 임시 수도인 釜山에서 李承晩대통령은 긴급문제에 관한 담화 가운데서 宣布하기를 『元來 38°線이란 없다. 이는 思想的 줄거리인데 이때까지 참아 온 것은 국제관계 때문이었으나, 이제 38°線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38°線을 不認定함과 동시에 以北進擊論을 거듭 强調하였으니, 老大統領의 斷乎한 이 宣言이야 말로 愛國愛族의 衷情에서 울어 나오는 擧族的 絶叫를 代表하는 것이오, 국군 전장병들에게 던져주는 다시 없는 커다란 激勵가 되어 그 士氣는 날이 갈수록 더욱 드높아지는 것이었다.

9월 24일 : 前方 각 연대가 連戰連勝하고 그야말로 破竹之勢로 追擊을 계속하자,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종래의 散小高地나 국부적인 공격을 지양하고 이날부터 主力부대는 進擊路上의 주요 거점을 신속히 돌파하면서 38°線을 목표로 一路 추격을 감행하기로 決心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돌파한 지역의 戰果 확대에 이어서 殘敵을 擊滅하는 임무는 이를 모두 後續부

데에 맡기도록 하였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徒步로서 강행군을 계속하여 道坪洞을 공격하는 즉시로 이를 돌파하고 그 北쪽 大前洞까지 진출하였다.

연대가 이렇게 北上 진격하자 敵 제12사단 主力은 보급품을 적재한 馬車 10대와 軍馬 10匹을 殘置한 채로 38°線 방향으로 철수하고 있었고, 미처 퇴각을 못한 패잔병들은 조직없는 個別的인 저항을 企圖하다가 太白山脈으로 흩어져 潛入하여 게릴라化하는듯이 판단되었다.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立岩—道坪洞에 진출하고 先攻부대의 突破에 의해 생긴 間隙의 兩側을 席卷하여 戰果를 확대해 가면서 추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信중령)는 전날(23일)의 점령지인 475高地에서 道坪洞을 목표로 하여 진격 중, 新邑里 北쪽 無名高地에서 敵과 不時에 부딪치는 즉시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즉 제1대대(장, 金煥穆소령)는 正面으로 공격하고 특공대(장, 李夏榮대위)는 迂廻, 포위하여 敵을 격멸하였던 것인데, 그 여세를 몰아 연대 主力이 계속 道坪洞까지 진출, 집결하게 되었다. 이 무렵 道坪洞에서 연대장 韓信중령은 중대장급이상 전 장교를 모아 놓고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부터 지나간 날 敵이 밀고 내려오던 속도 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격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훈시하고 결정적 방향으로의 계속적인 前進을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짐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날 사단 참모장 李鴻根대령과 동 작전장교 崔貞澤소령이 道坪洞 北쪽까지 일선 作戰線을 시찰하고 돌아하던 중 敵 대전차 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不意의 戰死를 하게 되었다.

9월 25일 : 제18연대는 大前洞에서 靑松으로 진격 중 약간의 敵 저항을 받았으나, 곧 이를 격파하고 靑松을 점령한 후, 靑松농업중학교에서 숙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1기갑연대는 道坪洞에서 곧 이어 靑松에 진출하였다. 한편 제1연대는 德川洞 北쪽에까지 진출하여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또한 사단 前方지휘소 및 예하 각 연대의 前方지휘소가 전부 이 靑松에 설치되므로서 사단 東側에서의 盈德점령(제3사단), 및 西側에서의 安東점령(제8사단)과 아울러 최초 반격명령(陸本作命 제180호(作命附錄 제1호))의 제2차 진출 예정선인 「A線」上의 돌파가 완료된 셈이었다. 특히 이날 靑松지휘소에서 사단장은 제1연대와 제18연대의 勇戰奮鬪에 대해 표창

장 및상금 5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장병들의 士氣를 앙양시켰다. 이와 함께 군단도 그 前方지휘소를 杞溪(盛州에서 30km北쪽)로 이동하고 사단의 진격로를 따라 北上하고 있었다.

9월 26일 : 사단은 제18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추격의 主力부대로 삼고, 제1연대를 예비대로 하여 北進작전을 推進하고 있었다. 즉 돌파 실시부대인 제18, 제1기갑연대를 최대縱深으로 배치하고 敵 主力의 철수에 따른 엄호진지의 약화된 間隙을 가능한 한 차량으로 돌파하여 敵의 隻影이라도 포착 하는데로 곧 擊滅토록 하는 方針이었다.

이에 따라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靑松에서 英陽 경유, 刀川里(春陽 西南쪽 鳳城里 부근)까지 일거에 진격하였고, 연대지휘소도 英陽까지 약진하였다.

제1기갑연대는 英陽 北쪽 道溪洞 北方까지 진출하고 지휘소도 後續하여 道溪洞으로 前進하였다.

한편 제1연대도 英陽까지 진출한 다음, 사단 예비대가 되어 부근에서 出沒하는 殘敵을 보는대로 격멸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진격부대 主力에 대한 보급의 수요가 미처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효율적인 보급차량의 기동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9월 27일 :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전날의 陣地인 刀川里에서 이날 05.00를 기해 徒步 接敵행군으로 12.00에 鳳城을 경유, 계속 진출하다가 13.00에 鳳城二區, 峙下에서 敵 약 1개 중대가 출몰하므로 이들과 1시간 여에 걸친 교전 끝에 擊破하고, 이날 19.00에 春陽까지 진격하였다.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道溪洞에서 春陽으로 진출하였고, 제1연대(장, 韓 信중령)도 또한 英陽에서 春陽으로 진출하였다.

이렇게 사단 전 병력이 春陽 및 그 北方에 진출하자 군단, 사단, 그리고 예하 3개 연대의 全 지휘소가 시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春陽에 약진, 설치됨으로써 반격 작전이 개시된 이래 비로소 上下 지휘관들이 감격적인 會同의 순간을 가졌고, 38°線진격을 위한 次期 작전계획에 鳩首골몰하는 一方, 지형정찰과 보급 推進등으로 東奔西走하고 있었다.

이 무렵 사단 正面에서 방황하던 敵 제12, 제5사단 主力은 寧越—大和를 경유, 五台山으로 潰走하여 들어 갔고, 그 일부는 寧越 東北쪽 山岳지대에 潛入하여 山間民家에 내려 와서는 식량, 피복등을 약탈하면서 九死에서 一生을 찾아 헤매게 된듯이 판단되었다.

9월 28일 : 제18연대는 春陽面소재지에서 숙영하다가 이날 새벽 02.00에 자동차편으로 출발하여 主洞里를 경유, 13.00에 寧越에 진격한 다음, 약 3시간 동안 부대 정비를 하였으

며, 그뒤 17.00에 이르러 다시 車便에 分乘하여 平昌邑까지 一擧에 北上하였다.

이때 平昌邑 左右高地에서 敵 약 3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연대의 진출을 저지하려고 꾀하였으나, 연대는 이 敵에 대한 야간 공격을 감행하여 1시간여의 교전 끝에 敵을 모조리 潰散시켰고, 연대지휘소는 春陽에서 寧越로 약진하였다.

한편 제1기갑연대도 春陽에서 寧越로 진출하였는데, 이 때에 67명의 포로와 소총 45정, 사이드카 2대등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으며, 사단지휘소도 같이 寧越로 前進하였다.

이와같이 全戰線에 걸쳐 추격이 加速化되자 육군본부에서는 訓令 제78호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決戰 방향에 계속 부단한 부대지향과, 敵이 재편하여 저항할 여유를 주지 말고, 직접 압박 및 迂廻, 포위하여 敵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야간에도 주간보다 一層 밀접한 接觸을 유지하여, 敵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면서 철저한 공격을 속행하라.』는 추격전에 관한 지침으로서 軍의 士氣를 앙양시켰다.

또한 이날 訓令 제79호로서 示達하되『38°線 先着부대에 대한 大統領賞 수상에 관한 件』이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軍은 공세移轉을 계기로 하여 기습적인 仁川上陸작전의 성공과 그 10일만에 南北부대가 連繫, 合勢하였으며, 전격적인 進攻으로서 38°線 突破는 目睫之間에 있음.

이에 鑑하여 大統領각하께서는 38°線 先着부대에 대하여 記念章 혹은 表彰狀을 下賜하신다는 讓示가 有하오니 각급 지휘관은 此旨를 납득시켜 영예의 상을 획득하여 部隊戰史에 찬연한 史蹟을 기록토록 할 事.』

9월 29일 : 사단 正面의 敵 제12, 제15사단은 그 主力이 大和—江陵을 沿하는 直路를 횡단한 다음, 五台山 山岳지대를 경유, 38°線 以北으로 越北하고 있었으며, 主力의 철수대열에서 이탈한 後方부대는 大和에서 正北方向인 蓋村--縣里를 경유, 麟蹄를 향해 潰走하고 있었는데, 이때 지난 9월 15일 전후에 모병한 소위 義勇軍 약 3,500명이 간부 30여명에 인솔되어 후퇴하고 있었으나, 지휘계통이 상실되어 四分五裂된 채 집단을 지어 敗走하였고, 때때로 山間을 이용하여 民家에 내려와 식량 피복등을 탈취하면서 계속 北上을 꾀하고 있었다.

이 무렵 사단은 陸本作命 제199호(作命附錄 제3호)를 받게 되었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大和—蓋村--後坪을 軸線으로 龍浦까지 계속 전진하여 龍浦부근에서 再編하라.』는 것이었

고 각 연대의 추격전을 전날에 이어 계속 감행토록 하였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平昌邑에서 米明을 기해 트럭으로 출발, 이날 12,00에 大和面 下大和에 진출하고 13,00에는 徒步 接敵행군으로 전격하여 19,00까지 本隊가 전부 長坪洞에 진출한 다음, 마을 前方高地에 야간 경계병을 배치하는 한편, 마을 부근에서 野營하게 되었는데, 이때 연대 前方지휘소도 本隊와 함께 前進하였으며, 제1기갑연대도 寧越에서 大和로 진출하였다.

제1연대는 寧越에 진출한 다음, 사단 작전지시에 따라 1개 중대로써 寧越 發電所를 경비토록 하였다.

그런데 제18연대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가 平昌을 출발하여 大和로 진격하는 도중, 山谷에서 휴식과 아울러 取食하려 할 때 사단장이 最前方 시찰차 不時에 來到하여 "지금先攻隊는 어디까지 진출하였는가?"라고 대대장에게 물어 왔다. 이때 대대장은 "橫城방향에 敵情이 있어 1개 중대를 진출시켰읍니다."라는 보고와 함께 엉겁결에 最先頭부대는 大和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말았다. 이때에 사실은 大和까지 진출한 것이 아니었는데, 실마 사단장이 最前方부대까지 나가리라고 생각치 않고 이와 같이 가볍게 대답하여 버린 것이다. 이리하여 사단장이 순간적으로 차를 몰아 大和里까지 急速度로 나가다가 大和里 못 미처 후퇴하는 敵 1개 중대규모의 병력과 부딪히게 되었다. 이 당시 我軍의 복장이 가지각색이었었으므로 사단장은 이들을 我軍인줄로 誤認하고 바짝 다가 가다가 敵임을 확인한 결과, 사단장이 급히 돌아서고 호위하던 헌병들이 차車에 가설된 기관총으로 이 敵을 向하여 連射를 가하였다. 그야말로 不時에 急射를 받게 된 敵은 그자리에서 손을 들고 投降하게 되었고, 이어 본대가 진출하여 敵兵을 모두 포로로 하여 압송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追擊戰에서는 豫期치 않은 轉禍爲福과 그와 반대의 戰例가 自古로 많은 것이다.

9월 30일 : 「항복이냐, 죽엄이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라는 MacArthur 元帥의 敵에 대한 항복권고 傳單 300만장이 뿌려진 이날, 사단은 얼마 남지 않은 38°線 境界까지 殲滅하기 위한 猛勢도 莊嚴하게 추격을 거듭하고 있었다.

지난 9월 23일 金日成이 내린 「38° 線 以北 철수명령」이래 敵은 이제 38° 線 以北으로 정신없이 撤退하였고, 全般的인 戰勢가 다급하게 된 魁首金日成은 中共을 통하여 印度大使에게 부탁한 「停戰條件提案說」이 UP報道를 타고 번지게 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 美國을 위시한 8개국이 UN에 제안하여 38° 線 돌파여부에 관한 권한을 Mac

Arthur 元帥에게 부여하였고, 이어 Walker 중장은 국군에게 38° 線 越境명령을 하달하였는데 이 명령도착은 다음 날이 되었다.

또한 美 UN대표 Ostern은 38°線의 폐지를 UN政策委員會에 제안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급변하여 失地수복의 염원이 시시각각으로 닥아 오는듯 하였다.

만약 UN軍이 38°線에서 정지한다면 단독 北進도 불사할 것이라는 李承晩대통령의 굳은 결의는 『이 강토에서 단 한명의 공산군이라도 남김없이 축출하고 국군의 진격은 오직 韓·滿국경에서만 정지될 것.』이라는 연설(釜山市民大會 9월 19일)로 이미 표명되었었는데, 이는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內外情況下에 사단은 전날에 이어 진격을 계속하였는데, 제18연대는 長坪里 北측에서 店村을 경유하여 西林里(38°線 直後方 2km)로 진출하였고, 그 先頭부대는 이날 밤 西林을 통과한 다음, 이미 38°線을 돌파하고 계속 진출 중이었다. 또한 이에 뒤질세라 제1기갑연대도 東沙里에서 西林街道를 따라 廣院里까지 진격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는 平昌에서 大和 경유, 東沙里까지 약진한 다음, 大關嶺—江陵 방향의 敵을 추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날 사단 前方지휘소는 春陽에서 平昌으로 전진한 다음, 全般戰況을 統轄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安康—靑松—英陽—寧越—平昌—西林에 이르기까지 太白山과 五臺山이 連하는 內陸의 험한 臨路를 따라 38°線을 향하여 그야말로 破竹之勢의 추격을 단행하였다.

敵은 최초 安康—杞溪부근에서 완강한 방어태세로 反攻을 企圖하다가 이 거점이 붕괴되자 계속해서 敗走하였고, 사단은 敵과의 接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40km 이상의 강행군도 불사하였던 것이다.

특히 사단은 敵 제12, 제15. 제5사단의 병력과 최초 4:1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反擊初期에 安康부근을 돌파하게 되자 士氣百倍하여 乘勝長驅 北進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進擊線이 길어지고 加速化되기에 이르자 前方부대에 보급추진하는 後方부대가 오히려 더한 辛苦를 맛 보기도 하였다.

國內外的으로 38°線 돌파문제의 議論紛紛하였으나, (제29장 38°線돌파문제 참조) 이에 개의하지 않고 38°線을 향하여 北進을 계속하고 있던 사단은 그 先頭부대인 제18연대가 9월 30일에 38°線上의 南쪽 2km 지점인 西林里에 진출하여 38°線 돌파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이 무렵 敵은 제12사단등 여러 곳에 있는 패잔 합류병들이 이미 38°線을 넘어 또 한번의 決戰을 企

圖코자 陣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南北分斷의 장벽인 이 38°線은 사실상 9월 30일 밤 그 일부가 돌파되었고, 10월 1일부터는 38°線 以北 첫 小都市인 襄陽을 향해 大進軍의 길을 재촉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제1연대 제1대대 제3중대장 朴鍾熙중위

(1966. 3. 23. 陸本에서, 大領)

安康부근 반격전을 끝마친 다음, 우리 연대는 慶州—永川—九山洞으로 迂廻, 진출하여 道坪洞 및 靑松方面으로 공격하였다. 이것은 제18연대가 安康 탈환 후, 그대로 패잔병을 추격하고 우리 연대는 九山洞으로 기동하여 道坪洞에서 敵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임무이었다.

道坪洞에서 敵의 퇴로를 차단하여 전멸시키려 하였으나, 敵은 이미 후퇴한 다음이어서 큰 戰果는 올리지 못했다. 이때 敵은 박격포, 기관총, 차량등을 道路에 그냥 놔 두고 후퇴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 중대가 先頭에 진격하다가 道路邊左右側에서 일시 경계태세에 들어 갔을 때 사단 참모장인 李鎬根대령이 이 부렵 전사하였다.

그 후 연대장(韓 信중령)이 전 중대장급 이상을 모아 놓고 "우리는 지금부터 敵이 내려오던 속도보다도 더 빨리 진격한다."라고 하였고, 그때부터 총반적어란 것을 알게 되었다.

靑松 左側으로 진출하였다가 다시 眞安里 경유, 春陽까지는 敵의 큰 지항없이 전격하여 그곳에서 주둔하면서 殘敵 격멸전을 시작하였다. 이때 많은 敵을 포로로 하였고, 다시 蔚珍가는 길 방향으로 진출하다가 寧越—平昌—大和로 진격하였는데, 先頭부대가 敵과 조우하여 일시 근접전을 벌일 일도 있었다.

그리고 大和를 지나서는 江陵方面으로 진출하였는데, 이 기간에 전투는 별로 없었다.

行軍할 때는 차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交代 交代로 차량을 이용하여 행군하였으며, 江陵경유, 注文津에 진출하였을 때는 이미 제3사단이 진격한 후였고, 襄陽까지는 後續하였으며, 襄陽에서 숙영하게 되었다.

◇ 제1연대 特攻隊 이진백

(1966. 6. 15 陸本에서 소령)

反擊무렵에 제1연대 特攻大隊 제3중대로 배속되었다. 당시 특공대는 대부분 學徒兵으로만 모집, 구성되었는데, 慶州에서 1주일 정도 MI기계조작훈련과 사격술훈련만 받고 安康 탈환전에 참전하였다.

당시 특공대대장은 李夏榮대위이었고, 중대장은 韓 虎소위이었으며, 安康—把溪를 탈환한 다음에는 차량으로 慶州를 거쳐 永川 경유, 九山洞부근으로 진출한 것 같다. 靑松 조금더 지나서 人民軍의 보급馬車를 3대를 노획하여 필요한 물건은 일부 쓰고 말(馬)도 노획하였다.

그리고 襄陽까지는 주로 車輛으로 이동한 것으로 기억된다.

◇ 제1연대 朴贊兢대위

(1966. 3. 24 陸本에서, 대령)

反擊 이후의 北進 당시 하루 행군을 100里 이상한 것이 보통이었다. 최고 39시간에 200里이상 徒步행군한 것이 기억되며, 군화가 헤어져서 못이 나와도 휴식시간에는 이를 돌 볼 여유가 없이 假眠하는 것이 우선하였다.

이렇게 강행군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行軍하던

중에 敵을 만나면 오히려 반가워 하였고, 이는 敵과 싸우기 위해 하루라도 쉴 여가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특히 行軍하면서 가로수에 부딪치고 배수로에 떨어지고 걸어가면서 꿈을 꿀 정도의 행군도 있었다.

당시 보급은 現地調達을 많이 하였고 上士俸給 一個月分이면 소(牛)한마리 값이 되어 소, 돼지, 닭고기등도 많이 먹게 되었다.

◇ 제18연대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

(1964. 6. 22국상대학원에서, 소장)

安康·杷溪지구의 치열한 반격전을 끝내고 9월 25일경 靑松에 진출하였는데, 이때 제1연대가 先頭로 진격하다가 우리 대대와 交代하여 추격을 계속하였다. 이 무렵 敵은 상황을 몰라서 보급품을 싣고 내려 오다가 我軍의 前哨에 정지 당하여 모조리 빼앗기는 장면도 있었다. 大和里 못 미쳐서 후퇴하는 敵 1개대대 병력을 我軍으로 오인하고 따라 가다가 곧 敵임을 확인하고 대부분 사살, 또는 포로로 하는 큰 戰果도 있었다.

우리 연대는 五台山 기슭을 경유하여 山岳內陸을 진격하였는데, 9월 30일 西林里를 通過하여 38°線上의 人民軍 師團地에서 하룻밤을 대기하였다.

수도사단의 진격로는 襄陽이 아니고 楸山이었는데, 중간에 작전명령이 바뀌어 결국 襄陽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38°線上에 도달하였을 때 無電으로 보고하였는데, 山岳지대가 되어서인지 軍團에까지 연락이 안된 것 같고, 제3사단은 東海岸線을 진격하고 그 뒤에 軍團사령부가 따랐기 때문에 통신이 잘 되었을 것이며, 그래서 10월 1일에 38°線을 突破한 것으로 記錄되었을 것이다.

襄陽에 진격할 때는 우리 연대와 제3사단이 同時에 入城하였는데, 先頭二個大隊가 협동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동시에 入城하게 되었다.

杷溪戰鬪와 明川戰鬪를 끝낸 다음, 연대 全上士들이 特進하였고, 그후에도 2~3차 特進하였는데 대대연락병이 내가 대대를 떠날 때 上士가 되어 있었다.

◇ 제18연대 부연대장 高白圭중령

(1964. 12. 24. 自宅에서 에, 준장)

제18연대가 38°線에 도달한 것은 9월 30일이며 38°線을 돌파한 것은 10월 1일 아침이다. 38°線의 先着에 대하여 上部에서 어떻게 취급했는지는 모르지만 수도사단이 먼저 진출한 것이 틀림없다. 그때 제18연대가 제일 용감한 부대이었는데 공격을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우리 연대에게 임무를 주었고, 38°線은 9월 30일밤에 UN軍사령부의 돌파명령이 내리기 전에 제1대대가 일부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

(1964. 11. 27. 自宅에서 에, 중장)

安康 杷溪지구 반격전을 끝낸 사단은 五台山이 連해 있는 內陸 道路를 따라 진격하여 東海岸 沿道를 진격하던 제3사단보다 하루 먼저 38°線에 진출하여 거기서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38°線 突破도 문제이려니와 결국은 襄陽을 어느 부대가 먼저 진격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당시 作戰報告 관계가 제대로 잘 안되었고, 陸軍本部에서도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다.

3. 慶州—서울 進擊戰 (50년 9월 17일부터 / 50년 10월 7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 7 호
작명부록 제 1, 2, 1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7 사단	장	준장	申 尙 澈 (9월20일부 임시 준장 진급)	제 3 대대	장	대위 申 健 善
제 3 연대	장	중령	李 奇 建	제 8 연대	장	중령 金 龍 周
제 1 대대	장	중령	崔 周 鍾	제 1 대대	장	소령 梁 麟 錫
제 2 대대	장	소령	李 再 起	제 2 대대	장	대위 高 漢 祚
제 3 대대	장	대위	崔 昌 煥	제 3 대대	장	소령 朴 寬 榮 (50. 12. 18 ~51. 4. 10)
제 5 연대	장	대령	崔 昌 彦	제 7 야전공병대대		
		중령	朴 昇 日 (9월29일 이후)	배속부대		
제 1 대대	장	소령	崔 熙 燮	제18야포대대	장	중령 朴 延 鎬
제 2 대대	장		미 상	병력 :		약10,0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國軍은 洛東江 방어선이 형성된 뒤 줄자 그대로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던 8월 20일에 大邱에서 浦項地區戰鬪司令部 요원을 基幹으로 하여 보병 제 7 사단을 재편(국본 일반명령 〈유〉 제 49 호에 의함)하게 되었는데, 예하 제 3 연대도 이날 동시에 재편되었고, 제 5 연대는 機械化부대를 기간요원으로, 제 8 연대는 독립유격대를 기간요원으로 하여 각각 같은 날 大邱에서 재편되었고, 그뒤 9월 1일에 이르러 포병 제 18 대대가 이 사단에 배속되었다.

이리하여 재편된 제 7 사단은 그뒤 9월 5일부터 13일까지 永川 부근 전투에 참전한 다음, 永川—梧浦洞—慶州—阿火—柳上洞 三歸洞—東道洞—海仙洞 線에서 南侵하려는 敵을 저지시켰고, 다시 安康—把溪에서는 패퇴하는 敵에게 계속 타격을 주었다.

이 永川부근에서의 싸움이 끝날 무렵, 9월 13일 12.00 부로 육본작명 제 180 호(作命附錄 제 1 호)가 하달되어 사단은 慶州 부근에 집결한 다음, 慶州—서울 사이의 진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진격 계획과 준비

전투 전의 개황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육군본부는 제 7 사단을 軍 예비사단으로 하고 서울 진격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달하였다. (作命附錄 제 1 호 참조)

「大韓民國 육군은 현위치를 D 일까지 안정화하며, 동시에 敵 戰力과의 적극적이며 강력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지역 내에서의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며, 현재선에 침투를 企圖하는 敵을 배제하여 主 작전방향의 東翼을 방어하라. 전부대는 강고한 전술상의 지위를 확보하며 D 일 실행될 一齊 攻勢移轉에 필요한 준비를 하라.

제 3 연대는 陸本명령이 있을 때 차량으로 慶州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慶州 도착 후, 제 3 연대의 지휘권은 제 1 군단장에서 제 7 사단장으로 移讓하라. (軍 豫備師團)

제 5 연대는 陸本명령이 있을 때 차량으로 慶州에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慶州 도착 후, 제 5 연대 지휘권은 제 2 군단장으로 부터 제 7 사단에 移讓하라. (軍 豫備師團)

제 8 연대는 陸本명령이 있을 때 차량으로 慶州에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제 18 야포대대는 제 7 사단(軍 豫備師團)이 일선에 배치될 때까지는 주로 제 1 군단을 지원하되 제 7 사단이 一線 배치된 뒤는 제 7 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제 7 사단(軍 豫備師團)

제 1 안—제 1 혹은 제 2 군단 진격간격으로 침투한 敵 저항권의 말살을 위한 사단, 혹은 연대 분할사용을 준비하라.

제 2 안—제 1, 혹은 제 2 군단지구 내의 주요한 돌파구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대, 혹은 사단 단위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위의 作命 발췌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육군본부는 제 7 사단을 軍 豫備隊로 하는 동시에 예하 제 3, 제 5, 제 8 연대로 하여금 慶州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으며, 이동 후는 原隊로 복귀하도록 계획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제 7 사단 사령부를 비롯한 예하 3 개연대는 모두 慶州부근으로 집결하게 되었으니, 사단 사령부는 9 월 17 일에 永川郡 阿火里로 이동한 다음, 이곳 양조장에 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 3 연대는 9 월 19 일에 安康에서 慶州로 이동하였으며, 제 5 연대는 9 월 18

일에 永川郡 古鏡面 玉山里(洞)에서 慶州로 이동하였는데, 제 8 연대는 이미 9월 14일에 慶州 西쪽에 있는 乾川里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사단은 9월 19일까지 慶州근처에 집결을 완료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장비 검열을 실시하는 등, 다음에 있을 진격명령에 대비하게 되었다.

(2) 慶州—서울 進擊戰

9월 21일 : 제 7 사단은 사단장 中尙敏준장의 지휘 아래 慶州에서 安康里로 진격하였으며, 제 3 연대는 9월 18일에 제 1 군단의 직할부대로 배속되었다가 이날 부로 제 1 군단에서 배속이 해제되는 동시에 육군본부 예비연대로 편입되었으며, 제 5 연대는 사단장 命에 의하여 연대장 崔昌彦대령 이하 3,734명이 杞溪에 출동하여 패퇴하는 敵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9월 22일 : 제 3 사단과 首都사단의 중간 지역에 배치되었던 제 7 사단은 이날 陸本作命 제 191 호(作命附錄 제 2 호)에 의하여 清河線에서 제 3 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고 육군본부의 軍 예비대가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제 1 군단에 배속되었던 제 3 연대와 제 2 군단에 배속되었던 제 5 연대도 原隊인 제 7 사단의 지휘 아래 복귀하게 되었다.

9월 24일 : 연대장 金龍周중령이 지휘하는 제 8 연대는 慶州郡 西溪里 上玉洞에서 있었던 慶州부근전투에 참전하여 敵의 침투를 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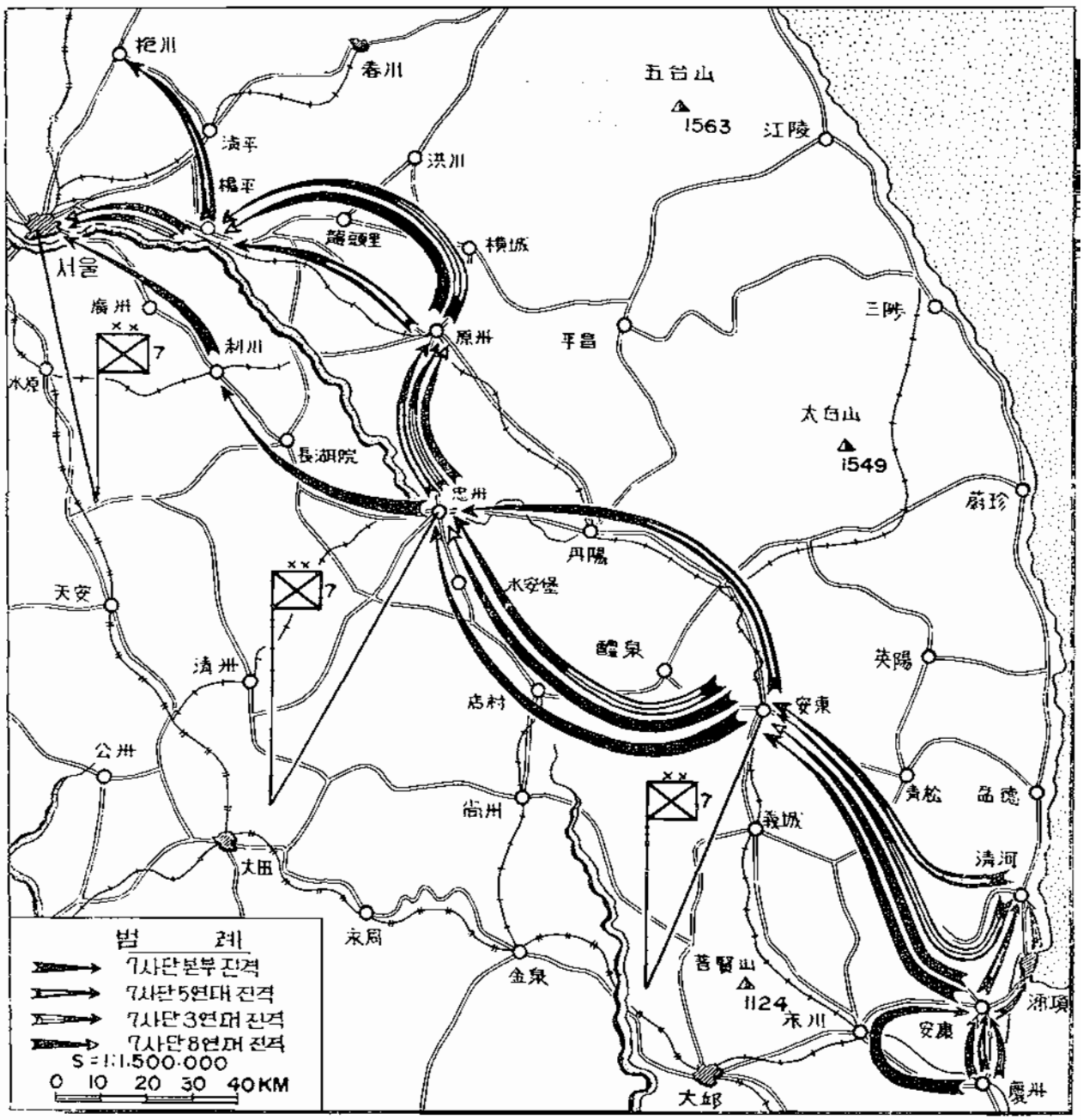
9월 25일 : 전날까지 安康里에 위치하고 있던 사단은 이날 安東으로 진격하였으며, 제 3 연대(장, 李奇建중령)는 제 7 사단 사령부가 약진한 뒤를 따라 慶州에서 安康—清河—安東으로 진격하여 철도관사에 연대본부를 설치하고, 다음에 하달될 진격명령을 기다리게 되었다. 한편 제 8 연대(장, 金龍周중령)는 慶州郡 西溪里 上玉洞에서 전투를 끝 마친 다음, 安康에 집결하였다.

9월 26일 : 제 5 연대(장, 崔昌彦 대령)는 9월 21일 杞溪에 出動, 參戰하였다가 이날 사단장 中尙敏 준장의 명에 의하여 清河를 거쳐 安東으로 이동, 집결하였다.

9월 29일 : 安東에 위치하고 있던 제 3 연대(장, 李奇建중령)는 이날 安東을 출발하여 22.00에는 醴泉까지 진출하였으며, 여기서 2시간에 걸친 휴식시간을 갖는 한편, 장비 점검을 끝마치고는 24.00에 醴泉을 떠나 계속 北進하면서 敵을 追擊하였다.

9월 30일 : 제 3 연대는 이날 10.00에는 店村에 도착하였으며, 여기서 2시간에 걸쳐서 休憩을 취한 다음, 이날 12.00에 따가운 볕이 내리 쬐이는 가운데 이곳을 떠나 聞慶으로 진격을 재속하였다. 그리하여 店村을 출발한지 10시간이 지난 22.00에는 별다른 상황없이

상황도 제 7 호 韓國軍 제 7 사단의 慶州—서울 진격전(1950 .9 .17—10. 7)



聞慶에 진출하였는데, 여기서 장병들은 다음날 새벽 05.00까지 눈을 붙일 수 있었다.

10월 1일 : 05.00에 제 3 연대는 예정대로 聞慶을 떠났고, 10시간 30분 뒤, 15.30에는 연대본부는 水安堡에 진격하였으며, 각 대대는 17.00에 도착하는 즉시로 水安堡에서 8km

前方에 있는 五佳子부근에 출몰하는 패잔병들을 격멸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急速度로 추격한 끝에 敵을 발견하고 집중사격을 퍼부었던 바 敵은 분산, 도주하고 말았고, 일부는 모든 것을 체념하였는지 손을 들고 투항하여 왔다. 이리하여 얼마 뒤에는 이 패잔병들을 무난히 격퇴시켰으며, 포로 17명, 소총 15정, 다발총 11정을 노획한 다음, 22.50에 水安堡로 복귀하였다.

한편 이날 제5연대 본부에서는 忠州사범학교 교정에서 新舊 연대장의 이취임식이 거행되었으며, 前任 연대장 崔昌彦대령은 사단 부사단장으로 轉補되었고, 사단 사령부부로 있던 朴昇日중령이 新任 제5연대장으로 취임하였다.

제8연대도 역시 이날 安東에서 忠州로 진격하였는데, 군수품과 보급품은 트럭으로 수송하였고, 각 대대장병들은 徒步로 강행군하였다. 이리하여 安東—醴泉—店村—聞慶—水安堡—忠州線을 一路 진격, 北進하였다.

10월 2일 : 이날까지 安東에 계속 주둔하면서 작전을 통할하고 있던 사단사령부는 安東을 출발하여 醴泉—店村—聞慶—水安堡—忠州線을 一路 진격, 北進하였다.

제3연대는 전날 15.30에 水安堡에 진격한 다음, 이날 10.00에는 水安堡를 출발하여 사단 사령부의 뒤를 따라 17.30에 이르러 忠州邑까지 진격한 즉시로 여기에 연대본부를 설치하였고, 각 대대는 漆琴里 근방에 위치하여 四周경계에 들어갔다.

10월 4일 : 제3연대는 이날 07.00 다시금 前進을 시작하여 忠州를 떠나 橫城을 목표로 진격하는 途中, 敵 패잔병들의 산발적인 저항을 받았으나, 이를 가볍게 물리치면서 12.00에는 牧溪里를 경유, 쉴 사이도 없이 추격을 계속하여 17.00에 橫城에 진출하였다.

한편, 이때 제5연대는 忠州를 출발하여 原州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10월 5일 : 이날 首都 서울을 向한 진격은 시작되었다. 사단장 이하 사령부 요원들은 忠州를 떠나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였다. 전투에 별로 경험도 없는 新兵들이라 忠州까지 오는 동안에는 낙오병도 상당히 나왔으나, 忠州에서 서울까지 진격하는 사이에는 낙오병이 별로 없었다. 忠州를 떠난 뒤 長湖院—利川—廣州를 거쳐서 廣壯橋 다리를 건너게 되어 어느듯 서울이 눈앞에 다가 왔던 것이다. 멀리 바라 보이는 서울을 가리키며 장병들은 "서울이다. 서울! 저기가 서울이다!" 하고 高喊을 지르면서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드디어 서울 진격의 꿈은 이루어졌다. 往十里—乙支路6街—乙支路4街에서 右側으로 돌아 昌慶苑 앞을 지나 惠化洞 東星중학교에 사단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러고

나서 사단장은 즉시 예하 연대의 진격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10월 6일 : 이날 10.00에 제3연대(장, 李奇建중령)는 橫城을 출발한 뒤, 楊平郡 靑雲面 龍頭里를 경유하여 楊平邑을 통과, 忘憂里 고개를 넘고, 中浪橋를 건너 淸凉里에 도착하였다. 淸凉里驛 앞 길 건너편에 있는 서울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자리에 연대본부를 설치하였다. 뒤따르던 각 대대도 그 근처에 위치하였다.

한편 제5연대(장, 朴井日중령)는 이날 原州를 출발하여 楊平까지 전격하고 있었다.

10월 7일 : 제8연대(장, 金龍周중령)는 이날 비로소 忠州에서 서울로 진격하게 되었는데 군수품과 보급품은 트럭으로 수송하였으며, 각 대대 병력은 徒步로 강행군을 하였다. 途中 사단 사령부에서 주선하여 준 트럭으로 原州를 거쳐, 橫城을 지나 楊平郡 靑雲面 龍頭里를 경유하여, 楊平邑을 통과, 忘憂里—中浪橋—淸凉里—新設洞—敦岩洞으로 진격, 漢城女中에 연대본부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연대의 제2대대(장, 高漢祚대위)는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와 임무를 교대하고 北岳山에서 패잔병을 토벌하며 사단 예비대로서 다음 명령을 대기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7사단은 제2군단의 예하 제6, 제8사단이 이미 통과한 그 뒤를 따라 慶州—서울 사이의 진격을 일단 10월 7일까지 끝마치고 다음, 準備까지의 이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즉 사단장은 10월 8일 11.00에 陸本作命 제212호에 의하여 抱川(新邑)으로 일단 예하 연대를 집결시킨 다음, 다시 平康을 向하여 진격하기로 결심하고 우선 抱川 근처에 집결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런데 제3연대는 이미 10월 7일 13.00에 서울을 출발, 사단의 先頭부대로서 먼저 抱川(新邑)에 진출하고 있었다. 10월 8일 抱川邑에 사단본부를 정하였으며, 각 대대가 梁文里로 출동하여 18.00에는 126高地를 확보하고 있었다.

제5연대는 10월 10일 楊平에서 抱川으로 전진하였으며, 동시에 제2군단에 배속되는 즉시로 군단의 예비대가 되었다.

제8연대는 10월 9일 抱川郡 新北面 萬世橋里를 진격하게 되었는데, 서울 北岳山에서 殘敵을 토벌하고 있던 제2대대도 역시 이날 萬世橋里로 진격하였다.

한편 右側 인접부대인 제6사단은 金化까지 진격하고 있었고, 左側 인접부대인 제8사단은 10월 10일 鐵川—鐵原 사이의 중간지점을 진격하고 있었다.

4. 九山洞—義城 進擊戰(50년 9월 20일부터 50년 9월 2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8 호
작명부록 제 1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2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장비 : 105mm	곡사포	15문
제 8 사단	장 준장 李 成 佳	57mm	대전차포	12문
제10연대	장 중령 高 根 弘	81mm	박격포	24문
제16연대	장 중령 兪 義 濬	60mm	박격포	38문
제21연대	장 대령 金 容 培	2.36inch	로켓트포	217문
지원부대		기관포(0.5inch)		37정
제50포병대대	장 소령 鄭 寅 暎	重기관총		28정
병력 :	10,000여명			

敵 軍

제 2 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장비 : 122mm	곡사포	12문
제15사단	장 소장 趙 光 烈	120mm	박격포	18문
제45연대	장 중좌 李 鐵 英	82mm	박격포	81문
제50연대	장 중좌 金 致 九	76mm	곡사포	36문
제56연대	장 미 상	45mm	대전차포	48문
포병연대	장 대좌 李 連 燮	자주포		26대
병력 :	2,000명	전 차		10대

나. 전투 전의 개황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에 걸친 永川 부근에서의 彼我의 爭奪戰은 韓國戰爭의 전환점을 이룬 큰 전투였다. 제8사단은 9월 13일 까지 永川 부근에서의 치열한 死鬪의 반복으로, 永川을 점령하려는 敵의 야욕을 분쇄하고, 곧 이어 龜田洞—玆川洞—三峰洞 北쪽—仁邱 洞南쪽을 연결하는 線上

에서 병력을 재정비한 다음, 장차 닥아 올 총반격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한편 敵 제15사단(장, 소장 趙光烈)은 9월 4일부터 永川으로 계속 침투하여, 9월 6일에 제8사단의 後方을 急襲함으로써 永川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敵의 작전은 永川과 新寧을 奪取하고 大邱—浦項間의 道路를 차단하여 東部戰線의 我軍을 兩斷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慶州, 또는 大邱方向으로 진출할 企圖였다. 9월 7일 我軍의 반격에 의하여 퇴각하였던 敵은 9월 9일, 美 제8군사령관 Walker중장이 직접 지휘한 我軍 제8사단, 제1사단 제11연대(장, 金東賦대령), 제7사단 제5연대(장, 朴昇日중령)의 반격작전이 성공하므로써 敵은 永川 北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면서 재편성의 기회를 얻고자 국부적인 반격으로 我軍의 진격을 저지, 또는 지연시킬 企圖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陸本 作命 제180호(作命附錄 제1호)에 의하여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를 右로 하고,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를 左線으로 展開하는 동시에, 제16연대(장, 兪載瀕중령)를 예비대로 控置한 다음, 제1차 진출 예정선인 九山洞—義城쪽으로 공격하여 이 지역을 점령, 확보하고, 계속해서 安東 방향으로 진격코자 하였다.

『(가) 제8사단은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敵 主力과 적극 강력하게 接敵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는 동시에 담당 據點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線의 침투를 企圖하는 敵을 격파하라.

〈騎龍山 高地와 後面의 普賢山〉

(나) 각 부대를 作戰强化 위주로 급속히 재정리하고, D일에 단행할 일제반격을 준비하라.

(다) 左 인접부대인 제6사단과 右 인접부대인 首都사단(제1군단 산하)과 협조하여 D일 H시 담당 正面을 北方, 및 西北方을 向해서 攻勢로 移轉하라.

(라) 담당 전투지경 내에서의 제1차 진출 예정선인 A—2線上의 목표 제6인 九山洞, 제7인 義城 및 道路 沿邊의 敵을 공격하여 該 지구를 확보하라.

(마) A--1線上을 확보한 후, 제2차 진출 예정선인 A線上의 목표 "E,,--安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라.

(바) 右 인접부대인 首都사단 및 左 인접부대인 제6사단과의 접촉을 유지하라.」

(2) 작전실시

9월 20일 : 我軍은 15일 敵 後方 깊숙히 仁川에 上陸작전을 감행하고, 全 국민의 대망리에 全戰線에 걸쳐서 총반격전이 시작되자, 제8사단은 제2군단의 右側 부대로써(左側 인접부대는 제6사단) 破竹之勢로 正面의 敵을 격파하면서 진격을 거듭하였다.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은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을 主攻으로 하여 桃源洞--咸昌—忠州의 線을 따라 진격토록 하고,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을 助攻으로 하여 義城--安東—榮州線을 따라 무제한 진격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8사단은 助攻線인 義城—安東—榮州線을 따라 진격을 계속하는데 있어서, 9월 20일까지 普賢山(△1,124) 일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1개 연대규모의 敵을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로 하여금 공격케 하여,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포병의 밀접한 지원을 받아가며 과감한 돌격으로 이 敵을 격파하고, 패주하는 敵을 추격하여 쉴사이 없이 진격을 계속함으로써, 담당 전투지역 내 제1차 진출 예정선인 義城 부근의 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九山洞—義城線으로 공격케 하였다.

9월 21일 : 제21연대는 전날 普賢山 일대의 敵을 격파하고 이날 06.00에 九山洞 南쪽 3km 지점에 있는 거무실까지 진격하였으나, 古坪洞쪽으로부터 증원하기 위하여 南下, 집결하고 있는 2,000명 규모의 敵과 九山洞 南쪽 高地 일대에서 부닥쳐, 彼我間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약 3시간 동안에 걸쳐서 彼我間의 全火力을 총집중하여 밀고, 밀리는 死鬪의 반복이 계속되었는데, 연대장 金容培대령은 직접 陣頭에 나서 예하 각 대대장에게 과감히 돌격을 감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전 장병은 최후발악하는 敵 陣地 속으로 일제히

돌입하여 육박전으로 敵을 支離滅裂토록 격파하였으며, 敵은 義城—靑松 쪽으로 퇴각하였다.

제 10 연대(장, 高根弘대령)가 古坪洞 右側方에서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 진격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자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제 16 연대(장, 金義瀚중령)로 하여금 제 10 연대를 지원토록 하여 敵과 계속 교전하고 있었다.

9 월 22 일 : 제 21 연대는 이날 진출 예정선인 九山洞을 점령, 확보하고, 右側 제 10 연대와 右側 인접부대인 제 6 사단 제 7 연대(장, 林富澤대령)의 진격이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서 예정보다 진격이 지연되므로, 이 敵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 섬멸할 계획으로 四周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義城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左側 제 6 사단은 新寧부근의 要地 要部인 鳥林山을 奪還하고 물밀듯이 北進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右側 首都사단(제 1 군단 산하)은 龍溪 北쪽 4km 지점까지 진격하고 있었다.

9 월 23 일 : 제 10 연대(장, 高根弘대령)와 제 16 연대(장, 金義瀚중령)는 古坪洞 右側方 일대의 敵을 격파하고, 제 21 연대(장, 金容培대령)의 진격에 뒤따라 義城 쪽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는데, 이 무렵 左側 제 7 연대는 제 2 연대(장, 咸炳善대령)와 협동하여 鳥林山 右側 545 高地와 445 高地를 奪還하고 계속 北進 중이었다.

9 월 24 일 : 敵은 九山洞 일대에서 참패를 당하고 패주하면서도 義城 南쪽 2km 지점 250 高地 일대를 점령하고 收容陣地를 점령한 다음, 최후발악적인 저항을 펴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제 21 연대장 金容培대령은 이날 05. 30 에 기습부대를 先頭로 연대 全主力을 돌격제대로 하여 적진을 돌파키로 하였다. 先頭부대가 敵 陣地에 육박하자 敵은 全보병 火力과 砲火를 집중하여 치열한 사격을 가하면서 극력 저항하였으나, 연대 全 장병은 砲煙이 자욱한 敵陣 속을 서로 앞을 다투어 돌입하였다.

한편 先頭부대인 제 3 대대는 이날 09. 00 에 신속하게 迂廻하여 義城 北쪽 高地 일대를 점령, 확보하므로써 敵은 퇴로를 차단 당한 채로 混戰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이 사이에 연대는 包囲網을 계속 압축하면서 敵의 死命을 制하려고 勇戰하였다. 敵은 더욱 당황하여 包囲網을 뚫고 血路를 타개코자 반격에 반격을 반복하므로써 彼我間에 치열한 白兵戰이 벌어졌다.

이날 11. 00 에 이르러 先頭부대는 敵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義城邑內로 돌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같은 我軍의 공격 앞에 敵은 戰意을 잃고 패주 一路로 北쪽을 向하여 살길을 헤치는데 狂奔하였으며, 사단은 敵을 급히 추격하여 包囲와 遮斷, 그리고 돌진과 타격으로써 敵에게 活路를 주지 않았으므로, 義城邑內와 周邊일대에는 敵의 시체가 散在하기

에 이르렀으며, 황폐한 義城은 다시 我軍 手中에 掌握하게 되어 역사적인 義城공략전은 이제 그 종말을 告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총반격작전의 緖戰에 있어서 敵은 鐵戰意志를 상실하고 戰線은 北쪽으로 옮겨지면서 無辜한 良民학살은 더욱 恣行하여지고, 我軍의 怒號와 銃砲소리는 劍光과 서로 앞을 다투면서 진격을 재촉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이 義城을 완전히 점령, 확보하게 되자, 곧 이어 사령부를 永川으로부터 玆川洞을 경유하여 義城邑으로 약진케 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잡은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면 義城에는 敵 제2군단 사령부가 있었는데, 군단장 金武亭이 몇 시간 전까지도 여기에서 권총을 빼어들고 死色이 되어 패주하는 자기 군사들을 督戰하면서 발악적인 호통만을 치다가 날쌔게 먼저 그 所在를 감추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100ton 이상의 쌀과 물자, 그리고 1개 사단장비의 대부분을 노획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我軍은 이 전투 기간 중에 이미 仁川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계속 首都 서울을 향해서 진격 중이었으며, 全戰線에 걸쳐 一大 총반격작전을 감행하여, 首都 서울은 물론 38°線을 돌파하고 국토통일의 염원을 달성하리라는 신념 아래, 全 장병의 士氣는 충천하기만 하였는데, 이 반면, 敵은 敗戰意識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직 血路를 뚫어 보고자 앞을 다투게 되어 督戰하던 軍官들이 먼저 도망치는 관국을 이루면서 패주를 거듭하게 되었다. 我軍은 敵에게 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여유를 주지 않았고, 敵은 지휘계통의 혼란과 장병들의 부대 이탈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괴잔병을 남기고, 我軍의 진격을 지연시킬 능력을 스스로 抛棄한 채 北쪽으로 敗走하는데 급급하였으되, 그중에는 殺人과 放火, 그리고 掠奪과 拉致를 能事로 하는 政治部員과 그 手下兵들도 또한 많았다.

제8사단 장병은 지루한 방어전에서 攻勢로 移轉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로 先陣을 다투어 安東—榮州線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한편 左側 제6사단은 제8사단이 九山洞—義城을 점령하므로써 正面의 敵을 격멸하면서 물밀듯이 진격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一木一石이 모두 반기는 듯하고 山川과 草木에도 生氣가 躍動하는듯 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

(65년 3월 27일 · 서울 城東區 東仙洞 자택 · 예 · 소장 · 대기대사)

우리 제8사단은 玆川洞에서 九山洞을 경유하여 義城으로 진격하였다. 義城은 敵 제2군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즉 義城에 敵 제2군단장 金武亭이가 있었다는 것을 義城 주민들로 부터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사단은 義城을 점령하고, 계속 北進하였다.

5. 安東 榮州—丹陽 進擊戰 (50년 9월 22일부터 50년 9월 2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9 호
작명부록 제 2 호

가. 참가부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 2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16연대 장 중령 兪 義 濬	
제 8 사단 장 준장 李 成 佳		제21연대 장 대령 金 容 培	
제10연대 장 대령 高 根 弘			
敵 軍		我 軍	
제 2 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82연대 장 총좌 史 勢	
제 8 사단 장 소장 吳 白 龍		제83연대 장 중좌 吳 允 燮	
제81연대 장 총좌 李 永 來		포병연대 장 중좌 金 明 恒	

나. 전투 전의 개황

敵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九山洞과 義城부근에서 제 8 사단의 一大 반격 작전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바 되어 一面 저항과 一面 퇴각에 바빴고, 我軍은 이 敵을 추격하여 晝夜로 계속 진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면적인 北進명령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본 전투는 제 2 군단이 陸本 作命 제 191 호(作命附錄 제2호)에 의하여, 제 6 사단(장, 金鍾五준장)을 主攻으로 하여 桃源洞—咸昌—忠州線을 따라 진격토록 하는 동시에 제 8 사단(장, 李成佳준장)을 助攻으로 하여 義城—安東—榮州線을 따라, 무제한 진격토록 한 총반격전의 일부분에 속한다.

제 8 사단은 義城을 점령, 확보하는 즉시로, 패주하는 敵을 추격하면서 安東—榮州—丹陽線으로 진격을 계속한 다음, 右側 인접부대인 首都사단과 左側 인접부대인 제 6 사단의 진격에 발 맞추어 38°線을 向해 급속히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한편 이 작전지역을 뚫고 北으로 패주하는 敵은, 九山洞—義城 부근에서 제 8 사단에 의하여 치명적인 打擊을 받은 敵 제 8 사단의 主力으로서 彼我 서로 같은 단대호 사단의 對決인 것도 奇妙한 因緣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敵의 병력과 장비, 그리고 士氣와 전투능력은 날이 갈수록 弱化一路에 놓여

있었으나, 그들의 無辜한 良民들에 대한 狂暴性은 때가 지날수록 그 殘虐度가 더욱 甚하여지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敵은 戰勢를 挽回하지는 못 하더라도 敗戰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一面 패주하면서, 一面으로는 곳곳에 유격대를 배치하여 我軍의 진격을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동시에 강力 각지에서 유격전으로 최후의 活路를 打開하여 보려는듯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 8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陸本 作命 제 191 호(作命附錄 제 2 호)에 의하여, 현재 線에서계속 敵을 추격하여 義城—安東—榮州線으로 진격할 목적으로, 제 10 연대(장, 高根弘대령)를 右一線으로 하고 제 21 연대(장, 金容培대령)를 左一線으로 展開하는 동시에, 제 16 연대(장, 金義煥중령)를 예비대로 控置한 다음, 安東—榮州線을 따라 精彩있는 반격전의 鋭鋒을 우선 38°線을 목표로 깊이 指向코자 하였다.

『(가) 제 8 사단은 군단의 助攻부대로서 安東—榮州 軸線을 따라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계속하라.

(나) 榮州를 확보한 다음, 陸本 作命에 의하여 北方 혹은 西北方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라.

(다) 예하 부대 지휘관 간의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라) 각 지휘관은 필요하면 횡적 접촉 如何에 구속되지 않고 前進하라.

(마) 각 부대는 제 1 차 진출 예정선을 통과할 時에는 보고하라.』

(2) 작전실시

9 월 22 일 : 제 10 연대(장, 高根弘대령)는 전날 慈川洞 東北쪽의 菁賢山(△1,124) 일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敵을 격파하고, 쉬사이 없이 北進하여, 이날 06.00 부터 포병의 밀접한 엄호사격을 받으면서 魚鳳山(△634)과 그 東北 쪽의 驛馬山(△648)에 陣地를 점령하고 있는 敵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연대장 高根弘대령은 제 1 대대로 하여금 魚鳳山 쪽으로 공격토록 하고,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로 하여금 제 1 대대의 뒤를 따라 원사촌(魚鳳山 南 3km지점)까지 진격한 다음, 제 1 대대가 魚鳳山을 점령하는 즉시로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를 月精洞을 경유, 姑母山 西쪽으로 轉進하여 驛馬山을 공격토록 하였다.

제 1 대대는 魚鳳山 南쪽 不老洞까지 진격하였을 때, 東南쪽 능선에 배치된 敵 자동화기의

집중사격을 받았으나, 지형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대는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연대장 高根弘대령은 즉시 포병 火力을 요청하여 敵 陣地를 强打하는 동시에 원사촌까지 진출하고 있던 제2대대로 하여금 제1대대를 초월,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제2대대는 제1대대의 左側에 있는 사리고개 쪽으로 迂廻하여 魚鳳山을 공격하였다. 敵의 자동화기는 我軍의 집중砲火에 의하여 제압되고,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일제히 육박전으로 敵陣에 돌입하였고, 敵은 계곡을 따라 一路 九山洞 쪽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연대장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제3대대로 하여금 道路를 따라 패주하는 敵을 급속히 추격하여 모계동(驛馬山 西南쪽)까지 진출토록 하였다. 이때 시간이 11.30이었으며, 연대장은 지체할 여유도 없이 제3대대로 하여금 주요한 감제고지인 驛馬山을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대대는 모계동 東쪽 569高地를 경유하여, 험준한 산줄기를 타고 驛馬山을 向해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敵은 산발적인 저항으로서 繼戰意志를 상실하고 驛馬山 北쪽 능선을 따라 明堂洞 쪽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대는 12.30에 이르러 驛馬山 일대를 점령, 확보하였다.

이 무렵 左側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는 제10연대와 병행하여 義城 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제16연대(장, 兪義濶중령)는 예비연대로서 제10연대의 진격을 뒤 따르고 있었다.

한편 제8사단 사령부는 乾川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제1선 공격梯隊의 진격을 직접 지휘하기 위하여 제19연대 본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9월 23일 :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는 전날 진격을 계속하여 밤夜를 가리지 않고 패주하는 敵을 바싹 뒤쫓아 이날 08.00에는 九山洞 西北 쪽 443高地 일대를 점령, 확보하였다. 따라서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예하 각 연대장과 사단 참모들을 소집하고 작전회의를 열었는데, 左一線의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로 하여금 義城을 공격토록 하는 동시에, 제10연대는 義城 北쪽으로 迂回, 前進토록 하면서 敵의 퇴로를 차단토록 하여, 제21연대가 義城을 완전히 점령, 확보하는 즉시로 兩個 연대가 일제히 安東을 包圍할 수 있도록 공격키로 하였다.

이때 사단 정보참모 李世鎬중령의 보고에 의하면 義城과 安東에는 각각 1개 연대규모의 敵이 急編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我軍의 진격을 저지코자 하고 있으며, 특히 安東邑內에는 패주하는 敵 主力부대가 집결 중이라는 것이었다.

9월 24일 :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는 전날 九山洞 周邊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었고, 이날 左側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는 義城 쪽으로 진격하던 중, 義城 외곽지대에 방어진지

를 편성하고 완강히 저항하는 1개 연대규모의 敵과 무닥쳐 치열한 攻防戰을 展開하고 있었다.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이 때가 바로 예비연대인 제16연대(장, 金義淵중령)로 하여금 제21연대의 공격을 지원토록 할 絶好의 단계라고 판단한 결과,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에게 예비연대를 投入할 것이라는 自己의 뜻을 傳하였던 바, 연대장은 현재 상황으로 보아 예비대의 증원은 불필요하다는 것이고, 연대 獨力으로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意高가 萬丈하였다. 그래서 右一線인 제10연대로 하여금 義城 東쪽으로 급속히 진격시키므로서 右一線인 제21연대 正面의 敵은 그들의 퇴로를 차단 당할 것을 미리 근심하고 北쪽으로 재빠르게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제21연대는 곧 이어 義城邑을 완전히 탈환하였다.

이때 義城邑은 敵이 퇴각하기 전에 모든 公共시설을 불태워 버리고, 많은 보급품과 장비는 그대로 내던져 있어서 敵이 퇴각하기에 당황하였던 모습을 역력히 보여 주었다.

따라서 사단은 계속, 다음 목표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는데, 이 무렵 敵은 北쪽으로 급히 퇴주하면서도 그 殘置부대로 하여금 洛東江 上流의 主要한 교량을 폭파케 하여 극력 퇴각掩護의 措置를 취하였으니, 그들의 執拗한 저항의식이 아직도 無視할 수 없음을 짐작케 하였다.

9월 25일 : 제8사단은 安東을 공략하기 위하여 洛東江 上流의 교량부근까지 진격하였는데, 敵은 전날 교량의 31개 橋台 중 중앙부분의 5개 橋台를 폭파함으로써, 我軍의 진출속도를 지연시켜 安東邑內에 집결하고 있는 敵의 대부대가 퇴각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얻고자 하였으며, 江의 도섭이 가능한 곳마다 깊은 地雷原을 設置함으로써 퇴각을 掩護하는 만반의 措置를 取하고 있었다. 이에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洛東江의 渡河지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항공지원을 요청하여, 집결하고 있는 敵 부대에 대한 집중폭격을 가하도록 하는 한편, 포병화력으로써 지퇴지대에 대한 포격을 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사단은 무난히 河川線을 점령하고, 敵의 機先을 制하여 필요한 渡河지점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9월 26일 :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安東을 공략하기 위하여,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를 최초 攻擊波로 하고,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 그리고 제16연대(장, 金義淵중령) 順으로 일제히 强行渡河를 決行키로 하였다.

제10연대는 敵의 산발적인 砲擊과 重小火器의 집중사격을 받으면서, 허리까지 차는 江물을 직접 헤치면서 신속하게 渡河하여 對岸까지 진출하였으나, 이곳에서 敵의 지퇴지대에

걸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연대장 高根弘대령은 지원공병대로 하여금 지뢰 제거작업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이 통로를 돌파하여 마침내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곧 이어 제 21 연대와 제 16 연대 順으로 뒤따라 渡河를 감행하여 安東邑內로 돌입하였다. 이곳에 집결하였던 敵은 我軍 항공기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전차 10 여대와 기타 수많은 차량등 장비를 버리둔 채 北쪽으로 패주하면서도 오히려 간간이 敵 收容부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市街戰과 野山에서의 追擊戰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무렵 사단 공병대는 洛東江 교량의 보수작업을 서두르고 있었으며, 補給차량들은 교량 南쪽에 설치한 中繼點까지 反轉運行하는데 바빴다.

9월 27일 : 제 8 사단은 전날에 이어 安東 周邊에서 방황하는 殘敵을 완전히 擊滅하였는데, 이때 수집된 첩보에 의하면 이 지역을 통과하여 패주하는 敵 제 8 사단은 4,000 여명에 달하는 戰死傷者를 내면서 醴泉方面으로 서로 앞을 다투었다는 것이다.

사단은 계속 榮州를 向하여 北進하던 중 醴泉洞(安東—榮州間) 부근에서 준동하는 1 개 중대규모의 敵을 포착하여, 기동타격부대로 하여금 이 敵을 一擊에 격파한 다음,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제 21 연대(장, 金容培대령)로 하여금 榮州—丹陽축으로 급속히 迂廻시켜 먼저 竹嶺을 점령토록 함으로써 패주하는 敵의 퇴로를 차단, 섬멸코자 企圖하였다.

9월 28일 : 제 10 연대(장, 高根弘대령)와 제 16 연대(장, 徐義浦중령)는 전날 밤 부터 진격을 계속하여 이날 09.00 에 이르러 榮州까지 무난히 진격하여 저체할 사이도 없이 豊基를 거쳐 竹嶺 頂上까지 단숨에 진격하였으니, 여기는 一夫當關이면 萬夫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天然의 大險要의 地勢였으므로, 迅速한 打擊과 果敢한 돌파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단이 전날 敵의 퇴로를 차단키 위하여 이 竹嶺 깊이 迂廻, 전진케 한 제 21 연대와 합세하게 되었으니, 이로서 敵은 이 要衝지대를 고스란히 넘겨 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사단은 北上하고 있는 2 개 연대 규모의 敵을 포착하고, 포병 火力의 지원을 받아 이를 火力包圍로서 섬멸하는 동시에, 제 10 연대와 제 21 연대로 하여금 西北쪽으로 급속히 轉進시켜 敵을 포위, 섬멸코자 하였다. 이에 敵은 進退兩難의 상태에서 최후발악을 企圖하였으나, 戰力의 格差로 인하여, 다만 北쪽을 향하여 血路를 찾아 패주하기가 바빴다.

이 무렵 洪道振중위가 지휘하는 공병 제 2 중대는 榮州 南쪽 4km 지점에서 北上하는 1 개 대대 규모의 敵을 발견하고, 道路 兩쪽 高地에 병력을 은밀히 배치한 다음, 敵이 근거리까지 접근하기만 대기하고 있었다. 敵은 5 輛의 전차를 앞 세우고 北上하고 있었는데, 이 때 중대

장은 이 敵을 근거리까지 유도한 다음, 전차가 교량 위를 통과하는 刹那에 폭파조로 하여금 點火토록 명령하니 一大 爆音과 함께 5대의 전차를 다리 위에서 全破, 半破할 것 없이 모조리 江물 속으로 水葬을 하고 말았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兩쪽 高地에 점령하고 있던 陣地에서 일제히 重小火器사격을 집중토록 하여 敵의 主力을 섬멸하였는데, 이때 살아 남은 敵 군관 7명을 비롯하여 50여명은 두손을 들고 나와 포로로써 잡히는 바 되어 비로소 安堵의 긴 한숨을 내어 쉬었다. 이 무렵 北韓首 金日成은 北韓軍에 대하여 38° 線 以北으로 撤退하라는 密令을 내렸다는 說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9월 29일 : 제 10연대(장, 高根弘대령)는 이날 12.00에 사단의 先鋒隊로서 丹陽까지 급속히 진격하여 周邊일대에서 준동하는 1개 중대규모의 敵을 격파하고, 특히 四周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後續부대인 제 21연대와 제 19연대의 진출을 엄호하는 一方,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사단은 여기에서 次期작전을 위한 上部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치 北風을 향하여 떠나고자 재촉하는 胡馬의 모습, 氣勢와도 같았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 8사단은 9월 22일 부터 8일간에 걸쳐, 安東—榮州—丹陽線으로 진격하여 敵 제 8사단(장, 소장 吳白龍)과 安東을 경유해서 패주하는 敵 제 2군단(장, 중장金武亭)의 主力을 堤川 北쪽으로 추격하고 있을 때, 제 2군단(장, 劉載興소장) 예하 제 6사단(장, 金鐘五준장)은 忠州를 점령한 다음, 原州를 向해서 진격 중이었다.

제 8사단(장, 李成佳준장)은 堤川을 점령하고 原州 쪽으로 진격하던 중, 堤川—原州間 고갯길에서 敵 제 2군단의 패잔병과 부닥쳤는데, 이때 敵은 兩쪽에서는 제 8사단에 의하여 추격을 받고 있었고, 北쪽에는 제 6사단이 原州를 점령함으로써, 進退 維谷으로 간신히 血路를 打開코자 五里霧中 속에서 彷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제 8사단은 敵이 崩壞途上에 있음을 確認하고 全力을 다하여 공격을 續行하였으니, 追擊의 要諦는 敵을 迅速히 捕捉, 섬멸함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추격에 拍車를 가하게 된 사단은 10월 1일에 原州에 돌입하고, 곧 이어 楊平을 점령한 다음, 首都 서울로 入城할 준비를 갖추었으니 由來로 勝者의 兵勢는 大河를 決하는듯 하고, 敗者의 그것은 秋風에 落葉과 같음이 대개 이와 같았다.

§ 參戰者의 證言

◇ 제 8사단장 李成佳준장

(65년 3월 17일 · 서울 城北區 東仙洞 자택 · 소장 · 待機大使)

총반격작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제8사단은 24시간을 고박 행군하면서 추격전을 계속하였다.

敵은 西部戰線에서 我軍이 반격을 개시하자 일제히 패주하면서 太白山脈, 小白山脈 줄기를 타고 山岳지대로 몰려 들었다.

그러나 우리 제8사단은 義城까지 무난히 진격하고, 재속 安東으로 추격하는데, 安東邑內에는 패주하고 있던 敵 제2군단의 主力이 집결되어 있었고 敵 전차도 수십대 몰려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安東을 향해 진격하고 있을 때 洛東江 上流에 있는 교량이 敵에 의해서 폭파되었기 때문에 渡河준비를 하고, 교량을 놓고 하는 사이에 항공요청을 하여 安東邑內의 敵을 폭격하고, 9월 26일에 安東邑內에 돌입하였다. 安東을 확보하고 계속 榮州—丹陽—禮川쪽으로 1개 연대를 迂廻시켜 敵의 退路를 막기 위하여 竹嶺을 점령시켰다. 竹嶺을 막으면 그쪽으로 패주하는 敵 主力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21연대를 迂廻시켜 竹嶺을 점령, 확보하도록 하고, 2개연대로 하여금 榮州를 경유해서 진격시켰는데, 豊基 南쪽에서 北쪽으로 패주하는 敵 전차 10여대를 발견하고 야포를 直射로 쏘아서 敵 전차 전부를 파괴한 일이 있다. 그후 丹陽을 경유해서 禮川까지 진격하는데 있어서 敵 패잔병으로 부터 약간의 저항을 받았을 뿐이다.

이 무렵 原州까지 前進한 제2군단 사령부가 敵 패잔병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일이 있었다. 즉 우리 제8사단이 禮川까지 진격했는데, 그때는 군단과 사단이 서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정기적으로 無電연락이 되었을 뿐인데, 군단에서 無電으로 연락이 오기를 "제6사단은 벌써 春川으로 진격 중인데 제8사단은 왜 이렇게 진격이 늦어지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변동없이 하루 40km씩 진격시키고 있었다. 제8사단이 禮川에서 原州를 향해서 진격하는데 도중에 敎會가 있는 곳에 사단 사령부를 정하고 재(고개) 하나만 넘으면 原州市內로 돌입하게 되어 있었다. 그때 原州에는 제2군단 사령부와 제6사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다. 나는 제21연대가 진격하고 있는 前方까지 나갔는데 "따라굴"이라는 곳까지 도달하였을 때, 敵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용은 "지금 국군은 전차를 앞 세우고 수천명이 달려 들고 있으며, 대부대인데 이곳에서 도저히 지탱할 수 없으니 빨리 참모장에게 보고해서 철수시켜 달라."는 전화내용이었다. 이때 敵은 我軍의 진격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8사단과 부닥쳤고, 앞에도 我軍, 뒤에도 我軍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협공 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그런데 敵은 原州市內를 통과해서 패주하게 되었는데 이때 原州市內에 위치한 제2군단 사령부와 제6사단 사령부를 기습하였던 것이다.

6. 楊平—漣川 進擊戰 (50년 9월 30일부터 50년10월 10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 8, 9 호
작명부록 제 3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敵軍	
제 2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21연대 장 대령 金 容 培	
제 8 사단 장 준장 李 成 佳		제59포병대대 장 소령 鄭 寅 琓	
제10연대 장 대령 高 根 弘			소령 朴 秉 柱 (10. 2 교대)
제16연대 장 중령 金 義 淵			

敵軍	
제 1 사단 장 소장 洪 林	제15사단 장 소장 趙 光 烈
제 8 사단 장 소장 吳 白 龍	(단, 제44사단, 그리고 제27여단 等의 일부로서 그 중요 지휘관과 병력 장비는 未詳임.)
제12사단 장 소장 崔 仁 수	

나. 전투 전의 개황

제 8 사단은 9월 22일 부터 29일까지 安東—榮州—丹陽—堤川에 이르는 반격전에서, 敵 제 8 사단과 東部전선 및 西部전선에서 퇴각하면서 집결한 敵의 지향을 격파하고, 이어 楊平—서울線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 무렵 제 6 사단은 忠州를 점령하고 原州—春川 쪽으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東部전선의 제 3 사단은 29일 三陟을 점령하고 30일에는 38° 線上의 仁邱里까지 진격 중이었다. 또한 西部전선의 UN軍은 29일 裡里—江景—論山—大田을 탈환하고 京釜線을 따라 北進을 계속하고 있었다.

敵은 洛東江 부근에서 我軍의 총반격전으로 말미암아 戰意를 喪失 당하고 패주하는 敵 제 8 사단과 제12사단, 그리고 제 15 사단의 各 一部로서, 大邱—三登—榮林등지를 거쳐, 原州—春川線으로 退却 중이었으며, 그 일부는 楊平쪽으로 潰走하고 있었다. 또한 漣川지역의 敵은 西部전선에서 퇴각하고 있는 敵 제 1 사단, 수도방위사단, 제 19 사단, 제 44 사단, 제 27 여단등의 各一部로서, 38° 線上을 중심으로

要地를 확보하면서 逐次 收容陣地를 편성하므로써, 我軍의 진격을 극력 막아 보려 하였으며, 38° 線에 이르자 그들의 저항은 더욱 발악적으로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 8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陸本 作命 제 199 호(作命附錄제 3 호)에 의하여, 제 10 연대(장, 高根弘대령)와 제 21 연대(장, 金容培대령)를 先頭로 하고, 제 16 연대(장, 徐義瀋중령)를 예비대로 掌握하여, 原州 橫城—龍頭里—楊平—兩水里—水鐘里線을 따라 議政府 부근까지 진격하여 재편성한 다음, 次期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제 8 사단은 原州—橫城—龍頭里—楊平—兩水里—水鐘里線으로 議政府까지 계속 진격하여, 議政府 근방에서 재편성한 다음,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次期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2) 작전실시

9월 30일 : 제 8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安東—榮州—丹陽線을 따라 地形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추격전을 계속하여, 忠北의 大崗—三谷을 거쳐 堤川까지 진격하였다. 사단은 제 21 연대(장, 金容培대령)와 제 10 연대(장, 高根弘대령)를 공격編隊로 하고 제 16 연대(장, 徐義瀋중령)를 예비대로 掌握하면서 堤川으로부터 原州를 向하여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곳과 原州 사이는 進擊路 양쪽에 험준한 山岳지대가 연속되어 있으므로써 진격하는 부대에 많은 장애가 되었으며, 특히 神林을 지나 原州에 이르는 雉岳고개는 東北 쪽에 우뚝 솟은 南臺山(△1.182)과 西쪽의 白雲山(△1.087) 줄기의 계곡을 南北으로 통하는 幹線道路로서 특별히 경계를 要하는 중요한 곳이었다. 사단은 이날 神林까지 서서히 진격하여 부대경비를 하면서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10월 1일 : 제 8 사단은 神林으로 부터 原州로 진격하기 위하여 험한 고갯길을 따라 左右側方의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서서히 北進을 시작하였다.

제 21 연대(장, 金容培대령)가 原州에 이르는 고개 마루에 이르렀을 때, 1 개 연대규모의 敵과 부닥쳤는데, 이 敵은 제 6 사단(장, 金鍾五준장)이 이날 原州를 점령함으로써 그 퇴로가 차단되어, 退路를 打開하기에 血眼이 되어 있었으며, 이날 夜陰을 이용하여 原州 北쪽으로 퇴각하기 위한 시간을 얻고자 최후 발악을 하고 있었다.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이와같은 상

황을 無電으로 原州에 있는 군단장 劉載興소장에 보고하고, 原州로 넘어가는 고갯길 周邊要地에 병력을 배치하여, 이 敵을 南쪽과 北쪽에서 협공하여 섬멸할 것을 건의하였다. 따라서 사단장은 이날 저녁부터, 사단 主力으로 하여금 급속히 突進토록 명령하였다.

제 21 연대 先頭부대가 고개를 넘어 섰을 때, 敵의 軍用차량 39여대가 2列 종대로 北쪽을 向해서 停車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연대장 金容培대령은 先頭대대로 하여금 급히 돌격을 감행하도록 하여, 이 차량을 고스란히 노획하였다. 이 차량은 我軍 진격부대의 機動力 증강을 위하여 공헌하게 되었다.

그런데 敵은 퇴각하면서도 原州를 빠져 나갈 시간을 얻고자, 進擊路 周邊의 要地를 소수의 병력으로 확보케 한 다음, 발악적인 저항을 企圖하기 때문에, 사단장(李成佳준장)은 포병陣地를 神林까지 급속히 前進시켜, 사단 正面의 敵에 대하여 효란사격을 실시토록 하는 동시에, 제 21 연대(장, 金容培대령)와 제 10 연대(장, 高根弘대령)로 하여금 左右 側方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진격을 계속토록 하였다. 敵은 어둠을 이용하여 原州 쪽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으며, 我軍은 이에 결정적인 打擊을 가하여 混走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10 월 2 일 : 제 8 사단은 이날 새벽 原州市內에 돌입하여 숨 돌릴 사이도 없이 楊平을 경유하여 首都 서울로 진격하라는 군단 작전명령을 받고, 곧 이어 楊平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에 앞서 楊平지역에는 1 개 연대규모의 敵이 阻止陣地를 편성하고 완강한 저항을 企圖하고 있었으므로 사단은 제 19 연대(장, 高根弘대령)로 하여금 楊平 東北 쪽으로 급속히 전진시켜, 敵의 퇴로를 차단하도록 하는 동시에, 제 21 연대(장, 金容培대령)는 楊平을 西北쪽으로 正面에서 공격토록 하였다.

이날 15.00에 이르러 제 10 연대는 東北쪽으로 迂廻하였으나, 제 21 연대는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쳐 17.00 까지 2 시간에 걸쳐 피아간 치열한 攻防戰을 展開하고 있었다. 이에 사단장(李成佳준장)은 예비대인 제 16 연대(장, 金義淵중령)로 하여금 제 21 연대를 증원토록 하여 이 當面의 敵을 一擊에 격파함으로써 敵은 龍門山 줄기의 험준한 山岳지대로 패주하였다. 곧 이어 사단 수색대는 兩水里쪽의 敵情을 수색토록 하고, 사단 主力은 四周경계를 하면서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東部전선의 제 3 사단은 38°線을 돌파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날 美 제 8 군사령관 Walker중장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이날 제 8 사단이 原州에 돌입하는 즉시로, 사단장(李成佳준장)은 전날의 작전경과보고를 하는 동시에, 다음 작전명령을 받기 위하여 군단 사령부로 군단장 劉載興소장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군단 참모장 李翰林준장이 "왜 좀 빨리 진격해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말하기에 "누가 빨리 진격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敵 패잔병의 主力이 洪林—原州 사이에 집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빨리 진격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우리 사단에서 無電으로 敵情 보고를 했는데 받았느냐?"고 물으니, "보고를 받고 즉시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에 명령하여 고갯길 周邊에 병력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였다."는 것이었다. 즉 이때의 병력배치는 야간에 부대를 배치하는데, 道路 周邊이나 개활지에 배치함으로써 敵을 쉽게 발견하여 격파하여야 되는데, 병력을 左右 無方의 高地 위에 배치하였다는 것이었다. 결국 敵은 이와같은 虛點을 이용하여 原州를 돌파한 다음, 北쪽으로 패주하였다.

10월 3일 : 제8사단의 楊平지역에서 부대정비를 끝내고, 이날 首都 서울을 向해서 진격을 계속하였다.

東쪽으로는 龍門山의 험준한 줄기가 계속되고 西쪽으로는 南漢江이 흐르는 中央線 鐵路에 沿한 道路를 따라 兩水里—陶農을 거쳐, 首都 서울 北端의 楸阿里 부근까지 진격하여 각 부대별로 집결한 다음,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이 무렵 中部전선의 제6사단은 春川을 점령하고 38°線을 돌파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東部전선의 제3사단은 38° 線을 돌파하여 高城까지 진격하고 있었다.

〈진격하고 있는 제8사단 勇士들〉

10월 4일 : 제 8 사단은 지난 2주간의 進擊戰에서, 제 2 군단의 右側사단으로서 진격하던 중 선발대인 제 6 사단은 春川까지 진격하여 38°線을 돌파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동안, 首都 서울 北端의 彌阿里 부근에서 급히 38°線을 향하여 진격을 계속한 다음, 38°線을 돌파할 준비에 분망하고 있었다. 각 부대는 부대별로 부대정비를 하고 장비를 점검하며, 모든 보급품을 보충하고 있었다.

10월 5일 : 사단장(李成佳준장)은 예하 각 연대장과 사단 일반 및 특별참모를 소집하고, 앞으로 展開될 진격전에 대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다.

『첫째, 각급 부대간의 부단한 통신을 유지하라.

둘째, 진격간의 경계를 철저히 하라.

세째, 패잔병 처리는 예비대가 담당하고, 장병들의 士氣 앙양책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라.』

한편 中部전선의 제 6 사단 제 7 연대(장, 林富澤대령)는 九萬里발전소를 점령하였으며, 이날 北傀는 9월 30일의 MacArthur 사령관에 의한 항복권고에 대하여서는 언급이 없이 北으로 철퇴하여 새로운 임무에 임할 것이라고 방송하였다.

10월 6일 : 제 8 사단은 3일간에 걸쳐 부대정비를 마치고, 이날 彌阿里부근을 출발하여 議政府을 경유, 東豆川 쪽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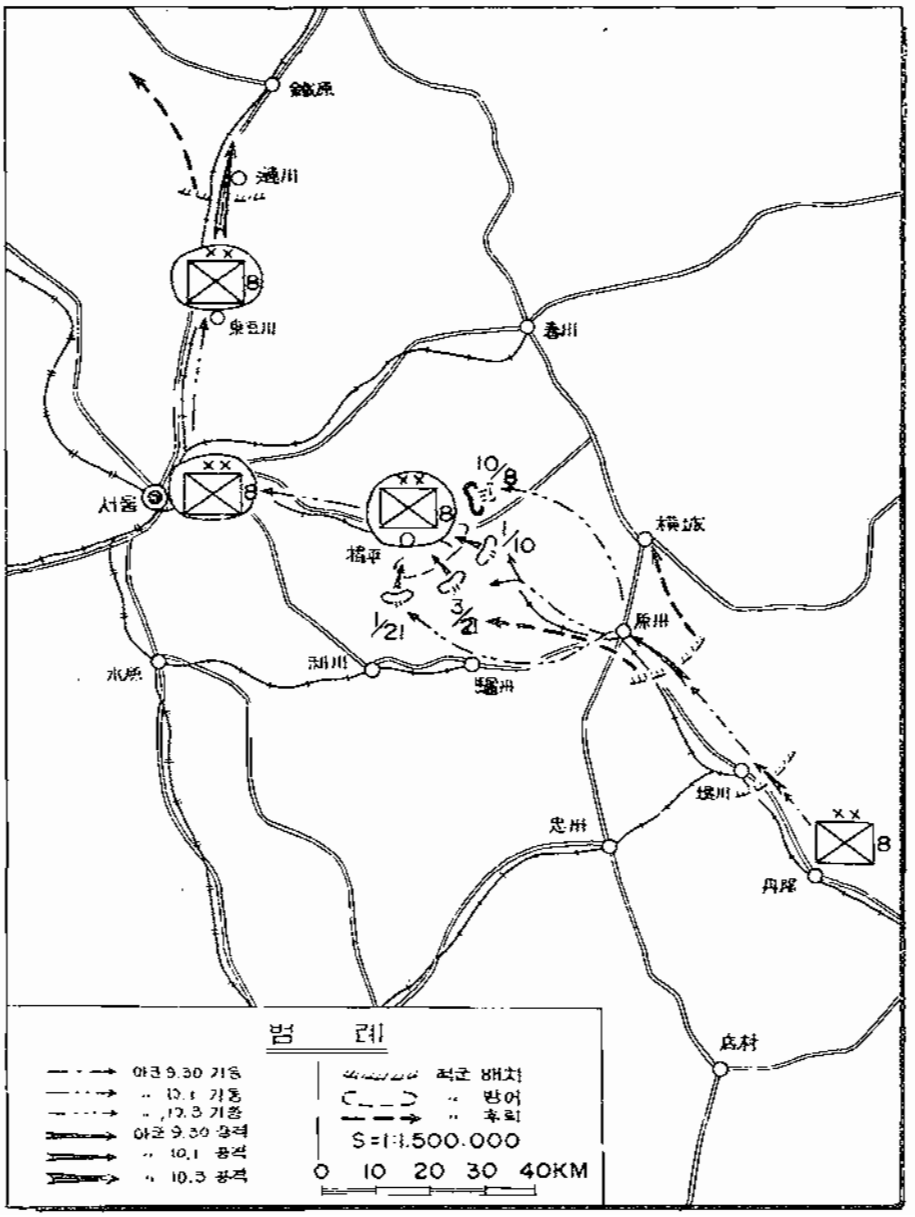
제 10 연대(장, 高根弘대령)와 제 21 연대(장, 金容培대령)를 先頭부대로 하고, 제 16 연대(장, 兪義濬중령)를 예비대로 控置한 다음, 議政府를 통과하는 즉시로 麻田里에 이르러 사단 수색대로 하여금 西北쪽 佛國山에 連한 361 高地와 東北쪽의 219 高地일대의 敵情을 수색토록 하고, 진격부대는 德亭里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8km 北쪽에 있는 東豆川에 이르는 國道 연변에는 東쪽으로 七峰山(△507)이 우뚝 솟아 있으나, 퇴각하는 敵은 이 高地를 확보할 시간이나 가치가 없으므로, 사단장(李成佳준장)은 진격부대로 하여금 進擊路에 근접한 東쪽의 299 高地와, 西쪽의 228 高地를 경계토록 하면서 東豆川 쪽으로 急進토록 하였다. 제10연대는 사단의 선발대로서 東豆川까지 진격하였을 때, 100日間을 敵治下에서 시달린 東豆川 邑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또한 一部 낙오병들과 靑年들로 조직되어 四面楚歌속에서 孤立無援으로 힘에 겨운 투쟁을 敵中에서 치러 온 유격대원들과 합세하였다. 이들은 사단 사령부로 후송하였는데,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이들을 제 8 사단의 특수유격대로 편성토록 하였다.

10월 7일 : 제 8 사단은 전날 東豆川까지 진격하여, 38°線을 돌파하기 위한 부대정비를

하는 동시에, 수색대로 하여금 38°線 부근의 敵情을 수집토록 하였다. 敵은 38°線上의 미리 구축된 陣地를 補强, 점령하고 一大 격전을 준비 중이었으며, 특히 漢灘江의 38橋와 鐵橋는 이미 폭파하였고, 이 교량을 중심으로 東쪽과 西쪽 능선일대에서 我軍의 진격을 저지코저 최후발악을 企圖하고 있었다.

상황도 제 8 호 楊平一漣川 反擊戰 (50. 8. 30~1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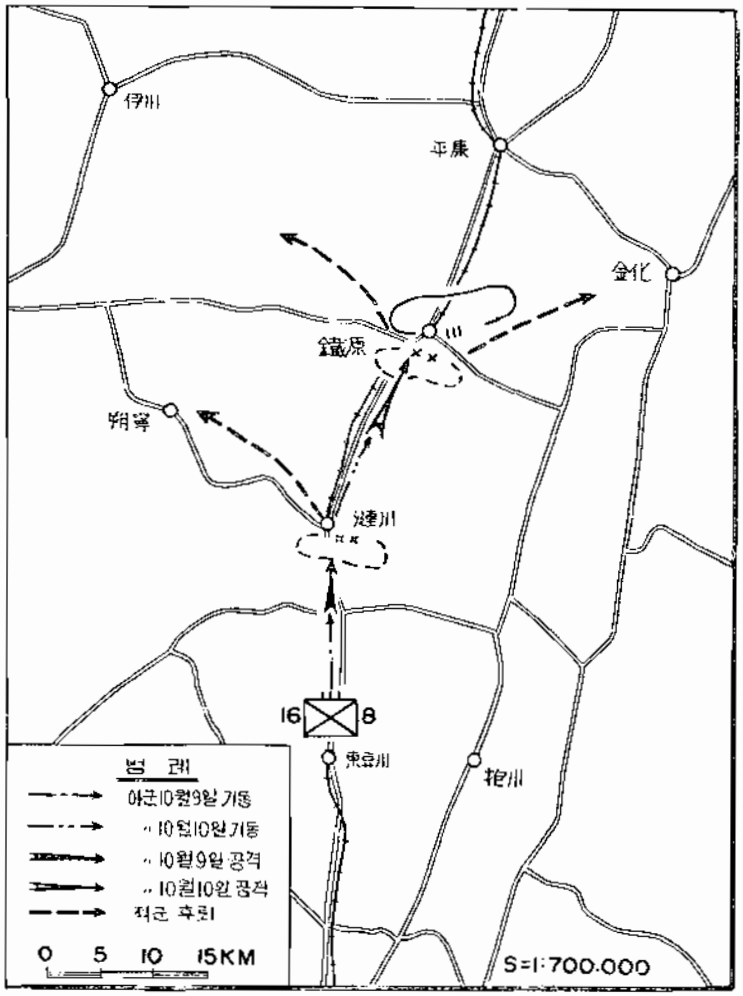
사단은 이날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를 先鋒隊로 하고,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 제16연대(장, 徐義瀋중령) 順으로 38°線 南쪽 2km 지점 哨城里부근까지 진격하여 一擧에 38°線을 돌파할 준비를 갖추었다.

10월 8일 : 제10연대는 이날 黎明을 期하여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50포병대대(장, 朴秉柱소령)의 全火力은 38°線上의 敵 陣地를 맹타하기 시작하였고, 보병부대들은 앞을 다투어 敵陣 正面을 돌파하므로써 全谷里까지 돌진하였는데, 敵은 全谷里에서 西쪽으로 黃地里를 경유, 臨津江 줄기를 따라 패주하면서도 全谷里에서 漣川에 이르는 國道 양쪽의 要地를 확보하고 계속 저항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와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로 하여금 공격제대로 하여, 漣川 東쪽 通峴里 부근까지 진격토록 하고, 제16연대(장, 徐義瀋중령)는 全谷里에서 공격제대의 뒤를 따라 徐徐이 전진토록 하면서 左右 側方의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이날 20.00에 이르러 제10연대와 제21연대는 通峴里까지 진격하였으나, 敵은 漣川 東쪽과 西쪽고지 일대에서 완강히 저항하므로 彼我間 치열한 攻防戰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날이 어둡자 곧 敵의 銃聲은 잠잠하여지고, 사단은 다시 수색대로 하여금 漣川 周邊의 敵情을 수색토록 하였다.

10월 9일 : 사단은 이날 黎明을 期하여 漣川 周邊의 敵에 대하여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였다.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은 漣川 西北쪽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敵을 正面으로 돌파하여 육박전을 전개하였는데, 敵은 頹勢를 挽回할 기회가 없이자 곧 西北쪽으로 臨津江을 건너 패주하기 시작하였고,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는 東쪽 高地에 陣地를 구축하고 있는 敵을 一擧에 격파하고 敵을 鐵原 쪽으로 격퇴시켰다. 따라서, 예비대인 제16연대(장, 徐義瀋중령)도 漣川까지 前進하여 사단은 곧 이어 鐵原에 이르는 國道를 따라 北進을 계속하였다. 이 무렵 我軍 항공기는 진격하는 부대를 근접지원하는 동시에 鐵原 쪽으로 패주하는 敵을 맹타하고 있었는데, 敵은 大光里 부근에 對空火器를 배치하고, 계속 我軍 항공기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이에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은 申榮徹중위가 지휘하는 특공대원 18명으로 하여금, 이날 夜陰을 이용하여 敵의 對空火器 陣地를 폭파토록 명령하였다. 특공대장 申榮徹중위는 18명의 대원을 인솔하고 大光里 南쪽 2km 지점에 있는 鐵橋까지 은밀히 접근하였다. 敵의 對空火器가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을 수색하기 위하여 鐵橋上에서 敵情을 탐지하고 있을 때, 敵으로 부터 不意의 重, 小火器사격을 받았으므로

상황도 제 9호 鐵原 전투(50. 10. 9~10)



申榮敏중위는 다리와 팔에 敵彈을 맞고 鐵橋 밑으로 굴러 떨어졌고, 18명의 대원들은 곧 鐵橋 밑으로 뛰어 내려, 敵의 동향을 살피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이날 군단장 劉載興소장은 中部戰線에서 勇戰奮鬪하는 제 8 사단 장병에게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하여 장병들의 士氣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10 월 10 일 : 사단장(李成佳준장)은 이날 鐵의 三角地帶로 돌입하여 鐵原을 奪還할 목적으로,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와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를 正面으로 공격토록 하고, 제16연대(장, 兪義濬중령)를 鐵原 西北쪽 高地로 급속히 迂廻토록 하여 敵의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이 부근에 집결한 敵을 包圍, 섬멸코자 하였다.

敵은 패잔병으로 혼합편성된 1개 사단 규모의 병력이, 鐵의 三角地帶의 要地를 확보하여

我軍의 진격을 저지함으로써 戰勢를 挽回코자 발악하고 있었다.

제10연대와 제21연대는 이날 날이 밝자마자 連川 北쪽에서 大光里를 경유, 鐵原 쪽으로 진격을 시작하였고, 제16연대는 大光里 南쪽 삼거리 西北 쪽으로, 계곡의 幹線道路를 따라 鐵原 西北쪽 高地를 向해서 진격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제21연대의 先頭부대가 大光里 南쪽의 鐵橋까지 진격하였을 때, 전날 敵의 對空火器 陣地를 폭파한 임무를 띄고 이곳까지 진격하였던 中葉徽중위 이하 특공대원 18명을 구출하고, 계속 大光里—新灘里를 경유, 鐵原 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제10연대와 제21연대의 主力이 鐵原 南쪽 271高地 부근까지 진격하자 敵은 포병화력을 我軍 진격부대에 집중하므로 제10연대는 鐵原 西南쪽 능선일대로 부터 鐵原邑으로 돌진하고, 제21연대는 正面에서 敵陣을 돌파하였다. 이때 제16연대는 西北쪽 高地를 점령, 확보하고, 鐵原邑 부근에 집결하고 있는 敵에 대하여 81mm 박격포 사격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敵은 지휘계통의 혼란과 퇴로를 차단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機先을 뺏기고 당황하여 北쪽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敵은 퇴각하면서 서울 부근에서 몰고 온 각종 차량 數百臺와 각종 物資를 버려둔 채 戰線을 정리할 여유도 없이 퇴각하였으며, 戰場은 敗者의 末路를 말해 주듯 혼잡하고 비참할 뿐이었다.

이어 사단은 右側 金化 쪽으로 진격, 제 6 사단, 제 7 사단과 같이 平康 쪽으로 진격을 계속함으로써 퇴각하는 敵을 추격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 8 사단은 堤川에서 原州—楊平—서울로 진격하여 3일간의 무대경비를 마치고, 10월 7일 38°線을 돌파하였는데, 이때 제 6 사단은 華川을 점령하고 金化 쪽으로 진격 중이었고, 右側 제 7 사단(육본 예비)는 抱川을 경유, 金化 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鐵의 三角地帶의 要地인 鐵原을 점령, 확보한 제 8 사단은 平康에 이르는 평야지대를 가로질러 패주하는 敵을 추격하면서 平康으로 勇進하였다.

한편 東部戰線의 首都사단과 제 3 사단은 10월 10일 元山을 점령하고 明沙十里 비행장을 확보하였으며, 西部전선의 美 제 1 기갑사단은 黃海道 白川까지 진격함으로써, 全戰線에 걸쳐 38° 線을 돌파하여 순조로운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 2 군단 예하 제 6 사단(장, 金鐘五준장)과 제 8 사단(장, 李成佳준장), 그리고 陸本 예비인 제 7 사단(장, 申尙澈준장)은 10월 12일 平康 부근에 집결하였는데, 제 6 사단은 新高山—元山쪽으로, 제

8사단은 伊川—新溪축으로, 그리고 제7사단은 陸本 예비로서 역시 伊川—遂安 축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 무렵 제6사단 예하 제19연대(장, 金益烈대령)은 金城—淮陽을 경유, 元山 축으로 진격 중이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8사단 제21연대(소대장·중대장)

申榮徽중위

(66년 11월 5일 · 제1군사령부 · 대령)

우리 제8사단은 永川을 탈환하고 나서 北進명령을 받았다. 九山洞—漢城—安東—榮州—丹陽선으로 진격하여, 提川에서 原州를 향해서 고개를 막 넘어 서려고 하는데, 敵 차량 30여대가 미처 후퇴하지 못하고 北쪽을 향해서 道路에 2列로 列을 지어 있었다. 장병들의 士氣가 충천해 있을 때라 敵 패잔병이 있거나 없거나 그대로 급속도로 돌진하여 차량 30여량을 노획하고, 패잔병들은 周邊의 山으로 흩어지 패주하였다. 우리는 곧 原州市內로 돌입하였는데, 이때 우리는 我軍이 首都 서울을 탈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단은 계속해서 楊平을 경유, 서울 獅子里 부근까지 진격하여 집결한 다음, 3일간의 부대정비를 한 다음, 즉시 패주하는 敵을 뒤쫓아 東豆川—漣川—鐵原축으로 急進하였다. 그런데 나는 漣川—大光里 사이에서 다리와 팔에 부상을 입고 후방 병원으로 後送되었다. 즉 金谷을 지나서 漣川—大光里로 진격하는 도중 鐵橋가 있는 곳에서 敵 對空火器를 폭파하라는 命을 받았다. 나는 특공대원 18명을 직접 지휘하여 81mm 박격포 1문을 가지고 敵對空火器가 있을 곳으로 판단되는 쪽으로 은밀히 접근하였다. 그러나 敵의 對空火器 陣地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량 위에서 잠시 경찰하는 사이에 敵으로부터 小火器 집중사격을 받았는데, 다리와 팔에 敵彈을 맞고 교량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교량 밑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엎드려 있다가 다음 날 아침 我軍이 진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특공대원 18명과 같이 구출되었으며, 후방 병원으로 後送되었다.

7. 新寧—鳥林山 反擊戰 (50년 9월 15일부터 50년 9월 22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0. 11. 12. 13호
작명부록 제 1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2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1대대 장 소령	許 容 丈
제6사단 장 준장 金 鍾 五		제2대대 장 소령	金 旭 篆
제2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제3대대 장 소령	朴 儉
제1대대 장 대위 石 順 天		지원부대	
제2대대 장 소령 文 正 植		제16포병대대 장 소령	金 聖
제3대대 장 소령 宋 大 厚		병력 :	8,730명
제7연대 장 대령 林 富 澤		장비 : 105mm 곡사포	18문
제1대대 장 중령 金 龍 培		57mm 대전차포	18문
제2대대 장 중령 金 鍾 洙		81mm 박격포	17문
제3대대 장 중령 印 聖 瑢		60mm 박격포	45문
제19연대 장 대령 金 益 烈		2.36inch 로켓트포	39문

敵 軍

제2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82연대 장 총좌 史 勢
제8사단 장 소장 吳 白 龍	제83연대 장 중좌 吳 允 燮
제81연대 장 총좌 李 永 來	포병연대 장 중좌 金 明 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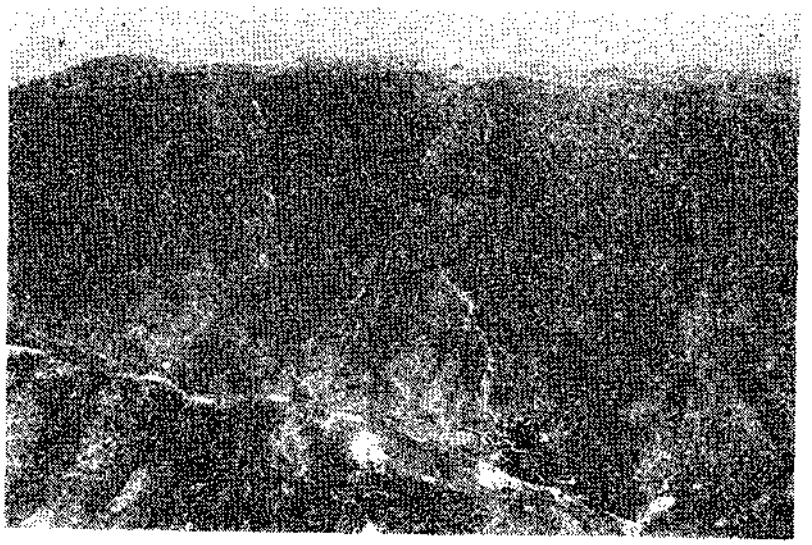
나. 전투 전의 개황

我軍은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1개월 간에 걸친 敵의 최후발악적인 총공세를 저지함으로써 戰勢를 挽回하고, 총반격전으로 移轉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되었고, 특히 洛東江 방어선의 一環을 이루는 바, 倭館—多富洞—新寧—永川 부근에서 있었던 彼我의 치열한 一進一退의 爭奪戰은 우리 民族史上 子孫萬代에 빛날 것이며, 영원히 傳承될 것이다.

9월 10일 제6사단 제2연대(장, 咸炳番대령)는 敵이 확보하고 있는 鳥林山 南쪽 469高地와 그 北쪽의 無名高地를 탈환하기 위하여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끝내 이를 탈환하지 못하였으며, 한편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는 이날 敵 1개 대대로부터 2시간에 걸친 波狀공격을 받았으나, 대대는 死闘의 反復으로 敵에게 한보도 주지 않고, 마침내 敵을 鳥林山 쪽으로 격퇴시키고야 말았으며, 最後壁壘의 攻防은 凄絶하기 形言할 길이 없었다.

9월 12일 이후 사단 正面의 敵은 계속 잠잠하였고, 敢히 再攻勢를 취할 企圖를 보이지 않았으며, 戰線은 대체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베떡로 彼我間에 산발적인 偵察戰 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전투에 참전한 敵은 제2군단장 金武亭이 이끄는 敵 제8사단의 主力으로서, 그 병력의 대부분은 접령지역에서 강제로 동원한 義勇兵으로 편성되었고, 전투경험이 있는 古參兵은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敵은 我軍 항공기의 계속적인 폭격으로 인하여 보급품이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였으므로 主로 夜陰을 이용하여 일부분의 보급품을 수송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현지조달이라는 美名 아래 약탈로써 보충하고 있었다.



〈華山 高地〉

金武亭은 그 手下의 모든 戰列을 督戰한 결과, 新寧—永川 부근까지 진출한 다음, 눈 앞에 보이는 大邱를 단숨에 奪取하고 계속해서 釜山을 공략하라는 그 나름대로의 大望으로 최후발악의 狂的 공격을 되풀이 하였으나, 我軍은 敵의 이와같은 야욕을 死闘의 반복으로 粉碎하였고, 9월 15일에 이르러 仁川 上陸작전이 성공하자 全戰線에 걸쳐 戰勢가 一變하여 我軍의 총반격작전이 시작되므로써 敵은 再起를 노려 보고자 北쪽으로 퇴각하면서도 窮鼠의 虛勢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陸本 作命 제180호에 (作命附錄 제1호)의하여, 現 戰線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敵을 桃源洞—醴泉—咸昌 방향으로 공격할 목적으로,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를 右一線으로, 그리고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를 左一線으로 展開하는 동시에 제19연대(장, 金益烈대령)를 예비대로 控置한 다음, 新寧 北쪽의 要地인 鳥林山을 공격, 점령함으로써 精彩있는 반격전의 先制 主導權을 장악코자 하였다.

「(가) 현 위치를 安定化하고 敵 主力과 적극 강력하게 接敵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는 동시에 담당 據點을 확보하기 위하여 現在線의 침투를 企圖하는 敵을 격파하라.

(나) 각 부대를 작전 강화 爲主로 급속히 재정리하고 D일에 단행할 일제반격을 준비하라.

(다) 사단 인접부대인 제8사단과 협조하고, 담당正面에서 D일 H시를 기하여 北方을 향하여 攻勢를 移轉하라.

(라) 담당 전투지경 내에서의 제1차 진출예정선인 A-1線上의 목표 제8인 桃源洞 및 道路 沿邊의 敵을 공격하여 該 지구를 확보하라.

(마) A-1線을 확보 후, 제2차 진출예정선인 A線上의 목표 "F" 醴泉, "G" 咸昌 및 道路網의 敵을 공격하여 該 지구를 확보할 준비를 갖추라.

(바) 右 인접부대인 제8사단과 左 인접부대인 韓國軍 제1사단(美軍 제1군단 산하)과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라.」

(2) 작전실시

9월 15일 : 敵은 전날인 14일에 全戰力을 集中하여 제2연대 正面을 돌파하려고 反復, 공격을 가해 왔으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攻防 兩面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연대 방어진지의 中央을 돌파코자 최후발악의 끈질긴 挑戰을 보였으나, 我軍은 그때마다 이를 물리치게 되었다.

또한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 正面의 敵은 그 主力이 我軍의 火力包圍에 의하여 戰力消耗가 극심하게 되자, 부대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錦陽洞(軍威郡 山城面 新寧 西北쪽 7km)

부근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날 05.00 敵 1개 대대 병력이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 제1대대(장, 石順天대위) 正面의 469高地에 대하여 反復하여 공격을 가하였다. 이에 我軍은 敵에게 寸土도 주지 않겠다는 신념 아래 장병들의 감투정신과 효과적인 포병지원으로 3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이 敵을 격퇴하였다.

한편 右側 제7연대 正面의 敵은 소대규모의 병력을 我軍 陣地에 침투시켜 계속적인 접촉을 피함으로써 企圖秘匿을 위한 소규모의 싸움이 있었을 뿐이다.

이날 17.50에 이르러 제7연대 正面에 있는 錦陽洞 부근에서 南下하고 있던 敵 1개대대의 증원 병력을 발견한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즉시 이 상황을 사단장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포병 지원사격을 요청하여, 이 敵을 火力包圍함으로써 致命的인 打擊을 가함으로써 방어임무를 能히 수행하였으며, 사단 正面의 敵은 그 戰力의 核心이 꺾인 나머지 전투능력을 상실한 결과, 평온한 戰線 상황 속에서 我軍 反擊의 기회는 무르익어 가기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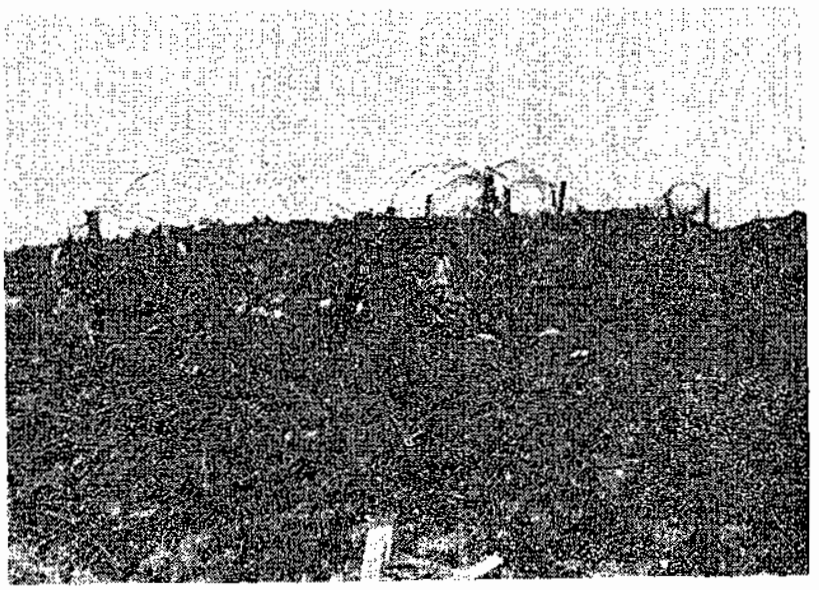
9월 16일 : 제6사단 正面은 전날 제2연대 제1대대 正面의 469高地에 침투해 온 敵을 격퇴한 뒤, 평온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날 02.00에 사단장 金鍾五준장은 제19연대(장, 金益烈대령)를 南元里(新寧 西쪽 7km)로 轉進토록 措置함으로써 사단의 공격을 決戰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대를 정비케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대 본부는 南元里 南쪽으로 약진하였다.

한편 사단장은 제2연대와 제7연대로 하여금 이날 08.00를 기하여 담당 전투正面 안에서의 무제한 공격의 決行을 명령하였다.

제2연대는 이 명령대로 08.00에 공격을 시작하자 곧 東北쪽 高地로 부터 敵의 側方火器에 의한 집중사격을 받게 되어 진격이 如意치 않게 되었으므로 연대장 咸炳善대령은 즉시 포병화력을 요청하여 이 高地의 側方火器를 제압토록 하는 동시에 일제히 돌격을 명령하였다. 이와같은 간박한 전투로 始終하다가 연대는 이날 17.30에 이르러 드디어 349高地와 469高地 正面의 332高地를 모두 奪還하고 敵을 鳥林山 쪽으로 격퇴시키고야 말았으니, 이 싸움이야말로 戰力의 大小 보다도 차라리 戰意의 强弱與否에 대한 一大 對決이라 할 수 있었다.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제2연대의 右側 연대로서 제2연대가 17.30에 이르러 349高地와 332高地를 모조리 奪還하게 되자, 이에 呼應하듯이 正面의 敵을 공격하여 역시 鳥



〈新寧부근의 我軍부대와 철조망〉

林山 쪽으로 격퇴하고 21.40까지 鳥林山 右側 능선일대를 점령하기에 이르렀으니, 難兄難弟란 과연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사단은 이에 따라 右側으로 부터 제7연대, 제2연대, 제19연대가 併立하여 그 雌雄을 鳥林山의 包圍 一線에서 겨누어 보고자 준비하게 되었다.

이 무렵 군단장 劉載興소장은 勇戰奮鬪하고 있는 제2연대의 最前方까지 몸소 나와서 "잘 싸워 달라."고 격려해 주었으니, 이로써 전 장병의 士氣는 더욱 충천하여 滅共정신에 불타게 되었다.

9월 17일 : 제2연대는 전날에 이어 제1대대(장, 石順天대위)를 右一線, 제2대대(장, 文正植소령)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을 예비대로 하여 鳥林山을 奪還하기 위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敵은 鳥林山 西南쪽의 아치洞(鳥林山 西南쪽 2km) 일대와 南쪽 1km지점 능선 일대에서 縱深을 강화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치열한 一草一石의 爭奪戰이 온종일 계속되었다.

한편 右側 제7연대는 龍牙洞(新寧 北쪽 8km)과 德泉(龍牙洞 南쪽)北쪽 高地, 그리고 723高地 일대에서 鳥林山 공격을 위한 戰線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사단 예비대인 제19연대는 南元里 부근에 집결하여 敵의 企圖를 注視하면서 다만 사단장의 제1선 투입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南쪽에서 본 烏林山〉

9월 18일 : 敵은 이날 03.30부터 제 2연대의 강력한 공격에 견디어 내지 못하고 드디어 아치洞으로 부터 烏林山 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敵 포로로 부터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전날 밤 부터 烏林山 北쪽 3.5km지점에 있는 元山洞 부근에서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烏林山 일대의 敵을 증강하기 위하여 南下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정보에 따라 사단장 金鍾五준장은 사단 예비대인 제19연대를 烏林山 西北方으로 轉進시켜 烏林山을 迂廻, 공격토록 措置함으로써 敵 증원부대를 견제할 것을 절심하게 되었다. 사단장은 즉시 이 상황을 군단장 劉載興소장에게 보고하고 南元里에 집결, 대기 중인 제19연대를 烏林山 西北쪽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제7연대는 제1대대(장, 金龍培중령)를 龍牙洞 西北쪽 高地에,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를 德泉 北쪽 高地에, 제3대대(장, 印聖雨중령)를 723高地 일대에 각각 展開하여, 烏林山 일대를 死守하고 있는 敵의 兩翼을 包圍, 섬멸키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敵은 烏林山 頂上을 據點으로 방어진의 縱深을 강화하고 완강히 저항하므로써 我軍의 包圍, 섬멸전은 결코 순조로운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9월 19일 : 사단은 제2연대와 제7연대를 左右併立의 主攻부대로 하고, 제19연대를 助攻부대로 삼아, 烏林山 일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敵을 包圍, 섬멸코자 하였으나, 최후발악하는 敵의 저항에 부닥쳐 공격력이 低下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하는 수 없이 현재 線에서 戰

線을 再整理한 다음, 四周경계로서 敵의 反擊에 對備하고 있었다. 이 무렵 사단장 金鍾五준장은 鳥林山 일대의 地勢的인 不利한 조건과 예상을 뒤엎는 완강한 敵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方策을 講究키로 하였는데, 즉 正面의 제2연대로써 敵 陣地를 돌파케 하는 동시에, 右側 제7연대와 左側 제19연대로써 現 陣地를 확보하면서 火力으로 제2연대의 돌파를 엄호토록 하였으니, 「一面 돌파에 兩面 엄호」라는 작전 構想이었던 것이다.

9월 20일 : 이날 19.00에 이르러 제7연대의 제3중대는 1개 대대규모의 敵으로부터 반격을 받았는데, 이때에 중대는 다음 진격을 위하여 兵力을 溫存할 목적으로 447高地로부터 南쪽 445高地로 이동하여 兵力을 再配置하고 계속, 고전하고 있었다.

대대장 金龍培중령은 즉시 제1중대로 하여금 445高地 쪽으로 급히 기동케 하여 제3중대를 증원토록 하였으나, 敵은 22.00에 이르러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또다시 증강한 다음, 445高地까지 一擧에 반격하였으므로 彼我間 血戰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敵의 조직적인 반격의 終熄點이 되고 말았으며, 대대는 이 445高地를 끝까지 死守하는데 성공하였고, 敵은 서서히 銳鋒을 거두면서 鳥林山 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니, 마치 龍攘虎搏의 一場面과도 같았다.

이 무렵 사단 수색중대는 金城山(新寧 北쪽 4km지점) 부근까지 敵陣 깊숙히 挺進하여 원거리 정찰로서 敵情을 수집하는 동시에 敵의 퇴로를 차단, 또는 攪亂할 목적으로 局部的인 四周경계를 하면서 戰機를 노리고 있었다.

9월 21일 : 제2연대는 이날 14.00에 右側 제7연대와 左側 제19연대의 火力지원을 받아가면서 鳥林山을 强占하기 위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鳥林山은 頂上에 이르러 경사가 깎아 세운듯한 절벽과 같아서 공격하는 부대에게는 地形的으로 不利한 조건이었으며,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친 결과 鳥林山의 一角마저 빼앗지 못한 채로 다시 南쪽 高地로 陣地를 이동한 다음, 야간 공격으로 頂上을 차지하여 보고자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으니, 이는 避强擊弱의 作戰構想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은 地形上의 要地要部를 확보하려면 발악하는 이 敵을 正常的인 攻擊手法으로서는 다만 전투병력의 손실만을 가져올 뿐으로 所期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지휘관으로서 進取的인 책임수행을 위한 방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연대 내에서 동원 가능한 차량 170여대를 모조리 동원하고, 연대 기간요원으로 하여금 맨 앞차와 뒷 차에 나누어 승차시킨 다음, 헤드라이트(Headlight)를 킨 채로 軍歌

를 소리높여 부르도록 하면서 新寧 北쪽으로 전진시키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南쪽 원 지점으로 돌아온 다음, 다시 前과 같은 騷動을 반복케 하는 欺瞞전법을 세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즉 敵으로 하여금, 鳥林山을 공격하기 위한 我軍의 증원부대가 新寧 北쪽으로 轉進하는 것으로 誤判토록 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右側 제7연대와 左側 제19연대는 현재 점령하고 있는 陣地에서 담당正面의 敵이 鳥林山 쪽으로 증원하지 못하도록 抑留하면서 견제하고 있었다.

9월 22일 : 제2연대는 이날 09.00에 全兵力을 돌격제대로 하여, 鳥林山 陣地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기 시작하였는데, 敵은 이날 새벽부터 北쪽으로 소리없이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연대는 무난히 鳥林山의 全陣地를 점령, 확보하였다.

이를 계기로하여 敵의 전면적인 총퇴각이 시작되었고, 그 主力은 安東—榮州—丹陽쪽을 向하여 一波, 또 一波 썰물같이 물러나게 되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상처입은 野獸와도 같았다.

한편 右側 인접사단인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은 21일 16.00에 이르러 예하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로서 九山洞 南쪽 3km지점까지 진격하였으나, 古坪洞(九山洞 東北쪽 4km)쪽에서 증원된 2,000명 규모의 敵과 死鬪의 反復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左側 인접사단인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전날인 21일에 將軍洞(多富洞 北쪽 7km)과 五峙洞(將軍洞 東北쪽 3km)까지 진격 중이었다. 이로써 我軍은 퇴주하는 敵에게 숨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추격에 추격을 계속하여 壯快한 총반격전의 幕을 열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9월 초순부터 敵은 大邱를 목표로 우선 新寧과 永川 確占의 꿈을 안고 최후발악적인 全面攻勢를 감행하였으나, 제6사단은 敵에게 국土를 양보하지 않고 국부적인 공격으로 敵의 戰勢를 打擊하므로써 敵에게 치명상을 주게 되었다.

9월 15일 我軍은 仁川 상륙작전에 발 맞추어, 지루한 방어진에서 攻勢로 移轉하여 총반격전으로 戰勢가 一變함에 따라 我軍의 士氣는 더욱 충천하여 필공정신에 불타고 있었으며, 9월 22일사단은 新寧 부근의 要地인 鳥林山을 점령, 확보하므로써 계속 桃源洞—咸昌—忠州線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敵 제8사단(장, 소장 吳白龍)은 鳥林山 부근에서 제6사단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고, 戰意志를 상실한 채로 제 편성의 기회를 노려 보고자 義城—靑松 방면으로 巨波가 밀려나듯이 퇴주하기 시작하였다.

전 과 및 손 실 (50년 8월 5일—9월 22일)

전 과		손 실	
사살 및 부상(추정)	20,304 명	전 사	1,073 명
포 로	1,538 명	전 상	6,060 명
귀 순	110 명	실 종	3,760 명
노획: 각 종 포	259 문	각 종 포	33 문
중 화 기	440 정	중 화 기	54 정
소 화 기	1,780 정	소 화 기	2,761 정
차 량	150 대	차 량	63 대

§ 戰 訓

◇ 陽動戰法의 一例

鳥林山 탈환전에 있어서 我軍은 대대병력, 또는 중대병력으로 死闘의 反復을 거듭하였으나, 병력의 손실만 컸을 뿐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南쪽으로 陣地를 이동하여 재차 공격을 준비하여야 만 되었다.

鳥林山은 地勢가 八分 능선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병부대가 돌격선 부근까지 진출하여 頂上을 향해 돌격을 하려는 찰라, 敵으로 부터 수류탄과 각종 소화기의 집중사격을 받게 되었는데, 더우기 頂上에 이르는 경사가 깎아 세운듯한 절벽과 같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격제대는 돌격선에서 지지당하고, 다시 원 진지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연대장 成炳善대령은 戰況의 변동에 秋毫도 동요하지 않고, 臨戰無退하며 여하한 상황에도 이에 適應하여 敵을 몰리치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연대장은 이미 本文에서 말한대로, 야간을 이용하여 170여대의 차량을 동원, 세차례에 걸친 陽動戰法을 適用하였다.

결국 敵은 이에 속아 다음 날 새벽, 확보하고 있던 陣地를 버리고 퇴각해 버렸으며, 我軍은 무난히 목표를 점령, 확보할 수 있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 6 사단 제 2 연대장 成炳善대령

(68년 4월 21일 · 해외개발공사장 · 예 · 중장)

연대는 鳥林山을 점령, 확보하라는 사단장의 命을 받고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군단장 劉載興소장이 몸소 최전방의 연대 전투지휘소까지 순시차 나와서 "잘 싸워달라."고 격려해 주었다.

연대는 공격제대를 대대 단위로 하여, 鳥林山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을 數次 감행하였으나, 地形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鳥林山의 頂上을 탈환하지 못하고 번번히 철수하여 原陣地로 되돌아 오게 되었다. 이때 鳥林山이 敵의 手中에 있으므로 해서 新寧邑이 위태롭게 되어 있고, 新寧이 敵에게 점령 당하면 敵은 쉽게 大邱방향으로 침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이를 탈환하고자 右側에 제 7 연대, 左側 제19연대로 하여금 鳥林山 周邊地帶를 병행, 공격토록 재회하였던 것이다. 제 2 연대는 鳥林山을 탈취하는 主攻부대로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연대장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한 방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鳥林山은 경사가 甚하고 周邊地帶에서 가장 높은 險峻地形이기 때문에 주간공격이 이럼다고 판단, 1 개 중대로 하여금 야간공격 훈련을 실시토록 하여 야간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역시 목표를 점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나는 陽動戰法을 써야

겠다고 판단하고 즉시 실천할 것을 결심하였다. 연대에서 170여대의 차량을 동원하고 제일 앞차와 뒷차에 연대 기간요원을 승차시킨 다음, 헤드라이트를 키고 軍歌를 소리높이 부르도록 하여 南쪽에서 北쪽으로 新寧邑을 향해서 前進시킨 뒤 다시 조용히 원 지점으로 복귀시켜 다시 北쪽으로 前進시키는 式으로 세 차례 반복시켜서, 敵으로 하여금 我軍의 대부대가 鳥林山을 공격하기 위해서 증강되는 것 처럼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 戰法이 적중하여 敵은 鳥林山을 비리고 세벽에 퇴각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연대는 鳥林山을 무난히 점령, 확보하고 계속해서 총반격작전이 시작되어 北進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 제 6 사단 제 2 연대 제 3 대대장

權五台소령

(65년 12월 17일 · 국방대학원 · 준장)

대대장으로서 전투하는 동안 가장 有效하게 使用한 것이 박격포라고 생각한다. 박격포 운용을 잘 한다면 戰場에서 敗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自信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은 戰術원칙상 너무나도 自明한 일로서 再三 강조하고 싶은 말이며, 당시 우리는 전술원칙에 입각해서 부대를 지휘하고 작전을 수행하였느냐 하면, 그렇지 만도 아니하였고, 작금 지휘관이나 장병들이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만으로 전부 용감했었다는 것은 잊혀지지가 않는다.

◇ 제 6 사단 제 2 연대 제10중대장

金世暾중위

(66년 7월 15일 · 제 1 군사령부 · 준장)

新寧부근 鳥林山전투가 치열할 때 나는 제 2 연대 제10중대장으로 전투에 참전하고 있었는데, 제 3 대대장 權五台소령은 9월 초순 전투 중 부상으로 後送되었고, 後任으로 宋大厚소령이 연대 정보주임으로 있다가 제 3 대대장으로 부임해 왔다. 宋大厚소령이 연대 정보주임으로 있을 때 수색대원 2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대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색대원 20명을 대대로 데리고 와서 全員을 우리 제10중대에 보충해 주었다. 그래서 제10중대는 용감하고 전투경험이 풍부한 수색대원 20명과 학도병 50명, 그리고 중대 기간사병 50명, 도합 120명으로 편성되었다. 소대장은 장교가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1개 소대는 고급 하사관으로 하여금 소대장 대리근무를 시키고 중대장인 내가 직접 지휘하도록 하였다. 장비로써는 정기관총 2정, 60mm 박격포 2문, 2.36 inch 로켓트포 3문, 기타 M1 소총과 칼빈소총으로 장비되어 있었다.

9월 초순경 鳥林山 爭奪戰이 치열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때 기관총을 쉴사이 없이 계속 사격을 하게 되니까, 銃列이 불덩이리 같이 빨갛게 되면 오줌으로 銃列을 식히서 다시 사격을 하였는데, 세벽이 되어 동이 텄을 때는 敵이 鳥合之卒이 되어 퇴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추격하면서 계속 사격을 가하였다.

이때 포로를 잡고 보니 대부분 서울 출신의 소년들로서 義勇軍으로 끌려 나왔다는데, 애처러워 눈물이 나고 불상한 생각이 들었다. 부상을 당한 소년들을 치료해 주었고, 全員 後方으로 안송한 일이 있었다. 鳥林山에서 10여일간의 싸움을 하고 仁川 상륙작전이 성공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는 곧 이어 총반격작전을 시작하였다.

8. 原州-橫城—春川 進擊戰 (50년 9월 30일부터 50년 10월 6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4, 15 호
상 황 도 제10, 11, 12호
작명부록 제 3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我軍	
제2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2대대 장 중령	金 鍾 洙
제6사단 장 준장	金 鍾 五	제3대대 장 중령	印 聖 浩
제2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제19연대 장 대령	金 益 烈
제1대대 장 대위	石 順 天	제1대대 장 소령	許 容 尤
제2대대 장 소령	文 正 植	제2대대 장 소령	金 旭 鎏
제3대대 장 소령	宋 大 厚	제3대대 장 소령	朴 徹
제7연대 장 대령	林 富 澤	지원부대	
제1대대 장 중령	金 龍 培	제16포병대대 장 소령	金 堅
敵軍			
제2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나. 전투 전의 개황

제6사단은 9월 24일 死鬪의 反復 끝에 新寧 北쪽 鳥嶺山을 탈취한 다음, 계속 추격을 단행하여 9월 29일에는 丹陽—忠州線을 따라 敵을 격파, 北上하였는데 당시, 陸本 作命 제199호(작명부록 제3호)에 의거하여 京仁지구와 京釜線을 따라 北進하는 我軍과 UN軍의 진격에 호응하면서, 담당지역 내의 敵을 擊破하고, 忠州—原州—橫城—春川線으로 급속히 진격한 然後에 부대정비를 끝마치는 즉시로 38°線의 돌파를 준비키로 하였다.

한편 敵은 我軍의 총반격전이 시작되면서 부터 戰勢를 挽回코자 온갖 발악을 다하였으나, 我軍의 怒濤같은 총진격에 부닥쳐 戰線을 再整理할 여유도 없이 다만 北쪽으로 一路 敗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我軍의 急進하는 足跡에 걸려 潰走하면서도 그 一方으로는 산발적인 저항을 企圖하여 거물어져 가는 戰勢를 최대한으로 扶持하여 보려고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6사단(장, 金鐘五준장)은 陸本 作命 제199호(作命附錄 제3호)에 의거하여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와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 그리고 제19연대(장, 金益烈대령) 順으로 原州—春川線을 진격하여 春川근방에서 재편성을 끝마친 다음, 次期작전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기로 하였다.

당시 陸本作命 제199호의 要旨에 이르기를 『제6사단은 堤川—周浦里—原州軸線으로 春川까지 계속 進擊한 다음, 春川근방에서 재편성,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次期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라고 하였다.

(2) 작전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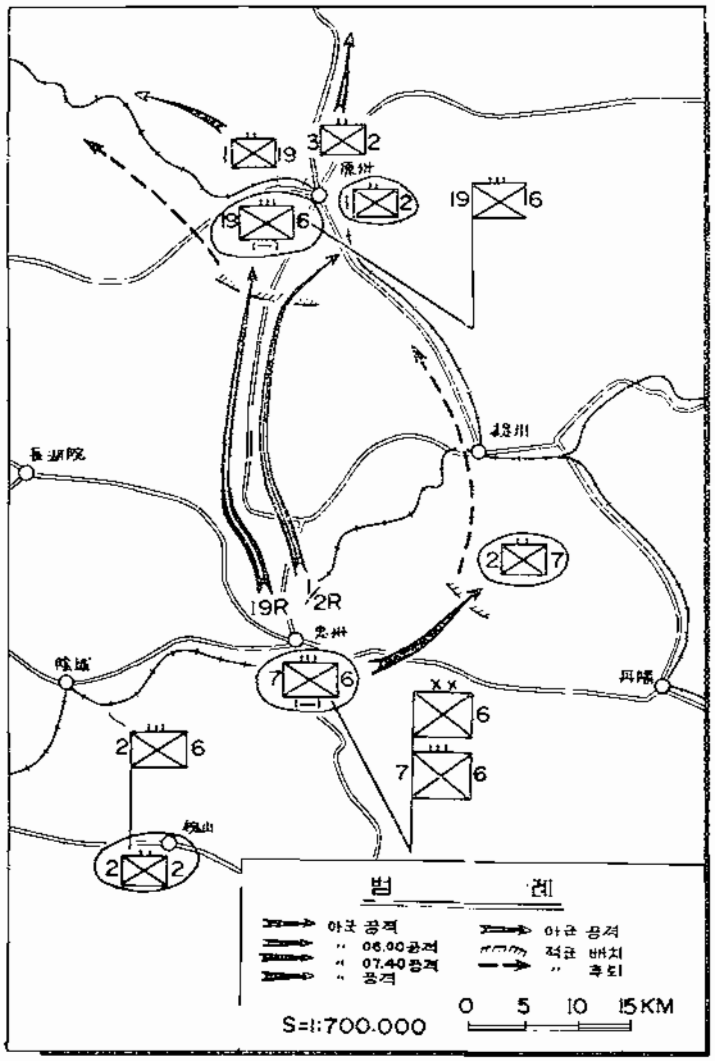
9월 30일 : 제2연대 제1대대(장, 石順天대위)는 이날 07.00에 忠州를 출발하여 敵의 저항 병력을 驅逐하면서 이날 24.00에 原州市內에 돌입하였고, 제2대대(장, 文正植소령)는 08.00에 光德里(忠北 槐山 南쪽)를 徒步로 출발하여 14.00에 槐山까지 진출하여 집결한 다음, 부대를 재정리하였으며,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는 연대 선발대로서 이날 11.00에 原州까지 挺進한 다음, 市內에 흩어져 있는 敵의 패잔병에 눈 돌릴 사이도 없이 계속 北進하여 16.00에는 이미 橫城까지 진출하였다.

제7연대 제1대대(장, 金龍培중령)는 忠州에서 부대정비를 하면서, 다음 진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金鍾深중령)는 07.00에 차량편으로 忠州에서 淸風으로 진격하던 중 10.00, 淸風부근에서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敵 패잔병을 격파, 분산시키고, 淸風일대를 점령한 다음, 주변의 수색,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연대 예비대인 제3대대(장, 印鳳鎬중령)는 15.40에 武陵里(忠州 東南쪽 km)를 출발하여 16.30 忠州까지 진출한 다음, 계속 진격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제19연대(장, 金益烈대령)는 이날 06.00 忠州를 출발하였는데, 선발대인 제1대대(장, 許容尤소령)는 11.20 雲溪里를 경유, 陽平쪽으로 진격 도중 14.00에는 原州까지 진출하였으며, 이곳에서 敵 패잔병 80여명을 포착하여 全員 포로로 하였다. 연대는 예비연대로서 原州 외곽지대에 집결하여, 다음 진격을 위한 부대정비와 외곽지대 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

10월 1일 : 제2연대 제1대대(장, 石順天대위)는 이날 06.00에 原州를 출발하여 24.00에 洪川까지 진출하였고, 제2대대(장, 文正植소령)는 07.00에 槐山을 출발하여 忠州까지

상황도 제10호 原州, 橫城, 春川 진격전 (50. 9. 30.)



진출한 다음, 앞서 진격 중이던 제1대대와 제3대대를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 재정비를 재촉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는 연대 先鋒隊로서 06. 00, 橫城을 출발하여 10. 00에 洪川까지 진격한 다음, 12. 20에 계속 春川 쪽으로 急進하던 중 東山面 原昌里 부근에서 北쪽으로 패주하고 있는 1개 중대규모의 敵을 포착하여 대대 全火力을 집중함으로써 이 敵을 모조리 격파, 분쇄하면서 그 뒤를 따라 春川까지 一擧에 진격하였다.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전날에 계속하여 原州쪽으로 前進하면서 周邊에 흩어진 패잔병을 격멸, 또는 축출하였는데, 제1대대(장, 金龍培중령)는 原州 南쪽 南松일대에서 敵 패잔병으로 부터 不意의 기습을 받게 되자, 대대 全 병력을 부근 高地일대에 展開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으므로, 敵은 대항할 意思를 버리고 패주하기 때문에 계속 추격하였고, 또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는 이날 10. 00에 淸風을 출발하여 13. 30에 忠州로 되돌아 왔으며, 제3대대(장, 印聖琯중령)는 이날 07. 00에, 徒步로 忠州를 출발하여 原州 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연대본부는 14.00 思州로부터 原州로 약진하여 여기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제19연대 제3대대(장, 朴敞소령)는 06.00 原州로 부터 橫城을 경유, 12.50 龍頭里(橫城—洪川중간)까지 전격하여 부근에 잠복 중인 敵 패잔병을 탐색하여 10여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13.30에 龍頭里를 출발하여 16.00 楊平까지 진격하였는데, 이 부근에서 1개 대대규모의 敵으로 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대대는 즉시 전투태세를 갖추고 敵陣을 正面으로 돌파하여 이 敵을 分斷, 격파한 다음, 楊平邑內까지 진격하고 四周경계에 임하면서 부대를 재정비하였다. 제2대대(장, 金旭篆소령)는 사단 예비대로서 사단 사령부와 같이 原州에서 周邊경계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1대대(장, 許容尤소령)는 文幕—楊平 중간 지점에서 1개 대대규모의 敵과 치열한 교전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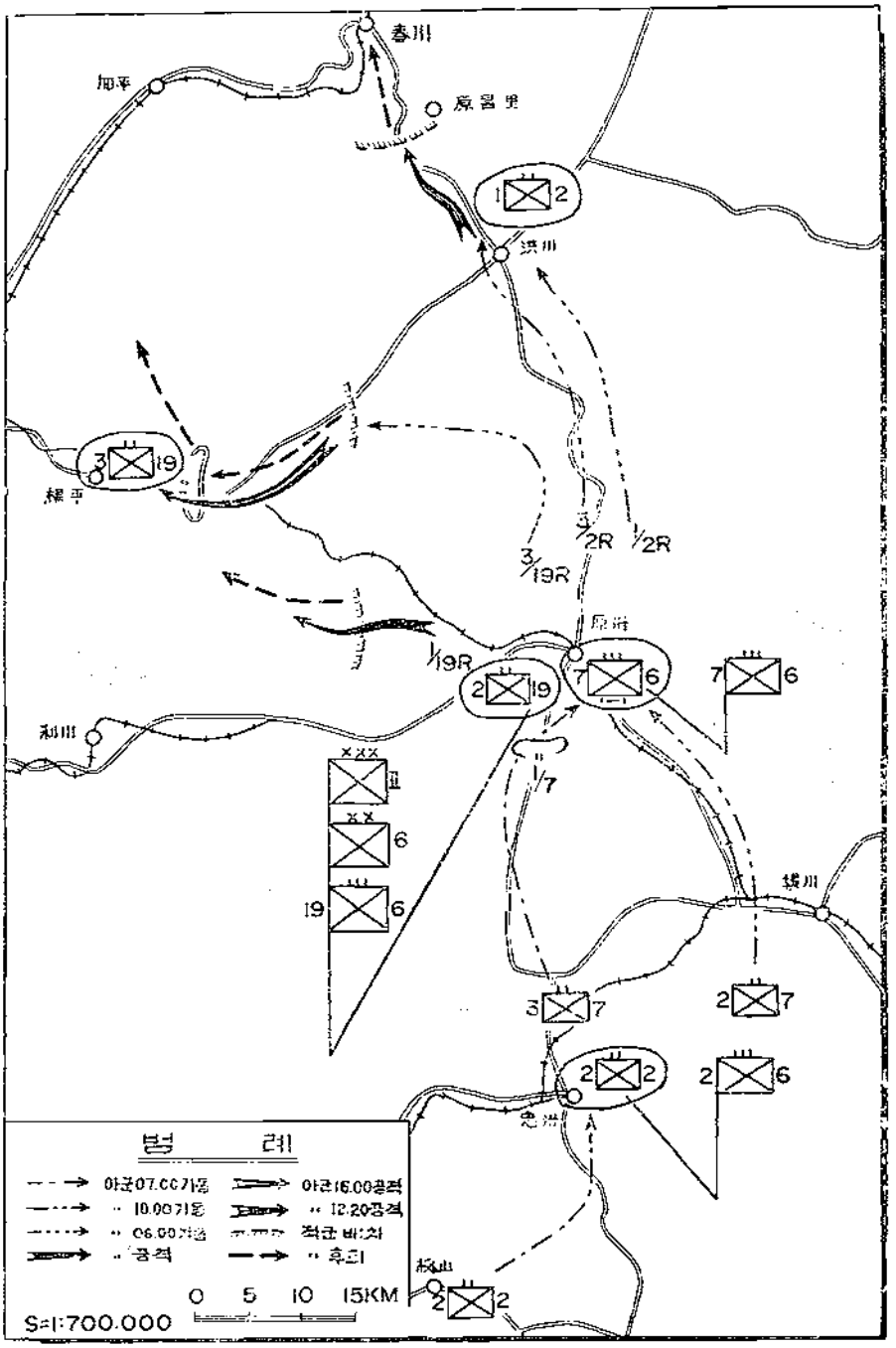
이 무렵 原州와 堤川에서 고립상태에 빠진 敵 제2군단(장, 중장金武亭)의 패잔병은 血路를 타개하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었으며, 敵은 單一路인 原州—堤川間의 道路를 따라 原州쪽으로 패주할 기세였는데, 이와같은 상황을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으로부터 無電보고를 받은 군단장 劉載興소장은 즉시 제6사단장에게 堤川으로 부터 原州로 넘어오는 고개에 병력을 배치하여 패주하는 敵을 섬멸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던 이날 밤 제2군단 사령부와 제6사단 사령부는 堤川—原州 사이에서 出沒하고 있던 敵 제2군단의 일부 패잔병으로 부터 不意의 기습을 받았으나, 곧 基幹병력을 풀어서 이 敵을 보는데로 擊滅하여 버렸다. 이때 原州市內에 來襲한 敵은 2,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하여 市民 1,000여명과 美軍장교 5명이 虐殺되었다.

10월 2일 : 지난 밤 24.00 洪川까지 前進한 제2연대 제1대대(장, 石順天대위)는 洪川부근의 수색 경계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文正植소령)는 14.00에 原州로 부터 洪川쪽으로 前進 중이었고,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는 春川 쪽으로 진격하던 중, 春川 南쪽에서 北으로 패주하고 있는 敵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포착하여 즉각 機動부대를 展開토록 하여 이 敵을 一網打盡케 하여 支離滅裂 상태에 빠뜨리게 하면서 뒤 따라 13.00에 春川市內에 돌입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敵의 細胞戚力을 剔抉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제2연대(장, 成炳善대령)의 진격을 직접지원하고 있는 제16포병대대(장, 金 聖소령)의 1개 포대는 연대의 진격을 더욱 근접 지원하기 위하여 砲 陣地를 春川부근까지 推進하였다.

제7연대 제1대대(장, 金龍培중령)는 이날 02.00에 原州 南쪽 537.2高地에서 敵 1개 중대규모의 패잔병과 접촉하여 이 敵을 가볍게 격파하면서 原州 쪽으로 진격 중이었으며, 제

상황도 제11호 原州—橫城—春川 進擊戰 (50. 10. 1)



2대대(장, 金鍾洙중령)는 전날에 계속하여 原州로 진격한 다음, 집결하여 自體경계와 부대

정비에 임하고 있었고, 제3대대 (장, 印鳳琯중령)는 연대본부와 같이 原州를 경유한 다음, 16.00에는 이미 橫城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제19연대 제1대대(장, 許容尤소령)는 06.00에 文幕 부근에서 저항하는 敵을 격파하면서 뒤따라 楊平까지 진격한 다음, 제3대대(장, 朴敬소령)와 협동으로 楊平 周邊의 遠距離 수색, 정찰을 실시하고 있었다. 12.00에 이르러 제1대대와 제3대대는 四周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楊平으로 부터 龍門—龍頭를 경유하여 18.00에 洪川으로 前進, 집결하였다. 제2대대(장, 金旭鎭소령)는 사단 사령부와 같이 原州를 출발하여 19.00에 洪川까지 前進하므로써 연대 전 병력이 모두 洪川에 일단 집결하게 되었다.

10월 3일 : 제2연대 제1대대는 洪川지역의 외곽경계를 담당하던 차 이날 09.00에 이곳을 출발하여 14.00에 春川까지 진출하였으며, 제2대대(장, 文正植소령)는 洪川—春川사이를 계속 前進하였고,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는 전날 春川市內에 돌입하여 春川 외곽지대 경계에 임하면서 38°線 돌파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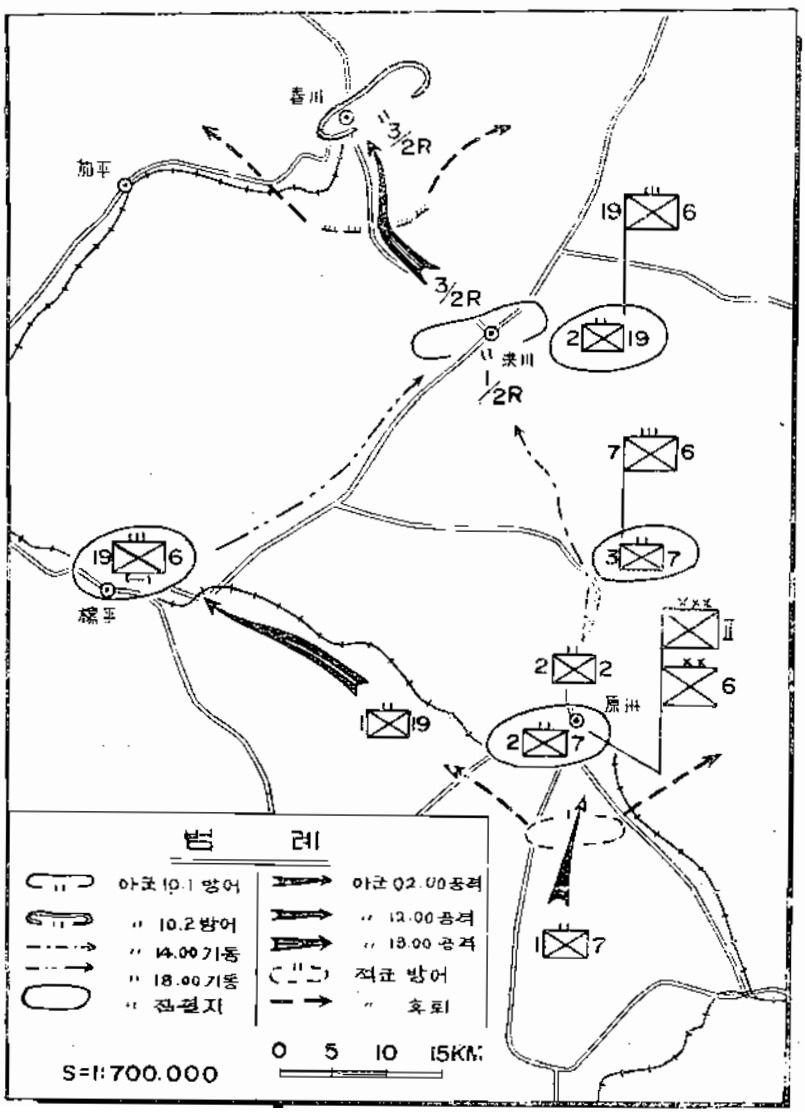
제7연대 제1대대(장, 金龍培중령)는 전날 原州 南쪽에 있는 537.2高地에서 敵 1개 중대 병력을 격파하고, 이날 아침 07.20에 原州를 경유, 洪川까지 前進하여 제2대대의 뒤를 따라 17.00 春川 쪽으로 前進 중이었으며,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는 연대 선발대로서 春川 쪽으로 前進하던 중 1개 소대 병력으로 추산되는 敵의 저항을 받았으나, 이 敵을 단 一擊으로 격파한 다음, 14.50에 隊伍堂堂하게 春川市內로 들어갔다. 제3대대(장, 印鳳琯중령)는 당시 春川까지 진출한 제2대대로부터 수송용차량이 되돌아 올 때까지 橫城에 집결하여 부대를 다시 정비하고 있었다.

한편, 연대 수색중대는 이날 동이 틀 무렵 昭陽江을 건너 38°線을 향해서 急進한 다음, 北漢江의 毛津橋(一名 38橋)까지 진출하였다, 그런데 이 毛津橋 北쪽 高地에 이미 배치되어 있던 敵은 흰 천으로 『환영! UN軍, 국방군.』 『李承晩박사 만세!』 『우리는 敵이 아님, 건너 오시오!』 『총부리를 北쪽으로 돌리자!』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我軍에 귀순할 뜻을 표하고 있었다. 중대장 朴대위는 즉각 중대원을 北漢江 北쪽 高地로 진격시켰다. 敵 소대장(소위 李敬南, 敵제26여단 중화기 제3대대 제1중대 제3소대)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대원 전원이 귀순한다고 하였다. 이때 소위 李敬南은 소대원 41명을 거느리고 귀순하였으며(나의 人民軍 脫出記, 李敬南 著참조), 이로 인해서 華川 부근의 敵情에 대한 첩보수집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연대본부는 제2대대의 진격에 따라 春川까지 약진

하였다.

제19연대 主力은 洪川 周邊 경계에 임하고 있었으며, 연대의 제3대대(장, 朴 敬소령)는 春川 쪽으로 전진하던 중 進擊路가 협소하므로 부대간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연대장 명령으로 洪川까지 다시 되돌아 가서 집결하였다. 전날까지 原州에 머물러 있던 제6사단사령부는 예하 각 연대의 진격에 따라 洪川으로 이동하였고, 제2군단 사령부는 楊平을 경유, 首都 서울로 전입하여 그 지휘소를 普成中學校 構內에 설치하였다.

상황도 제12호 原州—橫城—春川 進擊戰 (60. 10. 2)



10월 4일 : 제 2연대 제 1 대대(장, 石順天대위)는 이날 17.00 昭陽江을 渡河하여 말고개(春川 西北쪽 18km지점)를 목표로 진격하면서 패주하는 敵의 뒤를 따라 계속 격파하고, 北漢江의 毛津橋를 境界로 敵과 對陣하여 교전 중이었다. 이로써 제 6사단 先鋒隊인 이 대대는 毛津橋만 건너 선다면 5년간이나 수 많은 사람의 피 눈물을 짜 내게 하였던 恨 많은 38°線을 무너뜨리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 오게 되는 것이었다. 한편 제 2 대대(장, 文正植소령)는 13.00에 차량으로 原州를 출발하여 洪川을 경유해서 春川 쪽으로 急進 중이었으며, 제 3 대대(장, 宋大厚소령)는 春川 부근의 외곽경계와 수색임무에 임하고 있었다.

제 7연대 제 1 대대(장, 金龍培중령)는 春川市內에 집결하여, 다음 진격을 위한 부대정비 중이었으며, 제 2 대대(장, 金鍾洙중령)는 16.00 현재로 春川市內를 瞰制할 수 있는 春川 南쪽 수리峰과 652.1高地를 점령, 확보하면서, 계속 出沒하는 敵 패잔병에 의한 반격, 또는 기습에 대비하였다.

제19연대(장, 金益烈대령)는 洪川에 집결하여 부대정비 중인 제 1 대대(장, 許容尤소령)로 하여금 加平—春川間의 京春街道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날 16.00에 차량편으로 洪川을 출발케 하여 加平 쪽으로 前進토록 하였는데, 대대는 진격 도중 15.00에 이르러 敵 패잔병 100여명으로 부터 기습을 받았으나, 대대장은 곧 부대를 수습하고, 이 敵을 일제히 격파하는 즉시로 계속 加平 쪽으로 前進하였고, 제 2 대대(장, 金旭篆소령)는 洪川지구 경계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연대 본부와 제 3 대대(장, 朴 敏소령)는 11.00에 洪川을 출발하여 16.00까지 春川에 진출하여 자체경계와 부대 정비에 임하고 있었다.

〈38° 線 以北 進擊 第1步〉

사단 사령부는 사단 主力의 진격에 따라 17.00 洪川으로부터 春川으로 前進하였으니, 모든 戰勢가 大河를 決하듯이 順調로웠으며, 可謂乘勝는 長驅의 한 戰例로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10월 5일 : 말고개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던 敵은 제 2

연대 제 1 대대(장, 石順天대위)의 騎虎之勢와 같은 공격으로 支離滅裂되기에 이르러 다만 北쪽을 향하여 패주하는데 분주하였고, 대대는 15.00 말고개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38°線에서 최후발악을 시도하던 敵을 완전히 분쇄하고, 38°線을 넘어 서는 첫 발을 내 디딘 것이다. 전날 차량으로 原州를 출발한 제 2 대대(장, 文正植소령)는 春川을 경유하여, 이날 새벽에 春川 北쪽 龍山洞까지 진출하였고, 제 3 대대(장, 宋大厚소령)는 계속 春川 외곽경계에 임하면서 부대를 정비하였으며, 곧 이어서 제 1 대대와 제 2 대대의 뒤를 따라 말고개 쪽으로 前進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제 7 연대(장, 林富澤대령) 제 1 대대(장, 金龍培중령)는 이날 05.00에 차량편으로 春川을 출발하여 書院(春川 西北쪽 17mk)까지 진출하였는데, 芝村里(北漢江 毛津橋 西北 쪽) 高地에서 敵 1개 대대규모의 병력과 不時에 부닥치게 되어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제 2 대대(장, 金鍾洙중령)는 연대 예비대대로 08.40에 수리峰으로 부터 春川을 경유, 仁嵐里(春川 北쪽 16km)를 향하여 제 1 대대의 뒤를 따라 前進 중이었다. 또한 제 3 대대(장, 印聖瑄중령)는 차량으로 급속히 前進하여 春川을 경유, 芝村里로 진출하였으니, 모든 隊勢가 一糸不亂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 한편 제19연대 제 1 대대(장, 許容尤소령)는 加平까지 진출하여 周邊경계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 2 대대(장, 金旭鎭소령)는 洪川지구 경계를 계속하고, 제 3 대대(장, 朴徹소령)는 연대 본부와 같이 春川에서 次期작전을 위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다.

10 월 6 일 : 제 2 연대 제 1 대대는 말고개를 점령, 확보하고, 다음 진격을 위한 수색정찰을 계속하면서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 2 대대는 07.00 春川 文頭洞을 출발하여 12.30 史北面 熊日里까지 진출하였고, 제 3 대대는 07.00에 龍山洞을 출발하여 11.00까지에는 이미 仁嵐里에 진출하였다.

제 7 연대 제 1 대대(장, 金龍培중령)는 전날에 이어 芝村里 東北 쪽 高地에서 敵 1개 대대와 계속 교전 중이었으며, 제 2 대대(장, 金鍾洙중령)는 전날 九萬里발전소를 급속히 점령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을 받고, 2일분의 식량과 실탄을 휴대시키고 楣陰里를 경유, 山을 타고 진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楣陰里 뒷山에서 敵 1개 대대와 조우하자 一擊에 격파하고,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한 다음, 제 6 중대로 하여금 山을 타고 九萬里발전소 쪽으로 急進시키고, 대대 主力은 道路를 따라 진격하였다. 그런데 제 6 중대의 진격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九萬里발전소 앞 고개에서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으나, 대대는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여

고개를 넘어서자 제6중대는 山을 타고 이미 九萬里발전소를 점령할 단계에 있었다. 대대는 이날 아침 九萬里발전소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敵이 철저히 파괴하려고 벼르던 이 九萬里 발전소는 제7연대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의 전격적인 진격으로 무사히 점령, 확보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敵 포로 200여명을 잡았다.

또 제3대대(장, 印聖珀중령)는 11.00에 芝村里로 부터 史倉里 東쪽에 있는 龍岩里까지 진출하였으며, 연대본부는 이날 春川에서 芝村里까지 약진한 다음, 작전全般을 통제한 바 있었다.

제19연대 제1대대(장, 許容尤소령)는 전날 저녁 加平까지 진출하여 제1중대로 하여금 加平邑內와 京春街道 경계를 전담토록 하는 동시에 대대 主力은 清平 쪽으로 南進하여 서울 쪽에서 北上하는 美 해병대와 합세하게 되었는데, 서로 감격하여 얼싸 안고 기뻐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美 해병대와 합동으로 清平댐과 周邊일대 경계에 임하였는데, 당시 연대 主力은 春川까지 진출하여 사단 예비대로서 다음 진격을 위한 부대정비를 하면서 次期 작전명령을 一刻千秋로 기다리고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9월 24일 鳥林山을 탈환하고 一路 38°線을 향해서 무제한 공격에 돌입한 제6사단은 桃源洞—咸昌—忠州線을 따라 급진적인 진격을 계속하여, 10월 1일 原州市에 돌입하였는데, 이 무렵 新寧부근으로부터 퇴주하는 敵 제2군단(장, 金武亭)의 패잔병은 堤川—原州사이에서 아직 戰線을 정리하지 못한 채, 北쪽에는 제6사단이 原州를 점령하였고, 堤川에는 제8사단이 原州를 향해 진격 중이므로 敵은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어 血路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후발악을 하고 있었다. 제6사단은 이 敵을 外面한 채로 계속 北進하여 橫城—洪川—春川線으로 진출하였는데, 제2연대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는 10월 2일 13.00 春川市에 돌입하였다. 연대는 부대정비를 할 사이도 없이 말고개를 향해 진격을 계속하여 10월 5일 말고개를 점령, 38°線을 돌파하게 되었고, 한편 제7연대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는 10월 6일 12.00 九萬里발전소를 점령하였으며, 이로써 제6사단은 恨 많은 38°線을 돌파하고 계속 北進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렵 右翼 제1군단 제3사단은 38°線 以北, 通川을 탈환하고 元山 南쪽 48km 지점까지 진격하였고, 제2군단 예하 제8사단은 10월 3일 首都 서울에 入城한 뒤, 10월 6일에는 漣川 南쪽 38°線까지 진격하여 계속 漣川—鐵原方向으로 진격 중이었다.

제6사단은 38°線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金化, 金城, 平康 등지를 거쳐 元山 쪽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 戰 訓

◇ 有備와 無備

각급 부대는 自體警戒의 중요성에 대하여 恒時 留意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함은 再論할 필요가 없다. 특히 自體防衛능력이 희박한 지휘본부는 예비대, 또는 본부요원으로 하여금 自體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진격의 속도가 부대간에 경쟁하듯이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패주하는 敵이 我軍 진격부대보다 뒤지고, 퇴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야간에 原州市를 통과해서 패주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後續부대로 부터 無電으로 보고를 받고도 이에 對應하는 경계태세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령부가 기습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한편 패잔병의 퇴로를 차단하여 포위, 섬멸하기 위한 야간 부대배치를 道路邊이나 와지선에 하지 않고 高地 위에 병력을 配置하였기 때문에, 은밀히 道路를 따라 퇴각하는 敵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결국 敵은 무난히 包圍網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연구되고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 參戰者의 證言

◇ 제 2 군단 작전참모 李周一대령

(67년 2월 24일 · 감사원장 · 예 · 대장)

우리 제 2 군단 사령부가 原州에서 敵 패잔병으로 부터 기습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때 제 2 군단 예하 사단은 제 6 사단과 제 8 사단으로서 제 6 사단이 主力부대로써 앞 서 진격하고, 제 8 사단이 뒤따라 진격하고 있었다. 그런데 군단 사령부가 原州까지 전진해서 지휘소를 정하고, 敵 패잔병으로 부터 不意의 기습을 받은 것은 결국 군단 작전참모인 내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군단 사령부가 安東으로 부터 전진하게 되었는데, 출발전의 계획으로서는 忠州로 前進하도록 하고 前進 도중, 예하 제 6 사단은 예하 제 2 연대가 이미 原州를 경유하여 春川 쪽으로 진격 중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 제 8 사단은 堤川에서 敵의 저항을 받아 진격이 늦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군단장 劉載興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군단 사령부를 忠州에 위치할 것이 아니라 原州까지 전진할 것을 건의하여 결국 군단 사령부는 10월 1일 原州까지 前進하였다. 그런데 神林里 일대에 있는 敵 제 2 군단은 我軍이 급속도로 진격하였기 때문에 퇴로가 차단되고 南쪽에서 제 8 사단이 진격해 오기 때문에 敵은 고립되게 되었는데, 퇴로를 타개할 길이 없이 밤에 原州市內를 통과해서 패주하면서 군단 사령부를 기습하였다. 그때 美軍 고문관 5명이 戰死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敗戰에 관한 연구로 발미암아 戰勝에 관한 연구와 같은, 때로는 보다 많은 敎訓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제 6 사단장 金鐘五준장

(65년 3월 4일 · 합동참모본부의장 · 대장)

제 6 사단은 原州市內에서 橫城—洪川 쪽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사단 사령부는 原州市內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敵은 神林里와 雉岳山사이에 전차 10여대를 보유한 1 개 사단 병력으로 추산되는 부대로써, 金武亭부대인지 金 策부대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곳이 平野지대라고 하면 敵이 패주하는데 容易했을지 모르나 험준한 山岳지대이기 때문에 길은 하나 밖에 없고, 原州市가 我軍의 점령 아래 있다 하더라도 敵은 血路를 타개하면서 原州市를 통과해서 패주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15.00 이상한 분위기가 市內에 퍼졌고, 나는 原州경찰서장실에서 군단장 劉載興소장과 함께 저녁식사

를 하고 있었는데, 군단 참모장 李翰林준장이 들어 왔다. 군단 참모장은 군단장에게 보고하기를, 市內 분위기가 이상하고 市街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原州市內 경계임무를 전차 공격대대와 제7연대 본부중대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敵이 퇴로를 개척하기 위한 방법으로 民間服裝으로 변장한 便衣隊를 原州市內에 침투시켰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우리는 不意의 기습을 받게 되었는데 敵이 갑작스럽게 총을 쏘아 彼我間에 亂射戰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대를 수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所要되었다.

◇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

(65년 3월 9일 · 서울 城北區 東仙洞 자택 · 예 · 소장 · 대기대사)

우리 제8사단은 原州市內로 진격하였을 때, 군단장으로 부터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原州市內로 진격하였는데, 그때 군단장 劉載興소장은 마루에 앉아서 기분이 좋지 못했고, 군단 참모장 李翰林준장이 나에게 "왜 좀 빨리 진격해 들어오지 않았는가?"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아니 누가 빨리 진격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原州市內로 진격해 들어 왔겠읍니까? 敵이 있는데 敵을 격파하면서 진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우리가 報告한 내용을 報告 받았읍니까?"라고 하였더니 틀림없이 報告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부대를 배치해서 敵 패잔병의 主力을 섬멸할 수 있었을 텐데…" 하였더니 부대는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부대를 高地 위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전술원칙상 불합리한 것으로서 야간에는 道路邊이나 개활지에 병력을 배치하므로써 道路를 따라 퇴주하는 敵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敵을 섬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군단 참모장은 "실수했다."고 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제6사단에 지시해서 병력을 배치토록 하였는데 사단에서 병력을 배치할 때, 이와 같은 전술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憤하다고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제8사단은 이날로 명령을 받고 楊平을 경유, 首都 서울을 향해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 제6사단 제7대대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

(64년 10월 30일 대한발효 회장실 · 육군 정훈학교장 준장)

華川 九萬里발전소를 점령한 이야기를 하겠다. 敵이 九萬里발전소 댐을 폭파하고 퇴주하더라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 대대는 급속히 진격하여 九萬里발전소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8°線을 넘는다, 못넘는다 하면서 春川에서 하루 밤 부대정비를 하고, 다음 날 아침 38°線에 도달했는데, 사단에서는 우리 제7연대는 北傀가 6.25 남침을 할때 이곳에서 전투를 하였기 때문에 地形에 익숙하므로 우리 제2대대로 하여금 야간기습공격으로 九萬里발전소를 점령하라는 명령이었다.

2일분의 식량과 실탄을 휴대하고, 山을 타고 梧陰里를 경유해서 진격하는데 날이 세기 시작할 무렵 梧陰里 뒷山에서 1개 대대병력으로 추산되는 敵과 조우하여 이 敵을 一擊에 격파하고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한 다음, 제6중대는 山을 타고 진격하도록 하고 대대 主力은 道路를 따라 急進시켰다. 그런데 제6중대가 어느 지점까지 진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고개를 넘어 서니까 敵의 저항이 意外로 완강하였으나, 제6중대는 이미 고개를 넘어 九萬里발전소를 점령할 단계에 있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치열한 攻防戰이 있은 뒤 대대는 九萬里발전소를 완전히 점령, 확보하였다.

이곳은 우리 공군이 폭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敵 보급품의 지장소로 되어 있었고, 우리 대대는 이곳에서 5일간 부대정비를 하였다. 그런데 敵은 땔을 폭파할 계획으로 폭파장치를 해 놓고 있었다. 우리 대대가 九萬里발전소를 점령한 다음, 연대 정보주임 金東明소령이 九萬里발전소 점령與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L-19 경비행기를 타고 九萬里발전소 上空까지 왔는데, 無電 교신으로 우리 대대가 九萬里 발전소를 점령,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가다가 高壓線에 접촉되어 비행기가 추락하였다. 조종사는 현장에서 戰死하고 연대 정보주임 金東明소령은 서울 병원까지 後送되었는데 후에 戰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제 6 사단 제 2 대대 제 10 중대장

金世曦중위

(66년 7월 15일 · 제 1 군사령부 정보참모 · 준장)

우리 제 2 연대가 原州로 진격하는데 제10중대는 先頭중대로 진격하고 있었다.

原州로 진격하던 중 南쪽 高地에서 敵 패잔병 500여명으로 부터 不意의 기습을 받았다. 우리 중대는 10여대의 차량으로 급속도로 진격하고 있는데 캄캄한 밤에 갑작스럽게 기습을 받게 되어 나는 진 중대원을 즉각 차량에서 下車시킨 다음, 부근일대에 배치하고, 나는 20여명의 장병들을 지휘하여, 앞에 언덕이 있는 곳까지 나가서 敵情을 살피 보았으나, 확실한 敵情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 내가 판단하기에 그대로 진격을 계속한다는 것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결심하게 되어 대대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 다음, 중대원을 道路 주변과 부근 일대에서 毛布를 쓰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敵은 퇴주하고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진격을 계속하려고 하는 순간, 앞에서 불덩어리가 "휭"하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나는 敵의 火力을 발견하고 敵情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각 전 중대원으로 하여금 正面으로 돌격하도록 하여 敵을 격멸하고, 계속 原州 市內까지 돌입하였다.

原州市內에 돌입하여 보니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밥을 지어주면서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는 시민도 있었다. 이때 나는 중대원들에게 시민들이 지어준 밥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였는데, 한 젊은 청년이 자기가 먼저 먹어 보이고 나서 위험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에 나는 중대원들에게 먹어도 좋다고 지시한 일이 있다. 原州에서 더 머물러 있을 여유도 없이 계속 橫城—洪川—春川 쪽으로 진격하였는데 제 6 사단 제 2 연대가 제일 先頭로 38°線까지 진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제10중대가 제일 先頭로 38°線까지 진격하였다.

◇ 前 北傀軍 제26여단 중화기 제 3 대대

제 1 중대 제 3 소대장 李敬南소위

(71년 9월3일 · 현대경제일보 및 일요신문사 편집국장 대리 · 에 · 종위)

전쟁이 발발하던 1950 년 6 월 25 일. 나는 平壤 사범대학 국문과에 재학 중이었다. 平壤 비행장 바로 옆에 대학이 있었고, 軍 장비를 滿載한 列車가 나의 하숙집 앞을 매일같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긴박한 戰雲을 피부로 느낀 나는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고향으로 도망쳐서 隱身해 버릴 心算을 굳히고 있었다.

마침내 北傀軍의 南侵이 시작되자 大學民青委員會는 全校生을 소집, 所謂 "人民軍 지원 궐기대회"를 열었다, 강제로 連署名을 마친 나는 하숙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짐을 쌌다.

다음날 기독교 信者인 同級生 (女大生)이 학부장실에서 歸鄕證을 훔쳐다 주어 그것을 방패 삼아 2百里길을 徒步로 달렸다. 그러나 고향의 隱身處도 안전한 곳은 못 되었다.

대학 당국에서는 軍에 입대하지 않고 행방을 감춘 학생들의 연고자로 수색의뢰를 해 온 것이었다. 내가 입대를 기피하고 어디엔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된 이상, 가족들만 困辱을 치르게 되었다.

나는 할 수 없이 平壤으로 돌아 가 대학당국에 자수했다. 때마침 北傀軍은 洛東江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므로 所謂 자수자에 대한 寬容策을 쓴다면서 美林里에 있는 軍官學校로 보내는 것이었다.

지원 입대한 대학생들은 少尉에서 少佐까지 즉석 일관시켰지만 나와 같은 도망자는 軍官學校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8월 10일부터 한달동안 속성훈련을 마치자 黃海道 南川에서 막 편성 중인 제26여단으로 배속되었다.

重火器 제3대대 제1중대 제3소대장이 된 나는 漣川에서 주로 방어전투 훈련을 하게 되었다. 八路軍 出身인 대대장은 "人民軍이 곧 全 국토를 해방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공격 아닌 방어전투만 익히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非黨員인 나는 겨우 高校재학생이면서 黨員이란 명목 때문에 중대장이 된 어린 上官을 거의 손아귀에 넣고 주무를 수 있었다.

9월 20일경이었다. 北傀軍 제26여단은 38°線으로의 이동명령을 받았다. 내가 소속한 重火器 제3대대는 南川에서 新溪—伊川—鐵原—金化를 거쳐 華川으로 야간행군을 강행하여, 9월26~27일에 38°線 가까이 布陣을 완료하였다.

행군도중 洛東江 戰線에서 패주해 오는 北傀軍으로부터 UN軍의 仁川 상륙작전과 金鎭 前線사령관의 철퇴명령 소식을 들었는데 제26여단의 임무는 韓國軍의 北進을 38°線에서 저지하라는 것이다. 나는 年下의 중대장에게 "우리 제3소대가 제일 訓練이 잘 되어 있었으므로 毛津橋(거의 38°線에 위치한 北漢江의 다리)를 감시할 수 있는 高地를 맡게 해 달라."고 말해 그 高地에 陣地를 구축하였다. 중대본부는 약 2km, 대대본부는 10km 後方에 있었으므로 내가 거느린 소대는 최전방에 돌출한 高地에 독립진지를 형성한 셈이었다.

9월 29일 공병대에 의해서 毛津橋가 폭파되었고 30일에는 韓國軍 수색대가 다리 南쪽에 나타났다. 폭파된 교량을 사이에 놓고 2일간의 對陣상태가 지속되었다. UN軍 飛行機의 폭격이 있었지만 나는 소대원들에게 일체의 대공사격을 못하도록 엄명하였다.

10월 3일 아침, 나는 몇일동안 구상해 온 謀叛을 단행키로 하였다.

副 소대장과 분대장등 노동당원에게 "대대본부에서 조직원 회의가 있다고 하니 빨리 가 보라."고 일렀다. 그들을 따 돌리기 위한 僞計였다.

소대안에 黨員이 한명도 없게 되자 연락병과 副 분대장들을 나의 개인호로 불러, 國軍에 투항 귀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항자는 즉결 사살할 對備도 있었지만, 다행히 그들은 전원일치로 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너무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호응을 얻은 나는 소대원을 전원 집합시켜 놓고 戰況 설명과 함께 全員 귀순할 것을 말하자 "大韓民國 만세!"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곧 베트레스 白布에 『환영! UN軍, 國防軍』『李承晩박사 만세!』『우리는 敵이 아님 걷너 오시오!』『총부리를 北쪽으로 돌리자.』등의 프라카드를 만들어 陣地 四方에 내 걸었다.

이리하여 林富澤대령이 지휘하는 제6사단 제7연대의 수색중대와 접선되어 그 어느 쪽도 한방의 총탄을 당김이 없이 41명의 소대원은 귀순에 성공하였다.

9. 架山·八公山—38°線 進擊戰 (50년 9월 16일부터 / 50년 10월 10일까지)

참조 별책부록 제16.17호
상 황 도 제 13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제1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11연대 장 대령 金 東 斌
제1대대 장 소령 金 沼
제2대대 장 중령 車 甲 俊
제3대대 장 중령 李 茂 鎭
소령 鄭 永 洪
(10.1 부터)
제12연대 장 중령 金 點 坤
제1대대 장 소령 韓 順 華
제2대대 장 소령 趙 成 來
제3대대 장 대위 柳 文 鎬
소령 金 基 容
(10.2 부터)
제15연대 장 대령 崔 榮 喜
중령 趙 在 美
(10.1 부터)
제1대대 장 소령 劉 載 成
제2대대 장 소령 李 春 一
소령 金 振 暐
(9.27 부터)
제3대대 장 소령 崔 炳 淳
소령 安 秉 健
(9.29 부터)

지원 부대
포병제17대대장 소령 朴 永 漫
美제10고사포단장 대령 William H. Hennig

병력 : 약 10,000명
장비 : 60mm박격포 44문
81mm박격포 44문
2.36 inch로켓트포 71문
3.5 inch로켓트포 26문
57mm대전차포 22문
50mm기관총 26문
105mm곡사포 18문
155mm곡사포 18문

敵軍

제2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1사단 장 소장 崔 光
제13사단 장 소장 李 益 宣
제19연대 장 대좌 文 濟 煥
제21연대 장 대좌 李 斗 燦
제23연대 장 대좌 李 承 俊

제15사단

병력 : 약 9,000명

장비 : 82mm박격포 121문
120mm박격포 4문
76mm곡사포 49문
122mm곡사포 18문
14.5mm대전차총 121정
45mm대전차포 80문
전차 3대

나. 전투 전의 개황

9월 초 我軍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大邱에 대한 敵의 最終 攻勢를 막아내기 위하여 槐山—八公山 부근에서 敵 제1사단과 처열한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었다. 당시 敵 제2군단의 釜山攻陷을 위한 총공격은 우선 大邱占領이라는 목표에 집중되어, 大邱前面 多富洞—槐山—八公山부근에서 敵 제1, 제3, 제13사단이 美 제1기병사단과 我軍 제1사단 正面의 돌파를 企圖하는 한편, 右側 新寧, 永川一帶로는 敵 제8제, 15사단이 侵攻하여 大邱를 向한 압력을 증가하였다.

이 多富洞—八公山 地帶는 海拔 902m의 槐山과 1192m에 達하는 八公山 및 그 連峰들이 늘어 선 高地帶로서, 大邱盆地를 瞰制할 뿐만 아니라 大邱까지의 거리도 15km 內外에 불과하여, 이 地帶의 我軍 前線이 돌파된다면, 大邱는 敵의 手中에 떨어지게 되고마는 重要한 位置였다. 그리하여 敵은 發惡的으로 공격을 계속하여 敵 제1사단은 槐山—道德山, 大栗洞—八公山線으로 진출한 다음, 鳥林山 地區의 敵 제8사단과 合勢하여 八公山과 新寧을 連하는 지구로 侵攻하였다.

이에 사단은 多富洞地區를 美 제1기병사단장(장, Hobart R. Gay소장)에 인계하고, 그 右側의 槐山—八公山地區로 이동함으로써 我軍 제2군단 正面을 縮少시키면서 兵力의 重點使用으로 敵의 南侵企圖를 저지키로 하였다. 그런데 9月 5日 我軍 제8사단의 방어진지가 돌파되어 敵 제15사단이 永川을 점령하였으므로, 사단은 인접 제8사단과 同一 正面을 유지하기 위하여 八公山—大栗洞線으로 이동하는 즉시로 防禦態勢를 再整理하게 되었다. 사단은 제12연대를 右一線으로하여 573高地 및 388高地 일대에, 제15연대를 左一線으로하여 583高地—384高地 및 大栗洞 南쪽 능선 일대에, 그리고 제11연대 제1대대를 사단예비대로 하며 把溪峰에 각각 배치하였고, 제11연대(—1대대)는 군단예비로 抽出되어 永川戰鬪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담당 正面을 정리한 사단은 초조한 가운데 계속 침공하여 오는 敵과 死鬪를 반복한 끝에, 9월 10일경까지 槐山地區의 敵 主力에게 그 3분의2에 달하는 兵力損失을 입히고, 그들의 南侵企圖를 挫折시켰다. 이로써 大邱외곽선은 끝내 固守되었거니와 이 싸움에서의 我軍의 勇戰奮鬪는 洛東江 中部戰線의 방어는 물론이고 총반격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9月 13日에 이르기까지 洛東江 戰線에서의 決戰병어는 실질적으로 끝나고, 반격의 기운이 무르익는 가운데 사단은 이달 13日附로 美 제1군단으로 配屬이 轉換되었으며, 사령부 위치를 大邱市 東村으로 옮겼다.

我軍의 총반격을 앞둔 이달 13~15일간의 戰線은 敵이 이미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山城一帶에서만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즉 敵 제1사단은 계속 山城에 사령부를 두고, 특히 제15연대 正面에서는 756高地로부터 655高地에 이르는 地帶에 重火器로 장비된 2개 대대의 敵

이 강력한 陣地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5연대 제1대대는 755 高地 右側의 783高地를 14일 저녁에 점령하였으며, 사단 左一線의 제11연대 제1대대(장, 金 沼소령)는 거듭된 공격 끝에 15일 저녁에 이르러 756 高地를 점령하고, 山城一角에까지 돌입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제12연대, 제15연대와 그리고 제11연대 제1대대를 右로부터 左로, 전개하여 山城 755高地로부터 783高地—大栗洞 西南稜線—昌平洞 西北方에 연하는 線에서 敵을 격파하고 있었다. 드디어 仁川上陸작전의 성공적 진행과 아울러 9월 16일 09.00부로 洛東江戰線에 총반격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사단도 제1기병사단과 협조하면서 洛東江中部線을 돌파하는 즉시로 一路 北進하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仁川上陸作戰과 아울러 洛東江線의 我軍은 9월16일 09.00을 기하여 일제히 반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의 主攻은 大邱 正面의 美 제1군단이 담당하여 大邱—水原의 京釜線을 따라 沿線의 敵을 격파하며 進擊, 京仁地方에서 南下하는 美 제10군단과 연결하도록 계획되었으며, 美 제1군단의 右翼사단인 我軍 제1사단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사단은 八公山에서 架山을 공격, 當面의 敵 제1사단을 격파하라. 그리고 美 제1기병사단과 호응하여 洛東江附近에서 助渡河를 행한 다음, 尙州를 향하여 공격을 준비하라. 그리고 美 제10고사포단은 사단의 공격을 직접지원하라.』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으로부터 作命을 받은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待望의 총공격을 시작하여 사단 前面의 敵을 격파하면서 洛東江 東岸으로 前進할 작전을 구상하게 되었다. 사단은 一部 兵力으로 西部 山城一帶의 敵을 견제하면서 사단 主力은 戰線 中央과 右側을 돌파, 西北方으로 前進함으로써 架山一帶의 敵 主力을 一擧包圍하여 격멸하고, 洛東里 海平一帶로 진격할 방침이었다. 즉 사단장은 제15연대로 하여금 山城의 敵을 견제토록하면서 山城右側을 돌파하여 敵의 진출거점을 점령하는 동시에 山城의 敵을 포위, 공격케 하고, 제12연대로 하여금 사단 右側에서 戰線을 돌파한 다음, 敵 後方으로 진출시켜 敵의 퇴로를 차단토록 하였다. 그리고 사단의 正面 15km에 대한 포병지원이 충분하므로, 永川으로부터 復歸하여 不老洞에 예비로 있는 제11연대 (—제1대대)도 大栗洞부근에 배치하여 제15연대의 前進을 지원케 하도록 하였으니, 제15, 제11, 제12의 隷下 3개연대를 重點에 철저히 統合使用키로 하려는 것이었다.

以上과 같은 師團作命 第33號에 따라 제15연대(장, 崔榮喜대령)는 제3대대를 연대 右側梯隊, 제2대대를 中間梯隊, 제1대대를 左側梯隊로하여, 架山東側에서 大栗洞 西南方 2km

에 이르는 783 高地를 비롯한 558高地와 538高地 一帶로부터 西北方에 있는 鷹秋洞—佛洞을 거쳐, 新酒幕一帶로 진격한 다음, 다시 多富洞으로 南下하여 一帶의 敵을 擊滅키로 하였다. 또 배속 제11연대 제1대대로 하여금, 騎隊左側方을 警戒, 掩護토록 하는 동시에, 山城의 敵을 공격하고 隣接 美軍部隊와의 연결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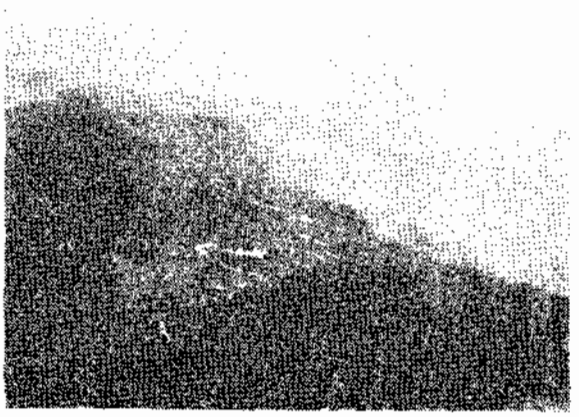
또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大栗洞 東南方으로부터 제2대대와 제3대대를 左右翼隊로 나누어 西北方 655와 381高地의 敵을 격퇴한 다음, 梅谷洞을 거쳐, 右隅洞方面으로 진격하여 多富洞—軍威, 多富洞—尙州街道를 차단하면서 天生山을 공격, 점령키로 하였다. 그리고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는 前方 軍威로 통하는 道路를 따라 敵을 격파하면서 勝軍洞 巨梅洞부근으로 깊숙히 진격하여, 多富洞—軍威間의 敵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我軍 前面의 敵을 壓迫 격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洛東江線의 돌파작전이 완수될 무렵, 美8군은 예하 제1군단에 38°線까지의 追擊명령을 下達하였으니, 그 要旨에 이르기를 『敵의 저항이 점차 弱化되니 敵中에 깊이 돌진하여 그 弱點을 타서 假借없는 압박을 가함으로써 敵의 計劃的 後退를 沮止하라. 그리고 主攻인 제1군단은 大邱—永原軸線의 공격을 계속하여 속히 제10군단과 提携하라.』는 것이었다. (8軍作命 A 第101號 參照)

이에 군단장 Milburn소장은 당초의 계획에 수정을 가하는 한편, 급속한 추격과 사단장 白善燁준장의 전투 참가요청, 그리고 兵站準備 등을 고려한 끝에 결정을 내리기를 『사단은 多富洞주변을 掃滅하고 재편성한 다음, 기병사단 뒤로 洛東江을 渡河하여 군단예비가 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洛東江線의 돌파가 완성되면서부터 軍團 예비사단이 되어 38°線까지 진격하게 된 것이다.

(2) 작전실시

(가) 槐山—八公山附近 戰鬪(9.16~9.24)

9월 16일 : 총공격의 初日인 이날, 계속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단은 09.00를 기하여 攻勢를 취하였으나, 天候를 이용한 敵의 局部的 공격과 我軍의 반격등으로 제15연대 正面에서 攻防戰이 전개되었을 뿐, 큰 진전은 없었다.



〈槐山 山城〉

즉 제15연대(장, 崔榮喜대령)는 지휘소를 屯德洞에 두고 전날에 이어 제3대대(장, 崔炳淳소령)가 연대 右側에서 538高地의 敵과 交戰 중이었으며, 제1대대(장, 劉載成소령)가 783高地一帶에서 南下하려는 敵을 저지, 공격하고 있었다. 연대에 배속된 제11연대 제1대대(장, 金 沼소령)는 연대 제1대대의 左側인 사단 左一線의 756高地에서 敵의 逆襲企圖를 저지하면서 雲霧가 자욱한 架山을 향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날 연대 제2대대(장, 李存一소령)는 中里를 떠나 17.00에 南山洞에 진출하여 공격준비를 완료하였으나 接敵은 없었다.

한편 제11연대(一1대대)는 사단 전반상황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大栗洞 西北方으로 진격케 되어, 이날 09.00에 제2대대(장, 車甲俊중령)를 左翼梯隊, 제3대대(장, 李茂重중령)를 右翼梯隊로 不老洞(大邱)에서 前進을 시작하여 18.30까지 屯德洞에 진출한 다음, 기동준비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그리고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도 사단右翼으로서 昌平洞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진격을 대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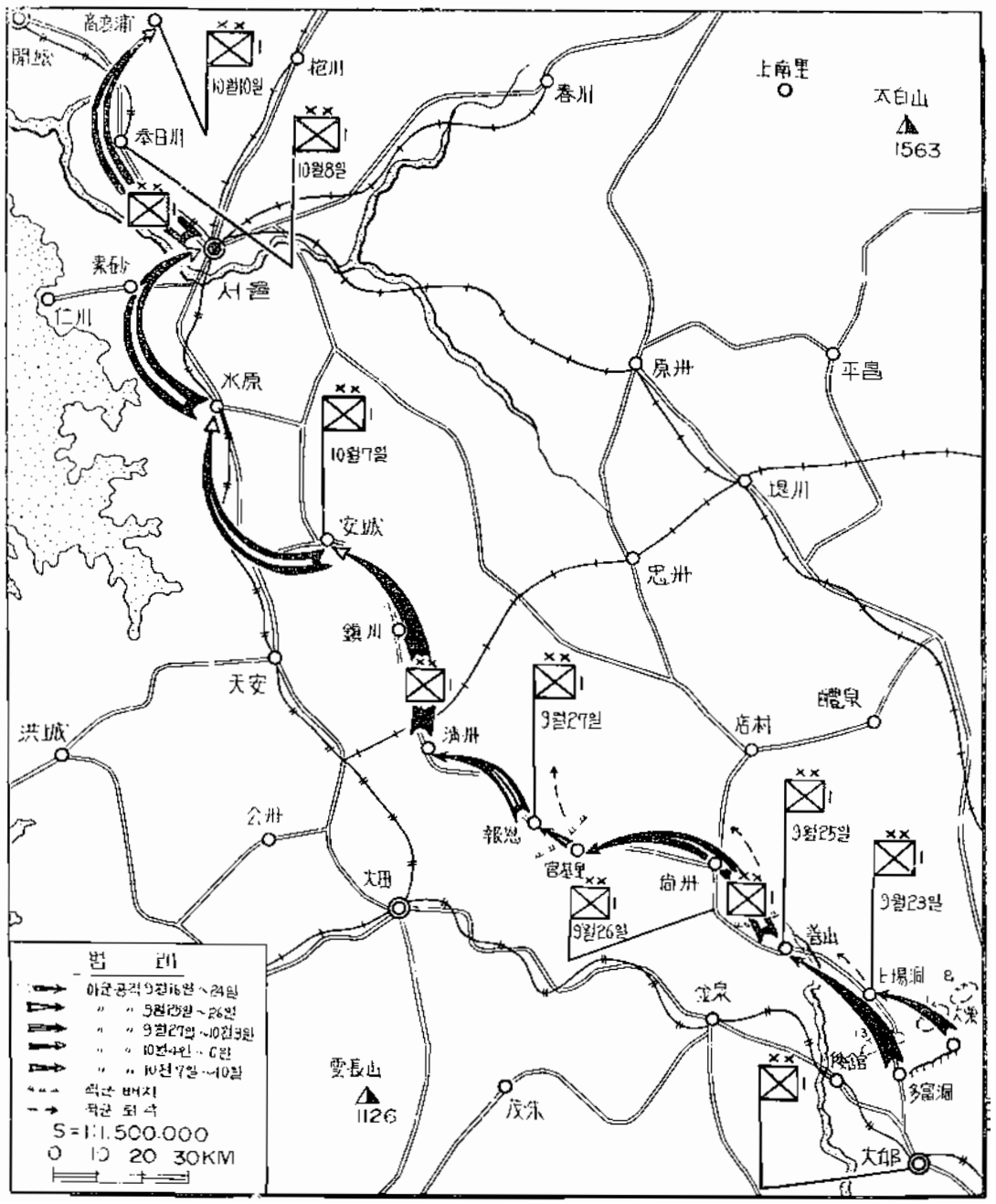
9월 17일 : 제15연대 제2대대(장, 李存一소령)는 12.00에 南山洞 西側稜線의 敵 1개중대를 격파하여, 능선 일대를 점령하고, 17.00에는 敗走하는 敵을 쫓아 鷹秋洞으로 추격하였다. 제3대대(장, 崔炳淳소령)는 14.00에 高地를 점령하고, 西北方의 538高地를 공격 중이었다. 한편 연대의 제1대대(장, 劉載成소령)와 배속된 제11연대 제1대대(장, 金 沼소령)는 각각 架山岩부근으로 침입하여 逆襲을 企圖하는 敵 1개 연대와 攻防戰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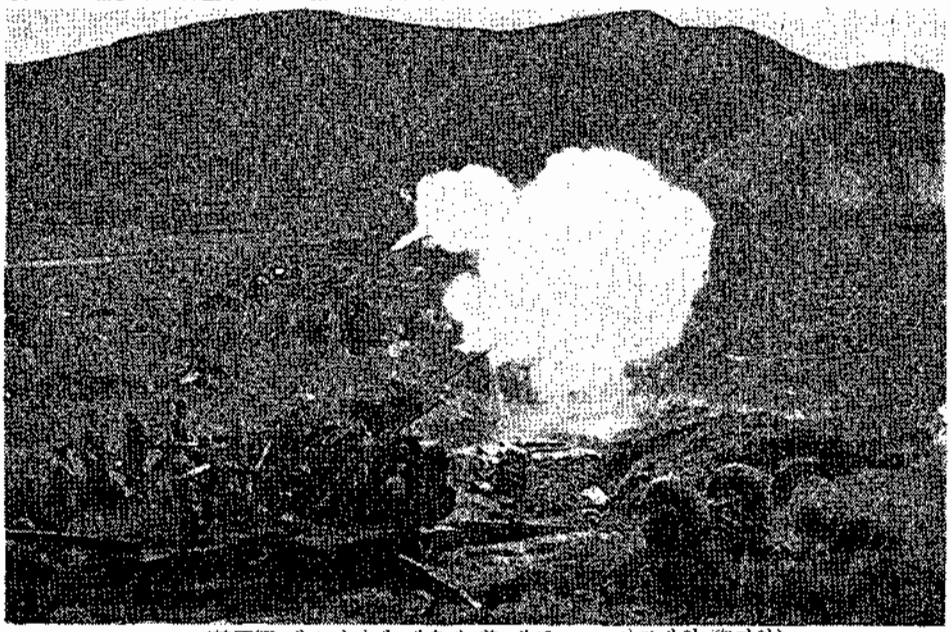
제11연대(一제1대대)는 이날 15.00에 西北方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右翼의 제3대대는 381高地를 左翼의 제2대대는 655高地를, 18.00에 각각 점령, 확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敵은 卜峴一梅谷洞一帶로부터 新酒幕一石陽洞方面으로 分散, 敗走하였다. 연대는 제3대대가 이를 추격한 다음, 제2대대 1개 중대와의 협동으로 527高地一帶를 탈환하였으며, 제2대대는 卜峴으로 진출하여 架山 鷹秋洞一帶의 敵 퇴로를 차단하고 그 側面을 攪亂함으로써 제15연대의 공격에 기여하였다.

한편 제12연대도 제1대대가 場基洞方面, 제2대대가 365高地方面으로, 제3대대는 342高地(完谷)를 목표로 道路를 따라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중 각 대대는 場基洞 金山洞一帶에까지 육박하고 있었다.

9월 18일 : 이날 我軍은 전투의 主導權을 掌握하고 敵에 대하여 活氣찬 공격을 가하였는데, 특히 사단 右翼의 제12연대 正面에서 획기적인 진출을 하였다. 즉 제12연대(장, 金 點坤중령)는 威力搜索을 단행한 결과, 敵 배치상의 간격을 발견하고, 이 弱點으로부터 浸透攻擊하

상황도 제13호 槐山—八公山—38線 進擊戰(1950. 9. 16~10. 10)





〈韓國軍 제1사단에 배속된 美 제40mm 고사포대의 砲지원〉

여 多富洞 北東方 16km의 多富洞—軍威街道에 一擧進出하였다. 이때 敵 제1사단은 그 主力을 山城一帶에 쏟았기 때문에 그들의 左側防禦가 疏漏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花田洞의 敵 제8사단 右側과의 사이에 間隙이 뚫려 결과적으로 我軍의 烟眼에 看破되어 自敗를 초래케 된 것이었다. 我軍은 제2대대(장, 趙成來소령)가 05.30 將軍洞 乃東 쪽에서 저항하는 적사포 2문과 3개 중대규모의 敵과 여러 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이를 격퇴하였고, 제3대대(장, 柳文鎬대위)가 06.00 巨梅洞에서 저항을 企圖하는 敵 1개 중대를 격파한 것 외에는 별 接敵없이 무난하게 목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돌파작전에서 연대는 美 제10고사포단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들은 긴밀한 步砲協同으로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美 제10고사포단(The U.S. 10th AAA Group)은 시종 我 제12연대에 同伴하여 작전을 지원하였으며, 我 제10중대가 그를 호위하였던 바, 고사포단의 포병들은 말하기를 "고사포단은 韓國軍 제12연대 일개 중대의 호위를 받았을 때, 가장 안전하였다. 고사포단이 어느 곳으로 移動하던지 제12연대 제10중대도 같이 이동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는 敵 제1및 15사단 主力의 後方으로 진격하여 多富洞—軍威間의 敵 退路를 차단함으로써, 사단의 진격은 물론 遲遲不進하던 左側 美 제1기병사단의 前進도 겸하여 促進시키는 所期以上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이로써 또한 한달 반에 걸친 敵의 大邱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제15연대(장, 崔榮善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2대대(장, 李存一소령)가 추격을 계속하여 鷹峽洞을 奪回한 다음, 384高地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그런데 同 高地에서 지향하던 약 7~800名으로 推定되는 敵이 558 高地 攻防戰의 지원을 위하여 이동함에 따라, 대대는 同 高地를 무난히 돌파한 다음, 龍谷 西北方을 지나 266高地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崔炳淳소령)는 敵의 頑强한 저항으로 치열한 전투 끝에 공격개시 하루 만인 14.00에 558高地를 점령하였다. 또 제1대대는 제11연대 제1대대와 같이 山城一帶의 敵을 견제공격 중이던 바, 敵의 저항이 점차 弱化됨에 따라 538高地로 이동하였다.

다음 제11연대 (一재1대대)는 계속 梅谷洞—上坪一帶에서 分散, 배회하는 도합 2개 연대규모로 推定되는 敵을 공격하면서 多富洞—軍威街道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9월 19일 : 이날 敵은 槐山 山城으로부터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니, 敵 제2 및 제14연대가 退路의 打開 내지 我軍의 새로운 차단공격에 대한 방비를 위하여 槐山 南側斜面으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5연대 正面에서는 제11연대 제1대대(장, 金 沼소령)가 山城을 공격, 敵 1개 중대와 교전하였으며, 제15연대의 각 대대는 山城後方에서 快調의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즉, 제15연대 제1대대(장, 劉載成소령)는 538高地에서 558 高地를 거쳐 佛洞으로 진출하여, 前方 軍威로 통하는 道路上의 敵 자동차 및 야포진지에 火力을 집중시켜 敵을 分散, 도주케 한 다음, 孝令(舊孝令) 西方으로 진격하였다. 또한 제2대대(장, 李存一소령)는 石鵲洞에서 266高地의 敵 전위대와 교전 중이었다. 제3대대는 새벽에 대대 OP(558 高地)左側高地의 2개 소대가 일시 敵 1개중대의 기습을 받은 바 있으나, 곧 이를 격퇴하고 계속 진격하였으며, 364 高地로 前進 중에 제9중대가 山城方向으로 敵 後方을 기습, 공격하는 한편, 대대 主力은 208 高地에서 新酒幕의 敵 主力과 교전 끝에 이를 격파하였다.

그리고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馬峴洞부근—221 高地—373高地를 連하는 線에 진출하므로써 大邱—軍威街道를 차단하였으며, 제2대대(장, 車甲俊중령)가 221高地를 비롯한 373 高地와 297 高地를 확보하고, 그 일대의 殘敵을 掃討함으로써 제3대대의 前進을 지원하였고, 제3대대(장, 李茂重중령)는 高谷洞일대의 敵을 격파한 다음, 계속 226高地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한편 제12연대는 제1대대, 제3대대가 진격을 계속하였으나, 退路를 확보하려는 敵은 완

강하게 저항하였다. 즉 제1대대(장, 韓順華소령)는 지휘소를 錦山부근으로 이동하고, 15.00에 제1 제2중대가 多富洞—軍威街道를 가로 절러 西北方으로 갈때 北쪽의 272 高地와 將軍洞 西北方 2km의 392高地를 각각 공격하였다. 그러나 제1사단 제1연대로 추측되는 敵은 견고한 陣地에 칩거하면서 강력한 火力으로 반격하였으므로 我軍은 큰 피해를 입고 공격이 일시 頓挫되었다가 제3중대의 지원으로 다시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제3 대대(장, 柳文鎬대위)도 19.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제11중대가 23.00에는, 多富洞—軍威, 新亭—軍威의 두 道路의 交叉點 中九洞 北쪽 1km (海拔山의 342西側 一枝峯인 高地)에 육박하였으나, 敵은 발악적인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날 제2대대(장, 趙成來소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錦山—場基洞間에 대기 중이었다.

9월 20일 : 제12연대 제1대대(장, 韓順華소령)는 272高地 및 392高地에 대하여 전날부터 계속 공격하고, 다시 제2대대(장, 趙成來소령)가 합동공격하여 이날 03.00에 이르도록 치열한 공격을 가하였으나, 敵은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다. 한편 제3대대(장, 柳文鎬대위)는 특공대를 선출, 편성하여 342高地의 敵을 공격하여 白兵戰을 감행하니 敵은 四分五裂되어 퇴각하였으며, 我軍은 04.00에 이르러 342高地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날 敵은 224高地 및 272 高地의 1개대대와 中九洞의 적사포 3문으로 我軍에 저항하였는데, 16.00에 이르러 연대 正面 完谷에 敵 전차 1대가 나타났다. 이에 제3대대의 제9중대 제1소대가 이를 肉迫공격하여 19.00에 이 전차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날 제15연대 正面의 敵은 아직 山城에 지휘소를 두고 있었으나, 敵 主力은 軍威에 집결할 목적으로 일부는 742 高地를 거쳐 北쪽 374 高地를 향하여, 다른 일부는 466 高地를 통과하여 眞木亭을 右側으로 迂廻, 龜尾方向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我軍 제15연대(장, 崔榮喜대령)는 多富洞—軍威道路를 거쳐 舊衙令 西쪽까지 진격한 다음, 일단 北上을 中止하고 反轉하여, 退路를 찾아 北上하는 敵을 격멸하면서 多富洞地區로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즉 제2대대(장, 李存一소령)는 266高地 (石隅洞 西北 1Km)의 敵 전위대와 교전 끝에 이를 격파하고 南下하다가, 다시 下坂(266高地 南쪽 1Km)에서 敵 1개대대 병력과 부딪쳐 이를 공격하였으며, 제3대대(장, 崔炳淳소령)는 374高地에서 金華洞 南方 無名高地를 향하여 南下하고 있었다. 제1대대(장, 劉載成소령)는 軍威로 통하는 道路 北쪽의 佛洞에서 退路를 잃은 敵을 포착하여 격멸하였다. 그리고 이날 연대 OP가 후퇴하던 敵의 기습을 받았던 바, 연대 보충대가 분투하여 이를 격퇴시켰다. 보충대(장, 石鍾燮소령)는 前夜

以來 374高地의 연대 OP를 호위하고 있었는데, 2개 중대규모의 후퇴하던 敵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일시 포위 당하게 되었다. 이때 白南秀하사 이하 사병 5명(金仁錫, 李春旅, 李基元, 任龍淳, 李玄永일등병)은 BAR 1정과 輕기관총 2정을 가지고 右側 松林으로 탈출하여 敵의 右側方에서 일제 사격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敵이 일시 혼란에 빠진 동안, 我軍은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포위망을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었으며, 다시 병력을 집결하여 약 2시간 동안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이 敵을 모조리 포착, 격멸하였다.

한편 제11연대 제3대대(장, 李茂重중령) 수색대는 多富洞의 美 제1기병사단 正面으로부터 저항하며 후퇴하는 일부의 敵을 포착하여 이날 01.00에 下板洞부근에서 軍官 등 수명을 사살하였고, 대대의 主力은 03.00에 226高地를 점령한 다음, 05.00에 진격을 개시하여 13.00에 無名高地와 上場洞에 각각 1개 중대씩 진출하므로써 大邱—尙州 道路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연대는 지휘소를 中大洞으로부터 馬頓洞으로 진출시키고, 사단 作命 제42호에 의거하여 배속경찰 제10대대의 2개 중대를 보충대에 편입시켜 背後面 警戒 및 治安確保에 임하도록 하였다.

9월 21일 : 전날에 이어 제15연대는 퇴각, 또는 잔류하는 敵을 격파하면서 계속 多富洞方面으로 南下하였다.

즉 제1대대는 正面으로 역습하여 오는 敵을 石積부근에서 격퇴시키고, 南쪽으로 356高地에 진출하였으며, 제2대대는 下板의 敵을 격파한 다음, 279高地를 향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다. 또 제3대대는 金華洞 南쪽 無名高地에 진출하여 19日에 山城의 敵 後方을 기습한 제9중대와 합세하였다.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이날 天生山을 공격, 점령하였는데, 이 山은 西側의 倭館—尙州, 東側의 多富洞—尙州 두 道路의 中間에 솟아있는 곳으로써, 이 두 갈래의 道路는 물론이고, 그 西쪽으로는 洛東江까지 멀리 瞰制할 수 있는 要地要部였다.

이 天生山공격에 나선 연대의 제3대대(장, 李茂重중령)는 우선 無名高地에 진출한 1개 중대를 208高地 쪽으로 보내 공격을 위한 敵情을 수색토록하고, 아울러 그 方面의 敵 퇴로를 차단케 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13.30에 공격을 시작하여 완강한 敵의 저항을 격파하고, 16.00경에 이르러 이 山을 점령, 확보하였던 것이다.

한편 제2대대(장, 車甲俊중령)는 확보 중인 297高地—373高地—113高地 一帶로부터 이날 09.00에 西北方으로 진격을 시작하여 上林洞부근에 집결 중인 1개 대대규모의 敵을 격파

한 다음, 13.00에는 一帶를 점령, 확보하였다.

제12연대 지역에서는 제 1 대대(장, 韓順華소령)와 제 2 대대(장, 趙成來소령)가 협동하여 사흘째 완강히 버티는 敵을 未明에 다시 공격하였다. 我軍은 대대장 陣頭 指揮下에 육박전을 감행한 끝에 16.50에 이르러 드디어 이를 점령하였고, 敵은 卜老洞 쪽으로 패주하였다.

이제 我軍에 의한 退路차단과 正面공격으로 동요되기 시작하였던 敵은 我軍의 계속되는 공격에 屈하는 바 되어 질서를 잃고 모두 分散상태에 빠진듯 하였다.

9월 22일 : 제15연대(장, 崔榮喜대령)는 多富洞에서 美 제 1 기병사단과 연결하였으며, 예하 각 대대는 다시 反轉하여 北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제 1 대대(장, 劉載成소령)는 356高地로부터 157高地로 진격하여, 1개 대대규모의 敵이 軍威 集結에 실패한 나머지 방황하고 있던 것을 포착하는 즉시로 격파하였으며, 제 2 대대(장, 李存一소령)는 157高地 東南쪽 제 1 대대의 後方인 279 高地로 南下하였다가 그 西쪽의 仁同부근에 병력을 집결하였다. 그리고 제 3 대대(장, 崔炳淳소령)는 金華洞 南쪽 無名高地로부터 東谷 南쪽으로 진출하였다. 또 배속 중인 제11연대 제 1 대대(장, 金滔소령)는 이날 槊山洞을 완전히 탈환한 다음, 原隊로 복귀하게 되었다.

한편 제11연대 제 2 대대(장, 車甲俊중령)는 上林 西쪽 林泉洞부근을, 제 3 대대(장, 李茂重중령)는 天生山 北쪽 漢川 南北岸 一帶를 각각 점령하였으며, 제 1 대대는 14.00를 기하여 원대복귀하여 예비대로서 제 2 대대 後方에 배치되었다. 제 2 · 제 3 대대는 殘敵을 격파하면서 계속 琴湖洞부근까지 진출하여, 22.00에 大邱—尙州 道路를 中心으로 東西側에 각각 배치되었다.

제12연대의 각 대대는 전날에 이어 계속 敵을 격파하고 西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제 1 대대(장, 韓順華소령)는 272高地—400高地 및 300高地一帶의 稜線을 목표로 야간공격을 감행하여, 제 2 중대를 384高地, 제 3 중대를 300高地 稜線을 목표로 공격시키므로써 07.00에 이를 점령하였다. 제 2 대대(장, 趙成來소령)도 未明을 기하여 將軍洞 西北쪽의 392高地를 포위, 공격 끝에 이를 점령한 바, 제 5 · 제 6 중대는 각각 同高地의 右側과 左側으로 포위공격하고 重화기중대는 同 공격을 엄호사격하여 07.00 高地를 점령, 확보하였다. 이어 제 1 · 제 2 대대는 上林洞으로 이동 집결하였으며, 제 3 대대(장, 柳文鎬대위)는 342高地로부터 西北方 老人洞으로 12.00에 수색대를 前進시켰는데, 15名의 수색대는 敵 砲陣地를 발견하고 1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이를 격파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제 1및 13사단을 主輔으로하는 敵을 强打하여 붕괴시켰으며, 我軍의 진격 앞에 敵은 奔敗一路에서 九死一生의 길을 찾아 北쪽을 向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9월 23일 : 사단은 군단 명령에 따라 계속 敗敵을 추격하면서 부대를 洛東江 東岸으로 약진시켜 渡河, 北進을 준비하였다.

즉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敗敵을 추격하면서 龜非里를 향하여 진출하였는데, 제 2 대대를 先鋒隊로하여 急進하는 도중, 제 5 중대로 하여금 海平洞에서 洛東江을 渡河케 하여 江亭을 거쳐 官心洞에 진출한 다음, 敵情搜索한 연후에 대대에 合流토록 하였고, 제 1 대대(장, 金鍾소령)는 178 高地, 제 3 대대(장, 李茂重중령)는 154高地, 제 2 대대(장, 車甲俊중령)를 無名高地 一帶에 멈지 점령토록 하는 동시에 연대본부는 槐谷洞으로 진출하였다. 한편, 제12연대 본부는 이날 09.00에 昌平洞을 출발하여 12.00에 槐谷洞에 진출하였고, 예하 각 대대는 現 進出線을 계속 확보하면서 戰場整理에 임하면서 총칼을 씻도록 하였다.

제15연대는 이날 11.00부터 378高地부근에 있던 본부를 철수하여 新酒幕 경유, 長川面召福國民學校로 18.00까지 이동완료하였으며, 아울러 前線命에 따른 부대이동을 위하여 각 대대를 洛東江 東岸에 있는 倭館—尙州 道路를 중심으로 星水洞부근에 집결시켰다.

이날 사단 사령부도 東村으로부터 善山郡 長川面 上場洞으로 前進하였으며, 이로써 사단의 北進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敵陣에 박격포 사격을 가하는 60mm포반>

9월 24일 : 제15연대는 제 1 대대로 하여금 追擊隊가 되게 하여 洛東里 南方으로 진출케 하였고, 제11연대의 본부는 桃開洞으로 진출하였으나, 연대 예하 각 대대는 龍非里 一帶에서 계속 敵을 격멸하고 있었다.

제12연대(장, 金點出중령)는 제 1 대대(장, 韓順華소령)가 예비대로 上林洞에 대기하고, 제 3 대대(장, 柳文錦대위)는 342高地一帶를 확보 중이며, 제 2 대대(장, 趙成來소령)는 上林洞으로부터 軍威로 진격하여 그 前方에서 저항하는 敵을 격파한 다음에 12.00에 軍威로 돌입하였다. 그리고 연대 본부는 20.00에 上林洞으로 移動한 다음, 사단으로부터 400명의 新兵을 보충받았다.

이날로써 사단은 洛東江의 渡河준비를 완료하였다. 한편 我軍에 앞서 渡河한 美 제 1 기병사단은 이날 일부 병력으로 尙州에서 北進을 시작하였으나, 그 主力은 少數의 敵으로부터 牽制와 邦留를 당하는 바 되어 그 前進이 遲遲不振한 형편이었다.

(나) **洛東江 渡河 및 追擊**(9.25~9.28)

9월 25일 : 사단은 洛東江을 渡河하여 善山—尙州로 前進하라는 軍團命에 의하여 洛東里에서 江을 건너 北進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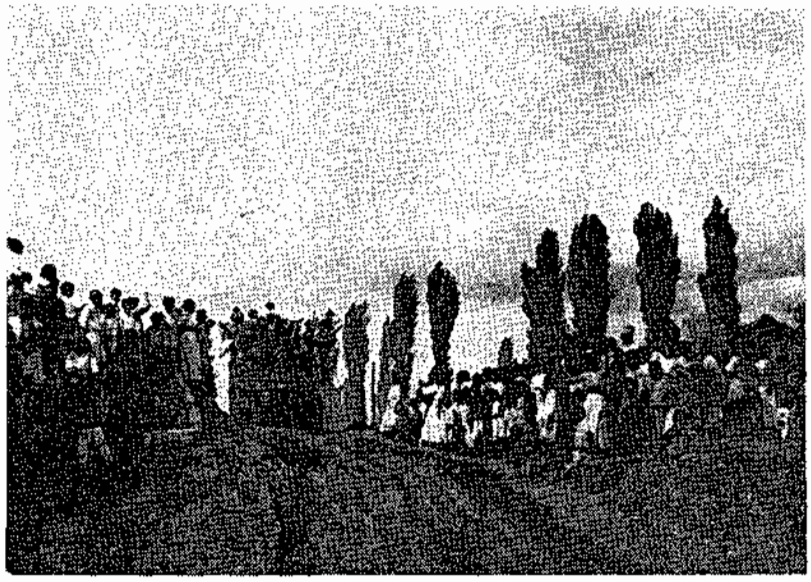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渡河 後 제 2 대대(장, 車甲俊중령)를 鳥致院方面으로 前進시키고 연대 본부는 善山郡 舞乙面 安谷洞으로 진출하였으며, 제15연대(장, 崔榮喜대령)는 본부를 開寧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날 사단 사령부도 善山邑으로 약진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善山地方의 殘敵을 掃討하면서, 京釜本道를 따른 北進을 위하여 尙州로 향하여 前進하기 시작하였다.

9월 26일 : 이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단은 계속 殘敵을 격파하면서 前進하였다.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많은 戰果를 올리면서 前進을 계속하였고, 연대 본부는 牟東面 梨洞까지 진출하였으며, 아직 渡河하지 않고 있던 제12연대본부도 01.00에 上林洞을 출발하여 24.00 尙州 靑里面 佳川里에 이동완료하였다. 그리고 사단 사령부는 尙州 功城面 玉山洞으로 약진하였는데, 한편 군단 最先頭로 北進하던 美 제 1 기병사단의 先鋒支隊는 靑州를 거쳐 天安—水原 間을 急進하던 중 이날 22.26에 烏山에서 南進하는 美 제10군단의 一部와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이로써 京釜國道가 완전히 掌握下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9월 27일 : 이날 사단 수색대는 鳥致院 前方으로 前進한 다음, 五松里에서 200餘名 규모의 敵과 충돌하여 육박전을 전개한 끝에 이를 격파하는 즉시로 鳥致院에 돌입하였다. 이 전투

에서 수색대는 敵의 전차 1대를 파괴하고, 수송차량을 노획하는 등 많은 戰果를 올렸다.

한편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報恩郡 馬老面 官基里까지 급진격하였으며, 제15연대(장, 崔榮喜대령)의 각 대대도 報恩읍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 사령부도 王山洞을 떠나 尙州 化寧場을 통과하여 報恩에 진출하였다.



〈淸州부근의 부락주민들이 진격하는 我 제1사단 장병들을 환영하다.〉

9월 28일 : 제11연대 본부는 仁次里에 진출하였으며, 제1대대(장, 金 弼소령)와 제3대대(장, 李茂重중령)는 懷仁부근에서 敗走하는 敵을 격파한 다음, 집결하여 次期추격을 준비하였다. 제2대대(장, 車甲俊중령)는 湖南地區 및 大邱—永川 등 各 戰線에서 후퇴하는 敵이 다시 합세한 다음, 小白山脈을 이용하면서 越北코자 企圖하여 懷仁—淸州街道를 차단하였으므로, 연대는 米院을 지나 이날 20.00에 靑川里에 진출하여 敵의 퇴로를 遮차단하였다.

한편 제15연대(장, 崔榮喜대령)도 본부 이하 연대主力이 모두 報恩에 집결하여 次後진격을 준비하였다. 이로써 洛東江의 險要를 넘어 추격을 시작하게 된 사단은, 江畔에서 敗走하여 山岳地帶 깊이 들어가 連峯을 타고 멀리 38°線 以北으로 종퇴각하려는 敵 제2, 제3, 제4, 제7, 제9사단 등 여러사단의 合勢한 패잔병들을 追擊하기 시작하였으니, 乘勝한 氣勢의 사단 將兵들은 팔을 걷고 원한의 38°線 쪽 하늘을 노려 보는 것이었다.

(다) 米院·報恩附近 戰鬪[9.29~10.5]

9월 29일 : 당시 敵은 過半數가 所謂「義勇軍」으로서 戰意를 喪失한 채 山岳地帶 깊이 分散潛入하여 險山과 峻嶺을 타고 越北하려는듯 하였으며, 그 一部가 遊擊隊로서 山間과 僻村에 출몰하면서 식량을 약탈하면서 我軍의 虛點을 타서 기습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地域은 東으로 俗離山 등 小白山脈의 高峯이 連하여 太白山脈으로 연결되어 있고, 報恩一帶는 盆地形의 평야를 이루어 비교적 道路網도 발달된 곳이다. 退路를 차단 당한 敵은 이러한 地理的 條件을 이용하여 死中에서 活路를 찾아 최후발악의 저항을 꾀하였던 것이다.

사단은 이들 敗敵을 포위, 섬멸키 위하여 각 연대에 담당區域을 떠 맡기게 하였으니, 米院부근은 제11연대로서, 그리고 報恩부근은 제15연대로서 각각 담당케 하였다.

이날 米院부근에서 出沒하던 敵은 다시 懷仁—清州道路를 차단한 다음, 皮盤嶺 君子山을 급히 너머 北쪽으로 퇴각코자 企圖하는듯 하였으므로 제11연대 제3대대(장, 李茂重중령)는 懷仁으로부터 米院으로 反轉하여 皮盤嶺一帶를 점령한 敵의 收容陣地를 격파한 다음, 龍長을 경유, 松亭里에 진출하였다. 연대의 제1대대(장, 金 沼소령)도 역시 皮盤嶺—566高地—雙岩里—604高地—三日峠 一帶를 점령한 敵의 殘置부대를 격파하면서 추격을 계속하였는데, 사단 장병들의 追擊의 발걸음은 北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가벼워지는 것이었다.

제15연대(장, 崔榮喜대령)는 文義—中草—仙谷里 一帶에 遊動하는 敵을 격멸하였으니, 즉 이날 11.00에 上草里 右側에 있는 300高地에 夜暗을 이용하여 집결한 敵의 殘置부대(500여명 규모로 판단)에서 보낸 정찰대원 50명을 연대본부 直轄隊가 고스란히 포로로 잡은 다음, 300 高地의 敵 主力을 이날 12.40부터 공격하여 치열한 교전 2시간 뒤에 이 敵을 격파하였다. 또 이날 11.30에 文山里 부락 前面에 있는 無名高地에 집결한 500명 규모의 유격병을 제1, 제2중대가 三面으로 포위, 공격하여 격전 30분 후에 격멸하고 말았다.

9월 30일 :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지휘소를 米院에 두고, 제1대대(장, 金 沼소령)를 米院에, 제2대대(장, 車甲俊중령)를 靑川에, 그리고 제3대대(장, 李茂重중령)를 松亭里 一帶에 配置하여 敵의 퇴로를 차단케 하였다.

즉 제3중대는 제1중대와 협동하여 이날 09.00부터 當面의 敵을 격파하면서 皮盤嶺—三山里—掘岩里를 돌파한 다음, 10.00에는 松亭里에 진출하고, 제2중대는 단독으로 皮盤嶺—566 高地를 뚫고 역시 松亭里를 목표로 진격하였으며, 그 밖의 중대는 제3대대와 같은 進擊路를 一路北上하면서 도중에 出沒하는 殘敵을 격파한 다음, 일단 松亭里에 집결하였다. 여기서 제1대대는 다시 14.00에 米院에 이동하였는데, 한편 제2대대는 예하 각 중대를 靑川里—江坪里 北方高地—379高地—金丹里에 각각 배치하고, 俗離山 쪽으로 敗走하는 敵의 退路를 차단, 격멸토록 하였다.

제15연대 제 1 대대(장, 劉載成소령)는 지휘소를 枝洞에 설치하고, 각 중대를 桐井洞—竹岩里—萬峰里에 배치하여 중대단위로 敗敵을 포착하여 競爭的으로 敵을 포로로 잡았으며, 제 2 대대(장, 金振暐소령)는 三城方面으로 진격한 다음, 363高地에서 敵과 치열한 교전을 반복한 끝에 敵 150여명을 사살, 또는 포로로 하는 등 많은 戰果를 올렸다.

이날 제15연대의 6代 연대장인 崔榮喜대령은 부사단장으로 轉出되고, 연대 부연대장인 趙在美중령이 7代 연대장으로 취임하였다.

10월 1일 :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이날 제 1 대대 각 중대를 內山里—문정—浪城—倉里—帶에, 그리고 제 2 대대를 月龍里—漁岩里—松亭里 —帶에 각각 배치하였는데, 倉里 南쪽에서 저항하는 敵을 三面포위로 격멸하였으며, 제 3 대대는 이날 14.00에 진격을 시작하여 淸州—懷仁道와 淸州—陰城道를 각각 차단한 다음, 蠢動하는 殘敵을 포착하는대로 모조리 격멸하였다.

제15연대(장, 趙在美중령)는 敵의 유격병들이 俗離山의 三街里 및 363高地一帶에 出沒, 跳梁하면서 때로는 我軍 陣地에 기습을 企圖하기도 하므로, 이 敵을 포착 섬멸코자, 이 날 未明을 기하여 제 2 대대(장, 金振暐소령)로 하여금 官基里를 목표로 급히 機動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 5 중대를 509高地一帶에 배치하는 동시에 제 7 중대를 書院里—三街里에 잠복토록 함으로써 敵의 退路를 차단케 하고, 509高地 前方 無名高地에 있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挾攻하여 거의 빠짐없이 모조리 사살, 또는 포로로 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제8중대는 363高地를 점령하고 있는 150명 규모의 敵을 高地後方으로부터 迂廻공격한 결과, 敵은 不意의 기습으로 낭패한 나머지 커다란 저항없이 그 일부는 퇴각하였으나, 나머지는 모두 목숨을 바치고 말았다. 또 제 6 중대는 三城山에 陣을 치고 있던 약 200명 규모의 敵과 不時에 부딪쳐 이를 三面으로 포위, 공격한 끝에 그 대부분을 포로로 잡고, 겨우 살아 남은 敵은 무기를 버리면서 퇴각하는데 바빴으니, 戰意의 有無如何와 士氣의 高下與否는 이 같이도 커다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미 同數의 敵으로서는 敢히 사단의 精兵과 그 雄姿을 다툴 수는 없었던 것이다.

10월 2일 : 제11연대 지휘소는 舊邑에 위치하고, 연대 제 1 대대(장, 金 沼소령)는 鎭川에서 天安—無極里—淸州—成月등으로 통하는 各機動路를 확보한 다음, 부근 일대에서 날뛰는 殘敵을 보는대로 곧 격멸하였다. 제 2 대대(장, 車日俊중령)는 이날 07.00에 靑川里을 출발하여 17.00에 槐山에 진출하였고, 米院—忠州와 槐山—陰城부근에서 출몰하는 殘敵을 포

〈鎭川지구에서 잔적격멸을 지휘하는 제11연대 지휘부〉

차, 격멸한 다음 다시 槐山—開慶道와 淸州—讓仁道, 그리고 淸州—陰城街道를 확보하면서 이 그물안에 들어 있는 殘敵을 사살, 또는 포로로 잡는데 분주하였다. 한편 제15연대의 제 2 대대(장, 金振暻소령)는 이날 07.00에 官基里에서 米院으로 機動하는 도중, 제 6 중대는 12.00에 倉里 西쪽 565高地에 집결된 2개 중대규모의 敵을 포착하여 이를 포위공격 끝에 격퇴시킨 다음, 米院에 진출하여 대대 主力과 합세하였다. 그리고 제 3 대대(장, 安秉健소령)는 靑山里에 지휘소를 두고, 대대의 一部로써 이날 10.30에 長連里에 진출한 다음, 그 北쪽 無名高地를 占據하고 있는 敵을 발견, 포착하여 2시간에 걸친 처열한 교전 끝에 이 敵을 격퇴하면서 高地一帶를 점령하였다. 이 당시에 435高地와 492高地를 연하는 稜線一帶를 점령하고 있는 400명 규모의 敵을 我 정찰대 斥候가 발견하자 마자 寡兵으로써 오히려 猛攻을 가한 결과 敵은 慌急히 萬月嶺을 너머 뒤도 돌아 보지 않고 敗走하였으니, 可謂 一騎當百이라 할 수 있었다.

이날 사단 사령부는 淸州市로 약진하였으며, 제12연대는 淸州邑으로 機動하여 부근의 殘敵을 격멸하고 있었다.

10월 3일 : 제11연대 제 1 대대(장, 金 沼소령)는 계속 鎭川에서, 그리고 제 3 대대(장, 鄭永洪소령)는 舊坪을 확보하고, 각각 當面의 殘敵을 포착하는대로 격멸 중이었다. 연대장은 이날 그 지휘소를 米院에서 약진하여 14.00에 舊坪으로 移動完了케 한 다음, 연대 전반의 전투태세를 검토하면서 敵情과 地形을 살피면서 次後작전지도를 구상하였다.

제15연대(장, 趙在美중령)는 이날 米院으로 移動과 동시에 제 5 중대로 하여금 東北 쪽에

있는 無名高地일대에 배치케 하였는데, 중대는 마침 1개 중대규모의 敵을 南쪽 546高地일대에서 포착하게 되자, 곧 공격을 감행하여 이 敵을 격파, 분단하였다. 또 역대 前轉隊는 仙谷里—金精山(652高地)에서 殘敵을 수용 중인 유격병 70여명을 포착하여 일부 병력으로써 이를 공격한 결과, 敵은 一面 交戰, 一面 퇴각으로 分散하였으며, 我軍부대들은 軍歌를 높이 부르면서 본대로 돌아갔다.

10월 4일 : 제11연대의 각 대대는 전날에 이어 각기 槐山—富坪—鎭川方面에서 北上퇴각을 노리기만 하는 敵의 패잔병과 일부 유격병들을 포착하는대로 즉시 격멸하였으며, 제15연대는 이날로써 담당 구역 내의 殘敵격멸을 완료하였다.

한편 제12연대 본부는 이날11.00에 尙州邑을 出發하여 24.00에 淸州市이 이동완료하였으며, 역하 각 대대는 尙州부근의 유격병과 殘敵을 격멸하여 投降하는 者는 포로로 하고, 反抗하는 者는 격파하면서 淸州로 前進하고 있었다.

이날로써 我軍의 米院—報恩—帶의 殘敵에 대한 擊滅戰은 사실상 끝난 셈이 되었다.

그리고 我軍은 이미 지나간 10월 1일에 東部戰線에서 38°線을 돌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UN 총회는 38線突破默認決議案을 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敵은 계속하여 외치기를 "北으로 철퇴하여 「새로운 任務」에 오를 것." 이라고 放送하는 등, 그 그칠 줄 모르는 野慾의 침략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저항할 태세를 잇보이게 하였다.

10월 5일 :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사단 기동계획에 의하여 이날 09.00에 행동을 시작하여 19.00에 鎭川으로 집결한 다음, 一面殘敵을 격멸을 하면서 一面 次期作戰을 위한 訓練을 실시하고 있었고, 제15연대(장, 趙在夏중령)도 마찬가지로 周邊地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一方으로 훈련과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있었다.

제12연대의 각 대대는 尙州로 부터 北進 중이었던 바, 이날 12.00에는 연대 전병력이 淸州에 진출한 다음, 역시 次期작전을 준비하였다.

한편 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淸州에서는, 사단 정훈부와 군악대가 합동으로 淸州劇場에서 軍警 및 市民위안연주회를 개최하고 市街행진도 하여, 一陽來復의 和氣가 淸州 땅에 가득차 있었다.

(라) 38°線까지의 進擊 (10.6~10.10)

10월 6일 : 사단의 主力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北進準備를 하였으며, 제15연대는 본부를 淸州로 이동하였다. 한편 美 제1군단의 他 사단, 즉

美 제1기병사단은 3일의 美 제8군 北進명령에 따라 5일에는 臨津江을 渡河하여 이날은 開城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이 무렵 군단 사령부는 大田道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이날 大田으로 군단장을 방문하여 平壤進擊戰에 사단도 참가하도록 要請한 결과 변경된 작전명령을 受領하게 되었으니, 즉 군단예비로 예정되었던 사단의 임무를 美 제24사단과 바꾸어, 군단 右翼으로 군단主攻의 진격을 엄호하면서 北進토록 된 것이다.

10월 7일 : 제15연대(장, 趙在美중령)는 安城으로 이동하였고,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水原을 목표로 北上하였다. 그리고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는 08.00에 淸州를 출발하여 先發隊가 15.00에 安城邑에 진출하였고, 後續부대는 계속 北上하고 있었다. 또 사단사령부도 이날 중에 安城邑으로 약진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美軍部隊도 처음으로 38°線을 越境 北進하기 시작하였으며, 美 제1기병사단(장, Hobart R. Gay소장)은 開城을 점령하였다.

10월 8일 :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는 이날 08.00에 安城을 出發하여 平澤—水原—素砂—서울을 經由하여, 先頭부대는 24.00에 登院里에 진출하였다.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水原을 出發하여 서울 龍山까지 진출하였고, 제15연대(장, 趙在美중령)는 제1대대를 先頭로 10.00에 安城을 출발하여, 20.00에는 平澤에 도착하였다.

사단 사령부는 이날 11.00에 安城을 출발하여 水原—素砂—서울을 통과한 다음, 一路에 奉日川里에 약진하였다.

이날 美 제1기병사단의 정찰대는 開城 東北方 13.6km지점까지 진출하였다.

10월 9일 : 제11연대는 그 본부는 坡平까지 진출하였고, 제12연대는 全部隊가 登院里에 도착하였으며, 제15연대본부는 永登浦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一部 先頭部隊는 이날 오후에 이미 高浪浦一帶에서 진격을 시작하였으니, 즉 제15연대 제1대대(장, 劉載成소령)는 22.00에 38°線 以北인 麻田里에 도착한 다음, 大休憩 중이었던 것이다.

이날 開城北方에서는 美 제1기병사단의 2개연대가 38°線을 돌파하였고, 사단 右側에서는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 제21연대(장, 金容培대령)가 漣川을 점령하였다.

東部戰線의 我軍은 이미 元山線에 육박하고 있었던 바, UN軍 총사령관 MacArthur元帥는 金日成에게 다음과 같이 즉시항복을 再次通告하였다. 즉 『最小限의 人命損失과 財産破壞로써 UN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武器를 버리고 敵對행위를 중지할 것을 최후적으로 요구하며, 回答이 없을 경우 필요한 군사행동을 곧 시작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10월 10일 : 이날로써 사단은 全 부대가 高浪浦로 이동을 완료하고 北進을 시작하였다. 즉 제11, 제15연대가 진출한데 이어, 사단 사령부도 12.00에 春日川을 출발하여 臨津江을 건너 약진하였으며, 제12연대는 18.00에 議院里를 출발하여 24.00, 高浪浦에 진출하였으니, 이 地方은 사단의 警備當區域이었으므로 장병들의 感慨가 더욱 새로운 바 있었으리라. 이리하여 제15연대 제1대대(장, 劉載成소령)는 麻田里로부터 塔巨里까지 진격하여 20.10에 그곳에서 집결, 경계하였으며, 제11연대 제3대대(장, 鄭永洪소령)는 臨津江을 渡河하여 19.00에 金谷에서 敵1개 중대와 교전한 끝에 이를 격파하였으며, 제1대대(장, 金 沼소령)는 19.30에 진격을 시작하여 馬踏里方面에서, 제2대대(장, 車甲俊중령)는 杜谷方面에서 1개 대대규모 이상의 敵과 교전하여 즉시 이를 격파하였다.

한편 사단 左側의 美 제1기병사단은 이날 白川을 점령하였다. 이제 사단은 3개월 반만에 憤涙를 먹음고 후퇴하였던 38°線으로 다시 反擊하여 왔을 뿐 아니라, 침략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赤都를 향하여 진격할 利勝에 놓여 있었으니, 敵愾心 如何는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9월 中旬 洛東江 戰線으로부터의 反擊初期에 全戰線의 主攻인 美 제1군단의 右翼으로서 戰線 돌파에 결정적인 役割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尙州로 진격하면서 부터는 군단예비가 되어 비록 追擊에는 참가하였으나, 사단이 38°線까지 도달한 것은 我軍은 물론 美軍보다도 3일이나 늦는 10월 9일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進擊도중 계속 混迷속에서 反擊을 감행하는 敵을 격멸하여 많은 戰果를 올렸다.

〈敵에게 反動罪目으로 학살 당한 농민들〉

더욱 이제부터는 平壤을 공격한 主攻部隊의 先鋒으로서 失地를 收復하는 앞장을 서게 되었다. 즉 군단은 右翼 제1선으로 제1사단을 배치하고, 左翼으로서 군단예비 美 제24사단, 中央으로서 美 제1기병사단을 開城으로 부터 배치함으로써 각 사단은 平壤을 向한 北進競爭에 나서게 된 것이다. 肥虎相搏으로 天空一角에 風雲이 急하였다.

전 과	
사 살	4,543명
포 로	5,211명
소 총	1,275정
노획 : 차 량	144대
지 도	3,000장
곡 사 포	12문
반전차포	24문
각종실탄	100,000여발
손 실	
전 사	355명
전 상	1,023명
실 종	77명
M1 소총	381정
칼빈소총	55정

S參戰者의 證言

◇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

(1971. 3. 10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예·대장)

仁川上陸 사흘 전에 美 제1군단에서 열린 작전회의에서 반격명령과 맡은 地區를 수령하였다. 명령은 八公山일대에서 敵을 격파해서 美 제10군단과 安城에서 대충 握手를 하게 된 내용이었다. 그때부터 美 제10고사포단이 우리 사단을 지원케 되어 포지원은 충분하였으며, 각 연대는 경쟁적이라 할만큼 梨山—八公山戰線을 돌파키 위해 분투하였다. 아것이 4~5일이 걸렸는데, 길국 제11, 제15연대가 梨山으로 들어가고, 제12연대가 孝令쪽으로 敵의 虛點을 뚫고 들어가 敵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래서 多富洞부근의 美 제1기병사단이 진격할 수 있었고, 美 8군에서도 진선돌파의 初動을 주었다고 대단히 좋아 하였다. 이로써 釜山교두보의 敵을 일거에 격파하고, 美 제1기병사단장 Gay소장은 전차를 타고 尙州로 가는 國道로 의기양양하게 돌진하면서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그때 우리는 군단예비로 軍威의 殘敵을 擊滅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일부는 洛山, 主力은 尙州로 해서 報恩으로 추격토록 되었다. 報恩一木院에서 殘敵을 擊滅한 다음, 淸州로 진출하였고, 그곳에서 鎭川—安城—水原—서울을 경유하여 高浪浦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龍浦근처에서 가교를 넘어 發驛里로 통과하는데, 車輛이 많은 美軍에게 通路優先使用權이 주어지고 우리는 기병사단, 美 24사단 다음의 3번째로 가는 애로가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장병들이 가족을 못 데리고 나왔으며, 나 자신도 發驛里에서 가족소식을 듣기만 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오직 국가와 개인의 운명이 風前의 燈火에서 겨우 살아 났다는 감회가 있을 뿐이었다.

◇ 제1사단 참모장 石主岩대령

(1967. 2. 11. 서울 鍾路5街 장미다방, 예·소장)

洛東江에서 반격해서 突破口를 구성하여 밀고 올라갔다. 제12연대장이 연대前面의 敵 사단간의 취약점을 발견하여 그 공간을 뚫고 올라가자 敵은 계속 무너졌다. 그래서 功名心 많은 美 제1기병사단장이 우리가 탈환한 곳을 지나 安城과

지 뒤고 올라 갔으며, 우리도 전격하였다.

◇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

(1968. 7. 22. 漢灘公社에서, 애·중장)

永川전투를 마치고 사단에 복귀한 우리 연대는 제1대대를 제15연대에 배속시키고, 2개 대대로 楸山—八公山근처에서 부터 敵을 격파하여 東北쪽으로 天生山을 목표로 공격했다.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고생했으나, 그 곳을 점령하여 道路를 차단하였으며, 敵의 고급장교도 포로하였다. 敵의 일부를 그대로 통과시켜 多富洞의 敵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를 격파한 다음, 北進하였다. 本院에서는 越北을 企圖하는 敗敵을 擊破하였는데, 제3대대장 李茂重중령이 敵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였다. 그 다음에는 鎭川—서울로 해서 올라갔다.

◇ 제12연대 제10중대 孫海奉소대장.

(1965. 4. 28. 39사단 119연대장室에서, 소령)

우리 연대는 고참 중·상사들이 거반종사수를 할 정도로 전투경험자가 많고 잘 싸웠다. 반격하면서도 우리가 예비연대로서 後方소탕전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太白山줄기를 타고 패주하는 敵을 추격하다가 安城에는 자동차로 이동하여 하루밤을 자고, 서울로 해서 高浪浦에 10월 10일에 집결하였다.

◇ 제15연대 제1대대 金一河하사

(1966. 2. 3. 6관구령부에서, 대우)

지난에 八公山으로부터 진격을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에 多富洞에 진출하였다. 그 뒤에는 徒步로 하루 50~60리 정도씩 행군하여 報恩까지 갔다. 그곳에서 湖南地區에 있던 敵이 야간을 이용해서 산맥을 타고 도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4일간 소탕했다. 그때는 우리 武裝도 M1. 칼빈에다 多發銃까지 있었는데, 小數의 兵力으로도 하루 수백명씩 敵을 포로하였다. 그 다음에는 車輛으로 이동하였다.

◇ 제17포병대대 연락장교 姜岐祥대위

(1965. 12. 8. 國防大學院에서, 대령)

당시 우리 17대대가 1사단을 지원했는데 105mm 18문을 가지고 1개 사단을 1개 대대가 지원하였다. 砲도 굉장히 많이 쏘았고, 고생도 많았다.

10. 韓國 海軍의 南韓基地 奪還戰 (50년 9월 26일부터 50년10월 23일까지)

가.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PC-703	함	장	중령	李 成 浩	JMS-307	정 장 대위 鄭時圭
PC-704	함	장	소령	玄 時 學	鎭海방위대	제 1 부대 장 중령 金忠男
YMS-504	정	장	중위	姜 景 遠		白 중 대 장 소령 白南豹
YMS-506	정	장	소령	許 德 和	鎭海방위대	제 2 부대 장 중령 宋寅明
YMS-507	정	장	중위	白 麟 基	補項경비부	서 령 관 중령 南相徽
YMS-516	정	장	소령	全 哲 雄	병력 : 제 1 부대	500명
JMS-301	정	장	대위	朴 基 政	제 2 부대	5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UN軍과 韓國軍의 仁川 上陸에 이어 서울을 탈환하게 되어 퇴로가 차단된 敵은 洛東江 戰線과 중부 및 補項에 이르는 全 戰線에서 9월 23일 總首 金日成의 후퇴명령을 받고 北으로 후퇴를 시작하게 되었다.

敵이 南韓지역의 대부분을 점락하고 있을 무렵에도 우리 해군은 UN 해군과 협조하여 南韓海域은 물론이고, 北韓海域의 制海權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며, 또한 海岸은 우리 艦艇들에 의하여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敵은 海上을 통한 병력의 機動과 군수물자의 수송이란 염두에도 둘 수 없었다. 그러나 敵은 우리 해군의 海上활동을 방해하고, 또한 함정에 피해를 주기 위하여 그동안 南韓의 각 海岸과 潮水가 흐르는 水路 및 주요 港口에 많은 機雷를 부설하였기 때문에 우리 艦艇들은 航海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들 機雷를 하루 바삐 제거하여 安全航路를 타개하는 것이 시급한 當面의 課題가 되었다.

우리의 총반격작전이 시작되자, 해군은 敵의 手中에 있는 모든 基地들을 하루 속히 탈환하여 해군경비부를 재건시키고, 또한 南韓의 여러 항구들을 탈환하여 港口의 기능을 복구시키는 한편, 海岸일대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군 鎭海방위대의 병력을 南海岸지역에 출동시키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南海岸지역 進擊戰

敵의 手中에 있는 南海岸의 三千浦—麗水—木浦등지는 海上교통의 要地일 뿐만 아니라 水深이 깊어 大型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港口이므로 해군의 基地로써 혹은 航路의 中繼地로서 군사적 가치는 자못 큰 것이었으며, 또한 地理的으로는 內陸지방으로 통하는 關門이기도 하였다.

우리 해군은 鎭海基地를 중심으로 南海岸일대의 海岸지방과 중요한 港口들을 차례로 탈환하는 海上機動작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9월 26일 : 統營(現 忠武市) 부근의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鎭海방위대 제1부대(장, 金忠男중령) 밑의 2개 중대(약 230명)는 해군 鎭海방위대장 金錫源대령의 명령으로 白南昇소령 지휘 아래 9월 26일 06.00에 統營港에서 FS—105艇(장, 崔富英중위)에 탑승한 다음, 南海島로 出航하였다.

07.00, 南海島 北端에 위치하는 船所里海岸에 上陸한 白중대(당시 이렇게 칭하였다)는 敵情을 탐색한 결과, 이곳 南海島에 있던 약 1개중대 가량의 敵이 며칠 전에 陸地로 이미 후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白중대는 接戰없이 이 섬을 탈환하게 되었다.

9월 27일 : 이날 05.00에 船所面를 출항한 白중대는 北쪽 對岸에 위치한 三千浦로 향하였다.

이곳 三千浦에는 약 2개 중대로 추산되는 敵이 있었으나, 역시 數日 前에 山岳지대로 후퇴하였으므로 중대는 敵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여기를 탈환하였다.

9월 29일 : 南海島와 三千浦를 탈환한 白南昇소령이 지휘하는 해군 鎭海방위대 제1부대의 2개 중대는 三千浦港에서 2척의 수송선에 탑승하고 YMS—507艇(장, 白麟基중위)을 旗艦으로 504艇(장, 姜景遠중위), JMS—301(장, 朴基政대위), 307(장, 鄭時圭대위)艇등의 호송 아래 이날 05.00에 麗水를 향하여 出港하였다.

임시로 편성된 이 上陸船을 호송하는 기동정대는 麗水港 1mile前方 海上에서 敵이 抵抗할 것으로 예측되는 麗水港주변 高地를 목표로 30여발의 함포사격을 가하여 威力搜索을 敢行하였다.

이 무렵 해군 鎭海방위대 제2부대(장, 宋寅明중령)는 3척의 수송선에 탑승하고, PC-703艦(장, 李成浩중령)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날 03.00에 鎭海基地를 出港한 다음, 南海島 南端을 돌아 07.00에 麗水港 前方 1mile 海上에서 白 중대를 호송하던 機動艦隊와 서로 합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PC-703艦을 비롯한 여러 艦艇들은 麗水港에 부설된 敵의 機雷를 主砲와 기관포로 폭발시키면서 JMS-301정을 先頭로 30분 뒤에는 白중대를 先頭로 港內에 돌입, 上陸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麗水주변에 있던 1개 중대 가량의 패잔병은 海上에서 械雷를 폭발시키는 우리 艦艇들의 함포사격과 白중대의 호송함정들의 麗水주변 高地를 목표로 향한 집중사격에 놀라 놀랜 탓인지 저항없이 北쪽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麗水를 탈환한 해군 鎭海방위대는 同市의 치안을 확보하고,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던 良民들을 모두 구출하는 등으로 民心의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해군 鎭海방위대는 麗水港 南쪽에 散在한 突山島—金盤島—所里島등에 있는 殘敵을 몰아내고, 다시 高興반도에 上陸하여 반도의 全域과 반도부근에 산재한 羅老島—小龍島—居金島—半月島—草島—古金島—靑山島—靑島등의 南海岸 중부일대의 많은 島嶼의 殘敵을 驅逐함으로써 치안을 완전히 회복시켰다.

그리하여 방위대 제2부대는 한달 뒤인 10월 26일에 이르러 輸送船으로 鎭海基地에 복귀하였고, 白중대 만으로 湖南의 門戶인 木浦부근의 敵을 무찌르기 위하여 出動하게 되었다.

10월 1일 : 白南奭소령이 지휘하는 鎭海방위대 제1부대의 2개 중대는 FS-105艇(장, 崔富英중위)과 수송선 2척에 分乘한 다음, PC-703艦(장, 李成浩중령)을 비롯하여 JMS-301艇(장, 朴基政대위)과 YMS-504艇(장, 姜景遠중위)등 艦艇의 호송 아래 이날 04.55에 麗水港을 출항하여 木浦로 急港하였다.

이리하여 이 上陸기동경대는 珍島水路에 들어서게 되자, 水路주변 양쪽 高地에 잠복하고 있던 數千名의 敵으로 부터 사격을 받게 되었으므로 우리 艦艇들은 재빨리 敵陣에 함포사격을 퍼부어 敵을 격퇴시켰으며, 그뒤 기동정대는 16.15에 이르러 珍島水路를 빠져 나와 항해를 계속하던 중 木浦港 전방 北緯 38°43′08″, 東經 126°15′2″ 海上에서 上陸艦隊의 제일 先頭에서 항해하던 YMS-504艇(장, 姜景遠중위)은 敵이 부설한 機雷에 接觸되었는데, 이 機雷는 磁氣機雷로써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YMS-504 艇은 船底에 큰 구멍이 뚫어져 기관이 정지되고, 浸水가 심하게 되어 드디어 좌초되고 말았다. 이때에 같이 항해하던 PC-703 艦과 JMS-301 艇은 재빨리 구조작업을 전개하여 被擊艇의 승조원 37명 全員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였으니, 당시 여러 艦艇들이 협력하여 浸水 방지작업에 온갖 힘을 다한 결과, 被擊艇을 침몰寸前에서 구출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 被擊艇은 그 뒤에 수리하여 취역하게 되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上陸기동정대의 木浦上陸은 몇 시간 동안 늦어졌으며, 上陸기동정대는 좌초된 504 艇의 구조를 해군본부에 요청한 다음, 木浦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10월 2일 : 상륙기동정대는 이날 04.00에 木浦港 1mile 海上까지 접근 중이었는데, 이때 木浦港 주변 高地에 잠복하고 있던 數 木群의 敵은 우리 機動艇隊를 향하여 일시에 사격을 가하여 왔다. 그렇지 않아도 504 艇의 좌초로 말미암아 분노와 敵愾心에 불타고 있던 우리 장병들은 곧 敵 陣地에 대하여 함포사격을 집중시켜 敵을 침묵시키고야 말았으며, 이 함포사격에 敵은 저항을 계속하지 못하고 사격권 밖으로 퇴주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上陸 船團은 마침내 우리나라 西南海岸 유일의 良港인 木浦에 성공적인 上陸을 감행하게 되었다.

10월 3일 : 上陸에 성공한 白南奎중대는 木浦 수산시험장 부근에서 敵 약 2개소대의 저항을 받았으나 즉시 이를 격퇴하였으며, 또한 北橋洞과 南橋洞에 집결한 敵 약 1개중대는 民家에 대한 放火와 良民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이들과 교전하여 30분만에 모두 격파한 다음, 木浦형무소에 收監되어 있던 良民들을 모두 구출하였다. 이로써 수개월 동안에 걸쳐 敵治下에서 갖은 압박을 받으며 공포 속에서 신음하던 木浦市民들에게 再生의 기쁨을 안겨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白 중대는 서울탈환작전을 성공리에 끝마치고, 湖南지방의 패잔병을 격멸하기 위하여 10월 19일 木浦에 上陸한 해병 제2대대(장, 金鍾洙소령)와 임무를 교대하고 鎭海基地로 복귀하였다. 이리하여 해군은 10월 10일에 해군 木浦경비부를 복구시키고 사령관에 鄭漢設대령을 임명하였다.

(2) 東海岸地域의 進擊戰

敵의 浦項침공으로 말미암아 한 때 甘浦로 철수하였던 해군 浦項경비부는 국군과 UN軍의 총반격작전으로 浦項이 탈환되자 다시 浦項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해군은 9월 30일 東海岸의 甘浦—江口—竹邊—鏡湖—注文津등 여러 港口에 해군 海上감시소를 설치하였고, 浦項경비부에서 100명 규모의 병력을 각각 배치하여, 海上감시와 港口부근의 경비를 담당케 하였다. 10월 12일에 이르러 東海岸 鏡湖近方의 海域을 경비하고

있던 PC-704 艦(장, 玄時學소령)과 YMS-516 艇(장, 全哲雄소령), 그리고 506 艇(장, 許德和소령)은 墨湖에 주둔한 해군 海上감시소 요원들이 1개 대대로 추산되는 敵의 공격으로 교전하고 있다는 無電을 받는 즉시로 급히 墨湖港으로 향하여 急航한 다음, 敵이 집결하고 있는, 墨湖市 西쪽 1km에 있는 高地 一帶에 대하여 치열한 함포사격을 집중시켜 敵을 격퇴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감시소 요원들의 위기를 모면케 하였다.

10월 23일 해병대 제1대대(장, 高吉勳소령)는 LST-天安號(장, 金玉鄭대위)에 탑승한 다음, PC-704 艦(장, 玄時學소령)의 호송을 받으면서 釜山港을 出港하여 當日로 墨湖에 上陸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부근 墨湖해군 감시소경비원들을 도와 墨湖 일대의 殘敵을 격멸하는 한편, 北쪽으로 퇴각하는 敵의 退路를 차단하였다.

이 결과로 墨湖港은 해군 基地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해군 墨湖경비부를 재설치하는 동시에 사령관에 金斗燦중령을 임명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南韓海域의 基地를 탈환한 우리 해군은 海岸과 港口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敵이 부설하였던 수많은 機雷의 제거작업과 지상부대에 대한 수송업무를 아울러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南韓基地의 탈환과 北韓해역 진격까지의 기간 동안에 있어서 우리 해군의 종합戰果는 대략 다음과 같다.

戰 果

적 사 살	227명	47mm 적사포노획	1문
포 로	43명	설탄노획	1,490발
노획 : 로 켓 트 砲	4문	(기타 무기노획 생략)	

11. 韓國 空軍의 活動

참조 : 상황도 제 14 호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공군총참모장 소장 金 貞 烈	선 진 대 장 중령 韓 鎭 顯
비 행 단 장 대령 張 德 昌	공 군 병 원 장 중령 朴 乾 源
헌 병 대 장 중령 金 得 龍	

가. 서울 收復

仁川 상륙작전이 성공리에 끝나자 敵은 당황하여 全戰線에서 퇴각하기 시작하였고, 我軍은 이러한 결정적 好機를 포착하여 北進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戰局의 양상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공군은 戰列을 가다듬고, 戰備를 새로이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였다.

이 무렵 UN 공군은 계속적으로 洛東江 전선에서 敵의 後方補給路를 차단하기 위한 항공작전을 실시하는 한편, 地上軍의 총반격에 발 맞추어 對地 近接지원을 위한 공중폭격을 連日 감행하고 있었다.

공군의 비행단은 2주일 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F-51 전투기 조종훈련을 마친 조종사들로 하여금 F-51 전투기로 UN 공군과 더불어 洛東江 방어선 後方과 前方의 戰線 가까이에서 敵의 병력이동을 저지하고, 보급품집적소를 강타하고 있었다.

한편, 공군의 정찰비행대는 永川基地에서 피땀어린 노력을 다하여 정찰임무를 계속하고 있었고, 공군본부는 大邱에 주둔하면서 공군의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었다.

敵의 攻勢를 저지하던 我軍의 전반적인 戰勢가 총반격의 새로운 局面으로 돌입하게 되자, 大邱에서 출격하고 있던 비행단은 9월 23일에 汝矣島基地로 전진하였고, 공군본부 先遣隊는 韓鎭顯중령의 지휘 아래 海路로 서울에 전진하기 위하여, 9월 24일에 陸路로 鎭海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정찰비행대에서는 9월 24일을 기하여 汝矣島로 前進하였는데, 10월 3일에는 공군본부 잔류병력이 완전히 서울로 수복하게 되고, 이어서 10일 뒤에는 공군병

원, 그리고 이로부터 3일 뒤인 16일에는 공군사관학교의 순으로 완전히 서울로 복귀하기에 이르렀다.

공군은 UN軍과 韓國 육군의 怒濤와 같은 北進에 앞장 서서 正義의 先鋒戰力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아직도 여러가지 미숙하고 미비된 비행단으로 하여금 北韓 출격을 감행토록 하는 한편, 미약한 機體, 裝備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使命感 속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해 오던 정찰비행대를 정찰비행전대로 승격시켜, 이를 육군의 각 군단에 파견하고 연락과 정찰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총반격전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總力을 경주하였다.

이리하여, 汝矣島로 前進하여 北韓 각 지역을 强打하고 있던 비행단은 10월 24일을 기하여 드디어 赤都 平壤의 美林基地에로 前進하게 되었고, 육군의 2개 군단에 파견되어 있던 정찰비행전대는 전대본부를 서울에 두고 육군의 2개 군단과 더불어 城津과 价川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1) 비행단의 基地展開

UN軍의 仁川 上陸에 이어 서울탈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全戰線에서 我軍이 총반격을 감행하게 되자, 공군으로서도 大邱에서 출격하고 있는 비행단을 전투지역이 가까운 國內 중심부에 이동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공군 총참모장 金貞烈준장(10월 20일에 소장으로 진급)은 비행단의 基地를 汝矣島로 복귀할 것을 결정하고, 美 제5공군에 汝矣島基地에로의 이동을 건의하는 한편, 9월 중순 부터 基地정리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활주로 공사를 위한 장비도 없이, 이 基地를 복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뒤따랐으나, 이 복구계획이 汝矣島基地 부근의 市民들에게 알려지게 된 탓인지 하루는 노인, 어린이, 부녀자할 것 없이 1,000여명의 市民이 스스로 汝矣島基地 입구로 몰려 들었다. 어떤 사람은 낫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호미를 들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삽과 괭이를 가지고 왔으나 대부분 맨손 그대로였다.

이 愛國的인 市民들의 열성과 呼應에 감탄한 공군은 9월 23일에 비행단 主力과 헌병대 등 일부 병력 500명을 비행단장 張德昌대령 지휘 아래, 汝矣島基地로 前進시켜 자발적인 시민들과 더불어 基地 정리작업에 나섰다.

1,830m에 이르는 활주로는 풀과 바위와 돼어진 곳으로 그득하였으나, 풀을 깎고, 땅을 다지며 바위를 제거하며 이를 닦아 갔다.

이때 공군의 당부자는 48시간씩 계속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일했는데, 이러한 작업으로 말미암아 공군의 일개 士兵에 이르기 까지 하루 2~3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것이다.

9월 23일, 공군본부에서는 공군본부 작전명령 제51호로서 비행단의 全可動機를 汝矣島로 前進토록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2) 기타부대의 전개상황

공군의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공군본부는 大邱에 주둔하여, 비행단으로 하여금 먼저 汝矣島基地로 前進하게 하고, 9월 24일에 先遣隊長 韓鍾顯중령의 지휘 아래, 20명의 대원들이 陸路로 大邱를 출발하여 鎭海로 향하였다.

이들은 9월 26일에 모든 裝載작업을 완료하고, 27일에 鎭海에서 韓國해군의 L.S.T. 丹陽號 편으로 출발한 다음, 29일에 仁川港에 上陸한 즉시, 永登浦로 진출하여 城南중학교 構內에 본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날 총참모장 金貞烈준장도 前進본부에 도착하여 先遣隊를 독려하고 이들을 지휘하였다.

선견대는 10월 1일 20.00에 城南중학교를 출발하여, 前 공군본부청사가 있던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으로 前進하였으며, 3일에 李書星대위가 공군본부의 主力 147명(제2중대 병력과 통신기 3대 포함)과 비행단 잔여병력, 그리고 공군병원 主力을 이끌고 陸·海 兩路로 각각 서울에 前進하였으며, 10일에는 이들이 완전히 집결하게 되었다.

한편, 공군병원은 東萊邑에 주둔하고 있다가 이달 13일을 기하여 姜顯宇중위가 인솔하는 36명은 海路로, 金性煥소위가 인솔하는 7명은 차량 4대를 이용하여 陸路로 각각 출발하여 서울家庭保育師範學校(中區 忠武路 二街所在)로 前進하게 되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이르러 공군사관학교가 鎭海에서 永登浦로 前進함으로써 공군본부와 예하부대가 모두 서울로 복귀하게 되어 새로운 작전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공군 헌병대는 비행단과 정찰비행대등의 작전부대는 물론 공군의 비전투부대의 基地展開나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이들의 前哨兵으로서 基地와 주둔지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一方으로 소규모의 전투에도 임하여 그 확약이 높부신 바 있었다.

꾸준히 병력을 증강하면서 이와 같은 임무에 매진하여 오던 헌병대(장, 金得龍중령)는 10월 1일 공군본부 先遣隊가 서울로 수복하게 되자 헌병대본부를 서울에 두고, 南韓 각 基地에 헌병파견대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10월 14일에는 헌병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鄭泰柱중위를 비롯하여 142명을 一般兵科로 부터 차출하여 헌병병과에 편입시키고, 서울收復의 최종부대인 사관학교가 永登浦에 前進한 16일에는 이미 平壤에 헌병 10명을 파견하여 파견대를 설치하고, 비행단의 前進을 위한 기초작업을 서두르고 있었다.

이어 10월 21일에는 平壤의 美林基地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병 15명을 空路로 증파하여 비행단의 前進을 용이하게 하였고, 비행단이 30일을 기하여 완전히 美林基地로 前進하게 되자 파견대는 基地경비를 맡아 보게 되었다.

이윽고, 11월 20일에는 新安州에 헌병 11명을 파견하여 基地를 확보하였다.

나. 비행단의 작전활동

9월 23일에 大邱에서 汝矣島로 이동한 비행단은 새로이 申攸陝소령, 金斗萬중위, 田鳳熙중위의 세 사람을 F-51 전투기 조종사로서 전투에 임하게 하여 조종사 진용을 강화하였는데, 이로써 F-51 전투기 조종사는 모두 8명(申攸陝소령, 朴熙東대위, 姜錡倫대위, 丁永鎭중위, 李相乘중위, 金成龍중위, 金斗萬중위, 田鳳熙중위)에 이르렀다. 이들은 비행훈련을 거듭하면서 韓國 西北지역에 대한 出擊을 하였다.

한편 항공기에서는 통신수단이 빈약하여 手信號法과 機體의 搖動에 의한 信號法등으로 意思를 소통하였고, 또한 地上의 彼我間 식별과 固定 목표물에 대한 탐색은 경험으로 실시하고, 이 경험을 다음 차례의 피교육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항공기에서의 지상군 彼我間 識別은 대개 다음과 같은 요령을 採擇하였다.

첫째 : 행군하여 갈 때 我軍은 道路를 따라 행군하나, 敵은 산비탈을 따라 가거나 道路 밖에서 행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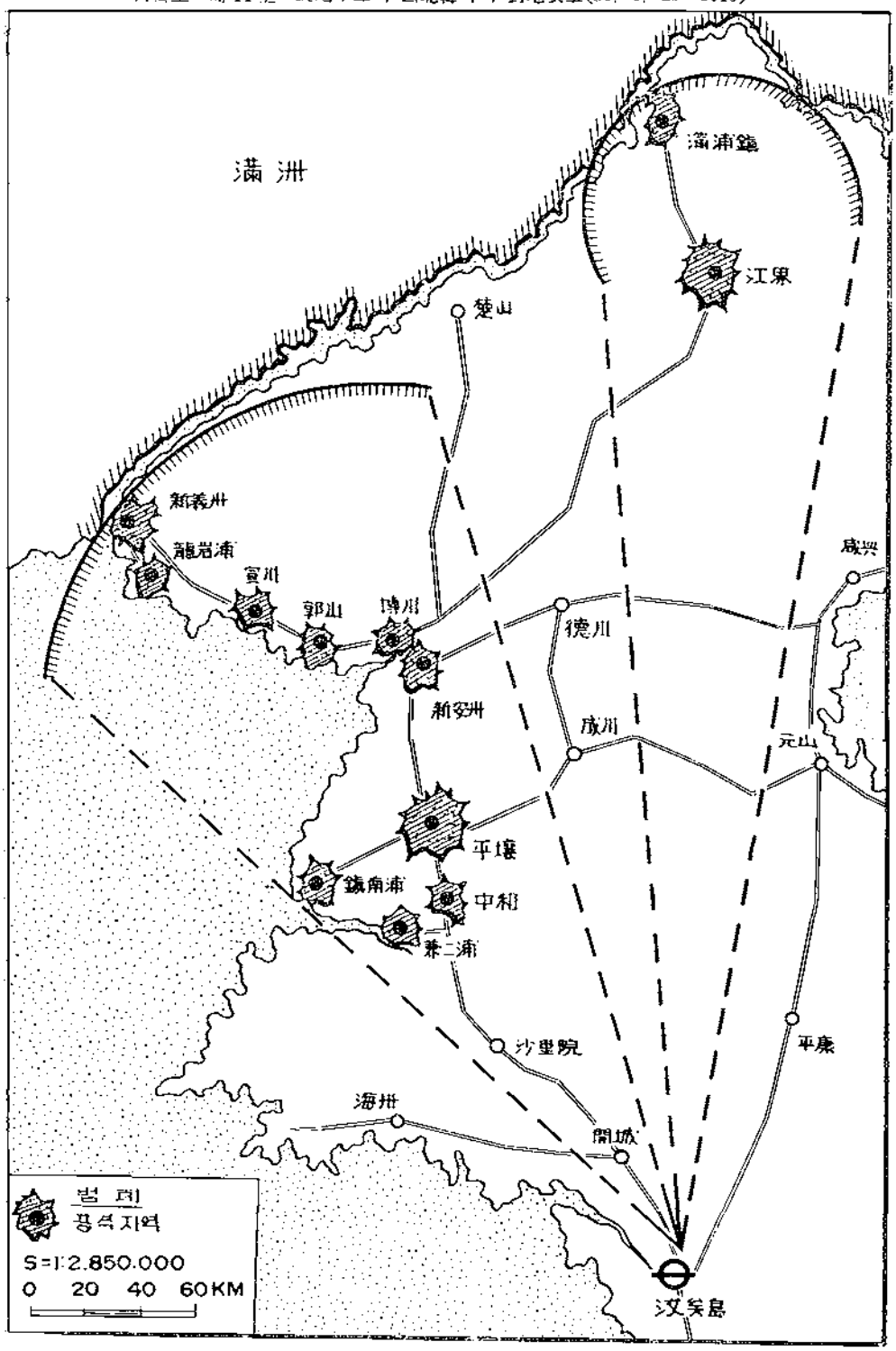
둘째 : 我軍의 服裝은 단일하게 통일되어 있으나, 그들의 服裝들이 가지각색이다.

세째 : 我軍은 총을 어깨에 메고 가는데 비해, 敵은 총을 옆구리에 끼고 간다.

네째 : 我軍은 수송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는데 비해 敵은 우마차, 오토바이등으로 복잡하게 混用한다.

다섯째 : 我軍의 군사목표는 僞裝을 잘 하지 않는데 비해 敵은 주위환경을 이용하여 교묘히 僞裝한다.

삽화도 제 14 호 韓國空軍의 西北韓지역 對地攻擊(50. 9. 25~1013)



여섯째 : 韓國軍은 戰車가 없는데 비해 敵은 戰車가 있다. (1950년도 말까지 韓國軍은 전차를 쓰지 않았다)

T-6 연습기를 타고 있던 韓國 공군의 조종사들이 F-51 전투기로 機種을 전환하여 그나마도 평균 15~20시간씩의 훈련을 끝내고는 출격하였으나, 원래 機種전환 훈련에는 60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조종 교육을 실시하던 이유는 戰局의 급박한 상황에 비추어 빨리 이에 대처하는 공군의 작전을 펴기 위하려는데 있었다.

이해 9월 30일까지 공군이 도입한 F-51 전투기는 모두 16대에 이르렀다. (1952년도 공군본부 군수국의 「군원물자도입 종합보고」참조)

이중 5~6대가 전투 중 파손되거나 훈련 중 파손되어 실제로 공군이 보유한 대수는 10대 정도이었다. 그러나 10대의 F-51 인가대수로 인하여 파손이 되면 보충하게 되어 항시 10대는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와 같이 비행단은 겨우 10대 정도의 부족한 전투기로써 汝矣島基地로 前進하는 즉시로 美 공군과 협조하여 韓國 西北지역에 대한 對地공격을 실시하였는데, 주로 敵의 군용건물과 보급품 집적소, 操車場을 비롯하여 기관차와 마차, 트럭등의 輸送行列은 물론 교량등 교통의 要點을 폭파하였다.

9월 23일부터 對地공격에 나선 비행단은 美林基地로 前進하기 전인 10월 13일까지 新義州—龍岩浦—郭山—中和—新安州—鎭南浦—平壤—博川—兼二浦—南市—江界—滿浦鎭등의 각 지구에서 목표물을 爆彈과 로켓트, 네이팜彈, 機關砲彈등으로 공격하여 많은 成果를 올렸는데, 汝矣島基地에서의 출격상황을 날자 별로 살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1950년도 「戰鬪要報」 참조)

9월 23일 : 朴熙東대위와 金成龍중위는 美 공군 1명을 포함한 F-51 3機 편대는 新義州를 맨 처음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125kg 폭탄 2개와 로켓트彈 18개, 機關砲彈 2,500발로 新義州上空에서 敵의 트럭 3대와 군용건물 5동을 격파하고 돌아왔다.

이어 이날 오후, 丁永鎭중위와 金成龍중위는 美 공군 2명과 같이 F-51 4機 편대로써 역시 新義州 上空에서 로켓트彈 24개와 機關砲彈 3,900발을 敵陣에 퍼부어 교량 3개소를 파괴하고, 차량 3대와 군용건물 10동을 격파하였다.

9월 24일 : 朴熙東대위, 丁永鎭, 金成龍 兩 중위가 美 공군 1명과 같이 조종하는F-51 전투기 4機편대는 이날 14,50. 汝矣島를 이륙하여 一路, 龍岩浦 上空에 이르러 로켓트彈 24개와 네이팜彈 2개, 機關砲彈 3,700발로 교량 3개소를 비롯한 敵의 군수품 수송용 마차 1대와 군용건물 2동을 炎上시켰다.

이날 基地로 돌아 온 丁永鎭중위는 다시 美 공군 2명과 더불어 3機 편대로 宣川지역으로 출격하여, 로켓트彈 18개와 네이팜彈 2개, 機關砲彈 2,500발로 敵의 차량 6대와 보급품집적소 2개소를 분쇄하였다.

9월 27일 : 朴熙東대위와 丁永鎭중위, 그리고 美 공군 조종사 2명등의 F-51 전투기 4機 편대는 郭山지역 上空에서 敵의 차량 1대와 교량 3개소를 폭파하였는데, 125kg 폭탄 4개와 로켓트彈 24개, 네이팜彈 1개, 機關砲彈 3,400발로 목표를 공격한 것이다.

이날 이들과 편대를 달리한 姜錫倫대위와 金成龍중위 및 美軍 2명의 F-51 4機 편대는 로켓트彈 24개와 네이팜彈 4개, 그리고 機關砲彈 3,900발로 平壤 근교에서 敵의 차량 2대와 군용건물 2동을 폭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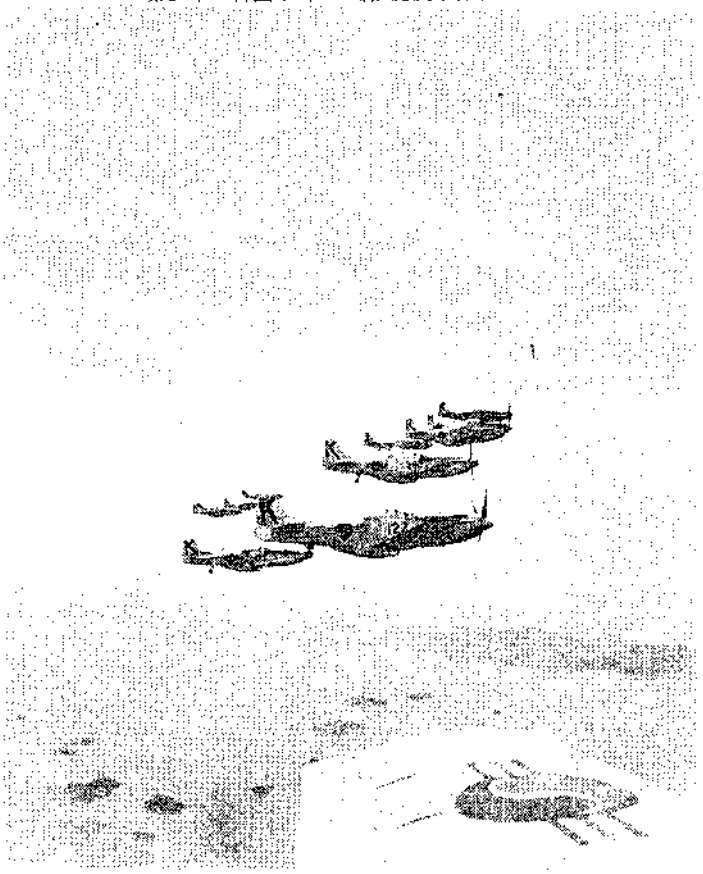
9월 29일 : 金成龍중위와 金斗萬중위, 그리고 美軍 2명으로 편성된 F-51 4機 편대는 로켓트彈 24개와 네이팜彈 4개, 機關砲彈 3,100발로 中和지역에 출격하여 敵의 차량 6대와 기관차 2대, 군용건물 3동을 여지없이 폭파하였는데, 金斗萬중위는 이날 처녀출격으로 크게 활약하였다.

한편 이날 朴熙東대위와 丁永鎭중위 및 美軍의 또 다른 조종사 2명을 포함한 F-51 4機 편대는 平壤上空에 이르러 로켓트彈 24개와 네이팜彈 4개, 그리고 機關砲彈 3,800발로 敵의 차량 4대와 군용건물 10동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9월 30일 : 姜錫倫대위와 丁永鎭, 金成龍중위등 韓國공군 조종사 3명과 美 공군 조종사 1명으로써 한 組를 편성한 F-51 4機 편대는 이날 新安州에 출격하여 교량 2개를 파괴하였다.

10월 1일 : 朴熙東대위와 金成龍중위, 그리고 2명의 美軍 조종사를 포함한 F-51 4機 편대는 鎭南浦에 출격하여 로켓트彈 24개, 네이팜彈 4개, 機關砲彈 3,900발로 敵의 군용건물 15동을 차례로 불태워 버렸다.

이어 이날 丁永鎭중위와 金成龍중위, 그리고 美軍 2명의 4機 편대는 다시 平壤上空에서 작전상 중요한 교량 1개소를 절단하고, 敵의 군용 건물 7동을 파괴하는 한편, 操



〈韓國 공군 F-51機의 敵陣출격〉

車場 1개소를 폭파하였는데 125kg 폭탄 4개와 로켓트彈 4개, 그리고 機關砲彈 3,600발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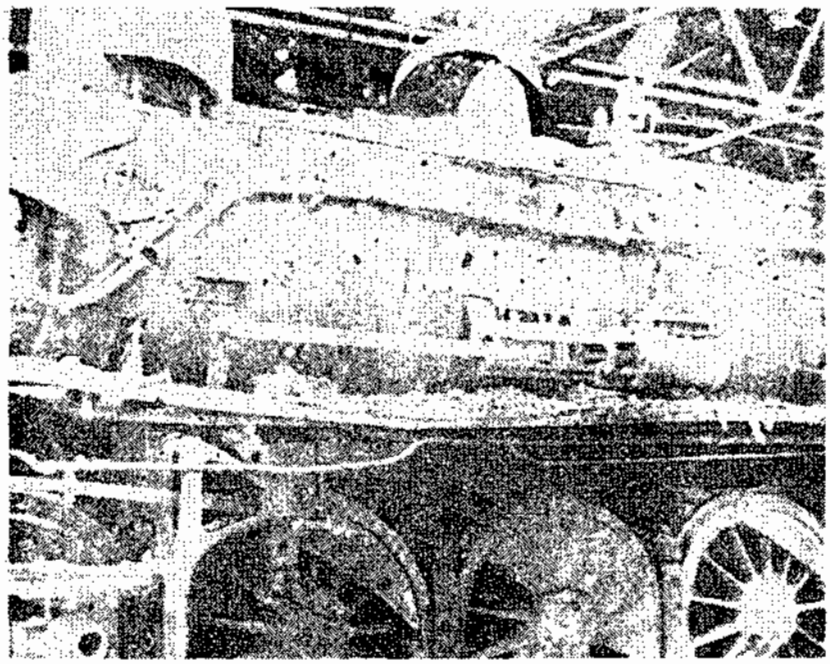
10월 2일 : 朴熙東대위와 丁永鎭중위, 金成龍중위, 李相垂중위와 美軍등으로 編成된 F-51 3개편대는 新義州—博川—雙三浦등지에 출격하여, 敵의 차량 6대와 군용건물 11동을 격파하고 敵兵 35명을 사살하였다.

10월 5일 : 姜錫倫대위와 金成龍중위, 그리고 美軍 2명으로 편성된 F-51 4機 편대는 南市를 거쳐, 新義州 方面에 출격하여 로켓트彈 24개와 네이팜彈 6개, 機關砲彈 3,200발로써 南市의 교량 1개소를 폭파하고 新義州에서는 敵의 군용건물 6동과 操車場 2개소를 炎上시켰다.

이와 편대를 달리한 丁永鎭중위, 李相垂중위와 美軍 2명의 F-51 4機 편대는 이날 江界 上空에서 敵의 군수품 수송용 기관차 5대와 군용건물 2동, 교량 1개소를 125kg 폭탄 4개와 로켓트彈 24개, 機關砲彈 3,800발로 공격하여 대파하였다.

10월 10일 : 姜錫倫대위와 丁永鎭중위, 金成龍중위, 그리고 美軍 1명의 F-51 4機 편대는 江界市街 上空에서 125kg 폭탄 2개와 로켓트彈 24개, 機關砲彈 4,000발로 敵의 군용건물 2동과 교량 2개소, 그리고 敵의 차량 1대를 공격하여 이를 大破하였다.

10월 13일 : 丁永鎭중위와 金成龍중위, 그리고 2명의 美軍들을 포함한 F-51 4機 편대는 로켓트彈 24개와 네이팜彈 4개로써 江界와 滿浦鎭方面에 출격하여 교량 2개소와 차량 5대를 對地공격으로 파괴하고 敵兵 20명을 사살하였다.



〈韓國 공군 F-51機의 機銃사격으로 못 쓰게된 敵의 기관차(1950. 新幕)〉

한편 이날 朴熙東대위, 李相亞중위, 그리고 美軍 2명으로 편성된 F-51 4機 편대는 250kg 폭탄 4개와 로켓트彈 4개로 平壤 上空에 이르러 熾熱하는 對空砲火 속에서도 이를 헤치며 목표물을 향하여 공격을 가하였다.

이들이 金日成대학 부근의 군용건물을 强打하고 돌아 오던 중, 李相亞중위의 愛機에 敵地上砲火가 被彈되어 李중위는 機體와 더불어 祖國의 上空에서 文字 그대로 散華하게 되었으니, 그 장렬한 최후는 全 공군장병의 敵愾心을 더욱 불타게 하였다("S遺話 2" 참조)

이리하여 10월 14일부터는 韓國 西北지역의 폭격을 중단하고, 10월 24일을 기하여 平壤의 美林基地로 前進하게 되었는데,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비행단이 汝矣島基地에서 北爆에 임하여 세운 戰果는 다음과 같다.

敵의 군용건물 파괴 ……110동

敵의 차량 폭파……40대

작전상 주요교량 파괴……18개소

敵 보급품집적소 폭파……2개소

군수품 수송용 우마차 폭파 ……1대

군수품 수송용 기관차…… 7 대

敵 操車場 폭파…… 3 개소

敵兵 사살 ……55명

한편 기간 중에 비행단의 공군 조종사와 美 공군 조종사들이 출격한 延機數는 각 40機와 34機로서 도합 74機에 달하고 있다.

폭탄과 네이팜彈은 주로 美 공군측에서 투하하고 공군은 機關砲(Cal 50)와 로켓트彈을 사용하였는데, 탄약소모현황은 아래와 같다.

탄약 소모 현황 〈1950년 9월 23일부터 동년 10월 13일까지〉

일자별	탄약소모 (韓國 공군)		탄약소모 (美國 공군)			
	機關砲彈(발)	로켓트彈(개)	機關砲彈(발)	로켓트彈(개)	爆彈(개)	네이팜彈(개)
9. 23	1,800	24	700	18	2	4
24	5,900	24	4,200	18	6	
27	4,000	24	3,200	24	8	
29	3,600	24	3,300	24		8
30	2,800	18	700	6	2	
10. 1	4,100	24	3,400	24	4	4
2	5,300	36	5,000	36		8
5	3,800	24	3,200	24	4	4
10	3,200	18	800	6	2	
13	3,900	24	3,600	2	4	4
계	39,400	240	28,100	204	26	38

(※ ( )표 내는 단위)

그리고 기간 중 공군 조종사의 개인별 출격은 金成龍중위의 12회와 丁永鎭중위의 11회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朴熙東대위—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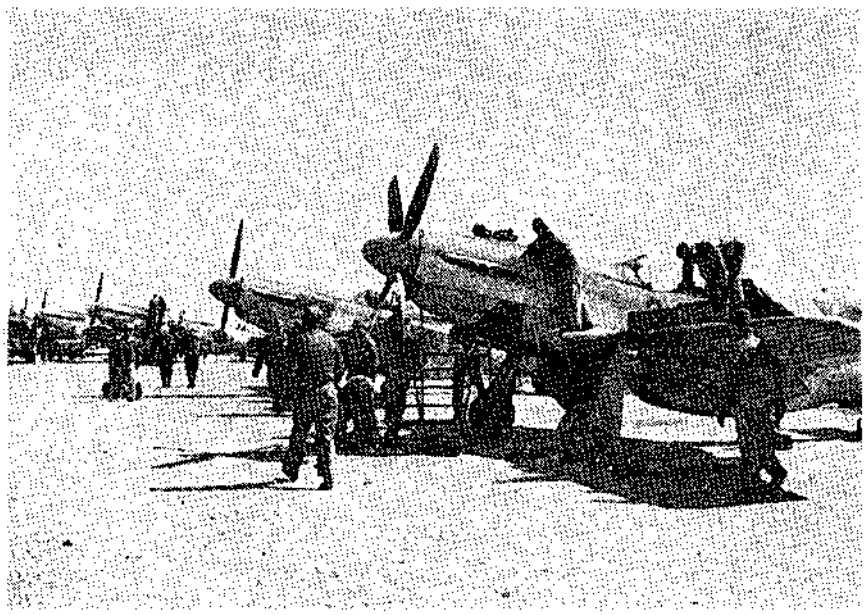
姜鎬倫대위—4회

丁永鎭중위—11회

金成龍중위—12회

李相亞중위—3회

金斗萬중위—2회



〈F-51의 정비에 여념이 없는 韓國 공군의 정비진들〉

§ 參戰者의 略歷

◇ 金得龍

1950. 7.26. 한방대장
1951. 5. 1. 공군사관학교 부교장
1952. 7.15. 감찰감
1953. 4. 1. 기술학교장
1953. 6. 3. 인사국장
1955. 5.15. 제102기지단장
1955.10.15. 제 7 항로보안단장
1956. 8. 1. 기술교육단장

◇ 韓鎬顯

1949. 2.21. 육군항공사령부 인사참모
1950. 6.11. 공군본부 인사국장
1951. 2.28. 공군사관학교 부교장
1952. 9.15. 항공병학교 부교장
1953. 7.15. 정보국장 겸 제20특무전대장
1954. 6.20. 기술학교장
1955. 합동참모본부 제 1 부차장

◇ 桂元詰

1948.10. 1. 공군병원 외과과장
1950.10. 1. 비행단 의무처장
1951. 8.19. 비행단 비행대대 의무반장
1951. 9.18. 제209의무전대장
1952. 3.31. 의무감실 의무과장
1953. 2.15. 제10의무전대장
1956. 의무감실 차감

◇ 李相垂

1948. 7.22. 육군 항공기사령부
1949. 3. 1. 항공사령부 비행중대
1949.10. 1. 공군 독립비행단
1950.10.13. 전사

12. 韓國 海兵隊의 木浦地區 戰鬪 (1950년10월19일 / 1950년11월26일)

참조 : 상황도 제 15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대대	장 소령	金 鍾 根	제6중대	장 중위	朴 成 哲
부 대 대	장 대위	金 龍 國	제7중대	장 중위	鄭 光 鎬
제5중대	장 중위	沈 布 學	제8중대	장 중위	徐 廷 南

敵 軍

敗殘兵 약 20,000명(그중 500명이 武裝하고 나머지는 鐵砲 혹은 竹槍등을 소지)

나. 전투 전의 개황

UN軍과 韓國軍에 의한 仁川上陸作戰과 首都 서울탈환작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洛東江 戰線에서 死力을 다해 최후의 저항을 企圖하던 北傀軍은 我軍이 감행한 一齊 반격작전으로 인해 그들의 全戰線은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 하였다.

이때 美 제7사단의 일부부대는 洛東江 戰線에서 北進하는 美 제1기갑사단과의 連繫作戰을 위해 京釜間 國道을 따라 南進, 水原비행장을 占領한 후, 그 南方 烏山 근처에서 9월 26일 그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패주하던 敵의 主力은 魂飛魄散하여 太白山脈일대의 山岳지대로 잠입하고, 北上도주를 꾀하게 되었으나, 湖南지역에 침투하여 가진 악랄한 방법으로 만행을 일삼던 敵은 自然히 그 퇴로가 차단되는 형세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퇴로를 차단 당한 敵들은 我軍 전방력이 38°線을 넘어 韓·滿 國境을 지향하고 진격 중이었으므로, 後方 治安이 소홀히 됨을 기화로 良民을 납치, 또는 학살하고 약탈과 방화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당시 木浦지구에는 約 20,000명(北傀軍 및 地方赤色分子)이 集結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月出山, 國師峰일대에 潛入하여 蠢動을 비롯한 長興—咸平—務安—榮山浦 및 羅州등지에 出沒하는등, 그들의 蠢動은 日益 격심하여 갔으므로, 이와같은 敵情에 따라 당시 육군 제11사단 예하 제20연대가 三浪津地區로부터 晋州—河東—求禮—谷城—潭陽을 거쳐, 10월 15일 光州에 進駐함으로써 湖南지방의 殘敵 섬멸전은 시작되었다.

또한 해군에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西南海岸의 교통의 要地인 木浦에 해군 경비부의 再設을 서두르고 아울러 木浦近方의 치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鎭海지구 後方 요원들로 구성된 白部隊(장, 白南杓 소령)를 艦船 편으로 木浦에 파견하여 제20연대와 보조를 맞추어 殘敵섬멸에 전념하게 하였다. 그러나

敵들은 村落과 平地에서 부터 점차 山岳지대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조직적인 게릴라戰을 企圖하였기 때문에 陸戰에 경험이 없었던 白부대만으로는 木浦지구에서 蠢動하는 敵을 분쇄하고 빠른 시일 안에 治安를 회복하기가 힘겨웠을 뿐만 아니라 時急한 경부비의 再設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光州에 本部를 둔 육군 제20연대의 협력도 기대할 수 없었던 해군에서는 이미 東仁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해병대의 일부병력으로 木浦지구의 殘敵 섬멸작전을 전개토록 요청하게 되므로써 해병대 사령관 申鉉俊대령은 작전명령을 하달, 金鍾泌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로 하여금 木浦지구의 殘敵을 섬멸하고, 아울러 해군木浦경비부의 재설을 지원토록하기에 이르렀다.

다. 작전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韓國 해병대가 美 해병대와 더불어 首都탈환작전을 서두르고 있을 무렵인 9월26일, MacArthur UN軍 총사령관은 그의 권한으로서 합동계획부대와 작전부대에 대하여 38°線 以北에 까지 戰線을 전개하는 계획을 시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작전명령 「9—50」은 美 제10군단을 제속 MacArthur사령부의 독립부대로서 元山에 上陸시켜, 西海岸을 따라 진격하는 美 제8군과의 連繫작전을 시도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美 제10군단의 일원으로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韓國 해병대와 美 제1해병사단은 首都 서울수복작전에 이은 외곽방어선의 완성을 끝으로 10월6일 仁川으로의 이동을 개시, 다음날인 7일에는 부대집결을 완료하게 되었다. 元山에 上陸, 돌격하려는 美 해병제1사단장 Smith 소장이 10월 10일 예하에 하달한 작전명령 「6—50」은 上陸日을 당초 15일로 예정하였으나, 해군에서의 지원艦艇의 지연 도착등 不可避한 사정으로 18일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20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이와같은 일련의 거창한 계획은 10월 1일 韓國 육군 제1군단이 이미 38°線을 돌파, 北進하고 있었고, 10월10일에는 元山을 점령하게 되므로써 作命 「9—50」은 완전히 수정되지 않으면 아니 되었고, 따라서 美 해병사단의 作命「16—50」 또한 철회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나 美 10군단을 元山에 기습상륙이 아닌 행정상륙으로 귀결된 최종결정에 따라 仁川에 집결하여 부대정비를 실시 중이었던 韓國 해병대의 主力은 10월 13일 乘船을 완료하고 元山을 향해 出港하게 되었다.

해병 제2대대(장, 金鍾泌소령)는 이와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해병대 作命으로서 木浦지구의 殘敵섬멸과 치안을 확보하고, 아울러 해군 木浦경비

부 再設작업을 돕기 위하여 10월 18일 18.00 LST 丹陽號에 탑승, 木浦를 향해 出港하고 다음날인 19일 08.00 木浦港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다.

(2) 작전실시

10월 19일 : 木浦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부두에 도착한 해병 제2대대(장, 金鍾淇소령)는 제8중대, 제5중대, 제6중대, 제7중대 順으로 下船하여, 즉시 市內 중심부에 위치한 目高국민학교에 대대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鎭海에서 先遣되어 木浦경비부 再設과 치안유지에 힘써 온 해군의 白부대(장, 白南哲소령)로부터 木浦市의 치안과 경비임무를 정식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木浦지구의 상세한 敵情을 재빨리 파악하고 당면한 하역작업등 분망한 일정 속에서도 해병 제2대대는 주어진 사명과 수도 서울탈환작전에 참가한 자랑스러운 부대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호응하기 위해 제7중대(장, 鄭光鎬중위)를 예비대로 하고, 제5중대(장, 沈布學중위)와 제6중대(장, 朴成哲중위), 그리고 제8중대(장, 徐廷南중위)로 하여금 市 외곽일대에 배치하여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殘敵과 赤色分子들의 내습에 대비하여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10월20일 : 대대는 불투명한 敵情을 수색하기 위하여 제5중대(장, 沈布學중위)에서 2개 분대를 차출하여 木浦市 東北方 龍康里부근을, 그리고 제6중대(장, 朴成哲중위)에서 1개 소대를 차출하여 靈岩부근의 敵情을 수색케 하였다.

이리하여 이들로부터 敵의 패잔병들이 海南부근에서 山岳지대를 따라 月出山(△809)와 木浦에서 40㎞ 떨어진 國師峰(△513)을 연결하는 線을 따라 패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된 대대장은 곧 대대 主力으로 하여금 이들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을 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10월21일 : 이날 대대장은 제7중대를 제외한 대대主力을 직접지휘하여 06.00, 차량편으로 木浦를 떠나 海南부근에 진출하였으나, 敵들은 이미 山岳지대로 패주하여 버린 후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대대는 이날 18.00에 木浦에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날 機動에서 곤란을 당한 것은 패주하는 敵들이 모든 橋梁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차량기동에 많은 제한을 주었으나 歷戰의 용사들로 구성된 대대는 이를 무난히 극복할 수가 있었다.

10월 22일 : 계속적인 UN軍의 진격으로 四顧無援이된 敵들은 점차 그들의 本色을 드러

내기 시작하여 最後發惡을 일삼았는데, 그들은 良民을 꾀어 國軍이 진주하면 죽는다고 山으로 납치하는가 하면 학살과 약탈, 방화를 자행하였다. 이들은 또한 山岳지대로 잠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술에 있어서 게릴라戰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여 그의 만행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약 100명의 패잔병과 지방赤色分子들이 連合하여 집단적으로 靈岩부근에 출몰하여 良民을 학살하는 한편,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는 情報를 제2대대가 입수하게 된 것은 바로 이날 밤이었다.

10월 23일 : 22일 입수된 情報로 날이 밝기를 日如千秋와 같이 기다린 대대장 金鍾淇소령은 제5중대장 沈布學중위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2개 소대로 하여금 靈岩에 出動케 하여 패잔병과 악질적인 지방赤色分子들을 섬멸케 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중대장 沈布學중위는 2개 소대를 인솔하고 05.00경 木浦를 떠나 靈岩으로 향하였으나, 國軍來到를 안 敵들은 魂飛魄散하여 國師峰(△513)등 山岳지대로 뿔뿔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한 沈布學중위는 은밀히 매복조를 敵의 퇴각로에 이미 배치 완료하였으므로 이들 매복조는 패주하는 敵을 不時에 공격하여 敵 사살 8명, 포로 49명의 戰果를 거두게 되었다.

10월 24일~29일 : 기간 중 혜병제2대대는 敵의 조직적인 위협으로부터 木浦市를 경비하기 위하여 市 외곽경계에 임하는 한편, 각 중대에서는 수색정찰대를 편성, 부대본부를 중심으로 當日, 또는 翌日까지 귀대할 수 있는 거리를 수색정찰하면서 새로운 敵情탐지에 노력하였다.

9월 15일 감행된 仁川上陸작전과 서울탈환작전에서 언제나 先鋒에 서서 敵을 격멸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은 자랑스러운 부대이면서도 내망의 北進작전의 先鋒에서 제외 싸우지 못하고 後方에서 패잔병들을 상대하게 된 제2대대(장, 金鍾淇소령) 장병들의 불평은 대단한 바가 있어서 대대장은 이와같은 장병들의 불평을 무마하고 士氣진작에 매우 고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이 지역의 소탕전이 끝나면 우리도 北韓의 전투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최전선에 싸우게 되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대대장은 언제나 장병들을 타일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은 좀체로 갈아 앉지 않았다.

대대가 敵情탐색전은 실시함에 있어서는 밝고 청명한, 푸르익은 가을날씨가 계속되는 가

간이었기에 기후로 인한 제약은 없었으나, 도처에서 장병들은 간악한 敵들이 휩쓸고 지나간 상처가 너무도 커서 곡창지대라는 이 고장 平野에는 추수하는 人影을 찾아 볼 수가 없었고, 농촌마다 가족을 敵들에게 학살 당하거나 납치 당해 극도의 슬픔과 허탈, 그리고 실망과 원한에 가득찬 주민들을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에 점차 생각이 미치었기 때문에 장병들의 불평은 차차 갈아 앉아 갔고, 北進 못지 않는 보람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어 주민을 대신하여 불구대천의 원수 박멸에 더욱 정진하게 되었다.

10월 30일~31일 : 패잔병과 악질적인 地方赤色分子들로 구성된 殘敵들이 식량약탈은 물론 良民을 납치, 학살을 목적으로 三望面 일대에 출몰하였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대대는 제5중대(장, 沈和學중위)의 1개 소대를 출동시켜 가증스러운 이들의 만행을 事前에 봉쇄하고, 나아가 이들을 격멸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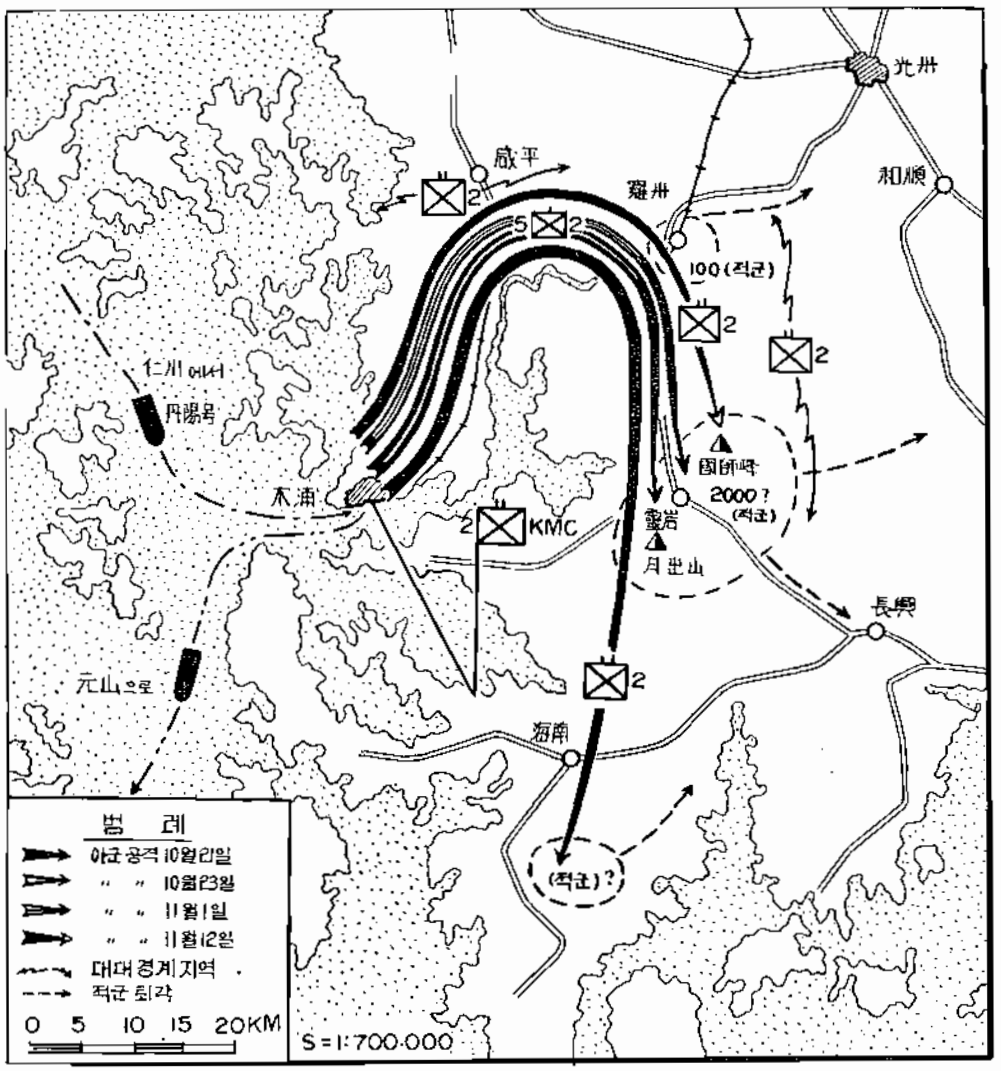
이 소대는 그동안 쌓은 殘敵 섬멸의 경험에 입각하여 事前 용의주도한 계획을 수립, 가능한 퇴각로를 차단, 출몰지역을 에워 싸, 敵 다수를 사살하고, 지방 赤色分子 59명을 사로 잡는 戰果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다음날까지 부근 일대를 수색, 새로운 敵情을 찾았으나, 별다른 상황을 발견하지 못해 31일, 본대로 귀대하였다.

11월 1일~5일 : 1일 역시 제5중대는 대대장 명령에 따라 차량으로 중대장 이하 150명이 靈岩에 출동하여 이로부터 3일간 중대지휘소를 각처에 전전하여 설치하면서 유격활동으로 부근일대에서 출몰하는 패잔병들과 通合된 이 지방赤色分子들의 만행에 대비하고 아울러 이들 敵을 섬멸하기에 진력하여 기간 중 중대는 민간인으로 변장한 패잔병과 악질적인 赤色分子 20여명을 사로 잡았다.

3일에는 또한 대대의 각중대가 1개 소대씩의 수색대를 또 다시 편성하고, 木浦以東 내륙지방에 출동하여 敵情탐색전을 전개하였으니, 이 탐색전은 대대가 木浦를 떠나 元山지구에서 작전 중인 해병대 主力과 합세하기 위해 船便으로 떠나기 까지 계속되었다.

11월 6일 : 전날과 같이 대대의 각중대 수색대가 출동, 敵情탐색에 전념하던 이날, 제7중대(장, 鄭光鎬중위)에 차출되어 출동한 수색정찰대는 羅州郡 古幕院에서 敵을 발견하고 지방민들의 협조를 얻어 지금까지 저지른 엄청난 죄상에서 용서받지 못함을 자각하고 연명책으로 山岳지대로 도피하였으나, 이미 퇴로를 잃고 거지 꼴이 된 赤色分子와 패잔병이 혼합된 敵 27명을 사로 잡아, 약탈과 방화등 온갖 수법을 다해 발악하려든 이들의 만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상황도 제 15 호 木浦부근작전도(1950. 10. 19~11. 29)



1월 7일~8일 : 해병 제 2 대대에 의한 木浦지구의 殘敵 및 지방赤色分子의 탐색전이 진척이 되고 이렇듯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敵의 집단적인 만행도 그 차취를 점차 감추게 되었으나, 반면 敵은 靈岩 南北쪽 國師峰과 月出山등 인적이 드문 地勢를 이용, 본거지를 구축하고 이곳에 遁入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여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 속에 대대는 숨을 돌려 이들 본거지를 색출하고 적멸, 분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라고 판단, 그 본거지의 위치방지에 全 대대 力量을 총동원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敵은 國師峰 모처에 숙소까지 마련한 근거지를 두고 있음이 확실하게 되어 대대는 이

근거지 섬멸을 8일부터 감행키로 계획하게 되었다.

8일 대대는 부대본부와 해군 경비부대의 자체경비를 위하여 제8중대(장, 徐延南중위)에서 重기관총 1문을 배속시켜 木浦에 殘留케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우선 제6중대(장, 朴成哲중위)를 선발대로 靈岩으로 향발케 하였다.

제6중대는 22.00 靈岩에 도착하고, 곧 敵의 본거지로 알려진 國師峰 가까이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敵의 내습에 대비하고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11월10일~11일 : 아무런 상황없이 10일을 맞이한 제6중대(장, 朴成哲중위)는 이른 아침부터 상세한 敵情파악과 부근의 主要道路 연변과 교차지점등을 경계하면서 主力부대 도착에 대비하는등 기초작업에 전념하게 되었다.

11일에도 중대는 대대의 선발대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나, 이날 특히 장병들의 지친 몸에 元氣百倍케 한 것은 惡夢같은 敵 治下 속에서 풀려난 지방민들이 정성껏 장병들의 炊事를 도움는 등 협력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 이 작전을 지원한 사실이었다. 한편 木浦지구에서 殘敵격멸작전을 벌이고 있는 제2대대와는 달리, 仁川을 떠나 東海岸으로 출동한 해병대 主力은 이날 北韓땅 高城, 元山, 馬轉里등지에서 패주하는 敵을 몰아 掃蕩하고 있었다.

11월 12일 : 제6중대(장, 朴成哲중위)가 先發隊로서 靈岩부근에 활동하고 있을 때, 제5중대(장, 沈相學중위)는 情報員 6名과 위생병 2명을 대동하고, 중대의 先鋒으로 主力부대가 榮山江을 渡河하고 무사히 靈岩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경비를 세우는 등 활동을 벌어 主力부대의 차량편 靈岩機動을 엄호하였다. 이윽고 이날 제7중대를 제외한 대대主力은 靈岩에 도착 즉시, 부대를 정비하고 國師峰을 지향, 포위형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國師峰의 敵 섬멸전을 시작한 대대장병들에게는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殘敵들의 天人共怒할 만행들을 目睹할 수 있었다. 제5중대는 國師峰(△513) 山麓 모처에서 도망치는 殘敵을 기습하여 그중 1명을 사로잡고, 심문에서 얻은 자백에 따라 어느 한 부락을 지나 山능선에 이르니, 그가 자백한대로 良民을 손을 묶어 나무에 동여매고 竹槍으로 찔러 죽인 시체들이 즐비하였고, 그중에는 두살, 세살, 네살등 어린애까지 있는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포로의 자백에 따르면 殘敵들은 山으로 도망칠 때 良民들에게 國軍이 들어오면 생명이 위험하니 같이 피하자고 속여 강제납치하였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젖을 먹은 어린이를 어머니와 같이 槍으로 찔러 죽인 惡鬼의 소행을

이써 神인들 용서가 있겠는가?

해가 지물어 山 중부에서 각대별로 陣을 치게 된 장병들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과도 다름없는 殘敵을 내일로 미루어 섬멸하게 된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괴로운 마음만을 달래고 있었다.

11월 13일 : 전날에 이어 國師峰 포위 공격을 계속한 대대는 정밀탐색을 통해 패잔병 10여명을 사로잡고, 본거지로 집작되는 움막을 모조리 파괴하고, 敵이 버린 식량등을 노획할 수 있었지만, 당초 20,000명 가량으로 추산되었던 敵의 主力을 모조리 포착, 섬멸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國師峰에 잠입한 敵들은 점차 戰勢가 불리하여 더 이상 한곳에 집결되어 있을 수가 없었고, 또한 해병 제2대대의 공격이 더욱 적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主力은 智異山과 和順등지로 도피한 연후였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작전목적을 완전히 달성할 수 없었던 대대는 실망도 컸으나, 木浦지구에서 良民을 괴롭혀 蠢動하던 패잔병과 지방赤色分子들의 소굴이 분쇄되었음을 확인하고, 지방치안을 완전 회복하는데에 기여하였다는데 自慰하며 사로잡은 敵 10여명을 압송, 下山하였다.

포로들은 극구 자기들의 非行을 부인하고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非行은 곧 주민들에 의해 白日下에 폭로되고야 말았다. 즉 장병들의 개선을 반기며 행방불명된 가족이 해병대에 의해 구출되어 같이 오지나 않을까 하고 마음을 조여 기다리던 지방민들이 압송하고 있는 포로들을 가리키며 "저놈이 내 남편을 죽인 놈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으니 말이다.

일단 靈岩邑內로 부대를 철수시킨 대대장은 이들 포로를 경찰에 인계, 餘罪를 묻도록 하였고, 敵으로 부터 노획한 식량을 구호용으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등 대민사업을 벌였다.

11월 14일~25일 : 14일 대대主力은 木浦로 귀대하고, 일부병력은 靈岩에 殘留시켜 殘敵색출과 良民들을 보호하는 한편, 榮山浦와 羅州등지에도 경계병력을 파견, 주둔시켜 別命이 있을 때까지 지방경비에 임하게 하였다. 이와같은 일은 14일 이후 25일까지 대대장 命에 의해서 계속되었으며, 月餘에 걸친 제2대대의 殘敵 섬멸전이 實効를 거두고 치안이 완전 회복하게 되므로써 대대는 대망의 北進작전을 전개 중인 해병대 主力과 합세, 次期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11월 26일 : 作命에 따라 木浦에 집결 완료한 대대는 계속 치안유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 맺은 두터운 情을 못내 아쉬어 하는 木浦市民과 인근주민들의 열열한 환송을

받으며, 光輝에 찬 北進작전에 加勢하기 위하여 LST 丹陽號로 기적 소리 요란하게 鎭海를 經由하여 木浦를 떠나 元山으로 向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木浦지방을 위시한 湖南지방의 패잔병과 赤色分子들을 섬멸하고, 치안을 회복하는데 성공한 제2대 대장 金鍾淇소령은 해군으로 원대복귀하게 되어 새로이 廉鳳生소령이 대대장에 취임하였다. 木浦港을 떠난 제2대대는 긴 航海 끝에 11월 30일 뒤늦게 元山港에 上陸하게 되었다. 元山에 도착한 해병대의 예비대로서 그 지휘소를 元山銘石國民學校에 설치하였다. 그뒤 대대는 咸興부근에서 제5대대(장, 金大植중령)와 합세하여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中共軍의 침략으로 제5대대와 함께 咸興 連浦비행장을 떠나 비행기로 次期 작전에 대비 鎭海로 떠나게 되었다.

전 과		손 실	
敵 사살	145명	부상	1명
포로	120명		

§ 參戰者의 證言

◇ 해병 제2대대장 金鍾淇소령

(1971년 3월 28일 興國生命에서 예. 대령)

해병 제2대대는 서울탈환전과 北漢江에서의 작전을 끝으로 10월18일 LST丹陽號로 仁川港을 떠나 19일 木浦에 上陸하였다. 이때 湖南지방에는 많은 北傀軍의 패잔병들이 남아서 良民을 괴롭히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격멸하고 치안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오랜 시일이 흘러서 잘 기억은 없으나 우리는 木浦에 上陸하여 무슨 학교라고 생각나는데 거기에다 대대본부를 설치하고 하룻밤을 보냈다.

우선 우리들은 殘敵을 격멸하기 위하여 敵의 병력과 장비 집결지등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敵의 병력이 의외로 많이 月出山과 國師峰 일대에 집결한 것을 알고 부근일대에 출몰하는 敵부터 격멸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敵들은 戰意를 상실하고 큰 저항없이 東北쪽인 智異山方面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木浦에서 장병들의 불평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나는 이들 장병들의 불평을 무마하기에 큰 고심을 하였는데 "곧 우리대대도 最前線으로 갈 것이니, 그때까지 참으라."고 설득하기에 진땀을 흘렸으나, 좀처럼 장병들의 불평은 잘 아 앉지 않았다.

한달 남짓하게 걸려서 이 지역의 敵을 격퇴시키고 우리 대대는 숙원이던 戰線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元山을 향하여 木浦를 떠났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해군에 복귀하였으며, 後任은 廉鳳生소령이라고 기억한다.

△ 해병 제2대대 제7중대 趙性俊소위

(1965년 4월 14일 해병旅團제3연대장실 대령)

지휘 제7중대는 대대 예비대로 木浦지구 잔비 섬멸작전에 참가하였는데, 이때 이 작전의 지휘권은 해군본부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洛東江부근에서 美 제8군이 北上하고 仁川에 上陸한 美 제10군단 예하 美 제7사단일부가 南下하니, 湖南지방의 敵들은 自然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들 敵은 도처에서 山으로 피신, 잠입하였는데, 이때의 만행은 극심하였다.

제 2 대대의 임무는 이러한 殘敵들을 섬멸하는 임무였으니 만큼, 정상적인 공격전은 아니고 잔비 출몰의 정보가 있으면 출동하는 수색전이었다.

△ 해병 제2대대 제5중대 제2소대 姜福求소위
(1965년 2월19일 普海松岡旅舍대령)

木浦경비부 사령관 鄭鏡模제독을 모시고 仁川을 떠나 木浦에 도착하니, 그때 木浦에는 해군에서 나온 소위 乙種해병대라는 白부대가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하여 木浦市 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山亭국민학교에 주둔한 곧 白부대로 부터 경비임무는 물론 殘敵격멸의 임무를 인수받게 되었다. 곧 작전을 벌였는데, 그때 장병들은 이미 京仁지구에서 쌓은 實戰 경험을 토대삼아 훌륭히 이 작전을 수행하였다.

木浦에서 40km쯤 떨어진 國師峰에 敵情이 많다는 정보에 따라 부대가 출동하니 패잔병들이 국군이 들어 오면 모조리 죽인다고 良民을 죽이고 불응하면 강제로 납치하여 어들을 모조리 山으로 베리고 도망가고 있었다.

이와같이 도망치는 敵을 기습하여 몇명을 사로잡아 심문하였더니, 그들은 모두 죄를 감추고 죽체로 자백하지 않아 그대로 연행, 귀대 길에 오르니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놈들이라 "저놈이 내 남편을 죽인 놈."이라고 알려 주었다.

◇ 해병 제2대대 崔昌善
(1966년 3월 18일 해병대사령부 총령)

木浦의 잔비들은 山 속에서 장기전을 할 양으로 山 속에 숙소까지 마련하고 있었으나, 士氣面이나 火力面에서 우리의 敵手가 되지 못하였고, 그들은 우리가 가기만 하면 魂飛魄散하였다.

◇ 해병 제2대대 제8중대 姜晩熙상사
(1696년 3월 10일 해병대사령부인사국)

仁川 東山中學校에서 15일간을 묵은 우리는 木浦에 가서 市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木浦에는 해군에서 임시 편성된 白부대가 있었으나, 우리가 도착하자 鎭海로 되돌아 간 것으로 안다.

처음 한 일이라고는 시내 경비였으나, 靈岩에도 출동하였다. 이곳에서 다시 우리는 먼 곳까지 나가 패잔병을 색출, 섬멸하는 것이었으며, 戰果도 많이 얻었다.

◇ 해병 제2대대제5중대 제 1소대 제1분대장
文時哲상사
(1965년 4월 14일 제3알대본부)

靈岩에서 야간 敵이 1개대대가 내습하여 온다느니, 2개대대가 온다느니 하는 미확인 첩보가 많았으나, 우리는 하여튼 敵情에 따라 제 5 중대가 출동하고 나중에는 제 2 대대가 전부 출동하였다.

§ 參戰者의 略歷

◇ 金 龍 國

1950년 9월 1일 제 2 대대 부대장(대위)
1951년 6월 2일 제 6 대대 대대장(소령)
〃 6월 25일 해병학교 부교장
〃 9월 8일 도서부대 부대장
1952년 1월 18일 해병학교 교육처장
1953년 3월 1일 해병교육단 참모장(중령)
〃 3월 13일 해병학교 부교장

◇ 鄭 光 鎬

1950년 9월 5일 제 2 대대 제 7 중대장(대위)
1951년 10월 7일 제 1 연대 부대대장
1953년 8월 11일 제 3 대대장(소령)

◇ 姜 福 求

1950년 월 일 제 2 대대 제 5 중대 제 2 소대장
1951년 5월 16일 제 3 대대 제 9 중대장(중위)
1952년 8월 일 해병학교 교육대장
1953년 6월 1일 제 1 전투단 본부중대장(대위)
〃 7월 5일 제 1 전투단 중포중대장

第 28 章

UN 軍의 38°線 總反擊作戰

第28章 UN軍의 38° 線 總反擊作戰

要 旨

洛東江 防禦線이 형성된 8월 초부터 戰線狀況은 決戰防禦의 守勢로 굳어졌고, 여기서 1개월 半 동안 敵 13개 사단의 악착같은 攻擊으로 말미암아 몇번이나 危機를 冒免해 가면서 必死的인 방어로 敵의 공격을 분쇄, 격멸하고, 또한 「時間과의 경쟁」에서 잘 견디어 낸 我軍과 UN軍은 계속되는 敵의 9월 공세 중에, 강차 있을 仁川上陸作戰에 呼應할 수 있는 反擊態勢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9월 15일, 드디어 仁川上陸作戰은 감행되었고, 이 作戰의 성공이야 말로 守勢에서 攻勢로 移轉할 수 있는 一大轉機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韓國戰爭史 第3卷 p. 651~p. 670 參照) 곧이어 예정된 계획대로 9월 16일 09.00를 기하여 洛東江 防禦線上의 全戰線에서는 공·해군의 지원 아래 失地回復을 위한 待望의 역사적인 總反擊作戰을 시작하였다.

攻勢 제1일(9. 16), 이리하여 洛東江 西部方面을 담당, 방어하고 있던 UN軍도 예정대로 反擊을 시작하였으나, 暴雨로 말미암아 뜻대로 進展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倭館 부근에 준비되었던 B-29에 의한 絨緞爆擊은 물론 美 제1군단을 비롯한 美 제2사단, 제25사단의 各 師團이 계획하고 있던 공격준비사격 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더우기 惡天候를 이용한 敵은 到處에서 局地的인 공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대들은 공격, 진진하기는 커녕 전날과 같이 陣地를 確保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攻勢 제2일, 仁川上陸에 성공한 美 제10군단은 서울 方面으로 진격을 시작하였고, 洛東江 방어선상의 航空 정찰보고는 敵이 金泉 부근에서 전차를 포함한 大部隊가 陸續, 北進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美 제8군의 各 部隊들은 위에서 얻은 情報와, 仁川에서의 성공과, 天候의 回復에 힘 입어 제2일째의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이날 역시 별다른 進展이 없었다.

攻勢 제3일째, 倭館 부근 錦繡峰과 美 제5기병연대(제1기병사단 소속) 正面에서의 공격이 약간 進展되었을 뿐 예비로 있던 美 제24사단의 渡河作戰도 뜻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美 제8군에서는 이 主攻 正面의 진투가 도무지 進展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극동공군사령부에 요청하여 B-29 42대에 의한 絨緞爆擊을 倭館의 西北일대에 실시하였으나, 그 効果를 확인할 방도는 없었다. 이날 美 제2사단 예하 제38연대가 釜谷 부근에서 渡河를 감행하여 성공하였으니, 美 제8군의 最初의 渡河였고, 攻勢 제3일째의 最大의 成果이었다.

攻勢 제4일째, 美 제1군단의 戰線突破에 밝은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여 倭館 正面의 戰況은 급전되었고, 美 제24사단은 洛東江 西北에 확고한 발판을 설정하게 되었다.

攻勢 제5일째, UN軍의 各 師團은 공격을 續行하였으나, 多少의 진전을 보였을 뿐 아직도 突破에 성공한 部隊는 없었다.

攻勢 제6일째, 9월 23일 부터는 敵이 全面的으로 퇴각을 시작하므로써 追擊戰이 바야흐로 展開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자면 洛東江 西部方面 즉 倭館에서 馬山까지의 防禦線을 담당하여 UN軍 제1기병사단은 大邱 北쪽 東石洞—玄風에, 제2사단은 玄風—南旨에 제25사단은 南旨—鎭東里에, 제24사단은 예비로 있었다.

美 제1기병사단은 제777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22일 多富洞에서 反擊을 시작, 洛東里—高靈—鼎峴—新反—淸州—天安—烏山으로 진격하여 26일 22.26에는 仁川上陸作戰에 합세하고, 서울方面에서 南進한 美 제7사단 제31연대와 合勢하므로써 연결이 이루어졌다.

美 제5연대전투단은 9월 18일에는 錦繡峰(△268)과 121高地를 탈환하였고, 20일에는 倭館을 점령한 다음, 계속 北쪽에 있는 龍馬山(△303)까지 진격하였다.

美 제24사단은 9월 20일에 錦南洞쪽에서 洛東江을 渡河하였다. 24일 제19연대와 英 제27여단은 星州를 점령하였는데, 사단 主力은 23일에 倭館—大田間의 國道를 따라 공격을 시작하여 25일에 金泉을 탈환하고, 계속 26일에는 永同, 27일에는 沃川을 경유, 28일에는 大田을 탈환하였다.

美 제2사단은 9월 18일 제38연대가 洛東江 突出部에서 渡河에 성공, 草溪 부근의 308高地를 점령한 다음, 陜川으로 향하였고, 제23연대는 新反川을 건너 23일에 新反里를 거쳐 陜川으로 향하였다. 24일 제38연대는 東南쪽에서 제23연대는 東北쪽에서 陜川을 공격, 점령하였다. 26일 08.30에는 昌原을 점령, 계속 진격하여 安義를 탈환하고, 28일 13.15 全州에 돌입, 29일에는 論山을 경유, 30일 03.00에는 江景을 탈환하고 계속 錦江線까지 突進하였다.

美 제25사단은 馬山 西側方에서 공격을 시작, 25일에는 제35연대와 Torman 특수임무부대가 晋州를 점령하였으나, 제27연대는 28일에야 晋州에 進入하였다. 晋州서 부터는 제35연대의 일부 병력과 제89전차대대로 혼합편성된 Dolvin 특수임무부대는 咸陽—南原—全州—裡里—江景을 거쳐, 錦江線까지, 제24연대의 일부 병력과 제79전차대대 A중대와 혼합편성된 Mauhews 특수임무부대는 河東—求禮—南原—高敞—金堤—裡里—群山을 거쳐, 錦江線까지 진격하였다. 즉 智異山을 左右로 迂廻하여 29일에 江景을, 30일에 群山을 무난히 탈환하고 錦江線까지 진격하였다.

이리하여 각 사단은 맡은 바 그 임무를 완수하게에 이르렀다.

1. 多富洞—開城進擊戰 (50년 9월 16일부터 50년 10월 8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18 호
상 황 도 제 16 호

가. 참가 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 1 기병사단 장 소장 Hobart R. Gay
제 5 기병연대 장 대령 Marcel B. Crombez
제 1 대대
제 2 대대
제 3 대대
美 제 7 기병연대 장 대령 Cecil Nist
중령 William A. Harris(9. 20부터)
제 1 대대 장 중령 Peter D. Clainos
제 2 대대 장 소령 William O. Wither Spoon
제 3 대대 장 중령 James H. Lynch
제 8 기병연대 장 대령 Raymond D. Palmer
제 1 대대 장 중령 Robert W. Kane
제 2 대대
제 3 대대 장 중령 Harold K. Johnson
사단 포병 사령관 준장 Chales D. Palmer
병력 : 13,904명
배속부대
美 제 8 야전공병대대 장 중령 William C. Holly
美 제70전차대대

敵 軍

제 3 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 7 연대
제 8 연대
제 9 연대 장 대좌 金 萬 益
제13사단 장 소장 李 益 宣
제19연대 장 대좌 文 濟 煥

제21연대 장 대좌 李 斗 燦 | 제23연대 장 대좌 李 承 俊

병력 : 6,3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U.N軍 總司令部當局이 反擊計劃을 세우고 있던 9월 초에 敵은 全力을 다한 마지막 攻勢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敵은 蔚項에서 慶州經路과 大邱 접근로 및 靈山과 馬山접근로에 美 제8軍의 예상보다 강한 압력을 가하였다.

특히 大邱는 敵의 主攻方面의 중요한 목표였는데, 이 正面의 韓國軍 제1사단과 치열한 攻防戰을 벌이고 있었으며, 北쪽 및 西北方을 담당한 美 제1기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은 多富洞과 倭館을 敵에게 빼앗기고 大邱를 壓制하는 중요한 高地인 槐山(△902)마지 포기해야 하는 惡戰苦鬪를 치르고 있었다. 이 예하의 제8기병연대(장, Raymond D. Palmer대령)는 大邱—多富洞街道의 左右地帶를 포함하는 大邱北方에서 敵 제1사단의 일부 및 제13사단과 제5기병연대(장, Marcel B. Crombez 대령)는 大邱—倭館街道에 이르른 西北方 일대에서 敵 제3사단과 激烈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으며, 그리고 제7기병연대(장, Cecil Nist대령)는 예비대로서 陣地의 間隙으로 침투하는 敵을 역습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이러한 大邱 北方의 不利한 戰況은 UN軍의 兵力 不足 및 보급문제 등과 아울러 장차 我軍의 反擊可能性에 대하여 많은 憂慮를 자아내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大邱의 위기는 제7기병연대가 大邱 北方 12km지점의 高地를 확보함으로써 어느 정도 安定되기는 하였으나, 敵은 최후발악으로 大邱를 향하여 總力戰을 경주하고, 공격을 계속하게 되니, 이러한 저돌되는 無謀한 공격은 결과적으로 강력한 火力을 가진 美 제1기병사단에 의하여 좌절되고, 莫甚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즉 敵 제13사단의 경우만 보아도 당시의 실제 병력이 2,300명에 불과하였음이 뒤에 판명되었던 것이다.

9월 중순 美 第8軍은 금내 敵의 최후 공세를 擊碎하고 있을 때, UN軍 총사령관인 MacArthur元帥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仁川上陸作戰을 감행함과 아울러 洛東江戰線에서도 일제히 반격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美 제1기병사단은 9월 15일 현재, 제8기병연대의 제2대대가 槐山西南쪽 570高地에서, 同 제3대대가 그 西쪽 大邱—多富洞街道 西쪽의 401高地 일대에서 敵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三山洞 부근에서 제1대대가, 東側 韓國軍 제1사단과의 사이인 314高地에서는 제7기병연대의 제3대대가 敵의 공격을 저지함으로써 大邱北方 正面을 固守하고 있었다. 大邱 西北方에서는 제5기병연대가 敵 제3사단과 高地爭奪戰을 전개 중이었으니, 즉 174高地 부근에서 제3대대가, 그 西側 203高地 南쪽에서는 제2대대가, 188高地일대에서 제1대대가 각각 敵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공중에서 본 多富洞>

(1) 작전 계획

仁川上陸作戰의 감행과 아울러 美 제8군은 반격계획을 수립하여 9월 15일부로 下達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9월 16일 09.00부터 現戰線에서 반격을 시작함에 있어 美 제10군단은 大邱—金泉—大田—水原線으로 진격하여 京仁地區로부터 南進하는 美 제10군단과 연결토록 계획되었다.

美 제1군단은 9월 11일에 Frank W. Milburn소장이 군단장에 취임한 다음, 13일부로 指揮權이 行使되었는데, 그 隷下에는 美 제1기병사단과 美 제24사단, 그리고 韓國軍 제1사단이 배속되었으며, 그外 제5연대 전투단이 美 제1기병사단에, 그리고 英 제27여단이 美 제24사단에 배속되고 있었다.

제8군의 계획은 主攻인 美 제1군단으로 하여금 大邱 北方 乃至 西北方 일대에서 反擊으로 나아가 洛東江을 건너 金泉—大田—水原線으로 진격하여 敵 제1군단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南下하는 美 제10군단과 연결시키는데 있었다.

主攻으로 現戰線敵을 격파하고 京釜線을 따라 진격하여 敵을 東西로 兩斷함과 아울러 仁川上陸部隊와 연결할 임무를 받은 美 제1군단은, 美 제1기병사단과 美 제5연대전투단이 當面의 敵을 격파하고 洛東江 西岸에 진출한 다음, 美 제24사단으로 하여금 金泉으로 진격케 하려는 대략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1. 제1기병사단은 배속 제5연대전투단으로 하여금 敵 제3사단의 右翼인 錦嶂峰을 공격하여 倭館을 탈환케 함과 아울러 사단의 主力은 倭館 부근에서 多富洞을 향하여 공격하여 敵 제13사단을 격파한다.

2. 當面의 敵을 격파한 다음, 제1기병사단은 倭館부근에서 洛東江을 渡河하여 西岸에 橋頭堡를 확보한다.

이와 아울러 韓國軍 제1사단은 洛東里에서 助渡河를 한 다음, 尙州로 진격한다.

<민격작전을 陣頭지휘하는 제8군사령관 Walker중장>

3. 제24사단은 제1기병사단의 엄호하에 洛東江을 渡河하여 金泉을 향하여 공격토록 한다.」

한편 戰線突破의 임무를 맡은 제1기병사단장 Gay소장은 극도로 減少된 戰鬪兵力으로 敵을 포위, 격멸할 계획을 구상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1. 제5연대전투단이 倭館을 향하여 공격함과 아울러 그 右側方을 엄호하기 위하여 제5기병연대는 倭館—大邱街道 東쪽에서 正面의 敵을 공격하여 이를 견제한다.

2. 제8기병연대는 主攻으로서 漆谷부근에서 敵을 격파하고 多富洞을 향하여 北으로 공격토록 한다.

3. 제7기병연대는 命에 의하여 사단 右側方에서 左側方으로 능률적인 대대이동을 한 다음, 倭館—多富洞街道로 진격하여 재빠르게 敵을 포위한다.

以上과 같은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Gay소장은 공격전에 이미 사단 右側에서 左側으로의 부대 이동을 시작케 하였거니와, 일단 돌파가 완성된 다음에 追擊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군단명령에 따라 尙州—報恩—淸州—水原線으로 추격하여 美 제10군단과 연결할 임무를 담당케 할 계획이었다.

(2) 작전실시

9월 16일 : 이날은 日氣가 대단히 좋지 못하여 倭館地域에 예정되었던 B-29폭격이 취소될 정도였다. 09.00에 쏟아지는 暴雨를 무릅쓰고 공격이 시작되었으나,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別進展이 없었다.

기병사단은 이날 공격시작 전에 제7기병연대의 제2대대를 左側 제5기병연대 지역의 188高地부근으로 移動시킨 다음,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右一線의 제8기병연대는 敵이 제2대대의 570高地에 반격을 가함으로써 前進치 못하였다. 左一線의 제5기병연대는 他대대의 强健한 장병들로 보충된 제2대대가 중심이 되어 倭館—大邱 街道 北쪽의 203高地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敵은 △174—△203을 제1선으로, 壯元峰 東峰(△371)--△253을 제2선으로 제3사단 제8연대 소속의 약 1,000명이 저항하고 있었다.

한편 제5연대전투단도 錦湖峰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사단 東側의 韓國軍 제1사단은 梁山의 일부를 탈환하였거니와 이날 釜山에 後送된 戰傷者 273명 가운데 약 200명이 大邱北方에서 後送되었으니, 大邱占領을 企圖하는 敵과 반격을 시작한 我軍과의 공방전이 치열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9월 17일 : 날씨도 回復되고 仁川上陸 이후의 作戰도 계획대로 잘 진전되었으나, 이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진전되지를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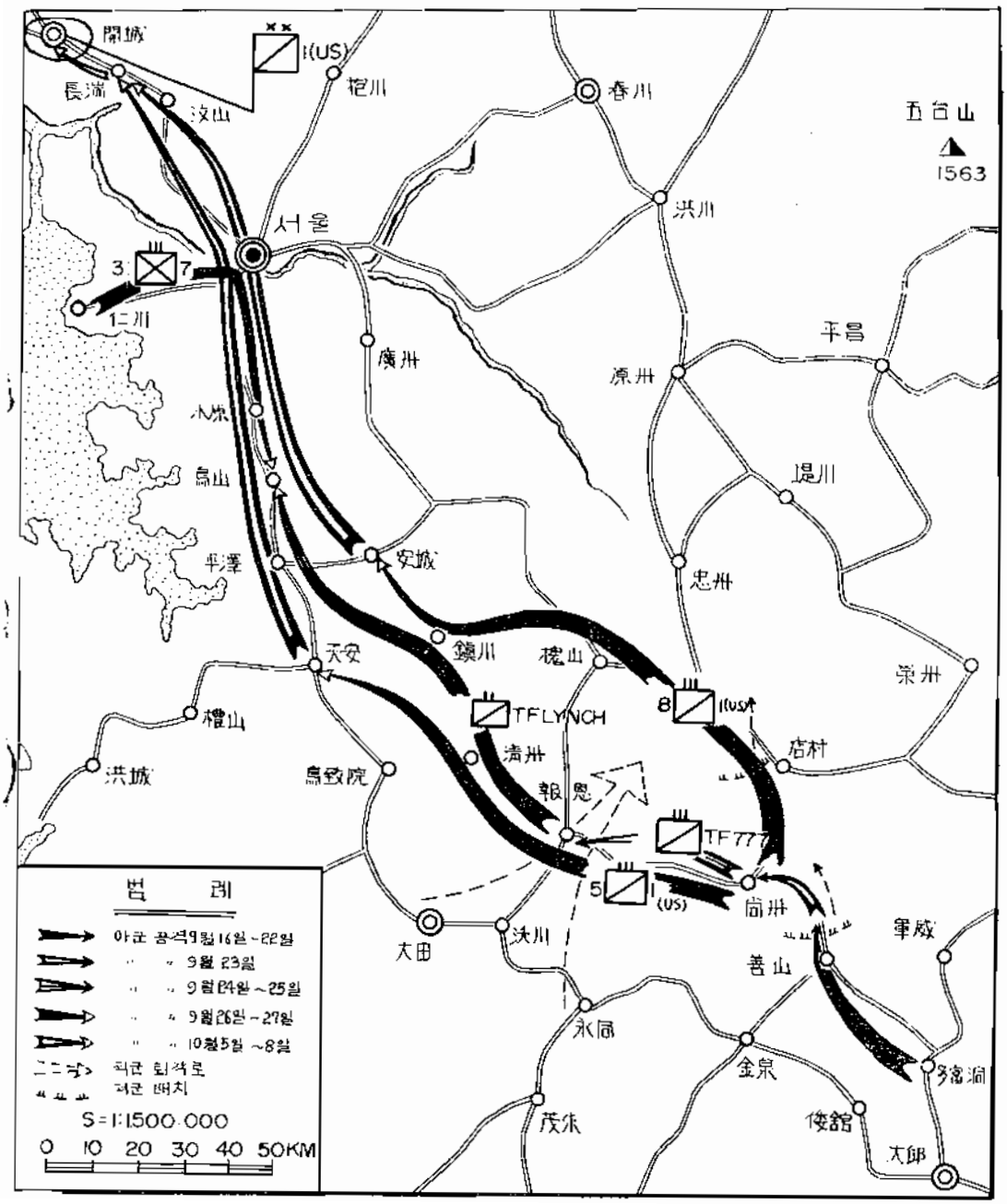
大邱北方의 제8기병연대 正面에서 敵은 570高地에 대한 공격을 反復하였고, 大邱—多富洞 街道를 따라 공격을 시작한 제1대대는 道路 左右의 351高地와 山城쪽 高地의 敵에게서 집중사격을 받아 前進하지 못하였다.

西北方의 제5기병연대는 계속 203高地를 공격하였으나, 敵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이날 사단장 Gay소장은 倭館--多富洞 街道를 따라 東北進할 준비를 하고 있던 제7기병

연대의 제 2 대대로 하여금 253高地를 공격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 2 대대는 道路를 건너 敵陣에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敵의 치열한 사격과 수류탄 투척으로 말미암아 道路南쪽 高地로

<상황도 제16호 多富洞—開城 進擊戰>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부상 당한 중대장은 중대원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絶命直前까지 추격하여 오는 敵 6명을 사살하는 등 壯絶한 功戰相을 보였던 것이다.

仁川上陸作戰의 成功뒤에도 불구하고 美 제8군의 공격이 이와 같이 부진한 것을 걱정한 MacArthur元帥는 洛東江 戰線에서 2개 사단을 抽出하여 群山에 새로운 上陸作戰을 실시함으로써 敵 主力의 背後를 직접 공격토록 할 계획을 수립하여 제8군사령관인 Walker중장에게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群山 上陸은 Walker중장이 즉각 반대함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9월 18일 : 제8기병연대의 공격은 역시 진전이 없었고, 이와같이 遲遲不振한 공격에 대하여 Gay소장은 물론 Walker중장도 연대가 과감하게 공격치 않는다고 不滿을 표시하였으나, Milburn군단장은 사단장이 직접 督勵토록 요구하였다.

한편 제5기병연대는 極度로 減少된 兵力으로 다시 203高地 및 174高地를 공격하였는데, 제2대대는 전 대원이 203高地의 奪取를 결심하여 맹공격을 가하였으며, Pershing전차는 高地 南斜面의 壕 속에서 砲塔만 내놓고 사격하는 3대의 敵 T-34전차를 공격하여 2대를 격파함으로써 이날 저녁 때 高地를 드디어 점령하였다. 그러나 敵은 그 北西쪽 高地에서 계속 저항하였으며, 主力은 253高地를 아직 확보하고 있었다. 대대는 다시 371高地 공격을 준비중이었으나 3개 소총중대의 전투가능병력은 도합 165명 뿐으로서 그중 F중대의 경우는 45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연대장은 다음 날의 371高地공격은 제1대대로 하여금 담당케 하였다.

그리고 전날부터 연대를 지원하던 美 제70전차대대의 A중대는 9대의 전차와 1대의 Dozer 전차를 상실하였다.

또한 제5연대 전투단도 錦鳳峰공격을 계속하였으며, 地上공격의 진전을 위하여 실시한 倭館 西北일대에 대한 B-29폭격기대 42대의 폭격도 敵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한 것 같았다.

이렇게 기병사단이 약간의 진전을 이루기 시작하였을 때 東側의 韓國軍 제1사단은 예하 제12연대가 敵 사단간의 간격을 뚫고 多富洞--軍威 街道로 진출함으로써 敵 제1, 제13사단의 退路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多富洞 일대의 敵은 退路打開를 위하여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混亂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9월 19일 : 이날부터 戰線은 돌파되기 시작하였으니, 韓國軍 제1사단이 多富洞 北쪽지역에 진출하여 多富洞을 향하여 南進을 시작하였으며, 美 제5연대전투단은 錦鳳峰을 점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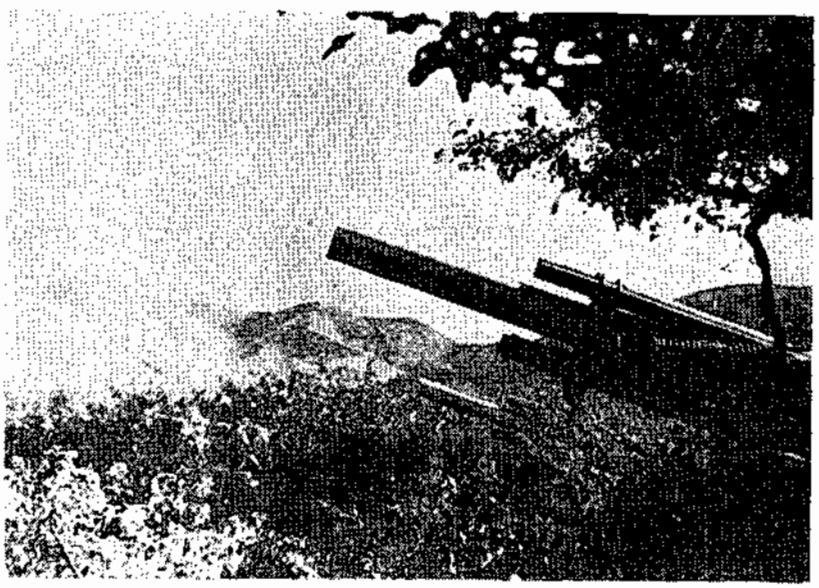
다음, 倭舘을 탈환한 것이다.

기병사단은 제8기병연대에 제7기병연대의 제3대대를 배속시켜 이날 안으로 多富洞을 탈환토록 하였고, 제5기병연대에 제7기병연대 제2대대를 배속시켜 371高地—253高地 일대를 공격케 하였다.

제8기병연대는 역시 제1대대를 多富洞街道를 따라 前進시켰으나, 敵 제13사단은 계속 多富洞을 固守하였으니, 道路 東西의 梨山과 351高地에서 야포, 박격포와 기관총등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여, 대대는 큰 손실을 입고 공격은 頓挫되고 말았다.

제5기병연대는 제1대대가 300高地를, 제7기병연대 제2대대가 253高地를 공격하여 이를 탈환하였다. 제5기병연대의 제1대대는 제5연대전투단의 倭舘공격과 아울러 正午에 300高地에 돌입하였는데, 몇 차례나 敵의 수류탄 공격을 격퇴하므로써 高地를 드디어 확보하였다. 대대는 山頂일대에서 敵이 버리고 간 屍體만도 205구를 계산하였는데, 대대의 손실은 전사 28명, 전사 147명, 실종 4명, 韓國軍 28명 등 207명이었으니, 正午에 보고된 바로는 대대의 전투병력이 定員의 3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제5기병연대의 奮戰은 제5연대전투단의 倭舘奪還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371高地의 敵은 아직도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敵 제3사단은 큰 피해를 입어 병력이 5,000명에서 1,800명으로 감소되었던 것이다.



<大邱 北方 과수원에 자리잡은 美 155mm 곡사포陣地>

이날 倭館正面의 돌파가 성공됨에 따라 Gay사단장은 포위기동을 단행코자 제7기병연대의 제1대대를 大邱地方의 사단 右側에서 左側으로 轉進시켜 제2대대 前方에 집결토록 하였으며, 右一線의 제3대대에 대하여도 다음날 左側으로 기동케 하여 多富洞을 향하여 진격하는 제1대대를 뒤 따르도록 명령하였다.

9월 20일 : 이날 아침 이미 전날 밤에 倭館南側으로 기동한 제7기병연대의 제1대대는 多富洞을 향한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09.00에 倭館東南方 3km地點에서 北쪽으로 倭館—多富洞 街道와 연결되는 小路로 접어들었다. 그러하여 제5연대 전투단의 倭館北쪽 303高地 攻擊과 아울러 대대는 그 東쪽 隘路口의 敵을 공격하였는데, 敵은 곳곳에 지뢰를 매설하여 놓고 주위를 둘러싼 高地에서 사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제1대대는 비록 美 제70전차대대 C중대의 전차 1개소대가 先頭에서 공격하였으나, 午後까지도 3km 정도 밖에 前進치 못하였고, 先頭전차가 敵의 지뢰에 걸리자, 대대의 前進은 中止되고 말았다. 이렇게 늦는 진격에 흥분한 사단장 Gay소장은 직접 敵情과 地形을 살핀 다음, 대대장 Clainos중령에게 303高地 西쪽으로 迂廻하여 攻을 끼고 前進하라고 지시하였다.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迂廻前進한 제1대대는 倭館—道開洞 山道를 따라 저녁에는 多富洞 西쪽 6km의 道開洞부근에 진출하였는데, 道路 주변에는 죽은 소(牛), 파괴된 敵의 전차, 砲와 탄약 등 파괴된 각종 장비가 즐비하게 흩어져 처참한 광경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제7기병연대에 제3대대는 이날 아침에 多富洞 南方에서 倭館으로 西進하였는데, 연대장 Cecil Nist대령은 敵의 야포 및 박격포사격을 우려하여 途中에서 대대를 下車시켜 徒步로 행군케 하므로써 장병들은 피로하였고, 집결지에도 늦게 도달하였다. 대대는 제1대대의 뒤를 따라 저녁에 道開洞 부근에 진출하였는데, 이때 연대장은 먼저 제1대대를 따라갔다.

그리하여 제1대대가 前方의 험한 산에 부닥치게 되자, 그곳에 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연대장은 야간공격을 단념하고 다음날 未明에 공격키로 결정한 다음, 露營을 준비시켰던 바 준비 중에 대대장 Clainos중령이 지뢰에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사단장 Gay소장은 제7기병대연대가 계속 진격치 않고 露營하는 것을 알자 激怒하여 연대장 Cecil Nist대령을 해직하고 연대를 지원하던 제77야포대대장 William A. Harris중령을 연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사단장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데에는 右一線에서 多富洞을 향하여 공격하는 제8기병연대가 敵 제13사단의 저항으로 계속 부진한 진격상태여서

이날만도 제70전차대대는 7대의 Pershing전차를 잃었기 때문에, 제7기병연대가 急進하면 敵을 포위격멸할 수 있는 것으로 Gay소장은 판단하였음에 反하여 제7기병연대가 진격을 늦추고 있었다는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밤중에 지휘권을 인수한 Harris중령은 대대장들을 집합시켜 다음 날의 연대 공격명령을 하달하였으니, 제1대대는 제1선으로 多富洞을 향하여 猛進하여 제8기병연대 正面의 敵을 背後에서 공격하며, 제3대대는 제2선으로 多富洞에서 제1대대의 左翼을 초월하여 北進함으로써 제1대대의 背後를 엄호함과 아울러 韓國軍 제1사단과 제휴하여 부근의 敵을 격멸하라는 것이었다.

9월 21일 : 이날로써 사단은 多富洞 일대의 敵을 완전히 격파하여 大邱 正面의 돌파를 마쳤다.

제7기병연대의 제1대대는 다시 진격을 시작하여 12.55에는 多富洞外郭에 진출하였는데, 저항하는 敵을 西北과 西南 兩面에서 협공하여 격파한 다음, 16.35까지는 多富洞의 敵을 剔抉하고 쉴사이 없이 南進하였다. 그리하여 1시간 뒤에는 사단장의 독려를 받으며 北으로 공격해 온 제8기병연대와 三鶴洞 부근에서 연결케 되었다.

또한 제7기병연대 제3대대는 多富洞에 진출하자 道路 左右의 北쪽을 향한 방어진지에 배치되었다.

이때 韓國軍 제1사단은 이미 多富洞 北方의 尙州로 가는 道路를 차단한 다음, 제15연대가 기병사단과 제휴하기 위하여 南進하고 있었다.

이제 大邱 正面의 敵 제1, 제3, 제13사단은 와해되어 나머지 敗敵들이 尙州方面으로 후퇴하고 있었으며, 특히 敵 제13사단은 많은 高位官들이 이미 我軍에 投降하였거니와 이날 아침에는 사단참모장인 李學九총좌가 投降하여 중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이날 天明 前後에 그는 多富洞 南쪽 6km의 三山洞 부근에서 道路邊에서 잠자던 제8기병연대소속의 2명의 사병을 깨움으로써 美軍은 이 30歲의 敵 장교가 투항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韓國戰爭中 最上位의 포로였는데, 敵 제2군단의 작전참모를 거친 바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였거니와 뒤에 일반포로와 같이 취급되어 巨濟島 제76포로수용소의 폭동사건 때에는 그들의 지휘자로 추대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僞裝投降如否가 論難된 바도 있다. 李學九총좌는 아직 仁川上陸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당시에 敵은 UN軍의 仁川上陸을 감추고 洛東江戰線에서의 死守를 명령하였던 것이다.

<敵 제13사단 참모장 李學九總佐가 9월 21일 美 제1기갑사단에 귀순하였다.>

그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敵 제13사단은 전투부대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사령부와 각 연대간의 연락도 杜絶되었을 뿐 아니라, 兵力도 敵 제19연대가 200명, 敵 제21연대가 330명, 敵 제23연대가 300명으로 사단 전체가 1,500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70~80%가 南韓에서 强制動員한 義勇軍이라는 것이었다. 장비도 전차는 전부 파괴되었고, 9문의 야포, 5문의 120mm 박격포가 있을 뿐이며, 보급은 한달 전부터 식량이 반으로 줄었고, 차량은 30대만이 가동되는데, 鐵原—서울—安東의 鐵道便이 있기는 하나 수송이 곤난하여 小火器 彈藥조차 不充分하다는 것이며, 그의 사단도 지난밤까지 방어하다가 壞亂狀態에 빠져 尙州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무렵에 기병사단장 Gay소장은 제7기병연대장 Harris중령에게 敵을 추격할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토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대는 제1, 제3의 2개대대로써 777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부대는 Lynch중령의 제3대대가 先頭로서 美 제8야전공병대대의 B중대 美 제70전차대대 C중대의 2개 소대(M4전차 7대)와 美 제77야포대대 重追擊砲中隊 제3소대 및 연대 수색소대, 그리고 1개 전술항공통제반으로 구성된 기갑추격부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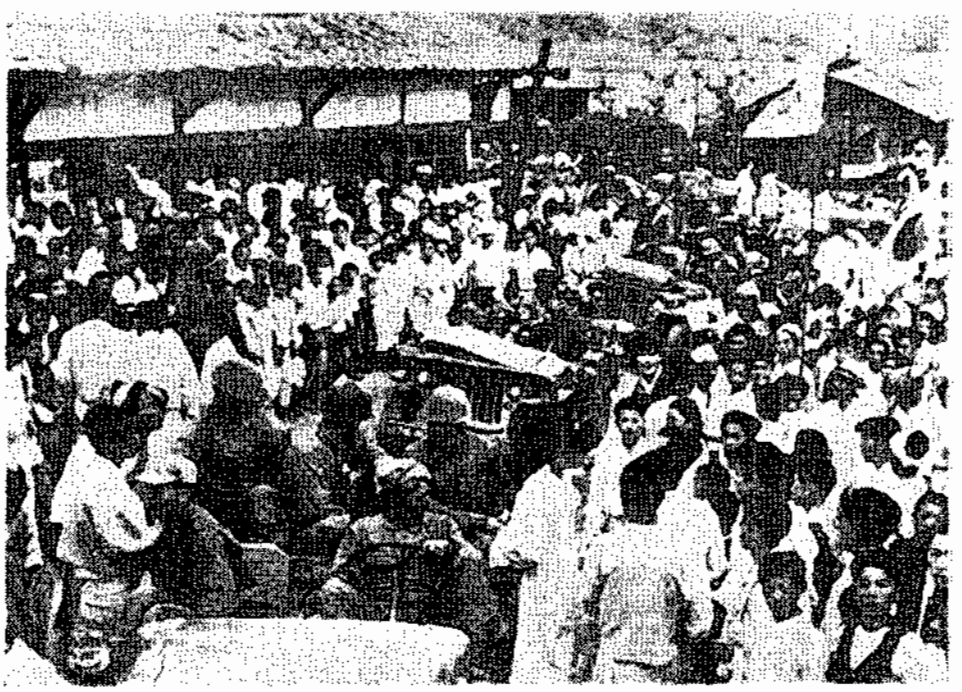
9월 22일 : 이날 Walker 제8군사령관은 MacArthur元帥에게 건의하여 群山上陸計劃을

철회케 하고, 8군 作命 A101호로서 追擊命令을 下達하였다. 즉 軍은 敵中 깊이 돌진하여 압박과 포위와 迂廻로써 敵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후퇴를 저지함으로써 敵을 격멸할 것이며, 美 제1군단은 主攻을 大邱—金泉—大田—水原 軸線에 두고 진격하여 美 제10군단과 제휴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美 제1군단은 當初 美 제1기병사단의 엄호 하에 美 제24사단을 돌진시킬 계획이었으나, 狀況의 진전에 따라 이를 修正하여 全力을 並行하여 추격할 것을 결정한 다음, 追擊命令을 下達하니, 각 사단이 모두 추격에 참가하게 되었다. 특히 美 제24사단이 大田을 향하여 추격케 되고, 韓國軍 제1사단이 美 제1기병사단의 뒤를 따라 洛東江을 渡河한 다음, 豫備가 되도록 계획된 것에 反하여 기병사단은 多富洞—善山渡河場—尙州—報恩—淸州—水原線을 따라 돌진하여 美 제10군단과 제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미 777특수임무 부대를 편성한 기병사단장 Gay소장은 부대장 Harris중령에게 善山渡河場에서 洛東江을 건너 추격토록 명령하였으며, Harris중령은 이날 08.00에 Lynch특수임무부대를 先頭로 多富洞 西쪽에서 진격을 시작케 하였다.

Lynch부대는 洛成洞부근에서 先頭전차에 道路연변 언덕의 골짜기에서 사격하는 敵의 대



<美 제1기병사단의 淸州入城시 주민들의 대환영>

전차포 사격이 命中하여 정지되었는데, 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뒤따라 온 Gay소장은 4대의 전차를 돌진시킴으로써 잠복한 敵을 발견하여 1대의 대전차포와 수류탄으로 저항하는 敵을 격파한 다음, 金谷을 거쳐 江東岸의 길로 접어들었다. 부대가 善山渡河場으로 前進하고 있을 때 連絡機가 날아와서 계속 洛東里渡河場으로 北進하라는 군단의 命令通信筒을 투하하고 갔으며, 부대는 15.45에 善山渡河場에 진출하였는데, 사단장 Gay소장은 Lynch중령이 洛東里로 渡河하라는 命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大邱의 사령부로 돌아갔다. Lynch 부대는 18.00에 下弦달이 進路를 밝혀 주는 가운데 洛東里를 향하여 北進하였는데, 8km쯤 江岸의 길을 北上하였을 때, 불타고 있는 부락에서 퇴각 중인 敵의 항복을 받았다. 22.30에 부대의 先頭전차가 洛東里에서 渡河點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진출하였는데, 敵의 대전차포를 발견하여 사격을 가하였던 바, 初彈이 敵의 彈藥庫에 命中하여 대폭발이 일어났다. 火焰에 의한 照明은 江邊일대를 밝게 비추었고, 水中橋를 건너던 수백명의 敵이 露出되어 美軍의 사격으로 약 200명의 敵이 강물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곳에서 부대는 使用不能한 2대의 T-34전차, 50대의 트럭, 10여문의 야포등 많은 敵의 장비를 노획하였는데, 敵은 주로 敵 제3사단 소속이었다.

9월 23일 : Lynch부대는 수색대의 보고로 敵이 渡河하던 地點의 水位가 허리에 잘 정도라는 것을 알고, 04.30에 I 및 K중대로부터 渡河를 시작하였는데, 敵情은 없었다. 05.30에 兩個중대는 渡河를 完了하고 對岸의 제방을 점령하였다.

Lynch부대는 多富洞을 出發한 以來, 500여명의 敵을 射殺, 또는 捕虜하였으며, 5대의 敵 전차, 20문의 야포 등을 노획하며 洛東江을 건넜던 것이다.

이날 중에 제1대대장 Witherspoon소령은 부대를 이끌고 渡河한 다음, 계속 16km西北方의 尙州로 진격하였으나, 敵은 이미 후퇴한 다음이었다.

한편 工兵隊는, 主力의 洛東江을 위하여 洛東里渡河場에서 전차 및 차량을 渡河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때의 차량은 防濕이 잘 되어 있지 않아 水中橋를 건너는데 많은 곤란을 받았다.

9월 24일 : 밝게 갠 日曜日인 이날 사단의 追擊은 本格化하였다.

즉 공병대가 400여명의 韓國人 勞務者를 동원하여 洛東里의 水中橋를 改修함으로써 오전중에 전차가 江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전차부대가 渡河하자 777부대장 Harris중령은 John R. Flynn대위의 K중대와 전차 1개 소대를 尙州에서 48km 떨어진 報恩을 향하여 직

을 추격케 하였는데, 그들은 어둡기 전에 報恩에 진출하였다. Harris중령은 報恩까지 진격하라는 命令을 받고 있었으므로 더 진격할 수 없었다.

한편 사단의 主力은 이날 尙州부근으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단장 Gay소장은 美 제24사단이 金泉에서 激戰 중임을 알고, 金泉奪還後의 追擊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여 1개 步兵組를 尙州에서 金泉으로 急派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작전지역을 벗어 났으므로 군단장 Milburn소장의 명령에 의하여 돌아오게 되었다.

9월 25일 : 사단은 先頭의 제7기병연대가 報恩에서 더 前進치 못하고 있던 이날 尙州 洛東里 일대에 집결하고 있었다.

어두울 무렵에 사단장 Gay소장은 군단장에게서 더 前進하지 말라는 지시를 無電으로 받았다. 그는 이 지시에 異議코자 하였으나 군단과의, 無電通信이 不可能하여 連絡機를 이용하여 제8군사령부에 Walker중장의 명령에 異議를 제기하기를 「水原부근에서 美 제10군단과 연결토록 추격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건의하였다. 이날 밤중에 Gay소장이 위치한 사단 전방지휘소의 河川연변에 野戰有線이 가설되었는데, 그는 子正直前에 군사령부 인사참모인 Edgar T. Conley Jr대령에게서 "Walker사령관이 할 수 있다면 美 제10군단과 연결하기 위하여 계속 前進하여도 좋다."고 허락하였다는 내용의 電話를 받았다.

9월 29일 : 追擊을 허락받은 사단장 Gay소장은 이날 아침에 尙州의 한 학교교실에서 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사단은 12.00 正午에 진격을 시작하며, 水原부근에서 美 제10군단과 연결할 때까지 晝夜兼行으로 進擊한다는 명령을 下達하였다.

先頭에서는 제7기병연대가 報恩—淸州—天安—烏山 街道를 달렸고, 사단사령부와 포병대는 그 뒤를 따랐다.

제8기병연대는 槐山을 거쳐 安城으로 前進케 되었으며, 제5기병연대는 咸昌공격을 中止하고 韓國軍 제1사단과 交代한 다음, 사단後衛로서 鳥致院을 거쳐 天安에 진출하여 南 및 西方으로부터 후퇴하는 敵을 격파하면서 次期命令을 待期케 되었다.

그런데 지휘관회의에서 사단장의 명령을 받은 제7기병연대장 Harris중령도 報恩에서 Lynch중령에게 부대를 이끌고 最大限으로 빨리 西北進하여 美 제10군단의 美 제7사단과 연결토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Lynch 특수임무부대는 연대 수색소대와 Robert W. Baker 중위의 제70전차대대 3소대가 先導하여 11.30에 報恩에서 출발하였다. Baker중위는 Lynch중령에게서 전차가 낼 수 있는

최고속력으로 前進할 것과 사격을 받지 않는 한 사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前進을 계속하였으나, 敵의 저항은 없었고, 지나가는 이 부대를 구경하는 주민들이 歡聲을 올릴 뿐이었다.

Baker부대는 오후에 탱 비인 洞州를 지나 18.00에 鐵川 西南方의 사일리 道路交叉點부근에서 휘발유가 떨어져 잠시 멈추었다. 전차 6대 가운데 3대의 전차에서 휘발유를 거두어 다른 3대의 전차에 給油하였을 때, 어둠 속을 3대의 敵 트럭이 접근하였다. 美軍임을 알게 된 敵은 트럭을 버리고 逃走하였으며, 美軍은 트럭에 실려있는 휘발유를 나머지 전차에 충분히 給油할 수 있었다. 20.00에는 전격준비를 마쳤는데, Harris연대장은 Lynch중령에게 차량의 불을 켜고 夜間에도 계속 前進토록 지시하였으며, Lynch중령은 필요시에 사격토록 Baker중위에게 지시하여 전차소대를 最先頭에 서게 하였다. Baker부대는 20.30에 天安 南쪽의 서울로 가는 國道에 進入하였으며, 天安 삼거리에 이르러서는 敵兵에게 水原으로 가는 길을 묻기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天安에 몰리고 있던 敵兵들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美軍이 통과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 天安을 지나 중대병력의 敵을 기관총으로 격파하면서 계속 진격한 Baker부대는 도중에 소수의 敵 경비병, 보초를 제치며 烏山을 향하여 急進하였다.

부대가 烏山 南方 16km에 이르렀을 때 전차소리와 砲聲이 들렸다. 차량은 불을 끄고 전진하였으며, Baker전차대는 數 km 앞서서 烏山에 돌입하였는데, 烏山北方에 진출하였을 때 本隊가 뒤따르는 것은 알 수 있었으나 無線通信이 통하지 않았다. Baker전차대가 北方으로 5~6km 前進하였을 때, 사격을 받아 3번 전차의 기관포 銃架가 파괴되고 1명의 전차병이 전사하였는데, 다시 소총과 무반동 총사격을 받았으나 곧 友軍임을 알게 되었으니, 美 제10군단 예하 美 제7사단 제31연대와 접촉을 하게 된 것이다. 즉 銃聲과 전차의 속력 불빛 등으로 보아 敵이 아닌 듯 느낀 Baker전차대가 사격을 중지하였을 때, 2번 전차를 사격하려던 제31연대 소속의 전차등은 白燐수류탄이 터지는 순간, Baker전차의 휜 발표지를 보므로써 相擊을 免하게 되었다. 드디어 Baker전차대는 美 제10군단과의 연결을 이루었으니, 시간은 22.26, 報恩에서 出發한지 10시 36간분만에 170km를 달려 美 제31연대의 陣地에 이른 것이다.

한편 Lynch부대는 1시간이나 뒤떨어져 Baker부대와 通信도 不通이었는데, 烏山 南쪽 下北里에서 敵의 전차와 交戰케 되었다. 기습적인 敵 전차의 사격에 부대는 道路연변에 전개

하였으나, John G. Hill중위의 로켓트砲組와 Webel대위의 勇戰으로 2대의 敵 전차를 격파하였다, 그러나 다시 800m前方의 고개를 넘어 2대의 敵 전차가 다가 오고 있었다. Lynch중령의 운전병인 Billie Howard상등병이 先頭트럭으로 길을 가로 막았고, Lynch부대는 後尾에 있던 3대의 전차가 加勢하여 敵과 交戰하였는데, 敵의 전차는 다시 8대가 증원되었으며, 敵 전차 1대를 파괴한데 반하여 美軍은 2대가 파괴되었다.

9월 27일 : Lynch부대는 지난 밤부터의 전차전에서 10대의 전차가운데 7대를 격파하였으며, 3대를 北쪽으로 逃走하였다. 이 전투에서 Willard H. Hopkins하사는 勇敢無雙한 活躍으로 敵 전차 4대를 파괴한 다음, 戰死하였다. Lynch부대는 戰死 2명, 부상 28명, 2대의 전차 및 15대의 차량이 파괴되는 損失을 입었다. 敵의 전차가 사라진 뒤, 부대는 Harris중령의 결심에 따라 그곳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07.00에 다시 전진을 시작한 부대는 소수의 敵을 제압하고 08.00 烏山에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08.26에는 烏山北方의 작은 橋梁에서 제7기병연대 L중대의 Edward C. Mancil상사는 美 제31연대 H중대와 만나 감격적인 악수를 하게 되었다.

이에 777특수임무부대는 사단장에게 『美 제7사단 제31연대 H중대와 烏山 北쪽에서 08.26에 접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Gay소장은 이날 오전에 烏山으로 왔으며, 제31연대의 지휘관들과 烏山 北方의 敵 高地攻擊에 대하여 議論하였다.

9월 28일 : 사단은 Gay소장의 烏山北方 高地에 대한 協同攻擊提議가 美 제31연대 지휘관들의 찬성을 받지 못하여 이날 오후까지도 美 제31연대의 공격을 방관만 하였다.

예하 각 연대는 尙州—報恩—淸州—大安—烏山의 進擊路 要所에 머물러 敗敵의 東北山岳地帶로의 脫出에 대비하며, 일부 小數의 敗敵을 擊滅하고 있었다.

이날 제7기병연대의 K중대는 美 제70전차대대의 C중대와 함께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며 平澤부근에서 10대의 敵 전차를 공격하여 7대를 격파하였다.

한편 仁川에 上陸한 美 제10군단 예하 부대들은 이날 아침 敗敵을 驅逐하고 완전히 탈환하였으나, 이제 38°線 以南은 거의 收復이 된 셈이었다.

9월 29일 : 10월 8일 사단의 추적은 烏山에서 美 제10군단 예하부대와 연결함으로써 일단 完了되었으며, 이로부터 사단은 水原—淸州—槐山—尙州일대에서 남은 敗敵을 驅逐하며 兵站線을 경비하고 있었다.

9월 29일에 제 5기병연대의 L중대는 大田北쪽에서 9대의 蘇製自動車에 탄 50여명의 敵을 포로하였으며, 다음날 연대는 大田부근의 터널 속에서 기관차와 함께 3輛의 열차를 노획하였다.

그동안 UN軍의 38°線돌파가 결정되어 10월 4일에 사단은 군단장 Milburn소장의 부대이동 및 공격준비를 명령받았으며, 10월 5일에 前進을 시작하여 제 5기병연대가 저녁에 I중대를 先頭로 汶山里에서 臨津江을 渡河하기 시작하였다. 10월 7일 낮에는 제16수색중대가 저녁에는 제 8기병연대의 제 1 대대가 開城에 進入하였으며, 10월 8일 저녁까지는 전 사단이 開城 일대에 집결하였으니, 이제 西部戰線은 전쟁 전의 境界까지의 進擊이 끝난 것이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美 제 1기병사단이 開城으로 진출한 것은 38°線을 돌파한 다음, 平壤을 향하여 진격키 위한 것이었다.

즉 10월 2일부 MacArthur元帥의 北進計劃이 下達되자, Walker 美 제 8군사령관은 美 제 1군단에게 現警備任務를 美 제 9군단에 移讓하고 서울 北方으로 진출하여 공격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하였으며, 10월 4일에 Milburn군단장은 기병사단장 Gay소장에게 開城일대로 진출할 것을 명령하였던 것이다. 10월 5일부터 8일까지 開城일대로의 진출를 完了한 사단은 Gay소장의 작전계획에 따라 제 5기병연대가 東北으로 迂廻하여 金川에 진격할 준비를 하였으며, 開城正面에서는 제 8기병연대가 金川으로 正面공격할 준비를 차렸다. 그리고 제 7기병연대는 西北으로 禮成江을 건너 白川을 거쳐 汗浦里로 진격하여 金川을 포위 공격키 위하여 우선 開城 西方일대에서 小數의 敗敵을 擊破하면서 禮成江東岸으로 진출하였다.

2. 倭舘 奪還戰 (50년 9월 16일부터 / 50년 9월 20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1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5연대전투단 장
대령 Godwin L. Ordway
대령 John L. Throckmorton
제1대대 장 중령 John P. Jones
중령 T. B. Boelofs
제2대대 장
중령 John L. Throckmorton
병력 : 2,599명

敵 軍

제3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7연대 장 대좌 金 昌 鳳
제8연대 장 대좌 金 貞 童
제9연대 장 대좌 金 萬 益
배속부대
제105기갑사단 장 소장 柳 京 洙
병력 : 약 1,200명(北傀 제13사단참모장이었던 李學九 진술에 의함)

나. 전투 전의 개황

敵은 9월 2일 18.00를 기하여 大邱에 對한 最終攻勢를 취하기로 되어 있었고, 傀儡 제3, 제13, 제1의 3개사단으로 하여금 倭舘과 多富洞 北쪽에서 美 제1기병사단과 韓國軍 제1사단을 驅逐한 다음, 大邱를 점령하려고 공격하여 왔으나, 약 12일간에 걸친 치열한 싸움 끝에 이달 14일에는 드디어 北쪽으로 撤退하고 말았다.

당시 敵 제3사단(장, 소장李英鎬)은 倭舘과 漆谷 사이로 공격하여 왔으나 (韓國戰爭史 第3卷 p. 472 상황도 제22호 참조) 이 역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병력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士氣 또한 극도로 저하되고 있었다. (韓國戰爭史 第3卷 p.470, p.490 參照)

美 제5연대전투단은 9월 13일부로 美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가 다음 날인 14일에는 다시 美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倭館 南쪽인 洛東江 東側 堤防에 연한 집결지에서 전투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美 제1군단에는 美 제1기병사단과 美 제24사단, 그리고 美 제5연대전투단을 基幹으로 하고 여기에 기타 지원부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美 제1군단에 배속되었다가 다시 美 제1기병사단에 재배속된 美 제5연대전투단은 9월 15일에서 16일에 걸친 이틀 사이에 美 제8군의 가장 중요한 작전에 참진하게 되었다. 이 美 제5연대전투단(장, Godwin L. Ordway 대령)의 연대 병력은 2,599명으로 연대의 완전편성 인원보다는 1,194명이나 부족한 상태였으며, 각 대대는 586명~595명 규모로 모두가 거의 같은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UN軍의 총반격개시 시간은 닥아왔다. 9월 16일 Ordway 대령이 지휘하는 美 제5연대전투단의 제2대대(장, John L. Throckmorton 중령)가 우선 倭館을 향하여 洛東江을 따라 北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고, 제3대대는 2일 뒤에, 그리고 제1대대(장, John p. Jones중령)도 그 방향으로 공격, 전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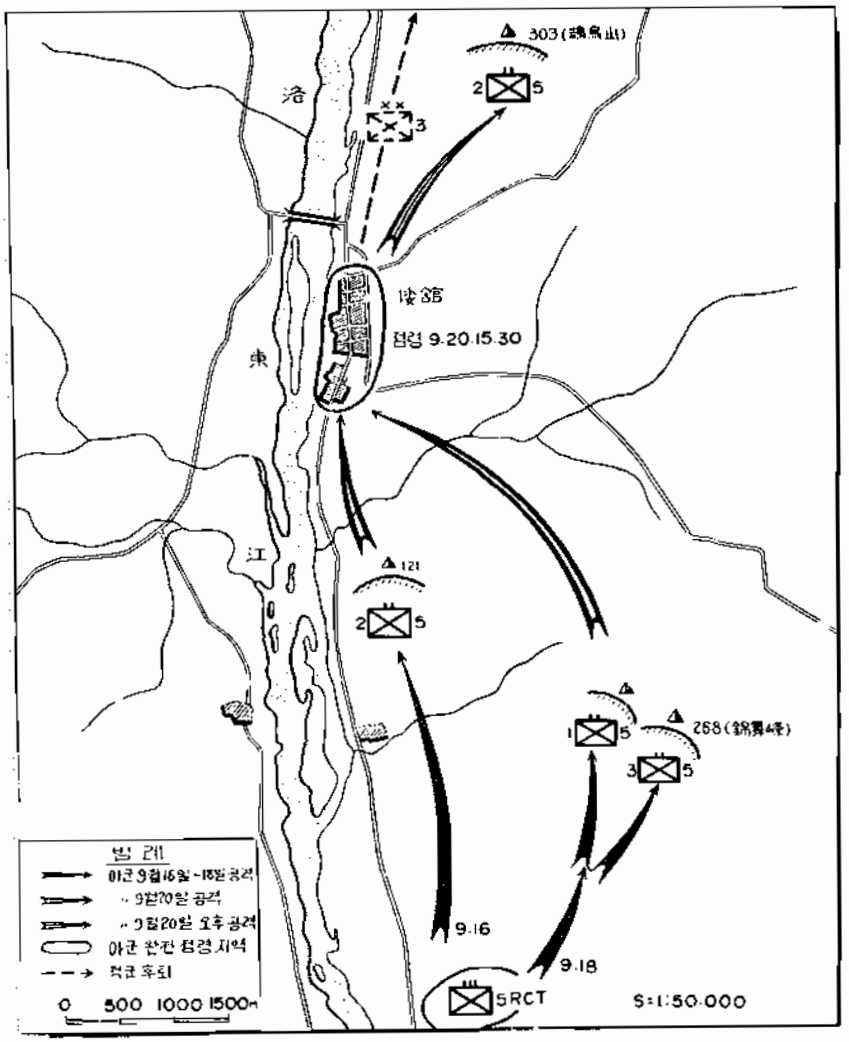
9월 18일 : 전투단은 美 제1기병사단 배속에서 다시금 美 제24사단의 지휘 아래 들어가 錦舞峰(△268)과 倭館을 계속 공격하게 되었다.

한편 美 공군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 韓國戰爭에 있어서 최대 규모의 근접지원을 감행하였는데, 이때에 전투기와 폭격기대는 日本에 있는 板付基地로부터 하루에도 몇차례씩 출격하여 네이팜彈과 로켓트彈 등으로 敵의 據點을 분쇄하고 開豁地에서는 폐주하는 敵에 대하여 機銃掃射로서 많은 타격을 주었다.

9월 19일 : 이날 전투단은 부대원 全員이 倭館 東南쪽에 있는 錦舞峰(△268)에 대하여 총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미 전날에 美 제2사단의 제38보병연대가 昌寧 부근에서 洛東江을 건너는데 성공하였고, 곧 이어서 草溪 부근의 308高地를 점령하였으니, 자유민족의 운명을 건 대반격작전은 총력을 기울여 감행하게 되었다.

錦舞峰(△268)은 敵 제2군단의 右側 據點으로서 만약에 敵이 이 高地를 빼앗긴다면 大邱街道에 연한 美 제5기병연대의 東쪽 側方에 우뚝 솟은 敵의 陣地는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상황도 제17호 美 제5연대전투단의 倭館 탈환전(1950. 9. 16~20)



敵 제3사단장 소장 李英鎬는 1,200명 규모로 추산되는 병력으로 전차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南쪽의 倭館에 이르는 接近路를 막아내고 있었는데, 이 부근의 高地들은 敵 제2군단의 左側面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만약에 敵이 東쪽, 大邱에 이르는 公路에 연한 美 제5기병연대 지역 안에 있는 그들의 前進陣地를 잃게 된다면 사단 陣地를 방어할 수 없게 될런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錦繡峰(△268)과 이에 연결된 지역은 그 南쪽에 이르는 敵의 兵力配置圈 안에 들어 생기게 되므로 그 전술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돌바구니의 낮은 쪽은 英 제27보병여단이 軸心的인 방어陣地를 유지하고 있었고, 바로 그 右側에는 敵 제10사단의 강한 부대들이 있었다.

전투단은 온종일 치열한 전투를 치른 끝에 그 北東 쪽에 있는 능선을 제외한 錦繡峰(△268)을 마침내 완전히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날 밤까지는 제3대대가 高地의 頂上을 점령하였고, 제1대대는 그 西北쪽에, 그리고 제2대대는 館倭 南쪽의 江에 연한 道路로부터 121高地까지를 모두 탈환하였다.

한편 지원공군은 이날 공중폭격을 집중적으로 발휘하여 敵을 강타한 결과, 그들의 士氣를 저하시키고 UN軍의 공격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전투단의 제3대대가 이를 공격하였으나, 105mm 포의 지원사격으로서는 제압할 수 없었고, 돌격을 시작할 때 마다 山 마루에서 내리갈리는 수류탄 彈幕 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었다. 이런 까닭으로 연대장의 요청으로 이날 正午 경에는 F-51 전투기가 3회에 걸쳐 출격한 다음, 네이팜彈과 로켓트彈으로 공격을 반복실시하여 敵의 掩體陣地를 파괴하였으며, 뒤를 이어 즉시 보병이 점령하였는데, 제7연대장 대좌金益鳳을 포함한 약 250여명의 敵들의 시체가 高地일대에 흩어져 있었다.

한편 洛東江의 西便 側方에서는 다른 敵의 부대가 제2 및 제3대대를 향하여 악착같이 저항하였으나, 이 싸움에서 敵은 약 300명을 상실하고 말았다.

Throckmorton 대령의 작전지휘로 이날 14.15에는 제2대대가 倭館에 突入하였고, 15분 뒤에는 제1대대가 역시 倭館에서 合勢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참패를 거듭한 나머지 초조하게 된 敵은 급자 그대로 필사적인 발악을 하였으며, 美軍 前進路에 지뢰를 매설하였으나, 제2대대는 倭館 깊숙히 進入하여 15.30까지 완전히 탈환하고 말았다.

이 당시 倭館을 방어하던 北傀軍 제3사단은 이날 드디어 분쇄된 채로 江을 건너 패주하게 되었다. 이날 09.00의 항공관측보고에 의하면 약 1,500명으로 추산되는 敵이 洛東江 西便으로 철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날 오후에는 倭館 北쪽 道路 일대에 쏟아져 나오는 敵의 패잔병 집단으로 뒤덮여 크나큰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전투단은 45mm 대전차포 22문, 82mm 박격포 10문, 重기관총 6정, 소총 280정,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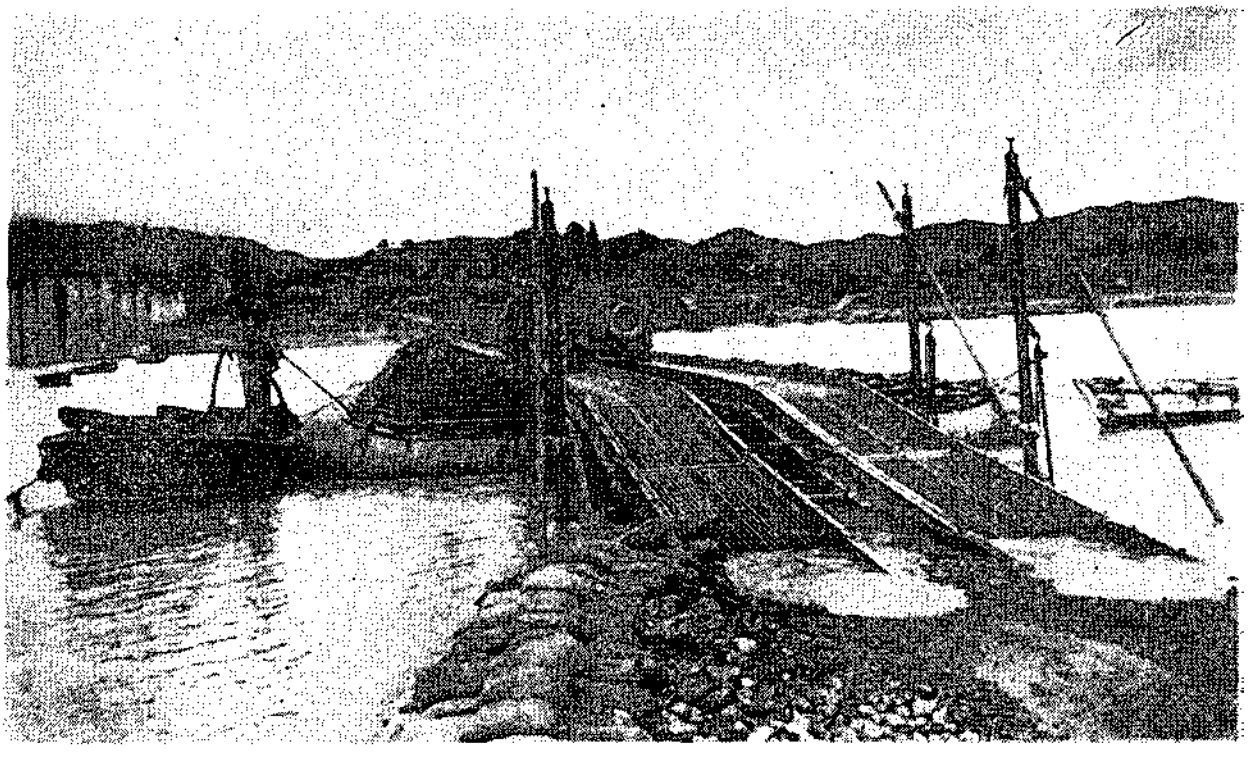
밖에 많은 다발총을 노획하였다.

9월 20일 : 錦繡峰(△268) 전투는 이날 아침까지 계속되었는데, 통나무로 구축한 掩體陣地를 최후 據點으로 한 약 200여명의 敵들은 계속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날 午後에 전투단 제2대대(장, Throckmorton 중령)는 倭館 北쪽에 있는 중요한 鵲鳥山(△303)을 점령하였는데, 바로 여기가 洛東江 東쪽 側方의 최종목표였던 것이다. 이 최종목표를 점령하는데 있어서 전투단은 전사자 18명과 부상자 111명, 그리고 실종자 3명을 내게 되었다.

이날 19.45에 제1대대는 倭館 철교 北쪽 1.6km 지점에서 江을 건너 2km를 전격하였으며, 제2대대는 제1대대의 뒤를 이어 그 西쪽 側方에서 躍를 편 다음, 방어태세로 들어갔다. 한편 제3대대는 倭館 北쪽의 6km 지점에 있는 300高地를 점령하고 敵과 시로 對峙하였다.

전투단은 이 5일간에 걸친 공격 끝에 敵 제3사단의 中央部와 그 右側方을 크게 격파하므로써 敵을 '逐出하고' 앞으로 진격할 수 있게 되었다.



〈UN軍이 洛東江에 가설하였던 浮橋〉

라. 전투 후의 개황

美 제5연대전투단은 鵲巢峽(△268)과 倭館, 그리고 鵲烏山(△303)을 탈환한 다음, 다시 倭館 北쪽 6km 지점에 있는 300高地도 계속하여 탈환하였으며, 뒤저 않고 진격에 진격을 거듭하여 나아갔는데, 이에 따라 敵 제3사단(장, 소장李英鎬)은 밀리고 또 밀리면서 尙州 방향으로 分散, 퇴각하였다. 9월 23일부터 24일에 이르는 동안 한밤중이 춤 지나서는 美 제21연대를 追越하여 金泉을 목표로 前進을 계속하였는데 당시 이 제21연대는 大田—서울 사이의 國道를 따라 北西쪽으로 진격하고 있던 제24사단의 전위부대로서의 진격이었다.

한편 右側 인접사단인 美 제1기병사단은 9월 23일 尙州에 진격하고 있었으며, 左側 인접사단인 美 제2사단의 제38연대 제1대대는 陜川에 진출하고 있었다. 제23연대는 鎭山—陜川 사이에 있는 新反里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얻은 종합적인 戰果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손실
사살 약 300명		전사자 18명, 부상자 111명, 실종자 3명
노획 : 45mm 對戰車砲	22문	
82mm 박격포	10문	
重機關銃	6정	
小銃	250정	

3. 倭館—大田 進擊戰 (50년 9월 18일부터 50년 9월 28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9호
상 황 도 제18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敵軍
美 제1군단 장 소장 Frank W. Milburn	제3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24사단 장 소장 John H. Church	제7연대 장 대좌 金 昌 鳳
포병사령관 준장 George B. Barth	제8연대 장 대좌 金 貞 童
제19연대 장 대령 Guy S. Meloy	제9연대 장 대좌 金 萬 益
Ned D. Moore	
제1대대 장 중령 Otho T. Winstead	
중령 Robert L. Rhea	
제2대대 장 중령 Thomas M. Mcgrail	
제21연대 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제1대대 장 중령 Charles B. Smith	
제2대대 장 중령 Gines Perez	
제3대대 장 중령 Carl C. Jensen	
제34연대 장 대령 Charlese E. Beauchamp	
제1대대 장 중령 Harold B. Ayres	

我軍

배속부대

美 제5연대전투단 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英 제27여단 장 준장 Basil A. Coad

Middlesex 연대

제1대대 장 중령 A. M. Man

A중대

B중대 장 소령 P. M. Allen

C중대

D중대 장 소령 J. E. F. Willoughby

Argyll 연대

제1대대 장 중령 G. L. Neilson

A중대 장 소령 A. D. R. G. Wilson

B중대 장 소령 G. I. Yordon-Ingram

C중대 장 소령 J. B. Gillies

D중대 장 대위 G. M. M. M

병력 : 20,648명 (배속된 韓國軍 2,786명 포함)

敵軍

제3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제7연대 장 대좌 金 昌 鳳

제8연대 장 대좌 金 貞 童

제9연대 장 대좌 金 萬 益

배속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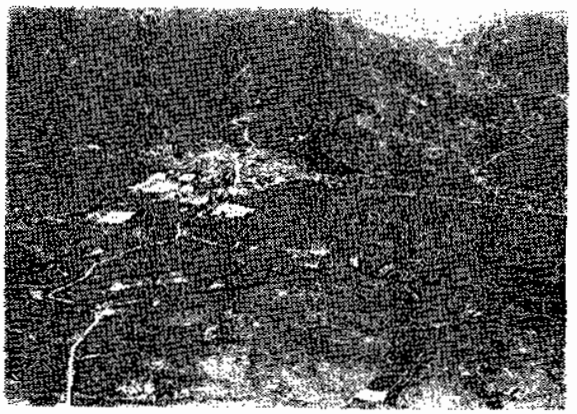
제105기갑사단 장 소장 柳 京 洙

병력 : 약 1,200명(北傀軍 제13사단 참모장이었

및 李學九의 진술에 의함)

(7,000~8,000명 8軍 G-2의 판단)

나. 전투 전의 개황



<鐵山全景>

美 제24사단은 8월초 洛東江 방어선이 형성된 뒤, 8월 5일부터 18일까지 洛東江 줄기의 突出部, 즉 昌寧, 鐵山 부근에서 위기를 극복하여 敵의 교두보를 분쇄하고 正面의 敵이었던 北傀 제4사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 敗走시키고 말았다. 8월 19일 아침에는 洛東江 突出部에서 殘敵을 몰아내고 말았으니, 숨가뻤던 8월의 공방전에서 일단 安堵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다음 날인 8월 20일에는 美 제24사단은 美 제8군 사령부에서 하달된 作命에 의하여 美 제2사단과 교대하게 되었고, 8월 24일에 교대를 완료하였다. 방어진지를 인계하여 준 제24사단은 慶山에 집결하였으며, 제8군의 예비대가 되었다. 그러다가 2월 3일에는 반격준비를 위하여 慶山에서 醴陽을 거쳐, 三浪津 西쪽에 있는 守山里(慶山—守山里間 약 65km)로 이동하였다. 9월 5일에는 慶州 방어를 위하여 守山里에서 慶州(약 110km)로 이동, 浦項·安康 부근에서 싸우고 있던 首都사단을 지원하였고, 9월 13일에는 慶州에서 다시 慶山으로 75km를 이동하여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美 제5연대전투단이 9월 17일 倭館 南쪽 12km 지점에 있는 霞山洞의 예정된 渡河지점을 정찰, 탐색하였으나, 西岸 對岸에는 敵이 없는 것 같다는 보고가 美 제1군단장 앞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 소장은 재빨리 이 虛點을 찌를 생각에서 美 제8군 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계획의 一大變更을 결심하고, 17일 正午 경에 美 제24사단장을 大邱로 불러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제24사단(제5연대전투단 欠)은 18일 밤 霞山洞과 錦南洞 渡河點에서 洛東江을 渡河하여 일부병력으로는 星州 道路를 확보하고, 동시에 그 主力은 倭館對岸으로 진출한 다음, 金泉으로 向하여 진격할 준비를 갖추라. 20일 경에 美 제27여단을 배속시킬 예정임.』

이를 들은 Church 사단장은 즉석에서 快諾하고 제21연대로서는 錦南洞에서 제19연대와 제24정찰중대로서는 霞山洞에서 渡河시키기로 결심하고 즉각 준비에 착수하였다.

大邱에서 이 2개 渡河地點까지 가려면 大邱 北쪽을 동남에 西쪽으로 흐르는 琴湖江을 반드시 건너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 渡河地點은 美 제8군의 工兵으로 하여금 18일 아침까지 浮橋를 놓겠다는 것이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倭館 탈환 및 洛東江 渡河

9월 18일 : 이날은 UN軍의 총반격작전이 시작된지 제3일째였는데, 美 제24사단의 渡河作戰은 뜻하지 않은 착오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며, 美 제8군의 수뇌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渡河의 先鋒부대인 美 제21연대는 9월 18일 아침에 연대장 Stephens 대령을 先頭로 하여 琴湖江의 渡河地點에 이르렀다. 그런데 제8군의 공병대가 巴湖洞 渡河地點에 架設하기로 하였던 임시교량은 걸려 있기는 커녕 공병의 그림자 조차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사단장은 하는 수 없이 공병으로 하여금 어미 제5연대전투단이 만들고 건너간 水中假道 위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리고 大型車輛의 통과를 가능케 하였다.

철교들은 攻擊短艇을 얽어 매어서 만든 임시변통의 나룻배를 이용하여 건너게 하였다.

이때에 工兵隊의 行軍순서는 제21연대의 後尾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대의 거다란 行軍대열을 넘어서는데 뜻밖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麻袋에 흙을 넣는데 잔손이 많이 가서 재빨리 補修할 수가 없었다. 물론 장병들과 철교는 먼저 말한 임시변통의 나룻배로 건너게 하였으나, 전차나 포병은 架橋用 차량을 渡河시키지 않으면 洛東江의 渡河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洛東江 架橋用으로 예정된 資材를 大邱에서 가져 오려고 하였으나, 渡河地點으로부터 5km 사이에는 사단 차량의 행군대열이 長蛇陣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한 일이었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겨우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되었지만 급하게 補修한 탓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빠지는 차량이 많아서 한밤중이 되어도 重車輛의 渡河는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었다. Church 사단장은 Stephens 연대장에게 "18.00까지는 洛東江을 건너지 않으면 내일은 많은 손실을 내게 된다."고 걱정하며, 몇번이고 되풀이하여 격려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날 밤, 지원포대에서는 對岸의 2개 지역에 대하여 포격을 가하였다. 이와같은 상황 아래에서 교통의 혼잡을 막고 上陸用 舟艇과 부대, 그리고 장비를 한시 바삐 琴湖江을 건너게 하려고 밤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9일 아침에서야 겨우 琴湖江을 건널 수 있었다.

9월 19일 : 이날 05.30에 마침내 上陸用 舟艇들은 洛東江으로 진격할 수 있었으며, 倭館 아래 쪽 9.6km 지점과 錦南洞 바로 南쪽에 있는 174高地와 그 南쪽으로 길게 뻗은 稜線이 渡河지점을 瞰制하고 있었고, 겉은 안개로 말미암아 맞은 편 堤防에 있는 敵의 동태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드디어 洛東江의 渡河는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信號로 하듯이 敵의 기관총 사격이 渡河點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敵의 박격포와 야포에서도 불을 뿜기 시작하여 그 포탄이 요란스럽게 炸裂하였다. 예상한대로 174高地와 그 稜線에서 쏟아내는 同時 大量의 集中火力이었다.

이러한 火力 밑에서 洛東江 渡河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渡河 지점의 江幅은 800m, 流水幅은 300m, 水深은 2m 정도였다.

제 1 진은 Smith 부대로서 韓國戰線에서 7월 5일에 최초로 烏山전투에 참전하였던 美 제21연대의 제 1 대대였다. 대대는 砲火를 무릅쓰고 渡河를 強行하였는데, 渡河 중에 120명 가량의 死傷者를 내었다.

07.00 한대의 비행기가 나타나서 174高地를 폭격하였다. 江을 건넌 뒤 대대는 174高地의 西쪽에서 재편성을 한 다음, 공군의 네이팜彈과 치열한 機銃掃射의 지원 아래 공격을 시작하여 12.00경에는 174高地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오후에는 제 3 대대가 江을 건넜고, 174高地의 北쪽에 있는 高地를 점령하였다.

16.00에 제19연대의 제 2 대대는 제21연대가 渡河한 지점의 南쪽 3.2km부근에서 洛東江을 渡河하기 시작하여 18.00에는 江을 건너서 對岸 一帶를 점령하고 있었다. 敵의 박격포와 야포는 대대가 아직도 洛東江 東岸에 위치하고 있을 때, 50명 가량의 死傷者를 내게 하였다.

9월 20일 : 제21연대의 제 1 대대는 제 3 대대가 1.6km 北西 쪽의 좀더 높은 高地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 洛東江의 西岸 174高地의 北쪽에 있는 170高地의 山 마루까지 진격하였다. 전날 밤 제21연대의 제 2 대대는 江을 건너기 시작하여 이날 아침까지 사이에는 江對岸에 진출하였다.

<강풍 조류>

제19연대는 洛東江을 渡河한 다음에는 星州道路에 연한, 江 西편에 있는 敵制高地를 前進基地로서 점령, 확보하였고, 제24수색중대는 이날 밤에 洛東江을 건너서 제19연대를 追越하여 星州道路 西쪽으로 진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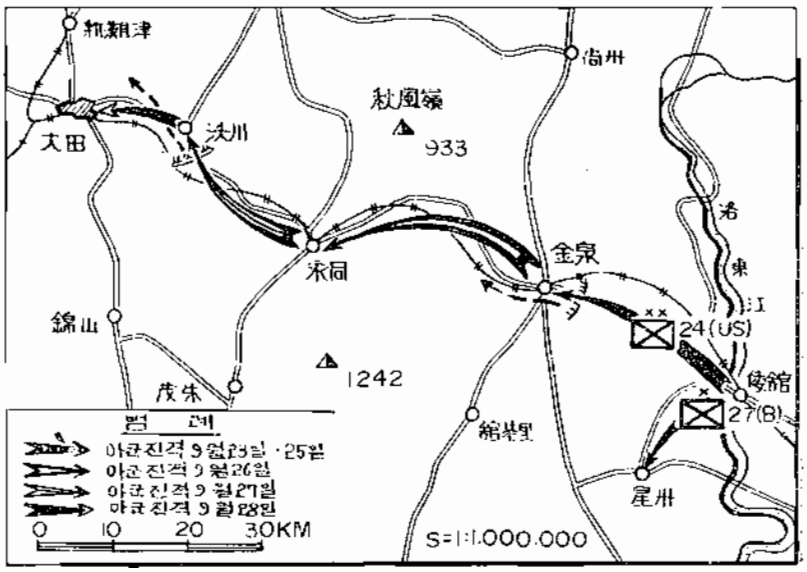
한편 이날 美 제 1 군단은 英 제27보병여

단을 美 제24사단에 배속시켜 洛東江渡河를 준비시키고, 사단 공격의 一翼을 맡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였다. 英 제27여단은 그 위치에서 美 제7기병연대의 제2대대와 교대하고 제19연대의 渡河지점으로 이동하여 공병대가 架設한 徒步橋를 일렬종대로 건넜다. 그런데 敵의 포1문이 온 종일 사격하여 몇명의 英國軍 장병이 부상 당하였고, 제19연대 輜重隊의 渡河를 방해하였다. 敵의 砲陣地를 발견하려고 空中관측을 하였으나, 관측기가 상공에 뜨면 敵은 침묵하고 관측기가 떠나면 포격하여 와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이리하여 이날까지 美 제24사단의 3개연대와 배속된 英 제27여단이 완전히 洛東江을 渡河하였다.

美 제5연대전투단은 倭館—金泉間의 公路上의 높은 지대를 장악하였고, 美 제21연대는 그 南쪽을, 제19연대는 제21연대의 뒤를 이어서 그 南쪽에, 그리고 제24수색중대는 主攻의 西側方에서 공격준비를 하고 있던 英 여단과 星州로 가는 道路를 前進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제24사단은 大邱—金泉—大田—서울街道에 沿한 西側方에서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사단 전투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수송, 포병, 전차 및 근무부대가 뒤따라 가야만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倭館에 걸려 있는 永久橋梁은 美 제1기병사단이 8월초에 洛東江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파괴하였으며, 그뒤 傀儡軍들이 徒步로 건너기 위하여 파괴된 橋脚에 임시로 사다리를 걸어 놓았을 뿐이었다. 이 사다리로서는 도저히 重裝備를 수송할 수는 없었고, 즉시 重裝備를 수송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날 美 제11야전공병대와 美 제55공병주교중대가 임시 교량을 架設하기 위하여 작업에 착수하였다.

〈상황도 제18호 美 제24사단 倭館—大田 進擊戰(1950. 9. 18~28)〉



9월 21일 : 이미 渡河를 완료한 부대는 後續 지원부대가 江을 건널 때까지 戰列을 정비하였으며, 교량 架設 작업은 계속되었다.

이번 兩日間(20~21일)에 걸쳐 전개되었던 洛東江 沿岸 倭館부근 전투에서 敵은 장비와 부대원은 물론 많은 전차를 잃었다. 美 제24사단은 敵의 전차 29대를 파괴하였는데, 대부분은 이미 8, 9월에 파괴된 것들이었다. 당시 敵 제105기갑사단의 제203연대는 전차 9대로써, 제107연대는 전차 14대로써 후퇴하였다는 것이다.

9월 22일 : 10.00 美軍 공병들은 36시간에 걸친 작업을 계속한 끝에 幅 230m, 水深 2.5m 나되는 洛東江에 드디어 M-2 舟橋의 架設작업을 완성시켰다. 이리하여 부대 및 重裝備, 그리고 보급차량은 밤 중에는 洛東江 西편에 이동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때 부대원들은 차량 같은 데에 『大田戰鬪를 想起하자!』라는 檄文을 달기도 하여 전격의 隊列에 나섰다.

琴湖江에서의 혼란과 제21연대의 洛東江 渡河 지연등의 몇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美 제24사단이 9월 18일에 시작하여 5일간에 걸쳐서 있었던 洛東江 방어선의 突破작전은 성공하였다.

이제 倭館을 탈환하고 洛東江 渡河作戰을 끝마친 사단은 敵을 추격하고 戰果를 확대시킬 준비를 끝마친 다음, 倭館—大田 사이에 敵의 야전군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金泉을 향하여 진격하였으며, 金泉에서 南쪽으로 32km 떨어져 있는 公路 위를 前進하고 있었다.

(2) 大田 탈환전

(가) 英 제27여단의 참전

추격전에 참전하기 위하여 美 제24사단에 배속된 英 제27여단은 美 제2사단의 右側方에서 星州를 공격하고, 여기를 확보하면 洛東江과 金泉間의 主補給路 중간지점을 또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 공격은 敵 제10사단이 퇴각한 뒤를 따라 추격하는 것이었다.

9월 22일 : 이날 새벽에 英 제27여단의 Middlesex와 Argyll 양개 연대는 星州 國道 양쪽 높은 지대를 점령하고 있는 敵에게 접근하여 공격준비를 끝마치고 Middlesex 제1대대는 道路 右側에서 진격을 시작하였고, Argyll 제1대대는 뒤를 이어 道路 左側에서 전투 대형으로 전개하였다.

Middlesex 제1대대의 B중대(장, W. P. M. Allen 소령)는 美軍 전차 2대의 지원 아래 Plump Pudding 高地를 쉽게 탈환하였으며, D중대(장, J. E. F. Willoughby 소령)는 325高地(Middlesex 高地)를 점령하였다. 이 전투는 美軍의 전차와 대대의 기관총 및 박격포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으며, 포지원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받았다. 이리하여 全지역은 대대에 의하여 점령되었다.

이 동안 Argyll연대의 제 1 대대(장, Neilson중령)는 道路까지 전진하여 星州 前進의 관문이 되는 282高地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美軍 전차 5대와 1개포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A중대(장, A. D. R. G. Wilson소령)는 이날 오후에 중간 要地를 점령하였으며, B중대(장, A. I. Gordon-Ingram소령)와 C중대(장, J. B. Gillies소령)는 282高地에 대한 夜間攻擊을 敢行하고 있었다.

9월 23일 : Argyll연대의 B 및 C중대는 날이 밝기 1시간 전에 282高地의 山 마루를 공격, 점령하였는데, 敵은 막 아침을 들려던 刹那에 기습을 받게 된 것이었다.

C중대는 계속 山마루와 山마루 사이의 鞍部를 건너서 西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敵制高地(△388)를 점령하였다. 거기서 중대는 계속 앞으로 前進하려 하였으나, 敵은 C중대가 점령한 388高地에 대하여 반격을 敢行하였다. 敵의 야포와 박격포의 사격은 계속되었으며, 美軍의 야포와 5대의 전차소대는 地形上의 障碍로 말미암아 敵의 포격을 제압할 수 없었고, 388高地는 다시금 敵의 手中에 들어가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공중공격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12.00가 좀 지나서 Argyll부대 上空에는 3대의 F-51 전투기가 나타나 英軍이 白色의 對空布板을 깔고 기다리고 있던 282高地 上空을 旋回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敵들도 역시 白色의 對空布板을 깔았다. 예기치도 않았던 일이 생기자 전술항공통제반의 Radcliff대위는 F-51 편대와 無電연락을 할 수가 없었으니, 안타까움기만 하였다. 전투기는 Argyll부대 陣地에 네이팜彈과 機銃掃射를 2분간이나 가하였으므로 山마루의 左側은 불바다가 되었고, 생존자들은 네이팜彈의 치솟는 불길을 피하여 5m 가량이나 되는 山비탈을 마구 굴러 내렸다.

Argyll부대의 副大隊長 Kenneth Muir소령은 이 사태를 보는 즉시로 탄약보급과 救護班을 편성하여 구호활동에 나섰다. 山마루를 향하여 급히 달려 올라가던 Muir소령은 敵의 자동화기 사격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동시에 B중대장 A. I. Gordon-Ingram소령도 부상하게 되었다. 이 때에 Muir소령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결단코 敵은 이 능선에서 Argyll부대를 물리칠 수는 없다."라는 비장한 한마디였다. 이리하여 계속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생존자 30여명 중에서 불과 10명 정도였으며, 그 중에서도 몇명은 부상 당하고 있었다. 3挺의 경기관총 실탄도 모두 消耗되었고, 더 이상 支撐할 수가 없어서 15.00에는 하

는 수 없이 282高地에서 山 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다음 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장교 2명, 사병 11명이 전사하였으며, 장교 4명과 사병 70명이 부상 당하였고, 실종 2명을 합치면 도합 89명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싸움에서 전사한 Muir소령은 그뒤 Victoria Cross 훈장을 추서받았다.

9월 24일 : 한편 美 제19연대의 제1대대는 倭館—金泉間의 國道에서 豊山洞 南쪽으로 공격하여 02.00에는 星州를 탈환하였고, 英 제27여단과 연결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였다. 이리하여 美 제19연대와 英 제27여단은 다음 날인 25일까지 星州 부근의 殘敵을 逐出하고 말았다.

9월 25일 : 午後 英 제27여단은 美 제24사단에서 배속이 해제되었고, 美 제1군단의 지휘 아래로 들어갔다.

이날 星州 부근의 敵 제10사단은 탄약이 消耗되고 차량의 연료가 不足하게 되었으므로 砲를 땅 속에 파묻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는데, 포로로 잡힌 敵의 軍醫官(外科醫) 말에 의하면 敵 제10사단은 총 병력의 약 25% 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敵은 또 倭館 南쪽의 敵 제1군단(장, 중장金 雄)의 예하 全部隊에 대하여 후퇴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나) 大田 진격전

9월 23일 : 英國軍이 星州 근방에서 불행하게도 友軍機에 依하여 공중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은 倭館 大田間의 國道를 따라 北西 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3개연대를 縱隊로 하였으며, 비교적 전투 경험이 많은 美 제21연대를 전위부대로 하여 金泉으로 추격하였다. 敵 제105기갑사단(장, 소장柳京洙)은 전차를 위장시키고 대전차포와 지뢰등으로 강력한 道路 봉쇄진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당시 美 제8군의 主攻 부대는 원활한 보급지원을 받지 못하여 곤경에 빠져 있었다. 이전날 夜間에 敵의 포사격은 洛東江 渡河場의 단 하나 밖에 없는 뗏목을 파괴시켰고, 徒步橋를 세번이나 명중시켜 파괴하였으므로 보급차량의 渡河를 사실상 불가능케 하였으며, 밤에만 地方民을 동원하여 다음 날 전투에 소용되는 보급품을 겨우 지원하는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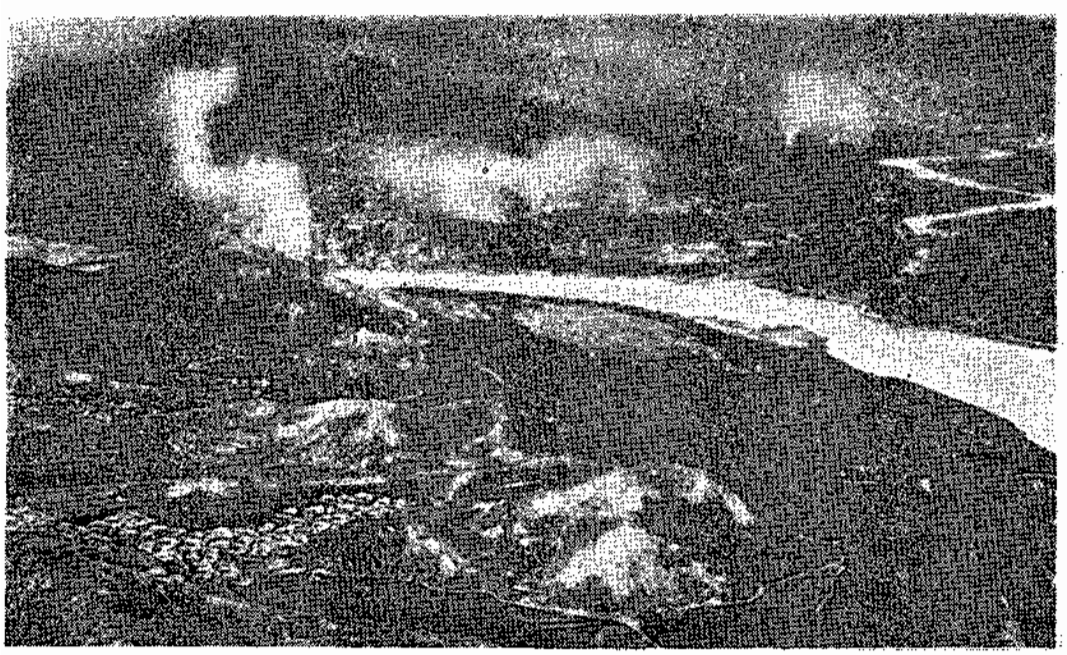
9월 24일 : 이날 00.30부터 美 제5연대전투단은 美 제21연대를 追越하여 진격을 계속하였으나, 國道 沿邊의 140高地에 있던 敵에게 저지 당하고 말았다. 敵의 陣地는 縱深으로 편성된 방어陣地가 아니라 敵의 퇴각을 엄호하는 收容陣地에 불과하였으며, 洛東江線에서

大田으로 철수하려던 敵 제9사단은 美軍의 급속한 전진을 막기 위하여 金泉으로 그 퇴각 방향을 전환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敵 제9사단(장, 소장朴孝三)과 제849독립전투연대, 그리고 제105기갑사단이 金泉일대에서 지연작전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 같았다. 金泉 正面에서 있었던 전투에서 美 제24사단은 M-46 Patton 전차 6대를 격파 당하였으며, 敵은 T-34 전차를 격파 당하였다. 敵의 전차 중에서 5대는 공중공격으로, 또 3대는 地上砲火에 의하여 격파된 것이었다. 이와같이 하여 敵 제849전차연대는 美軍 전차, 혹은 공군의 공중공격으로 사실상 전멸되고 말았다.

美 제5연대전투단과 지원부대는 이 싸움에서 약 10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그 대부분은 敵의 전차와 박격포 사격에 의한 손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金泉 탈환전에서 美 제21연대는 國道 北측으로 迂廻하여 이날 밤에 美 제5연대전투단과 合勢하여 싸우게 되었다.

9월 25일 : 이른 아침 Throckmorton 대령이 지휘하는 美 제5연대전투단의 제3대대는 金泉에 突入한 다음, 市街戰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치열한 공중폭격과 포병탄막의 지원 아래 14.45까지는 金泉의 敵을 모조리 격파하였다. 그뒤 美 제21연대(장, Stephens 대령)는 西쪽으로 계속 공격하였다.

金泉市가 탈환되므로써 敵은 패주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美 제24사단의 포격으로 金泉邑이 불에 타고 있다.〉

9월 26일 : 美 제24사단의 先頭 공격제대인 제19연대의 제2대대는 이날 永同에 突入하였으며, 즉시 형무소를 공격, 탈환한 다음, 美軍 포로 3명을 구출해 내고, 다시 大田 東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沃川을 향하여 계속 진격하였다.

9월 27일 : 이날 02.00에 사단은 沃川에 進入하였고, 이기서 제19연대는 전차에 연료를 再給油 받고 장병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지하였다.

05.30에는 다시 北쪽을 향하여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先頭 전차가 沃川 교외에서 敵의 지뢰와 對戰車砲의 사격을 받고 파괴되었다. 연대의 제1대대는 즉시 展開하여 공격, 전진하려고 하였으나, 얼마 前進하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敵의 遲延陣地에 부닥치게 된 까닭이었다. 이때에 敵은 증강된 부대로써 沃川 西쪽의 높은 지대에서 遲延작전을 企圖하고 있었으며, 이 遲延戰으로 인하여 數千名의 敵은 大田으로 철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大田으로 진격하던 어떤 美軍 전차의 사격수는 "내가 마지막 본 大田은 명랑하지 못하였었는데, 오늘 가게 되면 단단히 복수전을 해주어야지." 하면서 콧노래까지 불렀다고 한다.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大田은 錦南과 湖南 지방에서 후퇴하는 敵의 대병집결지였다. 이날 敵의 포로는 7개사단의 패잔병 중에서 300명이 넘었고, 敵의 전차는 13대가 地上砲에 의하여 파괴되었으며, 나머지 20대는 공군에 의하여 파괴된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9월 28일 : 이날 07.00 공군은 또 하나의 敵의 陣地를 공격하여 분쇄하였는데, 敵은 전날 밤을 이용하여 철수한 것이 밝혀졌다. 공중관측 보고에 의하면 800명 규모의 敵이 大田비행장을 지나 北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목격하였고, 또 많은 敵이 鐵道驛 부근에 집결하고 있는 것도 보았으며, 大田 西쪽에서는 1,000명 규모의 敵이 행렬을 지어 鳥致院 방향으로 퇴각하는 것을 포착하였으므로 이들에게 네이팜彈과 機銃掃射를 가하였다고 하였다.

16.30에는 美 제19연대 제2대대의 정찰대와 美 제3야전공병대대 C중대가 大田 近郊에, 그리고 17.30에는 연대 主力부대가 大田에 진격하였고, 18.00에는 제24사단의 포병연락기가 大田비행장에 착륙하였다.

美 제19연대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었으나, 많은 敵의 패잔병을 포로로 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29일, 30일의 2일간에도 殘敵 擊滅戰은 계속되었는데, 30일에는 제24사단에서 도합 447명을 포로로 하였다. 또 7월에 잃었던 美軍 山砲連 4문과 포장된 채로 있는 敵의 기관총 50정을 포함한 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美 제24사단은 大田을 탈환함으로써 일단 그의 많은 마칠추

〈敵은 도주하면서 良民들을 이렇게 학살하였다.〉

적임무를 완수하였다.

많은 희생자 중에서 九死一生으로 살아 남은 사람은 불과 6명이었으니, 즉 美軍 2명, 韓國軍 1명, 民間人 3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敵의 만행을 證言하였다. 이들은 산 채로 生埋葬되었는데, 美軍 2명의 生存者 중에서 한 사람은 겨우 흙이 얇게 덮히지자 얼른 구멍을 뚫어 숨을 쉬면서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救出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生埋葬되었다가 제24사단이 진격한 뒤에야 겨우 죽기 직전에 救出되었다.

美 제1군단장 Milburn 소장과 美 제24사단장 Church 소장을 비롯한 數百名의 美軍 장병들이 이 참혹한 大屠殺場을 목격하였다.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사이에 大田 市內에서 발견된 것만도 5,000명~7,000명으로 推算되는 民間人과 17명의 韓國軍, 그리고 40여명의 美軍이 있었다.

大田을 탈환한 뒤, UN軍은 天安과 烏山間의 國道를 되도록 짧은 시간에 차단하기 위하여 大田과 烏致院 사이를 迂廻하여 진격하고 있었다. 9월말 전에 가슴 아픈 苦杯를 마신데 反하여 이번에는 통쾌한 敢復戰을 하였다. 大田市 탈환에 제일 먼저 突入한 부대는 7월 20일(9월말 前), 大田을 점수한 때에 마지막으로 철수한 美 제19연대와 美 제3야전공병대대였는데, 이 두개 부대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섰다. 9월 28일 드디어 大田市가 탈환되자 9월 29일에 美 제24사단 지휘소는 大田으로 이동하였으며, 大田에서 釜山基地까지의 兵站線에 대한 경비임무를 담당하였다. 그 담당 경비지역은 거의 161km에 이르렀는데, 美 제19연대는 大田에서 錦江線까지, 美 제21연대는 大田에서 永同까지, 美 제5연대전투단은 金泉에, 그리고 美 제24사단의 수색중대는 漢南의 橋梁을 경비하게 되었다.

4. 昌寧--論山 進擊戰 (50년 9월 16일부터 50년 9월 2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0 호
상 황 도 제 19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 2 사단 장 소장 Lawrence B. Keiser	제 3 대대 장 중령 R. G. Sherrard
제 9 연대 장 대령 John G. Hill	제38연대 장 대령 George B. Peploe
제 3 대대 장 중령 D. M. McMains	제 2 대대 장 중령 James H. Skeldon
제23연대 장 대령 Paul L. Freeman	병력 : 15, 191 명(배속된 韓國軍 1, 821 명 포함)
제 1 대대 장 중령 Chaire E. Hutchin	
제 2 대대 장 중령 James W. Ed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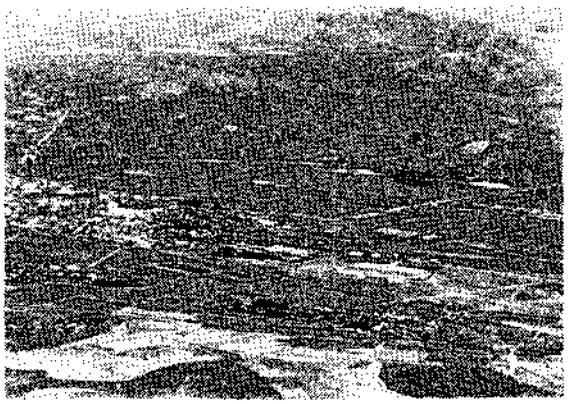
敵 軍	
제 2 사단 장 소장 崔 賢	제17연대 장 대좌 金 寬 大
제 4 연대 장 대좌 李 勝 虎	병력 : 약 2, 300 명
제 6 연대 장 대좌 金 益 顯	

나. 전투 전의 개황

美 제 2 사단은 1950 년 8 월 20 일에 釜山港에 도착한 뒤, 美 제 8 군의 예비대로서 慶山에 집결하고 있다가 美 제24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한 다음, 洛東江 돌출부지역인 昌寧, 靈山 부근의 방어를 담당하였으며, 9 월 9 일 이후는 彼我 모두가 戰力을 소모하고, 戰況은 서로 氣勢脈絡한 상태에 빠지 있었다. 그러나 美 제 8 군은 當面한 敵을 공격하여 부분적으로라도 이를 돌파한 다음, 가능하면 계속돌파구를 확대하면서 主攻方面의 진격을 容易케 하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 발휘하였으며, 敵으로 하여금 공세로부터 방어태세로 전환시키는 전략적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다. (韓國戰爭史 第 3 卷 p. 495 參照)

이러던 次에 때마침 美 제 8 군의 총반격명령을 받게 되자 어데까지 이 撤退作戰에 대한 雪辱의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9 월 16 일 09. 00 가 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南 旨 昌>

9월 16일 : 침울한 공기와 暴雨 속에 날은 밝아 9월 16일은 드디어 눈앞에 다가 온 것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暴雨로 말미암아 優勢 지역에 계획되었던 B-29에 의한 絨緞폭격은 물론이거니와 포병의 공격준비사격 조차도 못하게 되었다. 洛東江 방어선 全戰線에 걸친 全面的인 공격은 예정대로 09.00에 시작되었으나, 여러 곳에서 敵의 완강한 據點저항을 받게 되어 쉽사리 前進할 수가 없었다.

UN軍이 洛東江 방어선에서 총반격작전을 敢行한 뒤, 반격 첫날에 있어서 가장 눈부신 성과를 꽃는다면 곧, 이 美 제2사단(장, Lawrence B. Keiser 소장)의 洛東江 渡河작전을 먼저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美 제2사단의 예하 제38연대(장, George B. Peploe 대령)가 洛東江을 건너는데 가장 먼저 성공하였으니, 그 개황은 대략 다음과 같다.

美 제2사단의 예하 3개연대는 縱隊陣形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우선 첫 단계의 임무는 敵의 제4, 제9 및 제2사단을 逐出하는 것이었다. 美 제9연대는 左翼에서 반격을 시작하였으나, 敵은 寺谷山(△201)에서 완강히 저항하여 연대의 반격은 드디어 挫折되고 말았다. 中央部에서는 날이 밝기 전, 새벽녘에 敵이 공격을 감행, 美 제23연대의 C중대 陣地에 침입하여 왔다. 그리하여 陣地 안에서는 白兵戰이 벌어졌고, C중대의 모든 장교와 배속받은 重火器소대장을 포함하여 모두 25명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 만은 美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있었던 탓으로 2주일 간에 걸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이 싸움에는 참전하지 못하였으므로 健在한 채로 있었으며, 대대는 9월 15일에 지금까지 배속 되었던 美 제1기병사단에서 원 소속인 제23연대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23연대장 Paul L. Freeman 대령은 이 제3대대를 연대의 主攻부대로 정하고 모든 반격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美 제23연대의 제3대대는 우선 敵의 機先을 제압하기 위하여 攻勢로 移轉하였으며, 10.00에 이르러 美 제72전차대대 C중대의 직접지원을 받으며 대대장 R. G. Sherr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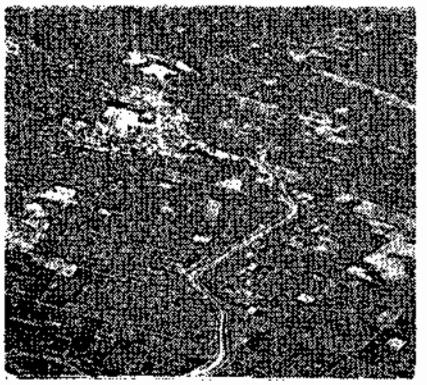
중령의 지휘 밑에 제3대대가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敵은 이날 12.00까지는 매우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으나, 12.00가 좀 지나서부터는 友軍의 맹공격에 견디어 낼 道理가 없었던지 마침내 陣地를 포기한 채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제23연대장은 이러한 絶好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제82고사포대대 B포대와 제23연대의 전차중대로써 특수임무부대(Special Task Force)를 편성하였으니, 이는 戰果를 확대하고 敵의 退路를 차단하려는 조치였으며, 이와 동시에 연대장은 全 연대의 全面的인 추격을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리하여 특수임무부대는 이날 16.00부터 자동화기의 사격을 받고 江을 따라서 무질서하게 퇴각하고 있는 수많은 敵을 급히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오후는 날이 개인 가운데, 계속되는 공중폭격을 퇴각하는 敵의 머리 위에 용서없이 퍼부어 드디어 主力을 분쇄하고 말았다. 또한 연대의 제2대대는 제38연대의 바로 앞에 솟아 있는 208高地를 탈환하려고 모든 공격력을 집중하였는데, 이 高地는 洛東江을 굽어 보고, 잡아 주는 高地였다. 바로 이 때에 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F-51전투기 4대가 네이팜彈과 로켓트彈으로 208高地를 집중폭격하였다. 午後에는 또 昌寧 西便의 江岸으로 퇴각하는 敵을 폭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이리하여 이날 밤 敵 제2사단 지휘소가 먼저 퇴각하였고, 제4, 제6 및 제17포병연대와 사단 포병연대가 뒤따라 江 건너로 敗退하고 말았다. 敵의 이와 같은 무질서한 越江퇴각은 다음 날인 9월 17일까지도 계속되었다.

9월 17일 : 이날 美 공군 전투기는 패퇴하는 敵에게 또다시 폭격을 가하여 많은 死傷者를 내게 하였는데, 이 당시 네이팜彈 110 galon짜리 260개로써 이 지역 일대를 强打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昌寧 西쪽 洛東江 부근에서 많은 敵을 瓦解시키고 상당한 바가 컸으며, 패퇴하는 敵은 수없이 많은 장비와 무기를 버리면서 앞을 다투어 퇴각하기에 바빴다. 美 제23연대는 이 敵을 추격하여 야포 13문, 대전차포 6문, 박격포 4문을, 그리고 제38연대는 야포 6문을 각각 노획하였다.

<창녕에서 본 昌寧>

이날 저녁 때 美 제8군 참모장인 Leven C. Allen 소장은 도오꾜오(東京)에 있는 Hickey 소장에게 電話로 이 洛東江 방어선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격상황을 通話하



<草溪 部落>

였는데, 敵은 단 한번의 반격도 감히 企圖하지 못하고 퇴각하고 있는 사실과 장차 무르익어 가려는 全面的인 총반격작전의 빛나는 戰頭戰況앞에 서로 기뻐하여 마지 않았다.

9월 18일 : 이날 아침에 제38연대의 제2, 제3대대의 정찰대는 昌寧 西쪽 釜谷里 側方에 있는 주인 없는 高地를 발견하였는데, 연대장 George B. Peploe 대령은 그의 제2대대장 James H. Skeldon 중령에게 명령하여 2인용 고무보우트를 이용하여 2개 분대를 보내 據點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연대의 全 병력을 즉시로 渡江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날 13.20에 제2사단 참모장 Gerald G. Epley 대령으로부터 우선 1개 대대만 먼저 江을 건너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16.00에 E중대와 F중대, 그리고 G중대 일부가 幅 100m에 깊이 4m의 江을 무난히 건너서 2시간 뒤에는 그 先頭부대가 敵의 대수롭지 않은 저항을 물리치면서 草溪(洛東江의 西쪽 2km) 부근의 道路를 지배할 수 있는 308高地를 점령하였다. 이와같이 신속한 渡河作戰의 성공으로 敵은 완전히 奇襲을 당하였으며, 제2대대는 900m 前方 西쪽에 敵 약 1개 대대로 추산되는 병력이 앞을 다투어 퇴각하는 것을 308高地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이날 제38연대는 132명의 敵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중 32명은 여자간호원이었고, 1명의 少佐를 비롯한 장교 8명이 끼어 있었다. 또 東쪽 堤防 근처에서는 모래 속에 파 묻거나 혹은 어두운 도랑 속에 숨겨둔 125 ton이 훨씬 넘는 탄약과, 포장된 채로 버려둔 소총과, 그 밖에 많은 보급품과 장비를 노획하게 되었다.

바로 이 제2대대를 先頭부대로 시작한 제38연대의 渡河작전은 美 제8군의 여러 부대 중에서 그 어느 부대보다도 성공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날 작전에 全面的으로 성공을 가져오는 열쇠가 되었으며, 따라서 美 제2사단의 작전계획을 이틀이나 앞 당기게 하였으니, 성공적이라기 보다는 큰 戰勝이라 할 수 있겠다. 美 제8군 사령관 Walker 중장은 제38연대의 이 渡河작전이 성공한 것을 매우 기뻐하면서 "반격 3일째되는 날의 최대의 戰果이다."라는 찬양을 아끼지 않았다.

美 제2사단은 UN軍의 총반격이 시작된지 3일째 되는 이날 南쪽 寺谷山(△201) 일대

와 北쪽 전투지경선을 이은 409高地를 제외하고는 洛東江의 西側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敵 제9사단은 美 제2사단 예하 제9연대의 공격과 철저한 공중폭격과 포병 탄막사격을 받으면서도 아직까지 寺谷山(△201)을 확보하고 있었고, 北쪽 側方의 요충한 409高地의 점령은 별로 큰 意義를 찾아 볼 수 없었다.

한편 제23연대의 정찰대원 22명은 전날인 18일에 洛東江 下流에서 물이 깊은 탓으로 쉽게 건너지 못하여 주저하고 있다가, 西쪽 堤防으로부터 敵의 사격을 받아 3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하였으므로 정찰대는 곧 東쪽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9월 19일 : 美 제38연대의 제3대대는 몇대의 전차와 포병, 그리고 重박격포와 더불어 江을 건넜는데, 제2대대가 敵을 공격 前進하는 동안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이 대대에 부여된 重要한 임무였다. 그리하여 이미 江을 건너가게 된 이 2개 대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과 중장비등을 우선적으로 江을 건너게 하여야만 되었는데, 昌寧—草溪間의 道路와 파괴된 다리를 순조롭게 수리할 수 없어 제2야전공병대대가 渡河지점 下流에 급히 浮橋를 가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美 제38연대 正面에서는 제1대대의 정찰행동과 공중폭격, 그리고 포병 彈幕사격으로 말미암아 敵 제10사단을 견제하고 있었으며, 제2사단 後方의 洛東江 西쪽 30km지역 부근에는 退路를 차단 당한 수백명의 敵이 방황하고 있었다.

또 한편 연대의 2개 대대는 마침 寺谷山(△201)을 공격하고 있는 제9연대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제9연대의 제1대대는 寺谷山(△201)을, 그리고 같은 연대의 제2대대는 같은 山줄기의 174高地를 각각 공격하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George E. Vonton하사는 연대 전차중대의 1개 소대를 직접 지휘하여 寺谷山(△201)의 山 마루까지 밀고 올라가서 이날 저녁 무렵에는 완강히 저항하던 敵을 마침내 擊退시켜 제2사단의 洛東江 渡河를 용이하도록 한 戰功을 세웠다.

9월 20일 : 이날 날이 새기 전에 제23연대의 제3대대(장, R. G. Sherrard 중령)는 洛東江 支流의 上前里 渡船場 西쪽에 있는 新反川이 洛東江으로 흘러내리는 곳에서 攻擊短艇을 이용하여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江을 건넜는데, 이때 先頭부대인 L중대는 堤防 안에서 잠자고 있던 敵 中佐와, 그의 참모들을 포로로 하였으며, 이로서 奇襲渡河가 완전히 성공한 것이었다. 바로 이때에 여기에서 작전 地圖를 노획한 결과, 新反里 일대에는 敵 제2사단과 제4사단 및 제9사단이 배치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제23연대의 제3대대는 저녁 때까지

渡河지점을 瞰制할 수 있는 227高地를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제23연대의 제1대대는 이날 午後에 江을 건넜는데, 이때에 대대의 공격목표는 그곳 道路를 瞰制하고 있는 207高地였으며, 여기는 渡江지점에서 게울 위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高地였다. 先頭 중대인 L중대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新反川에 부닥치게 되어 이 게울을 渡河하는데 크게 苦心하였으나, 결국 水陸兩用車를 이용하여 渡江한 다음, 夜間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던 207高地를 기어 올라갔다. 한편 제3대대는 227高地의 頂線 속에서 사정없이 쏟아지는 소낙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틈타게 된 敵은 약 1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夜襲을 企圖하고 은밀히 山마루까지 접근한 다음, 잠복하고 있었다.

9월 21일 : 이리하여 이 잠복한 敵은 이날 아침에 L중대원들이 마음 놓고 아침을 막 들려고 하는 刹那에 급히 가격을 가하는 한편, 수류탄을 던지면서 돌격을 企圖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습을 당하게 된 L중대는 26명의 死傷者를 내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일단 이동하였다가 이날 12.00에 이르러 잃었던 陣地를 다시 탈환하였다. 제23연대 제3대대가 高地頂上에서 다시 재편성하고 있는 사이에 같은 연대의 제1대대는 제72전차대대의 1개 전차소대와 함께 江 西쪽 8km지점에 있는 敵의 지휘소를 직접 습격하려고 道路를 따라서 新反里 쪽으로 前進하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로 완강하여지는 敵의 저항은 我軍의 步戰協同 공격도 無色하게 하여 버렸으며, 보병부대를 지원하던 雙身 40mm 포와 50mm 自走 고사포 4문의 집중사격의 위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아침에 있었던 敵의 黎明攻擊은 B중대를 기습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였는데, 중대장 Art Stelle 대위도 여기서 전사하였다.

제23연대가 진출한 곳으로부터 北쪽 9.5km 떨어진 지점에서는 제38연대가 草溪—陜川을 진격하던 途中에 敵의 강력한 퇴각 엄호부대와 接戰하게 되자, 즉시 네이팜彈과 燒夷彈의 공중공격으로 직접지원을 받으면서 제2대대는 草溪를 瞰制할 수 있는 239高地 위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敵을 격퇴시켰다.

9월 22일 : 이날 제23연대는 新反里 부근 싸움에서 敵 2개 대대규모의 부대와 白兵戰을 전개하였는데, 그뒤 이 연대의 제2대대는 洛東江을 건넌 다음, 道路 北쪽에서 交戰하고 있던 제1대대와 合勢하기 위하여 急進하였으며, 그 南쪽에서는 제3대대가 敵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면서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제38연대의 제2대대가 드디어 草溪邑에 突入하였고, 제1대대는 한발중에 洛東江 東쪽에 있는 409高地에서 敵 제10사단을 견제하는 임무를 美 제9연대의 제2대대에

인계하고, 연대와 合勢하기 위하여 급히 江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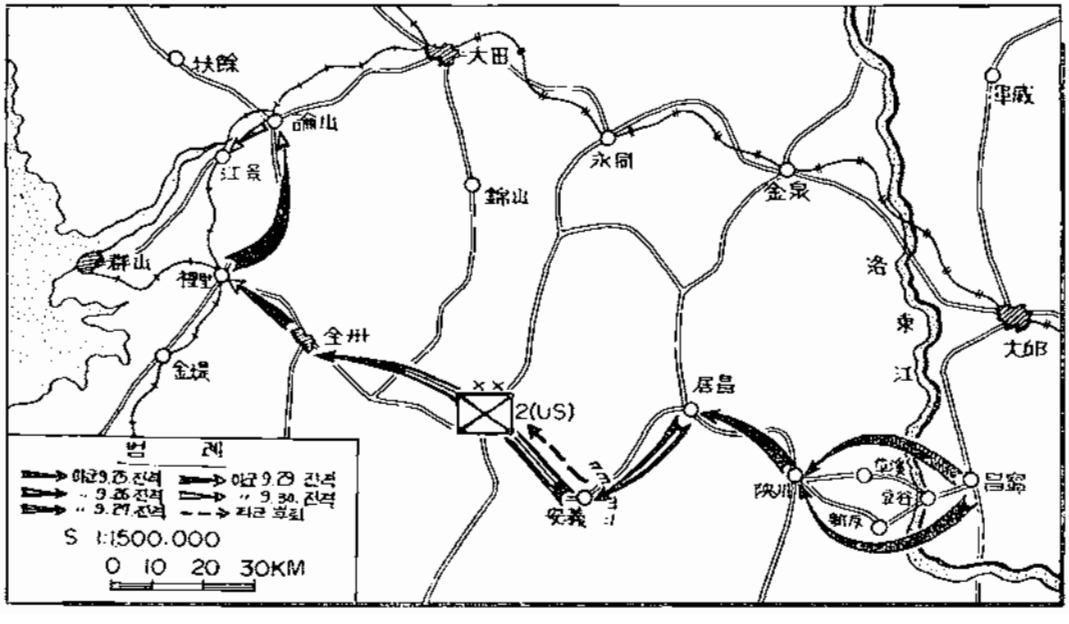
美 제2사단은 비록 84.2m의 橋梁資材 밖에는 없었으나, 沙灘 渡船場에 122m의 徒步교량을 완성하여 진격부대의 보급지원에 크게 공헌하였다.

9월 23일 : 이날 제23연대는 新反里를 확보한 다음, 제38연대가 陜川 쪽으로 迂廻하면서 진격하는 병력과 서로 合勢하기 위한 준비를 끝내게 되었다.

美 제2사단의 공격을 받은 敵 제9사단을 비롯한 제4사단과 제2사단은 全面的인 퇴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모두 陜川을 통과하였는데, 新反里에 있던 敵 제4사단(장, 소장李健武)은 陜川쪽으로 돌았고, 제9사단(장, 소장朴孝三)은 陜川에서 퇴각하였고, 제2사단(장, 소장崔 賢)은 뒤에 草溪를 통과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美 제2사단 제38연대는 草溪 부근의 高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9월 24일 : 美 제38연대는 東南 쪽에서, 그리고 제23연대는 東北 쪽에서 각각 二重으로 陜川을 포위 하였는데, 이때에 제38연대는 醴州—金泉道路에 道路封鎖點을 설치함으로써 아직도 陜川邑에 남아 있던 敵 2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포착하는대로 꼼짝 못하게 차단하여 버렸고, 그 東南 쪽으로 부터는 제23연대의 제3대대가 陜川에 突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곳에 있던 300여명의 敵은 道路봉쇄진지에서 제38연대에 의하여 모조리 격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F-51전투기가 2회나 출격하여 이 패잔병들을 강타, 괴멸시켰는데, 이날 53

상황도 제19호 美 제2사단의 昌寧—論山 進擊戰(1950. 9. 16~30)



회 출격한 공중공격과 地上呼應의 兩面임체작전에서 敵은 완전히 분쇄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상황은 그리하여 이날 밤에는 제38연대의 제 1 대대가 北쪽에서 또한 陜川으로 突入하게 되었다.

9월 25일 : 이날 낮에 美 제38연대는 陜川에서 居昌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연대 正面에서는 敵 제 2 사단이 퇴각하고 있었으며, 포로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의 차량과 重裝備를 陜川과 居昌 사이에서 모두 버렸다는 것이었다. 이 지역에서 트럭 17대, 오토바이 10대, 대전차포 14문, 야포 4문, 박격포 9문과 300 ton을 넘는 탄약을 노획하였고, 또 450명의 敵兵을 포로로 하였으며, 敵 260명 이상을 사살하였다. 그 뒤에 2,500명 규모의 나머지 敵들은 사단장 崔賢과 함께 山 속으로 숨어 버렸는데, 당시 崔賢은 病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날 오후 늦게 UN 공군은 네이팜彈과 로켓트彈 등으로 지상군을 지원하였으며, 居昌을 철저히 폭격하여 거의 완전히 파괴하여 버렸다. 이날의 추격거리는 48.3km를 돌파하였는데, 제38연대의 목적지인 居昌을 약간 남겨 놓고 이날 20.30에는 일단 추격을 멈추고 부대를 정비하였다.

9월 26일 : 美 제38연대는 이날 08.30에 居昌으로 진격하여 들어가 45명의 부상병을 수용하고 있던 敵의 야전병원을 점령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敵은 제 2 사단을 비롯한 제 4, 제 9 사단, 그리고 제10사단의 4개단을 모두 居昌에 집결시킨 다음, 최후의 반격을 감행하여 보려고 꾀하였으나, 美 제 2 사단의 추격이 너무나 빨랐던 탓으로 그 계획이 挫折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급히 居昌을 향하여 추격하게 된 제23연대는 제38연대와 병행하면서 추격하였으나, 道路가 마땅치 않아 추격속도가 늦어지게 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美 제 2 사단장 Keiser 소장은 제23연대장 Freeman 대령에게 명령하기를 『제38연대의 北쪽 側方으로 신속히 迂廻하라.』고 임시조치 하였다. 이 당시 제23연대는 제 1 대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차량화되어 전날인 25일 16.00에 陜川을 출발하여 제38연대의 北쪽 길을 헤치면서 차량에 의한 야간행군으로 居昌을 향하여 진격하는 도중, 가벼운 偵察戰을 교환하면서 美 제38연대가 居昌에 도착한 직후, 바로 그뒤를 따라서 이날 居昌에 突入하게 된 것이다. 또 이날 이 연대는 그 뒤에 곧 추격을 계속하여 敵의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19.30에 居昌 西南 쪽 22.5km에 있는 安義에 진출하였다. 이때에 邑內에는 적은 규모의 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고, 부근일대는 논이었으나, 이날 밤을 이 부근에서 새우면서 부대를 정비하였다.

9월 27일 : 이날 04.00에 安義 邑內의 敵은 야포와 박격포로 美軍의 大休息地를 향하여 집중사격을 가하여 왔으며, 그 제2탄 이후는 모두 제23연대 제3대대 지휘소에 집중되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부대대장을 비롯하여 대대 S-2와 S-3 보좌관, 그리고 수송관과 포병연락장교 및 고사포장교 1명이 모두 전사하게 되었다. 또한 대대장 Sherrard 중령은 중상을 입었으며, 본부의 사병 25명도 부상을 입었으니, 潰走하는 敵에 대한 追擊戰의 손실로써는 너무나도 큰 打擊이었다.

9월 28일 : 이날 04.00에 제2대대를 先頭 追擊隊로 한 제38연대는 居昌에서 험난한 智異山系를 넘어 117.5km 떨어져 있는 金州로 차량행군을 강행하였는데, 이때 마침 美 제25사단도 南原을 거쳐 金州로 향하고 있었다. 연대의 제2대대는 117.5km나 되는 거리를 9시간 만에 走破하여 이날 13.15에는 이미 金州에 突入하였으니, 機械化 장비의 효력은 이와같이 큰 것이었다. 연대는 이곳에서 敵 제102와 제104경비연대 병력 약 300명 중에서 그 3분의 1을 사살하고 나머지 170명을 포로로 하였다. 이때 연대는 차량의 연료가 消耗되어 난경에 빠지게 되었는데, 다행하게도 上空을 날고 있던 연락기가 美 2사단에 보고한 결과, 제9연대에서 긴급히 연료를 보급하기도 하였다.

9월 29일 : 이날 제38연대의 제3대대는 金州에서 論山을 향하여 진격한(鍕里를 經由하지 않았음) 끝에 15.30에 목적지에 진출하였으며, 다음 날인 30일, 03.00에는 江景까지 突進하여 들어갔다.

라. 전투 후의 개황

29일에 論山에 進擊한 美 제2사단은 약 321.8km 後方에 멀리 떨어져 있는 密陽의 驛前보급소에서 보급지원을 받아야 하였으니, 한 往復에 48시간이나 所要되었다.

부대가 진격함에 따라 補給路의 거리가 늘어나게 된 제2사단과 제25사단에 대하여 제9군단장 Coulter 소장은 2개의 수송중대의 차량 130대로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드디어는 왕복에 48시간을 소요하는 거리로 연장되었다. 美 제2사단의 보급지원을 담당하던 방책수송중대의 운전병들은 4일 동안에 도합 13시간의 수면시간을 가졌을 뿐이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부칠 수 있었던 시간은 1일 평균 2시간~3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9월 末에 이르러 美 제2사단은 錦江 南쪽에서 敵을 潰散시켰으며, 그 뒤에 있어서의 사단의 배치상황을 살펴 본다면, 제38연대는 金州—江景 지역에, 그리고 제23연대는 安義 지역에, 나머지 제9연대는 高嶺—三嘉 지역에 각각 분산 배치되어 경계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錦山 南쪽에서는 敵兵들의 모습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으니, 이로써 收復의 重任을 일단 완수하게 된 것이다.

이 기간 중의 종합 戰果와 손실은 대략 다음과 같다.

戰 果

사살 350명이상 포로 757명(0—13여자간호원 32명 포함)

노획 : 야 포 23문
박 격 포 22문
트 럭 17대
군용지도
대전차포 32문
자 주 포 1문
오도바이 10대
탄 약 425 ton 이상

손실

전 사 32명(0--7 포함)
부 상 1명

5. 馬山 西側方 群山 進擊戰 (50년 9월 16일부터 50년 9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9호
상 황 도 제2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美 제9군단 장 소장 John. B. Coulter (9월 23일부터)
제25사단 장 소장 William B. Kean
제24연대 장 대령 Horton V. White
Arthur S. Champney (50.8.6 교대)
제1대대 장 소령 Eugene J. Carson
제2대대 장 중령 George R. Cole
Paul F. Roberts
제3대대 장 중령 John T. Corley
소령 Melvin R. Blair

제27연대 장 대령 John H. Michaelis
제1대대 장 중령 Gilbert J. Check
제2대대 장 중령 Gordon E. Murch
제3대대 장 중령 George H. Dechow
제35연대 장 대령 Henry G. Fisher
제1대대 장 중령 Bernard G. Teeter
제2대대 장 중령 John L. Wikines
제3대대 장 소령 Robert L. Woolfolk

병력 : 15,334명(배속된 韓國軍 2,447명 포함)

敵軍

제6사단 장 소장 方 虎 山
제1연대 장 대좌 金 厚 進
제13연대 장 대좌 韓 日 東

제15연대 장 대좌 金 顯 基
포병연대 장 중좌 朴 海 民
제7사단 장 소장 李 益 成

나. 전투 전의 개황

美 제25사단은 UN軍 戰線, 즉 洛東江 방어선의 西部方面 馬山 부근에서 警戰을 담당 하고 있었으며, 9월 16일 09.00에 반격을 시작할 때까지도 관경에 처해 있었다. 前方으로의 진격보다도 現戰線을 방어, 유지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鎭峰(餘航山=△742)이나, 西北山(△738), 그리고 戰捐山(△661)등 주요 高地에서 전에 볼 수 없었

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8월 末부터 9월 初에 이르기까지도 苦戰을 거듭하였다. (韓國戰爭史 第3卷 p.511~524 參照)

Kean 사단장과 그의 참모들은 사단이 담당한 방어전선의 中央部 高地의 敵을 격퇴시킨 뒤가 아니면 晋州로 진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敵이 점령하고 있는 中央部의 高地를 탈환하고자 美 제24보병연대가 무리하게도 正面공격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狀況이었다.

사단은 晋州와 馬山사이의 道路를 가로질러 배치되고 있었고, 그 左側에는 美 제35연대가 배치되어 中央部에서의 美 제24연대의 돌파공격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晋州 奪還戰(9. 16~9. 29)

9월 16일 : 09.00 드디어 洛東江 방어선에서의 총반격 개시시간은 다가 왔다. 그러나 洛東江 西部 馬山 지역의 美 제25사단은 難境에 빠져 있었다. 前方으로의 공격, 前進 보다도 後方의 敵과 싸워야 하였기 때문이다. 筆峰이나 西北山, 그리고 戰闘山에서 敵들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저항을 하였다. 따라서 Kean 소장과 그의 참모들은 사단 前線의 中央部 高地의 敵을 격퇴시켜야만 晋州方面으로 진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敵이 점령하고 있는 中央部 高地를 탈환하기 위하여 제24보병연대가 날마다 正面공격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다.

제25사단장 Kean 소장은 제35연대의 제3대대장 Robert L. Woolfolk 소령으로 하여금 대대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토록 지시하고, 그의 지휘 아래 戰闘山(△661)과 筆峰(△742)을 다음 날인 17일에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9월 17일 : 이날 Woolfolk특수임무부대는 제90야포대대와 공중공격의 지원 아래 공격을 시작하였으나, 敵의 치열한 자동화기 사격은 번번히 이 특수임무부대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말았으니, 美 제27연대의 A중대만 하드래도 24시간 동안에 57명의 사상자를 내는 형편이었다.

9월 18일 : 이날도 Woolfolk 특수임무부대의 공격은 역시 停頓상태에 놓여 있었으니, 戰勢의 逆轉을 다음 날로 미루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당시 일반적으로 UN軍의 진격상황을 볼 때 많은 死傷者와 심한 손실을 입었을 뿐 상황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였다. 9월 18일~19일 밤에 南端 戰線의 敵 제7사단은 제6사단의 엄호부대로서 戰術원칙에 따른 조직적인 지연작전을 하고 있었다.

9월 19일 : 이날 아침, 敵이 지난밤에 戰闘山(△661)을 버리고 후퇴하였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고, 즉시 戰闘山을 향하여 공격, 前進하여 敵의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으며 무난히 점령하였다.

美 제35연대(장, Henry G. Fisher대령)는 사단의 右側方에서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中岩里 前方에 있는 高地까지 진격하는 사이에 아주 경미한 저항을 받았을 뿐이었다.

9월 20일 : Bernard G. Teeter 중령이 지휘하는 제35연대의 제 1 대대는 드디어 中岩里를 점령하였고, John L. Wikines 중령이 지휘하는 제 2 대대는 北西쪽에서 南江으로 뻗은 稜線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John H. Michaelis대령이 지휘하는 제27연대는 사단의 左側方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완강하게 저항하는 敵으로 인하여 공격이 중단된 채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9월 21일 : 제35연대는 中岩里 南西쪽으로 약 5km 떨어진 좁다란 道路를 점령하였으며,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으면서, 西쪽으로 8 mile에 걸쳐 殘敵을 逐出하면서 武村里 道路의 分岐點을 지나 晋州 通路의 높은 지대로 진격하고 있었다.

22.30 先頭대대는 진격을 멈추었고, 그와 동시에 제24연대(장, White대령) 및 제27연대(장, Michaelis 대령)가 사단의 右側과 中央部에서 凹凸이 심한 지대를 횡단하였다.

지난 3일간 敵들은 美 제25사단의 左, 右, 中央部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드디어 9월 18일 밤에는 등을 보이고 後退하고 말았다. 傀儡 제 6 사단(장, 소장方虎山)은 제 7 사단(장, 소장李益成)의 掩護 아래 19일 아침까지 南江 北쪽으로 後退하였고, 그뒤 제 6 사단도 西北山의 陣地에서 退却하였다.

敵들이 戰闘山이나 西北山에서 물러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연부대와 패잔병들은 무근일대에 출몰하고 있었다.

9월 22일 : 이날 아침, 正德 南쪽 제24연대의 A중대 露營地 안에 敵 병력이 침투하여 왔다. 한 소대장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敵兵 1명이 그의 곁에 와, 서 있었다. 소대장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敵의 腰劍을 빼앗고 격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곁에 있던 士兵이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자 곧 이 敵을 살해해 버리

<第峰 戰闘山 山脈>

고 말았다. 그밖에도 敵兵 3명이 잠자고 있던 A중대 掩壕 속에 수류탄을 먼저 美軍 上兵 2명이 죽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 또 잠시 뒤에는 敵의 박격포彈이 중대장會議를 하고 있는 제24연대의 제1대대(장, Carson 소령) 본부에 떨어졌다. 이때 본부중대장은 전사하고 부대대장과 S--1 및 S—2장교가 부상을 당하여 도합 7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사단의 先頭로 晋州 道路를 진격하고 있던 제35연대는 이날 하루 종일 차단 당하였고, 敵 제6사단의 掩護部隊는 그들 主力부대를 南江을 건너 晋州를 통과, 약 10km나 西쪽으로 撤收케 하였다. 제35연대 제1대대(장, Teeter 중령)의 공격중대들은 길가에서 200m 안에 있는 152高地의 頂上을 점령하였을 뿐이었다. 이날 항공관측 報告는 敵의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뚜렷한 徵兆는 보이지 않으나 많은 敵들이 北方으로 移動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이날 美 제8군 사령부의 정보참모부에서는 敵이 全戰線에서 어떤 계획된 철수작전을 하고 있으며, 접촉, 離脫하는 徵候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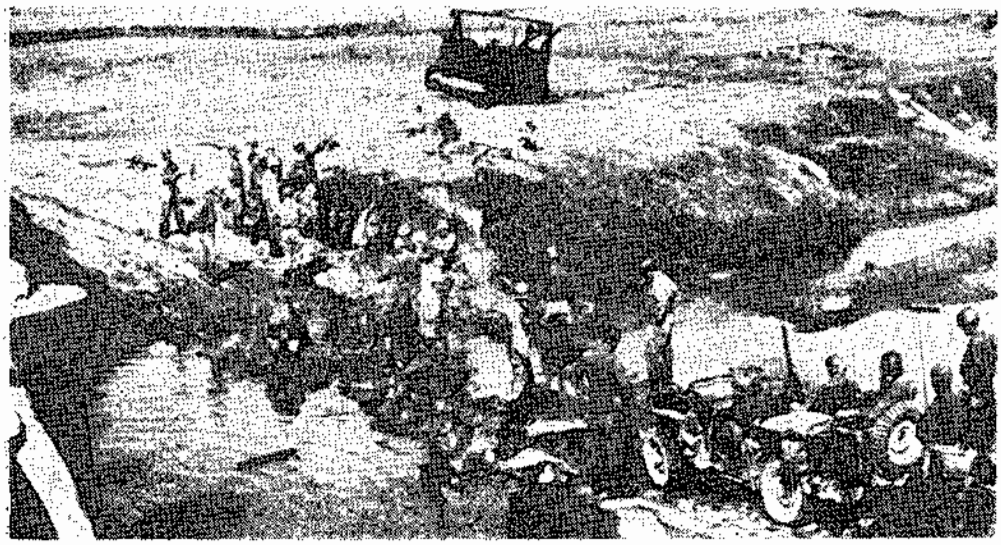
美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은 이날 추격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작전명령에 의하면 「美 제8군의 모든 부대는 최대한으로 돌파구를 확대하여 敵을 깊숙히 포위하고, 그 퇴로를 차단할 것이며, 철저한 섬멸전에 전력을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Walker 중장의 기동계획은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 소장)이 大邱—金泉—大田—水原에 主攻擊을 指向하고 仁川에 上陸한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소장)과 연결을 유지할 것이며, 美 제9군단은 陜川—居昌—安義—全州—江景軸으로, 그리고 美 제25사단은 그 南쪽 側方에서 晋州를 점령한 뒤, 命에 의하여 西北方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또 東側方에 있는 韓國軍은 縱深깊이 敵陣을 뚫고 들어 가 포위기동으로 지역 내의 敵을 섬멸토록 하는 것이었다.

9월 23일 : 洛東江 방어선에서의 敵의 軍事的 侵攻작전은 그 종말을 告하게 되었다. 그것은 仁川 上陸작전의 성공과 더불어 美 제8군의 총공격은 傀儡들을 支離滅裂시켰으며, 敵의 戰線을 격파하였고, 오랫동안 참고 견디어 오던 쾌배의 쓰라린 戰勢에서 反擊으로 移轉하여 추격과 戰果확대로 戰勢를 逆轉시키게 된 까닭이었다.

이날 美 제8군사령관은 14.00부로 美 제2사단과 美 제25사단을 現地에서 John B. Coulter 소장의 美 제9군단에 배속시켰고, 美 제8군 사령부는 追擊을 지휘하기 위하여 釜山에서 大邱로 이동하여 이날 16.00에는 大邱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돌파작전의 추격과정은 南쪽에서 北쪽으로, 그리고 北東方의 順位로 되어 있었다.



〈晋州 附近에서 파괴된 교량 옆에 迂廻路를 만들고 있는 UN軍〉

이날 美 제9군단이 美 제2사단과 제25사단의 지휘권을 인수하였는데, 이날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은 美 제9군단장 Coulter 소장과 함께 美 제25사단 사령부에서 회담을 하는 席上에서 Coulter 군단장은 『사단의 攻擊軸을 南西쪽으로 지향하는 대신 西쪽, 또는 西北쪽으로 변경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北쪽의 美 제2사단과 보다 더 협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Walker 중장은 Coulter 군단장에게 "군단의 전투지경선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것은 군단장의 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主로 제27연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제27연대를 사단의 南쪽 側面에서 北쪽 側面으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Kean 사단장은 이날 저녁에 昔电里에서 南쪽 海岸線을 따라 제27연대의 사이로 前進한 제25수색중대의 중대장 Charles J. Torman 대위 지휘 아래 Torman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제27연대는 거기서 사단의 北쪽 側面인 대밭里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南江을 건너서 교두보를 설치한 다음, 宜寧에서 晋州로 공격하게 되었다.

9월 24일 : Torman 특수임무부대는 이날 아침부터 海岸線을 따라 晋州를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途中인 泗川 北쪽에서 敵 제104경비연대 제3대대의 약 2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敵과 만나 교전하던 끝에 이들을 分散시켰다. 그리고 저녁 때 가까이까지는 晋州 南쪽 4km 지점에 있는 道路교차점 근처의 瞰制高地를 점령하였다.

한편 敵 제6사단의 일부 엄호부대에 의하여 제35연대가 晋州通路에서 저지 당하자, 방어

<晉州에서 본 晉州市街, 中央이 晉州橋>

태세에 임하고 있었다. 이날 밤 한 偵察에서는 『敵은 公路上에 있는 南江橋를 사용할 수 없도록 파괴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 보고에 접한 제35연대장 Fisher 대령은 南江橋의 下流쪽에서 南江을 건너기로 계획을 세웠고, 25일 02.00부터 이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9월 25일 : Torman 특수임무부대는 晉州로 통하는 南江橋까지 이르렀다. 이때 我軍의 전차 1대가 敵이 교묘히 위장하여 매설한 지뢰지대에 들어가 폭발하므로써 Torman 대위는 重傷을 입고 後送되었다.

02.00 제35연대 제2대대(장, Murch 중령)는 晉州 南東쪽 4km 지점에서 Torman 특수임무부대의 전차砲火의 지원 아래 晉州를 공격, 突入하였다. 당시 晉州에는 박격포와 야포의 지원을 받는 약 300명의 敵의 엄호부대가 美軍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같은 제35연대의 제3대대와 제1대대는 오후에 南江을 건너 晉州에 進入하였고, Torman 특수임무부대는 이날 저녁 때, 파괴된 南江橋의 200m 東쪽의 美 제65야전공병대가 가설한 麻袋渡河場을 통하여 江을 건넜다.

한편 晉州로부터 26km 下流 지점에서도 美軍 공병대와 1,000여명의 現地 피난민들이 이날 하루 종일 麻袋로 渡河場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敵의 散發的인 박격포탄이 날아 왔으나 美 제8야포대대의 砲擊으로 제압하고 말았다.

9월 26일 : 해가 뜨기 전에 제27연대의 제1대대는 이 渡河지점으로 南江을 건너 小火器와 迫擊砲의 지원 아래 宜寧을 방어하던 敵을 격파하고, 오후는 宜寧을 점령하였다. 한편 제65야전공병대의 철야작업으로 이날 오후부터는 南江橋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28일 : 제27연대 제1대대는 敵의 가벼운 지항을 물리치면서 晉州까지 進擊하였다.

이리하여 9월 25일 새벽에 제35연대 제2대대가 晉州에 突入한 뒤, 오후에는 제3대대와 제1대대가 進入하였고, 저녁 때에는 Torman 특수임무부대가 晉州에 들어가 이를 탈환, 점령하였다. 그 다음 제27연대는 제1대대를 先頭로 하여 9월 26일에는 宜寧을 점령하고, 9월 28일에야 晉州까지 진격하였다.

9월 29일 : Philippines 대대는 9월 20일 釜山에 上陸함과 동시에 密陽으로 진출하여 이

날 美 제25사단에 배속, 사단장 Kean 소장의 명령에 따라 牟山으로 이동하여 牟山—群北과 泗川 일대에 출몰하는 敵의 遊擊부대 격멸작전에 참가하였다. 그뒤 10월 8일에는 泗川을 출발하여 10일 08.30에는 倭舘으로 이동하였다.

(2) 晋州—群山 進擊戰(9. 26~9. 30)

9월 24일 : 晋州가 奪還되기 전날 美 제8군은 전에 하달한 작전명령을 변경하여 「群山江景을 점령할 때까지 무제한공격을 실시하라.」고 美 제9군단장에 명령하였고, 이 작전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美 제25사단장 Kean 소장은 예하 제24 및 제35연대에 기갑부대를 배속시켜, 2개의 특수임무부대를 편성케 하였는데, 하나는 Matthews 특수임무부대이며, 또 하나는 Dolvin 특수임무부대였다.

이 2개의 특수임무부대는 晋州를 출발하게 되었는데, 右側의 Dolvin 특수임무부대는 晋州에서 咸陽으로 진격한 다음, 거기서 西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南原--金州—裡里—江景을 거쳐 錦江線까지 진격하기로 하고 左側의 Matthews 특수임무부대는 河東—求禮--南原—淳昌—金堤—裡里—群山을 거쳐 錦江線까지 진격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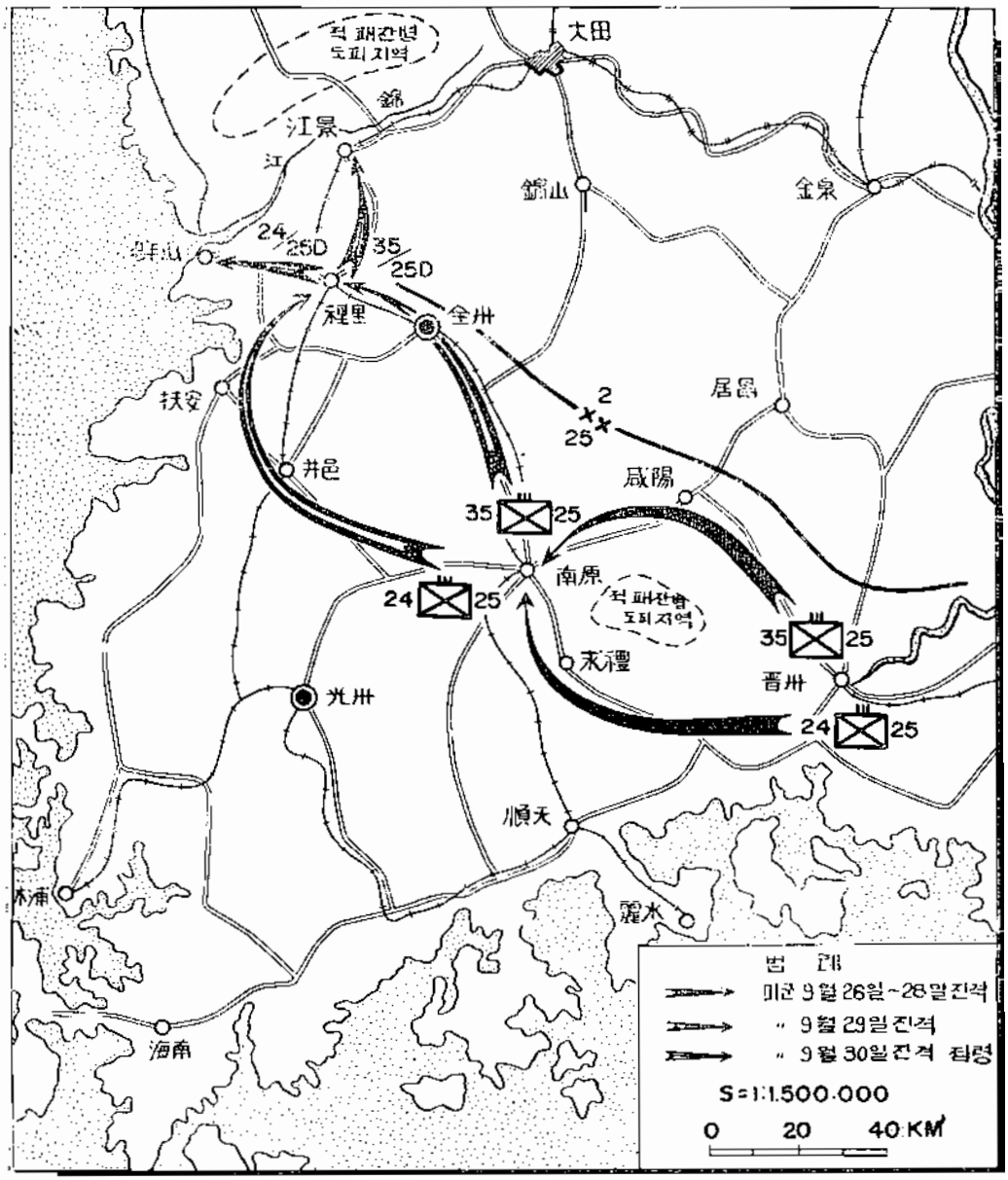
9월 26일 : 이날 06.00에 美 제89전차대대장 Welborn G. Dolvin 중령이 지휘하는 Dolvin 특수임무부대는 北西쪽의 咸陽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당시 晋州—咸陽 道路는 敵 제6사단(장, 소장方虎山) 主力부대의 撤收路이었다.

Dolvin 步戰 특수임무부대는 제89중(中)전차대대의 A중대와 B중대, 그리고 제35연대의 B중대와 C중대를 배속받고 있었는데, 이들을 혼성하여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각팀은 1개 전차중대와 1개 보병중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차중대장이 각팀을 지휘하였고, 보병은 전차 위에 타고 前進하였다.

晋州를 벗어나 5km를 前進하였을 때, M-26 先頭전차가 지뢰지대에 부닥치게 되었으므로 공병들은 곧 지뢰 제거작업에 착수하였고, 여기서 11개 이상의 지뢰를 제거하였다. 다시 진격은 계속 되었으며, 2.5km를 前進하였을 때 이번에는 두번째 전차가 지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또 前進을 계속하여 일마를 더 나아갔을 때, 또 지뢰지대에 걸렸는데, 여기서는 敵 1개소대가 지키고 있었으므로 진격하던 중대는 다시 정지하여 여기서 교전 끝에 敵들을 쫓아내고, 지뢰를 제거한 뒤, 그 근처에서 敵이 버리고 간 대전차포 6문과 차량 9대, 그리고 7트럭분으로 추산되는 살탄을 노획하였다.

해 질 무렵 부대가 下丁里 北쪽 5km지점에 있는 다리에 도착하였을 때는 敵이 이 다리

상황도 제20호 美 제25사단 晋州—群山—江景 進擊戰(1950. 9. 26~30)



를 이미 1시간 30분 전에 폭파한 뒤였다. 따라서 부대는 하는 수 없이 이날 밤새 샛길을 개척하게 되었다.

9월 27일 : 이날 아침에 지뢰 1개가 폭발하여 先頭전차는 피해를 입고 다시 정지하였는데, 이때에 道路근처에 있는 山 마루에서 박격포와 小火器가 불을 뿜기 시작하였고, 일제 공격을 가하여 왔다. 모든 전차는 즉시 이에 應射하여 道路 左側의 敵을 격퇴하였으나, 道路

右側을 공격하던 보병의 공격은 停頓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므로, 부대는 정지하고 즉시 無電으로 공중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16대의 F-51 전투기가 나타나서 敵이 있는 山마루에 機銃掃射를 가하는 한편, 네이팜彈, 로케트彈, 폭탄등을 퍼부었다. 마침 Kean 사단장이 前方으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이러한 好機에 一擧, 敵의 陣地를 공격, 점령하라고 부대장에게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부대는 즉시 공격태세를 갖추고 샛길로 공격을 시작하여 600명으로 추산되는 敵을 분쇄하기에 이르렀다.

또 다른 폭파된 橋梁부근에서 行軍 縱隊도 밤새 공병대가 샛길을 개척하는 동안 정지하고 있었다.

이날 10.00에 제79전차대대 A중대장 Charles M. Matthews 대위가 지휘하는 Matthews 특수임무부대(前에는 Torman 특수임무부대였다. Torman 특수임무부대의 지휘관 Torman 대위가 중상을 입고 後送되었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부임하였음.)는 晋州 西쪽에서 3개의 파괴된 교량 때문에 이날 아침까지 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Matthews 대위는 제79전차대대의 A중대와 제25수색중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 Mattews 특수임무부대의 뒤에는 제24연대의 제3대대가 따랐고, 제24연대의 나머지 병력이 또 그 뒤를 따라서 前進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0.00에야 晋州를 출발한 Matthews 특수임무부대는 17.30에 河東까지 진격하였다.

Matthews 특수임무부대는 民間人과 敵의 포로의 진술에 의하여 패주하는 敵이 美軍 포로들을 이끌면서 4시간, 혹은 2시간 앞서 퇴각하였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이를 추격하였는데, 河東에 이르러서는 不過 30분 앞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河東에서는 환히 비치는 달빛 아래 진격방향을 北西쪽으로 돌려 求禮로 향하였다. 河東에서 16km 前方인 곰두마을에서는 Matthews 특수임무부대의 先頭부대가 11명의 美軍 포로를 구출하였는데, 그들은 제19연대(장, Meloy 대령)의 제3대대 소속 장병들이었다. 대부분 步行능력이 없었고, 더러는 부상을 입고 있었다.

9월 28일 : 전날 밤을 새워가며 작업을 하던 Dolvin 특수임무부대는 이날 첫 새벽에 다시 진격을 계속하여 咸陽의 正東쪽 方向에 있는 道路 교차점에서 11.00에 東쪽으로부터 진격한 美 제2사단의 제23연대와 만났는데, 여기서도 또 3시간이나 정지 당하였다. 공병과 韓國人 노무자 280명이 파괴된 다리 근처에 샛길을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Dolvin 특수임무부대가 咸陽 가까이 닥아가고 있을 때, 咸陽 市街地 안에 있는 한 교량을 敵이 폭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連絡機가 보고하였으므로, 즉시 Dolvin 중령

의 命에 따라 先頭전차가 빨리 前進하여 爆藥을 설치하려는 敵을 전차기관포로 사격하여 교량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였고, 危機一髮로 교량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敵의 지연작전계획을 뒤엎어 버리고 말았다.

그 뒤에 Dolvin 특수임무부대는 1시간에 32km의 전진속도로 突進하여 수많은 敵의 집단을 추격할 수 있었고,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포로로 하고, 나머지는 분산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12.00에는 南原에 들어 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제24연대와 Matthews 특수임무부대가 진격, 탈환한 뒤였다.

이에 앞서 Matthews 특수임무부대가 南原에 突入할 때 南原 바로 못 미처에서 개울을 건너게 되었는데, 제25수색중대 先頭전차에는 Raymond N. Reifer 중사가 앞장 서 있었다. Reifer 중사가 南原에 突入하였을 때, 敵은 아직도 市內에 있었다. 당시 敵들은 2대의 F-84 젯트전투기가 발사하는 로케트彈과 機銃掃射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美軍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와 있는 줄은 전연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별안간 美軍 전차가 나타나자 敵들은 魂飛魄散하여 지붕 꼭대기를 달리는 者, 갈피를 못잡고 거리를 이리뛰고 저리뛰고 미친듯이 돌아다니는 者등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修羅場이 벌어졌다. 이러는 刹那 별안간 어디선지 "쏘지마라. 여기 美軍이 있다."라는 고함소리가 들려 왔다. 그리고 나서 몇초 뒤 어느 民家의 대문을 열어 제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좋아서 날뛰는 美軍 포로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뒤에 처져 있던 Robert K. Sawyer 중위는 Reifer 중사의 無電연락을 받고 즉시 몇대의 전차와 트럭을 몰고 개울을 건너 南原 市內로 들어갔다. 거기서 Sawyer 중위는 수염이 수북하고 營養失調에 걸린 美軍포로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맨발이었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거의 다 餓死之境에 빠져 있었다. 여기서 美軍 포로 86명이 구출되었다. 그뒤 Matthews 특수임무부대와 Blair 특수임무부대는 南原의 殘敵을 보는대로 격멸하였다. 이러한 때 마침 正午頃 Dolvin 특수임무부대가 東쪽에서 진격, 도착하였던 것이다.

Dolvin 특수임무부대는 이날 23.00에 北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Matthews 특수임무부대는 이날 밤새 南原에 머물러 있었고, Blair 특수임무부대는 井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9월 29일 : 이날 Dolvin 특수임무부대는 이미 제38연대가 탈환, 점령한 金州에 진입하였으며, 여기에서 계속 裡里를 통과하여 錦江線까지 진격하였다.

12.00에 Blair 특수임무부대는 이미 탈환된 井邑에 진입하였다. 18.00에 Blair 특수임무

부대는 裡里를 탈환, 점령하였다.

밤이 되어 Blair 특수임무부대가 개울을 건너려 할 때 다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정지하게 되었는데 마침 Matthews 특수임무부대가 도착하여 合勢하게 되었다.

9월 30일 : 13.00 港口都市 群山은 美 제24연대 제1대대에 의하여 아무런 저항도 없이 평온한 가운데 탈환되었다.

이미 29일 錦江線까지 진격한 Dolvin 특수임무부대는 일단 그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였으므로 이날 15.00을 기하여 解體되었다.

Blair 특수임무부대의 晋州로부터의 추격거리는 220km이었고, 추격시간은 75시간이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美 제25사단은 UN軍의 총반격작전이 시작되자 계속 馬山 西側方을 담당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좀 뒤졌으나, 마침내 敵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추격을 계속한 끝에 9월 30일에는 港口都市 群山을 無血로 점령, 탈환하였다.

晋州에서 錦江線까지 韓國 西南部 지역의 智異山을 左右로 포위하고, 主攻 진격하던 Matthews 특수임무부대는 354km 를 전진하였고, Dolvin 특수임무부대는 222km 의 진격기록을 세웠다.

群山을 탈환한 뒤 9월 30일 美 제25사단장 Kean 소장은 예하 3개연대로 하여금 兵站線을 경비시켰으니, 즉, 제24연대는 群山지역을 제35연대는 裡里지역을, 그리고 제27연대는 晋州—咸陽—南原에 이르는 兵站線을 경비하고 있었다.

한편 韓國軍 해병대는 港都 麗水를 탈환하였다.

공군정찰기가 10월 1일에는 群山 東北쪽에 集結 中인 敵을 발견하자 곧 武器를 버리고 가까운 高地에 모여 항복하라는 傳單을 뿌렸더니, 순순히 이에 응하였으며, 그들 약 200명은 한 곳에 인도되어 수용되었다.

기간 중의 종합적인 전과와 손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전과		손실	
사살	1명	사상자	64명
노획 : 대전차포	6문	포로(석방)	97명
차량	9대		
탄약	7트럭분		
포로	200명		

6. UN 海軍의 活動 (50년 9월 15일부터 50년 9월 30일까지)

가. UN 해군의 편성 및 지휘관

제 7 합동기동함대 사령관
美 해군중장 Arthur D. Struble
제90공격함대 사령관
美 해군소장 James H. Doyle
제95선발함대 사령관
美 해군소장 Allen E. Smith
제95.2엄호 및 지원단 장
美 해군소장 Charles C. Hartman
제95.6소해단 장
美 해군대령 Richard T. Spofford
제96.2정찰 및 수색단 장
美 해군소장 George. R. Henderson
제96.8 호위항공모함단 장
美 해군소장 Richard. W. Ruble
제77쾌속항공모함단 장
美 해군소장 Edward. C. Ewen
기함701단장(Missouri 함장)
美 해군대령 Irving. T. Duke
제29군수지원단 장
美 해군대령 Bernard L. Austin

나. 掃海작전 전의 개황

이 기간 중 UN해군의 공격력의 대부분은 仁川 上陸작전에 집중되었으며, 美國을 基幹으로 하여 英國, France, Canada, Natherland, Australia, NewZealand, Thailand 등 8개국의 艦艇으로 편성된 UN艦艇은 韓國艦艇과 합동하여 韓半島의 全海域을 봉쇄하고 地上부대를 엄호하면서 敵의 군사목표가 발견되는대로 艦砲射擊과 艦載機들의 공격으로 이를 봉쇄하였다.

我軍의 반격작전으로 말미암아 北傀軍은 全面 퇴각을 시작하였는데, 山岳지대를 제외한 敵의 退路는 UN軍부대와 韓國軍이 진격하게 되므로써 대부분의 敵 패잔병은 韓半島의 西南部와 太白山脈을 통하여 北으로 퇴각하고 있었다. 또한 北傀 패잔병들은 급히 퇴각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戰車와 박격포 및 야포등과 중화기와 통신기등을 버리고 패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敵은 탄약을 비롯한 보급지원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海上은 UN해군과 韓國해군에 의하여 완전히 봉쇄되었기 때문에, 海上을 통한 퇴각은 엄두에도 둘 수 없었다.

이와같이 韓半島에서 전쟁의 양상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停滯戰에서 반격, 추격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韓國戰爭에서 北傀 해군이 機雷戰을 시도하게 된 것은 1950년 7월 10일 경부터라고 美軍의 군사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정보를 분석하여 판단하였다. 美 제7함동 기동함대 사령관 Struble 제독은 말하기를 "敵은 전쟁 시작 이전에 機雷戰을 수행한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전쟁초기에 機雷를 제외한 여러 종류의 무기와 전쟁물자를 蘇聯으로 부터 보급받았으며, 그들이 機雷를 사용함으로써 UN 해군작전을 방해하고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더라면 그들은 전쟁발발 즉시로 UN해군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機雷를 동원하여 모든 海域에 더욱 많은 機雷를 부설하였을 것이다."고 하였다.

永興灣 掃海 이후에 얻은 정보에 의하면, 永興灣 및 鎭南浦에 敵은 8월 1일 경부터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하였는데, 敵의 機雷부설은 我軍의 총반격작전이 개시된 이전에 거의 끝나고 있었다. 즉 北傀해군은 北韓海岸 水域에 浮遊 機雷를 비롯하여 係留 機雷, 磁氣機雷, 音響 機雷등 여러 종류의 機雷를 부설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機雷부설은 北傀 해군이 蘇聯에서 機雷를 보급받아 蘇聯기술자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蘇聯軍의 機雷戰 戰例 : 永興灣 일대에서 UN 해군艦艇들이 직면하였던 北傀軍의 海上 機雷攻勢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機雷戰에 관한 蘇聯의 지리적인 위치와 그 역사적인 戰例, 그리고 韓半島 해안에서의 機雷부설에 적합한 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蘇聯은 전쟁시에 機雷를 빈번히, 그리고 大量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그 결과도 성공적인 경우가 많았다. 實例로서 1877~78년의 蘇·土(Russia, Turkey)전쟁, Crimea 전쟁 때에도 機雷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였고, 1904~5년의 日露전쟁 때에도 즉 遠東半島近海에서 2척의 日本 해군艦艇을 격파시켰던 것이다.

蘇聯이 北韓해역에서 시도하게 된 機雷戰은 아마도 北韓港口에서 UN해군함정들의 활동과 봉쇄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蘇聯은 現代戰에 있어서 機雷戰의 효과를 시험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즉 韓半島에 있어서 東海岸의 水深은 깊고 海岸지대의 平原이 좁으며, 海岸線은 屈曲이 적을 뿐만 아니라 元山, 興南근해에는 深海의 광활한 샐프(Shelf)가 있는 반면 西海岸은 水深이 얕고, 朝夕干滿의 差가 많아서 機雷부설의 효과는 東海에 비하여 적을 것인지를 경험

하는 것도 蘇聯으로서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다. 활동의 개요

9월은 季節風과 태풍이 불어와 해상의 풍파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UN 해군은 지상부대들을 엄호하기 위하여 敵의 집결지와 그리고 교량, 철교등의 군사시설에 대하여 艦載機에 의한 공중폭격과 艦砲사격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UN 해군은 지상부대들이 요청하는 장소와 시간에 언제든지 艦載機를 출격시키고 또한 艦砲사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美 해군과 韓國 해군은 地上軍의 北進작전을 엄호하는 한편, 敵이 부설한 수많은 機雷를 제거하는 掃海작전을 실시하였다.

기간 중 美 掃海艇 2척이 永興灣 입구에서 機雷에 접촉되어 심한 파손을 입고 침몰한 것을 비롯하여 구축함 Dehaven號 및 Mansfild號는 9월 15일 09.00, 仁川에 들어가는 飛魚水路에서 1개의 機雷源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9월 4일~30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UN 해군艦艇 및 항공기들은 韓國 東西海域에서 50여개의 機雷를 발견하고, 그 대부분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敵의 浮遊機雷가 韓國近域의 公海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機雷들은 조사 결과 繫留機雷에서 분리되어 海上에 떠 다니게 된 접촉형 機雷라고 추측되었으며, UN 艦艇들에게 일대 위협이 되었다. 그 당시 UN 해군은 北傀軍이 많이 機雷를 부설했다는 정보는 얻었지만 그 위치와 성능, 그리고 종류와 부설한 海域 등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元山은 東海岸의 요충인 관계로 敵의 海上으로 부터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이곳에 많은 機雷를 집중적으로 부설하였다.

9월 26일 : 美 구축함 Bursh號는 東海의 城津近海에서 敵의 지상포대의 위치를 탐색하던 중 敵의 機雷에 부딪혀 복구작업이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었다. 이 사고로 13명이 전사하고 34명이 부상하는 손실을 보았다.

대파된 Brush號는 다행하게도 附近海域을 경비하고 있던 Bolster號에 끌려서 9월 30일 日本 사세호(佐世保)港의 乾上架에 들어 가게 되었다. 또한 이날(26일) 驅逐艦 Mansfield號도 B-29의 실종된 조종사를 수색하기 위하여 항해 중 38°線 北쪽 96km 海上에서 敵의 機雷에 접촉되었다. 다행하게도 艦體의 파손은 Brush艦보다는 가벼웠으나, 28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9월 30일 : 5.3m 길이의 木製 掃海艇 Magpie號는 東海 海岸을 掃海하던 중 浦項 東北쪽 48km 海上에서 08.00, 敵의 浮遊機雷에 접촉되어 대파되었다. 이 사고로 승무원 33명 중에서 21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12명은 모두 부상하였다. Magpie號는 南太平洋의 Guam 島에서 韓國海域으로 온지 불과 2일 만에 이와같은 불행을 당하였던 것이다. 당시 전사한 21명의 승조원 중에는 艇長 Warren Roy Person 중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船體와 승조원들은 같은 水域에서 掃海작업 중이던 Merganser號에 의하여 釜山港으로 긴히 後送되었다.

또한 이날 韓國의 西南端에 위치한 木浦近海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였다. 즉 韓國 해군의 掃海艇인 YMS-504艇이 機雷에 접촉되어 파손되었다. 이와같은 韓·美 艦艇들의 機雷접촉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10월 2일 美 제7함동기동함대 사령관 Arthur D. Struble 제독은 예하 제95.6 掃海艇團長인 Richard T. Spofford 대령에게 빠른 시일 내에 韓國海域에서 掃海작업을 완료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편 美 해군의 掃海戰隊의 규모를 보면 제2차세계대전 중 美 해군太平洋艦隊 掃海戰隊의 掃海艇數는 무려 525척에 달하였다.

韓國전쟁이 시작되자 極東海域에 있는 美 해군 掃海戰隊는 4척의 3m 鐵製 掃海艇과 6척의 木製 掃海艇, 그리고 6척의 AMS로서 편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현재 美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掃海부대는 DMS와 艦隊掃海艇(AM), 그리고 AMS 등 21척과 소수의 MSB가 취역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太平洋전쟁 기간 중의 美 해군機雷戰 要員의 90%가 예비역으로 돌아 갔고 1945~1950년 사이에는 해군 예산의 부족, 해군에 대한 관심의 결여, 그리고 機雷戰에 대한 중요성의 감소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련한 장병들이 점차로 줄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掃海機具를 개선하는 노력이 전혀 행하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결국은 제2차세계대전 중의 우수한 美 해군의 掃海戰隊가 사실상 와화된 연후에 韓國전쟁이 발발하였던 것이다. 韓國전쟁에서 美 해군의 掃海戰이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7. UN 空軍의 活動 (50년 9월 15일부터 50년 9월 30일까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극동공군 사령관
중장 George E. Stratemeyer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관
소장 Emmett Jr. O'Donnel

美 제5공군 사령관
소장 Earle E. Partridge

Australia 공군 제77대대 장
중령 C. O. Lou Spence

가. 기간 중 활동의 개요

이 기간 중 UN공군 攻擊力의 대부분은 仁川上陸작전 이후 급속히 진격하고 있는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에 집중되었다. 全戰線에 걸쳐 지상군의 진격에 앞서 敵의 戰意를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만든 UN공군의 공격은 최대한으로 실시되었다.

爆擊機들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을 실시하였는데, 40대를 넘는 B-29 폭격기들이 後方지역에서 我軍 前面의 敵을 여지없이 폭격하여 我軍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開戰 이래 UN공군이 줄곧 실시하여 오던 後方 차단작전은 계속 실시되어, 敵 병력의 증원과 보급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後方지역의 교통망은 UN공군의 폭격으로 크게 혼란되어 패주하는 敵의 후퇴를 더욱 지연시키고 중장비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UN공군은 이미 北韓 內의 전략목표에 대하여 많은 타격을 주었고, 교량과 操車場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局部的인 지역들에서는 敵은 교량과 조차장을 다시 복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복구하고 있는 조차장과 교량은 물론, 이들이 사용하고 이는 곳도 폭격하는 한편, 主要道路들도 敵이 이용할 우려가 있는 곳을 猛爆하였다.

敵은 이와 같은 공군의 폭격으로 그들의 차량과 전차, 그리고 야포에 이르기까지 중장비

물을 戰線에서 遮斷한 채 패주하기에 급급하였으니, 공군의 폭격이 그들의 장비운반에 얼마나 지장을 주었던가는 짐작할 수 있으리라.

北韓 內의 전략폭격에 있어서는 敵의 군용건물과 훈련소등은 물론 軍事的 價値를 지니고 있는 공업시설을 폭격하였는데, 이미 폭격된 공업시설이라 할지라도 소규모라도 機能의 갱신 가능성이 我軍의 항공사진에 의한 정보에 따라 입증이 된다면 새로운 폭격을 실시하였다. 北韓 內의 敵 비행장은 항상 UN공군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는데, 敵은 그들의 비행장에 대한 시설을 계속 개량하고 있었으나 敵 공군의 활동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한편 UN 공군은 나날이 증가되어 가는 긴급한 물자와 인원을 매일 공수하였고, UN 軍 부상자의 급속한 後方에 전념하였는데, 기간 중 1일 평균 1,100 ton 의 물자와 2,000명의 인원을 공수하였다. UN 공군은 1일 평균 700機 이상 출격하여 지상군의 근접지원과 後方 차단, 공수작전등 그 활동을 넓혀 敵의 야욕을 분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UN 공군의 활동에 따르는 不意의 誤爆도 또한 없지 아니 하였다. 9월 23일 UN 공군기들은 金浦상공에서 英聯邦 제27여단을 敵으로 誤認하고 폭격하여 41명이 전사하였다. (第28章 第5節 참조)

6월 31일 극동공군사령관 Stratemeyer 중장은 『北韓에서 작전하는 모든 항공기는 韓·滿과 韓·蘇국경으로 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는 그후에도 UN 軍 총사령관 MacArthur 元帥에 의하여 반복되었으며, UN 공군은 국경의 침범을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게 되었다.

開戰 이래 9월 30일까지 美 극동공군의 戰果는 연 40,000대가 출격하여 폭탄 27,000 ton 을 투하하였는데 전차 격파는 1,000대 이상에 이르렀다.

기간 중, 일평균 출격회수는 605회에 달하였는데, 이 중 근접지원 출격회수는 222회, 차단출격회수는 146회, 전략출격회수는 9회에 이르렀다.

한편 같은 동안에 Australia 공군 제77대대는 긴밀한 지원작전과 엄호임무에 673회 출격하는 記錄을 세웠으며, 英聯邦 제88비행중대는 17회에 걸쳐 장거리탐색과 정찰출격을 감행하였는데, 제209비행중대는 제88비행중대와 협동하여 장거리 정찰을 시작하고 13회에 걸쳐 연락임무를 계속하였다.

또 Cananda 공군은 美國과 日本間을 16회 왕복하여 韓國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였다.

기간 중 주요한 작전일지는 다음과 같다.

9월 15일 : 1. 東南部戰線 연 412기출격 F-80 1대 상실.

2. B-26 平壤 야간공습.

9월 16일 : 1. B-29 80대 元山港 대폭격.

2. 艦載機 仁川—서울間에서 敵 병력 수송트럭 230대 파괴.

3. 극동공군 폭격기와 전투기 南部戰線전역에서 지상군 엄호.

4. MacArthur 元帥 항복권고문 傳單 300만매 살포.

9월 17일 : 1. F-51機 360대 출격, 반수는 지상군 엄호.

2. 전투기 제2사단지구에서 敵 1,300명 사살.

9월 18일 : 1. F-51 馬山, 晋州에서 敵에게 집중공격.

9월 20일 : 1. 연 700여대 출격.

2. 美機 1대 開城 南東쪽에서 추락.

9월 21일 : 1. 연 662기 출격, 美 제24지역에서 전차 14대 격파.

2. 서울 北方 및 東南漢江 邊에서 對空砲陣地 공격.

3. 永登浦 敵의 大보급소 폭파.

4. B-29 洛東江西北의 鐵橋, 철도파괴—敵 退路차단.

9월 23일 : 1. 美機 金泉지역에서 英 제27여단 誤爆.

9월 25일 : 1. 艦載機 서울지역 敵에게 집중공격.

2. 극동공군 연 728대 출격 24시간 공격.

3. 5공군 후퇴하는 敵 2,900명이상 사살, 전차 15대, 차량 104대 격파.

4. 전투기 元山, 平壤 江陵의 敵 비행장 급습.

5. B-29 沙里院 조차장 폭격.

9월 26일 : 1. B-29機 海州 조차장 폭격, 平壤—海州—서울, 平壤—金川間 철도폭격.

9월 27일 : B-29機 38以北의 黃海, 江原지역 조차장 폭파.

9월 28일 : 연 792機 출격 전차 34대등 격파, 공격목표 격감.

9월 30일 : 1. 연 563대 출격

2. 38以北의 敵 대공포화가 치열하여 UN공군기 8대 피해. B-29 1대격추됨.

나. 洛東江 戰線에서의 活動

美 극동공군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洛東江戰線에서 全力을 집중하여 주요차단 목표를 폭격하여 敵의 퇴로를 차단시키며 敵을 혼란시켰다.

9월 16일 폭격사령부 소속 全 5個 폭격전대의 B-29기 82대는 倭館 東쪽의 敵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출격하였으나, 구름이 끼어 목표지역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9월 18일, 제92, 98전대 소속 B-29機 42대는 倭館西, 北東지역에서 길이 5km, 폭1km 되는 敵의 커다란 거점을 여지없이 폭격하여 敵에게 큰 타격을 주었는데, 17일 20.00에 목표선정이 되어 성공적으로 敵을 심멸하게 된 것이다. 당시 美 제8군의 작전참모부 공군담당의 한 교장는 "시간조절이 적합하였으며, 정확도가 완전한 만족스러운 공격이었다."라고 격찬하였다.

한편 9월 17일에는 제5공군의 F-51 및 F-80 전투기들은 제2사단 前面에서 洛東江을 渡江하여 후퇴하는 敵에게 네이팜彈 210개를 투하하여 敵 1,200명을 사살하였다. 이날 제5공군의 전투기들은 靈山에 네이팜彈을 집중투하하고 敵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敵이 제8군에 완강한 저항을 하여 제8군의 진출이 늦어지고 있었던 곳이다.

9월 19일에는 제5공군의 전투기들이 제2사단 前面에서 약 700명의 敵을 발견,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가하였는데, 敵은 이에 당황하여 숨어 있던 곳에서 뛰쳐 나왔으나, B-26 폭격기와 F-80 전투기로 이들을 완전히 섬멸하였다.

9월 20일, 제24사단의 前方수색대는 약 30대의 敵 전차가 戰線으로 향하여 이동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의 폭격을 요청하자, F-51, F-80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그중의 14대를 파괴하였는데, 나머지는 황급히 후퇴하여 버렸다.

9월 22일에 美 제8군의 전투부대들은 대체로 縱隊로 공격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공군의 강력한 지원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이날 공군은 보병의 縱隊를 인도하여 敵의 전차 5대를 파괴하고 2대에 피해를 주었으며, 敵의 自走砲 2문을 파괴하였고, 또 다른 전투기들은 東海岸을 따라 진격하고 있는 韓國軍을 지원하였는데, 이날의 출격에서 敵 625명을 사살하였다.

9월 22일과 23일 양일간 B-29機들은 야간공격을 통하여 敵의 탄약수송화차 1대와 기차 2대를 폭파하였으며, 트럭 1대를 파괴하였다.

9월 24일, B-29機 12대는 서울에서 北方으로 향하는 道路를 공중감시할 목적으로 비행하였는데, 美 제8군의 요청은 지상군 直前方의 지역을 공격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나, 공중감시를 통하여 全戰線에서 퇴각하는 敵을 공격하였다.

〈극동공군 사령관 George E. Stratemeyer 중장〉

서울 東北 쪽의 道路上에 B-29機들은 야간 폭파하도록 장치된 時限폭탄을 투하하였는데, 洛東江 전선에서 진격하여 오는 我軍 前面과 서울 以北의 進擊路線에서 조종사들은 주요한 교통의 要地가 폭탄투하로 인하여 道路에 폭탄구멍이 나 있는가의 여부와 道路가 막혔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UN 공군은 複數차단방법의 일환으로 9월 초순에 主要鐵路上 250kg 짜리 폭탄을 투하하는 한편, 터널입구, 鐵路교차점, 鐵道침목 등을 파괴하였는데, 道路上에서는 폭파구멍 때문에도 敵의 후퇴속도가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仁川上陸에서 부터 9월 25일까지 全戰線에서 UN 공군은 도합 6,500명의 敵을 사살하였는데, 거듭되는 UN 공군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敵은 군수품 보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9월 29일 MacArthur 사령관은 "北傀軍은 이미 主力이 분쇄되었다. 南韓에서의 승리가 확실해진 이상, 공중공격의 목표는 수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南韓에 있는 道路 중 파괴 당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北傀가 사용하고, 있는 南韓 內의 鐵道 이외에는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40°線 以南의 촬주교와 공군시설은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에 이르렀는데 합동참모부는 北韓 內의 전략목표들에 대한 공격계획을 무효화하는 한편, 극동공군에 대하여 『전술적으로 시급한 중요목표일지라도 더 이상의 공중공격을 제한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美 제5공군사령관 Earle E. Partridge 소장〉

다. Australia 공군의 활동

韓國전쟁이 발발하자 6월 30일, Australia의 Menzies 首相은 首都 Canberra 市에서 담화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參戰할 뜻을 밝혔다.

『우리는 大韓民國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UN의 결의에 따라 파병할 것을 각오한 바이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大韓民國을 위하여 各軍을 고루 파병하겠지만 우선 日本에서 韓國전쟁에 상관없이 이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군병력을 파견하겠다.』

이와 같은 Menzies首相의 담화에 따라 즉각 日本 山口縣 廣島근교의 이와꾸니(岩國)기지에서 英聯占領軍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던 Australia공군 제77비행대대로 하여금 韓國戰爭에 參戰하도록 지시하였다. Australia공군 제77대대는 F-51機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RB-26정찰기와 B-29폭격기를 엄호하기 위한 비행임무를 시작한 결과, 이와꾸니(岩國)기지에서 韓國에 있는 戰線으로 원거리 비행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임무 뿐만 아니라 수송기의 엄호비행은 물론 대지공격에도 임하여 혁혁한 戰果를 거두기 시작하였는데 7월 6일에는 三陟上空에서 對地공격을 감행하고 있던 Graham Strout중위가 피탄되어 장렬하게 산화하였으니, 韓國에서 Australia공군이 최초의 人命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Australia공군은 韓國內의 水原, 大邱 비행장등을 中間基地로 사용하면서 C.O. Lou Spence중령을 대대장으로 하여, UN공군과 더불어 작전에 임하여 왔는데, 參戰 이래 8월 말까지 812회의 출격을 감행하였다.

이 기간 중에 Australia공군이 F-51 전투기로써 작전에 임하여 거둔 戰果는 다음과 같다.

敵 트럭 폭파	182대
敵 기타차량 폭파	44대
敵 기관차 폭파	4대
연료저장소 기타	35개소

9월 3일에는 平壤上空을 폭격하고 돌아 오던 Australia공군의 四機편대는 釜山근교에서 敵을 강타하였는데, 이때 조종사 중의 한 사람인 William Harrop중위는 大邱로 돌아 오다가 연료부족과 기관고장이 겹쳐 大邱 근교에서 추락, 전사하였다.

9월에도 Australia공군은 이와꾸니(岩國)기지에서 韓國의 戰線으로 출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UN공군의 일원으로 共産 傀儡 도당의 침략을 분쇄하기 위하여 萬難을 극복하고 勇戰을 거듭하였다.

第 29 章

38°線 突破에 대한 政治, 軍事的 決定의 經緯

第 29 章 38° 線 突破에 대한 政治, 軍事的 決定의 經緯

要 旨

38° 線이란 1945년 8월 15일 第2次大戰에서 日本이 無條件 降伏하므로써 大戰에서 勝利한 美·蘇兩軍이 韓半島 內에있는 日本軍의 武裝을 해제시키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설정한 分斷線이다.

그러나 戰後處理문제를 둘고 美·蘇間에 戰時中의 우호관계가 악화되면서 冷戰으로 돌변하여 끝내 韓國의 통일독립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南韓에는 UN 감시 아래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大韓民國이 수립되었고, 北韓에는 共產傀儡政權이 수립되므로써 38°線은 國境아닌 國境線으로 化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南과 北은 理念的으로 대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38°線에서는 무단한 武力충돌이 벌어지 오다가 끝내 金日成은 6.25의 侵略戰爭을 挑發하고 말았던 것이다.

UN의 보호 아래 있던 大韓民國이 침략을 당하자 UN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金日成에게 38°線 以北으로 그의 침략군을 철퇴시키라고 경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南侵을 감행하므로 UN軍이 참전되면서 集團軍事行動으로 침략자에게 응징을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UN軍은 韓國軍과 더불어 진격작전을 감행하여 오던 중 9월 15일 仁川에 上陸함으로써 戰勢를 逆轉시켜 洛東江一角에서 고전하던 韓·美兩軍은 총반격으로 전환하여 一路 38°線을 목표로 北上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새삼스럽게도 38° 線突破問題가 國際間에 파문이 일어나 論爭과 是非가 벌어졌는데 문제의 焦點은 UN軍이 38° 線을 돌파하여 對以北進擊을 감행한다면 北傀政權을 庇護하고 있는 蘇聯이나 中共이 전쟁에 介入하여 올 가능성의 與否와 그리고 介入할 경우 "이것이 곧 第3次大戰을 誘發할 것이냐 如何냐?"의 두가지의 賛反문제로 要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UN軍은 6월 27일자의 UN安全保障理事會의 결의에 의하여 UN軍 총사령관이 그의 권한으로 對以北進擊作戰을 할 수 있다고 主張하면서 此際에 38° 線을 돌파하여 侵略者를 擊滅하지 않으면 38° 線은 영구히 國境線으로 합법화될 것이며, UN의 목적은 南北韓의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 본래의 목표이므로 38° 線 돌파를 주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었다.

Truman 美 大統領은 9월 1일 美國의 정책을 천명하고 蘇聯이나 中共에 대하여 경고하기를 美國의 軍事行動韓은 朝鮮를 벗어나는 전쟁확대는 없다는 것과 전체 韓國民의 염원인 韓國의 통일국가를 UN감시 하에 세움으로써 極東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中共은 도리어 美國이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고 비난하면서 즉시 韓國에서의 철퇴를 주장하고 만일 美軍이 38° 線을 돌파한다면 北傀傀

에서 싸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韓國軍은 9월 29일 江陵을 占領하고 내일이면 38°線에 도달하게 되었는데도 돌파에 대한 斷案이 내려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UN 安保理事會에서는 이날에야 英國을 위시한 8個國이 38°線을 돌파하여 敵을 擊滅하고 韓國의 統一獨立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총회에 제안하게 되자 Truman 美 대통령은 30일 UN軍 총사령관인 MacArthur 元帥에게 38°線 돌파의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승인을 하기까지는 MacArthur 元帥의 對以北작전계획과 中共의 向背을 숙고하고, 이를 검토한 國家安全保障會議와 合同參謀本部의 진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韓國의 李承晩 대통령은 韓國軍이 잠시나마 38°線에서 UN軍 총사령관의 命에 의하여 前進을 멈추게 되자 불만을 표시하고 육해공군총사령관인 丁一權소장에게 韓國軍 단독으로 38°線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다행히도 UN軍 총사령관의 北進명령과 시간적으로 합치되므로써 10월 1일 韓國軍 제1군단이 처음으로 38°線을 돌파하게 되었다.

그리고 9월 29일의 8개국 공동결의안은 UN에서 蘇聯側의 방해공작으로 論難을 거듭한 끝에 10월 7일에야 가결되었는데 이로써 UN軍총사령관의 38°線 돌파명령을 追認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1. 38° 線의 設定背景과 南北韓의 分斷經緯

38° 線이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北緯線을 가르키는 것인데, 이 38° 線은 韓國의 독립과 관련된 戰後處理 문제의 副産物이며, 그 역사적인 記錄사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美·蘇側에서 未公開 상태에 있으므로 38° 線劃定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근거는 1945년 9월 2일 聯合軍 총사령관 MacArthur 元帥가 東京灣의 Missouri 艦上에서 日本의 降伏文書 調印式이 있은 후, 일반명령 제 1 호를 발표하였을 때에 이 명령 안에 38° 線의 分割條項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가. 北緯 38° 線 以北의 韓國, 滿洲, 樺太 및 千島列島에 있는 日本의 선임지휘관 및 일체의 육상, 해상, 항공 및 보조부대는 蘇聯 極東軍 최고사령관에게 항복할 것.

나. 日本帝國정부 및 大本營, 日本본토, 그에 인접하는 諸 小島, 北緯 38° 線 以南의 韓國 琉球列島 및 일체의 육상, 해상, 항공 및 보조부대는 美合衆國 太平洋陸軍最高司令官에게 항복할 것.」

이리하여 美·蘇兩軍은 韓國 內에 있는 日本軍의 항복을 접수하고자 北緯 38° 線을 경계로 하여 南北韓에 進駐하게 되었는데, 美·蘇는 다같이 "38° 線은 美·蘇兩軍이 進駐의 境界를 劃定할 뿐이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斷言하였다.

그러나 38° 線이 降伏接受線으로만 돌발적으로 劃定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1943년 11월의 Cairo 宣言에 의하면

「美·英·中 三大國은 韓國民의 奴隸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時期(indue course)에 韓國을 자유독립케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Cairo 會談 직전인 11월 19일 美 艦上에서 Roosevelt 美 대통령은 그의 軍事首腦들과 여러 문제를 토론하는 석상에서 韓國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中國의 蔣介石총통은 美·蘇·中 三國이 信託관리국으로 관리하는 韓國의 신탁통치를 希求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Cairo 會談 중(1943. 11. 23) 韓國 문제는 美·中 首腦間에 논의되었는데, 불행히도

公開된 기록에는 美側의 속기록이 없고 단지 中國側의 要旨번역만 실려 있는데, 그 要旨 제 7 항을 보면

"Roosevelt 대통령은 「美·中 兩國은 韓國, 印度支那 및 泰國을 포함한 기타 植民地의 將來 地位에 대하여 相互 양해에 도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蔣總統은 이에 찬성하면서 「韓國에 대한 독립부여의 필요를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이어서 11월 30일에 개최된 美·英·蘇巨頭會談에서도 韓半島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곧 "Cairo 에서 합의 된 共同聲明案 中 極東관계를 읽었느냐?" 하는 英首相 Churchill의 질문에 답하여 Stalin 은 "韓國은 의당 독립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滿洲, 臺灣, 澎湖島가 中國에 回屬되어야 된다는 것도 옳다."고 하였다.

Yalta 會談은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계속되었는데, 主要議題는 戰後處理문제 및 세계평화기구문제였으며, 이와 동시에 蘇聯의 對日參戰문제도 거론되었다.

美國은 이 會談을 위하여 政治, 軍事兩面에 관한 상황판단서 및 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고, 韓半島에 대하여는 Teheran 에서 제시된 信託案을 포함한 韓國戰後處理要領이 國務省에 의하여 연구되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美·英·中·蘇의 합의사항으로써

가. 韓國軍事占領에 참가할 나라의 문제.

나. 過渡的國際信託管理에 참여할 나라의 문제.」

국무성판단으로는 韓國문제는 국제성을 띠고 있는 까닭에 軍事占領과 軍事政府에는 연합국 各國이 대표되어야 될 것이나, 단 대표국은 韓國將來에 利害가 깊은 美·英·中·蘇(但 蘇聯은 참전의 경우)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나라의 참가는 美國의 비중을 弱化하지 않을 정도로 그 비중이 微少하여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國際信託은 국제연합 아래이거나 혹은 그와는 별도로 하되, 역시 美·英·中·蘇는 信託관리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信託관리문제는 1945년 12월에 있었던 Moscow 三相會議의 결과로 마련된 美·蘇 共同委員會가 1946년 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어 Cairo 宣言을 구현시키는데 노력하였으나, 蘇聯은 國際會議에서 협약된 韓國의 독립과 통일에 관한 협정을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美·蘇共同委員會는 결렬되고 말았다. 이로써 美·蘇兩軍은 계속 南北韓을 점령한 채 대립만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자주독립을 위한 눈물겨운 투쟁과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美國의 깊은 이해심을 불러 일으켜, 韓國의 獨立문제를 이 以上 遷延시킬 수는 없다고 美國은 1947년 9월에 이르러 UN에 提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UN총회는 美國을 위시한 自由友邦國의 노력으로 韓國의 자유와 독립을 하루빨리 달성토록 UN臨時韓國委員團의 설치결의안을 1947년 11월에 43대 0(棄權 6)이란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시키고 말았다.

이 UN臨時韓國委員團의 임무는

「(1) 成年 선거권을 기초로 한 秘密投票制에 의해서 늦어도 1948년 3월 31일까지 南北韓 총선거를 실시한다.

(2) 南北韓에서 선출되는 대표자의 數는 인구비례에 따른다.

(3) 선거관리는 UN韓國委員團의 감시 하에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리하여 Menon 印度代表를 議長으로 하는 8個國代表가 1948년 1월에 韓國에 도착하여 南北을 통해서 실정을 조사코자 하였으나, 北韓에서는 同委員團의 入北마저 거부하고 말았다. 이것은 곧 蘇聯의 지시에 의한 것인데 즉 蘇聯은 UN에서 美國側 제안이 채택되었을 때 韓國委員團의 구성을 반대하고 이미 北韓에의 입국을 拒止할 뜻을 보였던 까닭이다. 이 때 蘇聯은 1948년 1월 1일부터 美·蘇兩軍의 동시철퇴를 제안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들이 때양 兩軍의 동시철퇴를 주장한 것은 그 이유가 단순치 않으나, 그들은 이미 충분한 군대를 양성하여 놓았으므로 美軍이 철퇴하게 되면 뒤 이어서 南韓赤化侵略을 단행하려는 흉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韓國委員團의 北韓行이 거부되자 이해 2월 16일 UN총회에서는 할 수 없이 韓國의 가능한 지역 안에서 韓國사람의 자유意思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즉 우선 全韓國人口의 3分의 2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3分의 1은 보류하기로 되었으니, 곧 北韓을 뜻하는 것이다. 同決議案에 따라 우리는 5월 10일 UN韓國委員團監視下에 南韓全域에 걸쳐 역사적인 총선거를 실시하고, 選出된 198名의 議員은 全國民을 대표하여 즉시 國會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國會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다음, 議員의 多數投票로 初代 大統領에 李承晩을 추대하고 8월 15일 해방 3주년을 맞이하여 大韓民國政府의 수립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12월 12일에는 UN에서도 大韓民國政府를 全韓國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

인(48 대 6)을 하기에 이르렀다.

돌이켜 보건데 38° 線은 美國이 제안함으로써 一大失策을 범하게 된 것인데, 만일 美國이 Potsdam이나 Yalta 會談에 있어서 韓國의 점령방법과 점령 후에 수립될 정부의 성격 및 四個國信託統治에 관한 구체적인 事前協議로서 全韓國의 점령을 명시하였다면 韓半島는 38° 線으로 분단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늘의 不合理와 民族的인 悲劇을 招來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38° 線의 分割은 결과적으로 美·蘇間에 있어서 戰時 중에 유지하고 있었던 友好관계가 악화되면서 급격히 대립하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極東에서의 美·蘇外交정책의 실책을 가져오게 된 癌的 존재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韓國은 이 兩大陣營의 상호角逐으로 말미암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骨肉相殘이라는 悲劇과 동족의 무한정 分斷이라는 희생을 강요 당하게 된 것이다.

2. 38° 線 突破에 대한 各國의 是非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먼저 美國의 基本態度를 살펴 보고자 한다.

38° 線 돌파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擊論된 것은 50년 8월 30일 Acheson 美國務長官이 그의 所信을 발표함으로써 대두되었던 것인데, 38° 線을 돌파한다는 것은 전쟁의 종결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Acheson 발언이란 『다른 국가의 군대가 전쟁에 介入하지 않는 限 全面戰爭은 없을 것이며, 38° 線에 대한 돌파여부는 UN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명은 韓國戰爭의 종결를 예상하고 國際的인 危機에 대한 외교적 布石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 聲明이 자유세계의 耳目을 끌게 되자, 美國 內에서는 賛反으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먼저 반대파의 論旨로써는 『38° 線을 돌파하여 北進을 하게 되면 中共과 蘇聯의 전쟁개입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극적인 自重論이고, 姑息的인 自虐說이었으며,

찬성파의 主張으로서는

『6월 27일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의하여 UN軍 총사령관인 MacArthur 元帥에게 38° 線以北으로 진격할 수 있는 法的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至當하게 해석하면서

『첫째, 침략자를 추적하는 軍隊, 특히 韓國軍은 38° 線에 정지시킬 수 있는 法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UN軍도 對戰한 敵을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는데 있어 38° 線이 있을 수 없다. 이는 追擊權의 이론에 背馳된다.

둘째, 38° 線을 돌파하지 않으면 자유진영은 영구히 38° 線을 합법적인 國境線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원래 UN의 목적은 南北韓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있고, 韓國정부가 이미 38° 線 돌파를 聲明한 이상 이 線은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세째, 韓國軍과 UN軍이 38° 線에서 진격을 정지한다면 北傀軍은 재차 침략할 수 있게 될 것인즉, 그렇게 된다면 韓國에서의 전쟁상태는 계속될 뿐 아니라 UN軍은 무제한으로 韓國에 주둔하게 된다.

네째, 이미 UN 해·공군은 北韓지역에 대하여 地·空의 砲·爆擊을 감행하여 교전상태를 北韓지역에 이르기까지 현실화하였고, 단지 지상군만이 北進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제 38° 線 돌파로써는 非理에 맞지 않는다.

다섯째, 전쟁이 발생한 이래 많은 전쟁범죄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제판에 회부하려면 38° 線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체로 위와 같은 것이 그 주요한 論旨였는데, 이와 같은 논쟁이 Washington과 東京의 정치 및 軍事首腦部間에 제의된 것은 北傀軍의 8月攻勢가 弱化되었을 8월 중순이었다.

다시 말하면 美國으로서는 일단 침략격퇴에 參戰한 이상, 더구나 UN軍이 出兵하여 집단적 軍事行動이 감행되고 있는 現 時點에 있어서 이 局地戰의 종결은 오직 名分을 앞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6월 27일 UN安保決議대로 38° 線에서 進擊을 중지하느냐, 또는 차제에 金日成의 北傀政權을 潰滅시켜 UN 감시 하에 韓國에 平和와 자유의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38° 線을 돌파하고 北進을 斷行하느냐의 2個案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9월 1일, Truman 美 대통령은 그의 신념에 입각한 美國의 정책을 방송을 통하여 공표하였는데, 그 주요한 骨子는 다음의 여덟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우리는 UN을 信奉하며 UN을 통하여 평화와 안전을 추구할 것임을 약속한다.
2. 우리는 韓國人이 원하는 바와 같이 韓國이 자유와 독립과 통일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他國들과 함께 UN의 지시와 指導에 韓國民이 그 권리를 享有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우리의 所任을 다할 것이다.
3. 우리는 韓國戰爭이 全面戰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共産帝國主義者들이 다른 군대나 다른 國家를 UN에 대항하는 침략전쟁에 끌어 들이지 않는 한 전쟁은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4. 우리는 中國 국민이 잘못 引導되어 UN이나 혹은 항상 그들에 대하여 友誼를 보내고 있는 美國民에 대항하는 전쟁에 말려 들지 않기를 희망한다.
5. 우리는 臺灣이나 그 밖의 亞細亞 어느 부문에 대한 야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
6. 우리는 極東의 모든 국민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바, 이것이 곧 우리가 UN下에서 韓國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이유의 하나인 것이다.
7. 우리는 침략전쟁이나 防衛戰爭을 막론하고 전쟁을 찬성하지 않는다.
8. 우리 軍隊는 오늘날 韓國에서 평화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바, 우리는 UN 안에서나 혹

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평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Truman 대통령은 記者會見에서 38° 線 돌파문제에 언급하여 "이는 UN에 달려있다."라고 잘라 말하였다.

그러나 美國으로서는 贊反論爭이 있는 가운데 國家安全保障委員會에서 38° 線 돌파문제를 검토한 끝에 Truman 대통령에게 돌파를 권고하는 建議를 하였는데, 이를 승인함으로써 美國은 38° 線 돌파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前述한 바 贊成派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까닭인데, 이를 集約하면 UN軍은 韓半島의 안전을 위하여 出兵한 것이고, 이미 해·공군이 北韓地域에 작전을 감행하여 침략자의 本據地를 砲·爆擊하였기 때문에 지상군이 38° 線을 돌파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한 中共의 基本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韓國戰爭에서 中共이 외교적 攻勢를 취한 것은 8월 20일에 外相 周恩來가 UN 사무총장 Trygve. Lie와 安全保障理事會議長인 Yakov Malik 앞으로 서한을 보낸 것을 信號로 하여 일어나게 되었으니, 즉 그 내용에 이르기를 『美國이 韓國戰爭을 挑發한 침략의 張本人이다. 中共人民은 韓國問題의 해결에 가장 깊은 관심을 表明치 않을 수가 없다.』라고 처음으로 그들의 밋나간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8월 24일에는 역시 周恩來가 安保理事會에 대하여 "美國이 中國領土에 대한 직접武力侵略을 감행했다."라고 비난 항의하면서 "美 제7함대를 臺灣海峽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美機의 滿洲侵犯을 통보하고 제차 다음 날인 29일에는 "美國이 惡意을 가지고 武力侵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떼를 쓰면서 安保理事會는 『美國의 侵略행위를 責하고 韓國에서 美 침략군이 즉시 철퇴할 것을 권고하라.』고 제의하였다.

이와 같은 中共의 일연의 외교적 攻勢는 UN에 있어서 韓國戰문제를 中共의 UN 가입문제와 臺灣의 중립화문제를 便乘, 打開코자 하려는 黑心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9월 23일 中共은 돌연 『조국의 危機을 구하고자 在滿의 中共 志願人民軍가운데서 歷戰의 朝鮮兵들이 귀국하였다.』라고 발표하면서 그 末尾에서 외치기를 『中共人民은 항상 朝鮮民族의 편에서 싸울 것을 명확히 성명한다.』라고 하였다.

25일 中共 인민군총참모장대리 聶榮臻은 北京駐在인 印度大使 Sardar M. Panikkar에게 "中共은 美國이 38° 線을 돌파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警告는 韓國軍이 30일 38° 線에 도달하였을 때 공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外交的攻勢는 中共이 美國에 대하여 38° 線을 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넘는다면 전쟁에 介入하겠다는 태도표시였으나, Washington 당국은 中共의 이러한 여러 차례에 걸친 경고를 신중하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세번째로는 英國 및 기타 여러 나라의 基本태도를 살피보고자 하는데 中共을 이미 승인하고 있는 英國으로서는 38° 線 돌파에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에 反하여 9월 26일 38° 線 돌파를 승인하는 결론을 내리고, UN 安保理事會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起草會員國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Canada Australia 등 汎 太平洋諸國들도 美·英양국에 동조하게 되었다(8個國共同決議案 3參照)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한 韓國의 基本태도를 살펴 본다면, 北傀가 南侵 前인 1949년의 1년간에 38° 線上에서 挑發한 武力侵攻의 大小事件은 무려 874件에 달하였는데, 이와같은 挑發행위는 再言할 필요조차 없이 傀首 金日成일당들이 大韓民國을 赤化武力統一하겠다는 야욕을 채우기 위한 前哨戰이오, 一連의 威力探索이었다. 이를 위하여 金日成은 38° 線에서 충돌을 계속 야기시키는 동시에 數千名의 무장 遊擊隊를 남파하여 大韓民國의 국내질서를 혼란시키고, 好機를 간파하여 이른바 武力解放을 斷策하던 끝에 그 突破口를 6.25의 不法南侵으로 찾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人爲的인 38° 線의 障壁은 金日成 스스로가 직접 이를 두들겨 허물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大韓民國도 政府 수립후 國軍이 창설되면서 正規軍을 갖게 되자 비록 兵力과 장비는 보잘것 없었으나, 國民들의 여망은 일단 戰力을 배양하여 好戰的인 北傀의 38° 線에 대한 武力侵攻을 분쇄하고 또한 무장遊擊隊를 계획적으로 南派시키고 있는 北傀徒黨을 말살하기 위하여서는 北進만이 南北을 統一하는 유일한 捷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時局的 觀念은 金日成一黨의 挑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趨勢였던 것이다. 특히 以北에서 그들의 학정에 견디다 못해 男負女戴로 월남한 二百萬同胞들의 絶叫는 하루 속히 共産治下에서 奴隸와 같이 신음하고 있는 부모와 兄弟姉妹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것이 그 전부였다. 이는 世紀를 貫通하는 단일민족으로서 宜當히 赤狗들의 학정과 만행에 철퇴를 가하여 38° 線을 말살시키고, 南北統一을 이룩함으로써 연면히 이어 나온 국토와 주권을 보존하겠다는 민족적인 숙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北傀의 赤化武力統一과 大韓民國의 통일이념은 물과 불의 관계와 같이 근본적으로 相剋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兇謀에 대하여 안일하게 좌시하

고 침략해 대하여 赤手空拳, 준비가 없는 가운데 北傀의 불법침략을 당하게 되니, 차마 볼 수 없었던 자유우방들은 분연코 우리를 돕고 出兵까지 하게 되어 정의를 밝히고 자유를 옹호하게 되었고, 金日成 傀儡政權은 침략자로서 UN의 집단 膺懲을 받게 되었으니, 侵略者들은 멀지 않아 神明의 공정한 심판 아래 스스로 滅亡의 길을 재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時局을 맞이하여 9월 15일 임시首都인 釜山에서는 仁川上陸의 快報에 이어 통일촉진국민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同時에 UN 사무총장 〈다시 38°線이란 있을 수 없다는 釜山日報 사설〉 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決議 내용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大韓民國은 1945년 12월 所謂 莫府三相會議 결정인 信託統治를 반대하고 1947년 11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1948년 12월 48대 6으로 승인을 받은 南北을 통한 유일한 中央政府임을 강조하며, 또 UN 가입을 주장함.

② 大韓民國의 통일은 전 韓國民의 요망이오, UN에서도 이미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였던 바 今次共産軍의 침입으로 평화적해결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UN軍은 이 기회에 韓滿國境線까지 電擊突進하여 완전통일이 실현되기를 三千萬의 이름으로 요청함.

③ 大韓民國 全國民은 秋收期까지 국창 湖南지대의 탈환작전을 全的으로 지지하며, 또 주도면밀하고 勇猛한 총반격작전에 감사함.

④ 大韓民國의 민주발전을 파괴하려는 蘇聯은 北韓傀儡集團에 무제한의 武器를 공급하여 南侵을 계속 强行하고 있음에 비추어 UN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다량의 무기를 계속 공급하기를 요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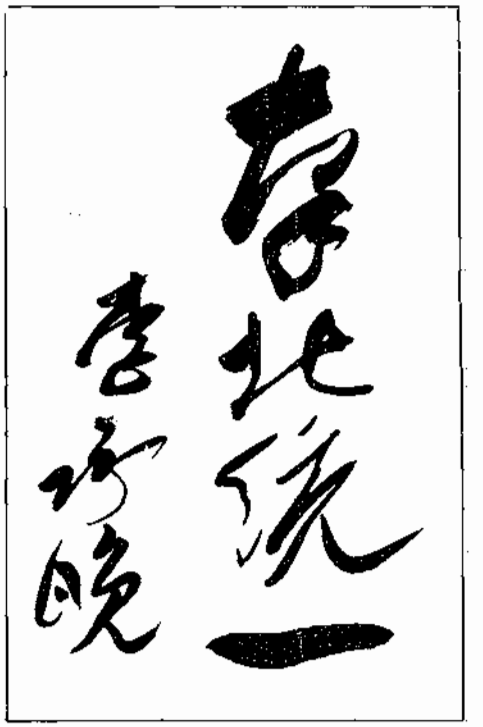
⑤ 大韓民國은 共産侵略에 막대한 피해를 받았으니, 부흥, 재건함에 있어서 또 수많은 罹災同胞구호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조를 감사하며 금후 계속 강행할 것을 간청함.

한편 李承晩대통령은 9월 20일 仁川上陸경축대회석상에서 38°線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所信을 피력하였다.

"지금 世界各國사람들이 38°線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 水泡로 돌아갈 것이니, 본래 우리의 정책은 南北統一하는데 한정될 것이오, 또 Truman 美 대통령도 선언하기를 軍事上 원조를 계속한다 하였으니, 우리 韓國이 東洋에 있어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이오, 동시에 UN軍이 작정한 바다. <中略>

蘇聯이 韓國內亂에 참여하여 민주정부를 침략한 것은 민주세계를 토멸하려는 것이므로 UN軍이 들어와서 공산군을 물리치며 우리와 협의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38°線에 가서 停止할리도 없고, 또 停止할 수도 없는 것이니, 지금부터 以北 共産徒黨를 다 掃蕩하고 38°線을 豆滿江, 鴨綠江까지 밀고 가서 鐵의 장막을 쳐부실 것이니, 그런 뒤에는 우리를 侵犯할 者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李대통령의 주장은 共産침략자들이 38°線을 돌파하고 南侵하였으니, 우리도 敗走하는 침략자를 격멸하고자 추격하는데 있어 38°線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법상으로 追擊權이 용인되는 것이다. 더구나 韓國은 UN監視下에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임에 反하여 北傀는 UN의 機能을 무시하고 임의로 共産獨裁政權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른 徒黨들이 UN 保護國인 韓國을 불법침략하였으니, 이 기회에 철저히 膺懲하여 人爲的인 38°線을 타파하고 韓國民의 숙원인 통일을 되찾기 위하여 본래의 國境인 鴨綠·豆滿江까지 쳐들어 가자는 正當無比한 주장인 것이며, 이 나라 元首로서 正義의 公道를 힘차게 걸어 나가는 민족의 總進軍 앞에 높이 세운 大旗幟였던 것이다.



〈李承晩대통령의 揮毫〉

3. UN에서의 論爭과 決議

仁川上陸作戰으로 인한 軍事的인 성공으로 말미암아 UN軍은 마야흐로 승리의 분탁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6月 27日 UN安全保障理事會의 결의대로 침략자를 38°線以北으로 격퇴만 시킨다는 문제는 이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UN으로서는 새로운 침략행위를 없애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 UN의 목표인데 이러한 UN 本然의 權能을 무시하고 침략행위를 계속한 北傀를 38°線以北으로만 격퇴시킨다면, 그들은 결국 다시 세력을 만회하여 再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此際에 그들의 殘存能力마저 裝除하기 위하여는 38°線을 돌파하고, 憲法上 國有의 국경선까지 진격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면, 韓國은 물론이오,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蘇聯을 제외한 會員國家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따라서 UN으로서는 정치적으로 38°線 돌파문제와 韓國의 통일문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9월 19일에 UN총회가 開會되고 나서 2일후인 21일에 蘇外相 Vishinsky는 韓國問題에 있어 38°線을 停戰內容으로 하는 이른바 "平和宣言"을 제안하였으나, 動議를 얻지 못하였다.

한편 UN安全保障理事會에서는 美國의 38°線 北進案에 대하여 非共産國家로서 反對한 나라는 印度 한나라 뿐이었는데, 이와같이 유독 印度가 반대한 表面的인 이유는 中共을 승인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똑 같이 승인하고 있던 英國에서는 9월 26일에 Jebb 英國代表가 성명하되

『이 기회에 38°線을 돌파하지 않으면 UN관리 하의 全 韓國의 선거나 統一韓國의 실현도 불가능하다.』라는 태도를 표명하고 38°線 돌파를 승인하는 決議案을 起草하여 7個國(Australia, Philippines, Netherland, Norway, Brazil, Cuba, Pakistan)의 지지를 얻어 8個國共同決議案에 署名을 얻게 되었다. 이에 反對하여 蘇聯은 自由陣營側의 제안을 그때마다 專家의 寶刀格인 拒否權을 濫用하므로써 묵살되고 말았다. 26일의 安保會議에서 蘇代表 Malik는 會議議題에 韓國문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意外라고 하면서 本國訓令에 의한 對韓提案

이 있다고 異議를 제의하였으나, 찬동을 얻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蘇聯側의 방해와 拒否權을 피하여 8個 共同決議案는 9월 29일 총회에 上程되었다.

이 때의 提案說明에서 Philippines의 Romulo 代表는 6월 27일 安保理事會가 결의한 "그 地域인 'The Area' 의 The 를 全韓國"이라고 해석하면서 "UN軍의 38°線突破의 권한은 이 決議案의 채택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이 安保理事會의 결의로 인정이 되어 있다. 때문에 本案은 韓國에 있어서 軍事的部面에 대하여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北進을 旣定事實化하였다.

總會에 上程된 決議案 6項中의 主要內容을 살펴 본다면

「1. UN은 全韓國에 걸쳐 안전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韓國에 통일된 民主政府를 수립하기 위하여 UN관리하에 총선거를 실시할 조치를 취한다.

3. 韓國의 급속한 부흥을 도모한다.

4. 第2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이상으로 UN軍은 韓國에 주둔하여서는 아니 된다.

5. 韓國統一과 부흥을 위하여 새로운 UN韓國委員團를 임명할 것.」

이와 같은 제의에 대하여 29일 Bevin 英國外相은 선언하기를

"北朝鮮이나 南朝鮮도 있을 수 없다. 韓國國民은 韓國人이며, 人爲的으로 南北을 분할하는 영구적인 것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30일 印度首相 Nehru는 記者會見에서 전날 UN총회에 上程된 8個國共同決議案에 論評을 가하기를

「38°線을 돌파하여서는 안 된다. 北韓을 軍事的으로 점령하였다고 하여 韓國의 통일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라는 怪異한 論法을 펴고, 10월 3일에는 Acheson 美 국무장관과 Bevin 英 外相에게 書翰을 보내 中共의 개입을 경고하는 동시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코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8個國共同決議案에 대하여 蘇聯을 主로 한 共産側(Ukraine, White-Russia, Poland, Czechoslovakia)에서는 韓國문제에 관한 決議案을 10월 2일 제안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韓國에 있는 交戰當事者는 즉시로 敵對行爲를 중지할 것.

2. 美國 및 各國은 韓國에서 즉시로 군대를 철퇴시킬 것.

3. 外國軍隊가 철퇴한 다음 통일독립된 韓國政府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韓國人의 自由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가능한 조속히 총선거를 실시하여 國會를 구성할 것.』

이와 같은 韓國問題의 2個決議案을 놓고 정치적 결정을 하려고 論爭을 전개하였으나, 마침내 10월 4일 UN政治委員會에서는 2個案을 토의, 표결에 부쳤던 바 38°線 돌파를 승인하는 8個國共同決議案이 가결되고, 蘇聯案은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總會에서도 10월 7일 8個國案을 47대5(기권7)로 가결함으로써 38°線突破問題는 그 종국적인 단안을 보게 되었는데, 그 결의안 全文은 다음과 같다.

『總會는 1947년 11월 14일, 1948년 10월 21일 1948년 12월 12일, 附 總會의 제결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UN韓國委員團의 보고를 입수하고 심의하였다.

총회는 결의안에 표시되고 있는 目標는 尙今 완수되지 않았으며, 北韓은 韓國政府를 힘으로써 전복하기 위하여 공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는 1948년 12월 12일附의 同總會의 선언을 다시 상기하면서 韓國에는 大韓民國政府란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또 同政府는 UN韓國臨時委員團이 감시하고, 또 토의할 수 있었던 地域전체에 걸쳐서 효과적인 統治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부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同地域內에는 韓國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同政府는 同地域에 시행된 선거에 의해서 수립되었으며, 同選擧에 있어서는 UN臨時委員團이 同選擧를 감시했던 것이다. 즉 同政府는 이러한 방도로서 수립된 韓國에 있어서의 유일한 정부이다. 그리고 UN軍은 현재 1950년 6월 27일附의 安保理事會의 제의에 따라 韓國에서 작전하고 있는데 同提議는 UN會員國家들을 韓國의 안전과 국제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武力침략을 물리칠 필요가 발생할 때는 韓國에 대해서 이러한 부문의 원조를 부여하자는 1950년 6월 25일부의 安保理事會의 결의에 뒤이어 제안된 것이다.

총회에 의하여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총회결의의 중요한 목적은 즉 통일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韓國政府를 수립하는 것이다.

一.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全韓國에 안전한 상태를 보증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取할 것.

2. UN주최 하에서 통일적이고, 獨立的이며, 민주적정부인 獨立國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행동을 取할 것.

3. 南北韓의 全政黨 및 사회단체는 평화회복, 선거시행과 통일정부수립을 목적으로 한 UN 機構와 협조할 수 있게 초빙할 것.

4. 위의 1, 2, 3에서 명시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外에는 韓國의 어느 部分에도 UN 軍을 잔류시키지 말 것.

5. 韓國經濟再建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도를 取할 것.

二. 또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Australia, Chile, Netherland, Pakistan, Philippines, Turkey 및 Thailand로써 UN 韓國統一再建委員團을 구성할 것.

가. 구성될 委員團은 지금까지 現 UN 韓國委員團이 수행하여 온 것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나. 同委員團은 全韓國의 통일독립된 민주주의적인 정부수립을 실현함에 있어서 UN을 대표한다.

다. 그리고 同委員團은 經濟社會理事會의 추천을 받은 후, 총회에서 결정된 韓國의 救濟 및 再建案을 실행할 수 있는 機能을 가져야 한다. 즉 UN 韓國統一再建委員團은 가능한 한 급속히 同機能을 발휘할 수 있으며, 또 同業務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2. UN 韓國統一再建委員團이 韓國에 도착할 때까지 同委員團을 대표하는 各國家들은 상기 建議案에 비추어 UN 軍과 협의하며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同國家들의 UN 永久代表들로서 구성하는 臨時委員團을 구성할 것.

3. 同委員團은 총회의 次期 定期會期에 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 현재의 결의안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소집될 모든 특별會期에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同委員團은 임시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는 UN 사무총장에 의해서 會員國家들에게 회람될 것이다.

UN 총회는

또한 現전투의 終末과 함께 韓國經濟再建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三. UN 經濟 및 社會理事會가 UN 特別分科機構와의 협의하에서 韓國戰爭의 종결 후 救濟 및 再建案을 발전시키며, 또 同時에 총회에서 승인된 후 3週日 以內에 총회에 보고함을 요청 한다.

四. 총회는 또 經濟 및 社會理事會가 韓國의 경제발전을 위한 장기간에 걸친 同分野의 案

을 신속히 연구함을 권고하며 또 同臨時會는 韓國에 있어서 緊急하고 필요한 기술원조 요청을 결정하는 當局에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五. 총회는 중요하고도 곤란한 그들의 과업을 완수한 UN 韓國委員團의 회원들의 功績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六. 총회는 끝으로 UN 사무총장이 필요한 기술부분을 포함한 적당한 직원과 편의를 同委員團에 부여할 것을 요청하며, 또 사무총장에게 同委員團의 각국대표 및 初代대표에 대한 비용과 기타 비용을 지불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4. 38° 線突破의 軍事的 決定

가. 美 行政部와 MacArthur 司令部間의 折衝

韓國에서의 美國의 對北韓攻擊計劃은 결과적으로 美國의 행동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高次的인 政策검토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政策的 고려는 國家安全保障會議에서 수행되었는데, 이 결과는 Truman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9월 11일에 政策천명으로 나타났다. 즉 國家保障會議의 건의에 의하면 美國의 행동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要因에 의하여 左右되는 것으로서 첫째 蘇聯과 中共의 행위, 둘째 UN內의 友邦國과의 협의, 세째 全面戰爭의 危險性 등이었다.

따라서 UN軍과 韓國軍을 총지휘하는 MacArthur 元帥에게는 北傀軍을 38°線以北으로 격퇴시킬 것인가, 혹은 全面的으로 격멸시킬 것인가 하는 필요한 軍事作戰上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國家安全保障會議는 만약 蘇聯이나 中共이 參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MacArthur 元帥가 작전을 38°線 以北으로 연장하여야 하며, 따라서 北韓占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大統領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蘇聯이나 中共이 參戰할 경우에는 地上軍作戰을 38°線以北에까지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美合同參謀本部는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9월 15일 MacArthur 元帥에게 위 건의를 반영한 訓示를 내렸다.

이에 대하여 MacArthur 元帥는 大要, 다음과 같은 北進計劃을 제출하였다.

1. 제8군을 현재의 편성대로 北進시켜 平壤을 향하여 진격토록 한다. 平壤의 공격에 임하여서는 제10군단을 元山에 上陸시켜서 제8군과 함께 挾擊을 한다.
2. 제3사단은 총사령부의 예비로서 日本에 控置한다.
3. 安州—寧遠--興南을 連하는 線 以北에 대한 진격은 韓國軍만으로 한정한다.
4. 제8군의 攻勢始動(38° 線의 突破)은 10월 15일~30일間의 적당한 日字에 정한다.

이와 같은 作戰計劃은 승인이 안 된채 9월 27일 합동참모본부의 새로운 訓令을 받게 되

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蘇聯과 中共의 침략에 관한 제한을 새로이 본문에 기재하고, 이에 대한 再計劃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다. 이 재차의 訓令에 사실상 MacArthur 元帥는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는 결코 亞細亞優先主義者는 아니었다. 美國의 西歐 우선주의 정책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極東에서 戰爭에 全力을 傾注치 않는 本國의 政略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7월중순에 自由中國의 國府軍을 韓國戰에 참가시키고자 하여 대통령의 政策에 正面對立한 것도 이러한 面의 一端이라고 본다. MacArthur의 신념은 "이 전쟁은 共産主義者들이 亞細亞赤化征服의 첫번 試圖로써 침략의 本尊은 Moskow와 北京이다. 지금 현재로 그들 本尊과 대결하고 있다. 때문에 亞細亞에서 平和를 되찾으려면 근본적으로 韓國에 있어서 軍事行動에 제한을 가할 것이 아니다. 만일 蘇聯과 中共이 개입한다 하여도 이를 격파함으로써 韓國을 통일하고 共産主義者들의 亞細亞征服의 毒牙를 뽑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蘇聯, 中共이 北韓에 進駐하고 UN軍이 38° 線에서 停止한다면 共産側은 또다시 侵略을 再演할 것이다. 亞細亞에 恒久的인 평화를 확립한다는 것은 나아가서 歐洲의 평화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Washington에서는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北傀의 존재는 共産側의 Asia 前進基地이기 때문에 此際에 이를 격멸하지 않으면 亞細亞의 평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持論이었다.

그러나 Washington에서는 蘇聯이나 中共의 全面戰에 개입할 意圖가 현재는 없다고 하지만 전쟁이란 우발적으로 惹起되기 때문에 美國이 38° 線以北으로 進擊하여 蘇, 中共과의 전쟁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도리어 軍事行動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제한을 가하여 현재의 범위 안에서 전쟁을 終結지우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Washington과 MacArthur 司令部와 서로 相反되는 입장에 있으므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此後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

9월 27일 MacArthur 元帥는 再訓令을 받고서 다음과 같이 極東總電 C 65034號로 Washington에 건의하였다.

『北傀軍이 本官이 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投降勸告에 따라서 항복을 하지 않는 때에는 本官은 本官의 판단에 의하여 자유로이 38° 線을 넘어도 좋다는 權限을 부여하여 주기를 바람.』

이에 대하여 29일 Marshall 國防長官으로 부터 回電(合參電 92985 號)이 있었는데, 이날은 서울에서 返還式이 거행되었고, 韓國軍 제3사단은 38° 線南方 仁邱里에 진출하여 다만 越境命令만을 고대하고 있는 참이었다. 前記의 回電內容에 의하면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38°線 以北의 작전은 戰略戰術的인 필요에 따라서 자유로이 작전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이날 Washington에서는 『Truman 대통령에 의하여 승인되었다.』는 짧막한 電文이 MacArthur 元帥에게 追送되었다. 이 電報로서 MacArthur 元帥에게 38°線을 돌파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의 제한이 철폐된 것은 아니었다.

30일 MacArthur 元帥는 再次 電報로서

『北傀軍이 항복할 때까지 우리들은 韓國의 全域에서 작전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라고 그의 所信을 확인한 바, 이에 대한 回答은 없었다. 다음은 MacArthur 元帥가 9월30일 敵의 傀首 金日成에게 대한 降伏勸告文의 全文이다.

『그대의 군대와 잠재적 전투능력이 불원간 全面的으로 패배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UN의 결의가 최소한의 人命손실과 財産파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本官은 UN軍 총사령관으로서 그대와 그대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가 韓國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本官이 지시할 軍事的 감독 하에 武裝을 버리고 敵對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그대의 지배 하에 있는 UN軍 捕虜全員 및 非戰闘員 抑留者를 즉시 석방하여 보호와 가료와 給養을 가해서 本官이 지시하는 곳으로 직접 수송할 것을 요구한다. UN軍 사령부의 手中에 있는 포로를 포함한 北傀軍은 文明的인 관습에 의한 보호를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그네들의 집으로 귀환하도록 許可할 것이다.

本官은 그대가 이 기회를 타서 장래의 불필요한 流血과 財産破壞를 방지할 결심을 조속히 행할 것을 기대한다.』

以上과 같은 UN軍 총사령관의 항복권고에 대하여 北傀側에서는 하등의 응답이 없었으므로 MacArthur 元帥는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에게 10월 1일 38°線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나. 李承晩大統領 韓國軍에게 北進命令

38°線 돌파문제가 국제간에 파문을 던져 논쟁과 是非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는 韓國民에게는 最大關心事이었는데, UN자체에서는 焦眉의 난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國內의 政界에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低意는 UN이 절기하여 침략자에게 집단행동으로 膺懲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UN이 결코 韓國民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UN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地位와 權能을 이 時點에서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觀望한 이유에서였다.

한편 東海岸에서 반격을 시작한 韓國軍 제 I 군단의 예하 제 3 사단은 9월 29일 江陵을 점령하고 38°線으로 北上하고 있었고, 首都師團도 병행하여 폐속적인 진격을 하여 30일이면 38°線을 돌파할 단계에 있었는데, 이날 UN軍총사령관은 美 제 8 군사령관에게 모든 휘하부대는 38°線에서 전진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명령은 尙今도 UN에서 최종적인 단안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取하여진 조치라고는 생각되었으나, 韓國軍 首腦部나 一線 지휘관들의 切齒扼腕의 심경은 능히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비록 韓國軍의 指揮權을 UN軍 총사령관에게 移讓하였다 하더라도 大韓民國의 最高統帥權者인 李承晩대통령으로서는 日夜로 가슴 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정부에서나 또는 국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38° 線이 消滅되었다."라고 그 태도를 분명히 하였으나, 이는 韓半島의 합법적인 主權者로서의 權能에 속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대통령은 비록 우리를 원조하여 준 UN軍이 부득이 38° 線에서 정지한다 하더라도 國軍만은 單獨北進하겠다고 悲壯한 결의를 표명하였으니, 이는 決코 UN이나 美國에 대한 엄포가 아니었으며, 全韓國民이 此際에 국토와 주권을 回復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러한 天與의 好機가 없을 것이라고 굳게 信認 하였기 때문이다.

이날 李大統領은 UN軍 총사령관이 38° 線에서 중지하라는 명령에 불만이 대단하였는데, 이 불만은 즉각적으로 陸軍首腦部를 긴급소집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통령 앞에 丁一權 육해공군사령관 裵文春작전국장, 黃憲親인사국장, 崔景錄헌병사령관등의 軍首腦가 모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韓國軍의 統帥權者는 MacArthur 元帥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냐?"고 질문한 다음 "UN은 우리가 38° 線을 넘어가서 국토를 통일시킬 우리의 권리를 막을 권한이 없다. 따라서 나는 우리 國軍에게 北進을 시킬 생각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고?"라고 하면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丁一權 총사령관은 대답하되

"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韓國軍의 작전지휘권은 이미 대통령께서 서명하신 문서에 의해서 UN軍 총사령관에게 移讓되었으므로 지금 또다시 二重으로 명령을 하시게 되면 혼란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리고 北進에 관해서는 UN에서도 조만간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좀 더 형세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小官의 의견은 단지

軍事指揮系統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대통령각하께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국가의 大計로 보아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명령을 내리신다면 저희들은 오직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다른 將星들도 역시 총사령관의 의견에 同意하자 대통령은 품안에서 命令書를 꺼내어 이를 丁一權총사령관에게 건너 주면서 北進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命令書에는

『내가 이 나라의 最高統帥權者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北進을 하라.』고 쓰여져 있고, 末尾에 『晩』字의 署名까지 있었다.

事態가 이렇게 進展되자 大統領의 憂國衷情과, 한번 決斷하고 나면 그 固執이 搖之不動한 그의 性格을 잘 理解하고 있던 丁一權총사령관은 單獨으로 北進하기를 결심하고, 우선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을 만나 일단 협의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이미 江陵에 前進하고 있는 제1군단장 金白一준장에게 우선 연락하여

"38° 線 北方에 어느 要地를 점령하지 않으면 我軍이 進擊하는데 큰 손실을 입게 될만한 高地가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金白一준장은 제3사단 正面에 그러한 곳이 있다고 回電하였다.

이 말을 듣고, 丁一權총사령관은 즉시 8군사령부로 Walker 중장을 방문하고 제3사단이 38° 線 바로 北方에서 敵의 치열한 저항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으니, 부득이 이 高地를 占領하여야겠다고 말한 다음, "이 高地를 점령하였다고 해서 38° 線이 幾何學的으로 뚜렷한 線이나 어떤 障壁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를 공격하게 하여 달라."고 力說과 說得을 하였던 바 Walker 중장은 이를 쾌히 승락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30일 丁一權총사령관은 江陵의 제1군단사령부를 방문하고 38° 線에 到達한 제3사단 제23연대의 待期陣地에 나가서 戰線을 시찰하고 38° 線 돌파를 군단장에게 口頭로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제1군단장은 제1군단作命 제103호(作命附錄 제29호) 및 제3사단作命 제44호(作命附錄 제34호)로 成文化하여 역사적인 38° 線 돌파명령을 單獨으로 내리게 되었는데, 때마침 UN軍총사령부에서도 前述한 바 10월 1일 38° 線 돌파명령이 하달되어 실질적으로 38°線 돌파는 UN軍총사령관의 作戰指揮權에 침해없이 맞아 들어가게 된 것이다.

第 30 章

元山 進擊作戰

第30章 元山進擊作戰

要 旨

제1군단 예하 首都사단과 제3사단의 元山奪還作戰은 10월 1일 38°線을 突破하면서 부터 시작되어 동월 10일 元山市街에 突入한 다음, 15일까지 주변일대를 完全히 확보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그런데 本 作戰은 東海岸線과 元山일대가 갖는 立地的인 조건과 戰況의 추세로 말미암아 兩次의 段階的 작전수행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곧 그 第一段階는 浦項—安康지구에서 敗退해 온 敵 제5사단 江陵旅團과 제12, 제15사단의 主力을 추격하는 作戰이었다. 이 작전은 雪岳山—金剛山—黃龍山을 연결하는 太白山脈의 東쪽 海岸線에 點在한 襄陽—杆城—高城—通川街道로 前進한 뒤, 그로부터 다시 通川—平康—鐵川—歙谷—楸陰으로 前進하는 第一路와 鐵川에서 左廻하여 槐花里—飛雲嶺—安邊에 달하는 第2路, 그리고 通川에서 西쪽으로 太白山脈의 間道를 橫斷하여 化川에서 道納里—安邊으로 北上하는 第三路 및 化川에서 다시 襄陽으로 前進하여 鐵嶺을 넘어 新高山을 점령하여 京元線을 차단하는 第四路를 併進, 楸陰—安邊—新高山을 연결하는 戰線을 형성함으로써 퇴각 중인 敵의 퇴로를 차단, 일거에 元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는 작전수행이었다.

다음 제2단계는 楸陰—安邊—新高山에서 元山을 탈환하고 그 일대를 收復하는 작전이었다.

이 지구의 敵은 我軍의 제1단계 작전으로 후퇴해 온 병력과 元山경비여단 및 제5, 제12, 제15사단의 패잔병과 新編 제42사단 등으로서 元山 西南쪽, 葛麻비행장—斗南里—見山里—地境里 일대를 主抵抗線으로하여, 大小稜線上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고, 그 後方의 女王山과 市街를 瞰制하는 東南斜面의 連峰에 대부대의 엄호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兩次의 작전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我軍의 작전경과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그중 제1단계에 있어서의 襄陽—杆城—高城—通川線 진격은 제3사단이 공격부대로 先進하였고, 제18연대를 제외한 수도사단은 後續, 前進하였다.

제3사단의 先頭부대는 10월 1일 38°線을 돌파한 뒤 3일에는 杆城을 점령하고, 5일에는 高城을 거쳐 長箭을 탈환, 7일에는 通川을 경유하여 平康—松田線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이어 제23연대를 先頭로 第一路에 主攻을 指向시켜, 8일에는 鐵川—歙谷—慈山里線을 공격, 楸陰에 진출한 다음, 9일에는 楸陰里를 출발하여 月峰의 敵을 격파하고 先遣隊는 南大川을 渡河하였다. 이에 따라 동 연대를 後續한 제22연대도 8일에는 楸陰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동 사단의 제26연대는 8일 鐵川에서 左廻하여 第二路를 前進, 飛雲嶺을 점령한 뒤, 安邊에 육박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의 제1기갑연대와 제18연대는 10월 2일 襄陽을 경유하여 4일 杆城에 진출한 다음, 제18연대는 戰鬪團으로 편성, 杆城에서 左廻하여 楊口—末興里를 거쳐 9일에는 新高山에 돌입하였고, 제1기갑연대는 5일 高城으로 前進, 後續한 제1연대와 함께 6일 通川에 도착하였다. 通川에서 이 양 연대는 右廻하여 그 중 제1기갑연대 제1대대는 化川에서 第三路인 道納—安邊道路를 北上하여 9일에는 安邊에 육박하

였고, 나머지 기갑연대의 主力과 제1연대는 8일 淮陽을 점령한 다음, 제18연대에 後續하여 第四路인 淮陽—鐵嶺—新高山 街路를 北上하여 8일밤 鐵嶺의 敵을 격파하고, 9일 아침에는 新高山을 점령하여 京元線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제1군단의 4개軸線 併進作戰으로 再編의 기회를 노리지 못한 敵은 일부 엄호부대로 하여금 防禦에 有利한 지대에서 我軍의 진격을 지연케 하고 主力부대를 철수시키는 한편, 山脈을 따라 후퇴한 병력을 규합하여 後方지역 침투와 補給路의 차단을 企圖하여 왔다.

그러나 我軍이 桑陰—安邊—新高山線을 확보하고, 제1단계 작전을 종료하였을 무렵에는 이미 敵의 主力은 元山의 경비병력과 合流하여 방어선에 투입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제1군단은 元山 西南方의 敵 방어선을 돌파하고 市街를 완전 포위, 공격키 위하여 葛麓비행장—地境里線에 主攻을 指向시켜 市街에 突入하고 助攻은 元山 西쪽의 大小高地와 女王山을 점령, 市街地 탈환전을 側方지원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0일 未明 제3사단의 제23연대는 葛麓비행장—見山里일대의 市街에 돌입하였고, 제22연대는 地境里부근에서 元山市內로 진격하였으며, 제26연대는 安邊에서 春興里—小在峰을 향해 前進하였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수도사단 기갑연대는 地境里에서 제3사단 제23연대와 동시에 主攻을 市街地로 指向시키는 한편, 제1대대는 葛麓비행장을 공격하였고, 제18연대는 地境里에서 左廻하여 敵의 本據地인 女王山을 공격하였으며, 제1연대는 花山里에서 主力부대의 前進을 엄호하였다. 이날 오전 我軍은 드디어 市街에 돌입하였고, 敵의 西쪽 高地도 차례로 점령하였다. 이에 敵의 主力은 德源—文川方面과, 馬轉里—陽德方面으로 퇴각하기 시작하면서 元山 西北쪽의 赤田川—長林川—小在峰일대에 일부 병력을 殘置하여 소규모의 遲止작전을 企圖하였다.

이리하여 수도사단의 제1기갑연대가 元山市街와 비행장을 경계하는 한편, 제3사단의 제23연대는 德源일대의 敵을 격퇴한 다음, 文坪里를 경유, 15일 현재 主力을 秀潼里에 두고 제3대대를 馬息嶺에 배치하였으며, 제22연대는 11일 長德山의 敵을 격멸한 뒤 德源—文坪里—野法里—黃石山일대에 진출, 豊田里 安興里間의 殘敵을 섬멸하고, 15일 현재 元山지구의 방어임무를 맡는 한편, 제3대대는 后方에서 군단보급소를 경비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는 11일 小在峰의 敵을 격멸한 뒤 石峴里—玉坪里—元坪里를 거쳐 高原에 진출, 그중 제1대대는 15일 永興을 점령하였다.

제3사단과 더불어 수도사단도 元山외곽의 殘敵 토멸을 계속, 그중 제18연대는 文陽—高原을 경유, 15일 永興에 진출하였고, 제1연대는 元山에서 馬轉里로 前進하여 殘敵을 격퇴하고 新昌里—高原街道를 北上, 15일 永興에 진출하였으며, 제1기갑연대도 11일부터 14일까지 元山 및 葛麓비행장을 경비하다가 15일 永興으로 이동하여 사단 非히 咸興과 興南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1. 襄陽—高城—庫底 進擊戰 (50년 10월 1일 / 50년 10월 7일)

참조 : 별책부도 제 21 호
상 황 도 제 21 회
작명부록 제6, 3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장 준장 金 白 一
제 3 사단장 준장 李 鍾 贊
제22연대장 중령 金 應 祚
제 1 대대장 대위 李 昌 運
제 2 대대장 대위 金 世 洛
제 3 대대장 소령 鄭 淳 珉
제23연대장 대령 金 洙 舜
제 1 대대장 소령 金 尤 榮
제 2 대대장 소령 崔 尙 俊
제 3 대대장 소령 許 亨 淳
제26연대장 대령 李 致 業
제 1 대대장

제 2 대대장
제 3 대대장 소령 殷 碩 杓

배속부대
제11포병대대장
제 3 야전공병대대장
수송중대장 소령 洪 斗 鎬

병력 : 약 11,000명

장비 : 60mm박격포 52문
81mm 〃 34문
3.5inch 로켓트포 23문
57mm대전차포 11문
105mm곡사포 12문

敵 軍

제 2 군단장 중장 金 武 亭
제 5 사단장 소장 馬 相 喆

병력 : 약 7,000명

장비 : 120mm박격포 21문
82mm 박격포 70문
122mm곡사포 5문
장갑차 11대
전 차 5대 외 중기 경기등

나. 전투 전의 개황

제 3 사단은 9월 18일에 兄山江을 渡河한 이래, 浦項—蔚珍—江陵의 軸線을 따라 완강하게 저항하는 敵 제 5 사단의 主力부대를 추격하여 30일 저녁 38°線上에 도달하였다.

敵軍의 상황 : 이 무렵 敵은 全戰線에 걸쳐 我軍의 猛攻으로 甚大한 타격을 받으면서 主力부대의 철

수와 엄호부대의 지연작전을 병행하면서 北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 金日成은 金俌儒軍에 대하여 『될 수 있는대로 速히 武器와 資材를 가지고 38°線 以北으로 撤退하라.』는 秘密命令을 하달한 바 있었다. 그러나 敵의 退却兵力 중 약 8개사단은 그 行方이 묘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韓國軍當局은 판단하기를 『分散된 敵들은 山岳地帶로 潛入하여 我軍의 後方을 교란할 목적으로 게릴라化 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떻던 敵의 전반적 상황은 보급과 기동 및 병력의 증원이 제한되고 있어 勝敗의 歸趨는 明若觀火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계속적인 전쟁을 원치 않은 聯合軍의 意圖는 UN軍 총사령관 Douglas MacArthur 원수에 의하여 발표되었으니, 그는 9월 30일에 金日成에게 항복권고문을 보내기를

『그대의 軍隊와 潛在的 戰鬪能力이 不遠間 전면적으로 敗北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본관은 그대가 이 機會에 장래의 불필요한 流血과 財産 파괴를 방지할 결심을 조속히 행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全 戰線의 敵은 무모한 저항과 침략적 企圖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東海岸戰線 제1군단 正面의 敵 제5, 제12, 제15사단은 그 主力을 元山을 목표로 서서히 北上시키면서 엄호부대로 하여금 我軍의 前進을 지연케 하는 일방 補給路를 차단케 하며 山岳지대를 근거로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사단 正面의 敵 제5사단의 主力과 9월 15일 江陵—三陟—蔚珍등지에서 모집한 義勇軍 3,500명으로 편성된 江陵旅團은 38°線을 넘어 30일 현재 襄陽에 집결 중이었으며, 일부 전투부대는 38°線의 旣設陣地를 점령하여 사단의 진격을 지지할 기세였다.

我軍의 상황 : 이 무렵 我軍은 UN軍의 방침에 저촉됨이 없이 韓國軍 자체의 統帥系統에 의한 38°線 以北 진격이 決意되어 제1군단장은 9월 30일 10.00를 기하여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襄陽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 一部사단의 38°線 以北 진출을 용이케 하라』는 작전명령 제109호를 발하였다.

이러한 作命에 따라 사단은 浦項—38°線 진격작전에 이어 계속적인 進軍을 目前에 두고, 현 위치에서 부대의 정비와 戰力을 가다듬고 있었다. 30일 현재 사단의 先頭부대인 제23연대의 제3대대(장, 許學淳소령)는 仁邱里(38線 南쪽 4km)에 진출한 뒤 일부 전초 중대는 38°線上의 旣設 陣地에 배치하였고, 三陟에서 LST로 出港한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注文津에 上陸하여 집결 중이었다.

그리고 江陵을 탈환한 제22연대(장, 金應雨중령)는 계속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사단사령부와 군단사령부도 같이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편 襄陽탈환을 앞 둔 이날 사단의 진출계획과 병행하여 首都사단의 先頭부대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도 이날 밤에는 西林里(38線 南쪽 2km)로 진출하여 西林—襄陽 街道를 따라 襄陽의 西側方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襄陽—杆城 進擊戰(10. 1~10. 3)

(가) 작전계획

본 襄陽—杆城진격전의 작전계획은 前述한 1군단作命 제109호에 의거 수립되었다. 즉

『1. 군단은 차기 작전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일부 병력으로써 北進하려 한다.

2. 首都사단장은 즉시 예하부대 병력을 집결시켜 孔峴—廣院里—西林街道를 前進하여 次期작전을 준비하라.

3. 제3사단은 현재의 추격을 계속하여 襄陽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線以北 진출을 용이케 하라. 진출 후 襄陽—麟北川(麟蹄 앞의 川)間의 도로망을 급속히 조사, 보고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제3사단장은 敵을 급속히 추격하여 38°線 旣設陣地에서 지연됨이 없이 일거 襄陽을 점령하고 敵이 최종적인 決戰을 企圖하리라고 판단되는 元山을 목표로 北進할 결심으로 10월 1일 16,00 要旨 다음과 같은 세부 작전 계획 제44호(作命附錄 제35호)를 수립, 하달하였다. 곧

『1. 제23연대는 38°線을 돌파 후 主力으로써 일거, 襄陽을 점령하고, 점령 후에는 초월공격하여 사단의 先遣부대가 되어 계속 北進, 主力으로써 元山을 점령하라.

2. 제26연대는 제22연대가 襄陽을 점령 후 초월 공격하여 사단 先頭부대가 되어 계속 北進, 主力으로써 元山을 점령하라.

3. 제22연대는 제23연대가 襄陽을 점령 후 襄陽에 집결하여 사단 예비대가 되라.

4. 포병대대는 제1중대로써 제23연대를, 제2중대로써 제26연대를 각각 지원하고 제3중대로써 先頭부대에 중점을 두면서 일반 지원토록 하라.

5. 공병대대는 종래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6. 대전차공격대대는 襄陽에 집결한 다음, 그중 1개중대는 注文津에 두어 사단보급소의 경비를 담당토록 하라.

7. 사단 대전차포중대는 先頭부대를 직접 지원하라.』는 내용이었다.

(나) 작전실시

10월 1일 : 이날은 日曜日이자 快晴한 날씨였다. 사단作命에 따라 사단 先遣연대인 제23연대(장, 金漳舜대령)는 제3대대(장, 許亨淳소령)를 先頭로 05.00에 襄陽을 목표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10.00에 제3대대의 先頭가 桑田面 榮吉里에 이르렀을 때, 右側方의 敵으로부터 不意의 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 곳에서 대대는 1시간 여에 걸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여 敵 25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한 외에 기관포 3문, 水冷式기관총 2정, 책코式 경기관총 2정, 장총 12정, 및 다발총 2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둔 다음, 襄陽에 육박하고 있었다.

특히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1일은 「國軍의 날」로 정하였거니와 당시 연대장이었던 金淙舜대령은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38°線을 막 넘으니까 오두막 獨立家屋이 하나 있는데, 白髮老婆가 구겨진 太極旗를 펴들고 나와 흔들며 눈물을 흘려요, 정말 감격스러워 나도 울었읍니다. 이때는 이 저주스러운 民族의 分斷線은 영영 무너지고 꼭 統一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모두 발걸음이 가벼워 뛰다시피 38°線을 넘었지요."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전날 三陟에서 LST로 注文津에 이동한 다음, 次期작전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는 江陵일대의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날 군단사령부는 平昌에서 江陵으로 이동하고 사단사령부도 江陵에 있는 前 제8사단 사령부 廳舍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江陵에서는 盈德전투에서 功勳이 컸던 徐廷哲소령과 金甲泰중위, 및 金錫鎭하사에게 美 제8군사령관 Walton H. Walker중장은 美 銀星勳章을 각각 수여하였다.

10월 2일 : 이날도 快晴한 날씨였다. 공격梯隊인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主力부대는 10.30에 宿營地를 출발하여 14.00에 목표인 襄陽(38°線 北쪽 20km)에 저항없이 돌입하였으나, 그 곳 뒷山으로부터 敵의 강력한 반격이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西林—襄陽街道를 진격하는 수도사단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도 襄陽의 西側으로 돌입하였다.

당시 연대장 金淙舜대령은 先頭부대를 따라 襄陽에 들어왔는데, 그 때의 情況을 그는 다음과 같이 回想하고 있다.

"襄陽을 탈환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사단사령부에서 나를 호출하길래 갔더니 그 곳에 50여명의 內外記者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貴下는 현재 38°線을 넘고 있읍니다. 國軍 제3사단 白」이라고 英文으로 된 看板을 가운데 놓고 나와 같이 記念撮影을 한 뒤 간단한 記者會見을 가졌다. 당시 38°線을 돌파한 國軍의 士氣는 日益 衝天하여 그야말로 破竹之勢의 進軍이었다. 이날 제3사단사령부와 首都사단의 사령부는 이미 38°線을 넘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襄陽을 탈환한 연대의 主力부대는 北으로 進軍을 계속하여 17.00에는 降仙里(襄陽 北쪽 10km)에 진출하였고, 春陽方面으로 출동하였던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는 9월 29일 襄陽으로 이동해 왔으며, 연대본부는 전날 20.00 墨湖港을 출항하여 이날 未明, 注文津에 도착하였다.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전날 밤 23.00, 注文津을 출발하여 이날 18.30에 38°線을 넘어 襄陽에 돌입한 다음, 제23연대와 함께 17.00에 降仙里로 진출하였다.

〈38°線에 도달한 제3사단의 韓·美 장교들이 표지판을 세우고 있다.〉

제22연대(장, 金應瓘중령)는 江陵경비의 임무를 끝내고 前進부대의 뒤를 이어 襄陽에 이동, 집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江陵에 駐留하였던 사단 공병대대도 襄陽으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襄陽線에서 저항을 企圖하였던 敵의 主力부대는 杆城으로 퇴각하였고, 그 일부는 襄陽 西北 쪽에 솟아 있는 雪岳山으로 進入하였다. 이날 軍團長 金白一준장은 원한의 38°線 돌파와 앞으로의 聖業遂成을 目前에 두고, 다음과 같은 격려이런 訓示를 내리었다.

『각 사단 장병들의 神速한 추격으로 비로소 歷史的 分斷線인 38°線을 돌파하고, 失地回復의 巨步를 내딛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長久한 時日 共産徒輩들의 억압 속에서 呻吟해 온 北韓 同胞들을 解放시키며, 鶴首苦待하던 豆滿江으로의 進擊을 目前에 두고 있다. 全 장병은 더욱 분발하여 殺身報國의 명예로운 戰勝을 차지할 것이며, 특히 北韓 同胞들을 慰撫하여 그들과 더불어 나라있는 榮光를 共享하는데 萬遺憾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0월 3일 : 사단은 前方지휘소를 襄陽으로 이동시켰고, 主力부대는 계속 元山을 지향, 北進을 감행하였다.

전날 제23연대의 後續부대로 前進한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이날 隆伽里에서 제23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12.50 무난히 杆城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는 제26연대의 뒤를 이어 진격하였는데, 杆城에서 동 연대를 초월한 다음, 패퇴하는 敵을 追擊한 끝에 12명을 사살하고 10명을 포로로 하였고, 蘇式 장총 3정, 水冷式경기관총 14정, 체코式경기관총 11정등을 노획하였으며, 18.00 巨津里(杆城 北쪽 10km)에 집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대 본부도 이날 06.00에 注文津을 海路로 출항하여 東草港에 上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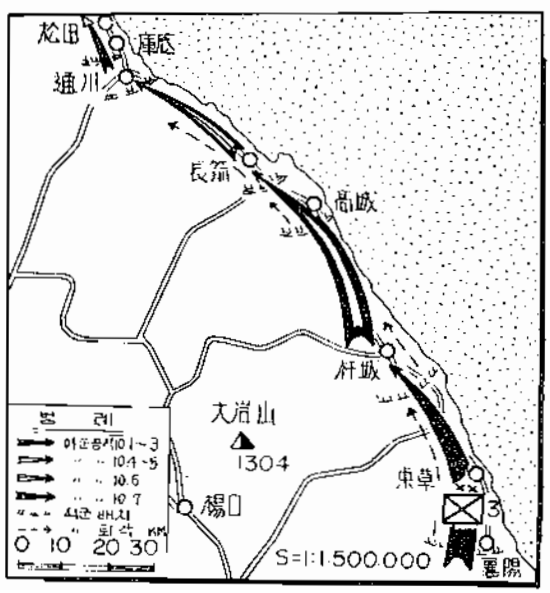
한편 사단 예비대로 襄陽에 주둔하고 있던 제22연대(장, 金應祥중령)는 이날 05.30에 車輛편으로 襄陽을 출발하여 12.00에 杆城을 통과, 계속 돌진하여 巨津里에서 다시 제23연대를 초월한 다음, 18.00에는 馬達里(巨津 北쪽 4km)에 진출하였다.

이날 首都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襄陽을 출발하여 제3사단의 뒤를 따라 계속 北上하여 隆仙里를 통과, 杆城에 진출하였고,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도 襄陽을 지나 杆城街道를 北上 중이었으며,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襄陽에 진출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東海岸의 襄陽—杆城道路上에는 2개사단의 병력이 각 사단의 名譽를 걸고 併進 중이었는데, 이는 당시 이 方面에는 敵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점과, 左側 香爐峰과 雪岳山을 연결하는 山岳地帶는 追擊戰에 不利하여 신속히 元山을 포위, 공격하려는 계획에 많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조처라고 하겠다.

이같은 我軍의 강력적인 진격으로 敵은 제1차방어지점으로 선정하였던 杆城線을 포기하고 高城을 향해 퇴각하는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황도 제21호 襄陽—庫底 進擊戰 (1950. 10.1~7)



사단의 공병대대는 이날 襄陽을 출발하여 杆城으로 이동하였으며, 포병대대는 변동없이 각 연대를 지원하면서 一面 약진과 一面 布陣을 반복하였다. 특히 이날 襄陽의 사단 사령부는 03.00에 일반 명령 제3호(10월 4일부)에 의거하여 사단 수송중대를 편성하였고, 그 初代 중대장에는 洪斗鎬소령을 임명하여 名實共히 輸送임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군단사령부에서도 我軍의 급속

한 진격으로 山岳지대에 潛入하였던 敵兵들이 수시로 我軍의 後方에 출몰하여 軍用車輛을 비롯하여 支署와 主要施設등을 습격하였기 때문에 이를 섬멸할 목적으로 제3, 제5유격대를 편성하여 軍團 直轄로 두었으며, 軍團長 金白一소장은 이날 군단사령부를 방문한 美 제8군사령관 Walton H. Walker중장, 제5공군사령관 Earl E. Partridge소장등과 비밀회의를 개최하고 작전전반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2) 高城—庫底 進擊戰(10. 4~10. 7)

(가) 작전계획

襄陽—杆城街道를 따라 후퇴한 敵의 主力부대는 高城—通川—庫底線에서의 逐次저항을 企圖하였고, 그 일부 병력은 五蓋山, 雪岳山으로 潛入한 다음, 사단 後方의 補給路를 차단하는 一方 我方의 虛隙을 찾아 유격전을 전개할 기세를 보였다.

사단장은 襄陽—杆城진격작전의 개념에 변함이 없이 퇴각하고 있는 敵을 계속 추격하여 일거 元山線으로 돌진하는 즉시로 當面의 敵을 포착, 섬멸함과 동시에 鐵原方面으로부터 元山에 진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敵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10월 3일 20.00에 아래와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1. 제22연대는 제26연대가 杆城을 점령하는 즉시로 동 연대를 초월공격하여 일거, 高城—通川에 진출하여 퇴퇴하는 敵을 포착, 섬멸하라.

2. 제23연대는 제22연대의 後續부대로 前進하면서 제22연대의 左側背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는 등시에 제22연대가 通川을 점령하는 즉시로 동 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일거에 歙谷—元山線에 진출하라.

3. 제26연대는 杆城을 점령한 연후에는 사단 예비대로서 제23연대가 通川線에 진출한 뒤, 동 연대 後方을 前進하여 제22연대의 左側背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라.

4. 포병대대장은 2개 중대로 하여금 각각 제23연대를 직접 지원케 하되, 제22연대가 通川을 점령하게 되면 제22연대를 직접 지원토록 할 것이며, 나머지 1개중대로 하여금 사단을 전면적으로 지원토록 하되, 사단 先頭부대에 火力의 重點을 指向토록 하라.

5. 사단 對戰車공격대대는 사단 사령부와 행동을 같이 할 것이며, 정보참모는 사단 수색중대를 지휘하여 高城—元山間의 敵情, 특히 左側 山岳에 대한 敵情을 수집하라.

6. 공병대대장은 항시 先頭연대에 지뢰探知班 1개 소대를 배속할 것이고, 또한 前進路 補修에 全力을 다하여 道路, 橋梁등을 확보하라.

7. 사단 헌병대장은 점령지구의 치안 확보 및 교통정리에 萬遺憾 없기를 기하고, 특히

점령지구 내의 敵의 식량과 피복창고등에는 즉시 헌병을 배치하라.

8. 수송중대장은 사단 차량을 동원하여 작전에서 요구하는 부대수송에 萬遺憾없기를 기하라.」

그리고 사단장은 特히 수송문제에 대하여 「차후, 부대의 前進은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여 장병의 體力소모를 피하도록 하라. 그리고 각 부대의 前進에 있어서 敵情이 없다고 하여 戰術行軍의 原則을 無視하며 수색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차후 부대전진에 있어, 특히 차량 수송시에는 일체 이러한 일이 없기를 기하라. 또한 각 부대는 작전명령에서 지정한 지점까지 수송하면 즉시 該車輛을 회송하여 後續부대의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단 각 부대의 진출지점은 그 전날에 미리 지시, 하달할 것이다.」라고 訓令하였다.

(나) 작전실시

10월 4일 : 이날은 종일 흐린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襄陽에 駐留하고 있던 사단 사령부는 戰線의 北上에 따라 이날 杆城으로 진출하였다.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는 사단作命에 따라 先頭부대로 馬達里를 출발한 다음, 경미한 敵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高城을 탈환하는 즉시로 급거, 長箭으로 육박하고 있었고, 동 연대의 공격지원부대인 제23연대(장, 金漳舜대령)는 巨津里線에서 追後 진격하여 제22연대의 공격을 용이케 함과 동시에 左側後方의 경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東草港에 정지하였던 동 연대의 연대본부는 이날 05.00에 東草港을 海路로 出港하여 巨津에 上陸하였다.

사단 예비대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이날 사단사령부와 함께 杆城에 位置하여 主力부대의 진출을 돕는 일방, 後方警戒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포병대대는 계속 각 연대를 직접 지원하였고, 공병대대의 1개 중대는 江陵비행장의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2개 중대는 主力부대에 배속되어 지뢰를 탐지하면서 補給路를 보수하였다.

사단의 뒤를 따라 北進하던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이날 進路를 바꾸어 杆城에서 西쪽으로 轉進하여 元通—麟蹄—楊口—末梅里의 軸線에 따라 北上하게 되었고, 제1기갑연대와 제1연대는 각각 高城—杆城線에 진출하였다. 이날 注文津 前方 海上을 航行 중이던 우리 補給船 一隻이 敵 機雷에 接觸되어 폭파, 침몰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

10월 5일 : 이날 快晴한 가운데 사단 사령부는 杆城에서 다시 高城으로 약진하였다.

패퇴를 거듭하는 敵은 我軍의 間斷없는 추격으로 재편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그 主力은 元山方面으로 퇴각하는 한편, 일부 엄호부대인 敵 약 1개 대대 규모의 병력만이 長箭線을 점령한 다음, 稜線일대에 數門의 野砲를 布列하고 지뢰를 매설하여 我軍의 진격을 끝

까지 저지코자 하는 것이었다.

전날 이미 長箭線에 육박하였던 제22연대(장, 金應瑞중령)는 이날 이 敵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한 끝에, 13.50에 金剛地를 탈환하는데 성공하므로써 敵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많은 시체를 遺棄하고 11문의 포를 비롯하여 貨車등 각종 資材를 放置한 채 通川街路를 향하여 퇴각하였다.

이 당시 동 연대의 제5중대장으로 활약한 金應烈소위는 이날의 전투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長箭에 들어가기 전 8km지점에 敵은 直射砲를 걸어 놓고 있어서 진격이 저지되었다. 이에 나는 우리 중대원의 손실을 무릅쓰고 金剛中學校의 뒷山을 통해 敵의 後方을 기습, 敵의 퇴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敵은 배를 타고 撤收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중대는 계속 집중적 사격을 가하여 이를 모두 섬멸하였다. 이 長箭탈환전투는 아침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경에 끝났는데, 여기서 입은 我軍의 손실은 우리 중대원 중에서 1개 분대병력의 사상자가 난 것을 비롯하여 모두 약 2개 소대병력의 사상자가 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반면 戰果는 不知其數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만치 敵 1개 중대병력의 포로를 비롯하여, 선박으로 철수하던 敵兵은 모두 사살되었고, 그 밖에 전차와 76mm직사포등 당시 그곳에서 저항한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소지한 대부분의 장비를 모두 노획하였다.』

이 무렵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동 제22연대의 3km後方에서 北進 중이었으며,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杆城에서 高城으로 진격하였다.

특히 제26연대는 제5중대 제3소대장 金判山 소위의 증언을 빌리면 『새벽에 高城에 들어가 그곳을 방황하던 殘敵을 포착한 뒤, 교외 貯水池에서 敵이 我軍포로 700~800명을 휘발유를 뿌린 다음, 수류탄을 터트려 학살한 것을 발견하고 全 장병은 비분함을 금치 못한 바 있으며, 그 살해의 내막은 기적적으로 살아나 온 진흙투성이의 사병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포병대대는 長箭부근에서 제22연대를 지원하였고, 공병대대는 전날과 다름없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일부병력은 高城비행장을 설치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육군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 제205호를 하달하였다.

『1. 제3사단은 左側 수도사단과 협동하여 담당지구 내에서 北方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라.

2. 제1목표 黃浦里, 제7목표 高城 및 담당지구 내 제1차 진출예정선상의 도로망을 점령하라.
3. 제1차 진출예정선을 점령하는 즉시 담당지구 내에서 목표A 通川, 목표E 九溪里, 목표X 元山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라.
4. 모든 通信方法을 이용하고 連絡장교를 교환하여 左側 수도사단과의 접촉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제2목표 楊口, 제8목표 東輝里 및 담당지구 내 제1차 진출예정선상의 도로망을 점령하고 제1차진출예정선을 점령하는 즉시로 담당지구내에서 목표B 化川, 목표F 安邊 및 목표X 元山을 점령할 준비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作命에 따라 수도사단의 진격작전로는 변경되어 軍團左側으로 迂廻하게 되는데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를 陳富嶺—楊口方面으로 진출시켰으며, 제1기갑연대와 제1연대는 通川線에서 左廻할 계획이었다. 이날 제1기갑연대는 계속 前進하여 外金剛(高城 西北쪽 10km)에 진출하고, 제1연대는 그 主力을 高城으로 北上시키는 한편, 예비대로 하여금 이날 江陵에서 高城으로 이동한 군단사령부의 경비를 담당케 하였다.

이 무렵 美 극동공군소속 전투기는 延 550機가 출격하여 38°線 以北의 각 軍事목표를 강타하였으며, 특히 東海岸을 北上하는 제3사단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제5공군사령관 Earl E. Partridge 소장은 이날 敵 傀儡軍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空中偵察에 의하면 傀儡軍은 38°線 以北에 있는 戰爭 前의 옛 防禦陣地를 강화하는 한편, 군대를 재편성하고 있으며, 계속 北方으로부터 車輛을 이용한 軍需品의 보급에 진력하고 있다. 그리고 敵의 防禦線은 海州를 起點으로 金川—鐵原—華川—長箭線을 따라 형성시키려 하고 있으나, 제3사단의 長箭 점령으로 東海岸의 一角은 더욱 後退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날 高城으로 이동한 사단 사령부는 육군본부 지시에 의하여 軍事野戰郵遞局을 설치하고 체신부로부터 파견된 姜信弘국장 외 2명으로 하여금 고급부관실에서 집무케 하였다.

10월 6일 : 이날 快晴한 날씨에 사단은 05.30부터 작전행동을 시작하였는데, 제22연대를 先頭로 사단의 主力부대가 通川街路를 따라 北進하였으며, 이날 12.00 高城에 위치한 군단사령부는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 제113호를 하달하였다.

『1. 제3사단은 左側 수도사단과 협동하여 담당지구 내에서 北方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여 목표A 通川, 목표E 九溪里, 목표X 元山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것이며, 모든 通信方法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左側 수도사단과의 접촉을 유지하라.』

이에 따라 先頭부대인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는 계속 通川街道를 北進하면서 도처에서 강미하게 저항하는 殘敵을 격파하였다. 그러나 18.00에 通川 南쪽 4km지점에 있는 파괴된 교량을 통과할 무렵 敵 약 1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부터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

연대는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연대 예비대인 제1대대(장, 李昌運대위)로 하여금 敵의 正面을 견제케 하고, 主力을 右側으로 迂廻시켜 敵을 攻擊 섬멸토록 하였는데, 대대는 19.00에 通川을 탈환한 다음, 市內의 일부 殘敵을 섬멸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제22연대의 後續부대로 後方 8km거리를 두고 北上 중이었으며, 동 연대의 연대본부는 09.00에 巨津港에서 船舶을 이용하여 出港한 다음, 15.00 長箭에 上陸하였다.

이 무렵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계속 예비대로 長箭일대의 경비에 임하고 있었으며, 포병대대는 각 연대를 직접 지원하였고, 공병대는 高城에 본부를 두고 2개중대는 연대에 배속하고 나머지 1개중대는 高城비행장을 수리 중이었다.

한편 이날 군단의 後續사단으로 前進한 수도사단의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鏞城(通川 南쪽 10km)에, 그리고 제1연대(장, 韓信중령)는 城北里(長箭 南쪽 3km)에 각각 진출하였다.

10월 7일 : 이날 長箭과 通川에서 패퇴한 敵은 鏞底線에서 後續부대의 증원을 받고 완강한 저항을 企圖하였다.

제22연대의 後續부대로 北進한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先頭부대를 초월, 공격하여 이날 02.00, 夜暗을 타고 鏞底를 점령하였는데, 敵은 다시 松田里線에서 逐次 저항을 企圖하였으므로 연대는 계속 추격하여 敵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한 다음, 松田里일대를 장악하였다. 이 결과 연대는 다음과 같은 戰果와 약간의 손실을 입었다.

戰 果

사 살	30명	水冷式중기	4정,
포 로	47명,	적 사 포	2문,
노획 : 蘇式장총	32정,	체코式경기	2정,
진 화 기	2대,	동 포 탄	32상자,

소 총	1정,	각종포탄	5,390개,
다 발 총	8정,	損 失	
동 크 립	3개,	전 사	1명,
수 류 탄	55개,	부 상	5명

이에 따라 연대본부는 08.00에 長箭港을 海路로 出港하여 厚底에 上陸하였다.

한편 제22연대(장, 金應祚중령)는 전날 동 연대가 점령한 通川에서 後方경계에 임하고 있으며,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06.00에 長箭에서 출동하여 槐花里를 향하여 北進 중이었다. 포병대대와 공병대대는 전날에 이어 각각 그 작전행동을 계속 하였다.

이날 사단사령부는 高城주둔지에서 通川으로 약진하였는데, 이곳 通川사령부에서는 군단장 金白一준장이하 각 참모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은 通川에서 進路를 바꾸어 군단의 左側으로 迂廻, 機動을 단행하여 新店里—化川—淮陽—鐵嶺—新高山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제 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化川(通川 西南쪽 40km)에, 그리고 제 1연대(장, 韓 信중령)는 新店里(通川 西南쪽 20km)에 각각 진출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10월 1일 38°線上에서 北進을 개시한 사단은 1일평균 24km의 진격속도로 총 연장 168km에 달하는 厚底線에 까지 진출하였다.

기간 중 사단은 後方에서 補給路를 차단하는 敵을 正面으로 衝擊하지 않고 그대로 分斷하면서 상호간의 연락이 中絶되는 가운데 強夜로 徒步, 또는 車輛에 의해 北進을 계속하였거니와 그 중 대다수의 병력은 軍靴마저 제대로 신지 못한채 피가 흐르는 맨발로 强行軍을 敢行하기도 하였으나, 失地 恢復으로 사단의 士氣는 날이갈수록 昂揚되기만 하였다. 사단의 正面에서 괴뢰한 敵 제 5사단은 2,400명 규모의 병력으로 박격포와 76mm직사포로 계속 抵抗하였고, 道路에는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으므로 先頭차량은 심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敵은 相互연결된 참호나 동굴, 또는 방카에 의지하여 사단의 진격을 저지, 또는 방해하려고 끝까지 완강한 저항을 되풀이하였으나, 사단의 突風같은 北進威勢를 능히 막아 내지는 못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에 後續하던 首都사단은 가끔 소부대를 金剛山일대의 山岳지대로 分派하여 이들을 섬멸하는등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分秒의 時間과 一村의 距離를 다투는 大進擊을 계속하였다.

한편 이 작전기간 중에는 작전상의 성공도 많았으나, 첫째, 首都사단과 同一 軸線上을 병진함에 야기된 混雜은 작전상의 效用度를 低下시키는 一面도 露呈케 되었다. 둘째, 車輛의 無計劃한 運行으로 각 부대간의 縱長거리가 延伸되어 연락의 유지와 後續부대의 보급수송에 많은 곤란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先頭부대가 厚底—松田線에 진출함으로써 사단 當面의 敵인 제 5사단의 主力부대는

槐花里—慈山—松峴—桑陰—元山街道를 따라 一路 北上퇴각 중이며, 그 일부는 槐花里에서 西回轉하여 飛雲嶺을 넘어 飛雲里—安邊街路를 따라 퇴각 중이었는데, 이들은 桑陰里—安邊線을 연한 南大川 부근에서 일대 決戰을 企圖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사단은 군단의 元山奪還 작전선상에서 그 右翼을 담당하여 槐花里—慈山—桑陰街路에 제23연대(장, 金涼舜대령)를, 그리고 槐花里—飛雲嶺—安邊線에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를 각각 北上시켜 安邊—桑陰방어선을 분쇄하고 元山을 공격토록 할 方針이었고, 이에 따라 首都사단도 通川에서 左回轉하여 化川—淮陽—新高山—安邊의 軸線과 化川—道納里—安邊의 軸線으로 각각 分進하여 敵의 左側方을 견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元山에 戰雲이 低迷하고 때 아닌 가을하늘에 장차 腥風과 血雨가 急하게 되었다.

2. 楊口—新高山—安邊進擊戰 (50년 10월 1일부터 50년 10월 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2 호
상 황 도 제 22 호
작명부록 제3.6.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 장 준장 金 白 一	제 2 대대 장 소령 朴 益 均
수도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제 3 대대 장 소령 林 觀 默
제18연대 장 대령 任 忠 植	병력 : 약 10,000명
제 1 대대 장 소령 張 春 權	장비 : 81mm박격포 24문
제 2 대대 장 소령 金 鳳 翔	60mm박격포 32문
제 3 대대 장 소령 安 昊 一	57mm대전차포 7 문
제 1 연대 장 중령 韓 信	3.5inch로켓트포 40문
제 1 대대 장 소령 金 煌 穆	105mm곡사포 10문
제 2 대대 장 소령 申 彦 國	배속부대
제 3 대대 장 대위 李 聖 鳳	제10야포대대
제1기갑연대장 대령 白 南 權	수도야전 공병대대
제 1 대대 장 소령 丁 世 鎭	

敵 軍

제12사단 장 소장 崔 仁	병력, 장비 미상
제 5 사단 장 소장 馬 相 喆	

나. 전투 전의 개황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反擊이 시작된 安康에서 靑松—春陽—寧越을 경유, 38°線 부근 西林까지 電擊的인 추격전을 단행하였다.

특히 사단 先頭부대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가 38°線 南쪽 2km지점인 西林에 진격한 것이 9월 30일이었는데, 38°線 돌파의 「政治的 問題」 때문에 그 進擊속도는 잠시 制動을 받고 있었다.

이 무렵 東海岸 道路를 따라 급속히 진격해 왔던 右側 제3사단(장, 李鍾贊대령)도 9월 30일 현재 38°線과 근접해 있는 부근에까지 진출하였고, 首都사단과 함께 계속 38°線 北쪽의 襄陽을 공격하기 위해 단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이었다.

특히 9월 28일 이후부터는 38°線 돌파문제에 대한 韓國軍과 美軍側의 견해가 일치되지 못하여 추격전에 일시나마 전제작용을 하게 된 것은 寸刻을 다투는 追擊戰에 있어서 玉의 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韓國軍 자체의 명령계통에 따라 제18연대의 일부가 西林 北쪽에서 38°線을 이 날 밤에 이미 突破하고 있었고, 後續하던 2개연대도 38°線上으로 戰力을 結集하고 있었다.

敵軍의 상황 : 이 무렵 사단 正面의 敵 제12사단과 제15사단, 그리고 제5사단은 38°線 以北으로 퇴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지난 反擊초기 安康부근에서 큰 打擊을 받은 결과, 抗戰意識마저 누그러진 중에 또다시 金日成의 38°線 以北 철수명령이 떨어지자 9월 29일에는 마음 놓고 퇴각하기 시작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主力의 후퇴를 엄호하기 위해 그들의 戰友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기관총과 함께 自滅하게 한 非人道的인 手法을 곳곳에서 자행하였으니, 이는 가히 野蠻魔的인 최후발악이라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9월 29일 사단의 정보분석에 의하면 첫째로 敵 主力은 大和—江陵을 連하는 大關嶺을 경유하여 五臺山으로 潛入한 다음, 山脈을 타고 38°線 이북으로 越境하고 있었고, 둘째로 敵의 主力에서 이탈된 後方부대는 大和에서 正北方向인 蓄村—縣里를 경유, 麟蹄 부근으로 退却하여 38°線上의 蓄陣地에서 一戰을 決할 것으로 관단되고 있었다.

또한 左인접 제8, 제6사단 正面의 敵은 그 사령부 위치로 보이는 鐵原에 大부대를 후퇴, 집결시키려고 38°線上에서 강력히 저항한 것으로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약 20,000명의 병력을 保持하고 있으나, 士氣 및 장비상태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分析되었다.

我軍의 상황 : 戰勢가 이와같이 진개되자 東部지구의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제3사단은 分散하여 彷徨하는 殘敵에는 눈도 돌리지 않으면서 主力으로써 一路 北上, 진격하여 38°線上에서 공격준비태세를 强化하고 있었는데, 수도사단 前方지휘소는 平昌에 있었으며, 그 예하 제18연대는 西林에, 제1기갑연대는 蓄村에, 제1연대는 東沙里에 각각 그 본대가 9월 30일까지 돌진할 氣勢로 38°線의 突破와 그에 뒤이어 襄陽에 집결하여 命令一下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38°線 돌파를 노리고 있을 9월 29일에 이르러 제1군단장 金白一 준장은 육군본부에 요구하기를 『우리는 38°線 부근에까지 진격했는데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으니 빨리 以北 진격명령을 지시해 달라.』라는 뜻으로서 독촉하는 바 있었다.

이때 陸本에서는 어미 그 전부터 이 문제를 위해 美 제8군사령부에 대하여 顧案을 내린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回信이 늦어져 韓國軍의 단독적으로 可否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李承晩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丁一權총참모장 및 姜文奉작전국장등이 자리를 같이하여 전략상의 추격문제에 있어서 제한을 줄 수 없으니 38°線에서 지체시킬 수 없다.』라는 의견을 모으고 李承晩 대통령의 재가 아래 以北진격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제29장 제4절 38°線 돌파의 군사적 결정 참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1군단장은 군단作命 제106호로써 38°線 以北 襄陽진격명령을 하달하게 되었

고, 이에 따라 사단 진장병은 失地恢復과 統一의 염원에 가득찬 눈당물로 내일의 돌진을 준비하게 되었으니, 환은 이미 당겨지고 龍馬는 장차 하늘 공중을 달리려 하는 것이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1군단장 金白一준장은 9월 30일 수도사단과 제3사단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命을 하달하였다.

「군단은 次期작전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일부 병력으로써 北進하려 한다. 수도사단은 즉시 예하 부대병력을 집결시켜 廣院里—西林 街道를 前進하여 38°線을 突破하고 次期작전을 준비하라.

제3사단은 현재 추격을 계속하여 襄陽을 점령, 확보함과 동시 수도사단의 38°線 以北진격을 용이케 하라.」

이와같은 명령을 받게 된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처음의 陸本 作命 제199호(作命附錄 제3호)에 의한 縣里부근 龍浦 집결계획을 변경하고 西林街道를 진격하여 38°線을 突破한 다음, 襄陽으로 진격할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東沙—廣院—西林부근의 地勢가 太白山脈의 中腹으로 五臺山(△1663), 鷹伏山(△1360), 桂芳山(△1677)등이 連峰되어 있는 험준한 山岳지대를 이루고, 通路마저 險隘와 峙의 重疊으로 돌파와 機動에 有利하지 못함을 감안하고 先頭에 진출 중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로 하여금 西林에서 襄陽에 이르는 비교적 平坦한 機動路를 따라 우선 突破케 하는 동시에 後續한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은 돌파된 陣地의 戰果 확보 및 先頭 공격梯隊에 대한 後衛에 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사단예비로 控置하였던 것을 東沙里로 급히 推進시켜 제18, 제1기갑연대와는 相異한 進擊路線인 東沙—珍富里—大關嶺—江陵을 경유, 東海岸沿道를 따라 襄陽 쪽으로 迂廻, 돌진케 하였다.

그런데 軍團 전체의 계획으로 본다면 사단과 그 右側 제3사단이 38°線을 돌파하여 襄陽을 점령한 다음부터는 兩個사단이 同一軸線上에서 東海岸道路를 이용, 北上 진격하게 되므로써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元山을 점령하기 위해 전투梯隊를 重點的으로 統合使用하여 신속한 追擊과 과감한 포위를 단행하려는 부득이한 布石이었다.

(참고 : 수도사단 제18연대는 杆城까지 진격한 다음, 전투단이 편성되어 元通—麟路—楊口—水輝里—淮陽—新高山을 連하는 金剛山 줄기의 左側 內陸을 진격하게 되었음.)

(2) 작전실시

10월 1일 :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은 五聖山(△1663)을 이용하여 38°線 以北으로 철수하는 敵의 퇴로를 한시라도 빨리 차단하기 위해 蒼村—西林—襄陽街道를 봉쇄하기로 결심하고, 연대 前方지휘소를 西林(38°선 以南 2km)으로 취진한 다음, 先頭 제 1 대대(장, 張春權소령)로 하여금 계속 襄陽을 향해 진격토록 하였으며, 제 2, 제 3 대대를 병진, 또는 後續시키면서 襄陽으로 진격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 1 대대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새벽 38°線을 突破하였고, 계속하여 襄陽을 향해 大進軍을 재촉하고 있었다. 俗稱「원한의 38°線」은 녹슬은 가시철망의 殘骸로 그 屈曲線을 헤아릴 수 있었고, 파괴된 다리(橋)에는 잡초만 무성하여 분단된 지난 날의 悲哀를 소리없이 呼訴하는 것이었다. 특히 山間에 點在한 草家에서 헐벗은 옷차림과 신발 한 켤레 제대로 못 신은 村婦들이 몰려나와 我軍의 진격을 기다린듯이 손을 흔들어 환영하였다. 연대 장병들은 失地收復의 감격보다도 오히려 憤痛한 마음만 앞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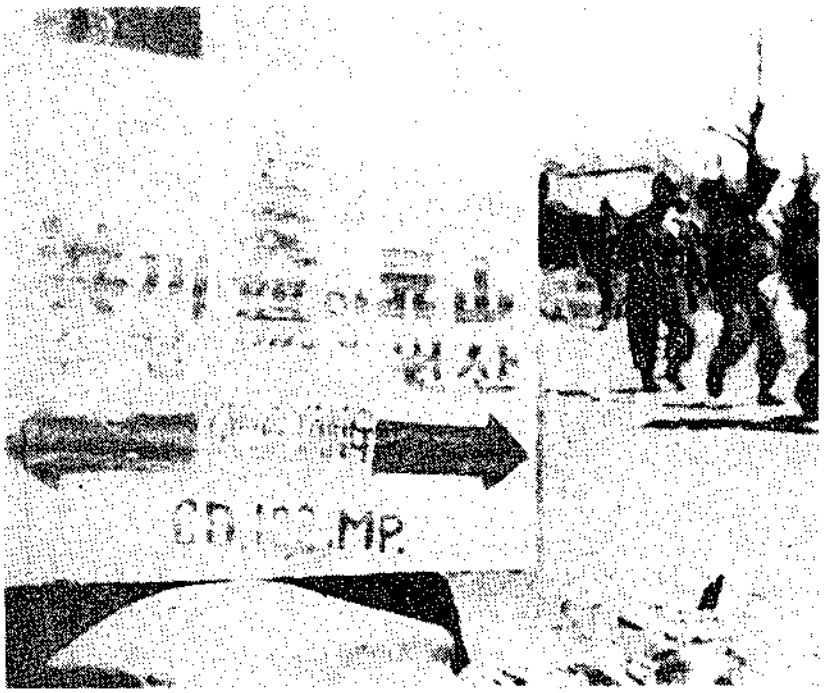
한편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전날의 집결지인 大和에서 東沙里(大關嶺西側入口)까지 진격하여 그 부근 일대를 점령하고, 잠시 부대정비를 위해 시간을 보낸 다음, 그 正北쪽인 蒼村里를 향해 진격하였고, 오후에 계속해서 廣院里까지 진격하였다.

그리고 제 1 연대(장, 韓 信중령)도 寧越에서 東沙里로 진출한 다음, 大關嶺의 險要를 蹈破코자 廢品에 가까운 軍靴의 끈을 다시 조이는 것이었다.

10월 2일 : 제18연대는 전날의 공격에 이어 이날 13.00에 襄陽 西쪽 郊外에 진격하고, 계속 市街戰에 突入하여 14.00에 38°線 以北의 첫 郡邑인 襄陽을 점령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 前方지휘소도 이날 오후 西林에서 이곳으로 前進하였는데, 이 무렵 제 3 사단도 이미 襄陽을 점령하고 있었다.

한편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도 전날의 점령지인 廣院里에서 西林里를 경유, 제18연대의 진격에 이어 38°線을 돌파하고 이날 오후 襄陽에 進入하였고, 연대지휘소도 이곳으로 약진하였다.

그리고 사단 예비대로 있던 제 1 연대(장, 韓 信중령)는 東沙里에서 江陵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太白山脈을 東西로 횡단하는 大關嶺 道路가 있어 여기를 차단하면 山脈을 따라 후퇴하는 敵 퇴로가 차단되고, 또한 江陵 방어에 실패하여 大關嶺方向으로 分散,



<38°線 以北 襄陽의 道路 표지판>

퇴각하는 敵을 그 右側背에서 殺倒하는 형세가 된다.

이렇게 되면 東海岸沿道를 따라 전격하는 제3사단의 江陵 및 그 北쪽 점령은 2개의 축선에서 공격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특히 제3사단의 正面공격에 따라 潰走하는 敵을 포착, 擊滅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迂廻전격 계획을 수립하였던 연대는 이날 東沙里에서 차량 및 徒步행군으로 江陵—襄陽을 향해 시작하였는데, 東海를 굽이 보는 大關嶺에 올라 서서 東海의 淸風이 白雲을 몰고 와 將兵들의 한층 士氣를 더욱 북돋아 주었고, 九十九曲의 險路를 일거에 넘어 江陵을 향해 突進하였다. 이때는 이미 제3사단의 先頭가 이곳을 점령하는 즉시로 注文津—襄陽을 향해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襄陽의 점령이 완료되자 군단장 金白一준장은 訓令을 내리기를 『장병들의 용맹스

러운 전투로써 오랜 시일 공산도배들의 억압 속에서 고통을 겪어 왔던 北韓 동포를 해방시켜며, 失地收復의 一步를 내어 디디게 된 此際에 上下將兵들은 더욱 분발하고, 계속적인 임무완수에 全力을 다하여 收復된 住民들을 따뜻하게 대하여 그들을 보살피는데 萬遺憾 없도록 하라.」하였다. 이 訓令을 傳하여 듣게 된 將兵들은 꿰진 軍服의 팔을 걷으면서 「收復의 勇士 여기 있노라.」라고 웨치기도 하였다.

특히 사단이 襄陽에 突入하였을때 남아 있던 住民들이 열열히 환영하였지만, 처음에는 共產黨의 惡宣傳에 물살 당할 것으로만 알고 半信半疑, 주저하다가 사실과 相異함을 곧 알아차리자 그 歡迎의 熱氣이 加速化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住民에게 소위 「인민위원회창고」를 개방하여 糧穀을 분배하였는데, 서로 먼저 타기 위해 일시 修羅場이 되었다. 이는 그간의 飢餓와 思惟 절차의 一端을 여실히 나타내 주는 일이기도 하였다.

10월 3일 : 이날 首都사단과 제3사단이 전날에 이어 모두가 襄陽에 진출하므로써 전투지경선이 구분되지 않은채 同一軸線上에서 그 北方으로 향하는 진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先頭 二個연대가 진격진을 감행하는데 있어 자연히 混同을 이루게 되었고, 군단의 작전지시가 비록 東海岸沿道를 급속한 追擊으로 元山을 점령하는데 그 主眼을 두었다고는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速度發揮上 도리어 無理를 內包하게 되었으나, 兩사단의 大局的인 협조 아래 진격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전병력을 전술행군종대로 편성하고 襄陽을 출발하여 降仙里(東草南쪽 6km)까지 진격하고 降仙국민학교에 지휘소를 설치한 다음,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연후에, 다시 제3사단을 뒤따라 杆城을 향해 전출하였으며, 우선 거기에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도 襄陽에서 杆城을 향해 진격 중이었고, 제1연대는 江陵—注文津을 경유, 軍輔便을 이용하는 機動과 徒步에 의한 강행군으로 이날 오후 襄陽까지 接敵없이 진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진격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단 先頭 공격제대인 제18, 제1기갑연대가 杆城을 향해 진격한 다음이었다.

이 무렵 사단正面의 敵은 38°線 以北의 1차 방어선으로 예상된 杆城에서 이미 擊退된 다음, 100~200명씩 집결하여 주로 夜陰을 이용하면서 계속 北上 중이었고, 사단 後方에 분산되었던 殘敵은 民家에 내려와 식량, 의류, 畜牛등을 강탈하고 支署에 대한 습격과 殺人, 放火, 良民拉致와 군용보급차량 기습등 後方교란을 恣行하는 한편, 가능한 한 서로 合流하여

대부대로써 越北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사단이 襄陽—杆城까지 진격한 다음, 이날에야 비로소 MacArthur元帥는 38°線 以北진격을 정식으로 聲明하게 되었다.

10월 4일 : 군단은 首都師團으로 하여금 1개 연대를 元通—楊口 방향으로 진격케 하여 38°線 以南에서 越北하고 있는 敵의 퇴로를 차단하고, 계속 北쪽을 향해 진격토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단에서는 제18연대를 전투사단으로 편성하여 그 任務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제18연대는 그 進擊路가 변경되어 군단地區 左側 깊이 迂廻할 수 있도록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 지자 연대장 任忠植대령은 杆城에서 각 대대장 및 참모들과 會同하여 독립된 전투단으로서의 진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는 『첫째 左右인접부대와 유기적인 작전협조를 할 수 없는 험준한 山脈의 지형적 조건과 또한 後續부대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독립 전투단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된다는 점. 둘째 약 10여일간의 각종 보급품을 完備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작전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점. 세째 장병들의 왕성한 士氣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方途를 講究 하여야 하겠다.』는 점등을 勘案하고 戰列을 가다듬도록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와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 및 제3대대(장, 安岐一소령)등은 약 2주간의 보급품일체를 만재한 30여대의 차량과 함께 이날 杆城을 출발하여 陳富里(陳富峴 東쪽 下麓)까지 약진 중이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巨津—猪津을 경유하여 高城으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高城 南江에서 敵의 엄호부대의 火力挑戰을 받았으므로, 곧 渡渉이 가능한 細川을 사이에 두고 彼我間에 일시 교전을 전개한 끝에 이 敵을 격퇴하고 江北岸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군단지휘소 後方경계 및 造山里—杆城間의 殘敵을 擊滅하기 위해 전투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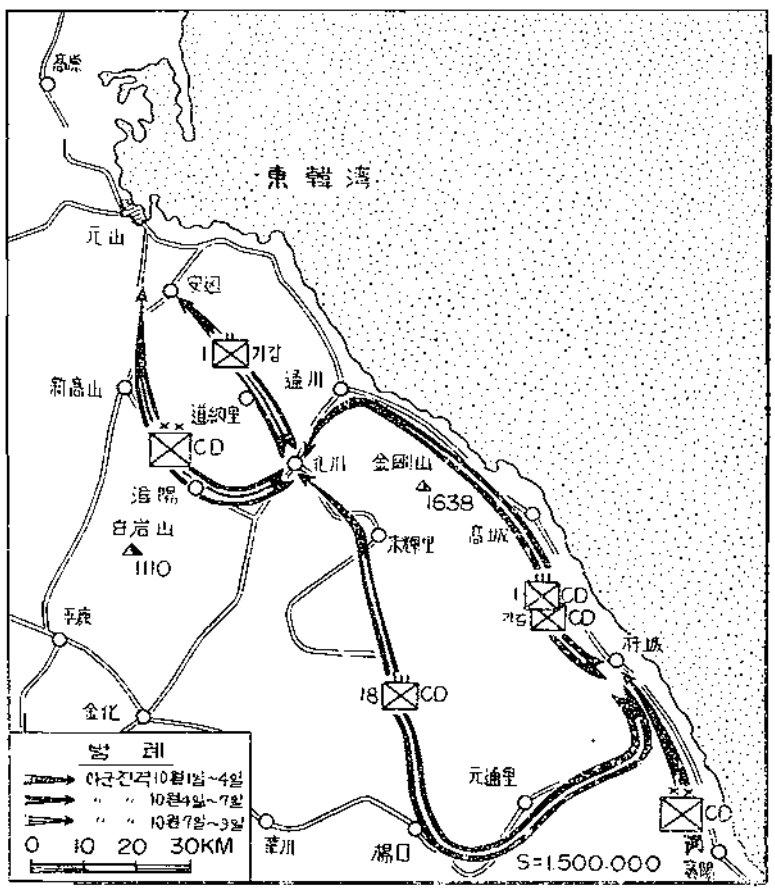
이때 我軍은 숨 돌릴 여유도 없이 강행군과 추격전을 계속하여 전체적으로 피복을 위시한 병참보급이 요구되었는데, 특히 軍靴는 너무 해어져 士兵들은 後送하는 戰友의 것을 이용하리만큼 이의 보급이 時急히 요망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追擊戰이 얼마나 강행군의 연속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날 육군본부에서는 訓令 제83호 『遮斷地點 설치에 관한 件』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각 부대는 百方手段을 다하여 孤立 방황 중인 敵의 北上, 후퇴를 저지하라. 이를 위해 遮斷地點을 설치하되, 그 行動으로 인하여 절대 필요한 시간 이상을 허비하지 말고, 특

히 主力의 전진을 지연시키지 말라. 만약 보급 실정으로 말미암아 主力의 機動속도가 지연된다면 강력한 정찰대를 파견하여 敵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항상 본대의 안전성을 도모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神速한 추격을 강조하고 그에 따르는 着意사항을 지적한 것이었다.

10월 5일 : 이날 08.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陸本作命 제205호(作命附錄 제6호)가 하달되었다. 『首都사단은 제2목표 楊口, 제8목표 末輝里 및 담당지구 내 제1차 진출예정선상의 도로망을 점령하고, 제1차진출예정선을 점령하는 즉시로 담당지구 내에서 목표 B 化川, 목표 F 安邊 및 목표 X 元山을 점령할 준비를 하라.』

상황도 제22호 襄陽—新高山 진격로



그런데 제18연대는 전날 이미 전투단이 되어 杆城에서 陳富里까지 진격하였고, 이날은 陳富嶺을 넘어 元通—楊口를 공격하고 있는 때이었다. 楊口가 점령되면 上記 陸軍作命 제205호(作命附錄 제6호)에 따라 大岩山—加七峰—檜田嶺—國士峰—金剛山—毘盧峰을 이은 連峰 左側 道路를 北上, 진격하여 內金剛面의 末端里 및 그 北쪽 淮陽을 공격할 계획으로 있었다.

이때 敵은 太白山脈으로 屹立되어 있는 內金剛 일대를 그들의 堡塁로 삼아 潛伏하면서 隨時로 出沒하였으며, 분산된 병력을 再糾合한 다음, 연대의 追擊에 一大 威脅을 가하려 꾀하고 있었으니, 그 신세가 正規軍에서 유격대로, 그리고 다시 山間匪賊의 무리로 전락한 것이고, 政治部員들의 督戰 총부리 아래 최후저항을 반복하였다.

특히 美 제5공군 사령관 Partridge소장은 이 무렵 敵의 전체적 동향에 대한 그의 見解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공중정찰에 의하면 현재 敵軍은 38°線 北쪽에 있는 전쟁 발발전의 앞 陣地와 그 北쪽에서 군대를 재편성하고 北方으로부터 차량으로써 군수품을 재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敵의 방어선은 海州를 基點으로 金川—鐵原—華川—楊口에 이르렀으며, 특히 東部의 韓國軍(제3사단)이 長箭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華川의 東北쪽은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미루어 보더라도 東部戰線의 敵은 我軍의 추격으로 抗戰意慾을 버리기는 하였지만 일단 元山으로 후퇴, 집결한 다음, 오히려 一戰을 각오하려는 듯이 보였으며, 이를 위해 도중에 강력한 엄호부대를 殘置하여 我軍의 前進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일부 패잔병들은 山岳으로 潛入하여 게릴라化하였다.

戰勢가 이러한 중에 제18연대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와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陳富里에서 이날 05.00를 기해 陳富嶺을 경유, 元通—楊口를 공격하였는데, 도중 광치嶺에서 敵 약 300명과 交戰 결과, 이를 격퇴시키고, 계속 진격하여 楊口 東쪽 松隅里까지 진출하였다.

제3대대(장, 安岐一소령)는 元通까지 本隊와 같이 진격하였다가 제1, 제2대대가 麟蹄를 거치지 않고 元通에서 楊口로 峙를 너머 진격하자, 麟蹄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대대는 元通에서 麟蹄를 점령하고 다시 主力과 合勢하기 위해 元通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麟蹄에서 趙南八소위(永興戰鬪에서 전사하였음)가 이끄는 첨병소대가 늦게 도착하여 부대대장 鄭昇和소령은 차량5대와 함께 이들을 기다려 약 2시간 후에 麟蹄 東北쪽 2km 지점 突出部에서 元通을 향해 출발하였다. 이때 鄭昇和소령은 前方 麟北川과 連하는 道路

에 敵 약 1개 대대규모의 큰 병력이 道路를 따라 麟蹄方向으로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자 곧 車上에서 박격포로 요란사격을 가한 다음, 敵이 四散潰走하는 틈을 타 그 虛隙을 突破하여 本隊와 合勢하였다. 이때 敵은 我軍이 지나갈 때는 숨어 있다가 몇 시간 지나게 되면 안심하고 후퇴하려는 것으로 보였고, 敵은 我軍의 또 다른 先頭부대로 誤認하였기 때문에 戰意를 완전히 상실하여 潰走하였던 것이다.

한편 東海岸道路를 따라 제3사단과 같이 진격하고 있던 제1기갑연대는 接敵없이 外金剛으로 진출하였고, 제1연대는 전날과 같이 春城부근에서 군단경비에 임하고 있다가 계속 진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北傀外相 朴憲永은 情勢가 계속적으로 악화되자 中共外相 周恩來에게 呼訴하되 『中·朝 兩人民은 美 제국주의 타도를 위하여 더욱 강력한 共同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애걸하였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그들은 이미 이 韓國전쟁에서 中共軍을 끌어 들이려는 打算이었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으리라.

10월 6일 : 제18연대는 전날 松隅里(楊口入口 三叉路)에서 露宿하고 있다가, 이날 07.00에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는 10.00에 楊口를 완전점령하고, 계속 추격전을 감행하여 林塘里(楊口北쪽 15km)까지 진격하였다. 이때 林塘里 부근에서 敵 모급차량 5대가 나타나 상황을 모른채 대대 前方에 출현하였으므로 前哨線에서 그대로 정지시키는 즉시로 이를 전부 노획하고 포로로 하는 戰果도 있었다.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연대 前衛 공격梯隊로써 이날 未明, 松隅里로부터 457高地로 진격하고 제1대대의 공격을 받아 潰走하는 敵 약 1개 대대와 맹렬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이어 계속 추격을 감행하여 비들기峙 아래 月溪洞까지 진격하고 急編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제3대대(장, 安岐一소령)도 이날 07.00에 龍下里 부근의 殘敵을 擊滅시킨 다음, 車輛으로써 제1, 제2대대를 추월공격하여 제1, 제2대대의 진출을 엄호하고 있었다.

이 일대는 楊口에서 內金剛—化川—淮陽으로 通하는 비교적 양호한 道路가 있어 東海岸道路를 제외하고는 內陸에서 彼我의 機動에 매우 유리한 지형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敵 제12, 제5사단등은 主力의 후퇴를 위해 그 엄호부대가 楊口부근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완강하게 저항해 왔던 것이다.

한편 제1기갑연대는 전날(5일) 外金剛里에서 通川을 향해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제3사단은 通川을 이미 점령하고 있을 때이었다. 이와 아울러 연대 前方지휘소는 外

雁城里(通川南쪽 10km)에 前進하였고, 제 I 연대는 이날 제 3 사단을 後續하여 利城을 출발, 高城을 경유, 城北里(長箭南쪽 3km)에 진출하였는데, 사단 前方지휘소도 본대의 진출과 별 차이 없이 이날 溫井里(外金剛入口)로 전진하고, 高城에 있는 군단지휘소로부터 수시로 작전지시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이날 MacArthur 元帥는 中共과 蘇聯는 韓國問題에 介入하지 않으리라는 낙관적인 전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10월 7일 : 제18연대 제 1 대대(장, 張春權소령)는 楊口 北쪽에서 末輝里(淮陽郡內金剛面)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楊口 北쪽에 華川 저수지를 끼고 돌아가는 隘路와 屈曲部가 많이 있어 이런 要地要部를 점령하고 있는 敵과 연 3 시간에 걸친 攻防戰을 전개하였다.

대대의 수차에 걸친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敵의 陣地는 좀체로 붕괴되지 않자 대대장은 참모들을 모아 놓고 對策을 강구하던 차, 이때 마침 落葉이 지는 10월 中旬에 접어 들어 있을 것에 想到하자 곧 敵 陣地에 白燐彈 15발을 퍼붓게 하였다. 乾燥期의 마른 草木에는 삽시간에 火焰이 일어나게 되고 敵 陣地가 불바다를 이루었을 刹那에, 이와 때를 마추어 일제히 突擊을 감행하여 燒死直前의 敵을 모조리 손쉽게 섬멸시키고 말았으니, 諸葛孔明의 赤壁大戰의 一幕과도 같았다.

그뒤에 대대는 敵影을 쫓아 계속 추적하면서 이날 오후 末輝里(昆虛峰 左側)까지 진격하고 그곳에서 野宿하게 되었다. 이때 대대장은 지휘소를 末輝國民學校에 설치하고 校長官舍에 위치하여 부대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電話가 있어서 이를 호출해 본 결과 淮陽郡 內務署가 나오게 되었다. 그는 즉시 黃海道 信川 출신인 연락병을 시켜 "우리는 후퇴하는 人民軍인데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그곳으로 갈 터이니 밥을 준비해 놓고 환영준비도 해 놓으라."고 하였다. 다음날 대대는 에비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 2 대대(장, 金鳳翔소령)가 淮陽을 먼저 공격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淮陽 내무서원 전부가 나타나 환영준비를 끝마치고 있던 중이었다. 이렇게 되자 제 2 대대 先頭 수색대가 不時에 急襲하여 이 환영군들은 모두 포로로써 대접하였고, 동내의 주민들은 비로소 국군이 入城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무렵 사단에서는 東海岸沿道를 따라 진격하고 있던 제 1 연대(장, 韓 信중령)와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로 하여금 化川과 淮陽을 향해 공격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兩個 연대는 通川을 경유, 淮陽을 향해 진격하게 되었는데, 右로부터 通川—楸地嶺—化川—淮陽을 連하는 道路는 金剛山 上端部를 東西로 橫斷하고 있어서 이의 점령

은 太白山脈 內陸에서 元山으로 후퇴, 집결하려는 敵 제12, 제5사단 등의 後退路를 완전히 차단하게 되는 큰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특히 內金剛 쪽의 末輝里에서 제18연대가 正面으로 압박하고 나머지 2개연대 右側方 공격은 사단의 元山 점령을 위한 淮陽—新高山—安邊 일대를 미리 확보하는 效用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제1기갑연대는 전날 陣地인 外廉城에서 通川을 경유, 楸地嶺을 공격하고 化川 前方高地에서 再編成 중인 敵 약 1개 대대규모의 병력과 격전을 벌이면서 化川까지 진격하고 연대 前方지휘소도 이곳으로 약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1대대(장, 朴益均소령)만을 化川에서 正北 쪽인 道納里—安邊線을 공격케 하기 위한 준비를 명령하였다.

한편 제1연대는 通川을 경유, 楸地嶺 東쪽 下端인 新店里까지 본대가 진출하고 敵의 퇴로로 판단되는 楸地嶺에 미리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가 內金剛方面에서 퇴각하는 敵 약 400명을 모조리 포로로 하였으니, 勇猛과 智謀의 雙璧을 이루었다 할 것이다.

10월 8일 : 사단은 陸本作命 제205호(作命附錄 제6호)의 제1차 진출예정선인 楊口—末輝里—道路 교차점에 대한 공격을 완료하게 되자 계속해서 목표 "F"이었던 安邊과, "X"이었던 元山을 공격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1연대와 제18연대를 淮陽—新高里—訪花里를 連하는 線을, 제1기갑연대를 化川—道納里—安邊을 連하는 線을 진격하면서 각각 元山을 목표로 진출토록 하였다.

<金剛山을 뒤로 두고 진격하는 수도사단 장병들>

이에 따라 제 1연대(장, 韓 信중령)는 전날에 이어 계속 機動力을 發揮하여 이날 아침 未明에 新安里(淮陽南쪽)까지 진격한 다음, 淮陽으로 추격하여 이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新高山을 공격하기 위해 鐵嶺峙(△685)의 敵을 공격하였으나, 여기에서 敵의 심한 저항 때문에 一進一退를 반복하면서 수류탄과 白兵戰으로 버티고 있었다.

한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전날 末輝里 陣地에서 이날 06.00에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가 先頭가 되어 출발한 다음, 雙溪里(末輝里化川中間)까지 진출하고, 이어서 追擊을 促進하기 위해 車輛便으로 機動化하여 新安里 경유, 一路 淮陽으로 진격하였다.

여기에서 연대가 다음 작전을 위한 휴식을 취하려 하였을 때, 다시 鐵嶺고개를 突破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 鐵嶺고개는 淮陽에서 新高山에 이르는 中間에 솟아 있는 海拔 685m 의 要衝地로서 古來로부터 難關의 이름이 높았으며, 急한 屈曲部가 88개나 있는 매우 험난한 재(峙)일 뿐만 아니라, 단대호 未詳의 敵 함류병들이 이 천연 요새를 이용하여 陣地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先頭 제 1연대가 이의 突破를 감행하였으나, 그 戰況進捗이 如意치 않게 되므로써 부대를 재정비하고 있던 중, 제18연대가 이를 맡아 다시 공격하게 되었다.

연대장 任忠植대령으로부터 이의 돌파명령을 받게 된 제 1대대장 張春權소령은 제 1연대와 陣地를 교대한 다음, 이날 19.00에 공격을 試圖하였으나 야간 전투준비의 미비로 그 공격이 또다시 頓挫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대장은 밤중에라도 기어히 점령하고 말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으나, 그 妙案이 없어 참모들과 함께 부심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苦心焦思 끝에 최근 포로 심문 결과에 의하면 "敵은 UN軍의 전차부대의 出現說로 말미암아 극도의 공포심과 士氣의 저하를 가져 오고 있다."라는 陳述을 回想한 결과 대대에 배속되어 있던 연대 수색중대의 蘇製 지스車(노획품의 大型트럭) 5대와 기타 차량을 이용하여 陽動欺計戰法을 쓰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즉 蘇製車 5대는 그 소음이 마치 戰車소리와 흡사하도록 전부 마후라(排氣筒)를 제거하고, 砲兵의 트럭과 각 연대에서 차출된 40대로써 차량행군 대형을 편성하는 동시에, 가장 先頭에는 마후라를 뗀 蘇製車를 앞 세우고 대대장은 18번째의 짚車에서 모두 라이트를 켜고 前進을 命하게 되었다. 당시 연대장과 사단장도 이 欺計에 동의하고 즉시 전 차량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때가 子正이 가까운 22.00였는데, 고요한 山間에 天地를 진동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드디어 대대는 鐵嶺고개를 향해 출발하였으니, 이는 완전히 전차대대의 진격을 가장하였으므로 무모하리만큼 猪突的이었고, 또 眼下無人의 勇斷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두번이나 실패한 바 있는 鐵嶺고개의 공격이 다시 한 밤중을 이용하여 세번째의 공격이 試圖되었던 것이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張春權소령은 돌파성공의 여부를 다만 天地神明에 맡겼다 할 정도로 비장한 각오 아래 陣頭에 서게 된 것인데, 이 陽動 戰法이 奏効한 탓인지 敵은 날쌔게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鐵嶺고개를 저항없이 돌파하여 새벽에 新高山까지 一擧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사단 左一線의 제1거감연대는 제1대대(장, 丁世鎭소령)가 右側 제3사단과 左側 제18연대의 中間지점인 化川에서 道納里—安邊線을 향해 中央을 돌파하여 이날 오후 道納里까지 진격하고 있었고, 제2대대(장, 朴益均소령),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제18연대의 進擊路를 따라 新安 경유, 16.00에 淮陽에 진출하게 되었다.

10월 9일 :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02.00까지 鐵嶺峙를 넘어 新高山에 진격한 제18연대 제1대대는 날이 밝기까지 계속해서 殘敵을 擊滅시키면서 엄중한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 무렵 新高山 일대의 敵은 鐵原方面에서 후퇴한 敵과 합세하여 急히 元山으로 철수하면서 逐次的으로 我軍의 진격을 一退一止로 지지하기 위해 南山里—訪花里일대에 收容부대를 배치하면서 최후저항을 감행하였으며, 본대는 元山에 집결하여 여기의 固守를 위한 決死抗戰의 태세를 보이게 되었으며, 我軍 역시 여기에서 最終最大의 强打를 가하고자 결의하게 되었다.

사단장 宋堯讚준장 이하 각 연대장들은 이날 未明에 이미 突破한 鐵嶺고개를 경유, 新高山에 진출하였는데, 鐵嶺峙를 넘을 때 敵은 진격로를 끊으려고 다이나마이트를 장치해 놓았으나, 이의 폭파를 위한 點火兵마저 황급히 살아진 탓인지 그대로 放置되어 있는 것을 發見하고 이를 제거한 다음, 新高山에 진출하게 되었다.

날이 밝아지자 戰果확대를 위해 부근일대를 수색한 결과, 敵이 慌急히 퇴각한 싸움터에서 1개 사단규모에 해당하는 장비를 노획하였으니, 이는 開戰이래 最大의 戰果라고 할 수 있다.

즉 우거진 사과밭에서 新品으로 포장된채 버려져 있는 다발총 3,000정을 비롯하여, 鐵原方面에서 貨車에 실려 元山으로 가던 전차 6대와 野砲 4문, 그리고 82mm박격포 10문과 120mm 박격포 1문, 또 重기관총 30정과 경기관총 500정, 그밖에 蘇製소총 5,000정과 의

료약품 1개 貨車가 그 主要한 것이고, 그밖의 보급품은 모두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노획이었다. 이 당시에 敵은 후퇴하면서 天主敎 敎人들을 사과 밭에 끌고 가 무자비하게 薪木으로 打殺하였는데, 그 시체와 노획품을 정리하는등 戰果확대와 戰場整理로써 오전 중을 소비하게 되었다.

제18연대 제1대대는 이날 09.00에 다시 新高山 北쪽에 있는 南山里를 향해 차량機動으로 돌진을 계속하였다. 이 南山里(安邊西側) 일대에는 敵 元山경비 제2여단소속 1개 대대병력이 元山 수비를 위한 前哨 방어거점을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하였으므로 2시간에 걸친 치열한 戰鬪가 전개되었는데, 이때에 제2대대가 증원되어 兩翼包圍로써 敵陣을 점령하는데 성공하고, 15.00에 이르러 訪花里부근까지 단숨에 추격하여 다시 敵 1개 연대규모의 병력과 서로 부닥치게 되었다. 1시간에 걸친 支援砲兵의 火力엄호를 받으면서 돌진을 계속한 끝에, 이 일대의 敵을 擊破하면서 16.00에 訪花里를 점령하였다.

이 두렵 30정의 기관총을 가설한 차량으로 急速追擊을 계속하고 있던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는 元山 12km前方 倍花里부근 三叉路에서 敵 포병 1개 대대가 모두 그 砲門을 東海岸 제3사단 進擊路에 돌리고 있는 利那에 그 後方을 向하여 不時에 突入하였다. 敵은 이 車輛縱隊가 5番차량까지는 蘇製車이므로 자기의 友軍인줄로만 알았음인지 放心하고 있다가 6番車輛부터 美製차량임을 알아 차리게 되자, 敵은 황급하게 이 6番차량에 수류탄을 던져 적재함을 파괴하였으므로 我軍병사들의 부상자를 내게 되었다.

이리하여 차량추격이 잠시 중단되자 일부는 전투대형으로 즉시 散開하여 敵에 대한 집중사격을 가하고 車 위에서도 역시 기관총으로 連射를 퍼붓기 시작하였다.

戰況이 이렇게 되고 보니, 敵의 砲兵은 砲列을 대대방향으로 돌려지도 못한채로 거의 모두가 두손을 번쩍 들고 포로가 되었고, 일부는 山 능선으로 分散潰走하였는데, 대대는 그 砲를 노획하여 거꾸로 元山을 향해 요란 砲擊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때 陣頭지휘하고 있던 대대장 張春權소령은 敵이 포로되기 직전, 수류탄 공격을 받은 6番차량으로 뛰어 가다가 敵의 저격병이 쏘는 소총에 腹部를 관통하여, 元山入城을 바로 눈 앞에 두고 그동안 先頭대대장으로서 萬難을 겪고 赫赫한 戰功을 뒤로 미룬 채 釜山으로 後送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대대장은 20일동안 치료를 받은 다음, 强請하여 다시 戰線으로 出動하여 羅南—淸津전투에 참가한 바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이날 이미 突破한 新高山에 진출하여 戰果확대와 殘敵을 박멸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元山공격을 위한 戰列을 강화하고 있었고, 제1기갑연대

<진격작전에서 거둔 노획무기들>

제1대대(장, 丁世鎭소령)는 道納里를 점령한 다음, 安邊부근까지 진격하고 있었으며, 제2, 제3대대는 鐵嶺峙 경유, 新高山에 진출하였는데, 數 未詳의 敵이 新高山 後方 터널高地에서 저항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포병대를 근접지원사격 아래, 과감한 육박공격으로 이를 격퇴하고 200여명을 사살하는 戰果를 올렸다. 또한 新高山 南쪽 과수원에서 敵의 野積倉庫를 발견하여 99式 소총 1,500정과 동 탄약 2000,000발을 노획하고, 농민들의 血汗을 짜낸 소위 現物稅 糧穀 3트럭分을 노획하였다.

타.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그야말로 「역사적인 38°線 돌파」를 하여 또다시 元山을 目前에 둔 安邊 北쪽까지 一擧에 진격하게 되었다.

사단이 10월 2일 襄陽에 진격하므로써 左인접 제3사단과 함동 진격하게 되어 다소의 重複性을 免치 못하였으나, 杆城에서 제18연대가 左側으로 迂廻, 진출하여 陳富嶺--元通—楊口—束草里—淮陽으로 진격하고 제1연대, 제1기갑연대는 東海岸--高城--通川까지 제3사단과 併進, 또는 後續하면서 진격한 다음, 左側에서 진격한 제18연대와 連繫하여 新高山을 공격하기 위해 通川에서 化川—淮陽으로 左廻 진격하고, 新高山—訪花—安邊부근까지 사단 전대가 진격하여 元山 탈환작전에 있어서 제3사단과 兩面공격하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제18연대의 鐵嶺공격과 新高山에서의 敵 1개 사단용의 장비 보급품을 노획한 것은 이제까지의 전투에서 최대의 戰果라 아니할 수 없었다.

이 무렵 敵은 元山에서 최대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東海岸 道路를 따라 퇴각한 敵과 또 內金剛

一化川—安邊線을 따라 후퇴한 敵과, 그리고 新高山—南山里—培花里線을 따라 퇴각한 내강리의 敵들이 모두 元山에서 合勢하여 元山 外郭線에 방어 거점을 마련하고 있었고, 또한 元山에서 新編된 敵 제42사단과 咸興에서 南下한 新兵들이 모두 집결하여 元山방어에 총력을 傾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10월 9일에 수사단에 의해 그 西側이 또 제3사단에 의해 그 東側이 포위 당하게 되었고, 元山奪還戰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我軍이 우세한 가운데 그 外郭線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

(1946. 11. 27. 自宅에서, 에, 증장)

반격초기에 敵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고, 38°線 돌파 이후 제18연대가 元通에서와 新高山 부근에서 완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원체 전격적으로 추격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破竹之勢의 진격이었다. 사단 主力이 淮陽부근에 집결한 다음, 新高山을 돌파하였는데, 鐵嶺고개에는 敵이 다이나마이트를 장치해 놓고 후퇴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제거한 적이 있으며, 新高山에서 敵 1개 사단용의 보급장비품을 노획하였다.

◇ 제18연대 제3대대 부대대장 鄭昇和소령

(1971. 8. 2. 陸本 정책기획부장실, 소장)

北進당시에 我軍의 士氣는 매우 좋았으며, 추격전도 破竹之勢로 계속되었으나, 전투보다는 오히려 速度에 치중한 感이 있어 조직적인 부대운영을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추격전 도중에 수시로 戰線을 빨리 整理했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이었다.

제18연대가 杆城에서 독립 전투단을 편성하여 楊口 방향으로 진격할 때인데, 연대主力이 元通里에서 楊口로 고개를 넘어 진출하고 제1대대 일부 병력으로 麟蹄를 점령한 다음에 本隊를 後續하게 되어 있었다. 이때 1개 소대가 麟蹄부근의 敵을 격멸하기 위해 敵影을 찾아 추격하다가 1시간쯤 늦게 돌아 왔었다. 나는 이들을 車輛 5대에 分乘시켜 本隊와 합류하기 위해 앤 나중에 출발하였는데 麟北川과 접해 있는 道路에서 敵 약 1,000여명이 종대로 행군해 온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임시 거치한 박격포로 요란사격을 한 다음, 敵을 分散시키고 敵陣을 돌파하였다. 이들 敵은 大隊 本隊가 다 지난 후이고 시간도 2시간 가량이지난 뒤이어서 안심하고 후퇴하려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我軍 1개 소대에게 크게 당한 셈이 되었다.

◇ 제18연대 제1대대장 張春權소령

(1964. 6. 22. 국방대학원에서, 소장)

杆城에서 하루를 휴식한 다음, 楊口를 점령하고 楊口 北쪽에서 敵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이때 白燐彈 15발을 사용하여 敵 陣地를 불지른 다음, 공격한 적이 있으며, 內金剛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斷髮嶺을 넘을 때 金剛山 줄기의 단풍경치는 戰鬪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았다. 末院里에서 집결하여 숙영한 다음, 淮陽경유, 新高山에 진격하기 전 鐵嶺고개는 매우 주요한 地形地物로 敵의 후퇴 엄호부대가 殘置되어 있던 곳이었다. 이 고개를 돌파하기 위해 제1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밤중에 차량으로 戰車부대를 가장하여 돌파하였다. 新高山에는 10월 9일 새벽에 진격하였는데, 이때 敵은 야간공격을 예상 못하고 民家에서

축영하다가 전부 포로로 잡혔다.

◇ 제1연대 朴贊兢중위

(1066. 3. 24. 陸本에서, 대령)

38°線을 突破한 다음에 北韓地域의 인상으로는 面單位마다 소위 人民學校(國民學校)가 있었는데, 學校마다 교실 뒤에 金日成 찬양의 文句가 천편일률적으로 걸려 있었고,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우상화정책이 얼마나 실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

◇ 제1기갑연대 제2대대 李元春 중위

(1967. 5. 22. 陸本에서, 대령)

38°線을 돌파하여 襄陽—高城—外金剛을 경유하여 별 저항없이 新高山에 진출하였는데, 이때 敵의 화차가 무기를 싣고 터널로 들어와서 큰 戰果를 올렸다. 東海岸 港道를 전격할 때는 제3사단과 後續, 또는 병진하여 공격하였고, 通川에서 淮陽방향으로 전격하여 新高山을 진출한 다음, 元山으로 공격하게 되었다.

◇ 수도사단 작전처 보좌관 權泰日중위

(1965. 12. 10. 국방대학원에서, 대령)

新高山에 突破했을 때, 我軍의 전격적인 전적으로 新高山지구에 함류되어 있던 敵이 수많은 장비, 보급품을 遺棄한 채 元山方面으로 敗走하였는데, 이때 新高山 터널에는 전차가 실린 列車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機關車를 조종할 줄 아는 士兵을 제1기갑연대에서 확인, 차출하여 이렇게 汽車를 터널에서 꺼 내어 新品 전차를 노획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新高山부근 사과밭에 카토릭 敎人의 학살된 시체를 많이 목격하였다.

3. 元山奪還戰鬪(50년 10월 8일 부터 50년 10월 15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3 호
상 황 도 제 23 호
작명부록 제6, 1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	장 소장	金 白 一	
제 3 사단	장 준장	李 鍾 贊	
제22연대	장 대령	金 應 祥	
제 1 대대	장 대위	李 昌 運	
제 2 대대	장 소령	金 世 洛	
제 3 대대	장 소령	鄭 淳 珉	
제23연대	장 대령	金 淙 舜	
제 1 대대	장 소령	金 尤 榮	
제 2 대대	장 대위	崔 尙 俊	
제 3 대대	장 소령	許 亨 淳	
제26연대	장 대령	李 致 業	
제 1 대대			
제 2 대대			
제 3 대대	장 소령	殷 顧 杓	
수도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제 1 연대	장 중령	韓 信	
제 1 대대	장 소령	金 煜 穆	
제 2 대대	장 소령	申 彦 國	
제 3 대대	장 대위	李 聖 鳳	

제 1 기갑연대	장 대령	白 南 權	
제 1 대대	장 소령	丁 世 鎭	
제 2 대대	장 대위	朴 益 均	
제 3 대대	장 소령	林 觀 默	
제 18 연대	장 대령	任 忠 植	
제 1 대대	장 소령	李 吉 沐	
제 2 대대	장 소령	金 鳳 翔	
제 3 대대	장 소령	安 昉 一	

배속부대

제11포병대대	장 소령	宋 贊 鎬	
제 3 야전공병대대			
제10야포대대			
수도야전공병대대			

병력 : 16,000 명

장비 : 105mm 곡사포 18 문
57mm 대전차포 14 문
81mm 박격포 20 문
60mm 박격포 25 문
3.5inch 로켓트포 30 문

敵 軍

제12사단(再編)

제10연대

제11연대
제12연대
제13연대
제42사단(新編)
元山 제249여단
제588연대
제549연대 건설연대
元山 警備 제2여단
江陵경비여단, 해군직속 1개대대,
공군 1개 중대
제 24 기계화포병여단
제 945 해군陸戰부대
제 1, 2, 3, 4, 7, 8, 15사단의 패잔병
병력 20,000명
장비 : 전차 12대
120m 박격포 8문
76mm 곡사포 3개대대의 장비
76mm 직사포 27문
122mm 곡사포
82mm 박격포
45mm 대전차포

나. 전투 전의 개황

民族의 悲願을 豆滿江 물에 씻고자 不撤晝夜 北進하였던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 및 제3사단 장병들은 10월 1일 38°線을 突破한 이래 물과 一週日만에 또 다시 元山奪還을 눈 앞에 두고 松田—新高山線에서 그 作戰基盤을 확고히 造成하고 있었다. 특히 元山은 北韓의 東半部의 정치·경제문화의 中心地인 뿐만 아니라 軍事的으로도 要衝이어서, 이미 淸日, 露日戰爭 때에도 그 역할은 말할 것이 없었거니와 이 전쟁에서도 그 중요성은 再言과 여지가 없이 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敵은 있는 手段을 다해 元山을 要塞化하였고, 各地의 후퇴병을 合流시켜 완강하게 抗戰하여 끝내 死守하려 하였으니, 그 이유 몇가지를 살피 본다면 다음과 같다.

陸正面에서의 元山은 京元線과 東海北部線 咸鏡線의 始發地이라는 점과 특히 元山 平壤間의 半島最短腰部를 東西로 橫斷하는 公路의 基點이어서 이 지역이 봉쇄되면 平元線의 橫的作戰網이 완전히 파괴되는 동시에 敵의 東西部 전선이 分離될뿐 아니라, 平壤이 그 東側에서 壓迫받게 되어 端州로부터의 적절적인 군사원조가 없이는 敵이 결정적인 敗北를 意味하는 것으로써 다대한 충격을 주는 地理的 조건이 첫째이다.

海正面에서의 元山은 永興灣의 虎島半島와 葛麻半島에 둘러 싸여 있는 東海岸 最大의 천연적 良港으로서 이 港口가 擁塞되고 봉쇄되면 北等 興南이나, 利原 및 淸津등 群小 港口가 그 母港의 상실로 말미암아 無力化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咸鏡南北道의 沿岸이 자동적으로 開放되는 전대적 위치에 處해 있는 점이 그 둘째이다.

空正面에서의 元山비행장(葛麻, 또는 明沙十里비행장)도 平壤까지 30분 이내 飛行할 수 있는 거리이어서 北半部의 制空權을 장악하는데 있어 절대 중요基地이란 점이며, 그 중요성이 매우 컸었던 것이 세째이다.

또한 政治的인 面에서 볼때도 이 元山은 極東의 蘇聯 政治中心都市인 Khabarorsk 의 指令을 海蔘威를 경유하여 元山—平壤으로 전달하는 仲介地란 점과, 특히 蘇聯과는 땔 수 없는 관계 지역이란 점, 즉 今次

전쟁初頭에 사용했던 戰車를 비롯해서 기타 수많은 兵器의 搬入과 그 代價로서 소위 현물세 및 목재 철물 광석등을 搬出한 港口이었다는 것이 그 네째이다.

이 외에도 帝政露西亞시대의 Nicholai二世때부터 시작된 蘇聯의 東進政策이 8.15해방을 계기로 노골화하여 一方的으로 元山港은 租借하고 수백년래의 숙원인 바다에의 進出을 달성한 그들은 사실상 제2의 海蔘威化하려 하였는데, 이는 항상 구축함 및 海防함정 數十隻이 왕래하였던 사실로서 立證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北傀는 蘇聯의 便宜를 받아 同港의 防禦에 더욱 광분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 그 다섯째이다.

敵軍의 상황 : 이와 같은 전술적,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敵은 그간 退却해 온 제5, 제12, 제15사단 및 기타 패잔 合流兵들은 元山에 집결시키고, 이의 防禦에 必死的인 노력을 기우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江陵部隊및 예비대를 철수시켜 元山 南쪽의 전략적 要地인 蓼陰—安邊—新高山線에 우선 축차적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부대를 再編整頓하게 되었다.

① 元山 제249여단으로서 元山방어사령부를 설치.

② 제599보병연대와 제588포병연대 및 제590해안방위연대등 약 8,000명의 병력과 적사포 28문으로써 제42사단을 新編.

③ 제5사단 일부병력 및 제101연대로써 제12사단을 再編.

④ 鐵原, 金化, 春川等地에서 후퇴한 제1, 제2, 제3, 제4, 제5, 제7, 제8, 제15사단의 패잔병 약 3,000명을 釋王寺 周邊地區에 집결 再編

⑤ 敵 증원부대를 咸興으로부터 元山으로 집결.

⑥ 기타 독립부대로서는, 江陵旅團 약 2,000명을 비롯하여 제947독립대대 약 1,000명과 해군사령부 직속 1개대대, 그리고 공군사령부 직속 1개중대를 집결.

이상과 같이 최소 20,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병력과 전차 12대, 122mm砲, 76mm砲 3개 대대의 장비등으로써, 元山 外郭의 龍小高地와 市街, 그리고 海岸線 및 道路를 分擔하여 最大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最後 決戰을 企圖할 대세로 보였는데, 특히 再編과 방어진지 구출의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서는 元山에서 6~10km西南쪽 外郭인 蓼陰—安邊—南山里線에 강력한 收容부대를 殘置하여, 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元山을 향한 四個의 進擊路線을 완강히 지지하려는 것이었다.

我軍의 상황 : 한편 수도사단과 제3사단은 급격한 追擊을 계속한 나머지 給養이나 後送機動面에서 다소의 무리를 가지 왔지만, 萬難을 克服하고 突破와 包圍에 鼓吹된 士氣는 金剛山精氣에 더욱 힘 입게 되었음인지 陸本作命 제205호(作命附錄 제6호)의 목표"X"인 元山을 점령하는데 더욱 拍車를 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0월 7일부터 8일까지의 이틀동안에 걸쳐 군단 左一線의 제3사단(장, 李鍾贊준장)의 先頭공격 제대인 제22연대(장, 金應雨대령)는 전날에 이미 점령한 通川에 집결하여 後方경계에 임하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제22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咸興를 점령, 松田里線에 진출하였으며,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長新에서 槐花里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한편 군단 左一線을 공격하고 있던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淮陽

에서 鐵嶺을 돌파하여 新高山에 진출하고 있으며, 제 1 연대(장, 韓 信중령)와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 제 2, 제 3 대대가 제 18 연대(장, 任忠植대령)에 이어 新高山에 진출하여 戰果확대 차 殘敵 수색과 戰場정리에 임하고 있었다. 제 1 기갑연대 제 1 대대(장, 丁世鎭소령)는 化川에서 道納里—安邊을 향하여 진출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兩個사단은 東에서 西로 元山外郭을 포위하여 陣地를 점령하고, 元山奪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陳鶴사단은 全力을 元山에 指向시키면서 北鎭의 巨港을 短時日에 攻略하기 위해 高城에 설치되어 있는 군단사령부에서는 金白一소장이, 그리고 通川에 추진되어 있는 제 3 사단 前方지휘소에서는 李鍾贊준장이, 또한 淮陽에 진출되어 있는 수도사단 前方지휘소에서는 宋堯讚준장이 各各 그 참모들과 함께 元山奪還의 작전계획수립과 작전지시 및 부대 戰鬪을 만반으로 가다듬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元山탈환을 위한 제 1 군단의 작전계획은 10월 5일 08.00를 기하여 육군본부가 하달한 다음과 같은 요지 작전명령 제 205호(作命陸密 제 6 호)에 의거, 수립되었다.

『軍은 北方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제 1 차 진출에정선상의 제 7 목표 高城, 제 8 목표 末輝里 제 9 목표 昌道里, 제 10 목표 平康을 점령하는 동시에 즉시 목표 X 元山 및 목표 H 地境里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한다.』

이러한 方針에 의거하여 군단은 敵의 元山방어를 위한 決戰的 主抵抗線인 桑陰里—安邊을 연결하는 南大川 일대를 兩面으로 포위공격키 위하여 제 3 사단은 右一線에, 수도사단은 左一線에 각각 중점을 두고 진격시킬 계획으로 10월 6일 12.00를 기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을 양 사단에 하달하였다.

『1. 제 3 사단은 右側 首都사단과 협동하여 담당지구 내에서 北方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목표 通川, 목표 E 九溪里, 목표 X 元山을 점령키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것이며, 모든 通信方法을 이용하여 連絡將校를 교환하고 左側 수도사단과의 접촉을 유지하라.

2. 수도사단은 右側 제 3 사단 및 左側 제 2 군단 제 6 사단과 협동하여 담당지구 내에서 北方에 대한 공격을 계시하여 제 2 목표 楊口, 제 6 목표 竹里, 제 8 목표 末輝里및 담당지구 내 제 1 차 진출에정선상의 도로망을 점령하라.』

이 軍團作命에 의거하여 右一線을 담당한 제 3 사단장 李鍾贊준장은 敵이 決戰을 企圖하는 桑陰里—安邊을 연결하는 南大川일대의 전고한 방어선을 兩面으로 공격키 위하여 左右

兩個의 진격로를 설정하였다.

즉 하나는 東海岸의 幹線道路로서 通川—鎭谷—慈山里—桑陰—地境里—葛麻 元山의 右軸線이었고, 또 하나는 槐花里에서 左廻하여 浦川—飛雲嶺—飛雲里—安邊—元山에 이르는 左軸線이었다.

이 兩個 追擊路 중 東海岸의 幹線에는 主力부대를 前進시켜, 일거에 元山을 점령토록 하고 右側의 浦川—飛雲嶺—安邊의 軸線上에는 1개 연대병력을 진출시켜 安邊을 점령한 뒤, 敵의 右側背를 공격하여 主力의 元山점령을 용이케 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다음, 10월 8일 06.00를 기하여 예하대에 하달하였는데, 그 作命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一. 제 26연대는 금 8일 07.00 행동을 개시한 다음, 槐花里—浦川—飛雲嶺을 경유하여 일거 安邊을 점령 하는 동시에, 元山 街路를 北進하여 地境里부근에서 女王山으로 향하여 진출, 西南方으로부터 元山을 점령하라.

二. 제 23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 급속히 南大川線에 진출하여 일부 병력으로써 元山비행장을 점령하는 동시에, 主力으로써 元山市 東南方으로부터 돌입하여 同市를 점령, 확보하라.

三. 제 22연대는 제 23연대 및 제 26연대가 南大川과 安邊線에 각각 진출할 때까지 진출 부대의 지원부대로 前進한 다음, 제 23연대와 제 26연대가 南大川—安邊線에 진출하게 되면 즉시 南大川을 强行 渡河하여 女王山을 향해 진출하는 즉시로, 女王山 東南方으로부터 元山方面으로부터 元山을 공격, 점령하라.

한편 군단의 左一線을 담당한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은 通川線에서 부대를 左廻轉시켜 新店里—楸地嶺—化川線을 따라 淮陽까지 轉進한 다음, 일부병력을 化川—道納里—安邊을 沿하는 線으로 진격시켜 中央을 突破하면서 제 3사단의 左側을 엄호하여 사단의 右一線을 담당케 하고, 金剛山 西側 末輝里—內金剛—雙溪里를 추격해 왔던 主力 제 18연대를 化川에서 다시 西北쪽의 淮陽—鐵嶺—新高山으로 진격시켜 金化—金城—淮陽의 幹線道路를 따라 元山으로 北上하려는 敵 퇴로를 차단케 하는 동시에 서울—鐵原—平康—新高山—元山의 京元線 鐵道를 차단하여 敵의 병력과 보급 수송을 봉쇄하는 한편, 新高山에서부터 南山里 訪花里를 추격하여 一擧에 元山을 攻略토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제 1기갑연대 제 1대대(장, 丁世鎭소령)를 右一線인 化川—道納里—安邊線으

로 진출시켰고, 淮陽--鐵嶺--新高山으로는 제 1 연대(장, 韓 信중령)와 제 18 연대(장, 任忠植대령) 및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의 2개 대대를 진출시켰으며, 新高山을 점령한 다음에는, 제 18 연대를 主攻으로 하여 元山의 西南쪽 外廓으로부터 직접 공격케 하고, 제 1 기갑연대는 安邊線에서 南大川을 渡河하여 제 18 연대의 右側을 엄호하는 일면, 打擊부대로써 元山을 공격케 하고 제 1 연대는 예비대로서 先頭 공격梯隊를 지원토록 명령하였다.

元山공격의 직접적인 명령은 제 18 연대에 의해 新高山이 점령, 확보된 10월 9일 新高山에서 사단 작명 제 102 호로 하달되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공격개시 시간은 10월 10일 05.30이며 제 18 연대는 南山里—訪花里線을 突破한 다음, 元山 西南쪽 女王山을 포위, 공격하면서 계속 元山에 돌입하고 제 1 기갑연대는 安邊線에서 地境里 경유, 市街에 突入하고, 제 1 연대는 예비대로서 後側方경계를 엄중히 하면서 공격부대와 합세할 준비를 하라.』

(2) 작전실시

10월 8일; 元山 탈환을 위해 제 3 사단(장, 李鍾贊준장)을 右一線,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을 左一線에 展開하여 松田—淮陽線에서부터 兩個 사단의 元山공격은 시작되었다.

右側 松田里線에서 敗北한 敵은 玆山 北쪽 高地에 급속히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일부병력으로써 玆山에서 진격하는 제 3 사단의 側方을 위협케 하는 등 敵의 엄호부대는 死力을 다하여 我軍의 진출을 저지하려 하였다.

제 23 연대(장, 金錄舜대령)는 松田線을 떠나 이날 09.00에 玆山 北쪽의 敵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약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다음, 이를 격파하고 계속 진격하여 15.00에는 松峴의 敵을 擊破하는 즉시로 桑陰里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동연대 前方지휘소는 13.00에 庫底를 출발하여 玆山里까지 약진하였는데, 이때 연대본부는 松峴전투에서 보고된 戰果를 다음과 같이 집계하고 있었다.

사살 110명, 포로 56명이며, 노획품으로서는 76mm 작사포 2문, 동실탄 176발, 45mm대 전차포 6문, 동실탄 600발, 기관포 6문, 82mm 박격포탄 350발, 책코式 경기 관총 2정이었다.

제 22 연대(장, 金應祚중령)는 제 23 연대의 後續부대로써 通川으로부터 北上 중이었고, 제 26 연대(장, 李致業대령)는 槐花里에서 左廻轉 하면서 그 追擊線을 安邊에 지향시켜 槐花里—沛川里—飛雲里—安邊街道를 따라 北進하여 12.00에 飛雲嶺을 『공격, 점령하고 安

邊으로 육박하고 있었다.

이날 사단 포병대는 제 1, 제 2 중대가 제 23연대를, 그리고 제 3 중대는 제 26연대를 각각 지원하였으며, 공병대대는 각 戰線에서 地雷제거와 道路보수공사에 임하고 있었다.

사단 사령부는 前方 각 연대의 진출에 따라 通川에서 厚德로 이동하여 참모회의를 개최하고 戰勢의 추이에 따른 諸般狀況을 예의 검토하였다.

한편 군단 左一線을 진격하고 있던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제 1 연대(장, 韓信중령)와 제 18연대(장, 任忠植대령)가 化川—新安을 경유, 淮陽까지 진격하고 新高山을 점령키 위한 最大의 險要인 鐵嶺下麓에서 敵과 서로 對峙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化川에서 安邊軸線을 공격하여 이날 오후 道納里까지 진격하고 있었다.

10월 9일: 이날 제 1 군단에 의해 元山外廓 4km가 포위, 압축되고, 中西部戰線도 모두 38° 線을 돌파완료하여 계속 北進을 강행하였는데, 이때에 MacArthur 元帥는 金日成에게 最後降伏勸告文을 다음과 같이 通告하였다.

『本官은 UN軍 총사령관으로서 금후 최소한도의 人命손실과 財産파괴로써 UN의 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대와 그대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에 대하여 韓國의 어느 지역에 있음을 不問하고, 武器를 버리고 敵對행위를 중지할 것을 최후적으로 要求한다. 本官은 또한 모든 北韓人에 대하여 통일독립된 民主韓國政府를 수립함에 있어 UN에 全的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그대들을 정당히 대우하리라는 것과, 그리고 UN은 통일된 韓國의 전지역을 救濟하고 再建하기 위하여 行動할 것이라는 것을 保證한 바 있었다. 北韓政府의 이름으로 그대로부터 즉시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本官은 UN의 명령을 실시함에 필요한 軍事행동을 즉각 취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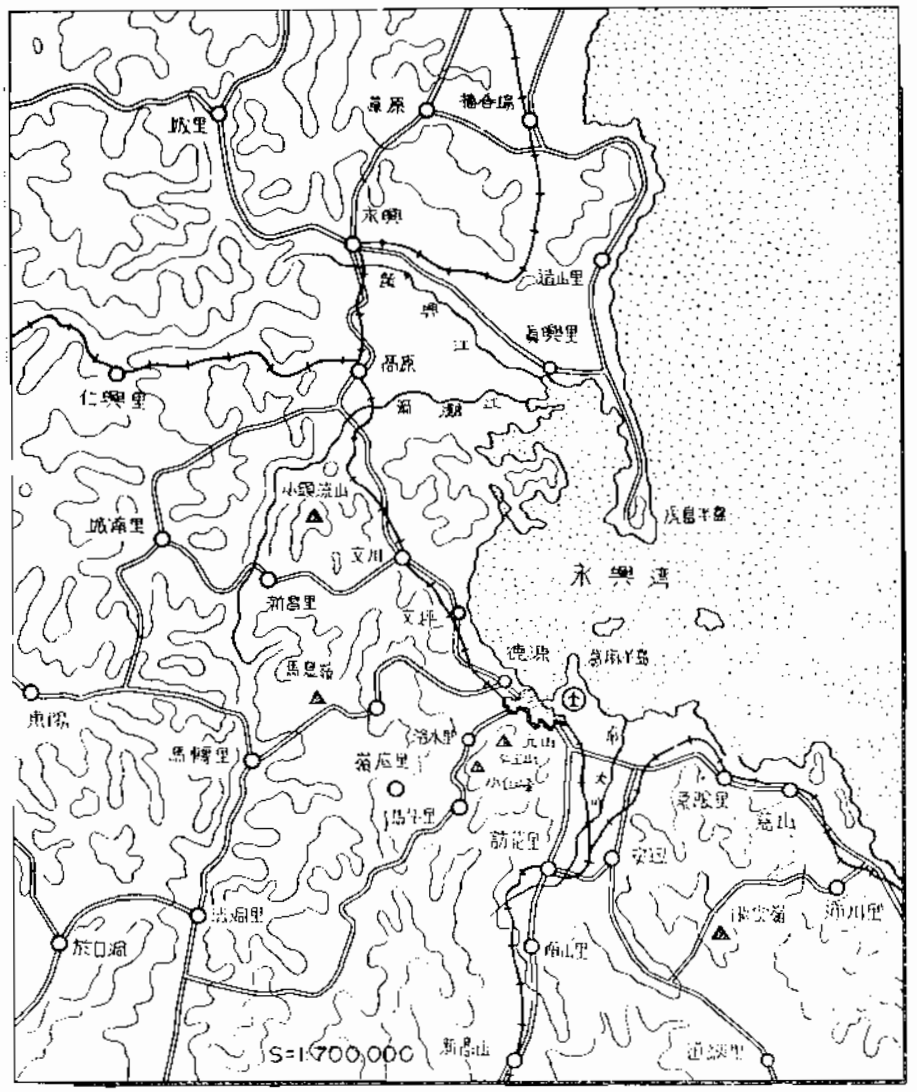
이와같은 항복권고문에 반응이 있을리 만무한 敵은 各戰線에서 陣地固守에 더욱 발악하였고, 특히 元山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20,000명이 훨씬 넘게 추산되는 병력으로써 견고하게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이의 死守를 위해 최후 一戰을 決할 태세로 보였다.

그러나 군단예하 2개사단의 4개연대가 東海와 接해 있는 蓼陰에서부터 元山 西南等 新高山까지 제 23연대—제 26연대—제 1 기갑연대—제 18연대順의 橢圓形으로 布陣을 완료하고, 4개의 공격축선을 형성하여 元山에 육박하게 되었다.

즉 右側 제23연대(장, 金漳舜대령)의 主力부대는 이날 05.00에 蓼陰里를 출발하여 元山

을 향해 진격 중, 月峰山 일대에서 저항하는 敵 약 300명과 조우하여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끝에 月峰山을 점령하고 26명의 포로와 야포 2문, 곡사포 1문, 수냉식중기관총 5정, 책코武경기관총 5정, 기타 소총다수를 노획한데 이어 연대의 일부 先遣부대는 元校洞을 지

상황도 제23호 元山附近 略圖



橋부근에서 南大川을 渡河하여 上沙峯里를 통과, 地境里부근까지 진출하여 元山 攻略의 최후거점을 확보하였다.

제 22연대(장, 金應祚대령)도 15.00에 桑陰里를 통과하여 南大川을 渡河한 다음, 水田地帶를 躍進하여 元山正面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그 중 1개 대대는 地境里부근의 高地에 대하여 夜襲을 감행하고 있었으며, 전날 飛雲嶺(江原道와 咸境南道 道境界)을 점령한 제 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이날 새벽 飛雲里를 통과하여 포병부대가 오히려 수색대보다 앞질러 安邊의 敵을 포격으로 격퇴시키고 安邊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때 敵의 포 12문을 비롯하여 GMC, 씨이드 카, 軍馬등 50餘種의 장비를 노획하였고, 다시 安邊에서 元山을 향해 追擊, 공격하고 있었다.

한편 수도사단 제 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이날 새벽 02.00에 鐵嶺을 車輛陽動戰法으로 돌파하여 新高山을 점령한 다음, 敵 1개 사단용의 장비 보급품을 노획하는 開戰이래 一地點에서의 最大戰果를 올렸으며, (제 2절 新高山 전투 참조) 계속해서 南山里—訪花里를 돌파한 다음, 地境里부근까지 돌입하였고, 제 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의 제 1대대가 道納里를 경유, 安邊에 진격한 다음, 元山으로 지향하고 있었으며, 제 1연대(장, 韓 信중령)는 淮陽에서 新高山으로 진출하여 그 일대의 後方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元山 공격이 目前에 다다르자 제 3사단은 前方지휘소를 廣城에서 桑陰에 수도사단은 前方지휘소를 淮陽에서 新高山에 各各 추진설치하였지만, 각 사단장은 유기적인 작전지시차 前線으로 나가 있었고, 군단장 金白一소장은 수도사단 進擊路에, 군단작전참모 金鍾甲대령은 제 3사단 진격로에 각각 後續하면서 작전지도를 하고 있었다.

10월 10일: 元山市街의 奪還戰은 이날 未明부터 시작되었다. 敵은 元山 南쪽 入口 右側內元山里의 73高地로부터 左側 地境里 일대의 136高地 및 189高地와 그 北쪽의 170高地 및 136高地에서 중첩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견고한 토치카에 적사포와 기관총을 준비하여 완강한 저항을 企圖하였다.

또 同市의 西쪽에는 市街와 港灣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女王山 (△335)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줄기가 市 中心部까지 뻗어 내려와 北望山 (△143)을 이루고 있으며, 北쪽에는 長德山이 市街와 港灣을 南쪽으로 壓制하고 있어서 元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들 主要高地 일대의 敵陣을 先占, 擊滅해야만 하였다.

그래서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은 그 主力부대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로 女王山을

〈我軍의 집중포격에 박살나는 元山市街의 一角〉

점령케 한 다음, 市街로 돌입토록 하였고, 제 3 사단(장, 李鍾賛준장)은 그 主力 제 23연대(장, 金涼舜대령)가 元山市 南쪽 入口에 있는 두 野山을 점령한 다음, 市街戰으로 직접 돌입케 하였다. 한편 제 22연대와 제 26연대는 安邊 北쪽 地域里 일대에서 元山으로 육박케 하였으며, 제 1 기갑연대는 機械化 打擊部隊로서 엄호부대와 함께 機動性을 발휘하여 신속히 전투에 들어 가도록 하였다.

元山入口 東쪽의 제 23연대(장, 金涼舜대령)는 전날에 이어 市街와 接해 있는 斗南里 -見山里線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있다가 이날 未明부터 敵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가면서 침투공격을 단행하여 元山에 突入하였다. 이때 동연대 제 1 대대(장, 金光榮소령)는 제 2 중대(장, 池錫鎬소위)를 先頭로 07.00에 市街戰에 참가하였는데, 이때 제 3 중대(장, 李政洙소위)가 그 左側을 엄호하고 있었다. 池錫鎬 소위는 중대원을 지휘하고 계속 수색활동과 침투를 감행하다가 元山 精油工場 官舍부근에 있는 堤防에서 저항하는 敵을 擊滅하고 10.20에 이르러 精油工場의 국기게양대에 太極旗를 높이 올린 다음, 계속해서 元山부두 倉庫까지 진출하였다. 이날 밤에 대대는 또다시 市內 松島까지 진출코자 하였으나, 전차 3 대를 先頭로 한 敵의 심한 반격으로 말미암아 元山방송국부근으로 陣地를 옮기고 敵의 반격을 擊退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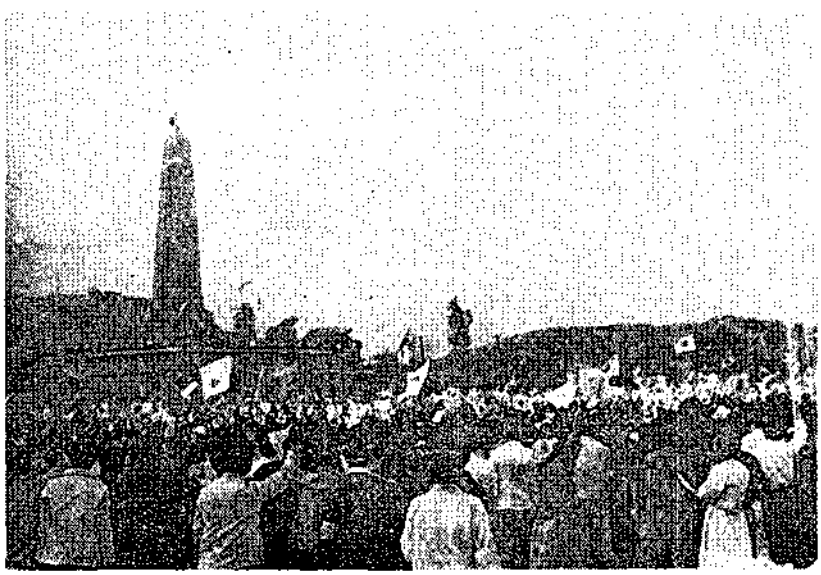
그런데 이 先頭부대인 제 2 중대(장, 池錫鎬소위)가 거둔 이날 戰果는 敵 사살125명, 포로

130명이었고, 차량 17대, 대전차포 3문, 120mm 박격포 2문등을 노획하였는데, 반면 혁혁한 戰功을 세운 池錫鎬소위가 부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서 20명의 戰死者가 나기도 하였다.

또한 동 연대 제3대대(장, 許亨淳소령)는 이날 09.00에 葛麻半島부근을 출발하여 제1대대와 함께 市街戰에 들어갔는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元山驛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때 元山 뒷산 방송국이 있는 高地일대에서 敵의 집중 사격을 받았다. 이에 대대는 전병력을 그곳으로 지향하여 2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다음, 능선일대의 陣地를 점령하였다. 이날 밤 敵 전차 3~4대가 市街에 進入하자 3.5 inch 로켓트포로 일제히 포격을 해 이를 潰走시킨 바 있었다.

그런데 이 제3사단 제23연대는 이날 未明에 이미 元山비행장을 점령한 바 있었다.

한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은 元山西南外廓을 차단하고 女王山 일대의 敵 本據地를 공격하기 위해 이날 未明 05.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를 右一線으로, 제1대대(장, 李吉泳소령)를 左一線으로 地境里 北쪽 高地에서 突擊을 감행하였다. 이때 사단 포병대는 각연대에 배속되어 있는 각 포병대대를 통합지휘하여 培花女子中學校에 砲陣地를 점령하고 敵의 122mm 曲射砲와 76mm 直射砲 등과 對砲兵戰이 전개되었으며, 주로 제18연대의 女王山 점령을 위해 직접지원하고 있었는데, 치열하고도 정확



〈제1군단의 元山入城을 환영하는 市民大會〉

한 포격을 퍼부어 攻勢初動부터 敵의 직사포 12문과 곡사포 2문을 파괴하는 戰果를 올리게 되었으며, 地境里 北쪽 野山에서 차량 5대를 노획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女王山의 敵 鋭鋒이 일단 꺾이게 되자, 제 1 대대(장, 李吉泳소령)와 제 2 대대(장, 金鳳翔소령) 및 제 3 대대(장, 安岐一소령)의 全병력이 공격梯隊가 되어 突進을 계속, 一擧에 女王山을 점령하고 元山防守의 要地이며, 敵 2개 연대의 본거지였던 그들의 最後據點을 壞滅시켜 버리게 되었다. 이어 10.00가 지나 일부 병력은 元山市 一角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동 연대는 이날 地境里—女王山—市街戰을 전개하는 동안 敵 약 2개 연대를 擊破하여 敵 사살이 700여명에 이르렀고, 35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我軍은 전사 2명과 부상 10여명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제 22연대(장, 金應華대령)도 이날 新基里 西北쪽 北大川 堤防에서 地境里까지 진격한 다음, 女王山 南쪽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즉 동연대 제 1 대대(장, 李昌運대위)는 07.00月 浦里를 출발하여 上沙峯里 일대로 진출하여 右側 제 23연대 제 1 대대(장, 金光榮소령)와 공격선을 연결하였으며, 이날 밤에는 방송국 뒷산 117高地를 점령하였고, 제 2 대대(장, 金世洛소령)는 新基里에서 地境里를 경유, 女王山方向으로 진격하여 元山外廓 西쪽의 無名高地를 점령하였는데, 이때에 12문의 直射火器로써 死力을 다해 저항하는 敵을 75mm포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擊破하고 同 高地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安邊에서 南大川을 渡河하여 차량으로 地境里를 통과, 見山里線에서 제 3 사단 제 23연대와 함께 元山에 돌입한 다음, 元山비행장을 목표로 공격하고 있었는데, 元山入口 東南쪽 野山地帶 果樹園일대에 숨어 있던 敵이 전차포 3문과 직사포로써 연대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때 인접 제 23연대는 재빨리 침투공격을 단행하여 집중화력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기갑연대는 이를 돌파하였다. 이때 연대장 白南權대령은 元山入口 道路에서 제 23연대장 金錄舜대령과 不時에 마주쳐 서로 격려와 감의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日産 도요다 트럭을 장갑차로 가장한 機械化 打擊부대로서 敵陣을 돌파하던 主力 제 1 대대(장, 丁世鎭소령)가 元山비행장까지 一擧에 돌진하게 되었다. 이 무렵 비행장에는 파괴된 蘇製 YAK機가 덩굴고 있었으며, 유명한 明沙十里 海邊을 눈앞에 보면서 비행장일대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야간 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이어 後續하던 제 2, 제 3 대대도 부근高地와 市街戰에 돌입하여 全연대가 이날 다음과 같은 戰果를 올렸다.

敵 사살 205명, 포로 55명, 다발총 46정, 장총 20정, 99式 소총 35정, 직사포 2문, 동실탄 500발, 122mm 曲射砲 6문, 동실탄 400發 노획이었는데, 연대의 손실로는 전사 5명, 부상 8명, 차량 파괴 2대등이었다.

그리고 제 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花山里—中花山里 일대에 陣地를 점령하고 제 18연대의 後方에서 敵의 退路를 포위, 공격한 다음, 女王山 西쪽의 敵을 격파하여 이날 오후에는 春山里 일대의 敵을 모두 물리치고 長興里를 거쳐, 小在峰을 향해 육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 1연대(장, 韓 信중령)는 수도사단 예비대로서 新高山 일대의 後方경계에 임하는 한편, 地境里 南쪽 海川里까지 진출하여 부대를 집결하고 차후 명령을 대기하게 되었다.

이날 오후에도 敵은 市街 西北쪽 1~2km에 있는 丘陵지대에서 市內를 향하여 砲火를 퍼부었고, 특히 長德山 및 德源 앞 131高地, 그리고 小在峰 일대의 敵의 저항은 완강하였다. 이러한 戰勢浮動 속에서도 군단 및 사단 수뇌 지휘관들에 이어 KMAG 수석 고문관인 Emmerich 대령등도 元山에 入城하여 戰況을 검토하고 있었다.

또 이날 밤에 이르러 敵은 市內에 潛入하여 我軍과의 사이에 市街戰이 전개되었고, 45mm 대전차포 10門을 앞 세운 敵은 元山飛行場까지 들어 와 일부 건물을 포격하고 격납고가 灰燼되는 바 있었다. 그리고 敵 後方에서는 元山地區의 소위「勞動黨員」들이 근로자를 강제 모병하여 敵의 군수물자 및 탄약운반을 하는데 강제동원하고 그들 방어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

이 무렵 兩個사단 및 각 연대 前方지휘소는 거의 모두가 元山市內에 설치되어 戰果확대 및 殘敵撲滅작전에 임하고 있었고, 군단 後方지휘소는 咸興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날부터 계속 군단사령부 및 보급소를 경비하고 있던 제 22연대 제 3대대(장, 鄭淳服 소령)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엄중한 경계 및 부근일대의 수색활동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我軍의 전격적인 진격에 조직적인 후퇴를 못하고 山岳지대로 잠복하여 유격화되었던 패잔병들이 後方에서 차츰 합류하여, 東海岸沿道를 따라 北上하면서 我軍의 後方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런데 점령된 市內에는 무참히 학살당한 良民의 시체가 부둣가의 數十艘를 비롯하여 新豊里(女王山 東北下麓)뒷산의 T字形 방공호에 약 300명, 그리고 元山 앞바다에 약 230명등 도합 600여명에 이르렀으니, 敵徒의 만행을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元山人民矯化所(교도소)에 소위 사상범으로 수감되었다가 10월 9일 新豊里 방공

〈我軍 入城환영준비에 바쁜 젊은이들〉

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韓俊明 목사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감옥에서 4명씩 1개 조로 묶인 채 新豊里방공호로 끌려 왔을 때 영문도 모르고 혹시 대피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방공호에 들어서면서 학살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어두컴컴한 T字形 방공호 맨 끝부분부터 학살된 시체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으며, 나도 그 시체 위에 묶인 동료와 함께 요란한 총성과 함께 쓰러졌는데, 天幸으로 살게 되어 굴門의 폭파로 2일간 시체와 함께 있다가 국군이 진주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 처참한 元山학살시체발굴작업은 당시 뉴우스 영화촬영대가 촬영하여 「正義의 進擊」이란 題目下에 公開한 바도 있었다.

敵은 후퇴할 무렵 주민들에게 『처음에는 黑人부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日本兵이 들어오며, 맨 나중에야 國軍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모조리 잡아 죽인다.』라고 허위선전에 광분하였고, 주민들을 恐怖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약 9만명에 達하는 元山 殘留市民들은 그간 虐殺, 被拉등 엄청난 困厄을 당하면서도 國軍의 入城을 애타게 기다렸으며, 元山이 奪還되자 그들은 戰塵을 헤치면서 열일한 환영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元山이 점령되자 敵 엄호부대는 元山北方에 아직 殘置되어 있지만 그 主力은 咸興과 馬轉里方向으로 후퇴를 시작한 것으로 보였고, 敵은 결정적인 참패를 당하였으며, 我軍의 豆滿江 진격작전의 거점확보는 물론이려니와 平壤도 그 喉를 졸리는 形勢가 되었다.

10월 11일; 元山에서 강력히 저항해 왔던 敵 제 42사단과 제 249여단, 제 588포병연대 제 599해안경비대, 제 947공병대 및 제 15사단, 제 101연대등 종합 병력 20,000여명은 元山 방어선이 붕괴되자, 德源—文川—高原方向과, 德源—馬轉里—陽德 方向으로 각각 퇴각하기 시작하였고, 元山市를 끝까지 방어하려 했던 제 249여단도 元山市 西北쪽으로 潰走하

여 赤田川 및 長林川 堤防일대와 그 부근 丘陵지대의 천연적 장애물을 이용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我軍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고 있었다. 또 女王山 西北側과 長德山일대도 敵勢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元山 西北쪽 外郭의 抵抗은 아직도 이와같이 완강하자, 제 1 군단장 金白一소장은 이날 市街 일부 殘敵 박멸전을 계속하는 한편, 추격전을 더욱 강화시켜 그 일대를 擊破하도록 하고 병력을 정리하여 일부 攻擊路를 변경, 수도사단은 德源—馬轉里—新岩街道를 추격하여 高原에 진출토록 하고, 제 3 사단은 德源—文川—箭灘街道를 공격하여 高原으로 진출케 하였다.

제 3 사단 제 23 연대(장, 金淙舜대령)는 女王山 東側 稜線일대의 敵 약 2 개 중대로부터 反擊을 받아 한때 前進이 저지되기도 하였으나, 이 敵에 대한 과감한 肉薄戰 끝에 이를 分散, 擊退시켰고, 敵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臥牛里로 계속 진출하여, 21.00 부터는 德源을 향해 공격하게 되었다.

수도사단 제 18 연대(장, 任忠植대령)도 女王山 北쪽및 西쪽의 側背 경계에 임하고 있다가 赤田川 上流인 落水里 부근으로 그 主力을 지향하였다.

또한 제 3 사단 제 22 연대(장, 金應祚대령)는 전날에 이어 계속 추격전을 감행하여 德源을 공격토록 하였는데, 이날 제 1 대대(장, 李昌運대위)는 09.00 에 陽地里의 西側方 高地를 점령하고, 10.00 에 약 1km 北쪽지점에서 반격하는 敵을 격멸시킨 다음, 2 개 중대로 하여금 赤田川 堤防일대를 경계토록 하였다. 동 연대 제 2 대대(장, 金世洛소령)는 元山 市內의 塔高地를 점령하였는데, 이 高地에는 콩크리이트 토치카에 海岸砲를 준비하고 있었고, 박격포 陣地도 있어서 高地 하단에서부터 각개 전투로 돌진하는 한편으로는,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24.00 에 이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고, 海岸砲 5 문을 비롯하여 수냉식기관총등을 노획하였고, 1 개 대대 정도의 敵을 거의 擊滅하고 말았다. 또한 대대는 2 개 중대로 하여금 長德山을 경계토록 하였으며, 동 연대 제 3 대대(장, 鄭淳珉소령)는 陣底에 경계배치하고 있다.

한편 수도사단 제 1 연대(장, 韓信중령)는 전날 집결지인 海川里에서 德源공격을 위해 元山 北쪽으로 부대를 前進시켰으며, 그리고 제 3 사단 제 26 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전날에 이어 春山里—長興里를 거쳐 小在峰의 敵을 공격하였다.

이날 각 사단 포병대는 元山에 집결하여 연대를 일반 지원하고 있었으며, 공병대는 교량

수리 및 道路 보수공사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부터 수도사단 제 1 기갑연대는 元山경비 및 元山비행장 경비에 임하게 되었다.

이날 元山完全占領의 快報에 접한 李承晩대통령은 『元山을 奪還한 국군장병들에게 大成功을 치하하며, 앞으로 더욱 勇進하여 民國의 통일을 달성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要旨의 致賀文을 田性模국방장관에게 보내고 士氣를 高揚시켰다.

또한 美 제 8 군사령관 Walker 중장과 美 제 5 공군사령관 Partridge 소장이 空路로 이날 元山비행장에 이르러 兩 사단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그간의 作戰成果에 대하여 激讚하였을 뿐만 아니라, Partridge 소장은 전투물자 공수사령부에 命하여 22 대의 수송기를 동원 131ton 의 보급품을 다음날 韓國軍에 空輸하도록 하였다.

元山비행장이 사용됨으로써 東部平壤은 戰鬪爆擊機로써 20分 이내의 飛行圈에 들게 되었고, 降雪期前에 韓·滿國境에 地上부대가 도달하기 위하여 美 戰艦 Missouri 號는 東海岸의 城津, 吉州등을 위시해서 東北 要港인 淸津에 80 만 pound 에 달하는 포탄 세례를 퍼부었다.

戰況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항복을 거부하여 이날 『最後抗戰할 것.』을 朴偏軍에 命하였다.

10 월 12 일; 제 3 사단 제 23연대(장, 金漆舜대령)은 전날 臥牛里에서 德源으로 진격하였는데, 그중 新豊里에서 野營한 제 3 대대(장, 許宇源소령)는 이날에 臥牛里를 경유, 初珠里 부근 赤田川 提防일대에서 敵 약 1 개 대대와 치열한 接戰 끝에 15.00 에 이를 擊滅하고 계속 추격하여 城北里 부근의 高地 (△122, △76)를 점령한 다음, 18.00 에 目標인 德源에 진출하였다.

〈방공호 속에서 국군을 환영하는 어린이들〉

제 22 연대(장, 金應祥대령)는 長德山으로부터 이날 德源으로 진격하였는데, 동 연대가 이를 전인 10 일 08.00 부터 이날 21.00 까지 元山奪還戰에서 거둔 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		果	
사살	185 명	120mm 박격포	6 문
폭살	150 명	다발총	52 정
포로	83 명	重기관총	3 정
노획 · 고사포	3 문	99式 기병총	9 정
T-34	1 대	체코式 경기관총	14 정
GMC	2 대	직사포	13 문
대전차포	5 문	76mm 곡사포	4 문
권총	63 정	곡사포 및 직사포 실탄	10 트럭分
소총	40 정		

이에따른 연대의 손실은 전사, 6 명 부상 143 명이었다.

한편 제 26 연대(장, 李致業대령)는 小在峰에서 05.00 에 출발하여 부근에 出沒하는 경미한 敵의 저항을 격파하면서 新洞里 北쪽까지 진출한 다음, 계속 德源으로 진격하였으며, 이날 오후에는 文川線을 향하여 급진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은 군단 左一線에서의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제 18 연대(장任忠植대령)는 이날 未明부터 전날의 陣地에서 공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즉 제 1 대대(장李吉泳소령)는 05.00 에 陣地에서 행동을 시작하여 제 1 중대를 右一線, 제 3 중대를 左一線으로 전개하고 수색 前進 중, 07.00 에 水城洞 LD 를 통과하여 蓋里洞—陵里—落水里를 거쳐 13.00 에 上里洞에 진출하였다. 이때 右側里(德源西쪽 3km) 後山高地(△107, △22)에 2 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버티고 있었으므로 彼我間에 약 2 시간 동안의 교전이 전개된 다음, 대대는 이를 潰散시키고 계속 稜線을 넘어 진격하여 梧木里(長林川 中流) 일대의 左右高地에 陣地를 점령하게 되었다.

또 제 2 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이날 06.00 에 中淸里를 출발하여 13.00 에 龍基洞에 진출,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제 3 대대(장, 安昶一소령)도 06.00에 제 2 대대와 같이 中淸里를 출발하여 長林川의 上流인 池溪里까지 진출한 다음, 四周경계에 임하면서 野營에 들어갔다.

한편 제 1 연대(장, 韓 信중령)는 사단 作命 제103 호에 의거하여 元山, 文川, 平壤에 通하는 三叉路와 德源부근을 점령한 다음, 馬轉里—陽德 방향의 敵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馬牛里—嶺底里를 경유, 金東里에 이르렀을 때 敵 제 4 연대의 패잔병 약 700 명이 이 일대에서 연대의 진격을 저지할 목적으로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대의 電擊的인 공격

〈元山市民들이 國軍入城을 환영하고 있다.〉

으로 敵은 分散, 潰走하여 전투의식을 거의 상실한 채로 馬轅里方面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이로써 元山市 北部의 완강한 敵을 거의 擊滅하게 되었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李承晩 대통령이 丁一權 참모총장등을 대동하고 空路 元山에 이르러, 元山점령에 혁혁한 戰功을 세운 제 1 군단에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이날 UN軍 해, 공군은 蘇聯國境 78km에 접근하여 폭격을 가하였으며, 특히 美戰艦 Missouri號를 중심으로 한 해군 부대의 巨砲는 蘇聯해군基地로부터 불과 192km의 거리인 淸津에 계속 포격을 가하였는데, 兩日間에 500 ton에 달하는 艦砲사격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군사행동은 MacArthur元帥에 의한 새로운 上陸작전계획의 一環이었던 것이다.

10월 13일: 元山방어선 및 德源방어선에 격심한 타격을 받은 敵은 그 主力부대가 이날 文川—高原—永興街道를 따라 北上退却하고 있었는데, 高原을 據點으로 蓋瑪一帶에 방어선을 구축하여 我軍의 北進을 저지하려 하였고, 일부는 元山—平壤街道를 따라 西北方으로 敗退하고 있었다.

제 3 사단 제 26연대(장, 李致業대령)의 先頭부대인 제 1 대대는 이날 文川을 점령한 다음, 主力은 元山—永興街道를 北上 진격하여 元坪里에 진출하고, 제 2 중대는 地境里, 제

3중대는 文坪里를 각각 占領하였으며, 제 2, 제 3 대대는 玉坪里線에 진출하였다.

제 22연대(장, 金應祥대령)는 제 1 대대(장, 李昌運대위)를 黃石山(文川東쪽 5km) 南쪽 2 km 지점에 진출시키고 1개 대대를 공격제대의 後方에서 서서히 北上시켰다.

제 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主力은 이날 德源에서 文坪으로 이동하였고, 연대본부도 이날 元山을 출발하여 德源을 경유, 文坪으로 이동하였다.

또 제 3 사단 제 11 포병대대(장, 宋贊鎬소령)는 각 연대를 직접 지원하였고, 공병대대는 각 연대에 중대를 배속시켜 地雷原 제거 및 元山市街에서 파괴된 전차의 處置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수도사단 제 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이날 10.00에 연대 前方지휘소를 洛水里로부터 古城里를 경유, 19.50에 文陽里까지 추진, 설치하였는데, 이에 앞서 제 1 대대(장, 李吉泳소령)는 古城里에서 徒步로 接敵행군하여 14.00에 文川面 洞邑里에 진출한 다음, 高地일대에 陣地를 점령하고 경계에 임하면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 연대 제 2 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이날 05.00에 龍基里를 출발하여 20.00 文陽里에 진출한 다음, 野營에 임하였으며, 제 3 대대(장, 安吸一소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06.30에 池溪洞을 출발하여, 연대 공격梯隊인 제 1 제대대의 後方을 경계하면서 계속 진출하여 皮可里(文陽 西쪽 2km)에 陣地를 점령하고 야간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이때 敵은 제 2 방어선으로 보이는 高原부근에 집결하여 병력수습과 陣地구축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我軍의 진격을 극력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편 제 1 연대(장, 韓 信중령)는 馬轉里부근에서 元山으로부터 후퇴하는 대규모의 敵을 발견하고 즉시 그 퇴로를 차단하면서 포위, 공격하여 도합 500명을 사살하는 한편, 전차 2대를 파괴, 노획하는 戰果를 올렸다. 또한 敵 제 4 연대의 연대장, 참모장, 작전참모등 고급지휘관까지 사살하여 敵의 조직적인 후퇴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敵 主力이 咸興 및 陽德方面으로 후퇴를 계속하고 있을 무렵, 이미 20여일 전에 敵이 포기하였던 38°線 以南 蘆珍과 三陟 및 曙湖등은 山岳地帶에 出沒하던 패잔함류병이 모두 게릴라化한 약 1개 사단규모의 병력에 의하여 다시 점령되었으며, 그 餘勢를 몰아 我軍의 後方경계가 微弱한 틈을 타서 조직적으로 北上을 企圖하였다.

그런데 이날 陸本作命 제 212 호의 제 3 항을 수정하는 陸本作命 제 212 호 훈령 제 1 호 (作命附錄 제 12 호)를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

『제 1 군단은 美 제 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元山港을 확보하기 위하여 安邊, 龍浦里, 龍灘江 및 龍灘江入口를 주저항선으로 하고, 永興을 확보함으로써 文川—永興—定平—咸興 및 播春場—興南軸線을 따라 진격하여 敵을 섬멸하라.

제 2 군단은 元山으로 계속 전진하여 元山경유, 美 제 1 군단과 合勢하기 위하여 담당지구 내의 陽德—長林里—江東 軸線을 따라 平壤을 향하여 공격, 전진하되, 敵을 분쇄하고 그 지구내 南方 및 北方으로 이동하는 敵을 차단, 격멸하라. 제 2 군단은 필요에 따라 제 1 군단 지구를 통과할 수 있다.』

10월 14일; 전날에 이어 제 3 사단 제 26연대(장, 李敎業대령)는 이날 未明부터 元坪里 부근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先頭부대인 제 1 대대(장, 權用性소령)는 龍灘江일대의 敵을 격파하고 07.00에 高原을 完全 점령한 다음, 계속 北進하여 11.00에 永興을 탈환하였다.

이날 高原을 점령한 다음, 我軍로로의 학살된 현장을 목격한 연대 작전장교 田宗郁소위는 다음과 같이 그 현장 실태를 증언하였다.

『우리 연대가 高原에 一次로 들어 갔는데, 그곳 國民學校 강당및 學校 뒤 野山에 파 놓은 散兵壕에 國軍포로와 良民 20,000여명을 학살하였는데, 油類에 의해 燒死된 채로 放置되어 있었다. 이를 美軍이 헬리콥타를 타고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은 UN 총회에서 敵의 잔인성을 폭로하기 위한 증거품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고 들었다.』

또한 제 3 사단 무대역사철에는 『我軍의 電擊的 진격으로 人民軍은 극히 당황하여 高原邑 第 1 人民學校(國民學校)에서 國軍 포로 약 500명을 학살하였는데, 다발총으로 사격하고 수류탄을 폭파시킨 다음, 휘발유를 살포하여 火葬케 하는 殘忍無道한 학살을 감행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제 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이날 05.30에 野沃里 부근에서 출동하여 海岸을 따라 北上한 다음, 安興里—豊山里線에 陣地를 점령하고 경계 중이었으며, 제 23연대(장, 金漢舜대령)는 전날에 이어 文坪里에 주둔하여 사단 예비대로서 元山에 설치되어 있는 사단 사령부의 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수도사단 제 18연대(장, 任忠植대령) 제 2 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이날 06.30에 文陽里(文川)를 출발, 공격을 계속하여 高原을 경유하여 永興에 진격하고, 17.30에는 店巨里에 陣地를 점령, 야간 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 7 중대 前面에 殘敵이 출몰하여 야간기습을 감행하므로 중대는 즉시 應戰하여 敵을 격퇴시켰다.

또한 동 연대 제3대대(장, 安昶一소령)도 이날 07.30에 文川에서 차량으로 永興을 향해 행군 중 永興 南쪽 1km지점에서 敵 1개 소대 병력과 不時에 부닥쳐서 전투대형으로 즉시 분산, 배치한 다음, 약 2시간의 교전 끝에 敵을 擊滅시키고 부근 高地를 점령하였다.

이와 아울러 연대 前方지휘소는 文陽里에서 本隊를 따라 永興읍으로 推進설치하고 咸興 공격에 대한 준비에 들어 가게 되었다.

그리고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사단 左一線 迂廻部隊로써 전날 馬轉里를 돌파하여 큰 戰果를 올린 다음, 이날 龍浦里—巨里—新昌里를 接敵행군으로 진격하여 川內里(小頭流山 北쪽)에 육박하였다.

한편 11일부터 계속 元山경비의 임무를 맡고 있던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元山비행장 및 元山海등 市周邊일대를 계속 경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군단에서는 수도사단으로 하여금 永興에 部隊를 집결시켜 咸興과 興南에 대한 공격을 준비토록 하였고, 제3사단은 松田半島의 殘敵격멸과 동시에 主力으로써 龍興江 및 德池江 南岸의 殘敵을 撲滅토록 하였다.

한편 美 공군 B-29폭격기는 이날 東洋最大의 興南肥料工場과 그 부근일대에 맹렬한 폭격을 가하였다.

10월 15일; 敵은 永興 방어선이 돌파 당하자 그 北쪽 金津江과 定平부근에 엄호부대를 殘置하고 主力은 咸興方面으로 철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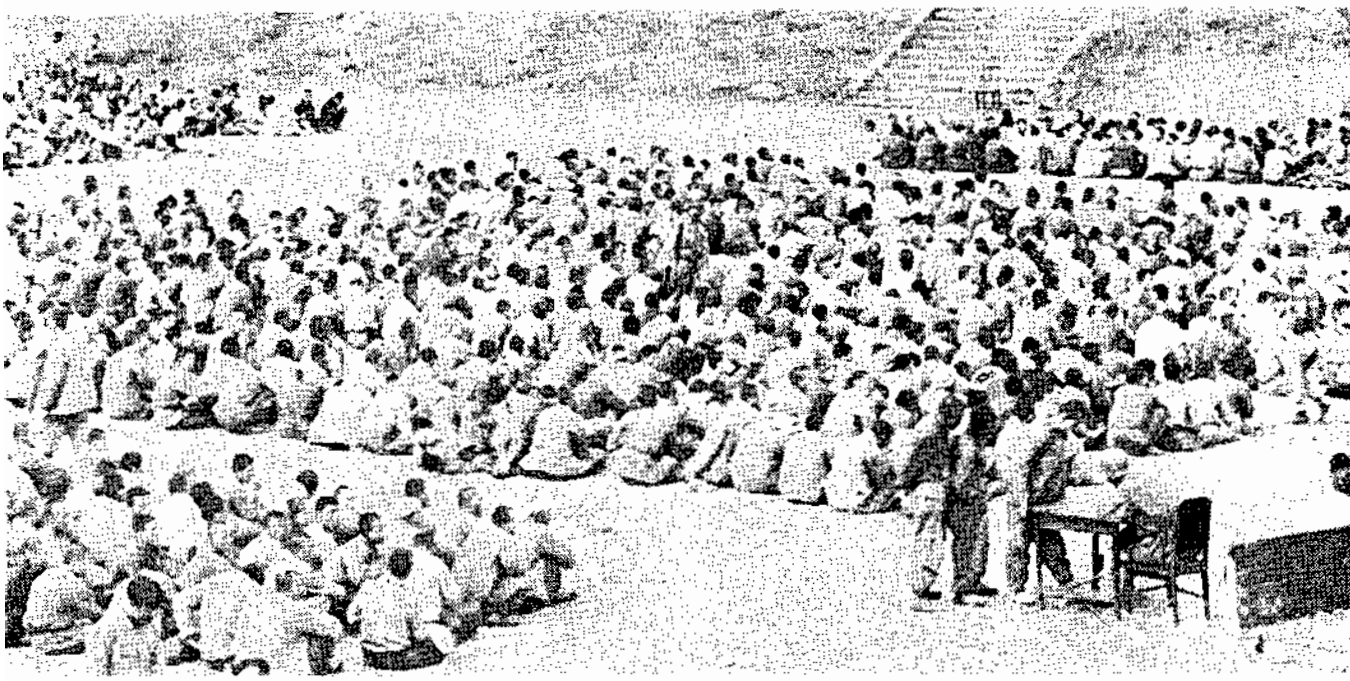
군단은 수도사단을 永興 北方으로 진격시키고, 제3사단을 高原—松田半島부근의 殘敵격멸과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에 있어 엄호부대로 계속 元山을 방어케 하였다.

즉 수도사단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永興에서 이날 播種場과 접해 있는 金津江 부근까지 단독 진출하고, 金津江의 要衝인 橋項里와 新興里를 점령하여 定平, 咸興공격을 위한 작전 기반을 확고히 조성하였다.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이날 11.00에 川內里를 경유, 高原에 진출하고 사단 作命에 따라 興南 方面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제3사단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제1대대(장, 李昌運대위) 및 제2대대(장, 吳正祿소령)는 元山부근 및 安邊을 경비하고 있었고, 동 연대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는 계속 咸興에 주둔하면서 後方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제23연대(장, 金錫舜대령)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와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이



〈我軍의 北進대열에서의 北傀포로들〉

날 文坪里에서 출동하여 松田半島와 安興里부근을 수색하였으나, 敵情이 없어 南으로 이동하여 秀達里(文坪 西北쪽 2km)에 집결하였으며, 제3대대(장, 許宇淳소령)는 德源—陽德間의 馬息里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제3대대는 補給의 확보와 道路경계 및 後方으로부터 철수하지 못한 敵 패잔병의 퇴로인 馬息嶺 고개를 차단하여 敵을 擊滅할 목적으로 계속 경계에 임하였으며, 연대본부는 文坪里에서 德源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棠대령)의 主力은 高原에 집결하고 있다가 일부 병력이 蘆灘江(一名 살여울江)의 南岸에 배치하여 그 일대를 방어하고 있었다. 또 한편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5일간의 元山경비임무를 맡고 있다가 이날 永興으로 이동하여 咸興공격을 위해 戰力을 結集하고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1군단(장, 金白一소장)의 元山奪還作戰은 10월8일 通川—淮陽線에서 시작되었다. 군단 右側의 제3사단(장, 李鍾贊준장)은 通川—桑陰—高麗—元山의 右軸線과 槐花里—新川—飛雲嶺—安邊—元山의 左軸線을, 군단 左側의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은 化川—道納里—安邊—元山의 右軸線과 淮陽—

新高山—訪花里—元山의 左側線등 四個 攻擊路를 並進하여 10월 10일 未明에 元山 西南等의 敵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市街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 10월 15일까지에는 松田半島—永興—高原—新昌里—馬轉里—安邊을 연결하는 元山 西北方 30~50km 馬蹄型 外線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敵의 主力은 咸興 및 興南方面으로 退却하여 최후의 決戰을 企圖하려 하였고, 그 일부는 平元街道를 따라 후퇴하여 군단의 平元線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 제1군단의 元山地區 점령은 전략상 적어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京元線및 金川—伊川—馬轉里街道를 차단하여 39°線南北을 연결하는 交叉點을 확보하므로써 敵의 이동 및 보급수송을 저지하였고,

둘째는 元山—高原—陽德—順川—平壤을 잇는 平元鐵道와 元山—馬轉里—陽德—成川—江東—平壤을 연결하는 幹線道路의 分岐點을 확보하여 赤都 平壤의 右側方을 위협하였으며,

세째는 永興灣과 元山비행장의 확보로 海上수송을 원활케 하는 한편, UN 공군의 前進基地 北上으로 北韓지역에 대한 작전반경을 확대시킨 것이다.

이상과 같은 大戰略的基地의 확보는 오직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상호 원활한 협동작전과 전 장병들의 勇戰奮鬪한 결과이었다.

이에 군단의 전 士兵들에게는 1계급 특진이라는 영예가 주어졌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방장관, 美 제8군사령관 등 韓·美軍 수뇌진이 급거 元山으로 向發하여 激讚과 慰勞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 UN軍 사령부에서는 平壤奪還작전의 一環으로 美 제10군단을 元山에 上陸시킬 계획을 끌내고 있었다.

곧 10월 20일을 上陸目標日로 설정하였는데, 이미 10월 10일 군단이 元山奪還에 성공하자 제7함동기동함대는 永興灣의 掃海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어 軍團은 美 제10군단의 上陸작전을 지원 엄호하기 위하여 제3사단으로 하여금 元山地區 방어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수도사단에 단독으로 咸興街路를 北進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3사단은 제22연대로 하여금 元山—安邊—德源 일대를, 제23연대는 文坪—德源—馬轉里 일대를, 제25연대는 高原일대를 각각 경계토록 하였고, 수도사단은 10월 15일 현재 咸興 및 興南을 목표로 제18연대를 先頭로 永興 경유, 定平 南等 金津江線을 돌파하여, 咸興을 향해 一路 追擊하고 있었다.

이 무렵 군단사령부는 元山에 있었고, 제3사단 사령부는 文坪에 위치하였으며, 수도사단 사령부는 戰線의 北上에 따라 본부를 元山에서 永興으로 이전시켜 다음 작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3사단 장 李鍾贊준장

(1970. 6. 17 코리아 엑지니어링社 社長室에서 에·윤광)

元山탈환시의 제3사단과 수도사단의 boundary는 南大川에 진출했을 때, 金白一 군단장이 변경시켰는데, 당시 5萬分의 1지도가 없어 명확한 지역구분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敵 정보가 『元山에는 54,000명의 적병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사단을 南大川線에서 일단 정지시켰다가 제23연대가 10일 03.00 元山비행장을

확보한 뒤 총 진격을 개시하였는데, 元山南部에서는 별로 큰 저항을 받지 않고 돌입하였다. 元山市內에서는 수도사단과의 boundary가 道路를 중심으로 정해졌으나, 지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옆에서 공격하는 敵에게 100여명에 가까운 我軍이 손상을 입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元山市의 탈환은 그 先後問題로 하여 말들이 많지만 사실상 수도사단과 함께 이룬 戰果이며, 단 作命上 元山은 제3사단에 할당된 작전지역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한다.

◇ 제3사단 병참부 출납관 吳德根

(1966. 7. 19 제3병참단에서 · 대위)

北進時 특히 副食調達은 지역마다 조직된 自衛隊를 통하여 現札로 구입하는 것이 通例였다. 그런데 부대의 진격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부대위치를 못 찾아 쩔쩔매는 등 부식지원문제는 여간 곤란하지 않았다.

한번은 咸興에서 元山부근의 부대에 부식을 보급하기 위해 가는 도중, 敵 落伍兵들이 道路邊에 숨었다가 기습하는 바람에 보급품의 손실을 없었지만 몇사람의 병사가 손상을 입었던 일이 있었다.

당시 대개의 보급추진은 25km를 적하기가 일수였고, 밤에도 했는데 밤에는 불을 켤 수 없이 더욱 곤란했었다.

◇ 제3사단 제22연대 장 金應祚대령

(1966. 2. 15 統一青年團長室에서 · 문장)

제3사단의 boundary는 安邊에서 葛麻半島에 연하였다. 최초 제23연대가 右一線을, 제26연대가 左一線을 담당하여 공격하였으나,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제23연대는 明沙十里 海邊으로, 제26연대는 安邊으로 위축 당하였다. 이에 제22연대가 中央部에 투입되었는데, 이곳은 開豁地로서 논에는 빗단이 쌓여 있었다. 散兵거리를 10~20 yard 씩 두고 빗단을 가리고 散發的인 各個躍進을 계속하여 射程거리까지 진출하였다. 그 무렵 安邊 元山街路에 수도사단의 트럭 30여대가 敵前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敵으로부터 直射砲 사격이 집중되어 되돌아 간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敵의 砲位置를 발견하고 인호사격을 요청, 우리 연대가 가지고 있던 煙幕彈과 海岸砲의 지원을 받아 돌격했다. 여기서 우리는 敵砲 20여개를 노획하였거니와 이로 인해 敵의 主力이 퇴각하자 이 틈을 타서 수도사단은 40여대의 트럭으로 元山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수도사단 병력은 葛麻까지 갔다가 敵 탱크와 사격을 받고 후퇴해 버렸는데, 이때 수도사단 元山점령이라 打電한 것이다. 이를 들은 金日一장군은 元山을 탈환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안 된 것을 보고 宋堯讚장군을 葛麻의 한 에배당에서 나무란 적이 있다. 우리 연대는 계속 女王山을 목표로 전진, 左翼하여 停車場을 점령하므로서 敵은 江쪽으로 퇴각하였다. 이에 나는 1개 대대를 비행장으로 보내서 敵 YAK戰 4대를 노획하였거니와 17.00부터 이튿날 03.00까지 敵의 高射砲陣地를 완전 탈환하였다.

이리하여 連團長이 나로 하여금 元山地區司令官으로 임명하였고, 美 제10군단장 Almond장군은 군단 위병소대를 나에게 부탁하여 보낸 적이 있다.

◇ 제3사단 제22연대 제7중대 李云鎬중사

(1965. 8. 12 제3사단 제29연대)

10월 10일 元山에 들어갈 때는 수도사단 제1연대와 합동작전을 하였다. 우리 연대가 市街에 제1번째 돌입하였으나, 이날 市街를 완전 점령치는 못했고, 약 4/5정도 탔은 셈이었다.

그곳의 어느 큰 學校에 주둔하여 2~3일간 있

었는데 여기서 사단 전체가 1계급씩 특진하고 배낭, 작업복등이 처음으로 수령되었다. 나도 여기서 一等中士가 되었다.

◇ 제 3 사단 제 23 연대장 金淙舜대령

(1965. 12. 7 國防大學院에서 · 소장)

우리 연대가 明沙十里를 점령한 것은 10월 9일 15.00이었다. 그러나 元山을 완전 점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報告를 미루기로 하였고, 더우기 당시 내 생각에는 다음 날인 10일은 中國의 各節인 雙十節이기도 하여 雙雙十節을 만드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아 10월 10일 10시 10分에야 元山의 完全占領을 보고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누가 먼저 入城하였느냐?」하는 문제로 군단장과 고문관이 다투기도 하였지만 우리 사단이 먼저 들어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군단장은 雨쪽의 士氣를 돋구기 위하여 同時入城이라 했을 뿐이다.

元山점령 후 1개 대대는 德源—平壤街道上의 馬息嶺에, 1개 대대는 德源에 각각 배치하고 1개 대대만을 나의 元山防衛司令部에 두었다. 그런데 馬息嶺에 배치되었던 1개 대대는 敵 1개 사단 병력이 후퇴 중 기습해 와 많은 손실을 입었다.

◇ 제 3 사단 제 23 연대 제 1 대대 朴漢鎭이병

(1966. 3. 3 육군본부 보병과에서 · 중령)

元山에 들어가기 전 8km 지점에서 부대가 집결한 뒤 세력을 기해 공격을 개시, 敵의 저항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많았다. 이에 공병들이 이를 제거하고 나무를 세워 길을 표시해주므로써 여기를 통과할 수 있었거니와 南大川은 물이 무릎까지밖에 차지 않았다.

元山 쪽에서는 敵의 82mm 박격포탄이 날라왔으나, 정작 市街에 들어가서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고, 단 元山 뒷高地로부터 사격을 받았을 뿐이다. 처음 들어간 곳은 鐵道官舍, 거기서 元山의 南山을 점령하였을 때는 17.00을 지나서였다. 이날 밤 숭도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곳을 출발 1km쯤 행군했을 무렵, 前方으로부터 敵 전차 3대가 나타났다. 우리는 배낭을 전체 道路邊으로 산개하였는데, 맨 앞에서 가던 제 3 중대의 사병10여명은 전차의 사격에 부상을 입었다.

당시 2.36 inch 로켓트砲는 있었으나, 3.5 inch 로켓트砲는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치 못하고 분산해 있다가 전차가 市內로 들어간 뒤 다시 元山驛前으로 되돌아 갔다. 이 敵의 전차를 잡은 것은 우리 연대의 모중대로 그들은 교량을 끊고 전차를 잡아 태워 버렸었다.

그런데 특히 이날밤 주둔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敵의 보급소를 하나 발견,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중이라 敵은 겉은 雨衣를 꺼내 입고 있었는데, 敵의 지스車로 수도원 쪽에서 부상자를 운반하던 我軍이 우리를 발견하고 敵으로 오인하고 사격해 왔다. 이로 인하여 우리 중대원 2~3명 손실 당하고 곧 서로가 알게 되어 싸움은 끊겼지만 당시 느낀 것은 敵의 물자를 남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 제 3 사단 제 23 연대 제 3 대대 장 許亨淳소령

(1964. 12. 4 서울商工會議所連盟部長실 에 · 대령)

우리는 明沙十里를 거쳐, 飛行場은 점령한 뒤 09.00, 우리 대대가 先頭로 入城하여 市內에 태극기를 올렸다. 元山의 주민들은 집집마다 방공호를 파고 집을 비우고 토굴 속에 들어 가 있었다. 이날 밤 市內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國軍인지 敵인지를 몰라 환영치를 않았고, 또한 敵이 선전하기를 「강간을 하고 도둑질을 한다.」고 해서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였으나, 대개가 처음에는 꺼려 하였다. 元山市內의 한 敎會堂에는 200여구의 良民 시체가 있었고, 뒷산에도 4~50명의 시체가 있었다.

이날 수도사단은 元山의 뒷山을 점령하였다. 우리 대대는 그뒤 元山—陽德街路上의 馬息嶺에 배치되어 道路경계와 주요급로 확보 및 敵 패잔병 섬멸 임무를 담당하였다.

◇ 제 3 사단 제 26 연대장 李致業대령

安邊전투 安邊을 향해 진격 중 江原道와 咸鏡南道의 道境인 飛雲嶺을 통과할 때는 고문관 Smith 대령과 같이 넘게 되었는데 한 밤중에 飛雲嶺의 고개마루에서 갑자기 前方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主力부대를 산개시키고 應射를 못하도록 명령한 뒤 상황을 주시한 결과 通信이 두절되었던 우리의 선견대가 飛雲嶺을 점령한 뒤 陣地에 가던 중 당황하여 사격한 것이었다. 아는 연락이 되지 못했던 당시의 사정으로는 불가피한 한 순간이기도 하였다.

다시 부대가 새벽녘에 飛雲嶺을 출발하여 飛雲里를 통과할 무렵이었다. 敵情보고에 의하면 「安邊에는 敵의 旅團병력이 집결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1개 연대병력으로 敵과는 衆寡不敵의 弱勢였다. 그러나 당시 연대의 장병들은 士氣가 충천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猛進擊의 여세를 몰아 계속 敵陣을 돌파, 10.00 安邊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敵이 물러간 곳에는 敵의 시체가 여기저기 散在해 있었고, 그들이 버린 遺棄장비, 또한 많았다. 이곳에서 비로소 우리 장병들은 아침을 먹었고, 次期戰을 위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있었는데, 西南쪽의 街道를 따라 수도사단 장병들이 이곳에 당도하였다.

특히 이날 밤 우리 연대의 後續부대는 飛雲嶺에서 敵과 조우하여 500여명의 敵을 포로로 하여 도착하였는데, 위생병 2~3명 당 4~50명이 인솔되었거니와 포로들은 총과 수류탄을 그대로 소지한 채였다.

이날 낮부터 사단본부와 우리와는 通信連絡도 두절되어 있었고, 補給도 끊어져 있었다.

◇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

(1964. 11. 27 自宅에서, 예. 증장)

우리 사단은 元山 西쪽 敵의 주요 거점인 女王山을 공격, 점령하였는데, 이는 元山지구를 방어하는 敵에게 결정적 타격을 준 공격이었다. 이때 제 3 사단 제 26 연대가 後續 진출하였다. 兩個 사단이 元山을 공격하였으므로 점령시간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군단장이 同時점령이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東海岸 沿道便을 진격하는 제 3 사단에는 外信記者등 報道陣이 종군하였으므로 報道에 있어 우선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나는 新高山方向에서, 제 3 사단장 李鍾賢준장은 海岸線방향에서 元山으로 각기 진출하다가 그 入口 交叉路에서 마주친 적이 있고, 元山점령 후 어느 사단이 먼저 점령했느냐에 대하여 군단장께 항의한 일도 있었다.

◇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棲 대령

(1971. 3. 29 電話接受, 예. 소장)

元山을 점령한 다음, 그날 밤 美軍問官과 夕食을 같이 하던 자리에서 연대 정보참모의 「敵 전차 3대 침입」이란 보고를 받았다. 이것은 敵이 후퇴를 위장하기 위한 교란작전일 것으로 看破하고 연대수뇌중대로 하여금 이를 捕獲토록 하였는데, 그중 2대는 노획하고 1대는 破壞하였다.

당시는 軍事地圖가 없는 가운데 작전하여 애로를 많이 겪었으며, 특히 元山을 점령할 때는 上部로부터 戰鬪地境線이 明記되지 않아 점령 후 약 1시간 동안 제 3 사단 제 23 연대와 일시적으로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연대 政訓部에 對民관계를 전적으로 전담시켜 住民에 對하여 宣撫工作은 물론 敵의 소비조합물자를 장악하고 잘 관리하여 對民 구호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단 시일 내에 民心을 안

정시키고, 大韓民國에 대한 忠誠心과 國軍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시켰다.

◇ 제 1 연대장 韓 信중령

(1965. 8. 7 제 6 군단장실 소장)

제 1 연대는 新高山을 경유하여 安邊에 진출한 다음, 단발령을 넘어서 馬轉里를 공격하였다. 그 후 馬轉里 北쪽을 진격하여 高原方面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襄陽진격은 수도사단이 앞 섰으나 元山진격은 제 3 사단이 먼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제 3 사단이 앞 섰으니 수도사단은 꼭 뒤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동될 수도 있는 상태이었다.

◇ 수도사단 작전참모 李 龍소령

(1967. 2. 24 交通部에서 예 · 소장)

元山先占 문제에 대하여 수도사단과 제 3 사단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海岸 쪽으로는 제 3 사단이 進入하였고, 新高山에서부터 수도사단이 女王山 쪽으로 進出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피차 확실히 확인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군단장 金白一소장이 말썽이 많으니까 『10 월 10일 10 시에 兩사단이 同時에 入城했다.』 라고 하였다.

◇ 제 1 기갑연대 제 1 대대장 丁世鎭소령

元山을 점령한 다음, 明沙十里 飛行場을 경계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에 진출하여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대대원들에게 會食과 약간의 음료도 허락하였는데, 그날 밤 敵의 역습에 대비하여 陣地변동을 위해 일시 後方으로 이동하라는 작전지시를 받았으나, 대대의 형편상 이동이 곤란하여 끝까지 死守하겠다고 하였다.

그런 다음, 哨兵들에게 如何한 일이 있드래도 명령없이 行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후, 계속 動態를 살폈다. 그때 敵의 전차가 비행장부근으로 들어 와 위협사격을 가하다가 다시 나갔는데, 이는 我軍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새벽에 我軍이 다시 들어 올 때 우리 대대는 側方지원을 해 주게 되었다.

◇ 수도사단 기갑연대 金汝珠

(1966. 5. 9 조달감실에서 · 上士)

元山에 入城하여 明沙十里비행장을 확보하고 있을 때, 市內에는 市街戰이 전개되고 있었다. 비행장에는 敵의 비행기 4 대와 蘇製 지스車가 있었는데, 도두 파괴된 것이었다. 市街戰이 끝난 다음에 피혁공장의 복구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현물세 창고에서 白米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혁공장 복구사업을 주민들이 도와준 것에 보답 하여 많이 나누어 주었다.

이 피혁공장은 주로 군화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복구하여 하루에 200 켤레의 군화를 생산하였고, 군단장도 시찰하였다.

◇ 제 1 연대 제 3 중대장 朴鍾熙중위

(1966. 3. 23 陸本에서 · 대령)

元山 점령이 끝난 다음, 敵이 平壤方面으로 후퇴하는 것을 추격하기 위해 馬轉里로 진격하였다가 이 부근에서 敵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敵인지 我軍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彼我 복장상태가 일률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敵은 我軍의 진격 때는 山間으로 피해 있다가 我軍이 통과하고 나면 다시 내려와 道路를 따라 후퇴하기도 하였다. 先頭로 진출한 제 2 대대와 행군 거리가 약 1km 이상 떨어졌을 때인데 이때 60여 명의 敵이 중간에 나타나 後續부대가 없는 줄 알고 道路를 이용하여 후퇴하려다가 대대에서 이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我軍으로 착각하였다가 곧 敵임을 확인하고 40여명을 사살하고, 20명을 포로로 하였는데, 이들은 元山에서 싸우던 敵의 간부급들이 平壤으로 후퇴하려는 것임을 포로의 진술에 의해 확인하였다.

4. 韓國 海軍의 北韓海域進擊(50년 10월 1일부터 50년 11월 30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24, 25 호

我軍의 총반격전이 시작되자 敵은 불과 1주일도 못 가서 괴멸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UN軍과 韓國軍의 지상부대는 패주하는 敵을 추격하면서 38°度線을 넘어 北進을 계속하여 10월 26일에는 벌써 我軍의 일부는 鴨綠江邊의 楚山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동안 韓國 해군은 UN해군과의 협약으로 37°線 以南에서만 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진격하는 地上부대를 엄호하며 地上戰을 돕기 위하여 北韓海域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東海岸에서는 長箭과 元山으로, 그리고 西海岸에서는 鎭南浦에 해군 前進基地를 설치하여 海上작전의 근거지로 삼으면서 北韓지역으로 진격한 我軍에 대한 보급물자수송과 海岸경비에 임하였다.

특히 元山港과 鎭南浦港은 北韓의 東西海岸에서 가장 항만시설이 잘 갖추어진 좋은 港口로써 我軍의 北進작전에 있어서 海軍前進基地로서는 그 地理的인 위치로 보아 北韓地域의 中心地로서 모든 條件에 구비된 곳이었다. 또한 兩 港口는 北傀海軍의 基地로서 각각 衛戍司令部가 있던 곳이기도 하였다.

10월 9일에 우리 해군은 처음으로 海本作命 갑 제202호로서 元山南方 약 91km 지점에 위치한 長箭에 前進基地를 설치하기로 하고 補項경비부 사령관인 南相徽중령으로 하여금 長箭 前進基地 사령관을 겸무케 하였다. 南중령은 鎭海에서 해군 1개 중대를 출동시켜 FS 永登浦號에 탑승시킨 다음, 704艦과 510, 516艇의 호송 아래 14일 12.00 長箭港에 入港하여 基地를 설치한 후 港內掃海를 실시하고 長箭부근의 항만경비에 임하였던 것이다.

韓國軍 제 1군단이 元山을 탈환하게 되자 해군본부에서는 元山港으로 基地를 前進시키고자 하였으나, 일대에 무수한 機雷가 부설되어 이의 掃海작업이 없이는 前進이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長箭基地 사령관인 南相徽 중령은 長箭基地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여 오던 중 元山港일대의 機雷掃海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18일에 해군본부의 命에 의하여 長箭의 基

地要員을 FS 永登浦號에 탑승시켜 가지고 元山港으로 航進하여 港內에 무사히 入港함으로써 敵의 東海岸의 해군 中心基地였던 元山에 우리의 前進基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元山基地는 市街地가 길고 항만이 큰 까닭에 1개 중대의 병력으로는 基地경비가 곤란하였으므로 해군본부에 증원부대를 요청하였던 바, 2개 중대병력이 그 후 801艦으로 증원되므로써 元山基地의 경비임무는 만전을 기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東海岸일대에는 敵이 부설한 機雷가 많았다. 釜山에서 浦項까지는 我軍의 경비가 철저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迎日灣 北方 6 mile 海上과 月浦前方 2 mile 海上에는 敵이 부설한 水中부설 機雷 20개가 발견되었고, 亞山近海海岸일대에는 약 30개의 水中機雷가 부설되고, 注文津과 東草海岸에는 많은 機雷가 부설되어 있었다. 또한 長箭港 北方에서는 4개의 機雷가 발견되었고, 元山港일대에는 약 1,000개의 機雷가 부설되어 있어서 東海岸을 항해하는 艦船들은 최소한 海岸에서 10mile 밖을 항해하여야 하고, 도중 寄港은 浦項, 鎭海와 馬山 뿐으로서 그 以北으로의 항해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釜山을 出港하여 元山外港까지는 沿岸에서 正橫으로 12mile 이상으로써 항행하여야 하고, 또한 10월 30일 이후부터 元山港에 入港하려는 艦艇들은 元山 外港 39～18～36N, 128～03～24E 海點에 있는 美 艦艇의 水路지시를 받아야만 元山港에 入港할 수가 있었다.

또 11월 1일 이후 元山港으로부터 城津港에 入港하려는 모든 艦艇은 39～18～36N, 128～03～24E 海點에서 40～28N, 129～21E 海點을 통과하여 40～40N, 129～13～15E 海點으로 도달하여야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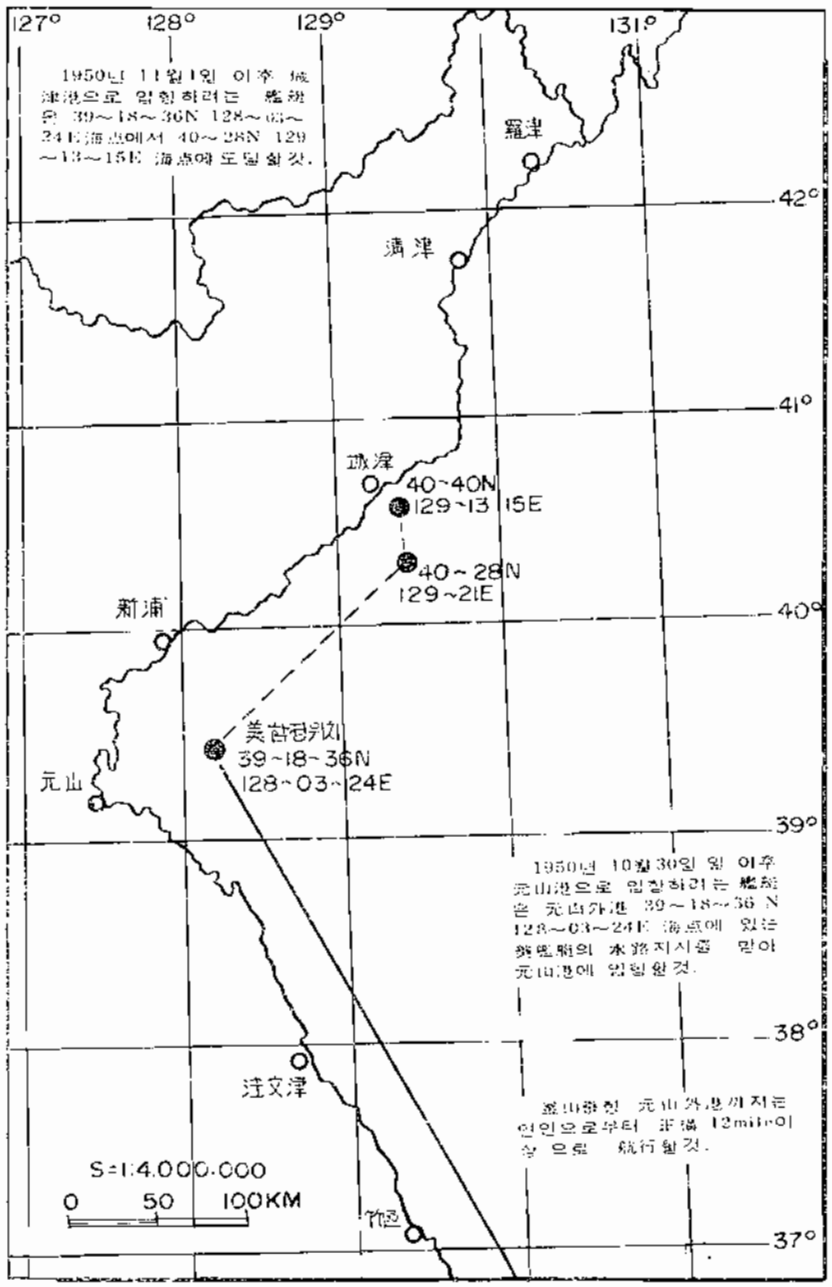
그리고 11월 29일 美 극동함대사령관대리로부터 韓國 해군 작전참모에게 전달된 선박운행지시사항을 보면 釜山에서 元山으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敵이 부설한 機雷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의 航路를 이용하여야만 그 운항이 가능하였다.

34～56N 129—20E　　35～50N 130～00E

37～12N 130～00E　　39～19N 128～28E

앞의 최후지점으로부터 모든 艦艇은 元山港灣선박지휘소가 있는 39—18.6N, 128～03.4E 海點을 향해서 航行하면서 美 船舶碇泊指揮所로부터 元山 入港을 위한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아야 하며, 단일 이 船舶碇泊指揮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39～18.6N, 128～03.4E 海點에서 더 이상 진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리고 元山을 出港할 때에는 入港시의 반대항로를 취하면 되었다.

상황도 제24호 東海岸 (元山—城津)진격항로



또한 釜山으로부터 興南으로 항행하는 각 선박은 機雷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로가 해군본부로부터 시달되었다.

34～56N 129～20E

35～50N 130～00E

37～12N 130～00E

전술한 지점으로부터 각 선박은 興南港灣船舶碇泊指揮所가 있는 39～36N, 128～16E 海點을 향해서 항행하여야 하며, 여러 선박들은 그 船舶碇泊指揮所로부터 興南入港을 위하여 모든 지시를 받아야 되고, 만일 지시를 받음이 없이 39～36N, 128～16E 海點에서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되었다. 興南을 出港할 때에는 入港시의 반대항路로 항행하여 36～36N, 126～16E 海點에서 지정된 다음의 港口를 향해서 航海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城津港으로 항해하는 각 선박들은 다음 사항의 지시에 따라서 航海하여야만 되었다.

(1) 우선 40～28～24N, 129～23～12E 海點을 향해 항행하면서 접근할 것.

(2) 제 2 부표를 향해서 330°의 航路上을 0.5 mile 로 항행할 것.

(3) 제 3 부표를 향해서 330°의 航路上을 0.84 mile 로 항행할 것.

(4) 제 4 부표를 향해서 330°의 航路上을 0.92 mile 로 항행할 것.

(5) 제 5 부표를 향해서 326°의 航路上을 1.1 mile 로 항행할 것.

(6) 제 6 부표를 향해서 329°의 航路上을 1.32 mile 로 항행할 것.

(7) 제 7 부표를 향해서 324°의 航路上을 1.03 mile 로 항행할 것.

(8) 제 8 부표를 향해서 332°의 航路上을 1.14 mile 로 항행할 것.

(9) 제 8 부표로부터 城津港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지시되어 있으며 부표는 灯色으로서 그의 上部는 번호가 기입되고 둥굴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지시사항을 지키면서 城津港으로 入港하는 각 선박들은 부표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그중 어떤 부표가 없거나 정당한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군 작전본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西海岸方面에서는 38°線을 돌파한 韓國軍과 UN軍은 커다란 저항없이 敵의 赤都였던 平壤을 10월 20일 탈환한 다음, 主力은 北進을 계속하고 그의 일부는 鎭南浦를 수복하게 되었다.

당시 東海岸에 前進基地를 설치하였던 韓國 해군에서는 11월 4일 鎭海로부터 우선 30명

의 병력을 陸路로 鎭南浦港으로 보내어 敵이 후퇴하여 텅 비어 있는 항만과 부근에 대한 海上감시를 실시케 하여 오다가 동 17일 FS 原州號를 鎭南浦前進基地에 배치하여 일층 基地駐屯隊를 보강하고 해군前進基地 설치에 따라 北韓으로 진격한 UN軍 및 韓國軍의 보급수송임무를 수행하여 동시에 海岸지역의 확보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로써 鎭南浦基地는 西海岸의 유일한 前進基地로써 地上軍의 海上補給基地가 되었다.

지금까지 海上에서도 韓國海軍에 대한 北上이 저지되어 왔으나, 地上軍의 北進에 따라 이것은 자연히 해소되어 西海岸에서는 10월 20일부터 鎭南浦港으로 항행하려는 모든 艦艇들은 群山近海까지는 임의로 航路를 취할 수 있으나, 群山近海부터는 37~00N 124~00E A海點에서 38~42N, 124~15E B海點을 통과하여 38~42N 124~42E, C海點으로 항행하여야만 되었다.

이 海點에서는 美 艦艇 Forrest Royal(DD 872)號의 航路지시를 받아 가지고서 海上掃海가 완료된 약 500m가 되는 水路를 통과하여 出入港을 하여야 하며, 특히 A海點에서 B海點間을 항해할 때에는 절대로 航路를 東쪽으로 항행하여서는 안 되었다.

그동안 西海岸의 鎭南浦로 진출한 韓國 해군에서는 11월 22일 06.00를 기해서 鎭南浦를 출입하는 모든 艦艇에게 敵의 부설한 機雷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고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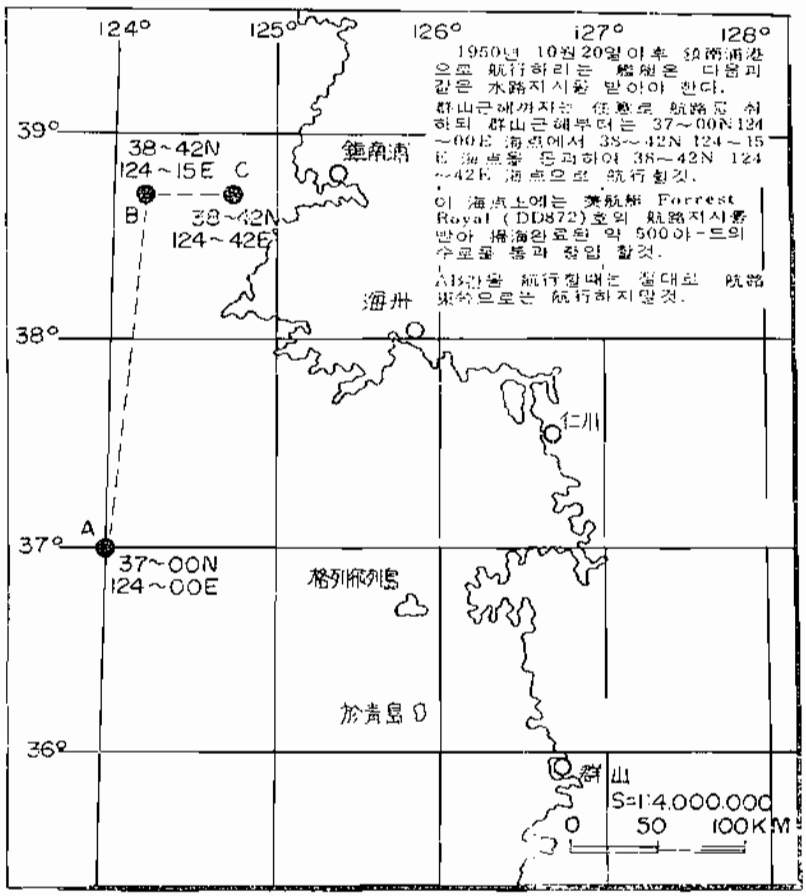
즉 航路의 起點과 목표海點을 담배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최초의 항만입구지시선의 위치는 38~07N1, 24~15E 海點에 있으며, 이 곳을 Lucky라고 칭하고 출입하는 艦艇들에 대한 항로지시를 위하여 항만입구지시선이 있다.

이 Lucky海點에서 침로 83°로 航行하여 거리 22 mile 海點인 38~09~51N, 124~42~22E에 도달하면 이 곳을 Camel이라고 칭하며, 이 海點에서 침로 26°로 航行하면 24 mile 海點인 38~30~18N, 124~56~06E海點에 도달하게 되며 이 곳을 Chester라고 칭하였다.

이 Chester海點에서 침로 357°로 항행하면 58 mile 海點인 36~36~01N, 124~55~07E 海點에 도달하게 되며 이 곳을 Old Gold라고 칭하였으며, 鎭南浦河口를 통과, 航海하려는 艦艇들에게 안내할 航路지시선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을 안내하였다.

또한 燈火항로표식을 위하여 제 1 부표는 Camel 海點에 있고 0.75초마다 白光信號를 보내고, 제 2 부표는 38~20~07N, 124~49~11E海點에 있으며, 매 6초마다 白光信號를 발하고, 제 3 부표는 38~25~16N, 124~52~32E 海點에서 매 6.9초마다 白光信號를 발하고, 제

상황도 제25호 西海岸(鎭南浦)진격항로



4부표는 Chester 海點에 있으면서 매 12초마다 白光信號를 발하면서 艦艇들에게 안전항해를 誘導하였다.

그리고 최초 항만입구의 지시선이 위치하는 Lucky로부터 Camel Chester Old gold의 海點을 연결하는 航路와 부표水路間의 西側 500Yard는 掃海가 완료되어 있었고, 西海 37° 30″으로부터 北쪽 Lucky海點까지의 航海는 반드시 124~15E 西方으로 행해하여야만 하였다.

이와같이 東海岸과 西海岸의 北韓海域진격에는 敵艦보다도 敵이 부설한 機雷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극히 조심스러운 航路를 취하여야만 되었으나, 韓國 해군은 UN 해군과의 긴밀한 작전협의 하에 北進하는 地上部隊에 대한 보급 및 병력수송과 주요병참기지 확보 및 海上경비의 중심要港에 海軍前進基地를 설치하여 北韓수복에 대한 작전임무의 일단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 參戰者의 證言

◇ 海軍元山前進基地사령부 정훈실장 劉載琉소위

(1971. 8.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17 예비역 소령)

海軍 元山前進基地가 설치된 것은 10월 18일경이라고 생각된다. 그 때 본인은 新任소위로서 정훈의 책임을 맡고 北進하는 대열에 참가하였는데, 우리 元山 前進基地에서는 주로 元山港을 출입하는 艦艇과 일반선박들을 통제하는 한편, 항만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밖에 부두에 산적되어 있는 我軍의 각종 군수물자에 대한 경비를 UN軍과 함께 실시하였던 것이다.

한편 前進基地사령부의 정훈업무는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戰況과 韓國軍과 UN軍의 戰果를 보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부두에 자리잡고 있는 사령부와는 별이지 나와 市內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市民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훈실주변에 모여 와서 戰況을 들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정훈실 밖으로 스피커를 가설하고 여러가지 보도사항과 함께 前北통일을 다짐하는 방송을 매일같이 방송하였는데, 이것은 내 일생을 통하여 잊을 수 없는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5. UN海軍의 永興灣 掃海作戰(50년 10월 1일부터 50년 10월 20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26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 7 합동기동함대사령관 해군 중장 Arthur D, Struble

제77항공모함단장 해군 소장 Edward C. Ewen

제95.6 소해단장 해군 대령 Richard T. Spofford

나. 기간 중 활동의 개요

韓半島의 全海域은 UN해군에 의하여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고, UN해군의 기동함대 艦艇들과 航空母艦에서 출격한 艦載機들은 海岸지대의 敵 집결지와 철교, 교량, 그리고 군사시설에 대하여 계속적인 艦砲射擊과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UN軍과 韓國軍의 地上 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는 美本土와 太平洋上의 여러 基地로부터의 병력수송과 군수물자의 자유로운 海上輸送이 그 중요한 여건이 되었다. 즉, 300척 이상의 輸送船과 貨物船이 수송업무에 활약하였으나, 敵으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UN軍의 航空母艦과 地上에 基地를 둔 해병대기 역시 UN軍 지상 전투부대에 긴밀한 엄호활동을 계속하였다. 기간 중 UN艦艇들은 仁川지구 및 南海岸과 東海岸의 여러 지점에서 地上軍에 대한 함포사격을 하였는데, 주요한 지원활동은 다음과 같다.

10월 1일; 1. UN驅逐艦, 群山 北方 敵砲 陣地를 포격.

2. UN해군 金浦반도의 友軍을 엄호하여 敵陣을 포격.

3. UN해군의 艦載機 平壤의 발전소 1개, 석유 저장소 1개를 각각 폭파

10월 12일; 1. Missouri艦 淸津을 포격.

2. 巡洋艦 驅逐艦 등은 城津과 韓·滿국경 사이를 砲擊.

10월 16일; 美 英國 海軍艦載機 韓國 東西海岸의 敵 군사시설을 폭격

대체로 이러한 移動 巨砲의 멩렬한 사격은 공중에서, 혹은 陸地에 있는 友軍으로부터 목표가 제공되었으며, 허다한 敵 포로들은 敵 地上軍 부대가 UN해군의 艦砲射擊에 큰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기간 중 東西의 海域에서는 점차 더 많은 機雷가 발견되고 있었으며, 그중에는 國際法上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浮遊機雷도 많이 발견되어 UN해군의 海上활동에 큰 위협이 되었다.

UN해군은 이러한 敵의 機雷 때문에 3척의 小型艦艇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永興灣의 掃海작업

10월 2일: 美 제7함동기동함대 사령관 Arthur D. Struble제독은 예하 제95.6掃海艇團 단장 Richard T. Spofford대령에게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韓國海域에서 掃海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掃海준비를 완료하고 永興灣近海에 집결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Struble제독은 그 명령에서 永興灣에는 敵의 機雷가 많이 부설되어 있을 것이므로 海上을 통하여 美 제10군단이 元山에 上陸하려면 필경 敵의 機雷源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機雷들은 蘇聯이 제공한 것이며, 撃發機雷 이외에 磁氣機雷音響機雷등 그 종류도 여러가지이며, 蘇聯기술자에 의하여 부설되었기 때문에 부설의 기술도 세련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掃海작업은 적지 않은 애로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한편, 韓國近海는 水深이 비교적 얕기 때문에 機雷부설에 알맞고, 특히 西海의 黃色 바닷물은 부설된 機雷를 완전히 음폐할 수 있으며, 또한 韓國의 東海와 西海는 모두 海流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敵이 浮遊機雷를 사용할 경우 15일 이내에 韓半島의 全海域에 띄워 보낼 수 있게 되므로 UN해군과 韓國 해군의 艦艇들은 항상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하 함대에경고하였다.

10월 6일: 美 제 95.6機動戰隊에 배속된 6척의 掃海艇들은 이날 日本 사세호(佐世保)港을 出港하여 永興灣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Spofford대령이 지휘하는 掃海艇들은 16일 冷氣가 감도는 아침에 永興灣에 도착하였다.

이리하여 元山港近海에 집결한 6척의 美 掃海艇과 UN軍이 임시 고용한 7척의 日本掃海船, 그리고 韓國 해군의 掃海艇 1척을 포함해서 도합 14척으로써 掃海船團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95.6기뢰전대가 永興灣에 도착하기 전에 일찌기 알았어야할 문제는 永興灣에 散在한 여러 島嶼의 敵情 및 砲臺 등에 관하여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작전에 필요로하는 각종 정보의 부족으로 Spofford 대령이 지휘하는 掃海艦艇들에게는 永興灣의 掃海가 일대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Spofford 대령에게 무엇보다도 불리한 것은 예하 掃海艇의 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중 오끼나와 上陸時에는 事前에 100척이상의 掃海艇이 동원되었으며, Normandy 上陸時에는 300척까지 동원된 바 있었다. Spofford 대령이 말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蘇聯 해군이 사용하던 定規航海水路에서 작업을 하고자 했으나, 10월 20일로 예정된 美 제10군단의 上陸日字가 迫頭해 오자 과감하게도 직접 接近掃海를 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다.

10월 10일; 아침부터 掃海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전술지휘장교인 Borsyat 소령은 Pledge號에 탑승하고 掃海작업을 지휘하였다. Pledge호는 美 제10군단이 상륙할 海岸을 향해 水深 600 feet의 西쪽 岬부터 直線으로 掃海하기 시작하였다. Pledge號 뒤에는 Incredible號, Osprey號, Mockingbird號가 따르고 있었다. 그외에도 Charity號와 Patridge號가 각각 다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掃海戰史上 가장 새로운 일은 헬리콥터에 의한 掃海戰術이 등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전술은 永興灣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헬리콥터가 掃海艇 앞으로 나아가 水面 下에 있는 機雷를 탐지하는 새로운 방법이었다. 이것이 해상의 艦艇과 공중에 있는 헬리콥터가 機雷源을 찾아내기 위한 합동작전의 최초의 例가 된 것이다.

이날의 掃海작업은 오후 늦게 끝났는데 21개의 擊留가 절단되어 폭발되었다.

Spofford 대령은 永興灣의 機雷源에 관하여 참모들과 면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전쟁발발 이전에 蘇聯 해군이 사용하고 있던 일정한 水路에 집중적인 掃海를 감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Spofford 대령은 機雷專門家 大西洋함대의 S.M. Archer 중령과 Don Deforest 소령 및 Florida 洲 Panama 市에 있는 機雷대책본부의 Noseth 씨의 협조를 요청하였던 바 그들은 美國 東海岸에서 즉시 永興灣으로 飛來하여 掃海작업에 협조하였다.

10월 11일 Spofford 대령은 구축함 DeHaven 號에 탑승하고 있던 水中機雷要員들로 하여금 機雷源을 탐색케 하는 한편, 제 7 기동함대 제 1 비행단의 협조를 요청하여 그들의 哨戒機가 공중탐색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제 47 哨戒戰隊長 S. H. Arnold 중령이 지휘하는 PBM 機들은 掃海작업에 협조하게 되었다.

제 95 선발함대사령관 Smith 소장은 이미 永興灣海岸에 上陸해 있는 에하 海邊團(TF 95. 2. 2.)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永興灣과 元山港 內에 있는 해군 小型舟艇에게 掃海된 水路가 명시된 챠트를 배부하고 그들과 긴밀한 협조를 다하라.』

이날 오후에 세로이 Pirate 號, Redhead 號 및 Chatterer 號등이 永興灣에 도착됨으로써 掃海艇은 9 척으로 증강되었는데, 이들 掃海艇들도 蘇聯 해군이 사용하던 航海水路에 각각 배치되어 水路에서의 掃海작업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0일과 11일, 그리고 13일의 야간에는 지휘관 및 각 참모들이 모여 一連의 회의가 繼開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Spofford 대령은 일마 후에 감행될 美 제 10 군단의 元山上陸에 지장이 없도록 航海水路를 완전히 掃海할 것을 강조하고 다시 세로운 지시를 하달하였다. 즉 William R, 소령이 지휘하는 水中파괴요원들로 하여금 磁氣機雷를 탐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水中 파괴대원들은 麗島近海를 중심으로 탐색을 계속하였으나, 磁氣機雷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Spofford 대령은 제 7 기동함대사령관 Struble 제독에게 제 77 항공모함단의 항공기들로 하여금 機雷源을 공중격파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이 건의를 받아드린 Struble 제독은 제 77 항공모함단 단장 Edward C. Ewen 소장에게 永興灣일대의 지정된 海域에 대한 폭격을 명령하였다.

10월 12일; 이날 아침 Philippine 號와 Leyte 號등의 航空母艦에서 출격한 39 대의 艦載機들은 목표지점에 500kg 짜리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와 같은 공중폭격에 의한 對機雷戰의 성과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폭격이 있던 그 다음날 (10월 13일) 폭격海域을 따라 航海하던 Pirate 號는 同艦 右舷과 左舷에서 5 개의 機雷를 발견하고 폭발하였는데, 이런 점으로 보아 機雷源에 대한 空爆결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10월 13일; 이날 掃海艇들은 6 Knote 의 속도로 港口를 향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前面에는 3개의 島嶼가 서로 놓여 있었는데, 右側에는 麗島, 左側에는 雄島와, 과거 日本軍의 요새였던 新島가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Diachenko號, Doyle號, 및 Endicott號가 掃海艇들을 엄호하면서 지원포격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掃海船團은 Pirate號를 先頭로 Pledge號와 Incredble號가 뒤따르고 있었다. 또한 Redhead號가 Pirate號의 뒤에서 danbuoy를 떨어 뜨리고 있었고, Incredible號의 뒤에서는 Kite號가 사격 임무를 맡고 있었으며, 3inch 砲다를 드러낸 Endicott號는 掃海戰隊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와같이 편성된 掃海戰隊가 蘇聯 해군이 과거 사용하던 航海水路를 통과한 후 麗島와 雄島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進路를 右側으로 전환하였다. 同 掃海戰隊는 11.10에 掃海水域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로부터 3분 후에는 Pirate號의 박스가 풀려져 있었고 3inch 砲에는 水兵들이 배치되어 敵 海岸砲隊의 포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Pirate號의 掃海裝備에 Cable이 걸린 2개의 機雷가 물 위로 떠 올라 왔고, 잇달아 4개의 機雷가 뜨게 되었는데, 이때 Pirate號와 뒤따라오는 Pledge號와의 거리는 0.5mile이었다. Pledge號는 3개의 機雷를 제거하였으며, Incredible號도 또 다른 4개의 機雷를 제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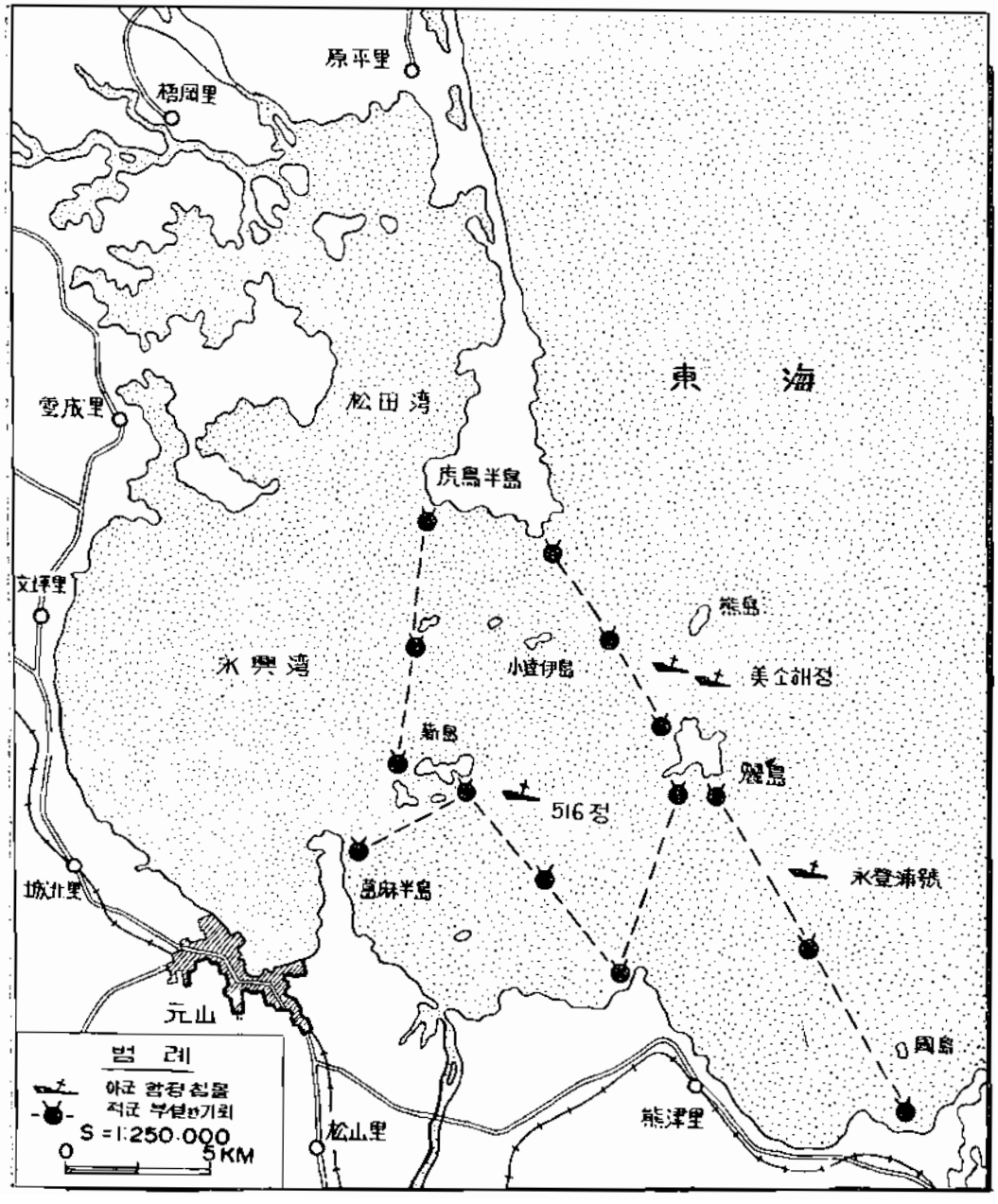
McMullen 대위가 지휘하던 Pirate號 右舷 艦首의 見視兵이 『艦首 右舷 바로 100 yard 거리에 機雷가 있다.』라고 艇長에게 보고하였다.

정장 McMullen 대위는 同艇을 교모하게 지휘하면서 위험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그 機雷를 폭발시키는데 성공하고 그 水域을 무사히 통과하였다.

그로부터 數秒 후 Pirate號는 갑자기 艇尾推進器가 달려 있는 船底의 水中에 있던 機雷에 걸리어 폭발되었는데, Pirate號는 主甲板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고, 4분 후에는 左右舷으로 덩굴면서 침몰하고 말았다. Young 대위가 지휘하던 Pledge號에서는 즉각 救助用 短艇을 下船하여 進水시켰는데, 雷上加雷으로 新島에 위치한 敵의 포대에서는 침몰한 Pirate號의 승조원들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었으므로 Pledge號가 하나 뿐인 3inch 砲로 응사하자 敵은 號 Pledge를 향하여 폭격을 가해 왔다. 이와같은 혼잡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Young 대위는 침착을 잃지 않고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無線통신으로 東海를 巡航하고 있는 航空母艦에게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그의

상황도 제26호 永興灣의 기뢰부설(1050. 10 현재)



艦艇의 掃海裝備를 절단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Pledge號는 敵砲臺의 命中彈을 맞고 침몰되어 가고 있었다. 또한 Pledge號는 敵 砲臺로부터 命中彈을 맞은 數秒 후에 機雷에도 접촉되어 艇體의 여러 곳이 파손되고 艇長 Young 대위도 의식을 잃고 있었다. 얼마 후 의식을 회복한 Young 대위는 船體와 장병들을 보자 掃海艇을 옮겨 타고, 장병들과 같이 救命短艇에 옮겨 타게 되었다. 그후 일분 후인 12.20 Pledge號는 침몰하고 말았다. 한편 Pirate號와 Pledge號의 이와같은 慘狀을 당시 上空에서 機雷 탐색차 VP—47號를 조종하던 Randell Boyd 소령이 목격하고 즉시 無電으로 Endicott號에 연락하여 敵 포대에 대한 함포사격을실시하게 하는 한편, Pirate號의 생존자들의 위치도 알려 주었다. Endicott號는 곧 救命보우트를 조난海域으로 보내서 생존자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Boyd 소령은 新島의 敵 포대상공을 비행하면서 機銃掃射를 가하는 한편, Endicott號의 救命보우트가 생존자들을 탐색하는데 협조하였다.

그리고 이날 Incredible號도 機關故障을 이르키게됨에 따라 掃海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艦艇은 小型木製艦艇들로써 이들의 무장한 40mm 砲 1문과 20mm 기관포 2문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 掃海艇들은 Shouldice소령이 지휘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Pirate號의 승조원 중에서 3명이 전사하고 Pledge號에서는 9명이 艦艇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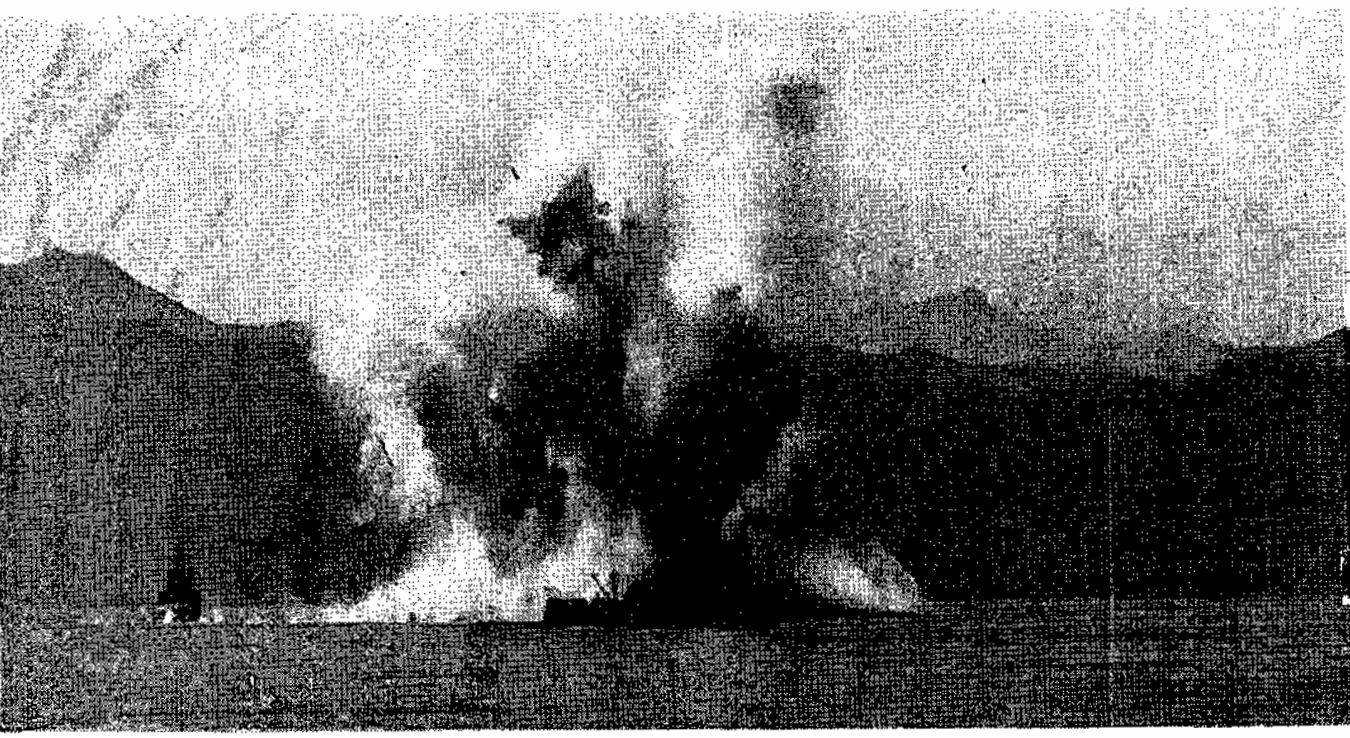
그리고 같은 水域에서 작업 중이던 Incredible號는 27명의 생존자를 구출하였다.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空爆의 試圖는 機雷戰分野에서의 일대 혁신이었으나, 그 성과는 평가하기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Struble제독은 이번의 공중폭격을 교훈 삼아 그후로는 항공기에 의한 機雷源 폭격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機雷團 단장인 Spofford 대령도 공중에서 투하되는 폭탄이 埋設된 機雷에서 10m 이내에서 폭발해야 하는데 그 정확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덧부쳤다.

10월 16일; 이날 19.00 뜻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즉 永興灣 北쪽 海岸에 있는 한 창고에서 6명의 韓國軍 이 10kg 짜리의 機雷 약 100개를 발견하고, 그 機雷를 폭발시키기위하여 약 180m 떨어진 곳에서 사격을 가하였는데, 그 機雷의 폭발로 약 3km 떨어져 있는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지고 1명의 중위를 포함한 6명이 모두 폭사하였다.

10월 18일; 이날 永興灣의 麗島 南쪽에서 작업 중이던 韓國 掃海艇 YMS—516艇과 輸送



〈韓國 해군의 Y.M.S.516艇이 機雷에 접촉, 폭발되고 있다〉

船永登浦號는 機雷에 부딪쳐 516艇은 침몰되고, 永登浦號는 좌초되어 기관이 정지되었을뿐만 아니라, 516艇 승조원중 15명이 전사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永興灣에서의 掃海작업이 지연되자 제7함동기동함대사령관 Struble 제독은 美 극동함대사령관 Joy 제독에게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 예정일인 10월 20일을 26일로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Joy 제독과 MacArthur UN軍 총사령관은 Struble 제독의 건의를 받아 들여 제10군단의 上陸日字를 26일로 연기하였다. 따라서 美 제10군단의 상륙부대는 機雷를 제거하는 동안 지루하게 바다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掃海船團은 25일까지 悪戰苦鬪, 위험을 무릅쓰고, 永興灣일대의 掃海작업을 완전히 끝마침으로서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을 가능케 하였다.

§ 戰　　訓

UN軍부대의 지휘관들은 韓國軍의 빠른 진격 속도를 예견하고, 또한 元山에 이르는 永興灣의 엄청난 수의 機雷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었으므로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은 아마도 계획 초기

에 취소되었을 것이다.

永興灣의 掃海작업을 지휘한 Richard T. Spofford대령은 다음과 같이 그 교훈을 지적하였다.

「첫째, 掃海작업에는 小型艇이 극히 필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고, 둘째로 Lecetor 장비를 갖고 있는 1~2척의 함정이 掃海海域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비를 갖춘 艦艇과 掃海艇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면 元山 上陸海岸까지의 直通路가 빨리 掃海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울러 지적하였다.

그리고 Struble 제독은 元山上陸작전을 통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교훈으로 지적하였다.

1. 확실한 통신시설의 확보.

2. 三軍 共히 사용하여야 할 통일된 地圖의 확보.

3. 戰地에서 활동하게 될 적절한 情報班 구성의 필요성

4. 헬리콥터로서 적절히 무장한 함정은 掃海작전에 있어 그 가치가 크게 인정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6. UN 空軍의 活動(50년 10월 1일 부터 50년 10월 15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4 호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극동공군사령관 중장
George E. Stratemeyer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관 소장
Emmett. O' Donnel

美 제5공군사령관 소장
Earl E. Partridge

美 극동공군 전투물자공수사령관 소장
William H. Tunner

가. 기간 중 활동의 개요

이 기간에는 我軍의 지상군이 破竹之勢로 38°線 以北을 진격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공격의 목표는 완전히 北韓 內에 局限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開戰 이래 줄곧 勇戰을 거듭해 온 美 극동공군은 美 海軍機 및 海兵隊機, 그리고 Australia 機와 英聯邦機, 또한 韓國 空軍機와 협동하여 그 행동범위를 北韓全域으로 확대하였으며, 敵의 군사목표가 발견되는데로 공격하여 분쇄하였다.

한편 南 Africa 공군은 日本에 도착하여 Johnson 基地에서 韓國전쟁에의 參戰을 위한 事前 훈련을 거듭하였다.

UN 공군은 부단한 노력으로 東海岸에서 元山으로 電擊的인 진격을 감행하고 있는 韓國軍 제 1 군단을 엄호하여 성공적으로 元山에 돌입하고, 北進을 거듭하게 하였으며, 南韓에 殘存하고 있는 敵의 저점을 여지없이 폭파하여 敵을 고립시키고 봉쇄시킴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마비시켰다.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은 全戰線에서 실시되었으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地域에서는 공군의 공격목표가 없는 형편이어서 전투기와 폭격기들은 敵陣背後의 敵 補給線에 대하여 공격을 집중하였는데, 敵의 모든 移動차량과 기타 수송기관, 그리고 道路와 操車場들이 폭파 되었다. 이리하여 敵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과 철도, 전차등의 무수한 손실로 말미암아 氣盡脈盡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의 손실을 받지 않으려 몸부림치게 되었다.

그리고 敵은 또한 UN 공군의 폭격으로 인하여 燃料, 彈藥과 기타 보급품集積所들을 連日連夜 계속하여 잃게 되자 그들의 再補給力도 減退의 極에 達하고 있었다.

지상군의 北進에 따라 UN공군도 基地를 점차로 北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UN軍과 韓國軍 全般의 작전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다.

한편 敵의 補給路가 되어 오던 平壤의 北쪽과 西北쪽의 幹線道路들은 UN 공군의 공격 목표가 되어 누차 공격 당하였기 때문에 敵은 보급문제에 큰 곤경을 겪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들의 末路가 目前에 닥아 온 듯 하였다. 그러나 敵은 對空砲火로 최후의 발악을 다하여 대항하여 왔기 때문에, 공군기의 손실도 없지 아니 하였지만, 공군은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敵의 心臟部를 猛打하였다.

UN 공군기들의 敵 공군基地 폭격으로 敵이 그들의 劣勢를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敵은 2회에 걸쳐 空襲을 가해 왔지만 空中활동에 대한 企圖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이 기간 중에 UN 공군은 누차에 걸친 폭격에도 아직 殘存하고 있는 敵의 군수공업목표와 폭격 당한 뒤에 재생하여 쓰는 敵의 주요 군수공업 목표에 대하여 소규모의 空襲도 가하였다. 平壤 北쪽 間里의 병기창에 가한 空襲은 二次的 폭발과 화재를 이르켰는데, 이는 敵이 이에 시설들을 다시 이용하려고 二重의 설계를 하고 준비하여 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보급물자와 인원의 空輸는 매일 평균 800 ton에 달하였는데, 이는 모든 부대들에 대한 보급품, 병력의 충원, 그리고 부상자들의 後送을 포함하는 것이다.

戰場에서의 부상자들은 日本의 종합병원이나 美 本國으로 後送하여 回癒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다한 UN 공군의 활동, 또한 눈부신 바 있었다.

UN 공군은 기간 중 하루 평균 586회에 걸쳐 출격하였는데, 이중 근접지원 출격회수는 108회이었고, 차단출격회수는 197회, 전략출격회수는 5회이었다.

기간 중 주요작전일지는 다음과 같다.

10월 1일 : 1. 艦載機 平壤發電所 1個所, 石油저장소 1개소 폭파.

2. F-80機 兼二浦, 新安州, 中和等地의 對空砲陣地 7個所 파괴.

10월 2일 : B-29 羅南의 兵舍, 練兵場猛襲.

10월 8일 : F-51, F-80 敵의 교통차단 작전 再開.

10월 9일 : 1. 연 458機 출격, 38°~40°線 間의 敵 공격.

2. B-29 江界—新安州 鐵道 26個所 절단.

10월 12일 : B-29, 艦載機 城津, 吉州폭격.

10월 13일 : B-29, 南市 폭격.

10월 14일 : 1. 元山 앞 바다 여러 섬의 敵 陣地 문제.

2. B-29 30대 平壤—新義州間의 교통시설 폭격.

나. 元山 上陸 前後의 활동

元山 上陸작전을 감행하려고 UN軍이 결정하였을 무렵, 上陸 開始 5일 전부터 작전종료일까지 元山을 중심으로한 반경 80km 지역의 공중작전지휘권은 UN해군의 Joy 제독에게 있었다.

美 극동공군은 공중수송과 긴급임무, 그리고 美 제10군단 비행대의 요청이 없는 한, 작전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극동공군은 美 제8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제10군단 비행대의 요청에만 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육군의 제187공수단만이 이번 작전지역내에 극동공군이 適時에 투하하도록 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UN軍의 공중작전지휘권은 극동공군과 극동해군, 육군의 비행대, 해병대의 비행대 사이에 복잡하고 미묘하게 분할되어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美 극동공군사령관 Strat-emeyer 중장은 MacArthur 사령관에게 공중작전지휘권의 통합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잠정적으로 『공중작전지휘권은 調整統制를 거쳐, 극동공군이 우선적으로 갖는데 100% 찬성한다.』는 MacArthur 사령관의 결심에 따라 元山지역을 제외한 全線에서 美 제8군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한편, 元山上陸작전에 대비한 공수임무에 임하기로 하였다.

UN軍은 10월 15일을 D일로 설정하였으나, 韓國軍 제1군단이 10일에 元山을 탈환하게 되었는데, 작전 중 韓國軍은 UN공군의 Mosquito 정찰기들로 부터 연락을 취하여 제5공군과 해병대機의 도움을 요청한 결과, 제5공군의 F-51, F-81 전투기들과 해병대의 F-4U 전투기들의 출동으로 敵을 無力하게 만든데 힘 입은 바가 컸다. 이에 따라 작전을 계획하고 있던 UN軍은 元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10월 11일, 美 제5공군사령관 Partridge 소장은 Joseph D. Lee 대령으로 하여금 元山비행장의 사용가능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결과, 활주로와 비행장의 시설이 파괴되어 있지 않아 비행장은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극동공군 전투물자공수사령부는 131ton에 달하는 韓國軍 보급물자를 元山에 공

〈극동공군 작전참모부장 O. P. Weyland 소장〉

〈극동공군 폭격사령관 Emmett J. O' Donnel 소장〉

〈극동공군 전투물자공수사령관 William H. Tunner 소장〉

수하게 되었고, 13일에는 元山비행장에 주둔할 제 6151 기지전대의 병력과 물자를 공수하였는데, 基地戰隊의 전대장은 Lee (Joseph. D)대령이었다.

그 동안에도 공중작전지휘권은 명백한 所在를 규정짓지 못하고, 說往說來가 고급지휘관들 사이에서 紛紛하였다.

『제 5 공군은 해병 제 1 비행단이 元山에 進駐할 동안까지 韓國軍 제 1 군단을 지원하기로 하고, 해병 제 1 비행단이 進駐하게 되면 기상, 통신시설을 포함한 모든 비행장시설을 제공하겠다.』고 Partridge 소장이 言明하였는데, UN軍 사령부는 아직도 元山에 上陸하지 않은 제 10 군단이 上陸하게 되면 이 비행장을 제 10 군단을 지휘하는 공군기가 사용하도록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16일에 이르러서야 元山上陸에 隨伴하는 모든 항공기의 공중작전 지휘권을 극동공군이 장악하되, 제 5 공군의 Partridge 소장이 지휘권을 이양받게 되었다.

10월 21일 韓國軍 제 1 군단은 洪原에 까지 진출하였는데, 이때부터 공중작전 지휘권 문제는 완전히 타협을 보게 되어 새로운 調整統制(Cordination Control)가 시작되었다.

MacArthur 사령관도 17일 『극동공군에 地上주둔 모든 공군기의 작전권과 航空母艦 안의 항공기 활동의 調整統制권한을 완전히 일임한다.』고 言明하였다.

이는 開戰이래 혼란되고 미묘하던 공중작전지휘권의 所在를 처음으로 명백하게 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리하여 Partridge 소장은 韓國軍 內의 공군활동을 총지휘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 10 군단과 제 8 군에서 동시에 항공지원능력을 초과하는 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어느 것을 먼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 순위의 결정도 문제가 되었고, 공중지휘권의 통합이 이루어 지게 되어도 지원 요청부대간의 협력이 되지 않아 곤란을 느끼게 되었다.

제 5 공군에서는 제 10 군단에 日日항공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를 다시 해병 제 1 비행단에 명령하게 되었으나, 元山과 서울間의 통신시설의 미비로 말미암아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UN軍은 元山 上陸작전에 있어서 20일부터 6일간 掃海艇으로 하여금 海岸에서 機雷를 掃海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가, 26일에 이르러 제 10 군단과 제 1 해병사단의 일부병력을 元山에 上陸시켰다.

이때 韓國軍 제 1 군단은 端川에 진격하고 있었고, 29일에는 美 제 7 사단이 利原에 上陸하였는데, 제 5 공군은 이들을 근접지원하였다.

다. 極東空軍 爆擊司令部의 北爆

9월 27일 MacArthur 사령관이 北進命令을 받았을 때, 극동공군 사령관 Stratemeyer 중장은 MacArthur 사령관에게 『극동공군의 폭격사령부 소속 폭격기들로 平壤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을 단축시킬지 모른다. 만약 100대의 B-29 폭격기가 平壤上空에서 폭격을 하게 된다면 모든 機能이 정지되다시피한 北傀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제의하고 폭격사령관 O'Donnel 소장에게 『平壤의 군사시설을 폭파하되 기타 목표에 대하여는 집중폭격을 금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미 입수된 정보에 따라 北傀의 병력 충원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9월 20일에는 B-29 폭격기들이 平壤의 敵 육군 軍官學校 건물 3동을 폭파하였으며, 23일에는 咸興의 敵 훈련소를 90% 이상 파괴하였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폭격사령부 소속 B-29機들이 羅南에 있는 훈련소를 75% 이상 파괴하였으며, 12일에는 10대의 B-29 폭격기들이 興南의 훈련소를 猛打하였는데, 敵에게 포로가 된 我軍이 훈련소에 감금되어 있다는 정보로 말미암아 훈련소 폭격은 중단하게 되었다.

지상군의 급속한 北進은 극동공군이 北韓 內의 교량을 폭파하는데 곤란을 가져 오게 되었다.

10월 6일 극동공군은 폭격사령부로 하여금 北韓 內의 33개 교량의 리스트에 의하여 폭

〈UN 공군의 B-26 폭격기가 北韓의 目標地域을 폭격하고 있다.〉

파하도록 하였는데, 18일에는 이 명령이 수정되었으나, 곧 新安州 南쪽의 폭격은 중지되고 리스트는 새로 작성하게 되었다.

극동공군기들은 韓·滿, 韓·蘇 국경에 대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으며, 국경에서 80km 이내의 목표에 대하여는 극동공군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난 뒤에 작전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였고, 비행도 視界가 명확하여 눈으로 地上을 볼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공군의 활동은 지극히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제약된 지역에서만 행하여지게 되어 中型 폭격기들의 작전목표는 꽉 부족하게 되었다.

극동공군의 작전참모부장 Weyland 소장은 「지상군은 中型 폭격기의 지원을 거의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지상군이 지원을 요청한다면 이에 응하겠지만 지금은 폭격사령부 폭격기들의 日日 출격회수를 25회로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10월 22일에 Stratemeyer 중장은 다시 15회로 줄이라고 명령하였다.

폭격할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제 92 폭격전대의 조종사 한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敵 1명을 발견하여 이를 추격하면서 여러 發의 폭탄을 떨어뜨린 일도 있었다.

이리하여 제 22 폭격전대와 제 92 폭격전대는 10월 27일 本國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공격목표로 선정된 교량이 다만 3개가 남아 있었으나, 이는 폭격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我軍에게 有利한 실정이었다.

라. UN 공군의 戰術的 配置

UN軍과 韓國軍이 南韓全域을 탈환하게 되자 美 제5공군에서는 전투기들을 日本에서 韓國의 各地域에 이동시켜 北韓지역의 작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기들이 韓國으로 이동하기 전에 韓國內의 비행장과 전투기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들을 건설하고 재건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지난 8월말 大邱 北쪽에까지 敵이 밀려 와 大邱비행장이 위태롭게 되었을 당시에 美 제5공군은 水營비행장을 택하여 재건에 착수하게 되었다.

彈藥임시저장소를 설치하고 난 다음, 下水시설을 改善하고 약 2,000m의 簡易활주로용 鐵板을 깔았다.

이리하여 水營비행장은 9월 4일에 連絡用비행기들이 離着陸하게 되었으며, 이달 12일에는 C-54 수송기와 같은 重型비행기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완벽한 비행장으로 만들기 위해 3,200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兵舍도 만들게 되었다.

浦項비행장은 제802항공공병대대의 A중대가 담당하여 복구작업에 나섰는데, 약 1개월반의 전투를 겪은 激戰地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完全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비행장 北쪽의 誘導路는 簡易활주로용 鐵板을 깔고 흙을 말라 一大 보수작업에 임하였고, 南쪽의 誘導路工事는 降雨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었다.

大邱 비행장은 9월 17일에 이르러 활주로를 1,900m로 연장하였으나, 이 비행장에 제트機들과 C-119 수송기가 離着陸하기에는 곤란한 點이 많았다.

F-80 제트기는 가동할 때 뒤로 뿜어내는 뜨거운 공기를 簡易활주로 밑으로 뿜어 내었고, C-119 수송기는 機體가 무겁기 때문에 특히, 着陸時에는 弱한 활주로의 表面을 부수어 버리기 때문에 활주로의 表面을 强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리하여 簡易활주로를 쇳대로 바치고 아스팔트로 포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100개의 건물도 콩크리트 바닥에 건축되기에 이르렀다.

金浦비행장은 당시에도 사실상 南韓에서는 제일 좋은 비행장이었으므로 극동공군에서는 제811항공공병대대로 하여금 이를 재건토록하였는데, 이 대대는 Guam島에 주둔해 있다가 韓國에 온 즉시인, 9월 25일부터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主滑走路 가운데의 폭탄의 爆破구덩이를 메우고, 그 위에 簡易활주로를 깔아 離着陸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臨路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젯트기들은 활주로의 맨가장자리를 파손시켰으며, 착륙할 때 滑走거리를 단축하기 위하여 쓰이는 걸잡이장치(Arresting gear)를 이용하는 수송기들은 걸잡이를 할 때마다 簡易활주로용 鐵板을 망가뜨리거나 비행기를 급정거시키는 事例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金浦비행장을 再建한 제 811 항공공병대대의 A중대는 水原비행장으로 이동하여 簡易활주로용 鐵板으로 되어있는 誘導路를 보수하였다.

이와같이 各 基地의 활주로와 誘導路를 보수하고 再建하여 改善하는 한편, 建物들을 세우고 난 뒤에야 제 5 공군의 전투기들을 韓國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제 5 공군의 제 18 전투폭격전대는 9월 7일에 水營비행장으로 이동하였고, 제 49 전투비행전대는 예하 3개 젯트전투대대를 전부 10월 1일까지 大邱비행장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들은 이미 9월 28일부터 작전에 임하고 있었다.

제 35 전투요격전대의 先遣隊는 10월 3일에 쓰이끼(Tsuiki) 基地를 떠나 浦項으로 출발하였는데, 10월 7일에 이 전대의 제 39, 40 대대가 浦項에 도착하였다.

Austrailia 공군의 제 77 대대는 10월 12일에 浦項비행장에서 美 공군의 제 35 전투요격전대와 합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UN공군의 전투부대들이 차차 韓國으로 전술적인 배치를 실시하고 있을 당시에는 공중작전지역이 서울과 仁川으로 국한되고 있었다.

美 제 5 공군사령부는 9월 23일에 大邱로 이동하였으나, 극동공군에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제 5 공군사령부가 金浦비행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고 力說하기에 이르렀다.

9월 29일, 극동공군에서는 上陸부대들의 작전지역이 상당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제 5 공군이 大邱에서 水原과 金浦비행장으로 전투부대를 전개하여야 한다고 強要하였으며, 아울러 金浦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의 비행기들을 포함하여 韓國 內에 있는 全항공기의 지휘권을 이양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극동공군은 해병 항공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양도받아 10월 4일에 제 5 공군으로 이를 이양하게 되었는데, 제 5 공군으로 하여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무를 계속하게 하였다.

10월 15일을 기하여 제 5 공군은 사령부를 서울에 이동하였으며, 합동참모본부와 전술항공통제본부도 서울에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제 502 전술공군통제전대도 아울러 서울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통제부대들이 급속히 서울에 집중하기에 이르렀다.

제 502 전술공군통제전대의 1개 대대가 전술공중통제본부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3개대대는 金浦, 大邱, 大田의 전술공중지시본부에 각각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들 전술공중지시본부에는 단지 早期警報와 方向探知시설만 되어 있어서 攻擊機의 方向을 지휘하고 지시할 統制本部로써의 설비는 미흡하였다.

韓國에 도착하는 즉시로 美 육군이 요구하는 通信網을 설치하고 작전에 임하였는데, 중대내의 작전참모부와 地上연락장교망을 설치하였으며, 金浦와 水原비행장으로 先遣隊를 파견하여 업무에 임하게 하였다.

제 8 전투폭격전대는 쓰이끼(Tsuiki)에서 출발하여 10월 7일에 水原비행장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을 그들의 비행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한 基地조건 때문에 金浦로 이동하였다. 이때의 제 8 전투폭격전대에는 제 35, 제 36 전투폭격대대의 양개 대대가 있었다.

제 51 전투요격 비행단의 先鋒부대들이 10월 12일에 金浦에 도착하였으며, 25일에는 主力이 제 8 전투폭격전대의 제 80 전투폭격대대와 함께 金浦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들 전투부대의 주둔지에서 基地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들은 전술지원단이라는 명칭 아래 各基地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제 6150 전술지원단은 浦項에, 제 6002 전술지원단은 釜山에, 그리고 제 6136 전술지원단은 水原에, 제 6149 전술지원단은 大邱에 각각 주둔하여 그들의 임무에 배진하였다. (별책부도 제24호 참조)

7. 韓國 海兵隊의 杆城---高城 附近戰鬪(50년 11월 1일부터 50년 11월 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5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해병대	사령관	대령	申	鉉	俊	제10중대	장	중위	鍾	德	遠
제1대대	장	소령	高	吉	勳	제11중대	장	중위	朴	東	烈
제1중대	장	중위	鄭	滿	鎭	제12중대	장	중위	朴	東	根
제2중대	장	중위	金	光	植	제5대대	장	중령	金	大	植
제3중대	장	중위	李	鳳	出	제51중대	장	중위	安	昌	寬
제4중대	장	중위	高	相	河	제52중대	장	중위	韓	鐵	澤
제3대대	장	소령	金	潤	根	제53중대	장	중위	權	錫	基
제9중대	장	중위	黃		泳	제54중대	장	중위	閔	容	植

나. 전투 전의 개황

美 제10군단의 일부로서 美 해병 제1사단과 같이 仁川에 上陸하여 서울로 진격한 이래 膠着狀態에 빠지 있던 洛東江 戰線은 急轉直下로 變轉하여, 全戰線에서 연합군의 猛攻擊을 받은 北傀軍은 支離滅裂되었으나, 그 主力은 中部戰線 太白山脈을 타고 北으로 도주하여 平壤方面에 집결할 態勢였다. 이에의 美 제8군은 京釜國道를 따라 北進하는 연합군과의 連繫작전을 위하여 南下하던, 美 제10군단에하 美 제7사단 일부병력과 鳥山부근에서 連繫한 다음, 10월 7일에는 서울에서 美 제10군단과 정식으로 戰線임무를 교대하고 38°線을 돌파하여 계속 北으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특히 東海岸을 따라 浦項에서 진격한 韓國軍 제3사단은 敵의 가냐운 지항을 물리치고 10월 10일 東海岸의 要衝, 元山에 돌입하여 점령하였다. 한편 10월 6일에는, 中部山岳地帶를 타고 진격하던 제6사단이 華川水力발전소를 경유하여 10일에는 金化에 진격하였고, 西部戰線에서도 韓國軍 제1사단과 美 제1기병사단이 이미 開城線에서 38°線 以北으로 北進 중이었다.

이와같이 我軍의 猛攻擊에 따라 全戰線에 걸쳐 北傀軍의 主力은 붕괴된 態勢를 띄었으며, 그 저항은 매우 보잘 것 없는 형편이었으나, 미처 퇴각하지 못한 敵의 敗殘兵들은 我軍의 점령지역 도처에서 치안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美 해병 제1사단은 美 제10군단의 일부로써 京仁작전을 성공리에 종결하게 됨에 따라 10월 7일 仁川에 집결한 다음, 10월 12일 仁川을 出航하여 元山으로 향하였고, 韓國 해병대는 美 해병사단과 協同, 새로운 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10월 13일 仁川에서 제3대대와 제5대

대가 乘船을 완료, 元山을 향하여 出港하였다.

한편, 제 1 대대(장, 高吉燮소령)는 제 3 대대와 제 5 대대와는 별도로 10월 18일 LST 801艦에 乘船, 東海岸을 따라 北上, 퇴각하는 5~6,000명으로 추산되는 北傀軍 敗殘兵을 격멸하기 위하여 墨湖로 향하고, 제 2 대대(장, 金鍾琪소령)는 本部地區의 치안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00에 LST 丹陽號로 仁川을 떠나 각각 출동하게 되었다. 韓國 해병대의 主力인 제3, 제 5 대대가 上陸하려는 元山에는 이미 韓國軍 제 1 군단이 進駐하여 北쪽 咸興지역으로 진격 중이었고, 美 제 1 해병사단이 10월 26일 새벽부터 元山 葛麻半島에 上陸하여 長津湖方面으로 전진하고자 대기 중이었으며, 韓國軍 수도사단은 咸興을 경유하여 東海岸 幹線道路를 따라 北進 중이었다.

그리고 LST 801艦으로 仁川을 出港한 제 1 대대는 釜山을 경유하여, 일단 蔚珍에 碇泊하였다가, 10월 23일 墨湖에 上陸하여 江陵, 三陟方面의 敵情을 살피고, 友軍과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蔚珍, 三陟, 墨湖등지의 패잔병은 五台山을 타고 襄陽, 高城, 通川方面으로 도주하였으므로, 부대는 또 다시 通川方面에서 이들을 포착, 섬멸하기 위하여 10월 26일 LST 801함(장, 柳海臣중령)에 탑승하고, 墨湖港을 떠나 701艦(장, 崔龍男중령)의 水路안내를 받으며, 10월 28일 元山 明沙十里에 上陸하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이 서울에서 議政府를 공격하는 美 해병 제 7 연대를 시찰하던 9월 28일, UN軍사령부에서 기초한 北進을 위한 작전계획「9~50」이 美 합동참모부에 의하여 승인되므로써 이 계획은 10월 2일 비로소 공격을 위한 명령으로 바뀌었다. 이 명령에 따라 美 제 7 함대는 上陸 돌격하는 임무를 10월 5일 美 제 7 함동기동부대의 항공모함과 수색정찰대에 下命하였는데, UN軍 作命 9~50의 내용 일부는 美 해병 제 1 사단이 仁川에서 艦船에 搭乘하고 美 제 7 사단은 仁川港의 조건 때문에 陸路 200mile을 차량 수송하여, 釜山에서 艦船에 搭乘하여 美海兵隊가 元山에 上陸한 다음, 행정상륙하기로 한 것이었다.

처음에 作命「9~50」은 D-Day를 15일로 예정하였으나, 美 제10군단이 서울에서 10월 30일에 교대하려던 계획이 7일로 연기되었고, 또한 仁川에 도착할 수송선이 약속된 화물적재를 이행하지 못하여 D-Day를 20일로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이미 本節지구전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계획은 韓國軍 제 1 군단이 10월 10일 元山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元山탈환을 위하여 마련된 美 해병사단의 작전명령「16~50」은 결국 철회하게 되었으나, 10월 7일 仁川에 집결을 완료한 美 해병 제 1 사단은 美 제10군단 작전지시 제 4 호에 따라 계획대로 兵力과 裝備적재를 계속하였다. 한편, 美 해병대와

같이 京仁지구작전을 수행한 다음, 仁川에 집결한 韓國 해병대(제 1, 제 2 대대 제외)는 이와 같은 一連의 계획에 따라, 제 3 대대는 美 해병 제 7 대대에, 그리고 제 5 대대는 美 해병 제 5 연대에 배속되어 美 해병 제 1 사단의 작전지시를 받게 되었고, 13일에는 美 수송함 APA-Victory號에 탑승하여, 一路 東海를 거쳐 元山을 향하여 한대의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2) 전투 실시

10월 27일 : 永興灣을 중심으로 敵이 敷設해 놓은 機雷를 제거하기 위한 掃海작업이 美 해병대에 의하여 실시되고, 또한 이 작업이 완료되을 기다려 실시된 「Yo Yo작전」이 수행되는 동안에, 韓國 해병대는 艦上에서 대기하다가 비로소 이 날 美 해병대의 후속파로 AKP 964號에서 제 9 중대, 제10중대, 제12중대, 제11중대의 順으로 下艦하여 葛麻半島에 연한 明砂十里에 上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上陸을 완료한 제 3 대대(장, 金潤根소령)는 美 제10군단의 命에 따라 咸興과 長津湖를 거쳐, 韓國軍 제 1 군단 예하부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먼저 長津湖 北쪽까지 前進하고, 이어서 韓·滿國境線까지 진격하게 된 美 해병 제 7 연대에 배속되었으며, 한편 제 5 연대(장, 金大植중령)는 美 해병 제 5 연대에 배속되어 각각 美 해병대소속 차량에 의하여 元山 北쪽에 위치한 德源으로 향하였다.

제 3 대대(장, 金潤根소령)는 德源에 도착하는 즉시를 대대지휘소를 德源교회당에 設置하고 지역일대의 殘敵섬멸전을 전개하게 되었고, 제 5 대대는 前進하는 美 해병대의 後方경계임무를 맡아 수색전을 전개하며 文坪과 文川으로 향하였다.

10월 28일 : 1. 제 1 대대(장, 高吉默소령)는 지난 26일 東海岸의 墨湖에 上陸하여 江陵, 三陟方面의 敵情을 수색한 다음, 26일에 墨湖를 출발한 대대는 본대와 합세키 위하여 이 날 元山 葛麻半島에 上陸한 다음, 대대지휘소를 元山여자고급학교에 설치하고, 일부병력은 海星中學校에서 宿營하며 다음 作戰에 대한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元山市內의 敵情 수색임무를 수행하였다.

2. 제 3 대대(장, 金潤根소령)는 德源天主敎會堂에서 上陸 후의 하룻밤을 지낸 다음, 대대작명 「101號」를 예하에 하달하고 각 중대의 임무를 명시하였는데, 그 要旨는 『제10중대는 같은 제 3 대대의, 제11중대는 제 1 대대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과 『제12중대는 대대본부와 같이 美 해병 제 7 연대장의 직접 지휘를 받으라.』는 것이었고, 또한 「被服類 일체를 12시 안으로 支給하고 아울러 소지 중인 부식대금을 각대에 분배하라.」는 등 군수사항

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명령 「102호—1호」로써, 『본대의 被 배속대인 美 해병 제7연대가 敵 약 12,000명(혼성부대)이 長津湖부근에 집결하고 있다.』는 敵情을 입수하고 이를 공격하라는 작전企圖에 따라 이에 배속된 대대 역시 咸興으로 이동하고, 사단명령에 의해 長津湖로 진출한다는 것이었다.

대대는 이 날 경리대장을 시켜 美 해병 제7연대로부터 白米 16가마, Ration 2일분을 수령하여 각 예하대에 분배케 하는 한편, 수송대장에게는 차후 山岳戰에 대비한 대대 보유 차량점검을 실시케 하여, 29일 06.00까지 제12중대를 제외한 각 중대를 天主敎修道院 앞 道路에 집결토록 하고, 29일 07.00을 기하여 咸興으로 출발토록 하였다.

이와같은 대대명령으로 지방일대의 敵情입수에 대한 수색전을 전개하면서 다음 날 이동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3. 제5대대(장, 金大植중령)는 美 제5연대에 배속되어 補給路를 비롯한 後方 차단임무를 수행하며, 元山에서 文坪을 거쳐 文川에 다다른 대대는, 元山 上陸 후 처음으로 敵과의 交戰에 臨하게 되었다. 즉 文川에 所在한 金日成대학교 농과대학의 果樹園 안에 마련된 큰 지하실에 北傀軍 약 1개 소대병력이 숨어 있는 것을, 부근을 정밀탐색하던 제53중대(장, 閔容植중위)에서 발견하여, 교전 끝에 敵 1개 분대를 사살하는 戰果를 거두게 되었다.

10월 29일 : 1. 제1대대(장, 高昔勳소령)는 이 날 제5대대와 같이 美 해병 제5연대에 배속되어 18.00에 元山여자고급학교를 따라 於雲里로 향하는 도중에 殘敵들의 색출임무를 수행하였으나, 곳곳마다 我側 지방청년들로 조직된 치안대가 이미 활동을 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敵情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不意의 敵의 습격에 대비하여 야간에는 자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엄중한 경계를 실시하였다.

2.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는 이 날 대대作命 「제102호—2호」로 이미 殘留하기로 한 제12중대를 본대에 포함시켜 德元天主敎修道院을 출발한 대대는 咸興에 도착하여 지휘소를 제1중학교에 설치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長津湖方面으로 출동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나, 대대는 이 날 18.00에 美 해병사단 作命으로 美 제10군단의 南方 한계선 작전을 수행하기로 된, 韓國 해병의 새로운 임무에 따라서 咸興을 출발, 다시 南下하여 元山으로 향하였다.

3. 제5대대(장, 金大植중령)는 文川方面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역시 사단명령에 따라

元山으로 집결하기 위하여 제 1 대대와 같이 차량편으로 元山 葛麻半島에 있는 비행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 이동은 야간이동이었기 때문에 冬期被服을 支給받지 못한 대원들은 트럭 위에서 일찍 닥아 온 추위를 이겨야하는 고충을 격어야 했으나, 그 보다도 次期작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욱 안타까웠다. 특히 이 날 美 보병 제 7 연대는 利原에 上陸하고 있었고, 이들은 上陸 후 國境線까지 진격토록 되어 있었다.

10월 30일 : 지금까지 서울에 머물고 있던 해병대사령부(장, 申鉉俊대령)는 元山에 집결중인 해병대를 지휘하기 위하여 陸路와 空路로 구분되어 元山으로의 이동을 시작하였다.

해병대사령부는 作命「제29호」에 따라 陸路로 이동하게 된 金東河소령이 지휘하는 사령부 後方梯隊는 서울에서 鐵原을 거쳐 元山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 대열은 이동 도중에 新高山 일대에 숨어 있는 殘敵의 위협으로 야간행동이 어렵게 되었으나, 이를 무릅쓰고 이동은 강행되었다.

이동대열 속에는 고향을 찾아가는 약간의 민간인과 從軍記者들이 同乘하고 있었다.

제 3 대대와 제 5 대대는 이 날 각기 美 해병대로부터 配屬이 해제되어 葛麻半島 元山비행장에 집결을 완료하고, 陸路이동으로 元山에 도착하게 된 사령부 後方梯隊를 맞이하여 사령부와 합동하기를 기다렸다

10월 31일 : 作命에 따라 空路로 元山에 이동하게 된 사령과 이하 33명(사령관실 전원, 고급부관실 5명, 정보참모실 3명, 작전참모실 3명, 군수참모실 6명, 헌병참모실 4명, 통신참모실 3명)은 11.00에 서울사령부를 출발하여 金浦비행장으로 향하고, 11.45에 金浦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제 1 차로 사령부요원 23명이 美 해병 수송기에 분승하여 14.25에 무사히 元山空港에 도착하고, 뒤 이어 18.00에 제 2 차로 11명이 元山에 도착하였다. 이날 제 1 대대(장, 高吉勳소령)는 비로소 美 제10군단의 命에 따라 美 해병대로부터 配屬이 해제되어 사령부가 위치한 元山에 복귀할 수가 있었다. 이와같이 元山에 집결을 완료한 韓國 해병대는 이미 24일 鹿底에 上陸하여 敵의 침투를 방지하고 필요한 道路의 차단임무를 수행 중인 美 해병 제 1 연대 제 1 대대와의 임무를 교대하고, 39°線 南쪽 美 제10군단 後方을 엄호하며 金剛山일대의 敗殘兵을 완전히 격멸할 목적으로 사령부와 제 1 대대(장, 高吉勳소령), 그리고 제 3 대대(장, 金潤根소령)는 23.00에 美艦 LST 1123號와 LST 975號에 각각 乘船하

였다.

11월 1일 : LST 2척에 乘船한 사령부와 제 1, 제 3 대대는 이날 05.00 元山 東쪽 明砂十里「黃色海岸」을 출발하였고, 제 5 대대 일부는 또 다른 함정으로 10.00에 元山을 떠나 高城에 이르는 道路 및 마을수색의 임무를 맡아 15.00에 庫底에 上陸하여 지휘소를 庫底국민학교에 설치하고, 일부부대 역시 金東河소령이 인솔하는 사령부 梯隊와 같이 陸路로 元山을 떠나 安邊을 경유, 차량으로 庫底에 도착함으로써 대대는 곧 부근 高地에 병력을 배치하여 임무수행의 철저를 기하게 되었다.

이 때 韓國 해병대의 지휘관계는 美 제10군단 직할이었다.

11월 2일 : 이 날 12.00을 기하여 配布된 해병대作命 제30호에 記載된 敵情에 의하면, 약 4,000명으로 추산되는 敗殘兵이 東海岸 松島津里, 高城, 長箭, 庫底일대의 良民을 습격하고 식량과 의류, 기타 생활필수품을 약탈하고 있었고, 이들 敵은 소총과 기관총 등의 輕武裝으로 金剛山 山岳地帶를 근거지로 준據 중이었다.

이 때 韓國軍 제17연대의 一部 부대가 高城에서 작전 중이었기 때문에 해병대는 이들과 임무를 교대하고 東海岸一帶와 그 인접 山岳지대에서 北上하는 敗殘兵을 섬멸하고 아울러 治安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LST 1123號와 975號에 分乘하기로 하고 海上에 대기 중이던 해병 제 1, 제 3 대대는 高城 南方 7km 지점인 松島津里에 上陸하기로 하였다. 이어 16.00부터 약 1시간에 걸쳐 LST 1123號 艦上에 마련된 사령관실에서는 사령관 申鉉俊대령의 주재로 작전회의가 열려 아래 사항이 토의되었다.

1. 金剛山一帶의 敵情
2. 부대의 松島津里 上陸요령과 작업방법의 개요
3. 상륙 후 각대의 최초임무

이때 제 5 대대(장, 金大植중령)는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陸路로 高城을 향하여 庫底를 떠나 南下 중이었다.

11월 3일 : 1. 제 1 대대(장, 高吉勳소령)는 해병대 작전명령 제30호로 松島津里(高城南方 7 km) 南方海岸에 上陸하여 우선 교두보를 확보하고, 제 3 대대의 上陸을 엄호하며 前方에 대한 경계 및 海岸지역에 물자집결소를 보호할 임무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2척의 구축함과 2대의 항공기 엄호하에 LST 975艦으로 松島津里海岸까지 접근한 대대는 08.00에 제 1 중대(장, 鄭滿鎭중위)에서 2개 소대를 差出하여 LCVP 2척에 分乘케 하고, 上陸海岸

지역을 먼저 정찰케 하였다. 이들이 海岸지역에 접근하여 정찰하였으나, 敵情이 없으므로 곧 소지한 SCR 300으로 사령부에 이를 보고하고 上陸을 개시하였다.

上陸 즉시 松島津里 西쪽에 자리잡은 203高地에 陣地를 구축하였고, 제3중대(장, 李鳳出중위)는 上陸 후 松島津里 北쪽 草邱 뒷산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제2중대(장, 金光植중위)와 제4중대(장, 高相河중위)는 松島津里 海岸道路에 陣地를 구축하였다.

2.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는 제1대대가 上陸을 완료한 다음, 곧 뒤를 이어서 제9중대(장, 黃泳중위), 제10중대(장, 鍾德遠중위), 대대본부,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 제12중대(장, 朴東根중위)의 順으로 松島津里海岸에 上陸하여 대대作命 제103호에 따라, 제중대는 尖兵중대가 되어 高城으로 향하는 道路를 따라 주위를 경찰하며 前進하는 동안에 殘餘부대는 戰術縱隊로 高城을 향하여 제17연대와 조속한 연락을 갖도록 하였다.

3. 제5대대(장, 金大植중령)는 庫底에 집결 후 陸路를 따라 敵情을 살피며 高城으로 향하고 있던 중 이 날 강행군 끝에 庫底에서 南쪽으로 약 26km 떨어진 長箭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松島津里海岸에 最終波로 상륙한 사령부는 먼저 제1대대의 엄호아래 海岸에 그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11월 4일 : 이 날 예하에 配布된 해병作命 제31호는 다음과 같이 敵情을 밝히고 있었는데, 5,000~10,000명으로 추산되는 敵 敗殘部隊는 보안서원, 지방공산당원 등을 대동하고 전투를 회피하면서, 수십명, 혹은 수백명씩 분산하여 상당한 속도로 北上, 퇴각하고 있으며, 소화기로 무장한 이들은 일정한 지휘계통이 없어서 烏合之卒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리고 각 대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는데,

「△제1대대는 松島津里, 杆城주변 道路와 鐵路를 확보하고, 杆城을 전투기지로 하여 지역 내의 殘敵을 격멸하라.

△제3대대는 高城—鐵原을 연하는 鐵路를 따라 西쪽으로 敵을 수색하고 차후 通川을 전투기지로 하여 지역내의 敵을 격멸하라. 특히 庫底—高城間 鐵路를 확보하라.

△제5대대는 예비대로 최초 사령부근처에 위치하라.

△有線은 旣設鐵路 電話線으로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 작전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 각 대대의 위치는 다음과 같았다. 즉 제1대대는 사령부와 같이 松島津里, 제3대대는 松島津里 北쪽 7km거리에 있는 高城國民學校에 12.00을 기하여 도착하였고, 제5대대는 長箭을 經由하여 16.00 高城에 도착하였다. 이 날 각 대대가 수색전에서 얻은 戰果는

北傀軍 포로 1명이었고, 戰車의 損失은 전혀 없었다.

11월 5일 : 제 1 대대(장, 高吉勉소령)는 전날 밤을 기하여 사령부와 같이 高城에 도착하여 사령부 作命32號에 의하여, 즉 杆城 西北쪽 7.5km에 위치한 乾鳳寺일대에 근거를 둔 敗殘兵 약 3,000명이 소총과 약간의 輕기관총을 소지하고 杆城부근 海上里(雪城으로부터 5km 지점)와 入音里 等地에 出沒하고 있다는 民間人이 提報한 敵情을 입수하고 이를, 격멸하기 위하여, 우선 수색대로 하여금 高城 杆城間의 道路와 鐵路의 敵情을 탐색한 다음, 13.00에 화물열차를 이용, 高城驛을 출발하였으나, 도중에 機關車의 고장으로 부득이 제 1 중대로 하여금 열차에 적재된 물자를 경비케 한 다음, 대대 主力은 徒步로써 杆城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하여 杆城에 도착한 대대는 대대 지휘소를 「杆城病院」에 설치하고, 후에 도착한 제 1 중대로 하여금 다시 이를 경비케 하고, 제 2 중대는 杆城 東北쪽 高地에, 제 3 중대는 杆城 南西쪽 高地에, 제 4 중대는 杆城邑內에 各各 배치하고, 이 부근에서 出沒하는 敗殘兵을 討伐키로 하였다.

제 3 대대(장, 金潤根소령)는 대대 작전명령 제104호로 高城國民學校에서 제10중대 제 1 소대를 宿營地 西方 93高地에, 제10중대 제 2 소대를 宿營地 東北方 元山으로 통하는 道路 左側에, 그리고 제10중대 제 3 소대를 東쪽 海岸에 위치한 松島津으로 통하는 大橋 北쪽 海岸高地에 각각 경계배치하여 하룻밤을 지나고, 대대 작전명령 제105호를 각 예하대에 示達한 다음, 溫井里(高城 西北쪽 10km)로 부대이동을 서두르게 되었다. 대대는 이어 敵情수색을 위하여 08.00에 제 9 중대(장, 黃泳중위)를 普安里(高城 西南쪽 8km)에 파견하여 부근일대의 敵情을 탐색케 하는 한편,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를 10.00, 溫井里(高城 西쪽 10km)에 파견하여 前方에 위치한 萬物相 等地의 敵情을 수색토록 하여, 日沒 후까지 各其 陣地를 경비하며 상황을 대대에 보고토록 하였다. 이 措置에 따라서 제 9 중대와 제11중대는 각기 맡은 바, 임무수행을 위하여 相異한 방향인 溫井里와 普安里에 출동하여 敵情을 살폈으나, 아무런 敵의 動靜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본대에 보고하고, 해가 지기 전에 귀대하였다. 이 날 사령부에 입수된 첩보는 약 3,000명으로 추산되는 敵이 小火器를 所持하고 姑耒城里(雪城 북쪽, 直津西方 直線距離 20km)일대에 出沒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敵情이 새로이 발견된 상황 하에서 해병대사령관 申鉉俊대령은 작전명령 제32호를 16.00에 예하 각대에 示達하고, 제 3 대대로 하여금 그 主力이 溫井里로 향하는 것을 중

지하도록 하고 杆城에 머물고 있는 제1대대와 합동하여 山脈을 타고 北上, 퇴각하는 敵을 南北으로 협공하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이 때 제5대대는 高城警察署에 자리잡은 사령부 및 市內일원에 걸친 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14.00에 美 제10군단 참모부장(美 해병대 대령)이 戰況시찰차 헬리콥터편으로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하여 18.00부터 사령관실에서 韓國 해병대의 실정에 대하여 相互 의견을 나누었고, 申鉉俊사령관은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하였다.

또한 申鉉俊사령관은 美 제10군단 참모부장이 돌아간 다음, 제3, 제5대대장을 비롯하여 각급 참모가 참석한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高城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敵情과 각 대대의 배치계획 및 今後 작전행동에 대하여 論議하였다.

11월 6일 : 이 날 지방민으로부터 입수한 종합정보에 의하면 소화기로 무장된 약 3,000명으로 추산되는 敵이 高城郡 水同面 姑未城里(杆城西 北方 20km)일대에 殘在하여 지방거주민에게 온갖 蠻行을 거듭하고 있으며, 한때 末雄里(高城 西方 30km 外金剛 西쪽)에 집결되었던 敵 약 15,000명은 그 일부병력이 山脈을 타고 三防을 經由하여 安邊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友軍의 배치는, 美 해병 제1연대가 安邊에 布陣하고 있었고, 美 육군 제65연대가 高原(元山 北方 45km)에 布陣하여 北上, 퇴각 중인 敵의 퇴로를 차단, 저지하고 있었다.

1. 제1대대(장, 高吉熟소령)는 해병 작전명령 제32호(1950. 11. 5)에 따라 敵의 퇴로를 차단하는 한편, 先制攻擊을 하여 이들을 殲滅할 계획으로 主力으로 하여금 07.10에 杆城에서 姑未城里에 이르는 道路를 따라 敵에 대한 攻擊을 敢行하고, 北쪽에서 攻擊하는 제3대대와 合同하여 敵을 兩面에서 攻擊하는, 즉 협공작전의 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한편 부대대장 金鍾植대위는 이 날 05.30을 기하여 제2중대(장, 金光植중위), 제3중대(장, 李鳳出중위)를 직접 지휘하고, 제4중대(장, 高相河중위)로 부터 81mm박격포 4문과 중기관총 4문의 지원을 받아, 乾鳳寺(杆城 西北쪽 8km)로 통하는 道路를 따라 海上里(杆城 西方 5.5km)를 향하여 출동하였다.

이날 대대가 수집한 정보는 北上, 퇴각하던 敗殘兵 3,000여명이 海上里와 入音里 等地 일대를 습격하여 지방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이들중 약 1,500명 敵은 入音里 西쪽 마을인 「위천마을」에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07.00에 본대를 떠난 이들은 우선, 「入音마을」(杆城 西方 4km)에 진격하여 제2중대를 東

側에, 그리고 제3중대를 258高地 東쪽 山麓에 배치하고, 「위천마을」을 향하여 공격을 開始하였다.

이 공격에서 얻은 戰果는 民家에 잠복하여 저항하던 敵 7명을 사살하는 한편, 포로 1명, 귀순, 8명, 도합 16명 이라는 敵의 人命損失을 입혔고, 아울러 5정의 소총을 노획한 것이다.

2.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는 사령부의 命에 의거, 이날 09.30을 기하여 高城지구에 대한 경계임무를 제5대대(장, 金大植중령)에 인계하여 杆城地區에서 山脈을 타고 퇴각 중인 敵을 제1대대와 合同하여 開殘嶺(高城 西方 15km)부근에서 邀擊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제11중대를 溫井里에 殘置시키고, 대대의 主力을 普文里(城西 方高 10km)로 이동한 다음, 대대 작전명령 제108호를 19.00에 예하대에 하달하고 明日 07.30을 기하여 敵을 공격하는데 필요한 준비작업을 서둘렀다.

3. 제5대대(장, 金大植중령)는 高城警察署에 駐在한 사령부와 高城邑內에 대한 경계임무를 09.30를 기하여 제3대대로부터 정식으로 인수하게 되어 예비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高城邑內에 대한 治安임무도 겸하게 되었다.

11월 7일 : 1. 제1대대(장, 金潤根소령)는 「위천마을」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金鍾植대위가 지휘하는 제2, 제3, 제4중대를 다시 출동시켰는데, 이들은 05.00을 기하여 殘敵을 追擊하여 험준한 太白山脈을 넘어 14km 지점까지 진격한 다음, 다시 姑末城里에 대한 攻擊에 臨하였으나, 敵은 이미 北으로 퇴각한 뒤였기 때문에 기대하였던 戰果는 거두지 못한 채 오후 늦게야 차편으로 杆城에 귀대하였다.

2.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는 이 날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가 溫井里에 계속 머물면서 前方을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대대主力은 普文里(高地 南方 15km)에 集結을 完了한 다음, 제1대대의 공격을 받고 北上 퇴각 중인 敵을 開殘嶺일대에서 완전殲滅코자 다시 행동을 시작하여 제9중대(장, 黃泳중위)를 尖兵中隊로 하고 제10중대(장, 鍾德遠중위), 대대본부(장, 金潤根소령), 그리고 제12중대(장, 朴東根중위)를 구분하여 戰術隊形을 갖춘 다음, 白川橋里(高城 西南方 4km)方里은로 출발하였다.

이후 白川橋里에 도착한 대대(—)는 먼저 제10중대(장, 鍾德遠중위)에게 開殘嶺으로 통하는 道路를 수색케 하였다.

13.00에 험준한 道路를 따라 敵情을 살피며 楡岾寺에 도착한 제10중대는 敵 소총부대 약

50여명과 遭遇하여 격전 끝에 사살 10명, 포로 3명과 蘇聯製소총 10정, 실탄 200여발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고, 나머지 敵을 16.00에 이르러 완전히 격퇴하였다. 이리하여 이들은 高城郡 水同里(南城 南方 25km)으로 통하는 道路를 향하여 병력을 분산, 잠복케 하고, 北上하여 올 敵을 待期하고 있었다.

한편 제9중대와 제12중대는 대대본부와 같이 白川橋里에서 待期 중이었으나, 新盛里(高城 南方 15km) 근처에 500~700명으로 추산되는 敵이 殘在하여 마을을 습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敵을 殲滅하기 위하여 대대(-)는 부대이동을 개시한 다음, 白川橋里에서 普支里를 거쳐 新盛里에 이르는 道路分岐點 부근마을인 「영고」에 부대를 머물게 하고, 제9중대(장, 黃 泳중위)로 하여금 新盛里의 敵을 공격토록 하였다. 이들이 공격을 개시한 지 불과 2시간 내에 接敵없이 新盛里 南쪽 高地를 점령하고, 이어 北쪽에 위치한 外明里를 점령하였다.

11월 8일 : 1. 제1대대(장, 高吉勳소령)는 대대장의 命에 따라서 수색대원 3명을 差出하여 海上里부근의 敵情을 파악키 위하여 아침 일찍 행동을 開始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수색임무를 띠고 대대를 출발한 이들은 海上里 부근은 물론, 乾鳳寺와 北쪽 멀리 水同里일대의 敵情까지 입수한 다음, 다시 드리워터에 乘車하여 道路에 인접한 長新里(杆城과 陳富嶺 사이)에서 또한 敵情을 입수하고 大韓青年團에 귀순한 北傀兵 8명을 압송하여 귀대하였다.

한편 杆城에서 활동 중이던 대대는 美 제10군단의 作命에 근거하여 작성된 해병대 작전명령 제33호(口頭命令後 14.00에 文書示達), 즉 『제3, 제5대대는 美 제10군단장은 지휘를 받으며, 사령부와 제1대대는 계속 高城에 駐留하여 담당구역 내의 경비와 出沒하는 殘敵들을 격멸하도록 하라.』는 命에 의하여 제1중대(장, 鄭滿鎭중위)로 하여금, 杆城에 계속 머물게 하여 이 지역경비를 담당케 하고, 대대主力은 제2중대(장, 金光植중위), 제3중대(장, 李鳳出중위), 본부중대, 그리고 제4중대의 順으로 杆城을 출발하여 12.00까지 高城에 도착하기 위한 강행군이 시작되었으나, 海岸道路를 이용한 부대이동은 당초 계획보다 늦게 16.00에야 비로소 완료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高城지구의 경계임무를 담당하던 제5대대로부터 임무를 인계받고 본격적인 高城지구 경계임무에 착수하게 되었다.

2.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는 海兵隊 작전명령 제33호에 의하여 현재까지 영고마을에

駐留하며 殘敵殲滅작전을 전개하던 것을 중지하고 松島津里에 9일 09.00까지 부대를 집결시키기 위한 행동이 개시되었는데, 대대본부와 제12중대(장, 朴東根중위)는 駐留하던 영고마을을 출발하여 外面里(高城 南方 10km)에서 新盛里를 집령한 바 있는 제10중대의 일부부대와 그리고 제9중대가 合流하여 대대가 보유 중인 차량에는 重火器 및 화물만 적재하고, 대대장 이하 전 병력은 제9, 제10중대, 그리고 대대본부와 제12중대의 順으로 전술종대에 의한 徒步행군을 감행하였다.

한편 溫井里에 잔류하여 高城에서 通川에 이르는 道路경비와 부근일대의 殘敵擊滅의 임무를 띠고 활동 중이던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는 별도로 13.00까지 松島津里에 집결하라는 대대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11월 9일 : 이 날 09.30를 기하여 松島津里海岸에 집결을 완료한 제3, 제5대대는 08.00부터 부대정비와 乘艦준비를 서둘러서 12.00까지는 次期작전에 임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다음 18.00에 LST 2척에 대대별로 分乘을 끝낸 이들 부대들은 申鉉俊사령관을 비롯하여 각급 참모들, 그리고 武運長久를 비는 수많은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一路 元山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기타 보급물자는 차량에 적재하여 高城에서 通川을 經由하는 陸路를 이용하여 元山으로 떠났다.

당시 元山에는 美 해병 제7연대가 駐留하고 있었고, 제7연대 예하 제3대대가 포병 1개 중대의 지원을 받으며, 馬轉里지역일대의 경계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중 1개 중대는 險峻한 馬息嶺에 파견되어 馬轉里를 通하는 補給路를 확보하고 있었다.

11월 10일 : 高城지구에 사령부와 함께 머물게 된 제1대대(장, 高吉勳소령)는 제5대대로부터 인수한 高城지구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날 제2중대(장, 金光植중위)를 39高地와 32高地에 배치하고, 제3중대(장, 李鳳出중위)를 高城東方 36高地에 배치하여 각각 陣地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또한 제4중대(장, 高相河중위)로 하여금 高城南方에 位置한 122高地에 박격포 4문, 重기관총 2문, 그리고 93高地에 重기관총 1문을 각각 배치토록 하여 高城지역 경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10.00에는 溫井里와 長箭, 그리고 新盛里(高城 南方 15km)에 1개 소대의 병력을 각각 파견하고 敵情정찰을 계속토록 하였다.

한편 이날 松島津里를 출발하여 元山에 도착한 제3대대는 곧 美 해병 제7연대장으로부터 美 해병 제7연대 제3대대와 합동작전으로 馬轉里(元山 西方 24km)에서 北上하는 北傀軍을 阻止, 殲滅하라는 명령을 받아, 美 해병대의 차량에 의하여 멀리 馬轉里로 향하였으

며 다음 목적지에 도착한 이들은 즉시 요소요소에 부대를 배치하여 敵의 來襲에 대비하였다.

11월 11일 : 제 1 대대(장, 高吉勳소령)가 담당하게 된 金剛山일대에는 敵敗殘兵이 아직도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敗走하는 北傀軍을 규합하여 사단본부를 설치하는가 하면 「빨치산」부대를 조직하여 때로는 道路를 掘掘하여 이곳을 通過하는 我軍을 기습할 기세였다.

대대는 이 날 海路를 通하여 庫底에 도착하는 군수물자를 수령하기 위하여 姜昌熙병조장을 長으로 하여 대원 6명을 庫底에 파견하여 아울러 曹鳳植준위로 하여금 美軍과의 연락업무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그외의 병력은 계속 계획된 경계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馬轉里에 출동한 제 5 대대가 敵과의 교전에서 많은 戰果를 올리고 있을 때, 제 5 대대는 元山에서 文坪에 도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자체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11월 12일 : 이 날 주민들로부터 입수된 첩보는 敵의 主力이 乾鳳寺(楊城 西方 10km)에 약 2,000명, 姑未城里(乾鳳寺 西北方 10km)에 약 1,000명, 新炭里(姑未城里 南方 5km) 등지에 약 1,450명이 각각 蟠居하고 있었고, 金剛山 西部溪谷일대에 약 3,000명의 敵이 散在되어 온갖 蠻行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대는 사령부 명령 제35호에 의거하여 美 제10군단 소속 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며 일차로 乾鳳寺와 姑未城里부근에 준동하고 있는 敵을 포위, 공격하기 위하여 소총 1개 중대만을 高城에 殘置시킨채, 대대主力으로 하여금 2일간의 식량을 휴대케 하고 05.00. 高城을 출발하여, 일부부대는 高城에서 巨津까지 鐵路를 이용케 하고 迂廻부대는 陸路를 이용하여 乾鳳寺로 향하였다.

그 뒤 작전지역에 도착한 대대는 은밀행동으로 敵의 퇴로에 병력을 배치하여 잠복케 하는 한편, 主力으로 하여금 乾鳳寺를 兩面에서 공격토록 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미 1일 전에 이곳을 버리고 姑未城里方里으로 北上 도주하였기 때문에 예상했던 戰果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姑未城里와 그 남쪽 마을인 沙泉里까지 進擊하기로 하고 각 대는 소대별로 야간방어진지를 구축하여 경계를 엄중히 하는 한편, 다음에 있을 공격준비에 대비하였다.

11월 13일 : 대대는 전날에 배치된 각개의 경계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殘敵수색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한편 庫底에 군수물자의 수령을 위하여 파견되었던 姜昌熙병조장을 長으

로 하는 대원 6명이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高城에 도착하여 귀대하였다.

11월 14일 : 제 1 중대(장, 鄭滿鎭중위)는 야간행동으로 乾鳳寺를 經由하여 沙泉里로 향하던 중 05.00에 敵의 퇴로로 추측되는 沙泉부근 590高地와 702高地 稜線에 잠복하고, 제 3 중대(장, 李鳳出중위)와 제 4 중대(장, 高相河중위)는 차량을 이용한 야간기동으로 葛馬고개에 도착하여 06.00를 기하여, 제 1 중대가 沙泉里를 공격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 姑未城里를 공격하였다. 敵은 대부분이 敗走하고 약 5000명이 남아 있다가 그나마도 제 1 중대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여 山中으로 도주한 뒤였다.

한 편 이 날 해병대사령관 申鉉俊대령과 참모장 金鳳恩중령은 헬리콥터편으로 제 1 대대의 작전지역을 시찰하였다.

11월 15일 : 11.00를 기하여 姑未城里작전을 끝낸 제 1 대대는 高城으로 歸還하여 高城一帶에 대한 경비에 임하게 되었다.

한편 이 날 입수된 첩보에 의하면 약 1,500명의 敵이 斷髮嶺(金剛山 西方 18km)에 근거를 두고, 그 일대에 출몰하여 약탈과 학살 등을 자행하면서 주민들을 극도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敵情에 비추어 해병대사령관은 차기작전을 위한 명령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10.00에 高城에 飛來한 美 제10군단장은 작금 참모들로부터 韓國 해병대의 諸般事項을 들은 다음, 11.00 高城을 떠났다.

11월 16일 : 이 날 사령관 申鉉俊대령은 해군본부와의 임무연락과 海兵學校를 시찰하기 위하여 美 航空機편으로 11.00에 高城을 출발하였다.

한편 제 1 대대(장, 高吉勉소령)는 사령부 작전명령 제37호에 따라 부대대장 金鍾植대위로 하여금, 제 2 중대와 제 4 중대의 1개 소대를 인솔케 하여, 長箭과 通川間의 海岸道路에 出沒하는 소규모의 敵을 격멸토록 부대를 출동시켰다.

이에 따라 열차편을 이용하여 通川에 도착한 이들은 즉시 제 4 중대 소속 1개 소대병력을 通川발전소에, 그리고 제 2 중대(장, 金光植중위)는 鐵橋를 준비하는 임무를 띠고 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또한 이 날 馬轉里에서 敵과 교전하고 있던 제 3 대대는 陽德(平安南道)에 駐地한 U.N軍과의 連繫를 맺기 위하여 東陽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는데, 이동 도중에 아무런 敵의 저항도 받지 않은채 무사히 임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11월 17일 : 제 5 대대의 본대와 別個행동으로 지금까지 美 보병 제 3 사단에 配屬되어 작전 중이던 제23중대(장, 權錫基중위)는 그 配屬이 해제되고 高城에 駐留 本隊에 復歸되어 원상태로 제 1 대대장의 지휘 하에 놓이게 되므로써 高城지구의 해병대병력은 그만큼 증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날 사령부는 通川지구에 파견되어 작전 중인 제 1 대대 제 2 중대와 제 4 중대의 1개소대에 병력을 증가시켜 東海岸통로를 위협하는 敵들을 격멸토록 하는 작전명령을 「要旨명령」형식으로 17.00을 기하여 시달하였다.

11월 18일 : 제 1 대대는 07.00에 通川方面에서 활동 중인 金鍾植대위가 지휘하는 대대의 일부병력을 增强하기 위하여 「要旨命令」을 하달하여 전날 高城에 도착한 제 5 대대 제23중대(장, 權錫基중위)를 17.00에 열차편을 이용하여 通川으로 向發시켰다.

대대를 출발한 제23중대(장, 權錫基중위)는 長箭에 이르러, 소총 1개 소대만을 陸路 치당기동으로 계속하여 通川으로 향하게 하고, 중대의 主力은 南海里(長箭北方 10km)에서 宿營하며 高城과 通川으로 연하는 道路를 경비토록 하였다

11월 19일 : 李西根소위가 인솔하는 1개 소대병력의 야간과 주간행동으로 新基里에 도달하였을 때, 이 지역에서 蠢動하던 敵의 敗殘兵과 遭遇하게 되어 彼我間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으나, 지금까지 乘勝長驅하던 海兵隊의 衝天한 士氣 앞에는 敵手가 될 수 없었던지, 16.00에 이르러 敵들은 뿔뿔이 新基里를 버리고 山中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敵 사살 7명, 다발총 3정, M1소총 1정, 그리고 수류탄 5개와 전화기 1대 및 탄창 2개 등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와같이 高城지구의 해병대가 猛活躍을 하고 있는 동안 제 3 대대 또한 東陽지구에서 敵情수색에 餘念이 없었다.

11월 20일 : 通川에 파견된 金鍾植대위가 지휘하는 제 1 대대의 일부부대는 09.00 通川發電所가 있는 中基里(通川 南西方 11km)에 일부병력을 출동시켜 정찰을 실시케 하였고, 한편 대대본부에서는 1개 소총소대를 新岩里方里에 파견하여 敵情을 탐색케 하였으나, 敵과의 遭遇는 없었다.

11월 21일 : 中基里에 파견되어 發電所부근에서 활약 중인 부대로부터 09.30에 「中基里 제 3 發電所 東南方 3km 지점에 敵이 출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通川파견대장 金鍾植대위는 곧 23중대를 中基里을 急派하여 敵情을 탐색케 하였다.

11월 22일에에 11월 24일에 이르는 기간 중 金鍾植대위가 지휘하는 1개 부대는 通川에서, 대대본부와 그밖의 부대는 高城에서 각기 殘敵출몰에 대비한 탐색전을 전개시키고 있던 제1대대는 비교적 평온한 戰勢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杆城 및 高城, 그리고 通川에서 작전활동을 전개한 해병대의 맹렬한 공격에 의하여 太白山脈을 타고 北上敗走하던 殘敵들이 점차로 東海지구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證左가 되었다.

11월 22일 : 참모장 金聖恩중령은 美 고문관과 같이 본대와 멀리 떨어진 通川지구에서 활약하는 제1대대의 일부 작전지역을 시찰하기 위하여 09.00에 헬리콥터편으로 通川으로 向發하였다가 17.00에 高城으로 귀대하였으며, 또한 출장 중이던 中鉉俊사령관 역시 16.30에 사령부로 歸任하였다.

11월 24일 : 해군본부로부터 해병대에 支給될 군수물자가 FS船舶 편으로 15.00에 元山港에 入港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해병대사령부는 4대의 차량을 동원하고, 黃英植소위로 하여금 1개 분대병력을 인솔하여 이 보급물자를 수령토록 元山으로 향하게 하는 한편, 예하 각대에 보급하기 위한 作命 제38호를 발하였다.

한편 이 날 참모장 金聖恩중령은 09.30에 要務연락차 元山으로 향하였고, 文坪에 駐留하던 제5대대(장, 金大植중령)는 美 해병사단의 命에 의하여 임무를 교대하고 安邊으로 이동하였다.

11월 25일 : 高城에 주둔하고 있던 제1대대는 이 날 09.00에 溫井里와 新風里方面에 각각 1개소대의 정찰대를 출동시켜 敵情을 수색케 하였는데, 裵東赫소위 지휘 하의 1개 소대는 高城과 襄陽間의 道路를 따라 南쪽으로 進出하여 부근일대의 敵情을 살피게 하였고, 다른 1개 소대는 溫井里方面으로 출동시켜 역시 敵情탐색에 主力토록 하는 한편 09.30에는 新岩里(高城 南方 30km, 始興城里 南方 5km)에 또 다른 1개 소대병력을 파견하여 敵情을 탐색토록 하였다.

한편 通川에서 활약 중이던 金鍾植대위의 부대는 通川 中興里 所在 제3발전소에 파견 중인 2개 소총소대를 제4발전소로 이동시키고 그 일대를 수색 및 경비토록 하였으며, 사령부의 지휘를 벗어나서 별개작전에 참여하고 있던 제5대대(장, 金大植중령)는 安邊에 대대지휘소를 설치하고 新高山方面에서 敵 300여명이 출몰하였다는 정보에 따라 1개 중대(-)를 출동시켜 이들을 격멸토록 하고 있었다.

11월 26일 : 高城과 通川 및 安邊과 東陽里 等地에서 分散되어 각기 別個작전을 벌이고 있을 때 사령부에서는 美 제10군단 작전명령 7호를 수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韓國 해병대 高城과 通川에서 작전 중인 사령부와 제1대대(제23중대 제외)를 安邊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작전명령 제39호를 기초하고 15.00를 기하여 예하에 하달하였다.

그런데 11월 27일 09.00를 기하여 부대이동을 하기 위한 요령이 명시된 이 작전명령의 要旨는 대략 다음과 같다.

『△제1대대장은 현재 출동 중인 제23중대를 通川에 殘置시켜 계속 현재의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17.00까지 通川지구에서 差出된 병력은 通川으로, 高城에서 差出된 병력은 高城으로 각기 집결, 완료토록 하되 출발시까지 駐留지역 내의 경계를 계속하라.

△사령부 본부중대장은 본부이동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17.00까지 완료하고, 27일 09.00에 선발대를 安邊으로 출발시켜 사령부 시설작업에 임하도록 할 것.

△환자는 열차편을 이용하여 수송토록 하고, 安邊에 도착 즉시 元山野戰病院에 입원조치토록 하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차량은 현지에 도착 즉시 필요로 하는 물자만 적재하고, 적재된 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병을 同乘시켜 安邊으로 향하도록 하고, 기타 병력과 물자는 鐵道로 수송토록 한다.

△鐵道를 이용한 수송에는 대대장이 차량을 이용한 수송에는 軍需참모실 소속 장교위가 그 책임을 각각 담당하라.

△부대이동을 위하여 26일 중으로 貨車 15輛이 元山으로부터 高城에 도착할 것이니, 그 중 4輛分은 通川에 駐留한 부대에 사용토록 通川에 그대로 殘置해 둘 것.

△27일 이후 부대가 安邊에 도착하는대로 포로들은 새로이 설치된 포로수용소에 이동 수용하라.

라. 작전 후의 개황

高城과 通川 等地에서 계속부대를 駐留시키면서 金剛山일대에 출몰하는 敵 敗殘兵을 탐색, 격멸하는 한편, 東海岸街道와 鐵道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사령부와 제1대대는, 이 지방에서 평온을 되찾게 되자, 美 제10군단 作命 제4호에 따라 安邊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다음 날인 11월 27일에 제1대대병력은 철도편으로, 그리고 사령부 본부중대는 陸路로 각각 09.00를 기하여 高城을 떠났으나, 도중에 차량고장으로 예정대로의 부대이동은 不可하여 뒤늦게 安邊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美 제10군단의 작전명령 수정으로 부대는 승차한 그대로 安邊을 출발하여 23.00에 元山에 도착하게 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全南 木浦에서 駐留하며 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제2대대(장, 鄭鳳生소령)가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본대와 합세하기 위하여 元山에 上陸하였기 때문에 元山에 도착한 해병대 병력은 더욱 보강된 형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新高山方面에 출동하였던 제5대대도 元山으로 復歸하여 銘山국민학교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때 날로 증가되어 가는 敵情에 비추어 美 보병 제2사단에서 작성한 元山防禦계획에 따라 韓國해병대는 元山防禦에 注力하는 한편, 제2, 5대대를 12월 2일 咸興으로 출동시키고, 東陽里에 머무르고 있던 제3대대로 하여금 馬轉里에 출동케하였다가 다시 元山으로 복귀토록 하였다.

그후 해병대는 中共軍의 참입에 따르는 戰勢의 변동으로 제1, 5대대만을 元山에 殘留시키고 咸興으로 이동하여 長津湖方面에서 이동하는 美 제10군단 예하 美軍부대들이 엄호임무를 수행하다가 이를 완료하게 됨으로써 咸興과 興南 等地에서 海路와 空路로 鎭海까지 作戰上의 이동을 敢行하였다.

그리고 이번 작전을 통하여 韓國海兵隊가 거둔 종합전과는 敵 사살 33명, 포로 5명, 귀순 16명, 다발총 3정, M1소총 1정, 기타 소총 15정, 수류탄 5개, 전화기 1대, 실탄 200여발, 탄장 2개 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 1대대 대대장 高吉勳소령

(1965년 9월 1일 도지개량연합회에서 증언 당시 예 소장)

해병대는 仁川에서 세 곳으로 부대가 갈렸는데 제1대대는 東海岸에 있는 葛珍墨湖지역으로 上陸하였고, 제2대대는 木浦지역, 그리고 제3대대는 元山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우리 부대는 처음 葛珍에 上陸하였다가 다시 墨湖로 上陸하여 약 5,000여명의 敗殘兵이 北上한다는 情報에 의하여 이를 격멸코자 이곳에 上陸한 것이다.

제1대대는 江陵, 三陟지역을 정찰하였으나 接敵하지 못하였다. 곧 상부(海軍本部) 命에 의하여 元山으로 上陸 美 海兵隊에 배속되었다가 다시 軍團直轄部隊로 있으면서 忻城, 高城일대에서 殘敵討伐작전을 하였으나, 큰 成果는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다시 元山으로 全部隊가 집결하여 철수하였는데, 제1대대는 철수시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補給物資를 최대한 철수시키고 最終防禦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永興灣에서 LST에 의하여 철수하였고, 民間피난민 약 3,000명을 승선시켰다. 釜山을 거치 鎭海까지 到着한 제1대대는 孔正植少領과 部隊長을 교대하였다.

◇ 제 1대대 張大吉준위

(1965년 2월 23일 鎭海교육단에서 증언 당시 대령)

釜山에서 2,3일간 정박하고 있던 수송선은 東海岸에 上陸하여 殘敵을 소탕하고 다시 승선하여 元山으로 향하였는데, 元山灣의 掃海작업으로 上陸하지 못하고 元山 南方으로 移動하였다.

제1대대는 高城지역에서 金剛山地域인 溫井里

內金剛, 外金剛등지에서 분산된 敵兵을 소탕하였는데, 山岳地에서 겨울을 맞았음으로 피복과 장비가 여의치 않아 全兵力의 반이 동상에 걸리게 되었다.

어곳에서 전투가 끝나자 車輛편으로 元山에 이동하여 美 해병 제5연대에 잠시 배속되어 警備임무를 수행하다가 배속해제와 동시 長津湖 方面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美 해병 제1연대 제3대대는 長津湖지역에서 苦戰을 하고 있었으므로 我軍 제1대대에서는 1개 중대를 차출하여 美 해병대를 지원하였다.

◇ 해병 제 5대대 許允軾상사
(1965년 4월 21일 江華部隊현병대에서 증언, 당시 상사)

元山上陸(明沙十里) 後 安邊을 經由, 夕陽이 질무렵 新高山으로 갔다. 이때의 敵과의 거리는 불과 山 하나 밖에 사이에 두지 않고 있었다. 해는 지물어 陣地作業을 마친 우리들은 이 곳에서 宿營을 하는데 별안간 敵의 迫擊砲彈이 날라와 급작히 後方陣地을 이동한 사실이 있다. 나중에는 敵이 우리 前哨에서 수류탄을 던지는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戰友들은 能히 이들을 擊退시키고 그 다음 날 上部의 命에 依해 元山으로 자리를 옮겼다.

§ 參戰者의 略歷

◇ 해병 제 1대대 金鍾植대위

1950년 10월 10일 제1대대 부대대장
1951년 1월 3일 사령부 작전보좌관
〃 3월 7일 제1연대 작전주임장교
〃 7월 12일 제1대대장
1952년 3월 25일 해병교육단 작전참모
〃 5일 28일 〃 부교장
〃 10월 20일 제1전투단 제1대대장
1953년 5월 7일 해군본부 헌병감

◇ 해병 제 1대대 제 1중대장 鄭滿鎭중위

1950년 7월 15일 제1연대제1대대제1중대장
1951년 5월 10일 포병대대부(대위)
1952년 5월 20일 포병대대장(소령)
1953년 5월 16일 해병학교 부교장

◇ 해병 제 1대대 金光植 중위

1950년 1월 27일 제1대대 제2중대장
〃 12월 25일 해병학교 선임장교
1951년 4월 28일 제1연대 연락장교
〃 6월 23일 제2대대 부대대장
1952년 4월 15일 제8대대 대대장
1953년 2월 9일 해병학교부
〃 2월 25일 사령부 대대장

◇ 해병 제 1대대 李西根

1950년 1월 24일 사령부 작전참모실
1950년 9월 24일 제1대대 제1중대 선임장교
1951년 1월 10일 제1중대장
1951년 7월 6일 제1대대 작전장교
1951년 10월 16일 해병학교 계획과장
1952년 5월 10일 해병학교 교육처장
〃 10월 8일 교육가지정비부대장
1953년 3월 31일 해병학교 교제과장

第 31 章

平 壤 進 擊 作 戰

第31章 平壤 進擊作戰

要 旨

韓國軍이 38°線을 돌파한 무렵에 이미 MacArthur UN軍 총사령관과 Walker 美 제8군사령관은 승리의 상징이 되는 平壤奪還을 위하여 全般的인 작전을 구상하였다.

즉 西部의 主攻은 美 제1군단(장, Frank W. Miburn소장)이 담당하여 平壤을 향해 北進하는 한편, 元山에 上陸할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소장)의 美 제7사단으로 하여금 西進하여 平壤 東北方을 공격케 하자는 것이었다. Walker중장은 元山上陸부대의 西進에 대하여 그 成功을 疑心하는 反對의견을 가졌으나, 中部戰線에서 진격할 韓國軍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을 平壤方向으로 轉進시킬 수 있는 형세였다.

그리하여 西部 開城--高浪浦일대에서 北進케 될 美 제1군단은 美 제1기병사단(英 제27여단 배속)을 主攻으로 開城正面에서 金川--沙里院--黃州--平壤으로, 韓國軍 제1사단은 2 東側에서 군단 右翼으로 高浪浦--市邊里--遂安--平壤으로 각각 진격케 하는 한편, 美 제24사단은 左翼으로 禮成江 西部地域에서 기병사단을 엄호, 北進케 하였다.

이 때 敵은 새로 再編한 4개 사단을 西部戰線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西쪽 禮成江 西側에서부터 제43사단, 제19, 제27사단, 제17기갑사단이 開城 北方 및 東北方을 지켜 高浪浦正面에 이르는 지대에 이르기까지 布陣한 다음, 我軍의 진격을 지지코자 저항하였다.

10월 8일에 開城에 集結을 완료한 美 제1기병사단(장, Hobart R. Gay소장)은 다음 날부터 金川包作開戰을 展開하였으니, 이는 우선 金川에서 敵의 主力을 격멸한 다음에 一擧에 平壤으로 진격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7기병연대는 사단 左側에서 敵 제43사단의 저항을 격파하고 禮成江을 渡河하여 白川에 진출한 다음, 進擊方向을 北으로 돌려 10월 12일에 金川 北方 汗浦里에서 敵의 退路를 봉쇄하였으며, 제5기병연대는 華藏山 北麓으로 東北進하여 九化里西北方 北隅을 거쳐, 金川 東北方을 迂廻 공격하였다. 다시 南進한 제5기병연대의 일부는 開城 北方 豆石山의 敵과 치열한 전투 끝에 北上하는 제8기병연대의 先頭와 14日에 連結함으로써 金川의 敵 제27사단은 와해되고 말았다.

이보다 늦게 韓國軍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10월 11일에 主力이 高浪浦에서 38°線을 돌파하고 진격을 시작하였다. 사단 右翼의 제15연대는 新溪으로 迂廻하여 13일에 市邊里를 탈환하였으며, 左翼의 제11연대는 九化里--新川里로 진격하였으나, 敵의 地雷와 지형으로 速度가 늦어지자 뒤를 따르던 제12연대가 戰車隊를 앞 세워 超越前進케 되었다. 市邊里를 탈환한 사단은 계속 진격하여 新溪 南쪽 屈隅洞에서 집요한 敵의 저항을 격파한 다음, 16일에는 제12연대의 步戰協同부대를 先頭로 遂安에 진출하였으며, 다음 날인 17일에는 平壤 東南方 38km인 栗里--祥原일대에

진출하여 赤都탈환을 위한 마지막 차비를 갖추고 있었다. 사단은 美軍에 훈련 뒤지는 機動裝備의 貧弱에도 불구하고 晝夜兼行의 진격으로 克服하므로서 美軍을 앞 서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金川包圍作戰을 끝낸 美 제1기병사단은 다시 沙里院으로 진격하였는데, 이때 Milburn 군단장이 기병사단과 美 제24사단에 대하여 沙里院 先占사단에게 平壤進擊路의 우선권을 준다고 하므로써 사단간의 진격경쟁을 일으켰던 바, 美 제27여단이 17일에 沙里院에 가장 먼저 진출하므로써 기병사단이 平壤으로 진격케 되었으며, 美 제24사단은 제21연대가 海州를, 제19연대가 載寧에서 溫井里를 거쳐 鎭南浦對岸으로 진격케 되었다.

또한 기병사단은 같은 17일에 제7기병연대가 瑞興에서 新塘里로 迂廻하여 黃州를 탈환하므로써, 韓國軍 제1사단과 함께 平壤을 東南 및 南쪽에서 兩面으로 攻擊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때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이 遲延됨에 따라 平壤 東北方攻擊은 韓國軍 제2군단이 담당케 되었으니, 當初 中部山岳地帶로 北進하였던 군단은 進擊方向을 西쪽으로 旋回케 된 것이다. 10월 6일에 38°線을 돌파한 다음, 敵 제9사단과의 激戰 끝에 蓮川을 탈환하고, 군단 左翼으로 13일에 新高山에 진출한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은 陽德—江東線으로 진격코자 제2연대를 先頭로 德源을 거쳐 18일에는 제7연대가 先鋒이 되어 陽德에 진출한 다음, 成川으로 향하였다.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은 鐵川을 거쳐 10일에 鐵原을 탈환하고, 11일에 平康, 13일에 伊川에 진출하였다가 제10연대를 先頭로 15일에 谷山 부근에 진출한 다음, 平壤 東北方 攻擊을 위하여 陽德—成川—江東線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또 陸本直轄部隊였던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은 8일에 鉛川을 거쳐 平康 인대에 진출하였던 바, 14일부로 제2군단에 배속되어 伊川·谷山을 거쳐 17일에는 順安부근에서 西進하였다.

그러나 이 때 제1사단은 아직 平壤突入段階에 있어, 成川—江東부근으로 진출 중이던 제6, 8사단은 平壤攻擊이 不必要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進擊路를 變更하여 順川—价川線으로 北進케 되었고, 18일 현재 先頭인 제8연대가 栗里에 진출한 제7사단만은 계속 平壤奪還戰에 참가케 되었다.

한편 가장 平壤에 接近한 제1사단의 主力은 大同里일대에서 敵의 완강한 저항을 격파한 다음, 19일 11.00에 東平壤에 突入하였으며, 제15연대는 역시 午前 중에 栗里에서 三發—松街里로 迂廻하여 東北方으로부터 牡丹峰을 점령한 다음, 本平壤市內로 진출하였고, 제7사단의 제8연대도 거의 같은 時刻에 金日成大學과 牡丹峰을 거쳐 平壤 西北部에 진출하였으니, 드디어 赤都 平壤은 韓國軍에 의하여 奪還된 것이다.

한편 美 제1기병사단도 黃州에서 계속 北進하여 黑橋里일대에서 저항하는 敵을 격파한 다음, 제5기병연대를 先頭로 韓國軍 제1사단보다 늦게 東平壤에 돌입하므로써 先占의 功을 韓國軍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이로써 我軍은 38°線을 突破하여 北進한지 10日이 못되어 赤都 平壤을 完全히 탈환하고 이제 韓·滿國境 鴨綠江까지의 진격을 서두르게 되었던 것이다.

1. 九化里—市邊里—栗里 進擊戰(50년 10월 11일부터 / 50년 10월 17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 27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1 사단 장 준장 白 善 燁
제11연대 장 대령 金 東 斌
제 1 대대 장 소령 金 沼
제 2 대대 장 중령 車 甲 俊
제 3 대대 장 소령 鄭 永 洪
제12연대 장 중령 金 點 坤
제 1 대대 장 소령 韓 順 華
제 2 대대 장 소령 趙 成 來
제 3 대대 장 소령 金 基 容
제15연대 장 중령 趙 在 美
제 1 대대 장 소령 劉 戒 成
제 2 대대 장 소령 金 振 暐
제 3 대대 장 소령 安 秉 健

병 력 : 11,000명

배속부대

포병 제17대대

지원부대

美 제10고사포단 장 대령 William H. Hennig
제 6 전차대대장 중령 John S. Growden
C중대
D중대

장비

50mm carbine 총	24정
57mm 무반동총	10정
2.36mm 로켓트포	91문
3.5mm 로켓트포	32문
60mm 박격포	48문
81mm 박격포	52문
105mm 곡사포	18문
155mm 곡사포	18문
M-46 전차(Patton)	2개중대
90mm 고사포	

敵 軍

제17기갑사단(일부)
제19사단
제27사단
제25여단

제76연대
제78연대
제83연대
제43전차연대
} 의 일부

나. 전투 전의 개황

제 1 사단(장, 白善燁준장)의 高浪浦 集結이 完了된 것은 10월10일이었다. 이때 東部戰線의 我軍은 이미 元山을 占領하였으며, 인접 美 제 1 기병사단도 38°線을 突破하여 金川 包圍作戰을 전개하고 있었다. 사단의 38°線 進出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美 제 1 군단長下 각 사단 사이의 道路使用優先順位(MSR priority)관계였다. 즉 保有車輛數가 적으므로 海東江線으로 부터의 迅速한 追擊에 있어서 기동력이 좋은 美軍 사단이 우선권을 갖고 사단은 그 다음에 진격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赤狐 平壤 奪還戰에 참가하게 된 사단의 장병들은 北進의 기세도 드높게 전진하여 10월 8일에 安城—水原을 점유하여 9. 10 兩日間에는 전 부대가 高浪浦 一帶에 진출하였음은 물론, 일부 先鋒部隊는 38°線을 돌파하고 그 北方으로 깊숙히 진출하였다.

당시 敵은 南으로부터 후퇴한 패잔병들을 수습, 再編하는 한편, 새로운 사단의 편성을 서둘러 6 개 사단을 38°線一帶에 배치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 4 개 사단을 西部戰線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으니, 이는 我軍의 진격을 저지하고 平壤을 방어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鐵成江 西쪽에 敵 제43사단이, 開城 北및 東北方 正面에 敵 제19·제27사단이, 그리고 高浪浦 正面에 敵 제17기갑사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高浪浦에서 栗里에 이르는 이 地域은 별다른 山岳이 없는 丘陵地帶이나, 太白山脈의 支脈이 湖寧 東北方에서 開城을 向하여 走行하여 九化里 東쪽인 湖寧 南쪽에 高旺山(△355)이 솟아 있다. 그 西北쪽 沙尼川 上流의 渭川里에서 市邊里로 통한 道路는 黃雞峠(△184)를 縱行하여 市邊里에서 湖寧—市邊里 道와 합쳐서 다시 新溪—遂安에 이른다. 遂安 北쪽은 다시 太白의 支脈이 西南走하여 7—800m의 山岳地帶를 형성하고 있다.

敵은 이러한 地形과 비교적 堅固한 陣地를 이용하여 방어하려 하였으니, 第 1 線은 38°線一帶의 一部戰爭 前에 築造된 콩크리트構築物을 포함한 방어진지였으며, 다시 그 北쪽 3~5km에서 要線에 따라 방어하려 하였다. 그리고 보다 北쪽에서는 地形에 따라 據點式으로 방어할 것을 企圖하였다.

이에 대하여 美 제 1 군단(장, Frank W. Milburn 소장)은 제 1 사단이 右翼 高浪浦 부근에서, 美 제 1 기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과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소장)이 중앙 開城 正面과 鐵成江 西쪽에서 각각 平壤奪還 第一着의 첫삽을 걷고 38°線을 넘어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제 1 사단은 10월 10일 현재 제15연대(장, 趙在美중령)의 제 1 대대(장, 劉載成소령)가 38°線을 넘어 塔巨里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제 2 대대(장, 金振暎소령)와 제 3 대대(장, 安秉健소령)는 아직 高浪浦에서 進擊할 준비를 차리고 있었다. 左側의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臨津江을 渡河하여 春香洞에 집결한 다음, 38.線부근으로 前進하여 저항하는 敵을 격퇴하면서 九化里—斗谷里 一帶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는 가장 늦게 이날 24.00에야 高浪浦에 진출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38°線을 突破하여 栗里에 이르는 本 進擊戰은 그 자체로서 보다 平壤奪還을 목표로 한 하

나의 과정으로서 더욱 意義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美 제 I 군단장 Milburn소장도 "38°線의 突破는 追擊의 再開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실상 敵은 38°線一帶에서 一次的인 저항을 試圖함과 아울러 要路에 지뢰를 埋設하여, 我軍의 추격을 지연시키면서 후퇴하는 한편, 일부 敵은 유격전을 전개하여 我軍陣地와 指揮所 등을 기습하려는 企圖가 濃厚하였다. 당시 이러한 敵의 動態로 보아 平壤주변에 그들의 主力을 집결시켜 완강한 방어를 試圖하리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대한 我軍의 進擊戰은 이미 10월 3일에 美 제 8 군사령관 Walton H. Walker 중장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함으로써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즉 제 8 군 명령의 要旨에 이르기를 『美 제 I 군단은 現警備任務를 美 제 9 군단에 移讓하고, 군단 主力은 서울北方으로 집결하여 공격을 준비하라. 공격은 A日에 시작하며 美 제 I 기병사단을 左攻으로 平壤을 향하여 진격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격개시일인 A日에 대하여 10월 7일 Walker중장은 군단장 Milburn소장에게 지시하기를, 『A日은 貴軍의 공격준비가 완료된 날로 한다.』고 하였다. 10월 4일 군단장 Milburn소장은 예하 각 사단에 『美 제 I 기병사단은 禮成江—38線一帶에 진출하여 金川공격을 준비하고, 美 제24사단은 서울北쪽에 제 I 사단은 高浪浦부근에 집결하라.』고 명령하였으며, 8日 저녁까지에는 기병사단의 전 부대가 명령받은 線에 진출하였고, 이어 제 I 사단도 高浪浦에 집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군단장은 全力을 다 하여 當面의 敵을 포위 격멸한 다음, 平壤으로 追擊하리는 계획으로, 제 I 사단은 군단 右翼으로 高浪浦에서 市邊里로, 美 제 I 기병사단은 中央 開城正面으로, 제 8 군 豫備인 美 제24사단은 左翼으로 禮成江以西地域에서 각각 北進토록 공격명령을 내렸다.

이제 제 I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美 제 I 군단의 右一線을 담당하여 高浪浦로부터 市邊里를 거쳐 平壤으로 진격할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이미 大田에서 군단장 Milburn 소장에게 사단의 平壤攻擊 참가를 요청한 바 있거니와, 이제 38°線돌파에 즈음하여 一擧에 當面의 敵을 격파한 다음, 어느 美軍 사단보다도 앞장서서 最先頭로 平壤에 入城할 것을 기약하면서 北進計劃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제15연대(장, 趙在美중령)로 하여금 右一線에서 高浪浦里로부터 鳳凰을 거쳐 兎山으로 진격케 하고, 이어 市邊里를 공격케 하였으며,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左廻함으로써 右側으로부터 西北方으로 패주하는 敵의 퇴로를 차단하여 이를 격멸하는 한편, 제15연대의 前進을 엄호토록 하는 동시에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는 예비로써 沙尾川 河谷을 따라 北進토록 하였다. 그리고

市邊里를 발환한 다음에 계속 진격하여 新溪와 遂安을 발환하고 栗里에 진출함으로써 平壤攻擊을본격화 하려는 企圖이었다.

(2) 작전실시

10월11일 : 사단은 38°線到達과 攻擊準備가 늦어지 이날 아침에야 主力이 38°線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美 제 I 기병사단은 金川포위작전으로 이미 白川을 점령하고 汗浦로 진격 중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師士는 되찾아 北進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장병들은 赤都 平壤은 거어코 우리 손으로 奪還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士氣도 드높게 高浪浦 正面에서 38°線을 돌파하여 진격을 시작하였다.

이때 사단 最先鋒의 제15연대 제 I 대대(장, 劉載成소령)만은 다른 대대보다 앞서 이미 38°線을 전날에 돌파하여 10여km를 前進하고 있었는데, 이날 12.00에 塔里里로부터 朝等에 진출하였다. 대대는 다른 대대와 거리가 많이 벌어지므로 强行軍의 피로도 풀겸, 이곳에서 2시간에 걸쳐 점심식사와 休息을 취하였는데, 그 동안 대대는 일부 병력을 派送하여 敵情偵察을 마친 다음, 다시 前進을 계속하게 되자 兎山 南쪽인 新場洞에서 敵의 방어진지에 부닥치게 되었다. 대대는 突擊中隊로서 敵을 正面공격함과 아울러, 제 2 중대를 右側 高地로 迂廻前進시켜 敵의 퇴로를 遮斷케 하는 한편, 제 3 중대를 左側 臨津江邊으로 前進시키므로써 敵을 포위, 격멸토록 하였다.

이 당시 제 2 대대(장, 金振暎소령)와 제 3 대대(장, 安秉健소령)는 22.00에 高浪浦로부터

<敵의 저항을 격파하면서 北으로 진격하는 제1사단 용사들>

北倉을 향하여 前進을 시작하여 靑延里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전날 밤부터 접적을 시작하였던 바, 제1대대(장, 金泊소령)가 馬嶽里를 확보하였으며, 제3대대(장, 鄭永洪소령)는 金谷(금곡)에서 1개 중대의 敵을 격멸한 다음, 계속 진격 중이었다. 사단左一線의 제2대대(장, 車甲俊중령)는 杜谷(막은 골)부근에서 1개 대대의 敵을 격퇴하고, 23.00에는 西頭井場(서두물장)에 진출하였다.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는 사단 後尾로 전날 24.00에 전 부대가 高浪浦에 도착하여 이날 오전 중에 공격부대가 38°線을 넘기 시작하였다.

이날 金 日成은 平壤放送을 통하여 9日字 MacArthur 元帥의 육시항복권고를 거부하고 北傀軍에게 최후 抗戰을 명령하였거니와, 사단은 38°線 一帶에서 敵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제15연대 제1대대를 제외한 각 대대들의 前進이 대체로 8km에 不過한 형편이었다.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이와같은 상태로는 美軍보다 앞서서 平壤으로 진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그는 근심에 싸인 채 사단사령부(高浪浦面 사무소)에 돌아와서, 참모장 石主岩대령, 작전참모 文亨燮중령등 참모들과 의논을 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을 지휘하던 美 제10고사포단장 Hennig대령이 步戰協同作戰을 제의하였으니, 그 내용은 전차를 앞 세워 중앙을 돌파할 것과, 이에 따른 보병의 前進은 同 고사포단의 彈藥車輛 50대를 利用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効果的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사단장은 참모들의 협의를 거치, 제12연대로 하여금 배속받은 美 제6전차대대 C중대와 협동작전을 전개토록 할 것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직접 전차에 탑승하고 先頭에 서서 진격할 것을 결심하였으니, 百難에 屈하지 않고 不可能을 可能케 하는 사람이 진정 名指揮官이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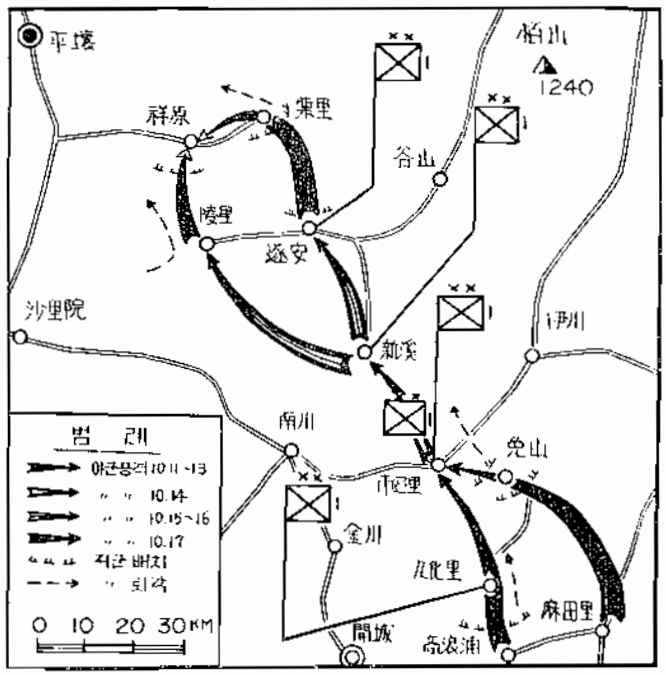
10월 12일 : 제15연대 제1대대(장, 劉載成소령)는 兎山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314高地(菊秀峰)에서 1개 대대규모의 敵의 抵抗에 부닥치게 되었으므로, 대대는 이 敵과 격전 끝에 야간에 들어가서도 계속 공격을 감행하여 이를 격멸하고 兎山一帶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장, 金振暎소령)와 제3대대(장, 安秉健소령)는 이날 낮에 北倉을 지나 高旺山 東側을 迂廻하여 22.00에 蒲潭에 진출하였는데, 23.40에 兎山을 향하여 다시 진격하기 시작했다. 또 교육대도 08.00에 高浪浦를 떠나 18.00에는 蒲潭에 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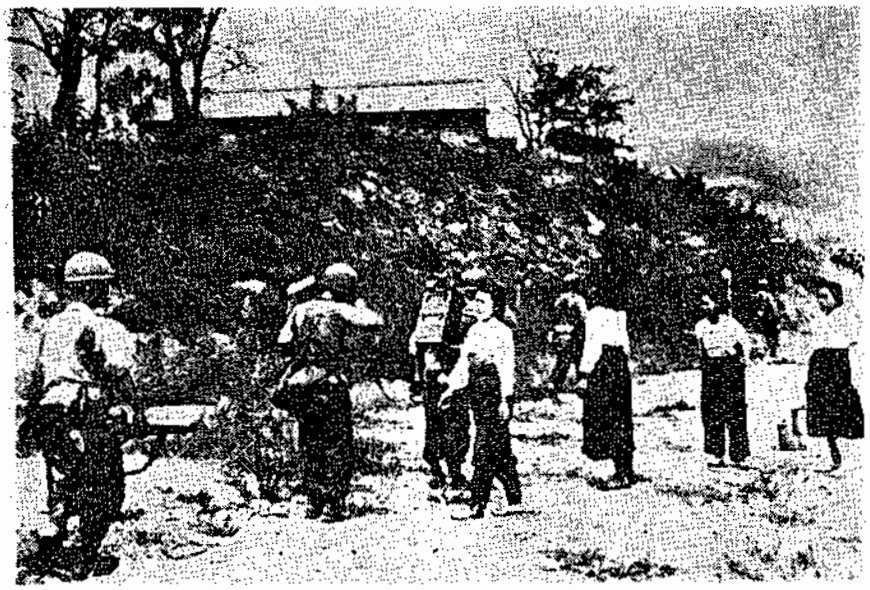
한편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는 美 제6전차대대 C중대와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1개 대대 병력을 전차에 탑승시켰는데, 言語의 不通 뿐만 아니라 我軍에게는 步戰協同作戰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단장 白善

韓준장의 적절적인 通譯과 激勵, 그리고 장병들의 滅私的인 忍耐와 노력으로 이날 오후부터는 작전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2번전차에 탑승한 사단장의 지휘로 이 步戰협동부대는 沙尾川 河岸을 따라一擧에 九化里까지 北上한 다음, 이날 저녁에는 九化里 西北쪽 10km의 北隅(북물동)부근에 진출하였다. 이때 金川을 포위공격키 위해 北東進하던 美제1기병사단의 제5기병연대(장, Marcel B. Crombez 대령)가 이미 北隅를 공격 중임을 알게 되자, 사단장은 곧 戰闘加入을 명령하였으며, 부대는 美軍과 협동하여 北隅를 점령하였다.

상 황 도 제 27 호 九化里—市邊里—栗里 進擊戰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부대가 먼저 北進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美軍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나, 즉 이 지역은 사단의 작전구역으로서 美軍은 다른 부대의 구역에 無斷히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사단장은 『전반 戰況으로 보아 사단이 먼저 北進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며, Crombez 대령은 『金川공격을 위하여 제1기병사단장 Gay 소장의 명령을 따른 것이며, 金川부근의 戰況上으로도 기병연대가 먼저 前進해야 한다.』라고 반대하였으니, 韓美兩軍의 立場는 이와같이 드 높았던 것이다. 이에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생각하기를, 『軍團에 대하여 연락,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시간관계로 곤란하고, 美軍은 어차피 金川으로 前進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韓國을 도우러 왔지 않았는가?』라고 主觀的으로 大觀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결국 道路 사용우선권을 美軍에게 양보하여 金川과 市邊里로 갈라지는 地點까지의 약 8km를 美 제5기병연대가 먼저 前進토록하고, 사단은 그 뒤를 이어 北上하다가 美軍은 金川으로 西進하고 사단은 市邊里를 향하여 北進토록 할 것을 결정하였으니, 剛柔兼備의 지휘관만이 能히 할 수 있는 斷案이라 할 것이다.



<北으로 진격하는 國軍들에게 北韓女性들이 물을 대접하고 있다.>

사단 左一線을 담당하고 있던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敗退北走하는 敵을 포착, 격멸코자 제2대대(장, 丁中俊중령)로 하여금 古美城부근에서 敵의 퇴로를 차단케 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대대(장, 金 沼소령)는 이날 오후에 九化里일대의 敗敵을 제3대대(장, 鄭永洪중령)는 14.20에 栗木洞(밤나무골)을 거쳐 斗谷里일대의 敵을 각각 擊滅하면서 一路 北進하고 있었다.

10월13일 : 제15연대(장, 趙在夏중령)는 계속 敵을 追擊하여 이날 市邊里에 진출하였다.

즉 제1대대(장, 劉載成소령)는 전날에 이어 兎山 南쪽 菊秀峰부근으로부터 敗敵이 집결한 堂洞里에 重火器로써 集中射擊을 가하였던 바, 敵은 전차1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후퇴하였고, 대대는 02.00에 兎山 바로 北쪽의 堂洞里까지 진출한 다음, 계속 敵을 追擊하여 07.30에는 이미 市邊里에 진출하여 이를 고스란히 탈환하였다.

한편 鄕寧으로부터 진격한 제2대대(장, 金振燁소령)도 이날 市邊里 西쪽 九城洞에 진출하였는데, 敵情수색에 나선 金正豪하사 외 3명(李鍾吉하사, 金鍾烈, 鄭任値 일등병)의 偵察兵의 九城洞 南쪽 부근에서 식사 중인 200명 정도의 敵을 발견하였으므로 서슴치 않고 이를 공격케 되었다. 이러한 狀況을 알게 된 대대장은 곧 제5, 제7중대를 西南쪽 高地일대에 배치하여 敵의 퇴로를 차단시키는 동시에, 제8중대를 東쪽 高地로부터 迂廻공격시키는 한편, 대대지휘반은 제6중대와 함께 正面으로 돌격함으로써 敵을 포위, 격멸하여 사

살 83명, 포로 30명 및 小銃42挺, 多發銃32挺등을 鹵獲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제3대대(장, 安秉健소령)는 04.45에 朔寧으로부터 新場洞으로 前進한 다음, 黎明을 기하여 進擊을 시작하여 15.00에 이르러 市邊里에 진출하였다.

교육대(장, 石鍾燮소령)는 05.00에 朔寧으로부터 市邊里를 향하여 前進을 시작하였는데, 도중 金川郡 洪慕里에서 遊動하는 60餘名의 敗敵을 捕捉하고 電擊的인 兩面공격을 가하여 11.30까지는 이를 剿滅한 다음, 13.30에 또한 市邊里까지 진출하였다. 이어 대대는 北東쪽 驛邱里로 진격을 계속하였다가 2개중대 정도의 敵을 발견하자 기습공격으로 이를 격파한 다음, 市邊里로 돌아 와 露營하였으며, 敵은 멀리 新溪方面으로 敗走한듯 하였다. 또 한편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의 主力은 이날도 배속 전차중대와 협동하여 저항하는 일부의 敵을 격파하면서 진격을 계속하였는데, 我軍의 進擊路上에는 敵의 지뢰가 곳곳에 埋設되어 있어서 先頭에 선 공병중대(장, 柳連相중위)는 지뢰탐지 및 제거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되었다. 그러나 我軍의 전차를 이용한 빠른 前進속도와 전차포의 위력에 壓倒된 敵은 미처 후퇴하지도 못한채로 風磐鶴淚格으로 分散되어 山속으로 遁入하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부대는 제11연대를 超越하여 진격한 끝에 이날 밤중에 市邊里에 진출하였다. 한편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각 대대별로 北隅 北쪽의 渭川里로 진출한 다음, 09.00부로 사단 예비대가 되었다.

10월14일 : 밝게 개인 土曜日인 이날, UN공군의 B-29 30機는 平壤—新義川間의 交通施設에 集中爆擊을 가하였으며, 사단은 낮에 이미 市邊里로부터 新溪를 향하여 16km를 진격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에 일부의 敵은 新溪邑으로부터 谷山 쪽으로 후퇴를 시작하였으나, 사단의 先頭는 이날 밤 尾隅洞에서 敵의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尾隅洞은 新溪 南쪽 6km, 市邊里에서 西北쪽 24km, 南川店 東北쪽 약 20km의 市邊里—新溪, 南川店—新溪 道의 交叉地點으로 이곳에서 1개 대대 이상의 敵이 6대의 전차와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執拗하게 제12연대의 보전협동부대와 치열하게 交鋒하게 된 것이다. 道路를 따라 진격한 美 전차대는 M-46 Patton 전차를 果敢하게 肉薄시켜 敵의 T-34전차에 90mm戰車砲火로 집중적인 세례를 퍼부어 단시간에 이를 격파하였다. 아울러 高地帶를 진격한 我軍의 보병부대는 전차대와 협동하여 敵을 격멸한 다음, 北進을 계속하였다. 이때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先頭에서 부대를 지휘하면서 浮動하는 戰勢의 好機를 놓치지 않고 계속 北進토록 督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배속된 美 전차중대로부터는 休息없는 진격에 대한 불평이 터

져 나오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부대는 敵에 대한 强壓을 멈추지 않고 北進을 계속한 끝에 이날 밤중으로 新溪邑으로 돌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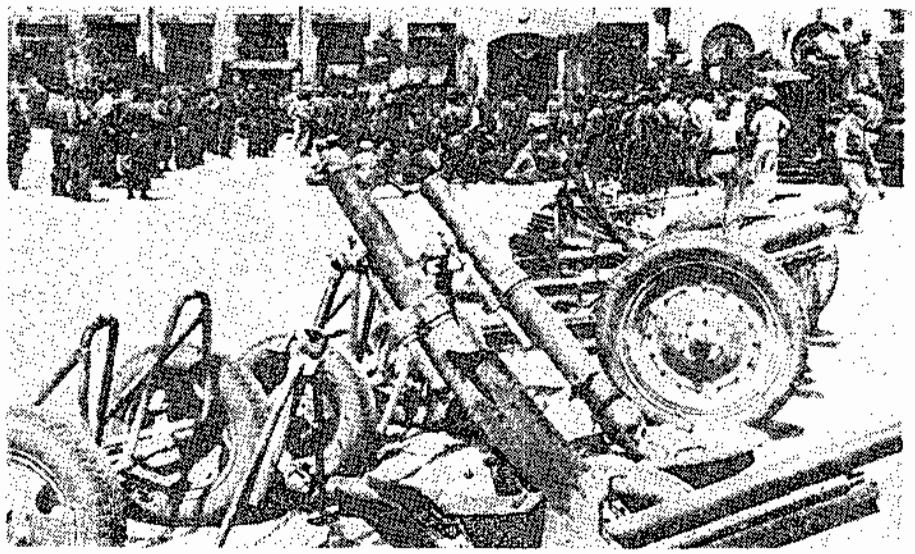
이어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와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의 본부와 그 主力부대도 앞을 다투면서 新溪邑으로 진출하였으니, 그 勢가 大河를 決하는듯 하였다.

10월15일 : 先頭부대의 衝擊으로 新溪邑을 탈환한 사단은 遂安을 향하여 진격을 시작하였다. 사단의 右翼 제 一線인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의 각 대대는 新溪北方으로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사단장이 지휘하는 步戰협동부대는 逐次로 저항하면서 퇴각하는 敵을 격파하면서 追擊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이날 25km 이상을 前進함으로써 遂安에 육박하고 있었다.

한편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사단 左翼으로 新溪 -陶河里街道를 따라, 미쳐 후퇴하지 못한 채로 彷徨하는 敗敵을 包圍와 突破의 五用으로 蹂躙하면서 前進하고 있었다. 또 한편 제15연대(장, 趙在美중령)는 市邊里로부터 新溪로 前進하고 있었으며, 사단 사령부도 이날 중으로 新溪에 진출하였다. 이날 사단 左側의 美 제1기병사단은 南川店을 점령하여 平壤을 향한 전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美 제1군단 예비인 美 제24사단도 延安을 점령하고 我軍의 戰線 속에서 北進대열에 참가하였다.

10월16일 :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는 제2대대를 右翼攻擊梯隊로, 제3대대를 左翼攻擊梯隊로 하여 이날 07.00에 下有里로부터 진격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美 전차중대는 계

<38°線을 돌파하여 北進을 시작한 제1사단의 장병들>



<新溪지구에서 我 제1사단이 노획한 敵의 重火器>

속 本道를 따라 전격하면서 보병의 前進을 엄호하였는데, 特히 遂安일대로 부터는 敵의 지뢰가 많이 埋設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探知하여 전차의 進擊路를 개척하는 공병중대의 辛勞는 적지 않았으나, 전 장병들의 敵愾一念은 모든 難關을 能히 극복하였으며, 연대는 縱深 9km의 敵抗線을 돌파한 끝에 이날 15.00 에는 遂安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즉 제2대대(장, 趙成來소령)는 右翼梯隊로서 07.00에 下有里로부터 前進을 시작하여 도중에 지향하는 小數의 敵을 격파한 다음, 09.00에 五柳洞을 지나 10.00에는 長興洞(遂安邑東쪽 3km)부근에 진출하였는데, 이때 長興洞 西쪽 1km의 高地에서는 1개 대대규모의 敵이 견고한 방어진지를 構築하고, 전차2대와 야포2문, 직사포3문의 지원을 받으면서 我軍의 추격을 지연코저 企圖하고 있었다. 이에 대대는 곧 이 陣地를 공격하여 2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敵을 격파한 다음, 15.00까지는 殘敵을 완전히 剿滅하였다.

또 제3대대(장, 金基容소령)는 左翼梯隊로서 이날 06.30에 역시 下有里로부터 추격을 시작하여 09.00에 五柳洞을 통과하였는데, 遂安邑 北쪽의 遂東山에서 1개 대대규모의 敗敵과 교전하게 되었다. 대대는 右翼 제2대대와의 협동작전으로 11.00에 공격을 시작하여 敵을 격파한 다음, 15.30에 이르러 遂東山을 점령, 확보하고 그 부근 一帶에 대한 治安을 유지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韓順華소령)는 연대 예비대가 되어 제1, 제3중대를 배속전차의 호

위로 차출한 다음, 제2, 제4중대는 攻擊梯隊의 1,000m 後方에서 前進토록 하였던 바, 兩中隊는 五柳洞을 지나 20.000에 遂安에 진출하였다.

연대 직할대는 대전차포중대(장, 白潤基대위)를 제2대대에 배속시키고, 그밖의 다른 중대는 일선부대의 2,000m 後方에서 前進하였다.

그리고 사단 右翼으로 前進하던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陵里부근으로 진출하여 敗敵을 격멸하였으며, 그 본부는 大村里에 진출하였다.

한편 제15연대(장, 趙在英중령)의 각 대대 主力은 遂安으로 前進하고 있었고, 연대본부 및 일부병력은 新溪로 진출완료하였다. 이와같이 사단은 平壤 東南方 80km 以內까지 진격함으로써 平壤을 향한 直衝威力을 압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진격은 비록 補助道路를 따른 徒步행군이었으나, 車輛으로 이동하는 美軍을 앞지를 기세를 보이게 되었으며, 당30세의 청년장군인 白善燁사단장은 "오직 前進이 있을 뿐."이라고 쾌기만만하게 陣頭에서 砲煙彈雨를 헤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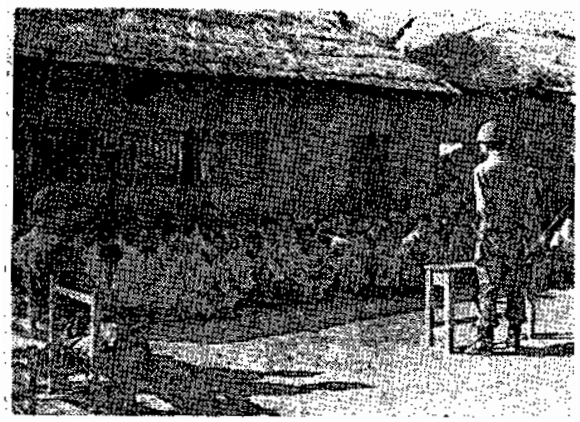
10월 17일 :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는 遂安으로 진격을 시작하여 栗里에 진출한 다음, 부근의 敗敵을 격멸하였고, 일부 병력은 前進을 계속하여 祥原里로 진출하였다.

즉 제1대대(장, 韓順華소령)는 제3중대를 배속, 전차의 호위로 차출한 다음, 이날07.30에 遂安으로부터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16.00이 이르러 栗里 南쪽 高地에서 지향하는 1개 대대 규모의 敵과 교전하였다. 대대는 전차대의 엄호 밑에 敵을 격파하고, 제2중대를 栗里에 돌입시키는 한편, 20.00까지에는 이 高地일대에 공격을 위한 陣地를 구축하는 동시에 散呼하는 北韓同胞들을 타일러 治安의 확보를 기하고 있었다.

제3대대(장, 金鍾容소령)는 遂安으로부터 栗里로 前進하는 도중에서 小數의 敗敵을 격멸한 다음, 18.00에는 栗里 南쪽2km 煙台峰 一帶에서 지향하는 1개 대대규모의 敵과 교전하였는데, 대대는 항공엄호 하에 1시간에 걸쳐 이를 격퇴하고 右側의 제1대대와 연결을 維持하였다.

제2대대(장, 趙成來소령)도 07.30에 長興洞 西쪽1km지점을 출발하여 17.00에 栗里에 진출하였으며, 北쪽高地에서 대항하는 1개 대대규모의 敵과 1시간 이상 교전 끝에 이를 격파하고, 이날 밤 안으로 祥原里에 진출하였다.

또한 연대본부 및 그 나머지 모든 兵力도 23.00까지는 모두 栗里에 진출완료한 다음, 平壤一戰을 위한 有形無形의 모든 준비를 갖추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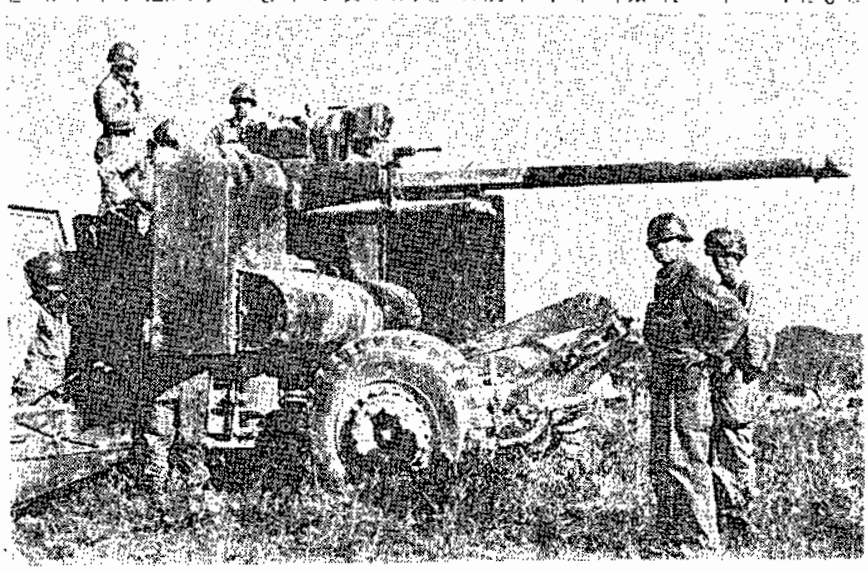


<新溪지구에서 주민들에게 선무공작을 하는
제1사단 정훈공작 대원들>

한편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陵里일대에서 敗敵을 격멸한 다음, 祥原으로 진격하였는데, 연대先頭는 15.00에 龍谷里의 南쪽에 있는 龍頭 (祥原 西南 10km)에 진출하게 되자, 有線網의 傍聽으로 약 1개 연대규모의 敵이 그 西南쪽 10km 지점에서 祥原으로 퇴각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대는 곧 수색대를 開金里一帶의 道路 西쪽과 東쪽 高地에 배치하였으나, 黃州一中和方面으로부터 후퇴하고 있던 敵은 연대의 진출을 탐지하는 즉시, 그 退路를 變更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는 前進을 계속하여 祥原을 중심으로 배치된 敵의 소극적인 저항을 물리치고, 18.00에는 이미 祥原에 진격한 다음, 그 北쪽 5km의 初貴洞부근까지 敵을 壓迫하였다.

제15연대(장, 趙在夏중령)도 대부분의 主力이 오후 늦게까지는 栗里에 진출하였다.

이날의 진격으로 사단은 黃州에지 진출한 美 제1기병사단과 함께 平壤까지 40km以內로 포위망을 압축하여 悠久4,000년의 平壤 占領을 目前에 두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고심



<美 제10고사포병단의 90mm 고사포가 陣地를 점령하였다.>

글에 공격계획을 마무리하여 제15연대로 하여금 平壤 東北方으로 迂廻공격케 할 것을 결정하였으니, 戰機가 장차 무르익어 가기만 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10월 11일 38線을 돌파한 以來, 1일 平均 25km를 진격하여 17일에는 鐵原까지 진출하였으니, 이는 車輛으로 이동한 美 제1기병사단의 1일 平均 18km의 實績을 훨씬 앞 지르는 機動의 發揮였다.

처음 진격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제15연대가 新寧—兎山으로 迂廻하여 市邊里로 진출하므로써 사단의 先頭를 달리고 있었으나, 左一線에서 九化里—市邊里로 향한 제11연대는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그 前進이 저지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예비대였던 제12연대로 하여금 전차대를 앞 세운 步戰協同攻擊으로 正面돌파를 감행케 함으로써 제11연대를 超越하고 사단의 先頭로 北進케 하였던 것이다.

이제 사단은 平壤攻擊의 결정적인 一大打擊을 가하고자 제15연대로 하여금 栗里로 부터 平壤 東北方을 迂廻공격케 하였으며, 逸安—陵里—鐵原으로 前進한 제11연대는 鐵原北方 初貴洞里일대에서, 제12연대는 鐵原으로부터 平壤攻擊을 위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

(1971. 3. 10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예 대장)

38°線을 돌파하여 北進을 시작할 당시의 작전은 제15연대를 右側에, 제11연대를 左側에 놓고 올라갔다. 이제부터의 작전은 進擊이라는 관념이 들어 빨리 진격하여야 되겠는데, 첫날은 8km도 못갔던 것 같아. 에하 각 부대의 前進이 완강한 敵의 저항으로 不振함을 돌아보고 高級補 前事務所의 사단사령부)에 돌아 와 작정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참모들과 의논을 하는 데, 우리사단을 지원하는 美 고사포단장 Hennig 대령이 "Patton장군을 아느냐?"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즉 Patton과 같이 戰車를 先頭에 세우고 工兵, 步兵 그리고 砲兵으로써 步戰砲의 협동작전에 항공지원을 받아 중앙을 돌파할 것을 제안하였다. 車輛은 자기의 탄약차 50대를 줄테니 一方 前進시키고 다시 돌아와 나르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고맙게 생각한 나는 참모들과의 토의 끝에 채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12연대의 인부 병력을 전차에 태웠더니 경험이 없고 말이 안 통해 또 고심하게 되었다. 나중에 C-3에 있던 朴 珍錫소령이 통역을 맡아 이를 극복하고 원만한 협동이 이루어져 美 전차가 배속된 제12연대가 제11연대를 초월하여 일거에 九化里—市邊里로 진격할 수 있었다.

중간에 사단의 美 고문관과 Hennig 대령과의 見解차이로 지휘관이 先頭에 서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나, 장병들의 超人的이라 할 정도로 눈물겨운 노력으로 우리는 平壤先着을 목표로 빠른 진격을 계속하였다. 九化里를 지나 北隣에 서는 Crombez 대령의 美 제5기병연대와 만나 道路使用問題로 論爭을 한 바도 있으나, 大局的인 견지에서 美軍에 양보한 대신, 우리는 쉽게 그 뒤를 따라 몇 km를 진격할 수도 있었다. 市邊里 부근에서는 戰車戰도 있었는데, 우리를 지원하던 美 전차대의 Pattons 전차가 무난히 敵의 전차를 제압하였다. 그리하여 사단도 美軍을 앞지를

기세로 栗里—祥原일대에 진출하였다.

◇ 제15연대 제1대대 李鍾鼎대위
(1965. 10. 29 국방부본부에서, 대령)

38°線으로부터 平壤으로 진격할 때, 나는 대대 S—3였다. 우리는 많은 敵을 포로하고 敵의 자동차를 노획하면서 제각기 빨리 가려고 야단이었다. 新溪에서는 후퇴하는 병력을 수습하려고 들어 온 敵의 고급장교를 붙잡았는데, 平壤案內者로 이용하였다. 그때는 我軍의 복장이 敵의 복장과 별로 區別되지 않을 때이고, 敵이 혼란에 빠져 敵을 퍽 많이 포로로 하였으며, 우리 대대의 경우, 원래는 대대장 車 밖에 없었는데, 平壤에 가서 보니 30여대가 될 정도로 많은 敵의 차량을 노획하여 우리가 이용하기로 했다.

◇ 제15연대 수색소대장 趙柱泰중위
(1966. 3. 19. 육군본부에서, 대령)

北進當時에 수색소대장으로 몇 km씩 先頭에 섰는데, 敵의 士氣가 저하되고 형편 없었다. 南邊里에서는 敵의 軍醫官과 서울師大 출신이라는 간호원 2명을 비롯하여 수십명의 敵을 포로하고 敵의 食糧·藥品·自動車 등을 노획하였다. 당시의 兵士들은 대단히 용감하여 上官이 나서면 다 따라나서서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戰果를 올릴 수 있었다.

◇ 제12연대 제10중대 孫海泰소대장
(1965. 4. 28 제39사단 제119연대장실에서, 소령)

우리 사단은 1950년 10월 10일에 高浪浦에 집결하여 江邊에서 하루 밤을 자고 11일에 38°線을 돌파하였다.

나는 當時 3소대장이었는데, 전차가 배속되어 工兵 3개소대가 앞 서고, 다음에 전차, 步兵의 順序로 사흘동안 진격하였다. 敗走하던 敵은 戰車砲사격에 완전히 潰滅되었으며, 我軍의 진격이 너무 빨라서 미처 北으로 逃走하지도 못하고 주위의 山으로 분산되었다. 그렇게 진격하던 중 10월 13일 오후에 나는 敵의 사격에 양 다리를 貫通當하였다. 그날은 아침도 못 먹고 점심 밥을 지워가지고 들어 갔었는데, 九化里를 지나서 美軍과 提携한 때의 접투에서 부상 당하였다. 저녁에 인대는 이미 敵을 격파하고 北進을 계속하고 있었다.

2. 金川—沙里院—黃州 進擊戰 (50년 10월 9일부터 50년 10월 17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7 호
상 황 도 제 28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 1 군단 장
소장 Frank W. Milburn

美 제 1 기병사단 장
소장 Hobart R. Gay

제 5 기병연대 장
대령 Marcel B. Crombez

제 2 대대 장
중령 Paul Clifford

제 7 기병연대 장
대령 William W. Harris

제 1 대대 장
중령 Peter D. Clainos

제 2 대대 장
중령 Gilmon A. Huff

제 3 대대 장
중령 James H. Lynch

제 8 기병연대 장
대령 Raymond D. Palmer

제 1 대대 장
중령 Robert W. Kane

제 3 대대 장
소령 Robert J. Ormond

英 제27여단 장
준장 Basil A. Coad

Scotland 대대 장
중령 Neslie Nielson

Australia 대대 장
중령 Charles H. Green

美 제24사단 장
소장 John H. Church

제21연대 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敵 軍

제19사단

제27사단

제43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洛東江線으로부터 敵을 追擊한 美 제1군단은 9월26일에 美 제1기병사단이 京仁地區로부터 南進한 美 제7사단과 烏山에서 제휴한 다음, 10월 8일에 開城-帶의 38°線地域까지 진격을 완료하였다.

이와같은 追擊이 일단 완료된 다음, 美 제1기병사단은 水原—議政府—槐山—尙州地區에서, 그리고 제24사단은 倭館—大田地區에서, 英 제27여단은 金泉地區에서 각각 경비임무를 遂行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UN軍의 38°線 돌파가 결정되어 10월 2일에 MacArthur 元帥는 UN軍 총사령부 명령 제2호를 下達하였으니, 그 내용인즉 美 제8군이 平壤을 향하여 北進토록 된 것으로, Walker 美 제8군사령관은 10월 3일, 美 제1군단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1. 1개 사단 以上의 병력으로써 臨津江西岸의 要線을 점령하여 군단의 공격 준비를 엄호하라.

2. 現在의 경비임무를 美 제9군단에 移讓하고, 군단主力을 서울北方地域에 집결시켜 平壤공격을 준비하라.

3. 공격은 D일에 시작하며, 美 제1기병사단을 主攻으로 하여 京義線沿邊地域을 따라 平壤에 진격케 하고, 美 제24사단과 韓 제1사단은 兩翼을 엄호토록 하라.』

이로써 美 제8군의 基幹으로 平壤을 향해 진격케 된 美 제1군단장 Milburn 소장은 10월 4일에 美 제1기병사단장 Gay 소장에게 명령하기를 『사단은 38°線부근 開城일대로 진출시켜 군단主力의 집결을 엄호하는 한편, 金川공격을 준비하라.』는 것과 아울러 美 제24사단과 韓國軍 제1사단도 각각 臨津江北岸인 高浪浦부근으로 진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美 제1기병사단은 10월 5일에 진격을 시작하여 그날 저녁에 美 제5기병연대(장, Marcel B. Crombez 대령)는 1중대를 先頭로 汝山里에서 臨津江을 渡河하였으며, 7일 낮에는 제16수색중대가 開城에 進入한데 이어 그날 저녁에 美 제8기병연대 제1대대(장, Robert W. Kane 중령)의 主力도 또한 그 뒤를 이어 開城에 진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10월 8일 저녁까지는 美 제7기병연대(장, William W. Harris 대령)와 美 제8기병연대(장, Raymond D. Palmer 대령)가 모두 開城부근에 진출하므로써 군단 집결지를 확보하였으며, 일부 부대는 38°線의 敵과 小銃 射距離 內에 있었다. 그리고 기병사단의 뒤를 이어 美 제24사단이 서울에 진출하였으며, 英 제27여단은 10월 5일에 金浦로 공수되어 臨津江西岸에 집결하였다. 이때 敵은 제19사단의 殘兵으로 開城北方에서, 제43사단의 集成兵力으로 禮成江以西에서, 각각 저항을 企圖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병사단장 Gay 소장은 金川에서 敵을 擊滅할 포위작전을 구상하게 되었던 바, 이를 遂行하자면 西北으로 迂廻하는 부대는 우선 禮成江을 敵前渡河하여야만 되므로, 10월 8일에 제7기병연대로 하여금, 즉 開城 西北方일대에서 敵을 擊滅한 다음, 禮成江으로 진출하여 정찰토록 명령하였다. 연대 수색대는 江南岸의 敵으로부터 자동화기와 박격포 사격을 받았는데, 開城—白川을 잇는 鐵道·自動車兼用의 禮成橋가 부분적으로 그 一部가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徒步通行에는 지장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Harris 연대장은 제1대대장 Peter D. Clainos 중령에게 渡河地點을 확보시키도록 지시한 다음, 이뜻을 Gay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敵이 교량에 각종 火器를 容點照準해 놓

았을 가능성에 대하여 근심하였으며, 사단의 군수참모는 渡河資材가 없기 때문에 禮成江西岸—汗浦里로의 군수지원이 곤란함을 意見具申하기도 하였다. 실상 사단의 渡河資材는 이미 臨津江의 假橋建設에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다. Harris연대장과 연대 S-3 Webel대위는 이 好機를 놓치고 渡河하지 못한다면 敵을 포위, 격멸할 수 없고 따라서 앞으로의 진격에 敵으로부터 組織的인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역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後方支援을 仁川의 제3군수사령부에 요청하여 해결할 것을 생각하였다. 이들의 진의와 노력의 결과 仁川의 제3항만군수사령부의 사령관 George C. Stewart 준장으로부터 海上으로 禮成江對岸까지 LCV를 이용하여 보급하여 준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으며, Gay사단장도 許可하였으므로 이제 남은 문제는 연대 공격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당초 MacArthur 元帥의 北進計劃은 美 제8군을 西部에서 平壤으로 진격시키는 한편,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소장)으로 하여금 元山에 上陸시킨 다음, 곧 西進하여 平壤을 挾擊토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이 계획은 10월 2일부터 UN軍 총사령부 작전명령 제2호로서 美 제 8 군에 下達되었다. 元帥는 또한 中共·蘇聯에 대한 考慮로 韓國軍 以外에는 Mac Arthur Line(北緯 39°40′ 1″~50″의 定州--軍隅里--寧遠—咸興線) 以北으로의 진출을 禁止하였다.

그런데 MacArthur 元帥가 이와같이 美 제 8 군과 美 제10군단을 독립된 2개의 兵團으로 작전케 한 것은 韓國의 地形上의 특징과, 이에 따른 軍補給上의 必要 및 美 제10군단의 獨自的 運用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滿洲로부터 韓半島 中東部로 뻗어 내려 온 山脈北部까지 高山峻嶺으로 이어져, 東西로 연결하는 양호한 道路는 平元線 鐵道外에 平壤—元山道路가 있으며, 따라서 平壤—元山을 제외한 山岳지대에서의 작전은 보급 문제가 가장 곤란하다고 느낀듯 하였다.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계획에 대하여 해군측과 美 제 8 군으로 부터 반대의견이 있었고, 실제 美 제10군단의 역할은 陸路로 北上한 韓國軍 제 1 군단에 의하여 遂行되었거니와, Walker 美 제 8 군사령관은 美 제 1 군단에 대하여 平壤으로 진격하라는 작전명령(전투 진의 개황참조)을 下達하였으며, 攻擊開始日인 『D日은 공격준비가 완료된 다음 날.』이라고 지령하였다.

Milburn 美 제1군단장은 『北進은 鴨綠江을 향한 追擊으로, 38°線의 돌파는 追擊의 再開에 不過하다.』라는 至當한 見解를 가졌으며, 따라서 일단 추격을 시작하면 敵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고 鎧袖一觸으로 물리쳐야 겠으나, 敵도 38°線일대와 平壤에서는 완강한 방어

전을 企圖하리라고 豫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판단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선 『開城北方에서 敵을 포위격멸한 다음, 平壤을 향하여 추격』키로 결정한 군단장은 예하 각 사단에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下達하였다.

『1. 美 제1기병사단은 배속된 英 제27여단과 함께 開城正面에서 38°線일대를 돌파하여 金川부근에서 敵을 포위, 격멸하라.

2. 美 제24사단은 기병사단의 左翼을 엄호, 前進하는 한편, 必要에 따라 기병사단을 초월, 전진할 준비를 갖추라.

3. 韓國軍 제1사단은 高浪浦에서 38°線을 돌파하여 甫邊里一尾隅洞으로 진격하라.』

이에 따라 美 제1기병사단장 Gay 소장은 金川에서 敵을 포위, 격멸할 작전을 계획하게 되었으니, 開城으로부터 金川 東西兩側方을 迂廻하여 金川北方의 汗浦里를 확보함으로써 金川을 포위한 다음, 이 溪谷地帶에서 敵을 격멸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중앙에서는 제8기병연대(장, Raymand D. Palmer 대령)가 開城—金川間道를 따라 正面으로 공격함으로써 敵을 抑留하는 한편, 제5기병연대(장, Marcel B. Crombez 대령)는 開城 北東쪽으로 迂廻하여 北隅(북몰동)에서 西北으로 機動하는 半圓形의 側方移動으로 金川北方에서 敵을 포위하여, 사단 左翼의 제7기병연대(장, Willian W. Harris 대령)는 西로 禮成江을 渡河하여 白川을 거쳐 汗浦里에 진출함으로써 敵을 金川을 中心으로 하는 圓形被包圈圈內에 몰아 넣어 격멸토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사단에 배속된 英 제27여단(장, Basil A. Coad 준장)는 제5기병연대에 이어 金川 東쪽으로 진격하는 즉시로 부근의 敵을 포위토록 하였다.

(2) 작전 실시

10월 9일 : 美 제1기병사단장 Gay 소장은 이날 09.00에 드디어 예하 각 연대에 공격명령을 내렸다.

사단 중앙의 제8기병연대(장, Raymond D. Palmer 대령)는 모든 준비를 갖춘 끝에 전차를 앞세우고 12.00에 공격 개시선을 통과하였는데, 進擊路에는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공병이 우선 이를 제거하여야만 되었으며, 따라서 前進이 지연되고 있었다.

右翼의 제5기병연대(장, Marcel B. Crombez 대령)는 이날 아침에 長湍부근으로부터 진격을 시작하여, 19.30에 38°線에 진출하였는데, 연대장은 敵情不明과 夜間전투를 염려하여 더 진격치 않고 大休憩케 하는 愼重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제7기병연대(장, William W. Harris 대령)는 禮成橋를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對岸

의 敵陣에 대한 3시간 동안에 걸친 공격준비 사격으로 沈默시킨 다음, 15.00에 제1대대장 Clainos 중령은 C중대의 1개 소대를 全火器의 最大發揮로써 지원사격을 가하는 途中에 渡河를 强行시켰다. 소대는 敵의 사격으로 數名의 부상자를 내었으나, 길이 800m의 鐵橋 위를 短距離선수같이 뛰어 넘어 敵陣에 돌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C중대가 모두 건너고 대대主力이 그 뒤를 따랐다. 이때 敵은 다리에 박격포 등의 집중사격으로 대대의 渡河를 방해하였는데, 美軍의 야포와 박격포사격이 敵의 사격을 제압하고 鐵橋의 아아치가 좋은 遮蔽物이 되었으나, 대대는 78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었고, 특히 그 가운데 7명의 전사자와 36명의 부상자는 C중대가 禮成橋를 건너는 도중에 입은 손실이었다.

이렇게 제1대대가 禮成橋를 건너 橋頭堡를 擴張하는 사이에, 제8야전공병대대는 곧 敵의 사격을 받으면서 교량보수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날이 어두이지자 도리어 敵은 제1대대를 역습하였으므로, Harris연대장은 제2대대(장, Gilmon A. Huff 중령)에 빨리 뛰어 넘도록 명령하여 混戰의 위기를 間免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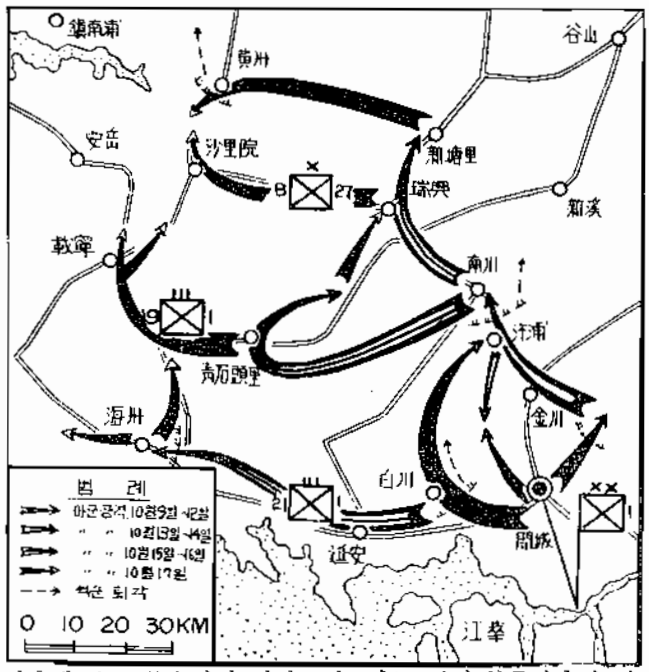
10월10일 : 제7기병연대의 제2대대는 밤중에 계속 禮成橋를 건너 江西岸을 제1대대 南側方에 집결한 다음, G중대를 先頭로 白川으로 향하는 道路를 따라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곧 側方에서 敵의 집중사격을 받아 대대는 一時 혼란되었다. 대대장 Huff 중령은 敵의 사격에 어깨를 맞았으나 계속 야간전투를 지휘하여 60mm 박격포와 57mm 무반동총만으로 敵을 격퇴시킨 다음, 禮成橋 南東쪽의 高地와 道路를 확보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날 새벽에 전투가 好轉되자 Huff 중령은 대대의 지휘를 부대대장에게 인계하였으며, 대대는 다시 진격을 시작하여 이날 오후에는 白川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이날 오후 늦게 13척의 LCV가 500ton의 보급품을 싣고 仁川으로부터 禮成江 제7기병연대의 渡河地點에 도착하였다.

한편 右翼의 제5기병연대는 이날 아침에 38°線을 넘어 華藏山(△557) 西쪽으로 天魔山(△752)과의 中間溪谷의 山길을 따라 진격하기 시작하였는데, 敵의 저항은 산발적인 사격이 있을 뿐으로 연대는 계속 華藏山 西北方으로 진격하였다.

10월 11일 : 金川正面으로 진격하고 있던 제8기병연대(장, Raymond D. Palmer대령)의 공격은 이날도 지뢰제거작업 때문에 遲遲下振하여 38°線으로 부터 6~7km밖에 前進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右翼의 제5기병연대(장, Marcel B. Crombez 대령)도 華藏山北麓에서 전진이 阻止되고 있었다. 즉 제5기병연대의 先頭 제1대대가 開城 東北方 24km지점에서 道

<상황도 제28호 金川—沙里院—黃州 進擊戰(50. 10. 9~1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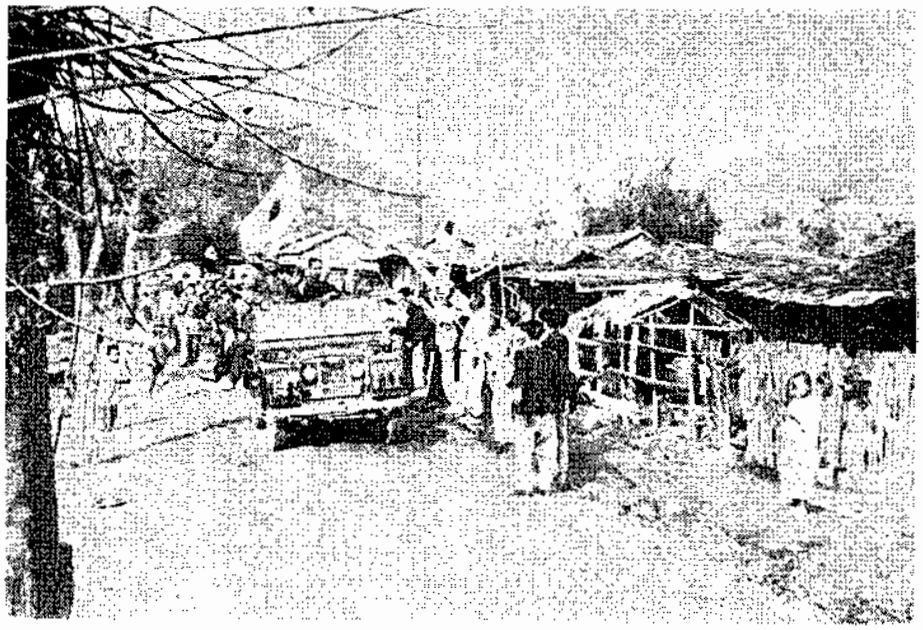
路를 지배하는 △179, △175, △174高地로 이루어진 긴 능선을 점령한 敵으로부터 泥止 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날 제5기병연대의 뒤를 따르던 英 제27여단(장, Basil A. Coad 준장)은 北西쪽 天魔山을 통하는 金川 東쪽으로 진격할 계획 아래 항공정찰 결과, 보고된 天魔山의 車道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사용하던 地圖는 舊日帝時代에 作成된 것으로 現地와의 正確度가 微弱하여 항공관측에 主로 依存하게 되었으니, 이는 실제 항공관측의 결과가 신빙성이 있었으므로 여단의 진격계획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豫見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공관측에 따라 여단의 先頭로 Middlesex 대대가 前進한 길은 牛馬車 길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山中에서 끊나버려 대대는 다시 돌아 나와야만 하는 一場面도 있었으며, 결국 여단은 金川전투에 참가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空中관측이 비록 정확하다 할지라도 원시적인 氣候偵察을 따르지 못하던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左翼의 제7기병연대(장, William W. Harris 대령)의 제3대대도 禮成江을 건너 진격하였으니, 전 연대가 白川을 지나 北進하게 되었다.

10월 12일 : 전날 華藏山 北麓에서 진격이 저지되었던 제5기병연대는 이날 제1, 제2대대가 합세하여 능선의 敵을 격퇴하였다. 174高地에서는 C중대의 소대장 Samuel S. Coursen 중위가 부하 1명과 더불어 敵 砲床에 뛰어 들어 백병전으로 敵 7명을 죽이고 자신도 전사하는 처절한 전투를 치루었다. 계속 진격한 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 北隅(북몰동)에 진출하여 韓國軍 제1사단과 비로소 提携하게 되었으며, 道路사용에 대한 양보를 받아 먼저 金川쪽으로 北進하게 되었다.

中央의 제8기병연대는 이날 아침에 豆石山의 敵과 부딪쳤는데, 이 山의 敵 陣地는 이미



<美 제1기병사단의 진격을 환영하는 한청들과 주민들>

戰爭 前부터 堅固하게 구축된 것으로 死角의 消滅과 位置의 秘匿방법이 잘 되었으며, 敵은 이에 의지하여 전차 자주포 및 고사포로써 있는 힘을 다하여 發悪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我軍側에서는 空地協同의 힘을 合하여 16대의 F-51전투기와 155mm 곡사포의 집중포폭격을 가하였으나, 敵은 이래도 屈하지 않고 계속 저항하였으며, 제1대대장 Robert W. Kane 중령이 중상을 입었다.

한편 敵의 意表를 찔러 西쪽으로 白川을 거쳐 北進한 제7기병연대는 이날 아침에 汗浦面에 진출하므로써 비로소 金川北方의 敵 西方退路를 차단하게 되었다. 즉 제3대대(장, Robert J. Ormond소령)가 禮成江上流의 鐵道와 道路의 교량 및 부근의 道路교차점을 점령 확보한 것이다. 그리하여 후퇴하는 敵을 기다리고 있는 대대에 대하여 友軍항공기는 이것을 敵으로 오인 공격하여, 수명의 부상자가 생기기도 하였으니, 戰場의 波瀾曲折은 대개 이와 같은 것이다.

이날 지역에 제2대대도 汗浦里에 진출하여 제3대대와 합세하므로써 더욱 진격의 氣高가 萬丈하는듯 하였다. 또 이날 밤에는 이미 일부의 敵이 敗走, 北上 중이었는데, 제3대대 陣地에서는 L중대의 John H. Smith 상사가 지휘하는 소대가 잠복, 대기하였다가 11대의 敵 차량이 라이트를 켠채로 悠悠히 北走하는 것을 一時에 공격하여 그 중의 4대를 파괴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노획하였으며, 100여명의 敵을 사살 내지 포로로 하였다. 그런데 포로 가운데는 중상을 입은 연대장이 있었는데, 그는 죽기 전에 말하기를 그의 연대가 『金川北方24km의 南川店 陣地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實따까지 하였고, 그가 가졌던 계획서와 地圖에 의하여 金川의 敵 제19·제27사단이 南川店으로 후퇴하려는 企圖를 判斷하게 되었다.

이날로써 美 제1군단의 金川포위작전은 거의 태세를 갖추게 되었으나, 正面의 제8기병연대가 敵을 견제하는 한편, 右翼에서는 제5기병연대가, 左翼에서는 제7기병연대가 敵을 포위하였을 뿐 아니라, 東쪽에는 韓國軍 제1사단이 市邊里로 진격하고 있었고, 西쪽에서는 美 제24사단이 白川에 진출하여 敵 제43사단을 격파하는 한편, 제7기병연대의 後方을 엄호하고 있었다.

10월 13일 : 美 제1기병사단의 金川포위작전은 그 절정에 달하게 되어 각 연대는 當面의 敵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즉 正面의 제8기병연대는 豆石山의 敵에 대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아침부터 야포는 敵陣을 집중포격하였고, 항공기는 매 30분마다 敵 陣地를 强打하는 긴밀한 지원을 하였으나, 敵은 각종 火器의 탄막사격과 逆襲의 반복으로 저항하였기 때문에 연대는 敵을 격퇴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안개낀 이날 아침에 敵 전차대는 연대를 지원하던 美 제70전차대대 B중대의 前哨陣地를 목표로 침투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Marshall D. Drewery상사는 곧 그의 M-26 Pershing 전차에서 50m 거리에 있는 敵의 전차에 제1탄을 발사하고, 20m에서 제2탄으로 敵의 T-34 전차를 명중시켰으나, 그래도 敵 전차는 85mm 主砲를 連射하면서 계속 육박하였다. 이에 Drewery 상사의 전차는 이동하여 거리를 맞추면서 다시 제3탄을 발사하였던 바, 이번에는 敵 전차의 砲口에 맞아 砲身이 破裂되고 불길이 일어났으나, 敵 전차는 계속 육박하여 제4탄을 명중시킴으로써 비로소 파괴되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魔의 神器 같았다. Drewery 상사의 전차도 數發의 敵 포탄을 맞았으나, 별 피해는 없었으며, 이날의 전투에서 연대와 그 지원부대는 도합 8대의 敵 전차를 격파하는데 成功하였는데, 그 가운데의 7대는 제70전차대대 B중대가 거둔 戰果였다.

이 동안에 汀浦里의 敵 퇴로를 봉쇄하고 있던 제7기병연대는 자동차와 牛馬車에 탑승한 1,000명 규모의 敵이 金川으로부터 南川店을 향하여 후퇴하는 것을 발견하자, 곧 항공기와

<美 제1기병사단의 先鋒隊가 10월 13일 開城北方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협동으로 공격을 가하여 殺傷 약 500명, 포로 201명의 戰果를 거두었으며, 殘敵은 北東쪽 山길을 따라 敗走하였다.

또한 이 무렵에 金川으로 敗走하던 敵 제43사단의 일부가 白川에서 平浦里를 前進하던 연대 제1대대의 後尾 및 美 제 77야포대대 A포대와 美 제8야전 공병대대의 B중대를 기습하였는데, 이때 美 제24사단의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는 白川에 진출해 있었던 바, 敵의 이러한 기습狀況을 알자마자 곧 제3대대에 지원을 명령하였으며, 제3대대장 John A. McConnell 중령은 1중대를 급히 파송하여 敵을 격퇴하고 敵 36명을 포로로 하였다. 그러나 기습받은 美軍도 전사 29명, 전상 30명, 소속된 韓國軍 전사 8명, 전상 4명의 손실을 받았으니, 敵이 類例없는 督戰 밑에 最後까지 決死抗拒하였다는 一班을 能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北隅—市邊里 道路에서 西進한 제5기병연대는 金川으로 向하는 峽谷의 山道에서 지뢰지대에 봉착하였으며, 金川東方 13km의 雨谷洞 부근에서 300여명의 敵을 격파하는 어려움을 겪고 金川에 진출하였다. 이날 밤중에 연대의 제2대대(장, Paul Clifford중령)는 東쪽으로부터 金川공격을 시작하였다.

10월 14일 : 美 제5기병연대의 제2대대는 야간공격으로 金川의 北部를 점령하였으며, 뒤를 따라 제3대대도 南部를 점령하므로써 연대는 金川을 완전히 탈환하였다. 연대장 Crombez 대령도 이날 08.00에 지휘부를 거느리고 金川에 진출하였는데, 그는 제2대대로서 北으로 제7기병연대가 있는 平浦里로, 그리고 제3대대는 南으로 제8기병연대의 開城北

方으로 각각 前進토록 명령하였으며, 나머지 제1대대는 金川 경비를 담당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北進하여 이날 낮에 제7기병연대와 합세하였는데, 제7기병연대의 道路차단점을 공격하던 2,400명 정도의 敵은 대대의 진격으로 끝내 退路를 打開치 못하고 山속 깊이 分散通入하였다.

한편 南쪽으로 공격하는 제3대대는 이날 오후에 金川南方 6km 지점에서 아침부터 北進한 제8기병연대의 특수임무부대와 서로 連繫하였는데, 豆石山의 敵은 이날 후퇴하였으나 특수임무부대는 激戰의 연속으로 2대의 전차를 상실하였다.

이로써 美 제1기병사단의 北進 첫단계인 金川포위작전은 완수되었으며, 敵은 大多數가 北 및 北西쪽으로 敗走하였는데, 많은 重裝備의 파손과 遺失을 비롯한 2개사단 규모의 兵力이 완전히 潰滅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傀首 金日成은 그의 敗亡부대가 명령없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만을 能事로 한다고 激怒大發하여 "앞으로는 一步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더 물러 설 땅도 없다."라고 卑怯諂佞惡罵調로 大言叱責하면서, 각 부대장에게 督戰隊를 편성토록 지시하였으니, 이디까지나 惡의 權化같은 存在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제 38°線과 平壤間의 敵 主防禦線은 무너진 것이니, 大河는 이미 決하고 積水는 이미 山野를 뒤덮게 된 것을 어이하랴.

10월 15일 : 이날 아침 07.00부터 直接空地協同으로 敢行한 支援 砲爆擊은 東天을 더욱 붉게 하였고, 제7기병연대 제2대대는 南川店을 向하여 一路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10명의 전사자와 30여명의 부상자를 내는 격전 끝에 南川店을 탈환하고야 말았다. 이 당시에 많은 포로진술에 의하면 敵은 제19사단사령부가 포격에 直擊되어 참모장이 卽死하는 타격을 받았으므로, 餘他 幹部들은 이를 奇貨로 分散潰走를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니, 可謂 一將死에 萬卒生이라 할 것이다.

<黑橋里부근에서 파괴된 T-34 전차>

그런데 이 南川店공격은 다음 목표인 沙里院공격의 첫단계로서, Gay 사단장은 沙里院을 目標로 하여 三面으로 分進合擊할

계획이었다. 즉 제7기병연대로 하여금 瑞興을 탈환한 다음, 新塘里로 迂廻하여 黃州에 진출함으로써 敵의 퇴로를 차단케 하고, 英 제27여단은 瑞興에서 제7기병연대를 초월전진하여 沙里院正面으로 공격케 하는 한편, 제5기병연대로 하여금 西쪽으로 迂廻케 하여 南川店—靑石頭里—載寧—沙里院線으로 공격시키려는 作戰企劃이었다.

한편 Milburn 군단장은 Walker 제8군사령관이 보다 急速한 진격을 바라고 있음을 알고 美 제24사단에 대하여 기병사단의 西南쪽에서 沙里院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였다. 따라서 제5기병연대는 목표를 瑞興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오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더욱 氣勢를 가하여 豪雨로 바뀌어 면치나던 길은 진흙밭이 되어 차량통행에 곤란을 받았으니, 기병사단의 공격은 자연히 중지될 수 밖에 없었으며, 급박한 상황 하에서도 피로한 병사들은 부족한 대로 잠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이니, 連日 不休의 進擊, 또 進擊의 眞相을 엿볼 수 있으리라.

10월 16일 : 南川店으로부터 진격한 제7기병연대는 제3대대가 이날 낮에 瑞興을 탈환한 다음, 제1대대가 이를 추월하여 新塘里로 진출하였으며, 연대장 Harris 대령과 본부는 오후 늦게 瑞興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英 제27여단도 南川店을 거쳐 瑞興에, 또 제5기병연대와 美 제24사단의 제19연대는 西進하여 靑石頭里에 각각 진출하였는데, 南川店 道路는 이들 차량종대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Milburn 군단장은 先頭에 외치기를 『沙里院에 先着하는 사단을 本隊에 先鋒으로 돌입케 하는 榮光을 줄 것이다.』라는 言明을 함으로써 사단은 물론 연대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장병들의 士氣는 높아지고 진격속도도 빨라졌는데, 이로써 混亂을 초래 解消하는 同時에 進擊威勢를 드높이자는 一石二鳥의 方策을 쓴 것으로 보여지는 바이다.

한편 美 제24사단의 제21연대는 이날 南川으로부터 진격하여 延安을 거쳐 海州에 접근하고 있었으니, 敵으로 볼 때에 四方八面에 虛隙와 破綻투성이오, 我軍側으로 볼 때에는 戰勝大陸의 四通八達이라 할 수 있었다.

10월 17일 : 이날 새벽에 美軍끼리 사격전을 벌이는 사태가 일어났으니, 즉 제7기병연대는 Arthur H. Truxes 대위의 F중대가 瑞興南方의 道路를 차단하는 陣地에서 경계에 臨하고 있었는데, Harris 연대장으로부터 『夜間에 正面에서 行動하는 모든 敵을 보는대로 즉시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리하여 03.00에 이르러 중대는 이동 속을 前進하는 所屬과

<金川이 수복된 뒤 民民들이 경축대회를 열었다>

數 未詳의 縱隊를 발견하자, 곧 이것을 敵으로 인정하여 假借없는 사격을 시작하였으며, 상대방에서도 「이에 뒤질소냐?」 하고 곧 應射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雙方은 곧 敵이 아님을 判別하게 되었으나, 友軍相擊의 被害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의 縱隊는 靑石頭里에서 瑞興으로 前進하여 오던 제5기병연대였던 것이며, 이로 因하여 연대에서 7명의 장병이 부상 당하였다고 主張하였는데, Harris 제7기병연대장은 제5기병연대의 접근을 通報받은 바 없다고 말하였으며, 실제 下部에서는 S-3 Webel 대위가 道路 봉쇄부대와 함께 있던 제5기병연대의 連絡將校에게 부대가 『無差別사격의 命을 받고 있다.』고 알려 주었으나, 연락장교는 原隊에 이를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由來로 兵은 詭道인지라, 그동안에 뜻하지 않은, 本意 아닌 錯誤가 없을 수도 없다.

이와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 제7기병연대는 제1대대를 先頭로 新興里에서 黃州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英 제27여단은 이날 아침에 瑞興에서 제7기병연대를 초월하여 沙里院으로 直衝機動을 敢行하였다.

날도 새기 전에 진격을 시작한 英 여단은 Argyll 대대 A중대의 1개 소대가 美軍의 Sherman 전차에 탑승하여 공격을 先導하였는데, 敗주리고 지친 敵은 계속 憂愁한 모습으로 投降하였으며, 燃料가 떨어진 蘇製 自動車들이 主人 잃은채로 路上에 덩굴고 있었다. 英軍이 沙里院 東南쪽 6km의 능선에 접근하였을 때, 200m前方에서 敵이 사격을 가하여 전투가 벌어졌는데, A중대와 同行하던 美 제1기병사단의 부사단장 Frank A. Allen 준장이 『敵은 과수원에

있다. 이를 공격하라.」고 외쳤으며, 전차가 과수원에 사격을 시작하자 敵은 동요되어 潰走하고 말았으니, 一將의 炯眼은 能히 이와같은 先見의 妙을 發揮할 수 있는 것이다. A중대는 敵 사살40명, 거관총10정, 대전차포 4 문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둔 다음, 폭격으로 말미암아 廢墟化된 沙里院에 돌입하였다.

이날 저녁에 여단의 Australia 대대가 Argyll대대를 초월하여 黃州 쪽으로 8km를 北進하였는데, 敵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陣地를 발견하자 그곳에서 다음 날의 공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날 밤에 沙里院에서는 3面으로 공격케 된 美·英軍의 계획과 敵의 혼란상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의 珍奇한 사태가 벌어졌다. 즉 北上하던 敵의 차량부대가 市街 南쪽에서 英軍 수색대와 부딪쳤는데, 敵은 사격을 가하면서 수색대를 초월하여 北쪽으로 달려갔다가 北쪽 出口가 차단된 것을 알고 다시 南쪽으로 돌아서 수색대와 만났다. 이번에는 수색대의 공격으로 20명이 사살되고 나머지 敵은 사방으로 흩어져 潰走하였다. 그 다음에 Argyll대대장 Neslie Nielson 중령은 찝車로 沙里院南端을 향하여 疾走하고 있을 때, 2열종대로 北上하는 敵과 부닥치게 되었다. Nielson 중령은 운전병에게 계속 全速力으로 달리도록 명령하므로써 4km의 종대를 빗어날 수 있었다. 이 敵들은 平壤부근에서 美 제24사단의 제19연대에게 격파된 다음, 沙里院이 UN軍의 手中에 있음을 모르고 敗走하던 도중이었으므로 小數의 果敢이 多數의 失性을 克服한 좋은 例라 할 것이다. 英軍도 또한 혼란 통에 敵을 美 제24사단 소속의 韓國軍으로 誤認하면서도, 敵은 英軍을, 그들을 도우러 온 蘇聯軍으로 알고 서로 반기며 通하지 않은 言語로 손짓 발짓으로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이는 英軍의 服裝이 美軍과 다른 때문이었으며, 敵은 Argyll대대의 방사를 「동무」라고 부르며 모자의 붉은 별을 떼어 記念으로 주기도 하였다는 말이 喜劇으로서도 여간 傑作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뒤늦게나마 서로 敵임을 알게 된 兩軍사이에는 이번에는 血眼과 殺氣를 들어내어 육박전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一分 前의 親友가 곧 一分後의 兇敵으로 豹變한 것이다. 英軍 1명 戰死에 반하여 150명이상의 敵을 사살하였다. 또 沙里院北端에서 道路를 차단하고 있던 Australia대대의 임무는 I.B. Ferguson소령이 지휘하였는데, 밤중에 北上하는 일단의 敵을 발견하였다. 부대는 전투태세를 갖춘 다음, 통역장교를 시켜 전차에 타고 敵을 향하여 "그대들은 이미 四面으로 포위되었으니, 즉시 무기를 버리고 두손들고 항복하라."고 소리치게 하였다. 敵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先頭부터 쫄

지어 投降하였는데, Australia 대대는 여기서 1,982명을 大量포로하고 그 護送과 給養에 오히려 골치를 앓게 되었으리라.

한편 滅惡山脈 北麓의 좁은 길을 따라 黃州로 전격하던 美 제7기병연대는 黃州 南東쪽에 접근한 16.00에 Gay 사단장이 보낸 電文을 항공기로부터 전달받았다. 사단장은 北方 道路 일대에 數百名의 敵이 蝟集해 있음을 알려 주는 동시에 연대 主力은 黃州를 탈환하고, 제1대대는 沙里院으로 南進하여 英軍을 지원토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제2, 제3대대는 北쪽으로 진격하여 美軍이 아직 진출치 못한 것으로 아는 敵의 虛를 뚫고 黃州로 돌입하였으며, 제1대대는 沙里院을 향하여 南進하기 시작하였다.

대대의 先頭는 곧 敵의 騎兵과 37필의 軍馬를 生捕하였는데, 敵은 大部隊가 沙里院—黃州 道路를 따라 高地帶에서 南面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잠시 후에 대대는 敵의 사격을 받았다. 이 사격전이 시작되었을 때, 韓國사람 通譯官이 敵의 陣地에 접근하여 "前面에 있는 것은 급히 구원하러 온 蘇聯軍이다. 사격을 멈추라."고 외쳤다. 그러자 일단의 敵이 대대장이 있는 곳으로 닥아 왔다. 대대장 Clainos 중령은 1개 분대로 하여금 곧 敵을 무장해제시키도록 하였으며, 속은 것을 알게 된 敵 가운데 數名이 抗拒하려 하였으나, 분대장이 그 가운데 1명을 사살하자 그 나머지 분자들은 곧 저항을 斷念하게 되었다. 두 팔을 돌고 항복한 이들은 언덕에 집결시키자 주위의 언덕 壕 가운데서 이를 바라보던 敵들도 連鎖的으로 투항하기 시작하였다. 西쪽 敵陣에서는 어두어질 때까지 소총사격이 계속되었으나, 계속 많은 敵兵이 항복하여 그 數가 저녁까지는 1,700명에 달하였다. Clainos 제1대대장은 18.00에 無線으로 沙里院 北方의 Australia대대장에게 『自動車에 불을 켜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연락한 다음, 22.30에는 Australia 대대의 방어진지에 진출하였다.

<바나나 껍질이된 T-34의 砲身>

이날 軍團의 左翼으로 西側方을 진격하던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은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가 海州를 방어하던 약300명의 敵을 격파하여 오후에 이를 탈환하였으며, 제19연대장은 靑石

頭里—新院里—載寧—沙里院街道를 따라 진격하여 17.00에는 沙里院 南쪽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군단장으로부터 『英軍이 沙里院을 탈환하였으니 진격을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단은 進擊路도 가장 길었으며, 陸上輸送에 의존하던 補給路도 좋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美 제1기병사단에 배속된 英 제27여단이 沙里院을 先占함으로써 美軍側의 平壤先攻은 기병사단이 韓國軍 제1사단의 後光을 이어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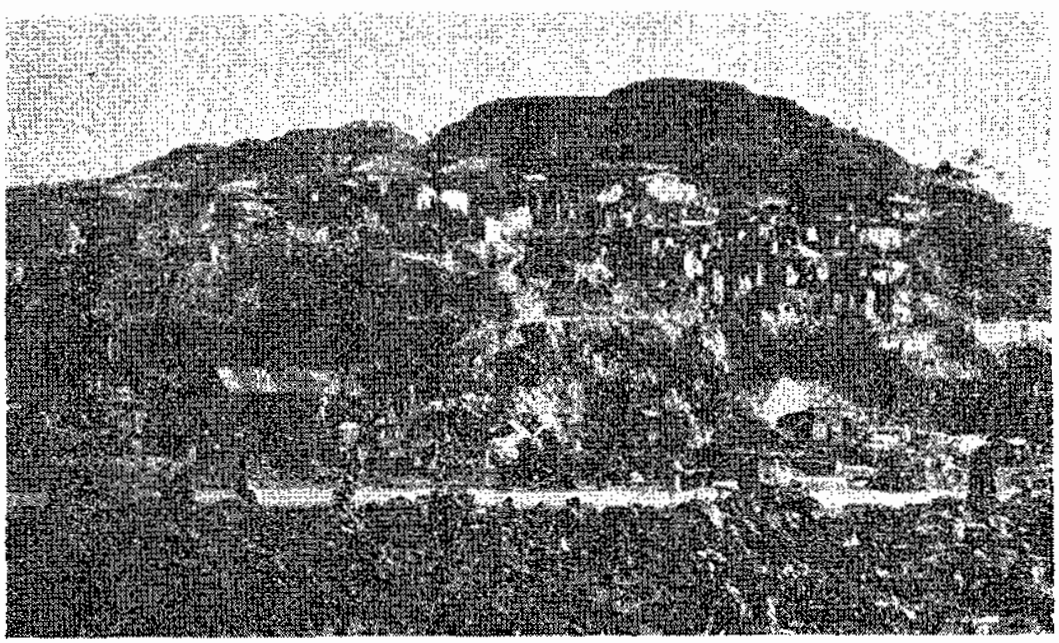
라. 전투 후의 개황

沙里院을 탈환한 美 제1기병사단은 제7기병연대를 先頭로 黃州—沙里院—瑞興線에서 다음의 平壤공격을 준비하게 되었거니와 右翼의 韓國軍 제1사단은 이미 栗里에 진출하여 平壤에 육박함으로써 美軍보다 앞선 기세를 보였다.

이때 元山에 上陸豫定인 美 제10군단은 仁川과 釜山을 출발하였으나, 두 港口에서는 아직도 군단을 위한 적재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元山 앞바다에서는 機雷掃海에 부닥치고 있었다. 美 제10군단에 대신하여 韓國軍 제2군단이 元山부근으로부터 西進하고 있었는데, 韓國軍 제7사단은 이미 遂安부근에 진출하고 있었다.

이제 平壤을 향한 포위망에서 主攻으로 지목된 美 제1기병사단은 黃州로부터 平壤까지의 비교적 평탄한 지역을 일거에 돌파하여 平壤에 入城할 작정이었다.

한편 沙里院 못 미처서 진격을 정지한 美 제24사단은 載寧—海州지역으로부터 계속 西北進하여 平壤이 탈환되던 19일에는 溫井을 거쳐 西海岸의 鎭南浦對岸에 진출하게 되었다.



<치열한 진격 끝에 폐허가 된 金川읍>

3. 鐵原一球場洞 進擊戰(50년 10월 9일부터 / 50년 10월 25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8 호
상 황 도 제 29 호
작명부록 제6, 1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2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 8 사단 장 준장 李 成 佳
제10연대 장 대령 高 根 弘
제16연대 장 대령 金 義 淵
제21연대 장 대령 金 容 培

지원부대
제50포병대대장 소령 朴 秉 佳

敵 軍

제 1 사단 장 소장 洪 林
(忠州—元山—江界 10월 18일경)
제 2 사단 장 미 상
(春川—江界—10월 하순)
제 3 사단 장 소장 李 英 鎬
(多富洞—江界—10월 하순)
제12사단 장 소장 崔 仁 斗
(原州—陽德—江界—10월 하순)
제15사단 장 소장 趙 光 烈
(谷山에서 게리라—主力은 江界로)

※ 北傀 6.25 남침분석 : 육본정보참모부 발행 참조

나. 전투 전의 개황

제 8 사단은 38°線을 돌파한 다음, 漣川—鐵原—平康—伊川線을 따라 10월 14일 新溪까지 진격하였다. 이제 赤都 平壤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준비를 促進하고 있을 때, "韓國軍은 제 1 사단 外 어느 부대도 平壤으로 진격할 수 없으니, 제 8 사단은 平壤으로 이르는 進擊路를 바꾸어 平壤 東北方으로 진격하라."는 군단장 명령을 無電으로 접수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谷山—陽德—成川線으로 그 진격方向을 變更하고, 10월 18일에는 平壤 東北쪽 40km 지점에 있는 江東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江東 北쪽에 있는 大同江 上流의 교량이 파괴되었고, 徒涉이 불가능하여 浮橋를 가설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다시 군단장 명령을 접수하였다.

즉, 平壤에는 제 1 사단이 이미 入城하였으므로 제 8 사단은 진격方向을 北쪽으로 돌려, 江界—中江鎭線을 향하여 진격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단은 10월 21일 成川을 22일에는 價倉을, 그리고 23일

에는 北倉으로 진격하여 계속 德川—江界等으로 突進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 무렵 左側 제 6 사단(장, 金鍾五준장)은 22일, 伊川—寧邊까지 진출 중이었다.

한편 10월 17일, 陸本 作命 제 218호(作命附錄 제 17호)에 의하면 韓國軍 이외 UN軍은 定州—軍隅里—寧遠—咸興—興南을 連하는 線 以北으로는 진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敵은 平壤을 비롯 다음, 계속 퇴각하면서 清川江線 일대에서 약간의 저항을 企圖하였으나, 全 戰線 지대로 패주하여 산발적인 유격전을 企圖할 뿐 조직적인 저항은 終末點에 이르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鐵原—谷山 進擊戰(10. 9~10. 14)

제 8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陸本 作命 제 205 호(作命附錄 제6호)에 의거, 제 10 연대(장, 高根弘대령)와 제 16 연대(장, 徐錄漸중령)를 攻擊編隊로 하고, 제 21 연대(장, 金容培대령)를 예비대로 하여 鐵原--平康線으로 急進하여 계속해서 北方, 또는 西北方으로 진격할 계획이다.

陸本 作命 제 205 호(作命附錄 제 6 호) 要旨는 아래와 같다.

(가) 제 8 사단

1. 左側은 제 7 사단을 이동시킬 時까지는 제 7 사단과, 그 후로는 右側 제 6 사단과 협동하여 제 2 군단장이 지시하는 시각에 北方 및 西北方에 대한 협동공격을 개시하라.
2. 제 5 목표 鐵原 및 제 10 목표 平康을 점령하라.
3. 제 1 차 진출 예정선 점령과 同時에 即時 담당 지구 내에서 목표 "D" 洗浦里 및 목표 "G" 龍池院里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라.
4. 목표 "G" 龍池院里 공격에 관하여는 제 6 사단과 협의하라.

〈작전을 熟議하는 李周一중령, 金容培대령 劉被興소장〉

10월 11일; 제 8 사단은 鐵原지역을 완전히 점령 확보하고, 계속 平康으로 急進하여 부대정비를 마치고, 伊川—新溪—平壤線으로 西北方에 대한 진격준비를 갖추었다. 이날 제 2 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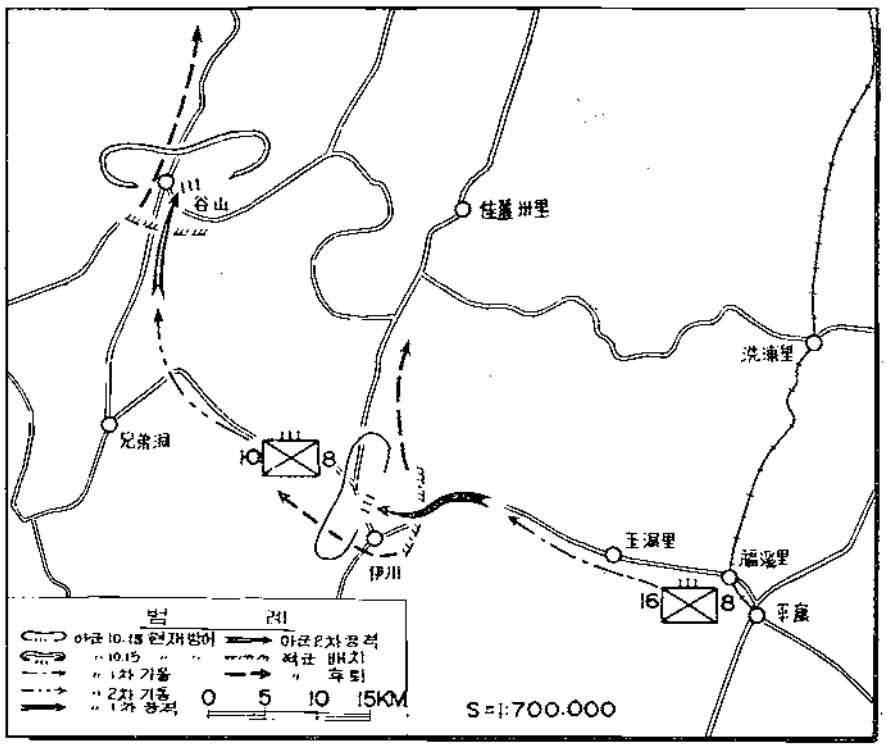
에하 제6사단(장, 金鐘五준장)과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은 金化를 경유하여 平康으로 진격해 들어 왔다.

10월 12일: 제8사단 제16연대는 전날 平康까지 급속도로 진격하여 부대정비를 마치고, 福溪里로 부터 伊川 쪽을 向해서 진격을 시작하였다. 연대 수색중대를 機動정찰부대로서 先頭에 진격시키고, 主力은 道路를 中心으로 敵 기습에 대비하여, 이동 중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진격하고 있었다.

10월 13일, 제16연대는 17.00, 2개 연대병력으로 추산되는 敵을 포착하고 彼我間 총격전이 벌어졌다. 敵 戰局의 進展이 불리한 상태에서 我軍의 火力包圍로 인하여 支離滅裂되어 谷山쪽으로 퇴주하고, 연대는 20.00伊川을 左右 兩側에서 包囲 공격하여 22.00 伊川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10월 14일: 제8사단 제10연대는 伊川지역에서 뒤 늦게 퇴주하는 敵 패잔병 2개연대 병력을 격파하고, 앞에서 진격하던 제16연대를 초월해서 新溪를 경유, 谷山 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런데 新溪를 점령하고 平壤을 향해서 진격하려던 제8사단은 군단(장, 劉載興소

〈상황도 제29호 伊川 谷山 전투(50. 10. 12~15)〉



장, 命에 의하여 平壤에는 UN軍과 韓國軍 1개사단 外 어떠한 부대로 진격할 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3개 연대장과 포병대대장, 그리고 사단 참모들을 모아 놓고, 사단이 平壤으로 진격하지 못하는 분함을 참고 군단장 命에 의하여 진격방향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谷山—陽德—成川—江東線으로 진격한 다음, 平壤을 東北 쪽에서 공격코자 하였다.

(2) 德川—球場洞 進擊戰(10. 24~10. 25)

제 8 사단장 李成佳준장은 군단 작전계획인 『담당지구 內에서 北進을 계속하여 楡木洞—德寬里를 연하는 線을 점령, 확보하고, 담당지역 內의 殘敵을 섬멸하라.』는 命에 따라, 江東으로부터 成川으로 前進한 다음, 제 16연대(장, 金義濟대령)를 先頭로 하고, 제 10연대(장, 高根弘대령), 그리고 제 21연대(장, 金容培대령) 順으로, 假倉—北倉—德川線으로 진격하여, 이 線에서 江界—中江鎭으로 진격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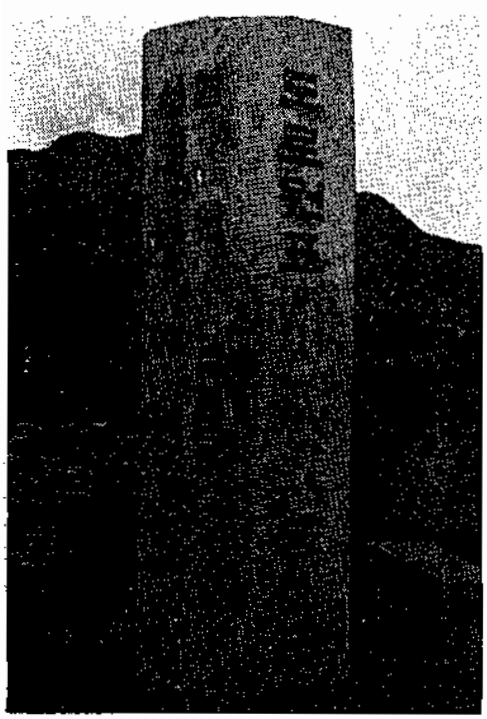
10월 24일; 제 8 사단은 乘勝長驅 破竹之勢로 北進을 계속하여 패주하는 敵을 추격하면

〈德川江線의 我軍 박격포 陣地〉

서 德川까지 진격하였다.

제 16연대 제 1 대대는 이날 13.00 德川 西北 쪽으로 진격하던 중, 敵 1개대대를 발견하고, 대대장은 병력을 左右 능선 일대로 급속히 展開시켜 敵을 兩쪽에서 포위, 공격토록 하였다. 敵은 포위망을 간신히 뚫고 活路를 찾아 그 부근에 있는 山岳지대로 흩어져 들어가면서도 계속 저항하였는데, 대대는 敵을 추격, 擊破하면서 球場洞을 向하여 돌진을 계속하였으며, 이때 제 2 대대(장, 李寬熙소령)는 제 1 대대의 뒤를 따라 진격하고 있었다. 한편 제 3 대대는 연대 主力과 별도로 단독진격하여 德川 東北쪽 新下里까지 진출하던 중, 이곳에서 어쩌할 바를 몰라 彷徨하고 있는 敵을 닥치는대로 격파하면서 寧遠 쪽으로 진격 중이었다.

10월 25일; 제 16연대 제 1 대대와 제 2 대대는 전날 球場洞으로 진격하여 球場洞 南쪽 1km 地點에서 周邊일대의 敵情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이때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敵은 유격據點의 확보를 위하여 熙川 쪽으로 퇴각 중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대장 兪載浩대령은 제 1 대대와 제 2 대대로 하여금 熙川 쪽으로 急進시켜 敵을 추격, 섬멸토록 명령하는 동시에 제 3 대대로 하여금 寧遠 쪽으로 급속히 진격케 하는 즉시로 여기에서 方向을 돌려 熙川을 향하여 北進토록 하여 연대 主力을 이 方向으로 誘導토록 하였다. 또한 사단主力(제 10연대와 제 21연대)은 결정적인 시기에 兵力을 轉用하기 위하여 제 16연대 진격의 뒤를 따라 球場洞으로 挺進중이었다. 이 무렵 사단 사령부는 戰線의 推移에 따라, 德川에서 球場洞으로 약진하고 있었다.



〈金化 分岐路〉

진격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동안 我軍이 이르는 고을마다 학살된 良民들의 屍體가 즐비하게 늘어져 가족들의 울부짖는 통곡소리가 하늘에 사무쳤고, 농민들의 뼈를 갈아 모은 現物稅 창고에는 닥치는대로 불을 질러 百姓의 糧道를 끊어 놓았다. 방공호에 무더기로 집단학살을 한 現場에는 찢겨진 肉體의 토막들이 사방으로 흩

이제 차마 볼 수 없는 참상을 이루고 몸등이만 땅속에 파묻혀 산채로 매장 당한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限없는 고통의 자욱이 너무나 역력하여 全身의 피를 얼어 붙게 하였다. 장병들은 발목이 묵직한 외사슬에 묶여 마지막까지 달아나지 못하고 손으로 땅을 후비 파다가 그대로 죽어 넘어진 北傀 소년 기관총射手의 처절한 시체를 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 보려고 애쓴 그들의 비참한 本能이 헤아려져 人間으로서의 따뜻한 눈물을 뿌려 주었다. 共産黨이 이 땅에서 말살되지 않는 限 제2의 소년 射手, 제3의 대학살이 또 없으리라고 누가 단정 할 것인가?

라. 전투 후의 개황

제8사단은 平壤 탈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江東에서 다시 진격方向을 北쪽으로 바꾸어 진격을 계속하므로써, 江界—마전江線을 목표로 韓滿국경선을 向해서 진격하게 되었다.

平壤 탈환을 위한 두 차례에 걸친 진격方向의 변경, 즉 新溪에서 平壤에 이르는 進擊路를 谷山—陽德—成川—江東으로 바꾼 것과 成川에서 江東으로 진격하였을 때, 다시 진격方向을 北쪽으로 되돌렸던 두가지의 차질로 말미암아 時間的으로 遲延을 보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좀더 빨리 鴨綠江까지 진격할 수 있는 시간을 虛費하는 결과가 되며, 이미 鴨綠江을 건너 不法으로 침략한 中共軍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宿願인 국토통일을 눈 앞에 둔채로 戰勢는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무렵 10월 25일에는 左側 제6사단 제2연대가 溫井里로 부터 碧潼을 목표로 진격하던 중 東林山 南쪽에서 병력 未詳의 中共軍과 부닥치게 되어 치열한 전투가 展開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中共軍의 불법침략으로 인하여 戰爭樣相이 急變함에 따라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은 사단전장병에게 要旨, 다음과 같은 訓示를 하였다.

「첫째, 장비의 불충분과 미약한 보급으로 현대전 수행의 준비가 부족한 우리였으나, 애국열에 불타는 제군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最新 전차를 先頭로 南侵하는 惡質徒黨들도 秋風落葉으로 패배 당하고 말았다. 이 決勝은 永遠不敗의 戰友와 先烈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제군들의 공훈에 대하여 심심한 찬양을 드리는 바이다.

둘째, 진격하는 도중 수색,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中共軍 작전의 특징은 誘引작전이기 때문에 道路만 따라가는 작전은 嚴히 피하여야 하며, 적어도 道路 周邊 10~12km정도는 완전히 경계하여야 한다.

세째, 일찌기 國民 없는 군대는 존재하지 못하며 우리는 國民의 군대라는 것을 명심하자, 이것은 나의 직책상으로 말함이 아니고 민족적 양심상, 도의상으로 한번 강조한다.」

§ 參戰者의 證言

◇ 제 8 사단장 李成佳준장

(65년 3 월 17 일 · 서울 城北區 東仙洞 자택 · 예 · 소장 · 대기대사)

우리 제 8 사단은 平壤을 목표로 江東까지 진격하여, 渡河준비를 위하여 집결하였다. 그날 밤으로 渡河를 敢行하였다면 平壤은 제 8 사단이 먼저 탈환했을 것이다. 그런데 원거리로 迂廻해서 江東까지 급속도로 진격하였는데, 江東 西쪽의 大同江의 교량이 파괴되었으며, 江의 幅도 넓고 水深도 깊기 때문에 渡河방법이 막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부교를 가설하기로 결정하고 하루 밤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군단에서 電報로 명령이 내려왔는데, 즉 平壤에는 我 1 軍 제 1 사단 外 다른 韓國軍 부대는 입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단은 다시 목표를 잃어버린 셈이 되었다. 北쪽으로 진격方向을 돌려 江界—中江鎭 쪽으로 진격하게 되어, 孟山—德川—寧遠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寧遠까지 진격하여 江界로 진격하려고 했으나 地圖上에 표시된 道路가 실지는 없기 때문에 다시 德川 쪽으로 方向을 바꾸어, 球場洞, 照川 쪽으로 北進하였다.

◇ 제 8 사단 제 10 연대 제 1 대대장 朴致玉소령

(66 년 7 월 5 일 대한석탄공사 · 예 · 대령)

陽德에서 제 6 사단 제 7 연대와 우리 제 8 사단 제 10 연대가, 陽德을 어느 부대가 먼저 점령하였느냐 하는 문제로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으나, 우리 제 8 사단은 成川을 경유해서 平壤으로 진격할 목적으로 江東까지 진격하였다. 그런데 江東 西쪽의 大同江의 교량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渡河준비를 위해서 하루밤을 집결해서 휴식하고, 다시 平壤으로 진격할 수 없다는 명령에 의하여 北쪽으로 江界를 向해 진격하게 되었다. 孟山, 寧遠을 경유해서 照川까지 진적한 다음, 江界 쪽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접사단인 제 6 사단 제 2 연대가 中共軍과 조우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제 10 연대는 제 6 사단 제 2 연대를 增援하라는 명령을 받고 球場洞 照川사이를 北쪽으로 溫井里까지 진격하다가 역시 中共軍과 조우하여 치열한 攻防戰이 벌어졌다.

4. 新高山—元山 陽德 進擊戰(50년 10월 14일부터 50년 10월 1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9, 30, 31호
상 황 도 제 30, 31 호
작명부록 제 12, 17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2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 2 대대 장 중령 金 鍾 洙
제 6 사단 장 준장 金 鍾 五	제 3 대대 장 중령 印 聖 順
제 2 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제19연대 장 대령 金 益 烈
제 1 대대 장 대위 石 順 天	제 1 대대 장 중령 金 俊 敎
제 2 대대 장(대리)	제 2 대대 장 소령 金 旭 篆
대위 李 聖 燕	제 3 대대 장 소령 朴 徹
제 3 대대 장 소령 宋 大 厚	지원부대
제 7 연대 장 대령 林 富 澤	제 16 포병대대 장 소령 金 聖
제 1 대대 장 중령 金 龍 培	

나. 전투 전의 개황

제 6 사단은 10월 6일 38線을 돌파하여 北進을 계속하여 敵 제 9 사단(신생 병력 2개대대로 축산)과 3일간에 걸친 격전 끝에 10월 8일에는 華川에 돌입하였고, 다음날인 9일에는 抱川 쪽에서 北進해 온 제 7 사단장, 白尙燮준장)과 협동으로 金化지구를 점령, 확보하였으며, 左側 제 8 사단은 10월 11일 東豆川—連川—鐵原線으로 전격하여 平康까지 진격 중이었다. 따라서 제 2 군단은 미처 재편성하지 못한 敵 부대들을 포착, 공격하여 平康—鐵原—金化를 頂點으로하는 鐵의 三角地帶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제 2 군단 예하 제 6 사단과 제 8 사단은 平壤 탈환을 목표로 敵을 직멸하고 殘敵을 擊滅하면서 승리를 目前에 두고 士氣百倍하여 勇進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東海岸을 따라 北進하고 있는 제 1 군단 예하 首都사단과 제 3 사단은 10월 10일 元山을 탈환하고, 계속 北進 중이었다. 따라서 제 6 사단은 新高山—元山을 경유하여, 陽德쪽으로 急進할 수 있었으며, 이에 장병들은 매일같이 계속되는 전투에도 고된 줄 모르고 다만 최후의 승리자가 되겠다는 一念으로 見敵必滅을 위하여 邁進하고 있

었다.

敵은 38°線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미 構築된 견고한 콩크리이트 방어진지를 이용하면서 최후의 발악으로 頑强한 저항을 계속하였으나, 我軍의 쉴사이 없는 전격으로 말미암아 그 企圖가 분쇄되므로써 끝내 부대를 재정비할 사이도 없이 始終一貫 防禦之卒이 되어 패주할 뿐으로서 別로 저항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만 피로를 차단 당하여 彷徨하는 혼합 편성부대로써 겨우 유격전을 企圖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我軍의 先鋒部隊가 赤都平壤에 近迫하게 되자 敵은 平壤이 我軍의 점령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追從者들에게 주는 心的타격이 매우 클 것이므로, 최후 발악이 그 극도에 달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 6 사단장 金鍾五준장은 陸本 作命 제 212 호(作命附錄 제 11 호)에 의거하여 제 2 군단의 右翼 제1선사단으로서, 예하 각 연대(제 2 연대(장, 咸炳善대령), 제 7 연대(장, 林富澤대령), 제 19 연대(장, 金益烈대령)를 통합 지휘한 다음, 新高山—元山을 경유하여 陽德—江東線을 進擊한 다음, 赤都平壤을 목표로 진격하기로 결심하였는데, 당시 제 2 군단(제 6, 제 8사단 基幹)에 下達된 陸本 作命의 要旨는 아래와 같다.

"(가) 제 2 군단은 신속히 元山으로 계속 前進한 다음, 美 제 1 군단과 合勢하기 위하여 陽德—長林里—江東軸線을 따라 平壤을 向하여 공격 前進하면서 當面의 敵을 분쇄하는 동시에 담당 지구내의 南方 및 北方으로 이동하는 敵을 차단, 섬멸하라.

(나) 제 2 군단은 필요에 따라 제 1 군단 지구를 통과할 수 있다."

(2) 작전실시

10월 14일; 제 2 연대는 전날 밤 新高山을 출발하여 이날 07.00에 全병력이 德源까지 진출한 다음, 진격을 위한 부대정비를 하였다.

한편 제 7 연대는 연대본부와 제 1 대대(장, 金龍培중령), 그리고 대전차포 중대를 차량편으로 上坪里를 출발, 기동하여 이날 13.00에 元山을 경유, 德源까지 一擧에 진출하였으며, 제 2 대대(장, 金鍾洙중령)는 차량 편으로 이날 17.00에 역시 德源으로, 제 3 대대(장, 印璽瑄중령)는 徒步機動으로 舊高山까지 진출한 연후에 차량 편을 이용하여 15.30에 또한 德源으로 각각 진출하므로써 연대의 全병력이 德源에 집결하게 되어 陽德—成川線을 따라 진격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또 한편 제 19 연대는 제 1 대대(장, 金俊敎중령)와제 3 대대(장, 朴 敬소령)가 이날 07.00에 淮陽을 출발하여 徒步로 20.00에 新高山까지 전진하였으며, 제 2 대대(장, 金旦鎭소령)는 新安山里에서 집결, 대기 중이었다.

한편 제 6 사단 사령부는 이날 14.40 元山으로 前進하였다.

10 월 15 일: 제 2 연대는 德源에서 陽德 쪽으로 진격하기 위한 부대 정비와 大休憩을 취한 다음, 제 1 대대(장, 石順天대위)는 이날 10.00에, 제 2 대대(장, 李聖蕉대위)와 제 3 대대(장, 宋大厚소령)는 이날 07.00에, 각각 德源을 출발하여 馬息嶺을 넘어서, 제 1 대대는 21.00 馬息里까지 진격하였으며, 제 2 대대는 巨里 東北 쪽 無名高地에 진출하자, 敵 1 개 대대 규모의 병력과 不時에 부닥치게 되어 교전 중이었고, 제 3 대대는 巨里 東南 쪽 高地까지 진격하던 중 敵 1 개 중대규모와 조우하였는데, 右側 제 2 대대와 협동공격하여 東陽 쪽으로 격퇴하였다.

한편 德源에 집결한 제 7 연대 제 1 대대는 이날 12.00에 德源에서 차량으로 馬轉里를 향하여 진격 중이었으며,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는 德源에서 다음 진격을 위해서 대기 중이었고, 연대본부는 이날 德源으로 前進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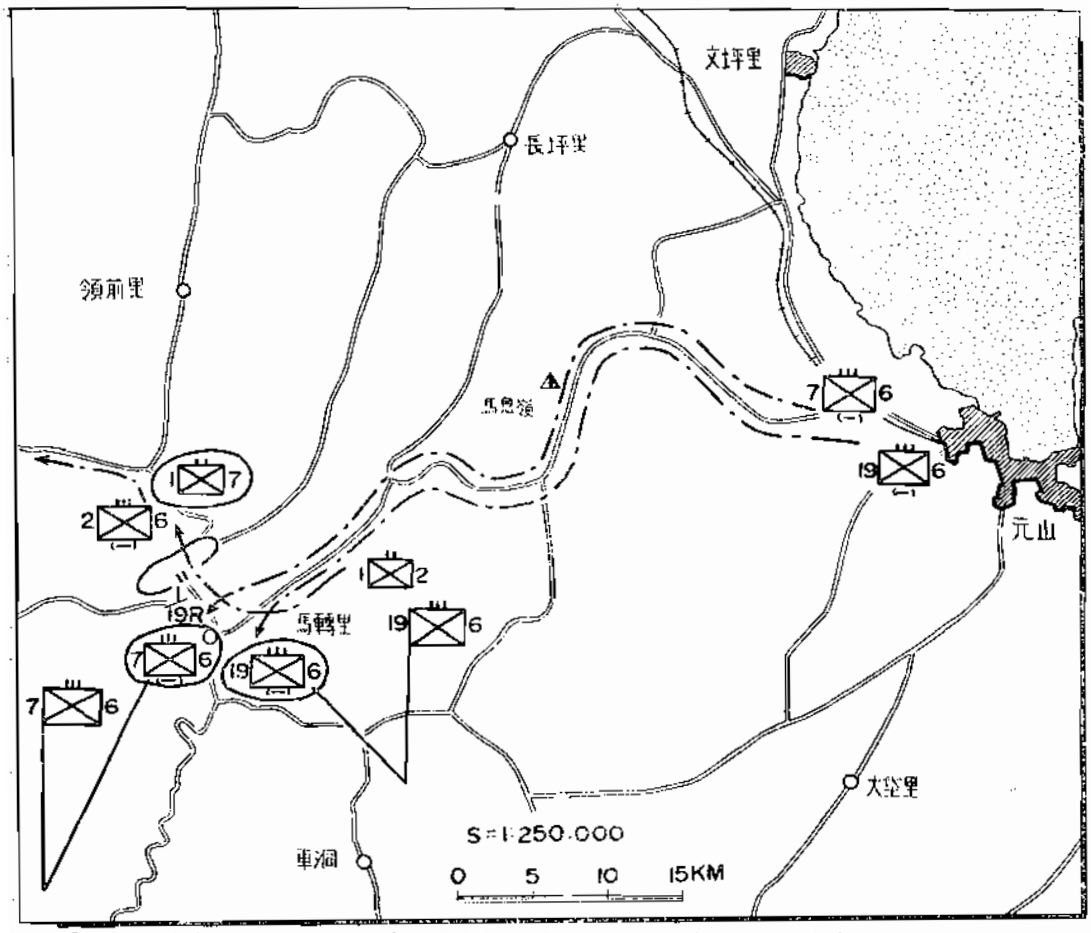
또 한편 제19연대는 新高山에서 부대정비를 끝 마치고 이날 06.00에 徒步로 新高山을 출발하여 18.00에 연대 전병력이 元山까지 전진하여 집결하였는데, 당시 市民들의 환영이 매우 열렬하였으며, 사단장병들의 軍紀가 嚴正하여 國軍으로서의 威信이 드높았다.

10 월 16 일: 제 2 연대 제 1 대대는 어제의 전투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敵을 격퇴한 다음, 이날 09.00에 馬息里를 출발하여 陽德을 向한 진격을 계속하던 중 다시 敵 1 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부터 저항을 받았으나, 一擊에 이 敵을 격파하고 진격 중이었으며,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는 이날 05.00 부터 다시 破竹之勢로 진격을 재촉하고 있었다.

제 7 연대 제 1 대대는 龍浦里에서 全般情勢를 판단하면서 부대정비 중이었으며, 제 2 대대는 이날 07.00에 德源을 출발하여 徒步로 진격하던 도중, 차량으로 갈아 탄 다음, 11.00에 馬轉里까지 진출하였고, 제 3 대대는 07.00 德源을 출발하여 徒步로 前進하던 도중, 역시 차량을 이용하여 18.30에 馬轉里까지 진출하여 부대정비 중이었다. 그런데 연대본부와 105mm 곡사포대, 그리고 대전차포대는 이날 12.00에 德源을 출발하여 18.00에는 연대 主力과 같이 馬轉里까지 진출하여 모두 집결하게 되었다.

제 19 연대는 06.00에 전 병력으로 元山을 출발하여 14.00에 馬轉里 부근까지 진출한 연

〈상황도 제30호 陽德 전투(50. 10. 16)〉



후, 제 1 대대로 하여금 巨里 부근까지 推進시켜, 부근 일대에 대한 경계에 임하도록 하였다.

10월 17일: 제 2 연대 제 1 대대는 14.00에 東陽부근까지 진격하여 周邊일대에 대한 경계에 임하였으며, 제 2 대대는 이날 새벽 일찍부터 진격을 계속하던 중, 05.00에 大倫面에 있는 국민학교 400m 앞 지점에서 1개 중대규모로 추산되는 敵 패잔병의 逆戰을 받게 되자 곧이 敵을 격퇴하면서 계속 진격하였고, 제 3 대대는 전날 저녁부터 계속 진격하여 이날 15.00에 東陽부근까지 진격하고 있었다.

제 7 연대 제 1 대대는 전날 龍洞里에서 부대정비를 마치고, 이날 06.00에 이곳을 출발하여 11.00에 溫井里(陽德郡 溫泉面)까지 진격한 다음, 1개중대를 北쪽 高地에 배치하여 경계에 임하게 하였다. 또 제 2 대대는 105mm 곡사포 2 문과 대전차포 2 문을 배속 받은 다음, 차량으로 진격하던 중 이날 18.00에 藥水洞 부근에서 執拗하게 저항하는 1개 중대규모의 敵

을 격파하면서 20.00에 溫井里 北쪽 高地까지 진출하였으며, 즉시로 중대와 連繫하여 경계임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제 3 대대는 이날 08.00에 馬轉里를 徒步로 출발하였는데, 도중에서 차량지원을 받게 되어 20.00에 藥水洞까지 진출한 다음, 앞에서 진격하는 제 2 대대의 뒤를 따라 溫井里까지 前進하므로써, 이날 제 7 연대는 제 6 사단의 先鋒隊가 되어 陽德을 탈환할 수 있는 先頭에 위치하게 되었다.

한편 제 19 연대의 主力의 半은 徒步로써 나머지 半은 차량으로써 각각 07.00 馬轉里를 출발하여 土基里부근까지 前進하였으나, 그 2km 앞에서 제 2 연대가 敵 패잔병과 교전 중이었기 때문에 前進을 중지하고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다가, 18.00에 제 1 대대와 제 2 대대는 연대본부와 같이 土基里를 출발하여 東陽을 경유, 20.00에 平岩里 東南쪽 2km 지점 새갈랫길까지 전진하였으며, 제 3 대대는 연대 예비대로서 土基里에 집결한 다음, 대기 중이었다.

이날 사단 사령부는 15.30에 元山으로 부터 溫井里로 약진하였다.

10월 18일; 전날 東陽을 통과한 제 2 연대 金병력은 계속 진격 중이었으며, 제 6 사단의 先頭부대로서 진격하고 있던 제 7 연대 제 1 대대(장, 金龍培중령)는 08.00에 溫井里를 출발하여 陽德을 側方에서 공격을 하고 있었고, 제 2 대대는 07.00부터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친 결과, 격전을 거듭한 끝에 22.00, 陽德邑內에 돌입하였는데, 연대 수색중대와 제 2 대대 수색대는 퇴주하는 敵 패잔병을 계속 추격 중이었다. 제 2 대대(장, 金鍾洙중령) 지체없이 陽德 東北쪽 高地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므로써 陽德 주변일대를 확보하였고, 제 3 대대(장, 印聖浩중령)는 제 2 대대의 뒤를 따라 19.00 內洞까지 진출하였으며, 연대본부와 105mm 포병대, 그리고 대전차포대는 12.30 溫井里를 출발하여 19.00에 제 3 대대와 같이 內洞까지 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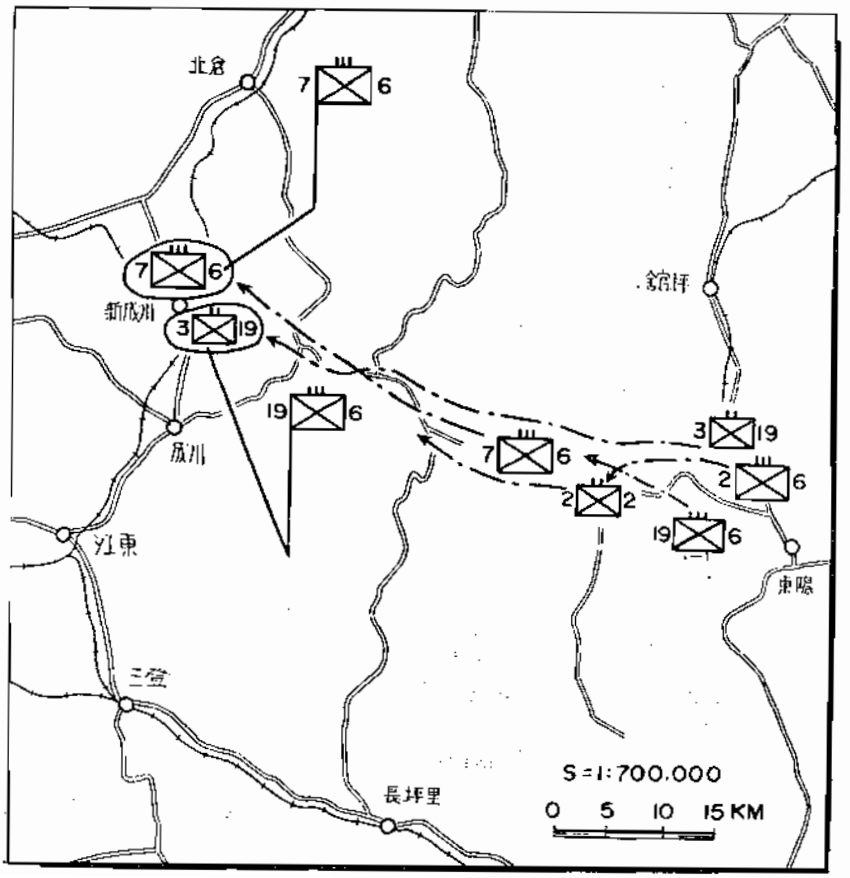
제 7 연대가 陽德을 점령, 확보하자 谷山 쪽에서 北進해 온 제 8 사단 제 10 연대(장, 高根弘대령)가 陽德으로 진격해 들어왔다. 결국 제 7 연대와 제 10 연대는 서로 陽德을 先占했다는 문제로 兩個 연대장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사단장 金鍾五준장이 현장까지 나와서 연대장 사이의 언쟁을 中止시켰고, 군단 작전참모 李鴻—대령도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군단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谷山에 위치한 군단 사령부로 돌아갔다. 따라서 제 6 사단의 제 7 연대와 제 8 사단의 제 10 연대는 서로 앞을 다투어 成川 쪽으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제 19 연대는 06.00에 平岩洞까지 진출하였는데, 제 3 대대(장,

朴敬소령)는 04.00에 士基里를 출발하여 07.00平岩洞을 경유, 17.00院洞까지 진출하였으니 그 勢가 마치 堤防을 뚫는 洪水의 물결과도 같았다.

10월 19일;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 全 병력은 아날 07.00에 溫井里를 출발하여 陽德을 향해 전진 중이었는데, 제2대대(장, 대리, 李聖燕대위)는 연대 선발대로서 16.00에 仁平을 통과하고 있었다.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는 陽德에 진출한 다음, 이때 마침 谷山을 경유하여 北進 중인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과 交叉하게 되었는데, 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장, 高根弘대령)는 서로 先頭를 다투면서 平壤을 향한 진격을 재촉하게 되었다. 이날 제7연대 제3대대(장, 印聖培중령)는 01.30에 차량으로 陽德을 출발하여 23.00에 成川까지 진격하였으며, 제1대대(장, 金龍培중령)와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는 06.00에 陽德을 출발하여 제3대대

〈상황도 제31호 陽德 전투(50.10.19)〉



의 뒤를 따라 成川 쪽으로 진출하였으나, 一波又一波로 전격의 兵威가 높아지기만 하였다.

한편 제 19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제 7연대의 진격에 따라 06.00에 順天洞을 출발하였는데, 연대본부와 제 3대대(장, 朴 敬소령)는 急進하여 22.00에는 이미 成川까지 진격함으로써 제 7연대의 後尾를 바짝 뒤따랐다. 이 무렵 사단은 陸本 作命 제 218호(作命附錄 제17호)에 의하여 平壤진격을 변경하여 成川으로 부터 順川 쪽으로 北進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으니, 그 명령의 要旨에 이르기를

『가. 제 2군단은 가능한 限 단시일 내에 군단 사령부를 포함한 全병력을 江東 西南方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道路와 통로를 사용하여 西方으로 공격을 계속하라.

나. 美 제 1군단의 공격에 적절 協力하여 東方과 東北方으로 부터 즉시 平壤을 공격하라.

다. 제 6사단은 成川을 공략 후 順川을 경유, 安州를 공격하라.』

이리하여 사단은 그 攻擊의 軸線을 平壤 東北方 같이 順川 경유, 安州를 向하여 大統回運動을 展開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 6사단은 민족의 念願인 국토통일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진다는 부푼 가슴을 설레이며, 38° 線을 돌파한 후 최후 一擊을 노리면서 北上, 패주하는 敵을 계속 추격하였는데, 元山에서 平壤을 공략하라는 군단장 命에 의하여 平元線을 따라 西쪽으로 진격을 계속, 10월 18일에는 平壤 東쪽 약 80km 지점에 있는 陽德을 점령, 확보하였다.

이 무렵 제 2군단 예하 제 8사단은 平康으로 부터 伊川--新溪--谷山을 경유, 陽德으로 진격해 들어 왔는데 이는 군단에서 예하 兩個 사단에 대하여, 陽德을 先占하는 부대에게 平壤 공략을 위한 道路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사단간의 협조 또는 연락이 유지되지 않았고, 平壤으로 이르는 道路사용문제로 옥신각신하는 사태가 야기되었고, 또한 平壤 공략을 위한 시간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곧 수습한 다음, 제 6사단과 제 8사단은 平元街道와 平元線 鐵路를 따라 仁平--長林을 경유, 成川까지 前進하여, 이곳에서 군단 作命으로 다시 제 6사단과 제 8사단은 진격방향이 각각 南北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제 6사단은 成川에서 順川 쪽을 向해서 北進하게 되었으며, 제 8사단은 成川에서 江東으로 南進하여 平壤을 攻擊할 계획이었다. 10월 19일 제 6사단은 順川 쪽을 向해서 北進하고 있을 때, 제 8사단은 江東까지 진격하여 大同江 上流를 渡河하여 平壤을 공략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大同江 上流의 교량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渡河준비를 하는 사이에, 平壤에는 韓國軍 제 1사단이 突入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제 8사단은 다시 成川을 경유, 江界 쪽으로 北進하라는 군단

장의 명령을 받고, 成川을 경유, 孟山—德川으로 전격을 계속하였다

§ 戰 訓

◇ 單一道路의 優先사용권 부여

공세작전에 있어서 單一道路의 優先사용은 상급부대에서 이를 事前에 통제하여야 한다. 제2군단의 進擊路인 陽德 路上에서, "누가 먼저 陽德을 점령하였느냐?"의 是非는, 누가 먼저 平壤에 이르는 道路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느냐에 直結되어 있었으므로 이 문제를 놓고서 제6사단 제7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간에 감정이 격화될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시간을 虛費하게 되므로써, 제2군단은 平壤 先取의 영예를 美 제1군단에 빼앗기는 결과를 招來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제2군단 예하인 제6사단은 元山에서, 제8사단은 谷山에서 각각 陽德으로 分進하고 있었는데, 부득이 陽德에서는 "어느 사단에게 공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군단으로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제6사단의 제7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가 夜間에 陽德까지 돌입하게 되었는데,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의 시비로 번졌고, 군단에서도 직접 兩 부대의 전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來到한 군단 작전참모로서도 公正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작전참모는 谷山에 위치하고 있는 군단 사령부에 돌아가서 군단장의 결심을 촉구하게 되었다.

兩 연대장의 言爭은 상호간 어떠한 결론도 없이 兩個 부대가 좁은 單一路上에 殺到하게 되었으니, 徒步부대, 차량화부대, 포병부대등의 혼잡은 추격하는 부대의 隊列이 아니라 恰似 철수하는 부대의 隊列을 연상케 하였다. 이런 결과로 進展되었기 때문에 군단장으로서 如何한 조치도 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競技에서의 敗者는 별별 口實로 勝者나 심판에게 항의하는 事例가 있는 것은 人之常情이라, 目前에 敵을 추격하면서 赤都공격의 先着을 競合하는데 있어서 뒤늦게 陽德에 전격한 부대가 先頭에 서겠다고 先着부대의 前進을 방해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大悟反省해야 할 것이다.

(美 제1군단에서도 平壤 진격로의 制限 때문에 군단장은 美 제1기병사단과 제24사단에게 沙里院을 先占하는 사단에 平壤 공격의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결과는 기병사단이 沙里院을 먼저 점령함으로써 平壤 진격의 先鋒을 맡게 되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8사단장 李 成 佳 준장

(65년 3월 9일 · 서울 城北區 東仙洞 자택 · 예 · 소장 · 대기대사)

우리 제8사단은 士氣 충천하여 순조롭게 北進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단 정보참모 權泰順중령(51년 2월 12일, 橫城지구 전투에서 戰死 故 : 준장)이 헬리콥터로 나에게 달려와서 報告하기를 『군단에서 비행기로 無電연락이 왔는데 우리사단은 平壤으로 진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平壤에는 韓國軍으로서 제1사단 外는 一切 못들어가니까 현재 平壤으로 向하고 있는 道路上의 韓國軍 부대는 속히 철수시키던가 진격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萬一 그렇지 않으면 무차별 폭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군단이 이동 중이었고, 사단이 이동 중이기 때문에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겨우 無電연락이 되어서 다시 확인을 해 보았더니, 군단에서도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

는 직접 前方으로 나아가 연대장들(제 10연대장 高根弘대령, 제 16연대장 金義淵중령, 제 21연대장 金容培대령)에게 以上과 같은 군단의 지시 사항을 이야기 했더니 연대장들은 화가 나서 "그러면 사단장께서 車로 보급품을 다 가지고 가십시요. 우리들은 山을 타고 진격하여 平壤으로 들어가겠읍니다."라고 모두 화가 나서 대들듯이 감정이 激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공명심 때문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어느 부대가 平壤을 탈환하든 우리 韓國軍의 제 1 사단이 平壤으로 진격하니까, 우리는 谷山 陽德을 경유하여 진격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지도를 펴 놓고 설명하기를, 우리 제 8 사단은 기왕 山岳지대만을 따라서 진격해 왔으니 그대로 敵을 추격하면서 진격하도록 하자. 美軍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개활지와 道路를 따라 진격토록 한 것이니, 우리는 陽德으로 진격하여 平壤西北 쪽으로 진격하도록 할 것을 납득시켜서 우리는 陽德으로 진격방향을 바꾸기로 하였다. 물론 新溪에서 平壤으로 바로 진격하는 것보다 谷山—陽德—成川—江東을 경유해서 平壤으로 진격하는 거리가 倍加될 것이다.

그런데 陽德으로 진격하여서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 陽德을 우리 제 10연대가 먼저 점령하고 제 6 사단 제 7 연대와 시비가 벌어진 것이다. 우리 제 10연대장 高根弘대령과 제 6 사단 제 7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陸士, 同期生인데, 同期生間에 言爭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제 6 사단이 어디로 진격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元山을 경유해서 陽德으로 진격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元山에 진출한 제 6 사단도 平壤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强行軍으로 진격하다가 陽德에서 우리 제 8 사단의 先頭부대인 제10연대와 제 6 사단의 제 7 연대가 마주친 것이다. 제 10연대장 高根弘대령은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진격한다."고 주장했으며, 제 7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자기 부대가 먼저 들어 왔으니까 먼저 진격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다. 그런데 제 6 사단장 金鍾五준장이 말써 그곳에 나타나서 연대장끼리 言爭하는데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제 8 사단 참모들의 말) 그래서 제 10연대장은 나에게 화를 내면서 "작하는 왜 응원을 안합니까?"라고 화를 내기에, 나는 썹코로 현장에 달려 갈까 하다가 다시 생각을 해 보니 "여린에 싸움이 이른 싸움이 된다."는 옛말과 같이 부하들 싸움에 가담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군단에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군단 작전참모 李鍾一 대령이 우리 사단 지휘소로 떨어 들어 오더니, 이 문제는 제 8 사단 제 10연대가 먼저 들어 갔으니 먼저 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나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제 6 사단장에게도 傳하라고 했는데, 벌써 제 6 사단에도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 10연대가 먼저 들어 갔으면 어떻고 제 6 사단 제 7 연대가 먼저 들어 갔으면 어떤가?"하는 것이다. 陽德은 내가 進擊路를 결정할 때 新溪에서 平壤으로 들어가는 길은 美 제 1 군단에 뺏기고, 地圖를 펴 놓고 研究를 한 결과, 陽德—成川을 경유, 平壤으로 들어가는 進擊路를 택한 것이나, 陽德이라는 곳은 길죽해서 元山에서 들어 오는 길과 谷山에서 들어 오는 길이 邑內에서 교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 7 연대가 陽德 한 모퉁이에 먼저 들어 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문제는 어찌 되었던 成川까지 제 6 사단과 우리 제 8 사단은 같이 진격하여 제 6 사단은 順川 쪽으로 진격하고 우리 사단은 平壤을 向해서 江東 쪽으로 진격하였다.

◇ 제 6 사단장 金 鍾 五 준장

(65년 3월 4일 ·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 대장)

將次 작전을 위해서 고급 사령부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 이야기 하겠다. 38° 線을 돌파해서 華川—金化—新高山을 경유하여, 元山까지 진격했는데, 元山은 먼저 제 1 군단이 탈환하였기 때문에 우리 제 6 사단은 그대로 행군해서 들어 갔다. 元山에 들어가서 平壤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 휘발유나 식량의 보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現地調達로서 充當하는 형편이었는데, 다행히 元山에서 我軍이 노획한 쌀과 휘발유로 補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은 곧 元山을 출발하여 陽德 쪽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길은 좁고 大部隊가 길만 따라서 진격하기 때문에 隘路가 많았으며, 陽德市內 交叉路에서 제 8 사단과 마주쳤는데, 「어느 사단이 西쪽으로 먼저 진격하느냐?」하는 문제가 생겼고, 平壤 탈환의 先頭에 선다는 것이 바로 부대의 공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군단에서는 兩個 사단을 저휘 통솔하는데 있어서 빨리 진격하라고만 재촉할 뿐, 사단간 협조도 이루지 않고, 陽德이 가까와지자 군단에서는 陽德까지 먼저 진격하는 부대에 道路 사용의 優先權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 6 사단과 제 8 사단은 서로 경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戰術上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좁은 길에서 兩個 사단을 통제하지도 않고 그대로 빨리 진격만 하라고 재촉하였기 때문에 앞서 진격하는 연대장 間에 옥신각신 言爭이 벌어졌고, 결국 진격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은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 제 6 사단 제 7 연대장 林富澤 대령

(64년 10월 30일 · 대한빌딩 서울사무실 · 예 · 소장)

우리 제 6 사단은 元山에서 平壤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 7 연대는 차량화된 부대로써 平壤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그런데 陽德까지 진격하였을 때 제 8 사단 제 10 연대와 만났는데, 우리 사단은 元山에서 平元街道를 따라 陽德으로 진격해 왔고, 제 8 사단은 谷山에서 陽德으로 진격해 왔다. 이때 제 6 사단과 8 사단은 서로 어느 사단이 먼저 平壤으로 진격하느냐 하는 문제로 경쟁이 붙었고, 군단에서는 陽德을 먼저 점령하는 부대에게 通路사용의 優先權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제 7 연대가 먼저 陽德으로 진격하여 陽德에 연대 수색중대와 대대 수색대를 배치하고 경계에 임하고 있는데, 제 10 연대가 뒤 따라 들어오면서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을 향해서 사격을 가해왔다. 곧 연대 수색중대장 尹珠泳중위로 하여금 대원을 인솔시켜 3/4 ton 車로 제 10 연대가 있는 곳까지 가서, 이곳은 제 7 연대가 배치되어 있으니 敵으로 誤認하지 말고 사격을 곧 中止하도록 연락을 取하고 돌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尹중위는 제 10 연대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갔는데 제 10 연대장으로부터 매를 맞고 코피가 터져서 울면서 돌아왔다. 제 10 연대는 사격을 멈추지 않고 우리 연대를 앞 질러서 지름길을 따라 徒步로 前進하였다. 차량화된 우리 연대는 앞 서가는 제 10 연대가 길을 가로 막기 때문에 결국 사단장까지 현장에 나와서 수습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로 감정만 격화될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제 10 연대의 徒步부대를 뒤따라 차량으로 전진하였는데 하루에 겨우 40km 정도밖에 前進할 수 없었다.

5. 平壤奪還戰鬪 (50년 10월 18일부터 / 50년 10월 2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2 호
작명부록 제12. 1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 1 군단 장 소장 Frank W. Milburn.

제 1 사단 장 준 장 白 善 燁
제11연대 장 대 령 金 東 斌
제 1 대대 장 소 령 金 沼
제 2 대대 장 중 령 卓 甲 俊
제 3 대대 장 소 령 鄭 永 洪
제12연대 장 중 령 金 點 坤
제 1 대대 장 소 령 韓 順 華
제 2 대대 장 소 령 趙 成 來
제 3 대대 장 소 령 金 基 容
제15연대 장 중 령 趙 在 美
제 1 대대 장 소 령 劉 載 成
제 2 대대 장 소 령 金 振 暐
제 3 대대 장 소 령 安 秉 健

美 제 1 기병사단 장 소장 Hobart R. Gay.
美 제5기병연대장 대령 Marcel B. Cromqez.
제 1 대대 장
제 2 대대 장 중 령 Paul Clifford.
제 3 대대 장

美 제 7 기병연대장 대령 William a. Harris
(10월 17일 임시교대)
대령 James K. Woolnough)

제 1 대대 장 중 령 Peter D. Clainos
제 3 대대 장 중 령 James H. Lynch.

美 제 8 기병연대 장 대 령
Raymond D. Palmer.

사단 포병 사령관 준장 Charles D. Palmer.

제 2 군단 장 소 장 劉 載 興
제 7 사단 장 준 장 申 尙 徹
제 8 연대 장 중 령 金 龍 周
제 1 대대 장 소 령 梁 麟 錫
제 2 대대 장 대 위 高 漢 祚
제 3 대대 장 소 령 朴 寬 榮

배속 부대

(제 1 사단) 포병 제17대대
(제 7 사단) 포병 제18대대 장
중령 朴 延 鎬

(美 제 1 기병사단) 美 제 8 야전공병대대

지원 부대

(제 1 사단) 美 제10고사포단 장 대령
William H. Hennig.

美 제 6 전차대대 장 중령
John S. Growden.

C. D 중대

(美 제 1 기병사단)		美 제 1 기병사단	약15, 000명
美제70전차대대		제 7 사단 제 8 연대	약 3, 000명
美제89전차대대			총약 28, 250명
병력 : 제 1 사단	10, 250명		

敵 軍

제19사단	제 43사단
제27사단	제239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38°線을 突破한 以來, 平壤을 향한 진격경쟁을 벌이고 있던 美 제 1 군단 예하 韓國軍 제 1 사단, 美 제 1 기병사단, 美 제24사단등 각 사단은 10월 17일 현재 平壤外郭地帶를 西南으로 가로 지른 寶頂·馬息嶺山脈의 南端과 城峴山脈등 山岳지대에서 저항하는 敵을 격파하고, 韓國軍 제 1 사단이 栗里일대에 美 제 1 기병사단이 黃州에 각각 진출함으로써 平壤까지 40km 內外로 포위망을 壓縮하였다. 즉 군단 右翼으로서 平壤 東南方으로 진격한 제 1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제12연대(장, 金點出중령)가 祥原 栗里일대에,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가 初貴洞—祥原일대에 진출함으로써 敵의 平壤 最後防禦線을 향한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15연대(장, 趙在美중령)는 助攻으로서 栗里로부터 平壤東北方을 迂廻공격케 되어, 栗里에서 三登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다음, 군단 중앙의 美 제 1 기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과 左翼의 美 제24사단(장, John H. Church 소장)間의 진격경쟁은, 『沙里院에 먼저 진출하는 사단으로 하여금 平壤공격의 先頭에 서도록 한다.』라는 군단장 Milburn 소장의 布告에 따라 우선 沙里院으로의 진출에 집중되었었다. 그런데 기병사단에 배속된 英 제27여단(장, Basil A. Coad 준장)이 17일에 沙里院을 탈환하므로써 美 제24사단은 黃州으로부터 沙里院을 향하였던 진격이 정지되고, 美 제 1 기병사단이 平壤공격에 앞장 서게 되었다. 같은 날 밤, 기병사단의 제 7 기병연대(장, William A. Harris대령)는 瑞興地方으로부터 진격하여 黃州를 탈환하였으니, 이로써 기병사단은 平壤南方 40여km에서 진격을 시두르게 되었다.

이때 中東部에서 元山으로 진격하던 제 2 군단(장, 劉載興소장)예하 각 사단도 平壤을 공격코자 元山方面에서 江東을 향하여 西進하고 있었다. 본래 제 2 군단은 10월 8일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12호에 의하여 元山에서 제 1 군단과 교대하여 美 제10군단으로부터 또는 육군본부 명령으로 교대받을 때까지 元山을 경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修正되어 13일부로 同 作命 제212호 訓令 제 1 호(作命附錄 제11호)로 下達됨으로써 迅速히 前進하여 元山경유, 美 제 1 군단과 合勢하기 위하여 陽德—長林里—江東軸線을 따라 平壤을 향하여 공격전진하게 된 것이다. 17일에는 다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18호 (作命附錄 제16호) 에 의하여 平壤攻擊의 명령이 下達되었으니,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西方으로 공격을 실시하여 最短時日內에 군단사령부를 포함한 주력을 江東西方으로 이동하라.

2. 美 제1군단의 공격과 協力하여 東方 및 東北方으로 부터 平壤을 공격하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과 제8사단(장, 李成佳준장)은 각기 平壤으로 앞서 진격하기 위하여 陽德先制戰을 전개한 다음, 成川—江東부근으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었다.

(註 제6, 제8사단은 전국 平壤奪還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즉 兩師團이 江東부근에 진출하였을 때, 제1사단이 이미 平壤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그 進路를 轉換케 되었던 것이다. 第31章 제3, 4절 참조.)

제7사단(장, 卓高敬준장)은 軍豫備로서 서울로부터 平壤으로 前進하고 있었던 바, 10월 14일부로 제2군단장의 지휘 아래 들어갔다. 계속하여 사단은 伊川—谷山—遂安을 거치 先頭의 제8연대(장, 金龍周중령)로써 要里로 진출 중이었다.

여기에서 全般戰勢를 살피본다면 平壤은 東北側으로부터 前側에 이르는 半圓形안 求心點에서 5개 사단에 달하는 我軍 및 美軍의 포위공격을 받는 형세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후퇴한 시간적 이유를 일으키는 敵의 저항은 제1사단 正面에서 가장 완강하였으니, 그 만큼 제1사단이 平壤에 접근하여 先頭로 돌입할 가능성이 많았고, 또한 退路를 遮斷할 무서운 存在로 보였기 때문이었으리라.

<平壤탈환을 앞두고 작전을 숙의하는 Milburn소장과 白善燁 제1사단장>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我軍이 38°線을 돌파할 무렵에 이미 MacArthur U.N軍 총사령관과 Walker 美 제8군사령관은 승리의 상징이 되는 平壤奪還의 계획을 구상하였다. 즉 美 제1군단에 主攻을 담당시키고 元山에 上陸할 美 제7사단으로 하여금 西進하여 平壤東北方을 공격케 하려는 大戰略構想이었다. 이기에서 主攻의 임무를 부여받은 Milburn 美 제1군단장은 38°線으로부터

의 北進에 있어서 機動力이 좋은 美 제 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中央에서 先頭로 진격케 하고, 제 1 사단은 그 右翼을 진격시켜 平壤에 육박케 하고 있었다.

이때 敵은 滅惡山脈一帶의 外廓防禦線이 돌파되고 붕괴상태에 빠졌으나, 平壤防禦司令部(사령관 소장 崔 仁)를 설치하고, 大同江 南北岸 및 東平壤一帶에 견고한 陣地를 구축한 다음, 완강한 저항을 企圖하고 있었다. 그러나 敵의 저항은 그들의 各 機關이 철수함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얻음과 아울러 敗敵의 후퇴를 엄호하기 위하여 我軍의 前進을 遲滯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美 제 8 군 G--2의 판단은, 敵이 장차의 작전에 대비하여 主力이 淸川江 以北으로 철수하는 동안 各自 上의 방어를 企圖하리라는 것이었다.

또한 地形上으로도 大同江은 敵에게 天然的인 방어선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그 流域인 平壤周邊에 전개된 平野는 劣勢한 火力과 機動力으로 방어전을 계속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미 山岳지대를 돌파한 제 1 사단(장, 白善燁준장)과 美 제 1기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은 각기 전차를 先頭로 樂浪平野의 東端을 관통하여 平壤에 돌입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제 1 사단은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로 하여금 主攻으로서 전차의 엄호하에 大同里를 거쳐 船橋里—大同橋에 이르는 進擊路를 따라 驀進케 하는 한편,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는 그 右側을 협동공격케 하는 동시에, 포병대로 하여금 그 後方 구릉지대에 布陣하면서 同時集中 포격으로 보병의 前進을 지원토록 함으로서 步戰砲의 三者협동으로 平壤에 돌입하는 즉시로 市街에서 敗敵을 모조리 몰아 낼 작정이었다. 그런데 白善燁 사단장은 이와 같은 東南쪽으로 부터의 一面攻擊이 最上의 機動은 못 된다는 견지에서, 제15연대(장, 趙在美중령)를 平壤 北方의 敵後方으로 迂廻攻擊시킬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迂廻시킬 경우, 제15연대가 사단統制下에서 離脫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일대의 敵情도 不明하였기에 迂廻공격의 실시여부에 대하여 몹시 고심하였는데, 결국은 작전참모 文亨泰중령 등과의 論議끝에 이를 단행키로 결정한 다음, 제15연대장 趙在美중령에게 江東쪽으로 迂廻하여 一路 西北으로 진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연대장은 곧 부대를 三登—松街里—三靑里의 大同江支流에 연한 小路를 따라 전진하면서, 연대 작전주임 崔大卿소령과 平壤태생으로 이곳의 地理에 밝은 정보주임 吳潤泳대위에게 徒涉場의 선정을 미리 지시하였다. 이러한 제 1 사단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MacArthur 元帥의 구상과 합치되었으니, 元山上陸예정의 美 제10군단이나 西進 중인 韓國軍 제 2 군단의 역할을 제15연대가 일단겨 單獨으로 遂行케 된 셈이었다.

한편 美 제1기병사단의 사단장 Gay 소장은 10월 17일에 黃州를 점령하므로써 사단 最北方에 진출한 예하 제7기병연대(장, James K. Woolnough 대령)에 平壤을 향하여 黑橋里로 진격을 계속토록 명령함과 아울러 제5기병연대(장, Marcel B. Crombez 대령)를 滅悲山脈南麓의 端興으로 부터 沙里院—黃州街道로 진격시켜 상황변동에 대비하였으니, 이는 제7기병연대의 前進이 무진할 경우에 제5기병연대로 하여금 초월공격토록 하려는 企圖였던것이다.

이에 前進 중인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예하 부대가운데 平壤에 가장 접근한 부대는 제7사단(장, 中尙敬준장)의 제8연대(장, 金龍周중령)로서 肅安부근으로부터 栗里에 진출하고 있었던 바, 연대장은 군단장과 사단장의 격려를 받으면서 平壤東北方을 역사 江東方面으로 迂廻공격할 것을 결심하였다.

(2) 작전 실시

(가) 제1사단

10월 18일 : 사단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正面에서는 완강한 敵의 저항으로 진격이 부진하였으며, 迂廻공격 중의 제15연대는 미약한 敵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迅速하게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즉 主攻인 제12연대(장, 金鍾坤중령)는 제1·제3중대가 엄호하는 美 제6전차대대의 전차群을 先頭로 제2대대(장, 趙成來소령)를 右翼攻擊梯隊로, 제3대대(장, 金基容소령)를 左翼攻擊梯隊로 하여 大同里를 目標로 진격하였는데, 大同里 南쪽 道路左右에 솟아 있는 盤龍山과 觀音山의 旣成陣地에서 저항하는 2개 대대규모의 敵을 一擊에 격파한 다음, 10.00까지는 이미 大同里를 탈환하였으며, 연대는 계속 敗敵을 추격하였던 바, 大同里 北쪽 1km지점에서 다시 1개 연대규모의 敵과 交戰케 되었다. 이때 敵은 大同江支流인 南江으로부터 다시 갈라진 新原江마을 방어선으로 삼아 그 西北岸의

<大同門부근으로 大同江을 나룻배로 渡河하는 제11연대>

능선일대로 부터 6대의 전차와 7분의 곡사포 및 16문의 직사포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4~5線의 重盤配置로서 最後 複郭的인 多線 저항을 企圖하였다. 특히 敵 제1선의 저항은 완강하여 我軍의 치열 無比한 공격에도 뚫리지 않고 있었으며, 我軍의 進擊路에는 많은 敵의 지뢰가 埋設되어 到處에서 폭발하는 戰況이었다. 그리하여 연대는 이 頑强한 敵의 저항을 끝내 突破分斷한 다음, 날이 저문 뒤에야 江邊에 진출하였으니, 大同里로부터 1km정도의 前進에 8시간이나 所要된 셈이었다.

이와 같은 치열한 공방의 反復을 적정한 白善燁사단장은 참모장을 비롯하여 예하 2개연대장과 美 고사포단장, 그리고 전차대대장등과 작전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機動計劃을 논의한 끝에, 계속 步戰砲의 협동작전으로 敵 저항의 根源을 격파키로 하였으며, 한시라도 빨리 平壤에 돌입하기 위하여 이날 밤에 야간공격을 감행키로 결정하였으니, 敵에게 1分의 餘裕를 주는 것은 결국 我軍側에 그 몇배의 損失을 주게 된다는 判斷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연대는 各種 火器로 敵陣에 집중사격을 가함으로써 敵의 저항을 弱化시키고, 이날 밤 늦게는 江을 强行渡河하는 동시에 敵의 제1선 配置를 제압할 수 있었으니, 敵으로서는 가장 精鋭로 自負하던 1개 대대규모의 死守兵力의 損失을 입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날 제11연대는 07.00에 初貴洞里로부터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도중에 전차를 앞세운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가 超越 前進함으로써 사단 예비대가 되어 文山里에서 待命케 되었다. 이에 연대장 金東斌대령은 사단장에게 그의 연대도 다른 연대와 함께 제1선 전투에 참가토록 하여 줄 것을 强力히 요청하였으며, 사단장은 참모장 石主碧대령에게 이를 조절토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제11연대는 東平壤飛行場(美林비행장)을 목표로 진격케 되었으니, 師團內의 각 연대사이에도 平壤에 先陣하려는 參與戰意가 한껏 高潮된 형세였던 것이다.

한편 東北方을 迂廻공격케 된 제15연대(장, 趙在夏중령)는 이미 전날에 栗里로부터 北進을 시작하였거니와, 미약한 일부 敗敵의 저항을 격파하면서 三登에서 松街里 쪽으로 西進하여 新場里일대를 거쳐 三靑洞—廣淸里—勝湖里일대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즉, 제1대대(장, 劉載成소령)는 三登을 거쳐 新場里부근에 진출하였을 즈음, 4대의 敵 전차 엄호하에 저항하는 2개 중대규모의 敵을 공격하여 이를 단숨에 격파한 다음, 전차1대의 엄호를 받으며 敗走하는 敵을 추격하여 廣淸里부근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장, 金振暐소령)는 三登—德山炭鑛—松街里로 진격하여 이날 11.00에 제7중대가 貨泉里

<나이어린 北傀 少年兵士로들>

에 진출함으로서 全 대대가 한곳에 합세한 다음, 저항하는 2개 중대규모의 敵을 격퇴하는 즉시로 이 敗敵을 雲鶴洞西北方 2km부근까지 쉴새없이 추격하였다. 제3대대(장, 安秉健소령)도 三發을 거쳐 西進하였는데, 도중에 일부 敗敵의 저항을 격파하면서 黃浦里부근으로 진출하였다. 또 직할대(장, 石鍾燮소령)는 이날 새벽에 일부 敗敵의 遲延行動이 약간 있었으나 이를 물리치면서 무난히 大同江의 南江 支流를 건넜으며, 貨泉里부근에서 1개 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사격을 받게 되자 곧 이를 격퇴한 다음, 17.00에 勝湖里일대에 진출하여 하룻밤 숙의 물을 떨었다.

한편 白善燁사단장은 이날도 제12연대의 전진대열의 先頭에서 지휘하면서 틈틈이 장병들을 보살피고 격려하였으니, 古都 平壤을 되찾는 장병들의 발걸음은 헤어진 고향에도 아랑곳 없이 피로를 모르는 듯 빨라서, 이제 제15연대는 大同江의 渡河를 남겨 놓았고, 제11·제12연대는 平壤市街에의 돌입을 目前에 두게 되었다.

10월 19일 : 전날에 시작된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의 鐵原江일대 敵 방어선에 대한 공격은 차거운 가을 비를 무릅쓰고 밤새 계속되어 날이 밝기 전에 據點編成의 敵 방어진지를 완전히 奪取함으로써 끝이 났다.

그런데 연대는 어느 부대보다도 완강한 敵의 저항을 받았을 뿐 아니라, 進擊路에도 가장 많은 對人·對戰車 지뢰가 매설되어, 前進 途中 사단참모장 石主岩대령이 탑승한 전차가 지뢰접촉으로 참모장이 다리를 負傷 당한 바도 있기니와, 白善燁사단장은 그들 뿐만이 아니라 보병自身들까지도 지뢰제거에 率先垂範토록 지시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이제 敵의 平壤防禦線은 와해되었으며, 연대는 전차를 先頭로 제1·제2·제3대대의 행군대열이 줄을지

이 平壤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1.000에 郊外에 진출하였을 무렵, 다시 道路左右에서 저항하는 2개 대대규모의敵과 부딪쳤으나 美 제6전차대대 C중대 전차의 활동과 後方각종 포병화력, 지원사격 및 雨天을 무릅쓰고 출격한 항공기의 폭격으로 短時間內에 제2대대(강, 趙成來소령), 제3대대(장, 金基容소령)가 이를 격파하였다. 그 동안에도 연대는 진출을 서둘러 11.00에 제1대대(장, 韓順華소령)로부터 東平壤에 先着으로 돌입한 다음, 각 대대가 船橋里一帶에 진출하여 12.30~12.45까지는 大同橋 南北方의 大同江南岸에 부대를 배치하였으니, 잃었던 古都를 되찾는, 실로 5년만의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시로 엮어 안은 장병들의 눈물은

<平壤 大同門으로 入城하는 제11연대>

아마도 고향에 돌아 온 感激 때문만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것이 眞情 大丈夫의 丈夫다운 一瞬의 感動였을 것이다.

이와 거의 같은 시각에 美 제5기병연대의 先頭部隊도 南平壤에 돌입하였는데, 감격에 젖어 있던 白善燁사단장은 大同橋 남쪽 교차로에서 美 제5기병연대를 따라 온 Milburn 군단장과 Gay 美 제1기병사단장에게 상황을 보고 하였다.

<大同江 渡河를 지휘하는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

이때 제11연대(장, 金英斌대령)는 사단 右翼攻擊協隊로 전진하여, 先發 제3대대(장, 鄭永洪소령)가 12.25에 平壤비행장을 탈환하였다. 즉 제11중대장 金泰健대위는 진격도중에 노획한 敵의 軍馬로 11명의 騎馬隊를 편성하였었는데, 이를 지휘하여 先頭로 10.30~11.00에 비행장에 돌입한 다음, 殘留한 數名의 敵을 射殺, 또는 포로하였으며, 이를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약 1시간반뒤에는 대대主力이 비행장에 진출하였던 것이다. 한편 연대主力은 오후에 東平壤비행장을 占領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단은 東平壤을 모두 탈환하였으며, 敵은 總崩壞되어 진격도중에는 계속 투항하는 포로의 취급에 我軍이 곤란을 느낄 정도였거니와, 부대는 다시 市街地에서 미처 후퇴하지 못한 小數의 殘敵을 擊滅하면서 本平壤진출을 위한 渡河를 준비하여야만 하였다.

한편 제15연대(장, 趙在英중령)는 각 대대가 이날 오전 일찌기 모두 大同江을 건너牡丹峰으로 진격하였으니, 사단장이하 地理를 暗識하고 있는 平壤 태생의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容易하게 徒涉場을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大同橋와 鐵橋의 爆破로 徒涉場을 찾고 있던 美 제5거병연대장 Crombez대령은 정찰기의 보고로 비로소 我軍의 渡河狀況을 알고 白善燁사단장에게 빠른 徒涉場 발견의 곡절을 묻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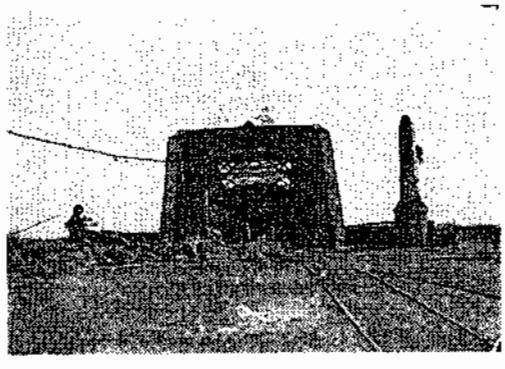
그런데 연대는, 전날 밤 늦게 馬山里에서 大同江의 北江을 건너기 시작한 右翼 제3대대(장, 安秉健소령)가 이날 05.00에 이르러 渡河를 완료하였으며, 제1대대(장, 劉載成소령)가 10.30에 三山洞에서, 세번에 梨加里로 진격한 左翼의 제2대대(장, 金振暎소령)는 08.30에 下水里로 각각 大同江의 北江을 건너 牡丹峰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즉 제3대대는 對岸에서 사격을 가하는 1개 중대규모의 敵에 대하여 1개 중대로써 應射케 하여 渡河를 엄호시키고 主力은 下流로 넘어 對岸에 건너가 敵을 격퇴한 다음, 도중에 저항하는 일부 敗敵을 포로로 잡으면서 北沙里를 지나 東北方으로부터 牡丹峰을 공격하였다. 또 제1대대도 北沙里를 거쳐 14.00에 平壤에 돌입하여 제3대대 右側에서 牡丹峰부근을 공격하였으며, 제2대대는 전날 三鶴洞北 쪽에서

<大同江을 渡河하는 제12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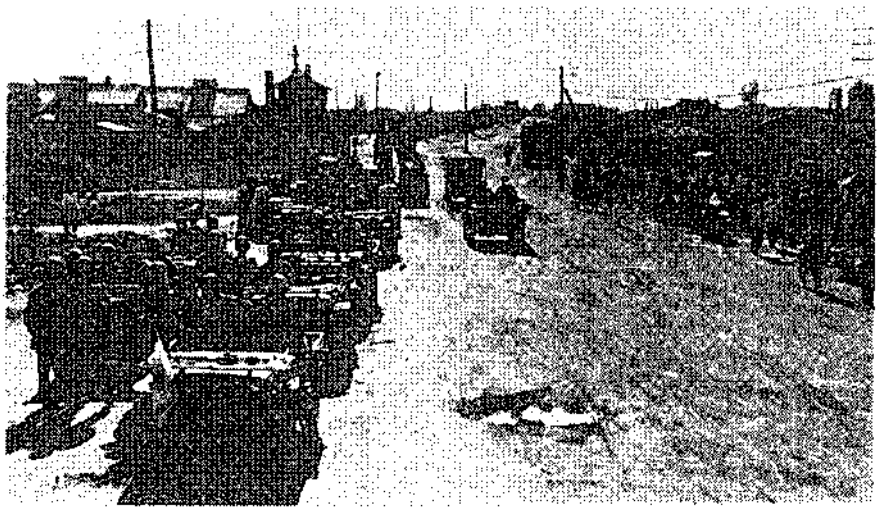
<美林비행장을 점령한 제15연대 장병들의 환희>

敗走한 敵을추격하여 147高地—101高地를 탈취한 다음, 제 6 · 제 7 중대를 진격시켜 제 3 대대의 左側에서 牡丹峰一帶를 공격하였다. 당시 이 一帶에는 연대규모의 敵이 수많은 人工壕와 天然 동굴에 潛伏하여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我軍의 끈질긴 공격에 마침내 戰意를 잃게 되고 15.00까지에는 모두 격파하는 바 되었다.

여기에서 더욱 勇躍하게 된 연대는 즉시 市內를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제 3 대대(장, 安乘健소령)는 먼저 金日成大學 안으로 약진하여 15.30 저항하는 1개 대대의 敵을 마침내 격퇴한 다음, 이곳에 대대관측소를 설치하였으며, 중화기중대가 그 부근에 배치되어 敵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敗敵을 掃蕩하였다. 제 2 대대(장, 金振暎소령)는 제 6 중대를 西쪽으로 迂廻하여 市內에 돌진케 하고 제 7 중대는 大同江기슭을 따라 약진시켜 北傀의 內閣本部를 점령케 하였던 바, 거의 같은 시각에 그곳에 진출한 제11중대와 先後를 가리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제 7 중대가 먼저 太極旗를 그 건물 높이 게양하였으며, 太極旗를 미처 가져오지 못하였던 제11중대는 이에 뒤질세라 北傀의 人民委員會의 안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太極旗를 게양하게 되었으니 장군에 명군격이 되었다. 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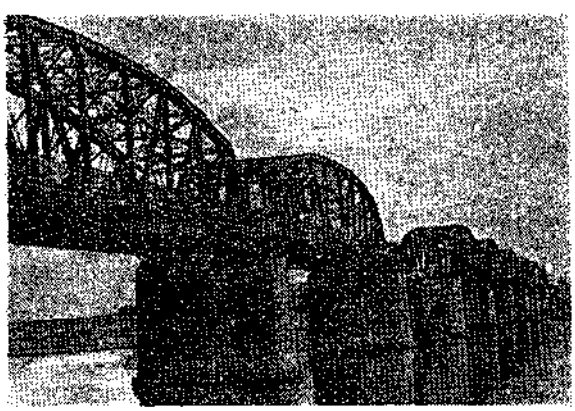
<大同江의 大同橋>



<大同里에서 平壤으로 육박하는 我軍 제1사단>

한뒤 직할대(장, 石鍾燮소령)도 東平壤비행장을 점령한 다음, 大同江을 건너 연대 主力과 合流하였으니, 17.30까지 연대는 平壤市內의 重要建物을 거의 모두 다 掌中에 넣게 되어 敵들도 차츰 멀리 사라지는 것이었다.

我軍의 진격으로 敵은 이미 敗走하였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平壤市民들은 만세를 부르며 일부 良民들은 음식을 마련하여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歡喜의 도가니 속에서 市內로 진출하는 我軍을 환영하였다. 이날 李承晩대통령도 사단에 祝電을 보낸 바 있거니와, 제15연대의 제3대대 본부중대 張永鍾대위는 北傀의 內閣本部에 진출하였다가, 한 사병이 자기 부모를 만나 서로 부등켜 안고 눈물을 뿌리는 劇的인 장면을 목격케 되었으니, 可謂 분단된 조국이 완전히 통일된 듯한 감격의 날이었다.



<敵은 퇴각에 앞서 大同橋를 폭파하였다.>

10월 20일 : 감격의 하루 밤이 샌 이날, 가을 비는 아직도 부슬 부슬 내리고 있었으며, 사단은 제11·제12연대도 本平壤에 돌입하여 일부의 殘敵을 剔抉한 다음, 방어시설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敵의 각기관을 비롯하여 全 市街를 10.00까지는 완전히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7사단 제8연대는 西北方을 平定하였으며, 美軍은 여러가지의 收拾對策

을 白善燁사단장에게 問議하거나 通告한 다음에 비로소 行하였다.

한편 아침에 市廳을 수색하던 제15연대 제9중대의 朴鍾淳소위는 방공호에 수십명의 愛國市民을 가두어 놓고 휘발유로 放火한 虐殺 현장을 발견하였다. 또 한편 平壤商業學校 출신인 同 연대 제11중대의 金錦鳩소위는 피난간 父母의 소식을 듣고 大同江으로 찾아 가 만날 수 있었으니, 민족의 비극과 개인의 요행이 엇갈리는 一幕이었다.

이제 사단은 平壤을 가장 먼저 탈환한 功勞에 따라 여러가지 賞典을 받게 되었거니와 우선 全士兵 특별진급으로 698명의 사병이 1계급 진급하였으며, 각 대대장들도 중령으로, 金點坤중령과 제15연대장 趙在美중령도 이날부로 대령으로 각각 진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白善燁사단장은 Milburn군단장으로부터 美國의 銀星勳章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각 연대본부와 사단사령부는 모두 平壤에 진출하였으며, 軍民의 歡呼聲은 終日終夜 끝일 줄을 몰랐다.

그리고 이날 MacArthur元帥는 美8軍사령관 Walker 중장에게 『韓國軍을 조속히 國境에 到達케 하라.』고 명령하였으며, 美 제187공수연대는 敵의 퇴로차단과 美軍포로救出을 목적으로 平壤 東北方 37km의 順川에 降下하였다.

(나) 美 제1기병사단

10월 18일 : 美 제1기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은 가장 北方에 진출해 있는 제7기병연대(장, 代理 James K. Woolnough 대령)를 先頭로 平壤을 향하여 前進을 계속하였다. 제3대대(장James H. Lynch 중령)는 전날 밤 黃州까지의 장거리를 전진하였기 때문에 피로하였으나, 攻擊梯隊로서 앞장 섰는데, 장병들은 육체적으로는 피로한 데 反하여 마음은 가볍고 士氣도 높았으니, 즉 그들은 『平壤은 전쟁의 최종목표이며, 이를 점령한 다음에 美軍은 韓國을 떠날 것이다.』라는 風聞을 듣고 秋收感謝節의 만찬은 日本에서 먹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대대는 이날 낮에 黃州를 지나 전진을 시작하였는데, 平壤—黃州의 國道를 따라 10여 km를 前進하는 동안은 敵의 저항도 경미하였다. 先頭부대가 黑橋里 남쪽高地에 접근하였을 무렵, 대대는 高地의 敵으로부터 多發銃과 120mm 박격포의 사격을 받았는데, 연대 작전참모 James B. Webel 대위의 판단에 의하면 약 800명의 증강된 대대가 방어진지에서 저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美 제70전차대대의 C중대가 20대의 전차로 대대의 공격을 지원하였으나, 敵도 3~4대의 T-34 전차로 應射하였으며, 前方에는많은 지뢰가 깔려 있어 美軍의 공격은 진첩되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敵의 小銃사격으로 지원 중인 1대의 F-51전투기

가 격추 당하기도 하였다.

군단장 Milburn 소장은 道路연변의 사과밭에서 상황을 주시하였으며, Gay 사단장도 오후에는 그곳에 함께 있었다. 공격 상황에 불만족한 사단장은 Harris 대령과 임시 교대한 Woolnough 연대장에게 다른 2개 대대로서 능선을 타고 敵의 側面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Wehel대위는 敵의 저항이 遲延作戰의 一部임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 차리고, 사단장에게 高地는 이미 점령한 것이나 다름 없으니, 2개 대대의 투입이 不必要하다는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미 공격이 시작되었으며, 2개 대대는 벌써 敵의 側面으로 迂廻, 접근하고 있었다. 한편 2개 대대의 투입을 명령한 다음, Gay사단장은 Woolnough연대장에게 다음날 아침에는 제5기병연대(장, Marcel B, Crombez대령)가 제7기병연대를 초월하여 平壤을 공격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 그리고 黑橋里로부터 되돌아 나온 사단장은 제5기병연대장 Crombez대령을 만나 이 초월공격을 명령하였다. 이때 제5기병연대는 제7기병연대의 뒤를 따라 瑞興에서 黃州로 가는 山岳지대의 間細道路를 헤치면서 平壤高指의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10월 19일 : 전날 밤부터 黑橋里 남쪽 高地의 敵을 공격하던 美 제7기병연대의 2개 대대가 이날 아침에 敵의 側面에 접근 하였는데 敵은 이미 후퇴한 다음이었다.

한편 美 제5기병연대(장, Marcel B, Crombez 대령)는 제2대대(장, Paul Clifford 중령)를 先頭로 05.00에 黃州北方에 진출하였는데, 이들이 黑橋里의 제7기병연대 지역에 도달하였을 때, 제7기병연대는 敵을 바로 격퇴한 직후이었다. 이곳에서 Clifford 대대의 한 로켓트 砲組는 前方으로 부터 나타난 3대의 敵 전차를 격파하였다.

Crombez 연대장은 James H. Bell 중위가 지휘하는 F중대에 5대의 전차와 1개 소대의 공병 1개조의 重機關銃을 증강시켜 先頭에서 진격케 하였으며, 자신도 그 뒤에서 이를 격려하였다. F중대는 저항하는 소수의 敵을 격파하면서 前進을 계속하였고, 제트전투기는 上空에서 이를 엄호하였다. 20m 幅의 戊辰川에 중대가 진출하였을 때, 敵은 對岸 뚝 밑에서 3문의 대전차포로 저항하였으나, 중대는 약 30분간의 박격포 공격으로 이를 격퇴한 다음, 戊辰川을 건너 11.02에는 平壤 西南端에 돌입하였다.

Bell 중위는 大同江의 北쪽 堤防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반시간 안에 그는 江 西쪽의 堤防에 진출하였으나, 2개의 철교는 이미 파괴되어 있었다. F중대는 羊角島로 건너 갈 것을 결정한 Bell 중위의 지시로 섬에 건너 갔으나, 오후에 제3대대와 교대하였다.

한편 제 2 대대의 다른 중대들은 戊辰川을 건너 大同橋로 진출하였는데, E 및 G 중대의 先頭가 다리근처에 도달하였을 때 天地를 振動하는 轟聲으로 눈 앞에서 폭파되고 말았다.

이때 韓國軍 제 1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이미 大同橋 東北쪽에 진출하여 徒涉場을 찾고 있었다.

平壤 先頭入城을 제 1 사단에 빼앗긴 美軍은 徒步로 진격한 韓國軍의 신속한 前進에는 다만 長嘆息만을 하였을 것이며, 美 제 8 군의 특별부대인 Indian Head 支隊를 本平壤에 진입시키는 데도 제 1 사단장의 양해를 구하여야만 되었다.

10월 20일 : 이미 平壤이 완전히 탈환된 다음인 이날, 美 제 5 기병연대는 늦게 輸送된 M-2보우트로 大同江을 渡河하기 시작하여 午前 중에 完了하였으며, 사단장 Gay 소장은 鎭南浦쪽 16km에 있는 北傀軍 군관학교에 사단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美 제 8 군은 美 제 1 기병사단으로 하여금 平壤경비를 담당케 하였으며, 전투부대는 되도록 市內에 駐屯치 않도록 하였다.

수일 전에 美 제38연대 K 중대와 美 제72中戰車大隊 C 중대의 전차 6 대, 그리고 공병, 고사포 각 1 개 소대 및 정보수집대로 편성된 Indian Head 支隊(장, Ralph L. Foster 중령)는, 이날 부여받은 목표를 거의 다 점령한 다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있는, 많은 정보자료를 획득하여 東京으로 後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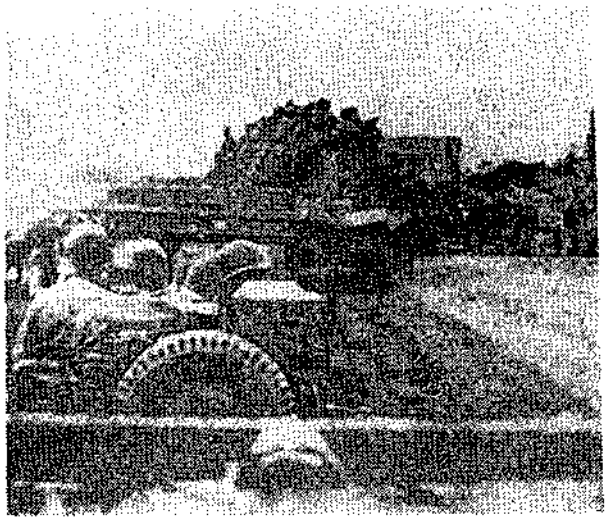
다. 제 7 사단

10월 18일 : 당시 우리 국군이나 UN軍을 莫論하고 모두들 "어느 부대가 또는 누가 가장 먼저 平壤에 入城하여 점령하느냐?"하는데 神經을 쏟고 있었으며, 제각기 먼저 入城하려고 角逐戰을 벌이고 있었다. 때마침 李承晩 대통령은 美 제 1 기병사단이 平壤으로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平壤 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군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强調하였으며, 이 말을 들은 육군참모총장 丁一權소장은 자신이 직접 제 2 군단 사령부(谷山)까지 나와서 군단장 劉載興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리하여 劉載興소장은 즉각 제 7 사단 사령부(丁峰里)를 찾아 사단장 白尙燁준장을 대동하고 黑里까지 가서 제 8 연대장 金龍周중령을 만나자 平壤을 가장 먼저 점령하라는 作命을 手交하였다. 연대장은 이날 밤으로 제 8 연대의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로 하여금 出戰하도록 命하였고, 제 2 대대는 예비대로

<平壤으로 前進하는 제 1 사단의 차량화 부대>

남겨 두었다. 栗里를 떠난 2개 대대는 21.00에는 三登에 도착하여 四周방어를 시킨다음, 학교 校舍에서 大休息하기로 하고 다음날 다시 진격하기로 하였다.

10월 19일 : 이날 아침 일찍 제 1 대대(장, 梁麟錫소령)와 제 3 대대(장, 朴寬榮소령)는 梁麟錫소령의 지휘 아래 三登을 출발, 一路 平壤으로 향하였다. 徒步행군으로 進軍하였으나 워낙 士氣가 衝天되어 있었기에 속도는 매우 빨랐다. 장비는 대대장용 찝車 1대와 81mm 박격포 4문 뿐이었다. 그런데 국군이 진격하게 되자 가는 곳 마다 太極旗를 흔들며 모두들 거리에 나와 서서 환영하여 주었다. 市民들의 말에 의하면 大同江에 걸려 있는 다리는 모두 파괴되었고, 徒涉으로 건널 수 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근 지형을 잘 아는 民間人을 안내자로 앞 세우고 부대는 그뒤를 따랐다. 한시 바삐 平壤을 점령하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름길을 택하여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路幅이 좁은 小路로 가게 되었다. 행군 도중 때때로 사단장과 연대장이 찝車를 타고 나타나서 앞서기도 하고, 혹은 뒤를 따라 오기도 하면서 길도 일러 주고, 격려도 해 주었다. 또한 마침 중대장 李在徹대위가 平壤 부근 지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勝湖里를 지나 지름길로 三山洞에 이르러 여기서 大同江을 건너게 되었는데, 對岸 東北 쪽에 있는 雲住里와 海堂洞의 얕은 高地에서 총격을 받게 되었다. 대대장 梁麟錫소령은 즉시 展開하도록 命하고 敵의 상황을 파악한 뒤 應射토록 하였다. 대대장命에 의하여 이쪽에서도 敵 방향에 대하



<敵의 바리케이트를 격파하고 入城하는 제1사단>

여 應射하였으며, 상황은 별로 크게 확대되지 않았고, 敵은 모두 北쪽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불과 몇분 뒤 사격이 멎었는데 손실은 전혀 없었다. 13.00 大隊員들은 옷을 입은채로 총은 머리 위로 들고 가슴까지 차는 江물을 건넜다. 敵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으며, 대대는 무난히 江을 건넜는데, 渡江할 때에도 손실은 전혀 없었다. 江을 건넌 다음, 北西쪽의 개활지를 통과하여 平壤에서 鳳山으로 가는 道路를 魯山里에서 차단하였다. 얼마 뒤 연대장 金龍周중령에게서 無電연락이 왔다. 『魯山里에서 오래 지체하지 말고 平壤으로 突入하라.』는 것이었다. 대대는 즉시 魯山里를 출발, 西平壤을 향하여 전격, 이날 17.00에는 당시 北傀軍 사령부가 사용하고 있던 金日成대학을 점령한 다음, 계속 牡丹峰까지 점령하였다. 牡丹峰에는 많은 자동차가 많이 있었으며, 자동차는 모터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연대장에게서 또 無電연락이 왔는데, 그 內容인즉 內閣本部廳舍放送局 등 기타 주요건물을 속히 점령하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번에는 주요건물들을 점령하러 나갔으며, 內閣本部廳舍로 달려 가 보니, 이미 이를 軍군 제1사단이 점령하였으며, 放送局만은 제8연대의 제1대대가 점령하였다.

10월 20일 : 이날 아침 10.00平壤의 거리는 평온을 되 찾았고, 주요건물인 內閣本部廳舍를 비롯하여 市廳, 道廳, 그리고 人民委員會 등은 제1사단에 의하여 완전히 점령되었다. 11.00경에는 제8연대장 金龍周중령이 西平壤市內에 들어 가서 和信 3층에 본부를 설치하였다. 12.00에는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이 怒한 얼굴로 제8연대 C.P.인 和信 3층에 나타나서 "戰爭 紊亂罪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고 고함을 치며 따져 問責하는 것이었다. 연대장은 "대단히 罪悚합니다만은 實은 군단장과 사단장의 命에 의하여 이곳에 왔읍니다."라고 변명하였으나, 白준장은 노여움을 풀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14.00에는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이 사단장 申尙澈준장과 함께 平壤에 들어 와 牡丹峰에서 노획한 말을 타고 平壤市의 中心街를 한 바퀴 巡視한 다음, 군단 지휘소로 돌아갔다.

梁麟錫소령이 지휘하는 제8연대의 제1대대는 金日成大學 本館에 지휘소를 정하고 있었고, 제3연대와 제5연대는 10시간 뒤에 大成山의 金日成大學을 거쳐 西平壤으로 入城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平壤을 目標로 경쟁을 벌이던 韓·美 각 사단은 東平壤에 韓國軍 제1사단의 제12연대, 제11연대와 美 제1기병사단의 제5 기병연대가, 西平壤에 제1사단의 제15연대와 韓國軍 제7사단의 제8연대가 각각 앞을 다투어 돌입하고 제1사단이 대부분의 要所를 점령함으로써 古都 平壤은 탈환되었다.

敵은 內市 곳곳에 砂囊과 鐵條網등 각종 공작물로 陣地를 구축해 놓고 저항을 企圖하였으나, 이以上이 所謂 義勇軍과 高齡者들로 편성되고, 士氣가 극도로 저하되어 集團的으로 투항하는 형편이었으며, 설지어 각종 火器에 실탄을 장전한 채로 버려 두고 逃走하는 등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이제 UN軍司令部는 平壤에 軍政을 實施할 준비를 하였으며, 21일에 MacArthur元帥는 平壤비행장에 飛來하여 美軍 중 第一着을 한 제5기병연대의 F중대등 美軍을 사열하였다.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 소장)은 新義州--永柳맵 地域으로 계속 北進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1사단(장, 白善燁준장)은 永柳맵을 목표로, 美 제24사단(장, ohn. H. church 소장)은 宣川으로 진격케 되었다. 그리고 새로 군단에 편입된 제7사단(장, 申尙澈준장)은 예비대로, 美 제1기병사단(장, Hobart R. Gay 소장)은 平壤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李대통령을 환영하는 平壤市民들>

한편 韓國軍 제 1 사단은 대통령의 표창을 받게 되었으며, 平壤入城式도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분단되었던 國土의 통일이 이루어 지고 전쟁은 막바지에 이른듯한 승리임이 온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다.

전 과		손 실	
사 살	3,695명	전 사	28명
포 로	2,048명	전 상	70명(제 1 사단분)

§ 戰 訓

赤都平壤은 政治, 經濟, 文化, 軍事의 중심지인데, 이곳을 우리 韓國軍이 빈약한 機動裝備와 軍服, 彈藥 등으로 능히 勇躍先陣하였다는 史實은 後世까지 길이 빛날 것이오, 우리 국군이 勇將之下에 渾然一體가 된다면 當代無比의 위대한 戰力을 능히 발휘할 수 있다는 산 敎訓을 남겨주는 것이다.

偕達의 靑年들아! 自負心을 가지라.

§ 硏 究

◇ 作戰계획의 일치

平壤탈환 작전을 위한 제 1 사단의 계획은 平壤出身인 사단장 자신이 이 古都에 얽힌 歷史와 地理를 想起하므로써 구상케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더욱 MacArthur 元帥의 구상은 1894년 9월 淸日戰爭 당시의 작전과 일치하니, 仁川에 上陸한 日本軍은 서울로부터 제 5 사단 主力과 大島旅團이 開城—沙里院—平壤으로, 제10여단은 立見敞(Tatemi, Naobumi) 소장의 別動支隊가 新溪—平壤으로 진격하였으며, 元山에 上陸한 佐藤(Sato) 대좌의 元山支隊는 西進하여 平壤 東北方으로부터 淸國軍을 공격하였던 것이다.

時代와 人物이 다르고 武器進化의 差가 있었어도 戰略運用의 要諦는 마찬가지임을 알려주니, 戰史 연구에서 얻어지는 敎訓의 一例라 하겠다.

◇ 中共軍跳梁의 未然방지

MacArthur 元帥가 仁川에 上陸한 美 제10군단을 그대로 平壤을 향하여 北上 實施시키지 않고, 또 다시 仁川에서 乘船시킨 다음, 元山으로 回航시킨 作戰은 東海岸에서 平元線을 따라 西北進하던가, 또는 咸鏡線을 따라 東北進하기 위한 戰略的配慮이고, 항상 最惡의 경우에 대비하려는 兵家의 원칙으로 보아 一面 首肯이 가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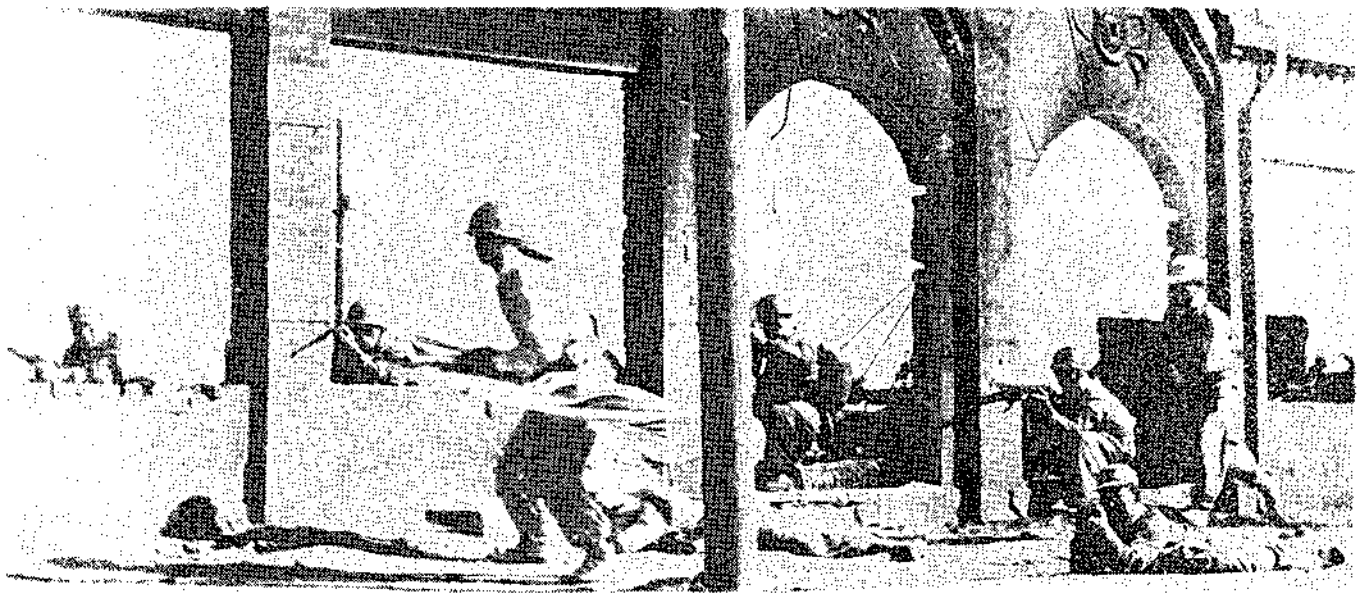
그러나 東海岸을 따라 北進하는 韓國軍의 威勢를 조성케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海軍艦艇으로서 海上에서 직접 지원케 하는데 그치고, 美 제 8 군사령관 지휘하에 美 제10군단을 統合 지휘케 하여 一路 平壤을 치고 鴨綠江에 進出하여 水豊의 自然防禦線과 鴨綠江의 天然障碍物을 先占 利用하였다면 中共軍의 跳梁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었을 것이다. 玉에도 티가 있는 법이니, 名將 MacArthur元帥를 위하여 아까운 일이라 하겠다.

§ 參戰者의 證言

◇ 제 1 사단장 白善燁준장

(1971. 3. 10.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예 대장)

38°線으로 진격 중에 淸州에서 군단의 연락을 받고 大田의 군단사령부를 방문하여 平壤進擊에 대한 작전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開城으로부터의 主攻은 美 제 1 기병사단이 담당하고



<平壤市街戰>

高波浦正面에서는 美 제24사단이 진격케 되었으며, 우리 사단은 道路使用優先順의 順位가 세번째로 海州를 공격하게 되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나는 Milburn군단장을 도청현관으로 찾아가 만났다. 말없이 맞이해 주는 그에게 懇請이 있다고 말을 하였다. 오늘 사실 作命을 받았는데 우리 사단이 海州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 戰爭은 韓國戰爭인데 赤都奪還作戰에 韓國軍 사단이 참가하지 못한다면 역사적 意義도 없고 語不成說임을 力說하였다. 그랬더니 Milburn소장은 우리 사단의 車輛이 얼마나 되는가를 묻고, 한 50대 있다는 나의 대답에, 美軍사단은 1,000여대이니, MacArthur元帥는 빠른 시일에 공격하라고 그러는데 韓國軍이 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태도였다. 그래서 다시 내가 그쪽 胎生이므로 平壤一帶의 지형을 잘 알 뿐 아니라, 지금 韓國軍은 士氣가 충천하므로 山岳이 많은 이 지대를 주야로 행군한다면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직도 의심스런운 눈치였으나, 재속 力說하고 懇請하여 결국은 한번 해보라는 그의 승낙을 받고 美 제24사단과 담당지역을 바꾸는 變更된 作命을 수령한 다음, 사단에 돌아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드디어 平壤攻擊에 나서게 되었다. 平壤에 육박하면서는 3개 연대가 모두 大同江 以南에서 一面으로만 공격할 것인가, 東北方으로 가서 牡丹峰 뒤로도 공격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로 작전참모였던 文亨泰중령과 함께 상당히 苦心하였다. 당시 한 사단장으로서 전반 상황을 알 수는 없었고, 하나의 전술문제로서 학생때 배운 淸日戰爭에 대한 지식도 있어 日軍의 進擊路를 알기 때문에, 迂廻하는 공격축선에 대한 자신은 있으나, 실제 정찰을 한 바는 아니니, 만약에 1개 연대를 놓아서 迂廻시켰다가 잃어버리면 곤란한 문제였던 것이다. 결국 東里에서 迂廻공격을 단행키로 결정하여 제15연대장 趙在英중령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祥原一大同里로 공격해 들어갔는데, 平壤 들어 가기 전날 저녁에 공격이 멈추게 되었다. 그날 밤에 사단사령부에

서 2개 연대장, 전차대대장 포병단장을 모아 회의를 했는데, 제12연대장의 보병계획부터 내일의 機動계획을 설명케 하였다. 결론은 여하튼 頑强한 것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밤새 고전을 하여 새벽녘에 그 일대를 완전히 개발한 다음, 전차로 一瀉千里로 진격하였다. 이때부터 美 기병사단의 진격속도를 맞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제11연대와 제12연대의 부서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여태까지 美軍 전차와 협동작전을 잘 이룩해 온 12연대에 그대로 美軍 전차와 협동하여 앞서 진격케 하면 金點坤중령에게는 좋지만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에게는 입장이 곤란하게 될 형편인데, 美軍은 자기들과 잘 협동해 온 12연대와 계속 같이 진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참모장에게 이를 조절토록 하였던 바 제11연대는 비행장을 목표로 주이 타결되었다. 그리하여 平壤에 돌입하는데 敵은 市街에 土嚢을 쌓고 저항하기도 하였으며, 변두리에는 지뢰를 많이 埋設하여 참모장 石主岩대령이 다리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때 美 기병사단의 전차도 올라오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는 일기에 大同江다리로 갔는데, 도중에 다리가 폭파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를 지원하던 美 제6전차대대 C중대의 전차는 美 기병사단 전차가 진두지경선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우리는 大同江을 바라보니 감격에 차 있었다.

나는 다시 포병부대에 이 古都의 名勝古蹟만은 포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美 기병사단장과 함께 들어온 Milburn군단장에게 보고를 한 다음, 今後의 임무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는데, 牡丹峰에 제15연대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8연대도 왔다고 하여 왜 他戰闘區域에 들어왔는가를 물은 일도 있었다. 그리고 美 제5기병연대장 Crombez대령이 渡渉場을 나에게 問議하였는데, 그때 이미 우리 부대에게 徒渉場을 알려서 우리가 먼저 江을 건넜다. 그 다음부터 美軍은 기병사단의 비행장사용이라던가, 정보수집대의 渡河등 모든 조치에 우리의 同意를 구하였으나, 平壤에 軍政을 펴서 우리의 行政을 不許하였다. 뒤에 入城式 때 李承晩대통령도 국군의 용감성을 칭찬하고 보급상태를 묻는 가운데 우리 行政要員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었다.

◇ 제1사단 참모장 石主岩대령

(1967. 2. 11 서울 鍾路에서 예 소장)

우리는 日淸戰爭때 日軍이 平壤공격한 進路를 생각하여 제15연대를 迂廻시켰다. 正面에서는 白善燁준장이 美軍과 협조를 잘 하여 전차중대를 받아 기동력을 이용하여 제12연대를 앞세워 진격했다. 그것은 제11연대가 막혀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12연대가 막히 11연대를 앞세우기도 하며 나갔다. 鮮原 지나서 작전회의를 했는데, 美 기병사단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야간공격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착을 했는데 11연대는 비행장을, 15연대는 平壤 중심가를 먼저 차지하였다.

◇ 제12연대장 金點坤중령

(1969. 9. 17 서울 自宅에서, 예 소장)

당시 美軍전차를 받아 가지고 들어 갔는데, 군단목표가 船橋里로서 하루 밤 지향을 받았다. 우리 연대의 韓順華대대를 전차에 태워 30mile의 속도로 달려 들어갔다. 11시전에 10.45쯤 점령했는데 美軍이 오전 중에 고무보우트로 넘어 가는 것을 보았다.

◇ 제15연대 중대장 金國柱대위

(1966. 3. 28 육군본부에서, 준장)

우리 연대는 迂廻하여 牡丹峰 東北쪽으로 공격토록 계획되어 大同江 上流를 渡河해서 들어갔다 치열한 전투는 없었고, 주민들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자기네 자식들이 敵에게 끌려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환영을 했는데, 맨 처음 牡丹峰에 올라가 포로를 수백명 잡았다. 대부분이 30歲 이상이었고, 武器는 新品들이었으나, 戰意를 喪失한 상태였다.

다음에 裵소위 소대와 宋중위 소대를 각각 敵의 내각본부와 인민위원회건물로 내려 보내서 점령하여 태극기를 달도록 했는데, 대대장간에 말썽이 생기기도 하였다. 牡丹峰에서는 夜間에 美 기빙사단의 誤砲擊을 받아 동굴 속에 숨기도 하였는데, 우리가 들어간 다음, 지역에 다른 부대로 들어 왔다.

◇ 제11연대 제11중대장 金奉權

(1665. 11. 9 合參에서, 대령)

나는 北進할 때, 敵의 맛을 노획한 것으로 우리 중대에서 훈련을 시켜 騎馬隊 11명을 편성해서 들이 갔는데, 10. 30쯤에 平壤 西部비행장을 먼저 점령하였다. 비행장에는 약간의 敵이 남아서 저항을 하였으나, 우리가 기관단총을 亂射하면서 돌입하여 발을 격납고에 넣은 다음, 수색을 하여 1명을 포로하고, 1명은 수류탄으로 폭살시켰는데, 나머지는 逃走하고 있었다. 無線으로 鄭永洪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더니, 잘 지키라 하여 1시간 30분쯤 있다가 대대主力이 들어왔다. 平壤市內에 들어 가면서는 道路에서도 敵이 학살한 것을 많이 보았다.

◇ 제12연대 제8중대장 鄭元赫

(1967. 5. 26 육군본부에서, 대령)

38°線을 돌파하여 들어갈 때는 우리 연대가 예비로 있었는데, 東平壤들어 갈 때는 우리가 제11연대를 超越하여 공격해서 오전 중에 가장 먼저 들이갔다. 市街戰을 좀 하였는데, 同胞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하였다. 제15연대는 右側으로 우회해서 本平壤에 먼저 들이갔다.

◇ 제15연대 S—2 吳潤泳대위

(1966. 5. 17 육군본부에서, 대령)

平壤들어 갈 때에는 우리 15연대가 白善燁준장의 결심에 따라 회생적으로 사단 主力과 따로 떨어져 작전을 했다. 심거리에서 작전회의가 있었는데 연대장 趙在夏중령, 연대 S—3 崔大明중령과 같이 참석하였더니, 같은 平壤출신인 白준장이 나에게 "전에 대성산 앞의 大同江을 北江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놀아 보았는가? 地圖上으로 보면 江이 상당히 깊지만 실제는 얕지 않던가?"를 물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배에 올라 온 정도였고, 빨짝의 배도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하였더니, 白준장이 연대장에게 旣대위가 다 證言했으니 平壤을 側方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연대장은 다시 나에게 "자신 있느냐?"고 다진 다음, 진격을 하였는데 도중에 수색대와 함께 앞서 가서 江에 대해 민간인에게 확인을 하고 연대장에게 보고를 하여 渡河를 하였다. 그리하여 도청을 목표로 牡丹峰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에 공격해 들어갔다. 그때 우리를 지원하던 美 고사포대의 연락장교와 同行을 하여 사단과 연락이 되므로 本 平壤점령을 보고했으며, 美軍의 誤擊으로 희생자도 생겼는데 뒤에 연락이 되어 보직을 넘준 일도 있었다.

◇ 제1사단 수색중대 소대장 安良淳

(1965. 4. 27 제11연대장실에서, 중령)

우리 수색대는 大邱 東村에서 편성되어 항상 先頭에 가는데, 나는 1소대장으로 平壤에 들이 갔다. 祥原에서는 11연대 수색대와 같이 나간 일이 있는데, 보고가 서로 錯誤가 생겨서 대원 가운데 2명이 희생 당한 일도 있었다. 여하간에 밤낮으로 진격하여 東平壤에 도달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도착하였다고 군단에 보고를 했는데, 군

단장과 美 기병사단장까지 다 와서 우리 사단이 먼저 왔다는 것을 確定하였다.

◇ 제15연대 제11중대 소대장 金鎬昀

(1965. 12. 8 국방대학원에서, 대령)

우리가 平壤에 돌입할 때는 서로가 경쟁심을 갖고 앞을 다투었으며, 따라서 休息이 없이 걸으면서 자고, 걸으면서 주먹밥을 먹고 하여 빨리 들어갔다. 도중에 저항도 있었으나 敵도 혼란되어 트럭에 발동을 걸어 놓은 채로 逃走했으며, 地雷 등 민간인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10월 19일에 大同江을 渡河하여 牡丹峰으로 나가 金日成大學앞 一乙密臺一박물관으로 해서 14.00경에 敵의 所謂 대각사부치를 점령하였다. 駐屯기간이 짧아서 서류같은 것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가족은 大院嶺이 피난 갔었는데, 연락을 받고 찾아 가 만났다.

◇ 제15연대 제9중대 朴鍾淳소위

(1966. 3. 22 육군본부에서, 중령)

당시 소대장으로 平壤공격에 참가하였는데, 먼저 들어갔느냐는 경쟁이 치열하였다. 우리는 牡丹峰 後面으로 공격하였는데, 敵은 陣地構築도 다되고 對空火器도 배치해 놓았다. 牡丹峰을 점령한 다음, 金日成초상을 소화한 권총으로 쏘면서 내려 갔는데, 所謂 中央인민위원회에 태극기 꽂을 것을 잊어 버려, 중대장이 平壤출신인 11중대가 조금 앞섰다. 그래서 우리는 市 인민위원회로 갔는데, 要所마다 敵이 陣地를 구축하였으나, 우리는 士氣가 높아 도중에 처치곤란할 정도로 포로를 잡았으며, 저녁때 인민위원회에 도달하여 태극기를 꽂았다. 다음날 아침에 市廳을 수색하였는데, 방공호에 애국청년들을 불질러 학살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 전에 밤중에는 8연대인지 友軍이 접근을 하여 誤認할 뻔도 했으나, 서로 확인이 된 일도 있었다.

◇ 제11연대 분대원 金元洙

(1965. 4. 27 제118인대장실에서, 소령)

사단에서 먼저 平壤을 점령하는 부대에는 상금을 준다고 했으며, 우리는 士氣가 올라가 60里 밤에서 水冷式 기관총을 그대로 메기도 하고 뛰는데, 청년들이 山에 숨었다가 태극기를 흔들고 나와서 손잡고 같이 뛰기도 하면서 平壤까지 一路千里로 달렸다. 平壤에 들어가기 직전 한 내(川)에 敵을 파고 200여명을 총살한 것을 발견했는데 시울에서 데려와서 형무소에 가두었다가 죽였다고 했다. 平壤 市內에서 밤에는 좀 혼란되기도했고, 우리 쪽의 희생은 敵의 지뢰에 많이 당했다. 그리고 敵은 敵을 어떻게 잘 했는지, 우리는 制空權을 확보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었지만 매울만한 점이라 생각했다.

◇ 제12연대 제1중대 崔魯洙이등중사

(1966. 2. 29 MIG에서, 대위)

北進당시 1소대 분대장이었는데, 진차와 같이 떨고 올라갔다. 敵은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그냥 逃走하고, 도중에 韓國銀行券을 가득 실은 자동차를 노획하기도 하며 平壤으로 들어갔다. 士氣가 충천해서 진차를 20여대나 몰고 가는데, 무수한 포로를 잡았다. 大同江 쪽에 배치되자 태극기를 머리에 두른 청년들이 수십명씩 나타나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烏合之卒인 敵 포로들을 정리하고 大韓青年團 비길 당원이라면서 證明證을 내보인 다음, 그들이 治安維持에 노력하였다.

사단장 白준장은 진격 중에도 계속 조심하라고 주의하며 같이 왔는데, 平壤에 들어가서 좀 있으니까 4대의 찝車에 백주를 싣고 와 권한 일도 있었다. 어하간 우리 연대가 들어가서 10분 쯤 있으니까 牡丹峰에 我軍이 나타났으며, 뒤에 우리는 江을 건너 갔는데 市內는 조용하였다. 平壤에서

는 3日 쯤 쉬었다가 다시 北進하였다.

◇ 제11연대 제7중대 소대장 金鍾斌상사

(1965. 8. 10 제61연대에서, 소령)

北進時에 1소대장으로 올라갔는데, 차를 타기도 하였으나 휘자라는데 까지는 뛰었다. 중간에 포로가 무더기로 나왔고, 아주 큰 전투는 없었는데 大同江은 다리가 폭파되어 陸路와 부분적으로 뱃목으로 넘어 가기도 하였다.

◇ 美 제7기병연대 통역관 林 浩

(1966. 4. 7 육군본부에서, 소령)

北進할 때, 美軍士兵들 가운데는 무엇때문에 여기 와서 싸우느냐고 不平하는 者도 있었는 데, 지휘관들은 이 싸움은 韓國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의 방위는 곧 美國의 방위이기 때문이라고 훈시를 하였다. 平壤에 들어가 보니 韓國軍이 먼저 들어갔다.

◇ 제7사단 제8연대 제1대대장 梁麟錫소령

(1971. 9. 27 육군본부, 소장)

18일 저녁때 우리 제1대대와 제3대대는 渠里를 떠나 21.00에 三登에 도착, 四周방어를 시키고 學校에서 宿營하였어요.

다음날(19日) 새벽에는 三登을 떠나 平壤으로 향하여 행군하였어요. 도보 행군이었는데, 워낙 士氣가 衝天해 있었기 때문에 행군속도는 매우 빨랐지요. 車라고는 大隊長用 찝차 1대 뿐이었고, 장비라고는 81mm 박격포 4문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격하자 가는 곳마다 어디서 났는지 太極旗를 흔들며 모두들 나와서 환영해 주었어요. 그들 민간인들 말에 의하면 大同江에 걸려 있던 다리는 다 끊어졌고, 걸어서 건널 수 밖에는 별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을 앞 세우고 따라갔지요. 한시 바삐 가야겠고, 지름길을 택하다 보니, 좀다라한 小路로 가게 되었어요. 마침 以北출신인 화기중대장 李在徽대위가 이 부근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勝湖里를 지나서 삼산동으로 갔어요. 이기서 大同江을 건너게 되었는데, 對岸東北쪽 양쪽 高地에서 총탄이 빗발 날아왔어요. 즉시 전개시키고 상황을 보니, 별로 크게 저항해 오지 않고 잠잠해 졌어요. 나는 江을 건너기로 決心하고 渡江명령을 내렸지요. 大隊員들은 가슴팍까지 차는 江물을 걸어서 건넜어요. 시간은 13.00였지요. 총을 두 손으로 떠 받들고 무장한 채 그대로 건넜지요. 우리는 아무런 손실도 없이 무난히 건넜지요. 開豁地로 해서 마을 놓고 도심리로 가서 道路를 차단하였지요. 그때 마침 연대장에게서 無電연락이 왔어요. 平壤으로 빨리 진격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해서 들어 가는데, 接敵없이 17.00에 金日成大學을 점령하였고, 牡丹峰도 점령하였어요. 牡丹峰에는 말과 자동차가 많이 있었는데, 자동차는 모오타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었고, 말은 많이들 타고 다녔어요. 牡丹峰에서 또 無電연락을 받았어요. 주요건물들을 점령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우선中央總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제1사단이 점령하고 있더군요. 우리가 점령한 것은 放送局과 金日成大學 뿐이었어요. 平壤의 기리가 형성을 되찾은 것은 20일 10.00였어요. 좀 있다가 연대장이 平壤에 들어와, 和館에 지휘소를 정하였어요. 그뒤 타부대들은 平壤에 들어 왔다가 2~3일내로 모두 北進하고 우리 대대만이 平壤에 남아서 警備하고 있었지요. 金日成大學本館은 우리 1대대가, 別館은 美 제8군 사령부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8군사령부의 경비도 우리가 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일 뒤 中共軍이 侵入하게 되자 命에 의하여 우리는 軍隅里로 진격하고 제8군사령부는 南으로 이동하였어요. 뒤에 平壤奪還戰에 功勞가 있다하여 乙支金星勳章을 수여받았어요.

§ 參戰者의 略歷

◇ 申 尙 澈

46. 2. 28 제2연대 중대장
47. 1. 18 제5연대 대대장
47. 2. 1 제5연대 부연대장
49. 3. 15 수도여단 참모장
50. 1. 15 제6사단장
50. 6. 10 육본 인사국장
50. 8. 21 제7서단장
50. 9. 20 춘장 진급(임시)
50. 12. 18 육군본부부
51 공군 편입, 공군본부 작전국장
53 제1훈련비행단 참모장

◇ 李 奇 建

1948. 11 포병사령부 대대장
50. 4 육군본부 작전국차장
50. 8 제3연대장
53. 5 제9야전포병단장

◇ 朴 堯 日

46. 6. 15 제5연대 소대장
47. 1. 18 〃 A중대장
47. 6. 18 〃 제2대대 8—1
47. 8. 1 〃 〃 부대장
48. 6. 27 제3연대 제1대대장
50. 3. 5 독립 제1대대장
50. 6. 25 제5사단참모장
50. 9. 3 제5연대장
50. 11. 26 전사

◇ 梁 麟 錫

48. 4. 16 통위부 정보국 정보관
49. 3. 20 육군 정보국 전부사
방첩대장
50. 9. 10 제7사단 제8연대 제1대대장
51. 5. 24 제107연대장
51. 11. 1 제2훈련소 정보차장
53. 1. 1 제25사단 정보참모

6. 韓國 空軍의 活動

참조 : 별책부도 제 33 호
상 황 도 제 32 호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공군총참모장 소장 金 貞 烈	비 행 대 장 소령 金 信
비 행 단 장 대령 張 德 昌	정찰비행대장 대위 吳 吉 石

가. 비행단의 美林基地 前進과 활동

9월 23일부터 汝矣島基地에서 출격하여 韓國 西北지역의 敵陣을 강타하고 있던 비행단은 我軍의 破竹之勢와 같은 진격으로 말미암아 戰線이 北上一路를 거듭하게 되자, 더욱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비행단의 基地를 北韓地域으로 이동하여야만 할 필요성을 점차로 느끼게 되었다.

비행단이 汝矣島基地에서 北韓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야만 하였던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 지상군의 근접항공지원은 지상군의 前後方에서 실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어느 面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다.

둘째 : 日本에서 출격하는 UN 공군 폭격기의 목표관측용 T-6 정찰기가 汝矣島 基地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비행단을 딴곳으로 옮겨야 한다.

세째 : 위에서 언급한 T-6 정찰기는 비행단의 F-51 전투기와 동일한 연료를 지원해 주지 않을 수 없었지만 비행단의 보급사정으로 보아 연료보급해 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네째 : 美軍 공수부대를 수송하기 위한 C-46 수송기 30대가 汝矣島基地로 와서 이 基地를 사용하게 되어 汝矣島基地가 더욱 복잡하여 졌다.

공군 총참모장 金貞烈준장은 비행단 基地의 北進문제를 두고 애의 검토하던 중 我軍이 平壤을 점령하게 되자, 뒤이어 美林基地를 韓國 공군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美林基地는 敵

의 軍用基地였기 때문에 韓國 공군이 이를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利點이 있었다.

이리하여 10월 16일에는 10명의 공군헌병을 美林基地로 파견하였으며, 21일에는 15명의 헌병을 증파하여 美林基地를 확보하였다. (§硏究 1 참조)

10월 24일에는 비행단 主力의 平壤 前進에 앞서 徐武甲소령을 先遣隊長으로 하여 20명의 대원으로 美林基地에 前進토록 하여 비행단 平壤 진출의 터를 닦아 놓았는데, 이어 10월 30일에는 金士龍대위 이하 74명의 비행단 主力이 美林基地로 前進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의 이 基地는 별로 파괴된 흔적이 없었고, 敵이 北韓의 선량한 동포들에게서 現物稅로 强徵한 양곡들이 가는 곳 마다 가득히 쌓여 있었으며, 각종 항공기를 수리하기 위한 부속품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었다.

UN軍과 韓國軍은 美 제1군단과 韓國軍 제2군단이 韓國 西北지역에서, 美 제10군단과 韓國軍 제1군단이 東北지역에서 각각 진격에 박차를 가하면서 一路 北上하고 있었다.

西北지역에서는 10월 19일을 기하여 我軍이 平壤을 점령하고, 10월 20일에는 順川까지 진격하였고, 23일에는 安州에 이르게 되었으며, 東北지역에서는 10월 16일에 咸興을, 20일에는 洪原, 23일에는 北靑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0월 26일에는 UN軍과 韓國軍이 西로는 定州—泰川을 거쳐 韓·滿국경의 楚山에 이르기까지 진격하였고, 東으로는 端川에 이르는 進出線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美 공군은 이미 北韓 內의 각 지역에 대한 전략폭격을 끝마치고 있었고, 敵은 我軍 지상

〈美 공군조종사가 그린 1950년 11월의 美林基地〉

군의 진격에 따라 散發的으로 敗走하는 實情이었으며, 韓·滿 국경에 다다라 南侵의 代價를 톡톡히 받으며 그들의 살길을 찾기에 바빴다.

이렇게 되자 비행단은 꾸준한 출격으로 UN軍과 韓國軍의 北進 進出線 가까이에서 敵의 退路를 차단하는 한편, 지상군의 작전을 돕는 공중활동을 계속하였다. 10월에 들어서서 까지 F-51 전투기의 認可출격수가 10대였으나, 11월에 이르러서는 공군의 F-51 전투기 認可출격수가 20대로 늘어 나게 되었다.

비행단이 美林基地에서 출격하여 작전활동을 벌인 지역은 西쪽으로는 順川—博川—宣川—朔州—熙川—江界—滿浦—寧邊등이고, 東쪽으로는 元山—咸興—新興—北青—端川—豊山—吉州—明川—羅南—長津등이었다.

이 기간 중에 建國機 T-6 편대는 비행단에 예속되어 F-51 전투기를 위한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活動地域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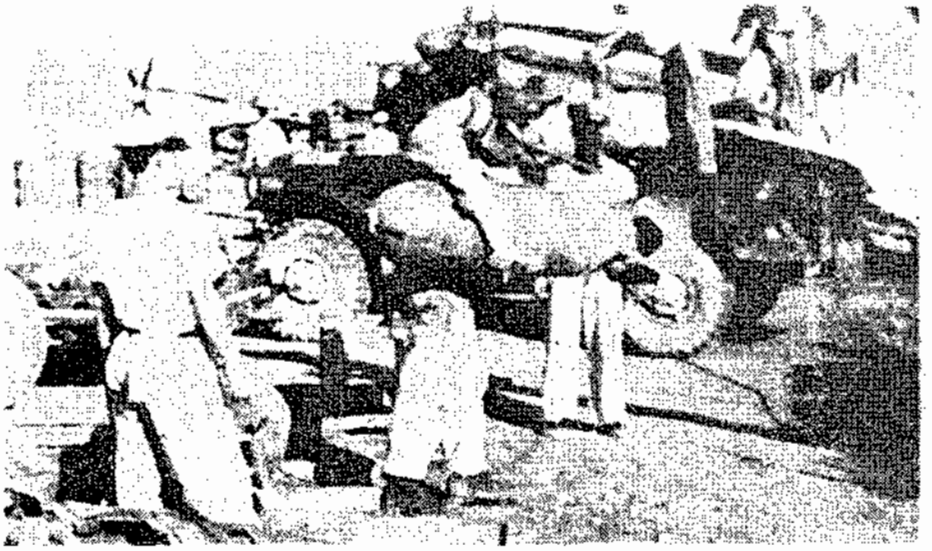
△ 汝矣島基地에서의 출동지역

鎭南浦—平壤—沙里院—海州—金川—新溪—谷山—元山—平康—伊川—高城—通川—華川—楊口—麟蹄

△ 美林基地에서의 출동지역

順川—安州—博川—宣川—朔州—熙川—江界—滿浦—寧邊—元山—咸興

비행단의 T-6 편대 이외에도 공군본부에 파견되어 있던 T-6 3대는 汝矣島를 중심으로



〈F-51 機에 武裝함으로써 출격에 대비하고 있다.〉

공군 각 부대간의 연락과 육군본부의 요청에 의한 일선정찰, 작전명령 하달, 지휘관 수송 및 긴급한 연락 임무에 전력하고 있었다.

비행단에 예속되어 있던 T-6 분대는 汝矣島基地에서 정찰 113회, 연락 68회를 기록하였으며, 美林基地에서는 정찰 136회, 연락 175회에 걸쳐 출동하였다. 공군본부 파견되어 있던 파견대는 정찰 85회, 연락 121회의 출동으로 기간 중 T-6는 도합 334회의 정찰과 364회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T-6의 출동기록(1950년도)

부대별	작전기지	기간	정찰	연락
분대	汝矣島	9.24~10.24	113	68
	美林	10.24~11.30	136	175
공군본부파견대	汝矣島	9.24~11.30	85	121
계			334	364

나. 정찰비행전대의 前進과 활동

정찰비행대는 永川에 파견대를 설치하고 大邱基地에 주둔해 있었는데, 8월 30일에 永川 파견대를 大邱基地의 本隊와 합세케 하여 大邱基地에서만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9월 17일에 永川으로 이동하였다.

9월 16일에는 정찰비행대의 全機를 육군 각 군단에 파견하여 지상군 작전에 협력케 하였는데, 육군 각 군단에 파견된 정찰기 臺數와 정찰비행대 본부의 保有臺數는 다음과 같다.

육군 제1군단 : L-4형 정찰기 3대
L-5형 정찰기 1대
육군 제2군단 : L-4형 정찰기 2대
육군 제3군단 : (10월 16일에 창설)
: L-4형 정찰기 4대
정찰비행전대본부 : L-4형 정찰기 2대
L-5형 정찰기 1대
L-16형 정찰기 1대

이와 같이 14대의 정찰기를 육군의 각 군단에 파견하여 군단 正面의 정찰, 연락임무와 포

관측임무에 매진케 하는 한편, 정찰비행전대 본부에도 배속하여 통괄적인 정찰임무를 수행토록하는 동시에 공군본부의 제반 업무를 도왔다.

이들 정찰비행전대의 파견대는 우리 공군에 정찰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敵情을 육군본부와 美 제8군, 그리고 제5공군에 통보하였다. 공군의 정찰비행전대 본대와 육군의 각 군단에 파견된 정찰비행전대 파견대의 前進, 이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찰비행전대 본대는 10월 16일에 창설될 예정이었던 육군 제3군단 파견대와 더불어 10월 5일을 기하여 汝矣島基地로 前進하였다.

육군 제1군단에 파견된 정찰비행전대 파견대는 군단을 따라 慶州에 주둔해 있다가 10월 4일에 江陵으로 前進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一路 元山까지 躍進하였고, 10월 23일에는 咸興, 11월 7일에는 洪原을 거쳐, 11월 15일에는 城津까지 挺進하여 군단의 작전을 도와 정찰과 연락임무에 매진하였다.

한편 육군 제2군단에 파견된 정찰비행전대 파견대는 역시 제2군단을 따라 군단의 작전을 도우면서 9월 27일에는 安東에 주둔하고 있다가 9월 29일을 기하여 서울로 前進하기에 이르렀으며, 10월 11일에는 抱川을 거쳐 10월 15일에는 平康으로 躍進하였다. 그 뒤에 곧 이어 10월 17일에는 谷山, 10월 22일에는 成川에까지 前進하였고, 10월 27일에는 价川에까지 진출하였다가 11월 1일에 价川南方 60km 지점인 順川으로 南下하여 戰線에서 퇴각하여 오는 敵을 壓迫하는 육군 제2군단의 작전을 도우게 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공군 정찰비행전대의 前進基地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本隊의 전진경로

永川—서울

△ 제1군단파견대의 전진경로

慶州—江陵—元山—咸興—洪原—城津

△ 제2군단파견대의 전진경로

安東—서울—抱川—平康—谷山—成川—价川—順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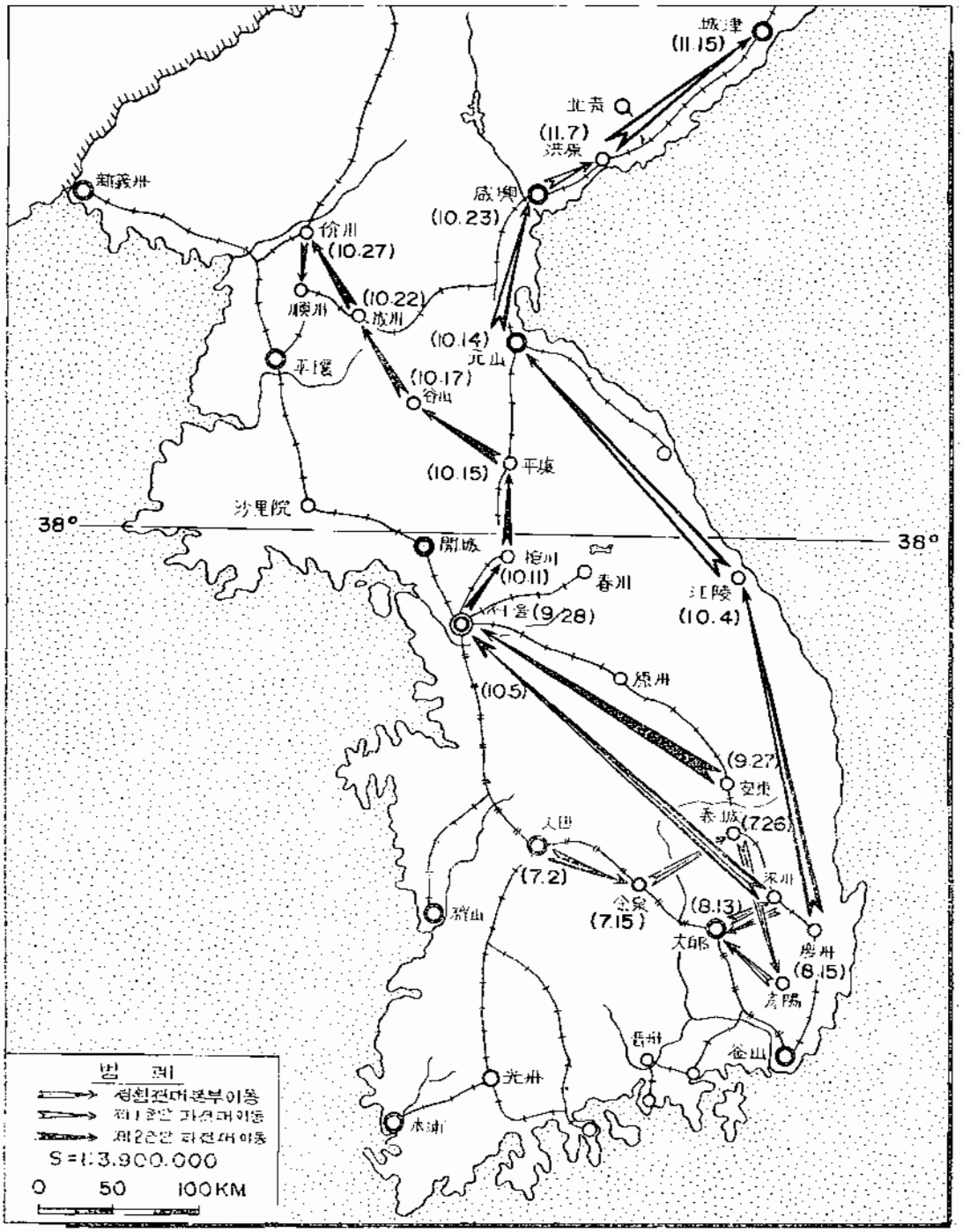
△ 제3군단파견대의 이동경로

서울—大田

(상황도 제32호 참조)

정찰비행대는 10월 16일을 기하여 정찰비행전대로 승격되었는데, 이 戰隊의 본대는 기간

〈상황도 제 32 호 韓國 공군 정찰비행전대의 이동〉



중정찰을 위하여 79회, 연락임무를 위하여 593회의 出動을 기록하였다.

제 1 군단파견대는 기간 중 36회의 정찰과 55회의 연락임무를 띤 출동을 기록하였고, 제 2 군단파견대는 65회의 정찰과 168회에 걸친 연락임무로 출동하였다. 이와 같이 戰隊에서는 기간 중 敵陣에 1,000회 이상 출동하여 지상군의 작전에 협력하였을 뿐 아니라 北韓一帶에 많은 傳單도 살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고귀한 손실도 없지 아니 하였다.

1950년 10월 1일 朴文琦이등상사가 작전연락임무를 띠고 L-4를조종하여 平昌비행장에서 原州비행장으로 가는 도중인 11.30에, 山속에 잠복하고 있던 敵 지상군의 對空砲火로 平昌비행장 南쪽 15km 지점에서 추락, 전사하였는데, 機體는 大破되고 同乘者는 重傷을 입었다. ("§逸話 2" 참조)

정찰비행전대의 출동기록 (1970 년도)

부대별	작전기지	기간	기종별					
			L-4		L-5		L-16	
			정찰	연락	정찰	연락	정찰	연락
본대	永川	10. 1~5	11	94				2
	서울	10. 5~12. 31	33	235	34	165	1	69
제 1 군단 파견대	慶州	10. 1~4.	4	7				
	江陵	10. 4. ~10.	10	3	4	8		
	高城	10. 10.	1	2	1	1		
	原底	10. 12~14.	1	2				
	元山	10. 14~23	5	12	3	6		
	咸興	10. 23~11. 7	11	10				
	洪原	11. 7~15	2	10				
	城津	11. 15~12. 5	2	9				
제 2 군단 파견대	抱川	10. 11~15.	2	10				
	平康	10 15~17	1	5				
	谷山	10. 17~22.	17	21				
	成川	10. 22.	2	10				
	德川	10. 27.	2	5				
	价川	10. 27~31.	10	24				
	順川	11. 1~12. 5	43	86				
	平壤			5				
	沙里院			2				
제 3 군단 파견대	大田							
계			157	552	42	180	1	71

10월 17일에는 田龜書이등상사가 金昌明 육군소령이 同乘한 가운데 L-4를 조종하여 華川方面의 정찰임무를 수행하다가 13.00에 敵 지상군의 砲火로 華川貯水池 南쪽 10km 지점에 추락하여 護國의 神으로 散華하였는데, 同乘者는 부상을 입었다. ("§逸話 3" 참조)

11월 12일 공군의 참모부장이었던 朴範集준장은 작전국장 徐漢浩중령을 대동하고 손수 T-6 연습기를 조종하여 咸興부근 上空에서 공군정찰기의 작전을 지휘하던 중 뜻하지 않았던 機關故障으로 愛機와 더불어 장렬히 散華하였으니, 두분은 祖國의 푸른 하늘에서 護國의 守護神으로 길이 남아 있으리라. ("§逸話 4" 참조)

§ 研 究

1. 美林飛行場

平壤 東쪽 약 7km 지점에 있는 北傀공군기지로써 東平壤비행장이라고 불리워졌는데, 韓國戰爭당시 敵의 航空廠이었고, 현재는 北傀공군의 空輸, 訓練基地로 사용되고 있다. (合同參謀本部 作戰局제공)

2. 美林基地에서의 작전활동지역

美林基地에서 F-51 전투기로 공군이 작전활동을 벌였다고 記述한 지역은 "1950年度 主要事件日誌"에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1950년도 戰鬪要報"에는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으며, 또한 例證하기가 곤란하여 "主要事件日誌"에 기재되어 있는 地名 그대로를 列記하였다.

§ 逸 話

1. 故 朴文琦소위의 奇行

空軍旬報 제12호 『朴文琦소위 追慕』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어 있다.

『그는 平壤출신으로 성격이 명랑하고 사진술에 능한 분이었다.

客年 언제인가 하루는 朴在浩상사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동승하고 鳥致院 上空을 정찰하던 중 敵의 포탄에 피탄되었는데, 機體의 중간이 떨어져 나가자 그는 재빠르게도 앞에 탄 조종사의 허리를 부등켜 안고 방울치럼 대롱대롱 매달려 용케도 基地에까지 무사히 귀환한 사실은 한동안 戰友들의 즐거운 이야기꺼리가 되었었다. 그후 朴소위는 수십회에 걸쳐 정찰비행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드디어 조국의 하늘에 귀한 몸을 바치니, 壯하도다. 護國의 용사여! 하늘에서 삶과 죽음이 또한 사나이답지 않을 소냐!〈下略〉』

2. 故 田龜書소위

空軍旬報 제12號 『田龜書소위 追慕』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어 있다. 『寡默明敏하고 多情多感하며 人情이 많은 故 田소위는 特히 文學을 좋아하였다. 그는 開戰 당초 부터 정찰근무로 공로가 多大한 분이며, 그의 武勳은 영원히 靑史에 남으리라.』

3. 故 朴範集소장

空軍旬報 제12호 『朴範集소장 追慕』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어 있다. 『소장은 우리 공군의 至寶的 존재로 寡默實踐의 人이었다. 그는 現 총참모장 金貞烈 소장과 함께 공군 창설에 많은 공헌을 남기었다. (中略) 朴소장은 T-6 연습기에다 폭탄을 싣고 가진 모험을 다하여 고사포탄이 噴水처럼 치솟는 敵陣으로 달려 들었다. 그의 불굴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치열하여 연일 연야의 출격에도 조금도 피로의 빛을 보이지 않았

다. 그런데 9.28 후인 지난 11월, 咸興上空을 정찰 중 비행기고장으로 애석하게도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으니, 향년은 34세, 현재 大邱에 유가족으로 따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한다.』

§ 參戰者의 證言

◇ 비행단 申攸浹 소령

(1966. 7.28 KAL 社長室 · 에비앙)

美林基地로 갈 때 80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으로 기울살림을 했다. 그때는 현지에서 현금 조달로 살림을 했다. 무연탄 房도 만들었는데, 당시 F-51은 전부 美林基地로 갔다.

◇ 비행단 정비대 李章潤

(1967. 2.20. 공군본부대령)

美林基地는 활주로라는 것이 없고, 전부 검바닥이었다. 조종사들 일부가 平壤갔을 때 申攸浹소령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때 조종사들 일부는 훈련을 받고 일부는 출격하고 있었다.

◇ 비행단 정비대 李淸進

(1969. 大邱基地 · 중령)

그때 비행부대와 정비부대가 있었는데 T라인班과 F라인班이 있었다. F라인班長은 朱鍾碧이었고, T라인 班長은 高興剛이었다. 정비 장비는 소도구이었고, 시설은 없었다.

◇ 정찰비행전대 權成根소위

(1965. 2.16 대구기지 · 준장)

나는 T-6로 元山, 平壤 等을 정찰하고 있었다. 汝矣島에서 F-51을 2차로 교육받게 되었는데, 당시 우리 크라쓰는 그저 한번 타 본 것이었다.

◇ 비행단 정비대 崔元文

(1965. 5.9. 공군대학 · 중령)

우리는 M-2 찰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F-51에 "僧念의 鳥人"이라고 漢字를 써 넣기 위하여 平壤市內에 가서 페인트공을 불러와서 이 작업을 시킨 일이다. Hess소령의 비행기에도 "僧念의 鳥人"이라고 써 주었다.

§ 參戰者의 略歷

◇ 朴範集

1948. 4.15. 국방경비대, 임관
1948. 7.20. 육군항공사령부 참모장
1949.10. 1. 참모부장
1950.11.12. 전사

◇ 姜錡倫

1950.10. 1. 비행단 제12비행중대장
1951. 8. 1.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 제12비행대대장
1951.11.10. 제1전투비행단사령부 작전처장
1952. 4. 1.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 부전대장, 전대장
1953. 2.15. 공군본부 작전국장 보좌관

◇ 丁永鎭

1948. 7.12. 육군 항공기지사령부 입교
1949.10. 1. 비행단 제1중대 부
1951. 4.25. 비행단 제11비행중대 비행반장
1951.10.26. 비행단 제14혼성비행대대 비행중대장
1953. 2.15. 제10전투비행단 감찰관
1956. 1.10. 국방대학원 학생과장
1957. 1. 1. 제7항로보안단장 보좌관

7. UN 空軍의 活動 (50년 10월 16일부터 50년 10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33 호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극동공군사령관	중장 George. E. Stratemeyer
美 제 5 공군사령관	소장 Earle. E. Partridge
美 극동공군 전투물자공수사령관	소장 Willian. H. Tunner

가. 기간 중 활동의 개요

UN 공군은 攻勢와 守勢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北韓 內에는 이미 군사목표가 UN 공군의 거듭된 폭격으로 말미암아 제한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하여 이 기간 중에는 매일의 出擊機가 다른 기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공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은 北傀軍을 國境線으로 몰아내고 있는 지상군을 근접지원하면서 당황하여 도주하는 敵의 전차, 차량, 그리고 野砲등 소수의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였다.

UN 공군 활동의 局面은 이제 전투보다도 수송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공군이 空中으로부터 투하하는 장비와 보급물자가 敵의 온거지 깊숙히 들어가서 敵을 潰滅하고 있는 지상군에게는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前線에 대한 空中보급과 再보급은 지상보급로의 확장에 따라 지상군의 계속적인 활동에 極히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空中보급은 지상군의 前進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北韓 內의 港口를 통한 보급이 실시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였는데, 元山과 平壤이 각각 東, 西海岸의 공중수송의 終點이었다. 平壤으로 공수되는 美 제 8 군을 위한 보급량은 매일 평균 1,800ton 에 달하였다.

10월 20일 극동공군 전투물자공수사령부에서는 美 제187공수단을 敵 戰線의 후방인 肅川과 順川에 성공적으로 투하하였는데, 그후 투하시킨 양을 합하면 병력은 4,000여명 이상이었고, 장비는 600ton 이상에 달하였다.

이 기간 중 敵의 공군활동은 輕型航空機 數機에 불과한 야간습격이 있었으나, 이로 인한 我軍의 손실은 전혀 없었다.

기간 중 UN 공군의 일일평균 출격회수는 499회에 달하였는데, 이중 근접지원 출격회수는 390회이었고, 차단출격회수는 109회이었으며, 전략출격은 하지 않았다.

10월의 1개월간을 통하여 Australia 공군 제77중대는 긴밀한 지원과 엄호임무를 위해 247회에 걸쳐 출격하였고, 수송대는 공수, 연락임무를 계속하였다. 英聯邦 공군 제88비행중대는 장거리정찰 17회를 기록하였고, 제209비행중대는 같은 임무를 22회 기록하였으며, 제205비행중대의 제3분대는 정찰임무를 띠고 제88, 제209비행중대와 합동으로 4회 출격하였다.

Cananda 공군은 韓國戰爭을 위해 美國과 日本間을 15회 왕복하여 인원과 물자를 공수하였다. 한편 극동공군은 개전이래 10월 21일현재 延 50,000機 이상이 출격하여 폭탄 35,000 ton, 50mm 기관포탄 27,000발 燒夷彈 850,000 gallon을 사용하였으며, 부상자 20,000명을 後送하였다.

기간 중(10월 16일~10월 31일)의 주요 작전일지는 다음과 같다.

10월 16일 : 1. 英, 美 艦載機 東西海岸 공격.

2. B-29 平壤 北方 34個所공격, 수송로 차단, 同機 韓·滿국경 南方 12km 지점의 江界에 출격한 다음, 新安州, 郭山等을 폭격.

10월 17일 : 新義비행장 사용개시.

10월 20일 : 극동공군, 제187공수단 龍川, 順川투하.

10월 21일 : 극동공군 제187공수단 龍川투하.

10월 24일 : 1. 中共軍, 滿浦鎭上空의 美 해병대機 2대에 대하여 滿州에서 對空砲火로 포격.

2. 滿州 內의 中共고사포로 韓國 內의 美機포격으로 F-51機 1대 추락.

나. 中共機의 出現

MacArthur 元帥는 10월 17일과 24일의 두 차례에 걸쳐 北傀의 항복을 예상하고 UN軍에게 하달하였던 모든 제한조건을 철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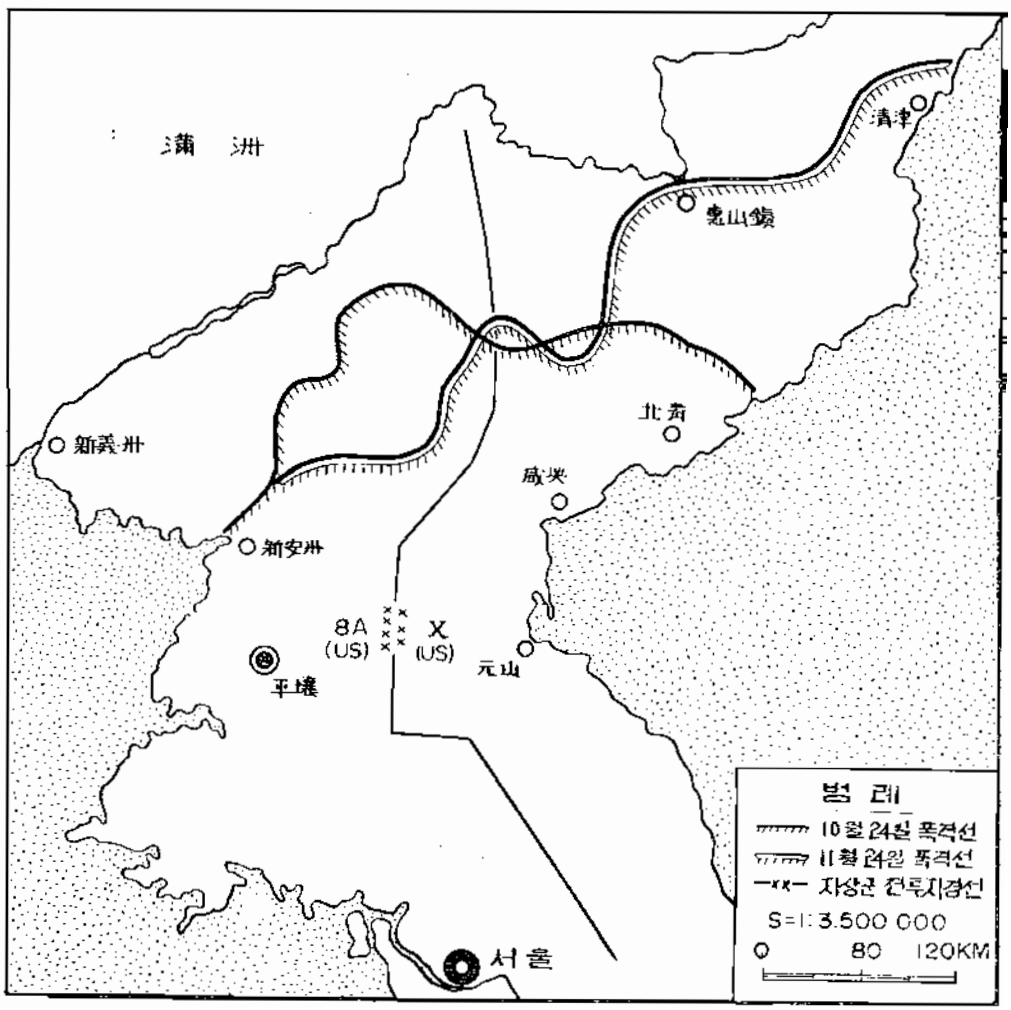
UN 공군에 있어서는 국경에서 80km 이내의 지역은 폭격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Strate-

meyer 중장이 설정한 국경에서 32km 지점의 "Chop Line"과 80km 지점의 "V. F. R, Line"도 MacArthur 元帥의 명령에 따라 철폐되고, 폭격을 가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Stratemeyer 중장은 10월 25일 다음과 같은 명령을 휘하 공군부대에 하달하였다.

『지상군의 근접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술 공중통제부대나 항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때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만큼 국경에 접근하라. 그러나 국경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Partridge 소장은 국경근처에서 근접지원을 하기 위하여서는 충분히 선정된 공군 지휘관과 조종사들을 이용하라.』

Stratemeyere중장이 Partidge 소장에게 지상군이 국경으로 진격해 감에 따라 지상군을 근

상황도 제 33 호 UN 空軍의 北爆線 변경(50. 10. 24~11. 24)



접지원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이를 수행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美8군은 근접지원 보다는 공중수송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以北의 鐵道와 道路가 거의 파괴되어 陸路上의 수송이 困難하게 되었는데, 空輸로 수송하여 지상군의 前後方에 보급물자를 落下하여야 하였던 것이다.

10월 16일 美 제8군은 新幕비행장을 점령하였는데, 다음날 전투물자공수사령부는 235ton의 휘발유와 식량등 戰略 보급물자를 수송기로 투하하였다. 전투물자공수사령부의 1일 空輸능력은 1,000ton 이었는데, 요구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美 제8군과 제5공군 자체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힘이 겨워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UN공군은 제51전투요격비행단을 金浦에 배치하고 제6148, 제6146, 제6151기지부대들을 美林과 東平壤, 龍浦基地에 각각 이동하여 원활한 공수임무에 기여키로 하였다.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전투물자 공수사령부는 3,454ton을 空輸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연이어 매일 평균 1,200ton의 전략물자를 공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我軍의 지상군과 보조를 같이하여 UN공군도 北進에 박차를 가하게 되자, 中共은 侵略의 馬脚을 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이미 지난 10월 14일 04.00과 21.10에 걸쳐 2대의 中共전투기가 金浦上空에 나타나 몇발의 폭탄을 투하하였는데, 15일에 이들 中共機의 離陸基地를 찾으러 新義州로 갔던 UN공군의 F-51 4機 편대가 鴨綠江 건너의 中共基地로부터 對空砲火를 받게 되어 1대가 격추당하였다.

10월 18일 제31전략정찰대대의 RB-29 정찰기가 鴨綠江을 정찰하는 도중 中共의 안동(安東)基地에 75대 이상의 전투기가 待機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튿 날 아침에 이들 전투기들은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Stratemeyer 중장은 「이는 UN軍을 위협할 목적으로 전시효과를 겨냥하여 취한 행동」이라 추측하였다. 그러나 敵은 『中共이 參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고 공공연히 발표하였다.

11월 1일 新義州 南쪽 24km지점의 楊市上空에 蘇製 YAK機 3대가 나타나 Mosquito 정찰기와 제730폭격대대, 소속 B-26 폭격기를 공격하였다. B-26폭격기의 승무원은 1대의 YAK機를 격추하였는데 곧 이어 제18전투요격 전대 소속의 F-51전투기가 나타나 2대의 YAK機를 격추하였다.

이날 12.00, RF-80정찰기의 한 조종사는 15대의 敵 YAK機가 新義州비행장의 콩크리이

트벽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情報를 곧 제5공군에 통보하였는데, 제5공군은 3대의 F-80 전투기를 출동시켜 이를 폭격토록 하였다.

YAK機는 콩크리트 벽을 등지고 機首는 鴨綠江을 향하고 숨어 있었는데, 江岸의 滿洲 국경에서는 對空砲火가 치열하였지만 F-80 전투기들은 비행장을 폭격하고 1대의 YAK機를 完破, 6대를 半破시켰다. 이 폭격에서 제5공군은 1대를 손실하였는데 오후에 다시 두 번 째로 출격하였으나, 敵機들은 이미 도주하고 없었다.

13, 45에 開戰以來 최초로 敵의 MIG-15 젯트기 6대가 출현하여 Mosquito 정찰기들과 F-51 전투기에 공격을 가하면서 위협하였다. 이 蘇製 MIG-15 젯트기는 滿洲地方에서부터 鴨綠江을 넘어왔는데, UN 공군은 平壤基地로 되돌아 올 수 있었다.

이를 전후하여 지상군에 대한 中共의 不法侵略이 간간이 일어 나고 있었는데, 10월 28일에는 韓國軍 제2군단의 방어선에서도 中共軍의 挑戰이 있었고, 11월 2일에는 美 제8기갑연대는 中共軍의 공격으로 포위 당하여 11월 3일 Walker 중장은 美軍을 淸川江까지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는데, 中共軍을 포함한 敵은 계속 挑戰해 왔으나, 제5공군이 이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주춤하였다.

Stratemeyer 중장은 北傀가 젯트전투기를 조종할만한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고, 이들 MIG-15 젯트전투기들의 조종사가 北傀의 훈련된 조종사들인지, 아니면 中共軍인지 구별하지를 못하였다.

MacArthur 元帥는 中共軍의 참략가능성에 대하여 합동참모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첫째 : 中共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병력을 동원할 것이다.

둘째 : 中共軍은 은밀히 軍事지원을 北傀에 베풀면서 外交上의 이유로 이를 숨기려 할 것이다.

세째 : 中共은 지원병의 지원을 방조하면서 北傀를 도울 것이다.

네째 : 中共은 鴨綠江으로 진격하는 韓國軍이 나약하리라 잘못 생각하고, 그들의 侵略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다. 美 제8군을 위한 공군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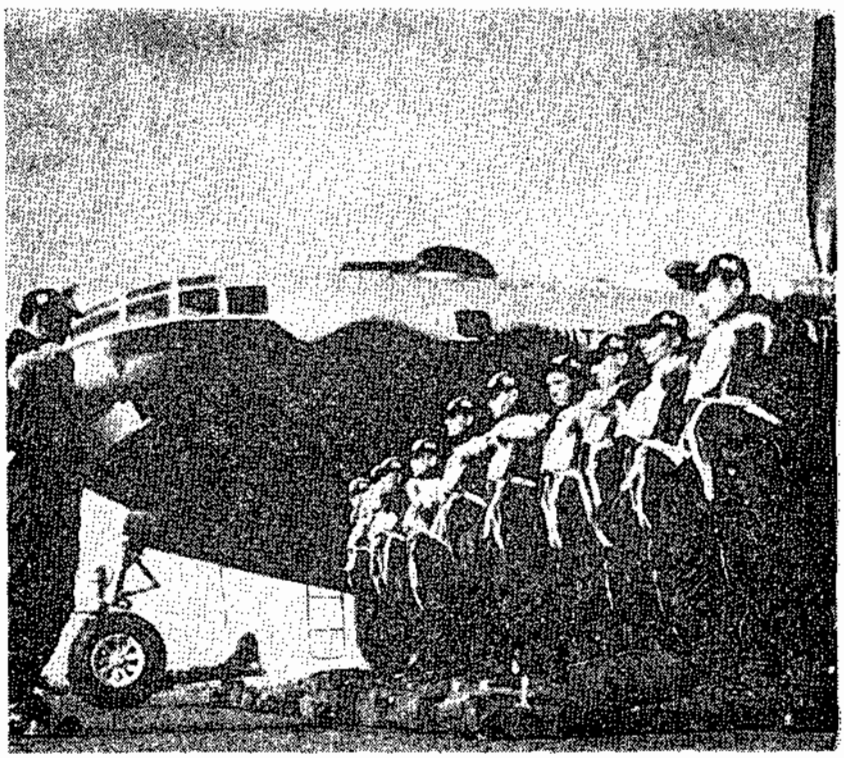
38°線 以北의 공격선에서 美 제8군의 제1군단은 제10군단과 10월 7일을 기하여 임무

를 교대하였는데, 10월 12일에 제 5 공군은 교대하는 제 1 군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81회의 근접지원 폭격으로 11문의 敵 야포를 파괴하였다.

10월 15일 Walker 중장은 제 1 기병사단의 전차와 트럭을 平壤진지을 위한 공격선상에 배치하였다. 제 8 군의 主力은 沙里院을 공격하였고, Mosquito 정찰기들은 海州—開城間을 정찰하고 있었다. 이 Mosquito 機들은 제 8 군의 左側을 엄호하였는데, 만약 폭격해야 할 목표물을 발견하면 폭격기나 전투기를 요청하고 이들을 유도하며 폭파하도록 하는 임무를 띄고 있었다.

10월 17일 米力洞—沙里院 중간지점에서 Mosquito 機들이 3대의 기관차에 분승하여 후퇴하는 數 未詳의 敵을 발견하고 전투기를 요청, F-80전투기 4대가 출격하여 이를 폭격하도록 하였는데 계속하여 敵을 발견하는대로 폭격하여 나갔다.

10월 19일 英聯邦 제27여단에 의해 증원된 제 1 기병사단은 平壤에 입성하였는데, 제 1 기병사단장은 "平壤으로의 성공적인 入城은 제 5 공군의 절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였



〈C-119 輸送機가 離陸直前 조종사들은 마지막 브리핑을 받는다.〉

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제187공수단이 金浦에서 작전에 참가하기로 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데, MacArthur 사령관은 이들을 10월 21일에 平壤 以北의 龍川과 順川에 投下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 8 군의 진격 속도가 빨라지게 되자 20일로 확정하였다.

投下 2일전인 18일에 극동공군 전투물자공수사령관 Tunner 소장은 제314공수전대의 C-119 수송기와 제21공수대대의 C-47 수송기에 의한 모든 공수 계획을 중단하고 철저한 정비를 맡게 하여 D日에 대비하게 하는 한편, 제 5 공군의 항공기들을 金浦基地에서 떠나게 하였다. 日本에서 부터 작전에 참가할 수송기들이 도착하였으며, 20일, 제187공수단의 投下 決行日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 5 공군은 投下 예정지점에 지원사격을 하는 동시에 이에 참가하는 수송기의 엄호 비행을 할 예정이었다. 일단 투하될 공수단 병력은 Mosquito機들에 의하여 근접지원과 엄호를 받는 계획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었다. 새벽이 되어 날이 밝아지자 수송기 승무원들과 공수단원들은 수송기 옆에 집결하였으나, 비가 억수 같이 내리고 있어서 결행의 시간은 지연되고 있었다. 이날 12.00에 날씨가 개이자 이들은 수송기에 탑승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시간에 제 5 공군의 F-51전투기들은 龍川과 順川 敵 주둔지점을 맹타하였다.

13.00에 이르자 金浦基地에서 다른 基地로 옮겨 갔던 F-51機들의 엄호 아래, 드디어 결행의 순간으로 향한 수송기들이 離陸하기 시작하였다. 이 항공기들은 西海 上空으로 비행하여 가서 바로 投下 예상지점으로 날아 갔다.

14.00 龍川에 최초의 공수단원이 投下하기 시작하여 공수단원과 군수품의 투하는 敵陣上空에서 꽃처럼 떨어졌고, 數分 뒤에는 順川에서도 投下가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1시간 이내에 71대의 C-119 수송기, 40대의 C-47기들은 2,860명의 병력과 301.2ton 의 장비와 군수품을 投下하였다

그러나 정찰비행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高射線부근에 많은 병력이 낙하되어 1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하는 손실을 보았다. 투하된 공수단의 지상작전도 성공적이었는데, 敵은 제 5 공군의 예비폭격과 갑작스런 投下로 놀라 퇴각하였기 때문에 더욱 순조롭게 이 두 地域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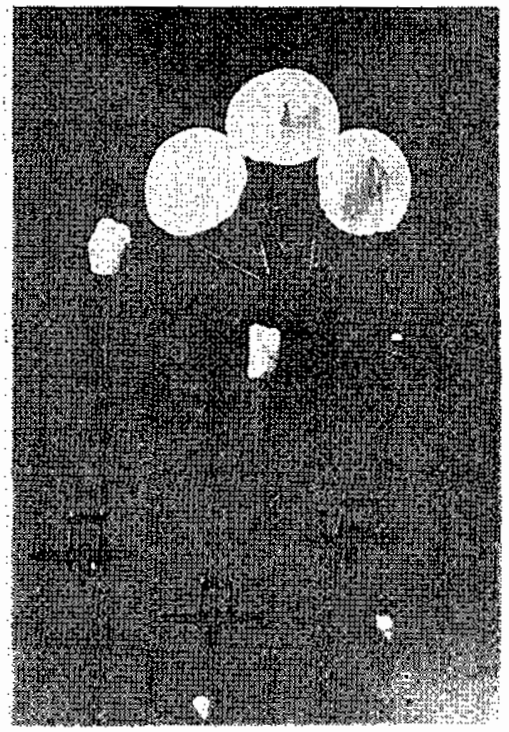
제187공수단장 Frank S. Bowen 대령은 "이처럼 완벽하고 훌륭한 投下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날의 落下를 전후하여 제 5 공군과 Mosquito 당무자들은 F-51

75대, 그리고 F-80 62대와 B-26 5대를 동원하여 제187공수단의 投下를 도왔는데, 敵 차량 53대와 연료저장탱크와 탄약집적소 5개소, 그리고 군수품 수송용 牛馬車 23대, 탱크 4대와 야포 1문을 파괴하였다. 21일 10.00에는 이제 空中投下한 지점에 40대의 C-119 수송기로써 1,093명의 공수단원과 106.8ton 의 군수품을 다시 투하하였다.

그후 이틀 간에 걸쳐 184ton 의 새로운 군수품을 C-119 31대로 投下하여 공수단을 위한 공중보급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一連의 공수단 空中投下로 말미암아 지상군의 진격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니, 敵은 勢窮力盡하여 敗走一路에 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약 3일간에 걸친 작전에서 제187공수단은 약 6,000명의 敵과 교전하였는데 그 중 2,764명을 사살하고 3,000여명을 포로로 잡는 한편, 탄약과 보급품등을 노획하는 큰 戰果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제187공수단이 我軍 포로를 敵의 수중에서 구출하려 하였으나, 이는 실패하였다. 敵은 포로된 我軍을 平壤以北으로 강제로 호송해 갔는데 제187공수단의 정찰대는 鳴牛站부근에서 敵의 我軍포로 호송열차를 21일에 발견하였다.



〈C-119 수송기가 重장비를 투하하고 있다.〉

호송되어 가던 我軍들을 태운 열차는 터널 속에 숨겨져 있었고, 敵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75명이나 학살하였으며, 15명이 부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었다.

부상자들은 수송기 편으로 日本의 아시이(芦屋)基地에 後送되었다.

第 32 章

豆滿江 進擊作戰

第32章 豆滿江 進擊作戰

要 旨

豆滿江 進擊作戰은 元山방어선에서 敗走한 2개 사단 규모의 敵과 城津, 淸津등지에서 증원된 제507여단, 제41사단, 그리고 11월에 접어들어 長津湖부근에서 나타난 中共軍 제124사단과의 전투로 韓國軍 제1군단 麾下 수도사단과 제3사단 및 美 第10軍團 麾下 제1해병, 제7, 제3사단등 韓·美 5個사단 병력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간에 걸쳐 전개한 富寧—惠山鎭—長津湖 進擊戰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 작전은 遂行過程上의 性格面을 고려하여 두개의 時期로 구분할 수 있다.

前者는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의 작전으로써 이 기간 중에는 韓國軍 제3사단이 元山—咸興지구를 防禦하는 가운데 首都사단 單獨으로 追擊戰을 전개하여 咸興—長津, 北靑—豊山線을 封鎖하면서 主力으로 吉州를 점령하였고, 이 무렵에 美 제10군단이 元山 및 利原 上陸을 완료한 時期였다.

그리고 後者는 11월 6일 이후 11월 末까지의 作戰期로서 이 기간에는 美 제3사단과 美 제1해병사단 일부 병력이 韓國軍 제3사단으로부터 인수한 元山—咸興지구의 방어전을 담당하는 외에는 韓·美兩軍이 富寧—惠山鎭—長津湖를 指向하고 총 전적전을 본격화한 시기였다.

우선 前者의 前期作戰을 槪觀하면 제3사단은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 美 제1해병사단이 元山에 上陸하여 同地區의 방어임무를 인수하기까지 松田半島—永興—高原—新昌里—馬轉里—安邊—葛麻비행장을 연결하는 元山市와 그 外郭地帶 및 韓國軍 제1군단보급소가 위치한 咸興를 경비하면서 주변에 출몰하는 殘敵을 격멸하였는데, 그 중 제26연대는 10월 25일 水洞부근에서 敵과 대치하고 있던 수도사단 제18연대 제1대대와 교대하고 上通里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10월 27일 美 제1해병사단에 元山지구의 방어임무를 인계하고는 咸興으로 主力을 이동시켜 連浦비행장—興南—洪原—新浦까지 병력을 분산배치하여, 海岸線일대를 경비하다가 10월 29일 美 제7사단이 利原에 上陸한데 이어 11월 4일 美 제3사단이 元山에 上陸하자 11월 5일 제3사단은 咸興지구의 경비임무를 완전히 끝내고 洪原—新浦—新北靑으로 각각 이동, 배치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3사단의 元山—咸興지구의 경비임무의 이양은 美 제10군단 병력의 上陸과 併行되었던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수도사단의 추격전이 순조로이 전개됨으로써만이 가능하였다.

이 기간 중, 수도사단 병력의 東北戰線 전적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0월 16일 永興을 출발하여 17일 제18연대는 咸興을 점령한 다음, 長津湖方面으로 前進, 25일 長津線의 水洞지역을 제3사단 제26연대에 인계하고 赴戰湖方面으로 主力을 지향시켜 新興里 本土里線에서 敵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다가 11월 5일 美 제7사단에 陣地를 인계하고 五老里로 이동하였고,

제1연대는 10월 17일에 興南을 점령하고, 20일 洪原을 점령한 뒤에는 豊山으로 진격하여 美 제7사단 제17연대에 동 지역을 인계하고 31일 端川으로 이동, 11월 5일 제1기갑연대와 함께 吉州를 점령하였으며, 제1기갑연대는 永興—咸興—新北靑을 경유, 10월 25일 端川을 점령한데 이어, 29일 城津을 점령하고, 11월 5일 後續한 제1연대

와 함께 吉州를 점령하였다.

이리하여 韓國軍의 前期作戰은 끝났거니와 한편, 美 제10군단은 10월 26일 Almond소장이 말한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에 의거 추진되었다. 즉

「韓國軍 제1군단은 東海岸線을 따라 北東國境지대에 진격하고, 美 제1해병사단은 군단 後方의 병참선과 後方지역을 경계하는 한편, 咸興에서 長津湖를 향하여 진격하며, 美 제7사단은 利原에 上陸하여 北青—惠山鎭을 공격하고, 美 제3사단은 元山—咸興지역을 경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美 제1해병사단은 10월 26일元山에 上陸하여 제1해병연대는 元山 咸興線을, 제5해병연대는 永興—咸興線의 韓國軍 제3사단의 경계임무를 인수하였고, 제7해병연대 만이 咸興—長津線에 진출, 11월 2일 水洞부근에서 韓國軍 제3사단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뒤, 中共軍 第42軍 제124사단 제370연대와 치열한 격전 끝에 11월 16일 長津湖 南쪽 2km지점에 있는 下碣隅里를 점령하고 24일에는 柳潭里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10월 29일 利原에 上陸한 美 제7사단은 惠山鎭을 목표로 豊山에 진출하여 수도사단 제1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뒤, 甲山과 三水의 兩路를 진격하여 11월 21일 鴨綠江岸의 惠山鎭을 점령하였고, 美 제3사단은 11월 4일 元山에 上陸한 뒤, 元山—咸興지구의 경비임무에 들어갔다.

이상과 같은 美 제10군단 병력의 豊山—惠山鎭 진격과, 咸興—五老里—長津湖 진격으로 말미암아 韓國軍 제1군단은 이 지역의 임무를 완전히 인계하고 11월 5일이후 吉州以北의 작전에 全力을 집중하였다.

韓國軍 제3사단은 11월 16일 城津—吉州지구로 이동, 그 중 제26연대는 美 제1해병사단에 배속, 地境里로 이동, 11월 15일 平南郡 祉倉里로 진출한 뒤, 다시 22일 美 제7사단에 배속되어 30일 惠山鎭에 진출하였고, 나머지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11월 17일부터 吉州—合水—白岩—惠山鎭線을 진격, 11월 18~20일 城德에서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뒤, 11월 25일 合水—白岩을 점령하고 제23연대는 茂山을 공격하기 위하여 11월 30일 羅南으로 이동 집결하는 한편, 제22연대는 合水—白岩線에서 제1대대 제3중대를 惠山鎭으로 진출시켜 11월 30일 惠山鎭에 진출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은 韓國軍 제3사단과 美 제10군단에 長津湖 및 惠山鎭方面의 작전임무를 차례로 인계한 다음, 吉州—清津—富寧지구에 主力을 指向하였다.

11월 5일 吉州를 점령한 제1기갑연대는 18일 合水, 惠山鎭을 목표로 城德—大新里線에 진출하였다가 韓國軍 제3사단과 교대하고 수도사단에 배대로 主力에 後續하여 11월 25일 清津전투에 참가하였고, 제1연대는 11월 8일 明川으로 이동해 온 제18연대와 함께 12일부터 1주일간 漁郎川전투를 치른 다음, 11월 25일 3개 연대 共히 清津을 점령, 11월 30일에 제18연대와 제1기갑연대가 각각 富寧—富居線에 진출하였다.

1. 永興—咸興--城津 進擊戰 (50년 10월 16일부터 50년 10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34호
상황도 제34호
작명부록 제1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敵軍	
제1군단 장	소장 金白一	제1대대 장	소령 朴京虎
수도사단 장	준장 宋堯讚	제2대대 장	소령 朴益均
제18연대 장	대령 任忠植	제3대대 장	소령 林翼點
제1대대 장	소령 李吉泳	배속부대	
제2대대 장	소령 金鳳翔	제10야포대대	
제3대대 장	소령 安旼一	수도야전공병대대	
제1연대 장	중령 韓信 (10월 20일부터 대령)	병력 : 약11,000명	
제1대대 장	대위 咸溶翼	장비 :	
제2대대 장	소령 申彦國	105mm곡사포	18문
제3대대 장	대위 李聖鳳	57mm대전차포	14문
제1기갑연대장	대령 白南權	81mm박격포	20문
	중령 金東洙 (10.24부터)	60mm박격포	25문
		3.5 inch 로켓포	30문

敵軍	
제 42 사단	元山경비여단
제 5 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제3사단과 함께 10월 10일 元山奪還作戰을 끝마친 다음, 동 15일까지 예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가 女王山—文川—高原—永興을 계속 점령하여 永興과 定平 중간지점인 金津江까지 진격하였고, 제1연대(장, 韓信중령)는 德源에서 左翼轉공격하여 馬轉里—新昌里—川內里

高原을 점령한 다음, 永興으로 진격하여 다시 咸興—興南線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인접 제3사단(장, 李鍾贊준장)은 永興까지 진격하였다가 다시 高原 東쪽 龍源江과 松田半島 및 그 西쪽 小頭流山 일대의 殘敵 박멸을 위해 이동하여 수색, 전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을 엄호하기 위해 또 다시 元山으로 이동하여 그 부근 일대의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제1기갑연대(장, 白南薰대령)는 元山점령 이후 10월 15일까지 元山附近一帶를 경비하고 있다가 제3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고 15일 永興으로 차량 이동하여 사단의 제1, 제18연대와 合同하게 되었고, 이에 사단 단독으로 咸興—興南과 그 北方의 공격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단의 進擊路上에 있는 咸興은 咸鏡南道의 道廳所在地로서 그 지방의 정치, 경제, 군사상의 중심지이며, 당시 인구는 8만명을 헤아렸으나 그중 약 40%가 공산당원으로 조직된 지역이었다.

또한 咸興平野는 길이 약 40km, 폭 20km의 廣大한 水畓地帶로서 咸鏡道의 穀倉지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 北쪽에 있는 長津湖 및 赴戰湖의 發電所와 풍부한 지하자원 등은 이곳을 工業都市로 만들고 있었으며, 특히 興南은 東洋最大 규모의 肥料工場을 비롯하여 시멘트 공장등은 良港과 함께 工業港口都市를 이루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定平부터 咸興—興南까지는 平野지대를 가로질러 공격을 해야 되므로 機動에는 매우 유리하다고 하겠지만 掩蔽地가 없어서 兩市街 뒷山에서의 심한 瞰制와 이에 따른 部隊 露出은 공격하는 부대에 매우 불리한 지형이었다. 또한 流幅 1km의 城川江도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같은 地形條件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敵 제42사단 및 元山경비여단과 제5사단등은 元山에서 참패 당한 다음, 定平—地境里 등지에 강력한 收容부대를 殘置하여 我軍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한편, 咸興부근에서 부대를 집결하여 완강한 저항을 企圖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永興 부근에서부터는 韓半島의 地勢가 國境線까지 扇形으로 擴大됨으로써 사단의 戰術責任區域이 前과 比해 점차로 擴散되어질 뿐만 아니라 咸鏡山脈—叢馬高原을 이은 險한 山岳地帶가 가로 막고 있어서 그 진격전이 결코 쉬운 일이 못 되었다.

10월 15일 元山에서 永興으로 추진, 설치한 사단 前方지휘소에서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이와같은 여러가지 狀況을 감안하고 각 부대를 정리한 다음, 咸南의 要都인 咸興과 興南의 공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의 永興 北쪽에 대한 공격계획은 이미 하달된 陸本 作命 제212호의 제3항을 修正한 다음과 같은 10월 13일字 陸本作命 제212호(作命附錄 제12호)의 訓令 제1호에 의거하여 마련되었다.

『제1군단은 美 제10군단이 到着할 때까지 元山港을 확보하기 위하여 安邊, 龍雲里 및 龍源江 入口를 主抵抗線으로 하고, 永興을 확보함으로써 敵의 補給路를 차단하게 할 것

이며, 永興 安平—咸興 및 播種場—興南 軸線을 따라 진격하여 敵을 격멸하라.

제2군단은 元山으로 계속 前進하여 元山을 경유, 陽德—長林里—江東 軸線을 따라 平壤을 향하여 공격, 전진하되 담당 지구 내의 敵을 분쇄하고 그 南方 및 北方으로 이동하려는 敵을 차단, 격멸하라.

제2군단은 필요에 따라 제1군단 작전지역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元山점령 직전에 이미 하달된 陸本作命 제212호(1950. 10. 8)의 명령상에는 제1군단이 元山을 점령한 다음, 陽德—長林—江東—平壤 軸線으로 진격하게 되어 있고, 제2군단이 元山으로 진출하여 高原—永興—咸興 軸線으로 진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前記한 바와 같이 제1, 제2군단의 임무가 10월 13일 수정명령으로 다시 바뀌어 제1군단이 바로 北上하여 咸興方面으로, 제2군단이 陽德方面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군단장 金白一소장은 永興線에 戰線을 정리하여 제3사단을 高原 및 元山부근의 경비임무를 부여하여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을 엄호하게 하였고, 수도사단을 단독으로 北上 진격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永興에 추진, 설치된 前方사령부에서 咸興과 興南의 공격을 위해 다음과 같은 要旨의 사단 作命 제106호를 하달하게 되었다.

『元山방어선에서 退却하기 시작한 敵 제42사단 및 제249여단등은 文川—高原—定平경유, 咸興方面으로 후퇴 집결하고 있고 단대호 이상의 砲兵부대가 咸興부근에서 陣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단은 作命 제106호로서 咸興 및 興南을 공격, 점령하려 한다.

공격개시 시간은 10월 17일 13.00이며 제1연대는 興南을 공격하고 제18연대는 咸興을 공격하며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대 임무를 수행하라.』

(2) 작전실시

10월 16일 : 咸興공격명령을 받은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은 咸興공격에 앞서 敵의 주요 엄호진지를 보이는 定平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 제1, 제2대대를 先頭 공격제대로 하고 제3대대를 後續시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이날 06. 30에 차량으로 永興을 출발하여 新興里—金津江을 경유, 계속 接敵행군으로 前進하여 12. 00에 별 저항을 받지 않고, 定平에 진격한 다음, 제5중대는 첨병중대로써 定平 北쪽 4km까지 前進하여 敵情탐색과 경계에 임하고 있었고, 제6, 제8중대는 地境里로 향하는 定平 西쪽 稜線에 陣地를 점령하여 四周경계

에 임하고 있었다.

동 연대 제3대대(장, 安昊一소령)는 06.30에 三花里을 차량으로 출발하여 接敵없이 定平에 진출한 다음, 그 北쪽 168高地를 중심으로 각 중대를 배치하고 다음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으며, 제1대대(장, 李吉泳소령)는 07.00에 新興里(金津江 南岸)에서 徒步행군으로 長原에 진출한 다음, 이곳에서부터는 차량을 이용하여 定平을 경유, 14.00에 旺南里에 진출하고, 제2, 제3대대를 초월하여 16.00에는 興上面 前方 1km지점까지 진격한 즉시,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대의 진출에 따라 이날 18.00에 연대 前方지휘소도 永興市 院下里에서 定平으로 이동완료하게 되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사단 作命에 의해 高原으로부터 永興 경유, 定平을 확보하고 있다가 이날 15.00에 新興里(地境東南쪽 4km 九萬里南쪽)을 경유, 興南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었다. 연대는 興南 前方에서 敵 패잔병으로 구성된 소부대를 격파하면서 17.00에 雲南里 南쪽까지 진격하였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5일간의 元山 경비임무를 끝마치고 咸興과 興南지구에 戰力을 집결하기 위해 永興으로 부대이동을 끝낸 다음, 부대 정비를 위해 이날 하루를 보냈다.

이로써 前方에 나가있는 제18, 제1연대는 咸興과 興南을 공격, 점령하기 위한 戰術的 基盤을 확고히 造成하는 한편, 이날 수복지인 元山에서는 사단 政訓部 주최 市民慰安會를 개최하고 있었고, 趙炳玉 내무부장관이 空路, 元山에 도착하여 수복지의 後方행정에 관한 現地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10월 17일 : 사단 作命 제106호에 의해 이날 咸興—興南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이 咸興은 咸州郡 中央에 위치하여 北으로는 盤龍山이 屹立해 있고 西南에 城川江을 끼고 東南에 興南에 咸興平野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咸關嶺, 大門嶺을 바라 보아 옛날부터 교통의 要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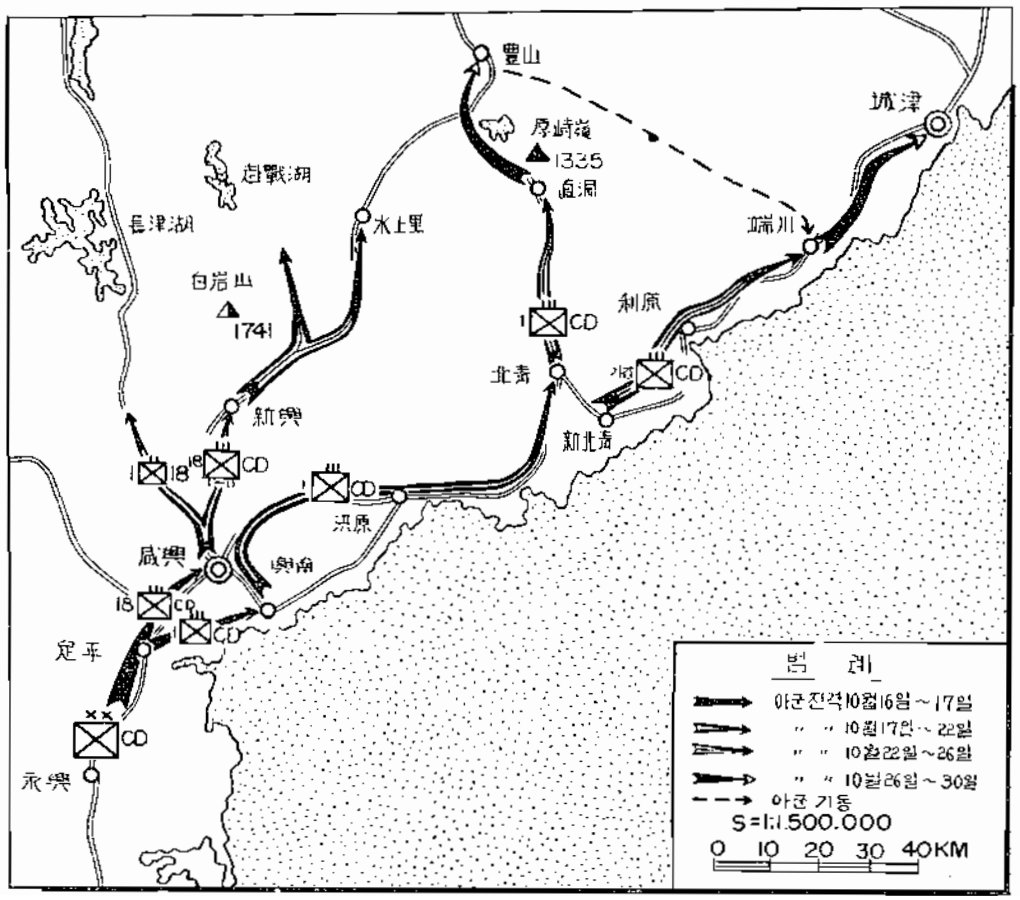
元山에서 敗走한 敵이 高原線에서 방어하려다 失敗한 다음, 이 咸興에 據點을 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또한 咸興 北쪽에는 長津湖, 赴戰湖가 있어 이의 發電所 수비를 위한 敵의 關門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興南은 本來 咸州郡 雲南面의 한 漁村이었으나, 1928년 日本人 노구찌(野口 遵)가 당시 1억 1천여만원의 자본금을 투입하여 窒素肥料工場을 건설한 후부터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고, 長津, 赴戰의 500,000kw 電力을 이용하여 肥料生産과 시멘트 生産으로 咸鏡地區의 주요 공업지대이었는데, 8.15이후 北傀가 이를 戰爭준비의 일환

으로 惡用해 왔던 지역이기도 하였다. 또 이 興南港은 약 20,000 ton의 선박이 入港할 수 있어 海上 交通에도 有利할 뿐만 아니라, 東北海岸—城津—淸津등을 結하는 地形的으로 重要한 始發關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咸興과 興南의 重要性은 敵으로 하여금 이의 死守를 必然的인 條件으로 만들고 있었던 곳이다. 그러기 때문에 敵 제42사단 및 元山경비사령부는 文川—永興 경유, 咸興과 興南北方에서 陣地를 구축하고 我軍의 진격을 강력히 저지하려 하고 있었으며, 특히 咸興 北쪽 12km지점인 五老里는 長津湖과 赴戰湖 및 黃水院湖로 通하는 三叉路로서 완강한 엄호부대가 發置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永興에 설치된 사단사령부에서는 作命 제106호로써 이날 10.00까지 咸興과 興南을 점령하도록 하고, 제18연대를 咸興 正面으로, 제1연대를 興南점령 後 그 일부가 咸興으로 迂廻

상황도 제34호 永興—咸興—城津進擊戰



北上하는 兩翼同時攻擊戰法으로 포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서 제18연대를 後續하게 하고, 사단 포병대대는 제2중대를 제18연대에, 제3중대를 제1연대에 각각 배속하고 제1중대는 예비로 控置하여 제1기갑연대에 배속시키었다.

이에 따라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이날 05.00를 기해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定平에서 興上里를 경유, 전위중대가 城川江을 건너서 咸興에 突入한 다음, 後續부대와 함께 1시간 여의 市街戰 끝에 11.30 咸興을 점령하고, 계속 殘敵을 박멸하면서 16.00에는 咸興을 北쪽에서 瞰制하고 있는 盤龍山(△318)을 점령하여 그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동 연대 제1대대(장, 李吉泳소령)는 09.00에 旺落里 陣地에서 병력을 정리한 다음, 咸興을 향해 그 左側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雲洞里에서 敵 약 1개 소대병력과 부딪치게 된 첨병중대(제1중대)는 곧 전투대형으로 散開하여 敵을 擊滅시키고, 계속해서 戰術행군으로 江西里를 경유, 14.00에 有證里에 진격하여 部落前方 일대에 공격을 가해 16.00에 이를 점령, 확보하였다. 이어 19.00에는 咸興 北쪽 富民洞 後方에서 전차 5대, 트럭 3대를 先頭로 反擊해 온 敵을 발견하자 先制 공격으로 이를 격퇴시킨 바 있었다.

또한 동 연대 제3대대(장, 安政一소령)는 이날 09.00에 東川里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12.30에 興上里를 경유, 그 北쪽 1km지점에서 연대 예비대로 약 3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연대 지시에 의해 15.10에 다시 출발하여 元興里를 경유, 17.30에 咸興에 진출하여 戰果 확대를 위한 수색전을 벌인 다음, 18.20에는 文興里 北쪽 高地에 陣地를 점령하고 야간경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咸興전투에서 연대는 다음과 같은 戰果를 거두었다.

전 과

사 살	321명(대전차 연대장 포함)	경기관총	11정
포 로	21명	중기관총	4정
노획 : 전 차	3대	소 총	492정
박 격 포	6문	기 타	다발총 다수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제18연대가 咸興 南쪽 4km까지 진격하고 있을 때, 咸興市에 있던 右翼地下組織(自治隊員)이 蜂起하여 市內에서 流動하던 敵과 육박전을 전개하는 반면, 部隊을 위시하여 市內 要所에 太極旗를 게양하고, 그동안 共產虐政에 대한 분노가 一時에 폭발하여 터질듯한 목소리로 『舊 愛國歌』를 높이 부르기도 하였으며, 이와 함께 거의 맨손으로 敵影을 찾아 擊滅에 임하였다는 사실이다.

또 한편 연대 수색대가 城川江을 건너기 전에 市內에서 요란한 銃擊戰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私服을 입은 義擊學生들이 敵과 치열한 銃擊戰을 전개하여 혹은 쓰러지면서, 혹은 물잠혀 가면서도 끝내 敵을 擊殺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咸興入口의 萬歲橋가 파괴되었으므로 연대主力의 城川江 渡河를 위해 제2대대 박격포 소대장 金昊培소위가 엄호사격을 계속하고, 그 사이에 工兵隊가 橋梁復舊作業을 강행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閃光彈雨가 交替 중임에도 불구하고 老少男女 할 것 없이 모두 市內製材所에서 板木을 들고 나와 復舊作業을 급속히 끝마치게 한 것은 그만큼 연대의 入城을 빨리하게 한 계기가 되었고, 我軍의 진격을 마음으로만 환영한 것이 아니라 銃火가 飛飛하는 戰場터에서 실제 行動으로 옮겼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눈물겨운 情景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이날 06.00에 雲南里를 출발하여 咸興을 공격하는 제18연대와 호응하여 10.00에 城川江을 渡河한 다음, 興南에 突入하고 12.00에는 여기를 완전히 점령, 확보하였으며, 오후에는 제1대대(장, 咸溶翼대위)가 咸興에까지 진출하였다.

그런데 咸興驛을 거쳐 市內에 진출하였을 때 이미 제18연대가 咸興을 점령한 다음이었으며, 제3중대장 朴鍾熙대위는 수색중대장 金鳳洙대위와 함께 咸興에 머물지 않고 다시 興南方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단 예비대로 掩置되어 있던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咸興 南쪽 5km지점의 地境里에 진출하여 그 西北쪽의 殘敵 出沒에 대한 경계에 임하고 있다.

興南 西南쪽 連浦비행장이 점령되므로서 사단은 또 하나의 戰術基地를 확보하였으며, 咸興—興南을 점령하여 韓·滿國境까지 直線거리로 160km에 肉迫하게 되었다. 敵은 咸興전투에서 敗退한 후 그 東北方과 長津方面으로 퇴각하여 再編成을 실시하려 하고 있었으며, 東海岸 沿道를 따라 퇴각한 敵은 城津—清津方面으로 철수한 것으로 보였다.

10월 18일 : 咸興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후퇴한 敵 제42사단 제249여단의 약 6,000명과 제588포병대대는 砲 3문, 전차 17대등을 아울러서 五老里 경유, 長津湖 方面으로 퇴각하고 있었으며, 제588연대 일부와 馬里훈련소 약 6,000명은 五老里에서 新興 경유, 豊山方面으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興南 東北 쪽에 있던 敵 제593부대는 洪原 경유, 羅南方面으로, 그리고 洪原에 주둔하고 있던 제10여단은 甲山方面으로, 新浦 제249여단은 惠山鎭方面으로 각각 철수하고, 그 일부는 利原을 경유, 甲山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사단은 제18연대를 長津 및 新興으로 공격케 하고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를 興南에서 洪原方面으로 공격케 하였다.

〈國軍이 咸興에 入城하자 市民들은 열렬한 환영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은 전날 咸興 탈환에 이어 계속 北方을 향해 추격전을 감행하여 長津 및 新興의 갈림길인 五老里를 優先 점령하기 위해 全力을 다하고 있었다.

즉, 제1대대(장, 李吉泳소령)는 咸興 北쪽 鳳下里 및 富民里일대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있다가, 이날 11.00에 接敵행군으로 興慶里—新東里—方峴里—雲龍里 경유, 15.00에는 現事里에 진격하여 그 後方高地 陣地를 점령하고 敵의 반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전날 陣地인 富民洞(咸興 北쪽 4km)에서 中興里까지 진출하였고, 제3대대(장, 安昶一소령)는16.40에 新溪里에 진격하여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어 연대 前方지휘소도 興上(地境)에서 咸興을 경유하여, 長興에까지 추진, 설치하고 戰線정리와 야간 경계에 임하는 한편 次期공격을 위한 준비의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또한 이날 15.00부터는 군단장 金白一소장 및 사단장 宋堯讚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全市民의 열광적인 환영리에 咸興入城式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러나 市民들은 父母兄弟의 生死조차 알 수 없는 悲痛한 마음과, 一面 국군의 進駐로 감격의 가슴으로 錯雜한 심정이었으니, 이는 北傀軍이 咸興을 후퇴하면서 약 12,000여명에 달하는 良民을 대량 학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良民을 학살하는데 있어서 그 殘忍無道한 處事는 이루 말 할 수 없었으니, 장

작으로 때려 죽이거나, 우물 속에 밀어 넣고 돌로써 壓殺하거나, 또는 손발을 묶고 등뒤에 무거운 돌을 맨 다음, 바다에 水葬하는 등, 또는 防空壕나 지하실에 감금한 채 폭파한 다음, 門을 봉쇄해 버리거나, 심지어는 구덩이를 파고 生埋葬해 버리는등 天人共怒할 온갖 수단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敵은 이미 元山을 후퇴하면서 良民 약 600여명을 학살한 바 있었거니와, 咸興에서도 무수한 良民을 학살하였으니, 그 몇가지만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咸興人民矯化所(刑務所)에서 700여명.

咸興忠靈塔 地下室에서 200여명.

咸興政治保衛部 地下室에서 300여명.

咸興北쪽 德山넉켈 광산에서 6,000여명.

咸興뒷산 盤龍山 4km에 달하는 방공호에서 수천명이 학살되었으나, 그 정확한 人員數는 대략 12,000여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납치자나 행방불명이 된 민간인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 良民의 학살은 아무리 敗戰의 분풀이로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엄청나고, 더우기나 同族에 加害한 이 野獸의 행동은 우리 後孫들이 가히 銘肝하여야 할 千秋의 恨이라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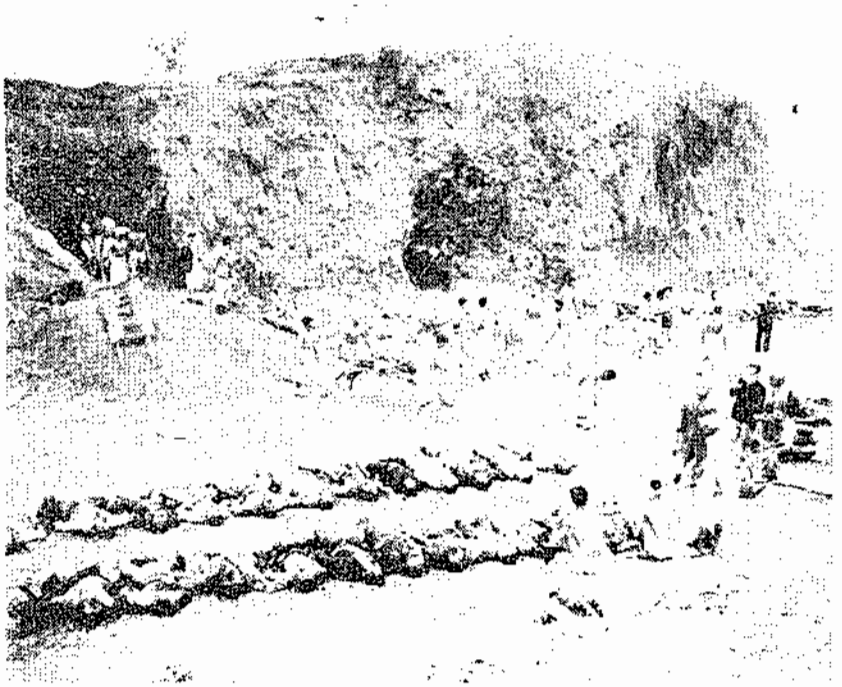
한편 興南에 진격하고 있던 제1연대(장, 韓 信중령)는 이곳에서 부대 정비를 완료한 다음, 사단 作命 제107호에 의해 文幸里 및 新興里—라삼里—洪原을 점령할 목적으로 이날 15.00에 興南을 出發하여 그 主力은 洪原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또한 사단 사령부도 이날 오후 定平에서 咸興으로 이동 완료하고 各處의 학살시체로 修羅場이 된 戰場정리에 임하고, 한편 부대 진격준비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도 咸興으로 이동하여 사단 예비대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10월 19일 :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은 前方지휘소인 長興里(五老里 南쪽 4km)에서 제1대대를 左一線, 제2대대를 右一線 공격제대로 하고 제3대대를 연대 예비대로 하고 이날 未明에 공격을 시작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장, 李吉泳소령)는 07.20에 五老里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長津湖로 通하는 街道를 追擊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1.30에는 五老里에서 8km까지 北上하여 松堂里에 이르렀을 때, 그 北쪽 高地에서 엄호부대로 보이는 약 1개 중대를 발견하고 砲兵의 지



〈咸興에서 학살 당한 愛國시민들의 시체를 방공호 안에서 발굴하고 있다.〉

원사격 아래 즉시 이를 공격, 격멸하였으며, 16.30에는 그 北쪽 東非里—把發巨里線에 진출한 다음, 陣地를 점령하였다.

제 2 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전날 陣地인 中興里에서 07.00 공격을 시작하여 10.30에는 元坪里(五老里—新興 中間)에 突入하고 陣地를 점령한 다음, 일부 병력은 부근 일대를 수색하였다.

한편 제 1 연대(장, 韓 僖중령)는 洪原을 공격할 목적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는데, 제 1 대대(장, 咸溶甓대위)는 文泰里 北쪽 일대의 殘敵을 추격, 박멸하고, 그 일대에서 前方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제 2 대대(장, 申彦國소령)는 興南에서 東海岸 沿道를 따라 공격을 계속하여 退潮灣을 향하는 中間지점인 新興里에 진출하였을 때, 제 3 대대(장, 李聖鳳대위)는 제 2 대대를 초월하여 一擧에 洪原一角까지 突入하였다.

연대 前方지휘소는 전날 興南市 文三里에서 이날 雙峰里(咸州郡 東川面)로 추진, 설치하고 진격을 지휘하였다.

10월 20일 : 군단은 元山에 있던 사령부를 이날 咸興(醫學專門學校)으로 추진, 설치하고 主로 수도사단의 咸興 東北方 진격에 대한 작전지시를 하고 있었다. 이 무렵 敵은 主로 滿浦鎭

線에 連하는 山脈지대에 잠복하여 유격전을 감행하면서 我軍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고, 그 主力은 韓·滿國境線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사단 前面의 敵은 咸興 北쪽에서 長津湖 및 赴戰湖方面으로 후퇴하는 敵과 北青에서 黃水院湖—豊山方面으로 후퇴하는 敵, 그리고 北青에서 端川—城津을 경유, 東海岸 沿道를 따라 후퇴하는 敵으로 大別할 수 있었다.

이에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제18연대를 계속해서 長津—赴戰湖 方向으로 추격하게 하고, 제1연대를 洪原까지 진격케 한 다음, 豊山方向으로 진격토록 하였으며, 端川—城津街道는 제1기갑연대가 추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1대대(장, 李吉泳소령)는 전날 陣地인 松堂里(五老里 北쪽 長津湖방향 9km)에서 東非里—把發巨里에 진격한 다음, 新興線鐵道를 따라 古土里를 향해 진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元坪場에서 興南中央部의 要地인 新興까지 진격하였다.

한편 艦戰機의 협동 아래 진격을 계속하고 있던 제1연대(장, 韓信대령)은 雙峰里 지휘소에서 각 대대를 계속 추격토록 하였는데, 제1대대(장, 咸溶奭대위)는 이날 文泰里에서 雲洞里까지 진출하였고, 제2대대는 德山關을 출발하여 龍大里까지 진출하였으며, 전날 洪原을 점령하였던 제3대대는 新浦까지 진격하여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로써 사단은 이날까지 新興, 洪原을 점령하므로써 咸興 北方 40km半徑을 완전히 席捲하게 되었고, 豆滿江을 향한 진격 작전의 衝力이 더욱 압축된 셈이 되었다.

10월 21일 : 北緯 40°線을 돌파한지 사흘째 되는 이날, 北傀 首都는 平壤에서 新義州로 옮기게 되었고, 西部戰線도 벌써 淸川江線에 육박하고 있었다.

咸興에 설치되어 있는 사단 사령부에서는 東部戰線 시찰차 급거 방문한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이 사단장 宋堯讚준장과 作戰協議의 要談을 하고 있었으며, 제1기갑연대의 北青 육박에 따라 사단 前方지휘소를 北青부근으로 前進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18연대는 제1대대(장, 李吉泳소령)가 厲田洞 부근에서 陣地를 강화하고 長津湖 진격 준비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전날 陣地인 新興 北쪽 高地에서 新豊을 향해 공격 중이었다.

한편 제1연대는 洪原에서 北青을 향해 공격 중이었고, 제1기갑연대는 사단 예비대로써 咸興 부근에서 殘敵격멸과 戰場정리에 임하고 있다가 이날 洪原으로 진출하여 北青方面의 진격작전에 임하고 있었다.

10월 22일 :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의 正面인 北靑부근에서 敵은 81mm포와 직사포 약간과 대부분 소총을 소지하고 약 600명의 병력(敵 新浦 2개 대대)으로써 지연작전을 企圖하고 있었다.

연대는 北靑 南쪽 12km지점인 二里일대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北靑을 완전점령하고, 豊山方向으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연대 前方지휘소도 潮滿潮里(北靑郡 陽北面 소재)로 前進하였다.

北靑까지 진격하였던 연대는 北靑에서 正北方向인 厚峙嶺—黃水院洞—豊山을 점령하기 위해 이날부터 그 진격방향을 東海岸 沿道가 아니라 豊山方向의 山岳 險路를 따라 진격하게 되었다. 氣溫이 零下를 오르내리고 進擊路의 地形과 道路 상태가 매우 險難하고 不良하여 이제부터 山岳 多季作戰에 對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洪原에서 新浦를 경유, 北靑으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新浦 東北쪽 潮滿潮里 北쪽에서 敵을 발견하고 이를 擊退시킨 다음, 敵 13명을 포로로하는 戰果를 세웠다.

본대의 진격에 따라 연대 前方지휘소는 洪原에서 新浦를 경유하여 이날 陽化(北靑郡 陽北面)로 추진, 설치하고 北靑을 점령한 제 1 연대가 豊山方面으로 진격하게 됨에 따라 제 1 기갑연대는 東海岸沿道를 단독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咸興 北方新興에서 전날에 이어 추격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咸興에 설치되어 있던 사단사령부도 이날 洪原을 경유, 潮滿潮里(北靑郡 陽北面)로 약진하여 부대진격에 관한 작전지시에 임하고 있었다.

10월 23일 : 사단 正面의 敵은 咸興西北方 및 甲山과 惠山鎭으로 각각 후퇴하면서 여전히 지연작전을 企圖하려 하였다. 그리고 長津方面에는 敵 제 2 사단 약 8,000명을 主力으로 하는 합류병력 11,200명 정도가 집결하여 제18연대의 長津方面 진격을 완강히 저지하려 하고 있었다.

또한 咸興戰鬪에서 패하여 北靑쪽으로 潰走한 敵 약 1개연대는 제 1 연대의 北靑돌파로 인하여 다시 豊山方面으로 分散退却하고 있었는데, 그 병력은 약 2,500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豊山에서도 敵은 계속 후퇴하여 전반적으로 敵은 韓·滿國境으로 속속 入滿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江原道 東北方에는 아직도 약 10,000~25,000명의 殘敵이 山岳지대에 散在하여 北上을 企圖하면서 民家에 침입하고 식량과 生必品을 약탈하는 상태이었다. 이를 掃討하기 위해서 제 3 사단 일부 병력이 元山에서 庫底부근으로 이동하여 게릴라化한 殘敵격멸에 임하게 되었다.

한편 北靑을 점령한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전날 北靑 南쪽 二里 공격에서 부터 계속 추격전을 감행하여 이날 15.00에는 제 1 대대(장, 咸溶翼대위)가 北靑 北쪽 5km지점까지 진출하고, 제 2 대대(장, 申彦國소령)는 長興里에, 제 3 대대(장, 李聖鳳대위)는 北靑에 있었으며, 대전차공격대(장, 朴昇河대위)는 新村에 진출하여 그 일대를 점령하고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본대가 北靑 北쪽에 진격하자 연대 前方지휘소도 富東里(北靑郡 厚昌面)로 前進하였다.

그리고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이날 12.00까지 新北靑에 진격하였고, 연대본부도 행동을 같이하여 陽化에서 新北靑으로 이동한 다음, 利原공격을 위해 部隊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다.

또한 사단 사령부도 湖浦湖里에서 이날 北靑邑으로 추진, 설치하였다.

10월 24일 :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사단 作命 제109호에 의해 黃水院里—豊山을 거쳐 洪君 제 1 발전소를 점령할 목적으로 진격하게 되었는데, 이때 敵은 北靑郡과 豊山郡의 郡界地域인 厚峙嶺(△1335)의 險한 隘路와 高原地帶에서 완강한 방어陣地를 구축하고 연대의 豊山 및 洪君 점령을 위한 진격을 극력 막아 내려 하였다.

이 일대에 전초 엄호부대로 배치된 敵은 羅南 제586部隊와 保安署員등 혼합부대로써 82 mm 박격포와 61mm박격포 및 직사포, 重기관총, 다발총 등으로 장비된 1개 대대 600여명의 兵力으로 추산되었다. 厚峙嶺의 아주 불리한 地形과 이와같은 敵情 때문에 연대장 韓 信대령은 興南점령 以後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을 감안하고 厚峙嶺 돌파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즉 제 1 대대(장, 咸溶翼대위)는 下直洞까지 진출하여 부대 정비를 겸한 野營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 2 대대(장, 申彦國소령)는 上直洞에서 敵 1개 중대를 발견하고 이를 擊退시켰으며, 제 3 대대(장, 李聖鳳대위)도 上直洞까지 진출하여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전차공격대(장, 朴昇河대위)는 北靑에서 예비대로 控置되었고, 야포대대는 제 2 대대를 직접지원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연대는 이날 厚峙嶺 突破를 위한 예비陣地 점령과 부대 정비를 강화하고 있었다.

한편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이날 연대 작전지시 제23호에 의해 新北靑에서 利原으로 진격하여 그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그리고 이날 연대장 白南權대령은 육본특명 갑 제209호(10월 23일부)에 의하여 수도사단 부사단장으로 轉任되었고, 그 後任에 계속 참전해 왔던 부연대장 金東洙중령이 연대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10월 25일 : 제 1 연대는 전날 陣地인 下直洞—上直洞 일대에서 이날도 厚峙嶺 공격을 위해 준비 중이었으며, 연대본부도 直洞으로 前進하여 전반적인 작전지시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제 1 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이날 19.00에 端川을 완전히 점령하여, 城津공격에 앞서 가장 難關으로 보이는 摩天嶺 공격준비에 임하는 한편, 先頭부대는 端川 부근일대의 수색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咸興 北方에서 계속 추격전을 전개하고 있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은 연대 지휘소를 五老里 南쪽 長興里에서 新興(咸南 新興郡廳소재지)으로 약진시키고, 이날 蹴田洞 부근에서 제 3 사단 제26연대와 陣地를 교대한 제 1 대대(장, 李吉泳소령)는 다시 五老里를 경유, 新豊으로 진출하였고, 제 2 대대(장, 金鳳翔소령)는 慶興里에서 赴戰湖方面의 공격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며, 제 3 대대(장, 安昶一소령)는 이날 06.00 五老里로 부터 徒步행군으로 中陽里까지 진출한 다음, 이곳에서는 차량으로 진출하여 16.00 新豊里 北쪽 4km지점까지 진출, 富興里에서 2개 소대규모의 敵 병력을 발견하여 30分에 걸친 사격전으로 敵을 격멸, 퇴각시켰다.

10월 26일 : 厚峙嶺을 공격 돌파하기 위한 제 1 연대의 작전은 제 1 대대(장, 咸溶翼대위)가 厚峙嶺을 포위공격하고, 제 2 대대(장, 申彦國소령)는 正面공격하기 위해 목표 2km지점까지 근접하여 陣地를 점령케 하였으며, 제 3 대대(장, 李聖鳳대위)는 直洞부근 각 高地에서 後方경계를 위해 배치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 2 대대는 제 1 대대의 迂廻, 포위공격에 호응하여, 야포대대의 직접지원을 받으면서 正面공격을 전개하여 厚峙嶺일대의 敵 제586부대와 保安署員 및 노동당원등 약 600여명과 근접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敵은 최후까지 육박전으로 대항하였으나, 끝내 제 1 대대(장, 咸溶翼대위)와 제 2 대대(장, 申彦國소령)의 포위와 돌파작전에 못 이겨 그 銳鋒이 꺾여진 다음부터 일부 패잔병은 左右 山岳으로 散在潛入하거나, 豊山方面으로 패퇴하였지만, 동 地域의 敵勢가 완전히 擊碎되지 않아 하루 종일 산발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제 1 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전날 점령지인 端川에서 城津을 향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무렵 敵은 그 主力이 城津—吉州방향으로 퇴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강력한 收容부대로 보이는 敵 약 1개 연대규모의 병력이 端川—城津 중간의 천연적 要衝地인 德山里 摩天嶺 中腹에서 砲陣地를 구축하고 완강한 방어와 지연전을 企圖하고 있었다. 특히 敵 약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은 박격포, 重기관총, 기타 火器로써 摩天嶺 中腹 稜線에

前哨防禦陣을 구축하고 연대의 진격을 지지하려 하였다.

이에 연대는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를 전위 공격제대로 하고 제1 및 제2대대를 이에 지원케 하면서 서서히 北上시키고 있었다.

한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이날 연대 前方지휘소를 新興에서 新豊里(新興郡 下元川面소재)로 추진, 설치하고, 黃水院洞方面으로 진격하기 위해 火蝶峙(불거미재)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火蝶峙는 新豊里에서 水上里를 넘어가는 海拔 1,000~1,500m의 高原지대의 재(峙)로서 25km나 되는 굴곡부가 아주 심한 고개이다. 咸鏡道 山岳지방은 어느 곳에 가거나 큰 峙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 火蝶峙도 역시 그와 같은 高地群에 못지 않게 높고, 길고, 험한 고개로 되어 있었다. 이런 山岳戰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바 있었던 연대는 赴戰湖 方向의 白巖山—赴戰嶺부근에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를 진출, 공격시킨 것에 비해 이 火蝶峙 공격은 제3대대(장, 安岐一소령)로 공격하여 돌파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火蝶峙 南쪽 下麓인 文星里에서 이날 08.30에 출발하여 敎洞里 北쪽 1km지점까지 진출하였을 때, 대대 수색대가 敵情을 탐지하고 이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즉 제11중대는 道路 左右側 兩便으로 나누어 진출하고, 제9중대는 道路上으로 突進하여 6시간 30분에 걸친 攻防戰 끝에 敵의 前哨방어선을 격파하고, 계속 險路를 진격하여 오후 늦게 火蝶峙를 완전히 돌파한 다음, 그 北쪽 下麓의 水上里까지 진격하여 그 부근 일대를 완전점령하고, 야간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10월 27일 : 제1연대는 전날에 이어 摩峙嶺에서 계속 殘敵을 擊滅하고 있었는데, 제1, 제2대대의 협동작전으로 2일만에 이 지역을 완전히 확보하고, 제2대대는 여세를 몰아 계속 黃水院里로 진격하여, 이날 오후에 이곳을 점령완료하고,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咸洞에 경계배치되어 있던 동연대 제3대대도 이날 黃水院에 진출하여 豊山점령을 위해 戰力을 집결하고 있었다.

한편 城津을 점령하기 위해 진격 중, 摩天嶺에서 敵과 對峙하고 있던 제1기갑연대는 그 中腹 부근에서 敵 2개 대대규모의 병력을 발견하고 交戰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敵 數米詳의 증강부대가 도착되어 전투는 점점 가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연대는 배속된 야포대의 강력한 지원화력을 받으면서, 최고능선을 향해 공격선을 계속 압축하여, 드디어 交戰 5시간만인 이날 17.00에 城津을 굽어보는 摩天嶺 최고능선(△873)을 점령하고, 同 능선에 陣地를 점령하여 야간경계에 임하는 한편, 次期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때 敵은 많은 시체를 유기한 채 城津—吉州方面으로 分散 退却하였는데, 이날의 종합전

과는 다음과 같다.

戰 果			
적 사 살	190명	차 량	3臺
포 로	72명	MI	2정
노획 : 차 량	3臺	소총실탄	듬
소 총	150정	손 실	
다 발 총	16정	진 사	1명
82mm 박격포	2문	부 상	4명

그리고 연대 前方지휘소도 豐天嶺入口의 斗茂洞까지 약진하였다.

한편 제18연대는 水上里와 홍천리 일대에서 이날도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면서 추격을 멈추지 않았는데, 제3대대는 전날에 이어 水上里 부근에서 계속 平山里를 향해 진격 중이었고, 제2대대는 赴戰湖方向으로 계속 진격하여 이날 白嶽山—赴戰嶺(新興—赴戰湖中間)까지 진출한 다음, 陣地를 점령하고 敵情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동 연대 前方지휘소는 이날 제3대대의 進擊路를 따라 火蝶峙를 넘어 水下里까지 약진하였다.

10월 28일 : 10월下旬에 접어든 이 무렵,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寒冷한 高氣壓으로 氣溫은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山岳의 공격작전은 결코 유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날까지 咸南의 主要據點을 점령하게 되고, 특히 제1연대가 咸鏡山脈에, 제18연대가 蓋馬高原地帶에, 그리고 제1기갑연대가 豐天嶺山脈에 각각 올라서게 되자 韓·滿國境까지의 진격이 目睫之間으로 닥아오게 되어 장병들의 士氣는 寒冷期의 夏服차림에도 불구하고 날로 高潮되었다.

이 무렵 사단 正面의 敵은 國境線까지 철수하면서도 東쪽으로부터 城津과 豊山 및 赴戰湖—長津湖 南端에서 각각 집결하여 사단의 진격을 완강히 저지하고 지연전을 감행하려 하였다.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전날 厚峙嶺공격에 이어 黃水院里를 점령한 다음, 豊山에서 반격을 企圖한 200명 규모로 추산되는 敵이 박격포 重기관총등으로 끝까지 향진하였으나,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의 激戰으로 敵은 潰走하여 甲山方面으로 퇴각하였고, 이에 豊山을 점령한 연대는 그 일대의 경비와 아울러 洪君方面으로 진격방향을 돌려 그 추격전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또한 洪君 제1발전소를 경비하기 위해 제2대대 제9중대가 洪君에 진출하여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이날 未明을 기해 城津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鷲天嶺에서 퇴각한 敵이 城津에 주둔하고 있던 敵 제507부대의 主力과 합류하여 城津西北方 鶴城洞 高地부근에서 방어陣地를 구축하고 砲 지원 아래 城津을 방어하려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연대장 金東洙중령은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을 右一線 공격대로 삼고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를 左一線 공격梯隊로 삼아 城津을 점령하려 하였다.

즉 제1대대장의 세부 작전계획으로 『대대는 연대 先鋒隊로써 市 東南쪽 高地를 점령한 다음, 鶴城洞方面에 진출하고, 그 중 제2중대(장, 金正燮소위)는 대대의 先鋒隊로서 城津에 향하는 主 보급로를 점령하는 동시에, 중간에 위치한 모든 高地를 制壓한다. 同 高地가 점령, 확보되면 市內의 敵을 擊滅하고, 다시 市 西北쪽 高地를 계속 점령한다.

제1중대(장, 崔乙洙소위)는 대대의 左側 공격梯隊로 城津市에 진출하면 연대 左側 공격梯隊인 제3대대와 공격선을 연결하여 市 西北쪽 高地를 점령한 다음, 鶴城洞 西北方 高地를 점령한다. 제3중대(장, 李元春소위)는 대대의 右側 공격梯隊로 市內에 突入한 다음, 市內 수색을 철저히 하고, 특히 吉州에 이르는 主補給路의 兩側을 점령하고, 重火器中隊(장, 崔元雨소위)는 필요에 따라 즉시 지원사격할 태세를 갖춘다.』

이와같은 계획 아래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는 전날 陣地인 鷲天嶺 875高地에서 이날 04.00에 출발하여 875高地 下麓에서 1개 소대규모의 敵 병력이 저항을 매설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사격을 가하여 이들을 패퇴시키고, 제2중대(장, 金正燮소위)가 先頭가 되어 城津 前方에 돌입하였다. 이때 敵은 市 後方高地에서 砲로써 심한 사격을 가하였으므로 일시 공격이 주춤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배속된 野砲隊도 敵 砲陣地에 치열한 포격을 퍼부어 일시 砲火戰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이날 오후 18.00에야 市 西北쪽 高地를 점령하고 陣地강화와 야간 역습에 대비하여 경계배치를 엄중히 하고 있었다.

한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의 제3대대(장, 安晛一소령)는 水上里 北쪽에서,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白嶽山 北쪽에서 각각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2대대는 이날 06.30에 退水洞(白嶽山 西北쪽 3km)에 陣地를 점령하고 있던 제6중대 前面에 반격을 企圖하는 敵을 발견하는 즉시로 이를 격퇴시킨 바 있었으며, 차후 상황을 감안하여 陣地를 1,740高地(白嶽山)로 옮기고, 그 일대를 확보 중이었는데, 15.00에 이르러 또 다시 敵의 반격이 있어 2시간의 교전 끝에 이를 완전히 潰散시켰다.

그런데 同 대대의 前面인 元豊里(赴戰湖 南쪽)에 단대호 米詳의 敵 약 500명과 咸知院부근에 약 300명의 敵이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元豊里 부근에 中共軍 전초

부대 약 500명이 出現하여 최초로 中共軍과 接戰하게 되었다. 연대는 계속 接敵행동을 강화하는 한편, 中共軍 침입이라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10월 29일 : 이날 敵軍의 상황을 보면 제18연대 正面인 赴戰湖 南端에서 증강된 1개 연대 규모의 병력과 中共軍 약 2개 연대병력이 反擊을 企圖하고 있었고, 제1연대 正面의 敵은 豊山에서 三水方面으로 퇴각하였고, 제1기갑연대의 正面인 城津 北方 高地에서 전초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었고, 吉州—淸津方面으로 主力은 철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敵의 정규군은 國境을 거점으로 사단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고, 그 일부는 白頭山을 沿하는 狼林山脈을 타고 後方에 침투를 企圖하려 하였다.

한편 UN軍 상황으로는 이날 美 제7사단이 利原에 上陸하여 동 사단 제17연대가 上陸 즉시 豊山으로 前進, 惠山鎭 공격을 위해 험한 山岳 협곡을 따라 진출하고 있었다.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豊山—洪君을 점령하고 있다가 美 제7사단의 利原 上陸으로 전투지경선이 변경되어 惠山鎭方面의 진격임무를 美軍에게 인계하고, 연대는 東海岸方面으로 진출하기 위해 端川으로 향하는 도중, 이날 古城까지 진출하였다.

즉, 제1대대(장, 咸溶翼대위)는 黃水院里 경유, 古城에 진출하였고,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역시 古城에 진출하여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는 美 제7사단 後續대가 도착할 때까지 豊山 경비임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연대 前方지휘소도 이날 直洞에서 古城里로 본대를 따라 이동완료하였다.

한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전날 城津 外廓 西北野山을 점령하고 있다가 이날 04.00에 공격을 시작하여 城津 西北쪽 高地에서 砲지원 아래 저항하는 敵을 격퇴하고, 그 高地를 점령, 확보한 다음, 개활지를 약진하여 鶴城洞 西北쪽 高地의 右側부터 점령하고, 90.00에 城津市—鶴城洞 西北쪽 外廓의 敵 主力을 완전히 擊滅함으로써 치열한 城津공격이 끝나게 되었는데, 이날 오후 확인된 戰果는 다음과 같았다.

戰 果		작 사 로	4문
적 사 살	135명	82mm 박격포	7문
포 로	60명	다이나마이트	3箱子
귀 순	48명	수 류 탄-3箱子	馬匹3頭
노획 : 소 총	75정	손 실	
輕기관총	6정	전 사	5명
重기관총	2정	부 상	30명

한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1대대가 赴戰湖 南쪽 退水洞과 白巖山

(△ 1740)및 赴戰湖 北쪽 일대에서 계속 敵과 대치상태로 交戰 중이었고, 제 3 대대는 火蝶峙 北쪽인 水上里 北쪽에서 敵을 추격하고 있었다.

10일 30일 :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前方지휘소인 端川에서 美 제10군단의 長津湖 및 豊山지구 전투 참가로 인한 戰線정리에 임하고 있었는데, 제 1 기갑연대는 城津점령 이후 계속 吉州방향으로 추격시키고 있었고, 제 1 연대는 豊山에서 端川으로, 그리고 제18연대는 赴戰湖 -水上里일대에서 咸興北쪽 西陽里로 각각 이동시켜 吉州—清津 方面의 추격전에 가담케 할 계획이었다.

이 무렵 제 1 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城津 北쪽 3km지점의 鶴城洞 부근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다음 작전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이날 吉城에서 端川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또한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赴戰湖 南端과 火蝶峙 北쪽 水上里 일대에서 陣地를 강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 1 연대의 安康 良洞戰鬪부터 豊山戰鬪의 종합전과는 다음과 같다.

전 과	
적 사 살	장교 8 명, 사병1620명,
포 로	장교15명, 사병509명
부상포로	175명
귀 순 병	7 명
노획 : 소 총	377정
소총실탄	1,300발
다 발 총	154정
M 1	21정
重기관총	28정
동 실 탄	5箱 및 5,750발
자동소총	6정
동 실 탄	2箱
120mm박격포	2문
82mm 박격포	6문
61mm 박격포	7문
적 사 포	16문
동 실 탄	50箱
野 砲	13문
대전차포	4문
대전차지뢰	120개
로 켓 포	5문
무 전 기	5대
전 화 기	18대
폼 파 스	1,000개
GMC 차량	18대
GMC 파괴	12대
짚 車	4대
九九式소총	15정
동 실 탄	115상자
수 류 탄	346발
동 실 탄	50상자
손 실	
부 상	장교 1 명, 사병 42명
전 사	11명

라. 진투 후의 개황

10월 16일 定平공격부터 시작된 수도사단의 咸鏡南道 一帶 진격전은 제18연대의 10월 17일 咸興 점령을 위시하여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의 豊山과 城津점령은 10월 30일까지 모두 완료되었다.

계속해서 吉州—明川等地를 공격하기 위해 同月 29일에는 사단사령부를 端川으로 추진시키고, 次期 작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豊山에서 10월 31일 端川으로 이동을 완료하고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도 水上里에서 西陽里(咸興北쪽 8km)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으며, 제1연대는 明川—清津지구 전투에 참가할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있었다.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城津을 점령한 다음, 그 北쪽 鶴城洞까지 진격하여 사단 最前方에서 次期 작전을 위한 陣地강화 및 敵情을 탐색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를 美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빈게부대(Flying Column)』이라고 칭하였고, 그 추격속도가 너무나 빨라 美 제7사단의 전술항공통제반이 海上에서 통제하고 있었다.

제1연대와 제18연대가, 上陸해 온 美 제10군단 예하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에 전술지역을 인계하고, 각기 담당지구에서 이동하게 된 것은 사단의 東海岸 沿道를 따라 豆滿江까지 진격하기 위한 部隊轉進 및 戰力集結의 一端이었던 것이다.

이 무렵 사단 正面의 敵은 城津戰鬪에서 큰 打擊을 받은 이래 吉州—明川으로 철수하면서 如前히 要所要所에 엄호부대를 殘置하여 사단의 진격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었다.

§參戰者의 證言

◇ 제1연대 제3중대장 朴鍾熙

(1966. 3. 23 陸本에서, 대령)

興南에서 洪原을 경유, 北青까지 진격한 다음, 北青에서는 방향을 바꾸어 豊山方面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北青과 黃水院의 中間지점에 위치한 原峙嶺 공격 때 敵의 저항을 많이 받았고, 高原地帶인데다가 눈보라가 세차서 작전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原峙嶺과 把發里에 2일간의 전투를 마치고 黃水院里로 진격하였는데, 이 무렵 敵은 海軍士官學校 후보생을 포함한 新兵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중대는 黃水院里에서 豊山으로 향하지 않고 東쪽 高原地帶를 넘어 洪君에 진출하였으며, 거기에서 徒步로 端川까지 이동하였는데, 豊山지구의 작전은 美 제7사단에 인계하고 사단의 東北海 沿岸道를 공격하기 위한 기동이었다.

◇ 제18연대 제2대대 소대장 金顯稷소위

(1965. 11. 26 합참대학에서, 중령)

咸興 北쪽 五老里에서 長津湖 方面으로 가는 中間인 삼거리 부근에서 敵 1개 사단 병력과 대치하여 3일간을 방어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元興里 못 미쳐 高原地帶(赴戰嶺) 전투 후에 中共軍이 侵入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新興發電所를 경비하기 위해 소대를 이끌고 하룻동안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咸興方面으로 다시 집결하여 吉州方面으로 진출하였다.

◇ 제18연대 제3대대 정보장교 朴子鎭

(1967. 6. 13 제3관구사령부에서, 대령)

永興부근 국민학교와 방공호에서 敵에게 학살당한 시체를 많이 보았다. 한 敎室에 약 50명씩 7個敎室이 시체로 쌓여 있고, 방공호에도 학살시체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살아 있는 사람이 없을까?"하고 확인해 본 결과 한 사람이 살아 있었다. 생존자의 말에 의하면 교실과 방공호에서 무차별하게 총살했다고 하며, 사용가능한 신발과 옷을 다 벗겨 갔다고 한 것을 들었다.

◇ 수도사단 작전처 보좌관 權泰日중위

(1965. 12. 10 국방대학에서, 대령)

永興에 진격하였을 때 咸興方面에서 내려오던 피난민의 말에 의하면 刑務所에 갇혀 있는 右翼人士들이 많이 희생 당하는 것을 보았으나, 빨리 入城해야 그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다음날 咸興이 점령되자 刑務所에 가 보았더니 이미 무참하게 학살 당한 뒤이었고, 특히 우물 속에 사람을 빠뜨린 다음, 돌로 학살해 버린 비참한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咸興 뒷山의 방공호에도 형무소에서 끌어 내어 무차별하게 학살해 논 시체를 많이 보았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사단 後續부대가 이런 학살시체를 정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2. 元山—咸興地區 平定戰 (50년 10월 16일부터 50년 11월 5일까지)

참조 : 작명부록 제1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1군단 장 소장 金 白 一
제3사단 장 준장 李 鍾 贊
제22연대 장 대령 金 應 華
제1대대 장 대위 李 昌 運
대위 金 相 均
(10. 28교대)
제2대대 장 소령 吳 延 錄
제3대대 장 소령 鄭 淳 珉
제23연대 장 대령 金 漆 舜
제1대대 장 소령 金 尤 榮
제2대대 장 소령 文 泰 俊
제3대대 장 소령 許 宇 淳
제26연대 장 대령 李 致 業
중령 徐 延 哲
(11. 6교대)

제1대대
제2대대
제3대대 장 소령 殷 碩 杓
배속부대
제11포병대대
제3야전공병대대
사단수송중대장 소령 洪 斗 鎬
병력 : 약 11,000명
장비 : 60mm 박격포 52문
81mm 박격포 34문
3.5inch 로켓트포 23문
57mm 대전차포 11문
105mm 곡사포 12문

敵 軍

水洞—小頭流山—馬轉里—虎底일대에 출몰한 敵 패잔병으로 조직된 遊擊隊 및 敵 兵團등임

나. 전투 전의 개황

제3사단은 10월 8일 이후 수도사단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10월 10일에는 元山 西南 수에 있는 敵의 저항선을 돌파하고 元山市街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 10월 15일까지는 松田半島—永興—高原—新昌里—馬轉里—安邊을 연결하는 元山 西北方의 外郭線을 확보하였다.

敵軍의 상황 : 元山에서 지향한 敵 제5사단과 제42사단, 제12사단 및 元山경비 제2여단등의 병력도합 20,000명은 두 路線을 따라 퇴각하였다.

곧 敵의 主力부대는 定平—地境里등지에 강력한 收容부대를 設置하여 我軍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한편, 咸興에서 부대를 다시 집결하려는 企圖였고, 일부는 平元街道를 따라 후퇴하면서 馬息嶺—陽德사이에서 我軍의 平元線 진격을 지저코자 하였다. 그리고 洛東江에서의 총반격작전이 개시된 이래, 我軍의 급속한 진격으로 미처 후퇴하지 못한 敵 패잔병들로 구성된 유격대와 收容集團은 大關嶺—斷髮嶺—馬息嶺을 잇는 太白山脈과 馬息嶺山脈등 山岳지대를 근거로 江陵—注文津—高城—通川—新浦—馬轉里등 我軍의 주요 後方지역에 침투하여 後方교란과 補給路 차단을 감행하려 하였다.

我軍의 상황 : 韓國軍 제1군단이 東海岸을 따라 元山을 목표로 北進하고 있을 무렵, 東京의 MacArthur 사령부에서는 美 제10군단으로 하여금 10월 15일을 기하여 元山에 上陸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0일 제1군단이 元山을 탈환과 동시에 착수한 제7연합기동함대의 元山港 기뢰제거작업은 海空軍의 협동하에 진행되고 있었다. 제3사단은 수도사단과의 元山지구 일대의 敵을 섬멸하고 10월 15일 현재 제22연대의 제1, 제2대대는 元山부근과 安邊을 경계하고 있었고, 제3대대는 新浦에서 後方경계를 담당하였으며, 제23연대의 제1, 제2대대는 秀德里에 집결하였고, 제3대대는 德源—陽德間의 馬息嶺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의 主力은 高原에 집결하여 龍興江일대의 방어선을 확보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은 이날 현재 제18연대를 先頭로 咸興 및 興南을 목표로 진격하여 永興을 경유한 다음, 定平 南쪽 金津江線을 돌파하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元山地區 平定戰(10. 16~10. 26)

(가) 작전계획

사단의 元山지구 平定戰에 관한 작전계획의 수립은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을 전제로 하였다.

첫째, 戰線의 伸張에 따른 前進부대의 後方경계 및 보급로 확보를 해결해야만 하였고,

둘째는 中西部戰線의 平壤탈환전진격전에 대한 右側方을 엄호하는 것이며,

세째는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10월 13일 육군본부가 하달한 작전명령 제212호 訓令 제1호(作命附錄 제12호)에 요약되고 있었다. 즉, 『제1군단은 美 제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元山港을 확보하기 위하여 安邊—龍浦里—龍灘里—龍灘江 河口에 걸친 線을 主抵抗線으로 하고 永興을 확보함으로써 敵의 보급로를 차단할 것이며, 文川—永興—清平(定平)—咸興 및 播春場—興南 輸線을 따라 진격하여 敵을 섬멸하라.

제 2 군단은 元山으로 계속 前進하여 元山을 경유, 陽德—長林里—江東 軸線을 따라 平壤을 향하여 공격, 前進하되 당담지구 내의 敵을 분쇄하고 그 南方 및 北方으로 이동하려는 敵을 차단, 격멸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 1 군단장 金白一소장은 命令하기를 『제 3 사단은 元山과 그 부근 일대를 경계하는 동시에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을 지원하라. 수도사단은 永興—定平—咸興 및 播春場—興南 軸線을 따라 진격하여 敵을 섬멸하라.』는 要旨의 作命 제115호를 하달하였다. 이를 근거로하여 사단장 李鍾贊준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게 되었다.

『1. 제22연대는 1개 대대를 元山市 警備部隊로 命하여 元山市의 경비임무를 담당케 하고, 1개 대대는 地境里에서 葛麻비행장과 安邊을 경비케할 것이며, 1개 대대는 厚底에 배치토록하라.

2. 제23연대는 1개 대대로 하여금 永興灣을 경비케 하고 1개 대대는 於雲里에, 1개 대대는 馬轉里에 배치하라.

3. 제26연대는 1개 대대를 地境里—豊田里間에, 1개 대대는 地境里—圓場洞間에 각각 배치하고, 나머지 1개 대대는 高原일대에 배치하여 부근의 경계에 임하게 하라.』

(나) 작전실시

10월 16일 : 元山지구의 경계임무를 띤 사단의 각 연대는 이날 다음과 같은 지역별 경계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곧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元山을 중심으로 葛麻비행장—厚底—安邊線에 중점적으로 부대를 배치하여 元山의 남부지역을 담당하였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永興灣의 北岸인 虎島半島—秀達里線과 平元街道上의 馬轉里線을 연결하는 元山港의 外廓線을 경계하였으며, 제25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제23연대의 北側, 高原을 중심으로 한 文川—高原—永興지구를 경계함으로써 首都사단의 後續부대와 연결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제22연대는 제 2 대대(장, 吳正錄소령)를 元山市 警備部隊로 命하여 市內에 주둔시켰고, 제 1 대대(장 李昌運 대위)는 地境里에 배치, 葛麻비행장과 安邊에 각각 1개 중대씩 파견하여 부근의 경계임무에 당케하였다. 그리고 제 3 대대(장, 鄭淳銀소령)는 계속 厚底에 주둔시켜 군단보급소의 경비임무와 敵의 퇴로를 차단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의 제 1 대대(장, 金光榮소령)는 08. 00 秀達里에서 출동하여 15. 30에 永興灣의 東北端에서 南으로 길게 뻗어 내려 있는 虎島半島에 진출하여, 美 제10군단의 元山港

掃海作戰을 방해하는 敵兵을 섬멸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연대본부와 함께 秀道里로 부터 이날 12.00에 於雲里로 이동하였다. 또 제3대대(장, 許亨澤소령)는 馬轉里로 이동하여 敵의 퇴로와 보급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平元線을 경계하고 있었다.

한편 제26연대는 제1대대를 地境里—豊田里間에 제2대대를 高原일대에, 그리고 제3대대(장, 殷碩杓소령)를 地境里—圓場洞間에 각각 배치하여 부근일대의 경계임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날 포병대대는 龍潭里에 주둔하였으며, 그 傘下 제2중대는 文坪里에 位置한 사단사령부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공병대대도 文坪里에 집결하고 있었는데, 이날 밤 공병대의 朴永根중위는 사병 5명을 대동하고 부근일대에서 수집한 10kg의 지뢰 1,000개를 한곳에 모아 놓고 처리하기 위하여 200m 떨어진 곳에서 소총으로 사격하였다. 그러나 지뢰의 연쇄적 폭발력은 이외로 강대하여 그 폭음으로 3km 거리에 위치한 咸南道廳의 유리창이 산산히 부셔졌고, 따라서 朴永根중위와 5명의 사병도 폭사하는 대불상사를 빚었다.

그리고 이날 제3군단과 제1유격단이 새로 창설되었으니, 총반격작전 이래 軍의 급격한 前進으로 퇴로를 차단 당한 敵의 대부대가 後方지역의 山岳을 거점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군의 작전에 많은 차질을 야기하고 있어 보편적인 병력 증강책에 앞서 이를 토멸하기 위한 작전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은 8월 27일 제11사단을 창설한데 이어 10월 1일 大邱에서 제5사단을 재편하여 이 양개 사단으로 이날 제3군단을 창설케 되었다. 동군단은 襄陽—麟蹄—春川—서울線 以南지역에서 잔비를 討滅하고 敵 유격대를 분쇄하는 임무를 담당케 되었거니와, 이와 동시에 5개 대대(1, 2, 3, 5, 6대대) 병력으로 편성한 제1유격단을 창설하여 그 以北지역의 敵 유격대를 격멸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군의 작전계획은 前進부대 後方과 연결하는 유기적 종심형성을 企圖한 것이었다.

한편 이날 元山港에는 機雷의 掃海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美 제10군단 참모부장 William J. McCaffrey 중령은 金浦飛行場에서 空路, 元山으로 군단의 前方지휘소를 移設하였고, 사단의 元山지구 방어를 배경으로 수도사단의 전방력은 咸興을 목표로 前進하고 있었다. 곧 先頭부대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定平에 진출하였고, 제1연대(장, 韓信중령)가 後續하였으며, 사단사령부와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永興에 진주하였다.

10월 17일 : 전날에 이어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元山—葛麻비행장—厚底—安邊지역을,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文川—高原—永興지역을 각각 담당하여 경계 임무를 수행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편 虎島半島에 출동한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의 제 1 대대(장, 金光榮소령)는 이날 15.00까지 敵 사살 6명을 비롯하여 鹵武소총 10정, 직사포 2문, 200ton급 함정 1척 기관포탄 80상자를 노획하는 등의 戰果를 획득하고 於雲里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永興灣의 掃海작전과정에서 敵의 海岸砲擊 및 不意의 기습에 의한 위협이 除去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 2 대대(장, 文泰俊소령)는 於雲里에 제 3 대대(장, 許亨淳소령)는 馬轉里에서 각각 平定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江陵에는 3,000명 규모의 敵이 침입한 뒤 注文津으로 北上하고 있었으며, 이곳 文川 西쪽 12km 지점에 있는 小頭流山에도 900명의 敵이 출몰하였다.

한편 이날 元山에서는 제 1 군단의 全장병들에게 李대통령의 극진한 致賀가 있었고, 국방장관 命에 의하여 전사병들에게는 또한 1계급 특진이라는 영예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咸興을 점령하였고, 제 1 연대(장 韓 信중령)는 그 南쪽 興南을 점령하여 부근의 경계에 임하였다.

10월 18일 : 어제 小頭流山에 적지 않은 敵이 출몰한다는 보고에 접한 사단은 이날 高原일대를 경계 중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로 하여금 이를 平定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대장의 작전지시를 받은 제 2 대대는 급거, 高原에서 출동하여 地境里—大狗尾 龍堂里—新豊里街路를 前進, 小頭流山의 敵을 兩面으로 포위, 공격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2,300명으로 추산되는 殘敵은 山岳지대를 따라 鐵石山(小頭流山 南쪽 6km)으로 潰走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제 江陵에 침입하여 注文津으로 北上하고 있던 敵은 이날 我軍의 포위, 섬멸을 피하기 위하여 太白山脈일대로 잠입하고 말았다.

이날 사단의 각 연대 중 小頭流山으로 출동한 제26연대 제 2 대대를 제외한 다른 부대는 모두 전날의 배치지역에서 그간 38°線을 돌파하여 元山을 탈환하기까지 돌아 볼 여유를 갖지 못했던 부대정비를 위하여 13.00부터 사단장 주관 하의 軍裝檢査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날 永興灣에서는 美 해군의 掃海作業을 지원하던 우리 해군함정 2척이 機雷에 부딪혀 한척은 기관이 정지되고 또 한척은 침몰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단 기일에 어려운 작업을 급속히 처리하려는데서 발생하는 사고였기 때문에 美 해군의 Strubble 제독은 10월 20일로 결정된 上陸日을 掃海작업이 끝나기까지 좀더 연기할 것을 건의 하였던 바 MacArthur 元帥와 Joy제독은 모두 이 건의에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永興灣의 掃海작업은 사간적인 여

유를 갖고 서서히 진척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한편 이날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長津湖와 赴戰湖를 목표로 北으로 진격하여 新興里(咸興 北쪽 10km)에 진출하고, 제 1 연대(장, 韓 信중령)는 洪原을 향해 진격 중이며,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와 사단사령부는 각각 咸興으로 이동하였다.

10월 19일 : 어제에 이어 사단의 각 연대는 軍裝檢査를 받고 있었는 데, 이날은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가 受檢을 완료하였다.

한편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五老里를 점령한 뒤 제 1 대대는 左廻轉하여 松堂에 진출하는 동시에 長津湖로 향하였고 제 2 대대는 右廻轉하여 元坪里에 진출한 다음, 赴戰湖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그리고 제 1 연대(장, 韓 信중령)의 제 1 대대는 文泰里에 제 2 대대는 新興里에 각각 진출하고 제 3 대대는 洪原을 점령하였으며, 제 1 기갑연대와 사단사령부는 咸興에 駐屯하고 있었다.

10월 20일 :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Missouri 艦上에서 헬리콥터로 葛麻비행장에 도착하였는데, 이날 12.00에는 東京의 MacArthur 사령부로 부터 北緯 39°10′ 以北 太白山脈 東北部 전지역에서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함에 따라 韓國軍 제 1 군단(장, 金白一소장)은 Almond 소장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었다.

Almond 소장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부대전개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要旨,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美 제 1 해병사단은 元山에 上陸하면 韓國軍 제 3 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여 군단 後方의 병참선과 後方지역을 경계 하다가 美 제 3 사단이 上陸하면 이와 다시 교대한 다음, 咸興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長津湖로 진출할 것.

둘째, 美 제 7 사단은 利原—北青—惠山鎭廻廊을 따라 北으로 前進할 것.

세째, 美 제 3 사단은 上陸과 동시에 美 제 1 해병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여 元山, 咸興지역을 확보하고, 군단後方의 병참선과 後方지역을 경계하며 敵의 유격대에 대비할 것.

네째, 韓國軍 제 1 군단은 首都사단에 이어 제 3 사단도 美 제 1 해병사단과 그 임무를 교대하고 東海岸線을 따라 東北쪽 국경지대로 진출시킬 것.』

따라서 Almond 소장은 이날 韓國軍 제1군단에 국경선까지의 진격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단은 사령부를 元山에서 咸興醫學專門學校構內로 이동 설치한 다음, 金白一소장은 長津方面 경계부대인 수도사단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를 제 3 사단(장, 李鍾贊준

장)과 교대시켜 수도사단 전 병력으로 하여금 咸興—北青—城津街路를 따라 北上토록 명령하였다.

군단 명령에 따른 사단장의 작전지시를 받고, 이날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의 先頭부대인 제1대대는 08.00에 地境里—豊田里에서 永興으로 이동하였으며, 한편 이 지역의 경계임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제23연대(장, 金涼舜대령)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가 연대 作命에 따라 08.00 於雲里를 출발하여 永興으로 이동하였다.

그외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각 대대는 元山—葛麻飛行場—厚底—安邊에서 계속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는데, Almond 소장은 이날 오후 文坪의 사단사령부를 방문하였다.

전날 太白山脈 일대로 잠입한 敵兵은 이날 大關嶺과 斷髮嶺에 출현하였는 바, 大關嶺의 敵은 注文津에 침입하였고, 斷髮嶺의 敵은 外金剛 일대로 北上하고 있었는데, 그 數交는 약 7,000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이날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 제1대대는 古土里를 향하여 공격 중이었고, 제2대대는 新興里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장, 韓信중령)는 제1대대가 文泰里에서 雲浦里로 전진함에 따라 제2대대는 德山關에서 龍盛里로 진출하고 제3대대는 洪原에서 출동하여 新浦를 점령하였다.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와 사단사령부는 전날에 이어 계속, 咸興에 駐留하고 있었다.

10월 21일 : 전날 外金剛일대로 침입한 敵은 이날 高城을 점령한 뒤 계속 北上하며, 도처에서 살인, 방화, 약탈의 만행을 감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에서는 작전명령 제50호로써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元山방어 임무를 제23연대에 인계하고, 이날 08.00에 元山—桑陰—敦谷—厚底—通川—長箭—外金剛—溫井街路를 따라 南으로 출동하여 17.30, 厚底를 통과 溫井里를 향하여 계속 진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23연대(장, 金涼舜대령)는 제22연대의 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날 08.00 행동을 개시하였다.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제7중대와 제8중대를 德源에, 1개중대를 葛麻비행장, 1개중대를 安邊에 각각 배치하여 元山 外廓의 수비를 담당하였고, 제3대대(장, 許宇源소령)는 馬轉里에 2개 중대를 殘置하고 나머지 2개 중대를 元山으로 이동시켰다. 이와 동시에 동 연대의 연대본부도 德源에서 元山으로 이동하여 元山地區防禦司令部를 설치하였다.

한편 전날 永興으로 출동한 동 연대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이날 12.00 永興에 집결한 다음, 제26연대의 경계지역을 인수하기 위하여 永興과 高原, 그리고 德源에 각각 1

개 중대씩 배치하여 부근일대의 경비에 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 제 1 대대는 永興에서, 제 2 대대는 高原에서, 제 3 대대(장, 殷碩杓소령)는 地境里—龍場洞線에서 각각 08.00에 행동을 개시하여 永興—定平—咸興街路를 따라 前進, 咸興에 집결하고 있었다.

한편 포병대대의 제 1 중대는 제26연대를, 그리고 제 2 중대는 제22연대를 각각 지원하였으며, 제 3 중대와 공병대대는 文坪에서 대기 중이었다. 이날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新豊里부근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고,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가 洪原에서 北青을 향해 공격함에 따라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洪原으로 이동하였다.

10월 22일 : 전날 高城에 침입하였던 敵은 이날 杆城에 까지 침입할 기세였고, 그 일부는 大關嶺에 출현하였는데, 이 무렵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厚底—通川—長箭—高城街路를 계속 南進하고 있었다.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어제에 이어 永興—定平—咸興 街路를 따라 계속 咸興으로 집결하고 있었으며, 제23연대는 변동 상황이 없었다.

한편 수도사단은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가 北青을 점령하고 豊山을 향해 前進하게 됨에 따라 제 1 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新北青에 진출하였고, 사단사령부도 北青부근의 湖沼湖畔으로 이동하였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이날도 계속 新興里 北쪽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밤에는 敵 약 1,500명이 新豊里(文川 西北쪽 5km) 부근에서 龍潭里(新豊里 西北쪽 4km)를 향해 北上 중이라는 보고가 사단에 들어 왔다.

10월 23일 : 전날 厚底線을 출발하여 通川—長箭—高城街路를 前進하고 있던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前方에는 敵 400명이 我軍의 補給路를 차단하기 위하여 出沒하고 있었으나, 이날 接敵은 없었다.

그리고 전날 新豊里에서 龍潭里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되는 1,000명 내외의 敵의 부대가 高原—陽德街路上의 仁興里(高原西쪽 20km)에 출현하였고, 다시 陽德부근의 龍田里에도 敵 300명이, 그리고 그 後方에는 도합 5,000명으로 推算되는 敵이 각각 집결하고 있었다.

이에 제23연대(장, 金涼舜대령) 제 1 대대(장, 金尤榮소령)의 2개 중대병력은 공병 1개 소대의 지원을 받아 이날 08.00에 永興을 출발하여 高原—龍泉里—彌屯里—註田里—仁興里 街路를 前進하여 仁興里일대를 수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咸興에 집결하고 있었는데, 부근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제 2 대대의 1개 중대가 이날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편 수도사단의 先頭부대인 제1연대(장, 韓 信대령)의 제1대대는 豊山을 목표로 北靑 北쪽 5km 까지 진출하고, 제2대대는 長興里에 제3대대는 北靑에 각각 駐留한데 반하여 제1기갑연대(장, 白南權대령)는 新北靑에 진출하여 利原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사령부는 潮滿洞里를 떠나 北靑으로 취진되었으며, 제18연대(장, 任思植대령)는 계속 咸興 北方 新豊里線을 유지하고 있었다.

〈北傀의 傀首, 金日成 초상화의 末路〉

10월 24일 : 전날 仁興里로 출동한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2개 중대병력과 공병 1개 소대는 수색에서 敵과 不時에 조우하여 先制的인 공격을 단행한 결과, 격전 끝에 敵 105명을 사살하고 3명을 포로한 것을 비롯하여 다발총 1정, 蘇式경기 5정, 소총 2정, 中型전차 13대, 大型전차 2대, 기관차 8량, 화차 1량을 노획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제1군단 正面의 敵은 甲山—惠山鎭方面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長津湖方面의 敵 제2사단의 8,000여명과 잔여 병력을 합하여 11,200명의 敵兵이 집결하여 我軍의 北進을 지지

하고 있었다.

이날 사단은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로 하여금 수도사단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와 임무를 교대하고 長津方面의 발전소를 목표로 전격토록 명령하였다. 따라서 文坪의 사단사령부도 군단작명(1950. 10.23부 號數未詳)에 의거하여 咸興으로 이설하였다.

그리고 수도사단의 제 1 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이날 利原을 점령하였으며,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上直洞과 下直洞線에,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古土里—新豊里線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이날 Missourie 艦上에서 개최된 美軍 수뇌회담에서는 25일을 上陸日로 決定함과 동시에 元山港의 掃海 작업이 끝나는 즉시 興南港을 揚陸키로 결정되었다.

10월 25일 : 이날 高城 南쪽에서 준동하던 敵 2,000명은 稜線을 따라 北上 중이었고, 金剛山에도 1,500명이 집결하고 있었다. 이 方面의 敵兵을 섬멸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던 제22연대(장, 金鍾鎭대령)는 사단 작전지시에 의거, 元山地區防禦 임무를 제23연대와 교대하기 위하여 제 3 대대(장, 鄭淳根소령)만을 原隊에 殘置토록 하고, 그 나머지 主力을 元山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는 元山地區防禦임무를 제22연대에 인계하는 한편, 咸興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날 연대본부는 우선 咸興으로 이동하였고, 永興에 주둔하여 高原—德源선을 경계 중이던 제 1 대대(장, 金尤榮수령)는 각 중대를 永興으로 집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이날 사단 작전지시에 따라 古土里—新豊里線에서 敵과 대치하고 있는 수도사단 제18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長津湖 일대를 점령하기 위하여 上通里(咸興 北쪽 12km)로 진출, 제18연대 제 1 대대와 교대하였다. 이 무렵 이 곳 麻田里(上通里 北쪽 1km) 北쪽의 燧台峰에는 敵 1개 대대병력이 견고한 야전陣地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 後方 長津發電所 부근에는 4,000명 규모의 敵이 집결하고 있었으며, 또한 平壤方面으로 부터 이동해온 敵이 合流하여 長津湖 일대의 敵은 무려 50,000명으로 추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날 포병대대는 각각 1개 중대씩 각 연대를 지원하고 있었고, 공병대대는 咸興으로 이미 1개 중대가 이동하고, 나머지 2개 중대는 咸興을 목표로 이동 중이었다. 한편 수도사단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제26연대와 교대한 제 1 대대를 主力부대와 합치기 위하여 五老里—赴戰湖街路上의 新興里로 이동시켰고,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厚峙嶺을 공격하였으며, 제 1 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端川을 점령하고 이날 摩天嶺을 공격할 준비를 갖

추었다.

10월 26일 :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이날 驪田谷에서 煙台峰(驪田里 北쪽 4km)의 敵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煙台峰(△698)은 東쪽 黑林川上의 長津 제3발전소를 감제하는 동시에 上通里—驪田里—水洞—眞興里—黃草嶺—吉主里—下碣鴨里—長津을 연결하는 新興線의 철로와 道路를 차단하는데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이에 대하여 이날 동 연대는 05.00를 기하여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나,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戰勢의 進展을 보지 못 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전날에 이어 咸興으로 부대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연대의 작전지시를 변경하여 전날 先頭부대로 이동하려던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는 계속 永興—高原線을 경계토록 하고,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의 2개 중대는 이날 咸興에 도착하였으며, 2개 중대는 元山에서 咸興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대대(장, 許亨海소령)도 이날 2개중대는 咸興으로 이동하였고, 2개 중대는 馬轉里를 떠나 咸興에 도착한 다음, 1개중대는 興南에, 1개중대는 通浦飛行場에 각각 배치토록하여 부근 일대를 경계키로 하였다. 따라서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제23연대로부터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하였다.

그러나 이날 연대의 右側에서 赴戰湖를 향하여 前進한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火蝶峙를 공격하고 있었고,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厚峙嶺의 敵을 격파하고 豊山을 향하였으며,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摩天嶺을 공격하였다.

이와같이 韓國軍 제1군단의 유기적인 작전이 순조롭게 전전되고 있던 이날 元山港에는 美 제1해병사단선단이 入港하였다. 곧 美 제1해병사단은 21척의 수송선과 15척의 LST로 10월 16일 오후 仁川港을 출항하여 19일에는 永興灣 부근에 도달하여 掃海 작업의 부진으로 7일간을 海上에서 머물렀다가 이날에야 비로소 元山港에 上陸하게 되었다.

(2) 咸興地區 平定戰(10. 27—11. 5)

(가) 작전계획

사단의 咸興지구 平定戰에 관한 작전계획은 美 제10군단사령부의 작명에 의거 수립되었다.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10월 20일 元山에 도착하는 즉시로 계획하기를 『美 제1해병사단은 元山에 上陸하면 韓國軍 제3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여 군단 後方의 병참선과 後方

지역을 경계할 것이며, 그후 美 제3사단이 상륙하면 이와 교대하고 咸興으로 이동하여 長津湖로 진출할 것.」이라는 부대전개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의거하여 Almond 소장은 26일에 元山港에 上陸하기 시작한 美 제1해병사단병력이 27일 行政的 上陸을 완료함에 따라 要旨,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1. 제1해병연대는 元山 西南方의 軍底와 馬轉里에서 韓國軍 제3사단과 그임무를 교대하라.

2. 제5해병연대는 元山과 興南 南方의 連絡飛行場 및 美 제10군단의 西側方을 방어하라.

3. 제7해병연대는 咸興—長津湖 渓谷에서 韓國軍 제3사단과 교대하여 長津 및 赴戰發電所를 경비하라.」

이에 따라 사단(장, 李鍾贊준장)은 제22연대로 하여금 美 제1해병사단에 元山지구의 방어임무를 인계하고 咸興으로 이동케 하였다.

(나) 작전실시

10월 27일 : 이날 10.00에 美海軍 Muckenley號 艦上으로 부터 美 제1해병사단 지휘소가 元山으로 이설되었으며, 대부분의 병력은 上陸을 끝내었다.

이날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전날에 이어 煙台峰의 敵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1대대와 제3대대(장, 殷碩均소령)를 主力부대로 하여 左右협공토록 하고 제2대대는 主力부대를 일반지원케 하였다. 한편 敵은 煙台峰을 거점으로 1개 대대병력이 藏田谷 일대를 장악하였고, 그 後方에는 4,000여명의 敵이 집결하여 축차적으로 증원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제26연대의 主力부대는 이날 새벽 포화력의 지원아래 맹렬한 공격을 가하였으나, 煙台峰을 점령치 못하였고, 敵의 일부가 후퇴하고 있었을 뿐이다.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지난 25일 元山방어임무를 제22연대에 인계하고 연대본부를 咸興으로 이동설치한데 이어 전날에는 제2대대의 2개 중대가 이동하였고, 제3대대는 이동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날도 제2대대의 나머지 2개중대가 咸興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만은 永興에 제1, 제4중대를, 高原에 제2, 제3중대를 각각 배치한채 경계임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제1, 제2대대는 25일 軍底에서 元山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제23연대로부터 元山지구의 방어임무를 인수하고 있었는데, 이날 다시 제1해병사단에 임무를 인계하였고, 軍底의 제3대대(장, 鄭澤珉소령) 또한 임무교대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이날 庫底에는 敵 패잔병에 대한 포위망을 압축하기 위하여 韓國 해병대의 1개 대대가 上陸하였다.

이날 咸興의 제1군단 사령부에는 李俊植준장이 副軍團長에 취임하였고, 군단의 前進부대인 수도사단의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厚峙嶺의 殘敵을 격멸하고 黃水院里로 진출하였으며,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藤天嶺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또한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火蝶峙를 점령한 다음, 水上里로 진출하였다.

10월 28일 : 이날 美 제1해병사단의 元山 上陸이 끝남으로써 제3사단의 임무교대가 본격화되었으며,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제1, 제2대대는 元山에서, 제3대대는 庫底에서 각각 美 제1해병사단에 현지 임무를 인계하였다.

당시 庫底에 주둔하였던 제3대대의 대대장 鄭潤珏소령은 그간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庫底에는 제1군단의 보급소가 있었다. 거기에는 많은 量의 보급품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 휘발유만도 15,000드럼에 달하였다. 元山탈환 즉시 우리 대대는 군단직할대대로 作命이 바뀌어 이 지역의 경계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반격작전 이후 我軍의 급진격으로 미처 후퇴하지 못한 敵이 後方에 집결한 뒤 서서히 北上하면서 注文津—長津線에 流動하다가 마지막에는 新高山과 淮陽 등지로 몰렸다. 그뒤 敵의 主力부대는 通川을 경유 庫底로 쳐들어 왔다. 나는 우리 제3대대와 전차공격대대 및 경찰대대를 배속받아 3개 대대를 지휘하여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장시간에 걸쳐 치열한 방어진을 전개한 끝에, 敵을 물리치고 庫底를 死守하였다. 그날 美 제1해병사단 소속의 1개대대가 庫底에 도착하여 이들에게 임무를 교대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溪谷을 중심으로 한 堤防일대에 배치하도록 建議하였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建議를 받아들이지 않고 市街주변을 四周방어식으로 경계하고 있었다.

이튿날 우리 대대는 元山으로 이동해 있었는데, 교대하던 날 밤에 敵이 다시 기습을 감행하여 美 海兵隊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 헬리콥터로 시체와 환자들을 元山으로 이송한 것만도 180명이었고, 補給品도 모두 약탈 당했던 것이다. 이에 美 제10군단에서는 하는 수 없이 공중폭격으로 庫底를 불바다로 만들고 그날로 부대를 완전히 철수시켰었다."

그리고 전날에 이어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의 나머지 2개 중대도 이날 咸興에 집결한 다음, 洪原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葉대령)는

이날 上通里에서 출동하여 河大里부근에서 燈蓋峰의 敵을 추격, 水洞(上通里 北쪽 10km)에서 저항하는 敵 제14사단의 4,000여병력과 치열한 接戰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新興里와 吉上里方面에는 수색대를 파견하였다. 이날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제26연대의 右一線인 赴戰嶺 일대에서 殘敵을 격파한 뒤, 白岩山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豊山을 점령하였으며,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城津을 점령하였다.

10월 29일 : 이날로 元山지구의 방어임무는 美 제1해병대사단에 완전히 인계되었다.

곧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제1, 제2대대는 元山을 출발하여 咸興으로 이동 중이었고, 軍底의 제3대대(장, 鄭淳哲소령)는 美 제1해병사단과 임무를 교대한 다음, 元山을 경유, 咸興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장, 金浴舜대령)의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는 永興—高原線을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2개 중대가 咸興, 그리고 나머지 2개 중대가 洪原과 新浦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고, 제3대대(장, 許亨淳소령)도 2개 중대는 咸興에 집결하는 한편, 2개 중대는 興南과 連浦에 각각 1개 중대씩 배치되어 소규모적으로 출몰하는 敵을 격퇴하고 있었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전날에 이어 水洞 北쪽 1km 지점의 제2발전소 부근에서 포병 제1, 제3중대의 지원을 받으며, 敵 1,000여명과 치열한 근접전을 전개하였는데, 오후부터 敵의 120mm 박격포사격이 증가됨에 반하여 我軍에는 수류탄의 부족으로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16명의 中共軍을 포로로 하였으며, 그들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正面의 敵은 10월 6일부터 鴨綠江을 渡河하여 滿浦鎭을 경유, 長津方面으로 南侵한 中共軍 제8집단군 제42군 제124사단의 제370연대로서 사단 및 연대본부를 長津湖의 南端인 下碣隅里에 설치하고, 開戰이래 최초로 軍團正面에 全面的 攻勢를 감행한 것이다. 이에 美 제10군단사령부는 제26연대를 五老里로 집결시켜 부대를 재편하는 한편, 美 제1해병사단 主力을 제26연대의 正面으로 진출시켜 韓美合同作戰을 계획하였다. 이에 제26연대의 일부 병력은 敵에게 치열한 공격을 가하여 敵의 저항을 분쇄하는 동시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함으로써 美 제1해병사단의 도착과 공세이전에 대비케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美 제1해병사단의 제7해병연대는 이날 07.20에 元山農科大學校庭에서 승차한 뒤 咸興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날 제26연대의 右側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水上里에서 接敵하고 있었

고, 제 1 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이미 城津에 진출하였으며,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이날 利原에 上陸한 美 제 7 사단 제17연대에 惠山鎭 진격임무를 인계한 준비를 갖추었다.

David G. Barr 소장이 이끄는 美 제 7 사단(병력 총 26,641명 중 美軍 18,837명 KATUSA 7,804명)은 釜山에서 美 제10군단 사령부로부터 北青—豊山—惠山鎭으로의 진격을 목표로 利原에 上陸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17연대를 先頭로 10월 27일 釜山港을 出港하여 이날 아침 利原 北쪽 10km 지점에 上陸하였다. 그리고 이날 제 1 대대는 美 제49야포대대 및 제13야전공병대대 A중대와 함께 上陸지점에서 北쪽으로 惠山鎭을 향하여 80km 를 前進하였다.

10월 30일 : 이날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제 1 대대(장, 金相均대위)는 永興에, 제 2 대대(장, 吳延錄소령)와 제 3 대대(장, 鄭淳珉소령)는 咸興에 각각 駐陣 중이었다. 그리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제 1 대대(장, 金尤榮소령)는 계속 永興—高原線을 경계 중이었고, 제 2 대대(장, 文泰俊소령)는 洪原과 新浦에 각각 1개 중대씩 배치하는 한편, 전날 咸興에 진출한 2개 중대는 제26연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中興里로 출동하여 그곳의 328高地에 배치하였다. 제 3 대대(장, 許亨淳소령) 본부는 계속 咸興에서 駐留 중이고, 대대의 2개 중대가 興南과 連浦飛行場에서 각각 1개 중대씩 進駐하면서 平定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水洞에서 敵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날 美 제 7 해병연대는 咸興에 집결하였으며, 先頭부대는 水洞에 도착하였다. 이날 咸興의 사단사령부에는 金錫培대령이 초대 부사단장에 취임하였다.(육본특명 제209호 10. 20부)

그런데 한편 鏡底에서는 전날에 이어 美 제 1 해병사단 소속 2개대대 병력이 1,000여명의 敵兵에게 포위되어 UN 공군의 엄호를 받으면서 탈출전을 전개한 끝에 이날 비로소 敵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의 右側에서 赴戰湖를 목표로 공격하고 있던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이날 水上里에 진출하였다. 제 1 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城津 北쪽 2km 지점인 鶴城洞으로 前進하였으며,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美 제 7 사단 제17연대의 연대본부 및 제 1 대대와 豊山에 배치하고 있었다.

10월 31일 : 이날 비로소 永興—高原線의 경계 임무도 美 제 1 해병사단에 인계되었다.

곧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제 1 대대(장, 金相均대위)가 永興에서 美軍과 현지 교대하고 咸興을 목표로 이동함에 이어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제 1 대대(장, 金尤榮소령)도 永興—高原線의 경계 임무를 美 제 1 해병사단에 인계하고 咸興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

리고 전날 廳田里 北쪽 中興里의 328高地에 출동한 제23연대 제 2 대대(장, 文泰俊소령)의 2개 중대와 교대하기 위하여 이날 제22연대 제 2 대대(장, 吳廷錄소령)의 2개중대는 咸興에서 출동하였으며, 동 대대의 2개 중대는 新浦로 이동하였고, 제 3 대대(장, 鄭淳哉소령)는 이날 咸興에 2개 중대를 殘留시키는 한편, 나머지 2개 중대는 興南과 連浦비행장에 각각 1개 중대씩 배치하여 부근의 경계에 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3연대 제 2 대대의 나머지 2개중대는 洪原과 新浦에 각각 1개 중대씩 배치되었다가 이날 洪原의 1개 중대는 新浦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동 연대의 제 3 대대(장, 許亨淳소령)는 계속 咸興에 駐屯하면서 興南과 連浦비행장에 각각 1개중대씩 配備하였다. 이날도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제 1 해병사단의 先頭부대와 함께 이날 水洞에서 대치 중이었고, 제 5 해병연대도 이날 元山을 출발하여 咸興으로 이동 중이었다.

제26연대의 右一線에 배치된 수도사단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水上里—五山間에 배치, 일부병력은 白岩山에서 接戰 중이었고, 제 1 기갑연대는 城津北쪽 鶴城洞에 배치되어 있었다.

11월 1일 : 제22연대(장, 金應鼎대령)의 제 1 대대는 咸興에 집결하고 있었고, 제 2 대대(장, 吳廷錄소령)의 2개 중대는 계속 新浦에 배치되고 있었으며, 전날 廳田谷 일대로 前進한 2개 중대는 제23연대 제 2 대대의 3개 중대로부터 陣地를 인수하였다. 제 3 대대는 전날과 같이 咸興에 2개 중대 興南과 連浦飛行場에 각각 1개 중대가 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제23연대(장, 金漑舜대령)의 제 1 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이날 定平을 경유하여 地境里에 진출하였고, 제 2 대대(장, 文泰俊소령)의 2개 중대는 계속 新浦를 경비하는 일방 中興里의 328高地로 진격하였던 2개 중대는 이날 제22연대 제 2 대대의 2개 중대와 그 임무를 교대하고 10.45에 咸興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 3 대대(장, 許亨淳소령)는 계속 咸興에 집결, 그중 2개 중대는 興南과 連浦飛行場을 경계 중이었다. 또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계속 水洞 일대의 제 2 발전소 부근에서 敵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날 이른 아침, 美 제 7 해병연대와 제 1 해병연대의 제 2 대대는 咸興을 출발하여 제26연대 後方의 제 3 발전소를 방어하기 위하여 廳田里로 이동하였다.

右翼 인접부대인 수도사단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白岩山의 敵과 接戰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 1 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鶴城에서 전투 중이었고, 제 1 연대(장, 韓信대령)는 美 제17연대와 교대하고 城津郡 雙浦里로 이동하였다.

11월 2일 : 이날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사단 작전지시 제78호(11.2부)에 의거, 연대본부를 五老里(咸興 北쪽 12km)로 부터 端川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본부가 언제 五老里로 이설되었는지는 詳考할 수 없으나, 제22연대의 병력이 최초로 五老里方面에 출동한 것이 10월31일 제2대대의 2개중대였음을 고려할 때, 연대본부의 이설날자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 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전날과 같이 咸興에 駐陣 하면서 新浦—興南—連浦비행장의 경비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이날 美 제1해병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五老里로 이동 집결하였는데, 그간 연대는 사단 작전지시(10.25부)에 의거하여 지난 10월 25일 수도사단 제18연대로부터 長津 제3발전소일대의 작전임무를 인수한 이후 일주일간에 걸쳐 치열한 전투를 전개 한 결과, 敵 376명을 사살하고, 80명을 포로로 한 것을 비롯하여 다발총 5정, 장총 60정, 重기관총 1정을 노획하는 등 많은 戰果를 거둔 다음, 이날10.30 水洞 일대의 陣地를 美 제7해병연대에 인계하였다.

인접 수도사단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水上里—白山간에 배치,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鶴城里에서 五峴里(明川郡 上加面)로 前進하였으며,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日新洞(吉州南쪽 12km)으로 진출하였다,

11월 3일 :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사단 작전지시에 의거 연대본부의 이동에 따라 이날 부대를 咸興으로 집결 시켜 端川을 목표로 이동 중이었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계속 咸興지구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여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는 地境里 일대를 경계 중이며,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咸興과 新浦에 각각 2개 중대씩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許亨淳소령)의 2개 중대는 咸興에 連浦飛行場에 배치되었던 1개 중대는 이날 興南으로 이동하여 앞서 배치된 1개 중대와 함께 부근 일대의 경계에 임하였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는 五老里주둔지에서 이날 咸興으로 이동 집결하였다.

수도사단은 전날과 같이 제18연대는 水上里에 제1연대는 五峴里에 제1기갑연대는 日新洞에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利原에는 美 제7사단의 제31연대가 上陸하여 美 제17연대의 左一線을 담당하여 赴戰湖 일대를 목표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11월 4일 : 이날 사단은 咸興지구의 방어 임무를 美 제1해병사단에 인계하고 新浦—洪原지구를 향하여 이동할 계획 아래 있었다.

그간 美 제1해병사단은 美 제10군단의 작전명령(10월 26일부)에 의거, 韓國軍 제3사단의 작전임무를 단계적으로 인수하여 왔다. 元山지구 방어임무에 이어 11월 2일 美 제7해병

연대는 咸興—長津線의 작전임무를 인수하였고, 제5해병연대는 10월 31일 興南, 連浦비행장 및 美 제10군단의 西側方을 방호하기 위하여 咸興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사단은 이날 작전명령 제52호를 발하여 각 부대를 興南지구로부터 洪原—新浦—北靑—利原—端川지구로 前進시켜 수도사단과 美 제10군단과의 戰線을 연결시키려고 하였다.

즉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이날 利原으로 이동, 집결하고, 그중 2개 중대를 新浦의 제23연대 제2대대 2개중대 (제5, 제6중대)와 교대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장, 金涼舜대령)는 사단 作命에 의거한 연대 作命 제4호에 의하여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地境里경비지역에서 豊松里(地境里 西北쪽 20km)에 파견한 제3중대를 철수시켜 新浦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新浦의 2개 중대로 하여금, 제22연대의 2개 중대와 교대케 하는 한편, 興南의 2개 중대를 新浦로 이동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제3대대(장, 許宇淳소령)도 咸興의 2개 중대(제10제12중대)를 興南으로 이동시켜 興南의 2개 중대와 新浦로 이동시킬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 또한 사단 作命에 의거, 咸興 주둔지에서 이날 洪原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었다. 사단장 李鍾贊준장은 이날 업무연락차 서울 육군본부로 갔다. 한편 이날 利原에는 美 제7사단의 後尾연대인 제31연대가 上陸을 완료한 다음, 西南方의 海岸線을 따라 咸興으로 이동한 다음, 다시 咸興에서 東北으로 迂廻진출하여 咸興—赴戰線上의 담풍리에서 작전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수도사단의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중령)는 吉州를 공격하고 있었고, 제1연대는 五峴里에서 黃谷里로 진출하였다.

11월 5일 : 전날 利原에 집결하였던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는 이날 新北靑으로 이동, 집결하였다. (연대본부는 6일에 端川에서 北靑으로 이동했음)

제23연대(장, 金涼舜대령)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이날 06.00에 咸興역에 집결하여 新浦에 진출하고,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 또한 06.00를 기하여 咸興역을 출발하여 新浦로 이동하였으며, 제3대대(장, 許宇淳소령)는 興南에서 집결하여 역시 06.00에 출발하여 新浦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본부와 대전차포중대도 咸興으로 부터 新浦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26연대(장, 李致業대령)도 이날 咸興에서 洪原으로 이동하여 西北方일대의 경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날 연대장 李致業대령은 1군특명(갑) 제87호에 의거하여 제1

군단부로 轉任하고 後任으로 제23연대 부연대장인 徐廷哲중령이 취임(제3대 연대장)하였다.

그리고 이날 사단사령부도 咸興에서 新浦로 移設되고 군단사령부도 洪原으로 이동하였다.

이상과 같이하여 사단의 咸興지구 平定임무는 완전히 美軍에 인계되었다. 한편 元山에서는 이날 美 제3사단 병력이 上陸하기 시작하였으니, 지난 9월 22일 釜山에 도착, 上陸하였던 美 제3사단이 이날 先頭부대인 제65연대 제2대대를 先頭로 元山에 上陸하기 시작하였던 바 6일에는 上陸이 완료되었고 사단사령부도 元山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수도사단의 제1기갑연대는 吉州를 점령하고 제1연대는 明川을 향해 공격하고 있었으며, 제18연대는 水上里—白山間에서 敵과 대치하고 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의 元山, 咸興지구 平定戰은 20여일에 亘하였거니와 이 기간 중 사단은 작전상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永興灣일대의 殘敵소탕과 海岸자대의 지뢰제거로 美 제10군단의 上陸을 지원하였다.

둘째는 水洞—小頭流山—馬轉里—咸興線을 확보하여 敵으로 하여금 元山—咸興지구에 대한 침입을 저지하고 我軍의 前進基地 및 보급로를 掌握하여 수도사단의 계속적인 北進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如斯한 작전임무를 끝내고 咸興지구를 美軍에게 인계한 사단은 5일 현재 제22연대는 新北青에, 제23연대는 新浦에, 제26연대는 洪原에 각각 집결하였다. 이에 사단장 李鍾贊준장은 6일 작전지시 제83호를 내려서 장차 닥아 올 多期作戰을 위한 野戰機會教育 준비와 각 부대의 장비를 점열하기 위하여 부사단장 金容培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점열단을 편성하여 7,8일 양일간에 점열을 실시하였다.

한편 사단은 인근지역에서 출몰하는 敵兵을 수색하기 위하여 7일에는 작전명령 제53호를 하달함으로써 이날 15.45에 제23연대는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으로 하여금 316명을 인솔하고 洞口方面으로 출동시켰고, 다시 부대대장 林炳根소령에게도 306명을 인솔시켜 松坪方面으로 출동케 하였다. 이 제1대대병력은 8일 佳林에 진출하는 즉시로 무근일대를 수색하였다.

이날 前進부대인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는 吉州에서 西北쪽으로 공격 중이었고, 제1연대는 明川으로 이동하였으며, 제18연대는 吉州 北쪽 吉鉢洞에 진출하였다. 따라서 수도사단 사령부도 城津에서 吉州로 이동하고 군단사령부도 吉州에 移設되었다.

3. 吉州---合水—惠山鎭 進擊戰 (50년 11월 17일 / 50년 11월 30일)

참조 : 별책부도 제 35 호
상 황 도 제 35 호
작명부록 제 31, 32, 37, 38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장 소장 金 白 一
제 3 사단장 준장 李 鍾 贊
〃 〃 崔 錫 (11. 12교대)
제22연대장 대령 金 應 祥
제 1 대대장 대위 金 相 均
제 2 대대장 소령 吳 延 錄
제 3 대대장 소령 鄭 淳 珉
제23연대장 대령 金 淙 舜
제 1 대대장 소령 金 尤 榮
제 2 대대장 소령 文 泰 俊
제 3 대대장 소령 崔 尙 俊
제26연대장 중령 徐 廷 哲
제 1 대대장 소령 權 用 性
제 2 대대장 소령 韓 周 弘
제 3 대대장 소령 殷 福 均
〃 〃 朴 徹 洙 (11. 19 교대)

배속부대

제11포병대대장 중령 宋 贊 鎬
제 3 야전공병대대

병력 : 약 11,000명

장비 : 60mm박격포 52문
81mm박격포 34문
3.5 inch 로켓트포 23문
57mm대전차포 11문
105mm곡사포 12문

敵 軍

敵의 지휘관 및 사단 正面의 敵 단대호는 詳考할 수 없으나 대개 傀儡軍 패잔병, 내무서 요원, 지방노동자, 黨員, 學生등으로 혼합, 편성된 아래와 같은 부대병력들과 接敵하였다.

合水독립대대(950명), 白岩독립연대(250명), 茂山사단(10,000명), 原興독립중대(200명), 松景독립여단(5,000명), 原興독립사단(7,000명), 淸洛山독립중대(200명)

여상과 같은 敵의 兵器는 대개 다발총, 소총 輕機였으며, 그밖에 무전기 등의 기재로 장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전투 전의 개황

元山탈환작전이래, 사단은 축차적으로 元山—咸興지구로 이동하면서 美 제10군단의 上陸과 수도사단의 진격을 엄호하였다. 그러다가 11월 5일까지 이 임무를 완수한 다음, 8일까지는 全병력을 洪原—新浦—新北青으로 前進시켜 군단작전지역 내의 後方경계에 임하게 하였던 것이다.

敵軍의 상황 : 이 무렵, 敵은 제3사단의 엄호작전을 배경으로 한, 수도사단의 추격전을 저지하지 못하고, 咸興—洪原—北青—端川—城津—吉州로 후퇴하면서 최대한의 遲延戰에 注力하여 병력의 증원 및 장비의 증강에 시간적인 여유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10월 26일 이래 속속 上陸한 美 제10군단의 강력한 火力에 부딪치면서 부터 戰線의 連繫性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敵은 吉州線에서 浦津과 合水—白岩方面으로 兩分하여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敵은 완전철수를 감행하였다기 보다 오히려 會寧—茂山—惠山鎭을 起點으로 要地要部에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我軍의 진격을 최후까지 저지하면서 敵多에는 마지막의 총반격전을 펴려고 하였다. 그중 제3사단의 차기작전 지역인 合水일대에는 1,000명의 병력이 방어진지를 구축 중이고, 白岩에도 新編한 勞動旅團병력으로 추측되는 약 4,500명이 집결 중이며, 後方지역에도 별동대 및 遊擊隊등이 補給路의 차단과 부대 주둔지의 기습을 企圖하고 있었던 것이다.

我軍의 상황 : 제3사단장은 11월 9일 제1군단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지시를 받았다. 곧

『1. 제3사단장은 예하 제26연대를 11월 9일 09.00부터 美 제1해병사단에 배속시키고 동 연대를 地境里에 집결시켜라.

2. 제23연대는 1개대대를 洪原으로 이동시켜 군단사령부의 경비를 담당케 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는 이날 12.30에 洪原에서 地境里로 이동한 뒤, 地境里—黑水里—社倉里—寧遠街路上의 龍上里에 前方지휘소를 설치하고 제1대대(장, 權用性소령)를 中林에, 제2대대(장, 韓周弘소령)와 제3대대(장, 殷丽鈞소령)를 中倉嶺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단사령부와 함께 新浦에 집결한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도 作戰지시에 따라 13.30에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를 洪原으로 이동시켜, 군단 사령부를 호위케 하는 한편, 제9중대를 咸興으로 이동시켜, 중요道路와 부근의 村落에 수색소대를 파견하여 敵情을 수집케 하였다. 이보다 앞서 佳林에 출동하였던 동 연대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이날 佳林에서 新浦로 복귀 하였다.

한편, 新北青에 집결한 제22연대(장, 金應洚대령)의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는 唐鳳里와 上立石里에 각각 1개 중대씩 배치하였고,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는 17.00에 제7, 제8중대를 寺洞으로 출동시켜, 부근 일대를 경계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날 포병대대의 제1, 제3중대는 新浦에, 제2중대는 新北青에 집결하고 있었으며, 공병대대도 新浦에 주둔하여 地雷探知班 1개 소대씩을 각 연대에 배치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26연대가 美 제1해병사단에 배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2연대나 제23연대는 군단작

전지구 관하에 침투하는 敵兵의 섬멸과 敵情의 수집에 임하는 등, 군단 예비대로서의 임무를 담당케 되었던 것이다.

그뒤 11월 13일에 이르러 洪原에 있던 군단사령부가 端川을 경유, 城津으로 이동됨에 따라 군단작전지시 제119호(사단作命 제54호, 11. 12부)로 제22연대는 군단직할부대가 되어 제1대대는 08.40에 新北靑에서 端川으로 이동하고 연대본부와 제2, 제3대대 및 포병 제2중대는 10.00에 新北靑을 출발하여 이튿날 18.00 城津에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洪原에 駐留하였던 제23연대의 제3대대도 군단사령부가 城津으로 이동함에 따라 陽化로 진격한 다음, 次期작전을 준비하였다.

이상과 같이 군단 예비대가 된, 사단은 16일 合水로의 진격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공격부대의 後方에서, 경비임무에 임하는 한편, 각 단위대별의 기회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군단의 공격부대인 수도사단은 11월 5일 吉州를 점령한 뒤, 제18연대와 제1연대는 明川—會文—朱乙—鏡城—雄南—淸津 軸線을 따라 진격 중, 16일 현재 제18연대는 明川 北쪽의 明溝川을 渡河하여 對岸의 敵陣地를 공격하고 있었고, 後續부대인 제1연대는 그 東側背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는 吉州점령 후 合水—白岩—惠山鎭線을 공격목표로, 前進하여 이날 06.00에는 南石—城德을 경유, 春興洞에 진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 하에서 사단은 合水—惠山鎭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은 白頭山에서 南으로 뻗어 내린 摩天嶺 山脈이 合水—白岩을 지나 端川—城津間의 摩天嶺에 이르고 山脈의 東西連峰은 吉州—白岩—惠山鎭 街路上에 左右로 連繫되어 이 지역은 海拔 1,500m이상의 高原地帶를 이루었으며, 겨울에는 晝夜間을 막론하고 氣溫이 零下 20°~30°로 降下할뿐 아니라 降雪, 또한 數千 mm에 달하여 冬期作戰에는 彼我間 많은 고난을 초래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서 山間의 小都市를 거점으로 道路網을 확보하려는 我軍의 기동작전은 인접부대와의 戰線의 유지와 東西 山脈으로부터의 기습적인 유격작전으로 부대간의 연락, 유지마저 곤란하여 종심적인 작전수행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각 개별적인 독립작전의 수행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合水전투(11. 17—11. 26)

(가) 작전계획

제3사단의 合水전투에 관한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제1군단 作命 제120호(作命附錄 제31호)에 의거 수립되었는데, 곧 11월 16일 16.00 군단장 金白一소장은 명령하기를

『1. 사단 사령부(吉州 이동) 및 예하 제23연대를 이동시켜, 臨溟洞—合水街道와 吉州—合水 街道의 2개縱隊로서 合水를 공격, 점령하라.

2. 예하 對戰車 공격대대를 端川에 주둔시키고 1개 중대로써 遮寧발전소를 점령, 확보하라.

3. 군단 직할 제22연대장은 城津에 1개 대대를 주둔시키고 主力은 吉州에 이동하여 원대에 복귀하라(이동 시일은 別命함).

4. 수도사단장은 合水方面의 기갑연대병력을 제3사단 병력과 교대한 뒤는 철수하여 該兵力을 통합 지휘하여 작전지시 제81호의 목표를 공격 점령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제3사단사령부에서는 主力으로 合水를 공격점령하고 일부병력으로 後方경비에 임하게 할 계획하에 아래와 같은 세부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1. 제23연대장은 예하 병력(결 1개 중대)을 이동시켜 城津--臨溟洞--合水 街道를 前進, 合水를 공격 점령하라.

2. 제22연대장은 군단 지휘하로부터 원대복귀, 端川주둔 대대의 현임무를 사단전차공격 대대에 인계하고 1개대대를 城津(군단지휘 하)에, 잔여주력 및 연대본부는 吉州에 이동시켜 吉州--合水 街道를 前進, 合水를 공격, 점령하라.

3. 포병대대장은 제1중대를 제23연대에, 제2중대를 제22연대에 직접 지원케 하되, 제22연대에 중점을 지향케하라.

4. 공병대대장은 예하 2개중대(각 연대를 지원하고 있는 소대 포함) 병력을 차출하여 제22연대와 제23연대에 각각 1개중대씩 직접 지원케 하고 잔여는 吉州에 집결 시키라.

5. 전차공격대대장은 예하 병력을 端川에 집결시켜 제22연대 제1대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端川발전소에 1개 중대를 파견하여 그곳을 점령, 확보케 하라.

6. 사단직할 각 부대(보충대 제외)는 吉州로 이동, 집결하라.

7. 자동차수송에 의하는 부대는 특히 降雪, 凍結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全無토록 노력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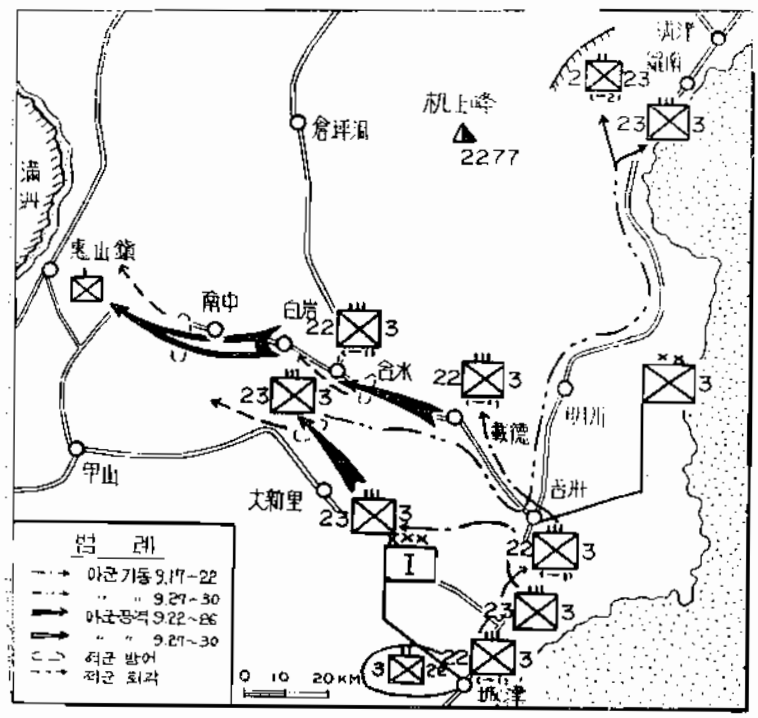
(나) 작전실시

11월 17일 : 이날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는 端川에, 연대본부와 제2, 제3대대는 城津에 각각 駐留하고 있었으며,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제1, 제2대대는 新浦에, 제3대대(장, 崔昌俊소령)는 陽化에 집결 중, 제9중대는 咸興에 駐留하고 있었다.

그리고 포병대대의 제1, 제3중대는 新浦에, 제2중대는 제22연대와 함께 城津에 각각 陣地占領 중이었으며, 공병대대는 각 연대에 1개 소대씩의 地雷探知班을 배속하고 나머지 主力은 新浦에 본부를 두고 洪原--端川간의 機動路를 수리 중이었다.

한편, 이날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의 본부와 제1대대는 興峰里에, 제2대대는 馬登

상황도 제135 호 吉州--合水--惠山鎭 진격전



鎭에, 그리고 제3대대는 中倉鎭에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

사단 右側 수도사단의 제18연대와 제1연대는 漁郎川--鳳洞지구에서 敵과 대치하고 있으며, 제1기갑연대는 春興洞에서 城德을 공격하였다.

11월 18일 : 사단은 이날 08.30에 新浦에서 전투지휘소를 12.00까지 吉州로 이동함과 아울러 主力부대를 同地로 前進, 집결시켰다. 곧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본부와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는 이날 吉州로 이동하였고,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는 端川에 駐留하는 한편,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는 군단경비에 임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主力은 10.00에 新浦를 떠나 城津에 진출하였으며, 공병대대의 主力(각 연대에 배속된 1개소대 제외)과 포병대대(제2중대는 제22연대에 배속중)도 09.30에 新浦에서 출발하여 吉州로 前進하였다.

이날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는 별동상황없이 現地에 배치하고 있었다. 한편, 수도사

단의 제18연대와 제 1 연대는 이날 漁郎川 南岸에 진출하여 對岸의 敵 제41사단의 증원부대와 吉州에서 후퇴한 제507여단 병력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제 1 기갑연대는 城德에서 부근 일대에 출몰하는 敵의 殘兵을 섬멸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 左側의 美 제 7 사단은 甲山 南쪽 3km에 육박하였다.

11월 19일 : 전날에 이어 사단 예하 각 부대는 계속 吉州부근으로 前進하였다.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제 1 대대(장, 金相均대위)는 吉州에 집결하였고, 제 2 대대(장, 吳廷錄소령)는 載德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제 3 대대(장, 鄭淳珉소령)는 城津에서 군단 사령부의 경비에 임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主力부대는 이날 02.00 城津에 집결한뒤, 18.00에 본부와 제 3 대대(장, 許亨淳소령)는 鶴城(城津 北쪽 4km)에 집결하고 제 1 대대(장, 金光榮소령)는 鶴城—臨溟洞間의 某 學校校庭에, 그리고 제 2 대대(장, 文泰俊소령)는 臨溟洞에 각각 집결하였다.

이날, 공병대와 포병대는 吉州로 이동 중 道路가 狹曲하여 車輛의 運行이 불편한데다가 氣溫의 急降下로 심한 애로를 극복해야만 하였다.

한편 사단 右側의 수도사단은 漁郎川—鳳岡 일대에서 집요하게 저항하는 敵과 치열한 전투 끝에 이 일대를 점령하였고, 사단 左側의 美 제 7 사단은 甲山을 점령한 뒤, 계속 진격하여 韓·滿국경으로부터 32km떨어진 지점에까지 진출하였다.

11월 20일 : 사단장은 이날 合水를 공격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戰勢 변동과 불합리성을 감안한 나머지 지난 16일자로 하달된 1군단 作命 제120호에 의거한 제 3 사단 作命 제55호(作命附錄 제37호)를 補完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작전계획을 수립 하달하였다.

『1. 제23연대장은 즉시 예하 1개대대를 현 집결지로부터 大新里에 急進시켜 수도사단 기갑연대와 교대하고 11월 20일 18.00까지 合水를 공격, 점령케 하라. 그리고 同연대는 11월 21일 未明에 행동을 개시하여 연대본부와 殘餘主力을 現在地로부터 大新里에 이동하여 차후 연대본부를 白岩으로 진출시킬 준비를 하라. 기타 지원포병중대는 현재지(鶴城洞)에 殘置하고 포병은 吉州로 원대복귀케 하라. 對戰車砲중대는 吉州에 진출하여 사단 작전참모의 지시를 받게 하라.

2. 제22연대장은 즉시 載德에 있는 대대를 急進시켜 11월 20일 18.00까지 合水를 공격, 점령하라. 그리고 연대 主力은 즉시 연대본부 및 殘餘 1개대대를 載德에 이동, 차후 연대본부가 合水에 진출할 준비를 하라. 기타 對戰車砲중대 및 지원포병중대는 현

제지(吉州)에 殘置하고 포병은 원대복귀시켜라.

3. 포병대대장은 예하 3개중대를 吉州에 집결시켜 進出路가 정비 완료될 때까지 부대정비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別命을 대기하라.

4. 공병대대장은 城津—臨溟洞—合水, 吉州—合水間 道路를 급속히 정찰하여 정찰결과와 정비에 관한 상황을 報面보고 하라.』

이 사단 作命 제56호(作命附錄 제38호)에 의거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이날 合水를 공격, 점령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要旨의 연대 作命 제56호를 하달하였다.

『1. 제 1 대대는 전 병력을 大新里로 急進시켜 수도사단 기갑연대와 교대하고 20일 18.00까지 合水를 점령하라.

2.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는 21일 20.00까지 大新里에 진출하라.

3. 연대본부는 21일 20.00까지 柳亭林에 이동하여 白岩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라.』

이에 따라, 동 연대의 제 1 대대(장, 金尤榮소령)는 11.00에 鶴城—臨溟洞間에서 출동하여 이날, 大新里에서 수도사단 기갑연대와 교대하였고, 제 2, 제 3 대대는 각각 臨溟洞과 鶴城洞에서 출발하여 徒步로 大新里를 향해 前進하였다.

그리고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본부와 제 1 대대(장, 金相均대위)는 吉州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중 제 1, 제 4 중대는 城德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城德에 있던 제 2 대대(장, 吳廷錄소령)는 合水方面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였으며 제 3 대대(장, 鄭淳琅소령)는 계속 군단경비에 임하였다.

이와 같은 主力부대의 이동과 동시에, 공병대대의 主力은 이날 吉州에 집결하였고, 포병대대의 제 2, 제 3 중대도 吉州로 집결하고 있었으며, 제 1 중대는 鶴城에 殘置되었다.

이날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의 연대장 이하 2,290명은 興峰里—中倉領—馬登嶺線에서 黑水里로 이동, 배치하였다.

한편, 전날 漁郎川—鳳岡일대를 공격, 확보한 수도사단의 主力부대는 이날 會文으로 진출하였다.

11월 21일 : 合水—白岩에 육박하고 있던 사단의 主力부대는 合水 東南쪽 稜線의 敵과 치열한 전투를 거듭한 뒤, 合水 一角에 돌입하였다.

곧, 先頭부대인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제 1 대대(장, 金尤榮소령)는 13.30에 大新里를 경유, 合水에 이르는 稜線일대에서 美 공군의 공중지원을 받으며, 맹렬한 공격을 가하여 이를, 격퇴하고 合水一隅에 돌입한 다음, 殘敵을 격멸하였으며, 제 2, 제 3 대대도 14.00

에 大新里를 경유, 제 1 대대에 後續하여 合水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대 본부는 鶴城洞에서 北六洞(吉州 西쪽 10km)으로 약진하였다. 그런데 이날, 동 연대는 사단 보충대로부터 新兵 300명을 인수하여 임시 新兵敎育隊를 편성하고 그 본부를 吉州에 설치하였다.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공격부대인 제 2 대대(장, 吳廷錄소령)는 이날 07.00에 載德에서 출동하였는데, 그중 제 5 중대(장, 金應烈소위)는 鐵路의 東北側 능선을 따라 진격 중, 敵 1개중대 병력을 발견하고 추격하여 城德을 점령한 뒤, 다시 合水를 향해 추격하였다.

그리고 제 1 대대(장, 金相均대위)의 제1, 제 4 중대는 載德에 배치되었으며, 제2, 제 3 중대와 연대본부는 吉州에, 제 3 대대(장, 鄭淳珉소령)는 城津에 각각 駐留하였다. 그런데 동 연대의 政訓部는 이날 吉州劇場에서 多數의 市民이 雲集한 가운데 장병들의 士氣 진작과 市民에 대한 民心收拾을 도모하기 위하여 市民慰安會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공병대대는 吉州--合水間과 合水--臨溟洞間의 道路를 수리하고 있었으며, 이 道路의 不良으로 제22, 제23연대의 對戰車砲중대는 道路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一時 機動을 중지하고 교육, 훈련에 치중케 되었다.

이날, 吉州의 사단사령부에는 군단장 金白一소장이 방문하여 參謀會議가 개최되었던 바 있고, 사단은 또한 일반명령 제 6 호(11.20부)에 의거 吉州市內에 防疫本部를 설치하였다.

한편, 이날 사단 右翼의 수도사단 主力부대는 會文에서 朱乙로 진격하였고, 사단 左翼의 美 제 7 사단 제17연대는 惠山鎭에 돌입하였다.

11월 22일 : 전날에 이어 제23연대(장, 金錄舜대령)의 제 1 대대(장, 金光榮소령)는 축차적인 병력증원을 받아가면서 치열하게 敵을 공격하여 11.00에는 合水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 퇴각하는 敵을 계속 추격하여 白岩으로 돌진하였고, 제 2 대대(장, 文泰俊소령)와 제 3 대대(장, 崔尙俊소령)도 제 1 대대를 後續 前進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대본부는 16.00에 大新里에서 合水로 약진 중이었다. 이러한 狀況進展에 따라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先頭부대인 제 2 대대(장, 吳廷錄소령)도 또한 合水에 육박하였고, 제 1 대대(장, 金相均대위)의 제 1, 제 4 중대는 載德에서 合水로 진출하려 하였으며, 제 2, 제 3 중대와 연대본부는 載德에 駐止하였고, 제 3 대대(장, 鄭淳珉소령)는 軍團본부를 경비 중이었다.

공병대는 吉州에 본부를 두고 載德--合水間의 鐵道보수 및 吉州--合水間과 合水--臨溟間의 道路를 정비하고 있으며, 포병대는 主力을 吉州에 두고 제 2 중대는 이날 12.30 載德으로 이동하여 제22연대를 직접 지원하였다.

한편 사단 右翼인 수도사단의 先頭부대로 진격하던 제18연대는 이날, 朱乙에서 출동하여 生氣嶺을 점령하였고, 사단 左翼인 美 제 7 사단의 제32연대는 風雪을 누르쓰고 惠山鎭으로부터 西南方16km지점인 三水를 향해 진격하였으니, 各 부대의 全般的인 작전進展은 에정계획대로 順調롭고 눈부신 가운데 敵敵격멸을 위하여 그 보조를 옮기는 것이었다.

11월 23일 :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 1 대대(장, 金光榮소령)를 先頭로한 主力부대로 하여금 白岩을 향해 공격하고 있었으며, 전투지휘소는 合水로 약진하였다.

따라서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제 2 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이날 04.00에 陽谷—合水일대에서 준동하는 敵 2개대대병력을 발견하는 즉시로 치열한 공격을 가하여 이를 격퇴한 다음, 小發嶺을 점령하고 다시 퇴각하는 敵을 계속 추격하여 해가 질 무렵 合水에 돌입하였는데, 이날의 전투에서 대대는 2명의 사병이 전사하고 2명의 사병이 부상하였으나, 敵 13명을 사살하고 6명을 포로한 외에도 水冷式 重기관총 1정, 小銃 2정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제 1 대대(장, 金相玹대위)의 제 2 중대는 寬德에서 吉州로 이동하여 배치하였고, 제 3, 제 4 중대는 寬德에서 城德으로 이동하였으며, 연대본부와 제 1 중대는 寬德에 駐屯하였다. 그리고 제 3 대대(장, 鄭昌錫소령)는 여전히 新興을 엄호 중이었다.

또한 공병대대는 이날 본부를 吉州에 두고 主力은 제22, 제23연대에 계속되어 鐵道 및 道路 보수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포병대대의 본부와 제 1, 제 3 중대는 吉州에 주둔하고 제 2 중대는 城德에서 제22연대를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전차공격대대는 主力을 端川에 두고 1개 중대는 22일 豆滿에 도착하여 美 제 7 사단 제32연대의 1개 중대와 교대하여 발전소를 경비하였으며,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는 이날 黑木里에서 平安南道 寧遠郡 社倉里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이날 사단의 右側 수도사단 主力부대는 生氣嶺에서 출동하여 鏡城을 점령하였다.

11월 24일 : 吉州의 사단사령부는 제22연대의 일부 병력으로 경비임무를 맡겨 要所에 配備하는 한편, 제23연대를 공격제대로 하여 白岩을 공격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제 1 대대(장, 金光榮소령)는 合水에서 퇴각하는 敵을 계속 추격하여, 이날 勝地白岩으로 육박하였고, 제 2, 3 대대는 合水에서 제 1 대대의 後續부대로 北進하였는데, 통신두절로 말미암아 그 진전상황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連隊의 사정에 대해서 제 3 대대에 근무한 吳熙暎하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우리 연대가 合水를 점령하고 白岩을 공격하기 위하여 北溪水驛(合水 東北쪽 4km)에 이르렀을 때, 제 2 대대는 鐵路를 따라 계속 白岩으로 들어가고, 우리 제 3 대대는 高地

를 공격하면서 들어가는데 山脈을 잘 못 타가지고 내려 가니까 우리 앞에 일단의 병력이 이동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들을 我軍의 先遣부대로만 알고 뒤 따라 갔는데, 사실인즉 이들은 철퇴하는 敵 패잔병들이었다. 이리하여 山頂에서 길을 잃고 헤메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눈이 많이 내려 무릎까지 빠졌고, 거기에다 중대단위는 地圖도 없었다. 이래서 이날 밤 대대본부와 각 중대는 수색대를 보내어 찾기 시작하였는데, 이튿날 새벽에야 길을 찾게는 되었지만, 그곳에서 밤에 길을 잃고 쓰러진 我軍이 80명이었는데 그중 50명은 凍傷으로 後送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는 이날 小登嶺에서 合水로 진격하였는데, 그중, 제7중대는 北溪水에서 陣地를 점령코 경계 중, 그 主力은 合水 右側山岳지대를 수색차 前進하다가 合水 後方 1km지점의 小登嶺부근에서 數 未詳의 敵을 발견하고 약 1시간에 걸친 교전을 전개한 끝에, 이 敵을 격퇴하고 合水로 진격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 대대의 제5중대는 19.00 陽谷에, 제6중대는 合水에, 제7중대는 北溪水에 각각 배치하여 엄중한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그리고 연대본부와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의 제3, 제4중대는 城德에서 20.00까지 合水로 진출하고, 제1중대는 城德에, 제2중대는 吉州에 각각 陣地를 占領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는 계속 군단경비에 임하였다.

또한 포병대대의 제2중대는 제22연대를 지원하고 있었고, 제1, 제3중대는 吉州에서 機會교육에 임하였으며, 공병대대는 吉州—合水間, 城津—臨溟洞—合水間의 道路를 정비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는 社倉里를 점령 중이었고, 인접 수도사단은 羅南을 경유하여 淸津에 육박하였다.

11월 25일 : 전날 白岩을 향해 공격한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이날 12.00 接戰없이 白岩을 점령하였고, 그곳에서 敵이 유기한 機關車 4대를 노획하였다. 이에 이어 연대본부와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白岩으로 이동하였고,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南溪에서 前進부대를 엄호하였다. 한편 이날 제9중대는 美 제10군단에 배속되어 咸興부근에 배치되어 治安維持에 임하고 있었다.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본부와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 및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의 제3, 제4중대도 合水에 진출하여 부근 일대의 경비에 임하였고, 제1중대는 城德을 중심으로 吉州—合水間의 鐵道연변에 배치되어 戰線에 대한 보급수송에 만전을 기하

기 위한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으며, 제2중대는 吉州의 사단사령부 주변에, 그리고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는 城津의 군단사령부 부근에 각각 위치하여 治安을 維持하고 있었다.

한편 사단의 右側에서 전날 淸津으로 진격한 수도사단의 主力부대는 이날 淸津을 완전히 점령하였고, 동 사단의 前方지휘소도 倉文비행장에서 朱乙로 약진하였다.

11월 26일 : 전날 白岩에 진출한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의 제1대대(장, 金光榮소령)는 이날 연대 예비대로서 白岩에 집결하고 있었는데, 그중 제2중대만은 전수곡(白岩 北쪽 3km)로 파견하여 부근 일대를 경비토록 하였다.

연대 본부와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도 이날 白岩에서 次期작전에 대비하였으며,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南溪에 배치되어 前進부대의 後方을 경비하였다. 한편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연대본부와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는 이날 倉水에서 白岩으로 이동하고,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의 제7, 제8중대는 倉水에서 南溪로 이동하고, 제5중대는 城德으로 이동하였고, 제6중대는 倉水에 배비하여 부근 일대의 경비를 담당케 되었다.

이리하여 同 연대는 이날을 기하여 사실상 제23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거니와 동 연대가 24일부터 3일간에 걸친 倉水—白岩지구의 전투에서 거둔 戰果는 적지 않았으니, 敵 15명을 사살하였고, 6명을 포로로 한 것을 비롯하여 다발총 4정, 소총 9정 및 水冷式 중기관총 1정등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반면 我軍은 사병 2명이 전사하였고, 2명이 부상하였었다.

그런데 이날 同 연대의 제7중대는 보급품을 수송하던 도중 北溪水—白岩間의 內澤(一名 안택 倉水 北쪽 4km)에서 11.45 열차가 전복되어 사병 5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사병 18명과 민간인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날 한편 사단 右側의 수도사단 主力부대는 전날 淸津을 점령한데 이어 부근일대의 殘敵을 토벌하고 있었다.

(2) 茂山 및 惠山鎭 攻擊戰(11. 27—30)

(가) 작전계획

사단의 茂山 및 惠山鎭공격전에 관한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군단작명 제121호(作命附錄 제32호)에 의거 수립되었는데, 군단장 金白一소장은 예하 2개사단으로 하여금 현 진출선에서 左側의 美 제10군단과 戰線을 유지하며 담당지구 내의 韓·滿, 韓·蘇국경선까지 北進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1. 수도사단은 2개 연대로써 會寧을, 1개 연대로써 雄基를 점령, 확보하라. 그리고 예하 제1연대의 장병 特攻大隊를 吉州에 주둔시켜 白頭山南地區 전투부대에 배속하라.

(이동은 別命)

2. 제3사단은 최단시 간내에 1개 연대로써 羅南—茂山街道를 따라 茂山을 점령, 확보하며, 1개연대의 예비대를 羅南에 보유하라. 이 예비대 사용은 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동은 別命한다.

3. 제26연대(美 제7사단 배속)는 1주일 이내로 咸興—端川—惠山鎭으로 前進할 것이다.』

이상의 군단작명에 의거하여 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세부 작전계획을 수립, 하달하였다.

『1. 제23연대장은 主力으로 羅南—茂山街道를 北進, D+3일 24.00까지 LD線에 진출, D+4일 06.00를 기하여 茂山을 공격, 점령하라. 그리고 일부 병력으로서는 陵山方面으로 迂廻하여 D+3일 24.00까지 LD線에 진출, D+4일 06.00를 기하여 主力과 호응 茂山을 공격, 점령하라.

2. 제22연대장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別命이 있을 때는 羅南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城津주둔 1개대대도 別命時(D+3일로 예정) 羅南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3. 제26연대장은 惠山鎭에 도착함과 동시에 白頭山南地區戰鬪部隊長의 지휘를 받으라.

4. 포병대장은, 제22연대에 직접 지원 중인 포병 1개중대를 원대복귀 시키고, 제23연대에 포병 2개중대(75mm 및 105mm각각 1개중대)를 직접 지원케 할 것이며, 제26연대가 惠山鎭에 도착하면 포병 1개 중대(75mm)를 직접 지원토록 하라.

5. 공병대장은, 각 연대에 배속 중인 地雷探知小隊의 현 임무를 계속 수행케 하고, 제23연대에 공병 1개 중대와 부르도자 1대를 배속하여 직접 지원케 하라.

6. 전차공격대장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別命이 있을 때 白頭山南地區戰鬪部隊長의 지휘를 받으라.』

11월 27일 : 그간 合水—白岩을 거점으로 험준한 山岳을 이용하여 我軍의 진격을 저지하여 왔던 敵 勞動旅團 1,000여명(勞動黨 극열분자로 편성)은 連日 我軍의 치열한 공격으로 同방어선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 主力은 茂山 延水洞方面으로 철수하는 한편, 잔여 200여 병력은 新德里(白岩—惠山鎭間)方面으로 퇴각하고 있었다.

作命에 따라 제23연대(장, 金浴錄대령)의 본부는 이날 09.00에 列車로 白岩을 떠나 16.00에 吉州로 轉進하였고, 南溪의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를 先頭로 白岩의 제1, 제2대대

도 09.00에 徒步로 출발하여 城德에 집결 중이었으며, 기차로 吉州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리하여 白岩지구의 작전임무는 완전히 제22연대에 인계되었다. 동 연대가 이날 현재까지 白岩지구 전투를 통하여 거둔 戰果는 敵 15명을 사살하고 다발총 3정을 노획하는데 그쳤으나, 吉州에서 惠山鎭과 茂山으로 연결하는 이 지역의 확보는 我軍의 작전상 중대한 意義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본부와 제 1 대대(장, 金相均대위)의 3개 중대는 白岩에 위치하여 부근일대를 경계하였고, 제 3 중대(장, 宋秉俊중위)는 이날 惠山鎭을 목표로 北進하였으며, (본문 30일자 관계면담기사 참조) 제 2 대대(장, 吳廷錄소령)는 南溪에 위치하여 그중 제 5 중대를 城德에, 제 6 중대를 合水에 각각 배치하였다. 제 3 대대(장, 鄭淳珉소령)는 여전히 군단정비에 임하고 있으며,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도 社倉里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사단 右側의 수도사단은 이날 군단 作命에 따라 主力부대인 제18연대와 제 1 연대를 松洞에서 富寧—會寧으로 진격케 하고, 제 1 기갑연대를 土幕洞에서 羅津—雄基方面으로 진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11월 28일 : 전날에 이어 이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본부는 吉州를 떠나 羅南으로 향하였고, 제 1 대대(장, 金光榮소령)의 본부 및 제 4 중대는 城德을 출발하여 17.00에 吉州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제 1 대대의 主力과 제 2 대대(장, 文泰俊소령) 및 제 3 대대(장, 崔尙俊소령)의 2개 중대는 積雪로 이동이 곤란하여 城德에 駐留하였으며, 제 3 대대의 나머지 2개 중대는 이날 22.50에 列車편으로 吉州를 떠나 羅南으로 향하였다.

이와 반면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본부와 제 1 대대(장, 金相均대위)의 3개 중대는 白岩에 주둔하였고, 제 3 중대(장, 宋秉俊중위)는 전날에 이어 惠山鎭을 목표로 北進 중, 이날 15.00에 南中里(白岩 西北쪽 20km)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제 2 대대(장, 吳廷錄소령)는 南溪에 주둔하고 제 5 중대는 城德에, 제 6 중대는 合水에 각각 配置되어 있으며, 제 3 대대(장, 鄭淳珉소령)는 계속 城津에서 군단사령부를 경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포병대대의 본부 및 제 1, 제 3 중대는 吉州에 주둔하였고, 제 2 중대는 城德에서 제22연대를 지원 중 17.00에 吉州로 복귀하였다.

한편 右側 수도사단의 제18연대는 이날 長興洞을 향해 진격하였고, 제 1 연대는 漁遊洞을 점령하였으며, 제 1 기갑연대는 土幕洞부근에서 殘敵을 토멸하고 있다.

그런데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는 이날 美 제 3 사단 작전명령에 의거하여 08.00 社倉里

주둔지에서 洪君里(豊山郡 天南面)로 이동하여 美 제7사단에 배속되었다. 동 연대는 11월 9일 美 제1해병사단에 배속된, 후 이날까지 地境里—黑水里—社倉里線에서 敵 489명을 사살하고 40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重기관총 6정, 소총 149정, 다발총 717정 輕기관총 16정을 노획하였던 것이다. (註 : 11월 9일 美 제1해병사단 배속 명령은 언제 변경되어 美 제3사단에 배속되었던가는 詳考할 수 없었다.)

11월 29일 : 이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본부는 羅南에 설치되었고,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와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載德으로부터 05.00에 吉州에 도착하였으며, 다시 제2대대는 12.00에, 제1대대는 15.00에 각각 吉州를 출발하여 羅南으로 前進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의 나머지 2개 중대도 載德에서 吉州를 경유하여 羅南으로 전진 중이었다.

또한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본부 및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의 3개중대는 전날에 이어 白岩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3중대(장, 宋秉俊중위)는 06.00 深浦에서 출동하여 惠山鎭을 향해 전진하였고, 제2대대(장, 吳廷錄소령)의 2개 중대는 南溪에, 제5중대는 載德에, 제6중대는 合水부근에 배치, 경계 중이었다.

그리고 제3대대(장, 鄭淳珉소령)의 2개 중대는 城津에서 계속 군단경비에 임하는 한편, 앞서 東岩里(端川 北쪽 28km)에 파견되었던 2개 중대는 이날 城津으로 집결 중이었다.

공병대대의 본부와 제1중대는 吉州에서 종래의 임무를 계속하였고, 제2중대는 제22연대를, 제3중대는 제23연대를 각각 지원 중이었다. 또 포병대대는 이날 吉州에 집결하였고, 전차공격대대의 主力은 端川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그중 1개 중대가 悲寧에서 발전소를경비하고 있었다.

한편 사단사령부는 吉州에서 羅南으로 前進하였으며, 洪君里에 위치한 제26연대(장, 徐廷哲중령)의 본부와 제2대대(장, 韓周弘소령)는 豊山으로 진격하고, 제1대대(장, 權用性소령)는 惠山鎭으로, 제3대대(장, 朴徹洙소령)는 三水로 각각 前進하였다.

또한 사단 右側의 수도사단 제18연대는 이날 長興洞을 점령하고 제1기갑연대는 大津에서 龍南洞으로 진출하였으며, 제1연대는 漁遊洞에 배치되어 있었다.

11월 20일 : 이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의 본부와 제3대대(장, 崔尙俊소령)는 羅南에 位置하고 있었고, 제2대대(장, 文泰俊소령)는 이날 07.00에 제1대대(장, 金尤榮소령)는 16.10에 각각 羅南에 집결하여 제6중대와 제7중대는 漁遊洞(羅南 西北쪽 16km)으로 진출시켰다.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의 본부와 제1대대(장, 金相均대위)의 3개 중대는 白岩에 위치하였고, 제2대대(장, 吳延錄소령)의 2개 중대는 南倉에, 제5중대는 載德에, 제6중대는 合水부근을 占領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장, 鄭淳根소령)는 城津에 집결하여 군단 경비를 담당하였다. 특히 이날 제1대대의 제3중대(장, 宋秉俊중위)는 09.00 敵의 경미한 지향을 격퇴시키면서 惠山鎭에 돌입하여 13.00까지 邑內에 잠복하고 있던 殘敵을 완전히 섬멸한 후 市民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市街行進을 하였던 것이다.

〈惠山鎭 점령이후 powell 대령과 악수를 나누는 宋秉俊중위〉

이 제3중대의 白岩—惠山鎭진격전은 전투상보와 證言間의 時間上 및 內容面에 있어 相差가 있으나, 詳考할 수 없어 중대장 宋秉俊중위의 증언을 여기에 附記하여 뒷날의 補正을 기다리려 한다.

『惠山鎭 진격의 작전임무는 三水—甲山에서 惠山鎭을 향해 진출할 美 제7사단과의 상호 연계성을 갖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 중대는 공병 1개 소대를 배속받고, 대대고문관 「리라」와 함께 07.00 白岩에서 徒步로 행군하기 시작하였다. 白岩에서 嶺下까지는 鐵路로 12km거리인데 白岩에서 3km가량 가면, 大角峰(△2121) 下를 貫通하는 3km에 달하는 터널이 있다. 마침 터널에는 敵이 유기한 貨車가 通路를 막고 있어 모두 불 태워버린 다음, 300m 간격으로 1개 분대씩 前進시켜 터널을 통과하여 11.00경 嶺下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靑年들을 몇 사람 모집하여 同行하였다. 공병대가 지뢰탐지기를 갖고 앞섰고, 그뒤에는 통신병이 서서 前後 부대간과 연대본부와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鐵路를 따라 前進하였다. 南中(嶺下 西北쪽 8km)에 도착했을 때였다. 17~18세가량의 여학생 40여명이 나와 太極旗를 흔들며 환영하였다. 이들은 서울에서 敵에게 징발되어 오던 중 避難한 학생들이었다. 南中에서 식사를 한 다음, 다시 얼마간 행군하여 露營을 하고, 다음날 아침 출동할 무렵에는 敵의 엄호부대와 교전하여 敵 3명을 사살하고 다시 前進하였다. 深浦里에서는 민간인

을 많이 볼 수 있었고, 특히 잊을 수 없었던 일은 70여세되는 한 노인의 초대를 받아 民家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크다란 太極旗를 하나 선물로 받은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日帝時 그곳 일대에서 獨立運動한 志士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오랜동안 보관 해온 志士들의 혈이 담긴 것과도 같은 감회를 안겨 주었기 때문에 비록 本品은 전투 중에 잃었으나 당시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深浦里를 떠나 계속 행군하여 11월 23일경 오후 늦게 우리는 鋤山(惠山鎭 東쪽 6km에) 도달하였다. 그곳에는 이미 아침에 惠山鎭을 점령한 美 제7사단 제17연대의 일부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날 저녁 惠山鎭에 들어 가려고 하였더니 警備官이 "지금 들어가면 敵으로 誤認되어 사격을 당할 염려가 있지 않으니 내가 먼저 들어가 通報를 한 다음 내일 들어가자."고 하여 應諾하게 되었고, 고문관은 저녁에 혼자 惠山鎭을 다녀왔다.

이튿날 아침 07.00 우리 중대는 비로소 惠山鎭에 들어 갔다. 惠山鎭은 3~400호가 훨씬 넘는 國境의 작은 都市로써 市街는 空中爆擊으로 거의 불탔고, 江 건너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이날 11.00 에는 그곳에서 편성한 自治委員會의 委員長과 美 제17연대장 Powell 대령, 地方有志 한분, 그리고 나하고 네사람이 記念촬영을 하였다.

惠山鎭의 警備는 南쪽을 美軍이, 北쪽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L-19이 나타나 "내일 아침 09.00까지 철수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에 다시 吉州를 향해 철수하는데 계속 별다른 전투가 없다가 南中里부근의 溪谷에서 약간 접전한 적이 있다. 그리고 南中에 도착하니 여학생 13~15명이 남아 있다가 같이 따라 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집결시간 내에 동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곧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와 버렸는데, 그것은 당시 마음 아프게 여긴 일 중의 하나였다.[1]

라. 전투 후의 개황

제3사단 병력의 吉州—白岩—惠山鎭 진격전은 11월 7일 이후 2주간에 걸쳐 險峻한 山岳高原지대의 酷寒과 暴雪을 두름쓰고 전개되어 마침내는 敵을 韓滿國境지대로 逐出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中西部戰線의 제2군단 正面에서는 中共軍 제121 및 122사단이 11월 26일 새벽부터 德川—軍隅里線에서 孟山—北倉—浦項里線으로 급속히 南下하므로써 中西部戰線은 일대 위기에 봉착하였고, 사단 左側의 美 제7사단과 美 제1해병사단도 역시 中共軍 대부대의 포위작전으로 작전상의 轉移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右側 수도사단 正面에도 敵 제41사단과 제507여단 및 해안경비대 10,000여명이 淸津 北쪽 30km지점에서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공세로 이전할 준비를 갖추었고, 會寧에도 10월에 新編한 제

8군단 제5,6,7사단이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러한 全 戰線에 관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11월 30일 『冬季作戰에 대처하기 위하여 東北部戰線의 진병력을 철수한다.』고 言明하였다. 이에 따라 제1군단사령부는 12월 1일 10.00 추격을 멈추고 공세방어로 전환하기 위한 작전명령 제112호를 하달하였다.

『1. 수도사단의 主力은 北靑 新北靑지구에, 그리고 나머지 1개 연대는 利原에 각각 이동, 집결 하라.

2. 제3사단은 吉州—合水—惠山鎭線에서 수도사단의 轉進을 엄호하는 동시에 該線에서 공세방어를 실시하라.』는 要旨였다.

이에 의거 제3사단장 崔錫준장은 이날 15.00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1. 제22연대(缺1개대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므로서 右翼 제23연대와 연계하여 공세방어를 실시하고, 제3대대는 城津에 집결하여 사단 직할대대가 되라.

2. 제23연대(缺1개대대)는 즉시 현위치로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主力은 吉州로 이동하고 1개대대는 古靑洞을 거점으로 明川方面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이며, 左翼 제22연대와 연계하여 수도사단의 轉進을 엄호하는 동시에 공세방어를 실시하라.』

이리하여 제3사단의 北進작전은 南北統一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채 끝내고, 기약없는 공세방어의 새로운 작전으로 전환하여야만 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제3사단 제22연대장 金應祚대령

(1966. 2. 15 統一靑年團長室에서, 예, 존장)

吉州—合水—白岩—惠山鎭을 진격했을 때에는 기온이 매우 내려 吉州가 零下 12°가량인데 비해 白岩이나 惠山鎭에는 零下 30°를 오르내렸으며, 더우기 눈이 많이 내려 교통은 거의 마비상태에 놓여 있었다.

白岩에 진출하여서는 연대본부를 설치하고 12km前方의 高地에 前進 OP를 두는 한편, 1개 중대로 하여금 有線을 架設하면서 惠山鎭으로 진출케 하였다. 이 때 美 고문관 중위인지 대위인지가 따라갔다. 뒤에 내가 惠山鎭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美 제7사단 제17연대가 들어왔다가 撤收를 하고 없었다. 그때는 벌써 中共軍이 오기 시작했는데 사단으로 부터도 『급히 철수하여 茂山을 탈환 首都사단의 左側을 엄호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60여명으로 유격대를 편성하여 선발대로 앞세우고 茂山으로 진격하다가 다시 철수명령을 받고는 진격을 중지하고 白岩에 집결하여 吉州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 제3사단 제22연대 제5중대장 金應烈소위

(1966. 2. 2 6관구사령부에서, 중령)

吉州—白岩진격시 우리 중대는 독립중대가 되어 鐵路의 右側 능선을 타고 전진 중 敵 1개 중대병력을 추격하여 靺德과 城德을 점령하였다.

靺德에서 白岩을 공격할 무렵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2,000高地에서 敵 1개 연대병력과 조우하여 치열한 전투를 전개한 끝에 敵의 軍醫官 大佐를 포로하여 後送하였었다. 거기서 다시 白岩으로 들어 가는데 제23연대가 左側으로 전진해 왔

다. 白岩에는 敵 약 3개 연대가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이미 淸津에서 입수한 바 있는데, 이곳에서 저항한 敵은 그 일부병력으로 2시간에 걸친 투전끝에 白岩을 점령하였다.

◇ 제3사단 제23연대장 金漂舜대령

(1965. 12. 7 국방대학원에서, 소장)

城津에서 일주일간 체류하다가 惠山鎭 街路上의 터널이 있는 1436高地에서 공격명령을 받았다. 때는 이미 겨울에 접어들어 기온이 급강하하였으나 越冬對策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夏服을 입고 진군하였다. 白岩山을 넘을 때는 降雪이 계속되어 무릎에 찼으므로 행군에 많은 고난을 가져다 주었다. 그뒤 白岩에서 茂山으로 가라는 命令을 받고 吉州—淸津으로 이동, 2개 중대를 선발대로 48km까지 前進시켰음 무력 철수하라는 無電연락을 받았다.

◇ 제3사단 제26연대 제1대대 姜永河소위

(1965. 8. 12 제9사단 제29연대에서, 중령)

長津湖方面에 출동하여서는 제1발전소 및 제2발전소를 점령하고 제3발전소를 점령할 단계에서 中共軍의 대병력에 포위되어 거의 分散당 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뒤 三水—甲山을 거쳐 惠山鎭에 들어가서 2일간 머물었는데, 그곳에서 敵 200명을 포로하여 三水—甲山까지 데리고 왔었다. 惠山鎭에서는 美 제7사단 제17연대 제1대대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철조망 및 각종 보급품은 비행기로 운반되었다.

◇ 제3사단 제26연대 제3대대 姜壁連소위

(1966. 3. 11 KA G-3 중령)

美 제1해병사단에 배속되어 社倉里에서 고개까지 추격하였는데 연대장이 교대하게 되었다. 이곳에 일주일간 배치되어 있다가 철수명령을 받고 기차로 온양리—端川을 거쳐 洪原에 도착한 다음, 美 제7사단 수송대대 차량으로 다시 新興里—甲山을 거쳐 제1대대는 惠山鎭으로, 제2대대는 연대본부와 함께 豊山에 위치하고 우리 제3대대는 금수리로 이동하였다. 우리 대대는 이곳에서 이틀밤을 자고 美 제7사단에 인계한 다음, 철수명령을 받고 철수하였다.

제1군단 배속 공병단 張東雲중위

(1966. 11. 28 주택공사 예: 준장)

吉州—白岩전투시 제3사단 지원부대로 배속되어 12월 초에 白岩에 들어갔다. 임무는 吉州—白岩간의 천로 보수 공사로써 우리는 白岩에서 吉州쪽으로 해 내려 오고 제3사단 공병대는 吉州에서 白岩으로 해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 白岩은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별명처럼 韓國에서 제일 높은 高原지대에 자리잡고 있었고, 당시의 기온은 영하 25度, 눈보라와 더불어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돌멩이들이 사정없이 휘몰아쳤다. 이러한 조건하에 수행한 당시의 공병작전은 나에게 있어 가장 어려웠던 작전이었다.

◇ 제3사단 공병대대 朴忠鉉이병

(1965. 8. 7 제6군단 제1105야공단에서, 소령)

제26연대에 배속되어 北青—豊山을 거쳐 甲山못 미쳐 있는 九九嶺까지 갔다가 철수하여 비행장 활주로공사에 임하다가 우리 분대는 11월 초 제26연대에 배속되었다.

吉州—白岩—釵山의 천로를 따라 前進하면서 地雷 제거작업을 하였는데 釵山에서 철수명령을 받고 내려왔다.

4. 吉州—淸津—富寧 進擊戰 (50년 11월 1일부터 50년 11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6 호
상 황 도 제 36 호
작명부록 제31, 3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 장 소장 金 白 一
수도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제 1 연대 장 대령 韓 信
제 1 대대 장 대위 成 洛 翼
제 2 대대 장 소령 申 彦 國
제 3 대대 장 대위 李 聖 鳳
제1기갑연대장대령 金 東 洙
제 1 대대 장 소령 朴 京 虎
제 2 대대 장 대위 朴 益 均
제 3 대대 장 소령 林 觀 默
제18연대 장 대령 任 忠 植
제 1 대대 장 소령 李 吉 泳

소령 李 秉 倫
(11월 10일부터)
제 2 대대 장 소령 金 鳳 翔
제 3 대대 장 소령 安 政 一

배속부대
제10야포대대
수도야전공병대대

병력 : 약 12,000명
장비 : 105mm 곡사포 18문
57mm 대전차포 14문
81mm 박격포 20문
60mm 박격포 25문
3.5inch 로켓트포 30문

敵 軍

제41사단 | 제509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은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단 단독으로 咸興—興南을 점령하였는데, 이 당시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가 咸興 北쪽 長津湖一赴戰湖 南端과 水上里 北方까지 진격하였다가 美 제10군단 제 1 해병, 제 7 사단에 陣地를 인계하고, 10월 30일 연대 일부가 西陽里(咸興北쪽 9km)에 집결하여 次期 작전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洪原—北靑 경유, 豊山과 洪原을 점령하고 있다가 美 제 7 사단 제17연대에게 陣地를 인계하고, 東海岸 道路로 迂廻하여 이미 제 1 기갑연대에 의해 점령되었던 端川을 경유, 10월 30일 城津으로 이동하였으며, 제 1 기갑연대(장, 金東

洙대령)는 北靑에서부터 단독으로 利原—端川—城津을 차례로 점령하고, 10월 30일 현재 城津市 鶴城洞에서 吉州方面을 공격하기 위해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다.

즉, 10월 30일까지는 사단 예하 3개연대가 각기 단독으로 진격하였다가 사단의 吉州—明川以北의 공격을 위해 다시 合同하여 吉州 北方의 東海岸 道路를 중심으로 進擊하기 위하여 사단戰力을 집결하였던 것이다.

이무렵 長津—豊山線에서는 數 未詳의 中共軍이 侵入하여 戰線을 긴장시켰으며, 城津 北方에는 敵 제41사단 및 제507여단등이 吉州를 워시하여 그 北쪽 明川—漁郎川 등지에서 逐次的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다. 10월 30일 東海岸沿道를 진격하고 있던 제1기갑연대가 城津을 점령하자 사단사령부는 곧 端川으로 前進하여 吉州와 그 北方의 진격에 따르는 諸般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은 10월 30일에 城津을 점령하고, 사단 先頭부대가 城津 北쪽 3km에 있는 鶴成洞에 진격하여 陣地를 점령하게 되자, 일단 부대를 정비한 다음, 다시 吉州(城津北쪽 30km) 공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吉州는 咸鏡線과 惠山線의 鐵路와 幹線道路의 分岐點으로 이곳을 점령, 확보해야만 豆滿江畔까지의 진격작전이 용이하게 되고, 北緯 41°線을 制壓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점령, 확보키로 하였다.

그래서 城津을 점령하고 先頭에 진출해 있는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로 하여금 幹線道路를 따라 正面 공격케 하였고, 豊山에서 迂廻 轉進하여 城津에 진출한 제1연대(장, 韓 信대령)를 右一線 攻擊梯隊로써 臨溟洞—瓦峴洞—許儀洞의 軸線을 따라 吉州 東쪽을 迂廻, 壓迫키로 措置하였다.

또한 사단장은 吉州 부근의 敵陣이 완강할 뿐만 아니라, 我軍의 공격에는 불리한 開豁地임을 감안하고 UN공군의 공중폭격을 요청하여 敵의 활동을 극도로 제한시킨 다음, 兩個 軸線을 따라 공격하여 목표를 점령할 계획이었다.

(2) 작전실시

11월 1일 : 城津 점령을 완료한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豊山—洪君에서 轉進하여 온 제1연대(장, 韓 信대령)와 合勢하여 吉州 공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 무렵 敵은 城津전투에서 潰走한 제507여단과 吉州경비 1개 대대 및 漁大津方面에서 증

원된 부대등이 1개 대대의 砲支援 아래 吉州 東北쪽 268高地—552高地등과 新塔洞—錦川洞(吉州 南쪽 4km) 일대의 野山에 완강한 陣地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吉州에는 직사포와 곡사포를 배치하여 일대 決戰을 企圖하고 있었다.

이 吉州는 城津 北쪽 30km에 위치한 軍事上 要部로서 北쪽으로는 明川—漁郎川—朱乙—羅南—淸津에 通하고, 西쪽으로는 合水—白岩—惠山鎭에 이르는 分岐點에 位置한 곳이다. 그러기 때문에 韓·滿, 韓·蘇國境까지의 진격에 있어 我軍側에서 볼 때는 力攻하여야 할 要地요, 敵軍側에서 볼 때는 固守하여야 할 據點이 아닐 수 없었다.

사단의 吉州 점령을 위한 계획으로 제1기갑연대가 南大川을 따라 正面으로 공격케 하고, 제1연대는 東쪽으로 迂廻하여 花台川을 따라 吉州 東側方을 공격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1기갑연대는 이날 日新洞(吉州 南쪽 12km)을 향해 추격을 계속하고 있었고, 제1연대는 城津에서 東北海岸 沿道를 따라 花台洞—瓦峴洞을 향해 接敵, 진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新興(咸南 新興郡廳所在地) 北方에 있는 火蝶峙 北麓의 永上里 일대와 그 西北쪽 白山 부근에서 利原에 上陸한 美 제7사단 제31연대와 교대하기까지 계속 敵과 대치하고 있었다.

11월 2일 : UN공군이 吉州를 空中爆擊하는 가운데 제1기갑연대 主力은 日新洞(吉州南쪽 12km)에 진격하였고, 제1연대는 迂廻하여 花台川 下流의 瓦峴洞에 진격하여 四周경계에 임하는 한편, 각각 연대 前方지휘소를 그곳에 설치하고 吉州 공격을 위한 兩面 작전을 敢行하게 되었다.

吉州 東쪽 552高地에서는 吉州를 비롯하여 南大川과 그 左右 平野일대를 瞰制할 수 있기 때문에 正面공격하는 제1기갑연대가 심하게 노출 당하게 되어, 이 高地의 右側背를 공격하기 위해 제1연대가 花台川을 따라 北上 진격하게 된 것이다.

11월 3일 : 제1기갑연대는 龍虎里—德山洞—新塔洞을 突破하여 錦川洞(吉州 西南쪽 4km) 稜線까지 追擊하였는데, 新塔洞에 참방중대가 진출하였을 때, 전초부대인듯한 敵 1개 중대 규모의 방력과 치열한 射擊戰이 전개되었다. 지형적으로도 불리한 位置에 놓여지게 된 연대는 공군과 砲兵의 지원폭격에 힘 입으면서 敵의 직사포, 박격포탄이 우박같이 쏟아지는 戰線을 突貫하여 鐵道(咸鏡線) 北쪽의 稜線占領에 成功하였다. 한편 제1연대는 전날의 陣地인 瓦峴洞에서 계속 진격, 北上하여 이날 552高地 東쪽 詩儀洞까지 진출하였다.

兩個연대가 이렇게 진출함으로써 吉州 東南 外廓 4~8km를 正面과 東側背에서 포위, 압축하게 되었고, 接敵을 유지하면서 야간에 敵을 固着시키기 위한 요란사격을 실시하는 한

편, 예광탄을 계속 발사하여 接敵線을 유지하면서 야간경계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다.

11월 4일 : 吉州 占領을 위한 전투는 이날 최절정에 이르렀는데, 市內에는 美 해병사단 제1비행단 전폭기가 출격하여 敵 전차 2대와 야포 4문을 파괴하고 350명의 敵을 市 주변에서 사살하는 등 대대적인 공격 준비폭격을 가하는 가운데, 제1기갑연대의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는 제1, 제3중대가 吉州에 通하는 道路 西쪽 錦川洞—168高地일대를 공격하여 敵 약1개 중대의 병력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다음, 15.00에 168高地를 점령완료하였다. 이 高地를 점령한 다음에는 개활지를 통과하여 吉州市內로 육박하였고, 제2중대는 南大川 東側 下蘆까지 진출하는 즉시로 110高地를 점령한 다음, 281高地—118高地(吉州 南쪽 2~3km)에서 敵 약 2개 중대병력과 근접전투가 전개되었다. 이 118高地일대는 吉州 南쪽 1.5km의 要塞地로서 이곳이 무너지면 吉州의 南正面이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되어 敵으로서는 吉州방어를 위한 최후 死守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강력한 포지원과 계속적인 突擊의 반복으로 이날 오후 吉州市內 東側一角에 突入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제3중대는 제1중대와 더불어 168高地를 점령한 다음, 吉川에서 惠山鎭에 이르는 道路일대에서 침입하는 敵을 격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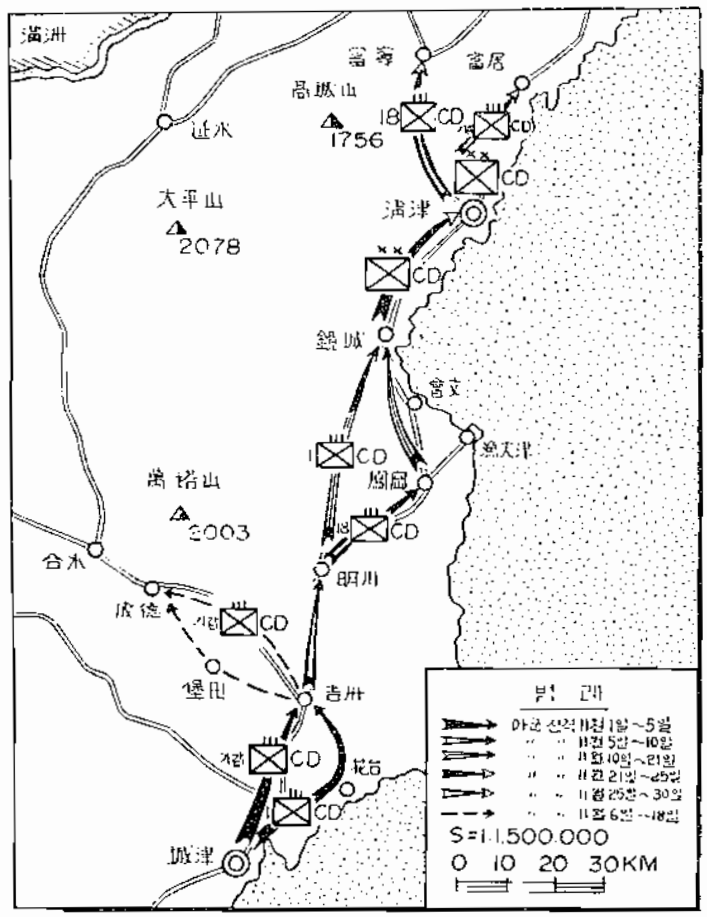
제2대대(장, 朴益均대위)는 이날 未明에 대대관측소를 南大川 東쪽 200高地 山腰에 설치하고, 그 主力은 200高地 西端에서 東쪽으로 통하는 능선상에 陣地를 구축하고, 13.00에 제5중대를 先頭로 281高地(吉州 南쪽 3km)를 공격하였다. 이때에 地上砲火 및 항공지원으로 敵의 鋭鋒이 多少 꺾어지는 틈을 타서 계속 공격을 감행하여 281高地를 점령하고 552高地—268高地 西端의 능선에까지 一擧에 진출하여 陣地를 구축하면서 急編 방어태세를 굳히게 되었다.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제2대대와 합동하여 268高地—552高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날 07.00에 281高地를 제2대대에 인계하고, 552高地를 공격하여 吉州 東쪽에 屹立되어 있는 이 高地를 완전점령하였다. 대대는 OP와 중화기중대를 이 552高地에 배치하고 2개 중대로 吉州 北쪽 250高地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20.00에 이르러서는 이 高地도 점령한 다음, 곧 야간경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전날의 陣地인 瓦峴里에서 花台川을 따라 계속 추격하여 이날 許儀洞부근까지 진출하여 黃谷里를 향해 더욱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11월 5일 : 吉州방어에 필사적인 저항을 企圖하였던 敵 제507여단은 전날 市內 進入을 위한 要地인 市 西쪽의 168高地 東南 쪽의 118高地—281高地—268高地—552高地등이 我軍의 砲火와 제1기갑연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방어선이 붕괴되자 主力은 明川方面으로 퇴

상황도 제36호 吉州—淸津—富寧進擊圖


滿洲
富寧
富居
昌城山
1756
18
CD
CD
CD

다 발 총	15정	수 류 탄	13상자
중기관총	3정	손 실	
경기관총	10정	전 사	20명
45mm직사포	9문	부 상	9명
82mm박격포	8문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吉州에서 明川方面으로 철수한 敵 제507여단 敗殘兵과 증원된 敵 제893海兵부대 약 400명이 82mm박격포와 重機, 多發銃 輕機등으로 장비하고 明川街道에서 방어하고 있는 것을 探知하고 즉시로 이를 공격하기 위해, 전날 陣地인 許儀里 부근에서 黃谷洞을 경유, 明川方向으로 追擊하였다.

제1대대(장, 成溶發대위)는 黃谷洞까지 진출한 다음, 그 일대를 경계하고 있었고,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는 黃谷洞에서 다시 明川을 향해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黃谷洞 西北쪽 445高地와 460高地를 공격하고 있었다. 연대 예전차 공격대대는 예비대로서 許儀里에 控置되어 있었다.

한편 이날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赴戰湖 東北쪽 水上里와 白山 부근에서 美 제7사단 제31연대와 陣地를 교대하고 咸興 北쪽 9km의 西陽里로 이동 완료하여 次期작전을 위한 戰力을 가다듬고 있었다.

11월 6일 : 吉州를 점령완료한 제1기갑연대는 사단 作命 제26호에 의해 鐵德—城德方向의 合水에 이르는 道路의 수색 경계와 鐘田—大新지구에 出沒하는 殘敵을 擊滅하기 위해 이날 吉州에서 그 西쪽 龍潭里—金城里에 진격하여 陣地를 점령하고 부대정비와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는 許儀里 北쪽 巨門洞과 黃谷洞 西쪽의 455高地및 460高地 일대에서 전날에 이어 계속 陣地를 점령하고 敵의 反擊에 대비하고 있었다.

吉州 전투 후 항공정찰 보고에 의하면 清津 및 羅南方面에서 敵의 行軍縱隊가 海岸線을 따라 一路 南下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이 敵은 漁郎川 일대에서 決戰을 企圖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대비하여 사단장은 咸興北쪽 西陽里에 駐留 중인 제18연대를 급거 明川方面으로 轉進시켜 戰力을 統合發揮키로 하였다.

11월 7일 : 제1기갑연대는 이날 吉州에서 西北方 山岳지대로 敗走한 다음, 유격화한 敵을 박멸하기 위하여 主力으로써 龍潭洞—鐘田—劒端村에 이르는 峽谷을 수색, 前進하여 劒端村 부근에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그 일부는 豆山線 鐵路를 따라 吉州 西北쪽 8km에 있는

南石洞으로 진출하여 敵情을 탐색하고 있었다. 연대는 吉州에서 鑿山地區의 수색활동을 전개한 이래, 敵 자동소총 16정과 휴기관총 1정등을 노획하였다.

한편 제1연대는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가 先頭 공격梯隊로써 明川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漁大津方面에서 증원된 것으로 추측하는 敵 제893해안경비대 약 400명과 교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제1대대(장, 咸溶贊대위)와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각각 黃谷洞과 445高地일대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後方경계를 하는 一方으로는 吉州—明川 街道에 沿한 退路를 차단하고 있었다.

11월 8일 : 이날 사단지휘소는 城津에서 吉州로 이동하고 군단지휘소도 12.00에 이곳으로 前進하여 韓·滿, 韓·蘇國境에 진출하기 위해 모든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제1기갑연대는 敵 제507부대소속 약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大遠山 高地 西南等의 大新里—中山谷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我軍의 진출을 저지하려는 企圖를 探知하고, 이날 07.00 露營地인 鑿山에서 大遠山 高地를 향하여 진격하게 되었다.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는 鑿山에서 검단—上八里를 경유, 계곡을 따라 大遠山 高地를 敵의 별 저항없이 점령하고, 이날 14.00에 大新里를 향하여 다시 진격하게 되었는데, 中山谷에서 敵 약 100여명을 포착하는 즉시로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이때 敵은 屍體 8구를 그냥 遺棄한 채로 分散潛走하였으며, 대대는 다시 上八里로 陣地를 옮긴 다음, 敵의 만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이날 제1대대(장, 咸溶贊대위)가 有天里—219高地—250高地일대에 경비배치하고 있었고,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는 在德里일대에 陣地를 점령하고 경계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国門洞 二區—上洞北方의460高地—445高地일대에서 吉州—明川間의 道路를 監制하며 敵情을 살피고 있었다.

한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사단作命 제110호에 의거 철도를 이용, 明川에 진출하여 漁郎川 및 鳳儒일대의 敵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11월 9일 : 제1기갑연대는 上八里에서 부대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연대정찰대가 中山谷에 진출하여 敵情을 탐색한 결과, 中山谷 道路兩等 高地에 敵 약 2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음을 포착하였으나, 그 때가 이미 17.20을 지나 暮時이 짙어지므로 사격이 곤란하여 敵의 동태만을 계속 살피면서 本隊와의 연락을 유지하고, 다음 공격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전날의 陣地인 有天里와 新德 및 445高地일대에서 계속

경계에 임하고 있었고, 또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明川에 진출하여 漁郎川을 목표로 진격하고 있었으니, 즉 제 1 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이날 06.00에 제 1 중대가 尖兵中隊, 제 2 중대와 대대본부가 본대, 그리고 제 3 중대가 後衛中隊가 되어 接敵 행군으로 造幕山·龍岩里를 경유, 14.30에 鳳岡橋入口인 104高地 부근에 진격하였는데, 그 前方 蓋福洞 뒷 稜線 일대에 敵 약 2개 대대규모의 방력이 견고한 陣地를 구축한 다음, 決戰을 企圖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대대는 즉시 전투대형으로 散開하여 제 1 중대는 104高地—100稜線으로 진출하여 132高地를 공격하였다. 이 132高地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蛇形의 漁郎川을 渡河하여야 되는데 敵의 火力이 심하였으므로, 重火器와 野砲가 敵陣에 대한 集中火力을 퍼붓는 가운데 13.00에 이르러 드디어 敵前 渡河에 성공하고, 江北岸 일대를 점령하였다. 제3중대는 104高地의 大部稜線에서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가 15.00에 漁郎川을 渡河하여 鳳岡 北쪽의 標高 90 稜線을 공격하였으나, 敵陣一帶에서 처열한 火力의 집중을 받게 되어 더 이상의 진출을 중지하고 急編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敵과 대치하고 있다가 18.00에 다시 공격을 감행하여 이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 2 중대는 대대 예비대로서 高地를 占領하면서 蓋福洞 後方高地공격에 대한 지원火力을 集中하면서 104高地로 진출하였다.

11월 10일 : 제 1 기갑연대는 이날 12.00에 吉州 西北方 中山谷의 敵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일대의 敵은 전날 정찰대에 의해 이미 포착된바 있었으므로 쉽게 격멸할 수가 있었는데 不時에 공격을 당하게 된 敵은 당황한 나머지 中山谷 西北쪽 山間으로 四散敗走하였고, 이 일대를 점령한 연대는 그 간 敵의 본거지였던 大新里를 공격하여 16.20에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 中山谷 일대의 전투에서 연대는 손실이 全無한 가운데 58명의 敵을 사살하고 8명을 포로로 하였으며, 10정의 소총등을 노획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제 1 대대(장, 咸洛翼대위)가 전날에 이어 明川부근의 有天里—高坪里—277高地일대를 점령, 배치하고 있었고, 제 2 대대(장, 申彦國소령)는 在德에서 이날 아침에 출발하여 12.00에 龍田洞(新明川 北쪽4km)에 진출한 다음, 662高地일대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 3 대대(장, 李鳳凰대위)는 吉州 北쪽 12km에 있는 溫水坪에서 이날 06.00에 출발하여 南方里에 진출하는 즉시로 四周경계에 들어 갔으나, 제 9 중대 正面인 197高地에 단대호 未詳의 敵이 출몰하였으므로 곧 이를 격퇴하고 現陣地에서 急編방어에 들어갔다. 또한 연대 後方을 경계하고 있던 대전차공격대대는 그 主力이 澤山里의 경계에 임하고 있었고, 그 일부는 龍洞에 진출하여 北方의 敵勢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敵은 主力으로서 후퇴하여 反擊을 企圖하고 있으나, 일부는 山岳隘路를 이용하여 빈번히 기습을 企圖하여 我軍의 前進을 저지코자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 最前方인 鳳凰에 진출한 제18연대 제1대대(장, 李秉鎬소령)는 전날의 점령지인 鳳凰부근 104高地—132高地—90高地-74高地일대에서 敵과 대치, 교차 중이었으나, 이 일대의 敵勢가 너무나 완강하고 계속 증원부대가 도착한듯 하여 비록 일시나마 苦戰을 면치 못하였다.

11월 11일 : 城津과 吉州와 明川을 차례로 빼앗긴 敵은 明川과 鳳凰 및 漁大津을 잇는 東海로 흐르는 漁郎川방어진마저 뚫리 당하면 淸津이 직접적으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감안했음인지 이 江岸일대의 천연적인 地形地物을 이용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決戰을 企圖하고 있었다.

또 이 일대에는 城津에서 부터 吉州-明川으로 계속 후퇴하였던 敵 제507여단 패잔병과 淸津에서 南下한 敵과 漁大津方面에서 증원된 단대호 未詳의 海岸경비부대와 戰車隊 등이 합류하여 전차를 先頭로 위협사격을 가하면서 反擊戰을 企圖하는듯 하였다.

이러한 敵과 대치하고 있던 사단 最先頭 전격부대인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전날 점령하였던 鳳凰 일대의 104高地와 132高地와 90稜線, 그리고 74高地등에서 계속 陣地强化에 힘쓰는 한편, 敵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 연대 前方지휘소도 明川邑에서 西面(明川郡)으로 약진한 다음, 作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제18연대 西南쪽 永安—龍田洞—龍洞—荷坪里일대에서 縱深 깊은 陣地를 구축하고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장, 金東漢대령)는 吉州 西北方에 있는 中山谷의 전투를 끝내고 鷲山—柳亭洞일대에 駐留하면서 敵情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주간에는 부대정비와 훈련을 실행하는 一方, 야간에는 四周경계에 임하여 戰力을 배양하기 위한 現地 부대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11월 12일 : 鳳凰일대의 敵은 유리한 地形을 이용하여 계속 반격을 企圖하였다. 특히 漁郎川부근의 地形은 明淵川과의 두 江을 사이에 두고 標高 100~200정도의 野山지대로 江北岸은 가파르기 때문에 敵에게는 天然要塞地이지만 我軍의 공격면에서 볼 때는 최대의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일대에는 日帝時에 日本軍의 訓練場으로 사용된 丘陵 地帶로 되어 있어서 軍事的으로도 이용가치가 높았던 지역이었다.

鳳凰부근에 진격 중이던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이날도 敵과 대치상태로 산발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었는데, 戰車의 지원을 받은 敵 6~7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대거 出擊하게 되자, 연대는 일시 漁郎川 南岸으로 陣地를 철수하게 되었다.

이 무렵 雪上加霜으로 氣象이 불량하여 항공 근접지원이 제대로 안 되었으며, 또한 이곳이 東海에 있던 구축함의 射程을 벗어나 있어서 그 지원포격도 안 되었다. 그래서 重巡洋艦 Rochester號가 이 지역 海岸으로 急派되기도 하였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의 제1대대(장, 咸溶贊대위)가 有天里에서 古站洞으로 陣地를 옮기고 四周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山彦國소령)는 古站洞에서 龍田洞으로 진출하여 차후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고,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新明川 부근에 있는 197高地를 확보하고 있다가, 敵 전차 4대와 적사포 및 박격포의 집중포화로 高地 확보가 곤란하게 되자, 일시 陣地를 後方으로 옮기게 되었다.

대체로 이날은 敵의 반격에 대처하면서 受動的인 困境 속에서 치열한 싸움으로 始終하였던 것이다.

11월 13일 : 이날은 150mm의 降雪이 있었으나, 美 해병대의 전폭기가 출격하여 鳳凰 北쪽에서 敵 전차 2대를 파괴하였는데, 敵陣은 아직도 매우 완강하였으며, 계속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하였다.

제18연대 正面인 鳳凰—壽福洞 일대의 戰況이 如意치 못하자 연대장 任忠植대령은 융통성있는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陣地를 後方으로 일시 이동케 하였다. 즉 견고한 敵의 陣地에서 그들의 主力부대를 빼내어 敵의 戰列이 前後로 分離되는 틈을 타서 一擊에 이를 분쇄하기 위한 陽動戰法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明川部 西面까지 진출, 설치되어 있던 연대 前方지휘소도 明川으로 옮기고, 本隊는 明澗川 南岸에서 새로운 陣地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도 전날에 이어 계속 陣地强化와 敵의 반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溫水里—古站洞—新明川—龍田洞일대의 道路경계와 敵이 西北側에서 증원되어 역습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봉쇄하고 있었다.

11월 14일 : 제18연대는 明川邑으로 그 지휘소를 옮긴 다음, 본대는 다시 明川 東北쪽 嬉台峰(△254)과 極洞 西南쪽 明澗川과 接해 있는 175高地일대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날 04.00에 敵 약 2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175高地를 향해 明澗川을 渡河하여 反擊하는 것을 발견하자, 곧 일제사격과 野砲, 박격포등의 집중 砲火를 퍼부어 드디어 敵을 격퇴

하였다.

특히 이때 연대에 배속되어 있던 제10포병대대 제2중대장 金燦福대위는 敵이 이 高地 北쪽에서 공격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확한 관측과 集中砲火의 誘導로서 効力射를 一時에 發揮하여 敵 2개 중대 이상의 병력을 사살함으로써 敵의 南下企圖를 좌절케 하였고, 한동안 불리하였던 戰勢를 전환시키는데 큰 動機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174高地의 正北쪽 4km지점에 있는 468高地에 敵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준동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대는 射程을 延伸하여 그 일대에 集中砲擊을 가하고 있었다.

또 燧台峰 754高地에 陣地를 점령하고 있던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明洞川을 건너 254高地에 접근하려는 敵 약2개 중대규모의 병력을 포착하는 즉시로 집중사격을 가하여 그 企圖를 분쇄하였으며, 日暮와 더불어 야간 경계태세로 移行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極洞 부근에서 明洞川을 사이에 두고 종일 交戰이 벌어져 一進一退의 混戰이 계속되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信대령)는 제18연대 陣地의 西南쪽 新明川 일대에서 敵의 반격을 擊碎하기 위해 경계배치와 일부 陣地를 교대하고 있었는데, 제1대대(장, 成溶贊대위)의 첨병소대가 古站洞에서 龍川洞에 진출하여, 수색경계를 담당하고 있었고, 제2대대(장, 申彦國 소령)와 제3대대(장, 李聖鳳)는 新明川 北쪽에서 敵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대의 대전차 공격대는 이날 溫水里—貞谷洞일대를 점령하면서 激動하는 戰勢에 대비하고 있었다.

11월 15일 : 이날은 美 해병대의 항공근접지원으로 敵의 돌파확대를 斷念케 하였고, 전차 2대와 자주포 2대 및 차량 12대를 격파하는 동시에 B-29편대는 淸津 北方 會寧에 전후 4,000 ton에 달하는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豆滿江邊의 鐵道와 병참시설을 폭격하고 있었다. 전날에 이어 계속 전투가 전개되었던 175高地는 明洞川의 中流 南岸에 위치한 突出陵로서 永安과 極洞을 瞰制하는 까닭으로 이 高地의 領有如何는 彼我間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곳이었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이 일대에서 決戰二次에 걸친 공방전 끝에 陣地를 점령하였는데, 제1대대(장, 李秉勳소령)는 이날 02.00에 敵 2개 대대규모의 反擊을 맞이하게 되어 치열한 근접전투를 전개하게 되었다. 이때 대대는 日出時에 再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陣地를 175高地에서 南쪽 능선으로 이동하고 날이 밝자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의 증원 병력과 함께 다시 突擊을 감행하였다.

이때 砲兵隊의 지원포격과 重火器중대의 側射 斜射로써 敵의 銳鋒이 일단 꺾어진 틈을 타

서 同 高地를 향하여 突進한 결과, 11.00까지에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자 敵은 175高地에서 分散하여 退却을 시작한 다음, 徒涉이 가능한 明澗川을 건너 極洞 뒷山과 水岩山으로 敗走하였는데, 이 絶好의 때를 놓치지 않고 제 1 중대는 모든 火力을 집중發揮토록 하였으므로 敵은 많은 시체를 遺棄한채 分散, 退却하게 되었다.

제 2 대대(장, 金鳳翔소령)도 전날의 陣地인 煙台峰의 254高地와 그 西쪽 175高地에서 敵의 야간공격으로 일시 175高地 後方으로 이동하였으나, 이날 08.30에 제 1 대대와 함께 175高地 東側을 탈환한데 이어 계속 254高地를 향해 근접전투를 벌인 결과 20.00에 이르러 同高地를 점령하는 즉시로 야간방어태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연 4일간에 걸친 地上공격과 空中폭격으로 말미암아 明澗川일대에서의 敵의 反擊力은 漸次로 약화되었고, 연대도 약간 前進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거둔 戰果는 다음과 같다.

敵사살 1,753명, 포로 105명, 노획 : 적사포 4 문, 다발총 101정, 경기관총 62정, 소총 649정 등이었다.

한편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연대본부를 吉州에서 新明川으로 약진시키고, 新明川 北쪽 龍田洞--龍洞과 그 北方 高地群의 공격을 계속하였다.

연대의 제 2 대대(장, 申彦國소령)과 제 3 대대(장, 李聖鳳대위)는 전날의 陣地에서 큰 변동없이 방어태세를 堅持하고 있었다.

11월 16일 : 제18연대 제 1 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이날 08.00에 175高地 左端에서 明澗川을 건너 永安과 極洞 뒷山인 196高地와 207高地및 217高地등의 敵陣地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약 5 시간에 걸친 공격이 계속된 다음, 敵의 주저항선으로 보이는 196高地--207高地—217高地 일대를 突破하고, 194高地—177高地線에서 陣地를 점령, 야간 방어태세에 임하고 있었다.

동 연대 제 2 대대(장, 金鳳翔소령)도 이날 08.00에 공격을 시작하여 14.10에 煙台峰(△254)高地의 後斜面을 완전히 점령하고, 立石洞--124高地(明澗川 南岸)의 中腹線에서 陣地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편 제 1 연대의 제 1 대대(장, 咸溶翼대위)는 대대 OP를 243高地에 설치하고 본대는 468高地—453高地—225高地에 각각 1 개 중대씩 배치하였으며, 제 2 대대(장, 申彦國소령)는 534高地의 敵을 驅逐하고 435高地—468高地線에 진출하였고, 제 3 대대(장, 李聖鳳대위)는 400

高地 및 300高地, 170高地등에서 陣地를 점령하여 次期작전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그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鏊川(吉州郡 長白面) 부근에서 부대 정비를 계속한 다음, 이날 06.00에 吉州에서 列車로 南石—城德을 경유, 春興洞에 진격하였다. 이때 敵은 白岩—城德間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我軍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는데, 연대도 春興洞에 진출하자마자 鐵路 兩側의 931高地 및 700稜線에 先發隊의 陣地점령에 이어, 그곳에 主陣地를 선정하고 敵의 반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16.00에 軍團作命 제120호(作命附錄 제31호)가 하달되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군단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한다. 제3사단장은 사령부 및 제23연대를 이동시켜 臨溟洞—吉州間에 이어 合水를 향하여 공격한 다음, 이곳을 점령하라.

수도사단장은 제1기갑연대를 제3사단과 任務交代케 한 다음, 이동하여 該兵力을 統合指揮하여 작전지시 제81호의 목표를 공격 점령하라.」

11월 17일 :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은 明澗川과 接해 있는 175高地 및 254高地(煙臺峰)일대의 치열한 공방전이 끝나고, 本隊가 明澗川을 渡河하여 極洞—本岩—造幕山 일대의 敵 주저항선을 突破하여 陣地를 점령하게 되자, 연대본부를 明川邑에서 明川郡 東面으로 前進시키고, 그곳에서 漁郎川—鳳岡지구를 攻略하기 위해 諸般 작전지시를 하고 있었다.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이날 06.00에 長岩일대의 陣地에서 제2중대를 右一線, 제1중대를 左一線, 제3중대를 助攻 겸 예비대로 하여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13.00에 이르러 龍山洞(造幕山北쪽 2km) 左右側 溪谷에 敵 약 2개 중대병력이 버티고 있으면서 대대의 진격을 지지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곧 包圍態勢로 展開하는 즉시로 一時에 集中사격을 가하였다. 이렇게 되자 火力에 쫓기게 된 敵 主力은 鳳岡方面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고, 分散된 일부병력은 龍山洞 後方高地와 溪谷 隱蔽地에서 消極的으로 저항하였으나, 我軍의 계속적인 追擊작전에 몰리는 바 되어 일단 龍九洞(鳳岡西北쪽 3km)으로 후퇴하였다가 그 北쪽 2km지점에 있는 104高地에서 후퇴 敵兵이 合流하여 다시 反擊을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대대의 공격에 敵은 漁郎川을 건너뛰면서 鳳岡方面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20.00에 이르러 이 高地일대를 완전히 점령하는 즉시로 急編방어에 들어가게 되었다.

제3대대(장, 安旼一소령)는 煙臺峰에서 明澗川 南쪽을 따라 鳳岡方面으로 진격하였는데, 造幕山 南쪽의 巨門洞과 그 北쪽 132高地를 점령하고 113高地까지 계속 前進하여 陣地를 점령한 다음, 야간경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므로써 제 1 대대와 제 3 대대는 明澗川을 사이에 두고 縱深 깊게 陣地를 구축하여 鳳岡—漁郎川 점령의 공격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永安 北쪽에 있는 漁郎川 明前邊 일대에서 교전 중이었는데 제 1 대대(장, 咸溶奭대위)는 300高地와 250高地및 217高地등을 점령, 확보하고, 제 2 대대(장, 申彦國소령)는 제 6 중대方面에 있는 370高地에서 敵 약 1 개 중대규모의 병력이 漁郎川을 渡河하는 것을 포착하자마자 이를 완전히 擊滅시켰고, 제 3 대대(장, 李聖鳳대위) 主力은 永安市內에 진출하고, 그중 1 개중대는 極洞 野砲陣地 경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대전차특공대는 156高地, 189高地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부대 연대 正面의 敵은 제507여단의 일부 병력이었으며, 직사포, 박격포, 輕기관총, 重기관총등으로 裝備되고 있으면서 최후까지 반격하려는 기세가 매우 등등하였다.

한편 吉州 西北方 白岩 方向을 진격하고 있던 제 1 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전날 本隊가 春興洞에 진출한 다음, 城德 공격을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이날 08.00부터 春興川 北쪽 鐵路邊兩側에 있는 700高地 稜線과 931高地에서 총공격을 시작하였다. 박격포 6 문의 근접지원사격을 병행하면서 城德을 향해 과감한 突進을 하게 되었는데, 城德에서는 合水—白岩을 堅守하기 위한 敵 전초방어陣地가 있었으나, 연대의 일제 공격에 의해 數 未詳의 敵이 많은 시체를 유기한 채 戰意를 상실하여 合水—白岩方向으로 퇴각하였다.

이 春興洞—城德間의 전투에서 연대는 敵 제507 여단의 참모와 전투중대장 2명을 포함한 도합 80명을 사살하였는데, 戰果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果			
사살	80명	소총	18정
포로	5명	수류탄	70발
노획·중기관총	1정	손실	
경기관총	2정	戰死	11명
다발총	20정	부상	14명

(제 1 기갑연대 부대역사자료철 참조)

11월 18일 : 鳳岡을 중심으로 한 漁郎川 南岸일대에 제18연대와 제 1 연대가 陣地를 점령하므로써 明川—永安에서 鳳岡에 이르는 明澗川 부근의 極洞—造幕山—龍山洞 일대의 치열한 공방전은 일단락이 된 셈이었다.

즉 敵 제41사단의 증원부대와 吉州地區에 부터 潰走하였던 제507여단이 필사적인 反擊戰을 5일간이나 계속하여으나, 사단의 그칠 줄 없는 돌파와 포위작전에 부닥치게 된 결과,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차츰 그 鋭鋒이 꺾여지면서 후퇴를 시작하여 전날 밤에 漁郎川 北岸으로

퇴각하고 鳳岡左右 野山에서 병력을 재수습할 것으로 보았다.

先頭 돌파부대로 계속, 반복공격을 감행하였던 제18연대의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龍山洞 일대에서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龍岩洞에서 각각 陣地를 점령하고 일부는 敵情을 계속 수색하는 한편, 鳳岡일대의 再공격을 위해 戰列强化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 기간에 砲兵隊는 射程을 延伸하여 鳳岡을 中心으로 하는 敵陣에 포격을 集中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509高地(水北 北쪽 2km)의 敵陣을 격퇴하기 위해 花龍洞—水南 일대의 漁郎川 南岸을 연하는 線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다. 즉 제1대대(장, 咸溶贊대위)는 水南 南쪽 1km지점에 있는 300高地의 敵을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는 花龍洞에 있는 534高地의 陣地를 각각 공격하여 陣地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고형洞일대를 占領하고 있었다.

연대는 이 509高地일대에 후퇴, 집결하여 반격을 企圖하고 있는 敵 제507여단의 1개 대대 병력 약 500명이 박격포, 重기관총, 輕기관총등으로 裝備되어 있음을 判察하고 이의 격파를 위한 陣地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전날 陣地인 城德(吉州—台水 중간)에서 제3사단 제23연대(장, 金漆舜대령)과 그 任務를 교대한 다음, 이날 16.00까지 다시 吉州를 경유, 新明川 北쪽 龍洞으로 부대이동을 완료하였는데, 연대는 漁郎川—鳳岡일대에서 작전 중인 제18연대를 증원키 위해 轉進하게 된 것이다.

11월 19일 : 제18연대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이날 04.00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鳳岡南쪽 3km의 漁郎川 南岸 突出部인 104高地 일대의 敵을 격퇴시킨 다음, 漁郎川 北岸에 처열한 엄호사격을 集中的으로 계속하는 가운데, 07.30에는 漁郎川을 徒涉하는 즉시로 鳳岡左右側 능선을 向하여 躍進하여 交戰을 展開한 끝에 그 부근일대의 敵 陣地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06.00에 龍岩洞을 출발하여 原洞里를 경유, 07.00에 공격을 시작하여 09.00에 236高地를 탈환하고 계속 前進하였으며, 제3대대(장, 安岐一소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湖南里(遮幕山 東北쪽 3km)에서 공격제대에 가담키 위해, 이날 06.40에 출발하여 良見里에 진출 중, 그 東쪽 84高地일대에서 후퇴하고 있던 敵 약2개 중대병력을 발견하자, 곧 이 敵을 擊破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하였다. 즉 良見里에 대대 지휘소를 정하고 대대장은 중화기중대로서 화력지원케 하면서 제10중대를 右一線, 제11중대를 左一線으로 편성하여 84高地를 공격하였다. 또한 제9중대는 84高地와 2km 北쪽에 있는 64高地를 迂廻시

킴으로써 그 퇴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각 중대는 서로 뒤질세라 공격을 시작하여 이날 16.00에는 84高地 일대의 敵을 擊破한 다음, 17.00에 龍川洞으로 집결하여 그 東側方에 대한 경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제1연대 제1대대는 主力으로써 335高地(鳳凰西北쪽 13km)에 陣地를 점령하였고, 그 北쪽 2km의 龍岩洞 일대에서 반격을 企圖하던 敵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三興洞 국민학교에 집결한 것을 발견하자, 곧 제2대대의 일부 병력과 함께 이를 急襲하여 擊滅하여 버렸다. 이때 제3대대는 龍岩洞 西쪽 1km지점에 있는 朱南川 上流의 돌출부인 202高地에서 그 西側方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新明川 北쪽에 있는 龍洞 집결지에서 이날 極洞—道幕山을 경유, 20.00 鳳凰에 진출하여 제18연대의 東側方을 진격하기 위해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다.

11월 20일 : 사단이 明潤川과 漁郎川을 완전히 席捲하고 鳳凰일대를 점령완료하자 敵은 會文 경유, 朱乙方面으로 철수하면서 축차적으로 지연전을 위한 陣地를 구축하여 사단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특히 會文일대를 방어하려는 敵의 陣地가 그 西南쪽 稜線일대에 완강히 구축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단은 제18연대를 正面과 東側의 兩個 軸線으로 공격케 하고 제1연대는 전날의 공격로(朱南川 上流)를 계속 北進하여 建州山(△359會文 西쪽6km)을 점령하여 敵의 西側背를 공격함과 동시에 그 퇴로를 차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은 제1대대를 右一線으로, 漁大津을 경유하여 會文으로 공격케 하였고,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공격토록 하였다.

그래서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이날 06.00에 鳳凰일대의 陣地에서 行動을 시작하여 08.00에 河隅洞—八景台—漁大津을 경유, 朱南川 河口의 會文을 공격하여 13.50에 會文비행장을 점령, 확보하고, 飛行場 西쪽 2km에 있는 要點인 188高地에 突擊, 前進하여 그곳을 점령, 확보하였다. 이때 左一線으로 正面공격하던 제3대대(장, 安昶一소령)도 06.00에 공격을 시작한 이후, 長潤洞 西側의 155高地와 高地를 제10, 제11중대가 점령하고, 제9, 제12중대는 예비대와 화력지원부대로서 富岩洞 뒷山에 위치하면서 先頭공격대인 제10, 제11중대를 지원사격하였다.

朱村後場에 이르는 개활지를 약진하여 공격하고 있던 제11중대는 81高地(西上洞 뒷山)와 그 前方 107高地까지 점령하고, 제10중대가 14.00에 富岩洞 뒷山인 188高地를 그 左側方에서부터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예비대와 중화기중대도 龍山洞으로 모두 前進하였다. 이로써 연대 제1, 제3대대는 188高地 北쪽 下麓에 陣地를 구축하여 次期작

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 제1대대(장, 咸榮翼대위)는 建州北(△395)공격에 이어, 그 東北쪽 3km지점의 107高地를 점령하여 인접 제18연대의 제3대대와 戰線의 일부가 서로 連結하게 되었다.

제2대대(장, 申彦國 소령)도 建州北 北쪽 下麓인 龍南洞 일대의 敵 집결지를 발진하여 이를 擊破하고 359高地에서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 무렵 연대 正面 敵 제41사단과 제507여단의 數 未詳의 병력은 朱乙方面으로 퇴각하였고, 그들은 羅南—清津부근에서 決戰을 企圖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사단 예비대로 後續하고 있던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이날 鳳岡 東쪽 4km지점인 河陽洞에 진출하여 부대 정비를 강화하면서 사단의 次期작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특히 사단의 전 장병들은 零下 16°를 오르내리는 酷寒 속에서 한벌의 작업복과 헤어진 군화, 一人 당 한장 반의 毛布, 그리고 美製 방한외투를 입고서도 오히려 凜然한 모습으로 戰鬪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城津港에는 26,000噸의 冬季피복을 적재한 L.S.T.가 入港하여 前方 사단에 보급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 다른 L.S.T.는 방한화, 毛양말, 솜內衣, 야전잠바등을 싣고 釜山을 출발하여 城津港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6隻의 L.S.T.가 海上에서 제1군단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었다.

11월 21일 : 이날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사령부를 明川에서 會文으로 前進시키고 10여일간 치열했던 漁隱川 전투에서 敵의 끈질긴 反擊 企圖를 완전히 擊碎해 버린 승리의 戰訓을 腦裡에 새기면서 다음의 清津 탈환작전과 나아가서 國境진격의 가슴 부푼 작전구상에 여념이 없었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이날 朱乙점령을 위해 예하 제2, 제3대대를 공격梯隊로 삼고 제1대대를 예비로 하여 未明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2대대(장, 金風翔소령)는 이날 05.00에 龍川洞 陣地를 출발하여 龍川—朱乙間 道路沿邊의 起伏稜線 일대를 수색, 前進하였는데, 敵의 특별한 저항이 없는 가운데 17.00에 朱乙邑內에 突入하여 邑內의 수색과 아울러 朱乙溫泉의 河川일대에 陣地를 점령하고, 그 東北方에 대한 次期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3대대(장, 安政一소령)는 이날 06.00에 전날 陣地를 출발하여 17.30에 朱乙에 진출한 다음, 제2대대와 같이 前方경계에 임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연대 예비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이날 10.00에 朱乙街道를 前進 중, 17.00에 永安里부근에서 陣地

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極洞에 있는 前方지휘소를 朱村後場으로 前進시키고, 사단의 左一線 공격梯隊로서 朱乙—羅南方面으로 후퇴 중인 敵 제41사단과 제509여단의 主力을 擊破하기 위해 제1대대(장, 咸溶翼대위)는 551高地를 공격, 점령하고,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는 358高地 陣地에서 그 北쪽으로 진격하여 537高地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下古洞에 진출하여 제2대대와 같이 537高地에서 경계배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이날 河隅洞에서 會文西쪽 4km지점인 斗南洞으로 本隊가 모두 前進하였다.

11월 22일 : 朱乙을 점령한 제18연대 先頭부대는 이날 또다시 鏡城--羅南을 향해 진격을 시작하였는데,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朱乙에서 이날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150高地와 350高地에서 저항하는 敵을 擊退하고, 계속 진격하여 18.00에 生氣嶺에서 陣地를 확보하였고, 제3대대(장, 安岐一소령)는 연대 左一線 공격梯隊로써 06.00에 朱乙 西쪽의 殘敵을 擊滅하고, 271高地를 경유하여 379高地와 191高地를 점령, 확보한 다음, 急編 방어陣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예비대임무를 띠고 있는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이날 08.00 永原洞에서 徒步행군으로서 12.00에 永原고개 3km지점에 진출하여 휴식을 취한 다음, 16.00에 朱乙入口에 진출하여 宿營준비에 임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연대본부도 朱南面에서 朱乙로 이동하고 酷寒期 작전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였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사단 左一線 공격 梯隊로 朱乙—鏡城에 이르는 道路 左側 群少高地에서 진격전을 감행하였으니, 연대 제1대대(장, 咸溶翼대위)는 전날 551高地에서 격전을 벌인 다음, 계속해서 이날 226高地—246高地—346高地 일대에 집결된 敵 2개대대를 포착, 격멸하고 同 高地를 확보하였으며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는 605高地와 549高地 일대에서 경계배치하고 있었고, 제3대대(장, 李聖鳳대위)는 花下洞에 진격하여 四周방어 陣地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이날 朱乙에 진격하여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는 生氣嶺에, 제2대대(장, 朴益均대위)는 大項里 일대에 진출하여 敵情을 수색 중이었고, 연대 前方지휘소는 斗南里(會文 北쪽 4km)에서 溫泉里로 이동하였다.

11월 23일 : 제18연대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이날 06.00에 전날 陣地에서 北進하여 鏡城을 향해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09.30에 304高地의 敵을 완전히 격퇴한 다음, 계속 전진 중 13.00에 166高地와 212高地를 점령하여 鏡城 西北쪽 高地一帶를 확보하게 되었다. 제2

대대(장, 金鳳翔소령)는 海岸線을 공격하기 위해 13.00에 212高地 東端을 점령하고 17.00에 137高地 및 226高地를 계속 점령하여, 그 일대를 경계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는 鏡城 西北方으로 진격하여 鏡城과 羅南에서 羅北川을 따라 후퇴하려는 敵을 포착, 격멸키 위해 迂廻공격을 시작하였는 바, 제1대대(장, 咸溶翼대위)는 이날 三章고개 北쪽의 417高地를 공격하고 있었고,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과 제3대대(장, 李鍾鳳대위)는 羅北川 中流의 三章까지 一挙에 진격하여 그 일대를 확보하였다.

또한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本隊가 鏡城에 진출한 다음,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가 그 西北쪽 12km지점에 있는 阿陽洞에 진격하여 羅北川 일대의 敵情을 감시하고 있었다.

11월 24일 : 제18연대는 이날 朱乙에 있는 前方지휘소를 鏡城으로 추진시키고, 淸津공격을 위해 우선 羅南과 그 北쪽 輸城에 이르는 稜線일대를 점령하려는 작전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1대대(장, 李秉薰소령)는 이날 09.20에 羅南에 接敵없이 進入하여 市街一圓을 수색한 다음, 10.30에 羅北洞에 진격하여 淸津을 西南쪽에서 瞰制하고 있는 303高地(羅北川 北岸羅南北쪽 4km)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303高地 淸津南쪽 入口에 있는 主要 地形地物로서 南쪽으로는 羅北川과 개활지를 瞰制하고 있어서 연대의 공격에 매우 不利한 地形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여기가 淸津 防守의 要地이므로 敵은 완강한 방어陣地를 구축하고 收容部隊를 배치한 다음, 강력히 저항하고 있었다.

대대는 11.00부터 이 303高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제1중대와 제2중대를 제1선으로 展開하고, 제3중대로 예비대로 하여 全火力을 集中시키면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敵의 간단없는 사격으로 303高地에 이르는 개활지를 前進하기가 곤란하였다.

幅 1km의 羅北川을 사이에 두고 彼我 대치상태에 있다가 공격준비 사격에 이어 직접 지원사격으로 대대의 全火力을 集中시키면서, 20.00에 夜陰을 이용한 再공격을 감행하여 21.00에 303高地를 점령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렇게 하여 淸津을 점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高地를 점령, 확보한 다음, 敵의 역습에 대비하여 急編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四周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이날 06.30에 鏡城을 출발하여 羅南을 경유, 17.00에 敵의 저항없이 羅南 3km 東쪽지점인 水南洞 東쪽 海岸邊에 진출하여 부근 高地와 海岸線에 병력을 배치한 다음, 次期작전을 준비하였다.

또한 제3대대(장, 安敦一소령)도 303高地 右側 일대에 陣地를 점령하고, 야간경계에 임

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전날 陣地인 三堂—阿陽—417高地에서 계속 敵情을 살피면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이날 제18연대가 점령했던 303高地의 東側 유관洞(淸津市 南端 羅南北쪽 2km)에 陣地를 점령하고 淸津市를 적절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11월 25일 : 敵은 淸津 西南外廓의 방어陣地가 무너지자 그 主力은 會寧과 雄基方向으로 퇴각하면서 일부 掩護部隊를 要地要部에 殘置하여 사단의 急追를 저지하는 동시에 기회를 보아 逆襲을 감행하여 지연전의 效果를 거두고자 하였다.

이날 사단사령부는 會文비행장에서 朱乙로 前進, 설치하였고, 그 이동 직전까지 군단장 金白一소장과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 및 사단장 宋堯讚준장이 戰況의 推移와 淸津 탈환 以後의 작전계획등에 대하여 要談을 나누게 되었다.

元來 淸津은 重要港口都市로서 蘇聯의 極東最短連絡基地의 역할등과 함께 전략상 중요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 곳이므로 反擊 초기부터 UN공군에 의해 수십차에 걸쳐 공중폭격을 당한 바 있으며, 특히 1개월 전부터 UN軍 機動艦隊는 6 inch의 艦砲로 163발을 이곳에 集中砲擊하여, 主要 軍事 시설은 거의 파괴, 또는 消燼 당하여 敵 보급기지로서의 기능을 잃은지 오래 되었다.

특히 淸津의 北, 西, 南쪽의 三面이 山岳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西南 外廓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미 市內에서의 敵은 온거할 수 없게 되고, 그대로 후퇴를 강요 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敵은 淸津市 南端一角에서 강력히 저항하다가 陣地를 突破 당한 다음부터 輸城 西北高地일대에 엄호부대를 殘置하고 지연전을 위해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淸津西北方의 敵을 追擊하기 위해 이날 未明부터 공격을 시작하였으니 즉,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전날의 陣地인 303高地에서 이날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303高地 北쪽 4km지점인 松亭洞을 10.00에 점령한 다음, 다시 18.00에 經洞 後方高地까지 진격하여 그 일대를 확보하게 되었다.

제2대대(장, 金鎭翔소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이날06.00에 水南洞(羅南 東쪽3km)을 출발하여 海岸線과 製鐵工場 일대를 수색, 前進하였다. 이때 敵의 저항은 없었다. 16.00에는 南石洞에 진출하였으며, 밤이 되자 淸津市內로 通하는 道路沿線과 그 前方高地 일대에 警戒網을 펴 놓고 다음 날의 공격을 事前준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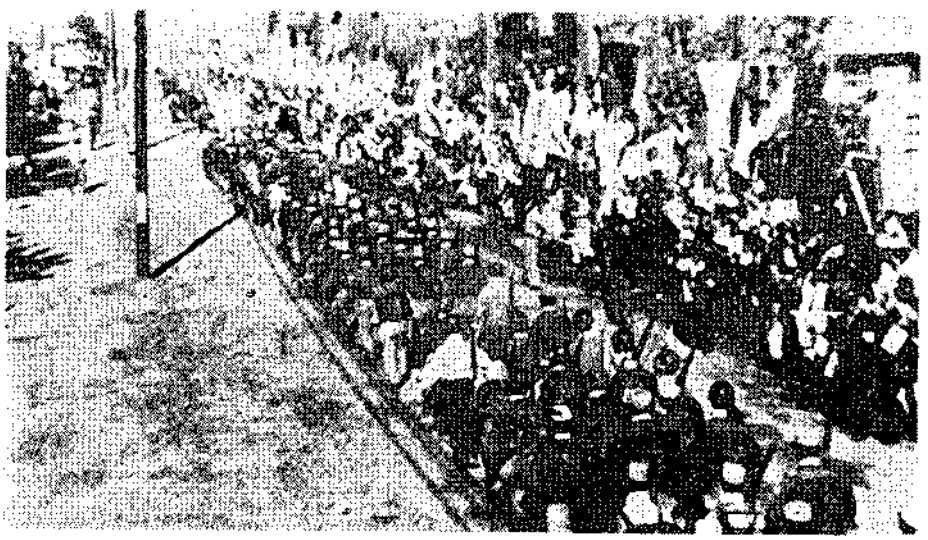
그리고 제3대대(장, 安敀一소령)는 연대 右一線 공격제대로서 202高地의 敵을 격퇴한 다

음, 輸城 西쪽 2km의 123高地를 점령하고, 계속해서 131高地에 진출하여 日暮로 인한 야간경계 배치에 들어갔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輸城 西北側의 松洞川 일대까지 진격하였는데, 제1대대(장, 咸溶翼대위)는 227高地를 제2대대(장, 申彦國소령)는 234高地를 각각 점령하였다.

이 무렵 敵은 清津 北쪽으로 후퇴 중인 敵 제41사단 소속인 듯한 1개 대대 규모인 600명의 병력이 戰車 1대와 120mm박격포 3문, 그리고 45mm반전차포 4문 등으로 裝備하고 일시 輸城川에 隣接한 清津—富寧間 道路에서 역습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으므로 我軍의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전날 陣地인 유관洞에서 사단 後側方경계 임무를 맡고 있었다.

11월 26일 : 제18연대 제1대대는 이날 06.00에 經洞陣地에서 출발하여 제1연대의 제1대대가 전날 점령하였던 松洞(輸城北쪽 2km)에 진출한 다음, 이곳에서부터 徒步로 接敵행군하여 공격을 시작, 石嘉洞 西쪽 4km의 450高地를 완전히 점령, 확보하였고, 제2대대는 06.00에 南石洞을 출발하여 15.00에 輸城洞을 경유, 輸城마을 건너서 輸城—富寧間의 東쪽능선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 15.00에 이르러 沙河洞(輸城 北쪽 5km 輸城川 東邊)을 진격하여 그 北쪽 254高地에서 敵 1개대대 규모의 병력과 서로 부닥치게 되므로써 치열한 격전이 전개되었으나, 마침내 18.00에 284高地를 완전히 점령, 확보하고, 同 高地에서



<清津을 탈환하고 入城하는 국군과 환영하는 市民들>

次期작전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安敎一소령)는 연대 中央方面에서 敵陣을 피하여 道路를 따라 147高地(松洞北쪽 2km)에 진출한 다음, 그 高地 일대에서 야간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제1연대는 松洞 西北쪽 229高地와 120高地및 212高地로 각 대대가 전날에 이어 경계배치하고 있었으며, 대전차특공대는 233高地(輸城西쪽 3km)에서 최후작전을 대기하고 있었다.

또한 제1기갑연대는 이날 桃洞(輸城東쪽 2km 富寧—高原간방길)을 경유, 그 東北쪽 402高地(土幕洞 西南쪽 3km) 및 411高地(土幕洞 東南쪽 2km)를 점령하여 土幕洞(淸津北쪽 12km)을 睥制하면서 土幕—富居洞 공격을 위해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다.

11월 27일 : 이날 城津에 위치한 군단사령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군단 作戰 제121호(作命附錄 제32호)를 하달하였다.

「一, 美 제10군단은 계속하여 韓·滿國境에 前進하고 있음. 제26연대는 咸興—端川—惠山鎭으로 前進할 것이고, 美 해군 및 공군은 요청에 의해 我 군단을 지원할 것임.

二, 군단은 계속 北進하여 담당지구 내의 韓滿國境—韓蘇國境에 前進하려 한다.

三, (1) 수도사단은 二個 연대로써 會寧을, 一個 연대로써 雄基를 점령, 확보하라. 그리고 애하 제1연대의 특공대를 茂山에 주둔시켜 白頭山南地區戰鬪部隊에 配屬하라.

(2) 제3사단은 최단시간 내에 一個 연대로써 茂山을 점령, 확보할 것이며, 一個 연대를 예비대로 羅南에 保有하라.」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淸津 점령 이후 先頭에 진출하여 있는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와 제1연대(장, 韓信대령)를 각각 會寧方面으로 계속 진격토록 하였고,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淸津에서 東海岸邊의 雄基를 향해 진격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會寧 공격에 앞서 우선 富寧을 공격하기 위해 淸津—富寧에 이르는 道路 左右側 高地群을 공격하면서 北進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전날까지 연대 右一線 공격梯隊가 되었다가 이날은 예비대로써 257高地에서 이동하여 09.00에 石幕洞에 집결하였고,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연대 右一線 공격梯隊가 되어 254高地(石幕東쪽 3km)에서 그 北쪽 348高地로 진격하였는데, 10.40에 제7중대 正面에서 敵 약 1개 중대규모의 병력을 발견하고, 先制공격으로 이를 격퇴한 다음, 285高地를 향하여 계속 추격하고 있었다. 이 285高地 東側方에서 敵의 火力이 증가되자 대대는 일단 이 高地일대에서 陣地를 구축하면서 敵과 대치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제3대대(장,

安昶一소령) 石幕洞에서 이날 未明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468高地와 597高地를 점령하고, 더욱 陣地를 强化하였다.

한편,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그 지휘소를 松坪洞에 설치하고 사단 左一線 공격梯隊로서 445高地부근일대를 경계하면서, 다음 작전을 준비하였으며,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富居—雄基방향을 공격하기 위해 이날 우선 七幕洞을 점령하였다. 즉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는 廣知嶺에, 제2대대(장, 朴益均소령)는 七幕洞에,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七幕洞 後方高地인 576高地에 각각 진격하였다.

이 무렵 연대 正面의 敵은 제507여단으로서 3개대대로 편성하여 淸津을 反擊할 목적으로 七幕洞 앞산인 402高地와 河川일대에 망어陣地를 구축하여 지원砲兵과 함께 연대의 진격을 지지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이날 04.00에 羅南 東北方 6km지점인 527高地일대에서 重기관총, 輕기관총으로 장비한 敵 약 1개 중대를 포착하였는데, 이의 완강한 저항을 무릅쓰고 17.30에 527高地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 陣地를 强化하였다.

제2대대(장, 朴益均대위)는 이날 14.00에 道洞里를 강유하여 18.00에 2개 중대를 123高地에 1개 중대를 道路左右側에, 또 1개 중대를 道路右側 402高地稜線에 각각 진출, 점령하고, 七幕洞에 잠복하고 있는 敵에 사격을 하였고, 24.00에 진격한 제1대대(장, 朴京虎소령)에 陣地를 交代하고, 계속 前進하고 있었다.

11월 28일 : 제18연대는 前方지휘소를 鏡城에서 鰮城으로 추진하고, 富寧공격을 위해 계속적인 추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즉 제1대대(장, 李秉衡소령)는 三峰里(水原洞 西쪽4km)에 색대를 파견하여 山間으로 潛入한 패잔병 39명을 포로로 잡은 다음, 그 부근일대를 계속 수색, 경계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장, 金鳳翔소령)는 鰮城—富寧間 道路 東側의 稜線을 따라 진격하였는데, 전날 陣地인 348高地(水原洞 東쪽3km)에서 金盾洞을 공격하다가 11.00에 약 2개 중대병력의 敵과 2시간 동안에 걸친 交戰 끝에 이를 擊退하고, 17.00에 金盾洞 뒷山을 완전히 점령, 확보하였으며, 제6중대는 그 前方 降仙洞에 18.00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安昶一소령)는 연대 中央공격梯隊가 되어 이날 06.30에 水原洞에서 富寧으로 通하는 幹線 道路를 따라 新興洞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한편 淸津 北쪽 七幕洞 부근에서 작전행동 중인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이날 07.00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七幕洞을 완전히 점령, 확보하고,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가 13.00에 七幕洞 西北쪽 3km의 710高地를 점령한 다음, 16.00에 패잔병이 집결하여 집요하

저항을 하고 있던 576高地에 火力을 집중, 이를 擊滅시켰고, 제 I 대대(장, 朴京虎소령)는 土幕洞에서 퇴각하여 廣知嶺에서 엄호陣地를 구축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敵을 육박공격하여 擊滅하는 즉시로 大津에 通하는 幹線道路를 점령하여 後續부대의 진출을 掩護하였다.

또한 淸津 西北外廓을 경계하고 있던 제 I 연대(장, 韓 信대령)는 松洞(蟻城洞 北쪽 3km)과 仁谷洞 北쪽의 294高地와 淸津 西쪽 18km의 漁遊洞을 占領하고, 각각 次期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11월 29일 : 敵 제41사단과 제507여단 및 단대호 未詳의 海岸경비대가 淸津 北方에서 潰走하여 그 主力이 會寧—茂山에 집결하고 일부는 富寧과 富居 일대에서 엄호작전을 펴는 한편, 大兵力의 再編成이 완료되면 乘期, 敵陣을 이용하여 一大反擊을 企圖하려 하였다.

사단은 제18연대가 富寧方面을, 제 I 기갑연대가 富居方面을 전날에 이어 계속 진격케 하였으며, 제 I 연대는 淸津 西側方을 경계하면서 각 戰線에서 점차로 강경한 저항을 企圖한 敵을 擊破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제18연대는 제 I 대대(장, 李乘衡소령)가 三巨里 412高地에서 13.00에 草輿洞으로, 또 제 2 대대(장, 金鳳翔소령)도 金廣洞과 降仙里에서 草輿洞으로 각각 진출하여 그 일대에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다. 제 3 대대(장, 安岐一소령)는 草輿洞 北쪽3km의 366高地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제 I 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이날 본 대가 大津에 진격한 다음, 大津 北쪽 幹線도로 左右側을 수색하면서 前進하다가 龍南洞(大津 北쪽 3km)에서 敵 1개 중대와 交戰이 전개되었다. 野砲와 박격포의 射程을 延伸하면서 龍南洞을 突破하고, 그 北쪽 193高地後線에 까지 접근하여 陣地를 점령하였다. 이 淸津부근 전투에서 연대는 다음과 같은 戰果를 거두었다.

戰 果

적 사 살	278명,	철 차	1 량
포 로	17명,	소총실탄	35,000발,
노획 : 소 총	87정,	중기관총실탄	500발
다 발 총	6 정,	손 실	
重기관총	3 정,	전 사	31명
輕기관총	4 정	부 상	6 명
트 럭	2 량,		

한편 제 I 연대(장, 韓 信대령)는 本隊가 淸津 西北外廓 陣地에서 淸津市 龍虎洞과 農浦洞

으로 집결하고, 대전차 공격대는 漁遊洞에서 전날에 이어 계속 清津西側方에서 機械化部隊 接近路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까지 제 1 연대본부에 집계된 1개월간(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 果			
적 사 살	1,621명(장교14명포함)	자동소총	8정,
포 로	465명(장교18명포함).	박 격 포	14문
귀 순	6명(장교 1 명포함)	전차파괴	2 대,
노획 : 소 총	1,101정,	俄式소총	38정
다 발 총	109정,	손 실	
L M G	73정	전 사	8명
H M G	44정,	부 상	150명

11월 30일 : 이날 未明에 清津에 있는 사단사령부에서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反擊戰이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하고도 정천명력 같은 명령을 城津에 있는 군단사령부의 金白一군단장으로 부터 받았다.

『戰線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사단을 興南으로 완전히 철수바람.』 이와같은 상세한 정보도 없는 간단한 無電命令을 받은 사단장은 즉시 白南權부사단장 李龍雲전참모, 陸根洙정보참모등과 함께 비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작전회의를 주관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晝間에 敵陣에서의 철수는 不可하니 夜間을 이용하여 速行하기로 하고 그 대신 晝間에는 전날과 다름없이 공격을 계속 감행할 것.』

이와 같은 사단장의 작전 지침을 받은 각 연대장은 전날에 이어 공격을 계속 실시하였는데, 이날 따라 降雪과 寒風이 심하여 機動部隊의 運用에 制限을 받았지만 追擊戰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제18연대(장, 任忠植대령)는 富寧을 占領하기 위해 이날 日暮時까지 富寧 南쪽 4km부근의 幹線道路 左右側 稜線에 각 대대가 전부 陣地를 구축하고 있었고, 제 1 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는 沙口洞(富寧 南쪽 4km)과 118高地 일대에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제 1 연대(장, 韓信대령)는 그 제 2 대대(장, 申彦國소령)가 水源洞 西北쪽 高地에 진출해 있으며, 나머지 연대主力과 본대는 清津市 農補洞에서 前方으로 進擊하기 위해 輸城洞에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10월 하순부터 中西部 戰線에 中共軍의 侵入으로 因한 戰勢의 激變과 冬季作戰에 對處한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의 東北戰線의 철수 계획, 그리고 이에 따르는 군단의 철수명령이 사단에 하달되고 사단장의 夜間 철수계획으로 이날 밤에 現陣地에서 철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豆滿江畔의 진격을 目前에 둔 富寧과 富居부근의 陣地에서 사단 전체가 陣地이동을 시작하였는데, 제18연대 첨병중대로 富寧方面에 이미 진출하고 있던 제2대대 제6중대(장, 李元挂소령)가 점령한 陣地가 확인되지 않고, 또 通信마저 杜絶되어 本隊와 함께 行動을 하지 못한채로 落伍하게 되어 行方이 杳然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수도사단이 吉州를 점령한 다음, 진격작전 이래 一地點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었던 漁郎川 일대의 전투를 끝마치고, 11월 25일에 淸津을 점령, 확보함으로써 韓·滿, 韓·蘇國境의 進擊이 目前에 다다른듯 하였으나, 11월 30일 제18연대가 富寧부근에, 제1기갑연대가 富居부근에 陣地를 점령한 것을 끝으로 철수명령이 내려지자 사단의 豆滿江 진격목표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總反擊作戰의 끝을 맺게 되었다.

零下 10~20°를 오르내리는 酷寒과 휘몰아치는 朔風과 무릎을 넘는 積雪은 我軍의 전투능력을 극도로 制限시켰으나, 이에 屈하지 않고, 漁郎川 戰鬪의 大勝이라던가 咸鏡北道의 中心地인 淸津港을 점령한 것은 快擧이었으며, 壯快한 北進作戰 중 大團圓의 一幕이었던 것이다.

이 무렵 敵은 會寧과 雄基方面으로 계속 退却하여 國境線을 最後방어 하면서 때를 엿보아 反擊하려는 計劃으로 부대를 再編하고 있었다.

사단도 淸津을 점령한 다음, 계속 北進하였으나, 11월 30일부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의 冬季作戰에 對處한 조치로 次期작전을 위해 부대撤收를 단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 參戰者의 證言

◇ 제1연대 제11중대 安相泰상사
(1966. 8. 5 제12사단에서, 중위)

端川에서부터 소대장 대리근무를 하면서 吉州전투에 참가하였고, 吉州 北方 明川入口의 鐵路부근을 선발대로 나간 때가 있었는데, 밤중에 진출하였다가 날이 새자 敵陣으로 보이는 곳에서 연기가 나서 박격포로 포격하게 되었다. 그후 갑자기 陣地를 구축하려 하니 땅이 얼어서 호를 팔수가 없었으며, 산탄이 부족하여 마음대로 사격할 수도 없었다. 당시 우리 소대는 36명이었는데, 분대장 향도까지 전부 土土이었으므로 노련한 병사들이었다.

이 무렵 敵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인지 산탄사격보다는 유박공격을 많이 하였으며, 우리 소대도 이 전투에 약간의 손실을 보았지만 일마 뒤에 대대의 증원으로 敵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가 끝나기 전에 나도 부상 당하여 후송되었다.

◇ 제1연대 제3중대장 朴鍾熙

(1966. 3. 23 陸本에서, 대령)

漁郎川과 明澗川 사이에는 日帝時 日本軍訓練場으로 사용했던 넓은 地域이 있었는데, 그 일대에서 敵은 견고한 방어陣地를 구축하고 我軍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제18연대가 이 敵을 陣地에서 끌어내어 격파하기 위해 일부터 철수시킨 일이 있었다. 漁郎川 전투시 짙은 안개가 끼어 地形을 판별하기가 힘 들었으며, 民間人을 앞세워 진출하다 보면 敵의 배치선까지 도달할 때도 있었다.

제1연대는 朱乙—羅南을 사단 左 一線으로, 마차를 타고 진격한 다음, 淸津에 진격하였고, 우리 중대가 淸津北쪽 海岸부근의 패잔병을 소탕하기 위해 西水羅洞에 진출했을 때 民間反共靑年團을 만난 일이 있었다. 이들은 太極滅共團이라고 하여 약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유격대활동으로 敵과 싸워 많은 노획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 제18연대 제6중대 소대장 金顯穆소위

(1965. 11. 26 合參대학에서, 중령)

제18연대의 漁郎川 공격은 北進當時 가장 큰 苦戰으로 생각한다. 漁郎川 北方에 敵 2개사단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연대가 鳳岡까지 진격하였다가 다시 極洞으로 후퇴한 적이 있었다. 이 무렵 함포지원사격도 받았으며, 彼我 대치상태로의 전투가 며칠간 계속되었으며, 나도 이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제5육군병원으로 後送되었다.

◇ 제18연대 제2중대 제2소대 분대장 金正鉉

(1966. 11. 1 제2군사령부에서, 대위)

제18연대가 漁郎川 부근의 鳳岡까지 진격하였다가 상황이 좋지 못하여 약 30里정도 후퇴하였을 때 우리 소대는 鳳岡 못 미쳐 터널 안에 남아 있게 되었다. 이 터널에는 貨車 火薬이 있었고, 약 1주일간을 이 터널에서 잠복해 있었다.

왜냐하면 폭격을 피하기 위해 대피하였던 것이며 3輛의 차량에 있는 물로 연명하였다.

◇ 제18연대 제3대대 부대대장 鄭昇和소령

(1971. 8. 2 陸本정책기획부장선, 소장)

淸津을 점령할 무렵 눈(雪)이 많이 쌓여 車輛기동이 如意치 못하였다. 11월 30일 날도 계속 진격하는 줄 알고 모두 富寧부근에 진출해 있었는데 갑자기 밤중에 철수명령이 내렸다. 이때 全연대병력이 다 철수하였으나, 제2대대 제6중대가 대열에서 빠졌는데, 중대장은 李元佳소령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제18연대에 소령중대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자꾸 진급을 하였기 때문이다. 기관총 사수까지도 上士가 많았으며, 士兵들은 두번이나 特進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급이 높았다. 李元佳소령도 중대장으로서 다음 날 공격을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철수 명령이 하달되니 대대장은 연락병을 보내고, 또 1개 소대를 장교인솔하에 수색토록 하였으나, 如意치 못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연락이 杜絶되었거나 陣地를 옮겨 더욱 진출한 것이 아닌가 했으며, 끝내 찾지 못하고 本隊를 지연시킬 수 없어 날이 새기 전에 철수를 해야만 하였다.

철수할 때 上部에서 독촉하니까 더 당황해진 것을 느꼈다.

◇ 제18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 安泰甲중위

(1967. 2. 2 감사원에서, 예. 준장)

淸津市內에는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다고 해서 처음에 市內에 들어가지 않고 淸津北쪽 山으로 하여 會寧까지 진격할 예정이었다.

富寧 南쪽 6km지점에 兄弟洞이 있는데 야간에 우리 중대와 제6중대가 공격을 하였다. 陣地를

점령하고 있으나, 敵의 戰車가 나타나 요란사격을 가한 후 다시 후퇴하였는데, 아메 우리 중대는 道路 右側에 있었고, 제 6 중대는 山너머 있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대대에서 철수명령이 내려 인접중대인 제 6 중대를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이 무렵 我軍은 乘勝長驅였기 때문에 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制限點에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通信유지가 곤란하였다. 제 6 중대와의 연락이 杜絶되어 우리 중대에서 1개 소대를 차출하여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 제1기갑연대장 金東洙대령

(1964. 12. 29 仁川重工業會社에서, 에, 준장)

元山점령이후 사단 예비대로 있다가 咸興—洪原등을 後續 진출한 다음, 摩天嶺과 吉州에서 크게 싸웠다. 吉州는 惠山鎭과 淸津으로 通하는 分岐點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시에 敵은 최후방어선으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吉州戰鬪 때 對空布板을 사용하여 항공지원을 많이 받았고, 2일간이나 치열한 전투를 한 다음, 吉州를 점령하였다.

◇ 제1기갑연대 제3대대 李讚柱

(1966. 3. 29 陸本에서, 중령)

城津을 점령한 다음, 吉州를 공격하기 위해 제 2 대대가 先頭로 진출하고 우리는 後續하여 徒步로 행군하였다. 吉州공격을 위하여 2일간이나 치열한 전투를 하였다. 吉州를 점령한 다음, 西쪽 山으로 진출하여 鏡德을 공격할 때인데 이때 눈이 많이 와서 裝甲車가 길가에 빠질 정도로 미끄러웠다.

그후 明川 경유, 羅南方面으로 先頭 연대를 따라 진출하여 羅津方面을 공격하였다.

◇ 제1기갑연대 제5중대 제3소대장 羅昌云소위

(1964. 8. 25 제1군사령부에서, 중령)

吉州전투도 끝내고 合水로 가는 鏡德과 城德사이에서 전투를 심하게 하였다. 당시 나는 제 6 중대에서 제 5 중대로 전출하여 소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敵情이 불명확하여 경계를 하고 있었다. 당시 중대장은 朴昌逢 대위이었다.

얼마 있다가 敵은 높은 高地 위에서 "도욕코(土車)"에 바위 돌을 실어 我軍의 陣地에 굴러떨어뜨리게 하여 明兵이 부상 당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敵은 요란전법을 쓴 다음, 우리 중대를 二重으로 포위하였으나, 이를 다시 우리가 逆포위하여 敵을 격멸하였고, 특히 중앙 제 2 소대를 직접 지휘하던 중대장이 기관총을 陣地에 피부어 도합 60여명의 敵을 사살하게 되었으며, 포로로 하기 위한 작전을 제대로 안 되었으나 성과는 컸으며, 상황이 급박할수록 침착하여야 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느꼈다.

◇ 제1기갑연대 중대장 李元春

(1967. 5. 22 陸本에서, 대령)

淸津에서 雄基方面을 공격하기 위해 富居洞까지 진격하였다가 철수하였는데, 진격시에 느낀 점은 敵의 패잔병을 너무 소홀히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다시 규합되어 我軍을 괴롭힌 적이 많이 있었으며, 제18연대에서 1개중대가 못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견제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 제1기갑연대 제3대대 수색소대장 尹東根소위

(1965. 8. 16 제7사단에서, 중령)

吉州北方에 敵이 저항하고 있어서 明川가는 길이 차단되었다. 이 무렵 보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羅南市內에 入城할 때 2층건물에서 敵의 수류탄이 投下되어 폭발된 일도 있는데, 이때 敵을 너무 경시한 것 같았다.

鎭津 北쪽의 山에는 패잔병들이 피난민과 섞어 있어서 頭髮상태로 확인하여 敵을 포로로한 적이 있었고, 土幕洞 공격에 이어 宮坪洞으로 진격하였다.

宮坪洞을 공격하기 전에 대신동 부근에서 敵의 지스차를 발견하여 노획한 바 있고, 또 사이드카와 전차가 나타나 이를 捕獲하기도 하였다.

그후 內務署(支署)에서 敵의 有線을 聽取하여 본 결과, 雄基와 宮坪洞間의 보급추진문제에 대한 敵의 연락결과이었고, 또 상황이 위태로우니 만풍분자를 처리하라는 내용의 전화였는데, 이때 我軍의 宮坪洞에 대한 병열한 포사격으로 전화가 끊겨 버렸다.

그때 하루만이면 豆滿江에 도달한다고 했었는데 참수명령이 하달되었다.

5. 美 제1해병사단의 元山上陸 및 長津湖進擊戰(50년 10월 16일부터 50년 11월 16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37 호

사.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7기동함대 사령관 중장 Arthur D. Struble	제1연대장 대령 Lewis B. Puller
제10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제5연대장 중령 Raymond Murray
제1해병사단장 소장 Oliver P. Smith	제7연대장 대령 Homer L. Litzanberg
	병 력 24,124명

敵 軍

中共軍 제42군 제124사단	제371연대
제370연대	제372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元山上陸作戰에 참가하기 위하여 轉進할 美 제10군단은 이미 9월 15일 歷史的인 仁川上陸작전을 성공시키고, 계속하여 서울奪還作戰과 서울近郊 殘敵撲滅戰 등 京仁地區작전을 모두 끝마친 다음, 또 다른 上陸作戰을 위해 다시 仁川과 水原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Edward M. Almond소장이 지휘하는 이 美 제10군단은 그 예하에 美 제1해병사단(장, Oliver P. Smith소장)과 美 제7보병사단(장, David G. Barr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美 제7기동함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美 제1해병사단은 京仁地區 작전의 終了와 함께 다음 작전을 위하여 서울近郊—議政府에서 上陸戰에 대비한 海上輸送을 위해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仁川으로 집결하고 있었고, 美 제7보병사단도 사단의 重裝備 대부분의 海上輸送을 위해 仁川에 집결하고 主力은 陸上機動으로 釜山에 이동하기 위하여 水原으로 각각 집결하고 있었다. 上陸軍의 수송은 仁川上陸 때와 마찬가지로 美 제7기동함대 예하 제90공격함대 및 제95선발함대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

제 7기동함대 편성표

90 공격함대 장	James H. Doyle소장
95 선발함대 장	Allan E. Smith소장
95.2 엄호 및 지원단 장	Charles C. Hartman소장

95.6 소해단 장 Richard T. Spofford대령
96.2 정찰 및 수색단 장 George R. Henderson소장
96.8 호위항공모함단 장 Richand W. Ruble소장
77 쾌속항공모함단 장 Edward C. Ewen소장
70.1 기함단(Missouri)함 장 Irving T. Duke대령
79 군수지원단 장 Bernard L. Austin대령

이렇게 美 제10군단이 部隊轉進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을 무렵 韓國軍 제1군단은 東海岸戰線에서 38°線에 육박하여 이의 突破를 위해 그 부근에서 待機 중이었고, 이 당시 全戰線의 敵은 總反擊作戰이래 每戰分散하여 계속 敗走 中이었으며, 我軍의 急進追擊으로 總退却의 대열에서 이탈된 일부 패잔병들은 各地의 山岳 속 깊이 潛入하여 게릴라化하고 있던 때이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美 제10군단의 仁川上陸作戰이 성공리에 끝난 다음, 美 제8군사령관 Walker중장은 장차 美 제10군단의 운용문제에 대하여 策案한 결과 『美 제10군단은 美 제8군단 일부이어야 하며 全 UN지상군은 단일 야전군 지휘관 밑에서 작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MacArthur元帥에게 이 군단의 운용계획에 대한 복안을 開陳하였을 때, MacArthur元帥는 이 군단은 "仁川—서울지역을 점령한 다음에는 極東軍의 예비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9월 29일 MacArthur元帥가 서울奪還戰을 끝내고 韓國政府에 首都를 이양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그의 心中에는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 복안이 서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9월 26일에 Doyle O. Hickey소장이 Edwin K. Wright준장에게 "MacArthur元帥가 美 제10군단을 元山에 上陸시킬 복안이므로 極東軍司令部 연합전략계획단은 元山—咸興지역에서 군단급의 上陸작전계획을 제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 것에서 짐작 할 수 있었다.

이에 제시된 내용은 美 제8군은 主攻을 西部에 두고, 美 제10군단은 元山, 또는 딴 곳에 上陸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2개의 사령부를 설치할 것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9월 26일 이전의 MacArthur元帥의 복안은 서울을 탈환한 다음, 美 제10군단을 美 제8군 지휘 하에 두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Hicky소장과 Wright준장은 그 案을 찬성하였고, 극동군사령부 G--4인 George L. Eberle소장도 그 의견에 동의하였으나, 적극적

으로 수장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독립작전을 수행하려는 美 제10군단의 군수지원문제에 있어서 美 제8군의 일부로써 지원하여도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이었다.

그러나 美 제10군단을 美 제8군에서 독립시켜 2개의 사령부로 작전한다는 MacArthur 元帥의 작전개념은 韓國의 지형상의 특징 때문이었으나, 軍需지원상의 문제도 또한 야기되었다.

서울--元山 橫隔室 北方의 狼林山脈일대는 험악한 山岳지대로서 滿洲까지 原始林이 뻗혀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병참선은 南北 溪谷을 연하여 있고, 東西間의 橫斷路는 元山—平壤을 잇는 협한 道路와 鐵道뿐이다. 平壤—元山間의 작전에 있어 軍需補給지원문제도 상당히 곤란한 지형으로 되어 있다.

MacArthur元帥로서 가장 큰 고려는 韓國의 병참수송상태이었다. UN 공군은 釜山 橋頭堡(洛東江 방어선) 以北의 전 鐵橋와 橋梁을 거의 파괴하므로써 이를 보수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공병은 총동원한다 하드라도 數週日이 걸려야 했고, 또한 北韓지역의 輸送, 通信기구를 대부분 공중폭격하였기 때문에 美 제8군과 美 제10군단에 대한 보급지원을 계속적으로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韓國 東北海岸에서의 새로운 上陸作戰은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MacArthur元帥는 東西兩軍의 作戰은 불리된다 할지라도 상호협조로써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平壤을 탈환하는데 있어 美 제8군이 平壤으로 진격하는 반면, 美 제10군단이 元山에 上陸하여 兩面作戰으로 이를 쉽게 공략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元山上陸作戰은 美 제8군이 서울부근을 通過한 10월 12일 후로 정하고 美 제10군단이 元山에 上陸하기 3일 내지 7일 전에 美 제8군은 38°線 부근에 진출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 9월 29일에 元山上陸計劃을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UN軍 사령부가 美 제10군단을 元山으로 海上이동시키려는 것을 알게 된 美 제8군 작전참모 Dabney대령은 이의 代案을 건의하였는데, 즉 美 제10군단을 美 제8군에 배속시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는 美 제10군단을 美 제8군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敗走하는 敵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美 제8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美 제10군단이 元山에 上陸하기 전에 東海岸을 진격하고 있는 韓國軍 제1군단이 元山을 공격, 점령할 것이라고 믿었다.

美 제8군 사령관 Walker중장도 이 건의에 동의하였으나, 극동군사령부에 건의되지는 않

았다. 왜냐하면 walker중장은 이미 이와 반대되는 命令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洛東江戰線에서 潰走하는 敵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연대급 부대를 原州와 春川을 通하는 中部山岳지대에 투입하여 그 퇴로를 차단하여 달라고 美 제10군단에 요청하였으나, 美 제10군단은 이 지점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그러나 Walker중장은 서울을 탈환한 다음, 美 제10군단이 自身의 지휘 하에 平壤으로 진격할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 만약 美 제10군단이 새로운 上陸을 위해 仁川에서 再次 乘船한다면 仁川港을 兵站基地로 이용할 수 없을 뿐더러, 追擊戰을 멈추고 근 2주일간을 지체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敵에게 決定的인 打擊을 가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敵에게 시간적 여유를 너무 많이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그는 美 제10군단의 지원공격으로서 계속 平壤에 진격하여 東海岸에서 계속 北上하는 韓國軍 제1군단과 平衡을 유지하면서, 平壤-元山線에 同時進出을 가능케 하려 하였으며, 나아가 韓·滿國境線으로의 진격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고 美 제8군이 국경선으로 진격할 때에 平壤—元山線을 通하여 韓國軍 제1군단과 連結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平壤과 元山이 점령될 때까지의 軍需지원은 空輸로 하고 그 이후로는 元山港과 興南港을 이용하는 海上輸送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美 제8군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極東軍사령부에서는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에 대한 論議가 紛紛하였으니, 이는 東部戰線에서 敵의 저항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韓國軍의 진격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元山上陸에 있어서 『陸路와 海路中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하는 문제이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韓國軍 제1군단의 진격속도가 예상 외로 빨라 韓國軍 地上部隊보다도 먼저 元山에 上陸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元山上陸作戰에 기대되는 효과는 거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MacArthur元帥 麾下의 陸軍지휘관들은 海上을 이용한 元山上陸을 원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美 제10군단을 元山에 上陸시키면 仁川港을 容量以上으로 過重하게 사용하지 않고, 美 제10군단의 보급을 직접 담당하는 港口 一個를 더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로 敵이 美 제8군의 平壤진격을 저지하고 있을 때, 美 제10군단을 元山에 迂廻 上陸시킴으로써 전략적으로 敵의 저항능력을 東西로 分斷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MacArhur사령부의 G—4 참조인 George L. Eberly준장도 『우선 戰術的인 面으로 검토해 볼 때 海上便의 元山上陸이 더 용이할 뿐더러 軍費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陸路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고,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도 『北韓地域의 험한 지형으로 말미암아 陸路를 이용하는 방법은 不利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美 海軍側의 高位指揮官 대부분은 海路에 의한 元山上陸作戰을 환영하지 않았다.

一例로 극동 해군사령관인 Joy중장은 『美 제10군단을 陸路로 이동시키면 時日과 費用이 절약된다.』고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로서

『첫째로, 美 제10군단의 전병력, 장비를 仁川港에서 搭載한다면, 소규모 시설 뿐인 仁川港은 美 제8군의 軍需品 前役作業 등과 혼합되어 混雜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埠頭의 절반이상을 兵力수송에 사용하게 되면 美 제8군의 보급지원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없게 되어, 前方지원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둘째로 港灣시설의 미비로 艦艇의 運用 및 上陸舟艇들의 기능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많은 수송선을 이곳에 집결시킨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작전 중인 UN軍 여러 부대의 지원을 크게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세째로 그동안 掃海함정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機雷가 韓國水域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더욱이 上陸 예정지인 元山港일대에는 많은 각종 機雷가 집중적으로 부설되어 있으므로 上陸작전이 강행될 경우, 이와 掃海문제가 크게 대두되며, 또 上陸作戰에도 큰 제한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이다.

또한 Arleigh A, Burke제독은 海路에 의한 元山上陸을 반대하는 美 해군의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海路에 의한 元山上陸을 감행하게 되면 해군의 대부분 艦艇들은 발이 묶이며,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美 제10군단은 陸路를 통하여 元山港을 점령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련의 美 海軍側 주장에도 불구하고 海上을 通하여 元山에 上陸한다는 MacArthur元帥의 결심이 관철되어 元山上陸에 관한 토의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이어 MacArthur元帥는 海路를 通한 元山上陸作戰을 확정시키고 『美 제7보병사단은 元山上陸 후 元山 南西部로 진격하여 西海岸지역의 美 제8군과 連繫될 것이고, 동시에 美 제1해병사단은 元山 대신 興南에 上陸하여 咸興까지 通하는 敵의 퇴로를 차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10월 1일 韓國軍 제1군단이 38°線을 돌파하여 元山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Almond소장과 Struble중장은 極東軍사령부에서 元山上陸에 關한 준비명령을 받았다.

즉, 美 제7연합기동함대는 美 제10군단을 海路로 元山에 수송, 엄호지원하라는 것과 淸津以南의 海岸線을 봉쇄하고 上陸 전에도 필요한 해군작전을 수행하며 水陸兩面으로 元山공격을 수행하여 橋頭堡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함포사격 및 항공지원, 그리고 軍需지원을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美 제10군단은 仁川에서 乘船하여, 元山에 上陸하라는 내용이었고, 上陸예정일은 10월 15일이었다.

이어 군단장 Almond소장은 10월 4일 美 제1해병사단은 元山의 上陸基地를 확보하고 美 제7보병사단은 元山에 上陸한 다음, 美 제8군과 연결하기 위해 西方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미 韓國軍 제1군단에 의하여 10월 10일 元山이 점령되고, 10월 16일 美 제1해병사단이 仁川에서 乘船하여 元山으로 航進하였지만 元山入口인 永興灣의 掃海作戰이 지연되어 10월 26일에야 上陸하게 되자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새로운 작전명령을 하달하였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韓國軍 제1군단은 東海岸線을 따라 北東國境지대에 집결하고, 美 제1해병사단은 군단 後方의 兵站線과 後方지역을 경계하는 한편, 咸興에서 長津湖를 향하여 진격하며, 美 제7사단은 利原에 上陸하여 北靑—惠山鎭을 공격하고, 美 제3사단은 元山—咸興지역을 경계하라.』

(2) 작전실시

10월 16일 UN軍 총사령관 MacArthur元帥의 명령에 따라 美 제10군단 예하 美 제1해병사단은 仁川港에서 元山港으로 出港할 준비에 바빴다. 이미 전날까지 兵員의 乘船에 20시간이 소요되었고, 부두에 山積된 각종 장비를 船積하는데도 2일이나 소요되었는데, 이는 仁川港의 潮汐干滿의 差가 심하여 輸送船團의 船積작업의 遲延과 出港시간의 제한 등 적지 않은 불편을 받게 된 까닭이다.

美 제1해병사단은 美 제7기동함대 소속의 대형 수송선 21隻에 탑승하고 LST 15隻에 군장비를 滿載한 다음, 이 날 17.00에 仁川港을 出航하였다. 船首를 南으로 돌리면서 元山까지 830 mile에 달하는 航路를 急進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 元山 앞바다의 永興灣에서 掃海作戰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는 敵이 洛東江방어선이 무너진 다음부터, 北韓海域에 機雷를 부설하기 시작하였고, 이 정보는 이미 입수된 바 있으나, 그 부설된 범위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元山上陸계획이 수립된

직후, 元山부근 海域에 機雷부설의 확실성을 판단하고 Struble중장은 가능한 단시일내에 掃海를 완료하기를 결심한 결과, 21隻의 掃海艦艇을 구성하여 이며 10월 10일부터 機雷제거작전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작전은 이 날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도오꾜오(東京)의 極東軍사령부로부터 『元山에 上陸하는 즉시로 平壤을 向하여 공격하라.』는 구두명령을 받았다.

10월 17일 : 美 제1해병사단이 승선탑재된 輸送船團은 黃海를 거쳐 東海를 迂廻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날 08.00에 木浦水域을 통과한 다음, 一路 元山을 향해 航進하고 있었다. 한편 永興灣의 掃海작전은 이 날도 계속되었고, 韓國軍 제1군단의 咸興-興南점령으로 敵의 海岸砲臺 위협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만일 元山上陸以前에 平壤이 점령되면 美 제8군과 병행하여 北方으로 진격하라는 준비명령을 받았다. 이 美 제10군단과 美 제8군의 전투지경선은 太白山脈 분수령에 연해 있었다.

10월 18일 : 美 제7기동함대의 수송선단은 이 날 19.00에 元山 東南쪽 30mile 海上에 進入하였는데, 함대사령관 Struble중장의 命에 의하여 일단 航進을 멈추고 있었다. 왜냐하면 永興灣의 機雷제거작전이 끝나지 않았고, 이로 인한 海上接近이 난관에 봉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韓國軍 제1군단에 의하여 元山이 탈환되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上陸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Struble중장은 계획된 上陸日(당초에는 10월 15일이었으나 그후 변경되어 10월 20일임)보다 機雷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더 연기해 줄 것을 極東軍 사령부에 건의하게 되었고, MacArthur元帥도 이에 동의하였다.

10월 19일 : 永興灣의 掃海作戰이 계속되는 가운데 美 제1해병사단을 搭乘시킨, 輸送船團은 Struble중장의 命에 의하여 이 날부터 元山外港에 정박, 또는 遊弋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YO YO작전」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25일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元山港에 安全한 上陸을 위한 조치이었으나, 美 제1해병사단 장병들에게는 上陸戰이 아닌 海上의 지루한 船室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이 날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元山에 上陸하는 즉시 北方으로 공격하라는 결정적인 명령을 받았다.

10월 20일 : 輸送船團이 YO YO작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Missouri艦上에서 헬리콥터로 元山비행장에 내려 12.00에 北緯 39°10' 以北과 狼林山脈 以東

의 韓半島 東北部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였다.

군단사령부는 元山에 있었고, 美 제8군과 美 제2군수사령부와는 Teletipe통신망을 설치하여 도오쿄오(東京) 極東軍사령부와의 無電통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指下에는 10명의 參謀將校와 30명의 下士兵으로 구성된 군단지휘부와, 약 25,000명의 韓國軍 제1군단 및 元山비행장에 이미 배치된 美 제1해병항공대대가 있었고, 海上에 있는 군단병력과 합치면 94,000명이 되었다. 그가 지휘할 주요 전술부대는 韓國軍 수도사단 및 제3사단과 美 제1해병사단, 그리고 美 제7보병사단 등이었다.

당시 군단 正面의 敵은 咸興 北方과 興南 東北方에 있었고, 韓國軍 수도사단이 이 날 현재 咸興 北쪽의 五老里와 興南 東北쪽의 洪原을 점령 완료하고, 계속 그 北方으로 진격을 재촉하고 있었다.

당시 군단장의 일반적인 작전構想으로서는, 韓國軍 제1군단이 北東海岸線을 따라 豆滿江 地帶에, 그리고 美 제7사단은 利原--豊山—惠山鎭으로 前進하고, 美 제1해병사단은 군단 後方경계와 咸興에서 長津湖方面으로 진격하여, 증원될 美 제3사단은 주로 元山--咸興지역을 확보하고, 병참선의 경계 및 敵 유격대에 대비시키는 것이었다.

10월 21일 : 이 날도 永興灣에서 掃海作戰은 계속되었는데, 지난 10일 掃海작전이 시작된 이래 Brush號, Mansfield號 및 Magpie號 등이 機雷에 접촉되어 一部가 파괴된 일이 있었으며, 차례로 機雷를 제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또 12일에도 Philppinces Sea號와 Leyte號 등 항공모함에서 39대의 艦載機가 500kg의 폭탄을 機雷부설水域에 투하하였고, Pledge號, Pirate號, Incredible號 등 3隻의 掃海艇이 機雷가 폭발된 水域으로 進入하였는데, Pirate號는 12일에 機雷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機雷제거작업이 10여일간 계속되어 이날에 이르렀으나, 元山內港에까지는 아직도 그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0월 22일 : 美 제1해병사단은 元山 東南쪽 外港에서 輸送船團에 搭乘된채 「YO YO 작전」이 계속되었고, 元山內港의 掃海作戰도 전날에 이어 계속되고 있었다.

10월 23일 : 이 날 掃海團(Minesweeper Group)의 보고에 의하면 Blue-Yellow海邊은 掃海되어 안전하나 부근일대의 機雷제거작전은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機雷부설水域의 對策은 이미 10여일 전에 我軍이 점령한바 있었지만, 넓은 水域에 부설된 機雷를 찾아 폭파, 또는 제거하기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10월 24일 : 이 날 Missouri艦上에서 Struble중장과 그 참모들은 掃海와 上陸에 대한 회의를 開催하게 되었는데, 元山 內港의 機雷제거를 빠른 시간내에 완료하고 나아가 興南港口도 掃海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 날(25일)에 上陸할 것도 결정하였다.

元山內港에서 掃海작전을 하고 있던 掃海船團은 마지막 機雷제거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나 完了는 보지 못하였다.

10월 25일 : 美 제7기동함대의 수송선단에 搭乘된 美 제1해병사단은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YO YO작전」을 끝내고 元山上陸을 준비에 임하게 되었다.

즉 21隻의 수송선과 15隻의 L.S.T.가 元山近海에 닻(錨)을 내렸고, 元山 進入水路의 掃海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10여일간을 艦上생활하였던 美 제1해병사단 장병들은 上陸을 위한 닻이 내려지자 비록 敵前上陸은 아닐지라도 韓國의 주요한 두 港口에 上陸한다는 긍持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으며, 次後작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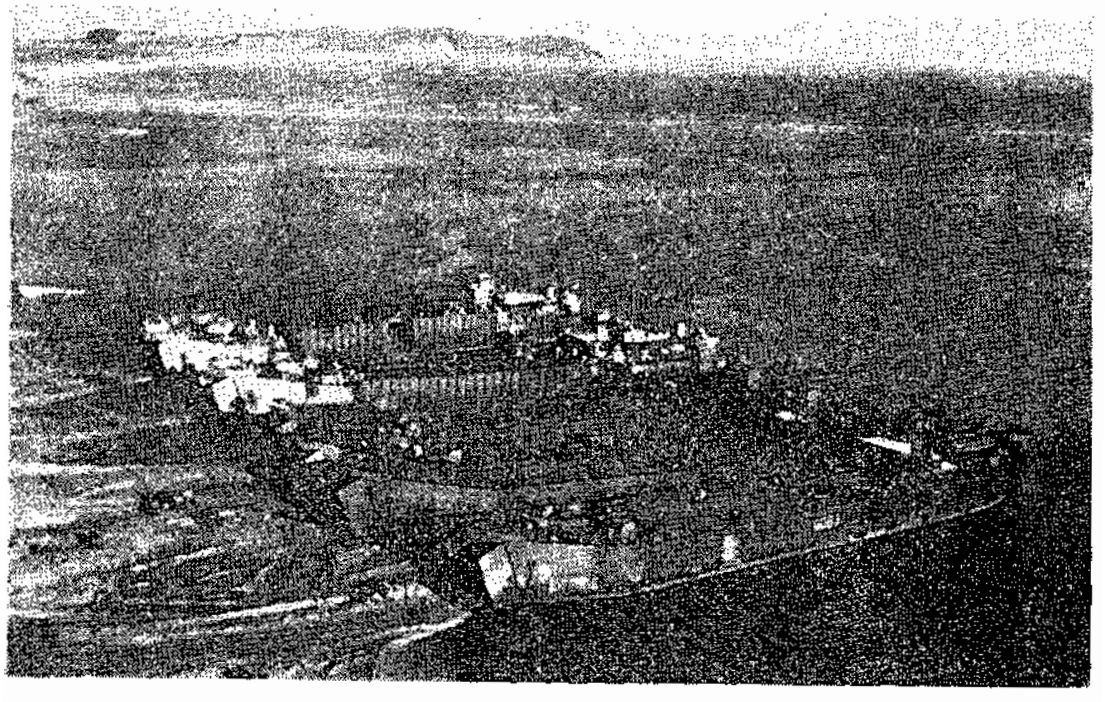
10월 26일 : 1주일동안이나 元山 앞바다에서 上陸을 기다리던 美 제1해병사단은 元山內港에 닻이 내려진 美 제7기동함대의 輸送船團에서 이 날 07.30부터 上陸作業이 시작되었다.

우선 主力부대가 소형의 L.V.T.에 分乘하여 元山에 上陸하게 되었고 각종 장비도 질서정연하게 차례로 揚陸하게 되었다.

美 제10군단장의 元山—咸興 부근의 경계와 長津湖 진격을 명령받은 美 제1해병사단장 Oliver P. Smith소장은 예하 각 연대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즉 제1해병연대(장, Lewis B. Puller대령)는 元山 南方 및 西方의 防衛와 馬轉里에서 韓國軍 제1군단 부대와 교대하여 경계임무와 작전을 수행하고, 제5해병연대(장, Raymond Murray중령)는 元山과 興南 南쪽 延浦비행장 및 군단의 西側方을 경비하며, 제7해병연대(장, Homer L. Litzenberg대령)는 咸興에서 長津湖에 이르는 계곡에서 韓國軍 제3사단과 교대하여 長津 및 赴戰發電所를 경비한 다음, 계속하여 진격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단의 각종 장비가 아직 揚陸이 되지 않아 즉각적인 작전임무에 移行될 수 없었고, 그동안은 부대정비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

10월 27일 : 美 제1해병사단의 前方지휘소는 이 날10.00에 Mt. Mckinley號 艦上의 지휘소를 閉鎖하고 本隊의 上陸에 따라 元山에 開所하여 본격적인 작전협조가 진행되고 있었고, 主力兵員의 上陸完了와 함께 부대정비를 전 날에 이어 계속하는 한편, 장비의 揚陸작



〈明沙十里海邊에 닻을 내린 L. S. T. 멀리 10여대의 上陸舟艇이 보인다〉

업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의 집결지로는 元山 農科大學校庭을 사용하고 있었다.

10월 28일 : 上陸軍이 사용할 나머지 장비의 揚陸작업이 이날 오후까지 완전히 끝나고 美 제 1 해병사단의 각 예하연대는 사단의 명령에 따라 各己 戰術책임구역의 인수를 위해 최종적인 부대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무렵 美 제 7 해병연대가 담당할 水洞(咸興—長津湖 中間) 부근에서 韓國軍 제 3 사단 제 26연대가 격전 중이었고, 지난 25일에 韓國戰線에 中共軍의 侵入사실이 확인된 다음, 이날 水洞 부근에서도 吉土里에 나가 있던 수색대가 中共軍으로 보이는 敵을 목격하였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날 水洞 西쪽 2km 지점에서 2명의 中共軍을 포로로 하였다.

10월 29일 美 제 1 해병사단의 제 1 해병연대는 興南에서 2일간의 경계에 임하고 있다가 다시 元山을 경유, 馬轉里로 轉進하여 韓國軍 제 3 사단 제22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일대의 방어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 5 해병연대는 元山과 興南間의 連絡飛行場을 中心으로 한 지역에서 군단 西側背를 방호하고 있었고, 제 7 해병연대는 이날 07.20을 기하여 元山 農科大學에서 乘車한 다음, 咸興으로 133km의 장거리행군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美 제7해병연대는 長津湖에 이르는 水洞부근에서 韓國軍 제26연대와 交代하기 위한 행군이었다.

이에 앞서 韓國軍 제26연대는 그간 포로로 한 中共軍 16명의 심문을 통하여 中共軍 제8집단군 제124사단 제370연대가 長津湖 부근에 집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들은 長津湖에 이르는 道路를 차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 北傀軍 전차가 中共軍 보병부대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中共軍의 사단 및 연대본부는 長津湖 南端 下碣隅里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敵의 상황은 韓國軍 제1군단사령부를 통하여 美 제10군단 사령부에 通告되었고,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이 中共軍부대의 정확한 규모를 알기 위하여 美 제1해병사단의 예하 美 제7해병연대를 이 지역에 투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10월 30일 : 美 제7해병연대는 咸興에서 長津湖에 이르는 水洞 부근의 韓國軍 제26연대와 陣地를 교대하기 위하여 咸興에서 준비 중이었다. 교대 직전 韓國軍 제26연대는 水洞 부근에서 심한 激戰을 전개한 바 있었고, 보다 나은 陣地를 확보하기 위해 現陣地에서 後方으로 약간 이동한 때이었다.

한 편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은 中共軍侵入의 새로운 사태를 확인하기 위해 咸興에 설치되어 있는 韓國軍 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中共軍 포로에 대한 심문을 통역관을 통하여 직접 하고 있었다. 포로들은 "지난 3일간 거의 굶었다."고 말하면서 지난 10월 16일 韓·滿國境지대인 滿浦鎭에서 鴨綠江을 渡河하여 야간에 徒步로써 長津湖부근에 도착하였으며, 박격포 등 장비는 말(馬)과 나귀 등에 싣고 있다는 것이다. 포로가 된 61명의 대부분은 中共軍 제24사단 제370연대의 박격포 중대원이었고, 그들이 포로될 당시 4문중 3문은 我軍에 의하여 격파되고 나머지 1문은 후송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鴨綠江을 渡河하자 곧 戰線에 투입되었고, 대부분의 蔣介石 政府軍출신이었으며, 약 1년 전에 北京에 주둔하고 있다가 中國共産軍에 항복한 후 共産軍이 되었다는 것이다.

Almond장군은 이러한 사실을 곧 無電으로 MacArthur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포로들의 심문을 종합해 본 결과, 中共軍 제370연대는 분명히 10월 23~24일에 水洞 부근의 戰線에 投入되었고 10월 25일에 처음으로 韓國軍과 接戰한 것이었으며, 中共軍 제124사단의 다른 연대인 제371연대와 제372연대의 2개 연대도 長津湖 부근에 집결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0월 31일 : 美 제1해병연대는 咸興 北쪽에 집결하고 있었고, 美 제5해병연대도 元山을

출발하여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咸興에서 長津湖 南端까지도 90km이며 眞興里까지는 경사가 완만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2개 道路가 점차 완급해진다. 그중 1개 道路는 不良하여 直線거리로는 6km이나 道路上의 거리는 12km이며, 高原지대에 이르게 된다.

咸興에서 眞興里까지는 單線鐵路가 道路와 병행되어 있는데, 高原지대에 올라서면 鐵路는 下碣里와 長津湖의 4개의 發電所에 이른다. 眞興里 南쪽 7km에 水洞이 있는데, 中共軍 제124사단이 그 사이에 陣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일대의 煙台峰(△ 698) 高地는 周圍를 감제하고 있는 주요지형지물이었다.

11월 1일 : 이 날 未明 美 제7해병연대는 咸興 北쪽 집결지에서, 그리고 美 제1해병연대의 제2대대는 배속된 포병대와 함께 韓國軍 제26연대의 後方에 있는 제3발진소를 방어하기 위하여 42km를 이동하였다. 여기에서 韓國軍 제26연대는 中共軍과 交戰하다가 유리한 陣地를 점령하기 위해 7km를 後方으로 이동하였다.

美 제1해병사단 예하 제7해병연대와 제1해병연대가 水洞 부근에 진출완료하므로써 그 일대에서 韓國軍부대와 合同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11월 2일 : 이날 10.30에 美 제7해병연대는 水洞 부근에서 韓國軍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다음, 제1대대가 先頭에, 제2대대가 後續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 날의 전투에서 美 제7해병연대는 中共軍 3명을 포로로 하였는데, 그중 1명은 中共軍 제370연대 소속이었고, 다른 2명은 제370연대 소속이었다. 이어 동 연대 제1대대는 16.30에 밤을 새우기 위하여 水洞 南쪽 1.5km지점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고, 제2대대는 煙台峰(△698)高地에서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水洞 5km 南쪽의 麻田洞에는 연대 前方지휘소가 있었고, 麻田洞 일대에 제3대대가 예비대로서 陣地를 점령하고 있었다.

11월 3일 : 이 날 00.00가 조금 지나 中共軍 제124사단 제370연대는 美 제1해병사단 제1대대와 제2대대 陣地에 야간공격을 감행하였다. 中共軍이 夜陰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 때 水洞 부근의 제2대대는 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 격전중에 연대본부와의 通信도 杜絶되었으며, 中共軍은 계속하여 제1대대와 제2대대 사이를 차단하고 道路沿邊에 砲陣地를 점령하고 있던 4.2inch 박격포중대로 큰 피해를 입었다. 상방의 근접전은 수류탄 투척거리에 있었고, 한 밤중의 육박전은 그칠 줄을 몰랐다. 날이 밝자 美 해병艦載機가 출격하여 敵陣을 맹렬히 강타하였고, 모래주머니(沙囊)로 防彈장치를

한 美 해병연대의 트럭은 中共軍 小火器사격을 무릅쓰고 66명의 부상자를 敵陣에서 後送시키기도 하였다.

전투는 黃昏에까지도 계속되었으며 유기적인 空地協同작전으로 中共軍 700여명을 사살하였으며, 未明부터 敵의 銳鋒이 꺾어지기 시작하다가 끝내 저항을 포기하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激戰을 치르고 난 다음, 中共軍이 후퇴하자 美 해병 艦載機는 이를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空中爆擊을 가하였다.

11월 4일 : 水洞 부근과 그 南쪽 2km의 煙台峰(△698) 일대에서 中共軍과 激戰을 치르고 난 美 제7해병연대는 전날 이미 그 일대의 敵을 완전히 격퇴시킨 바 있었으며, 이 날은 경미한 敵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水洞을 경유, 眞興里 高地帶에 진출하였다. 이어 眞興里 北쪽 1.5km의 三巨里驛에서 美 제7해병연대는 北傀軍 전차 4대를 격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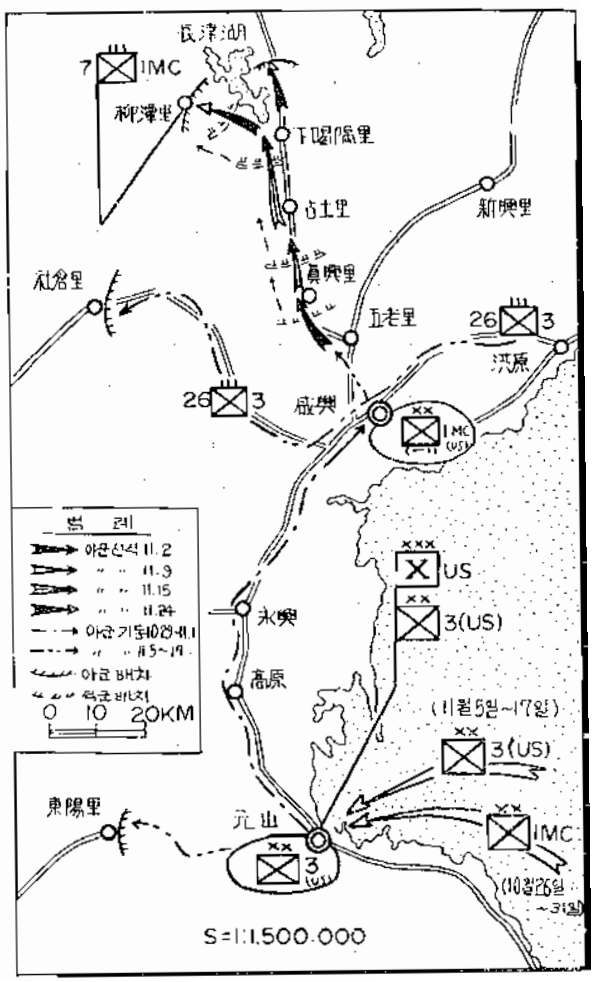
三巨里에서 古土里 高原으로 올라가는 道路는 점차 경사지게 되었으며, 해병연대 장병들은 敵의 그 陰面을 따라 北上 후퇴하고 있는 것을 肉眼으로 보고 있었다. 당시 항공관측보고에 의하면 400여명의 보병과 3대의 전차가 長津湖方向으로 퇴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山岳의 험곡을 따라 前進하는 美 해병대원들〉

후퇴한 이 敵들은 심한 空中爆擊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美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가 中共軍 제124사단과 격전을 거듭하는 동안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과 美 제5공군사령관 Partridge소장간에는 美 제1해병사단의 통제문제로 논의가 빌어지게 되었다. 즉 서울에 있던 美 제5공군 합동작전본부는 美 제1해병비행단에 임무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Almond소장은 現地 地上軍사령관으로서 지원공군의 통제를 주장한 것이 실마리가 되었다. 그래서 Partridge소장은 이 날 Almond소장과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元山에 空路 도착하여 토의한 결과, 美 제5공군은 美 제1해병비행단에 대하여 北東部의 戰線에 있어서는 합동작전본부의 승인 없이 美 제10군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상황도 제37호 美 제1해병사단 장진호진격전(50. 10. 26~11. 24)



11월 5일 : 美 제7해병연대의 제3대대는 그동안 예비대로 있다가 이 날부터 공격梯隊에 가담하였는데, 眞興里 北쪽 三巨里 일대에서 제1대대를 초월 공격하였을 때, 三巨里 東北쪽 2km의 無名高地에서 中共軍의 후퇴 엄호부대를 발견하고 이를 격파하였다. 이때 사살된 中共軍將校의 시체에서 얻은 地圖에 의하면 道路 양편을 방어하고 있던 敵이 증원부대와 야울러 無名高地 정상에 집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美 해병항공대는 그 無名高地를 맹렬히 空中爆擊하였으나, 敵은 계속 저항하고 있었다. 美 해병대는 古土里를 진격하기 위해서 一次的으로 주요한 지형지물인 이 無名高地를 격파하여야만 하였다.

三巨里 北쪽의 無名高地부터는 古土里에 이르는 道路의 南쪽 入口지대이며, 道路는 高原地帶에 이르기 때문에 경사

가 점차 심해지고 또 屈曲部가 많아 機械化部隊의 진출이 결코 쉽지는 못하였다.

한편 東北海岸線을 진격하고 있던 韓國軍 제 1 군단 예하 수도사단은 이 날 2일간의 격전 끝에 吉州를 점령 완료하였다.

11월 6일 : 이 날도 제 3 대대는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先頭공격을 위해 중대가 無名高地 南北쪽에서 西側方으로 이동하고 16.00에 공격지점에 이르러 30분간의 空中지원폭격과 포병의 공격준비포격에 이어 2개 소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4차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敵勢가 너무 완강하여 날이 저물자 일단 後方으로 이동하고, 그 대신 밤새도록 야포와 박격포 등이 敵陣地에 맹렬한 포격을 퍼부었다. 이 날 밤에 발사된 81mm박격포탄만 하여도 1,800발이나 되었다.

한편 道路 西側背의 611高地는 敵의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쉽게 점령하였으며, 이 무렵 포로된 中共軍의 진술은 제125사단과 제126사단 등 2개의 中共軍 사단병력이 長津湖 부근에 집결되어 있다는 엄청난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도오꾜오(東京)에서 청취된 新義州방송에 의하면 長津湖 주변의 敵은 同地 주변의 民間人을 강제동원하여 長津發電所施設을 완전히 철거하였고, 今後 如何한 發電所도 UN軍 및 韓國軍에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었다.

11월 7일 : 美 제 7 해병연대 제 3 대대의 정찰대는 敵이 철수하고 있었다. 전날 밤에 三巨里 北東쪽의 無名高地일대에서 집중포격을 받았던 敵은 많은 시체와 부상자를 유기한채 古土里方面으로 후퇴하고 있었으며, 敵의 단대호는 中共軍 제124사단 제372연대이었다. 이 날 제 3 대대는 三巨里 北쪽 2km 지점인 堡壘洞과 제 1 발전소까지 진출하였다.

지난 2일부터 이 날까지 6일간의 전투에서 中共軍 제124사단은 空地協同작전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美 제 7 海兵연대도 이 激戰에서 46명의 戰死者와 262명의 부상자, 그리고 6명의 실종자를 내게 되었다.

11월 8일 : 美 제 1 해병사단 제 7 해병연대는 堡壘洞부근에 진출, 집결하여 長津湖 진격을 위한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으며, 한편 美 제 7 해병연대의 제 3 대대는 전날까지 실종된 6명의 隊員을 찾기 위하여 수색정찰대를 그 주위에 파견함과 동시에 敵情을 살피고 있었다.

11월 9일 : 美 제 7 해병연대는 이 날 堡壘洞과 제 1 발전소부근에서 黃草嶺의 門고개(海拔 700m)를 너머 古土里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 고개는 이미 美 해병艦載機의 맹렬한

폭격으로 敵이 古土里—長津 方面으로 후퇴한 다음이었다.

한편 이 날 美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의 西側方을 엄호하기 위하여 韓國軍 제3사단 제26연대가 地境里—里水里地區로 轉進하였다.

곧 『제3사단장은 예하 제26연대를 11월 9일 09.00부터 美 제1해병사단에 배속시키고 同 연대를 地境里에 집결시키라.』는 韓國軍 제1군단 작전명령 제78호에 의거, 동 연대는 이날 12.30에 洪原에서 地境里로 이동한 다음, 龍上里에 前方지휘소를 설치하고 제1대대는 中村에, 제2대대와 제3대대는 中倉洞에 각각 陣地를 점령하게 되었다.

11월 10일 : 美 제7해병연대는 先頭부대는 이날 古土里에 진격한 다음, 계속해서 下碣隅里 南쪽 11km까지 前進하였으며, 연대의 본대는 古土里 高原에서 露營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쌓인 積雪과 氣溫의 急降下는 1시간을 견디기가 힘들 정도이었다. 이 날 오후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氣溫은 零下 8°에 살을 에이는 눈보라가 時速 35mile로 휩쓸었고, 밤이 깊어져 점점 더 추워짐에 따라 氣溫은 急降下하여 零下 20°에서 25°까지 水銀柱가 내려갔고, 이러한 酷寒에 익숙되지 못한 美軍 장병들에게는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었다. 외부대의 천막에는 환자가 격증하게 되었다. 이런 추위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량이 필요로 하였는데 한 美軍사병은 그 당시 1주일 동안에 소비한 糖粉菓子는 평상시 1년분이 되었을 것이라고 雪寒作戰의 실담을 말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敵은 長津湖 부근으로 退却하였다.

11월 11일 : 美 제7해병연대는 전날에 이어 古土里高原에서 부대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고 長津湖 南端인 下碣隅里에 진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 무렵 中共軍 대부분은 長津으로 철수하여 古土里에서 下碣隅里까지는 敵의 큰 저항이 없었는데, 1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中共軍 2개 사단이 집결하고 있었던 곳이다.

11월 12일 : 古土里에서 行軍하기 시작한 美 제7해병연대는 그간 많은 積雪로 인한 道路상태의 不良으로 車輛 및 徒步行軍 兩者 共히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었다. 연대는 일부 先遣隊는 古土里 西北쪽에까지 진출하여 敵情을 정찰하였으나, 특별한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1월 13일 : 美 제1해병사단장 Smith소장은 美 제10군단장에게 『사단의 前進은 순조롭게 행하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行軍을 계속한 美 제7해병연대는 敵의 저항을 받지 않고, 長津湖 南쪽 6km에 진출하여 下碣隅里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 날 현재 韓國全戰線의 UN軍은 平壤 北쪽 淸川江을 따라 東北쪽으로 山岳지대를 횡

단하여, 長津發電所 南端에 이르렀으며, 다시 東北海岸과 병행하여 淸津 南쪽 60km를 連하는 400km의 戰線을 형성하고 있거니와 全 戰線은 敵으로부터 各樣의 저항을 받으면서 축차적인 前進을 계속하고 있었다.

11월 14일 : 美 제7해병연대가 長津湖를 향해 진격하고 있을 때, 美 제10군단의 右一線 진격부대인 美 제7보병사단 제17연대와 제31연대는 酷寒을 무릅쓰고 韓·滿國境으로부터 48km 지점인 豊山 北쪽 熊耳川 부근에 진격하고, 다시 熊耳川 戰線으로부터 南北쪽 24km의 甲山으로 통하는 道路上의 要地를 확보하기 위하여 北進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美 해병항공대 소속 전투폭격기는 韓半島 東北戰線에서 韓·滿, 韓·蘇 國境지대로 진격하고 있는 韓國軍 제1군단 부대에게도 支援 空中爆擊을 계속하고 있었다.

11월 15일 : 이날 美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는 長津湖 南쪽 2km 지점에 있는 下碣隅里를 점령하기 위하여 전날에 이어 行軍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長津湖는 北韓지역의 電力을 공급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水力發電所가 있는 重要한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中共軍은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中共軍 대부분의 主力이 이를 포기하고 長津方面으로 퇴각하였으므로, 이 날 美 제7해병연대는 거의 接敵없이 진격하여 이 날

〈下碣隅里의 美 해병대 지휘소〉

16.00에 下碣隅里를 점령하였다.

11월 16일 : 長津湖 南端의 下碣隅里를 점령한 美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는 다시 長津湖 西南岸을 따라 北進하여 柳潭里에 육박하였는데, 下碣隅里를 출발하여 柳潭里로 진격하던 도중 數 未詳의 中共軍 후퇴엄호부대와 交戰이 전개되었으나, 곧 이를 擊滅시키고 柳潭里에 육박하였다.

한편 韓國軍 제3사단 제26연대는 美 제1해병사단의 西南方을 防護하기 위하여 興峰里—馬登嶺—中倉嶺(咸南과 平南의 경계지역인 狼林山脈 부근)을 점령하고 있었다.

(3) 美 제3사단의 증원

11월 5~30일 : 美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은 美 제10군단에 증원하기 위하여 예하 제65연대는 이미 8월 25일에 東印度諸島의 東部섬인 Puerto Rico에서 2隻의 수송함에 分乘하여 Panama운하를 경유, 韓國으로 直行하여 9월 22일에 釜山에 上陸하였고, 제7연대와 제15연대는 사단본부와 함께 8월 30일부터 9월 2일간에 San Francisco를 떠나 9월 16일에 日本의 모지(門司)에 도착하였다.

美 제3사단은 사단병력이 아주 부족하였으므로, 韓國 군인(KATUSA)으로써 보충하였는데, 제65연대를 제외한 사단병력은 9월 15일 현재 7,494명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사단은 10월 중에 日本에서 8,500명의 CATUSA를 보충받았는데, 1개 분대에 美軍 2명에 韓國軍 8명의 비율이었다.

釜山에 上陸해 있던 美 제3사단 제65연대는 제2대대를 先頭로 하여 11월 5일과 6일 사이에 元山으로 上陸하여 美 제10군단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사단 主力인 제7연대와 제15연대가 11월초에 日本 모지(門司)에서 出航준비가 끝날 무렵, 사단 전술지휘소는 이미 元山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어 제15연대는 마지막으로 11월 17일에 전 사단이 元山에 上陸완료하였다. 이 무렵 美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는 古土里 高原을 경유하여, 長津湖 南端인 下碣隅里를 점령하고, 계속 柳潭里를 향하여 진격할 때이었다.

元山에 上陸한 이 美 제3사단의 임무는 美 제1해병사단의 일부가 담당하고 있던 元山 부근의 美 제10군단 後方지역경계와 방첨선을 경비하고 敵의 유격활동을 봉쇄하는 것이었으며, 또 元山—咸興間의 海岸線을 경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단의 전술책임지역은 이미 점령된 後方지역이라 하지만 144×56km로서 너무나 광대한 것이었다.

사단장 Soule소장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韓國軍 제3사단 제26연대를 포함한 4개 연대를 전부 전투단으로 편성하여 각기 임무를 부여하였다.

즉 제15연대는 元山과 그 南部 및 西部지역을 담당하여 주로 元山—馬轉里—東陽里間의 補給路를 경비하고 있었으며, 제65연대는 사단 北쪽지역인 咸興—永興 부근을 경비하고 있었고, 韓國軍 제26연대는 美 제1해병사단의 西側方인 社倉里일대를 경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7연대와 전차중대는 元山 北方에서 사단 예비대로 控置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배치된 美 제3사단 예하 각 연대는 11월 30일에 특별한 敵情 및 교전을 갖지 못한채 담당지구를 경계하다가 美 제10군단의 이동계획에 따라 다시 元山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美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는 10월 26일 元山에 上陸하여 11월 2일 咸興 北方 廣田谷에서 韓國軍 제3사단 제26연대와 교대한 다음, 水洞 부근에서 中共軍 제124사단 제370연대와의 激戰을 始初로 하여 長津湖 西南岸의 下碣隅里—柳潭里로 진격하기까지 2주일간 中共軍 1개 사단을 격퇴하면서 雪風寒波의 酷寒도 이겨 내었던 것이다.

中共軍 대부대는 長津湖 北쪽으로 潰走하여 그동안 막대한 피해로 인한 부대再編을 企圖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1월 16일 下碣隅里를 점령한데 이어 11월 24일 長津湖 西岸의 柳潭里를 점령완료한 다음, 그 부근에 집결한 것을 끝으로 진격전이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美 10군단의 G—2는 『근간 敵은 北方으로 철수하였다.』라고 너무나 낙관적인 보고를 군단에 한 적이 있는데, 군단장 Almond소장도 이 방어 지연전단으로써 我軍에 대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11월 22일 柳潭里 부근에서 2명의 中共軍을 포로로 하였는데, 그 소속은 中共軍 제89사단 제267연대이었으며, 10여일 전에 鴨綠江을 渡河하였다고 심문에 답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다른 中共軍 사단이 韓國戰線에 投入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美 제10군단의 판단은 새로운 敵의 증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이다.

美 제7해병연대가 柳潭里 부근에 집결하여 있을 때, 美 제10군단 예하 美 제7사단의 惠山鎭 일대에 진격하였고, 韓國軍 제1군단의 東北 最前方에는 富寧을 육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韓國全戰線의 惡化로 中共軍과 대치상태 아래 柳潭里 부근에서 집결하여 차후 작전을 대기 중이던 美 제7해병연대도 12월 2일 철수하게 되었다.

6. 美 제7사단의 利原上陸 및 惠山鎭進擊戰(50년 10월 27일부터 50년 11월 28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7 호
상 황 도 제 38 호
작명부록 제 31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10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제 7 사단장 소장 David G. Barr
제17연대장 대령 Herbert B. Powell
제31연대장 대령 Richard, P. Ovenshine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E. Beauchamp

병력 : 美軍 18,837명
韓國軍 KATUSA 7,804명
計 26,641명

敵 軍

北傀軍 약 2개 연대
中共軍 제42군 제126사단 적372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美 제7사단은 美 제1해병사단과 함께 仁川上陸作戰에 참가한 美 제10군단의 예하부대로서 9월 30일에는 서울지구의 작전임무를 美 제8군에 인계하였다. 이어 동 사단은 10월 2일 UN軍 사령부로부터 『美 제7사단은 元山에 上陸하여 平壤을 左廻 공격하라.』는 작전명령 제2호를 수령하고 전병력을 利川과 水原으로 이동, 집결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乘船地는 仁川港이 美 제8군의 軍需品 荷役과 美 제1해병사단의 乘船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釜山港으로 指定되어 長距離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京釜間의 鐵路는 釜山—大邱間만이 개통되어 있고, 大邱—大田—서울間은 개통이 되지 않았으므로 (10월 8일에 개통) 道路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무렵 京釜間의 幹線道路는 美 제8군의 보급품이 釜山에서 서울로 輸送 중이었기 때문에 美 제8군과 협의한 끝에 10월 4일 水原—利川—忠州—咸昌—金泉—大邱—永川—慶州—蔚山—釜山이 經路를 이용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중 水原—大邱間은 사단의 보유차량과 보급품을 싣기 위하여 釜山으로 돌아가는 美 제52수송대대의 트럭을 이용키로 하였고, 大邱—釜山間은 列車로 輸送키로 결정하였다. 동 사단의 이 京釜間 이동과정은 총 350km에 달하며 移動量은 인원 13,422명과 보급장비 1,460ton이었다.

계획에 따라 사단은 5일 03.50 제31연대 제3대대가 先頭로 利川에서 출발한데 이어 4시간 뒤에는 제32연대가 출발하였다. 그러나 제17연대는 완전히 임무를 인계하기 위하여 利川에 머물렀다가 10월 8일에야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동사단은 이 長距離의 移動過程을 통하여 10월 6일과 9일 양일간에 두 번이나 敵의 기습을 받았다.

10월 6일 02.00 제31연대 제2대대의 先頭부대가 聞慶부근의 山岳지대를 통과할 무렵, 不意에 敵

의 기습을 받고 9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10월 9일에도 사단 사령부의 병력이 02.30 開慶 西北쪽 5km에 위치한 梨花嶺을 넘다가 對戰車砲와 중박격포까지 소지한 數百名의 敵兵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6명이 전사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수대의 차량까지 파손되었다.

이 날 오후 後續한 제17연대 제1대대는 이 지역의 敵兵을 격퇴하고 道路를 開通하였으나, 敵이 계속하여 출몰하기 때문에 11일 美 제25사단 제27연대와 교대하기까지 梨花嶺—開慶間의 경비에 임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단의 각 부대는 출발의 時差와 敵 기습으로 제31연대와 제32연대는 10월 7일에 釜山에 도착한 반면, 사단사령부는 8일에, 제17연대는 12일에야 도착하였다.

그리고 지원부대인 사단 포병대가 10일 17.00 利川을 출발한 것을 마지막으로 美 제10군단 소속의 醫務, 工兵, 兵器, 輸送, 兵粘, 化學, 通信부대 등도 陸路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14일부터 차량과 장비를 船艙에 적재하기 시작하였고, 인원은 16일부터 乘船하여 17일에는 이를 모두 끝내었고 사단의 前方지휘소도 Eldorado號 艦上으로 移設되어 19일 釜山港을 출항하여 南北으로 航進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方魚津(蔚山灣 東南海岸에 위치) 東北쪽 26海哩 지점에 이르렀을 때, 美 제7함동기동함대 사령관 Struble 중장으로부터 『永興灣의 掃海作業이 지연되어 上陸할 수 없으니 別命이 있을 때까지 航進을 멈추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10월 27일까지 10일간을 海上에 머물렀다. 그러다 10월 25일 永興灣의 掃海작업이 끝나고 美 제1해병사단이 26일부터 元山에 上陸하기 시작하였을 때 美 제10군단사령부에서는 『美 제7사단은 元山 東北 240km지점의 利原에 上陸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으므로 동 사단은 제17연대를 先頭로 利原을 목표로 東海를 北上하게 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美 제7사단의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은 一聯의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의 작전개념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었다.

10월 20일 元山의 美 제10군단사령부에 安着한 Almond 소장은 이 東北지역의 敵情과 戰況의 推移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곧

『元山—咸興 西側方의 山岳地帶에는 강력한 敵의 遊擊隊가 殘存하여 빈번히 元山—咸興 지구에의 침투를 企圖하고 있고, 咸興지구에서 北進을 준비하고 있는 수도사단의 前面에는 미약한 北傀軍이 배치되어 있으나, 사실상 北傀의 正規戰力은 이미 격파되었으므로 現戰況은 追擊의 最終段階며, 큰 저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용할 수 있는 道路는 전부 이용하여 신속히 國境線에 진출하면 자연히 이 지역의 平定은 끝나는 것이며, 동시에 전쟁은 終熄될 것이다. 그러나 다만 後方地域의 敵 遊擊隊의 침투는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激化될 것이니 後方의 경비는 특별한 配慮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10월 26일 Almond 소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표명하게 되었다.

『1. 韓國軍 제1군단은 海岸線과 茂山街路를 따라 北으로 계속 前進하여, 白頭山 以東의 國境線을 점령한 뒤, 지구 내의 敵을 平定한다. 단 美 제7사단과 美 제1해병사단이 進出할 때까지는 일부병력을 長津湖, 赴戰湖, 豊山方面으로 指向시켜 敵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며, 元山지구를 경비하는 韓國軍 제3사단은 그 임무를 美 제1해병사단에 인계한 뒤에 首都사단을 追及한다.

2. 美 제1해병사단은 長津湖線에 진출하여 江界를 목표로 공격할 준비를 할 것이나, 美 제3사단이 元山에 도착할 때까지는 일부 병력으로 元山—咸興지구를 경비한다.

3. 美 제7사단은 利原에 上陸하는 즉시 豊山과 赴戰湖를 거쳐 白頭山 南쪽으로 진출한다.

4. 美 제3사단은 元山—咸興지구의 경비를 맡아 後方의 敵 유격대를 搜討함과 동시에 軍團의 補給路를 防護한다.』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Almond 소장은 前進의 軸線을 가능한한 좁히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美 제7사단의 上陸지점을 利原으로 指定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Almond 소장의 작전계획에 따라 白頭山 南쪽으로 진출한 임무를 띠게 된 사단장 David G. Barr 소장은

『첫째 제17연대를 利原에 上陸시켜 北青—豊山 惠山鎭으로 前進케 하고, 다음으로 제31연대는 利原에 上陸하는 즉시 北青—咸興—五老里—新興의 軸線을 따라 赴戰湖—新興波鎭으로 진격케 하며, 끝으로 제32연대는 사단의 예비대로 後方경계에 임하라.』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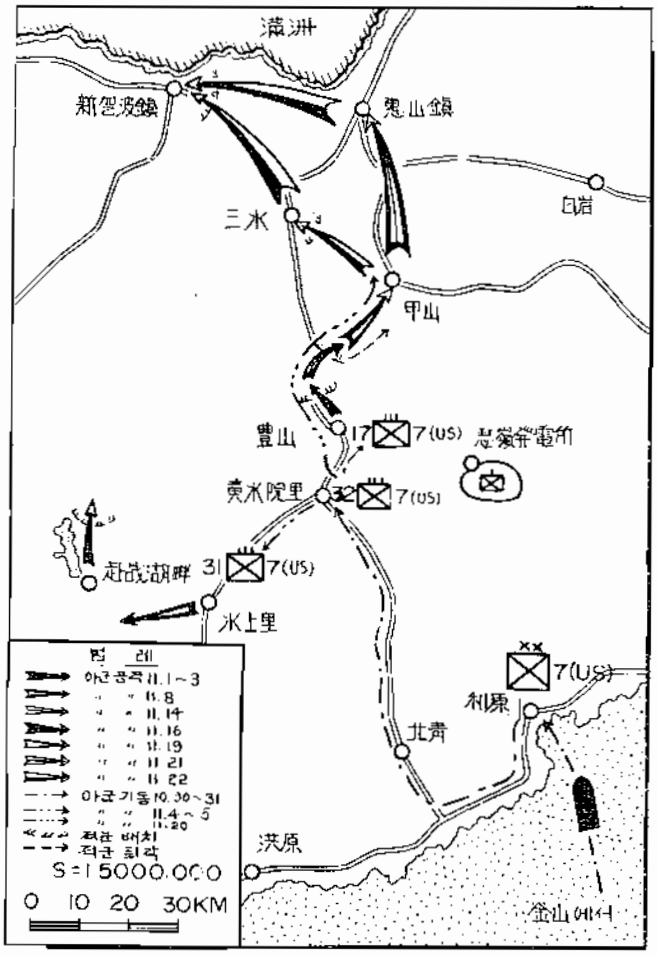
(2) 작전실시

10월 27일 : 美 제7함동기동함대 소속의 LST 7隻에 분승한 美 제7사단의 先頭부대인 제17연대전투단은 이날 未明 釜山港을 出港하였다.

동 船團은 航進을 계속하여 19.00에는 方漁津 東北海上에서 제주 중인 제31연대와 제32연대와 合流하였다. 이 날 元山港에서는 26일부터 시작된 美 제1해병사단의 上陸이 끝났으며, 首都사단의 제1기갑연대는 利原—端川을 점령한 뒤, 城津을 목표로 前進 중 摩天嶺의 敵을 격파하였다.

10월 28일 : 이 날 美 제7사단은 제17연대전투단의 船團을 先頭로 方漁津 東北海上에서

상황도 제38호 美 제 7사단 利原—惠山鎭進擊戰(1950. 10. 30~12. 28)



北으로 航進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반면 전날 元山上陸을 끝마친 美 제 1해병사단은 元山奪還 이후 元山지구의 방어임무를 맡아 온 韓國軍 제 3 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고, 韓國軍 제 3 사단은 다시 咸興지구의 경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咸興일대로 병력을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首都사단의 제 1 기갑연대는 城津을 점령하였고, 제 1 연대는 豊山을 점령하였으며, 18연대는 赴戰湖일대에서 殘敵을 격파한 뒤, 白岩山을 공격하고 있었다.

10월 29일 : 美 제 7 사단 先頭부대의 輸送船團은 이날 아침 利原에 上陸하였다. 利原에는 地雷가 增設되어 있지 않았고, 10월 23일 首都사단 제 1 기갑연대가 이미 이 곳을 점령한 바 있어 아무런 저항없이 무사히 上陸할 수 있었다.

先頭부대인 제17연대의 본부와 제 1 대대대 上陸 즉시 제49야전포병대대와 제13야전공병대대 A중대와 함께 新北靑—北靑—獐興里를 거쳐 初里에 진출하였고, 제2, 제 3 대대는 利原에서 上陸 중이었다.

이 날 제17연대의 前方에 위치한 豊山에는 수도사단 제 1 연대가 임무를 교대하기 위하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고, 右側 東海岸道의 제 1 기갑연대는 城津일대를 완전히 확보하였다.

10월 30일 : 전날 利原을 떠나 初里에 도착한 美 제17연대의 본부와 제 1 대대는 이날

豊山을 목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初里에서 濟初里—直洞을 지나면 南쪽 劍德山(△1684)의 西麓을 南北으로 가로지르는 海拔 1,335m의 厚峙嶺이 있다. 이 고개는 道路가 險惡한데다가 그 곳 주민들이 "아흔아홉고개"라고 부르리만치 굴곡이 심하고 험한 곳이다. 그러나 이 厚峙嶺을 내려와서 黃水院湖를 左廻하고 다시 上地境里—下地境里—長陽里—豊山에 이르는 道路는 韓國軍 수도사단 제1연대의 공병대가 그간에 수리해 놓았기 때문에 비교적 순탄한 편이었다. 이같은 山岳지대의 험난한 道路를 이동함에 따라 연대본부와 제1대대 및 제49야전포병대대, 제13야전포병대대 A중대는 이날 저녁에야 豊山에 도착하게 되었다.

豊山은 咸鏡山脈의 西端과 蓋馬高原의 南端에 위치한 高原지대의 山間都市로서 利原—惠山鎭間의 거의 中間地點에 위치하고 있다. 이 날 豊山에 배치된 韓國軍 수도사단의 제1연대는 계속 前面의 敵을 공격하고 있었다.

10월 31일 : 豊山에 진출한 제17연대의 본부와 제1대대 및 제49야전포병대대, 제13야전공병대대內 A중대 등은 韓國軍 수도사단의 제1연대와 合流하였다.

이 날 東海岸道를 따라 東北進한 韓國軍 수도사단의 제1기갑연대는 城津 北쪽 鶴城洞에 진출하였고, 左側 咸興—六老里—新興線을 따라 赴戰湖로 공격 중인 제18연대는 水上里일대에서 接敵 중이었으며, 長津湖方面에도 韓國軍 제3사단의 제26연대와 교대하기 위하여 元山에 上陸한 美 제1해병사단의 제7해병연대가 咸興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11월 1일 : 豊山의 韓國軍 수도사단 제1연대는 지난 30일 아침부터 豊山 北쪽의 敵 陣地를 계속 공격하여 왔으나, 敵은 견고한 陣地를 구축하고 방어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後方으로부터 병력의 증원을 받아 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날부터 敵은 反擊作戰으로 전환시켜 제1연대의 側背를 공격해 왔다.

이에 美 제17연대 연대장 Robert B. Powell대령 예하 제1대대로 하여금 韓國軍 제1연대와 협공하도록 명령하여 공격해 온 敵을 완전히 격퇴하고 본래의 戰線을 유지하게 되었다.

전투가 끝난 뒤, 韓國軍 제1연대는 陣地를 美軍에 인계하고 城津으로 이동하였으며, Powell 대령은 한편 제1대대장에게 『내일 08.00 前面의 敵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11월 2일 : 美 제17연대장 Powell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1대대병력은 이 날 08.00 前面의

敵을 공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07.00 2개 연대규모의 敵은 豊山 前方 3km 지점인 直里—雪鶴里—新元下里 일대에서 機先을 制하려는 맹렬한 공격을 가해 왔다. 이리하여 이날 彼我間의 攻防戰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그間 衆寡不敵으로 美軍들은 이 전투에서 苦戰을 면치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 利原에서 上陸을 서두르던 동 연대의 제2, 제3대대병력이 逐次的으로 도착하여 전투에 참가하므로써 退勢를 挽回하고 공격을 전환하였다.

한편 이날 右側의 韓國軍 수도사단의 제1기갑연대는 吉州 南方 12km나 前進하였고, 美 제17연대 제1대대와 豊山에서 교대한 제1연대는 이 날 城津 北쪽 鶴城里에서 제1기갑연대를 後續하고 있었다. 그리고 西側方의 수도사단 제18연대는 赴戰湖로 진격 중 美 제7사단 제31연대와 교대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으며, 長津湖부근에서 美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가 韓國軍 제3사단 제26연대와 교대하므로써 제26연대는 五老里로 이동, 집결하였다

11월 3일 : 이 날 利原에는 美 제7사단 제31연대가 제3대대를 先頭로 海岸에 上陸하기 시작하였으나, 동 연대 잔여병력의 上陸과 제반 장비의 揚陸작업은 이튿날에야 모두 끝마쳤다.

동 연대의 공격목표는 赴戰湖方面으로써 이미 이곳으로 前進 중이었던 韓國軍 수도사단의 제18연대와 교대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이날 豊山의 美 제17연대 병력은 전날에 이어 2개 연대규모의 敵兵을 추격하고 있었으며, 東海岸線의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와 제1연대는 吉州를 공격하고 있었다.

11월 4일 : 利原海岸은 防波堤가 없고, 波濤가 심하여 이날까지 美 제7사단의 後方부대가 上陸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차량과 장비마저 海上에 留置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날 豊山에서 接敵 중인 美 제17연대는 4.2inch 박격포와 81mm 박격포 및 60mm 박격포의 포탄을 공중보급토록 사단사령부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동 연대는 이 날 수은주가 零下 2度를 가리키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鷹德嶺(△1546)에서 敵과 치열한 전투 끝에 敵의 主力부대를 격파하고, 계속 추격하여 豊山前方 20km 지점의 熊耳川 南岸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美 제31연대는 전날 제3대대가 上陸한데 이어 이날 오전 제1 제2대대 병력의 上陸과 각종 장비의 揚陸작업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동 연대는 黃水院江上의 水上里와 白山(赴戰湖 東쪽 20km) 일대에 전개한 수도사단 제18연대와 교대하기 위하여 利原—豊山街路를 따라 이동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 날

利原에서는 美 제7사단 제32연대가 上陸하기 시작하였다.

11월 5일 : 豊山 前方의 熊耳江 南岸에 진개한 美 제17연대가 전날에 요청한 보급품이 이날 利原海上의 輸送船團으로부터 수송기에 운반되어 陣地에 투하되었다.

그리고 전 날 豊山에 이동한 제31연대는 白山—水上里 일대의 수도사단 제18연대와 교대하였다. 이에 수도사단 제18연대는 임무를 인계하고 사단 작전명령 제110호에 의거 西陽里로 집결한 다음, 明川을 목표로 이동하고 있었다.

다음, 전날에 이어 利原上陸을 끝낸 제32연대는 사단장 Barr 소장으로부터 「咸興으로 이동한 다음, 東北進하여 담풍리에서 작전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날 한편 美 제7사단의 右側에서 東海岸線을 따라 前進, 수도사단의 제1기갑연대와 後續한 제1연대는 吉州를 점령하였고, 左側 長津湖線의 美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는 古土里를 향하여 공격 중이었다.

11월 6일 : 전날에 美 제17연대는 熊耳川 南岸에 배치하여 渡河作戰을 준비하였고, 제31연대는 水上里 白山일대에서 次期작전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제32연대는 이 날 변동상황이 없었다. (註 : 제32연대에 대한 사단장 Barr 소장의 작전명령은 「咸興에서 東北進하여 담풍리에서 작전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으나, 11월 10일자의 記錄에 「豊山—初里간의 道路보수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한 것을 볼 때 前後 5일간 담풍리로 이동한 뒤, 다시 豊山—初里間의 이동하였다기 보다는 그간 작전명령이 수정되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詳考할 수 없다.)

이 날 美 제7사단 右側의 東海線을 前進한 韓國軍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와 제1연대가 吉州에서 明川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으며, 한편 元山에서는 美 제3사단이 전날 제65연대 제2대대를 先頭로 上陸하기 시작하여 이 날 上陸을 완료하고, 美 제1해병사단으로부터 元山지구의 방어임무를 인수함에 따라 제1해병사단이 永興—咸興지구로 이동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咸興지구의 방어임무를 맡고 있었던 韓國軍 제3사단은 洪原—北靑—利原—端川—城津線을 따라 逐次的인 이동을 개시하였다.

11월 7일 : 이날 美 제7사단의 각 연대는 전날의 배치지역에서 次期작전을 대비하였다.

그러나 사단 右側의 韓國軍 수도사단은 吉州에서 漁郎川 일대의 敵을 격파하기 위하여 明川으로 前進하고 있었으며, 사단 左側의 美 제1해병사단은 眞興里 北쪽 高草嶺에서 저항하는 中共軍 제124사단 제372연대를 격퇴하였다.

11월 8일 : 豊山을 거쳐 水上里—白山일대에 배치한 美 제7사단 제31연대는 이 날 오후 白山의 東側 斜面에서 1개 대대규모의 敵과 조우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敵 50명을 사살하

였고, 敵은 白山 일대로 潰走하였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敵이 遺棄한 시체를 조사한 결과, 中共軍 제42군 중 左側을 엄호하기 위하여 파견한 제126사단 제376연대의 일부병력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이리하여 美 제10군단의 작전지역 중 長津湖일대와 더불어 赴戰湖부근에도 中共軍이 出現하기 시작하기 시작하여 美 제7사단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동 제31연대의 정찰대는 이 날 赴戰湖 南쪽을 수색하다가 美 제1해병사단 병력과 마주쳤는데, 이는 仁川上陸 이후 兩部隊가 만난 최초의 일이었다.

한편 熊耳川 南岸의 美 제17연대와 제32연대는 변동상황이 없으며, 東部戰線 수도사단은 이날 사단사령부를 城津에서 吉州로 이동하였고, 主力은 明川을 점령한 다음, 漁郎川의 敵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11월 9일 : 이날 美 제7사단의 각 연대는 변동상황 없으나, 사단직할 제7정찰중대를 豊山 東쪽 30km 지점의 洪君 北쪽에 위치한 慧嶺發電所를 경비하기 위하여 파견하였다. 한편, 이날 右側의 韓國軍 수도사단은 漁郎川에서 강력한 敵의 主力부대와 조우하여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으며, 韓國軍 제3사단은 左側 長津湖일대에서 苦戰 중인 美 제1해병사단의 西側方인 地境里—黑水里—社倉里線을 확보하기 위하여 敵 제26연대를 美 제1해병사단에 배속시켰다.

11월 10일 : 美 제7사단은 제17연대를 熊耳川線에 제31연대를 赴戰湖 東側에 사단 제7정찰중대를 慧嶺發電所에 각각 진출시키고, 제32연대를 豊山—初里間의 道路 補修에 담당케 하여 차후의 北進을 준비하고 있다.

Barr 사단장의 작전은 신중하였다. 赴戰湖 東側 斜面에 中共軍이 나타난 이상, 正面의 敵 主力은 中共軍이라고 믿게 되었다. 당시의 기온은 아직 零下 2度에 불과하지만 補給品의 上陸은 심한 파도로 여의치 않은 위에 利原—豊山間의 主補給路도 수송상의 곤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작전상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월 11일 : 이 날 美 제7사단은 전날의 상황과 다름 없이 현재지에서 次期작전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右側의 韓國軍 수도사단은 漁郎川 일대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敵과 계속 攻防戰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左側의 美 제1해병사단은 黃草嶺전투에서 격파된 中共軍 제126사단 제372연대가 長津湖方面으로 철수하자 古土面에 진출한 다음, 下碣隅里를 향하여 서서히 진

적하기 시작하였다.

11월 12일 : 이 날 豊山에 도착한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西部戰線의 清川江일대와 東部戰線의 赴戰湖—長津湖일대에서 中共軍이 發見되지 않는다는 綜合敵情報告에 의거하여 美 제7사단장 Barr 소장에게 北進하라고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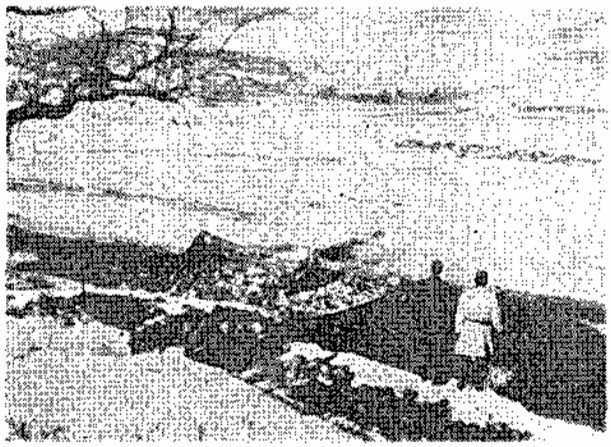
이에 사단장 Barr 소장은 제17연대로 하여금 中山을 거쳐 惠山鎭으로 진격케 하고, 제31연대를 赴戰江을 따라 北進하여 新乭波鎭에 진출하도록 명령하고, 제32연대는 利原—豊山등 後方 補給路의 유지와 警備임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11월 13일 : 美 제7사단의 제17연대와 제31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각각 熊耳川의 渡河 및 赴戰湖의 진격에 대비하였다. 이중 특히 제17연대의 前方에 있는 熊耳川은 鴨綠江에서 南으로 흐르는 虛川江의 支流로서 西쪽으로 熊耳川貯水地로 流入되는데 동 연대 陣前의 熊耳川 水深은 30~40cm에 불과하였다.

舍坪里일대에 배치한 제17연대는 江의 北岸과 연결된 교량이 이미 敵에 의하여 파괴되었으므로 연대장 Powell대령은 연대에 소속된 韓國軍 工兵隊로 하여금 밤 드람통으로 徒步橋를 가설케 하였다.

11월 14일 : 이 날 美 제17연대는 전날 韓國軍 工兵隊가 가설한 徒步橋를 이용하여 渡河하기 시작하였다. 先頭부대가 渡河할 무렵 敵의 사격이 있었으나, 거리가 멀어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무사히 건너 下碣坪 일대에 전개하였다, 그런데 제3대대는 그로부터 東쪽 5km 지점의 舍坪里 앞 江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 곳은 전날 밤에 敵이 江上流의 댐을 개방하여 水深이 60cm 이상이나 增水해 있었다. 제3대대 L중대의 1소대가 先陣으로 허리까지 차는 물을 걸어서 건너는 도중, 敵의 小火器와 박격포사격으로 6명이 零下 7度나 되는 江물에 빠졌고, 그외의 數名도 물에 빠졌다. 이에 대대장은 곧 그들을 구조하여 脫衣시키고 毛布로 싸서 대대본부에 後送시켰으나, 1명은 전사하고 6명은 부상하였으며, 18명은 凍傷에 걸려 두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말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연대장 Powell대령은 제3대대의 强行渡河를 중지하고 徒步橋로 이동시키자고 건의하였는데, 사단장 Barr 소장이나 군단장 Almond 소장도 이에 동의하였다.

11월 15일 : 이날 美 제7사단사령부의 보급곽는 전투원의 보강을 위하여 250개의 分隊用 天幕과 500개의 石油스토오브를 제17연대에 지급하였으며, 동 연대는 전날에 이어 熊耳江의 渡河작전을 계속하여 제1대대가 최후로 무사히 이를 완료하였다.



〈鴨綠江에서 美軍이 江건너 滿洲를 바라보고 있다.〉

한편 白山—永上里부근의 제31연대는 광활하고 험준한 無街地帶에서 農牛가 이끄는 썰매로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자를 後送하였다. 이날 동 연대의 제3대대 정찰대는 赴戰湖의 東端에 진출하였다.

11월 16일 : 이 날의 航空관측보고에 의하면 美 제17연대 前方의 敵은 小集團으로 분산되어 中山方面으로 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美 제17연대는 熊耳川 北岸의 館垈里에서 禹高里—坪麟嶺(△1186)을 통과하여 東쪽 中山道와 西쪽 三水道의 交叉路인 上里에 진출하므로써 이날 13km를 前進하였다.

그리고 전날 赴戰湖의 東端에 진출한 美 제31연대 제3대대 정찰대의 뒤를 따라 이날 本隊는 水上里--長津嶺(△1898)—赴戰湖畔의 經路를 따라 西北으로 前進하여 赴戰湖 北端 漢倍里의 赴戰땜 부근에서 약 200명의 中共軍을 擊退시켰다.

11월 17일 : 전날 上里에 진출한 美 제7사단 제17연대 병력은 이날 行軍을 계속하여 中山 南쪽 16km 지점인 右隅里 부근에 배치하였다. 그런데 전날 赴戰發電所를 점령한 美 제31연대는 이 날 前進을 못하고 배치하고 있었다. 그것은 赴戰湖 北端의 漢倍里에서 右介里--新乭波鎭을 연결하는 赴戰江 沿邊의 道路는 馬車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山間小路이며, 더욱이 심한 暴雪로 말미암아 이 길을 判別할 수 없게 되어 車輛의 運行이 되지 않아 北進을 도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날의 인접부대 상황을 살펴 보면 대개 다음과 같았다.

東北 海岸線은 前進한 韓國軍 수도사단 제18연대와 제1대대는 漁郎川—鳳凰지구에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고, 제1기갑연대는 吉州--合水—惠山鎭街路上의 城德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吉州로 완전 이동한 韓國軍 제3사단에 전날 16.00 吉州--合水—惠山鎭을 공격하라는 제1군단 작명 제120호(作命附錄 제31호)가 하달되어 이 날부터 이 지역에 대한 작전임무를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로부터 인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長津湖線의 美 제1해병사단은 전날 下碣隅里를 점령한 다음, 이날 湖畔을 右

殲하여 柳潭里로 진격하고 있었다.

11월 18일 : 전날 右隅里에 배치한 美 제17연대는 이 날 前進을 계속하여 甲山 南쪽 6km 지점인 送友里—長坪里 일대에 진출하였다.

그런데 赴戰發電所를 점령한 美 제31연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道路의 不良으로 新乭波鎭으로의 전진을 포기하고 赴戰湖畔의 東西面일대를 수색하고 있었다.

11월 19일 : 전날 送友里—長平里 일대로 이동, 배치한 美 제17연대의 先頭부대인 제 1 대대는 이 날 10.30 步·戰·砲 협동작전으로 甲山을 공격, 점령하였다.

특히 美 제17연대 전차중대는 蛇嶺 속에 있는 敵을 壓殺하였으며, 美 제15대공포대는 40 mm 고사포로 交通壕의 殘敵을 掃射하였다. 그리고 동 연대의 제 1 대대는 甲山을 점령한 다음, 계속 惠山鎭街路를 따라 敵을 추격하여 이 날 밤에는 甲山 前方 13km 지점인 板章里에 진출하였다. 이리하여 앞으로 惠山鎭까지는 37km가 남아 있다.

한편 美 제17연대의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는 제 1 대대를 後續하였고, 연대의 前方지휘소는 이날 밤 甲山으로 이설되었다.

이 날 赴戰湖畔의 美 제31연대는 계속 부근일대의 수색전을 전개하면서 次期작전에 대비하였으며, 美 제32연대는 豊山—初里間의 後方경비에 임하고 있었다. 한편 이 날 사단 右側의 韓國軍 수도사단은 漁郎川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으며, 제 3 사단은 吉州집결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右側의 美 제 1 해병사단은 柳潭里를 공격하였다.

11월 20일 : 이날 美 제 7 사단장 Barr 소장은 赴戰湖—水上里—雲潭里—三台里—黃水院里의 山間 道路上에 강력한 分遣隊를 留置하여 豊山—初里間의 사단 後尾와 連繫시켜 놓은 다음, 美 제31연대와 제32연대의 主力부대를 豊山과 甲山으로 각각 이동, 배치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일 사단의 제 7 정찰중대가 파견되었던 惠鎭발전소에는 이날 밤 韓國軍 제 3 사단의 전차공격대대의 1개 중대가 도착하여 美 제32연대의 1개 중대와 교대함으로써 동 1개 중대의 美軍은 甲山의 연대 집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註 앞서 파견된 제 7정찰중대와 제32연대의 1개 중대가 교대한 것은 日時는 詳考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날 밤 敵의 기습을 받고 韓國軍 양개중대가 교전한 끝에 韓國軍 5명이 負傷하였다.

한편 전날에 板章里로 前進한 美 제17연대는 이 날 제 1, 제 3, 제 2 대대의 順序로 惠山鎭을 향하여 진격하였는데, 積雪과 氷板의 道路였기 때문에 많은 機動上의 애로를 겪으면서도 惠山鎭 南쪽 8km 지점에 진출하였다.

11월 21일 : 이 날 아침 美 제17연대는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채, 惠山鎭 街路를 前進하여 10.00에는 惠山鎭 市街와 鴨綠江에 연한 주변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市街는 일주일 전인 13일 東海上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해군 艦載機에 의하여 軍營과 倉庫가 파괴되는 등 市街의 85%가 燒燼되어 있었다.

그리고 市街의 北쪽을 가로지른 鴨綠江의 江幅은 45~70m 정도였는데, 流幅은 불과 2m였다. 江上의 橋梁은 동 연대가 들어 오기 전부터 파괴되어 있었으며, 江의 北쪽 300m지점의 滿洲境內에 위치한 長白에는 中共軍의 步哨와 장교들의 왕래를 역력히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이 제17연대 제1대대가 惠山鎭을 점령하자 전날 甲山에 와 있었던 美 제10군단장 Almond 소장은 사단장 Barr 소장과 연대장 Powell 대령을 대동하고 惠山鎭에 도착하였고, 이어 東京의 MacArthur 원수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11월 22일 전날 美 제7사단 제17연대가 惠山鎭을 점령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MacArthur 元帥의 이 날 Almond 소장에게 「Ned여!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祝福을 드립니다. 그리고 Barr소장에게도 美 제7사단이 正鵠을 찔렀다(**The 7th Division hit the jackpot.**)고 전해 주시오.」라는 祝電을 보내 왔다.

Almond 소장은 이에 부가하여 사단장 Barr 소장에게 『불과 20일 전에 利原에 上陸하여

〈美 제7사단 제17연대의 惠山鎭돌입〉

320km 이상의 深山峽谷을 積雪과 零下의 酷寒을 무릅쓰고 집요하게 저항을 반복하는 敵을 무찌르고 귀하가 거둔 성과는 軍史에 길이 빛날 것.』이라는 最上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일 『甲山에 집결한 美 제32연대는 三水를 거쳐 新乭波鎭에 진출하여 美 제17연대의 西側에 배치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이 날 甲山에서 三水로 機動하기 시작하였다. 先頭부대인 제3대대 K중대의 Robert, C. Kingston 소위가 이끄는 특수임무부대는 이날 12.00 아무런 저항 없이 三水에 돌입하였으며, 1 중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제3대대가 뒤따라 들어 왔다.

〈惠山鎭을 점령한 美 제17연대 兵士가 성조기를 꽂다.〉

이와같이 제32연대가 三水에서 新乭波鎭으로 진격을 개시함에 따라 惠山鎭의 제17연대도 일부 병력을 新乭波鎭으로 迂廻시켜 제32연대의 右側方을 엄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날

〈惠山鎭서. 左側부터 Kiefer 준장, Hodes 준장, Almond 소장, Barr 소장, Powell 대령〉

美 제17연대의 수색대는 西쪽으로 11km를 전진하다가 北傀軍의 강력한 火力을 받았고, 제32연대 제3대대의 특수임무대 역시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어 兩部隊는 死鬪에 死鬪를 거듭한 나머지 28일에야 新乭波鎭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美 제7사단은 제17연대를 先頭로10월 29일 利原에 上陸하여 320km에 달하는 山岳지대를 酷寒과 降雪을 무릅쓰면서 집요한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11월 21일 惠山鎭에 돌입하였다.

동 사단의 이와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西部戰線의 美 제8군이 鴨綠江에 도달하지 못하므로써 이 전쟁은 끝내 終熄되지 못하였다.

이후 제17연대는 11월 30일 韓國軍 제3사단 제22연대에 惠山鎭을 인계하고 철수하게 되었거니와 그간 美 제7사단은 11월 下旬에 접어들면서는 氣溫의 急降下로 11월 23일까지 발생한 凍傷者만도 142명에 달하였다.

이상과 같이 北韓 東北部의 작전은 끝을 보지 못한채 長期的이고 不利한 새로운 작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戰線을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7. 韓國 海軍의 掃海作戰(50년 10월 14일부터 50년 11월 2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 39 호

가.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我軍				我軍			
PC—704 함	장	소령	玄 時 學	YMS—509 정	장	소령	金 相 道
YMS—501 정	장	중위	金 正 坤	YMS—510 정	장	소령	李 鯨 源
YMS—502 정	장	중위	蔡 在 錫	YMS—513 정	장	대위	朴 敬 哲
YMS—503 정	장	대위	李 仁 錫	YMS—516 정	장	소령	金 哲 雄
YMS—506 정	장	소령	許 德 和	日本 掃海船團(數 미확인)			
YMS—507 정	장	중위	白 麟 基				

나. 작전 전의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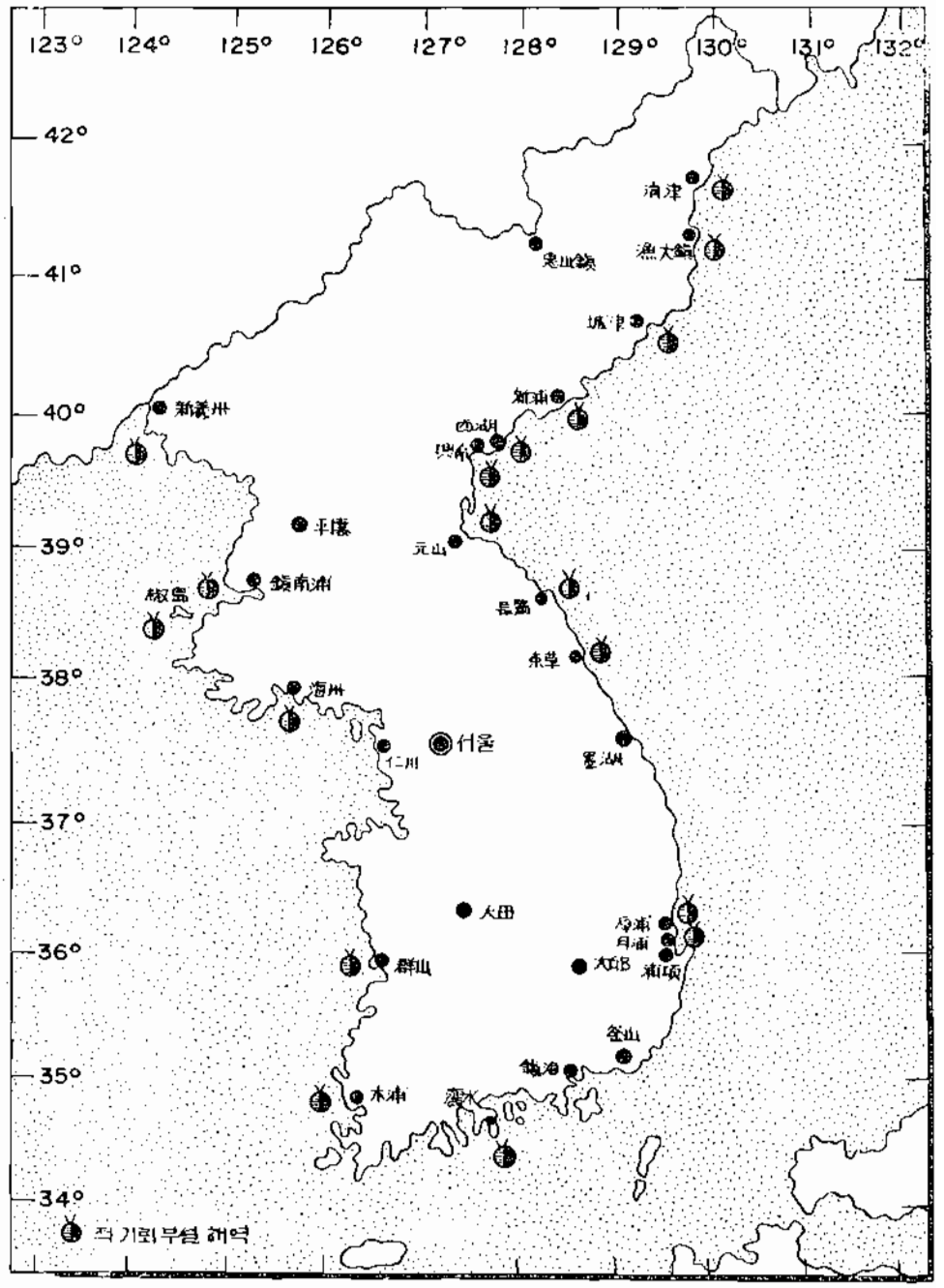
敵은 6.25 南侵과 때를 같이하여 여러 종류의 機雷를 南北韓의 港口와 海岸線 일대에 부설하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총반격 작전이 개시될 무렵에는 거의 機雷부설을 완료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戰略上으로 중요한 海域에는 집중적으로 많은 機雷를 부설하였으며, 永興灣과 鎭南浦港이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였다. 敵은 또 我軍의 총반격 작전이 개시될 경우, 北韓海岸에 대한 上陸과 軍需물자 수송등의 機動작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北韓海域에 더욱 많은 機雷를 부설하였으니, 敵이 南北海域에 부설한 전반적인 機雷의 상황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東海岸에서는 墓洞近海에 약 40개, 東草近海에 약 40개, 長箭近海에 약 50개, 永興灣에 약 3,000개, 興南—端川近海에 약 100개, 城津—羅津近海에 약 60개를 부설하였다. 또 西海岸에서는 鎭南浦—椵島近海에 약 200개, 鎭南浦—鴨綠江에 이르는 海岸에도 數千箇의 機雷를 부설하였고, 또한 南海岸에서는 木浦近海에 약 50개, 麗水—三千浦海域에 약 40개의 機雷가 부설되어 있었다. 이들 機雷는 韓美해군의 海上활동에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掃海작업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 당시 우리 해군艦艇은 사실상 掃海작업의 경험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掃海장비도 완전치 못하였고, 또한 掃海艇의 수효도 YMS, JMS를 합하여 겨우 15척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 작업은 主要港口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황도 제39호 我軍 總反擊 當時 敵 機雷 부설〉



다. 작전실시의 개요

(1) 一般的 事項

海上 武器로서 爆藥을 사용한 것으로는 魚雷, 爆雷, 機雷등이 있는데, 魚雷는 공격용 무기로서 潛水艦, 또는 구축함과 항공기등에서 敵艦을 향하여 발사하는 것이며, 爆雷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공격할 때 구축함에서 水中에 투하하는 것이다.

그런데 機雷는 敵 艦船의 航海와 공격을 막고, 敵 艦船에 피해를 주기 위하여 부설하는 방어용 武器이지만 반대로 이번 港口에 敵 艦船이 있을 경우, 港口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逆利用되기도 하고, 또는 敵의 海上機動을 저지하기 위하여 敵地의 海上이나 港口 밖에 부설하는 공격 목적으로 부설하는 경우도 있다. 機雷의 종류에는 浮遊機雷를 비롯하여 繫留機雷와 海底機雷등이 있으며, 폭발장치의 방법에 따라 接觸機雷를 위시하여 感應機雷, 時間機雷등으로 분류되며, 感應機雷는 다시 磁氣機雷와 音響機雷로 구분된다.

浮遊機雷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으로서 현재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機雷는 海上의 一定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海流의 이동에 따라 평화적인 海上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평화적 航海를 하는 선박에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 2 차대전 당시 또는 韓國戰爭 당시에 부설한 浮遊機雷는 오랜 시일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 海上에서 발견되고 있다.

繫留機雷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機雷이며, 機雷에 쇠뭉치 같은 닻(錨)을 달아 機雷를 물속에 잠기게 하는 水中機雷이다.

海底機雷는 機雷를 海底에 갈아 앉게 하는 機雷이며, 艦船이 접근하면 磁氣의 기능으로, 또는 音響의 기능으로 폭발하는 機雷이다. 이 機雷의 부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비교적 水深이 얕은 港口 內에서 사용되며 韓國戰爭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았다.

이러한 機雷를 제거하려면 우선 浮遊機雷는 일반적으로 사격으로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다. 소총으로도 近 거리에서는 폭발이 가능하지만 폭발시의 위험 때문에 0.5mm 기관총으로도 200m 거리 밖에서 폭발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繫留機雷는 掃海艇과 掃海艇 사이를 연결한 소해색(줄)에 절단기를 장치하여 機雷가 소해색에 걸리면 절단기에 의하여 기뢰와 닻(錨)사이의 줄이 끊어져 機雷는 물 위에 뜨게 되

며, 이런 연후에 폭발시키게 된다.

韓國戰爭 당시 美 제10군단이 元山上陸을 감행할 무렵, 永興灣에는 敵이 부설한 機雷가 많아서 제 10군단의 上陸의 예정보다 1주일이나 늦어지게 되자, 美軍은 항공기를 동원하여 永興灣일대에 수많은 폭탄을 투하하여 掃海艇의 掃海작업에 협력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항공기의 폭탄투하는 機雷제거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고, 결국 掃海艇에 의한 掃海작업으로써 上陸작전을 성공리에 수행케 하였다.

우리 해군의 UDT의 임무 중의 하나는 水中에 들어 가 機雷에 달린 닻을 끊어 버리고 機雷가 물위에 뜨게 하는 작업이 그 중의 하나이다.

(2) 掃海作戰

PC-704 艦(장, 玄時學 소령)과 YMS-510 艇(장, 李鯨源소령), 그리고 710艇(장, 金哲雄소령)으로 편성된 掃海艇團은 永興灣에서 美 掃海艇 3척과 협력하여 처음으로 조직적인 掃海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무렵 元山은 육군 제1군단에 의하여 탈환되어 있었으므로 艦艇들은 陸上으로부터 敵의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었으나, 永興灣일대에 부설된 敵의 機雷源의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掃海작업은 몹시 위험이 뒤따랐으며, 작업의 속도도 또한 느릴 수 밖에 없었다.

10월 14일에서 16일까지의 3일동안에 걸쳐 韓·美掃海艇들은 永興灣에서 20개의 機雷를 폭발시켰는데, 16일에는 掃海작업 중이던 YMS-516艇 (장, 金哲雄소령)이 機雷에 접촉되어 침몰하였고, 또한 美 掃海艇 2척도 같은 곳에서 침몰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가 속출하게 되자 韓·美 해군은 機雷를 부설한 사람을 찾아 내어 機雷源의 위치를 알기 위하여 韓國軍 제1군단의 G-2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그뒤 10월 23일에 이르러 해군은 제1소해정대를 편성하고 YMS—501, 502, 503의 3艇을 비롯하여 507과 512, 그리고 514의 또한 6정을 제1소해정대에 배속시키고, 鎭海基地에 사령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사령관으로 卞英遠중령을 임명하였다.

이로부터 3일 뒤인 26일에 이르러 제1소해정대에 배속된 YMS-501艇(장, 金正坤중위)과, 502艇(장, 蔡在錫 중위), 503艇(장, 李仁錫대위)을 비롯하여 507艇(장, 白麟基중위)과 512艇(장, 朴世忠중위), 그리고 514정과 교체된 506艇(장, 許德和소령)에 FS-金海號의 7척은 掃海훈련과 掃海장비를 갖추기 위하여 이날 19.30에 釜山港을 출발하여 日本

사세호(佐世保)港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掃海장비 보강과 훈련을 끝마친 다음, YMS-503艇은 11월 2일에, 나머지 掃海艇들은 11월 5일까지 모두 鎭海基地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10월 27일에 이르러 우리 해군은 鎭南浦의 掃海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YMS-513艇(장, 朴敬哲대위)으로 하여금 群山港에 정박 중이던 UN해군에 임시 고용된 日本 掃海船團을 거느리고 鎭南浦港으로 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美 掃海艇 3척과 협력하면서 鎭南浦港의 掃海를 실시하여 도합 10개의 機雷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다.

10월 31일에는 우리 해군의 JMS-303과 307의 두 艇은 釜山에 정박하고 있던 日本 掃海船團 40척을 거느리고 元山으로 향하여 美 掃海艇 2척과 협조하면서 掃海작업을 실시하여 도합 20여개의 機雷를 제거하였다.

한편 해군 木浦경비부는 11월 1일 민간선박을 동원하여 木浦港입구의 掃海작업을 실시하여 이날 현재로 도합 28개의 機雷를 폭발시켰다.

다음 날인 11월 2일에는 日本 사세호(佐世保)에서 掃海훈련과 장비보강을 끝마치고 먼저 귀항한 YMS-503艇(장, 李仁錫대위)이 美 掃海艇 3척과 함께 鎭南浦近海에서 掃海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YMS-513艇과 협력하여 近方일대 掃海를 실시하였다.

또한 日本 掃海船團은 注文津近海에서 작업을 실시한 결과, 도합 23개의 機雷를 제거하였다.

(3) YMS-509艇과 516艇의 沈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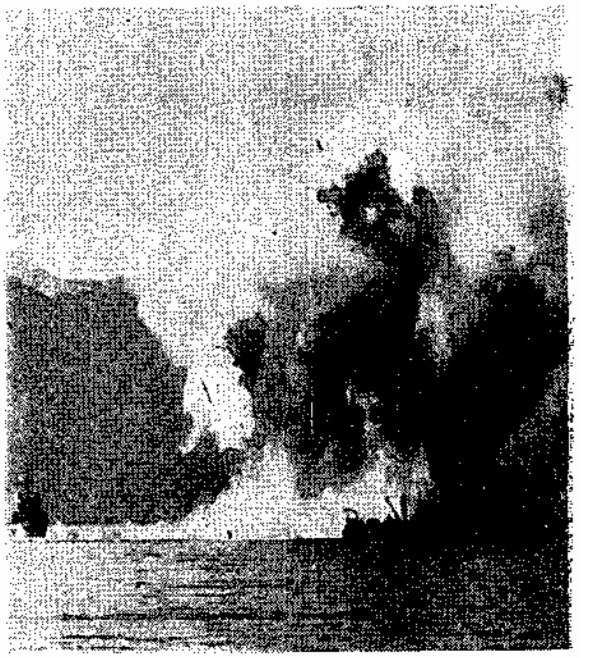
9월 28일 03.00에 東海岸을 경비하고 있던 YMS-509艇(장, 金相道소령)은 浦項北쪽에 있는 厚浦東쪽 약 4.8mile北緯 36° 24′ 24″, 東經 129° 29′ 26″海上에서 敵이 부설한 機雷에 부딪혀 艦艇은 대파되고 미처 탈출을 하지 못한 장병들은 退船을 못한 채로 모두 艦艇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였다.

이 急報에 접한 YMS-506艇(장, 許德和소령)은 현장으로 급히 출동하였으나, 船體는 이미 완전히 침몰되기 직전의 상태이었으므로 구조작업으로 손 댈 방법이 없었다. 그러므로 506艇은 승무원의 구작조업만에 온갖 힘을 다하였으나, 감감한 밤이었으므로 이 작업도 또한 매우 곤란한 형편이었다.

이 사고로 509艇은 침몰되고 38명의 승조원중에서 전사 25명(행방불명 포함), 부상 5

명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뒤이어 10월 16일 15.50에 이르러 永興灣에서 掃海작업을 벌이고 있던 YMS-516艇(장, 金哲雄소령)은 北緯 39° 12′ 13″, 東經 127° 31′ 7″海上에서 敵의 繫留機雷에 접촉되어 船體는 大破되고 삽시간에 船內는 물바다가 되면서 20분 만에 침몰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승조원 35명 중 15명이 전사하고 11명이 부상하였다. 전사자와 부상자는 모두가 機雷에 접촉되는 순간에 생긴 중상자들이었는데, 이때에 정장 金哲雄소령은 마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 遭難에서 무사할 수가 있었다.



〈韓國 해군의 掃海艇이 元山 앞바다에서 掃海 작업 중 敵의 機雷에 접촉, 폭발되고 있다.〉

다. 작전 후의 개황

掃海작업에 참가하였던 우리 해군艦艇은 개속하여 海岸경비에 임하였고, 中共軍의 침략으로 UN軍과 韓國軍이 元山—興南—鎭南浦등지에서 철수하게 되자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의 임무와 수많은 민간인 피난민들의 後送임무를 겸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우리 해군은 中共軍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北韓으로부터 철수하는 12월초순까지의 기간 동안에 東海의 浦項北쪽 厚浦近海에서 약 30개, 注文津近海에서 13개, 長箭近海에서 약 20개, 永興灣에서 약 50개, 城津—漁大津—羅津近海에서 약 10개의 機雷를 모두 제거하였고, 西海의 木浦近海에서 약 28개, 鎭南浦近海에서 40개, 椒島近海의 海上에서 20개, 南海岸의 麗水—三千浦近海에서 10개의 機雷를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YMS—516艇長 金哲雄

(1969년 5월 20일 交通部 水路局長室, 현 수로국장)

우리 516정이 침몰된 1950년 11월 당시 부설되어 있어서 항해는 극히 위험한 상태이었다.

우리 516정은 해군의 元山 前進基地 설치와 美제 10군단의 上陸을 앞두고 元山에 들어가는 安全航海路를 개척하라는 해군본부의 명령을 받고 510艇(장, 李鯨源소령)과 704艦(장, 玄峙學소령)과 함께 長箭港을 出航하여 元山으로 항해하였다.

나는 이때 생각하기를 아무리 元山港에 敵의 機雷가 많이 부설되었다 하드라도 자기네들이 사용

하던 安全航路는 만드저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결과, 長箭港을 출항하기 전에 다른 함정과 협의하여 5~6명씩의 대원을 뽑아 먼저 陸上으로 元山에 가서 機雷부설에 참가하였던 사람을 찾아내도록 명령했는데, 다행히도 쉽게 찾아서 데리고 왔다.

그 安全航海의 코오스는 海岸 가까운데 있었다. 그래서 우리 516艇은 무사히 元山부두에 도착하였다. 이것이 韓國 해군함정으로서는 처음의 일이었다.

우리 다음에 510艇이 들어왔다. 우리는 2일 동안 元山港에 정박하있는데, 갑자기 外港에 있던 704艦으로부터 美 기동함대가 元山上陸을 위하여 대규모의 機雷 제거작업을 하니 빨리 나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出航준비를 마치고 516艇이 앞에 서고 510정이 뒤를 따라 항해하였다. 葛麟半島를 돌아서 약 4mile쯤 南쪽 海域까지 왔을 무렵 갑자기 "쾅"하는 폭음이 났다. 機雷에 부딪힌 것이다. 큰 물기둥이 올랐다. 브릿지 위에는 나의 副長, 그리고 당번 7~8명이 있었는데, 모두들 전사하고 나만은 무사하였다. 船體는 두동강이 되고 기울이 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살아남은 즉시로 대원들에게 退艦을 명령하고 그들과 같이 바다로 뛰어 들었다. 救命 보오트를 내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나는 정장으로서와 책임감과 애치롭게 숨져 간 부하들과 내 몸같이 아끼던 艇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컥해진다.

8. UN 空軍의 活動 (50년 11월 1일부터 50년 11월 15일까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극동공군사령관 중장 George E. Stratemeyer

가. 기간 중 활동의 개요

UN 공군은 開戰이래 지금까지 韓國戰爭에서 制空權을 主導的으로 장악하고 있었는데, 11월 1일 新義州上空에서 敵의 蘇製 MIG-15 젯트전투기의 挑戰을 받게 되었다.

敵은 최초로 현대적이고, 고성능의 이 젯트전투기를 사용하여 11월 1일에 挑戰하기 시작하여 계속 UN 공군기와 地上軍을 공격하였는데, 다분히 神經戰의 道具로 사용하는듯 하였다. 이들 MIG-15 젯트전투기들은 滿洲의 安東에서 이륙하는 것이 정보망에 의하여 入手되었고, 이들은 韓·滿국경으로 安全地帶를 가지면서 鴨綠江을 넘어 공격하여 오곤 하였는데,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한 政策的인 指示는 이들을 뒤따라가 공격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理由이었다. 다행하게도 그들의 비행시간은 極히 짧았지만 만약 UN 공군이 국경을 넘지 못한다는 制限이 없이 작전할 수 있었다면 MIG-15機들은 충분히 추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制限 때문에 MIG機들이 전투로 인한 손상을 입어도 中共領域으로 들어가 我軍機들을 避할 수 있었다. 공중전투에서 심한 타격을 입은 敵機들이 전투를 회피할 수 있는 국경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逃避한 다음, 高度를 높여 작전을 변경하고, 다시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UN 공군은 空中戰鬪能力이 低下될 경우가 많았다.

韓·滿국경의 南쪽의 軍事목표를 공격하고 있던 UN 공군기들은 滿洲 쪽에서 부터 砲火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敵對行爲는 하등의 報復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이는 전쟁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UN의 노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敵의 통신망을 격파하려는 UN 공군의 활동은 아직도 탈환하지 않은 地域에 꾸준히 전개되었다. 鴨綠江鐵橋의 南端은 敵 보급품 및 병력의 移流를 阻止시킬 目的으로 UN 공군이 공

격하고 있으나, 敵은 滿洲에다 그들의 基地를 그대로 확보하고 있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UN 공군은 매일 평균 612회 출격하였는데, 이중 근접지원 출격회수는 137회이었고, 차단출격회수는 186회이었다.

기간 중의 주요작전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1월 1일 : 1. 新義州上空에서 공군機, 敵 YAK機 3대 격추.

2. 敵 MIG機, 최초로 宣川上空에 出現.

11월 2일 : 1. 宣川上空에서 YAK機 2대 격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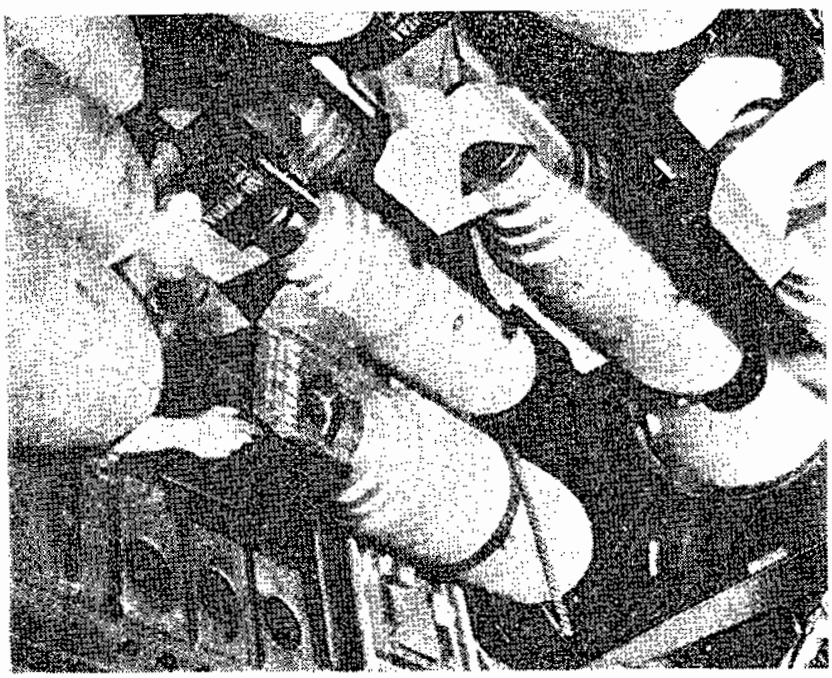
2. 美 전투기 北鮮 젯트기등 21대 격파.

11월 3일 : 1. 극동공군 3日間 560회 출격.

2. 美 해병대 항공기 300대 敵 수송트럭 공격.

11월 6일 : 1. MIG-15機 韓·滿국경 침입.

2. 美 F-51機 4대 新義州上空에서 YAK機 2대 격추.



(250kg 폭탄을 장착하고 있는 UN 공군 요원)

11월 7일 : 1. MIG-15機 3대 격추.

11월 8일 : 1. UN 공군機 600대 新義州 猛爆, 鴨綠江鐵橋 폭파.

2. 史上初有의 제트機 空中戰 新義州上空에서 敵機 1대 격추.

3. 新義州공습, 燒夷彈 8,500발 투하.

11월 10일 : 艦載機 新義州鐵橋 폭격, 6발 命中.

11월 11일 : 1. 北靑에 폭탄 10,000개 투하.

2. 淸津, 義州에 폭탄 1,092개 투하.

11월 12일 : 1. 1,000kg 폭탄 鴨綠江鐵橋 橋脚破壞.

2. 제5공군 敵 트럭 55대 격파.

3. 滿浦鎭—宣川—北鎭 폭격.

11월 13일 : B-29 新州—楚山 폭격.

11월 15일 : 제5공군 會寧에 300ton 燒夷彈 폭격.

나. Greece 공군의 활동

Greece 공군의 11월 중순에 이르러 비로소 韓國戰爭에 參戰하게 되었다. 그들은 自由友邦, 韓國의 悲劇에 대하여, UN 決議에 따라 이를 돕고자 鵬程萬里 韓國의 戰線으로 향하였는데, Greece 왕실공군의 공수비행단 소속 제13전대의 C-47 수송기 9대와 장교 67명, 사병 27명의 규모이었다. 이들은 11월 11일 Greece의 Elefsis 基地를 떠나 57시간 46분만에 日本의 이따쯔께(板付)基地에 도착하였다. 이 基地에 도착한 이들은 旅裝을 풀 겨를도 없이 韓國의 戰線으로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들은 UN 공군의 一員으로 제403비행단 예하 제21공수대대에 배속되어 작전임무에 임하였는데, 이들의 주요임무는 병력과 물자의 수송은 물론, 환자와 부상병의 後送까지 담당하여 본격적으로 韓國을 돕는 것이었다. Greece 공군은 수송기와 이를 運用하기 위한 병력을 파견하여, 戰線을 비행하면서 주로 공수임무에 매진하였는데, 파병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본격적인 활동에 이르게 되었으나, 11월 중에는 크게 그 활동을 나타내지는 않으면서도 점차 韓國의 제반 여건에 익숙하여 지게 되었다.

다. UN 공군의 偵察활동과 문제점

韓國전쟁 開戰 초기부터 美 극동공군의 偵察부대는 심각한 곤경 속에서 작전을 감행하여 왔다. 美 공군은 그들 자체의 계획으로 1946년 이래 偵察체제의 발전에 있어서 必要不可缺의 要素인 항공기, 촬영기 및 기술자의 增大등을 위한 제반 예산을 삭감해 왔다.

이러한 美 공군 자체의 계획은 젯트機 시대로 돌입한 時代的인 요청에 副應하지 못하여 적이도 偵察체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隨伴하였다.

7월 이래 제31전략정찰비행대대(11월 16일에 제91전략정찰비행대대가 이 임무를 지명받았다.)는 극동공군의 폭격사령부에 공격목표와 피손정도를 推定하는 항공사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1월에 이르러 제31전략정찰비행대대가 부과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이 대대가 사용하고 있던 RB-29 정찰기는 새로 출현하기 시작한 中共의 MIG-15 젯트전투기에게는 여러모로 目的이 되기 쉬웠다.

11월 9일에 新義州 上空에서 RB-29 정찰기 1대가 MIG-15機에 의하여 被彈되었는데, 機體의 後尾에서 射擊手가 MIG-15機 1대를 격추하기는 하였으나, 日本의 Johnson 基地에 不時着한 즉시, 被彈으로 인한 機體고장으로 5명이 전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극동공군은 RB-29 정찰기에 대하여 鴨綠江 접근을 금하고 제5공군의 RF-80 젯트정찰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鴨綠江의 전략목표들을 정찰하기 위하여는 제543전략지원전대가 이 임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戰隊는 제8전략정찰비행대와 제162전략정찰비행대대, 그리고 제363정찰기술대대를 예하에 두고 管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戰隊가 보유하고 있는 偵察능력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육군의 前面에서 空地間의 협동을 하기 위하여는 3대의 昼間정찰기가 필요하였다. 1대는 주로 사진을 위한 것이고, 다른 2대는 목표관측을 위한 것이었으나, 제5공군에서는 아직 前近代的인 Mosquito 정찰기를 쓸 뿐, 목표관측용 항공기를 갖지 못하였다.

사진을 찍기 위한 제8전략정찰비행대대의 RF-80 젯트정찰기들은 우수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RF-80機의 제한된 능력으로 육군과 공군의 情報陣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제8군이나 제5공군은 충분한 寫眞解讀者를 보유하지 못하여 공중촬영된 사진을 시험하거나 解讀하기가 어려웠는데, 다만 제8군에서 多小間의 사진 기술자가 있어서 제5공군은 항공

〈Mosquito 항공기와 전술공중통제반의 셀비가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 地上軍을 도우고 있다.〉

사진의 大量複寫와 解讀을 위해 육군에 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UN 공군의 偵察隊들은 임무를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情報제공에 나섰다.

11월 7일에는 공중정찰대가 江界로 부터 南下하는 敵의 補給通路를 偵察하여 보고하였다.

11월 초에 야간정찰사진을 찍기 위한 제162정찰대대는 낮으로만 활동하고 밤에는 출격하지 않고 있었지만, 8일에 敵이 夜陰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韓國西北지역에 8회에 걸쳐 정찰하였다.

제162정찰대대의 정찰활동은 山山지대의 地形과 밤 안개, 그리고 연기들로 야간촬영에 퍽 곤란을 느끼게 되었는데, 관계정보장교조차 熙川 南쪽에 敵이 집결해 있다는 대대의 보고도 별 관심없이 받아 들이는듯 하였다.

11월 초의 3週 동안 偵察機의 카메라들은 中共의 不法侵略을 방지하기 위하여 UN 공군이 폭격을 가리는 鴨綠江 근처에 집중되었다.

제8전략정찰비행대대는 美 제8군과 제10군단에 이르는 主要道路 이외의 지역에서는 保有항공기의 부족으로 偵察에 애로를 느끼고 있었지만, 道路정찰은 꾸준히 실시하였다.

그러나 敵은 主要道路를 피하여 我軍의 정찰에서 벗어 나기에 血眼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찰임무에 險路를 느낀 극동공군은 11월 21일에 제5공군이 제8군과 제10군단 사이를 近接 공중정찰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때 지상군은 이미 그 지역을 떠나 北上을 서두르고 있었다.

9. 韓國 海兵隊의 馬轉里 및 東陽里전투(50년 11월 19일 / 50년 12월 2일)

참조 : 별책부도 제 38 호
상 황 도 제 40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해병 제3대대 장 소령 金 潤 根 | 제11중대 장 중위 朴 東 烈
제9중대 장 중위 黃 泳 | 제12중대 장 중위 朴 東 根
제10중대 장 중위 鍾 德 遠 |

敵 軍

단대호 미상부대 약 15,000명

나. 전투전의 개황

11월 9일 高城지구에 전투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병 제3대대와 제5대대는 새로이 美 제10군단장 지휘 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高城에서 LST 2척에 分乘하고 18.00에 高城南쪽海岸인 松島津里를 出發하여 元山으로 향하였다.

이리하여 元山에 도착한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는 곧 馬息嶺을 넘어 馬轉里(咸南, 德源, 元山 西쪽 24km) 에서 美 해병 제7연대가 실시하는 작전에 합세하고, 馬轉里에서 北上하는 北傀軍을 殲滅,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제5대대와 분리되어 또 다시 殘敵섬멸작전에 참가하게 된 제3대대의 장병들은 美 해병대에서 수선한 차량에 의해 元山에서 平南道 陽德에 이르는 街道를 따라 西쪽으로 馬轉里를 향해 元山을 출발하였다.

당시 馬轉里方面에는 南韓일대에서 再起不能의 敗北를 당하자 험준한 太白山脈을 타고 分散, 北上하던 敵들이, 馬轉里 近方에서 北傀軍 正規兵과 連繫을 취하고 재편성을 한 후, 수시로 平壤과 元山, 大道의 요충을 습격하며, 시기만 到來하면 元山을 공격할 태세였고, 그 병력은 약 7,000명으로 추산되었으나 점차 증가될 徵候가 많았다.

이와같은 상황 하에서 제3대대는 이동간 경계를 엄중히 하고 9일 18.00에는 馬轉里에 도착한 후, 敵 내습에 대한 방비책을 에의 강구하고, 敵 격멸의 결의를 굳혔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南韓일대에서 北上 퇴각한 殘敵들이 北傀軍 正規軍과 합세하고 茂山道의 友軍陣地를 습격하고 友軍보급로의 차단을 획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馬轉里의 要衝을 방어하고, 나아가 이 보급로의 안전을 기하려는 美 제10군단작속 UN軍 작전의 一翼을 담당하게 된 제3대대는, 이 곳 友軍과의 합동작전으로 방어진지를 구축, 敵의 습격에 萬般의 준비를 하는 것이었고, 이 후 부근일대에 출몰하는 敵을 격파, 분쇄하는 것이 이 지구전투의 계획이고, 목표였다.

이와같은 임무 아래, 馬轉里에 도착한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은 대대 작전명령 제111호를 예하에 하달하고, 陣地작업을 서둘러 敵의 습격으로부터 馬轉里를 방어함은 물론 敵을 포착, 섬멸, 馬轉里로 통하는 보급로를 확보하려는 지휘관으로서의 결심을 밝혔다.

(2) 작전실시

11월 10일 : 인지투성이로 馬轉里에 도착한 제3대대 예하 각 중대는 부대정비와 화기점검 등을 실시하는 한편, 대대 작전명령 제111호에 따라 美 해병 제7연대 제3대대와 같이 방어전지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 馬轉里의 美 해병 제3대대는 그 연대본부가 元山에 있었으며, 1개 중대의 병력을 배속받아 四周방어를 실시하는 한편, 이 方面의 작전을 담당한 제7연대본부에서는 補給路를 확보할 목적으로 馬息嶺頂上에 별개의 1개 중대를 파견하고 있었다.

馬轉里 南쪽 高地에 방어진을 치고 있던 美 해병 제3대대와 합동으로 陣地를 구축한 제3대대는 제9중대(장, 黃 泳중위)를 右一線, 제11중대(장, 林東烈중위)를 左一線, 제10중대(장, 鍾德遠중위)를 중앙에 배치하고 南쪽에서 北上해 오는 敵에 대비하였다.

이 때 대대 지휘소는 馬轉里 南쪽 100m 지점인 486高地後方에 설치하였고, 美 해병대 지휘소는 馬轉里 국민학교에 설치하고 있었다.

도착과 더불어 철조망과 지뢰등을 매설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한 대대는 작전지시 제112호를 예하 각 중대에 시달하고 다음 사항을 熟知시켰다.

1. 방어진지 내와 陣前의 철조망과 지뢰, 기타 수류탄 등 폭발물 가설陣地를 전대원에게 熟知시켜 사고방지에 노력할 것.

2. 야간에는 自隊 陣地 외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할 것. 특히 암호를 잊지 않도록 할 것.
3. 매일 18.00부터 06.30까지 點火와 기타 發火物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관제조치를 취할 것.
4. 마을출입은 일체 엄금하며, 식사는 경리대에서 통할, 분배함.
5. 야간경계배치는 인원을 배가하여 강화하라.

11월 12일 : 01.00에 北傀軍 약 4,000~5,000명이 약간의 종화기를 소지하고 馬轉里 後方 後陵山(△932 馬轉里 南西쪽 2.5km)高地 능선일대에 출몰하고 있음을 탐지하게 되었다. 대대장 金鍾根소령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대대 전원을 지휘하고 後陵山에 출동하여 이 곳에 잠복한 敵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벌어진 彼我의 교전은 장장 4시간에 걸쳐 실시되었고, 敵은 우세한 我軍의 공격 앞에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제각기 도주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3대대는 敵 사살 69명과 蘇製소총 1정, 신탄 60발, 다발총실탄 60발, 기관소총 7정, 수류탄 1상자와 약간의 서류 등을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이 날 통선대장 金鍾根중위와 대대부관 沈鎭澤소위 이하 9명의 장병은, 차량정비와 연락업무관계로 대대主力보다 1일 늦게 馬轉里부근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이 곳에 잠복하고 있던 北傀軍 50여명으로부터 습격을 받게 되어 교전 결과, 敵은 3명의 시체를 남겨둔 채 도주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沈鎭澤소위는 전사하고 정상자 3명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9명으로서 敵 50여명을 상대하고 더구나 敵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극소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죽음을 각오한 沈소위 이하 전대원의 奮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元山에 머무르고 있던 제 5대대는 이 날 보급로 확보와 지역방어임무를 띠고, 文坪(元山 北쪽 7km)에 도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11월 12일 : 이 날이 되자, 또 다시 敵 약 2개 대대 병력이 馬轉里 南쪽 谷洞里(馬轉里 南쪽 2km) 方面에 잠복하고 있으면서, 이들은 馬轉里의 제3대대 陣地를 공격할 기세였기 때문에 대대는 작전명령 제13호 1을 예하에 시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08.00에 제9중대(장, 黃泳중위)는 道路를 수색하며 南進하였다. 이들이 谷洞里에 도착하여 공격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 敵은 我軍의 來到를 눈치채고 먼저부터 겁을 먹고 南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나, 중대는 이를 敵을 果敢한 機動으로 추격하여 사살 10명 등의 戰果를 거두었다.

11월 13일 裕源里에서 격퇴 당한 北傀軍 약 200명은 다시 日山里(馬轉里 南쪽 10km)에 집결하여 可憎스럽게도 주민들로부터 물품을 약탈할 목적으로 부근마을을 습격하고 있었다. 이날 제10중대에게 시달된 대대 작전명령 제113호 2에 따라 제10중대장 鄭德遠중위는 이 敵을 섬멸하기 위해 중대원 160명을 지휘하고 제12중대 선임장교가 이끄는 기관총 2문, 81mm 박격포 2문의 지원을 받아 10.00에 본대를 떠났다. 당시 제10중대는 전날 제9중대가 裕源里까지 진격하였기 때문에 敵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道路수색 중 부근에 잠복하였던 敵으로부터 급습을 받았으나, 제12중대 선임장교가 지휘하는 일부병력의 지원사격과 중대장의 과감한 지휘로 이 敵들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10중대는 敵 사살 35명 및 포로 2명과 다발총 1정, 실탄 200발의 戰果를 올렸고, 我軍의 손실은 전사 1명, 중경상자 3명이었다.

또한 야간이 되자 1,600여명으로 추산되는 敵은 야음을 이용하여 馬轉里 주변을 둘러싸고 제3대대 陣地를 來襲하여 왔으므로 대대는 대대장의 직접 지휘 하에 대대 전원이 출동하여 敵을 요격하여 이를 격퇴하였는데, 약 30분간에 걸쳐 실시된 이 전투는 중화기중대의 지원이 적절하여 敵을 모조리 격퇴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전투에 敵 사살 5명, 포로 1명, 부상 50명이라는 戰果를 올리는 반면, 我軍의 피해는 전연 없었다.

11월 14일 : 09.00 이르러 北傀軍의 2개 대대 병력이 裕洞里(馬轉里 南쪽 2km)方面에 또다시 중화기를 소지하고 잠복하고 있음을 탐지한 대대는 곧 이 敵을 격멸하기 위해서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로 하여금 중기관총 2문을 배속시켜 출동케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裕洞里부근일대를 수색한 후 1,100 接敵없이 귀대하였다.

20.00가 되자 대대陣地 前方에 약 2개 소대로 추산되는 敵兵이 출현하고 我軍陣地를 정찰하는 기미가 보였으므로 대대장 명령으로 제9중대장 黃 泳중위는 150명의 중대원을 인솔하고 敵을 격멸하기 위해 출동하였다. 이들은 敵과 약 1시간여에 걸쳐 전투를 벌인 끝에 敵을 멀리 격퇴시켰는데, 이들은 사살 7명, 소총 1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올렸다.

11월 15일 : 馬轉里에서 본대와 분리되어 제3대대가 獨戰하고 있을 때, 高城에 있는 해병대사령부와 제1대대는 계속 殘敵을 격멸하고 있었고, 일부부대로 하여금 通川方面에 출동시켜 通川 西方에 있는 발전소와 철로 등을 경비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밤다른 敵情없이 아침을 맞이한 제3대대는 陣地 내의 防寒作業을 실시하며 진지보강작업을 강화하였고, 멀리 소부대정찰대를 파견하는 등 부근일대의 敵情탐색에도 게을리하지 않

았다.

11월 16일 : 이 때 입수된 첩보에 의하면 平康—元山 大路에 출몰하는 北傀軍은 약 2,500명으로 추산되었고, 敵은 阿虎飛嶺(元山 西方 20.5km, 平康—元山街道, 馬轉里 北西方 6km)과 上自開洞(阿虎飛嶺 西方 4km), 下自開洞(上自開洞 西方 2km), 上基里(阿虎飛嶺 西方 15km), 東陽(平元街道 陽德 東方 20km) 등 要地에도 약 1개 중대의 병력을 배치하여 부근일대에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제3대대는 陽德에 있는 UN軍과의 連繫작전을 위해 또 다시 東陽 馬轉里 西方 20.2km, (실제거리 70km), 平南道 陽德郡까지 전출하기로 되어, 13.00에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 제12중대(장, 朴東根중위), 본부중대, 제10중대(장, 鍾德遠중위) 순위로 부터 이동을 전술중대로 하여 馬轉里를 출발하였다. 이때 제9중대(장, 黃 泳중위)는 부대後衛의 임무를 맡았다.

이리하여 제3대대는 平元街道를 따라 험준한 阿虎飛嶺을 넘어 東陽에 이르는 부대이동은 시작되었고, 다행히도 도중 接敵은 없어서 대대는 무사히 馬轉里에서 장장 70km에 이르는 東陽(黃海道 谷山에 이르는 분기점)에 도착할 수 있었다.

11월 17일 : 고된 강행군으로 馬轉里에서 東陽에 도착한 제3대대는 곧 陣地작업을 서두르고 이 날 20.00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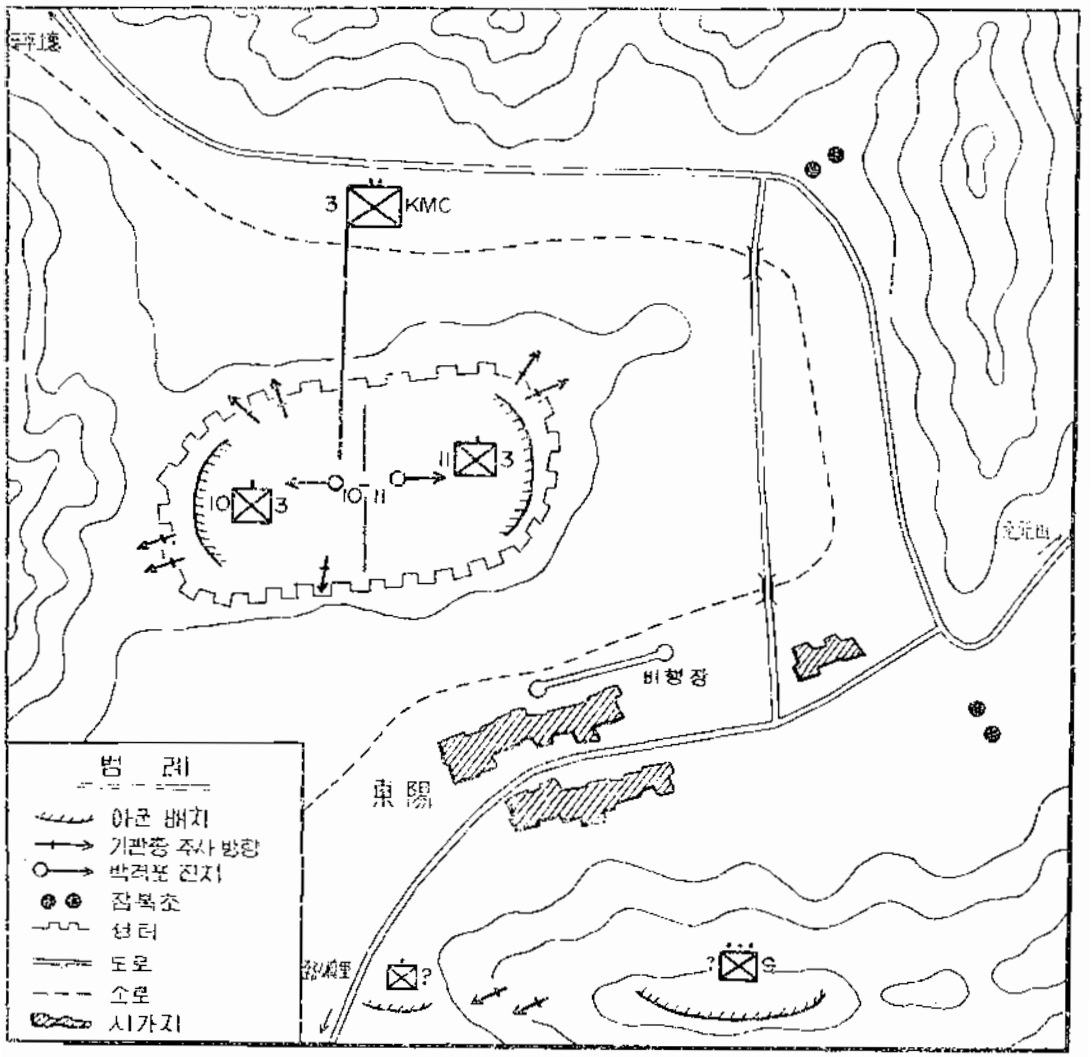
그러나 이 때의 敵情은 더욱 긴장감을 高潮시켰으니, 그것은 소화기로 무장한 약 1,500명의 敵이, 東陽里南方 4km인 孔眞里, 松소里, 德岩里 등지에 잠복하고 있으며, 또한 약 1,000명의 敵은 馬轉里와 東陽里間 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九龍里(阿虎飛嶺 西方 4km)에 두고, 上自開洞과 下自開洞 일대에 계속 출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高城 方面의 제1대대 상황으로는 美 제3사단 배속에서 해제된 제5대대 제23중대(장, 權錫基중위)가 高城에 도착하고, 제1대대장 지휘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高城고급중학교에 숙영하고 있었다.

11월 18일 : 陣地 주변 4km에 대한 敵情을 탐색하고, 敵의 기습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제3대대는, 민폐근절과 주민들의 사정을 돌봐 주기 위해 제9중대장 黃泳중위를 民政官에 임명하고 아울러 東陽지방의 치안유지에 注力케 하였다.

이 날 高城지구 사정으로는 제23중대가 通川에 파견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金鍾植대위의 일부병력은 이를 증강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으며, 李西根소위의 일부병력은 高

—상황도 제 40 호 제 3 대대 東陽里진지(1950. 11. 18)



城南方지역에 敵이 출현하였다는 첩보에 따라 출동하고 있었다.

11월 19일 : 東陽지구를 확보한 제3대대는 부근일대와 陽德(東陽 西北方 22km)지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敵情수색활동을 전개하였다.

제9중대(장, 黃泳중위)는 08.00에 대대陣地 南方 4km지점인 永嶺里와 德嶺里를 수색하기 위하여 이 날 목적지는 물론, 元山으로 통하는 九龍里까지 무려 9시간에 걸쳐서 敵情을 수색하였다. 또한 제10중대(장, 鍾德遠중위)는 08.00부터 대대장 金潤根소령 지휘로 차량에 의해 陽德까지 수색정찰을 감행한 다음, 陽德에 있는 UN軍부대와 連繫를 취하였다.

또한 陣地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는 제9중대와 제10중대의 경계임무를 인수하여 대대陣地를 경비하였다.

11월 20일 : 이 날 敵情에 의하면 北傀軍이 孔眞里(東陽 南쪽 마을)方面에 약 1개 대대가 출몰하고, 九龍里에 잠복한 1개 대대의 패잔병들은 부근 土基, (南陽—九龍里 사이), 白開洞(土基—里 北쪽 마을)에 출몰하여 衣類를 약탈하고 現物稅를 强徵하고 있었으며, 南陽에 있는 제3대대 陣地를 기습할 기세라는 것이었다.

대대는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 지휘 하에 163명으로 하여금 土基里의 패잔병을 격멸하고, 이어 白開洞까지 진격할 목적으로 이에 南陽을 출발시켰다. 부대가 土基里에 이르니, 敵은 이미 도주하였기 때문에 다시 白開洞을 공격하고자 李昌煥삼등병조가 지휘하는 분대를 먼저 尖兵분대로 하여 前進시켰다.

이들은 敵陣에 접근하다가 갑자기 중화기로 무장한 약 2,000명의 敵으로부터 사격을 받게 되었으나, 거기서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敵陣을 향해 돌입하던 李昌煥분대장은 이곳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이에 분격한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는 돌격명령을 내리고 陣頭에서 敵陣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러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數的으로도 우세한 敵은 심한 반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중대장은 이 敵을 섬멸함에 있어서도 허다한 난관과 손실이 예측되어, 곧 연락탄으로 대대본부에 시급한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적절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중대는 부득이 공격을 중단시켜 원래의 陣地로 작전상의 이동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敵彈이 빗발치는 가운데 병력을 이동시킨다는 것, 또한 어려운 문제였으나, 화기기관총소대 射手 韓奎澤일등수병과 副射手, 그리고 彈藥手가 중대의 이동작전을 적절히 엄호하였기 때문에, 중대는 무사히 본래의 陣地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이 이동작전에서 必死의 엄호사격으로 중대를 구한 韓奎澤일등수병은 敵彈을 맞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후 장렬한 전사를 하였고, 박악수는 중상을 입었으며, 그가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기관총에는 많은 敵彈이 박혀 있었다.

중대는 15.30에 이르러 현장에 내도한 지원병력과 합세하여 대대본부까지 귀환하였는데, 이날 중대가 거둔 戰果는 敵 사살 23명, 포로 3명이었고, 그리고 손실로는 전사 3명, 부상 8명이었다.

11월 21일 : 이 날 敵은 孔眞里(馬轉里 南方 4km)에 1개 대대, 馬轉里—南陽 중간지점의

九龍里에 약 1개 대대의 병력을 잠복시키고 있었으나, 새로 馬轉里부근으로부터 이동한 병력 1개 대대가 孔眞里 西方 3km 지점인 德岩里에 증파되었고, 東陽 北方에 위치한 龍山里에서 1개 대대가 증강되어 東陽을 포위할 태세에 있었으며, 馬轉里—東陽間의 道路를 차단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企圖하고 있었다.

南陽中學校에 위치한 제3대대는 전날 제11중대가 自開洞에서 섬멸하지 못한 敵이 再次 土基里에 침입하여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07.00에 각자 1식분의 식량을 휴대시켜 제10중대(장, 鍾德遠중위)로 하여금 自開洞일대를 수색케 하였으나, 이들은 接敵없이 16.00 陣地로 귀환하게 되었다.

11월 22일 : 대대지휘소를 東陽中學校에서 다시 대대陣地가 있는 高地로 이동하게 된 제3대대는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비추어 예하 장병에게 火器취급의 철저를 포함한 진중근무요령 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대작명 제119호로 교육지시를 하달하게 되었다.

元山과 東陽間 街道에 출몰하고 있던 敵은 날로 증강되어, 東陽에 있는 제3대대에게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美軍 차량부대를 습격하는가 하면, 특히 馬轉里—東陽間 道路는 敵에 의해 차단되어 있었으며, 四方을 둘러싼 험준한 지세에 友軍부대는 고립되어 東陽에 布陣하고 있는 대대는 사실상 敵에 의해 첩첩이 포위된 형세가 되어 戰勢는 극도로 불리하게 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가운데 들려 오는 소식은 美軍 보급수송차량대가 또 敵에게 습격을 받아 전멸하였다는 불길한 내용이었고, 戰勢를 걱정하는 많은 지방민들이 부대를 찾아와 戰勢를 묻기도 하였다.

11월 23일 : 元山에 본부를 둔 美 보급부대와 馬轉里 엄호부대는 수차에 걸쳐 馬轉里—東陽間 補給路 타개에 진력하였으나, 自開洞과 土基里일대에 출몰하는 약 2개 대대의 敵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그때마다 전멸하거나 실패하여 馬轉里로 되돌아 가고, 제3대대에 대한 보급물자수송은 큰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날 元山보급대대는 수송차량 10대로써 전차 수대의 엄호하에 기어코 이 補給路를 타개하려고 馬轉里를 출발하여 阿虎飛嶺을 너머 九龍里를 향해 前進하고 있었다. 대대는 이와같은 보급부대를 영접하고자, 대대장 陣頭지휘하에, 제10중대(장, 鍾德遠중위)를 尖兵중대로 하고,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 제12중대(장, 朴東根중위) 순으로 土基里를 경유하여 自開洞, 九龍里까

지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대는 11.00 중화기를 소지한 빨치산과 합세한 北傀軍 약 2,100명과 遭遇하게 되므로써 彼我의 교전은 시작되었다. 數的으로 열세한 대대는 惡戰苦鬪하여 이들 敵과 싸우기를 무려 7시간, 敵은 비로소 我軍의 과감한 기동과 필사적인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타개된 補給路는 곧, 보급부대의 九龍里 도착을 부득케 하여 九龍里에서 대대는 그후 보급부대를 東陽까지 엄호하여 安着하게 하였다.

대대는 이 전투에서 사살 40명, 소총 15정 다발총 3정, 동실탄 200여발의 戰果를 거두었으며, 손실은 전사 2명, 부상 8명이었다.

이와같이 平元街道에 출몰하는 敵으로 인해 보급수령이 점차 어렵게 됨을 直感한 대대는 東陽에 장병들의 손으로 L-19機가 離着陸할 수 있는 경비행장 건설을 서둘러 이미 그 완성을 보고 있었으며, 때로는 박격포실탄과 소총실탄 등 긴급물자를 L-19 연락기로 운반하고 歸路에는 부상자를 後送하고 있었다,

11월 24일 : 방한피복을 아직도 보급받지 못한 대대장병들은 눈이 쌓이고 밤이면 영하 10여도의 추위를 이겨 내기에 큰 고역을 면할 수가 없었으나, 그 보다도 더 큰 위협은 대대진지를 둘러싸고 있는 敵情이었다.

부근일대의 울창한 松林 속에 잠복하고 있는 敵은 더욱 그 활동이 증가일로에 있었고, 야간에는 陣地 가까이 접근하여 동정을 살피고 때로는 박격포공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敵들의 활동들은 我軍에게는 충분한 식량과 실탄등이 補給路의 두절로 결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습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보기 위한 것들이었다.

11월 25일 : 이날이 되자 北傀軍은 土基里를 지나 檢洞계곡으로부터 上白岩洞, 下白岩洞 阿虎飛嶺에 이르는 지역일대에 약 8km 간격으로 1,500~2,000명이 잠복하여 馬轉里—東陽간의 補給路를 위협하고 있었으며 東陽 南方 4km인 孔眞里, 德岩에 근거를 둔 敵兵은 日益 그 戰力이 강화되고 있었으며, 東陽 西方 4km의 龍山里의 敵 약 1개 대대는 여전히 東陽—陽德사이 道路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敵情 아래에서도 陽德은 그 지방 青年들로 조직된 치안대가 그 要衝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孟山方面으로부터의 敵의 위세에 그 守勢는 시간문제로 되어 있었다.

東陽—馬轉里間 道路를 타개하고자 馬轉里의 UN軍과 제 3 대대는, 매일같이 노력하였으

나 土基里—阿虎飛嶺에 잠복한 敵으로 인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부대는 元山으로부터 직접 항공보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낙하산에 의한 이 항공보급도 風速의 영향으로 때로는 敵陣에게 落下되는 사례가 많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중투하되는 보급품은 敵과 양분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이날 美 해병 제7연대에서 3개 중대가 전차 4대와 전투기 4대, 야포의 지원을 받으며 이들 敵을 격멸하고 또 다시 補給路를 타개하기 위해 東쪽에서 西쪽으로 東陽을 向해 공격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대는 이 부대작전에 호응하여 敵을 東西로 협공하기 위해 제10중대(장, 鍾德源중위)와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가 제12중대(장, 朴東根중위)의 重기관총 4문, 81mm박격포 3문의 지원을 얻어 05.00에 東陽을 출발하여, 九龍里을 향해 대대장 金潤根소령 지휘로 진격하였다.

이와같이 진격을 개시한 대대(—)는 自開洞일대에서 敵과 遭遇하게 됨으로써 敵과의 일대 接戰은 개시되었다.

我軍은 自開洞方面에서 敵에게 기습을 감행하고 敵 박격포陣地를 攻擊하는 등 유리한 敵의 거점을 점거하여 다음과 같은 戰果를 올리고 15.30에는 敵을 모조리 격퇴시켰다.

사살 80명, 120mm박격포 5문 파괴, 소총 노획 10정, 동설탄 450여발을 노획하고 我軍 손실은 부상 5명 뿐이었다.

한편 이 날 安邊에 지휘소를 정한 제5대대는 新高山(京平철도강유저 元山南方 135km)에 敵 패잔병이 출몰하여 良民을 사살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정보에 따라 제51중대(21중대)(장, 安昌覺중위)를 박격포 1개 소대의 배속으로 출동케 하였다.

11월 26일 : 03.00에는 東陽에 있는 제3대대 陣地에 약 1개 연대병력으로 추산되는 敵이 陣地 四面에서 공격을 企圖하여 왔다. 대대는 이를 맞아 각 장병들로 하여금 자기 위치를 死守케 하고, 山城와 같은 유리한 지형지물을 최대로 이용한 事前에 계획된 방어사격으로 약 10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무려 사살 114명, 포로 4명, 소총 5정, 수류탄 30발을 노획하였고, 전사 3명, 부상 1명, 81mm 1문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이날 해병대의 중요사항으로는 高城에 있던 제1대대(장, 高吉勳소령)과 사령부가 元山으로 이동하게 되어 일부는 鐵道편으로, 일부는 자동차편으로 각각 高城을 출발하였다는 사실이다,

11월 27일 : 馬轉里—東陽間의 阿虎飛嶺과 土基里 등에 잠복한 北傀軍은 그 활동이 점차

활발하여졌고, 더욱이 孟山과 陽德, 그리고 成川方面의 敵도 戰力을 증가하여 그 활동은 날로 격증되고 있었다. 실지이 土基里일대의 北傀軍은 我軍 전사자의 피복을 탈취하여 友軍行色으로 위장하여 출몰하고 있었다.

이 날 특히 東陽에 주둔한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에게 실탄보급하라고 阿虎隊額을 너머 東陽으로 오던 美軍 수송대가 上白岩洞, 下白岡洞 부근에서 敵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60mm박격포탄 1500발, 81mm박격포탄 400발을 被奪당한 후, 약 70명이 전사하고 약 50명이 부상을 한 큰 손실을 입은 다음, 각기 분산되어 東陽에 있는 제3대대진지에 간신히 도착하여 이 急報를 전하였다. 대대는 즉시 부상병을 치료하고 馬轉里와 孟山에 각각 이 사실을 알려 美軍들을 인수케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友軍으로부터 被奪한 각종 실탄이 여하히 운반되는가를 예의 주시하였다. 이 날 또한 제5대대는 지휘소를 新高山에 옮기고 대대 전병력으로써 新高山방어에 돌입하고 있었다.

11월 28일 : 전날 友軍의 막대한 人命피해와 보급의 손실을 입은 사실을 알았으나, 밤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모한 반격을 試圖하지 않고, 敵情만을 살피고 있던 대대는 아침이 되자 北傀軍의 근거지인 孔眞里(東陽南方)의 友軍으로부터 被奪한 탄약을 운반한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공격코자 제9중대(장, 黃 泳중위)에게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제9중대장 黃 泳중위는 06.00에 重기관총부대를 제12중대로부터 배속받아 美軍에서 보내 온 보급부대차량을 이용하여 土基里로 우선 진격하였다. 이때 土基里에 중화기를 소지한 약 1개 대대의 敵은 我軍에게 반격을 가하였음으로 彼我間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약 1시간에 걸친 이 교전에서 敵은 우세한 병력으로 유리한 지형을 점거하여 심한 저항을 하였으므로 제9중대 일부병력의 과감한 敵陣의 돌입도 지리적으로 조건이 불리함을 어쩌할 수가 없이 부득이 공격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전과는 사살 48명, 부상 25명, 다발총실탄 750발을 노획하였고, 손실은 전사 4명, 부상 21명이었다.

11월 29일 : 이 날 東陽지구의 敵은 孟山에서 陽德지구로 이동한 부대와 連繫를 지어 증강된 약 3,000명과 함께 대대진지에 내습할 기세이었다.

한편 27일 敵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뿔뿔이 東陽까지 도착한 美 보급부대의 殘餘인원은 馬轉里로부터 파견된 구출부대의 도움으로 대대陣地를 떠나 馬轉里로 향하고, 이들은 土基里에서 다시 구원부대와 連繫되어 무사히 馬轉里方面으로 되돌아 갔다.

제11중대(장, 朴東烈중위)는 10.00에 東陽을 출발하여 美軍보급부대의 馬轉里歸還을 엄

호하고, 검하여 土基里일대의 敵情을 수색한 다음, 日沒경에 이들은 임무수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였으나, 이 날 14.00에 약 1개 연대병력의 敵은 東陽里의 제3대대 陣地를 포위하고 박격포지원하에 공격을 가하여 왔다.

이 때 박격포탄을 보급받지 못한 제3대대는 다만 유리한 지형을 최대로 善用하여 소화기로서만 대항하는 善戰振을 보여 敵에게 많은 손실을 강요한 끝에 이들을 모조리 격파시켰는데, 그 교전시간은 약 1시간동이었다.

이 전투에서 敵은 50구의 시체와 다발총 6정, 동실탄 800발을 버린채 도주하였고, 我軍의 손실은 전사 1명, 부상 18명이었다.

11월 30일 : 온 천지가 눈(雪)에 덮혀 오직 산짐승들의 咆哮하는 소리만이 간간이 들리는 분위기 속에서 홀로 孤戰하고 있는 제3대대를 L-19기에 의해 전달되는 통신연락문과 무전기가 없었더라면 孤島에 갇힌 외로운 신세를 아마도 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대는 이날, 전날 敵의 내습으로 파괴된 陣地의 보수를 개시하고 또 다시 예상되는 敵의 기습에 대비하는 분망한 일정을 보내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병력만을 차출하여 주위일대의 敵情탐색을 위해 출동시켰을 뿐, 별다른 작전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날 元山에 있는 해병대의 본부상황으로는 지금까지 通用에 남아 있었던 제23중대가 군단명령으로 元山에 도착하고 鉛山국민학교에 숙영하게 되었다.

12월 1일 : 土基里高地와 그 부근마을에 약 1,500명의 敵이, 그리고 上白開洞과 下白開洞일대에 1,200명, 孔眞里와 德岩里에 2,500명, 龍山里에 2,000의 敵이 각각 집결하여 제3대대 陣地를 포위하고 있는 형세에 있으며, 또한 德川을 지나 流山 陽德지구에 이미 침입한 중공군은 그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점점 그들의 野砲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友軍으로는 馬峙里에 美 1개 대대가 약포 1개 중대의 지원을 얻어 布陣하고 있을 뿐, 咸川에 있던 UN軍은 順川으로 이동하였으므로, 陽德과 溫井里를 확보하고 있던 그 곳 청년들로 조직된 치안대는 내일 중으로 東陽에 있는 제2대대 陣地로 이동할 계획에 있었다.

新高山에서 元山으로 이동한 제1대대는 이 날 美軍과 교대하여 元山방어에 임하고 있었는데, 부대대장 金鍾植대위는 2개 중대와 81mm박격포 2문, 경기관총 1개 소대를 인솔하고, 元山외곽에 이르러 美軍과 임무를 교대한 다음, 平元線을 타고 元山에 침입하려는 北傀軍을 요격하고자 하였다. 한편 제1중대(장, 鄭滿鎭중위)는 1개 기관총반의 배속을 받아 德

豊里(元山 西方 4km)에서 美軍과 임무를 교대하고 제3중대(장, 李鳳出중위)는 1개 기관총반의 배속을 받아 中浦里(元山 南方 2km)에서 美軍과 방어임무를 교대하고 있었다.

이 때 德源方面으로부터 약 3,000명의 北傀軍은 元山에 침입할 기세를 보였으며, 또한 中共軍과 北傀軍의 혼합부대 약 1개 사단의 병력은 山岳을 타고 馬息嶺을 지향하고 있었다.

08.00에 이와같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해병대사령관 中銖俊대령은 東陽에서 孤軍奮鬪하는 제3대대를 시찰키 위해 美軍 헬리콥터편으로 元山을 출발하여 東陽에 도착하여 제반사정을 청취한 후 다른 UN軍들도 이 方面에서 작전상의 이동을 감행하고 있는 이 때, 불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제3대대가 더 이상 이 곳에 머무를 意義는 이미 상실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11.00에 元山으로 귀임하였다.

이 때 木浦지구에서 殘敵섬멸을 완료한 제2대대는 11월 30일 해병대에 復歸한 후, 元山 海東學校에 駐留하고 있었다.

이 날 東陽의 제3대대는 전 날 항공기편에 의해 긴급 연락임무로 元山에 출장한 작전장교 金然翔소위편에 2일 05.00를 기하여 東陽으로부터 馬轉里로 부대를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 명령으로, 제3대대는 작전명령 제126호의 1에 따라 은밀히 휴대불가한 모든 물품을 소각, 또는 파괴, 매몰하고 이동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12월 2일 : 04.30까지 이동준비를 완료한 제3대대는 05.00를 기하여 항공기의 엄호사격으로 부근일대의 敵을 교란시키며 東陽을 떠나 馬轉里로의 이동을 개시하였다. 전술중대는 土基里까지는 제 11, 제 10, 제 12, 본부, 제9중대 순위로 행군하고, 土基里를 지나서는 제9, 제 11, 제 12, 본부, 제 10중대순위로 그 이동순위를 바꾸어 행군하기로 한 事前계획에 따라 각 장병들은 휴대가능한 실탄과 美軍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용중인 외투, 침낭, 모포 1매와 1일분의 Raiton을 배낭에 넣은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馬轉里로의 길을 떠났다.
이 부대이동에는 陽德과 東陽지역의 치안원과 北傀들의 잔악상과 그들의 포악한 학정을 뼈저리게 느껴 온 피난민이 동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호임무가 뒤따라, 부대이동의 복잡성을 야기시켰으나, 피난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그들의 간곡한 自由에의 갈망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대대장 金潤根소령은 조금도 이를 꺼려하지 않았고, 뒤따를 수 있는 한 많은 피난민들을 동행케 하였다.

이와같은 제3대대의 부대이동에 때를 맞추어 馬轉里에 자리잡고 있던 UN軍은 이때 阿虎飛 嶺東쪽 龍浦里(馬轉里 北쪽 10km)까지 진출하여 야포 등으로 엄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

었다.

제 3 대대가 통과하게 된 土基里와 自開洞일대에는 北傀軍 약 3개 대대병력이 平元街道를 따라 8km에 걸쳐 布陣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대의 행군자체는 문자 그대로 공격기동이었다. 山頂에서 계곡에 있는 街道를 향하여 난사하는 敵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일부부대로 하여금 이를 공격 격멸한 다음에야 본대의 행군을 再開하는 등, 16.30~24.00까지 첩첩이 싸인 포위망을 부대는 하나 하나 제거하면서 다음날 아침 03.00에야 龍浦엄호부대와 합류할 수 있었으니, 龍浦까지 20km 행군에 이처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도 이 부대이동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이 부대 이동간 제 3 대대는 敵 사살 320, 소총 58정, 경기관총 1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올렸고, 전사 2명, 부상 4명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이 날 元山에 머물면서 元山방어에 主力하던 해병대主力은 04.00에 美 보병 제 3 사단으로부터 해병대를 咸興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11.00에 해병대사령부는 陸路로, 그리고 제 2 대대와 제 5 대대는 열차편으로 元山을 출발하여 18.00에 咸興에 도착한 다음, 光化國民學校에 宿營하게 되었다.

라. 작전 후의 개황

千辛萬苦 끝에 12월 3일 馬轉里에 도착한 제 3 대대는 그 곳을 방어 중이던 美軍 1개 대대와 같이 합세하게 되어 이들과 같이 馬轉里방어에 진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이곳의 美軍들도 12월 4일을 기해 元山으로 이동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제 3 대대도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이 군단명령으로 12월 3일 馬轉里의 美軍들과 같이 元山으로 이동하였다.

이기에 따라 제 3 대대는 4일 07.30까지 이동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4일에는 美軍차량으로 元山으로의 부대이동은 또 다시 시작되었으며, 이무렵 元山의 友軍은 전부 咸興으로 陸·海路를 이용, 이동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이 馬轉里와 東陽전투에서 제 3 대대가 기둔 종합전과는 당시 韓國海兵隊의 勇猛을 말하여 주는 것이니,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살	406명	다 발 총	10정
부 상	25명	다발총실탄	1810발
포 로	9명	기타 실탄	710발
박 격 포	5문 파괴	수 류 탄	80개
기 병 소 총	7정	기타 문서	수점
소 총	31정		

§ 參戰者의 證言

◇ 해병대사령관 申鉉俊대령

(1970년 6월 23일 自宅에서 증언, 예 중장)

해병대主力을 仁川에서 船便으로 元山을 향해 떠나 보낸 뒤, 나와 사령부요원 일부는 항공기로 쉽게 元山에 도착하였다. 元山에 上陸한 해병대대는 咸興까지 계속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이 때 제일 많이 고생한 분이 金潤根소령이었다. 馬轉里에서 제3대대는 敵에게 포위되어 식량과 실탄 등 보급품을 헬리콥터로 날랐으나, 그것마저 제대로 받아 먹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다.

◇ 제3대대 제11중대 제1소대장 陸東旭소위

(1964년 2월 海兵上陸훈련대에서 대담)

해병전투단의 일부인 제3대대는 元山에 上陸하자 咸興까지 전출하였고, 다시 敵을 추격하여 平元街道로 출동하였다. 平元街道에 있는 馬息嶺을 占領하고 陽德을 거쳐 東陽지역에 집결한 다음, 이곳에서 數日間 偵察戰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我軍이 진격한 뒤의 後方에는 敵의 부대들이 平元街道를 차단하고 元山으로부터 수송되는 보급차량을 공격하였다. 我軍은 다시 戰車를 앞세우고 前方부대에 보급물을 수송하려 하였으나, 敵의 차단작전으로 地上보급은 두절되니 L-19정찰기와 기타 공중투하로 적은 양의 실탄 등을 겨우 보급받게 되었으며, 제3대대는 결국 敵軍에게 二重三重으로 포위되고 말았다.

이때 元山에 있던 申鉉俊사령관은 헬리콥터로 직접 현지를 시찰하고 元山에 있는 東部作戰本部에 귀대한 후, 이 상황을 보고하고 당시 대대작전장교였던 金熙翔소위를 다시 보내어 元山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金潤根대대장은 비장한 각오로 敵陣을 돌파하기 위하여 平元道路를 이용한 이동은 포기하고 불필요한 휴대품을 없이 하였으며, 1일분의 식량과 최소한의 실탄을 휴대케 하여 능선을 타고 東陽지역으로부터 신속하게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최초 제3중대(장, 李在元대위)가 尖兵中隊로 출발했으나,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었으므로 東部先頭에 섰던 제1소대가 尖兵小隊로서 偵察戰을 하면서 이동을 하였다. 下石里라는 하는 곳에 이르러서 네거리의 人民軍部隊를 피하면서 九龍里를 지났다.

이곳으로부터 尖兵小隊는 敵과 충돌하여 交戰을 하였는데, 後衛部隊는 신속히 追擊起支援을 하면서 이동하였다.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하여 前後中隊가 交代로 敵과 交戰하면서 前進하였고, 이때 全隊員은 초긴장속에서도 砲彈 1발씩은 걸어메고 있었다. 敵과 近接하였을 때는 작약이 없이 管管으로만도 砲射擊을 하였고, 당시 重火器中隊長이었던 金洛天대위는 敵을 향하여 사격하면서 "이놈들! 소리만 듣고 떨어져라."고 외치는 등 死地에서도 여유를 보였다.

九龍里에 도착하여 보니 美軍 보급차량들이 기습을 받고 全滅한 慘狀이 보였으며, 진눈개비와 추위는 몸에 냉기를 더했고, 먹을 것마저 떨어져 가니 주야간의 강행군은 장병들을 극도로 피로케 하였다. 졸면서 쓰러지던 일째위 끝다시피하면서 馬轉里에 到着하니 밤 10시였다. 하늘에는 무심한 달빛만이 교교하였다.

◇ 제3대대 제9중대 제2소대장 李弘熙소위

(1965년 9월 2일 해병사단에서, 대담)

陽德까지 진격한 해병대는 부근에 있는 작은 山城에 들어가 駐留하였는데, 山城의 길이는 약 100 yard, 넓이 50 yard로 海拔 800 高地였다. 我軍은 800高地 下端까지 前哨를 배치하고 이곳으로부터 12~16km 前方일대로 偵察하였다.

이때 이미 我軍補給路는 차단되고 山岳地에 근

거를 두고 敵軍은 점차 작은 山城을 포위하였다. 我軍은 偵察戰을 중지하고 前哨도 本陣으로 이동시켰다. 山城에 접근하여 온 敵은, 城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는데, 夜陰을 이용하여 사닥다리를 기어 오르려하면 城內에서는 사격으로 격퇴하는 등 특수山岳戰을 하였다.

我軍은 補給路가 차단되자 美軍이 항공기로 보급물을 空中投下시켜 주었다. 바람이 불어 山城밖으로 떨어지면 敵과 交戰하면서 補給品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처음엔 山城內外部隊로 나누어 人民軍과 싸웠지만 이동하기 직전에는 모두 城內에서 방어전을 하였다.

◇ 제3대대 제9중대 沈海澤상사
(1966년 대령)

平元街道 깊숙하게 들어간 해병 제3대대는 補給路가 차단되었다. 어느 날 美軍 補給輸送隊 약 20대가 전차를 先頭로 수송하여 오던 중, 敵의 기습을 받아 전차 3대만 무사하였다. 다음 날 08.00에 제9중대가 피습지역에 전차와 같이 출동하였다. 그러나 10.00시에 승차된채 敵의 기습을 받았는데, 위와 아래가 모두 노출되어 사격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때 나는 分隊長을 高地에 오르도록하여 조준사격은 不可하므로 위협사격을 하도록 하였다. 이 때 死傷者가 속출하였고 本隊에서는 전차와 중강된 1개 소대가 지원을 나왔는데 이미 敵은 도주하고 없었다.

당시 東陽山城에는 民間人들도 일부 있었는데 들어 온 사람들은 작전상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해병대가 이 山城에 이동한 것이 새벽 3시였는데, 후에 안 일이지만 敵은 04.00에 대규모공격을 山城에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제 3대대 제 11중대 제 1소대 姜泰龍상사
(1965년 4월 7일 해병여단에서, 상사)

해병대가 元山에 上陸하였을 때 소대장의 고향집에 다다르니 소대장의 母親이 너무에 수건을 쓴 채 먼산만 바라 보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왔음을 알자 감격적인 눈물의 상봉이 있었다. 잠시 후 곧 분대를 따라 전격하였다.

元山에서 약 50km 지점인 馬轉里까지 출동하였다가, 이 곳을 美陸軍에 交代하여 주고 다시 陽德 東陽으로 가서 山城에 들어갔다. 山城에 들어오자 다음 날부터 敵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주야간에 걸쳐 사격전이 계속되었는데, 夜間에 주로 공격을 받았다. 보급로가 차단된 우리 부대는 장병들이 소지한 살탄의 거의 소모되었다. 낮에는 주로 山城 南쪽에 나가서 싸우고, 밤에는 北쪽으로 가서 陣地를 편성하였는데, 交戰 중 주로 土着里에서 많은 敵을 사살하였다.

◇ 해병 제3대대 제11중대 소대장 申鉉玉소위
(1965年 11月 9日 合參大學에서, 대령)

馬轉里에서 陽德으로 제3대대는 移動한 후 나는 大隊에 將校가 補充되기 않기 때문에 밤에는 제2소대장으로 偵察을 나가고, 낮에는 大隊일을 보고 그랬는데, 當時 搜索을 나갔다와 敵과 不意에 接戰이 벌어져 많은 損失을 입게 되었다.

이 때 陽德에는 地方青年들로서 組織된 義勇軍이 있어서 海兵隊作戰을 도왔고, 지금 기억으로는 우리에게 補給品을 갔다 주느라고 友軍의 희생이 또한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元山에서 피난민을 전부 배에 태워 보내고 마지막으로 興南으로 갔다. 興南에서 문을 열고 LST를 下船하려고 하니, 그대로 釜山으로 가라고 해서 부산으로 갔다 .

그때가 12월 18일이라고 기억한다.

§ 逸 話

제3대대가 東陽里에 布陣하고 있을 때였다.

부대정리대장이 김장용으로 쓸 소금을 구입하려고 1개 분대를 완전무장시켜 트럭으로 부대를 떠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부대가 주둔하는 東陽근처에는 소금의 부족이 극심하여 주민들은 김장할 걱정을 하고 있었던 형편이어서 부대가 인근에서 소금을 구입하기란 불가하였기 때문이었다.

부대를 출발한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敵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정리대장과 대원들은 이 기습으로 勇戰하게 되었으나, 결국 일행은 제각기 방어책을 모색하게 됨으로서 뿔뿔이 헤어지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때 본대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11중대가 출동하여 敵을 격퇴하고 이들을 구출, 귀대하게 되었으나 이때 5~6여명이나 아직도 행방불명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날 또 부대는 피습지역을 공격하여 행방불명된 대원들의 행방을 四方으로 수색하여 그중 일부대원은 구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3명만은 그 행방이 묘연하였다.

6일만에 부대로 돌아온 운전병은 피습 후 일단 山능선으로 올라가 본대를 찾아 헤메이 서작하다가 굶주림에 이기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외딴 민가에 들어가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만이 있는 이 외딴 民家에 별안간 밀어닥친 敵들에 의해 운전병은 분의에 당한 알이라 하는 수 없이 敵의 포로로써 감금되는 신세를 모면할 수는 없었고, 결국 총과 옷까지 모두 이들에게 피탈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운전병은 敵의 虛를 찔러 줄고 있는 敵을 단숨에 주먹으로 쳐 기절시킨 후 그곳을 빠져나와 구사일생으로 부대를 찾아 생환하였다.

§ 參戰者의 略歷

◇ 해병 제3대대 제9중대 黃 泳중위

1950년 8월 1일 몽금포부대
1950년 11월 1일 해병 제3대대 제9중대장
1951년 1월 11일 제1연대 작전주임장교
1951년 4월 25일 해병학교 부교장
1951년 12월 4일 도서부대 중대장
1951년 12월 27일 제8대대장
1952년 6월 9일 해병훈련소 부소장
1952년 11월 8일 제1전투단 인사주임
1953년 5월 1일 〃 부대대장

◇ 해병 제3대대 제10중대장 鍾德遠

1950년 7월 15일 濟州한병대 제3대대 중대장
1951년 1월 3일 제1연대 중대장
1951년 6월 12일 작전참모실부(대위)
1951년 6월 29일 제6대대 중대장
1951년 10월 16일 제6대대 부대대장
1952년 1월 7일 도서부대 부대대장
1953년 2월 25일 초도부대장

◇ 해병 제3대대 李斗燦

1950년 7월 13일 독립대대 통신대장
1950년 10월 25일 제3대대 통신대장
1951년 1월 1일 제1연대 통신주임장교
1951년 4월 23일 해병학교 교도대장
1951년 7월 1일 해병학교 학술과장
1952년 3월 3일 제1연대 통신주임장교
1953년 4월 20일 육군보병학교입교

第33章

鴨綠江進擊作戰

第33章 鴨綠江 進擊作戰

要 旨

敵은 10월 19일, 我軍이 平壤을 점령하자, 사령부를 제1차로 熙川으로 이동하고, 제2차 이동을 江界로 定하는 한편, 제1차 방어선을 安州—价川—德川線의 淸川江으로 定하고, 제2차 방어선을 熙川線, 그리고 제3차 방어선을 江界線으로 擇한 다음, 최후의 저항을 企圖하고 있었다.

이 敵은 馬山 周邊과 洛東江戰線에서 崩壞된 이래 堅固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나, 鴨綠江에 접근함에 따라 점차 저항이 치열하여졌으며, 10월 末에 이르러 鴨綠江 南方 80km를 지나는 淸川江線에서의 敵 저항은 더욱 강력하였다. 특히 定州 溫井里를 연하는, 80km에 달하는 線에서는 敵 제17기갑사단을 비롯한 제32사단과 제45사단의 방어선이 견고한 것이어서 한때 我軍의 진격을 지연시켰다. 또한 이 지역의 敵은 제1사단, 제6사단, 제32사단, 제45사단, 그리고 제17기갑사단으로서, 新義州—楚山—江界方面으로 퇴각하면서 국경선으로 진격하는 我軍을 험준한 山岳지대 계곡과 主要道路網으로 誘導하여, 그 後方과 補給路를 차단함으로써 최후의 저항을 企圖하고 있었다.

我軍은 10월 19일 제1사단을 先頭로 UN軍 부대가 平壤을 탈환하자 곧 이어 偉·淸국경선을 向해서 진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MacArthur 사령관은 10월 20일, 美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에게 全軍으로써 조속히 국경선에 도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美 제8군사령관은 즉시 전 예하부대에 이와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0월 20일 美 제187공수연대(장, Bowen 대령)는 2,800명을 淸川에 공수, 投下하였으며, 다음 2~3일간에 걸치서 총 4,000명의 병력과 600ton 이상의 장비를 공수, 投下함으로써 敵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美軍 포로를 구출하려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敵의 수뇌부와 主力부대는 이미 淸川江線을 넘었기 때문에 그 本來의 작전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고, 다만 3,818명의 포로를 잡는 戰果를 거두게 되었다. 이와같이 효과적으로 행하여진 공수작전은 敵의 저항을 감소시켰으며, 西海岸方面에서의 我軍의 급속한 진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我軍은 제2군단을 右로 하고, 美 제1군단을 左로 하여, 제8사단을 成川—價倉—北倉—德川線으로 진격하여 이 線에서 江界—中江鎭 方面으로 진격토록 하고, 제6사단을 成川—順川—价川—熙川—檜木洞—板下洞—古場—楚山으로 진격토록 하는 동시에 제2연대는 溫井里線에서 西北쪽으로 鴨綠江邊의 碧潼으로 진격토록 하였다. 한편 左側 美 제1군단은, 美 제24사단(英國군 제27여단과 高射대대 포함)을 龜城—新義州方面으로 진격토록 하는 동시에, 제1사단은 美 제1군의 右側을 담당하여 安州—雲山—水豊發電所線으

로 진격토록 하였으며, 美 제1기갑사단은 美제1군단의 예비대로서 제1사단의 뒤를 따라 後續토록 하였다.

기간 중 季節풍과 海上의 風浪에도 불구하고 UN 해군은 陸海空부대를 加速的으로 작전에 참가시켰으며, UN 공군 攻擊力의 대부분은 급속히 진격 중인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집중되었고, 극동공군은 美 해군기와 해병대기, 그리고 濠州 공군기와 英 해군기 및 韓國 공군기와 협력하여 그 행동범위를 北韓지역으로 擴大하였다.

이와같은 진격작전이 진행되는 기간 중 初期는 대체적으로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아침 저녁으로 濃霧가 심하였고, 작전末期에는 雨天, 또는 曇天으로 變轉하였으며, 특히 제6사단이 楚山으로 진격하는 동안 楮木洞 부터는 降雪이 심하였다. 또한 이 작전지역의 地勢는 白頭山을 중심으로 하여 南쪽으로 뻗은 狼林山脈과 妙香山脈은 高山峻嶺으로서 天然要塞을 이루고 있으며, 歷戰의 史話를 담은 淸川江은 熙川을 起點으로 西南쪽으로 흐르고 있고, 그 支流인 九龍江은 雲山을 경유하여, 南으로 흘러 淸川江과 合流한다. 이와같은 地勢는 천연적인 장애물로서 防者에게는 유리하고, 攻者에게는 불리하였다. 한편 道路網은 平壤에서 新安州—新義州에 이르는 京義街道와 新安州—熙川—江界, 그리고 新安州—熙川—滿浦鎭에 이르는 二大 國道가 양호한 進擊路를 이루고 있으며, 新安州—博川—泰川에 이르는 道路와 价川—寧邊—雲山에 이르는 道路, 그리고 楚山을 起點으로 東西로 뻗은 道路 등도 我軍 진격에 主補給路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은 10월 24일 부로 陸本 參謀次長으로 轉任되고, 後任 군단장에 제1사단 白善燁준장이 부임하였으나, 3일 후 劉載興소장은 다시 군단장으로 재부임하였다.

1. 肅川·順川 空輸作戰(50년 10월 20일부터 / 50년 10월 22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4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敵軍	
美 제187공수연대 장 대령 Frank S. Bowen Jr.		D중대 장 대위 G. M. M.	
英 제27여단 장 준장 Basil A. Coad		濠 제3대대 장 중령 Charles H. Green (10.28전사)	
제1대대 장 중령 A. M. Man		중령 I. B. Ferguson (11.1.부임)	
B중대 장 소령 W. P. M. Allen		A중대 장 소령 B. S. O'Dowd	
D중대 장 소령 J. E. F. Willoughby		B중대 장 대위 D. Laughlin	
제1대대 장 중령 G. L. Neilson		C중대 장 대위 R. W. Saunders	
A중대 장 소령 A. D. R. G. Wilson		A. P. Dennes	
B중대 장 소령 A. I. Gordon-Ingram		D중대 장 대위 W. N. Gravener	
C중대 장 소령 J. B. Gillies		병력 : 약 2,800명	
제239연대		병력 : 약 2,5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美 제8군의 지상군이 38°線을 돌파하고 平壤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을 때 UN軍은 金浦비행장에 Frank S. Bowen Jr. 대령이 지휘하는 美 제187공수연대전투단(Airborne Regiment)을 극동공군사령부의 유일한 예비대로 保有하고 있었다.

MacArthur 元帥는 敵의 퇴로를 차단하고 平壤이 함락될 무렵에 後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美軍으로서 敵의 포로가 된 사람들과 北傀의 要人들을 포로하기 위하여 이 공수보병연대를 平壤 北方 지역

에 空中 投下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리하여 그는 한 두번 그 날자를 변경하면 끝에 마침내 이해 10월 20일 아침을 기하여 이 특수부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決心에 따라 平壤 北쪽 56km 지점 부근에 2개의 投下지역이 選定되었는데, 主投下지역은 蘇川 近方이고, 다른 또 하나의 것은 順川近方이었다.

平壤에서 北쪽으로 달리고 있는 V字形의 2개의 좁은 通路는 각각 鐵路와 병행하고 있었는데, 左側 길은 平壤에서 新義州에 이르는 큰 길이며, 그 중간 지점에 있는 蘇川은 平壤에서 65km 떨어진 곳으로 낮은 언덕이 둘러 싸인 넓은 계곡 사이에 자리잡고 있었다. 右側으로 뻗은 길은 平壤에서 험준한 地形을 지나 滿浦鎭에 이르는 것으로 그 途中에 있는 順川은 平壤에서 60km, 蘇川으로부터는 東쪽으로 27km 떨어진 지점이다.

敗退에 敗退를 거듭하는 敵의 士氣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低下되고 있었으나, 그 반면 友軍의 士氣는 매우 높았으며, 더구나 포로로 잡혀 있는 동료들을 한시 바삐 구출하겠다는 熱望으로 勇躍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空輸作戰 계획

작전목적 : 仁川 上陸작전이나, 혹은 서울 탈환전에 參戰하지 못하던 美 제187공수연대는 9월 末 이후, 金浦비행장의 경비를 맡고 있었으나, 이제 최후의 決戰으로 생각되는 平壤 攻略戰에 直面하게 되자 UN軍사령부에서는 이 부대로 이 작전에 參戰시키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平壤 攻略戰에 직접 사용하고 특히 地上 추격부대의 大同江 渡河를 직접 돕게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敵이 平壤을 死守하리라는 公算은 이미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던 까닭에 작전목적을 北傀 政權首腦와 北傀軍 主力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平壤부근에 收監된 UN軍의 포로들을 구출하는데 두었으며, 이에 따라 空中投下地域과 時期가 選定되었다.

投下地域 選定 : 平壤에서 滿浦로 通하는 主要 通路는 平壤—新義州線과, 平壤—滿浦鎭線, 그리고 각각 이 鐵路를 따라간 國道인데, 前者는 平壤 北北西쪽 45km의 蘇川盆地를 거쳐 新安州 (蘇川 北쪽 22km)에서 淸川江을 건너게 되고, 後者는 大同江畔에 펼쳐진 順川盆地 (平壤 北北東 45km, 蘇川 東쪽 30km)를 경유하여, 院里(順川 北쪽 37km)에서 淸川江의 河谷을 따라 江界에 이른다.

北傀 政權이나 北傀軍 主力은 이 두 갈래 本道를 따라 後退할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投下地域은 이 두 갈래의 퇴로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지역으로 擇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같은 理由로 해서 우선 平壤의 北쪽 郊外가 着眼되었다. 여기 같으면 1개 지점에서 두갈래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지점은 너무나 平壤에 가까운 곳이므로 여기

서 퇴로를 차단하려면 敵이 平壤을 철퇴하기 전이 아니면 안 될 것인데 平壤에는 아직도 상당한 병력이 남아 있을 것이고, 또 大同江의 渡河가 어떻게 될런지 豫測할 수 없는 現狀況으로서는 各個擊破 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確實性만을 생각한다면 平壤은 텅텅 비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空擊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가장

〈順川에서의 分岐點〉

좋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淸川江의 徒涉場이었다. 新安州와 院里 부근에 投下하면 敵 主力의 포착이나, 포로의 구출이나 두 가지가 모두 容易할 것이며, 이것이 성공한다면 北傀 政權의 首腦들까지도 동시에 포로로 할 수 있는 公算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新安州는 平壤으로부터 70km, 院里는 80km나 떨어져 있으며, 兩者間의 간격은 30km나 되는 것이다. 投下時期로 말하면 地上에서 진격하는 제8군과 提携할 수 있는 時機를 계산하여야 될 것이며, 공수연대의 保壘로서 점령할만한 적당한 지형이 없는 까닭으로 北쪽으로 패주하는 敵에게 擊破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계산할 수 없는 地上 진격부대의 大同江 渡河라는 문제가 따르고, 제8군의 병참선은 연장될대로 연장되어 차량용 연료마저 부족되기 일수였기 때문에 제8군이 平壤을 점령한 다음, 계속해서 北進한다는 것은 매우 困難하게 될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投下點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이 좋다고 하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投下地點은 前 兩者의 中間案으로 落着되었으며, 그 작전구상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공수연대의 主力을 肅川에 投下시키고, 一部는 順川에 投下시켜 각각 독립해서 퇴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投下시기는 되도록 빨리 平壤 突入 前으로 예정하지만 天候와 敵情을 참작하여 決定하고 地上軍과의 提携는 2~3일 후로 예정한다.』

投下時期의 결정 : 공수연대는 10월 16일 이후 언제라도 出擊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제8군이 平壤에 近迫함에 따라서 投下時期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時期가 빠르면 빠를수록 敵을 포착할 수 있는 公算은 커지지만 그 反面에 이에 따르는

위험성도 역시 커지게 되는 것이다. 戰史에서는 投下 後 3일 이내에 提携할 수 없을 때는 苦戰이나 혹은 섬멸적인 타격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實은 제2차대전에 있어서 공수부대는 投下 前에 예측하지 않았던 原因으로 말미암아 뜻밖에도 넓은 지역에 분산되었으며, 설사 짧은 시간 안에 재편성을 끝마쳤다 할지라도 공수부대는 戰車의 戰力과 遠距離 火力 및 機動力의 결핍등 불리한 조건이 많은 위에 不確實한 공중보급에 의존하고 있는 탓으로 對機甲戰鬪나 長期戰鬪에는 약하다는 本質的인 약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효과에 대한 期待와 안전에 대한 保障이라는 相互 矛盾 때문에 이 時期는 두번 決心되고, 두번 변경되었다.

최초의 投下시기는 沙里院을 공략한 17일로 豫定된 것 같았는데, 그 당시 敵은 平壤을 死守할 것 같은 기색은 보이지 않았고, 大部隊의 北進도 偵察되었기 때문에 이때가 好機라고 생각되었지만 平壤 南쪽에서의 敵의 저항이 뜻밖에 强하였으며, 天候관계도 그다지 좋지 못하여 연기되었다.

두번째는 平壤에 突入한 19일로 예정된 것 같았으나, 大同江의 교량이 전부 파괴된데다가 東쪽으로부터 急進하고 있었던 國軍 제6사단의 진격도 늦어졌고, 날씨도 아직 돕지 못하여 이것도 또한 중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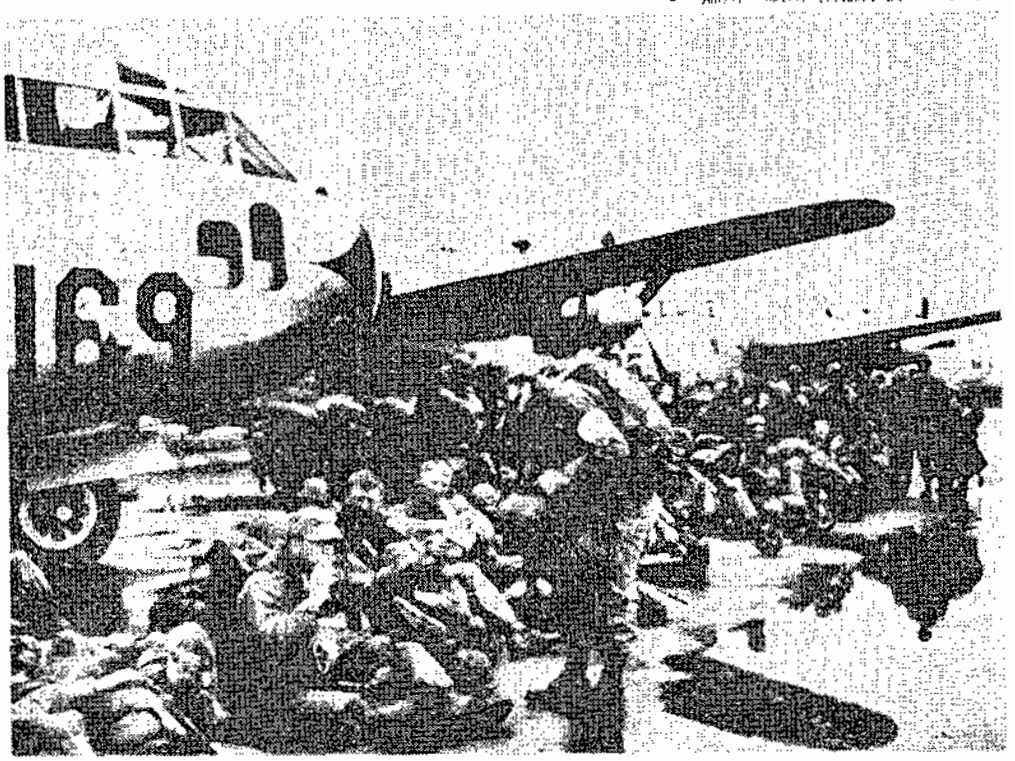
그러나 19일 밤 大同江 渡河도 잘 될 것 같고, 氣象班에서도 氣象의 回復을 예보해 왔기 때문에 『明 20일, 날이 개는대로』라고 決定되었다. 만약에 그 이상 지연된다면 敵을 포착할 가망은 全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아울러 美 제1군단장은 새로운 MacArthur Line을 향한 추격명령을 하달하였고, 제24사단(英 제27여단 배속)에게 順川으로의 突進命令을 내리는 동시에 제70전차대대의 전차 1개중대와 제8기병연대의 제1대대로 편성된 Rodgers 특수임무부대장 Rodgers 중령에게 順川에 投下하는 부대와의 提携를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國軍 제2군단장 劉載興소장은 제6사단장 金鐘五준장에게 順川으로 突進할 것을 명령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빈틈없는 작전계획 아래 대규모 공수작전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2) 空輸作戰실시

10월 20일 : 美 제187공수연대(장, Bowen 대령)의 대원들은 깊어가는 가을 밤의 寂寞을 깨뜨리고 이날 02.30에 起床하여 暴雨를 무릅쓰고 출동하였다. 부대원들은 아침을 끝마친 뒤에 곧 비행장으로 나가서 기상상태가 好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2.00가 좀



〈金浦基地에서 龍川, 順川 地域出動을 기다리고 있는 제 187 공수연대의 장병들〉

못 되었을 때 날씨는 개이기 시작하였다. 이 공수보병연대의 전투단원들은 日本에 基地를 두고 있는 美 제 314 및 제 21 수송비행대의 C-119 수송기와 C-47 수송기등 도합 113 대의 수송기에 分乘하였다. 표준적인 수송기 C-119는 雙胴體의 新型機로서 23명씩 2열로, 46명의 좌석과 15개의 單式 落下장치와 4개의 落下門이 달려 있었으며, 각 비행기는 滿載되어 있었다. 공수보병연대의 연대장 Bowen 대령이 타고 있던 첫번째 수송기는 12.00에 金浦비행장을 離陸하였고, 모든 비행기는 漢江 어구 上空에서 일단 집결한 다음, 西海岸을 따라 北으로 향하였으며, 도합 2,800명을 태우고 있었다.

당시 연대에 入手된 最新 정보에 의하면 美軍 포로를 실은 敵의 汽車는 夜間에만, 천천히 운행하면서 平壤에서 北쪽으로 돌어갔다는 것이다.

연대원들은 이 기차의 運行路를 차단하여 美軍 포로들을 구출할 것을 무척이나 바라고 있었다. 美軍 수송기가 投下 예정지점에 접근하였을 때, 전투기는 그들 앞에서 로켓트彈을 발사하여 地上을 一時에 폭격하였으며, 14.00에 목표지역인 龍川上空에 이르게 되자 先頭 비행기에서는 즉시로 落下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敵의 對空 사격은 전혀 없었고, 간혹 重小火器에 의한 邀擊射擊을 받았을 뿐이었다.

연대장 Bowen 대령을 先頭로 하여 제 1 대대—연대본부—본부중대—지원공병 의무—근무부대 順으로 도합 1,420명의 장병이 蕭川 東南 쪽에 있는 목표, William 地域에 投下되었는데, 이때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落下지역 東쪽 2.4km 지점에 착륙하였을 때에 敵의 총탄이 파라솔에 命中하여 1명이 사망하였으나, 도합 74ton에 달하는 무거운 장비들은 무난히 착륙하게 되었다.

부대원들의 落下傘 뒤에는 중장비가 뒤따라 投下되었으며, 공수보병연대의 편제상의 장비는 짚車와 90mm 대전차포를 비롯하여, 105mm 곡사포와, $2\frac{1}{2}$ton 트럭의 무게와 비슷한 無線송신기 Set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美 제 674 야포대대의 105mm 곡사포 7문과 1,125발의 포탄이 같이 投下되었는데, 그중 6문의 포와 90%의 포탄은 완전하였다.

이렇게 무거운 重裝備가 전투에 投下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며, 또 C-119 수송기가 공수낙하작전에 사용된 것도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공수보병연대의 제 1 대대가 地上에 있는 敵의 가벼운 저항을 물리치면서 蕭川 東쪽에 있는 97高地를 점령한 뒤에, Bowen 대령은 계속 부대원을 지휘하여 蕭川 東쪽의 通路를 차

〈蕭川, 順川 地域에 C-119 수송기가 美 제 187 공수연대병력을 投下하고 있다.〉

단하였다. 한편 같은 지역에 落下된 제3대대는 肅川 南쪽 3.2km 쯤 되는 地點의 낮은 高地 위에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街道와 鐵路를 봉쇄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이날 17.00까지 목표지역을 모두 점령하였는데, 이때에 5명의 敵을 사살하고 42명의 포로를 잡기도 하였다.

한편 연대의 제2대대는 이날 14.20에 順川 西南 쪽 3.2km에 있는 落下예정지역인 Easy 지역에 落下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번에는 20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敵의 저항없이 이날 밤까지는 무난히 목표지역을 모두 점령할 수 있었다. 대대의 2개중대는 順川 南쪽과 西쪽 道路를 차단하였고, 세번째 중대는 때마침 東南쪽에서 淸川江으로 前進하고 있던 國軍 제6사단 부대와의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2~3일 동안에 4,000명의 장병과 600ton이 넘는 장비를 비롯한 軍需보급품을 肅川과 順川, 두곳에 投下하게 되었는데, 장비로써는 105mm 곡사포 12문을 비롯하여 짚車 39대와 $\frac{1}{4}$ton 트레일러 38대, 그리고 대공포 4문과 $\frac{3}{4}$ton 트럭 4대, 및 584ton의 탄약과 휘발유, 음료수와 휴대식량등을 포함하는 기타 군수품이 있었다.

한편 이날 順川 지역에 공중 投下된 연대와 合勢하기 위하여 美 제8기병연대의 제1대대와 제70전차대대의 1개 중대로 구성된 새로운 특수임무부대가 平壤을 출발하였다. 새로 편성된 이 특수임무부대는 전차대대의 William M. Rodgers 중령이 지휘하였으며, 北送 도중에 脫出한 5명의 美軍 포로를 구출하기도 하였다.

또 한편 이날 早朝에 국군의 主力은 東쪽으로 부터 平壤에 入城하였으며, 잠시 후에는 英 제27보병여단이 Middlesex 연대를 先頭로 하여 西쪽으로부터 역시 入城하였다. 이로써 平壤에서의 진격은 잠시 멈추어졌으며, 이때 英 여단은 美 제24사단에 배속되었다. 그러자 사단은 新安州를 경유하여 定州로 北進하는 機動의 先導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진격계획은 다음날 21일 저녁 때까지는 위에서 말한 목적지에 도달할 예정이었으며, 途中에서 肅川 南쪽에 投下된 공수연대의 일부와 合勢하기로 되어 있었다.

10월 21일 : 이날 아침 공수보병연대의 제1대대는 北쪽으로 가는 主補給路를 차단하라는 임무를 받고 肅川을 직접 내려다 볼 수 있는 高地를 확보하였으며, 敵의 後方 경비대는 그 北쪽의 高地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날 午後에 대대는 順川에서 제2대대와 연결하게 되어 서로 접촉을 갖게 되었다.

MacArthur 元帥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공수보병연대의 작전을 검토하기 위하여 日

〈C-119 수송기에서 投下되는 美 제 187 공수연대의 장병과 軍需물자〉

本에서 美 제 5 공군사령관 George E. Stratemeyer중장과 작전참모 Wright준장 및 Whitney 소장을 帶同하고 現地를 직접 순시하여 落下傘으로 投入되는 부대가 성공적으로 착륙하고 집결하는 광경을 눈으로 본 뒤에 비로소 平壤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신문기자들을 만나게 되자 이번 공수작전으로 완전히 敵을 奇襲하였다고 논평하고 또 다음과 같이 附言하였다. "北韓에 남아 있던 30,000명의 北傀軍 중에서 약 15,000명에 달하는 敵이 北쪽에서는 美 제 187 공수연대와 南쪽에서는 美 제 1 기병사단 및 韓國軍 제 1 사단이 攻擊하는 함정에 빠진 결과, 격파 당하거나 혹은 포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처음으로 실시된 이 공수작전에 언급하기를 "훌륭한 성공"이라고 지적한 다음, "敵은 포위망에서 압축 당할 것이며,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수보병연대는 敵의 主力부대의 퇴로를 능히 차단하지 못하였던 것이니, 敵의 큰 부대는 肅川과 順川 北쪽으로 철수한 다음, 이미 淸川江을 건너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平壤 市民들의 말에 의하면 平壤에 있던 金日成의 心腹인 行政 走狗들은 10월 12일에 鴨綠江邊에 있는 滿浦鎭으로 갔다고 하였으나,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北傀의 所謂 행정부는 이미 江界로 철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가장 큰 관심거리의 하나였던 美軍과 韓國軍의 포로들은 이미 北쪽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뒤였을 것이다.

肅川에서 南쪽으로 12.8km 떨어진 漁波里에서는 이날과 그 다음 날에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 개략을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이날 09.00에 美 제 187 공수보병연대의 제 3 대대는 道路 封鎖陣地에서 2개 전투단으로 區分한 다음, 平壤 쪽으로 南進하고 있었는데, 그 1개 전투단인 I 중대는 鐵路를 따르고,

다른 또하나의 전투단인 K 중대는 街道를 따라 前進하였다.

이날 13.00에 I 중대가 漁波里에 진출하자 1개 대대규모의 敵 부대가 120mm 박격포와 40mm 포의 지원火力아래 공격을 가하여 왔다. 이리하여 彼我間에는 2시간반 동안에 걸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싸움에서 美軍은 2개 소대규모가 격파 당하고, 90명의 실종자를 내게 되었으나, 이 실종자들은 찾지도 못한채 鐵路 西쪽 편에 있는 281高地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敵은 계속 압력을 가하지 않고, 漁波里 주변에 있는 높은 지대의 防禦로 그대로 물러가게 되었다.

한편 街道를 따라서 前進하고 있던 K 중대는 永柔里 北쪽 1.6km 지점에서 1개 대대규모로 추산되는 敵과 遭遇하게 되자 彼我間에는 곧 격전이 전개되었다. 敵은 南쪽과 東쪽의 높은 지대로 물러났고, 중대는 계속 永柔里와 그 北쪽의 163高地에 압력을 가하였다.

街道로 통하는 永柔里와 鐵路로 통하는 漁波里는 서로 東西로 4.8km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平壤에서 蔚川으로 통하는 鐵道와 道路의 간격이 가장 넓은 지역이며, 永柔里에서 漁波里로 통하는 線은 鐵道와 道路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制扼點이 될 수 있는 高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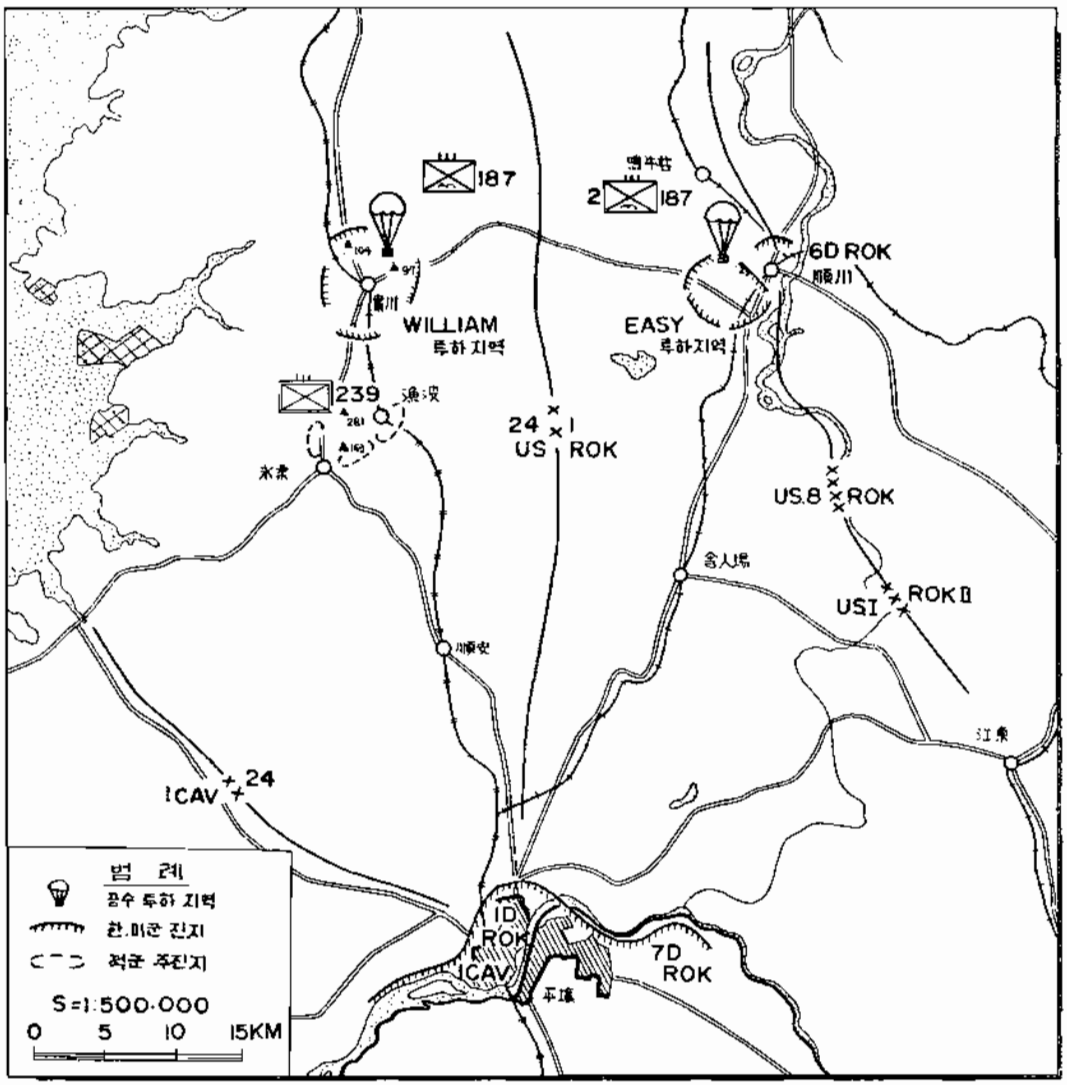
平壤에서 마지막으로 철수하였다는 敵 제239연대의 2,500명 규모의 병력이 이곳을 固守하고 있었으며, 이들 부대의 主任務는 平壤에서 北進하는 UN軍을 扼止하는 일이었으나, 생각치도 않던 背後에서 急作스러운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었다. 이날, 밤이 되자 敵 제239연대는 北쪽으로 후퇴하려고 먼저 小部隊로서 K 중대본부를 공격하여 왔는데 중대장 Claude K. Josey 대위는 敵의 다발총 사격으로 두번이나 부상을 입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敵에게 덤벼들어 총을 빼앗았으며, 이때에 중대의 선임장교도 또한 부상을 입었다.

이 전투에서 대부분의 敵은 살상되었고, 그 나머지 若干의 병력은 후퇴하고 말았다. 24.00가 좀 지나자 後方 두곳에서 敵의 공격이 있었는데, 163高地 뒤 쪽의 낮은 곳에 있던 美軍은 탄약이 거의 떨어지게 되자 이를 알아채린 敵은 04.00에 다시 공격을 企圖하여 왔다.

한편 이날 英 여단은 平壤의 大同江을 건너게 되었는데, 앞을 다투는 美軍부대들과의 혼잡으로 因하여 좀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Argyll 연대의 先頭는 경미한 敵과의 상황 끝에 永柔에 접근하여 갔다.

그러나 아직도 제24사단이 大同江을 건너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단장 Coad 준장은 永柔 南쪽에서 진격을 멈추고 밤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공수보병연대의 일부는 이미 永

상황도 제 41 호 美 187 空輸聯隊 順川·肅川空輸(1950. 10. 20.)



東 北쪽 郊外에 와 있었다. Argyll 연대는 이 부대와 연락하여 永柔 南쪽 900m 近方에 있는 陣地를 인수하였으니, 이때가 22.30이었다. 공수보병연대와 敵 사이에는 격렬한 夜間市街戰이 시작되었으며, 거의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Argyll 연대도 합세하여 敵을 공격하였고 若干의 손실도 내었다.

다시 09.00로 되돌아가서 Rodgers 중령이 지휘하는 Rodgers 특수 임무부대의 狀況을 살펴본다면 부대는 順川에 도착하여 順川 바로 南쪽의 교량을 통과하고 있을 무렵에 壕에 숨어 있던 몇명의 敵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며, 제 8 기병연대의 사병 2명이 전사하였다.

제 1 기병사단의 Gay 소장과 부사단장 Frank A. Allen Jr., 준장은 L-5 연락기를 타고 上空에서 Rodgers 특수임무부대가 제 187 공수보병연대와 잘 연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平壤에 돌아 온 Allen 준장은 부관과 운전병, 및 종군기자 2 명(Associated Press 의 Dorr White Head 와 Baltimoresun 의 Richard Tucker)을 帶同하고 12.00 에 順川에 도착하였으며, 이어서 그는 제 187 공수보병연대의 제 2 대대 지휘소에 들렀는데, 이때에 韓國人 한 사람이 와서 전날 밤에 順川 北西쪽 鐵路 터널 속에서 敵이 200 여명의 美軍 포로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다고 흥분하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 가기로 결심하였다.

이 일행은 즉시 그 民間人과 같이 당시 順川에 있던 국군 제 6 사단(장. 金鐘五준장) 사령부에 들렀다가 順川에서 北西쪽으로 약 9km 가량 떨어진 鴨生站 바로 위에 있는 鐵路 터널을 향하여 차를 몰았다. 일행은 이날 15.00 에 여기에 도착하여 무상을 당한 美軍 사병 1 명이 손을 흔들며 비틀비틀 나타났다. 그는 Valdor John 일등병이었는데, 더듬더듬 말하기를 "그들은 저쪽에!"라고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골짜기에는 사살된 美軍들의 시체가 17 具나 있었으며, 그들 생존자들의 말을 綜合하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美軍 포로 150 명씩을 실은 2 개의 열차는 10 월 17 일 화요일 밤에 平壤을 떠나 파괴된 鐵路를 수리하면서 천천히 北으로 향하였다. 제 187 공수보병연대가 10 월 20 일 午後에 투하되고 있을 때, 2 개 열차 중 두번째 열차가 공중폭격을 피하려고 順川 北쪽에 있는 터널 속에 머물렀는데, 이들 100 여명의 포로집단은 한달 훨씬 전에 서울로부터 北送된 370 명 중의 일부였으며, 無蓋石炭貨車와 有蓋貨車 속에 가득 차 있었다. 10 월 20 일 저녁때 美軍 포로병들은 기차에서 내린 다음, 3 개조로 편성되어 저녁식사를 타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그대로 경비병들에게 사살 당하였고, 열차와 敵 경비병들은 그날 밤으로 떠나 버렸다.』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발견된 시체는 모합 66 具(굴 속에 있던 7 명은 제외)였고, 생존자는 23 명이었다.

10 월 22 일 : 敵은 이날 05.45 에 제 3 대대 본부와 L 중대의 방어진지 前面에 공격을 감행하여 왔으므로 美軍은 많은 死傷者를 내게 되었다. 敵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300 명 가량의 敵이 L 중대를, 그리고 또 다른 450 명 가량의 敵은 본부중대를 습격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돌발하게 되자 제 187 공수보병연대는 즉시 지원을 요청하는 電文을 보냈으며, 아울러 勇戰奮鬪하다가 부상을 입게 된 Richard G. Wilson 일등병을 긴급히 구호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때 마침 美 제 1 군단의 全面的인 진격작전이 전개되었으므로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美 제 1 군단장 Milburn 소장은 平壤이 함락되던 10월 20일에 MacArthur Line으로 계속, 진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MacArthur Line은 鴨綠江에서 56km 南쪽에 東西로 통하는 線으로 城津—豊山—昌員—古仁洞—宣川을 연결하는 線이다. 英 제 27 여단(장, Basil A. Coad 준장)을 배속받은 美 제 24 사단(장, John H. Church 준장)이 이 공격을 先導하였고, 右側에 있는 국군 3개사단, 즉 美 제 1 군단에 배속된 제 1 사단(장, 白善燁준장)과 韓國軍의 제 2 군단 예하 제 6 사단(장, 金鐘五준장) 및 제 8 사단(장, 李成佳준장)이 北쪽에 대한 공격에 合勢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美 제 8 군의 총공격에 있어서 美 제 27 여단은 大同江을 渡河한 뒤에 道路를 따라 肅川을 공격하고 淸川江으로 추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夜間이었기 때문에 永柔里 근처에서 前進을 멈추고 말았다. 英 제 27 여단은 10월 21일 밤에 1.6~3.2km 北쪽에서 심한 야간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22일 새벽에 英 제 27 여단의 제 1 대대(Argyll 대대)는 2개 중대가 먼저 永柔里에 突入하였으나, 여기서부터는 濠洲軍 제 3 대대(장, Green 중령)가 美 제 89 전차대대 D중대의 전차에 탑승하여 C중대(장, A. P. Dennes 대위)를 先頭로 英 제 27 여단의 제 1 대대를 追越하였고, 전차 승무원들은 연대전투단과 접근하여 있었기 때문에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다.

濠洲軍 부대의 C중대장 Dennes 대위와 그 중대원들은 永柔里 바로 北쪽 道路 양쪽에 있는 果樹園에 진출하였을 때 불시에 敵의 소총사격을 받았다.

C중대의 장병들은 즉시 전차에서 뛰어 내려 着劍을 하고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불을 토하고 있는 사과나무 과수원 속으로 뛰어 들어 갔다. 이러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美軍 장교는 말하기를 "붉은 색 頭髮의 한 濠洲軍이 불을 뿜는 敵의 교통호에 뛰어 들어 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양손에는 무수한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에서는 鮮血이 狼藉하였으며, 머리부터 발 끝까지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라고 하였다. 나중에 알아 보았더니 과수원 속에는 敵의 시체가 8具나 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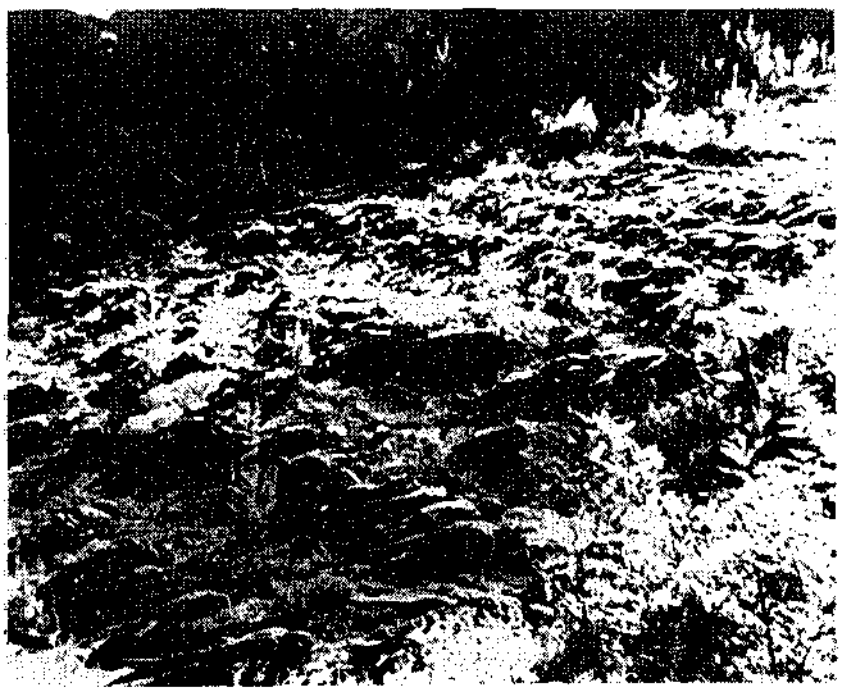
濠洲軍 제3대대장 Green중령은 道路의 右側方 높은 지대를 점령하기 위하여 두번째의 중대를 投入시킨 다음, 뒤 따라서 세번째의 중대를 增援시켰으며, C중대의 뒤를 이어서 道路 左側方에는 네번째 중대를 또 追加시켰다.

이 싸움에서 敵은 소총 및 자동화기는 물론이고 박격포까지 사용하였는데, 濠洲軍 대대는 소총과 수류탄 및 銃劍만으로 끝까지 싸웠던 것이다.

대대장 Green중령은 모든 소총중대를 散開시킨 뒤에 자신이 본부요원 및 사람을 거느리고 과수원으로 급히 뛰어 들어 갔는데 이때에 敵이 급습사격을 가하여 왔다. 과수원 속에서는 격투가 벌어진 결과 敵 34명을 사살하고 대대장의 보좌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뒤 1개 소대는 과수원 너머에 있는 논을 횡단하면서 노적가리 속에 숨어 있는 敵들을 찾아내는대로 모두 사살하였다.

이 白兵戰에서 敵 270여명이 사살되었고, 또 200여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濠洲軍은 단 7명만이 부상을 입었을 뿐이었고, 殘敵들은 西쪽으로 패주하고 말았다. 英軍의 Middlesex 제1대대는 濠洲軍 부대를 追越하여 이날 11.00에 美 제187공수보병연대와 合勢하였다.

한편 공수보병연대의 제3대대는 永柔里 전투에서 805명의 敵을 사살하고 681명을 포로



〈順川지구에서 敵은 美軍 포로들을 대량학살하고 패주하였다.〉

로 하였는데, 敵 제239연대는 공수보병연대와 英 제27여단의 挾擊으로 사실상 격퇴되다시피 되었다. 이날 午後에 제3대대는 英군 부대와 함께 龍川으로 되돌아 왔고, 여기에서 英 제27여단은 美 공수보병연대와 陣地를 교대하였다.

그런데 永柔里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美 공수보병연대의 제2대대는 順川 投下 지역에 남아서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接戰을 하고 있었으며, 국군 제6사단 (장, 金鍾五준장)은 順川市外에서 敵의 낙오병들을 掃滅시키고 있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美 제187공수연대(공수보병연대, 혹은 공수연대전투단)의 당초의 목적이었던 포로 구출은 물론, 전투경과의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破壞가 되고 말았고, 敵의 大部隊의 퇴로를 차단한다는 것도 이미 淸川江을 건너간 뒤라 대단한 成果는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美 제187공수연대의 제3대대와 英 제27여단은 永柔里에서의 싸움이 있은 (10월 22일) 뒤, 龍川으로 되돌아 갔고, 거기서 美 제187공수연대는 英 제27여단과 陣地를 교대하였으며, 다음날인 23일에는 補助道路를 이용하여 順川을 통과, 平壤으로 되돌아 왔다. 11월 3일에는 後續지역의 격멸작전 임무를 끝내고, 金泉을 경유, 北進하여 온 philippines大隊를 배속 받았다. 그 左側의 公路는 美 제24사단과 英 제27여단의 기동에는 아무런 支障을 주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順川—順川 부근의 空輸投下 遮斷作戰에서 美 제187공수연대는 投下時에 46명, 地上戰鬪에서 65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리고 MacArthur元帥가 예상하였던 敵의 포로는 15,000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잡힌 포로는 3,818명 밖에 되지 않았다. 즉 공수投下는 성공적이라 하겠으나, 차단작전은 예상하였던 바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고 하겠다.

한편 美 제1기병사단의 부사단장 Allen준장 일행에 의하여 鴨牛峽 北쪽의 鐵路 터널 부근에서 救出된 생존자 21명은 역시 그 부근 一帶에서 찾아낸 시체와 함께 國軍 分遣隊의 努力으로 日本으로 떠날 C-54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는 平壤으로 호송되었다.

국군 先鋒隊는 敵의 가비운 저항을 물리치면서 10월 23일에는 熙川 北方에 진격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국경에서 72km 떨어진 곳이었다.

한편 英 제27여단은 10월 23일 新安州에 突入하고 있었다.

이 기간 중의 종합적인 전과와 손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전 과		손 실	
사살 1,122명	포로 3,818명	전사상자 166명	실종 90명
포로구출 28명			

2. 成川—价川—熙川 進擊戰 (59년 10월 20일부터 59년 10월 22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39 호
상 황 도 제 42 호
작명부록 제 17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我 軍	
제 2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 2 대대	장 중령 金 鍾 洙
제 6 사단	장 준장 金 鎭 五	제 3 대대	장 중령 印 聖 臨
제 2 연대	장 대령 咸 炳 善	제 19연대	장 대령 金 益 烈
제 1 대대	장 소령 石 順 天	제 1 대대	장 소령 金 陵 敎
제 2 대대	장대리 대위 李 聖 勉	제 2 대대	장 소령 金 旭 篆
제 3 대대	장 소령 宋 大 厚	제 3 대대	장 소령 朴 徹
제 7 연대	장 대령 林 富 澤	지원부대	
제 1 대대	장 중령 金 容 培	제 16포병대대	장 소령 金 堅

나. 전투 진의 개황

제 6 사단은 平壤을 공격, 탈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 10월 15일 元山—德源을 출발하여 18일 22.15에 제 7 연대 제 2 대대는 陽德을 점령, 확보하고, 戰果를 확대하면서 계속 成川까지 진격하였는데, 19일 12.00에 이르러 제 1 사단과 UN軍 부대가 이미 平壤을 탈환하였기 때문에, 사단은 군단장 命에 의하여 진격方向을 바꾸어, 成川으로 부터 順川—价川—熙川 쪽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한편 제 8 사단은 18일 江東까지 진격하여 平壤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으나, 역시 군단장 命에 의하여 다시 진격方向을 北쪽으로 되돌려 군단의 右側 사단으로서 假倉—北倉—江界線으로 진격 중이었다. 이 무렵 美 제11공정사단 제187공수연대(장, Bowen 대령)는 19일 敵 主力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平壤 부근에 拘留된 美軍포로를 구출할 목적으로 順川과 順川부근에 空挺投下되었으며, 東部戰線의 首都사단은 19일 咸興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敵은 각 부대의 패잔병들로 혼성된 부대로서, 楚山—江界 쪽으로 퇴각하면서도 一面 유격전을 企圖하고, 中共軍이 不法侵入할 때까지 지연전을 전개함으로써, 我軍을 험준한 山岳지대로 깊

숙히 誘導하여 主要道路 周邊에 병력을 엄밀히 배치하고 我軍의 後方 補給路를 遮斷함으로써 一大 包圍戰을 企圖코자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 6 사단장 金鐘五준장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陸本 作命 제 218 호(作命附錄 제17호)에 의한 제 2 군단 작전계획에 따라, 제 7 연대(장, 林富澤대령)와 제19연대(장, 金益烈대령)를 공격梯隊로 하고, 제 2 연대(장, 咸炳善대령)를 예비대로 控置한 다음, 順川—价川—安州를 공격하는 즉시로 熙川 쪽으로 진격을 계속토록 하였다.

『(가) 가능한 限 최단시일 內에 제 2 군단 사령부를 포함한 全 兵力을 江東 西南方으로 이동시키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道路를 경유하여 西쪽으로의 공격을 계속하라.
(나) 제 6 사단은 成川을 공략한 다음, 順川 경유, 安州를 占領하라.』

(2) 작전실시

10 월 20 일 : 제 7 연대(장, 林富澤대령)는 제 1 대대(장, 金龍培중령)와 제 2 대대(장, 金鍾洙중령)를 공격梯隊로 하고, 제 3 대대(장, 印聖順중령)를 예비대로 하여, 이날 07.00에 徒步로 成川을 출발하여 順川 쪽으로 진격하던 중, 最前方에서 진격하는 연대 수색대로

〈제 2 군단 참모장 李翰林준장이 진격작전을 통제하고 있다.〉

부터 敵情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敵은 이미 順川 北쪽으로 퇴각하고 敵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즉시 연대 전 병력을 차량으로 전술적 機動을 하여 急進시키므로써 이날 20.00에는 이미 順川으로 돌입하였다. 그런데 美 제11공정사단 제187연대(장, Bowen 대령)는 이날 14.20에, 敵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美軍 포로를 救出할 목적으로 順川 西南 쪽 3.2km 지점에 空挺投下하였는데, 이날 제7연대 主力이 順川으로 돌입하자, 서로 얼싸 안고 반가워 하였다. 이때 공수대원들은 우리가 노획한 蘇聯製 권총과 다발총을 기념물로 줄 것을 희망하기에 노획품의 일부를 넘겨 주기도 하였다. 여곳 順川에는 敵의 後方사령부가 있던 곳으로서 敵은 황급히 패주하면서 많은 보급품을 그대로 남겨둔 채 패주하였다. 이때 노획한 보급물자는 대부분 我軍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닥아 올 월동준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10월 21일 : 제7연대 제2대대(장, 金鍾洙중령)은 이날 06.00에 价川(軍倡里) 南쪽 15km 지점까지 진격하였는데, 이곳에서 1개 중대규모의 敵과 부닥치게 되었다. 대대장은 즉시 대대 全火力을 집중함과 동시에 일제히 이 敵을 추격, 섬멸토록 명령하였다. 이때 敵은 周邊 山岳지대로 분산, 패주하면서 散發的인 저항을 企圖하였으나, 대대장은 더 以上의 추격을 중지시키고 价川쪽으로 서서히 전투를 위한 前進을 계속토록 하였다.

한편 예비대인 제3대대(장, 印星頊중령)는 順川에서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초월하여, 北쪽 50km 지점에 있는 价川을 이날 안으로 점령, 확보하라는 要旨의 연대장의 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대대장 印星頊중령은 대대 全병력을 제9중대, 제10중대, 제12중대, 그리고 제11중대의 順으로 价川을 向해서 차량으로 급속도 진격토록 하였다. 그런데 도중에서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道路上을 二列 縱대로 北上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대대장은 예하 각 중대장과 대대참모들을 모아 놓고, 현재 대대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서, 价川까지 진격해야 하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연대장의 명령수행을 시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이 敵과 교전할 여유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 대대장은 敵 행군대열의 中央을 그대로 돌파하여 价川까지 急進할 것을 결심하였다. 대대장 印星頊중령은 차량화된 全 대대를 敵 행군대열의 中央으로 돌파, 前進토록 하면서 자동차 위에서 크게 외치기를 "戰爭은 이제 끝났으니 총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敵은 대부분 총을 버리고 四方八方으로 흩어졌으며, 일부는 周邊 山岳지대로 패주하고 말았다. 따라서 대대는 1발의 소총도 쏘지 않고 价川까지 진격하였다. 뒤 이어 연대 수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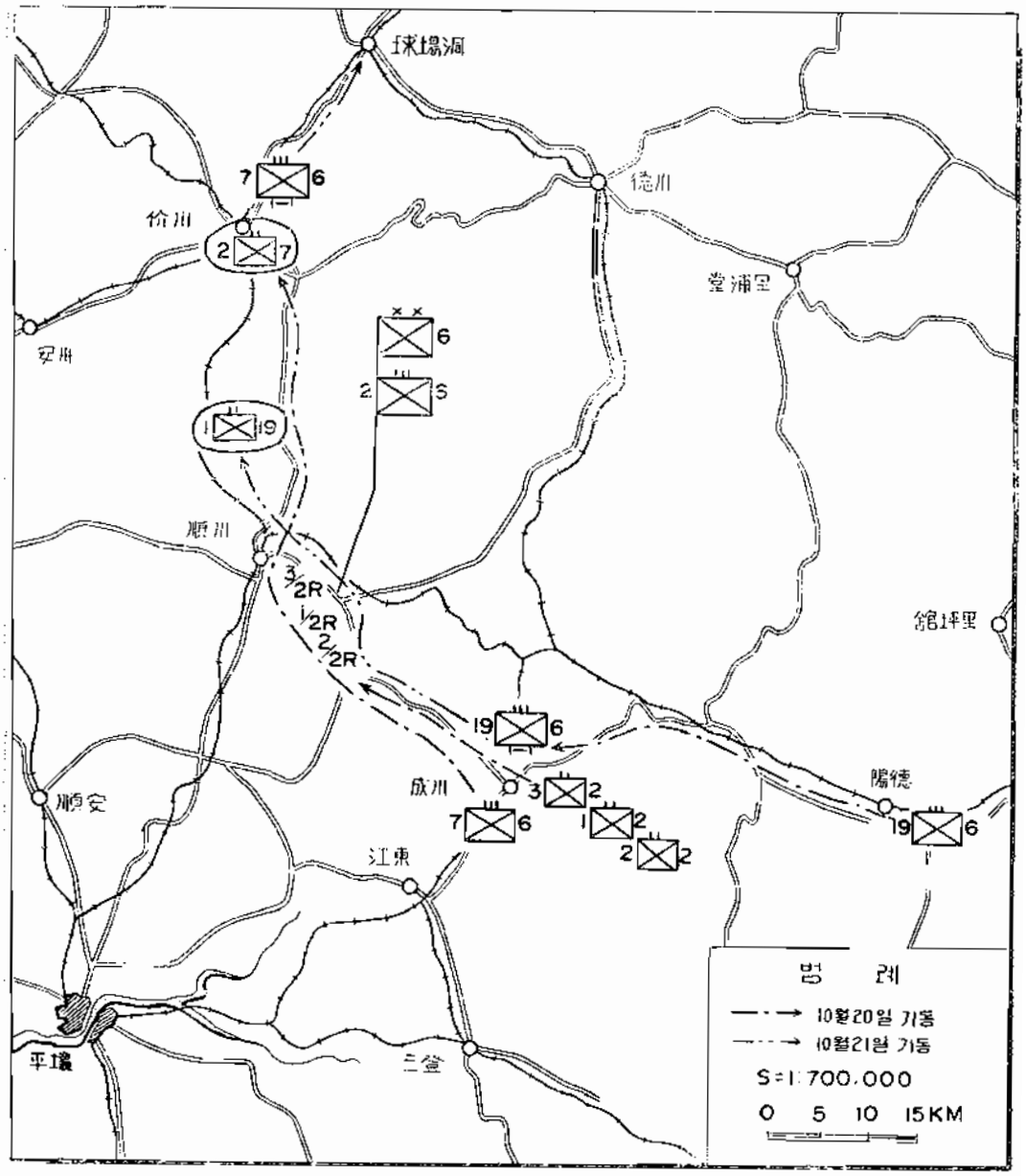
〈价川의 제1인민약국에서 노획품을 정리하고 있는 제7사단 의무대〉

중대가 价川으로 前進하던 중 도중에서 이 대대와 조우하였던 敵으로 부터 기습을 받아 예기치 않았던 손실을 입었으나, 곧 이 敵을 격파하고 价川까지 전격하였다. 이 무렵 연대 主力은 順川—价川 사이를 前進하고 있었다.

이날 밤 价川을 점령, 확보한 대대는 3개 소총중대를 价川 외곽지대에 배치하여 四周경계에 임하도록 하고, 중화기중대와 대대본부는 新安州에서 价川에 이르는 道路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21.30에 新安州 쪽에서 列車가 价川 쪽으로 汽笛을 울리면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대장 印聖鎬중령은 즉시로 대부본부 기간요원과 중화기중대 병력으로 하여금 線路邊에 배치토록 하고, 列車가 价川驛으로 들어가는 것을 대기하고 있도록하여, 기습공격을 가하기로 결심하였다. 敵은 我軍이 벌써 이곳 价川까지 진격하였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고, 대대장은 列車가 우리 병력이 배치된 중앙으로 접근하였을 때, 일제히 사격을 명령하였다. 그중 81mm 박격포彈 1발이 기관차에 명중하므로서 列車는 정지되고 기관사 1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列車 호송병들은 당황하여 패주하였다. 이 列車에는 많은 보급품과 蘇聯製 전차 7대, 그리고 각종 火器가 新品인채 적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노획하였다. 이때 노획한 보급품 중에 敵의 군복(작업복)이 많이 있었는데, 대대본부 요원과 중화기중대 사병들에게 한벌씩 나누어 입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다시 前과 같은 方向에서 列車가 들어오고 있었

상황도 제 42 호 成川—价川 戰鬪(50. 10. 20~21)



는데, 이번에는 앞의 列車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列車 역시 이곳에서 정지되었고, 이 列車는 정지됨과 동시에 기관사를 비롯한 호송병들은 황급히 四方으로 흩어져 敗走하였다.

한편 제19연대는 이날 13.30에 順川을 출발하여 龍源里까지 前進한 다음, 부대정비에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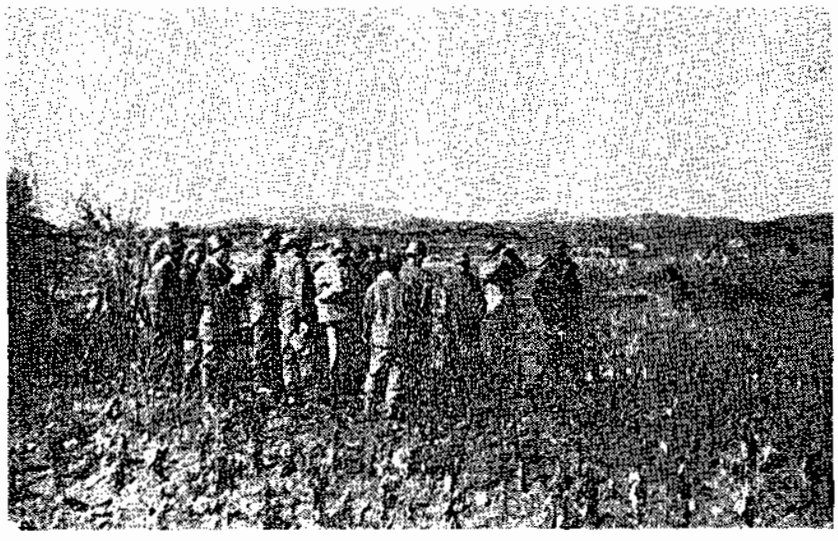
하고 있었으며, 전날 저녁 成川까지 前進한 제 2 연대는 이날 08.00 제 3 대대(장, 宋大厚소령), 제 1 대대(장, 石順天소령), 그리고 제 2 대대(장, 李聖敦대위) 順으로 成川을 출발하여 順川 쪽으로 前進하던 중, 22.00에 이르러 각 대대는 殷山을 통과하여 順川까지 진격하였고, 연대본부와 사단 사령부는 이날 21.00에 殷山까지 약진하였다. 한편 포병대는 공격梯隊의 진격을 근접지원키 위해 順川으로 약진하였다. 이때 順川 南쪽에서 굴속에 숨어 있던 良民들을 놓아 주고 식사를 제공해 주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을 느끼는 듯 기뻐 날뛰었다. 또한 대대장 金 聖소령은 砲彈보급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인접 美軍 포병대대를 방문해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砲彈을 나누어 주도록 요청하였던 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砲彈 800여발 중 400여발을 분배받아 사용하였다.

10월 22일 : 제 7 연대 제 3 대대(장, 印聖龍중령)는 전날 밤 상황이 계속되면서 날이 밝자, 이번에는 新安州 쪽에서 1개 사단규모의 敵이 价川 쪽으로 행군대열을 지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대장 印聖龍중령은 쌍안경으로 敵情을 살펴보니, 敵은 패잔병의 대열로써 後尾에는 전차 10여대가 뒤따르고 있었다. 대대장은 즉시 대대 전병력을 价川 西南쪽으로 은밀히 機動시켜 堤防일대에 배치하고, 急襲을 가하여 敵을 섬멸코자 하였다. 敵은 我軍의 이와같은 試圖를 모르고 先頭부대가 고량 중간에 이르렀을 때, 대대장은 미리 계획된 信號彈을 발사함으로서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敵은 不時에 기습을 당하자 四方八方으로 흩어져 패주하였으나, 我軍의 이미 계획된 火網에 걸려 대부분 격멸, 분산되었다. 이때에 敵은 量的으로 우세한 병력이었으나, 戰意를 상실한 패잔병의 집단으로서, 我軍의 기습공격에 부닥쳐 그야말로 烏合之卒이 된 채 散之四方으로 패주하였다. 대대는 戰場整理도 할 사이 없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날 07.00 제 7 연대 主力과 같이 熙川 쪽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한편 제19연대(장, 金益烈대령)는 이날 12.00에 龍源里를 출발하여 价川까지 前進하였는데, 제 3 대대(장, 朴 徹소령)는 105mm 곡사포대와 대전차포대의 지원을 받아 寧邊 쪽으로 진격을 계속하던 중, 이날 19.30에 1개 중대규모의 敵과 부닥치게 되자 대대는 지체하지 않고, 곧 돌격대형으로 展開하는 동시에 일제히 敵陣을 향하여 돌진한 다음, 敵을 一擊에 격파하고 寧邊을 점령, 확보하는 즉시로 周邊일대의 경계에 임하였다.

이때 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온 중에 서울에서 납북되어 이곳까지 끌려온 소설가 朴啓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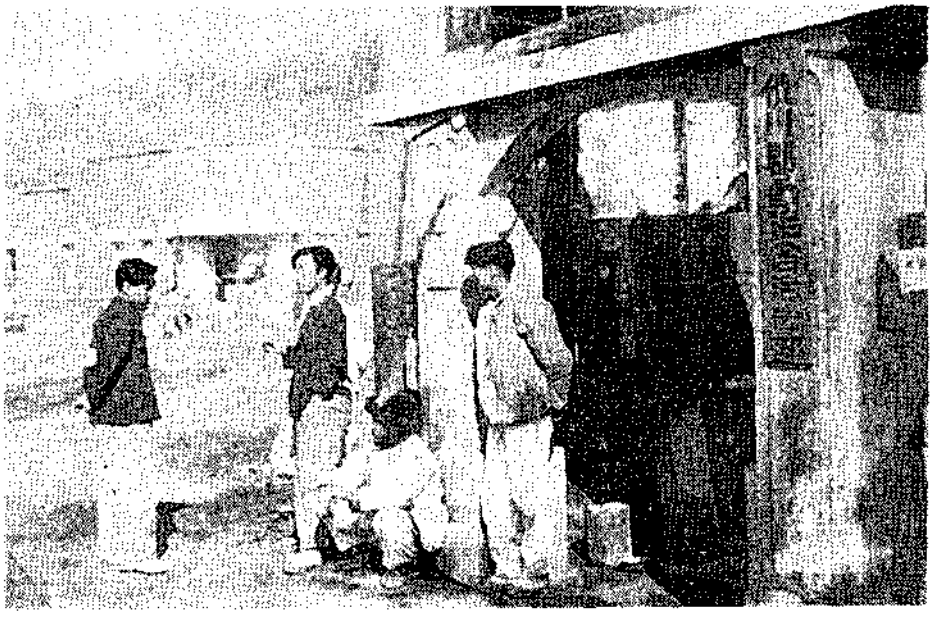


〈熙川지구의 제2군단 야전지휘소〉

를 발견하였는데, 곧 그분을 연대본부를 통해서 사단 사령부로 보냈다.

한편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의 상황을 살펴 본다면 제1대대(장, 石順天소령)는 이미 价川까지 前進하였으며, 제2대대(장, 李聖熙대위)와 제3대대(장, 宋大厚소령)는 价川 南쪽 2km 지점까지 前進하여 殘敵섬멸과 四周경계에 임하고 있었다. 이날 사단 主力의 진격상황을 직접 陣頭지휘하기 위하여 順川까지 나와 있던 사단장 金鐘五준장은 사단 정보참모 柳陽洙소령으로 부터, 順川 北쪽에 있는 터널 속에 美軍 포로가 학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단장은 즉시 美軍 고문관을 대동하고 현장으로 날려갔는데, 美軍 포로 200여명이 학살되어 있었으며, 시간적으로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그 신음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으니, 降者不殺은 兵戰의 根本原理이거늘, 不運한 포로들을 이와같이 죽일 수 있을까? 더구나 뿐만 아니라 참상하게 남은 포로들이 겹겹이 포개어져 있었으니, 그 給養의 不良함도 能히 짐작이 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지옥 속에서도 天幸으로 겨우 살아 남은 생존자 20여명을 발견하였으므로 급히 救急車를 동원하여 後方병원으로 後送토록 하였으니, 神의 加護를 받을 수 없는 共産徒輩의 蠻行에는 戰慄마저 느껴지지 않을 수 없으리라.



〈价川郡民들의 自治會本部〉

라. 전투 후의 개황

제6사단은 平壤을 탈환할 임무를 띠고, 10월 15일 元山—德源을 출발하여 陽德을 탈환한 다음, 계속해서 19일 成川까지 急進하였으나, 군단장 劉載興소장 命에 의하여 진격方向을 北쪽으로 돌려, 제7연대는 사단의 先鋒隊로서 20日 順川까지 진격하였다. 이로써 사단(장, 金錫元준장)은 최종 목표인 鴨綠江畔까지 급속히 진격하기 위하여,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로 하여금 板下洞—古場을 경유, 楚山으로 진격토록 하고, 제2연대(장, 咸炳培대령)로 하여금 北鎭—大榛洞선을 따라 碧潼으로 진격토록 하는 동시에 제19연대(장, 金益烈대령)는 예비대로서 軍優 쪽에서 제7연대의 뒤를 따르게 하였다.

한편 東部戰線의 수도사단은 22일 北靑—中陽里—新興街道를, 그리고 左側 제1사단은 安州와 价川 중간지점까지 각각 진격 중이었다.

제6사단 사령부는 22일 밤 사단 主力의 急進에 따라 价川까지 약진하여 다시 球場洞으로 前進할 준비를 갖추었다.

§ 戰 訓

◇ 不斷한 상황보고

敵陣 깊숙히 진격하고 있는 부대가 상급부대의 작전지휘 하에서 이탈되었을 경우, 예기치 않았던 위험한 상황이 招來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다. 특히 패주하는 敵을 추원하여, 上部 명령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목표를 점령, 확보하기 위하여, 급히 진격하는 부대가 敵 배각

병 1개대대 병력을 外面한 채 돌파하였을 때 진격하고 있는 부대는 어떠한 수단 방법을 講究해서라도 상세한 상황을 즉시 상급부대에 報告함으로써 뒤 따르고 있는 後續부대는 물론, 次後에 전개될 작전계획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戰意를 상실하고 패주만을 거듭하고 있는 敵이라 할지라도 1개 대대 병력을 완전히 섬멸하지도 않고, 목표점령의 시간적인 制約과 경쟁적인 진격속도 때문에, 한방의 총도 쏘지 않고 敵 행군대열의 중앙을 돌파하여 진격을 계속 하였는데, 이와같은 상황은 즉시 상급부대와 인접부대에 대하여 「우리 부대는 목표점령의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돌파해서 목표로 진격하니, 後續부대는 이 敵을 섬멸하도록 조치하라.」는 報告 또는 연락이 되었다면, 後續부대인 연대 수색중대가 바로 이 敵 패잔병으로 부터 기습을 받아 예기치 않았던 병력의 손실은 없었을 것이다.

총반격작전이 시작된 뒤 38° 線을 돌파하여 北進하는 동안, 대부분의 부대가 그러했드시 시간을 다투어가며 진격에 경쟁을 벌임으로써, 진격부대 後方에 무수히 흩어진 敵 패잔병으로 부터 기습을 받아, 지휘의 혼란은 물론, 애매한 병력손실을 招來하였다는 것은 敵情 판단이 소홀함도 있겠으나, 특히 앞에 진격하고 있는 부대와 상급부대, 그리고 인접부대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不斷하고 긴밀한 報告나 상호협조,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패주하는 敵을 섬멸하고 戰爭을 조속히 終結짓는 데 있어서 「가능한 限 빨리, 가능한 限 全力으로, 가능한 限 깊숙히 공격하라.」함은, 상급부대 작전통제 下에서 이탈되거나, 敵情을 무시하고 진격만 계속하라는 뜻이 아니다. 보다 긴밀하고 상세한 상황보고를 不斷히 取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희생 없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參戰者의 證言

◇ 제 6 사단장 金鍾五준장

(65년 3월 6일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장)

우리 제 6 사단이 順川을 경유해서 价川, 熙川 쪽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順川 北쪽에 있는 鐵道터널 속에 美軍 포로를 많이 학살되었다는 것을 정보참모 柳載洙소령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美軍 고문관을 데리고 직접 美軍 포로들이 학살되었다는 현장으로 나가 보았는데, 美軍 포로만 200여명이 학살되어 있었으며, 시간적으로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음소리가 들리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포로들이 있었다. 빠만 앙상하게 남은 포로들이 검검이 포개이져 있었는데, 나로서는 美軍 고문관을 대하기가 매우 민망스러웠다. 급히 구급차를 동원해서 아직 生存해 있는 美軍 포로들 20명을 後送하였는데, 대부분 蘇生했을 것으로 믿는다.

즉 이들 美軍 포로들은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敵이 급히 패주하면서 포로들을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食事를 支給한다고 속인 뒤, 굴 속에 숨어 있도록 한 다음,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살해 했던 것이다.

◇ 제 7 연대 제 2 대대장 金鍾洙중령

(64년 10월 30일 대한발효 시움사무실 에서 소장)

우리 제 7 연대는 成川에서 진격방향을 北쪽으로 돌려 順川 쪽으로 진격을 계속했었다. 順川邑內에 돌입하였을 때 美 공수연대와 만났는데, 10월 20일 경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美 제11공정사단 제187 연대가 우리 보다 먼저 順川부근에 投下되어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들었으며, 우리 제 7 연대가 順川 邑內에 진격해 들어 가니까 만가와서 얼싸 안고 매우 기뻐했었다. 우리가 敵으로

부터 노획한 蘇製 권총, 다발총등을 기념물로 자기들에게 줄 것을 희망했기 때문에 노획품 전부를 美軍들에게 넘겨 준 일이 있었다.

다음날 우리 제7연대는 价川 쪽으로 진격하였는데 美軍 포로들을 많이 학살한 것을 발견하였다. 敵은 패주하면서 美軍 포로들을 敵 後方으로 끌고 가다가 我軍의 진격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자 미처 달아나지 못하고 옥수수 밭에서 주먹 밥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쉬었다 간다고 속이고 뒤에서 총을 쏘아 무차별 학살한 것이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아직 生存해 있는 포로가 20여명이나 있었으므로 급히 平壤으로 後送한 일이 있다. 美軍 포로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비참했는데, 신도 못 신고 옷도 떨어져서 형편이 없었으며, 그야말로 北傀의 야만적인 행위에 다시 한번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제6사단 제16포병대대장 金 聖소령

(67년 9월 29일 仁川東洋化學 에 근상)

우리 포병대대는 제6사단의 진격을 지원하면서 順川 南쪽 2km지점까지 밤에 진격해 들어갔는데 굴속에 숨어 있던 良民들을 소집 놓아 주고 밥을 주었더니, 그들이 기뻐 날뛰던 모습이 아직도 生生하게 생각난다.

다음 날 우리는 포탄이 떨 십발 밖에 없었기 때문에 美軍 포병부대를 찾아가 보니, 美軍 포병부대는 800여발의 포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韓國軍 포병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 美軍은 쾌히 應해 주었기 때문에 400여발을 분배받아서 유효하게 사용한 일이 있었다.

그후 价川 쪽으로 진격하는데, 도중 여러 곳에 敵의 군수물자가 많이 쌓여 있었고, 敵의 列車는 대부분 터널 속에 숨겨져 있었으며, 价川 좀 못 미쳐서 良民들 70여명이 비참하게 학살된 현장을 목격했었는데, 어떤 부인은 어린애를 업은 채로 射殺되어 있었다.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현장을 목격하였다.

◇ 제7연대 제3대대 정보관 朴容德소위

(66년 11월 2일 제2군사령부 관리참모부 · 대령)

우리 제7연대가 价川에 진격해 들어간 것은 10월 22일 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金日成이가 타고 다녔다는 승용차를 노획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儡傷軍이 패주하면서 끌고 올라간 고급승용차와 기타 많은 차량, 또는 물자가 그대로 버려져 있었는데, 우리가 順川에서 13.00에 50km北쪽에 위치한 价川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敵情도 모르고 시간적으로도 도저히 价川 점령이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우리 제7연대 제3대대는 차량으로 전격하게 되었다. 价川 南쪽 16km지점에 이르렀을 때 道路上을 二列 종대로 北上하고 있는 敵 1개 대대 병력을 발견하였는데, 이 敵과 교전한다면 价川까지 진격해야 할 시간이 지연되고, 价川을 오늘로 점령하라는 上部 명령이 있었고 해서 곤란한 상황에 봉착했는데, 대대장 田鳳德중령 이하 전 장교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총을 쏘지 말고 차량으로 그대로 敵이 행군하고 있는 中央을 돌파하기로 결정하고, 제일 先頭車에 내가 타고 敵의 행군대열 중앙을 돌파하면서, "전쟁은 다 끝났으니, 총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 가라."고 소리쳤는데, 敵은 대부분 총을 버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만세를 불렀으며, 일부 無識分子와 幹部級들은 그대로 四方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1발의 소총도 쏘지 않고 敵의 행군대열 중앙을 돌파해서 20.00 价川市內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키고 軍歌를 소리높이 부르면서 진격해 들어갔다. 이곳에서 약간의 敵과 市街戰이 벌어졌었는데, 우리는 21.00 价川邑內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价川부근은 비교적 개활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

에 3개 소총중대를 외곽지대에 배치하여 四周경계에 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제7연대 수색중대가 우리 제3대대의 뒤를 따라 价川 쪽으로 진격해 오다가 우리 제3대대와 조우했던 敵 패잔병과 다시 조우하여 교전이 벌어졌다. 順川에 있는 연대본부와 無電 交信도 안 되고, 价川부근 高地에는 敵이 모는 신호탄이 오르고, 우리들은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21.30 新安州에서 价川을 경유해서 熙川 쪽으로 가는 鐵道가 있는데, 新安州 쪽에서 价川을 向해서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대대본부 요원들로 하여금 線路邊에 병력을 배치한 다음, 대기하고 있었다. 敵은 我軍이 벌써 이곳 价川까지 진격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汽笛을 울리면서 들어오는 것을 일제히 사격을 가하여 81mm 박격포彈 1발이 기관차에 명중되어 기차는 정차되고 기관사 1명을 잡았을 뿐, 敵은 모두 도주해 버렸다. 그리고 화차에는 주로 敵의 보급품과 蘇製 전차 7대 각종화기가 新品으로서 구리스 칠을 한 채로 적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新安州 쪽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앞의 기차가 정지 되어 있으므로 사격을 하지 않았어도 뒤 따라 들어오던 기차는 자동적으로 정지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下에서 날이 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新安州 쪽에서 敵 1개 사단 병력으로 추산되는 대부대가 徒步로 행군해서 价川 쪽으로 들어 오고 있었다. 쌍안경으로 敵情을 자세히 살펴 보았더니, 뒤에 전차 10여대가 따라오고 있었다. 우리 제3대대는 즉시 新安州쪽 提防에 병력을 배치하고, 敵이 근거리까지 접근하도록 대기하고 있다가, 敵의 先頭가 교량 중앙부분까지 도달했을 때, 左右 正面에서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敵은 魂飛魄散이 되어 四方八方으로 흩어지며 패주하고 대부분의 敵은 이곳에서 섬멸되었다.

그후 우리는 熙川 쪽으로 진격을 계속했는데, 이곳 价川에서 교전이 없었으면 熙川으로 진격하는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확인 정보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붙잡아 온 北傀 傀首金日成 운전수의 말에 의하면 약 2시간 전까지 金日成이 이곳 熙川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 제6사단 제19연대 작전주임 朴定仁대위

(65년 12월 8일 국방대학원 대령)

우리 제19연대 제3대대가 价川에서 寧邊 쪽으로 진격을 하다가 敵 1개 중대 병력과 조우하여 교전이 벌어졌었는데, 연대 작전주임인 나도 제3대대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다. 寧邊입구 城이 있는 곳에서 敵으로 부터 不意의 반격을 받았으나, 곧 격파해 버렸는데, 그때 서울에서 傀儡에게 납치되어 이곳 寧邊까지 끌려 왔던 소설가 朴路周를 傀儡軍과 같이 붙잡아 왔다. 傀儡軍 軍官이라고 붙들려 온 朴路周를 우리 金洪根대위가 알아 보고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읍니다." 라고 인사를 해서 이분이 바로 유명하신 소설가 朴路周임을 알고 그분을 곧 연대본부를 통해서 사단사령부로 보내드린 일이 있었다. 정말 산적스러운 장면이었다.

3. 楚山 進擊戰 (50년 10월 23일부터 50년 10월 26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40,4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제2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2대대 장 중령	金 鍾 泽
제6사단 장 준장	金 鍾 五	제3대대 장 중령	白 聖 唐
제7연대 장 대령	林 富 澤	지원부대	
제1대대 장 중령	金 龍 培	제16포병대대 장 소령	金 聖
제2군단 장 중장	金 武 亭	제8사단 장 소장	吳 白 龍

나. 전투 전의 개황

총반격작전이 시작된 以來, 中部戰線의 험준한 山岳지대 만을 따라 北進을 계속한 제2군단은 10월 시일 안에 韓·滿국경선 鴨綠江畔에서 敵을 섬멸하여 국토통일의 大業을 이룩하고자 日夜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제6사단은 어느 사단보다도 빨리 淸川江 제곡을 急進하여, 10월 23일 밤에는 이미 熙川에 돌입한 다음, 다시 西쪽으로 그 銳鋒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7연대(장, 林富澤대령)가 가장 先頭에서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연대는 西쪽으로 돌진하여 輝城嶺을 넘어 楮木洞—板下洞을 목표로 계속 진출할 준비를 갖추었다. 각 대대는 단독으로 進擊路를 개척하면서 敗敵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그 최종 목표인 楚山까지는 불과 80km정도 남겨 놓고 있었다.

敵은 平壤 부근에서 패주하여 제1차 방어선인 淸川江에 이르자 최대한의 지연전을 계속하면서 퇴각 중이었으며, 楚山 부근의 敵은 9월 중순 新寧—鳥林山 전투에서 8사단에 의하여 참패를 당한 바 있던 제8사단의 主力으로써, 我軍을 敵 陣地 깊숙히 유도한 연후에 包圍, 섬멸한 企圖로서 進擊路兩側의 敵制高地를 점령하고 不意의 急襲으로써 我軍에 痛打를 가하여 보고자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제 2 군단장 劉載興소장은 鴨綠江畔을 制壓하면서 韓·滿국경선을 監視함으로써 國土統一을 完遂하려는 작전개념으로 제 6 사단(장, 金鍾五준장)으로 하여금 水豊땜으로부터 西쪽지역을 담당토록 하고, 제 8 사단(장, 李成佳준장)으로 하여금 그 東北側으로 滿浦鎭方面을 담당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 6 사단장 金鍾五준장은 제 7 연대(장, 林富澤대령)를 右一線으로 하여 楚山을 목표로 진격토록 하고, 제 2 연대(장, 咸炳善대령)를 左一線으로하여 碧潼을 목표로 돌진토록 하는 동시에 제19연대(장, 朴琉赫중령)를 예비대로 控置케 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 7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사단의 右一線 연대로서, 제 1 대대(장, 金龍培중령)를 先頭대대로 하고, 제 2 대대(장, 金鍾洙중령)와 제 3 대대(장, 印聖瑢중령)順으로, 棟城嶺을 넘어 楡木洞—板下洞—古場을 점령, 확보한 다음, 계속하여 楚山으로 돌입함으로써 鴨綠江邊을 확보케 하고, 제 1 대대로 하여금 楚山지구를 점령케 하는 동시에 이어서 연대 主力은 楚山으로 진격토록 하였다.

(2) 작전실시

10 월 23 일 : 제 7 연대 제 1 대대는 熙川을 점령, 확보한 다음, 연대 작전계획의 변동으로 인하여 대대장 金龍培중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예하 각 중대에 하달하였다.

『제 1 중대(장, 李大溶대위)는 대대의 일부로써 방향을 바꾸어 西쪽으로 진격하여 棟城嶺을 넘고, 楡木洞—豊陽—古場을 거쳐, 楚山을 점령하는 즉시로 鴨綠江 국경선을 경비하라.』

이에 따라서 제 1 대대는 熙川—寧邊쪽에서 北쪽으로 패주하는 敵을 계속 추격하여 이를 격멸하면서, 이날 14.00에 熙川을 출발하여 棟城嶺 부근에서 준동하는 1개 소대규모의 敵을 一擊에 격파한 다음, 20.00에 楡木洞까지 진격하였으며, 제 2 대대(장, 金鍾洙중령)는 제 1 대대에 뒤따라 또한 이에 뒤질세라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제 3 대대(장, 印聖瑢중령)는 연대본부와 같이 球場洞에서 차량으로 泰平을 경유하여 이날 13.15에 溫井里까지 진격한 다음, 계속 楡木洞 쪽으로 진출하던 중 18.00에 이르러 龍淵 南쪽 鏡德洞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최후 저항을 감행하려는 1개 대대규모의 敵과 부닥쳐 30분간에 걸친 교전 끝에 이 敵을 西쪽 멀리 大岩峰 쪽으로 물리치면서 乘勝長驅로

龍淵까지 진격하였다.

이 무렵 연대본부에는 泰川부근에 中共軍이 출현하였다는 소문이 들어 왔고, 이 지방 住民들이 동요가 있는듯이 보였으나, 이는 共産分子들의 逆선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러한 浪說을 모두 一蹴하고 다만 진격만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0월 24일 : 제 7연대 제 1대대(장, 金龍培중령)는 전날 이래로 진격을 계속하던 바, 이날 朝食을 위한 2시간의 휴식과 부대정비를 끝마친 다음, 제 3중대를 先頭로 제 1중대(장, 李大溶대위), 제 2중대 順으로 楚山을 向해 急進하였으며, 제 2대대(장, 金鍾洙중령)는 제 1대대에 뒤질세라 그 뒤를 따라 급진 중이었다. 이리하여 兩江洞을 통과할 무렵, 道路 양쪽 高地에서 병력 未詳의 敵으로 부터 不時에 기관총의 집중사격을 받았는데, 先頭에서 약진하고 있던 제 3중대는 즉시 박격포의 砲門을 열어 집중탄으로 이 敵을 제압하는 동시에 연대장은 제 1대대를 右側으로, 그리고 제 2대대를 左側으로 급히 展開케 하여 道路 연변을 따라 퇴각하는 敵의 머리 위에 사정없이 銃砲의 洗禮를 퍼부었으니, 板下洞에 이르기까지 그 火力을 멈추지 않았다. 이곳에서 연대는 1개 소대의 강력한 수색대대를 편성하여 敵情 수색에 임하였는데, 이날 23.00에 수색대에 入手된 첩보는 泰川부근에 中共軍이 출몰하였다는 예기치 않았던 소식이었다.

한편 제 1대대장 金龍培중령은 板下洞에서 敵의 通信線을 逆利用하여 豊場에 있는 소속 未詳의 敵에 대하여 급히 增援할 것을 요청토록 하였는데, 敵은 我軍의 기만통신에 속아 30여명의 응원병이 차량으로 南下하여 왔으므로 즉시 이 敵을 全員 포로로 잡아 敵情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때에 이들 포로들로 부터 中共軍이 출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楚山에 이르는 豊場—古場 부근의 敵情에 대한 첩보도 입수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敵情에 대한 보고를, 제 7연대장 林富澤대령으로 부터 받게 된 사단장 金鍾五준장은 中共軍이라고 결코 대수로운 存在가 못 되니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까닭으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계속 진격토록 명령하였다.

10월 25일 : 제 7연대는 板下洞에서 古場에 이르는 街道를 따라 진격하면서, 어제 지역에 잡은 포로들로 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여, 豊場 東南쪽 高地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敵 2개 중대규모의 병력에 대하여 81mm 박격포의 一齊 집중사격을 가하여 분산, 패주케 하는 즉시로 豊場을 확보한 다음, 계속 급진하여 18.00에 古場 南쪽 安谷洞까지 진출하였다. 敵은 古場을 死守할 목적으로 東北쪽 野山 일대에서 1개 대대규모의 방어진지를 점령하는 한

〈韓·滿국경선인 楚山에 先鋒으로 돌입한 我 제7연대 제1대대 장병들〉

편, 그 南쪽 富坪洞에 1개 중대, 그리고 古場 北쪽 加馬峰에 1개 중대, 또 그리고 그 西쪽에 1개 중대병력을 각각 배치하여, 我軍의 鋭鋒을 꺾어 보고자 死力을 다 하는듯이 보였다.

연대는 安谷洞으로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제1대대를 古場 東쪽으로, 제2대대를 西쪽으로, 그리고 제3대대를 正面에서 각각 展開토록 하여 일제히 공격을 決行하였는데, 敵은 督戰까지 감행하면서 斷末魔의 最終發惡을 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2시간 이상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이 敵은 江界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연대는 20.30에 古場 일대를 점령,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韓·滿국경선에서 30km를 남기게 되는 線까지 진출하게 된 연대는, 左右 인접부대와 充分한 연락을 유지하지 못한 가운데 敵陣 깊숙히 진격하였기 때문에 곧 敵의 반격에 對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2대대로 하여금 古場 西쪽 일대에, 그리고 제3대대로 하여금 古場 北쪽 高地 일대를 각각 점령케 하여, 四周경계에 임하도록 하면서, 敵情을 수색토록 措置하였다.

한편 제2연대(장, 咸炳善대령)는 이날 溫井里 西北쪽 東林山을 向해서 진격하던 중 中共軍(제40군 제118사단, 제119사단, 제120사단)과 不時에 부닥치게 되었는데, 彼我間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게 되어 銃砲聲이 山野를 흔들고 왱가리와 피리소리가 돌격승을 놀라게 하였다.

이 무렵 鴨綠江邊의 한 맷사공의 말에 의하면, 10월 20일 中共軍 5명이 말(馬)을 타고 滿浦鎭—渭原을 거쳐 연락차 昌城으로 간다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滿浦鎭에는 中共軍이 3일간에 걸쳐 맷목으로 밤새도록 鴨綠江을 건넜다는 것이다.

이날 사단장 金鍾五준장은 楚山 진격을 직접 陣頭지휘하기 위하여, 선발대로 진격 중인 제7연대 제1대대(장, 金龍培중령)로 가는 도중 차량 사고로 인하여 負傷하였으나, 사단장은 後送을 거부하고 들것에 실린 채로 계속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10월 26일 : 제7연대는 이날 중으로 楚山을 점령하고 鴨綠江線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1대대(장, 金龍培중령)로 하여금 楚山 쪽으로 急進토록 하고, 연대 主力은 古場 周邊의 要地를 확보하여 敵의 不意의 반격에 對備토록 한 다음, 제1대대가 楚山을 완전히 확보하는 즉시로 연대 主力을 楚山으로 前進시킬 계획이었다.

제1대대장 金龍培중령은 연대장 命에 의하여, 楚山을 점령하여 鴨綠江線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각 중대장에게 하달하였다.

『첫째, 제3중대로서 첨병중대를 삼고, 대대 主力의 先頭에는 제1중대, 제2중대의 順으로 진격토록 하며 노획한 敵차량으로 차량화로써 機動하라.

〈鴨綠江을 향하여 진격 중인 제2군단 제6사단 장병들〉

둘째, 국경분쟁을 유발하지 않기 위하여 滿洲 쪽을 向해서는 단 1발의 銃砲라도 쏘지 말라.

세째, 民間, 良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軍 고용인을 제외한 모든 男女老少를 국경선 以南 8km 線까지 後送, 집결토록 하라.

네째, 국경선 경비는 鴨綠江에 먼저 도달한 부대가 담당하고 대대 主力은 鴨綠江岸까지 진격한 다음, 6km 後方으로 이동하여 楚山에 집결한 다음, 次期 명령을 대기하라.」

〈鴨綠江 물을 뜨는 제7연대의 無名勇士〉

대략 이상과 같은 대대장 명령에 따라 이날 07.00에 대대는 대전차포 1개 소대를 배속받아, 鴨綠江 연변에 위치한 楚山을 점령하기 위하여 용약 진격을 재속하였다.

敵은 洛東江線의 新寧 부근에서 계속하여 遅延戰을 전개한 제8사단(장, 소장 吳白龍)의 각 연대 혼성부대로서 도합 1개 연대규모의 병력으로 楚山 周邊지역을 최후까지 방어하고 있었다.

제1대대는 제3중대를 先頭로 하고, 제1중대, 제2중대 順으로, 국경지대의 初冬이 덮인 山野를 따라 急進하던 중, 楚山 南쪽 6km 지점에서 敵의 기관총사격을 받았다. 제3중대는 차량에서 下車하는 즉시로 展開하여 제1중대와 병행,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때에 81mm 박격포는 차량 위에서 그대로 敵에 대하여 집중사격을 가하였으며, 散兵들은 敵 陣地를 向하여 급히 포위태세를 취하면서 1시간 이에 걸친 교전 끝에 敵 방어선을 포위, 돌파하였고, 대대는 戰場을 정리할 여유도 없이 다시 제1중대를 先頭로 하여 진격을 재속하였으며, 대대장 金龍培중령은 제3중대의 先頭에서 陣頭지휘하였는데, 우리 군대가 이 같이도 능히 勇敢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金龍培 중령이 직접 지휘하는 제 1 중대(장, 李大溶대위)는 대대의 最先頭에서 難音도 요란하게 楚山을 통과하는 즉시로 곧 鴨綠江畔을 향하여 돌진하던 중, 東쪽 高地로부터 또다시 敵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으나, 즉시 應射함과 동시에 과감한 돌격으로 敵을 격파하고, 14. 15에 이르러 드디어 江 언덕 높이 태극기를 꽂았는데, 이 날의 해빛은 유난히도 光彩로웠다. 이리하여 대대는 韓·滿국경선까지 진출하는 最先陣의 영예를 획득하였고, 寤寐間에도 잊지 못하던 민족의 宿願인 南北통일이 이로써 이루어진 것 같은 감격적인 일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제 1 중대장 李大溶대위는 新島場으로 부터 左로, 제 1 소대, 제 2 소대, 그리고 제 3 소대의 順으로 배치하여 국경선 감시에 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 1 대대(장, 金龍培중령)의 主力은 楚山지구 경계에 임하고, 연대 主力은 古場 부근에서 敵의 反擊에 대비해서 철저한 四周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곧 이어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제 1 대대장과 연대 정보, 작전주임을 대동하고 最前方의 江 언덕까지 나와서 勇戰奮鬪하는 장병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 7 연대 제 1 대대(장, 金龍培중령), 제 1 중대장 李大溶대위는 新島場으로 부터 左로, 제 1 소대, 제 2 소대, 그리고 제 3 소대의 順으로 병력을 배치하여, 江邊을 경계토록 하였고, 대대 主力은 楚山으로 이동하여 楚山 周邊경계에 임하였다.

한편 연대 主力인 제 2 대대와 제 3 대대는 古場부근에서 敵의 反擊에 대비하여 철저한 四周警戒 태세를 갖추고 다음날 楚山으로 전진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제 1 대대가 鴨綠江邊을 확보하자 연대장 林富澤대령은 연대 정보, 작전주임을 대동하고 最前方의 鴨綠江邊까지 나와서 勇戰奮鬪하는 장병들을 위로, 격려하였는데, 이때 대통령 李承晩박사와 육군본부에 보낼 鴨綠江 물 두병을 곧 사단사령부로 보내라는 사단장 金錫五준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연대 수색대원으로 하여금 鴨綠江 물을 떠서 사단 사령부로 보냈다.

한편 左側 제 2 연대는 碧潼을 목표로 西北方으로 진격 중이었으며, 10월 26일 美 제10군단은 元山에 大擧 上陸하였고, 西部戰線의 UN軍 부대는 平壤 北方 80km 지점 博川에서 大寧江을 渡河하여 美 제 24사단의 일부 부대는 寧邊으로 진격 중이었다.

전과 및 손실

전 과		각 종 포 : 128문
사살 : 2,411명		중 화 기 : 17정
포로 : 524명		소 화 기 : 2,075정
노획 : 전 차 : 13대		각종차량 : 291대

손 실

전 사 : 27명

전 상 : 195명

실 종 : 1,792명

각 종 포 : 101문

소 화 기 : 1,824정

§ 參戰者의 證言

◇ 제6사단장 金鐘五준장

(65년 3월 6일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장)

元山에서 陽德을 경유해서 成川까지 진격한 다음, 이곳에서 하루 지낵 부대정비 점 휴식을 하고, 그 연후에 군단장 劉載興소장으로 부터 진격명령을 받았다. 즉 제6사단은 鴨綠江의 水豊댐으로 부터 左側 지역을 담당하고, 제8사단은 江界를 공략한 다음, 滿浦鎭 쪽을 담당하여 진격하게 되었다.

成川에서 順川을 경유하여 价川쪽으로 진격하던 중 軍隅里까지 진격했을 때, 많은 피난민들이 밀려서 南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들로 부터 入手한 첩보에 의하면, 中共軍이 鴨綠江을 건너서 大부대가 南下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中共軍이라고 해야 대수롭지 않은 存在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하 전 연대에 대해서 조금도 지체하지말고 계속 진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시 MacArthur사령부에서 크게 잘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中共軍이 불법침입해 오리라는 것은 이미 정보수집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如何間 우리 제6사단은 진격을 재촉하도록 명령했는데, 10월 26일 예하 제7연대 제1대대가 楚山에 돌입하여 「鴨綠江의 물이 보인다.」하는 無電報告가 사단 사령부로 들어 왔을 때는 너무 감격해서 사단장도 來日이면 楚山으로 들어간다고 제7연대장 林富滿대령에게 연락하고 鴨綠江의 물 두병을 떠서 사단 사령부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한병의 물을 국가원수 李承晩대통령에게 보내 드리고 한병은 육군본부로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수색대원이 물 두병을 가지고 철로 편으로 球場洞에 위치하고 있는 사단 사령부로 오는 도중, 溫井里 北쪽에서 敵 패잔병으로 부터 기습을 받았다.

한편 溫井里 西北쪽으로 진격하던 제2연대는 전투에 中共軍과 조우하여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전투에서 포로를 잡아보니 틀림없는 中共軍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사단 정보참모 柳陽洙소령이 國內外 기자 30여명을 데리고 사단장실로 들어왔다. 기자들의 말이 "무상한 몸으로 말을 못하니, 中共軍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종이에다 Yes 또는 No로 응답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종이에 Yes라고 써 주었다.

4. 平壤---寧邊---雲山進擊戰(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 43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1 사단장	준장 白 善 燁	
	준장 崔 榮 喜	
	준장 白 善 燁	
제11연대장	대령 金 東 斌	
제 1 대대장	소령 金	沼
제 2 대대장	중령 車 甲 俊	
제 3 대대장	중령 鄭 永 洪	
제12연대장	대령 金 點 坤	
제 1 대대장	중령 韓 順 華	
제 2 대대장	중령 趙 成 來	
제 3 대대장	중령 金 基 容	
제15연대장	대령 趙 在 美	

제 1 대대장	중령 劉 載 成
제 2 대대장	중령 金 振 暐
제 3 대대장	중령 安 承 健

병 력 : 약 10,000명

배속부대

포병 제17대대

지원부대

美 제10고사포단 장 대령
William B. Hennig

美 제 6 전차대대장 중령
John S. Growden

C, D중대

敵 軍

제32사단

中共軍 제39군단

제117사단

나. 전투 전의 개황

平壤奪還戰을 고비로 전쟁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았다. 10월 19일에 MacArthur 元帥는 UN軍 총사령부 작전명령 제 4 호로서 韓國軍 以外의 北進限界線인 MacArthur Line 을 定州--寧遠--咸興線으로부터 定川—古仁洞—坪良—豊山—城津線으로 北上시켰으며, 我軍이 平壤을 완전히 탈환하던 무렵인 10월 20일, 21일 兩日에 걸쳐 平壤 北方 37~40km인 順川--嘉川에 美 제187공수연대를 投下함으로써 敵의 首腦部 및 敵 主力의 퇴로를 차단, 이를 섬멸하는 동시에 北으로 이송되는 많은 UN軍 포로를 구출코자 하였다. 아울러 그는 韓國軍을 조속히 국경에 도달시킬 것을 Walker 美 제 8 군사령관에게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전쟁은 곧 끝나고, 美軍들은 感收感謝節(11월 24일)의 七面鳥고기를 東京에서 먹으리라고 속단한 나머지, 일부는 이미 짐을 챙기기도 하였으며, Walker 사령관도 韓國으로 수송 중인 탄

약은 모두 日本의 美軍 보급창으로 돌릴 것을 MacArthur 元帥에게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때 UN軍 총사령부에서는 비록 戰線이 넓어지고 있으나, 敵이 거의 潰滅되어 韓·滿 國境線까지의 진격이 無難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鴨綠江을 향하여 추격하게 된 美 제 I 군단은 韓國軍 제 I 사단으로 하여금 右側에서, 美 제24사단을 左側에서 각각 淸川江을 넘어 진격케 하는 한편, 美 제 I 기병사단은 平壤일대의 경비를 담당시켰다.

다시 추격을 계속하게 된 제 I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이하 각 연대에 대한 平壤先着의 표창장 및 賞金이 수여되는 가운데 10월 21일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는 平壤北方 馬山里일대에 진출하여 先頭부대는 馬灘에 진출하여 警戒 중이었고,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와 제15연대(장, 趙在英대령)는 각각 平壤에서 다음 날의 기동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병들은 北韓의 추위에도 아직 夏服을 입고 있었으나, 平壤奪還의 흥분과 國土統一의 완수라는 사명감 속에 士氣는 드높았다.

한편 敵의 主力은 이미 淸川江을 넘어 후퇴하였는데, 21일에 敵은 그들의 政權을 新義州로 移轉하였다고 방송하였으며, 平壤市民의 提報에 의하면 敵의 총사령부와 수뇌부가 12일경에 江界로 후퇴하였다고 하였다.

平壤—新義州道路는 新安州에서 淸川江을 건너 西海岸을 따라 연결되어 있으나, 道路의 東側, 즉 鴨綠江과 淸川江 사이는 蕭馬高原에서 뻗어 나온 江南·狄踰嶺山脈이 자리잡고 높고 험한 山岳지대로써 淸川江과 더불어 我軍의 前進에 천연적인 障壁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平壤北方에는 妙香山脈이 寧邊—价川—順川 일대로 뻗쳐 있어 狄踰嶺과의 사이에 淸川江이 西行하며, 그 支流인 九龍江을 껴 雲山으로부터 鴨綠江 中流로 보조道路가 北上하여 水豊발전에 이르니, 제 I 사단은 이를 목표로 최종적인 추격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平壤을 탈환한 다음, 美 제 8 군은 美 제 I 군단에게 新義州—水豊발전지대를 목표로 진격을 계속케 하였다. 이에 따라 Milburn 군단장은 韓國軍 제 I 사단은 水豊발전을, 美 제24사단은 宣川을 향하여 追擊케 하고, 美 제 I 기병사단은 平壤일대의 경비를 담당케 하였으니, 이는 MacArthur line의 制限을 고려하여 그 西端인 宣川을 美 제24사단이 탈환한 다음에 군단에 배대인 韓國軍 제 7 사단으로 하여금 이를 초월하여 新義州로 진격토록 계획한 것이었다.

또한 전쟁은 突發的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승리로 끝난 것으로, 이와같은 진격은 一連의 추격의 최종단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點도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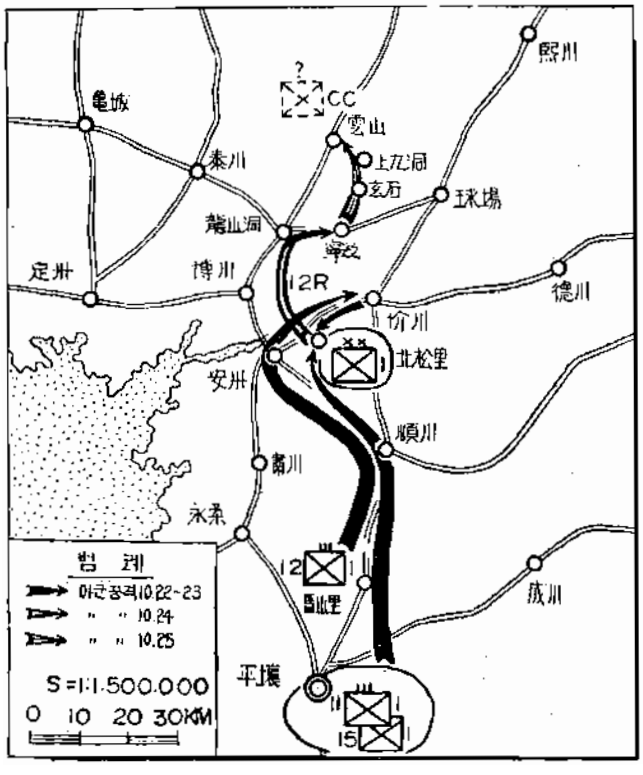
水豊발전을 목표로 한 제 I 사단의 진격도 역시 추격의 계속으로 계획되었으니,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우선 雲山을 탈환한 다음, 그 곳에서 鴨綠江中流로 이어지는 山岳道路를 이용하여 水豊발전으로 진격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順川을 거쳐 寧邊을 탈환한 다음, 雲山

으로 진격키로 결정하여 제15연대(장, 趙在美대령)를 右翼으로,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를 左翼으로, 제11연대(장, 金東斌대령)를 예비로하여 각각 진격토록 하였으며, 先頭에는 美 제6전차대대 C중대와 사단의 G-3 보좌관인 朴珍錫소령이 지휘하는 일부병력이 步戰合同으로 我軍포로들을 구출하라는 특수임무를 띠고서 球場洞으로 前進케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 敵의 主力과는 접촉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敵情도 不明하였으니, 順川-肅川의 공수포위작전도 실제대상은 지연작전을 위하여 잔류한 1개 연대의 敵에 불과하였음이 뒤에 판명된 바 있다. 따라서 我軍은 鴨綠江에 진출함으로써 전쟁이 終結되리라 기대하였으나, 敵은 험악한 山岳지대를 이용한 저항을 계획하는 한편, 中共軍이 이미 鴨綠江을 건너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작전실시

10월 22일 : 맑은 늦가을의 일요일인 이 날, 사단은 국방부 장관에게서 平壤탈환의 功勞에 대한 대통령부대표창장을 수여받은 후 士氣 충천한 가운데 예하 각 연대는 진격을 시작하였다. 즉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는 일부 병력이 전차대와 함께 順川을 지나 軍隅里부근에 진출하여 脫走한 美軍포로 40여명을 구출하여 平壤으로 後送하였으며, 연대 主力은 22.00에 价川에 진출하였다. 또 제11연대 및 제15연대도 平壤 西城里에서 이날 順川에 진출하였다. 이날 肅川에 投下된 美 공수연대와 연결키 위해 平壤에서 진격한 英 제27여단은 永柔부근의 敵 제239연대를 美 공수연대와 협력하여 敵을 완전히 격멸시켰으니, 미 공수포위작전으로 淸川江以南의 敵은 剿滅된 것이었다.

상황도 제43호 寧邊·雲山부근전투



10월 23일 : 이 날도 날씨는 계속 맑은 가운데 제11 및 제15연

대 主力은 진격을 계속하여 安州부근에서 淸川江 南岸에 진출하였다. 橋梁은 이미 폭파되었으나, 軍隅里에서 安州 쪽으로 淸川江계곡을 따라 前進하던 제12연대는 安州 東北方 6km의 徒涉場에서 일부병력을 渡河시켜 그 本橋의 修理를 엄호케 하는 가운데 軍團工兵이 밤새 이를 修理하였다. 사단에 배속된 美 제6전차대대 D중대는 安州부근에서 敵 전차 2대와 자주포 2문을 격파하고 敵 전차 1대를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그리고 사단사령부도 平壤에서 順川으로 前進하였으며, 각 연대본부도 계속 前方으로 진출하였으니, 제11연대는 安州邑에, 제12연대는 北松里에, 제15연대는 順川에 각각 前進하였는데, 제15연대에는 李存—중령이 부연대장으로 이날 부임하였다.

이 날 사단에 배속된 美 전차정찰대가 新安州에 진출하였을 때, 사단의 西側에서 진격한 英 제27여단도 新安州에 진출하였으며, 東側의 韓國軍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은 熙川—溫井에 진출하여 어느 부대보다도 가장 北方에 진격하고 있었다.

10월 24일 : 사단은 淸川江渡河를 완료한 다음, 11.00에 寧邊의 龍山洞으로 진출하여, 東側의 제6사단(장, 金鍾五준장)에 격파되어 敗走하는 敵을 추격하면서 寧邊일대를 확보하였다. 즉 제15연대(장, 趙在美대령)는 15.00에 寧邊—龍山洞의 淸川橋를 제3대대(장, 安秉健중령)로 하여금 확보케 하는 한편, 제2대대(장, 金振暎중령)는 龍山洞으로 진출시켰던바, 대대는 龍山洞 東北方高地일대에서 지향는 1개 대대규모의 敵과 전차대를 격파하고 난 후에는 龍山洞을 확보하였다. 이어서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의 각 대대도 龍山洞에 진출하였으며, 제15연대에 제3대대는 계속 九龍江을 渡河하여 江의 西北方高地에서 지향하는 敵을 각종 火器로 제압사격을 하여 이를 격퇴함과 아울러 瞰制하기 좋은 地點을 점령하여 我軍의 渡河를 엄호하였다.

그런데 이 날 사단장 白善燁준장은 國本一般명령 제32호(10.23부)에 의거하여 제2군단장으로 발령되는 동시에 부사단장인 崔榮喜준장이 사단장에 임명되었다. 마침 白善燁사단장은 公用으로 平壤을 방문 중이라 价川의 사령부에는 不在 중이었다.

한편 이날 MacArthur 元帥는 以前의 진격제한선을 철폐하고 『각 지휘관은 全力을 다하여 韓國의 北端까지 진격하라.』는 마지막 추격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MacArthur Line의 철폐는 美國政府의 訓令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그는 現地情勢에 따른 지휘관의 재량이며 정부방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하간 이와같은 MacArthur 元帥의 작전방침과 아울러 공군도 계속 韓·滿國境上空에 출

격하였는데, 이 날 滿浦鎭上空에서 美 해병대의 전폭기 2대가 滿洲 땅에 배치된 中共軍 고사포의 사격을 받았으며, 다른 美 空軍機도 역시 사격을 받고 F-51 전투기 1대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10월 25일 : 계속 맑던 날씨가 변하여 잔뜩 흐리고 추운 北風이 부는 가운데 이날 사단은 雲山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제12연대는 제 1 대대(장, 韓順華중령)를 先頭로 전차와 협동하여 진격케 하였으며, 제 2 대대(장, 趙成來중령)는 右翼攻擊梯隊로 저항하는 敵을 격파하면서 雲山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제15연대(장, 趙在美대령)는 제 3 · 제 1 · 제 2 대대의 순서로 寧邊에서 立石—上九洞—化翁洞 · 雲山의 經路를 따라 美 제 6 전차대대 D중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진격하였는데, 要所마다 陣地를 구축하고 저항하는 敵을 격파하고 雲山에 돌입하였으며, 계속 北方으로 진출하던 중 11.00에 九龍江의 다리에 접근하고 있을 때, 敵의 박격포 사격을 받았다. 부대는 곧 전개하여 上洞—間洞일대의 高地의 敵을 공격하였는데, 300명으로 추산되는 敵이 배치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11.30이 지난 뒤에는 1명을 포로로 하였는데, 곧 中共軍임을 알게 되었다. 平壤으로부터 돌아 온 前任 白善燁사단장은 이 포로를 직접 심문하였던 바 中國 南쪽 廣東말을 하는 正規 中共軍임이 확인되었다. 同 포로는 "雲山과 熙川의 北方에 2만의 中共軍이 대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白사단장은 곧 이를 Milburn 군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제15연대는 최초로 中共軍과 交戰한 것이었다. 그런데 美 제 1 군단은 16.00에 예하부대에 대하여 鴨綠江線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10월 25일 제15연대가 雲山北方에서 中共軍 1명을 포로한 다음에도 계속 敵의 저항을 격파하고 雲山을 확보하였다. 제12연대도 이날 雲山에 진출하여 그 西側方에서 道路를 차단하는 中共軍을 목격하였으며, 이 소식은 전부대에 알려졌다. 26일에도 사단은 雲山北方과 東南方에서 陣地를 구축하고 中共軍과 치열한 攻防戰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단 및 美 제 8 군에서는 이 급변된 戰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었다.

한편 상황을 관찰하던 Walker 美 제 8 군 사령관은 경비임무를 수행 중이던 美 제 1 기병사단을 韓國軍 제 1 사단을 초월하여 北進시키기로 결정하여 28일에 이를 명령하였다.

그러나 全戰線에서 계속 中共軍이 出現하므로써 이제 戰爭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 들고 있었으나, UN軍 총사령부 당국과 中共軍 개입의 사실을 인정치 않는 혼란을 겪고 있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 1사단장 白善燁준장

(1970. 3. 10.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예. 대정)

平壤을 탈환한 다음, 전차대를 중심으로 특수임무부대가 价川-軍隅里로 출발하였으며, 사단은 寧邊으로 前進하여 점차 雲山으로 北進하였다. 그런데 특수임무부대의 美軍포로구출은 이미 시기가 늦어 실패하였으며, 나는 군단장으로 발령되어 軍隅里의 제 2 군단에 부임하였다. 그랬는데 곧 前任군단장 劉載興소장이 陸本으로부터 다시 돌아 오고 나는 사단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文職上으로는 復歸發令이 뒤에야 났지만 아마도 전투지휘에 있어서 각기 그 부대를 잘 파악하고 있던 지휘관으로 하여금 지휘토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 같다.

그러고 곧 雲山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中共軍포로를 잡았는데, 中國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심문을 하였다. 그랬더니 이 포로가 北京말을 잘 못하고 南쪽 廣東근처 사람임을 알게 되었으며, 처음 이것이 정규中共軍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당시 美軍側에서는 韓國태생의 中國人이나 滿洲 등에 살던 義勇軍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服裝이며, 말이며, 전술을 종합하니 틀림없는 中共軍이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곧 군단장 Milburn 소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제 생각하면 水豊댐을 목표로 淸川江을 건넌 때에도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건넜기니와 中共軍과 부딪쳤던 첫 날은 아주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었다.

◇ 제1사단 제15연대 제 3대대 중대장 金國柱대위

(1766. 3. 28 육본 G--4. 준장)

雲山 北쪽의 다리를 건너 가지고 右側에 陣地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앞에 高地에 敵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런데도 敵은 우리를 보고 가만히 있었다. 우리는 그 高地를 공격해서 보니 敵이 불과 10명 밖에 없었는데, 이곳에서 1명을 포로로 하였다.

포로를 심문하니까 우리 말을 하지 않고 中國말을 하게 되어 내가 좀 中國말을 해서 물어 보니까 그는 中共軍임을 시인하고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우리는 30,000명이 당신네를 淸川江을 건너게 한 다음, 양쪽에서 攻擊작전을 해 가지고서 퇴로를 차단하여 전멸시키려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30년동안 군대생활을 하였다."

나는 연대장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포로를 즉시 後送하였는데, 그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안다.

◇ 제 1사단장 崔榮喜준장

(1965. 3. 29. 大邱其 自宅에서. 예중장)

부사단장을 하다가 白善燁준장이 제 2 군단장으로 가게 되어 내가 사단장이 되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참모차장으로 영전하였던 劉載興소장이 다시 제 2 군단장으로 돌아 오게 되니 白善燁준장도 사단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단에는 사단장이 있고 군단장이 있게 되었

다. 명령상으로는 수정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장실이 또 하나 있게 되는 웃으운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분은 사단장을 오래 하셨고, 내가 그 분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질상 부사단장을 하고 그후 平壤線 北南부터는 명령이 수정되어 그 분이 정식으로 사단장을 하게 되었다.

◇ 제 11연대 대전차포 소대장 朴德源중위

(1966. 4. 8. 육본 AG, 대령)

우리 제11연대 2개 대대가 雲山에서 부터 北으로 더 들어가면 다리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작은 高地가 있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中共軍을 만나게 되었다. 아침 9시 좀 넘어서 敵의 포가 삼각형으로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길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피신하였는데, 포가 마구 떨어져 내 옆에 있던 李주재 중위가 부상을 당하였다. 그래서 나는 철수를 내가 운전하여 의무중대로 後送을 하였다.

◇ 제15연대 정부주임 吳潤泳대위

(1966. 5. 17 육본편제위원회 대령)

우리 연대가 雲山을 점령한 것이 오후 3시경입니다. 다시 北쪽으로 올라가니 江이 있는데 江이 있으면 일단 멈추었다가 前進을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中共軍이 나온다 . 나온다는 이야기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수색중대를 보냈읍니다. 수색중대는 다리를 건너 가서 敵과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中共軍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의 士氣가 떨어집니다.

◇ 제15연대 제2대대 張永鍾대위

(1966. 3. 10 육본 G—3, 대령)

우리 2대대는 順川—价川一線邊을 거쳐 雲山으로 새벽녘에 들어 갔다. 그런데 雲山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조용하였다. 이곳에는 우리 대대는 傀儡軍 少將 1명을 사살하였다. 그 者는 심한 부상을 당하여 가지고 혼자서 낙오되어 미처 도망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권총으로 반항을 하다가 사살되었다.

◇ 제15연대 제3중대장 鄭亨澤중위

(1966. 5. 17. 육본편제위원회 대령)

雲山을 거쳐 北進을 하는데 左右는 논들이 있고 이미 秋收는 끝나고 있었다. 우리는 北進하기 전에 대대본부로부터 中共軍이 나올지 모른다. 中共軍의 戰法은 포위전술을 잘 쓰는데 조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었다. 우리 대대가 2km을 전진하였을 때, 앞에 보이는 高地에서 敵이 우리 쪽으로 前進을 하여 오는데 그들은 왈라 왈라 떠들며 오기 때문에 中共軍인줄 알게 되었다.

敵은 高地에서 기관총을 쏘고 산개하면서 공격하여 오고 우리는 전술중대로 前進하다가 별판에서 사격을 받으니 피할 도리가 없어서 뒤로 철수를 하게 되었다.

5. 龜城·停車洞 進擊戰 (50년 10월 29일부터 50년 11월 1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 44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24사단 장 소장 John H. Church	배속부대
포병사령관 준장 George B. Barth	英 제27여단 장 준장 Basil A. Coad
제19연대 장 대령 Ned D. Moore	제 1 대대 장 중령 A. M. Man
제 1 대대 장 중령 Robert L. Rhea	제 2 대대 장 중령 G. L. Neilson
제 2 대대 장 중령 Thomas M. McTrail	濠 제 3 대대 장 중령 C. H. Green (10월 28일 전사)
제21연대 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중령 I. B. Ferguson
제 1 대대 장 중령 Charles B. Smith	A중대 장 소령 B. S. O'Dowd
제 2 대대 장 중령 Gines Perez	B중대 장 대위 D. Laughlin
제 3 대대 장 중령 John A. McConnell	C중대 장 대위 R. W. Saunders
제34연대 장 대령 Charles E. Beauchamp	D중대 장 대위 W. N. Gravener
제 1 대대 장 중령 Harold B. Ayres	美 제 5 연대전투단 장 중령 John L. Throckmorton
제 3 대대 장 중령 Gines Perez	제 1 대대 장 중령 J. B. Boelofs
	병력 : 약 2,3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10 월 22 일에 漆川·順川의 공수낙하 차단작전에 參戰하였던 美 제187공수연대 제 3 대대가 英 제27여단과 永柔里에서 挾擊戰을 끝 마친 다음에는 漆川으로 되돌아 갔고, 거기서 英 제27여단에 陣地를 인계한 뒤에 다음 날인 23일에는 迂廻路를 이용하여 順川을 통과, 平壤으로 되돌아 갔다.

이 무렵 즉, 10 월 22 일에 美 제 8 군사령관 Walker 중장은 MacArthur 元帥에게 이제부터 韓國에 오

는 모든 彈藥은 日本 보급창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韓國에 남아 있는 彈藥이 今後에 치루어야 할 전투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다. 이에 따라서 MacArthur 元帥도 이를 승인하였으며, 105mm 및 155mm 포탄과 공군용 폭탄을 실은 6隻의 선박을 Hawaii와 美國 本土로 돌려 보내도록 措置하였던 것이다.

日本에 있는 군수사령관인 Walter L. Weible 소장도 San Francisco에 있는 항만사령관에게 모든 地上작전용 彈藥의 수송신청을 취소하게 되었다.

前方에서 싸우고 있던 전투병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美 제1기병사단의 장병들은 感恩節날의 七面鳥 고기는 日本 도오쿄오(東京)에서 먹게 되고, 기갑병들은 노란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도오쿄오(東京)의 번화가를 활보할 것을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일 먼저 日本으로 돌아 갈 부대는 자기들의 부대라고 생각하면서 짐을 챙기기 시작하였으며, Xmas 선물도 日本에서 사 돌이기 위하여 現地 P.X.에서 적어 놓았던 價格表를 찢어 버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또 당시 New York TIMES의 社說에서는 『韓國 국경선에 새로운 사태가 突發하지 않는 限 군사행동은 일단락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損失을 보게 된 韓國 국민의 재정원조를 위하여 MacArthur 元帥는 美 제8군 사령부에 民事援護處까지 설치하도록 조치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주 樂觀的인 情勢판단 밑에서 西北 海岸지역에서의 추격작전은 매우 성공하는듯이 보였다.

그런데 10월 25일은 추운 날씨였고, 혹심한 추위는 약속이나 한듯이 到處로 일제히 다가 오고 있었으며, 이른 아침 어곳, 西北 지방 戰線에는 이미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10월 25일 저녁에 英 제27여단은 博川에서 大寧江을 건넌 다음, 뜻하지 않게 敵과 遭遇하게 되었다. 이때에 여단의 제1대대는 先頭 공격대대로서 大寧江의 西쪽 5km 지점에서 接敵이 시작되었으며, 점차로 심한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공중공격과 폭격은 敵의 전차 10대와 자주포 2대를 격파하는 등 보병을 잘 지원하고 있었는데, 여단장 Basil A. Coad 준장은 이제 심한 싸움은 끝났다고 믿었으며, 부대를 정비하여 내일 다가 올 전투에 對備토록 하였다. 그뒤 10월 28일에는 24km 를 더욱 진격하여 定州로부터 5km 떨어진 지점에 정지하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龜城 進擊戰

美 제5연대전투단(장, Throckmorton 중령)은 英 제27여단의 後方에서 淸川江을 건넜는데, 美 제24사단의 지휘를 받는 부대 중에서 바로 이 전투단이야말로 최초로 淸川江을 渡河한 부대였다.

10월 28일 : 전투단은 博川 北쪽에서 大寧江을 건너 英 제27여단의 右側方에서 泰川을

향하여 별로 이렇다할 상황도 없이 계속 北進하였다.

10월 29일 : 이날 전투단은 泰川을 눈 앞에 두고 격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지원 공군은 敵의 전차 9대와 자주포 4대를 격파하였다. 이와같이 공군의 지원을 얻어 泰川을 점령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들어간 전투단은 도합 89명의 포로를 잡았는데, 그 중에는 中共의 所謂 義勇軍 2명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美軍으로서는 韓國戰이 시작된 以來 최초로 잡은 中共軍 포로였다. 그러나 그들 포로는 전투단과 接戰한 中共軍부대의 침략병들이 아니고 다른 부대의 落伍兵들이었다.

전투단은 泰川을 점령한 다음, 다시 龜城을 향하여 北西쪽으로 진격하였는데, 도중에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포병과 박격포등의 지원을 받는 5,000~6,000명으로 추산되는 敵兵과 遭遇하게 되었으나, 美 전술공군의 지원으로 10월 31일 24.00가 좀 지나서는 龜城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인 11월 1일에는 龜城 北쪽 약 8~9km지점에 있는 道路 交叉點을 확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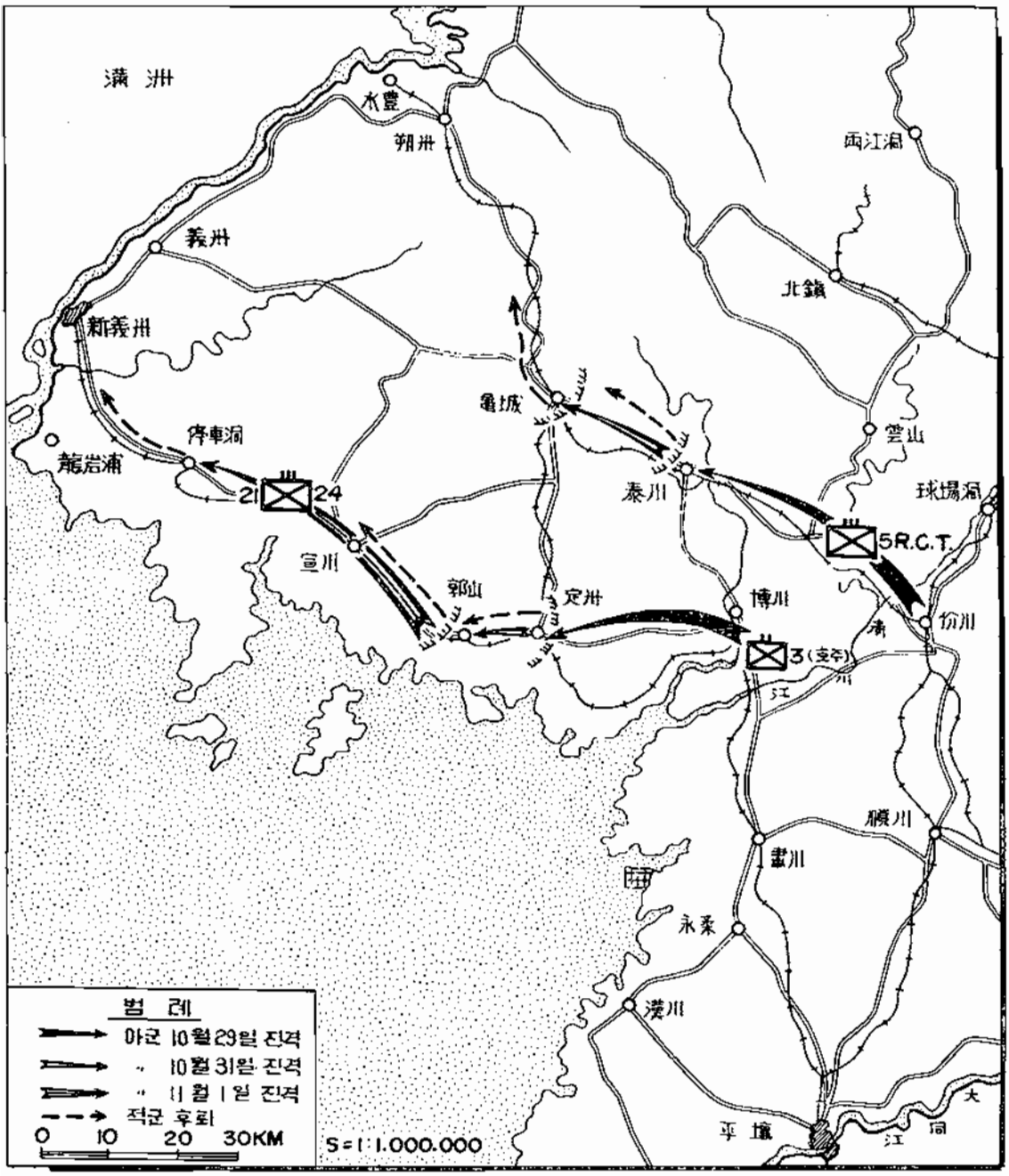
이번 싸움에서 美 제5연대 전투단은 300~400명의 敵을 사살하였고, 자주포 2대와 76mm 곡사포 8문, 대전차포 6문, 기관총 5정을 파괴하였다.

(2) 停車洞 進擊戰

10월 29일 : 濠洲軍 제3대대(장, Green 중령)는 이날 아침 定州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항공관측보고에 의하면 보병을 隨伴하는 적어도 4대의 전차가 山間 길 곁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락을 받게 된 美軍 항공기는 즉시 네이팜彈과 로켓트彈으로 이 전차 4대를 격파하고, 濠洲軍 대대는 계속하여 그 통로와 부근의 능선을 점령하였으나, 이날 밤에 이르러 敵은 전차와 자주포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반격해 왔는데, 濠洲軍의 로켓트砲는 敵의 전차 3대를 격파하고 美軍 전차의 지원을 얻어 定州를 점령하였다. 濠洲軍은 定州 부근 전투에서 9명이 전사하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다음 날인(10월 30일) 아침에는 英國軍 Argyll부대가 定州에 進擊하였다.

10월 30일 : 이날 저녁에 敵의 적사포탄이 定州에 集中되었는데, 濠洲軍 제3대대 본부에는 6발이 떨어지고 그중 1발은 Charles H. Green 중령의 천막 밖에서 폭발하였다. 그런데 천막 안에서 잠자고 있던 Green 중령만이 작렬하는 포탄의 파편에 맞아 腹部에 심한 상처를 입었을 뿐이었고, 부근에 있던 몇명의 장병들은 아무런 異常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重傷을 입게 된 Green 중령은 즉시 安州에 있는 外科병원에 後送되었으나, 3일 뒤에 전사

상황도 제44호 美 제24사단 龜城·停車洞進擊圖(1950. 10. 29~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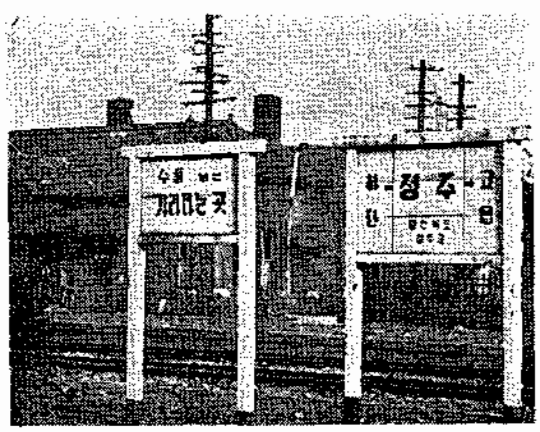
하였다. Green 중령이 後送되자 그의 後任으로 I. B. Ferguson 중령이 제 3 대대장이 되었다.

이날 英 제27여단장은 병사들이 무척 피로하였으니, 美 제24사단의 1개연대를 超越, 前進

시켜달라고 美 제24사단장 Church 준장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사단장은 즉시 이를 받아들여 예하 제21연대(장, Stephens 대령)에 前進명령을 내렸다. 저녁 때 제2대대(장, Gines Perez 중령)는 英 여단의 부대를 超越하여 젯더미가 된 定州市街를 통과하여 北進하였다. 때 마침 밤 하늘엔 달이 떠올랐고, 地上을 대낮 같이 환하게 비쳐 주었으므로 이날 밤에 있었던 夜間공격을 매우 有利하게 돕는 바 되었다. 장병들은 定州市街地 北쪽에서 후퇴하여 가는 敵의 요란한 전차의 소음을 들을 수 있었다.

10월 31일 : 02.00에 郭山洞의 西쪽 4km 지점에 있는 高地에는 7대의 전차와 500명 규모의 敵이 美軍의 機動縱隊를 공격하기 위하여 잠복하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距離에 있던 敵의 전차는 약 270m 前方에서 지원포병의 사격과 함께 포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다른 전차도 이에 合勢하여 포문을 열었으며, 그 중 몇발은 美軍 전차에 命中하였으나, 다만 스쳐갈 뿐이었고 별로 이렇다할 손상을 받지 않았다. 敵의 이러한 전차의 위치를 알아 차리게 된 美軍 전차는 즉각 이에 應射하여 彼我間에 치열한 전차 火力戰이 전개되었다.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과 제2대대장 Gines Perez 중령은 無電 전차 위에서 이 싸움을 지휘하였는데, 새벽 녘이 되자 敵은 50명의 시체와 파괴된 전차 5대, 그리고 자주포 1대와 대전차포 7문을 내버린채로 패퇴하고 말았다. 날이 밝은 뒤, 美 공군의 폭중공격에 의하여 敵의 전차 2대가 더 격파되었으며, 보병부대는 無蓋貨車에서 敵 2명을 포로로 하였다. 이 싸움이 끝나자 제21연대 正面으로부터의 저항은 매우 약화되었다.

11월 1일 : 이날 12.00경에 Charles B. Smith 중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는 新義州에서 南쪽으로 33km 떨어진 停車洞까지 進擊하였다. 이때 美 제24사단장 Church 소장의 명령을 받은 제21연대장 Stephens 대령은 제1대대장 Smith 중령에게 정지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縱深으로 된 방어진지를 준비토록 하였다.



〈定州驛의 프랫트포옴〉

이 정지명령이 하달되자 Smith 대대의 장병들은 愕然失色하고 말았는데, 이날 밤 敵의 전차 7대와 500명 규모의 보병부대가 제1대대를 향하여 반격해 왔기 때문이다. 美 제6전차대대의 중대장 Jack G.

Moss대위는 전차를 몰고 對戰車戰에 앞장 서서 나갔는데, 戰車 對 戰車의 불을 뿜는 포격전은 30분간이나 계속되었으며, 이 포격전 끝에 敵의 전차를 완전히 격파하였고, 步·戰·砲의 협동작전에서 그 위력을 誇示하여 敵을 격퇴시켰으며, 또한 敵兵을 100여명이나 사살하였다. 美軍의 손실은 전차 2대가 若干 파손되었을 뿐이었다.

이것이 美 제8군의 전차부대로서는 韓國戰爭 중 最北端에서 전개된 戰車戰이었으며, 우연하게도 敵의 6.25南侵이 시작된 뒤 烏山에서 최초로 韓國戰에 참전하였던 Smith중령이 지휘하는 제1대대(美 제21연대 소속)가 바로 이 부대였다.

停車洞에서 전개된 이날 午後의 전투는 地理的으로 볼 때 美 제8군 예하인 제24사단이 韓·滿 國境線까지 진격하여 韓國을 統一시키려는 노력의 最高頂點에 이르렀던 싸움이라고 할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美 제5연대전투단의 龜城 진격작전과 停車洞 진격전은 UN軍의 韓半島 西北地方 진격전에 있어서 이 두개 지점이 最北端 진격지점이 되었다.

右側 인접부대인 국군은 제6사단의 제7연대 수색중대 및 제1대대가 10월 26일 저녁 19.00에 이미 楚山까지 진격, 점령하였으나, 10월 27일 사단장의 無電명령에 의하여 철수하고 말았다.

美 제5연대전투단의 先頭부대는 龜城 北쪽 16km 지점에서 美軍 連絡機로부터 通信筒을 받았는데, 그때 美 제21연대는 西海岸 道路에 있었다. 通信筒의 명령문은 前進을 중지하고 現地에 머무르라는 내용이었다.

11월 1일 저녁에 龜城까지 진격하였던 美 제5연대전투단과 停車洞까지 진격하였던 美 제21연대는 장차의 작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지니고 있었으나, 淸川江으로 철수하라는 사단장의 철수명령에 대한 의문은 23.00경에 풀리고 말았다. 그날 밤에 이 兩個 연대의 장병들은 의아심과 실망을 품은 채 명령대로 이유도 모르고 淸川江線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뒤 장병들은 東쪽 側方의 前線狀況을 설명 듣고서야 비로소 이해가 갔던 것이다.

美 제8군 사령관 Walker중장은 전날 10월 31일 美 제1군단장 Milburn 소장에게 美 제24사단의 前進을 중지시키고 雲山 쪽의 상황을 注視하라고 명령 하였던 것이니, 즉 10월 25일 09.30경 국군 제6사단 제2연대의 제3대대는 溫井里 西北쪽에 있는 東林山 山麓으로 진격 중 不意의 사격을 받고 정지하여 전투를 시작하였으며, 1개 연대 이상으로 보이는 敵에게 포위된 것을 알고 後退하려 하였으나, 이미 퇴로를 차단 당하고 있었다. 敵의 포위망 속에서 惡戰苦鬪 끝에 24.00에 溫井里에 재집결하였다. 국군 제6사단 제2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도 역시 東林山을 향하여 진격 중에 中共의 2개중대가 增援되는 병력과 交戰하였으나, 敵의 병력은 점차로 증강되었고, 勢不利한 我軍은 부득이 溫井里로 철수하여 제2연대의 전병력은 溫井里에 재집결하고 있었다. 즉 中共軍의 실제적인 侵略이 시작되었다.

6. 韓國海軍의 輸送活動 (50년 9월 16일부터 50년 11월 30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45 호

가. 輸送活動의 개황

地上軍의 총반격전에 따라 韓國 海軍은 UN機動艦隊와 긴밀한 협조 하에 南西海岸의 沿岸과 海上을 경비하는 한편, 破竹地勢로 北進하는 韓·美兩軍의 보급지원을 위하여 앞으로의 해군작전을 그 主要任務가 輸送活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주로 我 해군이 담당한 輸送活動은 韓國軍의 兵力수송과 보급물자가 우선적으로 취급되었고, 그 外는 政府 각 기관의 물자와 피난민의 수송에 이르기까지 광범하였다.

釜山港은 UN軍의 補給基地로서 모든 軍需物資을 이곳에서 受領分配가 되었는데, 해군에서는 LST와 FS등의 艦艇과 함께 海運公社에서 징발한 선박으로 충당하여 地上軍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 주요수송활동은 다음과 같다.

나. 東海에서의 輸送活動

진격하는 UN軍과 韓國軍에게 보급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9월 29일 海本作命 갑 제 177호에 의거하여 釜山港에 山積되고 있는 각종 美 군수품들을 竹邊에, 그리고 10월 3일에는 浦項에 있는 美 군수품들을 墨湖까지 LST 烏致院號로 수송하였다.

LST 安東號는 10월 7일에 육군 1개 대대의 병력을 釜山港에서 蔚珍港으로 수송하여 上陸케 하였으며, 또 LST 加平號는 10월 11일에 육군 군수물자를 釜山港에서 元山 南쪽에 있는 庫底港으로 수송하였다.

한편 11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는 육군의 군수물자를 釜山港에서 城津港으로 수송하였다. LST 天安號는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의 사이에 해병대 제 1 대대(장, 高吉勳소령)을 탑승시키고, PC 704艦(장, 玄時學소령)의 호송을 받으면서 釜山港을 出港한 후, 墨湖港으

로 바로 入港하여 上陸케 하였으며, 또 11월 14일과 15일의 이틀 동안 해군 元山前進基地에 보급할 보급물자를 釜山港에서 元山港으로 수송하였다.

LST 洪川號는 11월 9일부터 11일에 이르는 동안 육군의 병력과 군수물자를 만재하고 釜山港을 出港하여 城津港으로 수송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11월 15일부터 17일에 걸쳐 城津港에 육군 1개 중대와 포로 41명을 釜山港으로 수송하였고, 11월 22일에서 24일에 걸쳐서는 UN軍의 군수물자를 釜山港에서 城津港으로 수송하였다.

한편 LST鳥致號는 11월 20일에 육군의 군수물자를 釜山港에서 元山과 興南으로 수송하였다.

다. 西海에서의 輸送活動

서울이 수복됨에 따라 鎭海에 있던 공군본부가 복귀하게 되자, 9월 24일 海本作命 갑제165호에 의거하여 LST 丹陽號편으로 공군본부의 모든 병력과 장비, 그리고 비품들을 鎭海軍港에서 仁川港까지 수송하고, 동 28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경무대직원들을 FS 驪洲號로 仁川까지 수송하여 서울로 복귀시키는데 협조하였다.

LST 安東號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사이에 서울로 복귀하는 政府要人과 육, 공군의 後方요원을 釜山港에서 仁川港으로, 또 FS 永登浦號는 國會議員과 政府要人들을 釜山港에서 仁川港으로 각각 수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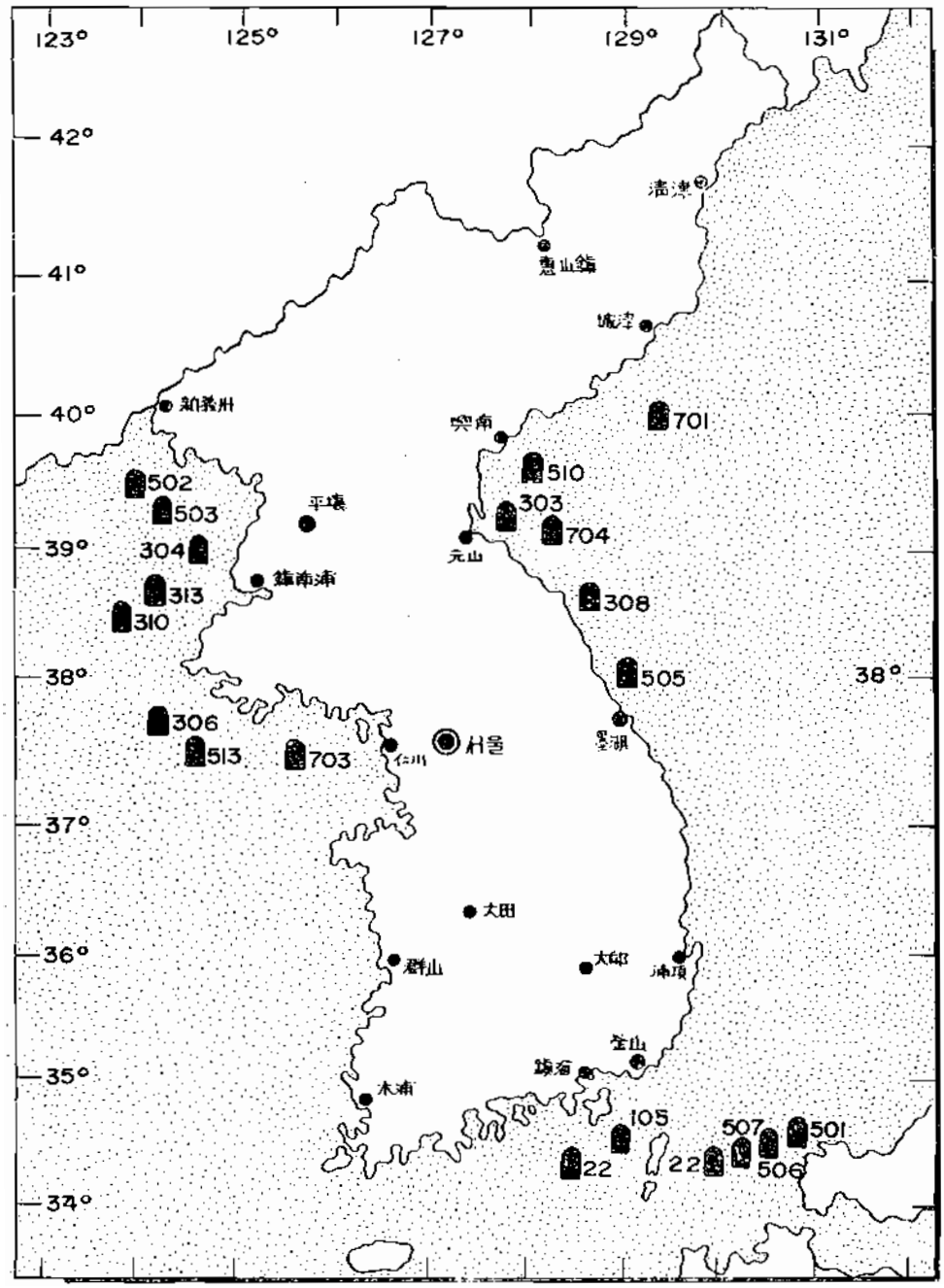
그리고 LST 天安號는 10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政府要人들을 탑승시키고, 釜山을 出港하여 仁川港으로 수송하였다.

LST 洪川號는 10월 7일에서 8일까지 서울지구에 근무할 경찰관 1,000명을 釜山港에서 仁川港으로 수송하여 上陸시키고 10월 20일에는 京仁지구 피난민들을 釜山港에서 仁川港으로 수송하였다.

한편 LST 丹陽號는 10월 18일에서 19일에 걸쳐 해병대 제2대대(장, 金鍾淇소령)를 탑승시키고 仁川港을 出港한 후, 木浦港에 入港하여 上陸케 하였다.

FS 裡里號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사이에 京仁川지구의 군인가족을 釜山港에서 仁川港으로 수송하였으며, FS 優館號는 11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육군의 군수물자를 釜山港

<삽화도 제45호 韓國海軍 艦艇배치도(1950. 11. 7 현재)>



에서 鎭南浦港으로 수송하였다.

그리고 LST 原州號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이에 해병대 1개 중대를 釜山에서 鎭南浦港으로 수송하여 上陸케 하였다.

라. 南海에서의 輸送活動

釜山에 자리잡고 있는 UN 韓國 委員團에서 巨濟島 피난민 수용소의 상황을 시찰하겠다는 요청에 의하여 9월 19일 FS 驪洲號로 하여금 수송케 하고, 동 20일 해군艦艇에서 사용할 油類들을 106艇이 釜山으로부터 鎭海油類 저장소로 수송하였다.

28일에는 지난번 화폐교환으로 인하여 수정된 朝鮮銀行券을 정발선인 한북丸으로 하여금 釜山港으로 수송하고, 29일에는 507艦을 旗艦으로 하는 麗水半島 上陸작전에 호위 艦艇과 함께 수송선 2척에 해병대 2개 중대를 乘船시켜 三千浦에서 麗水北港으로 上陸시켰다.

10월 1일에는 濟州道에 잔류하고 있던 韓國 해병대와 야전병원의 자재를 정발선인 發鳥丸으로 하여금 鎭海까지 수송하는 동시, 大黑山群島에 UN 공군의 표적선으로 출동 중인 505艇에 主副食을 공급하고 10월 6일에는 木浦에서 사용할 통신 병기자재를 정발선인 東成丸에 적재시켜 釜山에서 木浦로 수송하는 한편, 南海岸島嶼일대에서 宣撫 공작용으로 지급할 의료품과 식량을 정발선인 昭南號와 竹號에 나누어 싣고 釜山港을 出港, 南海岸 각 도서로 수송하였다.

7일에는 厚浦 앞바다에서 노획한 敵의 機雷를 日本 橫須賀에 있는 美 해군基地로 901艇이 수송케 하고, 8일에는 美 해군으로부터 군수품 및 원조물자를 인수차 LST蔚山號가 釜山에서 일본으로 出港하였다. 美 해군에서 韓國해군에게 원조하는 40mm포 30문을 釜山에서 인수하여 鎭海로 수송하였다.

12일 901艇에 적재 중인 노획품인 敵의 機雷를 日本 佐世保로 수송하고, 同港에서 三浪津號 연습생을 탑승시켜 日本 橫須賀港으로 廻船 수송한 다음, 韓國으로 보내는 군수품을 수령, 적재한 후 釜山으로 귀항하였다.

또한 木浦의 白부대가 노획한 戰利品을 釜山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수송임무 중인 FS 驪州호를 15일 木浦로 廻航시키고 美 해군으로부터 인수한 원조무기를 FS 平澤과 金海號에 적재하여 鎭海港으로 수송하고, 18일에는 韓國 해군에서 사용할 油類를 106艇이 釜山港에서

鎭海로 수송하였다.

동 24일에는 육군 각 부대의 보급할 군량미를 FS 平澤號로 하여금 鎭海에서 釜山으로 수송케 하고, 25일 LST 溫陽號는 濟州島에서 교육을 마친 陸軍보충병을 釜山으로 수송하였다.

§ 參戰者의 證言

◇ 해군본부 수송감 閔賢植소령

(1971.8.16 유전식품 주식회사 회장실, 예 대령)

我軍이 총반격작전을 시작하게 되자 우리 해군이 담당하는 수송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당시 해군은 해운공사 所有의 선박들을 모두 징발하여 수송선으로 사용하였다.

해군은 병력 및 군수물자 수송을 전담하는 한편, 때로는 육군과 UN군의 병력 및 군수물자의 수송업무도 수행하였다. 해군의 LST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수복에 따르는 정부 각 기관의 요원과 피난민들의 수송도 아울러 담당하였다.

지금 특히 생각나는 것은 화폐개혁 당시 陸路로 신화폐를 보내기가 힘들었던 木浦와 濟州島 등지에 해군함정을 이용한 일이다.

신화폐교환이 실시될 이틀 전이라고 기억되는데 그날 당시 작전참모부장이던 白善燁제독으로부터 오늘 저녁에 특별한 군수품과 이를 호송하는 10여명의 인원을 수송감 책임 아래 海軍함정에 실어서 出港시키라는 것이었다.

그날 釜山港 제1부두에서 튼튼히 포장된 여러 개의 큰 상자를 FS함정에 실었는데, 그때는 물론 신화폐라고는 전혀 생각치 못하고, 어떤 군수품인줄만 알고 수송을 담당하였다.

그후 알고 보니 그것은 신화폐이고, 함께 배에 탔던 군복 차림의 사람들은 모두 한국은행 직원들이었다고 한다.

7. UN 海軍의 鎭南浦港 掃海作戰 (50년 11월 1일부터 50년 11월 20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 7 함동 기동함대사령관
해군중장 Arthur D. Struble
제95.6 소해단장
해군대령 Richard T. Spofford
제95.6 소해전대장
해군중령 Stephien Morris Archer

나. 鎭南浦港의 掃海

東海岸에서 韓國軍 제 1 군단이 10월 10일, 元山을 탈환하고 UN 해군과 韓國 해군에 의하여 永興灣에 부설되어 있던 수많은 機雷가 완전히 제거되므로써 美 제10군단의 元山上陸은 결과적으로 行政的 上陸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西部와 東北部와 지방에서 작전을 전개하는 UN軍과 韓國軍에게 보급될 각종 軍需물자는 그 대부분이 海上을 통하여 元山港에 揚陸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 西北部지방에서는 美 제 8 군과 韓國軍이 敵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10월 19일 平壤을 탈환하고 北進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西部戰線에서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美 제 8 군의 병참지원은 平壤의 外港인 鎭南浦를 개방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鎭南浦도 元山과 같이 많은 機雷가 부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美 제 8 군 사령관 Walker 중장은 美 제 7 기동함대 사령관 Arthur D, Struble 제독에게 鎭南浦港을 시급히 掃海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이유로는 겨울이 눈 앞에 다가오고 美 제 8 군 예하부대는 인원과 차량등이 모두 越冬준비를 하여야 되는데 地上軍은 이미 연료부족이 긴박한 사정이 되어 있었다.

닥쳐오는 越冬用 연료부족과 더불어 폭격으로 인하여 억망이 된 北韓지역의 道路와 철도의 교통상태등 이러한 요소로 말미암아 鎭南浦港의 개방이 작전상 優先權의 하나로 주어져

있었다.

鎭南浦港의 掃海작업의 긴급성에 대하여 Struble 제독은 충분한 이해와 판단을 하였다. 그러므로 Struble 제독은 10월 21일 Walker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回信을 보냈다.

『해군은 苦戰 중인 제8군에 대한 보급의 곤란이 증대하고, 또한 광범위한 군수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陸路 보급의 곤란성과 海上보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鎭南浦港의 掃海작업을 실시할 것이나, 掃海艇의 부족, 그리고 敵의 교묘한 機雷부설로 인하여 掃海가 지연될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람. 또한 현재 모든 掃海艇들이 東海의 永興灣작업에 투입되어 있으므로 그 작업이 끝날 때 까지는 이들 掃海艇을 분할시킬 수 없기 때문에 美本國에 요청하여 掃海艦艇이 韓國海域으로 航進 중이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이므로 鎭南浦港의 掃海작업은 예측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元山과 같이 機雷부설이 교묘하다면 착수 후 3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임.』

鎭南浦의 機雷源에 관하여서는 주로 水路學上의 조건이 좋이하기 때문에 元山과는 달랐다.

元山에 있어서 港口까지의 水路가 깊은 것과는 달리 鎭南浦港의 入口는 島嶼와 大同江上流에서 휩쓸려 내려 온 오랫동안의 진흙의 集積이 만들어 낸 三角洲가 길을 막고 있었다.

더우기 元山港은 물이 맑고, 潮流와 干滿의 차가 없음에 비하여, 鎭南浦는 干滿의 差가 최고 12 Feet 나 되며 5 Knott의 속도로 흐르고 있고, 두개의 水路가 항구에 접근하고 있었다.

南쪽 水路는 대단히 좁은 데다가 高潮時에도 겨우 15 Feet의 水深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北쪽 水路는 거의 2배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양쪽 水路에 모두 機雷부설이 가능하였다.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그 당시 UN軍 手中에 있었던 海圖는 1922~1924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후 26년동안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掃海는 鎭南浦에서 33mile 떨어진 곳에서 부터 시작되었는데, 美 제7기동함대사령관 Struble 제독은 鎭南浦港의 掃海작업을 위하여 鎭南浦 기동전대 95.69를 편성하고 기동대장에 Stephen Morris, Archer 중령을 임명하였다.

鎭南浦 기동전대에 배속된 艦艇은 DMS-2척, AMS-3척, 韓國 YMS-4척, LST-1척 MC-2척, LCVP-12척, APD-1척 및 1개 소대의 水中파괴대로 편성되었다.

한편 Struble 제독은 정보관 Donald N, Clay 중령을 平壤으로 보내어 事前에 정보를 수집시켰는데, 이때 Clay 중령은 단시일 내에 鎭南浦港에 관한 機雷부설자, 항해일지, 水路指示 등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왔다.

이 정보에 의하면 鎭南浦港에는 繫留機雷가 부설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심한 海流와 潮汐 때문에 약간의 이동은 있겠지만 부설된 구역을 대략 알게 되었다.

이 정보에 따라서 鎭南浦港의 掃海작업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원의 손실도 받지 않게 되었다.

한편 이 掃海작업은 海上掃海艇과 항공기와의 협동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므로 더욱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11월 2일 : Archer 중령과 그의 참모들은 부두로 통하는 水路를 개척하기 위하여 먼저 한 쪽 편의 水路를 掃海한 다음, 다른 水路를 掃海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DMS를 제외한 全艦艇이 出動하였는데, 즉 AMS 앞에서는 헬리콥터와 UDT 대원이 가게 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韓國 해군의 YMS가 따르면서 副砲임무를 맡게 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훌륭한 팀을 짜고 항해하는 掃海작전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았으니, 즉 水中의 機雷부설의 탐색이 어려운데다가 속도가 빠른 海流는 掃海작전을 실시하는 掃海艇들을 때로는 자기 위치에서 0.8km 나 떨어지게 하였다.

鎭南浦港 入口 일대의 掃海작업은 3일 15.00까지 대부분 끝났으며, 掃海船團은 2개의 浮遊機雷와 10여개의 繫留機雷를 폭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1월 4일 : 이날,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생겼으니, 그것은 鎭南浦에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바람은 거센 强風이어서 掃海艇들의 맛줄이 절단되면서 掃海艇들끼리 부딪쳐 심한 파손을 입히는 일까지 있었다.

이 바람으로 掃海船團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한편 이익도 보았으니, 그것은 敵이 부설한 繫留機雷의 줄이 끊어져 물 위에 떠서 나중에 海上, 또는 공중사격에 의하여 파괴 되었다. 폭풍이 한참 심할 때는 풍속 70 Knott 를 넘었는데 이때에 Catamount(LSD-17)號가 입항하였다.

Catamount 號는 掃海작업에 있어서 航空母艦과 같은 것이었으며, 많은 LCVP를 적재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차례로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掃海艇들이 들어 가지 못한 水深이 깊은 곳 까지 들어가서 掃海도 하고, 또 掃海艇들의 先頭에 서서 안내역할도 하였다.

이날 Clay 중령은 조그만 漁船에 승선하여 平壤에서 데려 온 機雷부설자와 함께 機雷源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鎭南浦 부두에서 길을 열어가며 港口 밖으로 나왔다.

漁船이 한번 公海로 무사히 航海하자 이번에는 韓國 해군의 YMS-503 艇이 부두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Forrest Royal 號에 있었던 Robert R. Munroe 소위가 자진하여 503 艇을 조종하고 鎭南浦 부두로 들어갔다.

敵은 鎭南浦港을 중심으로 하는 海域에 312개의 機雷를 부설하였고, 중요한 水路에는 繫留機雷 다섯줄과 磁氣機雷 한줄로서 철저히 봉쇄하고 있었다.

이것은 거리로 따지면 70 mile이나 되며, 이것을 Archer 중령이 지휘하는 掃海艇隊는 10일간의 짧은 기간에 한 사람의 인원손실도 없이 완전히 작업을 끝마쳤던 것이다.

Archer 중령은 매일 저녁마다 회의를 열고 그날의 결과 보고를 들은 다음, 또다시 내일의 작전을 지시하였다. 더우기 鎭南浦港의 격심한 潮流는 機雷를 나분히 이동시키는 현상을 연출하였고, 干潮時에는 UDT 대원들이 水深이 깊은 곳은 LCVP를 타고 들어가 機雷를 탐색하는등 용감히 임무를 수행하였고, AMS 掃海艇은 滿潮時에만 작업을 하였다.

11월 7일 ; 이날에는 작은 艦艇들이 鎭南浦港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鎭南浦港에 닻(錨)을 내린 선박은 LSU-1402 號였다.

이 뒤를 이어 美 제8군의 군수물자를 실은 LST 船團이 계속해서 港內로 들어 갔다.

鎭南浦港의 掃海작업은 이것으로 끝났으나, 掃海작업에 종사하였던 Archer 중령이 계속 이곳에 남아서 항만관리와 항구를 출입하는 艦艇들의 水路안내에 관한 일을 맡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韓半島의 東西海岸의 中央部에 각각 위치하는 海上교통의 要地인 永興灣의 元山港과, 그리고 鎭南浦港의 아름다운 掃海작업이 UN 해군과 韓國 해군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前進基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西北部 지방으로 진격하는 美 제8군과 韓國軍에 대한 軍需물자의 海上수송은 鎭南浦港에서 모두 다 揚陸되었다.

따라서 UN 해군과 韓國 해군에 의하여 감행된 鎭南浦港의 掃海작업의 성공은 마치 渡河가 곤란하였던 河川에 교량을 부설한 것과 같은 성과였다.

8. 韓國 空軍의 活動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공군 총참모장	金 貞 烈 소장	비행단 장	張 德 昌 대령
항공기지사령관	崔 用 德 준장		

가. 機構 改編

(1) 공군본부 및 예하단대의 개편

공군은 戰局의 趨勢에 따라 開戰 初 부터의 편성에서 空中戰力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로의 改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10월 17일을 기하여 공군본부와 각 예하단대를 개편하기에 이르렀는데, 총참모장 휘하에 참모부장을 두고 인사, 정보, 작전, 군수의 4개국과 법부, 재무, 정훈, 병참의 4개감실을 두게 되었으며, 그밖에 기상대, 통신대, 고급부관실, 본부중대를 두게 되었다. 이 편성에서는 특히 병참감실이 新設되었으며, 기타 각국감실도 실질적으로 내부상에 많은 改編을 가지고 왔다.

총참모장 金貞烈준장은 10월 20일 부로 소장으로 진급되었는데, 이날 부로 補任된 보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군본부의 편성과 보직

총참모장		金 貞 烈 소장
참모부장		朴 範 集 준장
인사국	국장	韓 鎬 順 중령
정보국	국장	金 吉 成 소령
작전국	국장	徐 漢 浩 중령

군수국	국장	朴 斗 先	소령
고급부관실	실장	韓 海 南	소령
재무감실	감	李 日 駿	중령
법무감실	감	李 成 春	대위
정훈감실	감	金 基 完	대위
병참감실	감	徐 鉉 圭	소령
기상대	대장	金 錫 祐	대위
통신대	대장	李 福 鉉	대위
본부중대	장	柳 義 烈	대위

한편 10월 17일을 기하여 정찰비행대를 정찰비행전대로 승격시켰는데, 10월 20일에 補任된 예하단대의 보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예하단대의 보직현황

공군사관학교	교장	崔 用 德	준장
	교육주임	金 明 燮	소령
	후보생대장	金 石 恒	대위
비행단	단장	張 德 昌	대령
	비행대장	金 信	소령
	정비대장	徐 武 甲	소령
항공기지사령부	사령관	崔 用 德	준장
	참모장	洪 允 範	소령
헌병대	대장	金 得 龍	중령
공군병원	원장	朴 乾 源	중령

(主要事件日誌 참조)

(2) 航空基地司令部의 改編

공군은 전쟁의 渦中에서도 實戰을 통한 훈련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성장하여 왔고, 정신적으로는 滅私奉公의 愛國衷情을 다하여 오직 國難에 殉하고자 하는 굳은 각오를 지녀 왔으며, 실질적으로는 있는 技倆을 다하여 限定된 여건 속에서도 勇躍 北韓上空을 制壓하는데 전념하였다.

正義를 구현하는 我軍의 전반적인 총공격으로 戰勢가 역전되어 我軍이 勝者로의 기틀을 굳히면서 北進하게 되자 공군의 活動空域도 또한 증대되기에 이르렀으므로 全國을 5개의 항공관구로 나누어 항공기지사령부가 이를 관할하게 되었다.

10월 17일, 공군본부와 예하단대의 改編에 병행하여 항공기지사령부를 5개 管區와 29개 基地隊로 改編하고 초대 항공기지사령관에 崔用德준장을 임명하였다.

항공기지사령부 본부는 서울에 두었으며, 예하 제1항공관구는 본부를 역시 서울에 두고, 6개 基地隊를 관할하게 하였으며, 제2항공관구는 관구본부를 大田에 두고 5개 基地隊를, 제3항공관구는 본부는 大邱에 두고 7개 基地隊를, 제4항공관구는 平壤에 본부를 두며 5개 基地隊를, 그리고 제5항공관구는 본부를 元山에 두며 6개 基地隊를 각각 관할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제4, 제5항공관구는 失地였던 北韓全域을 收復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나, 제4항공관구는 실제로 그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10월 20일부로 임명한 각 관구의 초대 관구장과 각 관구가 관할하게 된 각 基地는 다음과 같다.

관 구 별	본부위치	관 구 장	가 지 대
사령부본부	서 울	사령관 崔用德 준장	
제1항공관구	서 울	관구장 金錬器 대위	金浦, 水原, 鎭海, 春川, 江陵, 海州
제2항공관구	大 田	李中錄 대위	大田, 全州, 群山, 光州, 濟州
제3항공관구	大 邱	朴元錫 소령	大邱, 浦項, 金海, 水營, 鎭海, 釜川, 蔚山
제4항공관구	平 壤	許永杰 대위	平壤東西, 新幕, 溫井里, 新義州
제5항공관구	元 山	金京南 중위	元山, 平康, 宣德, 連浦, 會寧, 咸興

나. C-47 輸送機의 引受

공군의 美 고문단은 이해 9월에 美 제5공군으로 부터 C-47 수송기 1대를 인수하여 태극기를 塗裝하여 韓國 공군을 상징한 채로 그들의 임무연락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수송기를 공군에 넘겨 주겠다는 언질을 받은 金貞烈소장은 11월 9일에 張德昌대령 외 6명에게 C-47 수송기의 비행훈련을 履修하도록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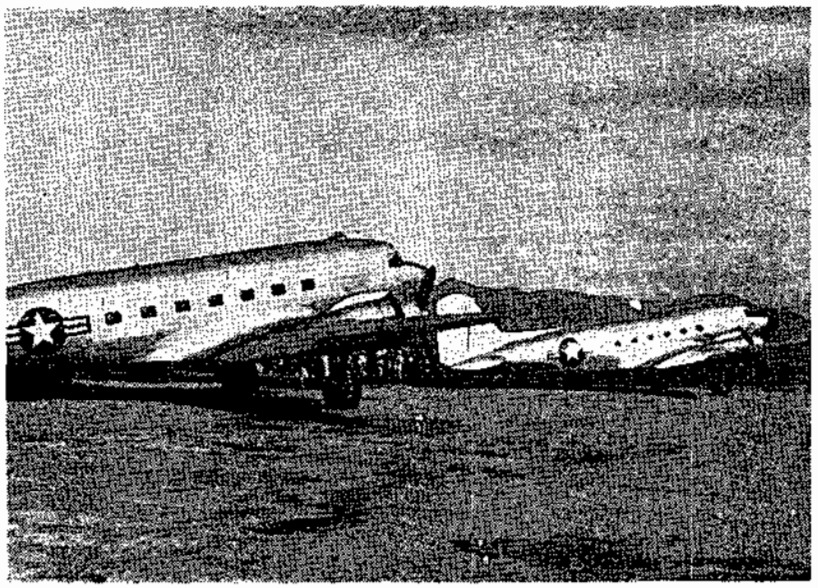
이어서 11월 10일에 비행단이 平壤 美林基地에서 美軍으로 부터 C-47 수송기 1대를 인수받게 되었는데, 인수 當日부터 우리 공군은 美 고문단의 조종사들과 더불어 이 수송기를 조종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한대의 수송기도 보유하지 못하였던 공군이 C-47 수송기를 인수함으로써 비로소 공수지원임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우리 공군 空中輸送의 嚆矢가 되었다.

이리하여 1대의 수송기로 「공중수송반」을 만들어 美 고문단을 지원하는 한편, 공군의 공중수송을 위한 지원체제를 차차로 갖추게 되었다. 공중수송반장은 張盛煥대령이었는데, 그가 조종을 맡았고, 정비는 金英哲대위와 李奎庚대위, 그리고 尹根燮대위와 韓鐵東소위 등의 將校와 李基駿하사등이 맡았으며, 金田澤중위가 통신임무를 맡아 보게 되었다.

공중수송반은 美 고문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日本까지 장거리 비행을 감행하는 한편, 서울과 美林基地 사이를 왕래하였으며, 아울러 全國을 누비면서 인원과 물자를 수송함으로써 韓國 공군의 수송비행의 礎石으로서의 실력을 착실히 쌓아 가게 되었다.

〈C-47 수송기를 韓國空軍이 최초로 인수하다.〉



〈韓國 공군이 인수한 C-47 수송기와 同型의 항공기〉

다. 軍需物資 導入狀況

각종 항공기를 비롯하여 항공기의 부분품과 航空油脂, 兵器, 兵站물자등 공군이 軍援으로 도입한 軍需물자의 총액은 開戰 초 부터 이해 11월말까지 도합 4,200,000$에 이르렀다. 이중 항공기는 1,200,000$이고, 탄약은 2,200,00$에 이르렀으나, 탄약의 소모량으로 보아 얼마나 敵陣을 强打하였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兵器가 490,000$, 항공기부분이 190,000$이 되었고, 航空油脂가 45,000$, 兵站물자가 14,000$에 이르고 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원물자 도입총액 (單位 : $)

품목별 / 월별	항공기	부분품	항공유지	탄 약	병 기	병 참	합 계
7	635,304	41,619	11,127	399,679			1,087,729
8	68,942	39,763	8,761	436,460			553,926
9	197,226	45,883	9,775	579,338			830,222
10	114,634	29,504	7,472	407,747		13,702	573,059
11	158,829	33,002	7,677	419,296	494,176		668,218
계	1,174,932	189,771	44,812	2,240,520	494,176	13,702	4,157,913

이를 보아 開戰 초에 항공기와 기타 군수물자를 많이 도입했다가 반격을 시작한 9월에 다시 많이 도입하고 그 다음, 11월이 되어 총반격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군수물자를 또 다시 많이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항공기 도입상황을 살펴 보면 F-51 은 開戰 초 부터 11월 30일까지 20대였으며, L-4 정찰기는 13대, L-5는 2대, L-16은 1대였다.

이들 항공기의 單價는 당시 F-51은 52,942$, L-4는 3,200$, L-5는 6,400$이었으며 L-16은 8,750$이었다.

월별 항공기 도입대수는 아래와 같다.

아래 숫자는 항공기 대수

기종 / 월별	F-51	L-4	L-5	L-16
7	12			
8	1	5		
9	3	8	2	
10	2			1
11	3			
계	21	13	2	1

그리고 F-51 전투기가 주로 사용한 탄약은 250pound 폭탄과 5inch 로켓트彈, 50mm 기관포탄등이었는데 250pound 폭탄은 이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80개, 5inch 로켓트彈은 같은 기간 안에 5,040개, 50mm 기관포탄은 1,390,000발을 도입하였다. 이들 탄약의 單價는 250pound 폭탄이 개당 128.11$이었고, 5inch 로켓트탄이 개당 292.42$이었으며, 50mm 기관포탄은 發當 0.35$이었다.

이를 도표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종별 / 월별	250pound폭탄(개)	5inch로켓트탄(개)	50mm기관포탄(발)	계($)
7	130	940	290,000	399,670.10
8	250	1000	290,000	436,460.00
9	260	1,200	500,000	577,337.60
10	140	950	290,000	407,746.90
11	200	950	300,000	419,296.00
계	980	5,040	1,390,000	2,240,510.60

§ 參戰者의 證言

◇ 비행단 尹根瑩대위

(1966. 6. 16 공본, 증령)

내가 1기생 구대장을 하고 있는데 張盛煥대령이 찾아 왔었다. 원래 한 비행기가 오면 같이 가자는 약속이 되어 있어서 나는 張盛煥대령의 제의에 따라 T-6을 타고 平壤으로 갔다. 우리는 수송반을 만들어 고문단을 지원하였다.

張盛煥대령이 수송반장이었는데 수송반의 정확한 명칭은 공중수송반이었다. 그때 C-47機는 서울—平壤間을 왕래하며 활약했다.

◇ 비행단 金炳珍

(1966. 7. 1 공본, 소령)

C-47의 정비를 맡아 보았다. 그때에는 太極旗를 달고 다녔는데 美軍도 同乘하여 조종하기도 했었다.

韓國 공군의 조종사는 張盛煥대령이었고, 정비책임자는 金英哉대령이었는데 C-47 수송기는 장병을 수송하거나 연락하는데 주로 쓰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사관학교 피교육자 金賢千생도

(1967. 大邱기지, 준장)

C-47은 새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美 고문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고문단이 韓國 공군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쓰게 되었다.

§ 參戰者의 略歷

◇ 張盛煥

1948. 6. 15. 육군 항공기지사령부
1949. 9. 31. 비행단 비행대 제2중대장
1950. 9. 2. 공군본부
1952. 6. 16. 제1전투비행단공중수송반장
1952. 7. 15. 주미한국대사관 공군무관
1954. 9. 10. 제1훈련비행단
1955. 10. 15 제5훈성비행단장
1957. 2. 11 작전참모부장
1958. 6. 1. 공군대학교장
1958. 9. 1. 행정참모부장
1960. 8. 2. 참모차장
1962. 8. 1. 참모총장
1964. 8. 1. 전역

◇ 崔用德

1950. 7. 25. 총참모장 비서실장
1950. 11. 28. 항공기지사령관 겸 참모부장
1951. 5. 14. 공군사관학교 교장
1952. 12. 1. 참모총장
1954. 11. 19. 참모총장 고문
1956. 11. 1. 전역

9. UN 空軍의 活動 (50년 11월 17일부터 50년 11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42호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美 극동공군 사령관
중장 Geoge E. Stratemeyer

美 극동공군 폭격사령관
소장 Emmett Jr. O'Donnel

美 제5공군 사령관
소장 Earle, E. Partridge

南 Africa공군 제2대대 장
중령 S. V. B. Theron

가. 기간 중 활동의 개요

攻勢를 계속하고 있는 UN공군은 이 기간에 南 Africa 공군을 합하여 모두 5個國의 공군들로 北韓一帶의 협소한 敵 공군시설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UN공군의 活動은 주로 지상군에 대한 긴밀한 협동작전에 그 노력의 대부분을 傾注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 중 日氣가 不順하였던 며칠을 제외하고는 지상군의 자회관들은 필요에 따라 공중지원을 받게 되었다.

敵의 병력증강을 방지하는 UN공군작전의 효과는 국경 이북에 대두한 작전제한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저하되었다. UN공군의 작전지역 안에 드는 敵 보급과 병력의 집결중심지는 계속되는 공중공격으로 말미암아 거의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鴨綠江 南岸에서 작전비행을 하고 있는 UN공군의 조종사들은 好適한 목표가 大部分 滿洲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鴨綠江鐵橋는 성공리에 폭파하였으나, 江물의 結氷으로 말미암아 敵은 여러 地點에서 얼음을 타고 重火器, 기타 장비와 병력을 그들의 준동거점으로 운반해 오고 있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일에 이르는 동안 敵 공군은 23차에 걸쳐 반항을 시도하였는데, 여기에 참가한 敵機의 수는 44대에 달하였다.

敵 제트기의 출현은 감소되었고, 敵의 偵察度數도 3~4週 전보다 적어졌으며, 기간 중의 空中戰은 3회 밖에 되지 않았어도 敵의 空軍使用은 점차 유효하게 되어가는 徵候가 보이지

게 되었으니, 이것은 11월 28일과 12월 1일 새벽, 2차에 걸쳐 있었던 敵機의 平壤공습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11월 28일의 敵 공습에서는 UN 공군기 6대가 파손되고, 1명이 전사하였는데, 이보다 이틀 전인 26일에는 同 지역에 宣傳傳單을 살포한 바 있었다. 또한 28일에는 正體不明의 敵 四發機 1대가 나타났으며, 이날 雙發機 1대도 나타났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敵은 더 많은 항공기를 출동시켜 계속적으로 공중활동을 실시할 것이 예상되었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敵의 企圖를 판단할 수 있었다.

첫째 : UN 공군 공중정찰을 엄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둘째 : UN 공군의 공중수송을 방해한다.

세째 : 韓國에 있는 UN 軍 선박과 기타시설을 공격한다.

네째 : 敵 지상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엄호, 근접지원작전을 실시한다.

敵이 언제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滿洲의 안전지대에는 그들의 공군에게는 막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UN 공군 작전의 현저한 발전은 敵의 부대에 대한 야간폭격의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敵은 언제나 야간에만 기동을 하고 있었다.

이 기간을 통하여 UN 공군은 1일평균 602회의 출격을 하였는데, 이중 근접지원 출격회수는 119회이었고, 차단출격회수는 169회이었다.

아울러 이 기간 중에 Australia 공군의 제 77 전투비행중대는 긴밀한 지원과 엄호임무를 위하여 316회에 걸쳐 출격하였고, 수송대는 수송과 연락을 위하여 30회 출격하였다.

英聯邦 공군의 제 209 비행중대는 장거리 정찰을 위하여 9회 출격하였고, 제 205 비행중대는 같은 임무로 19회에 걸쳐 출격하였다.

한편 南 Africa 공군이 참전하여 11월 21일부터 작전을 시작한 결과, 11월 31일까지 엄호임무와 공중지원임무를 위하여 30회에 걸쳐 출격을 감행하였다.

Canada 공군은 美國과 日本을 18회 왕복하여 인원과 물자를 공수하였다.

개전 이래 11월 25일까지 UN 공군의 종합 戰果는 다음과 같다.

출격延機數	72,224 대
※ 수송기, 정찰기, 전투기, 폭격기포함	
폭탄투하	41,127 ton

화물공수	54,430 ton
인원공수	77,495 명
로켓트彈 投下	95,859 발
조차장 파괴	33 개소
항공기 전파 혹은 반파	200 대
전차 전파 혹은 반파	1,221 대
철도, 차량 파괴	7,361 대
터널봉쇄	79 개소
敵 사살	37,350 명

한편 UN 공군의 항공기 손실은 (개전 이래 11월 21일까지) 다음과 같다.

전투기	99 대
폭격기	11 대
기 타	20 대
계	120 대

기간 중 주요 작전사항은 다음과 같다.

11월 17일 : UN 공군, 제5공군 전투기 全線에 걸쳐 지상군과 협조하여 敵 보급로차단, 군사시설 폭격.

11월 18일 : 美 공군 약 100회 출격, 해군기 7사단 엄호, 241회 출격, 惠山鎭교량 爆破.

11월 19일 : 제5공군 전투기 全線에서 敵을 猛攻. 보급물자, 後方 군사시설 猛爆. 戰車 2대탄약, 무기창 8個所, 차량 9대 파괴.

11월 20일 : B-26폭격기 : 敵 후방기지 猛爆.

11월 21일 : 南 Africa 공군 제5공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

11월 22일 : 1, B-29 대기출동, 茂山—淸津방폭.

2, 제5공군 항공기 江界—新義州 鴨綠江교량등 爆擊.

11월 23일 : B-29 11機 西北部 철도망에 110ton의 爆彈投下.

11월 24일 : 제5공군 戰鬪機, 爆擊機 지상군 엄호하여 全線에서 일제히 공격, 특히 보급로의 要衝인 泰川에 집중공격.

11월 25일 : B-29 및 전투기 韓·滿국경 근방의 보급기지 猛爆.

11월 26일 : B-29 및 전투기 西部戰線 後方기지 猛爆, 24時間 爆擊 繼續, 300회 出擊.

11월 27일 : 前線에 26,000ton의 전쟁물자 공중보급.

11월 28일 : UN공군 젯트기 국경지대의 보급로와 鴨綠江鐵橋 폭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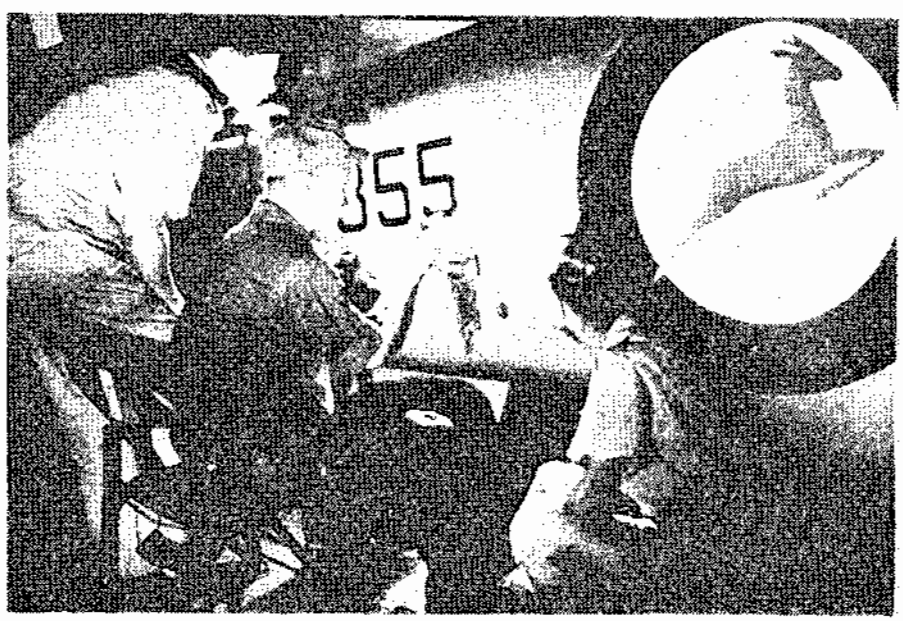
11월 29일 : UN공군, 全線에 대한 대규모 폭격 再開, 700대 출격.

나. 南Africa 공군의 활동

南Africa 연방정부(現. 南 Africa 共和國)는 1950년 8월 4일에 韓國戰爭에 공군 1개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의용병을 모집하였다.

조종사들은 냉훈련을 거듭하였고, 의용병들은 自進하여 韓國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몰려 들었다. 이리하여 9월 26일에는 嚴選한 49명의 장교와 157명의 사병으로 편성된 南Africa 공군 제2대대가 그들의 國內港인 Durban 市에서 Tjisidane號에 乘船한 다음, 日本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 日本 東京근교의 Johnson 基地에 도착한 이들은 F-51 전투기로 훈련에 임하여 韓國戰爭에서 활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11월 16일에 地上要員 분대는 5대의 F-51 전투기와 C-47 수송기에 分乘하여 永登비행장에 도착하였으며, 곧 이어 나머지 全員이 韓國에 공수된 다음, UN軍 극동공군 산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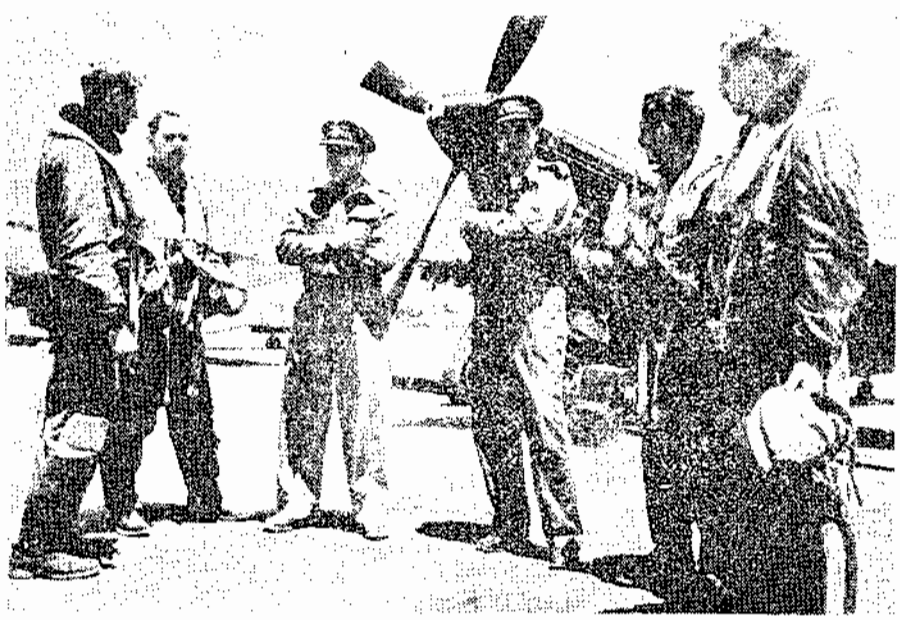
<南 Africa 공군 제2대대의 항공기에 塗裝하고 있다.>

제 18 전투폭격비행단에 편입되었는데, 19일에는 平壤의 美林基地로 前進하여 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이들은 부대명칭을 「날으는 표범(Flying Cheetah)」이라고 호칭하여 韓國에서의 共産도배들의 야욕을 분쇄하고자 韓國에 대하여 友情의 架橋를 놓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들 조종사들은 대개가 2차대전에서 경험을 얻지 않은 조종사들로서 韓國전쟁에서 목숨을 건 작전으로 중요한 경험을 얻고자 하였다.

여러가지 미비된 조건이 많았는데, 美林基地의 상황은 더욱 이들에게 애로를 느끼게 하였다. 활주로는 울퉁불퉁한 콜탈이었고, 격납고가 없는건 하면, 宿所는 천막인데다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곤란을 느낀 것은 韓國의 겨울날씨였는데, 이는 南Africa의 高溫과는 판이 달라 처음에는 부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南Africa 공군의 제 2 대대는 UN 공군에 편입되어 지상군의 근접지원작전에 배치하였는데, 11월30일에는 中共의 불법참략으로 水原비행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水原에 이동하자 참전 이래 조금은 익숙하여진 환경과 地形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출격에 임하여 敵의 군대와 차량, 보급품집적소들을 폭격하기에 이르렀다.



<南Africa 공군 제 2 대대 대대장 Armstrong 중령이 출격을 마친 조종사들과 환담하고 있다.>

참전 당시 南Africa 공군 제 2 대대의 주요보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대장	중령	S. V. B. Theron
부대대장	소령	J. P. D. Bleauw
항공지휘관	대위	Davis
	대위	Lipawski
	대위	Odendeal
	대위	Badenhorst
부관	대위	P. A. le Grange
관리장교	대위	L. Von Caues
병기장교	대위	M. Strydon
기술장교	대위	S. N. Brace
의무장교	소령	Enslin

다. 鴨綠江에서의 공군작전

11월 이전에 UN공군은 줄곧 제한조건 아래 작전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는 開戰初부터 『韓滿국경을 침범하지 말라.』는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9월 말에 실시하였던 大型 重폭격기의 집중적인 平壤폭격에 대하여 합동참모본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를 엄중하게 警告하였다.

10월 중순 Stratemeyer 중장이 『新義州로 통하는 모든 通路上의 군사적 목표에 대하여 공습으로 이를 폭격하여 완전히 제거하라.』라고 제안하자, UN軍 사령부에서는 『Washington에서 발표되는 일반정책은 그러한 공격을 군사적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거부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11월 초에 이르자 UN공군은 군사적 상황이 강력한 공군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었다.

新義州市 全域에 분산되어 있는 對空陣地로 부터의 砲火로 말미암아 제 5 공군 조종사 1명이 전사하자, Partridge 소장은 新義州를 맹폭격함으로써 對空陣地를 없이할 뿐만 아니라 敵機가 나타나면 국경을 넘드라도 그들의 基地에 까지 쫓아 가 파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Stratemeyer 중장은 "韓國에서는 어디라도 낮에는 무장정찰을 허락한다."라고 말하였으며, 국경을 넘지는 못하게 하는 한편, 폭격사령관 O'Donnel 소장에게 『11월 4일에는 江界를 폭격하고, 5일에는 朔州와 北鎭, 7일은 新義州를 폭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폭격대상 지역들은 敵의 조병창과 통신센터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폭격에서는 燒夷彈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도록 조처하였다. 이리하여 극동공군은 韓·滿국경을 잇는 橋梁을 폭파하고, 이어 南으로 戰線에 이르기까지 모든 敵의 통신시설과 공장, 그리고 敵이 은거하고 있는 都市와 마을들을 폭격하였는데, 이 계획에는 羅津과 水豊댐등의 發電시설은 제외되었다.

11월 4일, 극동공군의 제 98 폭격전대는 江界를 폭격하려다가 江界가 구름에 덮혀 있어서 韓國戰爭에서는 처음으로 清津에다 燒夷彈을 퍼부었다.

다음 날, 제 19 폭격전대 소속 B-29機 1대는 朔州와 北鎭에 대한 폭격계획을 바꾸어 날씨가 좋은 江界를 폭격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170 ton의 燒夷彈을 투하, 江界市 건물지대의 65%를 파괴하였다.

Stratemeyer 중장은 "江界市 全域이 사실상의 조병창이었으며, 굉장히 중요한 통신센터였기 때문에 韓國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燒夷彈을 퍼 부었다."라고 말하였다.

국경에 대한 극동공군의 폭격이 시작되자 美國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론이 區區하였다.

MacArthur 元帥는 "많은 병력과 물자들이 鴨綠江 다리를 건너 滿洲로 부터 國內로 수송되고 있다. 이러한 敵의 증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은 鴨綠江의 橋梁과 敵의 이동을 지원하는 시설과 장비들을 폭파하는 길이다."라고 하였으나 합동참모본부에서는 『韓·滿국경까지의 공격은 허락하되 滿洲로의 침범을 엄금하라.』고 MacArthur 元帥에게 지시하였다.

Stratemeyer 중장은 MacArthur 元帥에게 『滿洲의 국경을 침범하지 않고 鴨綠江의 橋梁을 폭격한다는 일이 불가능한 일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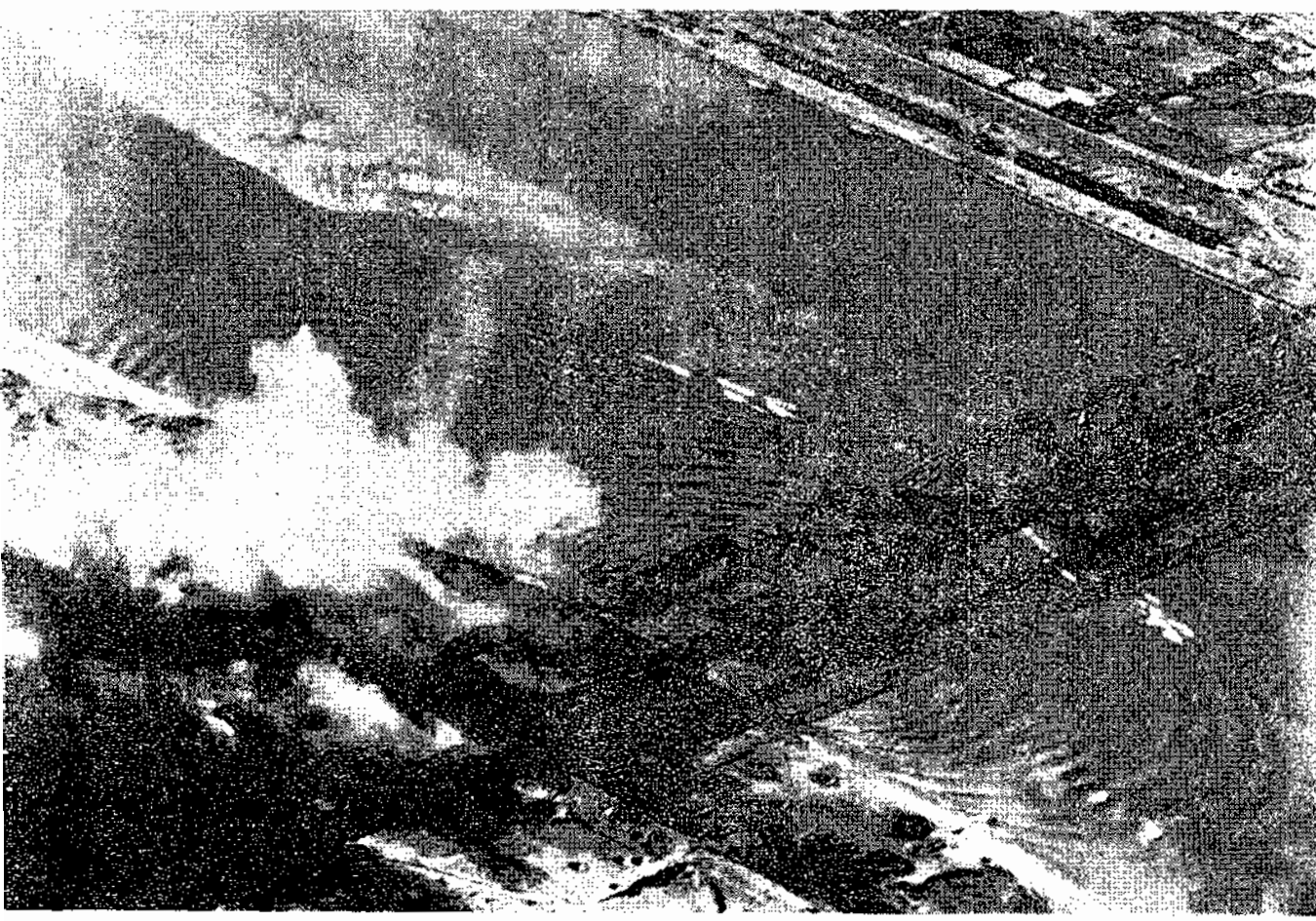
敵機들은 滿洲의 安東에서 떠서 UN공군의 항공기가 나타나면 이를 공격하고 다시 滿洲로 도망하고는 하였는데, 특히 MIG-15기에 대하여는 UN공군의 전투기는 無力한 편이었다.

Stratemeyer 중장은 11월 7일에 新義州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였으나, 이날의 날씨 不順으로 이 계획이 취소되었다.

新義州에서 滿洲의 安東과 연결하는 두개의 橋梁이 있었는데, 이들 橋梁의 길이는 1,207m에 이르렀고, 이 橋梁으로 敵은 끊임없이 병력과 물자들의 보급을 실시하고 있었다.

11월 8일 극동공군과 제5공군은 이 都市를 全力을 다하여 폭격하였다. B-29폭격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제5공군의 F-80전투기와 F-51전투기들은 敵의 對空陣地를 기관총과 로켓트, 그리고 네이팜彈으로 공격하였는데 이때, MIG-15젯트전투기들이 安東에서부터 나타나 高空飛行으로 UN공군기지에 접근해 왔으나, 제51전투요격비행단의 조종사들이 이들을 격퇴시켰다.

이 역사적인 젯트기의 空中戰에서 MIG-15전투기들이 F-80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이 입증되었으나, MIG조종사들은 전투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여 空中戰에서 패퇴하고 말았다.



<新義州의 鴨綠江鐵橋가 UN공군의 폭격으로 파괴되고 있다.>

MIG-15機 1대가 F-51 전투요격비행단 소속 Brown 중위의 F-80 전투기의 추격을 받고 도주를 企圖하였으나, Brown 중위는 MiG-15에 비해 우수한 F-80 전투기로 敵機의 後尾에 접근한 다음,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격추시키고 말았는데, 이것이 韓國에서는 敵 젯트기를 처음으로 추격시키게 된 記錄이 되었다.

이날 11. 40에 70대의 B-29 폭격기들이 新義州上空에 나타나 250kg 燒夷彈 584.5 ton 을 市街地에 투하하였고, 9대의 B-29機들은 新義州와 安東을 잇는 두개의 橋梁을 폭파하였다.

鴨綠江 건너 쪽의 敵 對空砲火는 작열하였으나, 폭격기들은 6,000m 이상의 高度를 유지하면서 편대비행으로 목표물들을 공격하였는데, 공습직후에 찍은 항공사진에 의하면 市街地의 60%를 완전히 불태워 버린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습 중 敵機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敵의 대공포화로 인한 我軍의 피해도 全無하였으나, 공습 후에도 문제의 橋梁들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지 않았다.

滿洲의 領域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이 橋梁들을 파괴하기가 어려웠는데 6,000m 上空에서 水平飛行을 하고 있는 B-29 폭격기가 地上의 목표물을 정조준폭격하기는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9일부터 3일간 美 해군비행대가 이 목표물들을 급강하폭격으로 파괴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新義州로 향하는 人道橋와 惠山鎭의 조그마한 橋梁을 파괴하였을 뿐이었다.

14일에는 제98폭격전대에서 9대의 B-29機가 500kg 폭탄으로 新義州의 橋梁 위에 투하하였으며, 다음 날에는 21대의 제19, 제307 폭격전대 소속 B-29폭격기들이 이 橋梁을 폭격하였으나, MIG-15機의 出現으로 2대의 B-29 폭격기가 손상을 입었을 뿐, 橋梁들을 폭파하지는 못하였다.

이리하여 이날부터 닥아오는 2주일 동안에는 날씨관계로 계속 출격하지 못하였는데, 그 동안 UN 공군의 폭격기들은 손실도 많이 입게 되었다.

즉 11월 9일에는 敵의 2대의 MIG-15 전투기들이 RB-29 정찰기에 덤벼 들어 이중 1대를 격추하였으나, 피탄되어 日本의 Johnson 基地에 불시착, 5명이 전사하였다.

제307 폭격전대에서는 10일에 MIG 가 추격하여 왔기 때문에 출격하였던 B-29 1대를 손실 당하고 딴 B-29 機들은 對空砲火로 피해를 입었다.

11월이 경과함에 따라 UN 공군의 이러한 노력이 결코 효과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공정찰사진에 의하면 韓國의 西北部지역의 鴨綠江上에서 敵이 假橋用 鐵船을 끌어 놓은 것이 들어 났고, 11월 19일에는 新義州와 義州 사이의 江물이 얼기 시작하였는데, 이어 滿浦鎭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얼어 붙었다.

敵은 鐵橋의 線路를 얼음 위에 올려 놓고 그위로 기차를 오 가게 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對空砲火는 我軍의 항공기들에게 큰 위협을 주었다.

UN공군은 新義州와 安東間의 교량을 "국제적 교량(International Bridges)"이라고 불렀는데 이 橋梁에 대한 폭격이 여러가지 제약으로 여의치 못하게 되자, 北韓의 각 지역에 대한 통신, 보급시설을 맹폭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鴨綠江에 대한 끊임없는 폭격은 계속되어 24일에도 橋梁폭파를 시도하였고, 25일에는 8대의 B-29폭격기들이 滿浦鎭의 鐵橋 중, 한 區間을 폭파하였는데, 이로써 鴨綠江의 鐵橋와 교량들은 半數 이상이 폭파되었으나, 결코 만족할만한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11월 28일에는 B-29機들이 대거 출격하여 主要都市들의 통신과 보급거점을 猛爆하였는데, 이들이 파괴한 도시와 파괴율은 다음과 같다.

滿浦鎭	95 %	朔 州	75 %
江 界	75 %	熙 川	75 %
會 寧	90 %	古仁洞	90 %
南 市	90 %	新義州	60 %
楚 山	85 %	義 州	20 %

그 이외의 다른 B-29 편대들은 西北지역의 郭山과 龍城, 中西部 鴨綠江 연안의 碧潼과 舊邑洞 北西部의 武坪里와 別下里등 작은 지역들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敵은 병력과 물자의 보급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고, 이때까지 암암리에 敵에 同調, 國內로 침략해 들어 와 준동하던 中共軍에게도 실망을 주게 되었다. 이들 폭격기의 공격에 있어서는 문제점도 없지 아니 하였으나, 몇몇 都市들에 대하여서는 목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였고, 차가운 날씨는 巡航高度가 2,800m 정도인 폭격기에 無理를 가져 왔기 때문에 더욱 高度를 높이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엔진의 고장을 초래하게 하였고, 또한 航空油脂도 많이 소모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나 조금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여 나간 UN공군의 활동은 눈부신 바 있었다.

第 34 章

UN 軍의 增派와 國立警察의 活動

第 34 章 UN 軍의 增派와 國立警察의 活動

要 旨

7 월 7 일 UN 安全保障理事會에서는 北傀軍의 大韓民國에 대한 不法侵略이 평화를 파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UN 회원국은 北傀의 공격을 격퇴하고, 韓國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大韓民國에 제공한다고 결의하였다.

이 결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Lie UN 사무총장은 51 개 UN 회원국에게 出兵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UN 회원국들은 적절, 잔집으로 韓國을 원조하기 위하여 陸·海·空軍과 醫療團 기타 형식으로 원조를 신청하게 되었다.

美國이 앞장 서 陸·海·空軍을 참전시키자, 이어서 英國이 참전을 하였고, 이들 兩個國의 군대는 洛東江의 최후방이선에서 실로 悲戰苦鬪를 거듭하면서 北傀軍의 격퇴에 최선을 다한 바 있었다.

戰勢가 역전되면서 그간 出兵을 신청하여 온 다음, UN 會員國의 군대들이 韓國에 陸續 도착하여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 개황을 살펴보면

9 월 19 일 比律賓(Philippines)軍의 제10대대 전투단이 釜山에 上陸하여 즉시 美 제25사단에 배속되어 殘敵 掃滅작전을 하면서 補給路경비를 담당 하였다.

9 월 27 일에는 濠洲(Australia)軍 제 3 대대가 釜山에 上陸한 다음, 英 제27여단에 배속되어 北韓 전격작전에 참전하였다.

10 월 19 일에는 土耳其(Turkey)軍 旅團이 釜山에 上陸하였는데, 이 여단은 美 제 9 군단에 배속되어 補給路의 경비를 담당하다가, 그후 美 제 25 사단에 배속이 된 다음, 市邊里지역에서 殘敵掃滅작전에 임하였다.

10 월 23 일에 釜山에 上陸한 和蘭(Netherland)軍대대는 大邱로 이동하여 경비훈련에 임하였다.

11 월 7 일에는 泰國(Thiland)軍의 혼성 1 개 대대가 釜山에 上陸한 다음, 28 일에는 平壤에 진출하여 美 제 187 공수연대에 배속되어 後方지역 경비에 임하였다.

다음 國立警察의 활동인데 我軍이 仁川 上陸과 더불어 38° 線 까지 진격하자 각 市道경찰국과 예하경찰서는 10 월 4 일까지 복귀를 완료하는 동시에 치안확보와 後方지구의 殘敵을 掃滅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軍·檢과 합동하여 附逆者를 적발, 처리하였다.

경찰 花郎대대는 美 제 7 사단에 배속되어 惠山鎭까지 진격하였고, 鐵原지구 철도경찰전투대대는 鐵의 三角地帶에서 준동하는 敵의 유격부대를 掃滅하는데 임하였다. 그리고 北韓지역에는 경찰전투대대가 各道에 진주케 되었으나, 中共軍의 참전으로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1. UN 地上軍의 增派와 그 作戰參加

〈美, 英國軍 除外〉

가. 比律賓(Philippines)軍

1950년 9월 19일 美 수송선 Sylvester Antolak號편으로 釜山港에 도착한 比律賓 제10대대 전투단은 다음 날인 20일, 釜山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上陸하였다.

Mariano Azurin 대령이 지휘하는 대대전투단은 보병 3개 중대와 1개 수색중대, 전차중대, 그리고 포병 1개 중대로서 편성되었고, 장교 64명과 사병 1,303명, 합계 1,367명으로 구성된 정예부대였다.

대대는 上陸과 동시에 密陽으로 진출하였고, 美 제25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에 배속된 다음,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에 임하였으며, 이달 29일에는 사단장 Kean 소장의 명령에 따라 牟山으로 이동하여 牟山一群北, 그리고 泗川일대에 出沒하는 敵의 遊擊부대 격멸작전을 시작하였다.

10월 8일에는 泗川을 출발하여 이달 10일 08.30에는 倭館으로 진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난 9월 16일 09.00를 기하여 UN軍과 韓國軍이 洛東江 돌파작전을 감행함에 따라 美 제1기갑사단(장, Robert G. Gay 소장)에 배속 중인 美 제5연대 전투단(장, John L. Throckmorton 대령) 이 9월 19일에 洛東江을 渡河한 다음, 敵制高地인 268高地(倭館 東南쪽 4km)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敵 제3사단 예하의 약 1,200명을 무찌르고, 계속 진격하여 9월 20일 15.30에 이곳 倭館을 완전히 탈환하였으나, 洛東江을 돌파한 UN軍과 韓國軍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진격하게 되었다.

美 제1군단……京釜街道

韓國軍 제1군단……東海岸

〃 제2군단……中部地區

美 제9군단……湖南地區

이 당시 美 제1군단 예하 제1기갑 사단은 鳥山부근에서 美 제7사단이 仁川上陸 후 先

鋒隊와 연결되므로써 當面의 敵은 退路가 차단되어 四方으로 분산하였으며, 敵 제2, 제6, 제7, 제4 및 제9사단의 패잔병의 일부는 智異山으로, 그리고 敵 제5, 제8, 제12 및 제15사단 패잔병의 일부는 太白山 지역으로 각각 잠입한 다음, 北上을 꾀하는 한편, 게릴라戰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倭館지구는 敵 제3사단을 비롯하여 제10사단과 제13사단, 패잔병의 일부가 미처 퇴각치 못하고 부근 일대에서 彷徨하고 있었다.

대대는 10월 10일에 사단 작전명령 제14호에 의거하여 大邱—倭館—金泉間의 主補給路 경비와 부근 일대의 패잔병 격멸작전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大隊長 Azurin 대령은 다음날인 11일, A중대(장, Maximo Dumlao대위)를 星州로 진출시켜, 美 제65연대 전투단의 작전임무를 인수케 하였고, 수색중대(장, Marcos T. Garcia 대위)는 倭館일대에, 그리고 B중대(장, Paulne Sanchez 대위)는 선기동(龜尾 西北쪽 3km) 지점에 전개토록하는 한편, C중대와 전차중대는 主補給路 경계에 각각 임하도록 하였다.

10월 24일 대대는 倭館지구의 격멸작전 임무를 끝내고 金泉을 경유, 北上을 계속한 다음, 11월 1일 07.00에 38°線을 돌파하였으며, 이달 3일에는 美 제187공수연대 전투단에 배속 변경과 동시에 대대본부를 黃州에 설치하고 패잔병 격멸작전을 계속하였다.

이날 14.00에 이르러 수색소대와 전차소대로써 증강된 A중대(장, Maximo Dumlao 대위)는 시내를 순찰 중, 주민들의 提報로 변두리의 한 건물을 완전포위하였으며, 전차 소대장 Bomny Serrano 중위가 지휘하는 5인조 특공대가 건물 속으로 돌입하여 2명의 敵 보초병을 총검으로 刺殺하는 즉시로 방안으로 뛰어 들어 여러명의 敵에게 저항할 기회를 주지 않고 모조리 포로한 것을 비롯하여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한 敵 167명을 모두 포로로 잡은 다음, 蘇製기관총 2정과 소총 68정, 그리고 彈藥 10상자를 노획하는 戰果를 거두었으니, 이것이 그 빛나는 緖戰이 되었다.

〈比律賓軍의 釜山도착〉

11월 10일, 대대는 黃州지구에서 蠢動하는 敵의 遊擊부대를 격멸하고, 南川

店으로 진출하였으며, 곧 이어 新溪로 진격 중, 尾隅洞부근에서 2개 대대규모의 敵의 기습을 받게 되자, 대대는 즉각 각 중대를 전개시켜 82高地를 공격하여 이 敵을 격파하였다.

이 지역을 비롯한 市邊里—金化—平康—鐵原—伊川일대에는 北傀 魁首金日成의 지령으로 敵 前線司令官 金 策이 지휘하는 제6, 제7, 제9 및 제10사단 소속 패잔병 약 20,000명이 所謂 제2전선을 형성하여 게릴라戰을 벌였고, 北傀軍이 공세로 移轉할 경우, 前線과 後方에서의 非正規戰의 展開를 노리고 있었다.

이달 12일 대대는 계속 銀店里(新溪西쪽 8km) 일대의 격멸작전에 임하여 敵 12명을 사살하는 戰果를 거두었으나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美軍 대대와 그 임무를 교대하고 25일까지 수색전과 주요시설 및 主補給路 경비에 임하였으며, 11월 24일을 기하여 UN軍과 韓國軍이 淸川江線에서 총 반격전을 강행함에 따라 이달 25일, 대대는 嘉川으로 진출하여 美 제8군의 主補給路를 확보하면서 後方지역을 경비하게 되었다.

나. 濠洲(Australia)軍

Australia의 Menzies首相은 6월 29일에 UN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濠洲政府는 大韓民國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日本近海에서 작전하고 있는 해군 함정 2척을 韓國에 파견할 것.』이라 하였고, 英聯邦 日本占領軍 司令官 Horace Robertson 중장은 濠洲 공군 제77비행대대에 韓國출격을 명령하였다.

7월 6일, 긴급소집된 濠洲 國會는 이러한 정부의 긴급 조치를 批准하였고, 地上軍 派韓

〈濠洲軍 대대의 釜山上陸〉

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이 자리에서 결론짓지는 못하였다.

7월 26일, Menzies首相은 1개 대대규모의 지상군의 派韓결정을 발표하였고, 그 병력은 海外주둔군과 현역 및 예비역 장병 중 지원자로서 구성할 것을 밝혔다.

8월 8일, 派韓을 위하여 선발된 장병들은 國威를 선양하고, 국제적 평화와 自由友邦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용감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출동에 앞서 교육훈련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현역 장병은 New South Wales州 Ingleburn지방에 있는 皇室연대 제1대대에서, 그리고 소집된 예비역 장병들은 Victoria州의 Pucka punyal지방에 있는 皇室연대 제2대대에서 각각 所定의 교육훈련을 받게 되었다.

9월 3일, 派韓 장병들은 濠洲로 부터 日本에 공수되었고, 점령군으로서 日本에 주둔중인 皇室연대 제3대대에 편입되어 派韓부대를 완전편성하고, 대대장에는 C. H. Green中領이 임명되었으며, 부대정비와 實戰을 방불케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9월 27일, 장병 960명으로 구성된 대대는 美 수송선 Aiken Victory號 편으로 日本을 출발하여, 다음 날 釜山에 도착하여 釜山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上陸하였고, 곧 大邱로 진출하였다.

대대장 Green中領은 大邱에서 英國軍 제27여단장 B. A. Coad준장과 그의 참모들을 만나 韓國戰의 현황과 앞으로의 작전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이 여단에 배속과 동시에 慶尙南道 晋州지역으로 진출하여 부근일대에서 出沒하는 敵 유격부대의 격멸작전을 展開하였다.

10월 5일 대대는 새로운 작전을 위하여 여단 예하 Argyll대대 및 Middlesex대대와 같이 大邱로 이동하여 金浦로 공수되었고, 10월 9일에는 38°線을 돌파한 다음, 퇴각하는 敵을 쫓아 北進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하 전투상황은 英國軍 제27여단에서 동시에 취급할 것임.)

다. 土耳其(Turkey)軍

(1) Turkey 여단의 派韓

北傀의 不法侵略을 받은 大韓民國을 UN安全保障理事會議의 決議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을 결정하게 된 Turkey共和國 정부는 7월 25일 首都 Ankara市에서 派韓 여단을 창설하였고, Tahsin Yazici 준장을 여단장으로, Celal Dora 대령을 제241 보병연대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여단은 제241 보병연대를 主軸으로 하여 보병 3개 대대와 포병 1개 대대, 그리고 공병, 병기, 수송 및 의무 각 1개 중대와 통신소대 등의 지원부대로서 편성하였고, 병력은 Turkey 全軍에서 지원한 장병 중에서 선발한 장교 259명과 하사관 395명, 그리고 사병 4,414명이고, 그밖에 군속 및 문관 22명, 합계 5,090명으로 구성하였다.

여단은 7월 26일 부터 9월 23일까지 Ankara市 부근의 兵舍와 Porathhlar市 부근의 포병학교에서 事前교육과 전투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 당시 전 국민은 UN軍의 일원으로서 자유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여단을 派韓하게 된 것에 큰 矜持를 가졌고, 여단의 훈련과 행사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行事時에는 Ankara市가 온통 祝祭 기분에 들뜨기도 하였다.

9월 24일, 여단은 Iskenderun으로 이동하였으며, 美國에서 支援한 5척의 수송선 중, 3척에 병력을, 2척에는 兵器와 장비를 각각 실은 다음, 9월 25일과 27일, 그리고 30일과 10월 2일에 걸쳐 열광적인 市民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Iskenderun港을 出港하였다.

수송선단은 Suez운하를 거쳐 Ceylon島의 Colombo灣, Singapore, 그리고 Philippines과 臺灣을 경유하여, 10월 17일 釜山港에 도착하였으며, 10월 19일 釜山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上陸하였고, 곧 이어 열차편으로 大邱로 이동하였으며, 大邱大學에 마련된 兵舍에 수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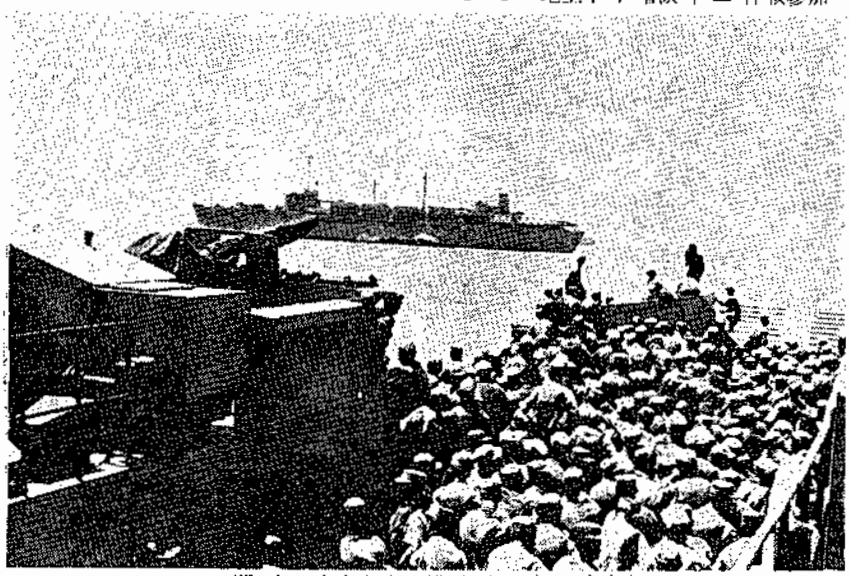
東京의 UN軍사령부에 파견 중인 Turkey 연락장교는 大邱로 飛來하여 여단장에게 보고하기를 「여단은 美 제9군단에 배속과 동시에 後方지역의 敵 유격대 격멸작전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0월 20일 여단장 Tahsin Yazici준장은 大田에 위치한 美 제9군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군단장 Coulter소장을 만났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要旨의 지시를 하였다.

「가. 여단은 앞으로 3주간에 걸쳐 군수지원의 單一化를 위하여 美製 兵器 및 장비로 대체하는 동시에 대체한 장비와 병기는 貴 本國으로 後送할 것.

나. 여단은 美製 병기 및 장비의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아울러 기동훈련과 수색 및 경찰훈련을 목적으로 大邱—大田間의 主補給路 경비와 道路 주변에 준동하는 敵의 유격대 격멸작전에 임할 것.」

당시 美 제9군단은 UN軍과 韓國軍이 仁川 上陸作戰을 계기로 洛東江 戰線을 돌파하여



〈Turkey여단이 釜山港에 上陸하고 있다.〉

急速 北進을 전개하므로써 미처 퇴각하지 못한 敵의 패잔병이 後方지역 일대와 특히 병참基地인 釜山에서 戰線에 이르는 主補給路 부근에서 유격전을 벌이게 되어, 美 제2사단을 大田 西쪽 및 그 南西쪽에, 그리고 美 제25사단을 大田지역과 그 南쪽 및 그 東쪽지역에 각각 배치하여 패잔병 격멸작전과 主補給路 확보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날 이단에는 美軍과의 협조와 새로운 장비 및 兵器에 의한 교육훈련을 돕기 위하여 美 Gamby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연락장교단이 파견되어 왔다.

10월 21일부터 이단은 장비의 교체와 조작 및 숙달훈련을 시작하였으며, 主補給路경비와 주변일대의 유격병 격멸작전에 열중하였으며, Turkey 共和國 독립 제27주년 기념일인 이달 29일에는 大邱에서 韓國 정부의 고위관리와 韓美兩國의 많은 將星들이 참석한 가운데 祝祭宴을 베풀기도 하였다.

여단의 교육 훈련과 大邱—大田間의 主補給路경비, 그리고 패잔병 격멸임무는 11월 10일 報恩—長湍地區로 이동하게 되어 끝을 맺었다.

(2) 戰線 進出

中共軍의 韓半島 침략으로 UN軍과 韓國軍의 全 戰線이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자, 美 제8군사령관 Walker 중장은 美 제2사단을 美 제1군단에 배속 변경과 동시에 軍隅里지구로 투입하였고, 美 제25사단을 開城지구로 진출시켜 市邊里—金化—平康 및 鐵原 일대 山岳지역에서 敵 전선사령관 金 策의 지휘 아래 준동하는 敵 제6, 제7, 제9, 제10사단의 패잔

병 약 20,000명을 공격하였다. 따라서 美 제9군단은 後方지역의 패잔병 격멸작전 임무를 11월 2일부로 韓國軍 제3군단에 인계하고, 順川지구로 사령부를 비롯한 군단 主力을 이동하였으며, MacArthur 계획에 따른 총 반격작전 참가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단은 11월 10일 보급품과 장비, 그리고 부상병을 열차편으로, 병력은 차량편으로 각각 大邱를 출발, 13일 汶山, 長湍지구로 이동하여 美 제25사단에 배속되었다.

이단은 臨津江邊에서 市邊里에 이르는 正面 25km, 종심 50km의 넓은 지역을 담당하여 美 제25사단의 後方경계와 지역 내의 패잔병 격멸작전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戰線에 진출하여 敵과의 一戰을 決하고자 원하던 Turkey 장병들은 비록 一線은 아니더라도 UN軍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투대열에 堂堂히 참가하였다는데에 스스로를 달랬다.

清川江 교두보 작전이 奏效하여 中共軍의 南侵企圖를 분쇄하고 격퇴시켜, 勝利의 자신을 얻은 MacArthur 元帥의 지침에 따른 美 제8군의 총반격 개시일이 11월 24일로 확정됨에 따라 이단은 11월 19일 이 지역에서의 작전 임무를 끝내고 이달 22일 汶山지구를 출발하여 26일 軍隅里 지구로 전출하였는데, 여기에서 壯快한 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以下 第五卷에서 取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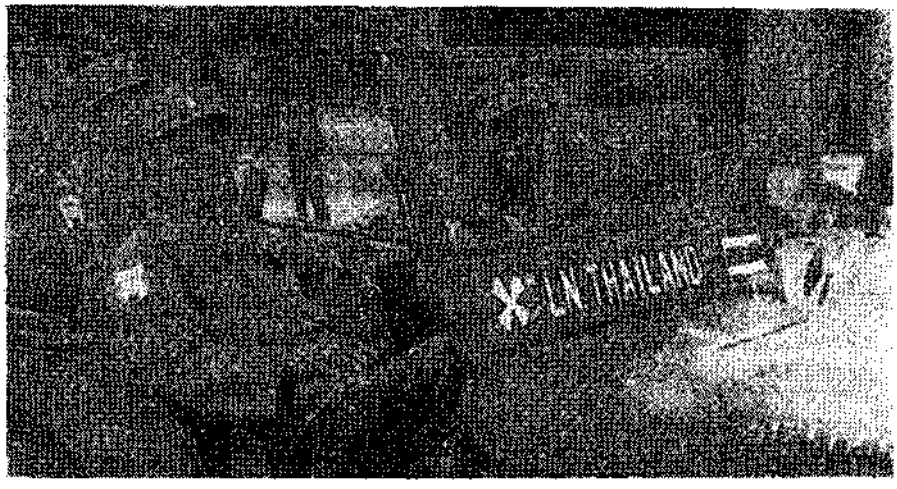
라. 泰國(Thailand)軍

北傀軍은 6월 25일, UN安全保障理事會議의 決議에 따른 警告를 무시하고, 전쟁행위를 도리어 증대하여 계속 남침을 확대함에 따라 6월 27일 UN安全保障理事會議는 새로운 決議로써 大韓民國을 적극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회원국에 각각 지원요청 電文을 打電하였다.

7월 1일 Thailand 외무장관은 Trygve Lie UN 사무총장에게 『Thailand 정부는 UN安全保障理事會議의 決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北傀軍의 침략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꺼이 응할 것임.』이라는 電文 應信을 하였다.

7월 14일 Trygve Lie UN 사무총장은 UN安全保障理事會議의 결의를 지지한 회원국에 또 다시 電文을 발송하여 謝意를 표하고 전투병력의 직접지원을 요청하였다.

7월 20일 Thailand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이 案件을 심의한 결과, Thailand는 장래의 自國의 안전을 위하여서도 UN決議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前提 아래 1개 연대



〈Thailand軍의 釜山 도착〉

규모의 전투병력을 派韓한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날로 국무회의에 회부하여 안보회의의 원안대로 통과를 보게 되었다.

7월 21일 Thailand 議會 上下 兩院의 批准을 받았고, 22일에는 Thailand王의 승인을 받아 23일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電文을 UN 사무총장에게 發信하였다.

『Thailand정부는 장병 4,000명으로 구성된 혼성부대를 파견코자 하며 派兵에 따른 세부절차는 UN軍사령부와 협의코자 함.』

Thailand정부는 9월 22일에 陸軍省규정을 제정, 공포하고 派韓을 위한 혼성 제21연대를 창설하기로 하였으며, 10월 16일에는 王族인 「피싯 디스폰 디스꾼」소장을 派韓사령관으로, 「보리분 쑤라 짜릴」대령을 연대장으로, 「끄리앵 끄라이 아따난」중령을 제1대대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10월 22일 혼성 제21연대 제1대대는 Thailand 해군 戰艦 「씨창」號와 해군의 補給船인 商船 「헤뜨따머쓰」號 편으로 韓國을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戰艦 「쁘라쎄와 방뻐꽁」號 2척이 호위에 임하였다.

11월 7일 釜山港에 도착한 Thiland軍은 곧 大邱大學에 마련된 兵舍로 이동하여 3주간에 걸쳐 美製 장비 및 병기로 대체하고 교육과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11월 8일 15.00 Thailand軍 사령관 「디스꾼」소장 참석 하에 국기 게양식을 거행하였는데, 異國의 하늘 높이 Thailand 국기가 펄려일 때, 모든 장병들의 가슴은 벅찼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적시었다.

대대는 새로운 병기와 장비의 숙달훈련과 수색, 정찰훈련에 열중하였으며, UN軍의 一員으로서 자유 우방의 평화와 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北傀軍을 격멸코자 하는 戰意를 나날이 드높아 갔다.

UN軍과 韓國軍이 11월 24일 총 반격전을 감행하게 됨에 따라 Walker 중장의 긴급 명령에 의하여 대대는 11월 22일 07.00와 09.00에 2개 열차편으로 大邱를 출발하여 이달 28일 11.00, 平壤에 도착하였으며, 곧 이어 美 제187공수연대에 배속되었고, 美 제8군 後方지역의 경계와 패잔병 격멸작전을 시작하였다. (以下 第五卷에서 取扱한다.)

다. 佛蘭西(France)軍

1950년 6월 25일과 27일, 그리고 7월 14일 세차례에 걸친 UN 安全保障理事會議의 결의와 이에 따른 사무총장 Trygve Lie의 지원요청 電文에 接한 佛蘭西共和國 政府는 自由世界의 안녕 질서와 國際的 평화를 위하여 大韓民國을 積極支援키로 決定하였고, 7월 22일 해군은 巡洋艦 La Grandiere號를 印度支那로 부터 韓國으로 즉각 出動케 하여 UN 해군의 一員으로 참전케 하는 한편, 8월 25일에는 派韓 獨立大隊를 創設하여 UN軍 佛蘭西大隊라고 命名하고 대대장에 Le mire 중령을 임명하였다.

대대는 全軍에서 지원한 현역 장병과 全國에서 自願한 예비역 장병 중에서 엄선한 장교 51명과 하사관 190명, 그리고 사병 824명, 합계 1,065명으로써 편성한 정예부대로써 9월 초순부터 Auvours 지방에서 부대 장비와 實戰을 방불케 하는 전투훈련을 실시 하였다.

10월 25일 輸送船 Athoss號에 탑승한 대대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수많은 市民들의 열광적인 환송을 받으며 Marseille 港을 出航하였고, 11월 29일 釜山에 도착하여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역사적인 第1步를 韓國땅에 내디뎠다. (以下 第五卷에서 取扱한다.)

〈France軍 대대의 釜山도착〉

2. 國立警察의 活動狀況 (50. 9. 1 / 50. 11. 30)

가. 一般狀況

仁川上陸작전이 MacArthur UN軍 총사령관의 陣頭지휘로 성공리에 끝나게 되자, 이와 때를 같이하여 洛東江戰線에 膠着되었던 我軍은 이 여세를 몰아 민족의 염원이던 北進을 결행하는데 총력을 다하였다.

敵은 我軍의 이러한 破竹之勢와 같은 진격에 크게 당황하여 北으로 패주하는데 급급하였다.

국립경찰은 國軍과 UN軍의 긴밀한 협조 아래 수복지구 치안확보와 잔비격멸은 물론, 鐵道 및 主補給路 경비임무에 임하였고, 또한 정투임무도 병행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1) 後方地域 共匪의 活動概要

9. 28 首都탈환으로 洛東江戰線에서 최후발악 중이던 敵은 그 지휘계통이 마비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퇴각이 계속되었다.

UN軍 및 國軍의 진격으로 퇴로가 차단된 일부 敵과 지방공비들은 隣近 山岳지대로 도피하였거나, 혹은 僞裝을 하고 피난민 속에 잠입하여 겨우 延命을 企圖하여 陣地化하였으며, 小都市와 山間마을을 기습하는, 이른바 죽지 못해 사는 보급투쟁을 계속하며, 경찰의 토벌작전에 대응하는 한편, 良民의 학살과 鐵道 및 主補給路에 대한 기습과 파괴를 企圖하였으며, 惡性이 악질적인 공산당원과 남노당원 및 공산부역자의 首腦들은 지하당 조직을 획책하고 있었다.

이때 敵의 지도체제는 四分五裂상태였으나, 9월 30일부터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중에 全國 경찰국장들로부터 비상경비총사령부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全國 각지에 散在되어 있는 敵의 세력은 傀儡軍 패잔병과 지방공비 중 완전무장병력이 아직도 56,432명이나 되고, 비무장병력이 4,000여명으로서 輕視할 수 없는 수효였다.

(가) 北傀軍 패잔병의 動態

敵 제10사단은 소위 「鐵의 三角지대」라고 불리우는 鐵原과 平康, 金化주변의 山岳지대에

잠복하여 鐵道와 我軍의 主補給路 및 小都市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었고, 그밖에 智異山, 德裕山, 太白山지구에서 준동하고 있던 패잔병들은 국립경찰의 귀순공작에 점차로 호응하여 한가닥 삶의 길을 찾는 者와 일부는 소극적인 게릴라로서 준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 지방공비의 動態

당시 지방공비들로부터 神格化된 존재였고, 南勞黨의 實權者였던 李鉉相은 金日成으로부터 소위 남반부인민유격군 총사령관이라는 임명을 받았다.

李鉉相은 洛東江전선의 붕괴 이후, 정예부대라고 자부하던 南部군단을 거느리고 江原道 伊川까지 후퇴하였다.

10월 하순, 金日成으로부터 「南韓에 있는 빨치산을 총지휘하여 교란작전을 단행하라.」는 지령을 받고 다시 南下하여 太白山—俗離山—德裕山—回文山—智異山—母後山—黃梅山 등지에서 後方교란을 위하여 暗躍하였다.

특히 지방공비들을 道黨, 郡黨, 武裝빨치산부대로 改編하여 훈련케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黨 機關은 지하당을 조직하고 武裝부대는 근본적인 교란작전을 하되 我軍의 兵力分散을 목표로 하여 民心교란과 보급투쟁으로 구분하여 暗躍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조직적인 暗躍은 10월 하순부터 노골화되었고, 中共軍 불법침입의 소문이 나돌게 되자 점차로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敵의 暗躍 중에 특기할만한 것은 지방공비의 대부분이 자기 출신지역에서 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내의 氣象, 地形, 民心, 風習, 言語 血緣등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어, 北傀軍 패잔병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준동 양상이 달랐는데, 이것은 後日 我軍의 공비토벌작전에서 명확히 입증되었다.

道黨, 혹은 郡黨의 지도자들은 모두 철저한 공산주의자들로서 赤色활동망 조직에도 유능하였으며, 「죽지 않으면 산다」라는 口號를 내 세워 귀순하기를 全的으로 거부하면서, 오직 赤化통일만을 妄想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공산주의 理念에 대한 신봉뿐 同族관념이라는 倫理性은 찾아 볼 수 없고, 그들의 理念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꺼리지 않았다.

湖南과 嶺南에서의 공비들의 暗躍相은 可恐할만한 것이였으며, 서울을 비롯한 大都市에 피난민을 가장하여 잠입한 공산주의자와 공비들은 혼란된 치안상태를 틈 타 악질적인 殘虐행위를 계속하였는데, 특히 軍警출신이나 그 가족들에 대하여 극심하였고, 이러한 殘虐행위

의 事例는 일일히 열거키 어려울만큼 많고, 또한 全國的인 것이었다.

(2) 國立警察의 收復作戰

仁川 上陸작전이 감행된 9월 15일 이후 UN軍과 韓國軍은 破竹之勢로 敵을 섬멸하면서 北進을 계속하여 失地를 회복하였다.

국립경찰은 회복된 地域의 치안확보를 위한 책임을 맡게 되고, 그 제1차로 浦項경찰서부대가 수복작전에 성공하자, 全國 각 경찰서부대는 비상경비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UN軍과 韓國軍의 失地회복작전에 뒤 이어 점차적으로 수복작전을 수행하였다.

(가) 비상경비총사령부의 활동

UN軍과 國軍과의 긴밀한 협동 아래, 軍의 작전방침과 정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립경찰은 仁川 上陸작전의 성공과 洛東江전선에서의 敵의 潰滅 이후, 그 士氣가 대단히 高揚되었다.

9월 25일, 京仁지구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치안국 정보수사과장 鮮于宗源경무관은 先發隊長으로 한 경찰부대는 大邱를 출발, 釜山에서 日本船籍의 雇用船 新興丸편으로 仁川에 진출하였다.

10월 2일 02.00, 仁川에 진출한 경찰선발대는 서울을 위시한 京畿道일대의 수복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총사령부도 10월 4일 서울로 이동하여 全國 경찰국에 다음과 같은 긴급임무를 부여하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동회장 및 반장을 통한 등록사무의 개시.

② 자수 및 귀순공작의 철저.

③ 민중조직—정보망, 공작조직의 활용.

④ 정훈공작 철저—公報, 宣撫, 對敵공작.

⑤ 위험물 제거.

⑥ 통신 및 교통복구의 급속화.

⑦ 토벌작전의 철저.

⑧ 기타 치안확보상 필요한 경찰활동의 강화.

11월 12일 趙炳玉 내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崔致煥총경을 경무관으로 승진시켜 군경협동과 본격적인 後方공비토벌에 적극 힘쓰도록 당부하였다.

또 그는 北韓進駐경찰대의 편성을 金泰善이사관에게 命하였는데, 이로써 편성된 경찰대의

편성개요는 다음과 같다.

江 原 道—江原道경찰국 병력

黃 海 道—제210전투대대

平安南道—제202, 203 전투부대

咸鏡南道—제205전투부대

이와같이 편성하여 進駐하도록 하였으나, 中共軍의 불법침략으로 그 實現을 보지 못하였고 ,이들 부대 중 제201전투대대와 제202전투부대는 鐵道기동부대로서, 또 제203과 제205부대는 智異山경찰전투사령부의 主力부대로서 각각 그 임무를 변경하여 개편되었다.

(나) 市, 道경찰국의 수복작전 상황

洛東江 방어전선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各 市, 道 경찰전투부대는 我軍의 반격과 더불어 총사령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각각 소속 경찰국장의 지휘 아래 UN軍 및 國軍과 협동, 또는 단독작전으로 失地를 회복하는 전투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때 敵으로부터 경미한 저항이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성공적으로 수복작전을 전개할 수가 있었는데, 全羅北道 非邑과 高敞경찰서부대는 敵 패잔병과 지방공비의 頑强한 저항에 부닥쳐 惡戰苦鬪하면서 수복작전을 성공리에 종결하였는데, 각 경찰국의 수복일시는 다음과 같다.

수 복 경 찰 국 명	경 찰 국 장 성 명	수 복 일 자
서울특별市 경찰국	이 사 관 李 益 興	1950. 10. 1
京 畿 道 〃	경 무 관 韓 景 錄	1950. 10. 1
江 原 道 〃	〃 金 益 俊	1950. 10. 4
忠 北 〃	〃 金 義 澤	1950. 10. 1
忠 南 〃	〃 金 虎 羽	1950. 9. 30
全 北 〃	〃 鄭 泰 燮	1950. 10. 1
全 北 〃	〃 沈 亨 澤	1950. 10. 3
鐵 道 경찰본대	〃 田 得 秀	1950. 10. 1

이와같이 수복작전에 1차적으로 성공한 全國 각 경찰국장들은 관할道內의 治安情勢를 勘案하여 정상적인 경찰 본연의 임무에 盡力하는 한편, 赤治 3개월간의 傷痕을 최단시일내에 회복함과 동시에, 後方공비와 패잔병의 토벌과 공산당 지하조직의 색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傾注하였다.

나. 警察의 共匪討伐 狀況

각 경찰국의 수복작전과 때를 같이하여 각 경찰서장들은 상부의 命令없이도 독립적으로 指揮權을 행사하여 後方공비의 토벌은 물론 UN軍에 배속된 경찰특수부대나 38°線 接境 경찰서장들은 敵 색출, 토벌에 적극적인 전투활동을 전개하였으니,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九月 中의 戰況

(가) 永川경찰서(장, 高尙遠경감)

9월 16일 2,300, 永川郡 石鏡面 倉土里 마을에 敵 제15사단 패잔병 약 1개 소대가 惡天候와 험한 地形을 이용하여 侵襲하였으나, 차定勳경사가 지휘하는 야간매복소대와 충돌하여 2시간 여에 걸친 격전 끝에 마침내 격퇴 당하고 말았는데, 이때 경찰측의 피해는 없었다.

戰　果

사　살	11명
포　로	1명
노획 : 蘇제 重기관총	1정
蘇제 소총	10정
M I	1정
칼　빈	1정
다 발 총	1정
전 화 기	1대

9월 21일 : 10.00, 永川 道德山 중턱에 敵 패잔병 10명이 취사 중이라는 마을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즉시 曺南陽경사가 지휘하는 특공대는 이를 포착하여 1시간에 걸친 공방전 끝에 敵을 전멸시켰다.

戰　果

사　살	9명
포　로	1명
노획 : M I	1정
칼　빈	4정
蘇제소총	7정

99식 소총 1정

38식 소총 1정

(나) 奉化경찰서(장, 朴鍾燮경감)

9월 24일 : 10.00, 奉化경찰서부대는 春陽面 文珠山의 險한 곳에 잠복 중이던 奉化郡黨과 패잔병 120명이 합세한 敵과 격전을 전개하여 惡天候와 불리한 地理的 조건에도 불구하고 10여차의 攻防戰 끝에 다음과 같은 큰 戰果를 올렸다.

戰 果

사 살 45명

포 로 34명

노획 : 소총 27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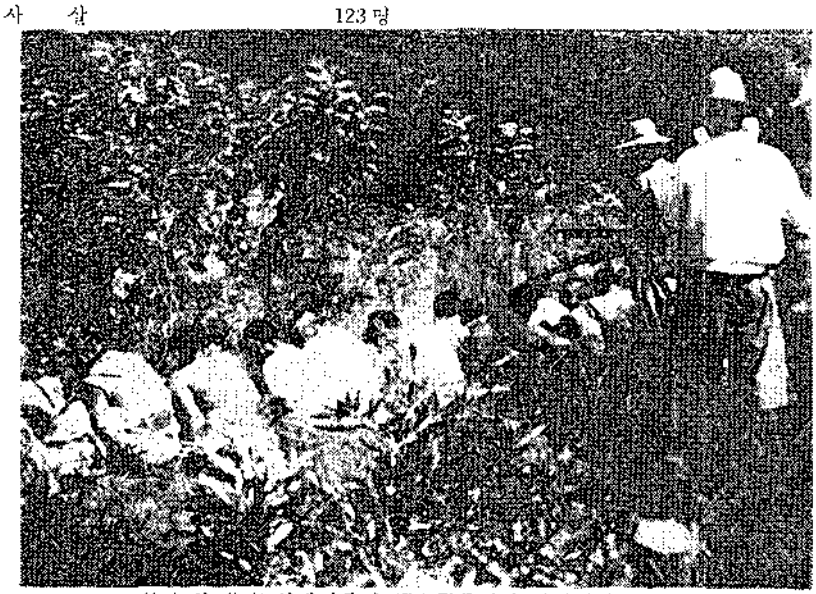
(다) 榮州경찰서(장, 金士嚴경감)

9월 22일 : 06.00에서 10월 22일 06.00까지 걸친 기간 중 浮石寺를 中心으로 한 山岳지대에 잠복하고 있던 敵 제2군단에하 각 사단 패잔병과 地方공비 200여명은 계속하여 浮石지서를 습격하고 있었다.

이에 金士嚴경감이 지휘하는 榮州경찰서부대는 10여차에 걸친 공격을 감행하여 그때마다 敵을 격퇴한 결과, 그 戰果는 다음과 같다.

종합戰果

사 살 123명



〈無知한 共産 앞잡이들이 婦女子들까지 학살하려는 순간〉

포 로	33명
노획 : 鹵獲소총	59정
M I	1정

(라) 聞慶경찰서(장, 崔錫采경감)

9월 26일부터 10월 26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중 崔錫采경감이 지휘하는 聞慶경찰서부대는 俗離山과 鳥嶺 山岳지대에 잠복하면서 後方을 교란하던 敵 南部군단 산하 연합부대와 聞慶郡黨 및 地方공비 300여명과 18회에 걸친 교전 끝에 다음과 같은 戰果를 올렸다.

종합戰果

사 살	78명
포 로	79명
노획 : 각종소총	77정

(마) 尙州경찰서(장, 金琪鉉경감)

9월 26일부터 10월 26일에 이르는 동안에 金琪鉉경감이 지휘하는 尙州경찰서부대는 俗離山지구에서 山林지대를 거점으로 준동하고 있는 敵 연합부대와 尙州郡黨 및 지방공비를 위시한 패잔병등 300여명과 10여차에 걸친 공방전 끝에 다음과 같은 큰 戰果를 올렸다.

종합戰果

사 살	145명
포 로	133명
노획 : 각종소총	105정

〈高敞郡 孔音面 七岩里에서 男女老少 구분치 않고 대학살을 자행한 敵의 蠻態〉

(바) 全北경찰국 선발대(중대장, 宋英柱경감)

9월 28일, UN軍 제25사단 선발경찰대와 협동진격하고 있던, 宋英柱경감이 지휘하는 全北경찰 선발대는 당시 全州市內에 있는 多數의 敵 패잔병과 공산당 全北 정치보위부 및 全北道黨을 위시한 지방공비등 1,500여명이 군경과 그 가족 및 右翼人士, 청년, 부녀자등 70여명을 全州형무소에서, 또 수백명의 良民을 新興 학교 뒷山에서 학살하고 있다는 탈출 市民의 提報에 접하여 良民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아내야 할 중책을 느끼게 되었다.

이리하여 다음날인 29일 15,00에 경찰선발대는 UN軍과 협동하여 全州市를 공격하여 敵을 市內로부터 몰아 내게 되었는데, 이때 全州市 애국청년 지도자인 李鶴熙등은 청년 400여명을 이끌고, 全州 尙武館에 본부를 두면서 공비와 패잔병을 격퇴하는 白衛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全北경찰선발대와 UN軍이 入城하자 긴밀한 협동으로 全州市 수복을 성공리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종합戰果

노획 : 백 미 1,000가마
잡 곡 300가마
연 초 800가마

(2) 十月 中의 戰況

(가) 慶州경찰서(장, 李康學총경)

10월 1일 : 西面 道里에서 朴斗一경위가 지휘하는 義勇警察로 편성된 특공대는 이 지역에서 山岳지대를 이용하면서 보급투쟁을 계속하는 패잔병 1개 중대를 공격하여 격퇴하였다.

戰 果

사 살 15명
노획 : 鮮제 기관총 2정
소 총 13정

손 실

분대장전사 3명
부 상 1명

(나) 南原경찰서(장, 金奉辰경감)

10월 7일 : 05.00, 金奉辰경감이 지휘하는 南原경찰서부대와 義勇警察은 910高地(實面 天皇峰)를 중심으로 주변 山岳지대에서 준동하고 있던 敵 제6, 제7사단 패잔병 1만

여명이 후퇴할 때에 南原경찰서 경무계사무실(16평)에서 부상 당한 敵 50여명을 사살한 후 入山하여 蛇梅지서 일대의 농작물을 약탈코자 지서와 마을을 계속 기습하는 것을 그때마다 곧 공격하여 이를 격파하였다.

그러나 敵은 我 경찰대가 출동하면 분산, 퇴각하고, 본서로 復歸하면 또 기습하여 오는 것을 상투수단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밤치계」의 기습이 컸으며, 이 전투에서의 戰果와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사　살　30명

노획 : 蘇제 소총　10정

손　실

전　사　경찰관 10명

(다) 公州경찰서(장, 趙時元총경)

10월 8일 : 10.00 趙時元총경이 지휘하는 公州경찰서부대는 鷄龍山에 잠복 중인 敵 패잔병 50여명을 수색 중, 鷄龍山 北部능선에서 발견한 결과, 즉시 공격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戰　果

사　살　5명

포　로　20명

노획 : 蘇제 소총　2정

(라) 井邑경찰서(장, 申道宗경감)

10월 8일 : 井邑경찰서 사찰주임 金正基경위는 지방공비인 井邑자위대장을 誘導하여 잡은 다음, 심문한 결과 그들은 泰仁지서까지 진출한 井邑경찰서부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공비 南部지도부와 3127연대 및 337연대를 主力으로 편성한 다음, 全北道黨지도부책 朴春成 외 224명의 지방공비와 住民에게 竹槍으로 武裝케 하여, 도합 800명의 武裝병력과 300명의 非武裝병력을 공격부대로 편성 중임이 판명되었다.

10월 9일 : 20.00, 계속 진출하던 井邑경찰부대는 즉시 泰仁지서 주변의 地形을 판단하여 전투준비를 완료한 다음, 이 敵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 당시의 敵은 井邑郡黨위원장 白安基와 빨치산부대장 南勞黨員 李在俊, 그리고 337연대장 李啓俊과 共匪두목 文仲基를 각 전투부대의 지휘자로 정하고, 정치지도책 金大甫와 작전참모 文泰通등은 직접 공격부대를 지휘하였으며, 共匪두목 宋基泰로 하여금 虛設지휘

자로 지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宋基泰는 지난 9월 26일 古阜에서 右翼人士 100여명을 화升山 鑛굴에 몰아 넣고 虐殺한 者로서 井邑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罪囚과 그 가족, 그리고 右翼人士와 애국청년등 400여명을 휘발유를 뿌리고 총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極惡의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 접한 田道宗경감은 이러한 학살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는 오직 井邑탈환만이 최선의 方策이라고 판단한 결과 제반 준비를 진행시켰다.

10월 10일 : 19.00, 井邑에서 공격준비 중이던 敵은 新泰仁을 공격하여 我 경찰부대는 敵과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一進一退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된 全北경찰국장 鄭泰燮경무관은 方謹熙경감이 지휘하는 慶南전투부 200명과 車一赫 (特採)경위가 지휘하는 18전투대대 및 수목업무를 수행하던 高敞경찰서부대를 모두 통합지휘하는 한편, 金世吉방위군대령이 지휘하는 제509연대와 협동하여 이 敵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10월 26일 10.00까지 27회에 걸친 彼我間의 攻防戰 끝에 마침내 井邑을 탈환하게 되었다.

이로써 낮에는 경찰부대가, 밤에는 공비가 점령하던 사태는 一掃되었으나, 이에 따라 双方間에 피 어린 격전이 거듭 전개되었던 것이다. 원래 井邑의 地形은 방위하기에는 불리한 점이 많은데다가 金堤—井邑—高敞를 연결하는 지대는 식량이 풍족하여 공비들에게 糧道해결의 기반이 되었으며, 貧富의 差가 심하여, 赤治 3개월간에 共產부역자가 다른 지방에 비하여 유난히 많았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井邑은 공비들로부터 계속적인 위협 아래 놓여 있으며, 이곳이 彼我間 격전지였음을 다음 도표로도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敵 단대호 및 병력>

거점	단대호	병력수	
		무장	비무장
回文山지구 (가마골)	全北道黨 유격대 홍두깨 부대 바락병단 金堤部黨	300	900

거점	단대호	병력수	
		무장	비무장
內藏山지구	全北道黨 李在俊부대 337연대 井邑郡黨	800	300
高敞지구	高敞郡黨 扶安郡黨 淳昌 〃 長城 〃	900	200

(마) 靈岩경찰서(장, 金成道경감)

10월 13일 : 05.00 靈岩地區 山岳지대에 잠복 중이던 敵 제3지구 유격대의 무장병력 50명과 비무장병력 1,500명으로 된 지방공비부대는 金井지서와 그 일대를 기습하였다.

이에 李鳳洞경감이 지휘하는 靈岩경찰서부대는 기습하여 온 이 공비를 즉시 공격하여 격퇴시켰으며, 아울러 良民 1,200명을 구출하였다.

戰果

사살 87명

포로 1명

노획 : 소총 7정

손실

부상 2명

양민학살 3명

(바) 居昌경찰서(장, 金甲龍경감)

10월 14일 : 05.00 敵 제2사단과 제4사단 패잔병 및 居昌郡黨 지방공비 1,500명은 德裕山方面으로부터 北上지서를 기습하였다.

이에 北上지서 병력은 21시간동안에 걸쳐서 孤立, 奮戰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渭川지서까지 철수하였다.

이러한 急報에 접한 居昌경찰서장 金甲龍경감은 곧 부대를 渭川지서 左右로 배치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敵과 10월 16일 15.00까지 2日間에 걸쳐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敵의

頑强한 火力으로 말미암아 次期작전을 위하여 17.00 馬利지서까지 철수하였다.

敵은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여 馬利지서와 民家와 住民에 대하여 무차별 사격을 集中하여 왔으며, 我 경찰부대는 居昌方面으로 이동하여 戰線을 정비하였다.

이 지음 高梯方面에서 준동 중이던 지방공비 300여명과 隣近山岳에 잠복 중이던 地方공비 200여명도 또한 馬利方面의 敵들과 策應하여 居昌邑을 三面으로 포위하면서 一時에 공략코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커다란 위기를 당하게 된 경찰부대는 결사적인 抗戰을 계속하는 한편, 居昌邑民의 半 以上을 南쪽 안전지대로 긴급 疎開시켰으나, 居昌은 계속 위급한 狀況 下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와같은 절박한 事態보고에 접하게 된 慶南경찰국장 崔天경무관은 곧 휘하 제26전투경찰대대를 현지에 급파하여 전투에 임하게 하였는데, 이때 敵은 서서히 퇴각하고 있었으나, 경찰부대의 미약한 火力으로서는 퇴각하는 敵의 강력한 火力을 당할 수가 없었다.

11월 18일 : 新任 慶南경찰국장 李成柱경무관은 居昌전투부대에 병력 1개 대대를 증파하는 한편, 박격포와 기타 공용화기를 위시하여 충분한 量의 實彈을 긴급 보급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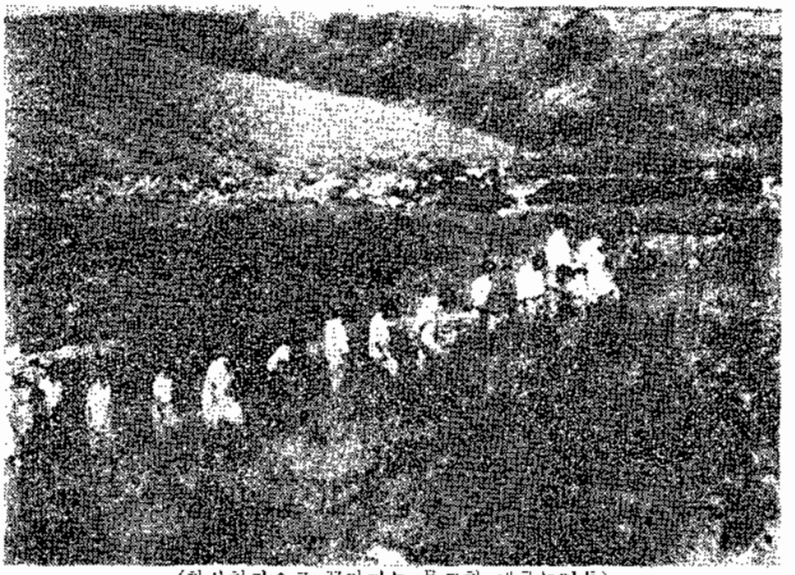
이와같은 증원에 士氣가 회복된 경찰부대는 11월 20일 04.00에 渭川지서를 탈환하고, 22일에는 渭川과 北上面界線의 天然장애 지대에서 頑强한 저항을 계속하는 敵과 晝夜에 걸친 전투를 전개하여 一進一退하다가 23일 05.00를 기하여 金尙春경감이 지휘하는 제26전투경찰대대를 先鋒으로 일제히 공격을 전개하여 敵을 德裕山 쪽으로 격퇴시키고, 이날 16.00에는 居昌의 위기를 수습하는 동시에 北上지서를 탈환하였다.

戰 果

사 살	119명
포 로	7명
노획 : 각종소총	12정
손 실	
전 사	11명
부 상	12명
망실 화기(소총)	5정

(사) 光州경찰서(장, 金俊鎭총경)

10월 9일 : 10.00, 回文山 가마골에 거점을 두고 南部指導部, 軍官양성소, 무기창등을 관할하고 있는 日本軍 출신 南勞黨員인 遊擊병단장 金炳儀은 光州市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을



〈학살현장으로 끌려가는 무고한 애국농민들〉

企圖하여 300여명의 정예 공비부대를 지휘하고, 그 一隊는 潭陽으로부터 光州 中興洞으로, 또 나머지 一隊는 無等山으로부터 桂洞으로 각각 兩翼을 포위하면서 습격하여 왔다.

이에 金俊鎭총경이 지휘하는 光州경찰서부대는 光州市 외곽지대에서 接敵하여 5시간에 걸친 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光州에 주둔하고 있던 UN軍 제25사단 포병대가 지원포격을 가함으로써 有機的인 협동작전 끝에 마침내 敵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戰　果

사　살	28명
포　로	25명
노획 : 각종소총	41정
손　실	
부상(경찰관)	3명

(아) 花郎부대(장, 朴正俊총경)

10월 16일 : UN軍 제10군단 예하 제7보병사단에 배속 중이던 花郎부대는 海兵艦 E. D. Patric(24,000 ton)號로 釜山을 出港하여 利原에 上陸하고, 10월 29일에 北靑을, 뒤이어 11월 1일에는 豊山을 각각 점령한 다음, 예하 제1, 제2중대를 主力으로 11월 5일에는 洪原을 점령하였다.

그후 화랑부대는 洪原에서 梨坡里에 이르는 16km의 補給路경비를 전담하여 효과적인 임무를 완수하였는데, 이것은 美 제7사단 진격부대의 主補給路였다.

여기에서의 임무를 완수한 花郎부대는 再次 진격하여 三水를 거쳐, 19일에는 中山을 점령하고, 21일에는 美 제7사단 제17연대와 함께 鴨綠江 上流인 惠山鎭에 도달하였는데, 이 부대는 경찰부대로서 韓·滿국경선에 진격한 유일한 부대였다.

한편 文鶴東경감이 지휘하는 제3중대는 12월 10일 美 제7사단의 예하부대와 합동작전 중 古土里에서 中共軍의 공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花郎부대를 지휘한 간부는 다음과 같다.

대대장	총경	朴 正 俊
제1중대장	경감	李 根 馥
제2중대장	경감	全 璋 漢
제3중대장	경감	文 鶴 東
대대본부	경감	柳 春 馥
대대부관	경위	金 得 練

종합戰果

포 로 200명

(자) 靑丹경찰서(장, 金億淳경감)

10월 1일 : 02.00 文錫濟총경과 金億淳경감은 京畿道경찰국 산하 각 경찰서의 치안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仁川에 도착하였다.

이때 開城以南의 각 경찰서는 수복작전을 완료하고 치안확보에 들어 가고 있었다. 文錫濟총경은 水原, 平澤, 安城, 龍仁, 利川, 驪州, 廣州, 楊州, 開城등 각 경찰서의 수복상황과 치안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金億淳경감을 靑丹경찰서장으로 임명하여 靑丹수복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때 北進 中인 UN軍과 國軍은 開城, 白川을 탈환하고 金川지구에서 격전을 치른 다음, 南川으로 공격을 계속 중이었으며, 靑丹경찰서부대는 開城을 출발하여 陸路로 白川과 延安을 점령하고, 10월 15일 17.00, 接敵없이 靑丹수복에 성공하였다.

이튿날 11.00, 海州를 탈출한 청년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UN軍이 海州에 진격치 않으므로 海州를 방위하던 敵은 海州형무소에 수감된 군경, 공무원, 청년단원, 右翼人士, 越南者 가족을 靑殺, 또는 학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急報를 얻게 된 金億淳경감은 곧 이것을 京畿道 경찰국장에게 無電으로 보고하였

고, 보고에 접한 京畿道경찰국장은 靑丹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즉시 海州를 공격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명령을 수령한 靑丹경찰서장 金德淳경감은 즉시 全병력을 동원, 자신은 2개 중대를 지휘하여 海州형무소와 市의 중심부로 진격하는 한편, 卓洪鎭경위가 지휘하는 2개 중대는 泉洪里를 거쳐 海州 首陽山을 점령하고, 海州의 敵을 공격케 되었다.

10월 16일 : 17.00 金德淳경감이 지휘하는 2개 중대는 海州비행장을, 그리고 卓洪鎭경위가 지휘하는 2개 중대는 泉洪里驛을 동시에 점령한 후, 계속 진격하여 17일 11.00 海州를 공략하여 市內로 진입하던 중 14.00 沙里院으로부터 UN軍 전차 2대가 市內에 돌입하니 敵은 海州 東쪽의 山岳지대로 퇴주하다가 卓洪鎭부대와 接戰 끝에 無氣力하게도 투항하고 말았으며, 일부는 海州 北쪽으로 계속 퇴각하다가 UN軍에게 포착되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때 海州市는 이곳을 방어하던 北傀軍과 보안서원들이 우물과 유치장 안에 100여명의 良民을 학살하였는데, 특히 이중에는 부녀자들이 아이를 업은 채 학살 당한 참혹한 殘惡相도 보였으며, 이를 UN軍 공보반원과 종군기자들이 현장을 그대로 촬영하여 UN본부에 보고하는 자료로 삼았다.

또한 敵은 10월 16일 海州형무소 수감자들에게 아침식사에 毒藥을 넣은 쌀밥과 쇠고기국을 주었는데, 수감자들 중 의심을 품고 먹지 않은 開城경찰서원 裵英鎭순경과 開城 韓靑간부 李承業, 그리고 서울市경찰국 소속 金某경위와 刑事 2명을 비롯한 도합 200여명은 겨우 생존하여 형무소 폭격시에 九死一生으로 탈출하였으나, 그외의 300여명은 虐殺을 당하거나 혹은 餓死되고 말았다.

위의 생존자들은 靑丹경찰서 차량으로 後送되었으며, 이때 靑丹경찰서부대는 다음과 같은 戰果를 올렸다.

戰 果

사 살	76명
포 로	346명
노획 : 말	6필
직 사 포	2문
重기관총	3정
輕기관총	3정
박격포	10정

(차) 長興경찰서(장, 張命圭총경)

10월 18일 : 10, 00여 561高地(有治面 新月山)에서 日本軍 출신으로 南部경비사령부 民靑연대사령관인 韓月洙는 그가 지휘하는 敵 병력 300여명을 집결시켜 놓고, 康津경찰서 습격을 모의 중이었다.

이러한 정보로 입수한 長興경찰서장 張命圭총경은 제1중대장 崔賢堂경위와 제2중대장 龍南眞경사, 그리고 제3중대장 趙貴南경사로 하여금 敵을 先制공격케 하여, 격전 끝에 敵을 격멸하고 康津경찰서 습격을 事前에 방지하는데 공을 세웠다.

戰 果

사 살	42명
포 로	5명
노획 : 로켓트포	1문
각종소총	18정
손 실	
부 상	2명

(카) 江原道경찰전투부대(보안과장 金炳斗총경)

10월 18일 : 15.00, 楊口, 華川方面으로부터 南下 중인 敵 제1군단 패잔병 1만여명은 春川을 목표로 공격을 企圖하고 있었다.

이 急報에 접한 보안과장 金炳斗총경은 곧 경찰전투부대를 증원부대로 이끌고, 春川에 진출하는 즉시로 치열한 市街戰을 전개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부득이 지휘소를 洪川으로 이동하여 군경합동작전으로 반격을 가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春川탈환은 당분간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彼我間에 치열한 攻防戰을 거듭하면서 春城郡 西面 安保里를 경유하여, 加平郡 雪岳面 淸平까지 퇴각하면서 苦戰하다가, 12월 2일에 16.00 군경합동 작전으로, 끝내 春川을 탈환하고야 말았다.

戰 果

사 살	50명

(타) 堤川경찰서(장, 田哲圭경감)

10월 21일 : 06.00 德山面 道基里에 敵 패잔병 70여명이 습격하여 掠奪 중임을 보고 받은 堤川경찰서장 田哲圭경감은 곧 경찰부대를 지휘하여 이를 포위, 공격한 다음, 1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이 敵을 전멸시켰다.

戰　果

사　살	10명
포　로	60명
노획 : 기 관 총	29정
소　총	28정
손　실	
전　사	2명

(과) 高敵경찰서(장, 曺元春경감)

10월 초순부터 興德지서 뒷山 109高地(高敵地方 8km)에 유격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高敵—扶安—淳昌—長城郡黨 지방공비와 패잔병 및 빨치산부대는 武裝병력 900명과 비무장 병력 200명으로 興德—井邑사이에 저항선을 형성하여 경찰의 高敵수복을 극력 방해하는 한편, 高敵郡에 거주하는 良民과 軍警 및 그 가족과 右翼人士와 부녀자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약탈, 방화등 최후발악적인 만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때의 敵은 1대의 전차와 적사포등 우수한 火力으로 장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敵情을 확인한 全北경찰국장 鄭泰燮경무관은 高敵경찰서장 曺元春경감으로 하여금 10월 10일까지 수복작전을 완료하도록 명령하였으나, 井邑지구의 공비공세로 인하여 진격이 저지 당하였으며, 高敵경찰병력으로는 束手無策이므로 車一赫경위가 지휘하는 제18전투대대와 慶南전투부대 2개 중대의 증원을 받아 井邑을 먼저 수복하고, 11월 11일 05.00를 기하여 高敵경찰서부대와 제18전투대대는 109高地 東쪽을 공격하고, 慶南부대는 109高地 北쪽과 西쪽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敵은 전차를 先頭로하여 全火力을 동원하여 반격하여 오는 한편, 海上으로 萬浦에 上陸한 扶安빨치산부대와 함께 109高地 北쪽에서 작전 중인 慶南부대를 逆包圍하려고 기습하여 왔기 때문에, 我軍의 제1차 공격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井邑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敵은 점차 병력을 증강하여 2,000명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我軍을 공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11월 13일 : 05.00 경찰부대는 109高地를 총공격하여 5시간에 걸친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敵勢는 여전히 완강하여 또다시 次期작전을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제2차 공격에서도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때 2차에 걸친 타격을 받은 敵은 良民을 강제로 동원하여 竹槍, 곡괭이, 삽등으로 긴

급 武裝케 함으로써 我軍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비의 확충을 꾀하였다.

11월 17일 : 04.00, 경찰부대는 A 및 B, 2개조로 공격부대를 편성하여, A조는 苔浦里—校雲里—109高地 北側, 그리고 B조는 新成里—蓮浦—峙龍—109高地 西側, 또 主攻부대는 蓋洞—九洞—109高地 東側을 三方面에서 일제히 공격하여 이날 14.00里內를 점령하고, 18.00에는 드디어 最强據點인 109高地를 탈환하고, 다음날 15.00에는 扶安을 탈환함으로써 敵을 高敞方面으로 압축하면서 추격하였으나, 11월 20일 06.00에는 暴雨가 쏟아지는 가운데 高敞를 공격, 탈환하였으므로, 敵은 長城方面으로 패주하기에 이르렀다.

戰	果	
	사 살	150명
	포 로	50명
노획	전 화	1대
	말	1필
	적 사 포	1문
	박 격 포	2문
	소 총	55정
	백 미	370가마
	식 유	10드럼
손	실	
	부 상	8명

(하) 慶北특공대(장, 楊弘植총경)

10월 29일부터 11월 5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奉化에서 준동하고 있던 金應彬이 지휘하는 敵 유격군 제1지대는 奉化郡 物野面 梧田里와 주변 山岳지대 村落에 대하여 기습과 약탈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敵을 격멸하기 위하여 奉化경찰서에 증파된 慶北특공대 소속 河龍澤경위는 병력 1개 중대를 직접 지휘하여, 이 敵을 추격한 끝에 모조리 격멸하고, 다음과 같은 큰 戰果를 올렸다.

戰	果	
	사 살	56명
노획	박 격 포	1문
	다 발 총	13정

M 1	2 정
蘇제 권총	3 정
99식 소총	1 정
실 탄	2.523 발

(가) 慶州경찰서 특공대(서장, 李康學총경)

10월 31일 : 10.30 榮州지구에서 준동하고 있던 敵 패잔병 300여명은 浮石지서에 공격하여 왔다.

이때 그 지역에 증원부대로 出戰 중이던 慶州특공대는 榮州경찰서장 高尙遠경감의 통합지휘 아래 敵을 공격하여 敵 참모장을 사살하는등 많은 戰果를 거두었다.

戰 果

사 살	22 명
노획 : 소총	30 정

(3) 十一月 中의 戰況

(가) 鐵原지구 철도경찰전투대대(장, 張得天경감)

11월 5일 : 10,00, 鐵原--平康—金化지구의 山岳지대에서 敵 제10사단 등 패잔병 5,000여명은 後方교란을 획책하고 제 1 차로 敵 300명을 福溪로 침공시킨다.

이때 福溪를 경비하고 있던 趙京來경위가 지휘하는 제 3 중대는 敵과 접촉하여 격전 끝에 敵을 격퇴하였다.

같은 날 17.00 를 기하여 敵은 다시 1,000여명의 병력으로 福溪를 공격하여 왔으나, 제 3 중대는 6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敵을 또 다시 격퇴하였다.

11월 6일 : 04.00 敵은 2,000여명으로 병력을 증강한 다음, 제 3 차로 福溪침공을 감행하게 되니, 제 2 중대장 趙明宰경감은 제 2 중대와 제 3 중대를 통합지휘하여 善戰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福溪를 失陷 당하고, 외곽지대에서 攻防戰을 거듭하면서 철수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통합지휘하던 제 2 중대장 趙明宰경감은 솔선 陣頭에서 勇戰奮鬪를 거듭하다가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11월 7일 : 06.00, 제 3 중대장은 어제 전투에서 전사한 趙明宰경감의 지휘권을 계승하여 제 4 차로 攻防戰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一大 반격전을 감행하여 敵을 三面으로 포위하고, 공격하므로써 敵의 殘留병력 500여명을 격퇴하고 福溪를 탈환하였다.

11월 10일 : 01.00, 격퇴 당한 敵은 3,000여명의 대병력으로 제 5 차로 침공목표를 平康

으로 정하고, 平康주변의 野山지대로 잠입하는 것을 趙京來경위가 지휘하는 경찰부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敵을 至近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5시간에 걸친 방어전을 전개하였는데, 敵은 平康기습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될 타격을 받고 주변 山岳지대로 분산하여 패주하게 되었다.

11월 19일 : 01.00, 敵은 또다시 2,000여명의 병력을 모아, 제6차로 공격목표를 鐵原驛과 市內로 정한 다음, 三面으로 포위하고 기습하였는데, 이때 鐵原을 경비 중이던 張得天경감이 지휘하는 철도경찰전투대대는 北進 중, 鐵原에서 대기 중인 元山진격부대장 李海鎭총경과 咸興진주부대장 楊弘植총경, 그리고 北靑진주부대장 嚴光浩경감 및 진주부대 鄭成俊경감등과 서로 呼應하여 급변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히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3晝夜에 걸친 격전 끝에 敵을 격퇴하고 鐵原을 계속 확보하게 되었으며, 前後 6차에 걸친 攻防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 戰果와 손실을 나타냈다.

戰 果

	사 살	774명
	포 로	24명
노획	소 총	82정
	손 실	
	전 사	32명(趙明宰경감 孫承天경위 등)

(나) 江景경찰서(장, 李世煥총경)

11월 9일 : 01.00, 大屯山에 거점을 두고 江景일대에서 기습과 약탈을 일삼던 敵 忠南道黨위원장 南忠烈과 論山郡黨위원장 郭海鳳, 그리고 扶餘郡黨위원장 金雲會등이 지휘하는 공비 550명은 江景驛 부근 차운산으로부터 江景경찰서를 공격하여 경찰서 청사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아래서도 江景경찰서장 李世煥총경은 직접부대를 지휘하고, 白兵戰을 전개한 끝에 敵을 격퇴하였으며, 江景市內에서 掠奪하는 한편 江景역에 방화하고 있는 敵을 계속 추격하여 大屯山으로 격퇴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江景驛舍도 全燒하게 되었다.

戰 果

사 살	90명
부역자 포로	300명
손 실	
부 상	2명
驛 舍	全燒

11월 27일 : 伐谷지서장 李世春경사는 連山으로부터 2,000여명의 피난민을 인솔하여 敵이 준동하고 있는 大屯山盆地와 伐谷面 일대를 수복하고, 지서를 중심으로 직경 2km에 이르는 일대에 四周경계 陣地를 구축한 다음, 878高地(大屯山)에 거점을 둔 論山郡黨위원장 김 論山 至誠醫院의 醫師로서 南勞黨員인 郭海鳳이 지휘하는 빨치산부대 550여명의 動向을 注視하고 있었다.

이날 05.15에 敵은 지서를 중심으로 東쪽 345高地(매봉)와 西쪽 黃龍寺와 南西쪽 汗三千里 뒷山으로부터 일제히 쌍가리를 울리면서 三面으로 포위, 공격하여 왔으며, 이에 대비하고 있던 李世春경사는 伐谷義警隊長 尹天基와 부대장 方鳳義등 30여명과 지서방위 40여명을 직접 지휘하고, 18개 초소와 2개의 토지카陣地에서 7시간에 걸친 치열한 격전 끝에 마침내 敵을 격퇴시켰다.

戰 果

사 살	49명
포 로	3명
노획 : M I	4정
다 발 총	2정
소 총	4정
손 실	
전 사	경관 1명
	의경 2명
부 상	10명

(다) 加平경찰서(장, 李枝雨경감)

11월 17일 : 17.00 험준한 山岳으로 둘러싸인 加平은 주변 山 속에 잠복하여 준동하던 敵 패잔병 800여명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失陷되었으며, 加平경찰부대는 외곽지대로 철수하여 次期작전을 준비하였다.

急報에 접한 京畿道 경찰국장 韓景錄경무관은 즉시 加平지구 전투사령부를 편성하고, 보안과장 文錫齊총경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즉시로 현지에 급파하여 통합지휘케 하는 한편, 증원부대를 동시에 투입하였다.

11월 18일 : 10.00에 이르러 비상경비총사령부에서는 新任 보안과장 崔致煥경무관을 현지에 급파하여 상황을 면밀히 검토케 하는 동시에, 加와 협동하여 加平탈환작전에 임하게 하였는데, 崔致煥경무관은 현지 경찰병력을 통지휘한 다음, 3시간에 걸친 총공격을 감행하

므로써 마침내 潰滅을 탈환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당시 치안국 수석고문관 William R. Hamby 대령의 역할인데, 그는 빈약하기 짝이 없던 경찰장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崔致煥경무관의 現地 요청에 쾌히 응락한 다음, 박격포와 30 구경소총을 비롯한 많은 장비를 UN軍사령부로부터 긴급지원케 하여 준 바 있다. 이 전투에서의 종합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 果

사 살	36 명
포 로	3 명
노획 : 박 격 포	3 문
소 총	25 정

(라) 寶城경찰서(장, 金應富경감)

11월 14일 : 10.00, 651高地(文德面 望月峰)에 全南道黨부위원장 겸 西部地區黨위원장인 金善宇가 지휘하는 西部地區黨 빨치산부대가 병력 150여명으로 잠복하고 있는 것을 金東鎭경위가 지휘하는 경찰전투중대가 이를 기습공격하여 많은 戰果를 거두고, 下山하던 중 이날 16.00에 鳳凰里 마치재溪谷에서 敵의 伏兵에게 기습을 당하여 큰 손실을 입었다.

戰 果

사 살	42 명
포 로	5 명
노획 : 로켓트포	1 문
소 총	18 정

손 실

전 사	14 명
부 상	20 명

(마) 潭陽경찰서(장, 韓綿錫경감)

11월 23일 : 03.00, 回文山 가막골에 잠복하고 있던 潭陽郡黨위원장 鄭鉉淵이 지휘하는 지방공비 200여명은 金城面 鳳凰里에 침입하여 掠奪을 恣行하고 있었다.

이 急報에 접한 潭陽경찰서장 韓綿錫경감은 경찰대 90명을 직접 지휘하여 04.00에 敵을 완전포위한 다음, 총공격을 감행하여 07.00에 敵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戰 果

사 살	47 명

天人共怒할 北傀軍의 만행)

노획 : 蘇제 重기관총 1정
美제 重기관총 1정
輕기관총 1정
B A R 1정
칼빈소총 8정
M-1소총 2정

손 실

부 상 9명

(바) 陝川경찰서(장, 張在益경감, 蔡伊錫경감, 鄭奉兆경감)

10월 초순부터 伽倻山과 修德山 일대에서 준동하던 地方공비와 패잔병 2,000여명은 伽倻

山에 있는 海印寺를 점령한 다음, 崔凡述 住持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곳 海印寺에는 國寶 8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었다.

陜川경찰서장 張在益경감은 이 같은 사실을 上部에 보고하는 한편, 경찰병력 1,200명을 투입하여 敵을 계속 공격하였으나, 敵은 頑强하게 저항할 뿐이었다.

李承晩대통령은 趙炳玉 내무부장관에게 海印寺의 보존은 물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國寶 8만대장경을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공비들에게 燒失 당하지 않도록 최대의 방책을 강구할 것을 엄명하였으므로 내무부장관은 즉시 崔致煥경무관으로 하여금 전차에 탑승케 한 다음, 海印寺로 급행케 하였으나, 도중에 있는 교량들이 이미 敵에 의하여 파괴되었으므로 高靈에서 전차를 大邱로 돌려 보내게 되었다.

11월 17일 : 15,00에 현지에 도착한 崔致煥경무관은 즉시로 작전을 통합지도하는 한편, 공군본부와 협의한 결과 海印寺 주변에 대한 공격을 요청하였고, 공군본부에서는 金 信소령이 지휘하는 F-51 전투기 편대를 출격시켰으나, 敵은 海印寺 경내에서 對空사격을 가해 왔으며, 편대장 金 信소령은 國寶 보존을 위하여 이를 감히 폭격하지 못한 채로 釜山 비행장으로 돌아갔다.

이때 현지 경찰부대는 海印寺를 목표로 수차에 걸친 공격을 반복하였으나, 敵의 저항을 뚫지 못하다가 崔致煥경무관이 총 지휘하여 海印寺를 기습공격한 결과, 敵을 마침내 海印寺로부터 격퇴하였으며, 崔凡述住持도 억경에서 구출되기에 이르렀다.

(4) 女子警察의 活動狀況

8.15 광복 이후 美 군정청의 發足과 더불어 창설된 여자경찰은 韓國戰爭이 勃發하자 후퇴하면서부터 전투경찰에 배속되어 취사요원으로, 또는 피난민 구호활동과 五列색출, 對共첩보활동요원등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자기를 희생시켜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일념으로 능히 이러한 경찰임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여자경찰을 지휘한 지휘관과 지휘부 요원은 다음과 같다.

주요 지휘관 및 지휘부 요원

초대 여경국장		高 應 京
서울여자경찰서장	총경	金 允 禎
仁川 여자경찰서장서리	경위	白 占 業
	총경	安 寧 結

총경 李 容 順
총경 鄭 京 鳳
경감 金 貞 鎬
경감 金 昌 信
경감 朴 鳳 伊
경감 盧 馬利亞
경위 金 姬 淑

다. 檢擧索出한 附逆者의 처리상황

1950년 7월초, 정부는 大田으로 이동하면서 긴급명령 제1호를 공포하여 비상사태 아래 취한 임시조치로서 軍, 檢, 警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결과 軍에서는 金昌龍육군준장을, 검찰에서는 吳制道부장검사를, 그리고 경찰에서는 정보수사과장 鮮于宗源경무관을 각각 선출함으로써 對共수사활동동의 一元化를 기하였고, 權力을 남용하므로써 惹起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戰時협동체제를 확고히 하였다.

9·28 수복과 더불어 金國에서 검거되는 공산주의 同調分子와 敵에게 强壓되거나 혹은 附和雷同하여 부역한 者들에 대한 처리에서 서로 혼돈를 惹起할 우려성을 적극 방지하여 亦治 3개월 동안에 발생한 형사정책상 여러가지 문제점 해결에 全力을 기우렸다. 이러한 措置의 一環으로 이 당시 「부역자 처리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에 의하여 검거되는 부역자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처리되었다.

(1) A급

(가) 6.25 전에 左翼에 가담한 者로서 악질적인 者.

(나)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北傀軍에게 부역한 者.

(다) 군경과 그 가족 및 민간인을 虐殺하거나, 虐殺케 하는데 앞장 선 者.

(2) B급

(가) 피동적으로 부역한 者로서 大韓民國에 충성하면서 하는 수 없이 협력한 사실이 나타난 者.

(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者.

(3) C급

(가) 6.25 전까지는 선량한 者였으나, 자기 생명을 보존키 위하여 부득이 소극적으로 부역한 者.

(나) 6.25 前까지는 선량한 者였으나, 敵에게 소극적으로 追從하면서 군경, 공무원, 민족진영의 지도자를 구조한 者.

이와같이 구분되어 A급은 악질적인 까닭으로 軍法에 회부하여 依法處斷하도록 한 결과, 이들 중 많은 敵의 부역자들이 수복지구 自治隊員으로 잠입하였기 때문에 정말 이들을 색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우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B급은 改過遷善케 하는 동시에 선량한 良民으로 包攝하여 大韓民國에 충성케 하였으며, 地檢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C급은 그들의 과거를 不問에 부쳤으며, 이를 善導하여 大韓民國에 충성케 하였다.

라. 共匪들의 虐殺事件

UN軍의 仁川上陸작전이 성공한 이후, 洛東江戰線으로부터 退却하기 시작한 敵들은 軍警과 그 가족 및 애국市民, 그리고 청년, 부녀자들에 대하여 무차별 大量虐殺을 자행하였는 바 이와같은 사실은 능히 筆舌로써 표현하기 어려우리만치 비통스러운 慘狀이었다. 그러므로 이 당시 內外記者들과 UN軍 當局은 이같은 야만적 행위를 全 세계에 공개하여 여론을 沸騰케 하였으며, 全 自由民에게 共産主義의 正體를 알려주어 놀라운 衝擊을 주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 중 특기할만한 몇 가지를 열거하여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北傀軍의 虐殺指令

1950년 9월 20일 南侵 傀儡軍의 前線사령관인 대장 金策은 無電을 통하여 全國 各地에 다음과 같은 지령을 하달하였다.

(가) 人民軍의 후퇴는 일시적이다.

(나) UN軍과 國軍에 협력한 者와 그 가족은 全員 殺害하라.

(다) 殺害방법은 黨에서 파견되는 지도위원과 협의하여 각급 黨책임자의 책임 아래 시행하라.

이상의 指令사실은 9월 28일 全北 沃溝郡 米面 新觀里 192에 거주하는 인민위원장 겸 노동당 세포위원장인 趙億術이 서울特別市 永登浦에서 良民을 가장하고 洞사무실에 잠복

중인 것을 群山경찰서 사찰계장 朴完得경감 지휘 아래 崔昌植경위와 姜大振, 金載萬형사등이 검거함으로써 확인되었다.

(2) 主要 虐殺事件

(가) 沃溝郡 米面 虐殺사건

9월 20일 無電으로 虐殺指令을 받은 米面 인민위원장 趙億衍은 米面 山北里 所在 前 新韓公社 뒷뜰에서 노동당 간부회의를 열고, 右翼人士에 대한 殺害指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 방법을 결정하였다.

① 殺害대상자 명부작성

군경과 그 가족 및 右翼人士와 그 가족 全員을 대상으로 한다.

② 殺害장소의 선정

土窟에 拉致한 다음, 총살하고 그곳에 매장한다.

③ 통행차단

학살대상자의 동태 감시와 통행차단을 철저히 할 것.

④ 확인방법

총살 후에 살해자의 명부를 작성, 보고한다.

⑤ 총살집행 지휘자

총지휘자 趙 億 衍

집 행 부 文 錫 鼎, 趙重衍 외 部落責 14명

이들은 9월 28일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沃溝郡 米面 俗稱 새머실골 土窟에서 米面 面長 陳豊浩(60才) 외 156명을 電線과 새끼줄로 묶어서 土窟에 강제로 引致한 다음, 趙億衍의 총 지휘 아래 1차로 학살을 감행하고, 계속하여 죽동, 회현, 개정등 14개 마을로부터 男女老少를 불문하고 우물에 밀어 넣어 학살하였으며, 群山경찰서 유치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패잔병과 보안서원까지 加勢하여 일시에 700여명을 大量학살 하였다.

(나) 益山郡 咸悅 학살사건

9월 26일 全羅北道 益山郡 咸悅驛 뒷편 野山에서 敵 패잔병들은 右翼人士 安秉禹외 20여명을 총살하고 도주하였다.

(다) 全北지방 학살사건

9월 26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패잔병, 보안서원, 全北道黨 各 郡黨, 地方공비들은

金州형무소를 비롯하여 각 경찰서 유치장과 高敞—井邑—古阜 等地에서, 그리고 金堤에서는 우물 속에서, 또 完山郡 坊村에서는 3代 父子들을 한 장소에서 작두로 학살하였다.

이러한 戰慄할 사실에 직면하게 된 金州지방검찰청 朱曇化검사장과 朴天一차장검사, 그리고 庾昌烈, 洪鍾敏, 全完奎검사등 反共검사들은 全羅北道의 군경과 긴밀한 협동으로 합동수사활동을 전개하여 학살사건 관여 공비의 색출에 전력하여, 효율적인 對共활동과 공비토벌에 많은 功을 세웠다.

이 당시 공비들에 의하여 학살당한 人命손실은 다음과 같다.

〈주요 학살 통계〉 1950. 9. 26—11. 20

학 살 장 소	학 살 인 수
金州 형무소	70
金州 新興學校 뒷산	300
井邑 경찰서 유치장 및 뒷山	400
井邑郡 古阜	100
金堤郡 萬境지서 우물	70
高敞郡	300
沃溝郡	856
益山郡 咸悅 뒷山	20
합 계	2,111

(라) 기타 학살 상황

서울—仁川—開城—議政府—延安—蘆光—瘟岩—奉化等地에서의 군경과 그 가족을 비롯하여 民族陣營 人士, 그리고 學聯간부와 그 가족등 허다한 동포들이 傀儡軍의 後退와 더불어 虐殺 당하였거나, 혹은 失踪되었으며,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그 총수가 2,257,362명에 달하며 軍警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의 살종수도 27,545명이나 되었는데 이들 살종자들은 모두 虐殺 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참으로 可恐할만한 참혹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湖南과 嶺南지방 공비들의 虐殺형태는 無知와 貧困, 또는 私感등에 의한 발작이었다는 것이 후일 分析되었다.

(마) 鑑識用 指紋의 확보

韓國 중 치안국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던 指紋臺帳은 1909년 4월부터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보관되어 활용하던 것으로 이 指紋은 서울 탈환시까지 中央廳 指紋보존실에 기적적으로 무사히 보존되어 있었다. 이는 敵들이 무식한 탓에서 오는 僥倖이라고 할 수 있었다. 指紋의 무사한 보존으로 오늘날 현대 범죄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바. 戰鬪 後의 概況

국립경찰은 UN軍과 國軍의 北進작전에 호응하여 수복지구에서의 後方치안을 공고히 하고 自律的이며, 능동적인 對共활동과 대민구호 및 복구사업등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와같은 後方치안의 급속한 확보는 軍의 임무달성에 커다란 뒷받침이 되었다.

특히 비상경비총사령부의 작전지도 아래 전국경찰관과 韓青 및 민간인義勇警察과 그리고 학도연맹요원들의 긴밀한 紐帶와 협동은 山 중으로 잠입하여 준동하는 敵 패잔병과 地方공비 및 附逆者등 공산세력의 격멸을 위한 절대적인 요건이 되었다.

§ 逸　話

◇ 生死를 초월한 獻身

非巴 海東병원장 의사 李浚鎬는 非巴 수복작전 이후 공비로부터 가옥을 불 태우고 수차에 걸친 공비의 기습상황 아래에서도 生死를 초월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군경은 물론 민간인의 戰傷구호에 전세산을 바쳐 獻身한 결과 현지 주민들의 많은 稱頌을 받았다.

◇ 割腹으로 同僚구출

이해 7월 26일, 益山郡 咸悅에서 敵 패잔병에게 동료 20여명과 함께 총살 당한 右翼人士 宋秉禹의 父親인 王宮面국민측성회장 宋儀植(55歲)은 유치장에 감금 당하여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로 割腹한 다음, 흘러나오는 창자를 자신의 손으로 절단하여 敵의 얼굴에 던지면서 "大韓民國만세!"를 부르며 壯烈한 自決을 하였는데, 당시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였던 지방공산당원 某가 구속 중이던 100여명의 右翼人士들에게 傀儡軍들의 학살企圖를 미리 알려 주므로써 야간에 전원이 탈출할 수 있게 하였다.

〈證　言　者〉

崔致煥　李成雨　文鶴東　孫繼天　全璋漢
李根馥　鄭時煥　金得綠　高尙遠　崔哲鎬
卓洪鎭　金貞鎬　金敏淑　金善浩　河鎭鎬
曺元春　金源彭　廉昌烈　金容大　金政鎬
李錫泳　崔占燮　辛相默　南奎碩　殷光鎬
金相洙　裵英鎭　李承業　李京穆　方鳳義
金在一　白萬弘　徐在俊　李址台　李敬植
宋秉憲　金相龍　蘇相卜　崔庚植　姜大振
金載萬　文日洙　金正基　李錫洪　朴東根
金鶴柱　許　奎　吳甲童　金大均　申年熙
許　壎　趙貴南　吳永燮　黃秉熙　金甲辰
李基成　金鍾源　崔秉大　徐官錫　朴英吉
吳友植　朴斗一　金達朝　梁在鐵　白昌煥
鄭國成　柳河烈　金德淳　〈無順〉

〈文獻 紹介〉

1. 내무부 行政沿革史(내무부刊)
2. 민족의 신봉(이승만대통령刊)
3. 해방 10년(希望社 刊)
4. 해방 20년(世文社 刊)
5. 경찰 實動기록부(국립경찰보존文獻)
6. 사건送致기록(群山경찰서)
7. 방송녹음 Tape(金active MBC보존)
8. 井邑郡誌(井邑郡誌편찬위원회 刊)
9. 忠南경찰국 管內상황(忠南경찰국보존)
10. 全南전투상황(全南경찰국 작전계장 趙昌南 경정 보존)
11. 慶南경찰 沿革史(慶南경찰국 刊)
12. 五경 歸合簿(慶北경찰국 보관)
13. 太白戰史--1(太白山 전투경찰사령부 刊)
14. 서울신문 통계(서울신문사 刊)

1. 後方地域共匪潛伏現況表

(1950. 9. 30~12. 31) 非常警備總司令部情報處

蠢動地域	團隊號	主要指導者	兵力 武裝	兵力 非武裝
江原道伊川地區	南部軍團, 直屬部隊	南半部人民遊擊軍 總司令官 李鉉相	500	
江原道鐵原平康	人民軍步兵 第10師團收殘兵	師團長 少將：李 博 南		
金化地區一南下	25 聯隊	參謀長 總佐：文 敵		
太白山, 慶北八公山	27 聯隊	作戰參謀 大佐：金 利 奎		
普賢洞地區	29 聯隊	25 R 長 大佐：金 鐵		
		27 R 長 大佐：許 明 風		
		29 R 長 大佐：崔 禹	5,000	
江原道平昌地區	遊擊軍第3支隊	支隊長 南勞黨員 朴鎭根	450	
慶北太白山地區	遊擊軍 第1支隊	支隊長 南勞黨서울市黨員 金熙彬	3,500	
江原道華川地區	人民軍第2軍團收殘兵		1,000	
忠北堤川地區	地方共匪		70	
慶北榮州地區	人民軍收殘兵, 地方共匪		300	
忠北俗離山地區	南部軍團南下, 聯合部隊	總司令官 李 鉉 相	500	300
慶北聞慶門山地區	地方共匪		150	
忠南大屯山地區	忠南道黨, 論山郡黨	道黨委員長 南勞黨員 南忠烈 論山郡黨委員長 南勞黨員 郭海鳳	550	400
忠南鷄龍山地區	人民軍收殘兵		50	
全北回文山地區	全北道黨 遊擊隊, 홍두깨部隊 대한兵團, 金提郡黨	全北道黨委員長 南勞黨 方俊均	300	900
全北高敞地區	高敞, 扶安, 淳昌, 長城郡黨	全北道黨指導部員 南勞黨 朴春成	900	200
全北內藏山地區	全北道黨 3127聯隊 337聯隊, 井邑郡黨	全北道黨委員長 南勞黨 方俊均 3127R長 李在俊 337R長 李壁俊 井邑郡黨委員長 南勞黨員 白安基 南勞黨員 文仲鎭, 文泰述, 金大市	800	300
全南潭陽地區	嶺南部隊	潭陽郡黨委員長 鄭鉉淵	200	
全北回文山와바꿀	嶺南兵團	團長 南勞黨員日軍出身 金炳德	20,000	
全南有智地區	南部警備司令部 民青聯隊	R長, 南勞黨員 日軍出身 韓月洙	200	100

蠢動地域	團隊號	重要指揮者	兵力 武裝	兵力 非武裝
全南寶城地區	西部地區黨	全南道黨委員長 南勞黨員 金洛宇	150	
全南靈岩地區	第3地區遊擊隊		50	1,500
全北南原天皇峯	人民軍敗殘兵(61, 71, 9D)		10,000	
智異山地區	人民軍敗殘兵(6, 7, 9D 104 嶺隊)		9,000	
慶南白雲山地區	咸陽郡黨	郡黨委員長 南勞黨員 許五台	300	
德裕山地區	人民軍敗殘兵(2, 4, PD)居昌郡黨		10,000	
慶南高嶺地區	人民軍敗殘兵(2, 4, PD)		1,500	
伽倻山地區	地方共匪		300	
黃梅山地區	地方共匪		500	300
慶北慶州地區	人民軍敗殘兵		200	
慶南宜寧地區	宜寧郡黨, 咸安郡黨 馬山市黨 地方共匪		112	
漢拏山地區	地方共匪			
計			56,432	4,000

2. 全國共産附逆者檢擧統計表

(1950. 9. 15~1950. 12. 31) 非常警備總司令部情報處

人員	檢擧	自首
區分	153,825	397,080
計	550,905名	

註……A, B, C 등 分類處理者

檢擧된 意識分子				
人民軍	中共軍	遊擊隊	勞動隊員	計
1,448	28	9,979	7,661	19,116

註……軍事裁判에 送致者

서울特別市警察局檢擧人員	TOTAL	18,000

3. 全國公務員 및 民間人被害統計表(十十)

(1950. 6. 25~1950. 10. 31) 非常警備總司令部情報處

被害別 \ 性別		被害人員 男子	女子	計
民間人	TOLAL	2,099,899	257,463	2,257,362
	虐殺	964,281	196,687	1,060,968
	拉致	1,108,073	60,776	1,168,849
一般公務員	虐殺	—	—	—
	拉致	—	—	—
	行方不明	27,545	—	27,545

註……警察官은 除外됨

4. 全國戰鬪警察戰果被害統計表

(1950. 6. 25~1950. 12. 31) 非常警備總司令部 情報處

交戰回數			3,667(回)	備考
戰果	共匪	計	39,465(名)	
		射殺	22,699(名)	
		生捕	16,291	
		歸順	475	
	武器鹵獲	小銃	5,486(挺)	
		重火器	722	
		手榴彈	876	
被害	警察官	戰死	1,088(名)	
		負傷	3,240	
		拉致	3	
		行方不明	6,492	
	武器	小銃	1,757(挺)	
		重火器	35	
	韓青	戰死	217	義警或은 特攻隊員으로 警察指揮下에 戰鬪中의 被害狀況임
		負傷	151	
		拉致	139	
		行方不明	44	

交戰回數			3,667(回)	備考
被害	民間	被害	185	共匪襲擊時
		負傷	127	〃
		拉致	349	〃
	家屋	官公署	51	共匪襲擊時
		民家	1,213	〃
	食糧	白米	6,470(叺)	共匪襲擊時
		雜穀	1,905	〃
	家畜	農牛	256	共匪襲擊時
		其他	26	〃
	其他	衣類	832	共匪襲擊時

5. 罹災 및 避難民統計表

(1950. 6. 25~1953. 4. 30) 保 社 部

區分 / 市道別	罹災民	避難民
全國	3,626,915	2,611,328
서울	550,211	40,219
京畿	425,391	804,030
江原	578,915	161,311
忠北	347,357	156,713
忠南	106,544	275,932
全北	219,245	326,331
全南	421,896	156,929
慶北	404,387	229,089
慶南	571,910	440,415
濟州	1,059	20,359

6. 全國學校被害統計表

(1950. 6. 25~1950. 12. 31) 文 教 部

區分 / 學校別	被害狀況	
	教室(室)	建坪(坪)
全國	33,015	936,709
大學校	1,370	84,800
師範學校	351	17,760
中高等學校	5,833	172,002
國民學校	25,461	662,147

附　　錄

1. 作戰命令
2. 訓　　令
3. 戰歿者名單
4. 參考文獻
5. 年　　表
6. 索　　引

1. 作 戰 命 令

부록 제 1 호

1950. 9. 13 12. 00

육본작명 제180호 慶南 釜山

군대구분 참조 육 군 본 부

. a. 작정 부록 제 2 참조

b. UN 제 1 군단은 UN 제10군단의 D—1 일부터, 수륙양면 상륙작전에 따라 D일 H시부터 西方 西北方 및 北方으로 향하여 호응 공격을 개시한다. (UN 제10군단 상륙지점은 후달함)

c. UN 공군은 공세이전 작전기간을 통하여 전략 및 전술적 공중지원을 계속 분담하라.

d. UN 해군은 해안선에 공세작전을 하는 부대에 함포지원을 분담한다.

. a. 대한민국 육군은

(1) 현 위치를 0일까지 안정화하며 동시에 敵 主力과의 적극적이며 강력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지구 내에서의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며, 현제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敵을 배제하여 主 작전방향의 東翼을 방어하라.

(2) 전 부대는 弾圓한 전술상의 지위를 확보하며 0일 실행될 일제 공세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라.

(3) 제 1 차 진출예정선인 A—1 선상의 목표 제 1 淸河(12301480), 제 2 西井里(12091479), 제 3 上三里(12181486), 제 4 大前洞(12021497), 제 5 印支洞(11951493), 제 6 九山洞(11861489), 제 7 義城(11661497), 제 8 桃源洞(11551490)을 확보하기 위하여 北方 및 西北方에 대하여 0일 H시를 기하여 일제 공격을 개시하며 제 1 차 진출예정선에 진출 후는 즉시 제 2 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A"盈德(12321506), "B"道路交叉點(12141415), "C"德川洞(12011508), "D"泉旨洞(11861510), "E"安東(11691523), "F"醴泉(11421534), "G"咸昌(11151522)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하라.

b. 0일 공격개시선—각부대 當日線.

c. 전투지경 부록 제 3 투명도 참조.

. a. 제 1 군단

제 8 군 사령관에 의하여 "백호" 전투부대 지휘하로 부터 해제된 후는 즉시 각부대를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한 배당된 지경 내의 정위치에 각사단을 이동하라.

(1) 수도사단

(a)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적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제선 침투를 기도하는 敵을 배제하라.

(b) 각 부대는 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0일 일제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사단 右翼 인접부대인 제3사단과 사단 左翼 인접부대인 제2군단 제8사단과 협조하여 0일 H시 사단 담당 정면을 北方 및 西北方으로 공격을 개시하라.

(d) 담당 전투지경 내 제1차 진출 예정선인 A—1선상의 목표 제4大前洞(12022497), 제5仰支洞(11951493) 및 도로 교차점을 공격 확보하라.

(e) A—1선 공격 후는 제2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C" 德川洞(12011508) "D" 泉旨洞(11861510)을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 만단 준비를 하라.

(f)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사단 右翼 인접부대인 제3사단 및 사단 左翼 인접부대인 제2군단(제8사단)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라.

(2) 제3사단

(a)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敵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제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敵을 배제하라.

(b)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0일 일제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左翼 인접부대인 수도사단과 협조하여 0일 H시 담당 정면을 北方으로 공격 개시하라.

(d) 담당 전투지경내 제1차 진출예정선인 A—1선상의 목표 제1淸河(12301480), 제2西非里(11291479), 제3上玉里(12181486) 및 도로 교차점을 공격, 확보하라.

(e) A—1선 확보 후는 즉시 제2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A" 盈德(12321506), "B" 도로교차점(12141515)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

(f)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左翼 인접사단인 수도사단과 접촉을 계속하라.

(3) 제3연대

a. 육본명령이 유할 시 차량으로 慶州(12191438)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慶州 도착 후 제3연대의 지휘권은 제1군단장에서 제7사단장으로 이양하라. (군예비사단)

b. 제2군단

즉시 각부대를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상황이 허용하는 한 배당된 작전내 정위치에 각 사단을 어동하라.

(1) 제6사단

(a)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敵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 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제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敵을 배제하라.

(b)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0일에 실시하는 일제반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사단 인접부대인 제8사단과 협조 아래, 담당 정면에서 0일 H시를 기하여 北方 및 西北方에 공격개시하라.

(d) 담당 전투지경 내 제1차 진출 예정선인 A—1선상의 목표 제8桃源洞(11551490)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라.

(e) A—1선 확보후는 제2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F" 檜泉(11421534), "G" 咸昌(1115 1523)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 만단 준비를 하라.

(f)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사단 右翼 인접부대인 제8사단과 左翼인접부대인 UN軍 제1군단 (韓國軍 제1사단)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라.

(2) 제8사단

(a) 현 위치를 안정화하고 敵 주력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접적을 하기 위한 국부적 반격을 계속하고 담당지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선의 침투를 기도하는 敵을 배제하라.

(b) 각 부대는 전술상 강력히 정리하고 0일 실시될 일제 반격을 개시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라.

(c) 左 인접부대인 제6사단과 右 인접부대인 제1군단(수도사단)과 협조하여 0일 11시 담당정면을 北方 및 西北方을 공격개시하라.

(d) 담당 전투지경내 제1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제6九山洞(11861489), 제7義城(1168 1497) 및 도로망을 공격, 확보하라.

(e) A—1선 확보 후는 제2차 진출예정선인 A선상의 목표 "E" 安東(11691523)을 공격, 확보하기 위하여 만단 준비를 하라.

(f)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右 인접부대인 제1군단(수도사단) 및 左인접부대인 제6사단과 접촉을 계속 유지하라.

(3) 제5연대

육본명령이 유할 시 차량으로 慶州(12191438)에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慶州 도착 후 제5연대 지휘권은 제2군단장으로 부터 제7사단에 이양하라. (군예비사단)

(4) 제8연대

육본명령이 유할 시 차량으로 慶州(12191438)에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c. 포병

(1) 제1군단

(a) 제10야포대대——수도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b) 제11야포대대——제3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2) 제2군단

(a) 제16야포대대——제6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b) 제50야포대대 ---제8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3) 제18야포대대

제7사단(군예비사단)이 일선에 배치될 때까지 主로 제1군단을 지원하되 제7사단이 일선 배치된 후는 제7사단을 직접지원하라.

d. 공병——부록 제4 공병부록 참조.

e. 군 정찰비행반

(1) 가능한 자재 및 인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天氣가 허락하면 매일 晝間 각 사단에 연락기 1대씩을 기준으로 각 사단 공중관측용으로 배치하라.

(2) 연락기는 SCR 300으로 사단사령부 연대본부 및 사단 야포대대본부와의 통신을 유지하라.

(3) 작전상 항공기지

(a) 제 1 군단

慶州, 浦項, 九山洞, 盈德

(b) 제 2 군단

慶州, 永川, 義城

f. 제 7 사단(군예비사단)

제 1 안 ——제 1, 혹은 제 2 군단전격간격을 침투한 敵 저항권의 말살을 위한 사단 혹은 연대 분할 사용을 준비하라.

제 2 안——제 1 혹은 제 2 군단 지구 내의 주요한 돌파구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대 혹은 사단 단위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1) 敵 진지선내에서 돌파구의 확대에 全力을 다하라. 主力으로부터 분리하여 침투 고립된 "포켓" 내 敵을 포착, 격파하라.

(2) 각 부대는 각 지휘관이 자기 기동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敵의 위치 및 병력을 적극적으로 정찰할 것을 강조한다.

(3) 각 부대 지휘관은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敵 意表에 나올 것이다. 실시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대장악이 확실히 되었을 때는 항시 未明 및 야간공격등을 감행하라.

(4) 제 8 군사령관이 발령하는 명령 및 지시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밀을 보지하기 위하여 晝間에 통을 통하여 英文으로 하달되는 명령 및 지시에 육군 총참모장의 확인이 있을 시엔 수령자는 동명령 및 지시에 복종하라.

(5) 본 명령에 의거한 군단장 계획은 0— 1일 24.00까지 육군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라. 계획은 사용할 부대 배치 목표 진출선 제한점 중간목표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0일 H시는 別命한다.

(7) 0일 H시(대략 D加 3일)은 別命한다.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육해공군총사령관 육군소장 丁 一 權

(註 : 以下 陸軍本部 作戰命令은「총사령관 丁一權」이므로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직책과 이름을 생략한다.)

부록제2호

1950. 9. 22. 24. 00

慶南 釜山

육본작명 제191호 육 군 본 부

一. 국군정면의 敵의 저항은 극도로 저하되고 있으므로 현 진지로 부터 총 공세를 취할 수 있음. 軍은 만난 노력을 다하여 깊이 敵線에 침투하고, 敵의 약점에서 돌파구를 완전히 확대하는 동시에 적의 퇴로로 진출하여 후퇴를 기도하는 敵을 차단, 섬멸하려 함.

a. 최근 정보요약 생략.

b. 美 제8군은 主力으로 현재선에서 총 공격을 개시하여 적진지구 내 敵을 섬멸하며 급속히 大邱—金泉—大田—水原 축선을 따라 계속 진전하여 美 제10군단과 합세하려 함.

二. 군은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실시하려 함.

三. a. 제1군단은

1. 주공은 浦項—盈德—平海 축선을 따라 조공은 仁同洞—泉旨洞—春陽 축선을 따라 담당지구 내에 무제한 공격을 계속 실시하라.

2. 제3사단은 제7사단과 浦項線에서 교대시켜 즉시 집결 육군본부 예비대가 되게 하라.

3. 平海와 春陽을 확보한 후,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北方 혹은 西北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b. 제2군단은

1. 主攻은 桃源洞—咸昌—忠州 축선을 따라 助攻은 義城—安東—榮州 축선을 따라 담당지구 내에서 무제한 공격을 계속 실시하라.

2. 忠州와 榮州를 확보한 다음에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北方 혹은 西北方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c. 제7사단과 제3사단이 교대되면 그와 동시 제3연대는 제7사단 지휘하로 복귀하라.

d. 예하 부대 지휘관간의 적당한 적진돌선을 허가함.

e. 각 지휘관은 필요한 시에 횡적 접촉 여하에 구속되지 않고 전진하라.

f. 각 부대는 제1차 진출에정선을 통과할 시에는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a. 지휘소

육군본부 釜山(1950. 9. 23 · 18 · 00부터 大邱開設)

제1군단 道只里

제2군단 河陽

b. 지휘소의 이동, 개설을 보고하라.

부록 제 3 호

1950. 9. 30. 10. 30

육본작명 제199호 慶北 釜山

군대구분 부록 제 1 호 육 군 본 부

一. a. 생략

b. 국제 연합군은 담당지구내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음.

二. 군은 38°線 以南 所定지구에서 재편을 하며 38°線 以北 침공에 기초를 배양하려 함.

三. a. 제 1 군단은 담당지구 내 차기 진출 예정선(赤線)까지 계속 전진하라.

1. 제 3 사단은 三陟—江陵 축선으로 注文津까지 전진하여 注文津 부근에서 재편,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次期 작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2. 수도사단은 平昌—大和里(11421636)—蓄洞里(11341650)—蓄村里(11341688) 까지 계속 전진하여 龍浦근방에서 재편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차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b. 제 2 군단은 담당지구 내 차기 진출 예정선(赤線)까지 계속 전진하라.

1. 제 6 사단은 堤川—周浦里(11091592)—原州 축선으로 春川까지 계속 전진하여 春川 근방에서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차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2. 제 8 사단은 忠州—原州—橫城—龍頭里(10041646)—楊平—兩水里(10311641)—水踰里(10031652) 축선으로 議政府까지 계속 전진하여 議政府 근방에서 재편,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차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3. 제 7 사단은 1950년 9월 29일 24.00부로 육군본부 지휘 하로 부터 해제하는 동시에 제 2 군단장 지휘하에 入하라. 동 사단은 忠州—原州—驪州—楊平—兩水里—龍浦里—서울軸線으로 汶山 까지 계속 전진하여 汶山里 부근에서 재편, 육군본부 명령에 의하여 次期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c. 기타사항 생략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지휘소 소재지〉

a. 육군본부 大邱

b. 제 1 군단 江陵

1. 제 3 사단 注文津

2. 首都사단 龍浦

c. 제 2 군단 議政府

1. 제 8 사단 春川

2. 제 6 사단 議政府

3. 제 7 사단 汶山里

d. 軍 공병단

1. 제1201공병건설단 議政府

2. 제1101야전공병단 江陵

e. 기타 생략

부록 제 4 호

1950. 10. 1. 12. 00

慶北 大邱

육본작명 제201호

육 군 본 부

一. 1. 敵은 我軍과 연합군의 전격적 공격에 의하여 지리멸렬, 北方으로 패주 중

2. 我軍은 38線에 육박하고 있으며 연합군도 지정지역 내에 진출 패적을 소탕 중.

二. 軍은 일부병력을 배속하려 한.

三. 1. 제 3 및 제 5 유격대대장은 예하 병력을 지휘, 1950년 10월 3일부로 제 1 군단장 지휘하에 입하라.

2. 제 1 군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

四. 행정사항

1. 수송에 관해서는 육군본부 군수국장의 지시를 받으라.

2. 기타는 변경없음.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 5 호

1950. 10. 3. 16. 00

慶北 大邱

육본작명 제204호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軍은 육군본부를 전진시키려 함.

三. 1. 국방부 및 육군본부 각 국감실장은 별지 계획표에 의거하여 D일 H시 X지점으로 이동 개시하라.

2. 헌병사령관은 예하 헌병을 소요도로의 안내 및 경계의 만전을 기하라.

3. 각 재대장은 이동간 자체경계에 만전을 기하라.

四. 행정사항 별지 제 1

五. 통신사항

육본통신감은 이동 후 각 군단장 및 직할부대 간 무선통신망 구성의 완벽을 기하라.

육본작명 제204호 작전지시

육본작명 제204호 三항의 (1) D일 H시 X지점은 10월 8일 3시 서울임.

부록 제6호

1950. 10. 5. 08. 00

曖北 大邱

육본작명 제205호 육 군 본 부

一. a. 정보 부록 제2호 정보사항참조

b. 연합군 제1군단은 A일 H시 平壤을 점령하기 위하여 主力을 開城—沙里院軸線으로 北方 및 西北方으로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음.

c. 연합군 제9군단은 서울—大田—大邱—釜山間 보급로를 확보하고 한국경찰과 협력하여 南韓에 잔존한 敵을 섬멸 중임.

d. 연합군 제10군단은 적을 완전히 포위하기 위하여 A+3 내지 2일 東 지구(後述)에 水陸양면작전을 감행하려 함.

e. 연합군 空軍은 전 공세작전기간을 통하여 전략적, 전술적 공중지원을 계속함.

f. 연합군 海軍은 해안선부대의 공세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포사격을 행함.

二. a. 目은

(1) 北方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제1차진출예정선상의 제7목표 高城(1126～1778), 제8목표 東興里(1093～1772), 제9목표 昌道里(1063～1758), 제10목표 平康(1028～1747)을 점령하는 동시에 즉시 목표 X 元山(1041～1837)급 목표 H 地境里(1045～1832)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하려 함.

(2) 공격개시선 각 부대 현재위치.

(3) 전투지경 부록 제3호 작전투명도참조

三. a. 제1군단은 부록 제3호 작전 투명도에 지시된 집결지를 통과, 이동하는 동시에 담당지구 내에서의 공격을 계속하라.

(1) 제3군단은

(a) 左側 首都사단과 협동하여 담당지구 내에서 北方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라.

(b) 제1목표 黃浦里(1146～1736) 제7목표 高城(1126～1778)급 담당지구 내 제1차 진출예정선상 도로망을 점령하라.

(c) 제1차진출예정선 점령과 동시에 즉시 담당지구 내에서 목표 A 通川(1085～1806), 목표 E 九龍里(1068～1831), 목표 X 元山(1041～1837)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

라.

(d) 모든 통신방법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左側 首都사단과의 접촉을 유지하라.

(2) 首都사단은

(a) 右側 제 3 사단과 左側 제 2 군단(제 6 사단)과 협동하여 담당지구 내에서 北方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라.

(b) 제 2 목표 楊口(1094～1709), 제 6 목표 岸里(1093～1744), 제 8 목표 東鍾里(1093～1772) 급 담당지구내 제 1 차 진출예정선상 道路를 점령하라.

(c) 제 1 차진출예정선 점령과 동시로 즉시 담당지구 내에서 목표 B 華川里(1076～1787), 목표 (F) 安邊(1049～1824)급 X 元山(1041～1837)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개속할 준비를 갖추라.

(d) 모든 통신방법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右側 제 3 사단 및 左側 제 2 군단(제 6 사단)과의 접촉을 유지하라.

b. 제 2 군단은 부록 제 3 호 작전투명도상에 지시된 집결지를 통과, 이동하는 동시에 담당지구 내에서의 공격을 계속하라.

(1) 제 6 사단은

(a) 右側 제 1 군단(首都사단)급 左側 제 7 사단과 협동하여 담당지구 내에서 北方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라.

(b) 제 3 목표 華川(1068～1709), 제 4 목표 金化(1043～1732), 제 9 목표 昌道里(1063～1758)급 담당지구 내 제 1 차진출예정선상 도로망을 점령하라.

(c) 제 1 차 진출예정선 점령과 동시로 즉시 담당지구 내에서 목표 C 淮陽(1057～1782), 목표G 龍池院里(1042～1806), 목표 H 地境里(1045～1832)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라.

(d) 모든 통신방법을 이용하고 연락장교를 교환하여 右側은 제 1 군단과 左側은 제 7 사단을 이동시킬시까지는 제 7 사단과 그후에는 제 8 사단과 접촉을 유지하라.

(e) 제 4 목표 金化(1043～1732) 점령에 관하여는 제 7 사단과 협의하라.

(2) 제 7 사단은

(a) 右側 제 6 사단 급 左側 제 8 사단과 협동하여 제 2 군단장이 지시하는 시각에 담당지구 내에서 北方에 대한 협동공격을 개시하라.

(b) 제 6 사단과 협동하여 제 4 목표 金化(1043～1732)를 점령하라.

(c) 제 4 목표 점령과 동시로 즉시 제 2 군단 지휘 하로부터 해제되어 육군본부(예비대)지휘 하로 복귀하라.

(d) 軍예비로 복귀하는 즉시로 韓國軍담당지구 西端지구에서 작전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

(3) 제 8 사단은

(a) 右側은 제 7 사단을 이동시킬시까지는 제 7 사단과 그 후로는 右側 제 8 사단과 협동하여 제 2 군단장이 지정하는 시각에 北方 급 西北方에 대한 협동 공격을 개시하라.

(b) 제5목표 鐵原(1119~1727)급 제10목표 平康(1028~1747)을 점령하라.

(c) 제1차진출 예정선 점령과 동시로 즉시 담당지구 내에서 목표 D 洗浦里(1014~1773), 목표 G 龍池院里(1042~1806)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라.

(d) 목표 G 龍池院里 공격에 관하여는 제6사단과 협의하라.

c. 제11사단은 1950년 10월 5일 12.00시부로 육군본부 지휘 하로 부터 해제하는 동시 연합군 제9군단장 지휘 하에 배속한다.

d. 砲兵

(1) 제1군단

(a) 제11야포대대는 제3사단을 직접 지휘하라.

(b) 제10야포대대는 首都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2) 제2군단

(a) 제15야포대대는 제6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b) 제18야포대대는 제7군단을 직접 지원하라.

(c) 제 50야포대대는 제8사단을 직접 지원하라.

e. 工兵

(1) 제1101야전공병단은 제1군단 담당 지구내에서 동 군단을 지원하라.

(2) 제1201공병건설단은 제2군단담당 지구 내에서 동 군단을 지원하라.

x. (1) 백방수단을 다하여 敵線돌파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友軍 主力前進으로 말미암아 孤立된 敵을 포착, 섬멸하라.

(2) 부대지휘관으로 하여금 機動 계획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각 梯隊는 적 전지 급 병력을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 정찰을 필히 실시하라.

(3) 각 부대 지휘관은 여하한 기회에 있어서도 부대가 敵의 意表에 出함으로써 생기는 好機를 항상 포착이용하라. 부대장악이 확실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하시 하처에서든지 宋明급 야간공격을 실시하라.

(4) 각 명령 수령자는 주한 美 제8군사령관의 발하는 명령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밀을 완전히 보지하기 위하여 육군총참모장이 인정하여 고문단명령 계통을 통하여 하달하는 英文명령급 訓令에 복종하라.

(5) 각 군단장은 차 명령수령 후 48시간 내로 본 명령에 의거하여 작성한 군단장 계획를 육군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라. 동 계획에는 군단 예하부대 사용계획, 진출예정선, 제한점급 中間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A일 H시 후달함

四. 행정사항

육본행정명령 제10호 참조(후달)

五. 통신사항

부록 제4호 통신사항 참조.

육본작명 제205호 부록 제1호

군대구분

제1군단 군단장 육군준장 金白一

제3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李鍾寶

제22연대, 제23연대, 제26연대 제11야포대대(배속), 제3(야전) 공병대대

首都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宋堯讚

제1연대, 제1기갑연대보병, 제18연대, 제10야포대대(배속) 首都(야전) 공병대대

제2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劉載興

제6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鍾五

제2연대, 제7연대, 제19연대, 제16야포대대(배속) 제6(야전) 공병대대

제7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申尙澈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제18야포대대(배속), 제7(야전) 공병대대

제8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李成佳

제10연대, 제16연대, 제21연대, 제50야포대대(배속) 제8(야전)공병대대

제11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德新

제9연대, 제13연대, 제20연대, 제11(야전) 공병대대

육본작명 제205호 부록 제2호(情報사항)

一. 적정요약

a. 최근 정기 정보보고 참조

b. 38° 線 以北에는 편성된 적부대로서 최근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38° 線 以北에 敵軍존재에 관한 정보는 없다 할지라도 치명적 주요보급로 연변에는 특히 국한된 수의 부대가 배치되어 있음은 확실하다. 그와 동시에 敵 정규군부대가 38° 線 以北으로 후퇴하여간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비록 적은 심히 패배 당한 군대이며, 중화기수는 극소수이라 할지라도 침략자에 대한 방어라는 사실로서 저항의식이 앙양될 것이다.

그 외에 敵은 상당히 단축된 보급로와 만일 적당한 훈련이 되어있을 것 같으면, 그 그 광렬적 선병보충을 통하여 南韓前線에서 그들이 심히 고통 받은 문제의 일부를 해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숙달한 유격 행동을 그들의 本土방위를 위한 "빨치산"전투로 전환시킬지도 모른다.

다수인민들의 태도는 확실히 5년간에 걸친 강력한 선전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또한 토지분배의 혜택을 입은 무리들은 특히 동 정부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敵 방위군을 지지, 원조하는 敵意를 품은 민간인들과 조우하게 될 것이다.

c. 예상

中共軍과 蘇聯軍의 어느 梗도 부대를 出兵하여 以北정권을 원조하지 않을 것이다.

二. 情報基本要素(EEI)

a. 韓國軍이 전진하는 지역의 敵 단대호 및 병력 敵軍시설, 장갑차량 급 포의 위치, 韓國軍 전 담당 지역내의 敵 보급로급 통로등을 관단하라.

b. 敵의 증원여부, 만일 증원한다면 그 時間, 場所, 兵力 及 團隊號, 中共軍의 사용여부에 특히 주의하라.

c. 敵은 어느線上이 주지항선설치를 기도하는지

d. 敵의 공적여부 만일 공격하려온 다면 그시간, 장소, 병력 급 단대호

三. 搜索 及 觀測임무

a. 각 부대 敵 보병장갑차량 급 포 집결지에 관한 정보는 어하한 정보라도 입수되는 대로 즉시 그 위치 병력급 編組를 기록하여 보고하라.

四. 상급부대에 대한 요망사항

a. 美 제10군단, 제10군단담당지구 내 전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敵情은 어하한 정보라도 입수되는 대로 전부 보고 요망.

b. 제5공군, 韓國軍담당지구상의 정찰임무를 계속 수행하여 가능한한 신속히 敵情 유무를 판단하고 보고 요망.

五. 포로, 압수문서 급 노획물자 취급법

a. 최근지시 적용

六. 防諜, 특별지시를 후달함

七. 報告

a. 보고서 및 적정변경은 즉시 최신속한 방법으로 제출하라.

육본작명 제205호 부록 제4호(통신사항)

一. a. (1) 부록 제2호 정보사항 참조

(2) 敵은 유무선 도취기 및 전파감시시설을 보유하고 我軍에 관한 정보획득에 此等施設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敵은 我軍 무전송신을 방해하고 유신을 도취하는 동시에 아군 무전망 및 유선을 통하여 허위통신 전달을 기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4) 敵은 후퇴시 부득이 방기한 통신시설에 폭발장치 급 지뢰를 부설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b. (1) 작명 제205호 제2항참조.

(2) (a) 지휘소 소재지

가. 육군본부——大邱

나. 제1군단 ——江陵

다. 제2군단 ——서울

(b) 통신시설

가. 육군본부

ㄱ. 大邱

ㄴ. 서울

ㄷ. 議政府

ㄹ. 金化

나. 제 1 군단

ㄱ. 江陵

ㄴ. 襄陽

ㄷ. 高城

ㄹ. 通川

ㅁ. 元山

라. 제 2 군단

ㄱ. 서울

ㄴ. 春川

ㄷ. 金化

ㄹ. 新安中里

ㅁ. 龍池院里

(c) 각 부대 지휘관은 지휘소를 변경할 시엔 차위 상급부대에 확실한 방법으로 신속히 보고하라.

. 전통신관계 인원의 임무를 지휘관으로 하여금 휘하부대를 전술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통신기재가 許하는 한 완전한 통신망을 가설, 운영, 정비유지함에 있다.

. a. 제51통신대대

(1) 통신기재가 허하는 한 육군본부 급 육군본부와 차위 하급부대본부간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가설, 운영, 정비유지하라.

(2) 조건이 許하고 또한 여사한 원조를 함으로써 육군본부 통신축선을 보유함에 자재가 결여될 경우에 군단 통신중대의 장거리전화선 가설을 원조하라.

b. 군단사령부, 사단사령부 급 하급 단위부대통신대는 자기부대본부와 차위 하급부대본부간의 통신시설을 가설 운영하고 항상 계속 정비하라.

c. (1) 사단사령부, 연대본부 급 야포대대본부는 SCR-300 1대를 육군본부 宣地연락정보망에 사용하라.

(2) 此 목적을 위하여 할당된 SCR-300은 육군본부 공지연락정보망에 한하여 사용한 것이며, 이하한 경우라도 주간에는 차 무전기를 타 목적에 사용치 못한다.

X. (1) 통신취급소(문서取扱所)에 관한 사항은 통신운영규정에 지시되어 있음.

(a) 통신전달에 있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부터 순차로 택하되, 수신인이 처치가능한 시간 내에 도달하도록 이용가능한 機關은 일체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전달하라.

(b) 부대통신취급소는 매 이동시마다 신속 且 확실한 방법으로 차위 상급부대본부에 신위치를 보고하라.

(c) 구 지휘소내 통신취급소가 임무를 개시할 시까지 폐쇄함을 금한다.

(2) (a) 무선망에 관한 사항은 통신운영규정에 지시되어 있음.

(b) 無電송신은 일체 승인을 득한 후에 전달하라.

(c) 敵이 我軍 無電통신망을 방해하려 하거나 혹은 我軍 무전망에다 허위통신을 전달하려 企圖할 때는 통신 명령계통을 통하여 육군본부 통신감에게 신속히 보고하라.

(3) 유무선망에 관한 사항은 통신 운영규정에 지시되어 있음.

(a) 민간 전화선, 裸線, 架空線 등을 파괴하거나 혹은 통신이외의 여하한 목적에도 사용함을 금한다.

(b) 부대간 橫支線에 대한 책임은 左側부대가 담당한다. 橫支線정비는 인접관계 지휘관간에 협의 실시하라.

(c) 각 지휘관은 상황에 따라 유선의 기밀보지 급 정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보급 搭車有線 점검반을 철치하라.

(4) 통신병은 통신기재 부속품을 분해하여 타 통신기재수리에 사용함을 엄금한다. 1950년 8월 2일부 육군본부 행정운영규정에 지시된 바와 여히 고장통신기재는 일체 통신명령계통을 통하여 반납하라.

四. 육군행정명령 제10호 참조(후달)이하생략

부록 제7호

1950. 10. 3. 00. 00

美 제9군단작명 제4호 美 제9군단사령부

1. a. 美 제9군단의 현 정기정보보고 및 정보요약 참조.

b. 美 제8군 및 韓國軍은 38선을 돌파하여 괴뢰군을 완전격멸키 위하여 부대를 집결 중임. 美 제1군단부대 위치에 관하여서는 별지 제1호 제1군단 전황투명도 참조.

2. a. 제9군단은 현 美 제1군단지구를 인수담당.

서울—水原—大田—大邱—釜山間 보급선보호

韓國경찰대와 협동하여 지구 내의 殘敵을 소탕.

제1군단의 北方 이동이후는 서울지구인수 담당준비등을 하여야 함.

b. 전투지경 급 책임지구담당 별지 제2호 작전투명도 참조.

c. 美 제1군단지구에 이르는 道路 : 별지 제2호 작전투명도 참조.

3. a. 美 제2보병사단

(1) 1개연대의 전투부대를 A지구로 이동시켜 美 제24보병사단부대와 1950년 10월 4일 黃昏前에

교대 시켜라.

(2) 제65연대전투부대를 B지구로 이동시켜 美 제27여단과 1950년 10월 4일 黃昏前에 교대시키라.

(3) 사단(一)은 1950년 10월 1일부 美 제9군단사령부발 훈령 제1호에 규정된 지구 내에서 할당받은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4) 군단명령이 내리는대로 10월 8일 또는 그후 水原(1091—1609)—安城(1027—1576)—驪州(1063—1610)지구를 인수담당할 준비를 하라.

(5) 상기 임무를 끝마친 후에는 군단명령에 의하여 10월 15일 이전에 서울—水原지구에 집결하여 제8군예비군이될 준비를 하라.

b. 제25보병사단

(1) 1개 연대전투부대를 C지구에 이동시켜 1950년 10월 4일黃昏前에 美 제24 보병사단부대와 교대시켜라.

(2) 1개 연대전투부대를 D지구로 이동시켜 黃昏前에 韓國軍 제1사단부대와 교대시키라.

(3) A지구에 있는 연대전투부대를 1950년 10월 7일 이후 언제든지 美 제2보병사단에서 해편시킬준비를 하라.

C. 韓 제11사단

(1) 사단사령부 및 1개 연대전투단을 南原(1038—1382)지구에 1개 연대전투단을 光州(990—1350)지구에 또 1개 연대전투단을 全州(1015—1430)지구에 각각 집결시키라.

(2) 美 제8군에서 정한대로 1950년 10월 5일 또는 그후 상기 집결지구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3) 사단전투지경 南方의 全西南구역을 인수담당하라. (작전부명도 참조)

d. 제65연대전투단 1950년 10월 5일 0시 美 제3보병사단 배속에서 해편과 동시에 제25보병사단에 배속하라.

e. 제10레대전투부대(Philippines)

(1) 현 집결지에 남아 美 제25사단에 배속한다.

(2) 군단명령이 있는대로 鎭州에서 大田으로 列車를 이용하여 이동할 준비를 하라.

x. (1) 서울—大田—金泉—大邱—釜山間의 보급로를 경비하라. 특히 倭館—金泉—黃澗—永同—大田—鎭岐 및 鳥致院등에 유의하라.

(2) 韓國 경찰대와 협력하여 각 지구내에 있는 적을 격멸하라.

(3) 신속한 협조를 기하기 위하여 제1 및 제9군단 내의 예하 지휘관간의 직접 접촉을 허용한다.

4. 행정명령 후달

5. 통신

지휘소

(1) 제9군단 사달이 있을 때까지 南原(1038—1380)

(2) 美 제25보병사단 大田

(3) 韓 제11사단 全州

육군소장 Coulter

부록 제8호

1950. 10. 4. 02. 00I

慶北 大邱

육본작명 제206호 육 군 본 부

一. 1. 東海岸지구에서는 이미 我 主力이 38° 線을 돌파 北進 중이며, 中部지구에서는 38線에 박두하고 있음. 我軍의 급진격으로 인하여 적 패잔병이 각처에 방황하고 있음. 平海부근일대에 약 3,000명 배봉산부근에 약 1,000명, 月陽일대에 약 2,000명, 平昌, 安興부근 산악일대에 약 2,000명이 출몰하고 있음.

(2) 軍은 계속 北進 중임.

二. 軍은 일부병력을 이동시켜 주력후방에 출몰하고 있는 殘敵을 소탕하려 함.

三. 1. 제1군단장은 1950년 10월 5일부로 제3, 제5유격대대의 지휘를 해제하고 육본유격사령관 지휘 하에 入하게 하라.

2. 제2군단장은 1950년 10월 5일부로 제1, 제2유격대대 지휘를 해제하고 육본 유격사령관 지휘 아래 入하게 하라.

3. 유격사령관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여 原州에 위치하고 左 地域의 殘敵을 소탕하라.

제1유격대대 —忠州

제2유격대대 —原州

제3유격대대—平海

제5유격대대 —寧越

제6유격대대 —春陽

제7유격대대 —安東

4. 유격사령부는 부대배치완료 즉시 육본에 보고하고 수시 현황을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별정무함.

五. 통신사항.

육본 유격대사령관은 육본 통신감실에 출두하여 통신사항에 관하여 통신감에 문의하라.

부록 제9호

1950. 10. 4. 06. 00

慶北 大邱

육본작명 제207호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軍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11사단장은 1950년 10월 5일까지 사단사령부 및 제13연대를 淸原, 제20聯隊를 光州, 제 9 연대를 全州에 각각 집결시켜 美 제 9 군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2. 집결 후 즉시 사단전투지경남방의 全西南지역을 인수담당하라 작전부명도 참조.

四. 행정사항 후달함.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10호

1950. 10. 5. 14. 00

慶北 大邱

육본작명 제209호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軍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鎭兵사령관은 예하병력을 10월 7일까지 현소재지 大邱에서 서울에 이동하라.

2. 이동완료와 동시에 즉시 육본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11호

1950. 10. 8. 11. 00

서 울

육본작명 제211호 육 군 본 부

一. a. 情報 : 현재로 와서 傀儡軍사단이 北韓에 위치하고 있지 않음. 傀儡軍 제11, 제14, 제24사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 현재 그 병력급 위치는 알려지고 있지 않음.

2개 연대 즉 제76 및 제96연대로 구성된 傀儡軍 제42사단은 명백한 존재를 가지고 있음.

차 사단은 최근에 元山에서 편성되어 금일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것은 알려지고 있지 않음.

南韓에서 전투에 참가하고 지리멸렬상태가되어 北韓으로 퇴각한 괴뢰군 2개군단중 불과 23,000명밖에 존재치 않는 것으로 가정되며, 火器로 말하면 약 四분지 一밖에 남아 있지 않음. 이런 사실로 미루워보아 傀儡軍 제 1 군단에서도 불과 11,000명밖에 傀儡軍병력 참가에 성공치 않았을 것임. 또 重火器도 약 15% 밖에 없음.

傀儡軍의 경비대대는 실지로 전투할 수 있는 병력이 6,500명가량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차병

력도 빈약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적당한 장구도 부족하고 지휘관도 열등하여 士氣도 저하되어 있음.

현재 傀儡軍이 하치에서 방어선을 설치할런지는 명백치 않음.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傀儡軍은 元山 및 平壤에 我軍접근을 방어하려는 것 같으나 그 능력이 과연 있는지? 없는가? 의심할 바임.

傀儡軍 유격대활동이 국내방어에 있어서 그 전법이 빨치산전술로 변하리라고 생각됨, 현재로는 中共軍 또는 蘇聯軍이 괴뢰군을 내원할 것 같은 표적은 없음. 연이나 차 군대들이 가능한 간섭을 하기위하여 즉시로 이용된다는 사실은 역시 계속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다.

2. 가. 美 제1군단은 平壤을 탈취 확보하기 위하여 開城—沙里院軸에 主力을 경주, 공격을 계속하고 있음.

나. UN 空軍은 공격작전 기간 중 계속적으로 전략적, 전술적 공중지원을 함.

다. UN 海軍은 海岸부대의 공격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포사격을 실시함.

二. 軍은 지구 내의 敵을 소탕하고 적의 北方 및 南方이동을 저지하여 美 제1단군단과 결합하기 위하여 平壤을 향하여 西方으로 동시에 興南급 咸興을 탈취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을 실시하려 함.

攻擊개시선 급 전투지경선 별지 제3호 작전부명도 참조

三. 1. 제1군단

가. 제1군단은 元山(1041—1837) 점령 후 교대할 때까지 적당한 경비병력을 잔류시키라.

나. 육군본부명령을 수령하면 즉시 재공격으로 東陽(990～1837), 長林里(939～1855), 江東(914—1836), 軸 西方에 공격을 가하여 美 제1군단과 결합하라.

다. 道路 교차점 급 기타 전진축의 西方道路를 확보한 후에는 충분한 병력으로 차지점에 잔류시켜 敵의 北급 南方으로의 이동을 저지하라.

2. 제2군단

가. 제2군단은 元山에서 제1군단과 교대하여 美 제10군단 또는 차본부의 명령에 의하여 교대받을 때까지 元山을 경비하라.

나. 차 본부의 명령이 유하는대로 文川(1027—1852), 永興(1022—1885), 定平(1034—1914), 南興(1050—1929), 급 파주장(1059—1897), 興南(1058—1918)軸에 대하여 공격 全敵을 격멸하고 咸興과 興南을 확보하라.

3. 제7사단(軍예비대)

가. 제7사단은 軍 예비대로서 平康(1028—1746) 부근으로 이동하라.

나. 此 본부의 명령이 있는대로 주동(965—1779), 谷山(978—1792), 東陽(990—1837), 급 무남리(942—1778), 봉암(1003—1792), 馬轉里(1013—1831)軸으로 전진하여 殘敵의 저항을 소탕하라.

다. 제1군단 혹은 제2군단지구 공격을 지원하라.

4. 我 戰線을 돌파하기 위하여 全 노력을 다하라.

5. 我 주력이 통과한 통로상의 고립된 작전은 소탕될 것이다.

6.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하여 또는 완전한 경비를 하기 위하여 고문단 경유, 英文으로 발송되는 본관이 인정한 명령 급 지시는 복종하라.

7. 차명령에 의한 군단장의 실시계획안을 차명령 수령 후 72시간이내로 차본부에 제출하라.

8. 제 1 군단 급 美 제 1 군단간의 작전통신은 승인되었음.

9. 제 1 군단, 제 2 군단 및 제 7 사단간의 작전통신은 필요한 협조를 하기 위하여 승인한다.

四. 행정사항 현행명령 참조.

五. 통신사항 후달함.

부록 제12호

작명 제212호 訓令 제 1 호

육본작명 제212호(1950. 10. 8. 20.00부)

제三항을 하기와 여히 수정함.

三. a. 제 1 군단은

1. 元山으로부터 北方 및 西方으로 계속 전진하여, 敵의 地上 및 砲撃등에 대비, 元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단점을 설치하라.

2. 육군본부 명령이 유하면 즉시 文川—永興—定平—咸興—新興場—興南軸線을 따라 공격을 실시하고 敵을 완전 섬멸하라.

b. 제 2 군단은

1. 가능한 신속히 元山으로 계속 전진하라.

2. 육군본부 명령이 있을 시엔 담당지구 내 陽德—長林里—江東軸線을 따라 西方으로 공격을 실시하되 全敵을 섬멸하고 美 제 1 군단과 합세하라.

3. 초기에는 前進軸線上 도로 교차점 및 기타 南北間 道路를 확보한 다음, 기타점에 敵의 南進 및 北進行動을 저지함에 충분한 병력을 잔류시켜라.

작명 제212호 訓令 제 1 호

육본작명 제212호(1950. 10. 10. 20.00)

제 3 항을 여좌히 수정한다.

三. a. 제 1 군단은

美 제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元山港을 확보하기 위하여 安邊, 龍浦里(CU 3735), 龍灘里(CU 4456) 및 龍灘江 입구를 주지향신으로 하고 永興을 확보함으로써 敵의 보급로를 차단 文川, 永興, 定平, 咸興 및 新興場(CU 6409) 興南軸線을 따라 진격, 敵을 섬멸하라.

b. 제 2 군단은

가능한한 신속히 元山으로 계속 전진, 元山 경유, 美 제 1 군단과 합세하기 위하여 담당지구 내 陽德—長林里—江東里線을 따라 平壤을 향하여 공격, 진진하되, 敵을 분쇄하고 그 지구에서 南方 및 北方으로 移動하는 敵을 차단 섬멸하라.

c. 제 2 군단은 필요에 따라 제 1 군단지구를 통과할 수 있다.

작명 제212호 訓令 제 2 호

작명 제212호(1950. 10. 10 12.00부) 修正

一. 제 1 군단은 美 제10군단이 도착할 시까지 元山港을 확보하기 위하여 安邊—龍浦里—龍灘里 및 龍灘江入口를 주지향선으로 하고

二. 제 2 군단은 적시로 美 제 1 군단과 합세하기 위하여 平壤을 향하여 西部를 공격하며 제 1 군단이 확보한 지역 西部의 敵을 분쇄하고 기타 區에 있어서 南方 및 北方으로 이동하는 敵을 차단하라.

三. 제 2 군단은 필요에 따라 제 1 군단지구를 통과할 수 있다.

부록 제13호

육본작명 제212호 수정 訓令 제 2 호

1950. 10. 14. 18.00
서 울
육 군 본 부

제 2 군단장

제 7 사단장

육군본부 구두 각개명령의 확인

제 7 사단(軍예비)은 1950년 10월 14일 12.00부로 제 2 군단장 지휘하에 入하라.

부록 제14호

육본작명 제214호

1950. 10. 13. 18.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생략

三. 軍은 일부병력을 점령지구 내의 가설 電話線을 복구 軍 有線통신 軸線을 구성하려 함.

1. 육본 통신감은 육군대위 李千基 이하 33명 및 민간기술자 60명으로써 통신특별공사대를 편성, 점령지구내의 有線통신축선을 지급히 구성하라.

2. 각 군단장은 전기 통신특별공사대임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편리를 도모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15호

육본작명 제215호 1950. 10. 14. 21.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我 제2군단정면의 敵 주력은 이미 平壤방면에 이동하고 소수 殘敵이 我 제8사단정면에서 지연작전을 기도하며 퇴각 중임.

二. 예는 일부병력을 배속하려 함.

三. 1. 제7사단을 1950년 10월 14일 12.00부로 육군본부 직할로 부터 해제하고 동일 동시부로 제2군단장의 지휘하에 임하라.

2. 제2군단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되 최전히 장악하면 사용에 대한 계획을 육본에 제출하라.

四. 행정사항 변경무함.

五. 통신사항 통신규정 의거 실시하라.

부록 제16호

육본작명 제217호 1950. 10. 15. 18.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예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1훈련소장은 예하 보충대를 1950년 10월 20일까지 서울로 이동시키다.

2. 제2훈련소장은 예하 병력을 1950년 10월 20일까지 서울로 이동시키다.

3. 이동되는 각 훈련소장은 이동완료 즉시로 육군본부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1. 수송은 철도수송으로 하되 소요차량을 각 소재지구 철도수송관에게 신청하라.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17호

육본작명 제218호 1950. 10. 17. 18.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1. a. 정보사항 : 최근정기 정보보고 참조

b. (1) 美 제1군단은 韓 제2군단과 합력하여 담당지구 내에서 平壤을 점령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계속 중이며, 平壤 점령확보 후에는 담당지구 내 최후 전투지경선까지 점령할 준비를 갖추려 함.

(2) 美 제9군단은 현임무를 계속중임.

(3) 美 제10군단은 극동함대 총사령관 지시에 의하여 적재승선하고 UN군총사령관 지시에 의하여 元山지구에 상륙작전을 실시하려 함.

2. a. 軍은 美 제1군단과 합력하여 平壤을 점령 확보하고 軍隅里—寧遠—咸興—興南線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포위된 敵을 섬멸하여 계속 北進할 준비를 갖추려 함.

3. a. 제1군단은

(1) 주임부로서 安邊—龍浦里—龍灘里—龍灘江口를 점령 확보하고, 美 제10군단의 안전상륙을 위하여 敵線에 포위된 지구를 소탕하라.

(2) 담당지구내의 적을 완전섬멸하며 상기 (1)항 주임무에 배치(背馳)됨이 없도록 가능한한 寧遠—金城—咸興—興南을 연하는 일반선을 점령,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라.

(3) 담당지구 내에서 北方에 대한 次期작전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라.

b. 제2군단은

(1) 가능한한 최단시간내에 제2군단사령부를 포함한 全 병력을 江東西方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도로 및 통로를 사용하여 西方으로의 공격을 계속 실시하라.

(2) 美 제1군단의 공격과 합력하여 東方 및 東北方으로부터 즉시 平壤을 공격하라.

(3) 제6사단은 成川을 공략 후 順川 경유, 安州를 공격하라.

(4) 담당지구 내에서 北方에 대한 차기작전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

c. 軍 직할부대(제17연대) 후달함.

(1) 현재에 있어서는 美 제10군단은 1950년 10월 20일 元山에 도착할 것으로 기대됨. 美 제10군단 및 韓 제1군단간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2) 韓 제2군단은 필요에따라 韓 제1군단 담당전투지경 내를 통과함을 허가한다.

(3) 밀접한 연락 및 平壤공격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韓 제2군단, 및 美 제1군단간에 직접통신함을 허가한다.

(4) 韓國軍 이외의 UN軍은 定州—軍隅里—寧遠—咸興—興南線 以北으로 진출치 않는다. 韓國軍事顧問團에서 지명하는 요원 및 고문요원과 더불어 此線以北에서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5) 임시전투지경은 차명령수령과 동시에 발효하며 최후 전투지경은 육군본부명령이 있을 시에 발효하라.

(6) 美 제8군사령관이 발하는 명령의 실행을 촉진하며 기밀을 완전히 보지하기 위하여 육군총참모장이 인정한 英文명령 및 訓令이 고문단 명령계통을 통하여 하달될 시엔 명령수령자는 동 명령 및 訓令에 복종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18호

육본작명 제219호 1950. 10. 16. 18.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第2은 일부병력을 원대복귀시키려 함.

三. 1. 제17연대는 1950년 10월 16일, 10.30부로 美 제2병참관구사령관 지휘하로 부터 해제되는 동시에 군적함로 원대복귀한다.

2. 육군본부명령이 유할 시는 하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19호

육본작명 제220호 1950. 10. 20. 00.00
서 울
육 군 본 부

군대구분

제1군단 빈경 무

제2군단 〃

제3군단 미정

제5사단 육군대령 閔機植

제27연대

제35연대

제36연대

제5공병전투대대

제17연대 육군대령 白仁燁

제3유격대대

제5유격대대

제6유격대대

유격사령부 육군대령 金冠五

제1유격대대

제 2 유격대대

제 7 유격대대

一. 정보사항 제3군단 지역 내의 殘敵은 傀儡軍 제 1、제 5、제 8、제12, 제13사단 패잔병으로 추측된다. UN軍 및 韓國軍이 최초 38°선을 돌파시에는 38線과 南의 잔류된 敵 병력은 約 30,000명으로 추측되었다. 此 30,000명 중 현재 北方으로 五臺山, 太白山과 忠州—原州—春川軸線 後方도로 및 小路를 이용하여 이동하려는 수는 약 13,000명에 달한다고 추측된다.

차 敵은 보고에 의하면 2,000~4,000명으로 隊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韓國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最大 부대는 1950년 10월 18일에 春川에 있었던 것일 것이다. 보고에 의하면 10월 18일 春川교외 8KM 지점에 1,000명 江陵에 3,000명의 敵이 있었다 한다.

최근 통과지역의 敵 작전을 보면 38線 以北으로 도주하려는 意圖가 명시되어 있다. 敵은 자신의 보급을 획득하기 위하여 時時 촌락에 출몰하여 때로는 村人을 살해하며 방화한다고 한다. 한편 도로차폐를 구축하고 경호하기 위하여 복병시켜 平服을 착용하고 있다 한다.

추측하건데 敵은 불과 7할 이외는 무장을 하지 못하고 금일까지 사용된 것은 단 2문의 박격포라고 한다. 敵의 중화기는 폐기되었으나 수개의 기관총과 소수의 박격포를 가지고 있는듯 하나 탄약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敵이 통과하는 지점은 좋은 은익지와 차폐물을 주며, 또 현재는 차 지역은 秋收가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보고에 의하면 패잔병이 旧邵에 가서 外鴨를 구성하여 미곡을 수확하고 있었다 한다. 패잔병에게는 금일 수확한 지역은 최 안식처이며 적의 양식상태는 극히 긴급한 것이다. 잔적의 지도자는 전 中共軍출신자 즉 不死공산주의자라 하는 자들로 구성된 傀儡軍 제 1, 제 3, 혹은 제 5사단 출신자일 것이다. 차 敵兵이 만약 38°線 월경에 성공하였다 하여도 사실을 知悉하면 대부분은 곧 항복할 것으로 추측된다.

2. 가. 極東海軍은 현 임무를 수 행하면서 三陟, 蔚珍지구에 잔존하는 敵 지향을 我 해병대 및 해군이 소탕 중.

나. 我 제 1 군단 및 제 2 군단은 통과지역 내의 잔적을 수색격멸하고 있음.

二. 軍은 後方에 준동하는 殘敵을 소탕하려 함. (작진투명도 참조)

三. 1. 제 3 군단장은 편성직후 자 책임담당지역 내 敵을 수색, 격멸하라.

2. 제 5 사단, 불필요한 지체없이 지정지역에 이동하여 동 지역내 敵을 수색, 격멸하라.

가. 사단사령부는 大邱로부터 安東에 이동하라.

나. 제27연대는 大邱로부터 浦項에 이동하라.

다. 제35연대는 馬山으로부터 榮州에 이동하라.

라. 제36연대는 馬山으로부터 蔚珍에 이동하라.

3. 제17연대, 불필요한 지체없이 속히 지정지역에 이동하여 敵 北進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역 北方에 차단점을 설치하고 敵을 수색, 격멸하라.

가. 제 3, 제 5, 제 6 유격대대를 작진상 제17연대에 배속한다.

4. 유격대, 분할한 지대없이 속히 지정지역에 이동하여 지구 내 敵을 수색, 적멸하라.

가. 제3, 제5, 제6유격대대를 제17연대에 배속한다.

5. 모든 행동은 韓國경찰과 긴밀히 협의하라.

6. 적절한 협의를 도모키 위하여 제3군단과 極東海軍사령부와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四. 행정사항 후단별 부대행정에규를 보라.

五. 통신사항

지휘소

제3군단——原州

제5사단----安東

유격사령부·····橫城

제17연대 ··江陵

부록 제20호

육본작명 제221호 1950. 10. 20. 13.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a. 정보사항 부록 제2호 참조

b. 1. 美 제10군단은 元山 지구 점령 완료 즉시로 배속된 韓國軍 제1군단과 합세하여 담당지구 내에서 北進하여 德實里 CA4712(北緯 40°44′ —東經 127°12′)---豊山 DA2818(北緯 40°48′ ··東經 128°10′) ·城津 EA1602(北緯 40°40′ ··東經 129°12′)을 연하는 線을 점령, 확보할 것임.

2. 美 제3보병사단은 총사령부 예비대로서 元山에 집결할 것임.

3. 美 제187공수전투연대는 龍川 YD2565---順川지구를 점령, 방어하기 위하여 1950년 10월 20일 낙하산으로 낙하하여 UN軍 총사령관 직접 지휘하에 작전함.

4. 美 제1군단은 담당지구 내에서 모든 敵을 섬멸하며 진출하여 담당지구내 목표선 A를 점령, 확보하고 海州---平壤線 以西지구 敵을 소탕할 것임.

5. 美 제9군단은 水原—大田—大邱--釜山間 보급로를 확보하고 大韓民國 경찰과 합력하여 南韓 담당지구 내 殘敵을 섬멸하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함.

c. 극동방면 공군은 국제연합군 지상군을 지원하는 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함.

d. 극동방면 해군은 국제연합군 지상군을 지원하는 작전임무를 계속 수행함.

二. a. 軍은 담당지구 내에서 北進하여(北緯 40°17′—東經 125°47′)—楡木洞(北緯 40°22′—東經 126°2′ 北緯 40°28′—東經 126°50′)—德實里(北緯 40°44′—東經 127°12′)를 연하는 線을 점령, 확보하고, 담당지구 내 殘敵을 섬멸하려 함.

b. 공격개시선 작부대 현재 위치

제249소총여단 600명
제92소총연대 500명
합계 6,400명

(2) 前進지역에 있는 적 병력보고
제17기계화사단 5,000명
제15소총사단 5,000명
제105장갑사단 5,000명
합계 15,000명

(3) 추산한 예비대병력(차 부대는 아직 확인하지도 못하였으나 대개는 존재를 추측한 것이다.)
제11소총사단 11,000명
제14소총사단 11,000명
제25소총사단 11,000명
합계 33,000명

(4) 상기 부대는 다방면 다각도로 그 존재를 확인한 것이며, 그 병력은 추산하는 것을 유의하라. 또 당연히 이외에도 그 존재와 위치가 확인되지 못한 新造부대가 있을 것이다.

(參考사항) 최근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敵은 정부와 주요 방위력을 滿浦鎭을 中心으로 하는 주변에 집중시키고 강력한 방어진지를 熙川과 武坪里에 구축하고 있다 한다. 차 지역에는 韓國內에서 가장 양호한 道路가 시설되고 동시에 최고 산악이 병립하여 유격대활동에 대하여 좋은 차폐물과 은폐물을 제공할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까지 日帝침략시에도 차 지역은 對日軍유격戰場지역으로 유명하였다는 것을 명기하라. 이들 유격대는 어느 1명의 金日成이라 칭하는자에 의하여 지휘되었던 것이다.

차 지역은 石炭, 金등 귀금속광(우라늄도 있을 것이다.) 및 水力電氣, 木材와 滿洲를 통하는 鐵道 보급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中共이나 蘇聯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방위에 유리한 지형과 방위에 필요한 중요 自然資源과 北傀政權의 최후 決戰을 위하여 滿浦鎭 이동을 종합하여 볼때 敵은 차 지역에서 악독히 我軍 진격에 대하여 대항할 것이 예상된다. 敵은 主力을 熙川—武坪里—滿浦鎭에 이루는 鐵路와 도로에 집중할 것이 명백하며 또 현재 中共軍에 가입하고 있는 韓國人이 차 지역방위를 담당할 것도 가능한 일이다. 금일까지 中共, 蘇聯의 개입할 기색은 보이지 않으나, 北傀軍에 대하여 하시라도 즉시 中共, 소련이 援兵을 보낼수 있다는 것은 역시 염려가 되는 바이다.

二. 중요보고사항

a. 敵 병력, 배치위치, 부대확인, 목표지, 방위진지와 상황

b. 敵은 목표지에서 증원하느냐? 만약 한다면 언제, 이에서, 여하한 부대를 가지고 하였느냐? 中共軍 사용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라.

c. 敵은 我軍 보급로를 방해하지 않을까? 球場洞으로부터 武坪里에 이르는 道路 철도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라.

d. 敵을 공격할까? 만약 한다면

c. 전투지경 부록 제2호 작전투명도 참조

三. a. 제1군단은 1950년 10월 20일 12.00부 韓國軍의 지휘 하로 부터 해제되어 美 제10군단에 배속한다. 차후 작전에 있어서는 美 제10군단장의 지휘를 받으라.

b. 제2군단은

1. 제7사단을 즉시 三陸 BU 5619(北緯 39°—東經 126°13′)으로 집결시키고 三陸 집결 완료와 동시에 제2군단 지휘하로부터 해제, 육군본부 지휘 하에 入하게 하라. (軍예비)

2. 담당지구 내에서 敵을 섬멸하며 전진하여 담당지구 내 목표선 A를 점령, 확보하라.

3. 北方에 대한 차후 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

c. 제3군단은 경찰과 협력하여 담당지구내 잔적을 섬멸하는 현임무를 계속 실시하라.

d. 軍 예비 제7사단은

1. 제2군단 담당지구 , 에서 작전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

2. 軍 담당지구내의 고립된 敵에 대하여 섬멸작전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

x. 1. 定州—軍隅里—寧遠—咸興선 이북에서의 韓國軍 이외의 국제연합군 지상군 사용에 관하여 육군작명 제218호로 규정한 제한은 해소되었음. 그러나 韓國軍 이외의 국제연합군은 목표선 A 이북에서 작전하지 않는다. 韓國軍은 韓國 군사고문단이 지명하는 인원 급 고문 요원과 더불어 목표선 A이북에서 작전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

2. 제2군단은 美 제1단 담당지구를 통과할 필요가 있을 때엔 진로 급 통로에 관하여 美 제1군단과 협의하라.

3. 부록 1, 2는 後送함.

四. 행정사항 현 행정명령을 보라.

五. 통신사항 후달함.

부록 제21호

육본작명 제221호 부록 제2호(정보사항) 1950. 10. 20. 12.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적정대략

a. 敵 위치(정보개요 참조)

b. 韓 제2군단지역에 존재하는 적병력

(1) 전선 중 혹은 在戰線대기 敵 부대

제18소총사단 2,300명

제31소총사단 2,000명

제25소총여단 1,000명

e. 敵은 방어할까? 만약 한다면 병력은 어하 또 어디서 지연 혹은 방위작전을 하는 것일까?

f. 敵은 후퇴할까? 만약 한다면 언제 어디로 어떤 병력이?

g. 韓 제2군단지역 내 敵의 전투능력 건강상태 훈련정도 사기는 어하?

h. 敵 지역내 장애물 축성 또는 지뢰부설지는 어디 있는가?

i. 北韓人民들의 태도는 어하?

三. 정찰임무

a. 예하부대에 대한 명령——일반적으로 中隊長 및 부대장은 상기 제二항 중 요보고 사항에 대하여 정보수집 기본적 지시로 하여 유의하라. 부가된 특별명령은

(1) 정보입수 즉시 熙川으로 北方 武坪里에 이르는 道路에 대하여 보고하라. 특히 熙川北方 약8KM 지점에 있는 鐵道터널과 武坪里南方 16KM에 있는 鐵道터널에 대하여 주의하기를 요망한다.

(2) 작전지역 내의 어하한 金鑛, 炭鑛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즉시 보고하라.

(3) 敵 장갑 혹은 보병부대 등의 현성한 形跡 증거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특별히 傀儡軍 제17기계화사단 제105장갑사단, 제15보병사단 행동에 유의하라.

b. 上級, 인접 관계부대에 대한 요구

(1) 美 제1, 제10군단

(a) 韓 제2군단 지역 내에 영향될 敵 부대위치, 병력배치에 대한 정보는 입수 즉시 보고하라.

(2) 제5항공단

(a) 하기 要點을 결정하기 위하여 球場洞부터 北方 滿浦鎭에 이르는 주요도로 및 철도에 대한 可視정찰에 주의하라.

(1) 부대집결위치, 병력배치, 자동차 및 보보부대종대 될 수 있으면 이동 방향.

(2) 철도위치, 밀도, 배치 및 방향.

四. 포로취급, 노획서류, 물자에 대한 요망 종전과 여함.

五. 地圖, 寫眞

a. 지도 동상배급계통

b. 사진 차 본부에 空中사진을 송부하라.

六. 防諜

a. 엄중한 방첩태세를 적휘소에 수립하라. 하처에서라도 특별히 敵에 이용될 지도, 서류취급, 전화회화, 失話, 추측에 대하여 주의하라.

七. 報告. 위치보고를 가급적 신속한 방법으로 제출하라.

부록 제22호

육본작명 제222호

1950. 10. 22. 15.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1군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17연대장은 육본작명 제220호(1950. 10. 20. 00.00부)에 의하여 배속된 제 3, 제 5, 제 6 유격대대를 1950. 10. 22 12.00부로 배속을 해제하는 동시에 원대복귀시키라.

2. 유격사령관은 전기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

3. 제 3 군단장은 예하 유격사령부 각 대대를 별지 투명도에 의거 1950년 10월 26일 24.00까지 좌기와 여히 배치하여 北上 도주하는 敵을 저지, 섬멸하라.

제 1 유격대대 ——橫城

제 2 유격대대 ——洪川

제 3 유격대대본부 및 3개중대 ……江陵

1개중대……襄陽

제 5 유격대대——寧越

제 6 유격대대——三陟

제 7 유격대대 春川

4. 전투지경(별지 투명도 참조)

5. 배치완료하면 즉시 육본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부대행정 예규를 보라.

五. 통신사항 통신규정 의거 실시하라.

부록 제23호

육본작명 제223호 1950. 10. 22. 15.3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1군은 일부병력과 민간통신기술자를 동원하여 잠령지구 내의 기설 電話線을 복구하여 有線 통신 축선을 구성하려 함.

三. 1. 육군본부, 통신감은 예하 통신학교 및 민간통신기술자로서 좌기 통신특별공사대를 편성, 잠령 지구를 분담, 유선통신축선을 지급히 구성하라.

記

a. 제 2 통신특별공사대(육군대위 梁基煥이하 22명, 민간기술자 50명(서울에서 20명), 공사현지 징용 30명)으로 편성하여 서울—橫城 경유, 平壤方面線을 담당하라.

b. 제 2 통신특별공사대는 육군대위 朴春光이하 33명, 민간인기술자 50명(서울에서 20명 江陵에서

10명, 공사현지에서 20명)으로 편성하여 서울—原州, 서울—江陵, 서울—春川間線을 담당하라.

2. 각급지휘관은 전기 통신특별공사대 임무수행에 적극협력하여 편의를 도모하라.

四. 1. 제51통신대대장은 본 공사대편성에 필요한 有線장교 5명, 가설병 50명을 차출함과 동시에 공사간은 兵力日報에 상당 삭제보고하라.

2. 본 특별공사대장은 공사대에 대한 병력일보를 작성하여 통신감실 경유, 제출함과 동시 糧秣(主食副食) 기타 보급품을 현지 보급소에서 수령하라.

3. 제51통신대대장은 본 공사대작업에 필요한 차량 2 1/2톤 2대, 3/4톤 2대를 차출, 제공하라.

4. 본 공사대장은 공사작업현황을 매일 육본통신감에 보고하라.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24호

육본작명 제224호 1950. 10. 23. 12.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적정

1. 敵은 寧邊(YE 4011) 博川(YE 2101)의 淸川江 연변선에서 방어를 企圖중이며 병력 약 4,000, 전차 40대, 포 약간을 보유하고 있음.

2. 美 제1군단의 전방지휘소는 平壤에 있음.

3. 韓國軍 제7사단은 平壤에 있고, 제3연대는 鴨山里(YD 4828)에 제5연대는 三登(BU 5720)에 제8연대는 平壤에 있음.

二. 軍은 일부 병력을 국제연합군에 배속하려 함.

三. 1. 1950년 10월 23일 24,00부로 제7사단을 국제연합군 제1군단에 배속한다.

2. 제7사단장은 배속 후의 행동에 관하여 美軍 제1군단장의 지시를 받으라.

四. 행정사항

변경무함.

五. (1) 육본과 제7사단간 무선통신은 1950년 10월 23일 24.00를 기하여 폐소하는 동시에 행정사항은 연락병을 최대한 이용하라.

(2) 제7사단장은 통신사항에 관하여 美軍 제1군단장의 지시를 받으라.

부록 제25호

육본작명 제225호 1950. 10. 28. 12.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생략

二. 軍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7훈련소장은 예하 전 병력을 1950년 11월 5일 24.00까지 현재지 鎭海로부터 서울로 이동시키라.

2. 이동완료와 동시 즉시 육본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26호

육본작명 제226호 1950. 10. 29. 12.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南韓 殘敵은 대개 北上을 企圖하고 있으며, 퇴각 루우트를 原州—春川—春川 경유, 華川方面으로 향하고 있음.

二. 軍은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3군단장은 예하 유격사령부 제7대대(春川)에서 2개중대를 차출, 華川발전소 경비에 단전을 기하라.

2. 제3군단장은 경비병력 배치즉시로 육본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변경무함.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27호

육본작명 제229호 1950. 10. 30. 24.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현재 적정 무, 연이나 계속해서 北上 越北하는 殘敵은 있을 것임.

二. 軍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17연대장은 예하 제1대대를 현재지 高城으로 부터 영東里(DT 1683), 束草里(DT 1275), 金城(CT 7852)를 경유, 平康(CT 5152)으로 1950년 11월 1일 12.00까지 이동완료하라.

2. 부대이동시는 보병 2개 중대의 경계병력을 이용하여 이동에 만전을 기하라.

3. 이동완료와 동시, 즉시 육본에 보고하라.

四. 행정사항 변경무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28호

육본작명 제230호 1950. 11. 1. 16.00

서 울

육 군 본 부

一. 1. 생략

2. 제6사단은 軍團里에 · 제11사단은 南原에 있음.

二. 軍은 일부 鎭兵의 배속을 변경하려 함.

三. 1. 포병 제16대대의 제6사단배속은 1950년 11월 7일부로 해제하고 동시에 육본직할로 한다.

2. 포병제27대대의 제11사단배속은 1950년 11월 7일부로 해제하고 동시에 제6사단에 배속한다.

3. 포병제27대대장은 11월 4일까지 서울로 이동, 포병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후 가급적 속히 제6사단에 이동케 하라.

4. 포병사령관은 전기 포병대대의 이동이 완료되면 즉시 육본에 보고하라.

x. 1. 포병제16대대는 대대본부 소속 장비를 제외한 중대장비(火砲 7문 및 부속차량 1/4는 2대 3/4는 4대 2, 1/2는 6대)를 보병 제8사단에 인계하되 대대본부인원 및 장비일체는 서울로 이동, 재편을 실시하라.

2. 보병 제8사단장은 보병 제6사단으로부터 인수한 중대장비를 가지고 포병 제50대대를 재편성하라.

3. 포병 제50대대 제3중대는 일시 육본 직할로 한다.

四. 행정사항 변경무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29호

一軍作命 제93호 1950. 9. 12. 21.00

慶北 道只里

제1군단사령부

一. 적정 생략

. (1) 군단은 제 3 사단과 首都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을 설치하고 계속 前下를 企圖하는 敵을 포위, 섬멸하려 함.

(2) 가. 전투지경선

a. 제 3 사단—首都사단(12281455)—(12281453)—(12291452)—(12291450)--(12291449) 以 신상은 3 사단에 속함.

b. 생략

나. 공격개시시일 D일 H시(발령)

다. 공격개시선(투명도 참조)

. (1), (2) 생략

(3) 제 3 사단

가. 즉시 신진투지역에 취하라.

나. 현 임무를 계속하여 주저항선에 도달, 차기공세를 준비하라.

다. 雲梯山 부근에 침투한 敵을 신속히 소탕하라.

이하 생략

제 1 군단장 육군준장 金 白 一

(註 : 以下 제 1 군단 作命에서는 군단장이 金白一준장이므로 이를 생략한다.)

부록 제30호

1950. 9. 30. 10.00

江原道 平昌

제 1 군단사령부

. 정보부록 참조.

. 군단은 차기작전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일부 병력으로써 北進하려 함.

. (1) 首都사단장은 즉시 예하부대 병력을 집결시켜 平昌 厥院里 西林街道를 진진하여 차기 작전을 준비하라.

(2) 제 3 사단장은 현재 추적을 계속하여 襄陽을 점령, 확보하는 동시에 首都사단의 38°線 以北 진출을 용이케 하라.

(3) 생략

부록 제31호

軍團作命 제120호

1950. 11. 16. 16.00
咸北 城津
제 I 군단사령부

一. 생략

二. 군단은 일부 병력을 이동하려 함.

三. (1) 제 3 사단장은

가. 사단사령부 급 예하 제23연대를 이동시켜 臨瀛洞—吉州間의 2개 연대로서 合水를 공격, 점령하라.

나. 예하 대전차공격대대를 端川에 주둔시켜 1개 중대로서 金嶺 발전소를 점령, 확보케 하라.

(2) 군단 직할 제22연대장은 城津에 1개대대를 주둔시키고 주력은 吉州에 이동하여 원대에 복귀하라.

首都사단장은 기갑연대병력을 제 3 사단 병력과 교대 후는 철수하여 해병력을 통합 지휘, 작전지시 제81호의 목표를 공격, 점령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생략

부록 제32호

軍團作命 제121호

1950. 11. 27. 17.00
咸北 城津
제 I 군단사령부

一a. 생략

b. 美 제10군단은 계속하여 韓滿국경에 전진한 제26연대는 1주일 이내에 咸興 端川 北山鎭으로 전진할 것임. 美 해군 및 공군은 요청에 의하여 我 군단을 지원함.

二. a. 군단은 계속 北進하여 담당지구 내의 韓·滿, 韓·蘇국경에 전진하려 함.

三. (1) 首都사단은

a. 2개 연대로서 會寧을 1개 연대로써 雄基를 점령 확보하라.

b. 예하 제 I 연대의 장병 특공대대를 茂州에 주둔시켜 白頭山 남지구전투부대에 배속하라.

(2) 제 3 사단은

a. 최단시간 내에 1개 연대로써 茂山을 점령, 확보하며 1개 연대의 예비대를 羅南에 보유하라.

此 예비대 사용 전투는 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동은 別命한다. 白頭山남지구전투부대는 남

당지구 내의 殘敵을 소탕하라. (但 제26연대복귀와 동시에 실시한다)

四. 생략

五. 생략

白頭山남지구 지휘소

부록 제33호

步三師作命 제38호 1950. 9. 16. 24.00

慶北 都邱洞

제 3 사단사령부

一. (1) 적정 생략

(2) 仁川方面에 상륙한 UN軍 3개사단은 서울 西南方 2 mile 지점까지 진출하였음.

(3) 長沙方面에 上陸한 我 유격대 1개 대대는 계속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음.

(4) 인접 首都사단은 安康一玉山線을 달려, 계속 北進하고 있음.

二. (1) 사단은 명 9월 17일 10.00를 기하여 공격개시, 당면의 敵을 격파 北進하려 함.

(2) 전투지경선 생략

三. (1) 제23연대는 명 9월 17일 10.00를 기하여 공격개시. 별지 작전투명도선에 진출하라.

(2) 제22연대는 명 9월 17일 09.00까지 長興洞에 집결, 제23연대가 작전투명도 "A"에 도착 후 제23연대 後方으로 부터 渡河하여 제23연대 右翼에 전개, 당면의 敵을 공격, 별지 투명도선에 진출하라.

(3) a. 제26연대는 제22연대는 浦項一龍興線에 진출후 兒山江을 도하, 浦項 경유, 별지 투명도선에 진출하여 당면의 적을 공격하라.

b. 제26연대장은 浦項 진출시 1개 대대병력으로써 사단 예비대로 하라.

(4) a. 포병대대장은 포병 제 1 중대를 제23연대에 제 2 중대를 제22연대에 각각 지원케 하라. 제 3 중대는 사단 전체를 지원하라.

b. 생략

(5) a. 공병대대장은 兒山橋 及 生皆洞 前方 교량수리, 가교완료 후는 제22 제23연대에 각각 1개중대를 배속 직접 지원케하라.

b. 생략

(6) 사단대전차포중대는 제26연대 1개중대가 兒山江 左岸에 진출 후는 제22연대에 직접 지원하라.

a. 敵 진지내에서의 突破口의 확대에 전력을 다하라.

主力으로 부터 분리하여 침투 독립된 "포켓"내의 敵을 포착, 격파하라.

b. 각급부대는 각급지휘관이 자기기동력계획을 촉진할 수 있도록 敵의 위치 급 병력을 적극적으로 정찰할 것을 강조한다.

c. 각부대 지휘관은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敵 의표에 나올 것이다. 실시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대파악이 확신히 되었을 때는 恒時 未明 及 야간공격등을 감행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余는 都邱洞 사단지휘소에 재함.

제3사단장 육군대령 李 鍾 贊

(註 : 以下 제3사단장은 李鍾贊 대령이므로 제3사단 作命에서는 생략한다.)

부록 제34호

步三師作命 제42호

1950. 9. 27. 22.00

江原道 寺山里

제3사단사령부

一. 1. 盈德 海岸 方面으로부터 도주 중인 敵은 蔚珍 부근에서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我 사단의 맹추격으로 계속 三陟 방면으로 향하여 도주하고 있음.

2. 인접 首都사단은 도주하는 敵을 추격 금 27일 04.00 春陽에 진출함.

3. 美 공군 及 해군은 계속 지원하고 있음.

二. 사단은 蔚珍, 三陟, 江陵 街道를 급속 北進하여 도주하는 敵을 추격하는 동시에 江陵 지구에서 敵 퇴로를 차단, 이를 포착 섬멸하려함.

三. 1. 가. 제22연대장은 蔚珍에 집결 중인 2개대대의 병력을 지휘하여 명 28일 03.00 출발, 蔚珍 三陟 江陵 街道를 急進 당면의 敵을 격파, 江陵에 진출하여 敵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이 方面의 敵을 포착 섬멸하라.

나. 군단 작명에 의하여 蔚里로부터 廣間里로 전진 중인 1개 대대(공병 1 개소대)를 명 28일 17.00까지 蔚珍에 진출케 하라.

蔚珍 집결 후 사단 수송력으로 江陵에 전출예정임.

2. 가. 제23연대는 사단 예비대가 되라.

나. 1개 대대는 別命 유할시까지 蔚珍 부근 급 竹邊부근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코 경계에 임하라.

다. 잔여병력은 명 28일 08.00 三陟 江陵을 향하여 진출하라.

3. 제26연대장은 명 28일 17.00까지 전병력을 蔚珍에 집결완료, 별명을 대기하라.

4. 포병대장은 포병제2중대를 제22연대에 직접지원 제3중대는 제23연대와 같이 행동하라.

사단대전차포 중대는 제22연대 직접지원, 제22연대와 이동을 같이 하라.

5. 공병대대장은 제22연대에 지뢰탐지소대를 배속시키라.

6. 헌병대장은 예하 헌병을 제22, 제23, 제26연대에 각각 배속시키라.

7. 추격부대는 소수의 敵에 구애치 말고 요점을 탐색, 경계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일로 北進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余는 사단지휘소에 제함.

명 28일 08.00부터 제23연대와 행동을 같이할 예정임.

이하 생략

부록 제35호

師團作命 제44호

1950. 10. 1. 16.00

江原道 江陵

제3사단사령부

一. (1) 江陵 지구로 부터 후퇴한 敵은 주로 襄陽 부근에 집결중이며, 그 일부는 38°線 기설진지에 배비, 확보하고 있는 모양임.

(2) 인접 首都사단은 寧越을 돌파, 西林지구를 향하여 계속 북상 중임.

二. 사단은 도주하는 敵을 급속히 추격하여 기설 38°線 지구를 사용할 여유 없이 일거 襄陽을 점령, 元山지구를 목표로 하여 계속 北進하려 함.

三. (1) 제23연대장은

가. 북위 38°線을 돌파 후 主力으로써 일거, 襄陽을 점령하라.

나. 襄陽을 점령후는 초월공격하여 사단 선견부대가 되어 계속 北進, 主力으로써 元山을 점령하라.

(2) 제26연대장은

가. 제22연대가 襄陽을 점령 후 초월공격하여 사단 先頭부대가 되어 계속 北進, 主力으로써 元山을 점령하라.

(3) 제22연대장은

제23연대장이 襄陽을 점령 후 襄陽에 집결하여 사단 예비대가 되라.

(4) 포병대장은

가. 제1중대는 제23연대를 직접 지원케 하라.

나. 제2중대는 제26연대를 직접 지원케 하라.

다. 제3중대는 선견부대에 중대에 중점을 두고 일반 지원하라.

(5) 공병대장은 종래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6) 대전차공격대장은 襄陽에 집결하라.

1개 중대를 注文津에 치하여 사단보급소의 경비에 임케하라.

(7) 사단대전차포중대장은 선견부대를 직접 지원하라.

四. 이하 생략

부록 제36호

師團作命 제45호 1950. 10. 3. 20. 00

江原道 杆城

제 3 사단사령부

一. (1) 39°선에서 패주 北上 중인 敵은 我 사단의 신속 과감한 추격으로 그 일부는 五台山 雪嶽山 방면으로 主力은 杆城 高城 通川 가도를 계속 북상, 도주하고 있음.

(2) 敵은 安邊 元山 지구에서 결전을 기할 企圖 농후함.

(3) 인접 제 3 군단은 春川방 면으로 부터 계속 북상 중이며 美軍은 議政府 北方에서 격전 중임.

(4) 美 공군 및 해군은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음.

二. 사단은 도주하는 敵을 계속 추격하여 일거 元山線에 진출, 당면의 敵을 포착 섬멸함과 동시에 鐵原 방면으로부터 진출하려고 예측되는 敵의 퇴로를 차단하려 함.

三. (1) 제22연대는 제26연대가 杆城점령 후 즉시 제26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일거 高城 通川에 진출 도주하는 敵을 추격 포착 섬멸하라.

(2) 제22연대는 通川 점령 후 예비대가 되라.

(3) 가. 제23연대는 제22연대의 後方으로 전진 제22연대의 좌측배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라.

나. 제23연대는 제22연대가 通川 점령후 즉시 제22연대를 초월 공격하여 일거, 歙谷一元山線에 진출하라.

(4) 가. 제26연대는 杆城 점령 후 사단 예비대가 되라.

나. 제24연대가 通川 진출 후 23제연대 後方을 전진, 제22연대 좌측배에 대한 경계를 담당하라.

(5) 가. 포병대대장은 포병 제 1 중대를 제23연대에 제 2 중대를 제22연대에 직접 지원케 하며. 제22연대가 通川 진출 후는 제 2 중대는 제26연대를 직접 지원케 하라.

(6) 사단 대전차공격대대는 사단사령부와 행동을 같이 하라.

(7) 정보참모는 사단수색대를 적절히 지휘하여 高城 元山간의 敵, 특히 左側 산악에 대한 敵情 수집에 만전을 기하라.

(8) 수송대대장은 사단차량을 동원하여 작전에서 요구하는 부대 수송에 만유감 없기를 기하라.

(9) 통신사항 생략.

(10) 가. 공병대대장은 상시 선두부대에 지뢰탐지반 1 개소대를 배속케 하라.

나. 공병대대장은 전진로 보수에 전력을 다하여 도로, 교량등을 확보하라.

(11) 가. 사단헌병대장은 점령지구 치안 확보 급 교통정리에 만유감 없기를 기하라.

나. 특히 점령지구 내의 敵의 식량 급 피복창고등에는 즉시 경비헌병을 배치하여 지방인의 무단 지출이 없도록 하라.

(12) 가. 차후 각부대의 전진은 가급적 차량을 이용하고 사병의 체력소모를 감소하라.

나. 각부대의 전진에 있어서 敵情이 無하다 하여 전술운행의 원칙을 무시하며 수색경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도록 할 것.

다. 각부대는 작전에 있어서 지시된 지점까지 수송하면 즉시 해차량으로 後送부대의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라. 각부대의 진출지점은 그 전일에 지시 하달함.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부록 제37호

師團作命 제55호

1950. 11. 16. 20.00

咸南 新浦

제 3 사단사령부

一. 생략

二. 사단은 主力으로 合水를 공격, 점령하고 일부 병력으로 後方경비에 임하려 함.

三. (1) 제23연대장은 예하병력(결 1개 중대)을 이동시켜 城津鹽濱洞 合水街道를 前進, 合水를 공격, 점령하라.

(2) 제22연대장은 군단 지휘로부터 원대복귀, 端川 주둔대대의 현재 임무를 사단전차돌격대대에 인계하고, 1개 대대를 城津 잔여 주력급 연대본부는 吉州에 이동시켜 吉州 合水街道를 전진, 合水를 점령하라.

(3) 포병대대장은 제 1 중대를 제23연대 제 2 중대를 제22연대에 직접 지원케하고 대대본부 급 제 4 중대는 吉州에 위치하여 전반 지원하되, 제22연대에 중점을 지향하라.

(4) 공병대대장은 예하 2개중대 병력을 차출하여 제22연대에 1개 중대 제23연대에 1개 중대를 직접 지원케 하고, 잔여는 吉州에 집결시키라.

(5) 전차공격대대장은 예하 병력을 端川에 집결시켜, 제22연대의 제 1 대대와 임무를 교대케 하라. 1개 중대를 신형에 파견하여 해소를 점령, 확보하라.

(6) 사단 직할 각부대는 별지 투명도에 의거하여 吉州에 집결하라. 자동차 수송에 의하는 부대는 특히 강설, 동결로 인한 자동차사고 全無토록 노력하라.

四. 생략

五. 생략

제 3 사단장 육군준장 崔 錫

(註 : 以下 제 3 사단장은 崔 錫준장이므로
제 3 사단 作命에서는 이를 생략한다.)

부록 제38호

師團作命 제56호 1950. 11. 20. 10.00
咸北 吉州
제 3 사단사령부

. 적정 생략

. 사단은 主力으로서 合水를 공격 점령하려 함.

. (1) 제23연대장은 즉시 예하 1개대대를 현 집결지로 부터 大新里에 급진시켜, 기왕의 기갑연대와 교대하고, 1950. 11.20. 18.00까지 合水를 공격점령하라.

(2) 제23연대장은 1950. 11.21. 이명, 행동을 개시, 연대본부 급 잔여 주력을 현재지로 부터 大新里에 이동, 차후, 연대본부 급 勝地 白岩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라.

(3) 대전차포중대 급 포병중대는 현재지에 잔치시켜 포병은 원대복귀 대전차포중대는 吉州에 집출시켜 사단 작전참모의 지시를 받도록 하라.

(4) 제22연대장은 咸德 주둔 대대를 급진시켜 1950. 11.20. 18.00까지 合水를 공격, 점령하라.

(5) 제22연대장은 즉시 연대본부 급 잔류, 1개 대대를 咸德에 이동, 차후 연대본부를 合水에 진출할 준비를 하라.

(6) 대전차포중대 급 지원중대는 현재지에 잔류하여 포병은 원대복귀시켜라.

(7)포병대대장은 예하 3개 중대를 집출시켜 吉州에 집결케하고, 부대정비 급 교육중점에 치중하고 발명을 대기하라.

(8) 공병대대장은 城津 臨溟洞 合水—吉州間 도로를 급속정찰결과 급 정비에 관한 상황을 서면보고하라.

이하 생략

부록 제39호

師團作命 제57호 1950. 11. 28. 12.00
咸北 吉州
제 3 사단사령부

. 적정 생략

. (1) 首都사단은 清津 北方 15km 지점에 진출 중이며 1개 연대는 羅津 雄基 方面으로 1개 연대는 古茂山 會寧 方面으로 진출할 것임.

(2) 제26연대는 1주일 이내에 咸興 端川 惠山鎭으로 진출할 것임.

(3) 美軍은 요청에 의하여 계속 지원할 것임.

三. (1) 사단은 북진하여 韓滿국경선에 진출하려 함.

(2) 전투지경선 급 진진경로 생략

(3) 공격출발지점—羅南

(4) 공격전진시간 (D일 H시)

(5) LD선 출발(D--40600)

四. (1) 제23연대장은

가. 主力으로 羅南—茂山 街道를 北進(D+3 2400)까지 LD線 진출, (D+40600)를 기하여 주력과 호응, 茂山을 공격, 점령하라.

나. 일부 병력으로 稜山 방면으로 迂廻, (D+3 2400)까지 LD線에 진출, (D+4 0600)를 기하여 주력과 호응, 茂山을 공격, 점령하라.

(2) 제22연대장은

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나. 별명 유할서 羅南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다. 城津 주둔 1개 대대를 별명시(D+3D 예정) 羅南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3) 제26연대장은 惠山鎭에 도착과 동시에 白頭山지구전투부대장의 지휘를 받으라.

(4) 포병대장은

가. 제22연대에 직접 지원중인 포병 1개 중대를 원대복귀 시켜라.

나. 제23연대 포병 2개 중대를 직접 지원케 하라.

다. 제26연대가 惠山鎭 도착과 동시 포병 1개 중대를 직접 지원케 하라.

(5) 공병대대장

가. 작연대에 배속 중인 지뢰탐지 소대의 현임무를 계속 수행케 하라.

나. 제23연대에 공병 1개 중대 급 부르도자 1대를 직접 지원케 하라.

(6) 전차공격대대장은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별명 유할 시 白頭山 지구 남부전투지휘관의 지휘를 받으라.

五. 생략

六. 생략

부록 제40호

師團作命 제58호

1950. 12. 1. 15.00

威北 吉州

제3사단사령부

一. 생략

二. 사단은 일부 병력을 이동 인접 師團의 전진으로 아를 엄호하려 함.

三. (1) 가. 제22연대(결 1개중대)는 현임무를 계속 수행하려 함.

우익 제23연대와 연락하여 공세방어를 실시하라.

나. 제3대대는 사단 직할로 城津에 위치케 하라.

(2) 제23연대는 즉시 현위치로 부터행동을 개시하여 主力은 吉州에 두고 1개대대를 고참洞에 경정을 두고 주로 明川 方面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며 右翼 제23연대와 연락하여 인접 首都사단의 진격을 엄호하는 동시에 공세방어를 취하라.

(3) 제26연대는 계속 美 제3사단의 지휘를 받으라.

(4) 포병대대는 1950. 12.2. 오조, 이전을 개시, 城津에 집결, 포 급 차량의 정비를 실시하라.

(5) 가. 공병대대장은 제22, 제23연대에 각각 1개 소대씩 직접 지원케 하고 잔여는 원대복귀 시켜라

나. 吉州 合水간 도로 작업을 실시하라.

다. 제22연대 지원 공병으로 하여금 白岩으로 부터 20km 北方까지 白岩—茂山間의 도로 5개소, 白岩—惠山鎭간의 철도를 완전히 파괴케 하라.

(但 작업완료는 1950. 12.2. 24.00까지 하라)

(6) 전차공격대대는 계속 군단 직접 지휘를 받으라.

(7) 전진시 민간인의 동행을 엄금하라.

(但 제반기술자 자위대원 자치위원 전요원 급 특히 군에 협력한 민간인에 하여서는 각부대장은 이를 애호하라.)

四. 행정사항 생략

五. 통신사항 생략

2. 訓　　令

부록 제41호

육본훈령 제84호

1950. 10. 04. 16.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訓　令

만약 보급상황에 염려가 유하여 主力의 전진속도가 지연되더라도 敵과의 조사시 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찰대를 파견하여 敵과 강력히 접촉하라. 정찰대의 병력 배치는 최적방법으로 신속히 육군본부에 보고하라.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　一　權

(註 : 以下陸 軍本部 訓令에서는 총참모장이 丁一權소장이므로 紙面관계상 이를 생략한다.)

부록 제42호

육본훈령 제85호

1950. 10. 05. 16.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訓　令

육본작명 제186호 정정

1950년 9월 19일 15.00부로 하달한 육본작명 제186호 제3항의 3을 하기와 여히 정정시달함.

記

一. "제3훈련소장은 전기 2항 병력을 통합지휘하라."를 "제3훈련소장은 전기 병력을 통합지휘하라."로 정정한다.

부록 제43호

육본훈령 제86호

1950. 10. 07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訓　令

北韓 內에서의 국군의 행동원칙

3,000만 민족의 숙망이며 우리 국군의 갈망하던 38°線 돌파문제는 해결되어 軍은 충천된 士氣와 더불어 일로 北으로 진격을 거듭하고 있는 此際, 軍의 北韓동포를 대할 시는 하기 원칙에 의하여 행동할 것이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은 차 원칙 여행에 있어서 부하장병에게 嚴格한 충고와 감시 감독을 할 것이며 만일 차 원칙의 위반사실을 발견한다든가 또는 조사한 결과 위반 사실이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즉시로 그 사실을 육군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記

가. 北韓의 民間人은 해방된 兄弟이지 敵은 아니다.

나. 장래 韓國국민이 될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私的 내지 公的 소유권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 국군은 北韓 민간인의 수호자이며 정복자는 아니다.

라. 국군은 모름지기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서 국민의 군대이며 국민을 탄압하는 군대가 아니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행동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마. 국군 전 장병은 민주주의의 使徒이라 전장병은 모름지기 훌륭한 행동의 實例와 친절심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은 공산주의 독재하의 경찰국가의 규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록 제44호

육본훈령 제87호 1950. 10. 13. 20.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軍은 平壤(YD 3720) 조속 점령에 대하여 全力을 다할 것을 지령한다.

제6사단의 가급적 속한 시일 내에 제1군단 지역경리를 위하여 동 지역을 통과할 도로와 차량사용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2군단장은 全力을 다하여 부대를 平壤에 도착시키라.

제6사단장에 대한 경과를 항시 육본에 보고하라.

부록 제45호

육본작전지시 제1호 1950. 10. 18. 02.00

서 울

육 군 본 부

指 示

육본훈령 제88호 행정사항을 하기와 여히 하달함.

記

1. 最初補給(자대 수송기관으로 수송)

a. 제 1 차편—제 1 종, 제 3 종, 제 5 종 보급품 6 일분

b. 제 2 차편—제 1 종, 제 3 종, 제 5 종 보급품 3 일분

c. 제 3 차편—제 1 종, 제 3 종, 제 5 종 보급품 2 일분

d. 제 4 차편—제 1 종, 제 3 종, 제 5 종 보급품 2 일분

2. 再補給

a. 최초에는 각종보급품 20일분을 LST 663으로 수송, 江陵, 도착 예정일 1950년 10월 23일

b. 그후로는 매 20일마다 혹은 청구에 의하여 수송

c. 부대는 인수희망일 10일 전에 종합청구서를 군수국장 경유, 육군총참모장에게 제출하라.

d. 부대는 LST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신속히 하물을 하선하고 동 선박을 요구, 港口로 급속히 귀환시킬 책임이 있다.

3. 後送

人員은 a. 大邱 제 1 육군병원까지 자대차량으로

b. 가능할 시엔 LST로 後送하라.

物資는 襄城 제10병참 重輕機中隊로 後送하라.

4. 勤務

兵器 제 9 重整備중대……서울

通信 통신수리대……서울

부록 제46호

육본작명 제220호 훈령 제 1 호 1950. 10. 22. 12.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一. a. 별지 정보투명도 참조

b. 華川에서 北上한 敵 약 1,500명은 金化를 거쳐 후 平康을 향하여 北上도주 중임. 金城, 昌道, 新高山부근 山谷에는 100~200명씩 야간을 이용하여 계속 北上, 谷山方面으로 향하고 있음.

二. 軍은 일부병력을 이동시켜 北上도주하는 敵을 저지 섬멸하려 함.

三. 1. 제17연대장은 예하 제 2 대대를 1950년 10월22일 20.00까지 제 3 대대를 1950년 10월 24일 17.00까지 각각 平康에 진출시켜 부근의 殘敵을 소탕하라.

2. 제 1 대대는 江陵, 襄陽, 杆城, 高城軸線을 따라 소수의 敵을 소탕 진출케 하라.

3. 제17연대장은 후 제 1 항에 지시한 작적을 소탕하면 즉시 연대본부 급 제 3 대대를 平康에, 제 1 대대를 金城에 제 2 대대를 昌道에 각각 배치하여 1950년 10월 26일 24.00까지 별지 루우트선상의

목적을 확보, 북상도주하는 잔적을 지저, 섬멸하라.

X. 제17연대는 우기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 1 군단 전투지경내에서 작전함을 허가한다.

四. 행정사항 변경없음

五. 통신사항

통신규정에 의거, 실시하라. 단 세부지시는 통신감실에서 수령하라.

부록 제47호

육본훈령 제89호 1950. 10. 27. 06.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1950년 10월 18일부 제 8 군사령부 작전계획 제13호부록 제 1 호상에 표시된 한국군 및 UN군 제 1 군단간 전투지경을 하기와 여히 연장함.

雲場里(YF 2505)까지 北向, 그곳으로 부터(YF 2014) 鴨綠江交切點까지 北向

별지 투명도 참조

명령 수령 후 즉시 필요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수령 확인을 회신하라.

부록 제48호

육본훈령 제90호 1950. 10. 27. 02.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韓滿 國境도달을 목첨에 둔 제 부대에게 하기와 여히 유의사항을 布達하니 각급 지휘관은 필히 예하 각 부대에 하달하여 軍 작전에 유감 없기를 기하라.

記

一. 여하한 부대나 차량을 막론하고 鴨綠江南方 제방을 越境치 못하며, 火戰을 행하지 못하며 또한 南方 제방 以北의 부대에 대하여 空中공격 요청을 못한다.

二. 韓國北端 국경선부근 부대행동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라. 新義州, 義州, 水豊洞, 滿浦鎭 江界發電所의 손상, 파괴, 瓦解등은 가능한 限하라.

三. 軍民何人을 막론하고 韓滿국경을 경유하여 韓國에 出入함을 엄금한다.

부록 제49호

육본훈령 제91호 1950. 10. 28. 20.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육본작명 제224호(1950. 10.23. 12.00)에 의거 美 제 1 군단장 지휘하에 入한 제 7 사단은 1950년 10월 28일 22.00부로 美 제 1 군단 배속을 해제하고 제 2 군단장 지휘 하로 원대복귀하라. 단 1개대대를 平壤에 이동시켜 美 보병 제 6 사단에 배속하라.

부록 제50호

육본작명 제220호 훈령 제 2 호 1950. 10. 28. 20.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육본작명 제220호 일부수정지시

1950년 10월 20일 영시부 육본작명 제220호를 하기와 여히 일부 수정한다.

記

一. 제 3 군단장은 예하 제35연대를 현재위치 馬山으로부터 金泉에 1950년 10월 31일 24.00까지 이동완료하라.

二. 제36연대 1개대대를 1950년 10월 29일 24.00까지 현재地 馬山으로부터 晋州에 이동시키라.

三. 제 3 군단장은 전기 병력 이동완료와 동시에 육본에 보고하라.

부록 제51호

육본훈령 제92호 1950. 10. 29. 10.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韓國軍 제 2 군단과 美 제10군단과의 진투지경을 하기와 여히 변경한다.

38도선 東海측으로부터 東經 128°~西北方으로 봉동里(東經 127° 5°~北緯 38° 58°)~北方으로 北緯 39도~西方으로 北緯 39° 線上 東經 126° 45° 까지

부록 제52호

육본훈령 제94호 1950. 10. 30. 12.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油類空罐(도람) 반납지연

유류공관(도람)을 후방으로 반납치 않은 고로, 그 不足이 극심하여 유류 필요량의 계속 보급상 지장이 막심함. 然而 금후는 귀환하는 LST수송대 철도편등을 이용하여 空罐반납에 철저를 기하라.

부록 제53호

육본훈령 제93호 1950. 10. 30. 23.00
육 군 본 부

訓 令

1950년 11월 1일을 기하여 북위 38도와 북위 38도간의 韓國海域에 대하여 실시 중인 선박운행제한을 해제한다. 但 하기사항에 유의하여 軍 작전에 유감없기를 기하라.

記

一. 해안선 東西지구에 있어서 漁業에 종사하는 선박은 야간에 있어서는 필히 點燈하여 운행하라.

二. 주둔지 軍 급 함대사령관은 작전상 필요한 海域에 있어서는 선박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부록 제54호

육본작명 제221호 훈령 제2호 1950. 10. 31. 08.00
서 울
육 군 본 부

육본작명 제221호 일부수정지연

一. 제8연대 제1대대를 즉시 美제1군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고 제2군단에 원대복귀한다. 부대이동에 관하여 美 제1군단과 제2군단과의 직접통신을 허가한다.

二. 제2군단—美 제1군단간 전투지경을 즉시 하기와 여히 변경한다. (부록 제2군단—美 제1군단 전투지경변경 참조) 현 전투지경선 YE 4627로부터 BV 5567에 있는 水準高標 1146으로 東北向 그곳으로부터 BA 4930 鴨綠江교차지점까지 北向함. 上九洞(YE 4423)은 美 제1군단에 속한다.

부록 제55호

육본작명 제228호 훈령 제 1 호　　1950. 11. 01. 12.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작명 제228호(1950년 10월 30일 08.00부) 수정

1950년 10월 30일 08.00부로 하달한 육본작명 제228호의 세부지시를 如下히 하달함.

記

一. 工兵부대는 38선 北南의 한국 제3군단관하의 도로교량을 수리, 유지, 건설 하고 부대시설을 건설 수리하며 지뢰 급 지뢰지대를 탐지, 제거하고 항공기 착륙시설을 함으로써 제3군단을 지원한다.

二. a. 國道건설단은(民間) 제3군단 공병부장 작업지휘 하에 둔다.

b. 국도건설단은(民間) 투명지와 圖線 또는 대쉬線으로 표시된 책임지역 내의 연락로를 유지하고 그 도로상의 교량수리 급 가설을 담당한다.

1. 國道건설단 제1대대는 京畿道와 江原道를 포함하는 제2사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국도건설단 제2대대는 慶尙南道를 포함하는 제5사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국도건설단 제3대대는 충청남북도 급 全羅北道를 포함하는 제11사단 급 제9사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단工兵은 담당지역 내의 부대시설을 정비하며 투명도의 점선으로 표시한 사단부대에 보급로를 수리, 유지하며 사단전방보급소를 정비, 운용하며 지뢰를 탐지 제거한다.

三. 제1001工兵창고중대분견대는 大田에서 군단보급소를 운용한다.

우거 파견대를 제외한 제 1001 工兵창고중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四. 1. 軍 전방보급소——서울

2. 軍團 전방보급소——大田

3. 師團 전방보급소

제2사단——大田

제5사단——永川

제9사단——大田

제11사단——光州

五. 國道건설단

a. 국도건설단 제1대대본부는 原州, 제2대대본부는 大邱, 제3대대본부는 大田에 둔다

부록 제56호

육본작명 제232호 훈령 제 1 호

1950. 11. 02. 08.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제17연대 배속변경지건

一. 육본작명 제232호에 의하여 제 2 군단에 배속하기로 된 제17연대의 배속을 해제하고, 육군본부 직할에비대로 변경함.

二. 기타사항은 육본작명 제232호에 의함.

三. 육군본부 진방지휘소는 주溪에 제함.

부록 제57호

육본훈령 제81호

1950. 10. 1. 08.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訓 令

一部兵力 代置之件

제 6 사단은 현재 橫城北方에 있으며, 1950년 10월 1일 오후 늦게 春川에 도착할 것으로 기대됨.

제 6 사단을 제 8 사단과 代置한다.

제 7 사단 및 제 8 사단의 進路는 다음

제 8 사단——東豆川

제 7 사단——抱川

부록 제58호

육본훈령 제82호

1950. 10. 3. 10.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訓 令

通信軸線 변경之件

작명제199호에 의해서 하달된 통신축선을 일부 변경하여 제 2 군단장은 하기 축선을 따라 급속히 진격하라.

제 2 군단사령부--春川(1070～1682)—華川(1068～1709)—金化(1043～1732)과 같다.

제 7 사단--原州—驪州—楊平—交叉點(1031～1641) 서울—議政府

제 8 사단—橫城—龍頭里--楊平—交叉點(1031～1641) 서울—議政府

부록 제59호

육본훈령 제85호　　1950. 10. 5. 16.00

慶北　大邱

육 군 본 부

訓　令

육본작명 제186호 정정

1950년 9월 19일부로 하달한 육본작명 제186호 제 3 항의 3 을 하기와 여히 정정 시달함.

記

1. 「제 3 훈련소장은 前記 2항 병력을 통합 지휘하라.」를 「제3훈련소장은 前記 병력을 통합지휘하라.」로 정정한다.

부록 제60호

육본훈령 제92호　　1950. 10. 29 10.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韓國軍 제 2 군단과 美 제10군단과의 전투지경을 下記와 여히 변경한다.

38°선 東海岸으로부터 東經 128°～西北方으로 봉동리(東經 127°5′～北緯 38°58′)～北方으로 北緯 39°～西方으로 北緯 39°線上 東經 126°95′ 까지

부록 제61호

육본훈령 제96호　　1950. 11. 7. 19.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一. 예하 각급지휘관은 전면적 총반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후방지원능력이 증가될 시까지 좌기 목적을 위한 국부적 공격을 즉시 실시하라.

a. 敵의 교란을 위할 것.

b. 작금 담당지구내와 진지강화를 위한 것.

c. 작을 계획지로 볼아 넣음으로써 밀접공중지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d. 주도권을 확보하여 人的·物的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

국부적 공격이외에 용감하고 적극적인 정찰을 실시하여 행상 접적을 유지하라.

인접부대는 정투능력 及 진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공격은 積的으로 협동하여 실시하며, 여시한 공격은 대개 11월 15일 경에 실시할 전면적 총공세 이전을 지향하는 공격으로서 실시한다.

부록 제62호

육군훈령 제97호 1950. 11. 8. 07.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 軍은 전투지경의 일부를 수정한다.

. 제2군단장은 별지 투명도에 의거하여 전투지경을 변경하여 작전수행에 만유감 없기를 기할 사.

. 此 명령은 수령즉시로 발효한다.

부록 제63호

육본훈령 제100호 1950. 11. 13. 11.00

서 울

육 군 본 부

訓 令

. 軍用차량 사용之件

군간 軍 原生사업을 위하여 작전업무 수행상에도 부족한 군용차량을 이용하여 군 임무수행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군의 신망을 저하시킨 우려가 불소하니 금후 여하한 이유를 막론하고 此를 엄금하니 각급 지휘관은 철저히 단속하라.

. 通信취급에 관한건

1950년 9월 29일부 電文 0030號에 의한 제定사용지건은 1950년 11월 13일부로 此를 취소하고 행정사무 통신이외 작전, 정보, 병력보고등 軍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암호문을 사용하여 방첩에 만전을 기하라.

3. 戰 歿 者 名 單

<육 군>

首都師團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준 장	10111	李 尙 根	50.9.25	靑松道坪里	전 사
〃	중 령	10659	崔 貞 鐸	〃	〃	〃
제1연대	〃	12181	崔 春 三	50.9.18	安 康	〃
〃	대 위	13719	林 義 雄	50.9.18	〃	〃
〃	중 위	200479	元 允 成	50.11.25	淸 津	〃
〃	〃	201339	李 鉉 龍	50.9.19	安 康	〃
〃	〃	203379	孔 連 根	50.11.30	淸津北方	〃
〃	〃	203404	金 一 男	50.11.29	淸 安	〃
제18연대	소 령	12914	李 海 石	50.9.20	元 山	〃
〃	〃	14084	趙 南 八	50.10.14	永 興	〃
〃	〃	11212	金 龍 經	50.9.15	安 康	〃
〃	〃	14620	金 東 基	50.9.30		〃
〃	〃	16076	權 泰 興	50.10.20		〃
〃	중 위	15537	李 祥 鉉	50.9.16	永 川	〃
〃	〃	200454	吳 世 忠	50.10.14	新 興	〃
〃	〃	201406	宋 埈 世	50.9.16	安 康	〃
〃	〃	203400	李 龍 石	50.11.27	淸 津	〃
기갑연대	〃	203857	宋 雙 奎	50.11.14	吉 州	〃
〃	〃	202254	李 昌 雨	50.9.27		실 종
〃	〃	202349	朴 俊 浩	50.11.4	吉 州	전 사
〃	대 위	202376	朴 昌 淳	50.9.29		실 종
〃	중 위	202411	禹 寅 建	50.9.30	安 康	전 사
사단본부	소 령	12459	姜 漑 熙	50.11.12	於 論	〃
〃	대 위	13536	劉 甫 鍾	50.9.20	安 康	〃
〃	〃	203368	沈 周 燮	50.10.4		〃
〃	〃	203371	李 正 富	50.10.15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대 위	203378	元 奎 成	50. 11. 2		전 사
〃	〃	200496	林 馨 玉	50. 11. 16	咸北 永興	〃
사단본부	중 위	200500	吳 琴 平	50. 9. 20	良 洞	〃
〃	〃	200815	尹 在 重	50. 9. 20	〃	〃
공병대대	대 위	13251	嚴 順 龍	50. 10. 4		〃
〃	중 위	17085	李 載 民	50. 11. 5	安 邊	〃

第1師團

사단본부	중 위	15667	金 仁 瑩	50. 9. 20		전 사
〃	〃	16564	朴 哲 模	50. 10. 4	尙 州	〃
〃	〃	200699	金 熙 停	50. 9. 19	達 成	〃
제11연대	소 령	10900	李 肯 夏	50. 10. 1	忠北 영원	〃
〃	대 위	13921	張 富 吉	50. 9. 29		〃
〃	중 위	15833	任 寅 奎	50. 9. 18	三 臣 里	〃
〃	〃	200634	李 鍾 石	50. 9. 19	海 平	〃
제12연대	대 위	14262	李 忠 植	50. 10. 23	平北 安州	〃
〃	〃	14413	吳 濟 尙	50. 10. 13	市 邊 里	〃
〃	중 위	15189	申 晃 均	50. 9. 20		〃
〃	대 위	15609	車 南 松	50. 10. 10		〃
〃	중 위	200308	卞 遠 吉	50. 9. 21	孝 令	〃
〃	〃	200660	鄭 眞 申	50. 9. 20		〃
〃	〃	200661	李 邦 鎔	50. 9. 20	錦 山	〃
〃	〃	200679	朴 昌 根	50. 10. 20	東 平 壤	〃
〃	〃	201344	河 綱 模	50. 9. 22		〃
〃	〃	201660	李 達 石	50. 10. 24	寧 邊	〃

第3師團

사단본부	중 령	12165	朴 良 根	50. 10. 16	元 山	전 사
〃	소 령	11025	鄭 再 鉉	50. 11. 6		순 직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소 령	11087	金 允 鎬	50. 9.15	迎 日	전 사
〃	중 위	200213	張 丰 錫	50. 9.20	浦 項	〃
〃	〃	201366	金 成 煥	50. 9.19	迎 日	〃
〃	〃	203627	任 憲 亮	50. 9.20		〃
제22연대	소 령	10675	崔 就 聖	50.10. 5		〃
〃	대 위	15545	李 甫 大	50.11. 6	元 山	〃
〃	중 위	201433	李 光 順	50. 9.19	迎 日	〃
〃	〃	202284	朴 文 雨	50. 9.20	浦 項	〃
〃	〃	202298	朴 貴 溫	50. 9.20		〃
〃	〃	203655	千 又 祥	50.10.		불 명
〃	〃	203670	朴 炯 和	50.10.25		〃
제23연대	소 령	12879	崔 延 植	50. 9.21	浦 項	전 사
〃	대 위	14411	金 在 潭	50.10.18	元 山	〃
〃	〃	14537	文 晉 龍	50.10. 8	慈 山	〃
〃	〃	14722	白 浩 鉉	50.11.13		〃
〃	〃	14978	崔 雲 善	50.10.27	龍山面麻田里	〃
〃	중 위	15332	文 晉 益	50.10.27		전 사
〃	〃	202241	李 漢 永	50.10.23	金剛溫井里	〃
〃	〃	202242	張 項	50.10.23		실 종
〃	〃	202265	閔 丙 國	50. 9.20	浦 項	전 사
제26연대	〃	201370	李 世 云	50. 9.23		〃
〃	〃	202399	周 德 鍋	50.10.16	江 東	〃
〃	〃	203734	白 玉 善	50. 9.28		〃

第 6 師團

사단본부	중 위	16641	洪 性 穆	50.10.26	楚 山	전 사
〃	〃	200165	李 漢 馥	50. 9.22	龍 岩 里	〃
〃	〃	200590	黃 炳 昌	50.10.25		〃
〃	〃	200596	盧 炳 國	50. 9.22	鳥 林 山	〃
〃	〃	200785	李 長 遠	50.10.26	楚 山	〃
〃	소 위	203599	崔 吉 通	50.10.22		불 명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소 위	204103	朴 凡 七	50. 10. 10		실 종
〃	〃	204106	黃 永 俊	〃		〃
〃	〃	204108	黃 仁 生	50. 10. 10		〃
〃	〃	204109	朴 熙 俊	〃		〃
〃	〃	204110	魯 炳 國	〃		〃
제2연대	대 위	14175	朴 培 燮	50. 10. 26		〃
〃	〃	15613	李 基 順	50. 10. 11	華 川	〃
〃	중 위	16798	權 秉 斗	50. 9. 20	慶北花本洞	〃
〃	〃	17595	閔 炳 昌	50. 10. 25	平北溫井里	〃
〃	〃	201367	趙 淵 昊	50. 9. 22		〃
〃	소 위	201400	安 開 天	50. 10. 26		〃
〃	〃	203108	金 在 植	50. 10. 26		실 종
〃	중 위	203823	趙 潤 相	50. 10. 25	溫 井 里	〃
〃	〃	203824	金 鍾 允	50. 10. 5	〃	〃
〃	〃	205169	鄭 遇 鉉	50. 10. 17	价 川	〃
제7연대	대 령	10235	崔 泳 洙	50. 10. 30		〃
〃	중 령	10720	金 東 明	50. 10. 11	華川 九萬里	전 사
〃	〃	10920	趙 倫 濟	50. 10. 30		〃
〃	〃	10962	趙 漢 燮	50. 10. 29		〃
〃	〃	10981	趙 顯 默	50. 10. 29		〃
〃	소 령	12224	李 永 福	50. 10. 26		〃
〃	대 위	13474	李 鍾 倫	50. 10. 22		전 사
〃	소 위	200717	尹 鍾 連	50. 10. 26	楚 山	〃
〃	〃	200787	李 守 海	〃	〃	〃
〃	〃	200797	林 英 喆	〃	〃	〃
〃	중 위	200805	孫 普 鉉	50. 10. 22		〃
〃	〃	200792	崔 鐵 愚	50. 10. 30		〃
〃	대 위	201004	金 永 權	50. 10. 26	楚 山	〃
제19연대	준 장	10131	朴 璣 赫	50. 10. 29	妙 香 山	〃
〃	대 위	14443	金 澤 洙	50. 9. 27	店 村	〃
〃	〃	15835	李 浚 鍾	50. 10. 5	加 平	〃
〃	중 위	201584	朴 鍾 協	50. 10. 15	開 慶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제19연대	중 위	201743	金 英 培	50. 9. 29	開 慶	전 사
〃	〃	201747	鄭 珍 錫	50. 9. 20	永 川	〃
〃	소 위	203607	金 月 出	50. 10. 26	溫 井	실 종

第 7 師團

사단본부	대 령	10213	張 周 煥	50. 10. 15		전 사
〃	〃	10625	朴 廷 鎬	50. 10. 27	德 川	〃
〃	중 령	10681	朴 容 斗	50. 10. 19	平 壤	〃
〃	대 위	13244	金 萬 元	50. 10. 2	陰 城	〃
제 3 연대	소 령	12063	金 炯 天	50. 9. 22	慶 州	〃
〃	〃	14555	李 仁 植	50. 9. 20		〃
〃	중 위	200843	金 漢 珍	50. 9. 15	安 康	〃
〃	〃	200847	權 鍾 永	50. 10. 9	38 線	〃
〃	〃	201386	高 永 俊	50. 9. 16		〃
〃	〃	201848	尹 弼 榮	50. 9. 17	永 川	〃
〃	〃	201880	李 泰 雲	50. 9. 18	扶 助 里	〃
〃	〃	201894	吉 榮 一	50. 9. 18	慶 州	〃
〃	〃	201897	尹 基 燮	50. 10. 9	抱 川	〃
〃	〃	201916	權 郁 峯	50. 9. 18		〃
〃	〃	201926	李 浩 健	50. 9. 16	慶南 江東	〃
〃	〃	201948	李 殷 晶	50. 10. 9	永 川	〃
〃	〃	201978	李 昌 我	50. 9. 25		〃
〃	〃	201979	金 基 弘	50. 9. 25		〃
〃	〃	202436	李 泰 雲	50. 9. 18	慶 州	〃
〃	〃	202449	李 昭 連	50. 9. 16	〃	〃
제 8 연대	소 령	12221	李 成 熙	50. 9. 17	〃	〃
〃	〃	15790	桂 應 俊	50. 9. 20	〃	〃
〃	중 위	202051	梁 海 成	50. 10. 5	迎 日	〃

第 8 師團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중 령	10790	文 致 善	50. 9.25		전 사
〃	소 령	11084	張 炳 善	50. 9.24	原 州	〃
〃	〃	11220	元 善 慶	50. 9.20		〃
〃	중 위	16662	梁 厚 烈	50.10. 9	平北 泰平	〃
〃	〃	200112	金 起 錫	50. 9.15	永 川	〃
〃	소 위	203502	徐 達 順	50. 9.25	義 城	〃
제10연대	중 령	10857	康 奎 鎔	50.10.29	平北 泰平	〃
〃	대 위	13974	吳 鍾 煥	50.10. 5		〃
제16연대	소 령	10892	裵 錫 錫	50.10.11	江原 福溪	〃
〃	중 위	200260	金 秉 成	50. 9.21		〃
〃	〃	200580	廉 萬 錫	50.10. 6	鐵 原	〃
제21연대	〃	16434	丁 發 憲	50.10.19		〃

其他部隊

독립포병 1 대대	대 위	14576	朴 炳 湖	50. 9.20	盈 德	전 사
헌병사령부	소 령	14590	崔 鳳 燻	50.11.11		〃
62통신대대	중 위	15140	金 鍾 浩	50.11.23		순 직
육군종합학교	〃	16864	洪 明 集	50.10. 5		전 사
〃	〃	16870	梁 漢 根	〃		〃
〃	〃	16873	李 圭 白	〃		〃
〃	〃	16874	張 萬 根	〃		〃
〃	〃	16878	金 東 元	〃		〃
〃	〃	16954	黃 義 洵	〃		〃
육군병참단	〃	17081	鄭 門 九	〃		〃
제 2 군단	〃	201649	金 賢 鐵	50. 9.28		〃
제17연대	〃	202328	李 炯 禹	50. 9.22	서 울	〃
〃	〃	202346	金 炯 德	50. 9.29	〃	〃
〃	〃	202400	姜 得 龍	50.11.24		〃
동해안사령부	소 위	204212	金 泰 龍	50.10.15		〃
〃	〃	204220	李 學 基	50.10.15		사 망

<공 군>

—장 교—

계 급	성 명	전사일자	비 고
소 위	朴 支 椅	50. 10. 1	平壤上空에서 被彈
〃	田 龜 碧	50. 10. 9	平壤上空에서 被彈
소 령	李 粕 垂	50. 10. 13	平壤上空에서 被彈
소 장	朴 範 集	50. 11. 20	咸興上空에서 被彈
대 령	徐 漢 浩	〃	上同

—사 병—

이 병	李 秉 綠	50. 11. 10	戰 死	
이 병	崔 瑄 洙	50. 11. 11	〃	
일 병	金 聖 振	50. 11. 15	〃	

<해 군>

—장 교—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구 분	비 고
516 정	중 위	80723	洪 淳 澈	50. 10. 18	전 사	기 뢰 접 촉
통제부	소 위	80844	李 景 萬	50. 10. 12	〃	진 무 중

—사 병—

704 함	3등병조	3112731	朴 鶴 來	50. 9. 25	전 사	統 營
통제부	1등수병	5101110	金 順 道	〃	〃	〃
509 정	병 조 장	8101173	崔 仁 根	50. 9. 26	〃	江 口 近 海
〃	〃	8101720	朴 希 道	〃	〃	〃
〃	〃	8101987	梁 容 秀	〃	〃	〃
〃	〃	8102517	李 今 萬	〃	〃	〃
〃	1등병조	8101952	林 四 村	〃	〃	〃
〃	〃	8102075	金 學 伊	〃	〃	〃
〃	〃	8103156	裵 鏞 達	〃	〃	〃
〃	〃	8103513	鄭 水 鉉	〃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구 분	비 고
〃	2등병조	8104483	李 碧 發	50. 9.26	전 사	江 口 近 海
〃	〃	8104404	李 在 源	〃	〃	〃
〃	〃	8101333	崔 相 翰	〃	〃	〃
〃	3등병조		崔 玉 濤	〃	〃	〃
〃	〃		金 昌 玉	〃	〃	〃
〃	〃	8104621	朴 喜 完	〃	〃	〃
〃	〃	8111984	高 在 徹	〃	〃	〃
〃	〃	8112146	黃 殷 周	〃	〃	〃
516 정	〃	8111921	金 順 會	〃	〃	〃
〃	〃	8112634	柳 東 洙	〃	〃	〃
〃	〃	8112969	李 奇 衡	〃	〃	〃
〃	〃	8112159	朴 賢 文	〃	〃	〃
509 정	〃	8104652	安 相 殷	〃	〃	〃
〃	〃	8104898	李 德 萬	〃	〃	〃
〃	〃	8111438	金 高 志	〃	〃	〃
〃	〃	8112042	車 元 主	〃	〃	〃
516 정	1등수병	5100562	金 孝 燮	〃	〃	〃
509 정	〃	5100173	徐 昌 錫	〃	〃	〃
〃	〃	5100309	朴 商 伯	〃	〃	〃
〃	〃	5100192	鄭 秉 殷	50. 9.26	〃	〃
〃	〃	5100328	閔 丙 健	〃	〃	〃
〃	〃	5100231	安 致 雲	〃	〃	〃
제주기지	3등병조	8112405	李 鍾 春	50. 9.28	〃	統 營 地 區
〃	2등수병	5100838	金 在 學	50.10. 2	〃	墨 湖 地 區
〃	〃	5100818	李 洙 根	〃	〃	〃
〃	〃	5100826	鄭 炳 九	〃	〃	〃
309 정	3등병조	8104119	李 鐘 宰	50.10. 8	〃	
301 정	1등병조	8103068	金 德 龍	50.10.10	〃	珍 島 近 海
〃	〃	8162681	朴 重 鎬	50.10.11	〃	鹽 岩 山
해군본부	2등수병	8100827	申 吉 男	50.10.12	〃	墨 湖 近 海
〃	〃	5100812	鄭 吉 萬	〃	〃	〃
통계부	2등병조	5100178	金 有 福	50.10.13	〃	高 興 半 島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구 분	비 고
〃	〃	8113020	鄭 鐘 寬	50. 10. 16	전 사	珍 島 近 海
516 정	3등병조	8102883	金 聖 萬	50. 10. 18	〃	元 山 近 海
〃	〃	8102000	曹 相 完	〃	〃	〃
〃	〃	8103613	金 俊 植	〃	〃	〃
〃	〃	8101915	鄭 斗 燮	〃	〃	〃
〃	〃	8103292	姜 信 文	〃	〃	〃
〃	〃	8103508	徐 相 峰	〃	〃	〃
516 정	3등병조	8105412	朴 貴 根	50. 10. 18	〃	〃
해군본부	〃	8103936	徐 福 吉	〃	〃	〃
통제부	1등수병	8103922	金 榮 宇	50. 10. 20	〃	珍 島 近 海
〃	2등병조	8111400	崔 祥 吉	50. 10. 21	〃	順 天 地 區
〃	1등병조	8104198	尹 學 龍	50. 11. 3	〃	〃
〃	병 조 장	8101319	韓 龍 萬	50. 11. 5	〃	鎭 海 — 馬 山
〃	1등병조	8111219	朴 天 浩	50. 11. 16	〃	順 天 地 區
〃	3등병조	8111451	鄭 在 榮	50. 11. 16	〃	〃
〃	2등수병	8501636	姜 守 奉	50. 11. 25	〃	元 山 近 海

<해병대>

—장 교—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비 고
제3대대	중 위	80807	沈 憲 澤	50. 11. 12	전 사
〃	〃	80809	孔 文 澤	50. 11. 23	〃

—사 병—

제3대대	1등수병	9201680	秦 文 漢	50. 10. 9	전 사
	〃	9201426	梁 直 生	50. 10. 13	〃
	〃	9200360	吳 相 鎬	50. 10. 18	〃
	2등수병	9201866	朴 斗 赫	50. 10. 25	〃
제3대대	1등수병	9201013	夫 潤 洋	50. 11. 3	〃
	2등수병	9202531	昔 淳 哲	50. 11. 4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 사 일 자	비 고
	〃	9202590	鄭 漢 川	50. 11. 7	전 사
	1등 수 병	9201162	韓 成 燮	50. 11. 10	〃
	〃	9201433	金 平 川	50. 11. 13	〃
제 3 대대	2등 병 조	9100038	金 來 成	50. 11. 20	전 사
〃	〃	8100180	李 昌 煥	〃	〃
사 령 부	3등 병 조	9202499	朴 鶴 洙	〃	〃
제 3 대대	〃	9100210	金 鐘 得	〃	〃
	2등 수 병	9202649	趙 甲 根	50. 11. 22	〃
제 1 대대	병 조 장	9103351	丁 鎭 福	50. 11. 23	〃
제 3 대대	1등 수 병	9201099	朴 太 熙	50. 11. 23	〃
	2등 수 병	9201163	韓 奎 澤	〃	〃
	1등 수 병	9200792	金 琫 澤	50. 11. 24	〃
	〃	9200995	李 君 玹	50. 11. 26	〃
	〃	9200950	金 基 洪	50. 11. 27	〃
제 3 대대	〃	9200967	李 太 熙	〃	〃
〃	〃	9200246	姜 尙 哲	〃	〃
〃	〃	9200210	任 泰 逸	〃	〃
〃	〃	9200631	洪 敏 泰	〃	〃
〃	〃	9201511	高 如 恒	50. 11. 29	〃

4. 參 考 文 獻

國防部編	韓國戰爭史 第一卷	戰史編纂委員會	1967
國防部編	韓國戰爭史 第二卷	戰史編纂委員會	1968
國防部編	韓國戰爭史 第三卷	戰史編纂委員會	1970
國防部編	韓國戰亂一年誌	政訓局	1951
陸軍本部編	六二五事變 陸軍戰史 第四卷	軍史監室	1956
陸軍本部編	UN 軍戰史 第1卷	軍史處	1963
陸軍本部編	戰史 第60輯	軍史處	1965
陸軍士官學校編	韓國戰爭史		1964
陸軍本部編	北傀 六·二五南侵分析	情報參謀部	1971
憲兵司令部編	韓國憲兵史	大建出版社	1952
陸軍砲兵學校編	포병의 발자취	陸軍砲兵學校	1963
第一師團編	전진약사	政訓參謀部	1966
海軍本部編	大韓民國 海軍史(作戰編)	編纂官室	1954
海軍本部篇	大韓民國 海軍史(行政編)	政訓監室	1958
海軍本部編	作戰經過報告書 第1, 第2卷	作戰參謀副長室	1954
空軍本部編	空軍史 第1卷	政訓監室	1961
空軍本部編	空軍發展略史	政訓監室	1954
空軍本部編	날개의 聖地	政訓監室	1956
空軍本部編	空軍作命起案綴(記錄文書) 戰鬪要報	作戰局	1950
空軍本部編	出戰記(記錄文書)	戰史編纂官室	1950
海兵隊司令部編	海兵戰鬪史 第一輯(增補版)	政訓監室	1962
內務部治安局編	警察 10年史	治安局	1958
內務部編	內務部 行政治績史		
內務部治安局編	民族의 先鋒	大韓警察戰史發刊會	1951
文濟安 著	南北三千里		1956
朴啓馬 著	自由共和國 最後의 날		1955
李基錫 譯	맥아더 回顧錄	新太陽社	1964
趙炳玉 著	나의 回顧錄	語文閣	1963
內務部, 趙炳玉共著	韓國의 動亂	兵學研究社	1950
崔用德 著	하늘의 開拓者	空軍本部	1956

김용호 譯	韓國動亂史(Robert T. Olives; Verdict in Korea)	1960
國防部 譯	制限戰爭 政訓局	1958
韓國問題研究所編	動亂의 眞相	1950
公報室編	6.25動亂 參戰勇士의 手記	
陸戰史研究普及會編	朝鮮戰爭 4 原書房 日本 東京	1969
陸戰史研究普及會編	朝鮮戰爭 5 原書房 日本 東京	1970
中村好壽 譯	朝鮮戰爭と 戰略論爭 原書房 日本 東京	1970
神谷不二 著	朝鮮戰爭 中央公論社 日本 東京	1966
朝鮮民族研究會編	朝鮮戰爭史 ミリア評論社 日本 東京	1967
北傀科學院歷史研究所編	朝鮮人民の正義の 祖國解放戰爭史 外國文出版社 平壤	1961

Roy E. Appleman; **South to Naktong North to the Yalu.** D/A Washington. 1962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 in Korea.** Washington 1962

USAF Historical Division;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56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61

Hess; **Battle hymn**

Lynn Wontrooss and Nicholas A. Canzona; **U.S. Marine Operation in Korea.** HQ USMC Washington. 1955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1952

Aron whitehouse; **Amphibious Operations** 1963 New York. 1963

기타 我軍 各軍 各級部隊 戰鬪詳報. 部隊歷史資料報告書, 略史, 部隊歷史資料綴.
戰鬪要報, 軍團史 및 當委員會 所藏 面談史料綴多數

5. 年 表

연월일	중 요 사 항	연월일	중 요 사 항
1950년	**軍 事**		○ 首都師團, 安康점령.
9월16일	○ 韓國軍 및 UN軍, 洛東江戰線에서 09.00를 기하여 총반격 시작.		○ 제3사단, 兄山江渡河.
	○ 맥元帥 敵軍에게 「항복이냐, 죽엄이냐?」의 傳單 300만매 살포.		○ 美 제2사단, 洛東江을 渡河하여 陜川向發.
	○ 제1사단, 槐山一角 突入.		○ 中共, 4~6萬兵力 및 戰車, 비행기를 北韓에 수송설(台灣發).
	○ 永川警察署, 石鏡面倉土里에서 敵 제15사단 패잔병 격멸.		**政 治**
	○ B-29 80대, 元山港爆撃.		○ 행정복구를 위한 各 道知事 및 경찰국장 회의.
	○ 서울—仁川地區에서 敵兵滿載트럭 280대 중 230대 격파		○ 국회에서 私刑禁止法 가결.
	政 治		○ 北傀 폴란드 駐在大使에 崔一.
	○ 仁川市政 정상복구.		○ 北傀 蒙古 駐在大使에 金龍進.
	○ 慶南지구 계엄사령부 업무중지.		○ 蘇聯는 UN軍 4만 이상이 仁川에 上陸하였다고 비로소 방송
	○ 향토방위령중 개정법률 제158호 공포.	9월19일	**軍 事**
	○ 국무회의 임시계급에 관한 대통령령 제384호 공포.		○ 美 제5연대전투단, 倭館탈환.
	○ 美 國務次官補 러스크, 北韓에 外國 介入 경고방송.		○ 比律賓 제10대대전투단 釜山上陸.
9월17일	**軍 事**		○ 金浦비행장 使用始作.
	○ 美 제25사단, 固城奪還.		**政 治**
	○ 美 戰鬪機, 美 제2사단地域에서 敵 1,500명 살상.		○ 釜山驛前에서 首都突入祝賀式 거행.
	政 治		○ 李大統領, 國軍은 韓滿국경까지 진격할 것이라고 仁川上陸祝賀會에서 연설.
	○ 美 국무장관 에치슨, 극동대표들과 38°線 돌파문제에 관하여 비밀협의.		○ UN 總會 開會
9월18일	**軍 事**	9월20일	**軍 事**
	○ 제1사단, 多富洞-軍威 敵退路 遮斷		○ 제3사단, 新項탈환.
			○ UN空軍, 延 700台出撃으로 作戰以來 新記錄.
			○ 敗走하는 敵, 大邱北方 新濃幕 우물

월 일	중 요 사 항
	에 毒藥撒布.
	○ 中共軍, 北韓에 進入(松江放送).
	政 治
	○ 林炳稷外務長官 워싱턴도착, 韓國재건 원조요청.
	○ 美 대통령, 38°線 진격문제에 대하여 美國은 UN의 결정에 복종할 뿐이라 언명.
	○ 마살국방장관, 中共軍一部 越境入韓說을 언명.
9월21일	軍 事
	○ 美 제1기병사단, 제1사단의 敵 包圍로 多富洞탈환.
	○ 제6사단, 義興탈환.
	○ 수도사단, 杞溪탈환.
	○ 노획한 T-34전차 속에서 戰鬪日記와 戰車操典발견으로 7월 중순 蘇聯으로부터 輸送된 것이 分明해짐.
	政 治
	○ 共產黨員, 서울에서 北으로 도주.
	○ 漢江橋 폭파책임자 崔昌植대령 총살 형집행.
	○ UN총회에서 소련대표 Vishinsky, 38°線을 停戰내용으로 하는 소위 평화선언 제안.
9월22일	軍 事
	○ 美 제1기병사단의 777特殊任務部隊 多富洞 西쪽에서 追擊을 시작.
	○ 제3사단, 興海탈환.
	○ 제8사단, 九山洞(永川北方 35km) 탈환.
	○ 제6사단, 軍威탈환.
	○ 陸軍本部, 大邱로 전진.
	○ 榮川警察署, 浮石寺일대의 敵 패잔병 격퇴(~10, 22).
	○ 泰國, 派韓 混成 제21연대 창설규정 공포.
	○ 今日의 戰果, 敵 사살 5,420명, 포로 452명.
	○ 開戰以來 美軍 損失 전사 2,441명 전상 11,050명, 실종 3,959명.
	政 治
	○ 義城·軍威·靑松·榮谷 警察署 復舊.
	○ 美 트루만대통령, 38°以北의 선거여부는 UN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표명.
	○ 美 긴급국방비안 上院 통과.
9월23일	軍 事
	○ 美 제1기병사단, 尙州突入.
	○ 제7사단, 烏山突入.
	○ 수도사단, 道峴洞탈환.
	○ 金日成, 北傀軍에 後退命令.
	政 治
	○ Swiss 야전병원 釜山에서 업무개시.
	○ 慶南지구 계엄사령부 복구, 사령관에 金宗元 대령.
	○ UN총회, 침략저지를 위해 UN軍을 조직하라는 美國側案을 가결.
9월24일	軍 事
	○ 美 제1기병사단, 龍宮突入.
	○ 제8사단, 義城탈환.
	○ 美 제2사단, 陜川突入.
	○ 美 제25사단, 晋州탈환.
	○ 奉化警察署, 奉陽面文珠山의 敵 패잔병 격멸.

월 일	중 요 사 항
	○ 터키, 派韓軍 乘船시작.
	政 治
	○ 仁川에 정부의 임시연락처 개설.
	○ 仁川에 韓國銀行 開店.
9월25일	軍 事
	○ 수도사단, 靑松탈환.
	○ 제6사단, 咸昌돌입.
	○ 제1사단, 善山진출.
	○ 美 제24사단, 金泉탈환.
	○ UN軍 艦載機, 서울地域의 敵을 集中攻擊.
	○ 極東空軍, 延 728대 出擊으로 24시간 공격의 最高記錄.
	○ 경찰 비상경비총사령부, 先發隊, 釜山에서 船便으로 仁川向發.
	○ 터키 派韓軍 先陣, 本國 出發.
	政 治
	○ 釜山지구에서 戰前量의 綿物生産.
	○ 慶南지구 병사구사령부 신설에 대하여 사령관 張錫倫대령이 일반의 협력 요망.
	○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제146호 공포.
	○ 中共당국 北平주재 印度대사에게 "中共은 美軍이 38°線을 돌파하는 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언명.
9월26일	軍 事
	○ 美 제1기병사단 777特殊任務部隊 先頭, 22, 26에 烏山北方에서 東仁地方으로부터 南進한 美 제7사단 제31연대와 握手.
	○ 제8사단, 安東돌입.

월 일	중 요 사 항
	○ 美 제24사단, 永同탈환.
	○ 제1사단, 尙州진출.
	○ 美 제2사단, 昌昌, 安義탈환.
	○ 美 驅逐艦 Bursh號, 東海의 城津近海에서 敵의 機雷에 接觸되어 13명 戰死, 34명이 부상.
	○ 聞慶警察署, 俗離山·烏嶺일대의 공비 격멸 尙州警察署, 俗離山지구의 敵 패잔병 격멸(~10. 26).
	政 治
	○ 美 政府, UN사무총장에게 UN空軍의 瀋陽 폭격에 관해 보고.
	○ 英 政府, "38°線을 이 기회에 돌파하지 않으면 UN관리하의 全韓國의 선거나 통일韓國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표명.
	○ 38°線 越北進擊에 대한 美 태도 결정.
9월27일	軍 事
	○ 美 제1기병사단 777부대 主力, 烏山北方도달, 追擊完了.
	○ 제3사단, 蔚珍탈환.
	○ 수도사단, 春陽탈환.
	○ 제6사단, 聞慶탈환.
	○ 美 제24사단, 沃川탈환.
	○ 제1사단, 報恩진출.
	○ 韓國 海軍, 三千浦탈환.
	○ 仁川上陸以來 敵死傷 25,000명以上, 포로 2,000명.
	政 治
	○ 行政要員, 서울로 속속 복귀.
	○ UN총회 카나다 대표의 韓國問題해

월 일	중 요 사 항
	결안의 제출을 비롯하여 韓國問題討議 환발.
	○ 林炳稷 장관, 韓國統一강조.
9월28일	**軍 事**
	○ 美 제24사단, 大田突入
	○ 수도사단, 麥越점령.
	○ 제 8 사단, 榮州탈환.
	○ 제 6 사단, 忠州탈환.
	○ 美 제 2 사단, 全州탈환.
	○ 美 제25사단, 南原탈환.
	○ 濠洲軍(1개 대대), 釜山도착하여 大邱로 移動.
	○ 韓國海軍 YMS 509정, 東海(厚浦東쪽 4,8 mile)에서 敵의 機雷에 접촉되어 침몰.
	○ 이날의 로프 1,645명으로 開戰以來 포로 11,327명.
	政 治
	○ 金日成, 傀儡軍에게 38°線 이북 철퇴명령설(AFP. 29).
	○ 北傀, 中共을 통하여 北京駐在 印度大使에게 停戰條件 제출설(UP. 28).
	○ UN은 38°線 以北 진격권한을 맥元帥에게 묵인할것(UN 소식통).
	○ 李대통령과 中國의 蔣총통, 맥元帥에게 서울 탈환 축하 메시지.
9월29일	**軍 事**
	○ 제 3 사단, 三陟탈환.
	○ 수도사단, 38°線 南쪽 2km의 西林里에 집결.
	○ 제 8 사단, 丹陽탈환.
	○ 제 1 사단, 報恩, 永院일대에서 小白山脈을 利用하여 北上後退하려는 敵擊滅戰을 시작.
	○ 美 제25사단, 江景탈환.
	○ 全北警察局 先發隊, 美 제25사단과 협동으로 全州收復.
	○ 韓國海軍, 麗水탈환.
	○ 比律賓軍, 牟山으로 이동하여 牟山一群北, 洌川一帶의 敵 遊擊隊擊滅.
	政 治
	○ 政府, 서울로 還都.
	○ 서울 收復式을 中央廳에서 거행.
	○ 서울市廳舍에서 政府業務 開始.
	○ 38°線 越擊與否權限 맥 元帥에 부여(8개국이 UN에 제안).
	○ 印度수상, 中共에 대하여 韓國문제 평화해결을 요망.
	○ 38°線 돌파를 英國外相이 주장.
9월일30	**軍 事**
	○ 제 3 사단, 江陵탈환코 38°線 2km 南方 仁邱里에 진출.
	○ Walker 중장, 38°線 突破命令.
	○ MacArhur 元帥, 敵에게 降服을 勸告.
	○ 제 6 사단, 原州탈환.
	○ 美 제 2 사단, 江景—錦江진출
	○ 美 제25사단, 群山탈환.
	○ 忠南警察局 收復.
	○ 各道警察局으로부터 非常警備總司令部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9.30~12.30 全國 各地에 散在한 敵 殘存兵 및 共匪는 완전무장병력 56,432명에 비무장 4,000여명.

월 일	중 요 사 항
	政 治
	○ 오스틴 美代表, UN政委에 38°線 폐지를 주장.
	○ 蘇代表, 北傀代表를 UN政委에 초청하자고 제안, 격론 끝에 無結論.
	○ 韓國代表 UN 초청안, 50 : 5로 가결.
	○ 北傀代表 UN 총회출석안, 46 : 6(기권7)로 부결.
10월 1일	軍 事
	○ 제3사단, 수도사단, 38°線突破
	○ 제6사단, 洪川탈환.
	○ 제8사단, 楊平진출.
	○ 2,000餘名의 敵, 原州來襲으로 千餘市民과 5名의 美軍將校등 死傷.
	○ 慶州警察署 特攻隊, 西面道里에서, 敵 폐잔병 격퇴.
	○ 서울特別市·京畿·忠北·全北道등 警察局과 鐵道警察本隊 收復.
	○ 1日間 敵 死傷 1,154名, 捕虜 6,765名.
	政 治
	○ 丁一權 계엄사령관, 국가재산조치에 관하여 布告 발표.
	○ 北韓 28都市에 항복요구 삐라 300만장 살포.
	○ 서울중앙방송국 再開.
	○ 大田에서 良民학살 시체 1,100구 발견.
10월 2일	軍 事
	○ 수도사단, 제3사단, 襄陽탈환.
	○ 제6사단, 春川탈환.
	○ 제1사단, 淸州진출.
	○ 韓國海軍, 本格參戰.
	○ 警察 비상경비총사령부, 仁川에 진출하여 서울 京畿道一帶의 收復作戰展開.
	政 治
	○ 林炳稷 외무장관, UN政委에서 韓國政府下에 全韓國을 統一할 것이라고 연설.
	○ UN政委에서 蘇 뿔락, 韓國에 있어서의 朝時停戰등 7개항목결의안 제출.
	○ UN政委에서 蘇 Vishisky 대표, UN軍의 北韓 복격중지 요구.
	○ 맥元帥소식통, 中共軍의 介入없을 것이라고 언명.
10월 3일	軍 事
	○ 제3사단, 杆城탈환.
	○ 제2군단, 서울入城.
	○ 제6사단, 春川南方에서 北上하여 38°線 돌파를 꾀함.
	○ 6.25~9.30, 99日間의 美 極東空軍 戰果發表, 延4萬機以上出擊으로 2,700 ton의 폭탄투하.
	○ 全南警察局 收復.
	○ 1日間 捕虜 4,116명.
	政 治
	○ UN政委에서 藤州外相, 全韓國占領을 주장.
	○ 맥元帥 韓國軍 38°線 진격을 정식성명.
	○ 美政府, 美 F-51 폭격기가 8월 27일 滿洲 安東縣 교외 飛行場을 誤爆한

월 일	중 요 사 항
	것을 UN에 是認通告.
10월 4일	軍 事
	○ 제3사단, 高城탈환.
	○ 敵, 降服勸告에는 言及치 않고 北으로 撤退하여 새로운 任務에 오를 것이라고 放送.
	○ 美 제3사단 美國 西海岸에서 韓國으로 向發.
	○ 警察非常警備總司令部, 서울로 移動하여 全國警察에 긴급임무下達.
	○ 江原道警察局 收復.
	政 治
	○ 各道別로 「地方敎育再建臨時委員會」 설치를 白樂濬 문교부장관이 발표.
	○ 京仁地區 계엄고등군법회의 설정.
	○ 北傀側, 항복권고를 묵살하고 「새로운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방송.
	○ UN政委에서 38°線 돌파를 묵인한 8개국 공동결의안을 47:5(기권 7)로 가결.
10월 5일	軍 事
	○ 제3사단, 長箭탈환.
	○ 수도사단, 元通탈환.
	○ 滾州軍大隊, 金浦로 空輸.
	政 治
	○ 財務部에서 頑敵國庫金凍結에 대한 특별 조치법 발표.
	○ 「惡으로 惡을 갚지말라.」는 李대통령의 戰亂同胞의 각성을 요구하는 담화 발표.
	○ 北傀外相 朴憲永은 中共外相 周恩來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中·朝兩人民은 美 帝國主義의 격멸전을 위하여 더욱 강력한 공동노력을 해야한다.」고 호소.
10월 6일	軍 事
	○ 제3사단, 通川탈환.
	○ 수도사단, 楡口탈환.
	○ 제6사단, 九萬里發電所점령.
	○ 제8사단, 東豆川진출.
	○ 제7사단, 서울入城.
	○ UN軍總司令部發表, 지난 3日間 敵 捕虜 14,028명, 開戰以來 40,000명.
	政 治
	○ UN政委, 蘇의 南北韓代表초청동의를41:6(기권 6)으로 부결.
	○ AFP보도, 백 元帥는 中·蘇가 韓國 문제에 介入치 않으리라는 견해표명.
10월 7일	軍 事
	○ 제3사단, 咸興탈환.
	○ 수도사단, 永興탈환.
	○ 美 제1기병사단, 開城진출.
	○ 제1사단, 安城진출.
	○ 美 제25사단, 永同附近에서 敵과 交戰하여 敵 약 1,400명을 射殺 및 捕虜.
	○ 南原警察署, 實相面天皇峰一帶의 敵 제6, 7사단 殘存병을 공격.
	政 治
	○ UN安保理 美代表, UN방송을 통하여 韓國敎援 및 物資희사를 호소.
	○ UN韓國中間委員會議長에 비율빈 外相 로무로 피선.
	○ UN總會, 38°線 돌파를 묵인한 3개

월 일	중 요 사 항
	국 제안을 47 : 5(기권 7))로 가결.
10월 8일	**軍 事**
	○ 제 3 사단, 元山南方 12km 桑陰里 진출.
	○ 수도사단, 淮陽탈환.
	○ 제 6 사단, 華川진출.
	○ 美 제 1 기병사단, 開城진출 完了.
	○ 公州警察署, 鷄龍山에 잠복 중인 敵 격퇴.
	○ 比律賓軍, 釜山出發.
	政 治
	○ 釜山—서울間 鐵道 완전개통.
10월 9일	**軍 事**
	○ 제 3 사단, 南大川을 渡河하여 元山 南端突入.
	○ 수도사단, 新高山탈환.
	○ 제 6 사단, 金化탈환.
	○ 제 8 사단, 連川탈환.
	○ 美 제 1 기병사단, 38°線 突破.
	○ MacArthur 元帥, 金日成에게 即時 降服의 最後勧告를 通告.
	○ 光州警察部隊, 光州市街에 浸透한 敵遊擊隊 300명을 擊退.
	○ 開戰以來의 포로 55,000명.
	政 治
	○ UN 政委에서 美國등 7 개국이 평화 확보를 목적으로 「침략국에 대한 UN 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안을 제출하였는데 蘇代表는 全的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표명.
	○ 美國在鄕軍人會 全國大會서 UN軍은 韓國의 자유선거실시까지 주둔할 것을 결의.
10월10일	**軍 事**
	○ 수도사단, 제 3 사단, 元山탈환.
	○ 제 8 사단, 鐵原탈환.
	○ 제 1 사단, 高浪浦진출.
	○ 美 제 1 기병사단, 白川탈환.
	○ 韓國 海軍 本部警備府復歸.
	○ 非邑警察署, 新泰仁 來襲한 共匪와 交戰.
	○ 比律賓軍, 倭館진출 主보급로경비 및 패잔병격멸 시작.
	政 治
	○ 國務會議에서 10월 7일 UN 總會의 韓國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
	○ 濟州道지구 계엄령 해제.
	○ 38°線以北 전역에 계엄령.
	○ 漁業船舶航行禁止를 해제, 38°線이북은 要許可.
	○ 美 트루만大統領, 맥 元帥와의 회담에 앞사 統一民主韓國을 건설하겠다고 성명.
10월11일	**軍 事**
	○ 수도사단, 德源탈환.
	○ 美軍, 元山비행장 사용시작.
	○ 제 8 사단, 平康진출.
	○ 제 1 사단, 38°線突破.
	○ 金日成, 降服을 拒否하고 最後抗戰을 傀儡軍에 命令.
	○ 10. 3~10. 7間 敵 捕虜 22,856명.
	政 治
	○ 國會 36次 본회의에서 附逆議員肅淸特別調査委員會設置案 討議 10월 28

월 일	중 요 사 항
	일까지 保留 可決.
	○ 서울市, 14세이상 男女에 市民證 발급 예정.
	○ UN 사무총장 特使, 韓國多期救護對策을 委員團에 보고.
	○ 트루만 대통령 맥아더 元帥와 회담하기 위해 위싱턴 출발.
	○ 林外務長官, 韓國復興을 위한 提案에 관하여 트루만大統領과 協議.
	○ 希臘國會, 11月 初에 韓國派兵을 決定.
10월12일	**軍 事**
	○ 제 1 사단, 潮寧탈환.
	○ 美 제 1 기병사단, 汗浦里突入.
	○ 美 極東空軍戰鬪物資空輸司令部 131 ton 에 달하는 韓國軍補給物資를 元山에 空輸.
	○ 敵, 中部서 後退始作
	政 治
	○ 李大統領, 元山에서 제 1 군단에 대한 表彰式 거행.
	○ 申賛熙국회의장, 「中共軍介入은 自滅을 독촉」이라고 회견.
	○ 趙炳玉內務長官, 北韓施政方針言明.
	○ 全國治安상태 완전 복구.
	○ 女子義勇軍 모집.
	○ UN 韓國中間委, 정령하의 北韓은 맥元帥가 統治한다는 濠州案을 가결.
10월13일	**軍 事**
	○ 수도사단, 元山西方 37km 馬轉里탈환.
	○ 제 3 사단, 文川탈환.
	○ 제 1 사단, 市邊里탈환.
	○ 제 6 사단, 新高山진출.
	○ 제 8 사단, 伊川탈환.
	○ 韓國 海兵 제 3, 제 5 대대 船便으로 仁川에서 元山向發.
	○ 鐵嶺警察署, 金井支署를 습격한 敵 제 3 지구 유격대 50명과 非武裝地方共匪 1,500명을 격퇴.
	○ 敵 1 個師, 三陟 壓滅, 蔚珍來襲.
	政 治
	○ 이날까지 서울市內에서 발견된 시체 4,978명 중, 애국자 1,322명 포함됨.
	○ 李大統領 및 內閣, 全國總選擧實施의 UN 韓委 計劃을 拒否.
	○ 美 뉴욕 타임즈紙, 韓國援助緊急을 강조.
10월14일	**軍 事**
	○ 美 제 1 기병사단, 金川탈환.
	○ 제 1 사단, 新溪탈환.
	○ 제 3 사단, 永興탈환.
	○ 수도사단, 高原탈환.
	○ 제 6 사단, 德源진출.
	○ 敵 제2, 제 4 사단 패잔병 및 居昌地方共匪 1,500명 居昌 北上支署를 襲擊.
	○ SCAP 代辯人談, 開戰以來 敵의 損失 248,000명, 殘存兵力 68,000명.
	政 治
	○ 中國, 韓國에 炭, 석탄, 의약품 발송결정.
	○ 美政府北韓統治計劃案을 맥元帥에 打電.

월 일	중 요 사 항
	○ 트루만大統領과 맥아더元帥, 웨이크島 도착.
10월15일	軍 事
	○ 美 제1기병사단, 南川店탈환.
	○ 제6사단, 馬轉里진출.
	○ 제8사단, 谷山진출.
	○ 수도사단, 永興진출.
	○ 美 제5공군사령부, 서울로 移動.
	政 治
	○ 政府, 38°線 以南에서의 계엄령특별조치법공포.
	○ 트·맥會談 웨이크島에서 시작, 同日完了後 각기 歸任.
	○ 美國 諸新聞, 北韓共產黨의 만행을 國際法廷에서 심판하라고 요구.
10월16일	軍 事
	○ 제1사단, 遂安진출.
	○ 美 제1기병사단, 新幕—端興진출.
	○ 美 제24사단, 延安탈환.
	○ 제6사단, 馬轉里진출.
	○ 수도사단, 定平탈환.
	○ 靑丹監察部隊, 海州市街進入.
	○ 地方共匪 500명, 黃島을 三面包圍攻擊.
	○ 韓國海軍 YMS 516號, 東海 永興灣에서 掃海作業中 敵의 機雷에 접촉되어 沈沒 美 海軍 掃海艇 2隻도 같은 곳에서 沈沒.
	政 治
	○ 네루 印度首相, UN의 中共不承認이 韓國戰爭을 이르켰다고 記者會見.
	○ 트·맥 會見後 성명발표.

월 일	중 요 사 항
10월17일	軍 事
	○ 제1사단, 栗里—鐵原탈환하여 平壤突入을 目前에 둠.
	○ 美 제1기병사단, 黃州탈환.
	○ 英 제27여단, 沙里院탈환.
	○ 제6사단, 東陽里탈환.
	○ 수도사단, 咸興·興南탈환.
	○ 美 제24사단, 海州·載寧탈환.
	○ Turkey 여단, 釜山도착.
	政 治
	○ 政府, 中共의 韓國戰介入에 관한 증거발표.
	○ 林炳稷 UN 韓國代表, 北韓選擧실시를 환영하나 南韓에서 새로이 선거를 실시함은 반대라고 연설.
	○ 李大統領, 「大韓民國정부는 UN으로부터의 如何한 지시도 이를 수락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10월18일	軍 事
	○ 제1사단은 大同里, 美 제1기병사단도 黑橋里, 제7사단도 栗里에서 平壤東北方으로 각각 진격.
	○ 제8사단, 江東진출.
	○ 제6사단, 陽德(新邑)탈환.
	○ 咸興附近에서 良民학살시체 6,000餘구발견.
	○ 敵 패잔병, 春川, 江陵에 來襲. 단행.
	○ 韓國 海兵 제1, 제2대대 仁川에서 船便으로 鹽湖 및 木浦로 向發.
	○ 美 제24사단, 鎭南浦를 向하여 진격.
	政 治
	○ 政府, 武功勳章令 공포.

월 일	중 요 사 항
	○ 趙炳玉 내무장관, UN 韓委採擇案은 政府와 協議 善處한 것이라고 언명.
10월19일	**軍 事**
	○ 제 1 사단, 第 1 番으로 11.00 平壤突入, 제 7 사단은 平壤 東北方 突入, 美 제 1 기병사단도 南端으로 突入함으로써 도디어 赤都 平壤을 奪還.
	○ 수도사단, 洪原탈환.
	○ 제 6 사단, 成川진출.
	○ Turkey 여단, 大邱로 이동하여 美 제 9 군단에 배속.
	○ 18, 19 兩日間 捕虜 5,000餘名.
	○ MacArthur 元帥, 從前의 Mac Line을 定州—寧遠—咸興線으로부터 宣川 古仁洞—坪員—豊山—城津線으로 北上시킴.
	政 治
	○ 漢江假橋 준공식 거행.
	○ 中國의 제 2 차 구호물자 엘 多量 釜山入港.
10월20일	**軍 事**
	○ 平壤을 탈환한 各師團, 協同으로 敗敵을 소멸.
	○ 美 제187공수연대, 嘉川—順川間에 投下하여 敵 退路遮斷.
	○ MacArthur 元帥, Walker 제 8 군사령관에게 韓國軍은 早速히 國境에 到達시킬 것을 命令.
	○ Almond 소장, 韓國軍 제 1 군단에 國境까지의 進擊을 命令.
	政 治
	○ 李大統領 平壤탈환을 치하.

월 일	중 요 사 항
	○ 백元淳, 1951년 7월 1일까지의 韓國復興費 1억 5천만 달러라고 推算.
	○ 市民證發行 今日부터 실시.
10월21일	**軍 事**
	○ 수도사단, 40°線 突破.
	○ 美 제187공수연대, 嘉川에 投下.
	○ 제 8 사단, 成川진출.
	○ 敵 1,000餘名, 華川發電所점령.
	○ Turkey 여단, 裝備交替 및 訓練始作.
	○ 提川警察署, 德山面道基里에 來襲한 敵 遊擊隊 70名을 擊滅.
	○ 美 極東空軍, 開戰以來 延 50,000機出擊으로 爆彈 35,000ton, 0.5inch기관포탄 2,700萬發, 燒夷彈 85萬gallon 使用, 戰傷兵 20,000名 輸送.
	政 治
	○ 서울市 兵事區사령부, 제 2 국민병 병적届 실시 공고.
	○ 北鮮, 首都를 平壤에서 新義州에 옮겼다고 방송.
	○ UN 經濟社會理事會에서 韓國구제부흥사업 기본원칙을 결정.
10월22일	**軍 事**
	○ 수도사단, 北青·新興탈환.
	○ 제 8 사단, 假倉진출.
	○ 제 1 사단, 順川 軍隅里진출.
	○ 泰國軍 제 1 대대 本國出發.
	政 治
	○ 서울市內에서 被檢된 附逆者數 今日까지 9,900명.
	○ 一切의 계엄사무, 陸軍本部 民事部에 移管.

월 일	중 요 사 항
	○ 平壤에 新 市長 임명.
10월23일	**軍 事**
	○ 제 6 사단, 熙川(國境 72cm)탈환.
	○ 제 8 사단, 北倉탈환.
	○ 제 1 사단, 英 제27여단, 安州부근에서 淸川江渡河.
	○ 韓國 海兵 제 1 대대, 鎭海上陸.
	○ 鎭海에 海軍 第1掃海戰隊 設置.
	政 治
	○ 李大統領, 南北同胞는 협조하라는 유시발표.
	○ SCAP 公報官발표, UN軍總司令部는 韓國戰亂의 戰犯을 재판하는 司法機關 설치를 승인.
10월24일	**軍 事**
	○ 제 8 사단, 德川진출.
	○ 제 6 사단, 熙川탈환.
	○ 제 1 사단, 寧邊·龍山洞탈환.
	○ MacArthur 元帥, 國境까지 追擊의 最終命令, 制限撤廢.
	○ 滿洲 內의 中共高射砲, 韓國內 美 空軍機를 射擊하여 F-51 機 1 臺 추락.
	○ 平壤 美林馬地에 韓國 空軍 前進.
	○ 比律賓軍, 倭館地區作戰 完了코 金泉經由, 北上시작.
	○ 美 제10군단 대변인談, 韓滿國境에 緩衝地帶 設置 않는다.
	政 治
	○ 서울市廳앞 광장에서 UN Day 기념 경축대회 개최.
	○ 平壤市管理委員으로 韓人 12名이 UN軍 管轄下에 취임.

월 일	중 요 사 항
	○ 華府消息通談, 韓國北部 國境의 수비가 강화되는 대로 UN軍의 주력은 철퇴한다고 트루만大統領과 맥아더 元帥의 意見一致.
10월25일	**軍 事**
	○ 제 1 사단, 雲山北方에서 中共軍 1名을 最初로 捕虜.
	○ 제 6 사단, 古場進入.
	○ 제 8 사단, 球場洞進入.
	○ 美 제 1 군단 代辯人談, 國境 64km 以內의 進擊制限 取消코 必要에 따라 國境까지 進擊하다.
	○ 佛蘭西大隊, 韓國向發.
	政 治
	○ 趙奭憲내무장관 空路 平壤着.
	○ 華府消息通談, 韓滿國境進擊停止에 관한 보도를 부정하고 中共軍의 北韓侵入 보도는 미확인이라고 언명.
10월26일	**軍 事**
	○ 韓國軍 제 6 사단 제 7 연대 17.50 楚山에 進出, 鴨綠江에 수색대를 파견.
	○ 韓國軍 제 6 사단 約 5,000名의 中共軍과 충돌.
	○ 韓國軍 제 2 군단 正面에 中共軍 40,000名 출현, 接戰 中.
	○ 韓國 海兵 제 1 대대 鎭海 出港, 元山으로 向發.
	○ 慶南戰鬪部隊, 제18전투대대, 高敞署, 방위군 제509연대와 협동하여 井邑탈환.
	○ 美 제10군단 제 1 해병사단 元山에 上陸.

월 일	중 요 사 항
	政 治
	○ 政府, 韓國의 救濟와 復興을 위하여 五個年半에 20억 달라가 필요하다고 UN에 通告.
10월27일	軍 事
	○ 韓國軍 首都사단 제1연대 黃水院里 점령, 제1기갑연대 陜天嶺 占領.
	○ 韓國 海兵 제3, 제5대대 元山 上陸.
	○ UN軍 博川에서 大寧江 渡河. 美 제24사단 일부 泰川으로 進擊.
	○ 安州에서 韓國軍이 잡은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二萬以上의 中共軍이 北韓에 侵入했다고 함.
	政 治
	○ 서울에서 政府還都 및 平壤奪還 記念 경축대회.
	○ 政府, 1950年度 제5회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회부.
	○ 中共軍 越境說에 대하여 美 제8군, UN 공군총사령부, 美國務省 및 國防省등 전부 미확인.
10월28일	軍 事
	○ 韓國軍 首都사단 제18연대 赴戰湖 東쪽 水上里에 진출.
	○ UN軍 泰川을 점령.
	○ 伊川에 敵 패잔병 2,000명 침입, 韓國軍野戰病院 占領코 患者 全員을 학살.
	政 治
	○ 蘇外相 Vishinsky, UN政委에서 美國이 韓國에서 日本軍을 사용하였다고 비난.

월 일	중 요 사 항
	○ 美商務省, 中共에 石油輸出中止命令.
10월29일	軍 事
	○ 韓國軍 首都사단 제1기갑연대 城津 점령, 제1연대 靈山, 洪原 점령.
	○ 韓國 海兵 제3대대 咸興으로 向發, 그후 다시 咸興에서 元山으로 이동.
	○ 美 제7사단 제17연대 본부 및 제1대대 利原에 上陸.
	○ Turkey 獨立 제27주년 기념식(大邱에서).
	○ 韓國軍 제6사단 楚山撤收.
	○ 溫井里를 奇襲한 敵 2개 대대는 대부분 中共軍으로 편성.
	○ 英·濠兩軍 定州를 통과하고 同市 東方의 河岸에 도달.
	○ 韓國軍 제1군단 正面에 中共軍 124師團 출현, 接戰 生捕 16名.
	○ 我軍 熙川 포기.
	○ 韓國軍 제3군단과 美 제9군단, 敵 게릴라 섬멸 중.
	政 治
	○ 北傀外相 朴憲永等, 蘇聯 10月革命 記念式參加次 新義州 出發.
10월30일	軍 事
	○ 韓國軍 제8사단 鴨綠江水力發電所를 指向코 西進中.
	○ 溫井·雲山地區에서 敵 1個師의 抵抗으로 韓國軍 제6사단 同 地區에서 後退.
	○ 韓國軍 제7사단 泰川 東方의 倉洞 탈환.
	○ 美 제7사단 제17연대 본부 및 제1

월 일	중 요 사 항
	대대 豊山 도착.
	○ 美 제24사단 龜城에 迫到, 동사단예속. 英軍 Argyll부대 定州공격.
	○ 美 제10군단 대변인 談 : 中共軍 1개연대 長津에서 戰鬪 참가.
	政 治
	○ 李大統領, 全國의 地方長官選擧를 실시한 용의가 있음을 언명.
	○ 李大統領, 平壤視察. 市民의 열광적인 歡呼裡에 환영대회 참석.
	○ 雨津地區에서 北傀에 의해 살해된 人命피해 약 600명으로 판명.
10월31일	**軍 事**
	○ 韓國 海兵隊司令部 서울에서 元山도착.
	○ 美 제24사단 鄕山에 진출, 同 戰車部隊 宣川 통과.
	○ UN軍 代辯人談 中共 포로 10名 確認, 그러나 組織的인 中共部隊는 아직 明白하지 않다.
	○ 中共軍 瀋遠 侵入.
	○ 韓國軍 古城里 侵入.
	政 治
	○ 北傀人民義勇隊 本部, 特別훈련받은 義勇隊가 電源地帶(水豊一帶) 확보차 현지에 急派되었다고 발표(新義州 放送).
	○ 美 官邊側, 中共軍 介入의 이유로 다음 두 條件을 推測. ① 水豊댐 보호. ② UN의 韓國統一을 위한 노력을 방해.
11월 1일	**軍 事**

월 일	중 요 사 항
	○ 韓國軍 海兵 제1, 3, 5대대 元山 出港 咸興 및 高城 向發. 제5대대 15,00 咸興 上陸.
	○ 美 제7사단 豊山부근에서 殘敵섬멸하며 계속 北進.
	○ 美 제24사단 제21연대 宣川 통과후 新義州 南方 40km 지점(博作洞 龜城) 도달.
	○ 新義州 上空에서 처음으로 蘇製 MIG 15Z 戰鬪機의 도전을 받음.
	○ 敵 Z機 最初로 宣川上空에 출현.
	○ 中共軍 球場에 도착.
	○ 敵 崔庸健 第2前線司令官으로 轉職
	○ 今日 子正 현재 北傀損失 336,000名
	○ 괄리괸軍 38°線 突破.
	政 治
	○ 이날 현재 北傀軍 損害 總 33만 6천명.
	○ 敵 崔庸健, 제2전선사령관으로 전속.
11월 2일	**軍 事**
	○ 韓國軍 제3사단 제26연대 水洞에서 美 제1해병사단과 교대.
	○ 韓國軍 首都師團 吉州를 向하여 前進.
	○ 美 제7사단 제17연대의 제2, 3대대 豊山에 도착.
	○ 韓國軍 제1사단의 2개연대와 美 제1기갑사단은 雲山에서 騎兵을 포함한 中共軍 大部隊의 기습을 받고 대 損失을 입음.
	○ UN軍 雲山에서 14km 後退, 定州—

월 일	중 요 사 항
	寧川—球場線에 防衛線設置決定.
	○ 宣川 上空에서 蘇 YAK機 2 대 擊墜.
	○ 美 戰鬪機가 北鬼의 蘇 Z機등 21機 擊破.
	政 治
	○ 韓國戰爭 全國被害狀況 人命被害 150,000여명, 家屋破壞 및 燒失 320,000戶.
	○ 國會에서 以北實情調査團 파견키로 결정.
11월 3일	**軍 事**
	○ 首都사단 吉州교외에 迫到.
	○ 韓國軍 寧邊, 球場, 寧遠에 이르는 線에서 部隊 再整備 中, 滿浦鎭부근에서 南下하는 敵 防禦.
	○ 韓國軍 海兵 제1, 3대대 松島津里上陸.
	○ 美 제7사단 제31연대 利原 上陸.
	○ 美 제187空輸聯隊에 배속된 비율빈 대대 CP 黃州에 설치하고 패잔병 격멸.
	○ 英軍 龜城에서 撤收.
	○ 敵 院里 完破, 軍隅里 2~3km 까지 前進.
	○ 中共軍 德川에 侵入.
	○ 濠洲軍(英 제29여단——次先遣隊)釜山上陸
	政 治
	○ 公務員俸給 三倍로 증액.
	○ 美 赤十字社, 韓國赤十字社에 韓國救濟資金으로 10萬5千弗 기증.
	○ 美 政府言明, SCAP로부터 「中共이 韓國戰線侵入을 그 軍隊에 命한 것이 確實하다.」는 보고가 있을 때에는 美國은 中共糾彈을 요구할 것이다.
11월 4일	**軍 事**
	○ 韓國 海兵 제5대대 東海에 上陸 후 長箭을 경유 高城에 도착.
	○ 美 제7사단 제32연대 利原 上陸.
	○ 8軍司 中共軍 2개사단이 UN軍과 교전 중.
	○ 美 제24사단 예하 1개 대대 寧遠 南方 8km지점인 淸川江 北岸을 따라 進擊 中.
	○ 長津貯水地로 迫到 中인 美 제1해병사단中共軍 124사단 800여명 殺傷, 포로 5명, 전차 1대 파괴.
	○ 包圍 당한 美 제1기갑사단 제8기갑연대 半數는 脫出 成功.
	政 治
	○ 美海軍에서 韓國 海軍에게 驅逐艦 2隻寄贈, 이날 釜山港에 入港.
	○ UN美 代表 오스틴, 美軍은 韓滿國境까지 진격하여 거기서 停止할 것이라는 美政策을 再强調.
	○ 英國官邊側言明, 現在 韓國에 침입중인 中共軍 兵力은 예상보다 월등히 다수이라고 함.
11월 5일	**軍 事**
	○ 韓國軍 수도사단 明川, 吉州 탈환
	○ 韓國軍 海兵 제1대대 甘城으로 이동.
	○ 鐵原地區 鐵道警察大隊는 禪溪를 侵攻한 敵 게리라 300명을 擊退.
	○ 我軍 孟山에 突入.

월 일	중 요 사 항
	○ 中共軍 博川에 侵入.
	政 治
	○ 韓國戰爭以來 全國工業施設被害額 760億圓(ECA, 商工部 發表).
	○ 平南地區 UN軍 民事部長 만스키 대령, 平南地區行政形態는 軍政이 아님을 언명.
	○ 向韓國 佛軍 1,200명 東京着.
	○ 中共 6個軍(32萬) 北韓移動說(台北發).
11일 6월	軍 事
	○ 博川 東南에 中共軍 出現.
	○ 鐵山 南方에서 彼我激戰 中.
	○ 韓國 海兵 제1대대 海上里, 八音里 위친리 敵을 공격.
	○ 敵 게릴라 2,000名의 再侵으로 龜溪 失陷.
	○ F-51 4대 新義州 上空에서 YAK機 2대 擊破.
	政 治
	○ 李大統領, 中共軍의 北韓侵入은 蘇聯의 使嗾라고.
	○ 國會, 北韓同胞에 메세지.
	○ UN 美 代表, 中共의 韓國戰爭 參加事實을 公式으로 UN에 通告
	○ 백元帥, 中共軍介入에 UN에 正式通告.
11월 7일	軍 事
	○ UN軍 淸川江 北岸 橋頭堡 擴大 中.
	○ 中共軍 博川에 再侵入.
	○ 蘇 Z機 3台 擊墜.
	○ UN 空軍 行動制限(國境 5km), 解除.
	○ 中共軍 侵入 2~6萬으로 觀測 但 不正確.
	○ 泰國軍 大隊 釜山도착 大邱로 이동, 장비 교체 및 훈련.
	○ UN艦艇 LSU-1402號가 최초로 鎭南浦港에 入港.
	○ 鐵道警察大隊 第3中隊 編成 奪還.
	政 治
	○ 中國防長官, 제엄령해제는 시기상조라고 언명.
	○ UN經濟委事會에서 韓國再建計劃決定.
	○ 中共軍 2,000명이 韓國戰線에 참가하였다고 中共放送.
11월 8일	軍 事
	○ 韓國軍 수도사단 제18연대 咸興 北方에서 明川으로 이동한 다음, 漁郎川 전투 개시.
	○ 韓國 海兵 제1대대 甘城에서 高城으로 이동.
	○ 美 제24사단 英 제27여단 博川으로 北進.
	○ 美 空軍 600대 出擊, 新義州 猛爆, 鴨綠江鐵 橋爆破 燒夷彈 8,500個 投下
	○ 史上初有 Z機 空中戰, 新義州 上空의 敵機 1대 擊墜.
	政 治
	○ 北韓行政對策委, 제1차회의 개최.
	○ 國立警察의 殘匪掃蕩戰, 10월 이후 400回 交戰.
	○ UN經濟社會理事會, 韓國再建 2億

월 일	중 요 사 항
	5千萬弗案 可決.
	○ 中共의 撤退를 要請(美代表).
	○ 北平放送, 美軍의 北韓進擊은 中共에 위협을 주었다고 美國을 비난.
11월 9일	**軍 事**
	○ 韓國軍 제3사단 제26연대 美 제1해병사단에 배속, 洪原에서 地境里부근으로 이동.
	○ 韓國軍 수도사단 明川 北方 龍川洞進出.
	○ 我軍 軍隅里 탈환, 德川 확보. 院里 탈환.
	○ 平壤 北方의 地下 武器製造廠 발견.
	○ 韓國 海兵 제3,5대대 松島浦里를 出航 元山 向發.
	○ 論山部隊 및 扶餘部隊 게릴라 550名 江景市街에 浸透, 驛舍를 불지르고 警察署를 襲擊하였으나, 警察部隊 白兵戰으로 이를 擊退.
	政 治
	○ 南韓의 비상계엄령 해제(1950. 7월 8일부터 1950년 11월 9일 14,00시까지).
	○ 제2국민병 신체검사 실시.
	○ UN 美代辯人 막키, 安保理의 義務는 韓國紛爭의 擴大防止에 있다고 언명.
	○ 맥克令部대변인, 中共軍 50個師團이 滿洲에 集結 대기 중이라고 발표.
11월10일	**軍 事**
	○ 我軍 价川에서 7km 前進.
	○ 美 제7해병연대 古土里 도착.
	○ 敵 德川 方面서 철수.
	○ 中共軍 UN軍을 兩斷할 企圖로 中部戰線에 4萬 集結.
	○ 北傀 敗殘兵 九萬里發電所 占領.
	○ 터키軍 大邱 출발.
	○ 필리핀軍 南川店 新溪 진출, 尾隅洞 부근 敵 격파.
	○ 韓國 海兵 제3대대 馬轉里로 이동, 제1대대 제2중대와 제4중대의 1개소대는 부대대장 지휘로 通川으로 이동.
	政 治
	○ 韓美 換率 1,800:1을 2,500:1로 인상.
	○ 美國등 6개국, UN安保理에 中共軍 즉시 철퇴요구 決議案을 제출.
	○ UN政委, 戰爭早速防止案등을 채택
	○ UN安保 休會—韓國戰線進展을 注視.
11월11일	**軍 事**
	○ 國軍 및 UN軍 鐵原 金化를 완전 탈환.
	○ UN軍 淸川江戰線일대에서 진격 개시.
	○ 友軍 博川 東方에서 後退.
	○ 中共軍 제20군 제60사 滿浦鎭에서 鴨綠江을 渡河.
	○ 韓國 海兵 제5대대 文坪에 도착, 後陵山의 敵을 공격하여 사살 69명, 소총 1정, 탄약다수를 노획.
	政 治
	○ 朝銀券 流通禁止.

월 일	중 요 사 항
	○ 學園에 臨戰態勢.
	○ F.A.O에서 UN의 韓國救護對策에 관하여 적극협력한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
11월12일	**軍 事**
	○ 我軍 鐵原·金化에서 敗殘部隊 섬멸
	○ 2,000 L.B.S.의 爆彈으로 鴨綠江鐵橋脚關坐.
	○ 美 1軍團대신인 韓半島 最狹少地帶에서 東西防禦線 連結.
	○ 空軍 參謀副長 朴範集준장 咸興上空서 作戰指揮中 戰死.
	○ 金州에 침입한 敵 敗殘兵 1,000名 擊退.
	○ 趙炳玉 內務長官 北韓 進駐 警察隊의 편성을 命令.
	○ 필리핀軍 銀店里(新溪 西쪽 8km)일대의 잔적격멸전.
	政 治
	○ 서울—大同江 列車 今日부터 開通豫定.
	○ 國會, 제5회추가예산안 심의 중
	○ 中共, 韓國問題討議를 위한 UN安保理 초청거부를 방송.
	○ 北傀戰況發表라고 하는 모스크바 放送에 不法侵入한 中共軍을 義勇軍이라고 呼稱.
11월13일	**軍 事**
	○ 韓國軍 수도사단 明川 北方 龍川洞일대에서 敵과 대치 중.
	○ 美 제7해병연대 長津湖 6.4km 肉迫.
	○ 美 제1기갑사단 寧邊南方 3개高地 탈환.
	○ 博川 南方 陣地·我軍 확보중.
	○ 터키軍 汶山, 長湍지구로 이동. 美 제25사단에 배속.
	○ 韓國 海兵 제3대대 裕洞里의 敵을 공격.
	○ 韓國 海兵 제1대대 姑末城里를 공격.
	政 治
	○ 國會, 附逆者處理法 등을 確定可決.
	○ 警察官 4,000명 北韓지역으로 派遣.
	○ 포로수용자 15만명중 제1차로 1,167명 석방.
	○ 國府 13日報道, 毛澤東·金日成·스티코프 3者 瀋州 奉天서 비밀회담개최설.
	○ 國府, 韓國救護米 6,000 ton 積出.
	○ 트루만大統領 艾森豪威에게 滿洲等地 폭격임금 지령(AFP. 14).
11월14일	**軍 事**
	○ 美 제7사단 제17연대 豊山 北쪽 德耳川 南岸에서 敵 2연대와 대치.
	○ 美 제1군단 中共軍 九萬名과 대치中.
	○ 美 제7해병연대 長津湖一帶의 發電所 부근으로 突進.
	○ 美 제1기갑사단 清川江 北岸에서 4km 前進.
	政 治
	○ 財務部, 國有財產法 施行規則 發表.
	○ 國會, 統一復興對策委員會 構成案 可決.
	○ 釜山에 피난민 20,000명.

월 일	중 요 사 항
11월15일	**軍 事**
	○ 韓國軍, 先遣隊 후퇴하여 德川 東方 6km 지점 大同江 南岸에 布陣.
	○ 英 제27여단 博川 進入.
	○ 北傀軍, 北韓깊숙이 布陣한 UN軍 前線 中央部를 6km 浸透.
	○ 美 제5공군 會寧에 300 Ton의 燒夷彈 폭격.
	政 治
	○ 韓國戰爭 被害 內務部 集計.
	① 人命被害—275,000名.
	② 財産被害—1兆4,600餘億圓.
	○ 백司令部言明, 今次韓國戰爭中 北傀軍은 약 1,000臺의 戰車를 蘇聯에서 供給받아 其 半數가 파괴되고 나머지는 UN軍에 의하여 거의 노획되었다.
	○ 콜럼비아 海軍, 韓國戰線에 加擔.
11월16일	**軍 事**
	○ 酷寒을 무릅쓰고 UN軍 總攻擊.
	○ 韓國軍 淸川江 北方 11km 지점의 博川 西北部 6km 지대에 진출.
	○ 美 제7사단 제31연대 赴戰湖 점령.
	○ 美 제1해병사단 下碣隅里 점령.
	○ 美 제1기갑사단, 寧邊 北方 2km 까지 前進.
	○ 美 제1군단, 50km에 걸친 西北戰線에서 敵의 저항없이 進出.
	○ 英 제27여단 博川 통과 5km 前進.
	○ 美 제24사단 博川 東北方에서 2km 진출.
	○ 北傀軍, 韓國軍 防禦陣地 後方에 上陸作戰을 감행하여 殆半이 섬멸 당함.

월 일	중 요 사 항
	政 治
	○ 英國政府 現在까지 韓國戰線에서 英軍의 損害를 發表, 戰死 51명 부상 158명, 행방불명 5명.
	○ 韓國戰線에 참가할 카나다軍, 美國에서 훈련.
	○ 트루만大統領, 美國은 戰爭意思없고 極東平和는 中共태도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명.
11월17일	**軍 事**
	○ 韓國軍 수도사단, 明川 東北方의 龍川洞 附近과 合水 南方에 배치 중.
	○ 韓國軍, 院里, 德川, 寧遠線 확보.
	○ 高敞警察部隊는 敵 게릴라의 據點인 109高地를 奪還하고 扶安을 수복.
	○ 敵 게릴라 800명의 기습으로 加平실함.
	○ UN軍 博川 再奪還 6km 北方 長信洞에 進出.
	政 治
	○ UN總會, 侵略이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內로 停戰命令을 내리자는 Yogo 提案을 通過시킴.
	○ 美國務省 對中共放送, 中共軍이 韓國에서 撤退하면 韓·滿國境의 中共權益을 보장한다고 강조.
11월18일	**軍 事**
	○ 韓國軍 수도사단 淸津에 接近.
	○ 韓國軍 第5479部隊 博川北方 5km 地點에, 第6158部隊 安州西方 1km 地點에, UN軍部隊 寧邊에서 西南方 5km 點地에 進出.

원 일	중 요 사 항
	○ 美 제7사단 甲山 南쪽 3km 進出.
	○ 西部戰線서 敵 全面的 後退.
	○ UN軍 계속 淸川江橋頭堡 擴大 中.
	○ 中共軍 滿洲犬을 사용.
	○ 春川市에서 韓國軍, 敗殘傀儡軍 및 遊擊隊와 交戰 敵 春川 占領.
	○ 平壤 加平間 敵 유격대 10,000명 준동.
	○ 崔致煥 警務官이 指揮하는 警察部隊 加平을 奪還.
	政 治
	○ 北韓에 잠정적 人民券流通 인정.
	○ 美赤十字社, 韓國民間救濟費로서 30萬弗 支出決定.
	○ 鄕土防衛隊 結成式.
	○ 美 陸軍省, 中共軍이 補給難에 逢着하였다고 언명.
11월19일	**軍 事**
	○ 韓國軍 수도사단 漁郎川 진투 끝내고 鳳岡점령.
	○ 院里—德川間의 韓國軍 3km 前進.
	○ 美 제7사단 제17연대 甲山탈환.
	○ 淸川江을 渡河한 UN軍 寧邊 再奪還, 博川을 통과한 부대와 合流.
	○ 敵 主力 西部戰線에서 總退却.
	政 治
	○ 北傀가 濫發한 朝銀券이 10億圓.
	○ 美赤十字社, 韓國의 民間救濟事業을 위하여 赤十字派遣軍을 결정.
	○ 美國, 험악한 국제정세에 대비하여 330萬 大軍의 訓練計劃을 수립.
11월20일	**軍 事**
	○ 韓國軍 제3사단 昌州에 집결.
	○ 韓國軍 수도사단 會文을 점령.
	○ 韓國 海兵 제3대대 土基里, 自開洞의 敵을 격파.
	政 治
	○ 新韓委부임 앞두고, 政府, 北韓行政府策 토의.
	○ 서울市警管下 附逆者被檢數 이날 현재 14,000여명.
11월21일	**軍 事**
	○ 韓國軍 수도사단 漢津 南方 24km 前進.
	○ 美 제7사단 제17연대는 제1대대를 先頭로 惠山鎭에 돌입.
	○ 美 제1해병사단 長津湖 西쪽의 湖畔으로 진격.
	○ 南 Atrica 空軍 제5공군소속으로 전투에 참가.
	○ 6.25-11.21까지의 空軍損失 120대 (戰鬪機 99대, 爆擊機 11대, 其他 10대).
	政 治
	○ 서울—平壤間 6년만에 電話 開通.
	○ 春川·加平에 피난민 5만여명.
	○ UN財政委員會, 韓國救濟復興調達方針 결정.
	○ 白耳義軍隊 12월 中旬에 韓國向發 예정이라고 브랏셀에서 발표.
11월22일	**軍 事**
	○ 韓國軍 수도사단 朱乙 점령.
	○ 韓國軍 寧遠 탈환, 2軍團소속 나른 사단들 德川北方 9km 지점에 전차 구

월 일	중 요 사 항
	축.
	○ 美 제7사단 제32연대 三水 점령.
	○ 美 제1해병사단 長津湖 包圍態勢 强化.
	○ 新銳戰車로 武裝된 英聯邦軍 제29여단 開城에 到着.
	○ Turkey軍 汶山지구 출발.
	○ 泰國軍 大隊 열차편으로 大邱 出發.
	政 治
	○ 李대통령 제2차로 咸興 방문
	○ 韓國戰爭 이래 人的 物的被害實態調査.
	① 人命被害 470,000餘名
	② 財産被害 2兆 71,184億圓
	○ 英國, 韓國戰亂終息을 위하여 停戰 3個計劃이 수립되었다고 발표. 그 내용,
	① 韓·滿國境의 不可侵
	② 戰爭의 局地化
	③ 韓·滿國境 北韓地帶에 非軍事的인 緩衝地帶의 設置準備
11월23일	軍 事
	○ 韓國軍 수도사단 鏡城점령.
	○ 韓國 海兵 제3대대 九龍里의 敵을 공격.
	○ 瀋陽警察部隊는 金城面 鳳凰里에 출현한 敵 게릴라 200명을 격멸.
	○ 惠山鎭·長津湖주변의 敵 西北戰線 陣地로 이동.
	○ 敵 패잔병 400명 鐵原 점령
	◎ 美 空軍開戰이래 綜合戰果(11.21현재) 出擊延機數 : 72,224대. 投下爆彈 41,127ton. 空輸貨物 : 54,430ton. 操車場破壞 : 33개소, 로케트彈 : 95,859개 空輸人員 : 77,495명. 飛行機 全破 혹은 半破 : 200대. 戰車 全破 혹은 半破 : 1,221대. 鐵道車輛 全破 혹은 半破 : 7,361대. 터널封鎖 : 79개소. 敵 人員 損害 : 37,350名.
	政 治
	○ 國會, 張勉大使總理認准要請 可決.
	○ 英外相 베빈, 中共外相 周恩來에게 UN軍은 中共政權을 보장할 것이니 韓國侵犯軍을 조속히 撤退시키라고 메시지 보냄.
11월24일	軍 事
	○ 韓國軍 수도사단 淸津南方 11km 육박.
	◎ MacArthur 元帥는 總攻擊지휘차 東京에서 來韓하여 UN軍이 西北戰線에서 終戰을 위한 일대공격을 開始하였다고 言明.
	○ MacArthur 德川 北方 10km 지점까지, 다른 부대는 寧遠 北方 11km 까지 進出.
	○ 美 제24사단, 定州를 통과 13km 前進.
	○ 美 제2사단, 淸川江을 渡河, 球場에 육박.
	○ 中共, 美軍 포로 30명 또 석방.
	○ 美 제1해병사단 柳潭里 점령.
	◎ 西部戰線 總反擊에 참가한 부대 : 韓國 제2군단—제6사단 제7사단 제8사단. 美 제1군단—韓國軍 제1사단,

월 일	중 요 사 항
	美 제24사단, 美 제1기병사단, 英 제27여단, 美 제9군단—美 제25사단, 美 제2사단.
	政 治
	○ 政府, 國民防衛軍設置法案을 國會에 提出.
11월25일	軍 事
	○ 韓國軍 제3사단 合水—白岩 점령.
	○ 韓國軍 수도사단 清津 점령.
	○ 韓國軍 泰川지구에서 北傀의 공격으로 2km 철수.
	○ 中共軍의 反擊으로 韓國軍 寧遠부근까지 철수.
	○ 美 제3사단, 中共軍 제126사단과 접전.
	○ UN軍 定州 점령.
	○ 敵 寧遠부근에 침투.
	◎ 美軍 龜城을 西北兩面으로 攻擊, 美 제24, 제2사단 龜城을 目標로 前進.
	○ 美 제25사단 소속부대 雲山 東南 3km 지점 달환.
	○ 美 제2사단 熙川南方 30km 지점에서 清川江 渡河, 同 소속 先遣隊 熙川 南方 19km 지점에 접결함 北敵와 交戰 中.
	○ Philipines軍 熙川 진출, 제8군 주보급로 확보, 後方경비.
	政 治
	○ 政府, 포로심사위원회규정 공포.
	○ 제5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정부예산 총액 2,438億圓.
11월26일	軍 事

월 일	중 요 사 항
	○ 韓國軍 제3사단 제23연대 羅南으로 轉進.
	○ 韓國軍 수도사단 清津에서 13km 前進.
	○ 美 제1해병사단 長津湖 西쪽 柳潭里에서 中共軍 1개 대대 격퇴.
	○ 中共軍 反擊으로 美 제2사단 清川江 北岸으로 撤退.
	○ 敵 德川 占領.
	○ 我軍 加平 再奪還.
	○ 韓國 海兵隊 제2대대 本浦부근의 殘敵을 격멸코 LST 丹陽號로 鎭海를 경유, 元山으로 向함.
	○ Turkey軍 軍隊里 진출
	政 治
	○ UN新韓委(韓國統一再建團)一行 12名 서울着.
	○ 六·二五事變 中 서울特別市民間被害死亡—17,000名, 家屋被害—30,000餘棟.
11월27일	軍 事
	○ 韓國軍 海兵隊司令部와 제1대대 鐵路 및 陸路로 高城을 출발, 元山으로 向發. 第2大隊 元山에 上陸.
	○ 東北戰線 UN軍 中共軍의 反擊으로 後退.
	○ 美 제8군에 대한 中共軍의 反擊은 美 제25, 제2사단에 의하여 擊破되고 美 제8군 右側面에 대한 中共軍의 反擊은 韓國軍에 의하여 저지됨.
	○ 泰川에서 德川에 이르는 72km 전선에서 中共軍이 反擊을 加함.

월 일	중 요 사 항
11월28일	○ 敵 寧遠 점령, 韓國軍 제2군단의 同防禦線 崩壞. ○ 敵 崔庸健을 補助指揮所司令官에 任命. **政 治** ○ UN政委, 中共代表참석裡에 美·蘇兩代表 韓國問題로 大論爭. ○ UN政委, 中共代表 韓國問題討議不參加하고 台灣問題에만 參加. **軍 事** ○ 수도사단 淸津北方에서 계속 진격 중. ○ 美 제1해병사단, 長津湖 부근에서 격전. ○ 中西部戰線에서 我軍, 中共軍의 反擊으로 점차 후퇴. ○ 中共軍, 德川에서 南下中. ○ 德川지구 殘敵소탕에 敵 600여명 사살. ○ 我軍, 1개월간의 敵 포로 29,000명. ○ 제3군단 10.24~11.28일까지 전과. 사살 4,534명, 포로 3,180명 ○ 불란서군대 釜山 상륙. ○ 美 제7사단 鴨綠江 新乾坡線 점령. ○ 泰國軍, 平壤 도착. ○ 韓國海兵隊 제3대대 土基里에서 敵과 교전. ○ UN空軍, 韓滿國境地帶 보급로와 鴨綠江 鐵橋 爆破 **政 治** ○ 政府, 韓委와의 協議代表로 曹外務, 趙內務長官을 임명. ○ 趙內務長官, 惡質分子 外에는 포섭하겠다고 附逆者 문제에 언급.
11월29일	○ UN美代表 오스틴, 全世界人民은 中共만행을 正視하라고 연설. ○ 美 國防省, 韓國戰況을 樂觀. ○ 英·佛外交界, 韓·滿國境地帶에 緩衝地帶設置說 再擡頭. **軍 事** ○ 美 제1해병사단, 長津湖부근에서 中共軍 약 1,000명 사살. 長津湖西北側의 夜襲을 격퇴. ○ 中共軍 약 5개사단 長津湖 東南方으로 投入. ○ 美 제1기병사단, 順川에서 北進. ○ 德川西南方에서 土耳其軍, 中共軍과 白兵戰, 이를 격퇴. ○ UN軍 淸川江南岸으로 이동. ○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 淸津北方 大津점령. ○ 韓國海兵隊 제3대대 土基里진지에서 來襲한 敵과 交戰 사살 50명. **政 治** ○ 美上院, 軍事委員會긴급회의 개최 韓國에 대한 中共의 집단적 간섭에 관한 토의. ○ 韓國戰爭 확대로 西歐의 株式市場暴落. ○ 英下院에서 베빈外相, 中共의 韓國戰介入은 蘇-中共軍의 陰謀라고 연설. ○ 西歐諸紙, 中共介入으로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韓國戰爭에 관하여 마치 세계 3차대전이 이미 발발한 것같이 취급.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11월30일	**軍 事** ○ 수도사단 제18연대, 富寧 南쪽 兄第洞 점령. ○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 富居 점령. ○ 제3사단 제22연대, 惠山鎭 진출. ○ 제3사단 제23연대 羅南에 집결. ○ UN軍, 新義州飛行場 철수. ○ 美 제10군단에하 제7사단, 제1해병사단, 惠山鎭—新興波鎭—長津湖에서 敵과 대치 중. ○ 美 제 10군단장 東北地區에서 철수명령. ○ 德川—北倉里—安州에 걸쳐 中共軍 反擊. ○ 淸川江北方 寧邊과 球場에서 피아 대치 중.		○ 鐵原, 加平일대의 敵 패잔병 國軍과 警察에 의하여 지리멸렬. ○ 通川에 駐留 中인 韓國海兵隊 제23중대, 元山에 도착 본대와 合勢. **政 治** ○ 政府, 租稅臨時增徵法과 地稅法 공포. ○ 蘇聯, 中共軍撤退案(6개국 결의안)에 拒否權 行使. ○ 英代表, 韓國問題를 拒否權없는 UN總會에 廻附하라고 中共側 反省을 촉구. ○ 트루만 美大統領, 如何한 事態에도 韓國을 不捨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中共에 原子彈 사용도 고려하겠다고 言明.

6. 索 引

人 名 索 引

(ㄱ)

姜景遠 168, 169, 170
姜岐祥 167
姜晩熙 193
姜文奉 66, 287, 307
姜霜求 193
姜聲連 548
姜成熙 53
姜信弘 302
姜永河 548
姜昌熙 388
姜泰龍 638
姜鎬倫 176, 179, 180, 812, 477
桂元喆 183
高根弘 48, 99, 100, 101, 103, 105, 106, 107, 108, 109, 110, 112, 113, 114, 116, 118, 119, 428, 429, 439, 440, 442, 443
高吉勉 172, 376, 377, 378, 379, 380, 381, 383, 384, 386, 387, 388, 389, 393, 632, 691
高白圭 93
高尙遠 731, 745
高相河 376, 382, 384, 387, 389
高漢神 94, 99, 445
高鳳京 750
高興周 477
孔鎭恒 37
郭海顚 746, 747
權錫基 376, 390, 627
權成根 477
權五台 131
權川性 343, 531, 533
權泰順 442
權泰日 511
金甲龍 737
金甲泰 296
金寬大 233
金光植 376, 382, 384, 386, 387, 389, 394
金國柱 464, 683
金圭鎭 470
金基壽 77
金基完 701
金基容 146, 399, 408, 409, 445, 449, 452, 678
金琪鉉 733
金吉成 700
金洛天 637
金大甫 735
金大植 376, 378, 379, 381, 382, 385, 391
金得練 740
金得龍 173, 175, 183, 701
金東斌 101, 146, 149, 153, 155, 157, 158, 159, 160, 161, 163, 164, 167, 399, 400, 401, 403, 405, 406, 407, 409, 410, 445, 447, 450, 464, 678, 679, 680
金東洙 491, 546, 550, 576
金東河 380, 381
金斗萬 176, 179, 182
金斗燦 172
金萬益 199, 216, 222
金明恒 105, 122
金武亭 10, 13, 47, 71, 100, 104, 105, 122, 123, 132, 146, 293, 670
金白一 47, 51, 66, 71, 288, 293, 297, 299, 306, 307, 308, 310, 324, 332, 338, 345, 491, 493, 512, 531, 541, 549
金炳珍 704
金炳億 738
金奉權 453, 465
金奉文 47
金奉辰 734

金鳳翔 71, 306, 312, 314, 315, 316, 318, 324, 335, 340, 342, 343, 491, 493, 496, 549
金鳳洙 497
金士岩 732
金相均 47, 512, 514, 531, 548
金相道 611
金尙春 738
金世暾 131, 144
金世洛 47, 55, 293, 324, 335, 338
金錫範 169
金錫祐 701
金錫源 48
金錫鎭 296
金成道 737
金成龍 176, 178, 179, 180, 182
金性煥 175
金　星 122, 132, 435, 659, 664, 668, 670
金聖恩 389, 391
金　沼 146, 148, 150, 153, 156, 157, 159, 160, 161, 162, 165, 399, 403, 405, 445, 678
金　信 470, 701, 752
金億淳 740, 741
金然翔 635
金王鄕 172
金容培 100, 101, 102, 103, 106, 107, 108, 109, 112, 113, 114, 116, 118, 119, 164, 428, 429, 431, 442, 526, 530, 659, 660
金龍培 122, 132, 139, 435, 436, 439, 440, 660, 670, 671, 672, 674, 675, 676
金龍周 82, 94, 96, 99, 184, 193, 447, 449, 455, 458, 460
金元榮 47, 52, 293, 296, 324, 333, 335, 344, 512, 531
金旭鎔 122, 132, 139, 435, 437, 659
金昊培 497
金雲會 746
金　雄 11, 18
金元洙 466
金允範 750
金潤根 376, 378, 379, 380, 381, 383, 385, 386, 623
金應彬 744
金應烈 63, 301, 547
金應辰 47, 48, 293, 294, 296, 297, 298, 300, 301, 303, 304, 324, 326, 329, 330, 332, 335, 338, 339, 342, 343, 344, 512, 531, 547
金益烈 122, 124, 132, 139, 435, 436, 659, 660, 664, 666
金益顯 233
金仁錫 155
金一河 167
金日成 9, 11, 110, 164, 181, 267, 274, 276, 277, 286, 399, 403, 422, 454, 461, 466, 467, 520, 652, 658, 668, 669, 728
金在恒 701
金點坤 146, 149, 150, 158, 164, 399, 400, 401, 403, 407, 409, 445, 446, 448, 450, 451, 456, 464, 678, 679, 680, 681
金正坤 611
金正雙 507
金正彦 405
金正鉉 575
金貞竟 216, 222
金貞烈 173, 174, 175, 469, 476, 700, 702
金鍾甲 332
金鍾哲 171, 184, 185, 187, 192, 192
金鍾洙 122, 132, 139, 143, 435, 436, 439, 440, 659, 660, 661, 667, 670, 671, 672
金淙舜 47, 48, 293, 295, 296, 298, 300, 301, 303, 305, 324, 326, 329, 333, 335, 338, 339, 342, 343, 344, 512, 514, 531, 548
金鍾植 385, 389, 390, 391, 394, 627
金鍾烈 405
金鍾五 102, 105, 115, 122, 124, 137, 132, 142, 398, 429, 430, 435, 436, 439, 443, 449, 457, 648, 656, 658, 659, 660, 665, 666, 667, 670, 671, 672, 676, 677, 681

金鍾甄 467
金俊敎 436, 437, 659
金俊淵 37
金俊鍾 738
金重洪 377
金振暐 146, 161, 162, 399, 400, 403, 405, 445, 450, 453, 454, 678, 679
金燦福 559
金昌鳳 216, 219, 222
金昌儒 751
金昌龍 751
金 策 10, 13, 723
金 鐵 71
金哲雄 611
金忠男 168, 169
金致九 100
金泰善 729
金判山 54
金 學 71
金顯基 243
金顯稷 510, 575
金賢千 706
金鎬昤 456, 466
金洪根 669
金煌穆 71, 306, 324
金厚進 243
金熙濬 73

(ㄴ)

羅昌云 576
南相徽 168
喃馬利亞 753

(ㄷ)

馬相喆 47, 71, 293, 306
文時哲 193
文正植 122, 132, 139
文濟煥 146, 199
文仲基 737
文泰述 737
文泰俊 344, 512, 531
文鶴東 742
文李泰 403, 448, 463
閔麗植 94
閔容植 376, 379
閔賢植 695

(ㅂ)

朴乾源 173, 701
朴敬哲 612
朴京虎 491, 507, 549, 551
朴啓周 669
朴寬葉 94, 445, 449
朴珖赫 671
朴基政 168, 169, 170
朴德源 684
朴道璟 71, 77
朴東根 624
朴東烈 376, 382, 383, 385, 387, 629
朴斗先 701
朴範集 700
朴炳秀 71, 47
朴秉桂 112, 118, 429
朴鳳伊 753
朴成哲 184, 186, 190
朴昇日 94, 98, 99, 101, 468
朴昇河 503
朴永根 515
朴永濬 146
朴沃圭 695
朴完得 755
朴容德 668
朴益均 304, 317, 319, 324, 491, 507, 549, 552
朴子鎭 510
朴在浩 476
朴定仁 669
朴正俊 741, 742
朴廷鎬 94, 445
朴鍾斐 734
朴鍾秉 47, 55
朴鍾淳 456, 466
朴鍾熙 92, 497, 510, 575
朴珍錫 411
朴贊兢 92

朴天一 756
朴 徹 122, 132, 139, 435, 437, 439, 441, 659, 664
朴徹洙 531
朴忠逢 576
朴致玉 434
朴海民 243
朴憲永 18
朴孝三 229, 239
朴熙東 176, 178, 179, 180, 181, 182
方謹熙 738
裵東赫 391
白南曜 71, 73, 83, 298, 303, 304, 306, 308, 309, 311, 316, 324, 327, 329, 330, 332, 344, 345
白南豹 168, 169, 170, 171, 184 186
白樂濬 37
白善燁 146, 147, 148, 149, 164, 166, 397, 399, 400, 401, 403, 406, 409, 411, 445, 446, 447, 450, 451, 453, 456, 458, 461, 462, 464, 465, 644, 656, 678, 679, 681, 682, 683
白安基 734
白潤基 409
白麟基 168, 169, 611

(ㅅ)

史 勞 105, 122
佐 藤 462
徐武甲 476, 701
徐廷哲 68, 184, 189 190, 296, 512, 531
徐漢浩 476, 700
徐鉉圭 701
石順天 122, 125, 132, 139, 435, 437, 659, 664, 665
石鍾燮 154, 406, 451, 455
石圭岩 166, 403, 450, 451, 464
鮮于宗源 731, 753
蔥桑臻 275
孫悔奉 167, 412
宋基泰 737
宋大厚 122, 132, 134, 435, 437, 659, 664, 665
宋秉俊 543, 545
宋英柱 736
宋堯讚 71, 72, 306, 308, 319, 324, 326, 327 328, 329, 330, 340, 345, 491, 492 493, 549, 550, 565
宋儀植 757
宋寅明 168, 170
宋貴錫 324, 342, 531
申健善 94
申道宗 737
申尙澈 79, 94, 96, 398, 430, 435, 445, 447 449, 458, 460, 461, 468
申性模 66, 82, 339
申榮徹 118, 119, 121
申敬淑 176, 477
申應國 491
申彦國 71, 79, 306, 324, 549
申鉉玉 638
申鉉俊 185, 376, 380, 384, 387, 389, 391 391, 635
沈善澤 625
沈重學 184, 186, 187, 188, 190
沈海澤 638

(ㅇ)

安政一 71, 306, 315, 324, 340, 492, 550
安秉健 146, 162, 400, 407, 454, 678, 681
安秉鳳 755
安相奉 575
安良淳 466
安昌寬 376, 633
安泰甲 576
梁麟錫 94, 446, 460, 468, 469
楊弘植 746
嚴興浩 748
廉鳳生 192, 393
廉昌烈 756
吳白龍 105, 152, 670, 975
吳延鎰 513, 532
吳允燮 105, 122
吳潤泳 449, 466, 684
吳吉石 470

吳正祿 344
吳制道 753
吳熙暎 540
柳京洙 216, 223
柳文鎬 146, 152, 156, 158
柳陽洙 665, 667, 677
柳連相 407
柳義烈 701
柳春馥 742
兪義濟 100, 103, 107, 119, 429, 443
劉敬成 146, 150, 161, 400, 451
劉載琓 357
劉載興 73, 100, 112, 122, 132, 398, 429, 440, 450, 644, 659, 670, 683
陸根洙 574
陸東旭 638
尹根雙 706
尹東根 577
尹英遠 615
殷碩杓 47, 55, 293, 324, 513, 532
李康學 577, 747
李鯨源 612
李敬南 137, 144
李寬熙 433
李根馥 742
李健武 12, 239
李啓俊 737
李基元 155
李吉星 175
李吉泳 324, 335, 340, 492, 559
李奇建 94, 96, 98, 469
李大浩 671, 672, 676
李斗燦 146, 200, 626
李明欽 23
李成重 146, 150, 157, 160
李秉衡 550, 557
李福鉉 701
李鳳出 376, 382, 386, 387, 389, 636
李尙根 87
李相垂 176, 180, 183
李西根 392, 394, 628
李成佳 100, 105, 116, 143, 399, 430, 448 656, 671
李成浩 168, 170
李成春 701
李成桂 740
李成鳳 71, 76, 306, 492, 501, 550
李聖薰 436, 641, 659, 664
李世鎬 107
李世煥 748
李承俊 260, 146
李承晩 86, 268, 278, 286, 307, 339, 341, 456 456, 676, 752
李承燁 18
李勝虎 233
李彦廸 83
李蓮燮 100
李英鎬 199, 216, 218, 222, 429
李永來 105, 122
李元杜 576
李元春 508, 577
李 龍 574
李容順 753
李益宣 146, 199
李益成 243, 245
李仁錫 612
李日駿 701
李章潤 478
李存一 681
李鍾鼎 413
李政洙 333
李鍾贊 47, 67, 75, 293, 307, 324, 333, 693 513, 530, 531
李鍾吉 406
李存一 146, 150, 156
李周一 142, 246, 444
李在徹 460, 465
李在俊 737
李再起 94
李俊植 525
李俊鎬 757
李枝雨 749

李昌龍　58
李昌運　293, 303, 335, 513, 515
李昌煥　630
李讚柱　577
李清進　478
李鐵英　100
李春承　155
李致業　47, 53, 293, 301, 324, 333, 340, 513
李夏榮　77
李翰林　115
李學九　208, 216, 223
李鶴烈　736
李鉉相　730
李玄永　155
李海鎭　748
李弘熙　638
任龍學　155
任忠植　63, 71, 73, 294, 300, 306, 318, 327, 338, 344, 492, 550
印聖鎭　436, 441, 659, 670
林觀默　71, 78, 306, 492, 506, 553
林寄澤　103, 116, 124, 132, 140, 659, 666, 671, 677
林遠澤　436, 441, 444
林炳根　531
林　浩　468

(ㅈ)

蔣介石　269, 270
張大吉　393
張德昌　173, 174, 469, 700, 702
張東雲　548
張得天　747
張　勉　37
張命圭　744
張盛煥　703, 706
張永鍾　455, 684
張在益　751, 752
張春權　71, 77, 306, 309, 312, 314, 315, 319, 320
田龜書　476
全明燮　701
全炳斗　744
田鳳熙　176
全昌明　476
全完奎　756
全璋謨　742
田宗郁　343
田哲圭　744
全哲雄　168, 172
鄭京鳳　753
鄭光鎬　184, 186, 188, 193
鄭鏡謨　171
鄭鎬鎭　376, 381, 386, 389, 394
鄭奉兆　751
鄭奉柱　176
鄭成俊　748
丁世鎭　71, 77, 306, 319, 321, 324, 327, 328, 335
鄭淳琅　47, 56, 293, 324, 336, 338, 344, 512, 531
鄭昇和　71, 77, 314, 575
鄭時圭　168, 169
丁永鎭　176, 178, 179, 180, 182, 477
鄭永洪　146, 162, 165, 399, 403, 405, 445, 453, 678
鄭元赫　465
鄭貢院　100, 112
鄭任植　405
丁一權　66, 268, 287, 288, 307, 458
鄭泰燮　738, 745
鄭鉉淵　750
鄭亨澤　684
趙光烈　100, 101, 112, 428
趙南八　314
趙明宰　747
趙炳玉　37, 494, 730, 752
曺鳳植　388
趙成來　146, 152, 154, 156, 158, 399, 408, 409, 445, 449, 452, 678, 682
趙成俊　192
趙時元　737

趙德衍 754, 755
趙元泰 745
趙在英 146, 161, 162, 163, 164, 399, 400, 401, 405, 407, 409, 410, 445, 446, 448, 450, 453, 456, 463, 465, 678, 979, 680, 681, 682
趙柱泰 412
鍾德遠 376, 382, 385, 623
周恩來 275
朱雲化 756
朱鍾哲 477
池錫錡 333, 334

(ㅊ)

車甲俊 146, 150, 153,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5, 399, 403, 405, 445, 678
蔡在錫 611
蔡伊錫 751
崔景綠 287
崔 光 146
崔大明 448
崔魯株 466
崔凡述 752
崔炳淳 146, 150, 153, 154, 156
崔富英 169, 170
崔尙俊 47, 55, 293, 324, 531, 532
崔 錫 531, 549
崔錫采 735
崔榮喜 146, 148, 150, 153, 154, 156, 158, 159, 161, 678, 681, 683
崔盾健 10
崔用德 700, 702, 706
崔 仁 71, 72, 306, 448
崔仁斗 112, 428
崔元雨 507
崔元文 477
崔元株 507
崔廷植 47, 55
崔貞鐸 87
崔宗泰 70
崔周鍾 94
崔昌濟 163
崔昌彦 94, 96, 98
崔昌煥 94
崔 天 740
崔致煥 736, 749
崔 赫 71
崔 賢 12, 233, 239
崔勉雙 94

(ㅎ)

韓奎澤 629
韓綿錫 750
韓順華 146, 154, 156, 158, 399, 408, 409, 445, 452, 464, 678, 682
韓 信 71, 73, 75, 79, 298, 312, 316, 318, 320, 324, 327, 329, 330, 332, 336, 338, 340, 342, 344, 491, 494, 549, 550
韓鏞顯 173, 175, 183, 700
韓禮澤 376
韓日東 243
韓周弘 531, 532
韓俊明 337
韓 虎 92
咸炳準 103, 122, 124, 125, 130, 131, 132, 435, 436, 440, 659, 660, 665, 666, 671, 673
咸裕鎭 491, 497, 549
許德和 168, 172, 611
許容尤 22, 132, 139
許允帙 394
許 政 37
許亨淳 65, 293, 295, 324, 334, 339, 345, 512
支時學 168, 172, 611, 691
洪斗鎬 293, 298, 512
洪 林 112, 428
洪允範 701
洪鎭俊 756
黃 泳 376, 382, 383, 385, 386, 623
黃憲親 287

(A)

Acheson 273, 280
Allen, Frank A. 424, 655, 658
Allen, Leven C. 235
Allen, W. P. M. 222, 645
Almond, Edward M. 246, 377, 397, 415, 490, 501, 510, 517, 547, 568, 574, 578, 583, 583, 584, 491, 597, 598, 599, 605, 608, 609
Archer, Stephien Morris 360, 696, 697, 698, 699
Arnold, S. H. 361
Austin, Bernard. L. 254, 579
Ayres, Harold, B. 222, 685
Azurin 721

(B)

Baker, Robert W. 212
Barr, David G. 578, 597, 599, 605, 607, 609
Barth, George B. 222, 685
Beauchamp, Charles E. 222, 597, 685
Blair, Melvin R. 243, 252, 253
Boelofs, J. B. 685
Bowen Jr, Frank S. 484, 643, 648, 650, 661
Burke, Arleigh A. 582

(C)

Celar, Dora 723
Champney, Arthur S. 243
Check, Gilbert J. 243
Church, John H. 222, 223, 224, 229, 232, 400, 413, 426, 446, 461, 656, 685, 689
Churchill 270
Claifford 457
Clainos 413, 414, 417, 426, 445
Clainos, Peter D. 199, 207, 413, 414, 445
Clay, Donald N. 698, 699
Coad, Basil A. 222, 413, 416, 418, 446, 645, 653, 685, 686, 723
Cole, Eugene J. 243
Conley, Edgar T. 212
Corley, John T. 243
Coulter, John B. 20, 243, 246, 724
Coursen, Samuel S. 418
Crombez 411, 421, 453, 457, 464
Crombez, Marcel B, 144, 199, 200, 404, 413 416, 417, 445, 449, 457

(D)

Damney 580
Deforest, Don 360
Dennel, A. P. 645, 656
Dolvin, Welborn G. 249, 251, 252, 253
Dowd, B. S. O. 685
Doyle, James H. 254, 578
Drewery, Marshall D. 420
Duke, Irving T. 254, 579

(E)

Eberle, George L. 579
Edward, James W. 233
Emmerich 69
Epley, Gerald G. 236
Ewen, Edward C. 254, 361, 539

(F)

Ferguson, I. B. 645, 685, 688
Fisher, Henry G. 243, 244, 245, 248
Flym, John R. 211
Foster, Ralph L. 458
Freeman, Paul L. 233, 234, 240

(G)

Gay, Hobart R. 199, 200, 202, 203, 397, 400, 404, 413, 414, 415, 416, 422, 426, 445, 446, 448, 449, 452, 456, 457, 458, 461, 720
Gillies, J. B. 228, 645
Gravener, W. N. 645, 685
Green, Charles H. 413, 645, 656, 657, 685, 687, 723
Growden 399, 445, 678

(H)

Hamby, William R. 750
Harrop, William 263
Hartman, Charles, C. 254, 580
Henderson, George R. 254, 581
Hennig, William H. 403, 411, 445
Hennis, William H. 400, 673
Harris, William W. 413, 414, 415, 416, 417, 418, 423, 445, 446, 457
Hickey, Doyle O. 579, 581
Hill, John G. 214, 233
Holly, William C. 199
Howard, Billie 214
Huee, Gilmon A. 413, 417
Hutchin, Chaire E. 233

(J)

Jebb 279
Jensen, Carl C. 222
John, Valdor 655
Johnson, Harold K. 199
Johnson, Louis A. 41
Jones, John P. 216, 217
Josey, Claude K. 653
Joy, 365, 516, 582

(K)

Kane, Robert W. 199, 413, 414, 418
Kean, William B. 243, 244, 247, 249, 251, 720
Keiser, Lawrence B. 233, 234, 240
Kieter 609
Kingston, Robert C. 609

(L)

Laughlin, D. 645, 685
Lee, Joseph D. 369, 370
Lynch, James H. 413, 445, 456

(M)

MacArthur, Douglas 28, 29, 32, 90, 164, 185, 200 205, 209, 215, 259, 262, 218, 269 273 284, 285, 286, 287, 294, 312, 316, 330 341, 369, 371, 397, 403, 414, 415, 447 456, 461, 462, 463, 479, 480, 482, 484 516, 579, 580, 581, 582, 583, 608, 643 645, 651, 658, 677, 679, 681, 685, 686 713, 726, 729
Man, A. M. 645
Mancil, Edward C. 214
Marshall, George C. 41, 285
Mc Cattrey, William J. 515
McConnell, John A. 421, 685
McMains, D. M. 233
McPhail 60
Meloy 222, 251
Menon 271
Milburn, Frank W. 148, 149, 201, 205, 222 223, 232, 246, 397, 398, 400, 401, 413 414, 415, 423, 445, 446, 447, 452, 456 457, 463, 464, 467, 656, 679, 682, 683, 690
Morre, Ned D. 222, 685
Muir, Kenneth 228, 229
Murray, Raymond L. 578, 586

(N)

Nehru 29, 280
Neilson, G. L. 222, 228, 645, 685
Nielson, Neslie 413, 425
Nist, Cecil 199, 200, 207
Noseth 360

(O)

O'Donnel, Emmett Jr. 258, 707, 713
O'Dowd, B. S. 645, 685
Ordway, Godwin L. 216, 217
Ormond, Robert J. 413, 418
Ovenshine, Richard P. 597

(P)

Palmer, Charles D. 199, 445
Palmer, Raymond D. 199, 200, 413, 414, 416 417, 445

Panikkar, Sardar M. 275
Partridge, Earle E. 258, 262, 367, 369 370 591, 707, 712
Patton 411
Peploe, George B. 233, 234, 235
Perez, Gines 685, 689
Person, Warren Roy. 257
Powell, Herbert B 546, 597, 601, 605, 608
Puller, Lewis B 578, 586

(R)

Radcliff 228
Reifer, Raymond N. 252
Rhea, Robert L. 222, 685
Roberson, Horace 722
Roberts, Paul F. 243
Rodgers, William M. 648, 651
Romulo 280
Roosevelt 269
Ruble, Richard W. 254, 579

(S)

Saunders, R. W 645, 685
Sawyer, Robert K. 252
Sherrard, R. G 233, 237, 241
Skeldon, James, H 233, 236
Smith, Allan E. 254, 578, 593
Smith, Charles, B. 222 685, 689
Smith, John H. 418
Smith, Oliver, P. 578, 586
Soule, Robert H. 595, 596
Spofford 254, 257, 360, 361, 366, 579, 696
Stephens, Richard W. 222, 224, 230, 413, 421 426, 685, 689
Stewart, George C. 415
Stratemeyer, George E. 258, 259, 262, 367 371, 372, 478, 480, 481, 482, 652, 707 712, 713
Struble, Arthur D. 254, 257, 364, 365, 598 696, 697

(T)

Teeter, Bernard G. 243, 245, 246
Throckmorton, John L. 222, 230, 685, 686, 720
Torman, Charles J. 247, 248, 251
Truman, Harry S. 29, 35, 41, 267, 268, 274 275, 278, 284, 286
Tucker, Richard. 655
Tunner, William H. 367

(W)

Washington. 247, 276, 285
Walker, Walton H. 101, 202, 205, 209, 212 236, 247, 286, 288, 296, 299, 339, 401 414, 415, 423, 447, 456, 482, 483, 579 580, 581, 643, 678, 682, 685, 690, 696 697, 727
Webel, James B. 415, 424, 457
Weible, Walter L. 686
Weylend 372
White, Horton V. 243, 244
Whitney 652
Wikines, John L. 243, 245
Willoughby J. E. F. 222, 227, 645
Wilson, A. D. R. G. 222, 645
Wilson, Richard G. 656
Woonough, James K. 445, 449, 456, 458
Wright, Edwin K. 579, 652

地 名 索 引

(ㄱ)

加馬峰 673
加七峰 314
加 平 12, 139, 749
佳 林 530
佳目里 140
佳川里 158
架 山 21, 45, 146, 147, 148, 149, 150, 153 156, 165, 167, 200, 206
假 倉 428, 431, 643, 659
杆 城 291, 294, 295, 297, 298, 300, 301 311, 312, 314, 316, 382, 385, 386 391, 519
葛 嶺 291, 292, 489
葛雁半島 325, 334
葛 峰 154
甘 浦 171
甲 山 17, 497, 506, 536, 545, 548, 607, 609 742
甲山谷 555
甲山里 73
江 景 26, 241, 249
江 界 13, 178, 180, 428, 429, 433, 434, 471 479, 643, 659, 679, 709, 713
江 東 346, 398, 433, 434, 436, 441, 443 446, 447, 449, 493, 514
江 陵 14, 37, 62, 268, 287, 288, 291, 293 294, 296, 297, 300, 307, 308, 310, 311 377, 378, 473, 513
江西里 469
江坪里 160
降仙洞 571
价 川 16, 174, 429, 441, 473, 643, 659, 660 661, 662, 664, 665, 667, 668, 679, 680 681, 683, 684
蓋馬高原 492, 601
開 寧 158
開 城 14, 164, 215, 397, 400, 401, 414, 416 417, 421, 462, 742
巨梅洞 130, 149, 152
巨門洞 554, 555
巨濟島 208, 694
巨津里 300, 312
居金島 170
居 昌 26, 240, 739
建州山 564, 565
乾 川 96, 107
檢 洞 631
劍 山 546, 548
劍端村 554
劍德山 601
見山里 291, 292
兼二浦 178, 180, 368
鏡 城 533, 566
慶 山 38, 223
慶 州 9, 21, 38, 94, 95, 96, 99, 101, 200 223, 473, 597, 736
桂伏山 308
고령洞 563
古 鏡 96
古美城 405
古城里 508
古仁洞 656
古 場 33, 672, 673, 676
古結洞 530, 547
古土里 501, 587, 591
古土面 604
古坪洞 102, 103, 129
古縣里 57
固 城 38
高谷洞 153
高良浦 14, 27, 164, 165, 166, 167, 397, 400 401, 402, 403, 411, 412, 414, 463

高　靈　241
高　城　31, 115, 19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12, 321, 322, 327, 381, 382
383, 385, 386, 387, 389, 471, 513, 623
高旺山　400, 403
高龍源　82
高　原　292, 341, 489, 491, 492, 493, 512
高　陰　738, 745
高興半島　170
古　城　291, 292, 299, 303, 304, 326, 329, 330
332, 336, 338, 344, 346, 352 380, 381
382, 388, 512, 513, 586
谷　山　32, 398, 406, 428, 430, 431, 433, 439
441, 446, 458, 471, 473, 627
谷　城　184
昆季峰　73
公　州　737
孔黃里　627
功城面　158
郭　山　178, 179, 479
官基里　159, 161, 162
官心洞　157
館坪里　605
館靈里　635
光德里　133
光　州　184, 185, 740
廣院里　91, 295, 308, 309
廣　州　98, 742
廣知嶺　571
廣回里　62
槐谷洞　157
槐東洞　48
槐　山　133, 161, 162, 163, 413
槐花里　291, 304, 305, 326, 328, 329, 345
敎洞里　505
九九嶺　548
九萬里　116, 140, 141
九山洞　46, 100, 101, 102, 103, 105, 107, 12
九城洞　405
九龍江　679, 682
九龍里　627
九龍山　644
九化里　397, 405, 411, 412
求　禮　184, 249, 251
球場洞　33, 431, 432, 434, 666, 671, 677
龜　尾　154
龜　城　33, 684, 687, 690
龜阳洞　101
菊秀峰　403, 405
國主峰　314
君子山　160
群　山　24, 243, 253, 355, 356, 358, 615
軍隅里　36, 415, 429, 546
軍　威　13, 27, 149, 152, 153, 154, 156, 158
166
掘岩里　160
極　洞　558
根溪洞　77
金剛山　291
金　谷　165, 403
金廣洞　572
金丹里　160
金　陵　38
金鰲島　170
金山洞　150
金　城　628
金城里　554
金城山　128
金積山　163
金津江　491, 493
金　川　215, 302, 314, 346, 397, 399, 400, 401
402, 404, 406, 414, 416 417, 418, 419
421, 422, 471
金　化　12, 326, 435, 444, 762, 725, 729, 743
金　華　154, 155, 156
錦　江　10, 232, 252
錦舞峰　203, 217, 219
錦　山　154, 241
錦陽洞　124
錦川洞　551
琴湖洞　24, 156, 224
杞　溪　26, 75, 94, 96, 103
騎龍山　101

吉 島 170
吉 州 17, 369, 471, 489, 490, 532, 533, 547 550, 551, 554, 555, 602, 606
金 堤 249, 738
金 泉 11, 22, 201, 210, 226, 230, 259, 414 597, 658, 721
金 浦 10, 358, 374, 375, 380, 481, 484, 645 649

(ㄴ)

羅 南 320, 368, 471, 490, 503, 533, 540, 543 551, 554
羅老島 170
羅北川 567
羅原里 77
羅 津 612
羅 州 184, 188, 191
나삼리 499
洛東江 10, 94, 108, 109, 147, 148, 149, 155 157, 158, 159, 165, 166, 168, 173, 184 200, 261, 267, 414, 580, 643, 675, 720 724, 729
洛東里 148, 158, 201
南 江 246
南 溪 541, 542
南溪洞 86
南台川 113
南大川 291, 305, 327, 328, 332, 335
南山洞 150
南山里 86
南 石 533, 561
南 市 178, 180
南城洞 48
南 陽 629
南 原 241, 252, 736
南元里 126, 127
南中里 543, 545
南 川 721
南川店 406, 407, 419, 422, 423
南漢江 115
南海島 169, 170
南潭洞 58
狼林山脈 508, 580
浪 城 161
乃 洞 152
內山里 161
乃 城 63
老堂里 82
老堂峠 79
老人洞 156
路東里 74
碌磻里 166
論 山 27, 233, 241
農浦洞 572
陵 曲 542
陵 里 412
里仁洞 56
枇田里 519

(ㄷ)

多富洞 9, 25, 122, 147, 149, 152, 153, 154, 155, 156, 166, 167, 200, 201, 202, 203
丹邱里 84
丹 陽 13, 105, 110, 113
端 川 17, 470, 471, 504, 532, 548, 549, 550 574, 599, 603, 611
斷髮嶺 513
達 城 38
達田洞 57
潭 陽 184, 750,
當谷洞 157
唐隅里 532
大角峰 545
大 岡 113
大關嶺 64, 307, 308, 309, 310, 494, 513
大光里 118, 120
大 邱 9, 22, 94, 101, 147, 148, 149, 150, 152, 153, 155, 156, 159, 173, 174, 175, 176, 200, 207, 246, 371, 374, 375, 472, 477, 598, 702, 721, 723, 724, 725, 730
大狗尾 516
大岩山 314

大寧江　686
大遠山　555
大栗洞　45, 147, 148, 149, 150
大　田　14, 164, 201, 231, 375, 401, 414, 462, 473, 724, 725, 753
大前洞　74
大駝嶺　456, 466
大項里　566
大和里　89, 307, 309
德南里　76
德山嗣　501
德山里　504, 551
德順山　56
德岩里　627
德　源　292, 337, 338, 339, 340, 341, 342, 346, 378, 398, 436, 437, 491, 513, 623, 659, 666
德　川　16, 429, 432, 434
德川洞　74
德　泉　126
刀川里　88
桃開洞　158
棲　洞　570
桃源洞　102, 105, 124
都邱洞　48
道納里　291, 317, 319, 321, 327, 328
陶農洞　115
陶岩洞　99
道德山　79, 147
道洞里　571
道陰山　56
道只里　73
理拜洞　26
圖場洞　514
突山島　170
東　谷　153
東道洞　94
東豆川　116, 435
東　藥　175
東林山　433, 673
東山面　134
東　星　98
東　岩　544
東　陽　627
東井里　500
東川里　496
東　村　147, 157
東平墟　398, 481
桐非洞　161
斗南洞　291, 566
斗流里　72
斗山里　160
杜　谷　165
豆滿江　278, 325, 337 489, 501, 550, 574, 58
豆石山　418, 420, 422
屯德洞　150

(口)

馬　谷　159
馬老面　159
馬登嶺　537, 537, 595
馬嘶洞　153, 155
馬　山　22, 200, 243, 643
馬瞻里　165, 404
馬息嶺　292, 146, 513, 624, 635
馬息里　437
馬息嶺山脈　513
麻田里　116, 164, 165, 501, 504, 521, 527
馬轉里　34, 292, 337, 338, 340, 341, 342, 344 346, 387, 388, 389, 437, 489, 491, 512, 513, 586, 587, 623
摩天嶺　504, 599
摩天嶺山脈　506
麻　浦　166
萬世橋里　99
萬月嶺　162
滿浦鎭　33, 178, 180, 500, 644, 646, 652, 671 674, 677, 682
萬峙里　161
末輝里　291
忘憂里　99
梅谷洞　149, 150, 153

梅峰山 154
梅仙洞 94
孟 山 434, 460, 471, 546
明澗川 533, 557
明堂洞 107
明沙十里 378, 587
鳴牛站 485
明 川 471, 490, 510, 533, 547, 550, 551, 554, 555, 603
牟東面 158
牡丹峰 32, 398, 453, 454, 460, 463, 464, 465 469
毛津橋 137, 139
木 浦 169, 170, 171,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257, 377, 611, 615, 635, 692
妙香山脈 644
無極里 161
武陵山 72, 133
茂 山 490, 532, 542, 709
務 安 184
舞乙面 158
墨 湖 16, 64, 171, 172, 352, 377, 378, 695
聞 慶 27, 95, 97, 98, 162, 597, 598, 735
文頭洞 140
文 幕 135
文寧里 499, 518
文山里 160
汶 山 215, 726
文星里 505
文 陽 292
文 義 160
文 川 292, 337, 338, 339, 340, 341, 343, 491, 493, 495
文坪里 292, 515, 625
文興里 493
美 林 174, 176, 178, 181, 472, 476, 477, 481
彌阿里(서울) 115, 116
米 院 46, 159, 160, 161, 162, 163, 166, 16,
密 陽 9, 248

(ㅂ)

博 川 33, 178, 180, 471, 644, 676, 686
半月島 170
盤龍山 494, 496
方漁津 598, 599
方峴里 498
白 山 527, 551, 602, 606
白 岩 490, 532, 533, 537, 542, 551
白岩山 505, 506, 515, 548
白雲山 113
白 川 14, 165, 414, 417, 418, 420, 421, 423 742
凡 浦 352
碧 潼 33, 433, 643, 676
普門洞 73
普賢山 26, 45, 101, 102, 106
報 恩 12, 27, 159, 160, 163, 166, 167, 203
堡壓洞 592
堡 田 554, 555, 561
寶 城 750
卜老洞 155
卜 峴 150
福溪里 430
奉日川里 164, 165
奉 化 734
鳳 岡 535, 555
鳳下里 498
鳳凰山 60
父三里 500
扶 安 250, 505
赴戰嶺 505, 506
赴戰湖 17, 492, 494, 549, 554, 599, 606, 607
富居洞 490, 570
富東里 503
富民洞 496
富岩洞 564
富 寧 36, 489, 490, 543
富坪洞 564
富興里 504
釜 山 9, 30, 147, 166, 172, 277, 352, 353,

354, 427, 561, 595, 597, 614, 637, 691, 692, 694
北溪水 539
北岳山 99
北　陽 397, 404, 421
北　鎭 666
北　倉 403, 429, 431, 546, 643, 659
北　靑 17, 471, 489, 490, 532, 548, 549, 666
不老洞 148, 150
佛國山 116
佛　洞 149, 153, 154
毘盧峰 314
飛雲嶺 291, 305, 328, 332, 345
飛雲里 328
飛鵬山 57

(ㅅ)

史北面 140
史倉里 141
寺　洞 532
沙里院 15, 260, 397, 398, 422, 423 424, 425, 426, 447, 449, 462, 471, 483, 648
沙尾川 400, 401, 404
泗　川 720
社倉里 490, 532, 543, 548, 603
射亭里 48
사세호(佐世保) 256
朔　寧 397, 398, 401, 402, 403, 406, 411
朔　州 472, 620, 713
山　淸 12
三街里 161
三　谷 113
三歸洞 94
三　登 398, 446, 459
三台里 667
三星面 188
三　成 161
三　水 409, 508, 545, 548
三浪津 184, 223
三伊洞 85
三日峠 160
三　陟 16, 62, 294, 296, 377, 378
三千浦 46, 169, 611, 616
上　洞 555
上白開洞 627
上場洞 155, 157
上玉洞 96
上玉里 50
上林洞 155, 156, 158
上立石里 532
上地嶺里 610
上直洞 503
上草里 160
上通里 489, 521
上　坪 153
尙　州 12, 148, 149, 155, 156, 157, 158, 159 162, 163, 166, 201, 414, 735
桑　陰 291, 292305, 326, 327, 328, 329, 330, 332, 345, 518
祥　原 399, 410, 411, 412, 463, 464
祥原里 409
雙峰里 520
雙岩里 160
生氣嶺 534, 566
生旨洞 48
서　울 94, 99, 164, 165, 167, 168, 171, 173, 174, 175, 176, 184, 185, 186, 187, 209, 270, 285, 597
西溪里 96
西陽里 509, 510, 549, 554, 603
西　林 26, 46, 295, 307, 308, 309
西井里 50
碧　院 140
碧院里 161
瑞　興 398, 423, 424, 427, 446, 449
石隔洞 149, 150, 153, 154
石隔里 606
石　嶺 155
石峴里 292
禪玉寺 326
仙谷里 160, 163
宣　川 17, 33, 179, 461, 471, 619, 656, 679
船所里 169

善 山 38, 157, 158, 166, 210
雪盛山 291
成 南 623
成 月 161
成 川 33, 346, 398, 428, 431, 433, 434, 439 440, 441, 443, 447, 473, 492, 494, 497, 643, 659, 664, 666, 667
城 德 490, 535, 539, 554
城 津 17, 174, 256. 352, 353, 354, 358, 369, 473, 489, 490, 495, 532, 549, 550, 555, 611, 616, 679, 696
星水洞 157
星 州 25, 225
細 川 312
小頭流山 492, 512
小登嶺 540
小白山脈 159. 160
小龍島 170
小左峰 292
昭陽江 137
素 砂 164
束 草 300, 352, 611
束沙里 91
俗離山 160
松街里 398
松內里 55
松堂里 499
松島津里 623
松 洞 543
松上里 627
松隅里 315
送友里 607
松 田 291, 304, 325, 326
松田半島 489, 492, 512
松亭里 160, 161
松 現 305
松潮洞 55
水 洞 489, 512, 587
水上里
水安堡 97, 98
水 原 10, 22, 148, 149, 158, 164, 166, 184, 201, 374, 375, 400, 414, 597, 711, 742
水 豊 679, 681
守山里 61
輸 城 568
秀達里 292
修理峰 139, 140
遂 安 15, 397, 398, 400, 402, 407, 408, 409 411
壽 長 160
椒 島 611
肅 川 17, 479, 484, 643, 645, 646, 647, 649 650, 651, 652, 653, 659, 658
淳 昌 745
順 川 33, 441, 443, 456, 470 471, 473, 478 479, 484, 628, 643, 645, 646, 647 651, 652, 654, 655,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4, 667, 668 679, 680, 681, 684, 685, 726
瑟 寧 533
市邊里 36, 397, 400, 401, 402, 404, 405, 406 411, 413, 421
新安渡鎭 159, 610
新高山 31, 291, 292, 304, 305, 306, 309, 317, 319, 320, 321, 325, 326, 327, 328 329, 330, 332, 336, 345, 380, 391, 398, 435, 436, 417, 444, 524
新 溪 397, 400, 402, 406, 409, 412, 428, 429, 430, 441, 443, 462, 471, 498
新溪邑 99, 406, 407
新塘里 398, 423, 424
新 德 542, 555
新島場 676
新東里 498
新 幕 479
新反里 25
新北面 99
新北青 489, 503, 547 600
新設洞 99
新安里 318
新安山里 437
新安州 176, 178, 368, 372, 479, 644, 645,

647, 651, 658, 662, 669, 679, 681
新 寧 45, 101, 103, 122, 123, 126, 147, 154, 670
新義州 33, 178, 180, 406, 461, 481, 619, 643, 646, 679, 709, 713, 715
新元下里 602
新 林 114, 115
新酒幕 149, 150, 153, 157
新昌里 292, 489, 490, 512
新灘里 120
新塔洞 551
新 浦 489
新 豊 501
新 興 471
新興里 493, 551
深 浦 544

(ㅇ)

彌屯里 519
阿 陽 568
아치洞 126
阿 火 45, 94, 95
阿虎飛嶺 628
安 康 9, 21, 75, 94, 102, 209, 291, 301, 509
安谷洞 158
安 東 13, 26, 96, 101, 110, 113, 473, 619
安 城 27, 164, 167, 401
安 邊 291, 381, 391, 305, 321, 335, 489, 512, 633
安 州 17, 284, 442, 470, 643, 681, 687
安 義 241
安仁津 64
安泰峰 77
安 平 493
安興里 292
鴨綠江 33, 295, 302, 328, 339, 399, 415, 463, 481, 588, 609, 643, 674, 709
野沙里 292
良見里 563
暘 谷 540
楊 口 12, 291, 300, 312, 321, 471, 744
良 洞 76, 509
陽 德 32, 292, 337, 340, 345, 389, 399, 425, 438, 441, 493, 624, 659
梁文里 99
梁 山 38
襄 陽 14, 291, 294, 297, 307, 321, 391, 515
陽 化 502, 533
楊 平 66, 99, 112, 117, 137, 481
漁大津 550, 555, 564
漁郎川 33, 490, 535, 551, 604
魚鳳山 106, 107
漁岩里 161
於雲里 514
漁遊里 543, 573
彦眞山脈 447
麗 水 46, 169, 170, 253, 612, 694
驪 州 742
女王山 291, 491
汝矣島 46, 173, 181, 469, 477
延 安 408, 424
延 川 99, 112, 118, 164, 399, 429, 436
延 日 38
連 浦 34, 489
驛馬山 106, 107
煙台峰 521, 558, 589
永登浦 11, 164, 175, 260, 351
寧 邊 17, 429, 471, 678, 684
寧 越 13, 65, 306, 309
英 陽 64
盈 德 26
葉山江 190
葉山浦 184, 191
葉 州 26, 102, 106, 113, 734
永 同 27, 232
永上里 607
永 安 557
永岩里 629
永 川 9, 13, 21, 94, 101, 122, 147, 167, 173, 472, 473, 733
永 興 33, 292, 341, 359, 344, 365, 378, 489, 495

永興灣 255, 325, 612
迎日灣 352
嶺 下 545
靈 山 9, 200, 223, 261
靈 岩 184, 187, 190, 739
五佳子 98
五台山 13, 307 308, 309
五老里 489, 490, 585, 600
烏 山 27, 158, 184, 214, 415, 720
五峰里 72
吾上洞 564
梧陰里 146
五松里 158
玉山里 79, 96
玉蓮洞 573
玉山洞 158, 159
玉洞里 88
玉坪里 292
沃 川 12. 27
溫 井 681, 690
溫井里 17, 316, 383, 385, 391, 399, 428, 441, 518
溫水坪 558
溫泉里 566
倭 館 9, 10, 21, 122, 155, 157, 200, 217, 415, 721
外金剛 518, 315
完 谷 150, 154
旺落里 496
旺土里 494
龍康里 186
龍 谷 153
龍九洞 561
龍 基 481
龍潭里 515, 554
龍堂里 516
龍德洞 48
龍 洞 557
龍里里 518
龍頭里 99, 135, 411
龍門山 115
龍 山 164
龍山洞 140, 562
龍玉里 532
龍牙洞 126
龍岩浦 178, 179
龍岩里 556, 663
龍 淵 671
龍非里 157, 158
龍內里 519, 555
龍川洞 564
龍泉里 519
龍 浦 90, 492, 513, 308
龍浦里 636
龍灘里 492, 513
龍太里 501
龍虎里 551
禹哥里 608
雨水里 115
牛峴洞 55
雲溪里 133
雲 洞 315
雲東里 495
雲 山 33, 644, 678, 682, 684
雲潭里 608
雲南里 494, 497
雲梯山 48
雲龍里 498
雲浦里 518
雲鶴里 602
蔚 珍 16, 50, 62, 293, 377, 691
蔚 山 598
元洞里 563
院 洞 51
院 里 646, 647
院下里 494
元 山 9, 30, 164, 185, 190, 255, 284, 292 351~398, 416~447 471, 489, 512, 580 616, 659, 677, 691, 702
元 通 300, 312, 321
元豊里 507
元興里 495

元坪里　292
原　州　10, 12, 98, 110, 132, 135, 137, 139, 475, 581
原昌里　134
原峠嶺　510
月　峰　291
月尾島　9
月龍里　161
月出山　184, 185
渭川里　398, 401, 407
蛇　裳　541, 571
熊耳江　604, 606
熊耳川　594, 604
陰　城　161, 162
有琴里　50, 73
柳潭里　595, 596, 608
柳上洞　94
柳亭洞　557
柳亭林　537
裕　洞　626
유관洞　564
有天里　555
有證里　495
遊鶴山　21
六老里　602
栗　里　397, 400, 410, 445, 458
義　城　13, 26
宜　寧　247, 248
議政府　10, 31, 516
義　興　25
이와구니(岩國)　263
이다쓰기(板付)　621
利　洞　158
裡　里　28, 241, 252
移來峴　85
利　川　98, 598, 742
伊　川　10, 346, 399, 430, 442, 472, 722
利　原　371, 489, 497, 520, 547, 600, 604
梨花嶺　599
仁邱洞　101
仁邱里　112, 285
仁　洞　156
仁底洞　85
仁旨洞　57
仁　川　9, 30, 148, 166, 175, 184, 190, 200, 262, 277, 279, 358, 374, 416, 463, 578, 637, 692, 724, 731
仁次里　159
仁嵐里　140
仁　平　442
仁興里　519
日山里　627
日新洞　528, 551
日月洞　48
麟　蹄　13, 300, 307, 315, 471
臨陂津　63
臨津江　31, 118 164, 165, 215, 402, 415, 416
林泉洞　156
林湖洞　94
立　石　13
臨成江　32, 215, 398, 401, 415, 418
醴　泉　13, 95, 98, 124
臨伏山　3·8
臨德嶺　6·3
臨瑛洞　533, 561

(ㅈ)

自開洞　629
自明洞　56
慈山　305, 328, 329
慈山里　291
慈川洞　101, 104, 105
鵲島山　220, 221
場基洞　150, 154
將軍洞　129, 149, 152, 154, 155
長德山　292
長　林　441
長林里　436, 445, 493, 514
長林川　292
長沙洞　23
長　城　745
長　岩　561
長陽里　601

長連里 162
長 原 494
長 箭 291, 301, 302, 303, 314, 326, 351, 382
387, 389, 390, 611, 616
長 津 13, 471, 550
長津嶺 606
長津洲 377, 378, 379, 392, 489, 490, 492, 494
548, 549, 589, 599
長川面 157
長平里 607
長洲院 98
長 興 184, 498, 744
長興洞 51, 543
章興洞 572
獐興里 600
載 寧 15, 398, 423, 427, 446
載 德 533, 554, 561
在德里 555
赤田川 292
全谷里 118
全 州 12, 22, 26, 241, 736
箭灘江 492, 513
店 村 96, 98
丁峰里 458
井 邑 250, 252, 737, 738
定 州 33, 415, 429, 470, 643, 678, 687
停車洞 33
定 平 343, 344, 491, 492, 513
定 坪 33
濟州島 38, 695
濟初里 601
堤 川 13, 110, 133, 744
鳥林山 103, 122, 125, 126, 129, 147, 670
造幕山 556, 561
造山里 312
鳥致院 11, 46, 158, 231, 476
朱南川 564
注文津 16, 65, 171, 294, 295, 296, 300, 310
352, 513, 615, 616
朱 乙 533, 539, 551
周浦里 133
竹 邊 62, 171, 691
竹岩里 161
中江鎭 428, 431, 434, 643
中九洞 154
中大洞 155
中 里 150
中陽里 504, 666
中倉嶺 532, 537, 595
中淸里 635
中 草 160
中 和 179, 368, 410
中興洞 48
中興里 498
曾 坪 27, 161, 162, 163
地境里 291, 292. 327, 328, 329, 332, 333, 490
492, 513, 532, 604
枝 洞 161
智異山 12, 191, 253, 721, 730
芝村里 140, 141
直 洞 508, 601
直 里 602
鎭南浦 178, 179, 255, 351, 354, 355, 356, 398
427, 458, 471, 611, 615, 694, 696, 697
698
珍 島 170
眞木亭 154
眞 寶 26, 61
陳富嶺 302, 314, 321
陳富里 312, 314
珍富里 308
眞安里 92
晋 州 12, 22, 184, 239, 248, 251
鎭 川 161, 162, 163, 166, 167
鎭 海 168, 169, 170, 171, 173, 175, 184, 186
192, 354, 614, 637, 692, 694
眞興里 522, 589, 603

(ㅊ)

昌慶苑 98
昌 寧 9, 223, 233, 236
倉 里 161, 162

昌　原　38
蒼　村　89, 307, 309
倉坪里　605
川內里　49
天磨山　417, 418
天生山　149, 155, 156, 157
天　安　11, 158, 161, 214, 232
泉昌洞　57
鐵　嶺　291, 292, 304, 318, 319, 327, 329, 332
鐵　岩　64
鐵岩山　516
鐵　原　11, 13, 99, 119, 120, 209, 299, 302, 307 314, 319, 326, 328, 398, 428, 429, 435 722, 725, 729, 747
靑　丹　742
淸　道　38
靑里面　158
靑林洞　48
靑山島　170
靑山里　162
靑石頭里　423, 424, 426
靑　松　13, 61, 103, 306
靑廷里　403
靑雲面　99
淸　州　2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6, 203, 414, 462
淸　津　17, 320, 358, 489, 490, 495, 533, 541 546, 551, 554, 709
淸　河　50, 96
淸川江　30, 482, 501, 593, 605, 642, 643, 645 650, 651, 657, 669, 679, 680, 681, 683 686, 690, 726
靑川里　159, 160, 161
淸　平　133, 724
淸　風　141
春　陽　26
春興洞　533, 561
春興里　292
春　川　12, 132, 134, 136, 138, 139, 515, 581 724
忠谷里　56
忠　武　169
忠　州　12, 22, 98, 99, 102, 105, 161, 597
草　溪　25, 236, 237
草　島　170
初　里　600
楚　山　13, 351, 470, 620, 643, 659, 666, 670 671, 674, 675, 676, 677
漆　谷　38, 202
漆琴里　98
七峰山　116

(ㅌ)

搭亘里　165, 402
太白山　721
太白山脈　160, 167, 291, 314, 317, 400, 513 584, 624
泰　川　33, 470, 644, 672, 676, 687, 709
泰　平　671, 672
澤山里　556
土基里　628
土幕洞　543, 570
土城洞　57
兎　山　401, 402, 403, 405, 411
通　川　31, 291, 299, 303, 304, 315, 317, 321 322, 326, 328, 387, 389, 390, 391, 392 627
通峴里　118
統　營　38, 169
退水洞　507
秀達里　513

(ㅍ)

把溪峠　147
把發亘里　500
波　平　164
瑤池場　493
板章里　607
八公山　146, 147, 148, 149, 166, 167
八景台　564
浦　川　291

平 康 11, 99, 327, 328, 398, 428, 429, 430 433, 435, 471, 473, 722, 722, 725, 729 747
平 山 506
平 壤 15, 30, 164, 174, 176, 178, 179, 181 260, 284, 325, 340, 343, 346, 354, 358 368, 376, 397, 398, 400, 401, 402, 406 409 410, 411, 412, 414, 415, 423, 427 428, 430, 433, 434, 435, 436, 441, 442 443, 444, 446, 451, 455, 457, 460, 462 464, 469, 470, 471, 476, 477, 478, 479 482, 483, 580, 597, 627, 643, 645, 648 649, 652, 653, 656, 678, 659, 666, 670 676
平 元 624
平 眞 656
平 昌 26, 26, 295, 296, 307, 475
平 澤 164, 166, 742
平 海 57
坪麟嶺 606
抱 川 99, 435, 473
浦坪里 546
浦 項 9, 21, 94, 101, 168, 171, 291, 293, 294 351, 352, 373, 374, 615
豊 基 13, 110
豊 山 471, 489, 490, 548, 549, 550, 585, 599 601, 656, 678
豊松里 528
豊 揚 672
豊田里 292, 514
皮盤嶺 160

(ㅎ)

下碣隅里 525, 537, 604, 606
下古洞 566
河 東 184, 249, 251
下石里 637
河隅洞 564
下自開洞 627
下地境里 601
下直洞 503
下板洞 154, 155
荷坪里 556
鶴田洞 56
鶴山洞 57
鶴城洞 507, 508, 536, 602
鶴岸洞 55
鶴川洞 48, 56
漢江 11, 649
漢垈里 606
漢 川 156, 260
漢灘江 116
汗 浦 402, 694
汗浦里 416, 420, 421
咸境山脈 492, 506, 601
咸關嶺 494
咸 安 12
咸 陽 12, 249, 251
咸 州 494
咸知院 507
咸 昌 102, 105, 134, 597
咸 平 184
咸 興 13, 17, 192, 292, 337, 342, 343, 377 378 470, 471, 473, 476, 477, 489, 490 492 493, 532, 549, 585, 636, 678, 598 599, 415, 429
合 水 490, 532, 533, 540, 551, 554, 606
恒沙洞 53
海 南 185
海島洞 55
海 州 15, 260, 423, 742, 743
海平浦 148, 157
許嶺洞 550, 552, 554
虛川江 605
縣 里 307, 308
玄 風 9, 21
陜 川 12, 26, 238, 751, 750
兄山江 45, 293
兄弟洞 575
惠山鎭 17, 489, 490, 492, 493, 495, 502, 532 547, 548, 551, 585, 599, 600, 608, 610 709, 715, 719, 742

湖南里　563
虎島半島　325, 514
虎　洞　76
湖浦洞里　502
洪溪洞　48
洪　碧　506, 544, 549, 550
洪　原　470, 473, 489, 529, 532, 549, 604
洪　川　133, 137, 138, 139, 744
花台川　551
化學場　46, 159
花龍洞　563
花山里　292
花下洞　566
和　順　191
華嚴山　397, 417, 418
花田洞　152
華　川　11, 12, 137, 302, 314, 316, 398, 435 444, 471, 476
化　川　291, 313, 315, 316, 327, 328, 330
火樂峠　505, 509, 551
黃谷洞　529, 552, 554
黃石山　292
黃水院里　495, 524
黃龍山　291
黃　州　15, 410, 423, 424, 426, 427, 449 456 721
黃草嶺　522, 592, 603
會　寧　532, 543, 546
會　文　533, 537
淮　陽　13, 304, 309, 315, 316, 317, 318, 319 321, 326, 328, 329, 330, 332, 345, 437 524
懷　仁　159, 160, 161, 162
檜田嶺　314
橫　城　98, 99, 132, 133, 134, 137, 138
孝子洞　55
孝　令　153, 154, 166
後陵山　625
厚　浦　611, 615
厚浦港　61
厚峰嶺　502, 601
黑橋里　398
黑水里　532, 537, 604
興慶里　498
興　南　138, 255, 284, 292, 354, 429, 492, 493 495, 549, 611, 638, 692
興峰里　534, 595
興上里　496, 498
興　海　25, 48
熙　川　12, 47, 434, 622, 643, 644, 658, 659 667, 669, 670, 671, 681, 682

韓國戰爭史 第4卷 合同審議會 芳名錄

부 처	직 위	성 명	서 명
星友俱樂部	專務理事	朴基丙	
韓國戰爭研	副理事	李鍾榮	
星友俱樂部	常任中	咸相喜	
韓國安保		金俊植	
星華本部	編制處長	朴興濬	
星友俱樂部	常任中	申鉉倍	
財務管理局	常任中	許 仿	
作戰企劃局	准將	金貴榮	
J-2	〃	李 [illegible]	
海兵作戰參謀部長	〃	金鍚九	
非常企劃室	常任顧問	李大永	
海軍本部 2部	副部長	李鍾洋	
在伯同人会	常任次長	車文鎬	
〃	大佐	李東王	
〃	〃	吳日台	
國防科學研究所	副所長	金○烈	金○烈
非常企劃室	專門委員	張大林	
陸軍軍史研究所	准將	張泰植	

韓國戰爭史 〈第4卷〉

1971年 12月 15日 印刷

1971年 12月 25日 發行

戰史編纂委員會編纂

發行 國防部

印刷 株式會社 育 昌 社

(不許 無斷 複製)